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txt

제목: 암요양병원, 단순 요양 넘어 집중적인 치료도 가능  
날짜: 201612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30113330001  
본문: 현대의학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암은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정도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암 치료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발병 초기인 암에 국한되는 것이 보통이며 ‘완치’를 기대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겪는 고통도 상당하다.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재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투병생활 중인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 암요양병원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요양병원수는 최근 10년 사이 40%나 늘었다.최근에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시너지 효과를 토대로 하는 양한방통합치료가 주목 받고 있다. 환자의 면역력 향상을 치료의 기본으로 하고, 항암치료와 방사선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경감시킴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양한방통합치료의 목적이다.청평푸른숲한방병원 박상채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한방치료를 병행함으로써 항암유효반응률을 상승시키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면역치료로 암이 상당부분 호전된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한방항암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span>”고 전했다.전문가들은 양한방통합치료를 위해서는 1차 치료를 시행하는 대형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으로의 이동성이 좋으면서도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암치료 프로그램을 갖춘 요양병원을 선택하라고 조언한다.또한 암환자의 면역력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기에, 도심을 벗어나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병원도 좋다. 박상채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건강한 사람도 체내에 돌연변이 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력에 비밀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한의학에서는 건강한 생활습관과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면역치료가 암을 완화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span>”고 설명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txt

제목: 아이는 ‘하늘 소풍’ 간 걸까…소풍의 기회를 빼앗긴 걸까  
날짜: 20161229  
기자: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29212208003  
본문: ㆍ‘부모 권리 - 치료 의무’ 논쟁 불렀던 호주 꼬마 키스코 숨져아이에게 고통을 줄 것이 뻔한 치료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옳을까, 생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계속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옳을까. 이 문제를 고민하게 만든 호주의 6세 소년 오신 키스코가 악성뇌종양 투병 끝에 28일(현지시간) 새벽 세상을 떠났다.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현지 언론은 이날 키스코가 서부 퍼스의 집에서 엄마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고 보도했다. 엄마 앤젤라는 “키스코의 여정은 너무나 험난했다”면서 “아들이 더 이상 악몽 같은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아이는 떠났지만 아이의 생사여탈을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옳으냐는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현지언론 세븐뉴스는 “논쟁으로 나라를 둘로 가른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육아 사이트에는 “여섯 살 아이에게 판단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지만, 아이가 살 가능성이 있는데 왜 부모가 진통 치료만 했는지 모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키스코는 지난해 12월 뇌종양 판정을 받은 뒤 퍼스의 마거릿공주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아이를 담당한 의사들은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부모에게 알렸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영구적인 지적장애 등 부작용이 심할 수 있다면서 거부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서호주가정법원에 강제 치료를 명령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3월 법원은 화학요법을 받게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방사선치료는 부모가 계속 거부하자 소송이 계속됐다. 앤젤라는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나라면 그런 치료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왜 아들에게 그토록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해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법정 싸움이 이어지면서 이 사건은 ‘부모의 권리’와 ‘치료 의무’를 둘러싼 전국적인 논쟁으로 번졌다. 의료진은 방사선치료까지 했다면 생존확률이 최소 30% 이상은 됐을 것이라고 했으나, 부모는 “<span class='quot0'>극심한 고통과 부작용을 안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아시아의 대체요법이 더 나을 것</span>”이라며 맞섰다. 특히 엄마 앤젤라는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와 시어머니의 투병을 지켜보면서 생각을 굳혔다”며 아이가 평화롭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방사선치료는 끝까지 거부했다. 지난 9월 법원은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키스코의 상태가 이미 많이 악화돼 강도 높은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통증완화 치료만 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다만 법원은 이 판결이 다른 결정의 선례가 돼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부모의 결정권이 의료진의 판단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생존을 이어가는 것보다 삶의 질이 먼저라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판사는 “<span class='quot1'>치료를 둘러싼 갈등이 오래갈수록 아이에게 쏟아야 할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흩어질까 걱정했고, 오로지 아이에게 득이 되느냐만 고려했다</span>”고 말했다.부모는 모든 치료를 중단시키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아들과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키스코는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내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의 장례식 때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던 앤젤라는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txt

제목: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대상포진’, 예방과 치료법은?  
날짜: 201612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29105513001  
본문: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통증이 심한 질환 중 대표적인 게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소아기에 수두를 일으킨 뒤 몸 속에 잠복해 있다가 신체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성화돼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일단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 피부에 병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붉은 반점이 신경을 따라 나타난 후 여러 개의 물집이 무리를 지어 나타난다. 대상포진 환자 중 96%는 급성 통증을 경험하며, 이중 20%이상의 환자들은 만성적인 통증이 지속된다. 강도 역시 심해 대상포진 통증은 흔히 출산통이나 만성 암 환자의 통증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현대인들이 늘어나면서 대상포진 발병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가 2010년 48만3000여명에서 2015년에는 66만6000여명으로 18만 명 이상 증가했다. 특히, 대상포진의 경우 60~70대 고령 환자의 비율이 높지만, 20~30대 환자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대상포진은 대부분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치료를 시작하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피부 병변은 2-3주안에 완전히 치유되지만 고령의 노인이나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된 일부 환자에서는 신경을 따라 발생하는 만성적인 통증은 피부 병변의 치유이후에도 지속된다. 수원 기찬마취통증의학과 한경림 원장은 “<span class='quot0'>대상포진 환자 중 약 20% 정도에서는 피부발진이 완전히 치유된 이후에도 신경통이 지속되는데, 나이에 비례하여 만성적인 신경통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아 70대 환자의 경우 절반 이상에서 피부 상처가 치유된 이후에도 신경통으로 고생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따라서 이러한 만성적인 대상포진후신경통을 대상포진감염의 가장 흔하고 무서운 합병증이기 때문에 급성기 통증이 심하거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에 대한 치료를 조기에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 고 전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병으로 재발의 가능성은 약 5%로 높지 않으나 면역력이 저하되어있는 경우에는 재발되거나 한번 발생한 후 통증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면역력을 높힐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가벼운 운동과 영양가 있는 식단,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는 한편 음주와 흡연, 과로 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txt

제목: 뒤늦게 알려진 영국 팝스타 조지 마이클의 선행 “그가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는지 모를 것”  
날짜: 20161227  
기자: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27212615004  
본문: 성탄절에 세상을 떠난 ‘라스트 크리스마스’로 유명한 영국 팝스타 조지 마이클(사진)의 선행이 그의 사망 뒤에 뒤늦게 알려졌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마이클이 어린이 후원센터 ‘차일드라인’에 기부해 많은 어린이를 도왔고, 에이즈 감염자 지원 단체인 ‘테렌스 히긴스 재단’과 ‘맥밀런 암 지원센터’ 등 많은 단체를 후원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렌스 히긴스 재단의 제인 배런은 마이클이 동성 파트너인 안셀모 펠레파를 에이즈로 잃은 뒤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재단에 후원해 왔다고 전했다. 마이클이 1991년 앨튼 존과 부른 ‘돈 렛 더 선 고 다운 온 미’의 인세도 이 단체에 돌아가고 있다. 차일드라인의 창립자인 에스터 란첸 회장은 마이클이 1996년 발표한 곡 ‘지저스 투 어 차일드’의 저작권을 단체에 넘겼다고 밝혔다. 란첸 회장은 “<span class='quot0'>그는 차일드라인에 돈을 기부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아 사람들은 그가 어린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는지 모를 것</span>”이라고 말했다. 마이클은 1997년 모친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는 거의 10년 동안 어머니를 돌봐준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 간호사들을 위해 무료 콘서트를 열었고, 맥밀런 암 지원센터의 대사로 활동하며 암 환자를 위해 계속 지원했다. 트위터에는 학생 시절 빚 때문에 바텐더로 일할 때 마이클이 5000파운드를 팁으로 줬다는 증언부터, 체외 수정 시술이 필요한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1만5000파운드(약 2200만원)를 줬다는 이야기 등 그의 알려지지 않은 선행을 공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txt

제목: [상생특집]아모레퍼시픽 - 암치료 여성 환우 자신감 회복 위한 ‘뷰티 클리닉’  
날짜: 20161227  
기자: 최병태 기획위원 cbta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27202949002  
본문: (주)아모레퍼시픽(아모레) 사회공헌활동은 공익재단을 설립해 운영·후원하는 부문과 직접 참여하는 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익사업의 전문성을 살리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을 위해 공익재단 설립 시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있다. 재단 운영과 고유의 목적 사업을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공익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기업시민으로서 기업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구성원이 함께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2008년부터 시작된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 암 환우들에게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환우들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고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캠페인에서는 서울 및 전국 주요 지역 35개 병원, 1500여명 환우들을 대상으로 500여명의 아모레 카운슬러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txt

제목: 폐암 췌장암 진단 환자 80%는 ‘3기 이상’…재발율도 높아 초기 치료 중요  
날짜: 20161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27173924001  
본문: 우리나라의 전체 암 5년 상대생존율은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미국의 60% 수준을 넘는 수치로 암 치료 환경에 있어서는 많은 진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통계 수치도 폐암과 췌장암에서는 만큼은 예외로 적용된다. 현재 폐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25.1% / 췌장암은 불과 10.1%로 생존율이 높지 못하다. 특히 췌장암의 경우 지난 20년간 단 0.7%p의 증가를 보였다. 의료기술의 발달하면서 여러 불치병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암은 불치의 영역에 놓여 있는 이유다.폐암은 폐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을 뜻하며, 특히 남성에게는 위암 다음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질병이다. 사망률 역시 전체 암종 중 단연 최고로 지난 한해 17,399명이 폐암으로 인해 사망하였다.폐암 환자 중 1기와 2기 환자는 수술적 방법을 통해 치료될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지만, 전체 환자의 20%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80% 환자는 3기 이상에서 진단 받기에 문제가 된다. 특히, 4기 환자는 전이가 이미 시작된 경우이며, 전체 환자 중 40%가 넘기 때문에 폐암의 평균 치료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수술을 받은 환자라 해도 약 20~50%에 나타나는 재발은 폐암의 생존율을 더욱 낮추는 요인이기도 하다.항암화학요법은 대부분의 폐암 환자들에게 권고되는 표준요법이다. 폐암 3기 이상에서는 치료에 제약이 많아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요법에 생사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화학항암제는 치료 과정에서 항암부작용 발생할 확률이 높다. 또한 유효반응율 역시 평균 30%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효반응율이란 항암치료 후 종양의 축소 가능율을 말한다.하나통합한의원 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0'>폐암은 항암 치료시 다양한 항암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암면역치료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span>”면서 “<span class='quot0'>3~4기 암환자는 항암화학요법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장기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항암제 유효반응율을 끌어올리는 치료가 필요하다</span>”고 조언했다.유효반응률을 높여 생존률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양한방 통합암치료법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하나통합한의원의 한방면역항암제 티버스터는 화학항암제와 병행할 경우, 화학항암제 유효반응률을 최대 80%까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나통합한의원의 티버스터는 SCI급 논문(치종단의 A549 비소세포성폐암주에서의 항암기전)’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어있는 치료제이다. 특히 폐암과 대장암, 췌장암, 육종암에서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줄기세포 치료센터 Mary’s Orthopedic Hospital, Beijing과 MOU 체결을 앞둔 하나통합한의원은 향후 중국에 베이징 지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txt

제목: 반올림, 삼성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 집단 산재신청…2008년 이후 12번째  
날짜: 20161227  
기자: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27160559001  
본문: 1994년 고등학교 졸업 직후 삼성반도체에 입사해 기흥공장에서 근무한 김모씨(41)는 디퓨전 공정에서 오퍼레이터(생산직) 업무를 맡았다. 14년 이상 반도체를 만드는 클린룸에서 일한 김씨는 지난해 2월 퇴사했다. 그 해 6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나 한달도 안 돼 숨을 거뒀다. 김씨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2007년 사망해 직업병 문제를 처음 세상에 알린 황유미씨(당시 나이 23세)와 같은 라인, 같은 공정에서 일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가 2008년 첫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산재신청을 낸 이후 12번째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를 비롯해 삼성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나 뇌종양, 악성림프종 등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5명에 대한 추가 신청이다. 이번 산재 신청자 중에는 김씨처럼 짧은 기간에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숨진 사람도 있고, 투병 중인 사람도 있다. 1999년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한 또 다른 김모씨(45)는 PC·TV용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김씨는 천안, 아산공장을 거쳐 중국 소주 소재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년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4월 사망했다. 이외에도 삼성SDI 천안공장 PDP 생산라인에서 유해물질인 감광제와 솔벤트를 취급하다가 지난해 악성림프종이 발생한 신모씨(35)와, 삼성반도체 공장을 퇴직한 후 유방암, 난소암을 얻은 여성 2명도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반올림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삼성반도체·디스플레이 출신 환자는 60명이다. 그 중 6명만 산재 승인을 받았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span class='quot0'>삼성 직업병 관련 추가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며 그 중 산재 신청을 원하는 분들과 유가족의 바램에 따라 집단신청을 낸 것</span>”이라고 했다. 반올림은 “반도체, LCD 등 첨단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암과 백혈병 피해가 심각한데도 삼성은 여전히 화학물질 및 작업환경 정보를 영업비밀로 취급하며 비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삼성과 고용노동부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전진단보고서를 위·변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15일 반올림과 참여연대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txt

제목: 메가비타민 치료, 항암치료 부작용 막는다  
날짜: 20161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26131812001  
본문: 암 환자들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항암치료로 인한 부작용이다. 실제로 항암치료를 받다 보면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빈혈은 백혈구와 혈소판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항암 치료 중 환자들이 흔히 겪는 부작용 중 하나다. 항암치료의 부작용은 환자의 신체적 컨디션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주어 항암 치료에 악영향을 끼친다. 최근에는 메가 비타민 치료가 '항암 치료의 부작용 억제 효과'가 있어 주목 받고 있다. 메가 비타민치료는 메가 용량의 비타민을 정맥으로 공급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암세포 파괴와 함께 정상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부작용을 막아주는 것이다.암세포는 당을 먹으면서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당분과 구조식이 똑같은 비타민을 체내에 투여해 암세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당분의 공급을 차단하는 원리다. 한 마디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치료법으로 볼 수 있고, 정상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므로 암 환자들이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효율적인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보통 1~10g의 비타민을 고용량 비타민으로, 10g 이상의 비타민을 메가 비타민이라고 정의한다. 비타민 C는 체내에 흡수된 후, 피로감을 해소하고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며 면역력을 키우는 대표적인 영양소다. 만성 피로 환자와 알레르기, 아토피 등 피부 질환 환자에게 치료제 역할을 하며, 자폐아와 발달 장애 등 뇌 의학적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도 효과를 보인다. 염창환 병원은 이러한 메가 비타민 치료에 주목하고 연구를 계속해 온 바 있다. 2002년과 2011년에 미국 캔자스 주에 소재한 리오단 클리닉을 방문해 실제 진행 중인 암 환자에 대한 비타민 치료를 배웠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대한 비타민연구회를 설립했다. 염창환 박사는 우리나라에 비타민 치료를 보급하고 암 환자에 대한 비타민 치료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주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리오단 아카데미를 통해 다른 의사들에게 비타민 치료를 꾸준히 전파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txt

제목: [키워드로 본 2016 경제](6)알파고, 인공지능 열풍 불다  
날짜: 20161225  
기자: 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25205501002  
본문: ㆍ기계와의 대결서 진 인간 ‘충격’…미래 사회에 공포와 기대 안겨 ㆍIT회사들, 관련 기술 개발 박차올해 초 구글의 자회사인 딥마인드가 내놓은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이 벌인 바둑 대국은 ‘세기의 대결’이라 불리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승자인 알파고는 국내외에 인공지능(AI)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바둑은 경우의 수가 10의 170제곱에 달할 정도로 복잡, 고도의 사고력을 필요로 해 기계가 넘볼 수 없는 게임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대국 전 이 9단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첫 대국부터 알파고가 이겼고 결국 4 대 1의 승리를 거뒀다. 이 9단은 알파고와의 두 번째 대국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약점을 찾을 수 없었다. 완전한 나의 패배”라고 말해 알파고의 실력을 인정했다.알파고는 기계학습(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이다. 알파고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뒤 패턴을 찾아내 추론과 판단까지 할 수 있다. 특히 바둑에 최적화돼 설계됐다. 알파고는 인간의 뇌가 사고하는 방식을 본떠 만든 인공신경망 기술이 적용돼 이전 인공지능과 비교해 사고력이 향상됐다.인공지능은 그동안 공상과학 소설의 소재로 먼 미래에나 나올 법한 것으로 생각돼왔다. 그러나 이미 현실에 적용되기 시작,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공지능을 꼽고 있을 정도다. 헬스케어 및 의료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의사가 진료를 시작했다.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은 지난 5일 가천 길병원에서 첫 진료를 했다. 임상실험 사례 등을 학습해온 왓슨은 암환자의 특성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치료 방법을 제안한다. 구글도 의료 분야 인공지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국제학술지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에 ‘당뇨성 망막병증’을 진단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기술 관련 논문을 게재했다. 당뇨성 망막병증은 조기 진단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자각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가 어렵다. 구글 측은 12만개 이상의 망막 사진을 학습해 진단을 내렸는데 이는 일반 의사 8명이 진단한 것과 비교해 정확도가 높았다.최근 구글과 네이버는 인공신경망 기계학습 기술이 적용된 번역기를 내놓기도 했다. 통계적 방식을 이용한 기존 번역기보다 정확도가 높고 자연스러운 번역 결과물을 내놓아 이용자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국내외 인터넷업체들은 음성인식 인공지능 제품을 내놓기도 했다. 구글의 구글홈, 애플의 시리, SK텔레콤의 누구 등이 그 결과물이다. 이들은 사용자의 말을 알아듣고 날씨를 알려주거나 물품 주문 및 배송을 해주는 등 사용자가 원하는 일을 해준다. 알파고의 충격과 각 분야에서 이어지는 인공지능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도 투자 계획을 내놨다. 해외 인공지능 기술 수준을 10으로 봤을 때 아직 7 정도에 머물러 있는 국내 인공지능 기술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26년까지 국내 인공지능 기술을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세운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미르재단’이라 평가받으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0.txt

제목: [TV하이라이트]2016년 12월 26일  
날짜: 20161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25201819001  
본문: ■암 재발에도…봉사 떠난 의료선인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필리핀 오지에서 27년째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는 외과의사 박누가씨의 이야기를 전한다. 박씨는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필리핀 사람들을 찾아가 치료해주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그에게 위암이 재발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먼저인 그는 오늘도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남호주 애들레이드의 성탄절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50분) = 생명력이 넘치는 미지의 땅 남호주로 떠난다. 먼저 남호주의 수도인 애들레이드로 향한다. 애들레이드에선 1년에 단 한 번만 열린다는 80여년 전통의 크리스마스 축제가 한창이다. 도시 중심가 3.3㎞의 길을 따라 170여개의 팀이 화려한 행진을 이어나간다. 애들레이드에서 펼쳐지는 한여름의 뜨거운 크리스마스 축제 현장을 함께 들여다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1.txt

제목: 2년 전 AI 살처분 닭·오리 60%는 ‘정상’이었다  
날짜: 20161225  
기자: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25190432001  
본문: ㆍ‘여전히 주먹구구’ AI 방역 대책2014년 국내를 휩쓸었던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된 닭·오리의 60% 이상은 ‘정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적이고 정교한 살처분 범위 확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수년째 이어졌지만 정부는 개선하지 못했다. 올해는 도리어 발생 농장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역대 최대 살처분 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에는 경남 양산시 산란계 농장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경남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것은 처음이며 AI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이제 경북과 제주뿐이다.2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2015년 AI 발생·확산 원인 및 재발방지 방안 연구(AI 백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9월 195일간 확진 또는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된 1396만마리 중 869만8241마리(62.31%)가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10마리 중 6마리가 AI 음성 결과를 받은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앞으로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살처분은 발생 농장 위주로 하고, 방역대 내 농장에서는 역학관계·축종·발생시기 등을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을 지양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방역당국이 AI 청정국 유지를 명분으로 대규모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해 가격 구조를 왜곡하면서 공장식 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매년 AI가 이어질 때마다 정부는 수천만~수억원 경비를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방역 구멍은 여전했다. 지난 8월 완료된 ‘살처분·이동통제 범위 등에 대한 오리·닭 등 품목별 현 국가 예찰 및 방역시스템의 평가와 개선 방안 연구’를 보면 2014~2015년 발생한 H5N8형 AI는 사람에 의한 전파가 가장 심각한 원인이었다. 총발생 201건 중 축주(농장주) 및 관계자에 의한 확산이 62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60건(29.7%), 철새 및 야생조류 37건(18.3%), 인근 전파 26건(12.9%) 등 순이었다. 보고서는 “농가에서의 차량, 축주 및 관계자, 인근 전파, 철새 등 4가지 유입경로를 관리하면 AI 전파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으나 올해 방역에서는 4가지 중 어떤 것도 통제하지 못했다.2014년엔 지나친 살처분이 문제였다면 올해는 기본도 못하는 방역이 AI 사태를 키우고 있다. 발생 농장에서 생기는 살처분 수요도 감당하지 못해 정부가 AI를 일파만파로 확산시킨다는 비판이다. 농식품부는 25일 0시 기준 확진·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된 닭·오리가 2569만1000마리(살처분 예정 226만마리 포함)에 달한다고 밝혔다.동물복지축산농장인 동일농장 삼성지점 3㎞ 인근에서 지난달 24~27일 AI가 발생했다. ‘24시간 내 살처분’이 원칙이지만 해당 농장들은 20일을 넘긴 지난 16일에야 살처분이 끝났다. 결국 동일농장 삼성지점에도 지난 12일 AI가 발병했다. 홍기훈 동일농장 대표는 “<span class='quot1'>정부는 2014년 감기 환자에게 암 처방을 하더니 올해는 암 환자에게 감기 처방을 하는 격</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와 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탓에 긴급 살처분을 해야 할 발병 농가조차 살처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2.txt

제목: 암 4기 진단 받은 젊은 엄마들의 1년  
날짜: 20161221  
기자: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21201352003  
본문: ㆍKBS1 ‘KBS 스페셜’KBS 1TV <KBS 스페셜>은 암 4기 판정을 받은 젊은 엄마들의 투병기를 조명한 3부작 ‘앎’을 방송한다.22일 방영되는 1부 ‘엄마의 자리’ 편은 회원 수 4만7000여명의 인터넷 암환우 커뮤니티 ‘아름다운 동행’에서 만난 암 4기 젊은 엄마들의 1년을 기록했다. 4기 암 환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어린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 덜컥 암 4기 진단을 받은 30~40대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위해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기도한다.2부 ‘서진아 엄마는’ 편에서는 중학교 음악교사로 근무하던 2년 전 배가 아파 찾아간 병원에서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은 ‘서진맘’ 김정화씨의 소망을 전한다. 서진이를 초등학교에 보낼 때까지 버티는 것이 김씨의 간절한 희망이다. 3부 ‘에디냐와 함께한 4년’ 편에서는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가 강릉에 세운 한국 최초의 호스피스 갈바리의원을 찾아간다. 제작진은 이곳에서 100일을 머물면서 원장수녀인 에디냐 수녀와 함께 임종자의 마지막 시간을 동행했다. 방송은 22~23일 오후 10시, 25일 오후 10시30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3.txt

제목: 한국 신규 암환자 1만여명 줄었는데…알고 보니 ‘갑상샘암의 착시’  
날짜: 20161220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20224500001  
본문: ㆍ갑상샘암 제외 땐 2000명 증가…5년 상대 생존율도 63%로 ‘뚝’ ㆍ국립암센터 ‘2014 통계’한국 암 발생률이 3년 연속 하락했다. 인구 10만명당 신규 암환자 수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3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암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도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는 암환자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갑상샘암이 빚어낸 착시현상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암 발생률·생존율·유병률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암 발생률(인구 10만명당 신규 암환자 수)은 2014년 10만명당 289.1명(남자 312.4명, 여자 282.9명)을 기록하며 2008년(292.3명) 이후 처음으로 300명 밑으로 내려왔다. 2011년 324.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암 정복’이 희망적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착한 암’이라 불리는 갑상샘암을 통계에서 걷어내면 암의 위력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2014년 신규 암환자 수는 21만7057명으로 전년도(22만7188)에 비해 1만131명이 줄었다. 그러나 전체 암환자 수 감소분은 갑상샘암환자 감소분보다 적었다. 갑상샘암은 2013년 신규환자가 4만2823명에서 2014년 3만806명으로 1만2017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돼, 결국 갑상샘암을 제외한 다른 암은 되레 2000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갑상샘암은 ‘과잉진단 논란’으로 발견 및 수술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암통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체 신규 암환자의 30% 이상을 차지했던 감상샘암 진단이 줄어들면서 암 발생률 자체가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2014년 통계에서도 주요 암 10종 중 발생자 수 자체가 줄어든 것은 갑상샘암과 위암, 대장암, 간암뿐이었다. 오히려 나머지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등 6개 암은 신규환자 수가 소폭 증가했다.암환자와 성별, 연령 등이 동일한 일반인의 5년 생존율과 암환자 생존율을 비교한 5년 상대 생존율도 마찬가지다. 2010~2014년 암환자 5년 상대 생존율은 70%를 넘어섰지만, 갑상샘암을 제외하면 63.1%로 뚝 떨어진다. 갑상샘암 포함 여부에 따른 상대 생존율의 차이는 1993~1995년 0.9%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점점 차가 커져 2011~2015년 7.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갑상샘암은 상대 생존율이 100.2%로 일반인보다 오히려 더 높다. 갑상샘암은 천천히 자라 생명에 대한 위협이 적은 반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생존율이 높은 암은 갑상샘암에 이어 전립선암(93.3%), 유방암(92.0%) 등이 차지했다. 반면 생존율이 낮은 암은 췌장암(10.1%), 폐암(25.1%), 간암(32.8%) 순이었다. 한국인이 기대수명(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로 집계됐다. 남자(79세)는 5명 중 2명(38.7%), 여자(85세)는 3명 중 1명(33.1%)에게 암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4.txt

제목: ‘진료 남용 막기’ 새 기본형 실손보험 나온다  
날짜: 20161220  
기자: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20175210001  
본문: 딱히 필요치도 않은데 과잉진료 의심을 받아온 도수치료(손으로 근육, 뼈 등을 마사지하는 의료행위) 등은 ‘특약 보장’으로 따로 떼내서 보험료를 25% 낮춘 기본형 실손보험 상품이 내년 4월 선보인다.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10% 깎아주는 방법도 생긴다. 이는 현행 실손보험에서 남용돼온 도수치료, 마늘주사 등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그러나 비급여 의료비의 표준화 같은 근본 해결책이 빠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벌써 나온다.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기본형 외에 소비자가 꼭 필요한 건 특약으로 골라서 가입토록 구분한 게 핵심이다.국민 약 32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부분에서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자 상위 10%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50~60%를 받아가면서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이를 80%의 선량한 피해자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실손보험료가 10년 내 2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추산된다.새 실손보험 상품은 크게 기본형과 3가지 특약 형태로 나뉜다. 기본형은 대다수 질병과 상해를 보장한다. 특약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마늘주사·신데렐라주사 등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3가지로 분류된다.특약에는 보장 한도와 횟수가 설정된다. 도수치료를 보장하는 특약 1번은 연 350만원 한도에서 50회까지 허용된다. 비급여주사제 특약 2번은 연 250만원 한도에서 50회로 제한된다. 비급여 MRI를 보장하는 특약 3번은 횟수 제한은 없지만 연 300만원 한도까지만 가능하다. 특약 가입자의 자기부담율은 종전 20%에서 30%로 올라간다. 기본형의 자기부담률은 20% 그대로다.기본형만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는 평균 25% 저렴해진다고 당국은 밝혔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의 실손보험료가 현재 1만9429만원인데, 기본형만 가입하면 1만4309원으로 약 26.4% 내려가고 특약 3개를 다 선택해도 지금보다 6.8% 저렴해진다. 또 새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2년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내년 4월 나오는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 일단 같은 회사 실손보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만 가능하다.또 2018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을 암보험 등 다른 보험과 묶어 팔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사망보험이나 암보험과 실손보험을 묶어서 판매, 보험료가 월 10만원 내외로 높았다. 단독형으로만 가입하면 보험료는 월 1~2만원대로 줄어들 수도 있다.특히 병원마다 제각각인 명칭과 비용 등으로 논란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올해 100개, 내년 100개씩 단계별로 표준화 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병원도 현재 2041개에서 내년에 3739개로 늘어난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span class='quot0'>특약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기본형 상품과 특약을 모두 가입해도 기존보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설계했다</span>”고 말했다.그러나 비급여 표준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한 이번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비급여 항목이 1만여개 훨씬 넘는데 내년까지 표준화하는 항목은 고작 200개다. 이 와중에 병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치료를 내세워 ‘의료쇼핑’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새로 기본형 보험상품에다 몇천원만 더하면 얼마든지 도수치료 등을 받을 수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상품 구조를 바꾸는 위주의 이번 대책은 미흡하다</span>”며 “<span class='quot1'>비급여 표준화를 확대하지 않는 한 새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는 등 과잉진료는 계속 될 것</span>”이라고 걱정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5.txt

제목: ‘도수치료·MRI는 특약’ 싼 실손보험 나온다  
날짜: 20161220  
기자: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20111253001  
본문: ㆍ3가지 특약 분리해 한도·횟수 제한…진료 남용 막기 ㆍ내년 4월 출시…2년간 보험금 청구 안 하면 10% 할인딱히 필요치도 않은데 과잉진료 의심을 받아온 도수치료(손으로 근육, 뼈 등을 마사지하는 의료행위) 등은 ‘특약 보장’으로 따로 떼어 보험료를 25% 낮춘 기본형 실손보험 상품이 내년 4월 선보인다.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10% 깎아주는 방법도 생긴다. 이는 현행 실손보험에서 남용돼온 도수치료, 마늘주사 등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그러나 비급여 의료비의 표준화 같은 근본 해결책이 빠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벌써 나온다.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기본형 외에 소비자가 꼭 필요한 건 특약으로 골라서 가입하도록 구분한 게 핵심이다.국민 약 32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부분에서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자 상위 10%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50~60%를 받아 가면서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이를 80%의 선량한 피해자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실손보험료가 10년 내 2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추산된다.새 실손보험 상품은 크게 기본형과 3가지 특약 형태로 나뉜다. 기본형은 대다수 질병과 상해를 보장한다. 특약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마늘주사·신데렐라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3가지로 분류된다.특약에는 보장 한도와 횟수가 설정된다. 도수치료를 보장하는 특약 1번은 연 350만원 한도에서 50회까지 허용된다. 비급여 주사제 특약 2번은 연 250만원 한도에서 50회로 제한된다. 비급여 MRI를 보장하는 특약 3번은 횟수 제한은 없지만 연 300만원 한도까지만 가능하다. 특약 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은 종전 20%에서 30%로 올라간다. 기본형의 자기부담률은 20% 그대로다.기본형만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는 평균 25% 저렴해진다고 당국은 밝혔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의 실손보험료가 현재 1만9429만원인데, 기본형만 가입하면 1만4309원으로 약 26.4% 내려가고 특약 3개를 다 선택해도 지금보다 6.8% 저렴해진다. 또 새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2년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내년 4월 나오는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 일단 같은 회사 실손보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만 가능하다.또 2018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을 암보험 등 다른 보험과 묶어 팔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사망보험이나 암보험과 실손보험을 묶어서 판매, 보험료가 월 10만원 내외로 높았다. 단독형으로만 가입하면 보험료는 월 1~2만원대로 줄어들 수도 있다.특히 병원마다 제각각인 명칭과 비용 등으로 논란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올해 100개, 내년 100개씩 단계별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병원도 현재 2041개에서 내년에 3739개로 늘어난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span class='quot0'>특약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기본형 상품과 특약을 모두 가입해도 기존보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설계했다</span>”고 말했다.그러나 비급여 표준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한 이번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비급여 항목이 1만여개가 훨씬 넘는데 내년까지 표준화하는 항목은 고작 200개다. 이 와중에 병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치료를 내세워 ‘의료쇼핑’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새로 기본형 보험상품에다 몇천원만 더하면 얼마든지 도수치료 등을 받을 수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상품 구조를 바꾸는 위주의 이번 대책은 미흡하다</span>”며 “<span class='quot1'>비급여 표준화를 확대하지 않는 한 새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는 등 과잉진료는 계속될 것</span>”이라고 걱정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6.txt

제목: [황윤의 초록마녀 빗자루]AI 살처분, 21세기의 학살  
날짜: 20161215  
기자: 황윤 영화감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15203113002  
본문: 2016년은 두 개의 ‘AI’ 시대가 교차하는 시간이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인공지능이 인간지능과 겨루고 우주를 탐험하는 시대에, 인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겨내지 못해 중세시대 흑사병에 준하는 난리를 겪고 있다. 매일 수만, 수십만 생명을 땅에 묻는 대학살을 저지르고 있다. 닭, 오리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이되어 대규모로 퍼질까 벌벌 떨고 있다. 문을 겹겹으로 닫고 방역을 해도 전염병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해답을 알려면, 원인을 알아야 할 것이다.인류는 수백만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전염병을 겪지 않았다. 아무도 홍역, 천연두, 독감에 걸리지 않았다. 1만년 전까지는 말이다. 그렇다면, 1만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인류는 야생동물을 붙잡아 가축화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의학 인류학자들은 인류 진화의 시작으로부터 질병의 3개 주요 시기를 확인했다. 첫 번째 시기는 야생동물을 가축화한 1만년 전. 야생에서 살던 동물들을 소유하고 길들이기 시작하면서 질병도 같이 들어왔다. 소와 양을 가축화할 때 홍역 바이러스를 같이 들여왔다. 천연두는 낙타에서 왔다. 백일해는 야생 돼지를 가축으로 만들면서 얻게 됐다. 닭을 가축화하면서 장티푸스를 얻었고, 오리를 가축화하면서 독감에 걸렸다. 나병은 물소에서, 일반감기는 말에서 왔다.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명저 <총, 균, 쇠>는 질문한다. 북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유럽인이 왜 원주민의 질병에 당하지 않고 어째서 유럽인의 질병으로 원주민 95%가 죽었는가.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전에 가축화된 버펄로는 없었고 따라서 홍역도 없었다. 돼지가 없으니까 백일해도 없었고, 닭이 없으니까 장티푸스도 없었다. 반면 유럽인은 야생동물 가축화로 이런 질병들을 얻었고, 수백만명이 죽었고, 아메리카 대륙 침략으로 이 질병들을 퍼뜨렸다.두 번째로 찾아온 인류 질병의 큰 시기는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시작됐다. 당뇨, 비만, 심장병, 암 등 ‘문병의 질병’이라 불리는 질병들이 만연하게 됐다. 하지만 적어도 전염병만큼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끝났다고 생각했다. 페니실린 덕분이다. 소아마비와 천연두를 박멸했다. 전염병을 상대로 한 전쟁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전염병 추세는 최근 다시 반전된다. 1975년 즈음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의 수가 다시 증가한다. 과거의 전염병과는 또 다른 전염병이었다. 30년 만에 30개 이상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미국 의학 연구소는 이를 ‘미생물 위협의 대재앙’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지금 불과 30여년 전에 시작된, 인류 질병의 3기 시대를 맞고 있다. 최근 무엇이 변해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일까?21세기 전염병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FAO), 유엔, 그리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이 신종질병을 출현하게 하고 전파하게 하는 원인을 찾아냈다. 외래종을 애완동물로 삼기 위한 밀반입 무역, 그리고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행위가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그보다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전 세계에 걸쳐 동물단백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문제였다. 고기를 많이 먹는 것, 그리고 그를 가능케 하는 공장식 축산이 ‘미생물 대재앙’의 원인이라 규명된 것이다. 육식과 사육이 문제라고? 인간은 이미 선사시대부터 다른 동물을 길들이고 먹어오지 않았는가? 뭐가 문제인가? 그렇다. 인류는 1만년 전에 비인간 동물을 가축화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을 지금처럼 대하지 않았다. 닭들은 마당과 뒤뜰에서 햇빛을 받으며 뛰어다녔고 부리를 땅바닥에 쪼았다. 현재 고기를 위해 길러지는 닭들은 햇빛이 닿지 않는 밀폐된 축사 안에 수십만마리가 수용돼 밀집 사육되고 있다. 세계의 질병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공장식 축산이 고병원성 바이러스의 온상이며, 강력한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한결같이 증명하고 있다. 에이즈의 원인인 HIV 바이러스가 체액으로 전파되는 것과 다르게, 인플루엔자는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며 몇 달 만에 인류의 절반을 감염시킬 수 있는 병원체로 간주된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원인은 공장식 축산의 세계화, 육류 소비의 증가에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화 전문가인 얼 브라운은 “<span class='quot0'>고밀도 닭 사육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화를 위한 완벽한 환경이 될 것</span>”이라고 말한다. 반면 방사 사육되는 닭,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의 닭들은 AI로부터 무사하다. 자외선과 햇빛은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햇빛에 직접 30분만 쏘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완전히 활동을 멈추지만 그늘에서는 며칠간 지속될 수 있고, 습기를 머금은 거름에서는 몇 주도 버틴다.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역대 최악의 재해로 번지고 있다. 최초 발생 이후 한 달이 채 안되는 12월15일 현재까지 무려 1400만마리의 닭, 오리 등이 살처분됐다. 2014년에는 100여일에 걸쳐 1400만마리가 도살 처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역대 최단기간 최대피해를 입어 기록을 경신했다. 이 엄청난 전염병을 살처분과 소독으로 막을 수 있을 리 만무하다. 문제는 공장식 축산이다. 대체 얼마나 더 말해야 이 위험을 인식할 것이며, 얼마나 더 경고해야 똑같은 학살을 중단할 것인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7.txt

제목: [김이재의 지리적 상상력]올림머리보다 히잡이 나은 이유  
날짜: 20161214  
기자: 김이재 문화지리학자·경인교대 교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14203927001  
본문: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빈으로 이란을 방문했을 때 히잡의 일종인 ‘루사리’를 착용해 화제가 되었다. ‘기독교계가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상대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한 패션외교로 인정되어 너그럽게 넘어갔다. 우리는 히잡을 여성 억압의 도구로만 보는 서구식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만 사실 히잡에 대한 관용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프랑스에서는 무슬림 여성들에게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벗으라고 강제해 갈등을 키웠지만,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중시하는 영국에서는 무슬림 여성이 어디서든 히잡을 착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중동의 부호가 소유한 헤롯 백화점뿐 아니라 런던의 고급 쇼핑가에는 히잡을 쓴 관광객들이 넘쳐난다.단정한 외모가 취업과 결혼을 위한 핵심적인 경쟁력이 되는 한국에서는 피부 관리와 메이크업이 평범한 여성들에게조차 당연한 일상적 의무로 다가온다. 머리 손질 안 하고 화장기 없는 맨 얼굴로 집 밖에 나가려면 게으른 여성으로 찍힐(비난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 ‘여성은 예쁘고 늘 조신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심했던 내가 자유롭게 된 계기는 유럽 배낭여행이었다. 여성들이 각자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꾸는 사회에서는 뼈를 깎는 고통과 부작용을 수반하는 성형수술과 다이어트가 무의미해진다. 특히 100년 전부터 여성 참정권 운동이 활발했던 영국은 제인 구달, 도린 매시, 애니타 로딕, 비비언 웨스트우드 등 씩씩한 여성 선배들 천지였다. 통통한 몸매에 소박한 옷차림으로 BBC 뉴스를 전하는 털털한 아줌마 앵커부터 헬멧 쓰고 자전거로 출근하다보니 메이크업은커녕 헝클어진 머리가 자연스러운 여교수까지….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영국 여성들을 보면서 나도 조금씩 용기와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매주 세계 곳곳의 다양한 문화와 자연환경을 보여주는 <세계테마기행>은 EBS의 인기 프로그램이지만 여성 출연자는 희소하다. 제3세계 오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촬영이 타이트하게 진행되다 보니 돌발적인 변수와 위기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 육체적으로 고된 일정인 데다 숙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 제작사로서는 여성출연자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메이크업은커녕 물이 없어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카메라 앞에 서야 하는 여성 출연자 역시 ‘예쁘게 보이고 싶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현지 주민들이니 나는 망가져도 괜찮아’라거나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기본은 해야 여성 후배들이 더 많이 출연할 수 있겠지’ 하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버티다보니 단골 출연자가 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가장 후줄근하게 나온 동아프리카편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다는 점이다. 1편 촬영지인 빅토리아 폭포 가는 도중에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려 단벌의 티셔츠로 끝까지 버텨야 하는 최악의 여정이었는데, 남성 시청자들의 팬레터가 학과 사무실로 날아들었다. 특히 탄자니아 사막 한가운데 있는 죽음의 화산을 1박2일 기어서 오르느라 땀과 눈물, 화산재로 범벅인 얼굴에 반했다고 하니…. 나의 연구지역인 동남아에서는 여성의 외모에 대한 시선이 서구보다도 더 진보적이고 관용적이다. 세계에서 무슬림 신자가 가장 많다는 인도네시아에서 히잡 착용은 여성 개인의 선택사항이다. 여성 혼자 운전도 못하게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나 9세 이상의 여성은 모두 히잡을 착용해야 하는 이란과는 다른 분위기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착용하는 히잡은 무슬림으로서 자부심을 표현하고 여성의 상품화에 저항하는 무기가 된다. 나도 기독교 신자지만 동남아 현지의 이슬람 행사에 참석할 때는 히잡을 준비해 상대를 배려한다. 분주한 아침 히잡은 한국에서 온 워킹맘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마법의 날개가 되기도 한다. 히잡을 쓰면 흰머리 염색도 필요 없고 방사선 치료로 머리카락을 잃은 암 환우의 스트레스도 줄여주니 나름 착한 패션이다.박 대통령도 비상시에는 올림머리 대신 히잡을 두르는 기지를 발휘할 수는 없었을까? 익숙한 헤어스타일을 확 바꾸거나 종교적 의미가 강한 히잡을 쓰는 게 부담스럽다면 모자나 가발도 괜찮지 않을까? 여성들이 마음에 드는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고 출근해도 되는 직장문화를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앞으로는 지혜와 연륜을 상징하는 주름과 흰머리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여성 앵커와 지도자를 TV에서 자주 볼 수 있게 되면 좋겠다.▶지리 꿀팁획일적인 서구식 미인대회에 저항하여 여성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국제적인 무슬림 미인대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지난 11월 말에는 미스 USA 미네소타 지역 예선에서 ‘노출이 심한 비키니’ 대신 ‘신체를 가리는 부르키니’ 수영복을 입은 소말리아 난민 출신의 당찬 무슬림 여대생까지 등장했다. 미스 유니버스에게 ‘돼지 같다. 살 좀 빼라’고 폭언하고 성차별적 표현과 무슬림 비하 발언을 남발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미국에서도 여러 편견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발랄한 저항이 시도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8.txt

제목: 열 이용하는 고주파 온열암치료  
날짜: 20161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12162345001  
본문: 인류는 지금까지 암을 정복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방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그 중에서 암세포를 줄인다는 것을 확실히 검증받은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암세포를 다스리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온열치료가 주목 받고 있다. 열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인데,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례에서 이러한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 로마, 이집트에서 열을 이용해 암을 치료했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기원 전 3000년 전 인도의사들 또한 열을 이용해 암 환자를 치료했다. 더욱 적극적으로 온열암 치료가 시작된 것은 과학의 발달로 여러 치료기기가 개발된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암 세포가 괴사를 일으키는 온도는 42.5도이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 암 조직에 열을 가해 암 세포의 산소 공급을 막고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법이 온열암 치료다. 특히 선택적으로 열을 사용해 암세포만을 공격한다.온열암치료는 항암제 치료의 효능을 높이기 위한 보조치료 기능을 하는 동시에 직접 암 세포를 죽이는 항암 치료,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면역 치료 역할을 모두 한다.온열치료는 혈액암이 아닌 고형암인 경우에 모든 암에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치료와 병행 시 췌장암, 간암, 위암, 폐암, 복강암 종양, 골암 등 대부분의 암 종류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말부터 암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온열치료를 시작했지만 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 사실상 효과가 전무했다. 하지만 그 이후, 유럽에서 온코써미아, 셀시우스 등 국소 온열치료기기가 개발되었고 현재 많은 대학병원과 암 치료 전문 병원에 설치되어 있다. 고주파온열암치료전문센터가 있는 염창환 병원의 경우 BSD-2000과 셀시우스-TCS를 도입했다.온열암 치료 전문 염창환병원의 염창환 박사는 "열암치료는 정상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파괴하고 면역력까지 높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환자마다 질환과 건강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온열암치료 여부는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9.txt

제목: 암치료 난제 ‘폐암•췌장암’, 생존율 높이는 암면역치료법 주목  
날짜: 20161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09165205001  
본문: 앞으로 인류를 위협할 가장 큰 질병은 암이 될지도 모르겠다. 미국 워싱턴대학교 크리스티나 피츠모리스 교수가 이끄는 국제공동연구 팀이 발표한 논문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약 1313만명이었던 암 환자 발생 수는 지난해 약 1748만명으로 10년간 3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약 871만명에 달했으며 전체 사망원인 가운데 암은 심혈관질환 다음인 2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암이 조만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사망자 수는 기관(지) 및 폐암(약 172만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 결장 및 직장암(83만명), 위암(82만명), 간암(81만명), 유방암(53만명), 식도암(44만명) 등 순이었다. 또한 평생 암에 한 번이라도 걸릴 확률은 남성은 3명 중 한 명, 여성은 4명 중 한 명꼴로 분석됐다. 암 중에서도 폐암과 췌장암은 그야말로 암중에서도 가장 치료가 힘든 ‘난제의 암’으로 불린다.폐암은 다른 암에 비해 5년 생존율이 낮을뿐만 아니라 암 사망률 1위를 지키고 있으며 발병 사실을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 암 질환으로 한해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이와 함께 췌장암은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생존율이 15년 새 2배가량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존재하는 모든 암 중에서 치료하기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암이라 일컬어진다. 이렇듯 조기발견의 어려움, 장기의 위치적인 특성 등으로 인해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에도 제약이 있을 뿐더러 생존율이 낮은 폐암과 췌장암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형태의 치료법인 양한방암면역치료법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양한방면역암치료법이란 암환자에게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병행 적용함으로써 암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형태의 치료법이다. 항암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한방의학의 면역요법을 통해 경감시켜주며 한방암치료제를 병행 처방함으로써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얻는 원리이다.폐암이나 췌장암은 공통적으로 항암치료 과정에서 항암부작용 발생확률이 높은 편으로 양질의 치료를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암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 이에 항암부작용을 줄여주는 한방항암제치료가 눈길을 끌며 하나통합한의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나통합한의원이 자체 연구개발한 한방면역항암제 ‘티버스터’는 옻나무추출물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자멸사를 유도할 뿐 아니라 극히 적은 부작용으로 강한 항암효과를 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하나통합한의원은 이 치료법에 입각해 췌장암 진단을 받고 아브락산 젬스타민 항암제를 투여한 49세 남성 환자를 5개월 만에 CA19-9(종양표지자수치)를 19.9로 정상범위에 진입케 하였다. 이렇듯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고 있는 한방항암제는 세계적으로 그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티버스터의 암세포 사멸 효능은 국제 SCI급 저널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서 인정받았다. 또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암세포에 있어 화학항암요법의 유효 반응율은 30% 미만인 데 반해 양한방통합치료 처방 시 암세포 유효 반응율은 최대 8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양한방통합치료는 암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나통합한의원의 김보근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암 치료의 핵심은 항암 부작용 및 내성 방지에 있으며 부가적인 면역력 관리를 통해 재발과 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SCI논문을 통해 입증 받고 특허까지 등록된 하나통합한의원의 한방면역항암제 티버스터는 폐암에 특히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수많은 폐암 환자들의 호전사례를 낳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0.txt

제목: ‘저체중’이 과체중보다 사망률 높아  
날짜: 20161208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08214203004  
본문: ㆍ건강 유지 요소 부족 가능성저체중인 사람의 사망위험이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사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성기철 강북삼성병원 순환기내과 교수팀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16만2194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에 따른 사망률을 분석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저체중에 해당하는 마른 사람이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보다 건강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반대의 결과다. 체질량지수(BMI)는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18.5 미만이면 저체중, 23~24.9는 과체중, 25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한다.연구팀은 대상자를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구분하고 전체 사망률과 암 사망률,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평균 4.9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정상체중과 비교해 저체중인 사람의 사망률은 증가하고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사람의 사망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체중인 사람의 전체 사망률은 정상체중인 사람보다 53% 증가했고, 과체중 또는 비만한 사람의 전체 사망률은 정상체중보다 23%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암, 심혈관질환과 같은 질병에 의한 사망률에서도 마찬가지였다.성 교수는 “<span class='quot0'>저체중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1.txt

제목: “복학하면 등록금 내려 했지만…지금 외면하면 평생 후회”  
날짜: 20161208  
기자: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08213246001  
본문: ㆍ복무 중 모은 월급 전액 기부 ㆍ대전청사경비대 이현구 수경의무경찰 대원이 복무 중에 모은 월급 전액을 소아암 환자를 위해 기부했다. 정부대전청사경비대는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이현구 수경(23·사진)이 한국소아암재단에 350만원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이 수경이 기부한 350만원은 지난해 5월 입대 후 의경 복무를 하며 받은 월급과 입대 전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다. 이 수경은 매월 월급의 10%를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하고 남은 돈을 모두 저축해 왔다. 내년 2월 제대 후 대학에 복학할 때 등록금으로 쓸 돈이었다.이 수경은 소아암재단을 통해 안구암을 앓고 있는 ㄱ군(6)의 사연을 접하고 어렵게 모은 이 돈을 모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수경은 “<span class='quot0'>이미 한쪽 눈을 잃고 남은 한쪽 눈마저 수술받지 않으면 실명할 위기에 있는 아이 소식을 듣고 한겨울에 길에서 떨고 있는 아이를 만난 것 같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등록금을 내려고 모은 돈이라 갈등했지만 지금 외면하면 계속 후회될 것 같아 기부를 결정했다</span>”고 말했다.ㄱ군은 다행히 이 수경을 비롯한 기부자들의 뜻이 모아져 수술을 앞두고 있다. 최근 외출을 나가 ㄱ군을 만난 이 수경은 “<span class='quot0'>많이 망설였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생각이 왔다갔다 했는데 아이를 만나고 오니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수술을 받을 수 있게 돼 오히려 그동안 어렵게 복무하며 돈을 모은 보람을 느낀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2.txt

제목: 2만원짜리 중국산 말굽버섯이 19만원으로 껑충…노인 등친 떳다방 일당 덜미  
날짜: 20161208  
기자: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08115401001  
본문: 1㎏에 2만원하는 중국산 말굽버섯을 백두산에서 재취한 것처럼 속여 19만원을 받는 등 노인들을 등친 떳다방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노인들을 유인해 효능이 없는 식품 등이나 물건을 암과 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며 비싼 값에 판(사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ㄱ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ㄱ씨 등은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 인근 한 건물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경품 등으로 70~80대 여성 노인들을 유인, 말굽버섯, 정수기, 도자기, 혈류복 등 총 18종의 물품을 최대 10배까지 비싸게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360여 명의 노인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1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ㄱ씨 등은 사장, 팀장, 경리, 홍보강사 등 역할분담을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노인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홍보강사를 ‘지역 홍보대사’, ‘물박사’, ‘물품 제조업체 사장’ 등으로 속여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들을 유인하기 위해 화장지ㆍ계란 등 생필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렸다ㄱ씨 등은 1㎏에 2만원 하는 중국산 말굽버섯을 “백두산에서 캔 말굽버섯으로 항암효과가 있다”고 속여 19만원에 판매했다. 또 50만원짜리 일반 정수기를 “고혈압, 위장병에 좋은 알칼리 정수기”라고 속여 1대당 148만원을 받고 팔았다. 한 벌에 3만5000원 하는 일반 등산복을 만병통치 “혈액 순환에 좋은 혈류복”이라고 속여 1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경찰관계자는 “ㄱ씨 등은 고령의 노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젊은층에 비해 판단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3.txt

제목: [경제와 세상]4%의 경제학을 넘어서  
날짜: 20161207  
기자: 류동민 충남대 교수·경제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07205631001  
본문: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난 10월27일자 칼럼 ‘탄핵 혹은 하야, 그 이후’에 관해 쓸 때만 해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뭉클뭉클 피어나는 의구심을 희망적 사고로 누르고자 안간힘을 썼다. 그 후로 몇 주가 흐르는 사이에 마침내 광장의 정치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압도하면서 이끌고 가는 형국이 눈앞에 펼쳐졌다. 사람이란 얼마나 간사하고 나약한가? 마치 영원히 지속될 듯했던 군사독재가 끝나자 불의에 항거하는 치열한 청춘이었던 듯 스스로를 속였던 한 세대 전의 기억이 떠오를 정도이다.물론 상황이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현재의 전선은 4 대 96, 후하게 잡으면 10 대 90의 구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전선에서 물색없이 자신의 정치적 편견을 주장하다가는 자칫 벼랑 밑으로 떨어지기 일쑤이다. 정치인은 물론 소설가나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앞다퉈 인터넷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내리며 시쳇말로 영혼이 털리고 있다.다수의 주장이 항상 옳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작금의 전선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거나 계급적·물질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것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최소 요건, 혹은 인간에 대한 예의, 기본적 품격을 갉아먹는 모멸감과 관련된 문제이다. 문득 몇 달 전에 구입했으나 내용이 진부해 잊고 있던 <1%의 경제학>이라는 책의 제목을 떠올렸다. 지금 여기에서 4%의 경제학, 아니 그 반대로 96%가 추구해야 하는 경제학은 무엇일까라는 데에 생각이 미친다. 그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 다다를 때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수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닐까?무엇보다도 전통시장을 돌면서 상인들과 악수하는 ‘민생’ 시찰이 민생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실상은 많은 경우 민생을 방해하기조차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span class='quot0'>얼핏 보면 잘 안 보여도 자세히 보면 보인다</span>”는 황당한 주장으로 이른바 창조경제를 옹호하던 전문가도 생각난다. 드러난 창조경제의 실체는 그렇게 억지논리를 펴던 이들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비판하던 이들조차 허탈하게 만들었다.오랫동안 경제위기 담론은 대부분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안보담론 못지않게 애용돼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노동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 한이라며 공식 석상에서 흘리던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눈물까지 잊고 싶지는 않다.28년 만에 되풀이된 재벌총수들의 청문회에서 드러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굳이 말할 나위조차 없다. 규제를 암 덩어리라 부르던 권력자와 자유기업을 주장하면서 어버이연합에 뒷돈이나 지원하던 경제권력은 시장의 자유라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날것으로 드러낸다. 그 밑에서 자유시장의 경제학만을 되뇌며 연구비 따내던 이들이 심지어는 대학에 강좌를 들이밀면서 취업 걱정에 지친 학생들을 볼모로 잡은 현실을 잊을 수 없다.비원의 목표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0명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한들 고작 어느 철없는 소녀의 말 타기 놀음에 흘러가는 돈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가십거리를 넘어 우리에게 각인된 경제성장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4 대 96의 전선이 사라진 뒤에 닥쳐올 새로운 전선, 이를테면 50 대 50의 전선의 양상은 이전 전선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민주화를 대통령 직선제로 정의하면 됐던 단순명쾌한 전선이 해체되고 난 1987년 겨울, 그 치열했던 투쟁의 결과는 다시금 군사쿠데타의 주역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것이었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4%의 경제학이 퇴각한 뒤에 닥쳐올 새로운 전선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아직도 불확실하기만 한 탄핵 혹은 하야의 전선에서 그러하듯, 저항과 견제는 끊임없을 것이며 더구나 먹고사는 문제가 걸릴 때 그 강도는 훨씬 더 세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 반대편에서는 4%를 위하는 것이나, 20%를 위하는 것이나 그게 그거라는 식의 근본주의적 목소리도 들리게 될 것이다. 광장의 촛불만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는 이 계기를 살려나갈 때 비로소 4%의 경제학은 50%의 경제학으로, 다시 99%의 경제학으로 진화해 갈 것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4.txt

제목: (주)아시안스타 ‘Y 하이푸’, 2016 서울 석세스 어워드 의료기 부문 대상 수상  
날짜: 20161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07172449001  
본문: (주)아시안스타(대표 이선용)가 지난 달 28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8회 서울 석세스 어워드 2016 시상식에서 의료기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8회째인 서울 석세스 어워드는 서울신문과 STV가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 사고와 열정으로 국가와 사회문화 발전에 공헌한 단체나 개인에 주는 상이다. 시상식에는 국민의 당 비상대책위원장겸 원내대표 박지원 위원장과 남경필 경기도 지사 등 정치, 경제, 문화 부문 수상자(단체) 15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각계 인사 800여명이 참석했다. (주)아시안스타는 경제부문에서 'Y하이푸'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아 의료기 대상의 명예를 안았다. 하이푸는 국내 대학병원과 여성병원으로 점차 확대돼 다양한 치료 사례 보고가 발표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증한 비침습 자궁근종 치료법으로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한다. 특히 아시안스타가 국내에 도입한 'Y하이푸'는 장시간 엎드려서 치료하던 기존 장비들의 불편함을 천장을 바라보고 편하게 누워 30분~1시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하도록 개선시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과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하며 환자의 신체 변화에 따라 초음파 강도를 조절 할 수 있어 1:1 맞춤형 치료 솔루션을 제공한다. 실제로 Y하이푸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를 비롯한 전국 12개 대학병원 및 여성병원에서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간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아시안스타 이선용 대표는 "Y하이푸는 자궁을 그대로 보존하며, 근종만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안전하고 세밀한 치료 환경을 위해 4D입체 시스템을 적용한 최신 의료 장비"라며 "앞으로도 환자 입장에서 부담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비수술 치료기기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Y하이푸는 원래 용도가 정밀 암치료기인 만큼 국내 암환자들도 해외에서와 같이 Y하이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5.txt

제목: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16년 12월 7일  
날짜: 2016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06133023001  
본문: ■ 교양 ■ 곽승준의 쿨까당(tvN 오후 7시20분) = 연말정산의 시기를 맞아 주택 관련 소득·세액 공제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먼저 원하는 시점에 집을 팔고 안전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300만원까지 공제받는 노하우를 공개한다. 이 외에도 고가의 난임 시술비를 무제한 공제받는 법과 부양가족의 암·치매 치료비를 추가 공제받는 법 등 유용한 연말정산 절세 팁을 소개한다.■ 예능 ■ 주간 아이돌(MBC에브리원 오후 6시) = 1990년대 가요계의 한 획을 그었던 1세대 아이돌 젝스키스가 출연한다. 젝스키스 멤버들은 히트곡에 맞춰 안무를 선보이는 ‘랜덤 플레이 댄스’에 도전한다. 하지만 16년의 공백기 동안 안무를 잊어버린 멤버들은 허둥대고 만다. 또 평균나이 37.8세의 최고령 아이돌인 만큼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응급의료진이 출동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6.txt

제목: “갑상샘암 과잉진단” 이후 2년간 수술 43% 줄었다  
날짜: 20161204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04215422001  
본문: ㆍ의료계선 “더 감소할 것”…백내장, 수술 환자 수 1위갑상샘(갑상선)암 진단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후 갑상샘 수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환자 수 1위는 ‘백내장’으로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발표한 ‘2015년 주요 수술 통계연보’를 보면 2010~2013년 4만~5만건에 이르던 갑상샘 수술은 2014년엔 3만7162건으로, 지난해는 2만8214건으로 줄었다. 2014년 초부터 의료계 일각에서 한국의 갑상샘암 진단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 뒤 갑상샘암 환자들의 수술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논란 이후 2년 동안 43% 정도가 급감한 것이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1999년 국내 갑상샘암 환자는 3325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4만2541명으로 12배 이상 급증해 전체 암 중 1위로 급부상했다. 2013년 국내 인구 10만명당 갑상샘암 환자 수 역시 84.1명꼴로 전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이었다. 2014년부터 일부 의사들은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라는 이름으로 “<span class='quot0'>심각한 자연재해나 방사성물질 누출사고 같은 이유 없이 갑상샘암이 기형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과다진단 외에 설명할 수 없다</span>”며 불필요한 갑상샘 초음파 검진을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상원 고대안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아직도 한국 갑상샘암 진단이 어처구니없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갑상샘암 수술 건수는 더 줄어드는 것이 맞다</span>”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별도로 통계를 관리하는 33가지 수술을 받은 환자는 149만명이었다. 주요 수술 진료비용(비급여 제외)은 4조4761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19% 늘었다. 지난해 환자가 가장 많았던 수술은 백내장 수술이었다. 최근 5년간 28만9800명에서 34만6000명으로 19.4% 늘었다. 백내장에 이어 치핵(치질) 수술(19만3000명), 제왕절개수술(17만3000명), 일반척추수술(15만5000명), 충수절제술(9만명), 담낭절제술(6만3000명) 등이 수술 환자 수 상위를 차지했다. 다만 제왕절개수술의 경우 여성만 받기 때문에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를 계산하면 665명으로 백내장 수술과 공동 1위를 기록했다. 9세 이하는 편도절제술, 10대는 충수절제술,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40대는 치핵수술, 50대 이상은 백내장 수술이 연령별 수술인원 수가 가장 많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7.txt

제목: 갑상샘암 과잉진단 논란 이후 갑상샘 수술 급감  
날짜: 20161204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204153426001  
본문: 갑상샘(갑상선)암 진단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후 실제로 갑상샘 수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발표한 ‘201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보면 수술건수 상위 15위 안에 드는 다빈도수술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줄어든 수술은 30.9%가 감소한 갑상샘 수술이었다. 갑상샘 수술은 2010년 4만847건, 2011년 4만4234건, 2012년 5만1513건, 2013년 4만894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2014년 3만7162건으로 전년 대비 1만건 이상 줄어들었고 지난해는 2만8214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이는 2014년 초부터 의료계 일각에서 한국에 갑상샘암 진단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 뒤로 갑상샘암 환자들의 수술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1999년 국내 갑상샘암 환자는 3325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4만2541명으로 무려 12배 이상 급증해 전체 암 중 1위로 급부상했다. 2013년 국내 인구 10만명당 갑상샘암 환자 수 역시 84.1명꼴로 전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이다. 2014년부터 일부 의사들은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라는 이름으로 “<span class='quot0'>심각한 자연재해나 방사성물질 누출사고 같은 이유 없이 갑상샘암이 기형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과다진단 외에 설명할 수 없다</span>”고 주장하며 불필요한 갑상샘 초음파 검진을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상원 고대안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정밀하게 검진을 하면 어떤 사람이든 병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현대의학을 통해서라면 완벽하게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하고 불필요한 검진을 많이 받아서 과잉진단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다</span>”며 “<span class='quot1'>아직도 한국 갑상샘암 진단이 어처구니없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갑상샘 수술 건수는 더 줄어드는 것이 맞다</span>”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별도로 통계를 관리하는 33가지 수술을 받은 환자는 149만명을 기록했다. 총 수술건수는 172만1000건으로 2010년 대비 1.9% 늘었고 주요수술 진료비용(비급여 제외)는 4조4761억원으로 19% 늘었다. 전체 수술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수술이 62만7000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은 37만1000건(21.6%), 종합병원 36만9000건(21.4%), 상급종합병원 35만4000건(20.6%) 등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가장 많았던 수술은 34만6000명이 받은 백내장수술이었다. 치핵(치질) 수술(19만3000명), 제왕절개수술(17만3000명), 일반척추수술(15만5000명), 충수절제술(9만명), 담낭절제술(6만3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제왕절개수술의 경우 여성만 받기 때문에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를 계산하면 665명으로 백내장수술과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8.txt

제목: 남성 위협하는 대장암/위암, 면역력 증진이 성공치료 열쇠된다  
날짜: 2016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30180846001  
본문: 암은 '국민질환'이 된 지 오래다. 암 중에서도 특히 대장암이나 위암 등은 남성을 위협하는 암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는 대한민국 남성의 특수한 음주문화와 흡연, 회사 내에서의 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의 암종별 발생율은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순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장암이 위암을 제치고 암 발생율 1위에 올라설 만큼 위협적인 암으로 떠오른 추세다.하나통합한의원 관계자는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부족, 인스턴트 식품 섭취가 늘고 있는 대한민국 성인남성들은 대장암이 좋아하는 요건을 두루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요즘에는 스트레스성 위염이 위암으로 발전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대장암이나 위암의 경우 재발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보통 1~4기로 구분되는 암은 환자상태, 암 진행상태에 따라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장암과 위암은 주변 장기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 수술 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암으로 알려져 있다.암은 발병 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혹은 발병했더라도 평소 건강한 면역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치료가 수월할 수 있다. 우리가 평소 면역력을 잘 증진시켜놔야 하는 이유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면 항암치료 과정을 견디는 것도 힘이 들 수 있다. 성공적인 암치료는 항암제내성과 항암부작용을 얼마나 방지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암치료가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치료에 무게를 뒀다면 요즘에는 환자의 면역력을 키워 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막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항암치료제의 부작용과 내성을 완화시키는 한방항암치료가 각광받는 추세다. 한방 암면역치료는 3, 4기 말기암이나 전이암, 항암 내성과 항암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방성분을 통해 면역력이 증강되면 항암제의 유효반응율이 상승하여 항암치료제 부작용과 내성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통합한의원에서 대장암과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환자가 꾸준히 한방항암치료를 진행, 암세포가 상당부분 소멸되는 사례를 낳기도 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항암치료제는 옻나무추출물의 주 원료로 만든 치종단, 치종탕, 티버스터(치종단II) 등이 있다. 옻나무 추출물은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를 기본으로 암세포의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파세틴 성분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다양한 임상 및 연구결과를 통해 백혈구와 적혈구 등의 면역수치를 정상으로 유지시키는 데 옻나무추출물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티버스터(치종단II)의 경우 SCI급 저널인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된 논문에서 실제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도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9.txt

제목: 고구마 재배의 최적지 여주시, 여주고구마 체험 팸투어 성료  
날짜: 2016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30180846002  
본문: 고구마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로서 감자에 비해 당질과 비타민 C가 많고 칼로리가 낮다. 삶거나 굽는 것 외에 튀김이나 죽으로도 조리하고 요즘은 버터구이·파이·프라이 스위트포테이토 등으로도 만든다. 다이어트에 많이 이용되는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몸 안에 축적된 콜레스테롤 등을 몸 밖으로 함께 배출하는 작용도 한다. 그 가운데 경기도 여주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밤고구마는 고구마에서 밤 맛이 난다. 밤고구마는 자체에 수분이 적기 때문에 다른 고구마에 비해 저장성이 좋다. 자색고구마의 경우에는 암 예방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베타카로틴 성분이 블루베리보다 월등히 많이 들어있어 인기가 좋다. ‘여주고구마혁신클러스트사업단’ 주최로 열린 이번 팸투어는 파워블로거 서포터즈 20명을 선정, 초청하여 넓은들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고구마떡케이크 만들기와 100% 여주 고구마 전분으로 고구마 묵 만들기를 체험했다. 여주고구마 체험을 마친 팸투어단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되어 있는 여주시에 위치한 명성황후 생가를 방문하여 명성황후의 삶을 직접 이해하고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팸투어에 참가한 파워블로거들은 “여주의 특산물인 여주고구마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유익했다”, “평소 여행과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부분을 단순 여행이 아닌 여주고구마체험과 역사,문화체험을 한 번에 연계하여 경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여주 재방문 의사를 내비쳤다. 여주고구마혁신클러스트사업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팸투어를 통해 여주고구마의 우수성과 여주지역의 관광지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을 제고시켜나가는 계기롤 만듦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여주고구마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는 이야기를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0.txt

제목: “한미약품, 시련 딛고 다시 뛴다”··· 글로벌신약, 도전 계속  
날짜: 20161130  
기자: 경향비즈 eco1@khan.co.kr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30142950001  
본문: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과의 올무티닙 권리 반환으로 시작된 일련의 시련들을 딛고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도전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업무 실수에 따른 공시 지연 등 주주들에게 혼선을 일으킨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전개될 신규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재결집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아직 해결되어야 할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한미약품은 흔들리지 않고 글로벌 신약 창출이라는 큰 비전을 향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제약산업 특성과 신약개발의 어려움 등을 전국민이 알게된 계기가 된만큼 보다 책임감 있는 업무로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나가겠다</span>”고 말했다. ■ 글로벌 개발 중단은 29개 파이프라인 중 1개뿐베링거인겔하임의 올무티닙 권한 반환이 큰 이슈가 됐지만, 이는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30여개 신약 중 1개에 불과하다. 특히, 올무티닙 권한 반환 직전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과 항암신약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미약품의 신약파이프라인 가치는 예전과 동일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일라이릴리와 체결한 면역질환치료제(HM71224)는 최근 글로벌 2상이 시작됐으며, 미국 스펙트럼사가 개발 중인 지속형 호중구감소증치료제 ‘에플라페그라스팀’은 현재 글로벌 3상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에플라페그라스팀은 2013년 산업부가 선정한 바이오 분야 우수기업 장관상을 수상한 한미약품의 유망 신약 중 하나이다. 스펙트럼은 한미약품이 개발한 항암신약 Poziotinib의 임상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Poziotinib은 한미약품이 보건복지부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과 공동 개발 중인 다중표적 항암신약으로, 스펙트럼은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포지오티닙의 미국 2상에 돌입했다. 작년 라이선스 계약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퀀텀프로젝트’는 파트너사인 사노피가 2017년 임상 3상 계획을 명문화하면서 임상 계획이 명확해 졌다. 당초 2016년 4분기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퀀텀프로젝트(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3상은 생산지연 이슈로 다소 늦춰져 2017년 시작되며, 구체적인 임상 계획은 사노피가 발표할 예정이다. ■ 한미약품, R&D로 글로벌 제약기업 도약국내 R&D 투자 1위 제약기업인 한미약품은 지난 2013년 코스피 상장 제약기업으로는 최초로 R&D 투자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15년에는 1,871억을 R&D에 투자했다. 2016년에도 R&D 중심의 경영방침은 지속되고 있다. 2016년 3분기 현재 R&D 누적 투자액만 1,251억원에 달한다. 한미약품은 제네릭에서 개량 신약, 혁신 신약으로 이어지는 현실성 있는 ‘한국형 R&D 전략’을 구축하는 한편,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도입해 전세계 유망 제약기업 및 바이오벤처와 활발한 신약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오픈이노베이션, 한미 신약개발의 화수분한미약품은 유망한 바이오벤처들과의 협력을 통해 R&D 파이프라인 확장에도 매진하고 있다.한미약품은 2015년 1월 미국 안과 전문 벤처기업 알레그로와 2000만불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알레그로가 개발 중인 망막질환 치료 신약 ‘루미네이트’의 한국·중국 시장 개발·판매권을 확보했다. 당뇨, 암 분야에 집중된 한미약품의 미래가치를 안과 영역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8월에는 바이오벤처 기업인 ㈜레퓨젠과 바이오신약 공동연구 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인공항체 플랫폼 기술인 ‘리피바디’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안과 및 전신질환(항암, 자가면역) 치료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반기술을 확립하고, 향후 전임상이 완료된 유망 후보물질에 대해서는 한미약품이 임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한미약품은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취지로 올해 7월 초기 단계의 유망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신생 제약·바이오벤처 등 투자를 맡을 ‘한미벤쳐스’를 설립했다. 한미벤쳐스는 초기 단계의 유망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신생 제약·바이오벤쳐 등의 전략적 투자 등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투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이와 함께 상용화 단계에 이른 후보 물질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담당함으로써, 한미약품그룹과 한미벤쳐스가 협력해 그룹사의 성장 동력 확보와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한미약품은 신약개발과 함께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영역 확대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의약품 관리 자동화 시스템 분야 글로벌 기업인 제이브이엠을 주식스왑 방식으로 M&A 했다.제이브이엠은 병의원 및 약국을 포괄하는 의약품 관리 자동화 시스템 분야 세계 4대 메이저 기업 중 하나인 국내 업체로, 지난 40여년간 의약품 관리 자동화시스템 분야 연구개발에 매진해 기술력을 축적했다. 현재 출원 진행 및 등록된 국내외 특허 건수가 541건에 이르는 등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제이브이엠은 한미약품 그룹의 글로벌 역량과 특화된 영업력 등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약품관리 자동화 시스템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span class='quot1'>평균 개발기간 12년, 그리고 0.02% 확률</span>”‘12년, 그리고 0.02%’. 하나의 글로벌 신약이 탄생하기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과 확률이다. 비용 또한 하나의 신약 탄생에 평균 1조원대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대표이사 이관순 사장은 “<span class='quot2'>글로벌신약 개발 과정은 험난하고, 때론 아픈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순간들에 직면하지만, 그래도 한미약품의 결론은 ‘글로벌 신약’</span>”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장은 “<span class='quot3'>한미약품은 창조와 혁신의 발상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온 뚝심있는 기업</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3'>한미약품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비전과 함께 전세계 1400조에 달하는 의약품 시장에서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span>”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1.txt

제목: [상생 경영 특집]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노하우 전수…여성 암 환자에게 용기를  
날짜: 20161129  
기자: 최병태 기획위원 cbta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29201801001  
본문: (주)아모레퍼시픽(이하 아모레) 사회공헌활동은 공익재단을 설립해 운영·후원하는 부문과 직접 참여하는 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공익사업의 전문성을 살리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을 위해 공익재단 설립 시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재단 운영과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해 매년 일정금액을 기부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공익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기업시민으로서 기업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구성원이 참여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2008년부터 시작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 암 환우들에게 메이크업과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환우들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도록 돕는다. 특히 이 캠페인에는 방문판매 경로의 아모레 카운슬러 및 교육강사가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여성암 환우들을 위한 진정한 미의 전도사로 활동한다. 2015년까지 여성 암환우 총 1만29명 및 아모레 카운슬러 자원봉사자 3336명이 참가했다. 이 캠페인은 아모레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 아모레는 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해 국내 최초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유방건강 의식 향상을 위한 핑크리본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들에게 긍정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여성의 동반자인 남성과 가족 모두에게 여성 건강의 소중함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2.txt

제목: 한국인 10명 중 6명은 ‘건강 이상’…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날짜: 20161127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27120626001  
본문: 정부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주요지표를 담아 발간한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1차 검진에서 질환의심(38.5%), 유질환(18.7%) 판정이 나온 비율은 57.2%로 나타났다.정상A(건강이 양호한 사람) 판정은 7.9%, 정상B(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사람)는 34.9%로 전체 정상 비율은 42.8%에 그쳤다. 지난해 정상 판정 비율은 2011년에 비해 6.6%포인트 감소했고, 질환의심은 3.0%포인트, 유질환자는 3.6%포인트 증가했다.20대 이하는 74%가 정상이었지만, 70대 이상은 54%가 유질환자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인구 고령화로 고령층 검진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판정 비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일반검진 대상자는 1736만명이었고, 실제 검진 인원은 1321만명으로 수검률은 76.1%였다.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의심 판정이 나와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47만9000명이었고, 최종적으로 9만명이 당뇨병, 15만4000명이 고혈압 판정을 받았다.2차 검진을 통한 당뇨병으로 판정된 비율은 50.1%로 2011년보다 8.8%포인트 높았다.문진 결과 흡연율은 전체 21.9%로 5년 전 25.6%보다 3.7%포인트 줄었다. 남성은 37.9%, 여성은 3.2%로 집계됐다. 남성 중에서는 30대 흡연율(46.9%)이 가장 높았다. 비만율은 전체 34.1%로, 남성은 30∼40대 비만율이 44.0%로 가장 높고, 여성은 60∼70대가 38.4%로 가장 높았다. 검진 인원의 24%(337만명)가 대사증후군으로 판정됐고, 72.2%(1000만명)는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을 비롯해 높은 혈압과 혈당, 혈액지질 수치 이상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암 검진 수검률은 48.3%였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나이와 조건에 따라 1∼2년 단위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전체 검진 인원 중 암 판정(의심) 비율은 위암 0.14%(9352명), 대장암 0.07%(3398명), 간암 0.44%(2352명), 유방암 0.13%(4772명), 자궁경부암 0.01%(587명) 수준이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3.txt

제목: [책과 삶]75세의 노장 다치바나, 죽음의 의미에 답하다  
날짜: 20161125  
기자: 문학수 선임기자 sachim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25195021001  
본문: ㆍ죽음은 두렵지 않다다 ㆍ치바나 다카시 지음·전화윤 옮김 |청어람미디어 | 176쪽 | 1만3800원늙은 코끼리는 어떻게 죽는가.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면 무리에서 홀로 떨어져 나와 밀림 깊은 곳에 있는 ‘코끼리들의 무덤’을 찾아간다. 그곳에는 이미 죽은 코끼리들의 뼈와 상아들이 작은 산처럼 수북하다. 죽음을 맞이할 코끼리는 그 위에 자신의 몸을 고요히 눕힌다. 장엄한 광경이다. 코끼리는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 올해 일흔다섯 살인 이 책의 저자도 그런 죽음을 상상한다. “<span class='quot0'>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홀로 조용히, 밀림의 코끼리처럼 죽고 싶다</span>”고 말한다.저자는 일본의 저널리스트다. 1964년 도쿄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주간문춘(週刊文春)’에서 기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논픽션 작가로 일본 내에서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죽음에 대한 탐구는 개인적 경험과 연관성이 깊어 보인다. 그는 1991년에 NHK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임사체험, 인간은 죽을 때 무엇을 보는가>에 참여했다. 그때부터 죽음과 관련한 취재에 나섰다. 이후 2007년 방광암 치료, 이듬해에는 심장 수술을 겪으면서 죽음을 자신의 문제로 절실히 바라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흔다섯 살의 그는 “<span class='quot0'>이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span>”고 말한다. 특별해 보이는 발언은 아니다. 그 나이쯤에 이르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옅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인간이 평생 탐구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다. 그에 대한 답은 나이에 따라 상당히 미묘하게 변해간다. (이 책은) 내가 일흔다섯 살이 되는 시점에 얻은 해답이다.”그렇지만 죽음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성찰을 기대하고 이 책을 집어들었다면 실망할 수 있다. 책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젊은 날’이라는 글에서부터 ‘동양적 세계관에 가까워지다’라는 글까지 모두 37편을 수록하고 있는데, 전체 분량이 176쪽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대체로 저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단편적 지식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에, 죽음에 대한 과학적·철학적 성찰에 본격적으로 접근했다고 평하기는 어렵다. 1장은 2014년에 주간문춘에서 진행했던 저자와의 인터뷰를 발췌해 엮었고, 2장은 2010년 교리쓰여자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강연을 재편집했다. 3장은 ‘문예춘추’ 2015년 4월호에 게재했던 ‘뇌에 관해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라는 글인데, 이것은 NHK 프로듀서와 나눈 대화를 가필하고 수정한 글이다.다루고 있는 내용은 광범위하다. 사후세계, 임사체험, 암환자를 대하는 의료진의 마음가짐, 환자와 가족의 심리 상태, 연명치료, 조력 자살, 안락사, 존엄사, 뇌사, 장례문화 등 죽음을 둘러싼 갖가지 ‘구체적 각론’이 때로는 문답식으로, 또 때로는 저자가 직접 쓴 짧은 글들로 펼쳐진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 구체성, 혹은 죽음을 당면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솔직한 태도다. 어쩌면 그것은 매우 일본적인 태도로 보이기도 한다. 지진이 빈번한 그곳 사람들은 죽음을 늘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한국인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사생관’이라는 단어에도 익숙하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비이성적이고 해괴한 것에 빠져들어야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세계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저자는 책에서 안락사 허용을 주장하고, 일본에서 존엄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12만명에 달하는데도 여지껏 허용되지 않는 배경에는 “그저 목숨만 부지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득을 챙기는 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사후 세계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로, 임사체험자들의 체외 이탈에 대해서는 “착각이 혼재된 거짓 기억”이라고 답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자신의 장례방식에 대한 언급이다. 이 대목에서 그는 일본의 전통적 문화와 확연히 다른 태도를 내비친다. “<span class='quot0'>장례식과 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나는 콤포스트(Compost) 장을 원한다</span>”고 말한다. 시신을 다른 재료와 섞어 발효시킨 뒤 퇴비로 만들어 밭에 뿌리는 장례방식이다. 이어서 덧붙인다. “그게 미학적으로 좀 그렇고, 법적으로 난점이 있다면 타협안으로 수목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나는 수영을 못하니까 바다보다 육지가 낫겠지요.”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4.txt

제목: [새책]거리에 선 페미니즘 外  
날짜: 2016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25195018002  
본문: ▲거리에 선 페미니즘…고등어 외 41인 | 궁리지난 5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추모를 넘어선 담론의 장이 서울 신촌거리 한복판에서 열렸다. 40여명의 발언자들이 8시간 동안 담담하게 내뱉은 고백과 고발의 말들이 책으로 묶였다. 성추행, 성폭력 경험부터 외모로 인한 압박과 옷차림에 대한 검열, 가족 내 성차별 등에 대한 발언자들의 말은 여전히 불안을 안고 사는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증언한다. 1만2000원▲이 얼마나 천국 같은가…존 치버 | 문학동네20세기 미국 단편문학의 거장이자 문장가로 손꼽혔던 존 치버(1912~1984)가 암 투병 중이던 1982년 3월 발표한 마지막 소설. 레뮤얼 시어스는 뉴욕 이스트가에 사는 노인이다. 그는 겨울마다 비즐리 연못에서 스케이트를 즐겼는데, 어느 날 연못이 쓰레기 매립지로 변한다. 소설은 연못을 매개로 시어스 등 4명의 인물들 이야기를 다룬다. 김승욱 옮김. 1만1500원▲동아시아의 우흐가지 1·2…서승 | 진인진인권 운동가 서승 전 리쓰메이칸대 교수가 2014년 정년퇴임 후 발표한 칼럼과 강연 발제문, 동아시아 역사 현장을 찾은 기행문 등을 묶은 책이 두 권으로 나왔다. ‘우흐가지’는 큰 바람을 의미하는 오키나와어로, 저자의 지인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1권은 국가 폭력, 제국주의 청산 등에 대한 글, 2권은 역사 현장 답사 기행이다. 1만7000원(1권), 1만8000원(2권)▲질문하는 책들…이동진·김중혁 | 위즈덤하우스영화평론가 이동진이 진행하고 소설가 김중혁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팟캐스트 ‘이동진의 빨간책방’은 2012년 방송을 시작한 이래 이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콘텐츠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책은 두 사람이 다뤘던 책들 가운데 인문교양서 9권을 골라 정리한 것이다. 책 제목은 질문과 질문이 합해져 더욱 거대한 질문이 되는 책이 좋은 책이란 뜻을 담고 있다. 1만5800원▲우화의 서사학…김태환 | 문학과지성사이솝우화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회자되고 인용되는 고전 중 하나다. 어린이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짤막한 이야기 형태로 삶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는 데다, 동물과 자연을 주인공으로 인간사를 풍자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도 높다. 저자는 그러나 이솝우화를 단순한 교훈담으로 보는 대신 복잡하게 꼬인 역설의 구조물로 보고 인문학적 해석을 시도한다. 1만3000원▲사유의 거래에 대하여…장-뤽 낭시 | 도서출판 길저자는 <무의의 공동체> 등 국내에도 여러 권의 책이 번역된 프랑스 철학자다. 이 책은 2004년 프랑스의 한 서점 개점 20주년을 맞이해 ‘책과 서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기획한 것이다. 저자에게 독서란 생각의 교류이고, 서점은 사유의 거래다. 책은 생각의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이며 서점은 사유를 통해 또 다른 관계가 맺어지는 장이다. 이선희 옮김. 1만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5.txt

제목: 증가하는 유방암 환자, 적극적인 면역력 치료 필수  
날짜: 2016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25160100001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유방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8명에서 5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 경기 분당 지역의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과거 한국 여성들에게 흔한 질병은 아니었던 유방암은 현재 갑상선암과 함께 여성암 발생률 1~2위를 다툴 정도가 되었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큰 유방암은 초경 나이가 이를수록, 출산이 적을수록, 출산 연령이 늦을수록, 모유 수유가 적을수록 발생률이 높은데 발생률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유방암은 초기에 두드러지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주기적인 자가 진단을 통해 이상 증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갑자기 유두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피부색 변화, 지속적인 가슴 압통, 유두 함몰 등의 증상이 있다면 빠르게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유방암의 치료율이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도 한해 수천 명의 환자가 유방암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환자의 면역력 관리가 중요하다. 수술 후에도 최소는 5년, 많게는 10년 동안 추적관리가 필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항암치료 역시 필수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항암치료는 환자의 면역력을 감소시켜 탈모, 구역질, 구토, 전신 쇠약, 혈구 감소증, 조기 폐경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특히 유방암 환자의 경우 다른 암과는 달리 감정의 상처로 인한 우울증세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회복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청평푸른숲한방병원은 요양은 물론 양한방 병행치료를 통해 보다 집중적으로 암환자의 면역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암세포의 신생혈관 생성 차단과 함께 항암치료 중 손상되는 백혈구, 혈소판 등의 재생을 돕는 옻나무추출물 성분의 한방면역항암제를 통해 유방암 환자의 암 전이 및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청평푸른숲한방병원의 대표원장인 박상채 한의학박사는 "암요양병원을 선택할 때에는 시설뿐만 아니라 암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치료법 및 치료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며 "유방암은 수술 후에도 장시간 추척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면역력 관리와 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환자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방과 한방을 통합한 암면역치료법과 천혜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각종 자연요법을 통해 환자의 면역력 회복을 돕는 청평푸른숲한방병원은 특성화된 암치료 프로그램이 ‘SBS 일요특선다큐’, ‘채널A 관찰카메라 24시’ 등을 통해 소개 되면서 개원 초기부터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6.txt

제목: 조기치료 중요한 유방암, 유방외과 통한 정기 검사 필요  
날짜: 20161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23170704001  
본문: 직장인 이 모씨(37세, 서울 대치동)는 최근 가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나타나고 멍울이 잡히자 여의사가 진료하는 유방외과를 찾아 유방암 검사를 받았다. 그는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유방암은 초기에 두드러지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갑자기 유두가 아프거나 지속적으로 가슴에 압통이 있는 경우,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 유두 함몰, 유방 피부색 변화, 유방 전체가 붓거나 가슴 표면에 혈관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증상 등이 생기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매달 월경이 끝난 후 3~4일 후에 유방을 만져보며 자가 검진을 습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방암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서구화된 식습관, 비만증가, 출산율 및 수유 감소, 이른 초경 및 늦은 폐경 등을 위험인자로 꼽고 있으며 매년 발생율이 증가추세에 있다.한국 유방암 학회에서는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방외과 개원가에서는 유방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당일에 조직검사까지 실시하고 있다.유방촬영술은 X-레이를 이용해 유방을 촬영하는 검사이며 유방초음파 검사는 검사자가 유방의 모든 부위를 초음파 영상으로 촬영해 병변의 존재 여부를 찾는 검사다. 한국 여성들의 유방 특성상 지방보다는 단단한 유선조직이 많이 분포된 치밀 유방이 많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초기 암이 발생할 시 유방촬영술에서는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치밀유방인 경우 유방촬영과 함께 유방초음파를 병행하는 것이 유방암 조기발견에 도움이 된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에 속한다. 치료 후 5년 생존율이 평균 76% 정도이고 특히 0기나 1기암은 90~100%의 5년 생존율을 보이므로 유방의 이상 및 암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소에 자가검진을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35세 이후 여성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도움말: 이영미유클리닉 이영미 원장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7.txt

제목: 과학기자협회 ‘올해의 과학자상’ 한호성, 홍태경, 김빛내리 교수 '영예'  
날짜: 20161123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23145045001  
본문: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직무대행 김길원)가 수여하는 2016년 과학언론상 ‘올해의 과학자상’ 분야에 한호성 서울대 의대 외과 교수(분당서울대병원 간담췌외과), 김빛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가 선정됐다(사진 왼쪽부터). 11월 25일 저녁 서울 중구(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는 ‘2016 과학언론의 밤’ 행사에서 시상식을 갖는다.한호성 교수는 세계 최초 간이식 공여자에 대한 전복강경하 우간절제술 및 간세포암, 담낭암 등 외과 임상 분야에서 탁월한 의술을 정립했다. 김빛내리 교수는 마이크로 RNA의 생성과정을 밝히고, 줄기세포와 암세포에서 RNA 기능을 규명함으로써 줄기세포와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홍태경 교수는 한반도 및 전 세계에서 발생되는 지진 특성 및 지진 유발 효과와 백두산 화산 분화 가능성, 북한 핵실험 탐지 및 분석 등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지진학의 대중 이해도를 크게 높였다.2016년 과학언론상 다른 분야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올해의 과학기자상 유용하 기자(서울신문), 올해의 의학기자상 이용권 기자(문화일보) ▲올해의 과학행정인상 :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장, 백희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경영지원본부장, 고인수 포항가속기연구소 4세대방사광가속기운영단장 ▲올해의 홍보인상 : 김태윤 한국과학창의재단 대외협력팀 팀장, 이계재 건양대 김안과병원 홍보실 실장, 김용운 동아제약 커뮤니케이션실 PR팀 팀장.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8.txt

제목: 갑상샘암 발병, 강남구·광양시 가장 많아…‘암 발생 전국 지도’ 첫선  
날짜: 20161122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22221800001  
본문: ㆍ시군구별 최대 15배 차이 갑상샘암은 검진율과 상관 ㆍ유방암·전립선암은 강남·서초·분당에서 많이 발생발병률이 높은 암들을 지역별로 정리한 ‘전국 암 지도’가 나왔다. 갑상샘암은 시·군·구별로 최대 15배까지 발생률 차이가 났으며, 대도시에 집중됐다.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유방암과 폐암 발생이 증가했고, 대장암은 남녀 모두 늘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단위로 15년간의 수치를 분석한 ‘시·군·구별 암 발생 통계 및 발생지도’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시·군·구별 ‘암 사망자’ 통계는 2005년부터 집계됐으나, ‘암 발생’ 통계는 1999년 국가암등록 사업 이후 처음이다. 지역별 암발생률(거주민 10만명당 암 진단자) 차이가 가장 큰 암은 갑상샘암이다. 2004~2008년 남자 기준으로 최고 지역의 발생률이 최저지역의 14.5배를 기록했다. 담낭 및 기타 담도암(6.0배)과 전립선암(5.8배)도 지역별 차이가 컸고, 위암(2.2배), 폐암(2.2배), 대장암(2.3배)은 상대적으로 편차가 작았다.갑상샘암은 여수, 광양, 순천 등 전남 지역과 서울 등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했다. 2009~2013년 남자 갑상샘암 발생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5년간 인구 10만명당 47.7명의 환자가 나왔고, 여자 환자 최대 발생지는 광양시로, 인구 10만명당 185.1명이 발생했다.복지부는 갑상샘암 발생 증가는 갑상샘암 검진율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검진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진단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감상샘암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3~2007년 한국에서 갑상샘암으로 진단된 환자 중 여자는 90%, 남자는 45%를 과잉진단으로 추정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서울 강남·서초, 경기 분당에서 많이 발생했다. 강남 3구와 분당 거주자는 초경 연령이 빠르고 출산율이 낮으며, 출산 연령이 늦어 유방암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고 연구진은 추정했다. 전국적으로는 남녀 모두 갑상샘암과 대장암이 증가했다. 남자 갑상샘암은 1999~2003년 10만명 당 2.9명 발생이 2009~2013년 24.3명으로, 여자는 같은 기간 16.7명에서 110.6명으로 증가했다. 남자 대장암 발생률은 31.1명에서 50.8명으로, 여자 대장암은 18.8명에서 27.4명으로 늘었다. 여자 유방암은 28.2명에서 49.5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이번 통계도 암발생과 거주환경 간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보고서는 “암발생자 주소지는 암진단 당시 기준이라 환자가 실제로 오래 거주한 지역과 다를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정부는 이 통계를 지역별 암관리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초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 공개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9.txt

제목: 암수술 받은 가장 장애아들 목졸라 숨지게 하고 투신 사망  
날짜: 20161120  
기자: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20163909001  
본문: 암 수술을 받은 40대 가장이 10대 장애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전날 오후 2시쯤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화단에 이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48)가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사망 사실을 알리려 집을 찾아갔다가 목이 졸린 채 숨져 있는 정신지체장애 아들(17)을 발견했다. 김씨 아내는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김씨의 아내는 경찰에 “<span class='quot0'>남편이 몸이 불편한 자신과 수발을 해야 하는 아들 때문에 힘들어했고, 1주일 전에 암 수술을 받아 퇴원한 후 우울증이 심했다</span>”고 말했다.경찰은 김씨가 신병을 비관해 아들을 살해하고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0.txt

제목: [책과 삶]맞춤아기·인간복제…우리는 그 가까운 미래를 맞을 준비가 됐을까  
날짜: 20161118  
기자: 문학수 선임기자 sachim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18193056001  
본문: ㆍGMO 사피엔스의 시대 ㆍ폴 뇌플러 지음·김보은 옮김 |반니 | 348쪽 | 1만6000원저자는 캘리포니아대학 세포생물학 교수로, 주 연구 분야는 줄기세포와 암세포다. 원서에는 ‘세상을 바꾸는 맞춤아기 과학(The Life-Changing of Designer Babies)’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왠지 그 말만으로도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성싶다. 하지만 ‘맞춤아기’로 번역되는 ‘디자이너 베이비’는 실제로 태어났다. 올해 9월 미국의 한 연구팀은 최초의 ‘세 부모 아이’를 공개했다. 지난 4월 멕시코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엄마가 둘이고 아빠는 한 명이다. 친모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서열에 돌연변이가 생겨 발생하는 중추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었다. 연구진은 다른 여성의 건강한 난자에 친모의 핵을 이식했고 아빠의 정자를 그 난자에 수정시켰다. 그렇게 세 부모로부터 유전적 형질을 물려받은 아기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태어났다.사실 유전학 관련 기술은 사람들의 일상에까지 깊이 들어와 있다.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무심코 집어든 식품이 유전자변형 재료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의외로 높다. 마당에 심을 묘목을 사러 묘목장에 가서 유전자변형 식물을 고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체외수정을 이용한 시험관아기는 세계적으로 벌써 500만명이 넘게 태어났으며, 착상 전 유전자 진단법으로 태아의 성별뿐 아니라 유전자의 결함과 돌연변이 등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최초의 유전자변형 동물은 1974년 루돌프 예니쉬가 만든 쥐였다. 1996년에는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이언 윌머트 박사의 주도로 복제양 돌리(Dolly)가 태어났다. 400번 넘는 실험 끝에 태어난 돌리는 6년6개월 살았다. 일반에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변형 시도는 각 나라의 연구실에서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영국에서는 올해 2월에 초기 배아의 유전자 편집 실험이 합법화됐다. 중국에서도 유전자변형 아기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여러 팀에 의해 진행 중이며 관련 논문도 발표됐다. 게다가 2015년 등장한 유전자변형 기술 ‘크리스퍼-Cas9’은 이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크리스퍼-Cas9은 쉽게 말해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고 편집하는 기술이다. “<span class='quot0'>컴퓨터로 글을 편집하듯이 쉽게 게놈을 편집할 수 있다</span>”는 것이다.저자는 유전자변형 인간, 나아가 복제인간의 시대가 이미 서막을 열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맞춤아기’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얘기다. 그는 “<span class='quot0'>10년 전까지만 해도 과장광고나 다름없는 이야기</span>”였지만, “<span class='quot0'>유전자변형 인간이든 복제인간이든, 맞춤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은 이미 과학자들의 손안에 있다</span>”고 말한다. “누구도 달려가는 기술의 열차를 막을 수는 없다. 미래에는 지금과 다른 형태의 신생아실인 ‘아기 배양실’에 가서 자신의 유전자변형 아기를 데려와야 할 것이다.”저자는 그 ‘맞춤아기’를 ‘GMO 사피엔스’라고 명명한다. “<span class='quot0'>유전자변형 생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약어인 GMO와 호모 사피엔스를 결합해 만든 단어</span>”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기대를 품어볼 수 있다. 특히 의학적 이점이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GMO 사피엔스는 질병을 일으키는 돌연변이체를 교정해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건강한 삶을 살면서 질병을 일으키는 돌연변이체를 후손에게 물려주지도 않는다.”이 강력한 기술은 지금도 사용 가능할 만큼 진보해 있다. 그렇지만 혜택과 위험은 공존한다. “<span class='quot0'>배아나 태아, 가끔은 아기가 다 된 상태에서 병에 걸리거나 죽는다.</span>” 태어난 이후에도 “<span class='quot0'>개인과 사회 모두에 엄청난 위험</span>”이 닥칠 수 있다. “GMO 사피엔스에게는 좋은 변화에 필요한 표적유전자 외에 다른 유전자에서 우연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작은 결함이 발달장애나 암 같은 질병으로 발전하거나 죽음을 부를 수 있다. 삶의 후반부에야 드러나는 부정적 변화도 있다. 예컨대 성격이 변해 자아도취나 폭력성이 나타나거나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새로 생긴 특징은 이미 발현된 유전자변형이므로 후손에게 유전된다.” 다시 말해 “아직 인간에게 적용할 만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몇 년쯤 시험을 더 거쳐 완벽을 기한다”면 인류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책은 유전자변형 기술의 진보와 인류의 눈앞에 다가온 ‘맞춤아기’라는 현실에 대해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서술하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이 과학기술과 관련한 최근의 움직임, 찬반 양론의 현장을 소개하기도 한다. 저자의 최종적 관점은 ‘아직은 때가 이르다’로 요약할 만한다. 그는 “평범한 사람의 건강한 삶은 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지만, 유전자변형은 그 목표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면서 “인류는 아직 그 길을 선택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유전자변형에 대한) 국제적 유예를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1.txt

제목: [책과 삶]삶의 질서 허무는 사고, 그 후 그들은…  
날짜: 20161118  
기자: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18192912002  
본문: ㆍ피프티 피플 ㆍ정세랑 지음 |창비 | 396쪽 | 1만2000원‘사고(accident)’는 우리가 믿고 있던 삶의 로직을 한순간 무너뜨린다. 그 우연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을 통과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도 한다. 그러나 그 부조리성을 견디지 못해 결국 폐허가 된 생을 붙들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책은 제목처럼 ‘50명’의 짧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느슨하게 이어진 사람들, 그들이 겪는 곤경이나 사고에 관한 이야기다.암이 번지고 있는 엄마와 함께 결혼 준비를 하는 송수정, 딸의 애인이 우발적으로 딸의 목을 베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는 조양선, 정신병자를 제압하는 순간 자신에게 비정상이라고 했던 가족을 상기하는 보안요원 김성진, 공기에 민감해 성인이 돼서도 잘 토하는 남자 소현재, 그리고 화재로 기울어가는 건물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이기윤과 사람들….어떤 이야기는 충격적이지만, 어떤 이야기는 일상적이다. 우리가 공들여 만든 삶의 질서를 허물며 무자비하게 들이닥치는 질병, 죽음, 소문, 교통사고, 싸움, 만남과 헤어짐은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인생의 다 다른 얼굴들이다. 책에 나오는 각기 다른 파장의 사고·사건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와 묘하게 공명한다. 실제 가습기 피해자 유가족의 좌절(한규익), 성소수자의 솔직한 시선(지연지), 싱크홀 추락사고(배윤나) 등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특히 맨 마지막에 실린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월호’가 갔어야 했지만, 결국 가지 못했던 길을 연상케 한다. 극장 건물이 화재로 기우는 중에 건물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구조된다. 이 사고는 ‘아무도 죽지 않았고, 유가족을 만들지 않은’ 사건이 됐고, ‘아무에게도 큰 인상을 남기지 않은 뉴스’가 됐다.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작가가 창비 블로그에 연재한 글을 묶었다. 작가는 “<span class='quot0'>이 중 한 사람이라도 독자의 이야기를 닮았기를</span>” 바라며 썼다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2.txt

제목: 암 사망률 1위 ‘폐암’ 까다로운 ‘육종암’, 항암치료 시 부작용도 심해  
날짜: 2016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18155701001  
본문: 지난해 한국인을 가장 많이 괴롭힌 질병은 역시 '암'이었다.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암이 한국인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무려 33년째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폐암은 한국인의 암 사망 비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암 사망률은 폐암(34.1명), 간암(22.2명), 위암(16.7명), 대장암(16.4명), 췌장암(10.7명) 순으로 나타났다.사실 2010년 이전에만 해도 폐암은 대장암이나 위암, 갑상선암, 간암 등에 밀려 발병률이 4~5위 정도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최근 흡연이나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심해지면서 폐암은 발병률 1위 암을 유지 중이다.폐암은 다른 암에 비해 5년 생존률도 낮은 편으로 알려진다. 또한 발병 사실을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쉽지 않은 암질환 중 하나이기도 하다.아울러 팔다리 뼈와 근육, 지방조직 등 연부조직에 생기는 악성종양 '육종암'도 암환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환으로 꼽힌다.육종암은 특히 폐를 비롯한 다른 곳으로 전이해 독립된 종양을 발생시킨다. 또한 치료가 매우 힘든 암이라 병원들도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의학업계 관계자는 "폐암이나 육종암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항암부작용이 발생될 확률이 높은 편"이라면서 "치료가 까다로운 편인 이 암질환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암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항암부작용을 줄여주는 한방항암제치료가 의학업계에서 새로운 암치료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한방항암제는 기존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은 줄이고 생존율을 높였다는 점에서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국내에서 한방항암제로 주목받고 있는 치료제로는 하나통합한의원 박상채 박사가 개발한 '티버스터'가 있다. 티버스터는 옻나무추출물로 만든 한방항암제로 옻나무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무자멸사를 유도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다. 특히 파세틴이라는 성분은 염증을 치료하고 암세포의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다고 밝혀진다.흥미로운 점은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병행했을때 더 높은 암세포 유효반응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암세포에 있어서 화학항암요법의 유효반응율은 30% 미만인 반면 양한방 통합치료 처방시 암세포 유효반응율이 최대 8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티버스터의 암세포 사멸 효능은 국제 SCI급 저널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서 인정받기도 했다. '치종단의 A549 비소세포성폐암주에서의 항암기전'을 주제로 한 논문이 국제저널에 실리면서 세계적으로도 한방암치료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하나통합한의원 관계자는 "폐암이나 육종암은 항암 치료 시 다양한 항암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내성을 유발하지 않는 한방항암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면서 "특히 양한방 치료를 병행하면 암세포 유효반응율이 80%까지 증가해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3.txt

제목: “다시 살아나고 싶다” 영국서 14세 불치병 소녀, 냉동인간 희망…법원 허용  
날짜: 20161118  
기자: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18120544001  
본문: “나는 겨우 14살이고 죽고 싶지 않지만 죽어가고 있어요. 땅 속에 묻히기 싫습니다. 몇 백 년 뒤에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영국 런던에 살던 14세 불치병 소녀의 편지가 17일(현지시간) 고등법원에서 공개됐다. 이날 법원은 소녀의 인체를 냉동보존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영국에서 10대가 인체냉동보존을 하도록 허용된 첫 사례라고 BBC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소녀는 지난해 8월 희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고 1년 넘게 투병생활을 하다 지난 10월 숨졌다. 그는 죽기 몇 달 전부터 인체냉동보존에 대해 검색하며 냉동인간에 대해 알게 됐다. 인체냉동보존은 사람의 시체를 영하 196℃의 액체질소에서 냉동 보존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기술로는 냉동된 사람을 다시 소생시킬 수 없지만 미래에 소생 기술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미국, 러시아 등에 인체냉동보존 센터가 마련됐다. 소녀는 죽기 전 자신의 사체를 냉동해 치료법이 나온 뒤 다시 살아나고 싶다고 부모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딸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이혼 뒤 따로 살고 있던 아버지는 극구 반대했다. “<span class='quot0'>딸이 몇 백 년 후 치료법이 개발된 뒤 깨어나더라도 주변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삶의 의미가 없을 것</span>”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소녀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반대에 맞서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은 소녀의 어머니가 딸의 시신을 냉동보존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사망한 소녀의 시신은 이미 냉동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미국의 인체냉동보존 기관에 안치된 상태다. 판결을 내린 잭슨 재판관은 “<span class='quot1'>소녀의 사례는 최신 과학 기술이 법률가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던지는 것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소녀의 시신 처리 과정에 대한 관련 법률이 없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span>”고 BBC에 밝혔다. 영국에는 인체냉동보존에 대한 법이 없다. 관련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소녀는 따로 냉동보존 처리를 하겠다고 자원한 의료진을 찾아야 했다. 영국 의료진은 소녀가 사망하자마자 인체냉동보존 절차를 시행한 뒤 시신을 미국으로 보냈다. 재판관은 “<span class='quot2'>앞으로 정부와 의회가 인체냉동보존에 관련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span>”고 제안했다. 인체냉동보존으로 냉동인간이 된 첫 사례는 1967년 간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던 미국 심리학자 제임스 베드포드였다. 그는 사망 직전 체내의 혈액을 전부 제거한 후 동결보호제를 체내에 주입하고 액체질소를 채운 영하 196℃의 금속용기 안에서 동결돼 있다. 2002년 사망한 야구선수 테드 윌리엄스의 시신도 냉동보존돼 있다. 윌리엄스는 죽기 전 시신을 화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자녀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보존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디즈니 창시자 월트 디즈니(1901~1966)의 시신도 냉동보존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4.txt

제목: [밥상 위의 세계] (7) 한국 추석이 필리핀 제3의 도시 노동자들에겐 ‘망고 대목’  
날짜: 20161117  
기자: 다바오 | 글·사진 이재덕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17221403001  
본문: ㆍ마을의 큰손 ‘스프레이 업자’…“나무는 농민 것, 망고는 내 것” ㆍ‘국민과일’ 망고흠집 없는 망고에 막대기 하나가 푹 들어와 박힌다. 컴퓨터 화면에 30.2도가 찍혔다. 과육의 온도다. 새벽에 농장에서 배달된 망고 2400개 중 8개에 센서가 박혔다. 필리핀 다바오의 한 망고 수출공장. 직원들이 망고를 컨테이너 증기실로 옮기느라 분주했다.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망고는 증기 소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증열처리(VHT)라 부르는 일종의 ‘사우나’를 통해 소독을 하는 것이다. 과육이 상하지 않게 하면서 표면의 숨구멍으로 열을 집어넣어 과일 속 병균과 해충을 죽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40분. 과육의 온도가 46도가 됐을 때 10분 더 사우나를 하고 나서 0도 찬물로 1시간 동안 샤워를 한다.어느새 망고는 한국의 ‘국민과일’이 됐다. 시내 카페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망고주스, 망고와플을 즐기고, 무더웠던 올여름엔 망고빙수가 인기였다. 추석 차례상에도 망고가 올랐다. 그 망고의 고향을 찾아 지난 8월18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의 항구도시 다바오에 갔다. 마닐라와 세부 다음으로 큰 필리핀 제3의 도시다. ‘필리핀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임명 직전까지 시장으로 22년, 부시장으로 4년, 의원으로 3년을 지낸 곳이기도 하다. 망고를 키우고, 거두고, 소독해 포장하고, 한국으로 보내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곳에서 들여다봤다.■‘추석 대목’ 망고 공장아치 랑코(26)는 다바오 파나칸의 망고 수출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한국의 추석(9월15일)을 한 달쯤 앞두고 아치가 일하는 공장은 ‘대목’을 맞았다. 이곳에서 가장 힘든 일은 망고를 증기실에 집어넣기 전 깨끗이 씻는 일이다. 아치 같은 젊은 남성들이 주로 한다. 아치가 덜 익은 망고 40여개가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살균제가 풀린 수조에 담갔다. 망고 표면을 시커멓게 만드는 곰팡이와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다. 1분가량 지나 깨끗한 물이 담긴 수조로 옮겨 헹군다. 한국과 필리핀 정부 간에 체결된 검역 규정에 따른 절차다. 아치 곁에서 14~15㎏ 되는 망고 박스를 물에 담갔다가 꺼내는 일을 도왔다. 30분이 지나자 팔이 떨리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망고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는데 ‘쿵’ 소리가 나자,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인 임종원 사장(46)이 “<span class='quot0'>그렇게 하면 망고에 상처가 난다</span>”며 주의를 줬다.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임 사장은 다바오 주변 농장들과 계약해 거둬온 망고들을 한국에 보내기 위해 쉴 새 없이 공장을 돌리고 있었다. 이날도 이른 새벽에 수확한 망고 6t이 들어왔다. 주간조와 야간조를 꼬박 돌려야 다음날 아침 포장된 망고를 평택행 배에 실을 수 있다. “9월9일이 추석 택배 마지막 날이니까 늦어도 9월5일에는 평택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평택까지는 배로 일주일 걸리는데 추석 대목 마지막 배편이 열흘도 안 남았어요. 그때까진 전쟁입니다.” 임 시장이 달력을 넘기며 말했다.아치의 동료 아르지오 라바조(21)가 웃통을 벗은 채 망고 박스를 들어 여성들이 모여 있는 작업장으로 옮겼다. 여성들은 망고를 크기에 따라 분류한다. 그 다음에 망고가 가는 곳이 증기실이다. 다음 목적지는 ‘패킹장’. 패킹장은 이중 출입문에 ‘에어샤워’까지 구비돼 있다. 초파리가 상자에 들어 있으면 한국 검역 과정에서 모두 폐기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박스 구멍에도 방충망이 붙어 있었다. 기후변화와 온난화로 한반도 남부가 아열대처럼 변하다 보니 동남아에서 해충이 유입되면 순식간에 번진다. 세계 최대 망고 생산국인 인도가 지금까지 한국에 망고를 수출하지 못한 것도 초파리 따위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아치와 아르지오는 다바오 외곽 티벙코에 산다. 마을 초입에서 30분 동안 부지런히 걸어 들어가야 아치의 집이 나온다. 어머니는 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떴고, 아치는 지금 삼촌과 함께 살고 있다. 항구에서 바나나 하역일을 하는 삼촌은 전날 아침에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집은 삼촌이 대나무를 엮고 시멘트를 발라 만들었다. 함석판을 덮은 천장은 겨우 빗물만 막을 정도다. 창문은 유리창 없이 커튼으로 가렸다. 부엌에는 시멘트로 만든 설거지대가 놓였다. 방이 2개인데 하나는 삼촌과 아들이 쓰고, 하나는 아치가 쓴다. 흙바닥으로 된 침실에는 나무판으로 만든 딱딱한 침대와 서랍장이 있다. 그래도 2평도 안되는 집에서 흙바닥에 천 하나 깔고 사는 아르지오보다는 형편이 낫다.아치도 삼촌에게 미장일과 전기배선, 목공을 배웠다. 아치는 “이 정도는 이 동네 애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일자리는 없고 나 같은 사람은 넘쳐난다”고 했다. 요즘은 망고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서 다행이란다. 아르지오는 고기잡이, 세차, 집짓기 등 일용직을 전전했다. 망고 공장에서 이들이 받는 돈은 시급 25~30페소(600~710원). 이날 망고 공장에서 10시간 동안 일해 번 돈은 각기 270페소(6400원)가 조금 안됐다. 시내 패스트푸드점에서 쌀밥과 치킨으로 한 끼를 때우는 데 드는 돈이 158페소이니 한나절 꼬박 일한 값이다.두 청년은 고등학교 2학년(한국의 중학교 2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뒀다.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치는 영어를 조금 하지만 아르지오는 현지 언어인 타갈로그어만 쓴다. 필리핀의 열대과일 수출공장과 생산농장은 이 두 사람 같은 저임금 일용직 노동자들 덕에 굴러간다. ■‘가장 달콤한 망고’ 카라바오다바오의 사사 항구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사말섬. 서울의 절반쯤 되는 사말은 화려한 리조트들로 유명하다. 섬을 빙 둘러싼 포장도로를 벗어나자 코코넛 숲 사이로 흙길이 나온다. 대나무와 짚으로 엮은 집들이 띄엄띄엄 모습을 드러내고 집 너머로 망고 숲이 보였다. 토종 물소 카라바오(Kalabaw)가 나무에 묶인 채 풀을 뜯었다. 이곳 사람들은 집 주변에서 흔하게 자라는 망고에 물소의 이름을 붙여 ‘카라바오 망가(Kalabaw Mangga)’라 부른다.카라바오에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망고’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1995년 루손섬 잠발레스에서 생산된 카라바오 망고의 기네스북 기록이다. 보통 망고의 당도는 10~14브릭스(Brix)인데, 잠발레스에선 18~19브릭스짜리도 나온다. 기네스북 기록을 세운 뒤 잠발레스 주민들은 108년 된 망고나무를 뽑아 ‘스위트엘레나’라는 품종을 만들었다. 망고나무는 보통 300년쯤 사니 108년생이면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인 셈이다. 전국에 보급된 카라바오 망고는 10여종. 저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다’며 선전하자 스위트엘레나 농가들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망고 중에서도 가장 달콤한 망고’라 홍보하고 있다.망고 농장주 오스카 쿠에바(75)가 말했다. “카라바오는 다른 나라 망고처럼 그냥 달기만 한 게 아냐. 새콤한 데다 향기도 짙지.” 오스카는 덜 익은 시큼한 망고를 길쭉하게 깎아 ‘바고옹(Bagoong)’이라는 전통 새우젓에 찍어 먹는 걸 즐긴다. 짠 새우젓이나 소금에 찍어 먹으면 신맛은 줄고 단맛은 풍성해진다. 오스카는 5㏊(1만5125평) 땅에 망고 400그루를 심었다. 농장 대부분을 차지하던 코코넛나무는 큰맘 먹고 베어냈다. 망고는 10년생 나무부터 본격적으로 수확한다. 오스카의 농장에 10년이 더 지난 나무는 59그루. 이 나무들에서 2년에 3차례, 6t 정도씩 수확을 한다. 코코넛을 베어낸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오스카가 비료로 쓰이는 닭똥 더미 속에서 지렁이를 보여주며 말했다. “<span class='quot1'>망고가 코코넛보다 4배는 더 벌어주니까.</span>”민다나오는 열대과일이 자라기에 천혜의 조건을 지녔다. 마닐라가 있는 북부 루손섬이나 관광지 세부가 있는 중부 비사야 지역은 6~7월만 지나면 망고가 나지 않으며 태풍이 잦다. 필리핀 동쪽 먼바다에서 만들어지는 태풍이 비켜가는 유일한 지역이 민다나오다. 이 때문에 6월이 지나면 상인들의 눈은 민다나오로 향한다. 필리핀 망고의 30.4%가 남한 면적의 민다나오에서 생산된다.오스카의 망고나무는 아직 꽃을 피우지 못했다. 옆 농장 망고가 주먹만큼 자라 신문지에 싸여 있는 것에 비하면 많이 늦었다. 오스카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해마다 이맘때면 망고나무 아래서 낙엽과 짚을 태우느라 분주했다. 연기를 쐰 나무에서는 금세 꽃대가 올라온다. 연기 속 에틸렌이 생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사과와 다른 과일을 함께 두면 사과의 에틸렌 탓에 과일들이 물러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연기 요법이 늘 망고를 키우는 데에 효과적인 것도 아니었고, 수확한 다음해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해거리라도 있으면 큰일이었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망고는 주요 수출 과일에 끼지 못했다.■화약 원료가 망고를 꽃피우다망고가 바나나, 파인애플과 함께 필리핀의 주요 작물이 된 건 발명가 겸 원예가로 유명한 라몬 바르바(Ramon Barba) 덕분이다. 그는 화약의 원료인 질산칼륨을 물에 섞어 망고나무에 뿌리면 꽃대가 올라온다는 걸 알아냈다. 해거리를 하는 망고나무에 뿌리면 꽃을 피워 생산량을 높일 수 있었다. 이 발견 덕에 민다나오에서는 망고를 해거리 없이 수확할 수 있게 됐다. 바르바는 그 공로로 2014년 정부로부터 ‘국민 과학자’ 칭호를 받았다.세계 바나나 산업을 꽉 잡고 있는 미국의 돌(Dole)사는 바나나처럼 망고도 대규모 플랜테이션으로 생산하려고 사말섬에 시범농장을 열었으나 문을 닫았다. 개화 시기를 조절하는 숙제는 풀었지만 묘목을 10년 이상 키우는 게 부담이었다. 망고는 파인애플이나 바나나처럼 1년 새 훌쩍 자라는 풀이 아니기 때문이다. 망고가 익으면 장대 끝에 칼을 달아 열매를 따는데, 나무 높이가 큰 것은 40m에 이르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든다. 오스카의 농장 근처에 있는 주정부의 망고연구소에서는 망고나무의 높이를 낮추는 연구가 한창이었다.마르틴 콤비스타(55)와 사무엘 다비스(46)가 마리오 플란테라스(52)의 농장으로 트럭을 몰았다. 트럭 뒤 물통에 질산칼륨을 풀었다. 어른 가슴께 오는 크기의 물통이 찰랑거리다가 푹 파인 구덩이를 지날 때마다 물을 한 바가지씩 토해냈다. 마리오의 집은 200여그루의 망고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망고나무에 매단 해먹에는 마리오가 누워 있었다. 아들 크리스찬(11)은 나무 사이 볕이 드는 곳에 책상을 놓고 숙제를 하고 있었다. 망고 뿌리가 튀어나온 곳에 수탉이 묶여 있고, 옆에서 염소가 놀았다. 돼지 세 마리가 나무 밑 진흙 구덩이에서 뒹굴었다. 집 뒤에는 생강과 옥수수 밭이 있었다. 사무엘이 농장 입구에 트럭을 세우더니 200m짜리 호스를 꺼내들고 농장을 성큼성큼 가로질렀다. 돌의 시범농장에서 일했던 그는 농장이 문을 닫은 2008년부터 퇴직 경찰관 마르틴 밑에서 일하고 있다. 사무엘이 호스를 장대에 감더니 높이 8~10m쯤 되는 망고나무를 탔다. 물을 뿌리자 나무 아래서 놀던 닭들이 놀라 푸덕거렸다. 크리스찬은 나무 밑 소를 끌고 나갔고, 농장 주인인 마리오와 아내 조세클린(46)은 마르틴 일행이 하는 일을 멀뚱멀뚱 지켜봤다.마르틴은 “<span class='quot2'>망고나무는 마리오의 것이지만, 망고 열매는 내 것</span>”이라고 말했다. 농장 주인은 마리오이지만 농사를 짓고 관리하는 것은 ‘스프레이(Spray) 업자’인 마르틴이다. 가난한 마리오 부부가 망고 농사를 짓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수액을 빨아먹는 매미충, 열매에 붙어사는 초파리, 총채벌레 따위의 피해를 막으려면 수정돼 열매가 맺히고 수확하기까지 110일 동안 적어도 8~10번 농약을 뿌려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찮다. 민다나오대학 경영학과 래리 디갈 교수에 따르면 농약값, 질산칼륨값, 비료값이 망고 생산비의 70%를 차지한다. 농민이 그 돈을 대기도 힘들거니와, 판로를 찾기도 쉽지 않다.■망고 마을의 ‘큰손’마르틴은 이 지역 농민들에게 다국적기업 바이엘, 몬산토, 듀퐁 등에서 만든 농약을 독점 공급한다. 소농들은 스프레이 업자이자 농부이기도 한 그에게 망고 농사를 모두 맡기고 수익을 나눠 갖는 편을 택한다. 마르틴이 가진 망고 농장은 1㏊(3025평)도 안되지만,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농장은 30㏊(9만750평)에 달한다. 수확철에는 일당 280페소(6650원)에 주민 30~40명을 고용하는 마을의 큰손이기도 하다. 비가 자주 내려 농약이 많이 들거나, 엘니뇨에 시달린 올해 초처럼 고온이 이어져 농사를 망치거나, 망고값이 폭락하는 등의 위험은 온전히 마르틴이 진다. 남의 배추밭을 몽땅 사들여 농사를 짓게 한 뒤 작물을 파는 한국의 ‘밭떼기 상인’과 비슷하다. 마르틴은 망고 판매 수익의 75%를 챙긴다. 나머지 25%가 마리오의 몫이다. 마리오는 염소고기, 돼지고기, 생강 등을 팔아 번 돈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방카로완은 다바오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다. 망고 공장 창고에는 상자 수백개가 쌓여 있어도 방카로완에서는 망고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열대과일 람부탄과 란조네스를 가득 쌓아놓고 팔던 과일상인 준(42)이 “<span class='quot3'>요즘 나온 망고는 너무 비싸서 여기서는 팔지 않는다</span>”고 말했다. 하메드(21)의 가게로 옮겨가 보니 망고 5개가 진열돼 있다. 120페소(2800원)를 주고 3개를 샀다. 하메드는 맛있을 거라며 엄지를 치켜들었지만, 택시기사 빅터(57)의 말은 달랐다. “나쁜 망고를 샀어. 겉에 시커먼 점들이 이렇게 많은 건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좋은 카라바오 망고를 구하려면 한국에서 찾는 게 더 쉬울 거야.” 한국의 추석 대목이 지나고, 10월이 돼 망고 출하가 늘면 시장에서도 구경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필리핀은 망고도 유명하지만 한국에 들어오는 바나나의 주요 생산국이기도 하다. 국내에선 보기 힘든 온갖 종류의 바나나가 있었다. 요리용으로 쓰는 사바와 카르다바 바나나는 짧고 뭉뚝했다. 사바는 튀겨서 설탕을 뿌려 먹거나, 오븐에 구워 버터를 발라 먹는다. ‘세계 최고의 맛’으로 평가받는 라카탄 바나나도 있었다. 필리핀 사람들은 라카탄을 즐기지만, 해외로 수출되는 대표 품종은 캐번디시다. 농학자 아나스타샤 노타르테 박사(58)는 “<span class='quot4'>라카탄은 보통 3세대가 넘어가면 수확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플랜테이션에 적합하지 않은 탓</span>”이라고 설명했다. 방카로완 시장을 나와 SM몰로 향했다. 화교가 운영하는 대형 쇼핑몰이다. 1층 파라솔 밑에 두리안, 망고스틴, 마랑, 람부탄, 란조네스 같은 제철과일들이 손님을 부른다. 여기서 팔리는 망고는 수출공장에서 봤던 매끈한 녀석이 아니었다. 점원이 굵은 가시가 박힌 두리안을 칼로 잘라줬다. 아시아가 원산인 망고와 바나나, 아메리카가 원산인 파인애플은 순식간에 세계로 퍼졌지만 두리안은 특유의 냄새 탓에 지금도 원산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맛은 좋지만 번식이 어려운 망고스틴도 널리 퍼지지 못했다. ■중국 시장을 열어준 두테르테다바오 시청 앞길, 필리핀 ‘독립의 아버지’ 호세 리살의 동상 앞에서 여성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췄다. 민다나오에서 가장 큰 축제 ‘카다야완’이 열리고 있었다. ‘풍성한 삶을 주신 신께 찬양한다’는 뜻의 현지어로, 한 해 동안 망고·파인애플·바나나·두리안 같은 열대과일을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제다. 아침 7시 막사이사이 공원에서 출발한 퍼레이드 행렬은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시청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민다나오에 사는 부족들이 저마다 전통의상을 입고 행진했다. 푸른 옷을 입은 바고보클라타 부족은 전통악기인 작은 징 소리에 맞춰 몸을 흔들고, 두건과 전통문양을 수놓은 치마를 걸친 방사이라넌 부족 여성들은 두 팔을 하늘하늘 휘저었다. ‘디와타’라는 신이 1년에 한번, 보름달이 뜰 때 지상에 내려오는 것을 기리기 위해 시작한 이 축제는 두테르테가 다바오 시장이던 1988년 민다나오 전역의 행사로 커졌고 카다야완이라는 공식 명칭도 생겼다. 각 부족을 소개하는 트럭에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다.다바오에서 두테르테는 영웅이다. 주민들은 집과 자동차에 두테르테의 사진이나 두테르테의 상징인 주먹 모양의 스티커를 붙였다. 사람들은 두테르테 부채를 들었다. 축제에 나온 시민들을 불심검문하던 군인은 팔에 두테르테 팔찌를 찼다.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슈라인 언덕에는 ‘두테르테 시티’라는 간판이 내걸렸다.필리핀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에서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데 여기에 민다나오의 열대과일이 휘말렸다. 지난 7월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영유권 분쟁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자 중국에서 필리핀 망고 불매운동이 번졌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망고가 먹고 싶으면 태국산을 사먹자” “필리핀인들을 굶겨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에서는 수입상들이 필리핀 망고 판매를 중단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위생상의 문제’를 들며 필리핀 바나나와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했는데, 영유권 문제에서 필리핀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많았다.두테르테는 지난달 중국을 국빈 방문해 “<span class='quot5'>이제 미국과 작별을 고할 시간</span>”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손을 잡았다. 두테르테가 정말 미국과 결별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두테르테의 말 한마디가 오스카와 마르틴 같은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줬다는 점이다. 중국은 바나나와 파인애플 수입금지 제한을 풀고 필리핀산 망고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민다나오는 ‘필리핀의 농장’에서 ‘세계의 농장’이 됐다. 노동집약적인 열대과일 산업은 민다나오의 실업률이 최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무슬림 반군에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바나나 농장이 세워지기도 했다. 동시에 열대과일은 필리핀을 옭아맨다. 수출 과일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점점 대규모화·단작화되고 병충해는 심해진다. 농민들은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바나나·파인애플 산업은 치키타, 돌 같은 글로벌 기업이 선점했으며 농약을 공급하는 다국적 화학기업들이 이윤을 독차지한다. 세계에 값싼 과일을 공급하는 바탕은 저임금 일용직 위주의 노동구조다.중국이 필리핀 과일의 ‘가장 큰 시장’이라면, 한국은 ‘가격과 거리를 고려할 때 가장 수익성이 좋은 시장’(필리핀 농무부 보고서)이다. 하지만 한국 망고시장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망고시장 점유율 1위인 필리핀 카라바오 망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건 태국 망고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보면 지난해 필리핀에서는 생망고 5716.5t이 수입됐다. 태국에서는 5692.7t이 들어왔다. 대만(1760.5t), 베트남(210.8t), 호주(84.7t)가 뒤를 이었다. 세계에서 망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인도까지 뛰어들었다. 한국과 인도 정부가 인도 내 증열처리 공장에 한국 검역관을 상주시키는 데 합의하면서 7월부터 인도산 망고 수입이 가능해졌다. 인도산까지 쏟아져 들어오면 서울의 망고값은 더 싸질 것이다. 필리핀 농민들에게 ‘한국=수익성 좋은 시장’이란 등식은 옛말이 될 수도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가장 달콤한 망고”라는 카라바오 망고와 “망고의 왕”으로 불리는 인도 알폰소 망고를 비교해보면서 맛볼 수 있게 됐다. 물론 대가는 감수해야 한다. 필리핀은 망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이어가야 하고, 한국은 국내 과수 산업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한국과 필리핀 정부는 기꺼이 이 대가를 치를 것처럼 보인다. ▶필리핀 바나나는 중국서 건너갔다>>대표 수출 품종 ‘캐번디시’>>자국 생산량의 절반 차지필리핀 바나나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표 수출 품종 캐번디시는 중국이 원산으로 알려져 있다. 필리핀이 원산인 내수용 라카탄은 30%에 그친다. 원래는 캐번디시보다 맛도 좋고 크기도 큰 그로미셸 바나나가 주요 수출 품종이었다. 그로미셸은 단단해서 배나 기차 화물칸에 던져도 상하지 않았다.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된 바나나 곰팡이인 파나마병이 퍼지기 전까지 그로미셸은 완벽한 수출 품목이었다. 1960년대 중반 그로미셸은 완전히 사라지고, 단단하면서 파나마병에 걸리지 않는 바나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게 캐번디시다. 글로벌 과일유통업체인 치키타가 그로미셸로 성장한 기업이라면, 캐번디시 덕에 세계적인 기업이 된 업체가 돌이다. 하지만 캐번디시도 변종 파나마병에 말라가기 시작했다. 필리핀에서는 2006년 다바오의 바나나 농장에서 변종 파나마병이 처음 발견됐다. 농학자 아나스타샤 노테르테 박사는 “<span class='quot6'>길을 가다보면 중간중간 텅 빈 농장이 나타나는데 그게 다 파나마병 때문에 농장을 불태운 것</span>”이라고 말했다. 파나마병은 땅속에서 뿌리끼리 닿아 전염되기 때문에 한번 발견되면 일대를 모조리 불태워야 한다. 특별취재팀구정은 박경은 이인숙정환보 남지원 이재덕 기자취재 지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5.txt

제목: [밥상 위의 세계(7)]한국의 '새 국민과일', 망고 탄생기  
날짜: 20161117  
기자: 다바오|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17151514001  
본문: 흠집 없는 망고에 막대기 하나가 푹 들어와 박힌다. 컴퓨터 화면에 30.2도가 찍혔다. 과육의 온도다. 새벽에 농장에서 배달된 망고 2400개 중 8개에 센서가 박혔다. 필리핀 다바오의 한 망고 수출공장. 직원들이 망고를 컨테이너 증기실로 옮기느라 분주했다.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망고는 증기 소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증열처리(VHT)라 부르는 일종의 ‘사우나’를 통해 소독을 하는 것이다. 과육이 상하지 않게 하면서 표면의 숨구멍으로 열을 집어넣어 과일 속 병균과 해충을 죽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40분. 과육의 온도가 46도가 됐을 때 10분 더 사우나를 하고 나서 0도 찬물로 1시간 동안 샤워를 한다.어느새 망고는 한국의 ‘국민과일’이 됐다. 시내 카페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망고주스, 망고와플을 즐기고, 무더웠던 올여름엔 망고빙수가 인기였다. 추석 차례상에도 망고가 올랐다. 그 망고의 고향을 찾아 지난 8월18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의 항구도시 다바오에 갔다. 마닐라와 세부 다음으로 큰 필리핀 제3의 도시다. ‘필리핀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임명 직전까지 시장으로 22년을 지낸 곳이기도 하다. 망고를 키우고, 거두고, 소독해 포장하고, 한국으로 보내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곳에서 들여다봤다.■‘추석 대목’ 망고 공장아치 랑코(26)는 다바오 파나칸의 망고 수출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한국의 추석(9월15일)을 한 달쯤 앞두고 아치가 일하는 공장은 ‘대목’을 맞았다. 이곳에서 가장 힘든 일은 망고를 증기실에 집어넣기 전 깨끗이 씻는 일이다. 아치 같은 젊은 남성들이 주로 한다. 아치가 덜 익은 망고 40여개가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살균제가 풀린 수조에 담갔다. 망고 표면을 시커멓게 만드는 곰팡이와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다. 1분가량 지나 깨끗한 물이 담긴 수조로 옮겨 헹군다. 한국과 필리핀 정부 간에 체결된 검역 규정에 따른 절차다. 아치 곁에서 14~15㎏ 되는 망고 박스를 물에 담갔다가 꺼내는 일을 도왔다. 30분이 지나자 팔이 떨리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망고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는데 ‘쿵’ 소리가 나자,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인 임종원(46)사장이 “<span class='quot0'>그렇게 하면 망고에 상처가 난다</span>”며 주의를 줬다.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임 사장은 다바오 주변 농장들과 계약해 거둬온 망고들을 한국에 보내기 위해 쉴 새 없이 공장을 돌리고 있었다. 이날도 이른 새벽에 수확한 망고 6t이 들어왔다. 주간조와 야간조를 꼬박 돌려야 다음날 아침 포장된 망고를 평택행 배에 실을 수 있다. “9월9일이 추석 택배 마지막 날이니까 늦어도 9월5일에는 평택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평택까지는 배로 일주일 걸리는데 추석 대목 마지막 배편이 열흘도 안 남았어요. 그때까진 전쟁입니다.” 임 사장이 달력을 넘기며 말했다.아치의 동료 아르지오 라바조(21)가 웃통을 벗은 채 망고 박스를 들어 여성들이 모여 있는 작업장으로 옮겼다. 여성들은 망고를 크기에 따라 분류한다. 그 다음에 망고가 가는 곳이 증기실이다. 다음 목적지는 패킹장. 패킹장은 이중 출입문에 에어샤워까지 구비돼 있다. 초파리가 상자에 들어 있으면 한국 검역 과정에서 모두 폐기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박스 구멍에도 방충망이 붙어 있었다. 기후변화와 온난화로 한반도 남부가 아열대처럼 변하다 보니 동남아에서 해충이 유입되면 순식간에 번진다. 세계 최대 망고 생산국인 인도가 지금까지 한국에 망고를 수출하지 못한 것도 초파리 따위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치와 아르지오는 다바오 외곽 티벙코에 산다. 마을 초입에서 30분 동안 부지런히 걸어 들어가야 아치의 집이 나온다. 어머니는 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떴고, 아치는 지금 삼촌과 함께 살고 있다. 항구에서 바나나 하역일을 하는 삼촌은 전날 아침에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집은 삼촌이 대나무를 엮고 시멘트를 발라 만들었다. 함석판을 덮은 천장은 겨우 빗물만 막을 정도다. 창문은 유리창 없이 커튼으로 가렸다. 부엌에는 시멘트로 만든 설거지대가 놓였다. 방이 2개인데 하나는 삼촌과 아들이 쓰고, 하나는 아치가 쓴다. 흙바닥으로 된 침실에는 나무판으로 만든 딱딱한 침대와 서랍장이 있다. 그래도 2평도 안되는 집에서 흙바닥에 천 하나 깔고 사는 아르지오보다는 형편이 낫다.아치도 삼촌에게 미장일과 전기배선, 목공을 배웠다. 아치는 “이 정도는 이 동네 애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일자리는 없고 나 같은 사람은 넘쳐난다”고 했다. 요즘은 망고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서 다행이란다. 아르지오는 고기잡이, 세차, 집짓기 등 일용직을 전전했다. “<span class='quot1'>하루 종일 부려먹고 쉴 시간도 안 주는 고기잡이에 비하면 다른 일은 다 할 만하다</span>”고 말했다. 망고 공장에서 이들이 받는 돈은 시급 25~30페소(600~710원). 이날 망고 공장에서 10시간 동안 일해 번 돈은 각기 270페소(6400원)가 조금 안됐다. 시내 패스트푸드점에서 쌀밥과 치킨으로 한 끼를 때우는 데 드는 돈이 158페소이니 한나절 꼬박 일한 값이다.두 청년은 고등학교 2학년(한국의 중학교 2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뒀다.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치는 영어를 조금 하지만 아르지오는 현지 언어인 타갈로그어만 쓴다. 필리핀의 열대과일 수출공장과 생산농장은 이 두 사람 같은 저임금 일용직 노동자들 덕에 굴러간다.■‘가장 달콤한 망고’ 카라바오다바오의 사사 항구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사말섬. 서울의 절반쯤 되는 사말은 화려한 리조트들로 유명하다. 섬을 빙 둘러싼 포장도로를 벗어나자 코코넛 숲 사이로 흙길이 나온다. 대나무와 짚으로 엮은 집들이 띄엄띄엄 모습을 드러내고 집 너머로 망고 숲이 보였다. 토종 물소 카라바오(Kalabaw)가 나무에 묶인 채 풀을 뜯었다. 이곳 사람들은 집 주변에서 흔하게 자라는 망고에 물소의 이름을 붙여 ‘카라바오 망가(Kalabaw Mangga)’라 부른다.카라바오에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망고’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1995년 루손섬 잠발레스에서 생산된 카라바오 망고의 기네스북 기록이다. 보통 망고의 당도는 10~14브릭스(Brix)인데, 잠발레스에선 18~19브릭스짜리도 나온다. 기네스북 기록을 세운 뒤 잠발레스 주민들은 108년 된 망고나무를 뽑아 ‘스위트엘레나’라는 품종을 만들었다. 망고나무는 보통 300년쯤 사니 108년생이면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인 셈이다. 전국에 보급된 카라바오 망고는 10여종. 저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다’며 선전하자 스위트엘레나 농가들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망고 중에서도 가장 달콤한 망고’라 홍보하고 있다.망고 농장주 오스카 쿠에바(75)가 말했다. “카라바오는 다른 나라 망고처럼 그냥 달기만 한 게 아냐. 새콤한 데다 향기도 짙지.” 오스카는 덜 익은 시큼한 망고를 길쭉하게 깎아 바고옹(Bagoong)이라는 전통 새우젓에 찍어 먹는 걸 즐긴다. 짠 새우젓이나 소금에 찍어 먹으면 신맛은 줄고 단맛은 풍성해진다. 오스카는 5㏊(1만5125평) 땅에 망고 400그루를 심었다. 농장 대부분을 차지하던 코코넛나무는 큰맘 먹고 베어냈다. 망고는 10년생 나무부터 본격적으로 수확한다. 오스카의 농장에 10년이 더 지난 나무는 59그루. 이 나무들에서 2년에 3차례, 6t 정도씩 수확을 한다. 코코넛을 베어낸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오스카가 비료로 쓰이는 닭똥 더미 속에서 지렁이를 보여주며 말했다. “<span class='quot1'>망고가 코코넛보다 4배는 더 벌어주니까.</span>” 민다나오는 열대과일이 자라기에 천혜의 조건을 지녔다. 마닐라가 있는 북부 루손섬이나 관광지 세부가 있는 중부 비사야 지역은 6~7월만 지나면 망고가 나지 않으며 태풍이 잦다. 필리핀 동쪽 먼바다에서 만들어지는 태풍이 비켜가는 유일한 지역이 민다나오다. 이 때문에 6월이 지나면 상인들의 눈은 민다나오로 향한다. 필리핀 망고의 30.4%가 남한 면적의 민다나오에서 생산된다.오스카의 망고나무는 아직 꽃을 피우지 못했다. 옆 농장 망고가 주먹만큼 자라 신문지에 싸여 있는 것에 비하면 많이 늦었다. 오스카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해마다 이맘때면 망고나무 아래서 낙엽과 짚을 태우느라 분주했다. 연기를 쐰 나무에서는 금세 꽃대가 올라온다. 연기 속 에틸렌이 생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사과와 다른 과일을 함께 두면 사과의 에틸렌 탓에 과일들이 물러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연기 요법이 늘 망고를 키우는 데에 효과적인 것도 아니었고, 수확한 다음해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해거리라도 있으면 큰일이었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망고는 주요 수출 과일에 끼지 못했다.■화약 원료가 망고를 꽃피우다망고가 바나나, 파인애플과 함께 필리핀의 주요 작물이 된 건 발명가 겸 원예가로 유명한 라몬 바르바(Ramon Barba) 덕분이다. 그는 화약의 원료인 질산칼륨을 물에 섞어 망고나무에 뿌리면 꽃대가 올라온다는 걸 알아냈다. 해거리를 하는 망고나무에 뿌리면 꽃을 피워 생산량을 높일 수 있었다. 이 발견 덕에 민다나오에서는 망고를 해거리 없이 수확할 수 있게 됐다. 바르바는 그 공로로 2014년 정부로부터 ‘국민 과학자’ 칭호를 받았다. 세계 바나나 산업을 꽉 잡고 있는 미국의 돌(Dole)사는 바나나처럼 망고도 대규모 플랜테이션으로 생산하려고 사말섬에 시범농장을 열었으나 문을 닫았다. 개화 시기를 조절하는 숙제는 풀었지만 묘목을 10년 이상 키우는 게 부담이었다. 망고는 파인애플이나 바나나처럼 1년 새 훌쩍 자라는 풀이 아니기 때문이다. 망고가 익으면 장대 끝에 칼을 달아 열매를 따는데, 나무 높이가 큰 것은 40m에 이르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든다. 오스카의 농장 근처에 있는 주정부의 망고연구소에서는 망고나무의 높이를 낮추는 연구가 한창이었다.마르틴 콤비스타(55)와 사무엘 다비스(46)가 마리오 플란테라스(52)의 농장으로 트럭을 몰았다. 트럭 뒤 물통에 질산칼륨을 풀었다. 어른 가슴께 오는 크기의 물통이 찰랑거리다가 푹 파인 구덩이를 지날 때마다 물을 한 바가지씩 토해냈다. 마리오의 집은 200여그루의 망고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망고나무에 매단 해먹에는 마리오가 누워 있었다. 아들 크리스찬(11)은 나무 사이 볕 드는 곳에 놓인 식탁 위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망고 뿌리가 튀어나온 곳에 수탉이 묶여 있고, 옆에서 염소가 놀았다. 돼지 세 마리가 나무 밑 진흙 구덩이에서 뒹굴었다. 집 뒤에는 생강과 옥수수 밭이 있었다. 사무엘이 농장 입구에 트럭을 세우더니 200m짜리 호스를 꺼내들고 농장을 성큼성큼 가로질렀다. 돌의 시범농장에서 일했던 그는 농장이 문을 닫은 2008년부터 퇴직 경찰관 마르틴 밑에서 일하고 있다. 사무엘이 호스를 장대에 감더니 높이 8m쯤 되는 망고나무를 탔다. 물을 뿌리자 나무 아래서 놀던 닭들이 놀라 푸덕거렸다. 크리스찬은 나무 밑 소를 끌고 나갔고, 농장 주인인 마리오와 아내 조세클린(46)은 마르틴 일행이 하는 일을 멀뚱멀뚱 지켜봤다. 마르틴은 “<span class='quot2'>망고나무는 마리오의 것이지만, 망고 열매는 내 것</span>”이라고 말했다. 농장 주인은 마리오이지만 농사를 짓고 관리하는 것은 ‘스프레이(Spray) 업자’인 마르틴이다. 가난한 마리오 부부가 망고 농사를 짓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수액을 빨아먹는 매미충, 열매에 붙어사는 초파리, 총채벌레 따위의 피해를 막으려면 수정돼 열매가 맺히고 수확하기까지 110일 동안 적어도 8~10번 농약을 뿌려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찮다. 민다나오대학 경영학과 래리 디갈 교수에 따르면 농약값, 질산칼륨값, 비료값이 망고 생산비의 70%를 차지한다. 농민이 그 돈을 대기도 힘들거니와, 판로를 찾기도 쉽지 않다.■망고 마을의 ‘큰손’ 마르틴은 이 지역 농민들에게 다국적기업 바이엘, 몬산토, 듀퐁 등에서 만든 농약을 독점 공급한다. 소농들은 스프레이 업자이자 농부이기도 한 그에게 망고 농사를 모두 맡기고 수익을 나눠 갖는 편을 택한다. 마르틴이 가진 망고 농장은 1㏊(3025평)도 안되지만,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농장은 30㏊(9만750평)에 달한다. 수확철에는 일당 280페소(6650원)에 주민 30~40명을 고용하는 마을의 큰손이기도 하다. 비가 자주 내려 농약이 많이 들거나, 엘니뇨에 시달린 올해 초처럼 고온이 이어져 농사를 망치거나, 망고값이 폭락하는 등의 위험은 온전히 마르틴이 진다. 남의 배추밭을 몽땅 사들여 농사를 짓게 한 뒤 작물을 파는 한국의 ‘밭떼기 상인’과 비슷하다. 마르틴은 망고 판매 수익의 75%를 챙긴다. 나머지 25%가 마리오의 몫이다. 마리오는 염소고기, 돼지고기, 생강 등을 팔아 번 돈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방카로완은 다바오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다. 망고 공장 창고에는 상자 수백개가 쌓여 있어도 방카로완에서는 망고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열대과일 람부탄과 란조네스를 가득 쌓아놓고 팔던 과일상인 준(42)이 “<span class='quot3'>요즘 나온 망고는 너무 비싸서 여기서는 팔지 않는다</span>”고 말했다. 하메드(21)의 가게로 옮겨가 보니 망고 5개가 진열돼 있다. 120페소(2800원)를 주고 3개를 샀다. 하메드는 맛있을 거라며 엄지를 치켜들었지만, 택시기사 빅터(57)의 말은 달랐다. “나쁜 망고를 샀어. 겉에 시커먼 점들이 이렇게 많은 건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좋은 카라바오 망고를 구하려면 한국에서 찾는 게 더 쉬울 거야.” 한국의 추석 대목이 지나고, 10월이 돼 망고 출하가 늘면 시장에서도 구경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필리핀은 망고도 유명하지만 한국에 들어오는 바나나의 주요 생산국이기도 하다. 국내에선 보기 힘든 온갖 종류의 바나나가 있었다. 요리용으로 쓰는 사바와 카르다바 바나나는 짧고 뭉뚝했다. 사바는 튀겨서 설탕을 뿌려 먹거나, 오븐에 구워 버터를 발라 먹는다. ‘세계 최고의 맛’으로 평가받는 필리핀 원산의 라카탄 바나나도 있었다. 필리핀 사람들은 라카탄을 즐기지만, 해외로 수출되는 대표 품종은 중국이 원산으로 알려진 캐번디시다. 농학자 아나스타샤 노타르테 박사(58)는 “<span class='quot4'>라카탄은 보통 3세대가 넘어가면 수확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플랜테이션에 적합하지 않은 탓</span>”이라고 설명했다. 라카탄은 필리핀 바나나의 30%를 차지하지만 캐번디시는 절반 이상이다. 원래는 캐번디시보다 맛도 좋고 크기도 큰 그로미셸 바나나가 주요 수출 품종이었다. 그로미셸은 단단해서 배나 기차 화물칸에 던져도 상하지 않았다.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된 바나나 곰팡이인 파나마병이 퍼지기 전까지 그로미셸은 완벽한 수출 품목이었다. 1960년대 중반 그로미셸은 완전히 사라지고, 단단하면서 파나마병에 걸리지 않는 바나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게 캐번디시다. 글로벌 과일유통업체인 치키타가 그로미셸로 성장한 기업이라면, 캐번디시 덕에 세계적인 기업이 된 업체가 돌이다. 하지만 캐번디시도 변종 파나마병에 말라가기 시작했다. 필리핀에서는 2006년 다바오의 바나나 농장에서 변종 파나마병이 처음 발견됐다. 노테르테 박사는 “<span class='quot5'>길을 가다보면 중간중간 텅 빈 농장이 나타나는데 그게 다 파나마병 때문에 농장을 불태운 것</span>”이라고 말했다. 파나마병은 땅속에서 뿌리끼리 닿아 전염되기 때문에 한번 발견되면 일대를 모조리 불태워야 한다. 방카로완 시장을 나와 SM몰로 향했다. 화교가 운영하는 대형 쇼핑몰이다. 1층 파라솔 밑에 두리안, 망고스틴, 마랑, 람부탄, 란조네스 같은 제철과일들이 손님을 부른다. 여기서 팔리는 망고는 수출공장에서 봤던 매끈한 녀석이 아니었다. 점원이 굵은 가시가 박힌 두리안을 칼로 잘라줬다. 아시아가 원산인 망고와 바나나, 아메리카가 원산인 파인애플은 순식간에 세계로 퍼졌지만 두리안은 특유의 냄새 탓에 지금도 원산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맛은 좋지만 번식이 어려운 망고스틴도 널리 퍼지지 못했다. ■중국 시장을 열어준 두테르테다바오 시청 앞길, 필리핀 ‘독립의 아버지’ 호세 리살의 동상 앞에서 여성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췄다. 민다나오에서 가장 큰 축제 ‘카다야완’이 열리고 있었다. ‘풍성한 삶을 주신 신께 찬양한다’는 뜻의 현지어로, 한 해 동안 망고·파인애플·바나나·두리안 같은 열대과일을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제다. 아침 7시 막사이사이 공원에서 출발한 퍼레이드 행렬은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시청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민다나오에 사는 부족들이 저마다 전통의상을 입고 행진했다. 푸른 옷을 입은 바고보클라타(Bagobo Klata) 부족은 전통악기인 작은 징 소리에 맞춰 몸을 흔들고, 두건과 전통문양을 수놓은 치마를 걸친 방사이라넌(Bangsa Iranun) 부족 여성들은 두 팔을 하늘하늘 휘저었다. ‘디와타’라는 신이 1년에 한번, 보름달이 뜰 때 지상에 내려오는 것을 기리기 위해 시작한 이 축제는 두테르테가 다바오 시장이던 1988년 민다나오 전역의 행사로 커졌고 카다야완이라는 공식 명칭도 생겼다. 각 부족을 소개하는 트럭에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다. 다바오에서 두테르테는 영웅이다. 주민들은 집과 자동차에 두테르테의 사진이나 두테르테의 상징인 주먹 모양의 스티커를 붙였다. 퍼레이드를 보러온 사람들은 두테르테 부채를 들었다. 축제에 나온 시민들을 불심검문하던 군인은 팔목에 두테르테 팔찌를 찼다.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슈라인 언덕에는 ‘두테르테 시티’라는 간판이 내걸렸다.필리핀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에서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데 여기에 민다나오의 열대과일이 휘말렸다. 지난 7월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영유권 분쟁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자 중국에서 필리핀 망고 불매운동이 번졌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망고가 먹고 싶으면 태국산을 사먹자” “필리핀인들을 굶겨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에서는 수입상들이 필리핀 망고 판매를 중단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위생상의 문제’를 들며 필리핀 바나나와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했는데, 영유권 문제에서 필리핀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많았다.두테르테는 지난달 중국을 국빈 방문해 “<span class='quot6'>이제 미국과 작별을 고할 시간</span>”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손을 잡았다. 두테르테가 정말 미국과 결별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두테르테의 말 한마디가 오스카와 마르틴 같은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줬다는 점이다. 중국은 바나나와 파인애플 수입금지 제한을 풀고 필리핀산 망고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민다나오는 ‘필리핀의 농장’에서 ‘세계의 농장’이 됐다. 노동집약적인 열대과일 산업은 민다나오의 실업률이 최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무슬림 반군에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바나나 농장이 세워지기도 했다. 동시에 열대과일은 필리핀을 옭아맨다. 수출 과일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점점 대규모화·단작화되고 병충해는 심해진다. 농민들은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바나나·파인애플 산업은 치키타, 돌 같은 글로벌 기업이 선점했으며 농약을 공급하는 다국적 화학기업들이 이윤을 독차지한다. 세계에 값싼 과일을 공급하는 바탕은 저임금 일용직 위주의 노동구조다.중국이 필리핀 과일의 ‘가장 큰 시장’이라면, 한국은 ‘가격과 거리를 고려할 때 가장 수익성이 좋은 시장’(필리핀 농무부 보고서)이다. 하지만 한국 망고시장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망고시장 점유율 1위인 필리핀 카라바오 망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건 태국 망고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보면 지난해 필리핀에서는 생망고 5716.5t이 수입됐다. 태국에서는 5692.7t이 들어왔다. 대만(1760.5t), 베트남(210.8t), 호주(84.7t)가 뒤를 이었다. 세계에서 망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인도까지 뛰어들었다. 한국과 인도 정부가 인도 내 증열처리 공장에 한국 검역관을 상주시키는 데 합의하면서 7월부터 인도산 망고 수입이 가능해졌다. 인도산까지 쏟아져 들어오면 서울의 망고값은 더 싸질 것이다. 필리핀 농민들에게 ‘한국=수익성 좋은 시장’이란 등식은 옛말이 될 수도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가장 달콤한 망고”라는 카라바오 망고와 “망고의 왕”으로 불리는 인도 알폰소 망고를 비교해보면서 맛볼 수 있게 됐다. 물론 대가는 감수해야 한다. 필리핀은 망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이어가야 하고, 한국은 국내 과수 산업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한국과 필리핀 정부는 기꺼이 이 대가를 치를 것처럼 보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6.txt

제목: 국민 10명 중 7명이 실손의료보험 가입  
날짜: 20161115  
기자: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15150252001  
본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연체 발생률이 낮았다. 신용정보원이 은행·보험 등 전 금융업권의 대출보유자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빅데이터를 최초로 분석해 15일 발표했다. 특히 전체 보험업권의 통합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통계는 최초로 분석된 결과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456만명으로 전국민(5080만명)의 약 3분의 2(68%)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10세 미만이 81.4%로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퇴직연령인 60대부터는 46.8%로 가입률이 크게 낮아졌다.10세 미만에서 가입률이 높은 이유는 태아보험이 출생 이후 대부분 특약으로 실손의료보험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이다. 남녀의 가입률 차이는 거의 없었다. 가입자의 77.8%는 손해보험사 상품, 18.9%는 생명보험사, 6.5%는 공제사 상품에 가입했으며, 상해보장형 상품이 8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 수록 보험료와 진료비는 상승하고 가입률은 하락했다. 실손의료보험 이외에 정액형 보험 가입자의 경우 사망과 암을 보장하는 상품 비중이 높았다. 최근 1년간 신규 보험의 경우 40~50대 중장년층의 보험 가입 비중이 증가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7.txt

제목: 록밴드 ‘들국화’ 원년 멤버 기타리스트 조덕환씨 별세  
날짜: 20161114  
기자: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14210248002  
본문: 록밴드 들국화의 원년 멤버인 기타리스트 조덕환씨가 14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는 조씨가 몇 달 전 십이지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해오다 이날 오전 4시쯤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조씨는 1985년 9월 들국화 1집 앨범 <행진>으로 데뷔했다. 조씨는 들국화 탈퇴 후 1987년 미국으로 건너가 22년간 머물다 2009년 귀국해 솔로로 음악계에 복귀했다. 2011년 첫 솔로 앨범 <롱 웨이 홈(Long way Home)>을 내놓았으며, 암 투병 직전까지 솔로 2집 준비를 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해왔다.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6일 오전 7시. 장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8.txt

제목: 건강한 노후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달렸다!  
날짜: 20161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14110932001  
본문: 100세 시대가 되면서 ‘건강한 노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건강한 노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꼽힌다.많은 이들이 ‘내가 설마…’라는 생각과 평소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소홀히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일수록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현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어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까. 위 내시경은 대표적인 건강검진 검사 중 하나다. 위내시경은 약 1cm 두께의 호스 모양 기계를 이용해 식도와 위, 십이지장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다. 조기 위암 환자의 90% 이상이 무증상이고, 위와 십이지장 환자의 15~20%가 증상이 없다는 점에서 위내시경 검사는 매우 중요하다. 위내시경 검사는 만 40세 이상 성인은 2년마다 시행해야 한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세가 약물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시행할 필요가 있다.대장 내시경 검사도 중요하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 용종 발견 및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장 점막에서 발생하는 혹을 대장 용종이라고 하는데, 이중에서 선종성 용종의 경우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전암성 병변이므로 대장 내시경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장 내시경은 만 45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받아야 한다. 변비가 생기거나 변이 가늘어지는 등 갑작스럽게 배변습관이 바뀌거나 혈변, 복부팽만감, 이유 없는 빈혈 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 대장 내시경을 받도록 한다. 또한 3촌 이내 가족 중 대장암이나 대장 용종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 인천 플러스병원 내과 검진센터 전누리 원장은 “<span class='quot0'>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한 노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50~60대뿐만 아니라 30, 40대 중년층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검진을 받을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첨단 기기를 이용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플러스병원은 최신식 기기를 갖춘 병원으로 인천 내 건강검진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9.txt

제목: [11·12 민중총궐기 라이브-1탄] 거리 선 김제동 “대통령 헌법 18개 조항 위반”  
날짜: 20161112  
기자: 김원진·허진무·이유진·노도현·정희완·이진주·윤승민·손제민·서성일·강윤중 기자 oneji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12144325001  
본문: ▶[11·12 민중총궐기 라이브-2탄]주최측 “촛불시민 100만 돌파했다”···촛불 ‘파도타기’ 중 ■15시48분 :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곧 시작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2016 민중총궐기 행사가 열린 12일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가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15시48분 : 김제동 “대통령 헌법 18개조항 위반”···박원순·표창원 등 만민공동회 진행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2016 민중총궐기’가 오후 4시부터 열릴 예정인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일대에는 유명 방송인과 정치인들도 속속 등장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pan class='quot0'>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불상사 일어나지 없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 방송인 김제동씨는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년이 함께 하는 만민공동회’를 진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았다. 이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한다.-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집회가) 끝날 때까지 있을 것이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들 보호해 드리려 한다. 119구급 봉사단하고 응급구조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와 저희 의원실이랑 사전에 협의했다. 저도 국민 한사람으로서, 저 개인적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하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박 대통령은 이제까지 언행을 보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개의치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의사결정은 본인이 내리는 것 같지 않다. 자문 그룹이 누군지 간에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인지 모르겠지만 조언하는 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질서 있는 퇴진이란 얘기 나왔으면 한다. 국민들 불안이 가중되지 않게 안정을 되찾도록 조기에 퇴진하는 단계 방안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방송인 김제동“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3년 반 동안 이 땅의 진짜 대통령이 누구인지 밝혀졌다. 3년 반 동안 이 땅의 진짜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최순실씨였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에게 신경 써주지 않았음에도 대한민국이 3년 반 동안 이어졌다는 건 이땅의 주인이 시민 여러분이었다는 게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수는 저에게 치는 박수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통령에 준하는 국가원수에 준하는 박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누구였는지 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밝힐 수 있는, 뒤집어보면 새롭게 우리에게 존엄을 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 1조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저는 그 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 다 뒤집어봐도 권력이란 말은 1조2항에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권한입니다. 이 말은 헌법을 만들 때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쟁조차 할 수 없도록 국민에게만 딱 한 번 못 박아뒀습니다. 권력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마이크를 많이 잡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마이크 주인은 사회자가 아니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는 혼자 있는 사람에겐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마이크가 생긴 이유는 사람들에게 들려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전문가라고 나와서 말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헌법 84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란 저지른 것 제외하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내란과 외란을 저지르면 형사상 소추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나라의 근본을 무너뜨린 것을 내란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근본 밖에서 떨어드린 걸 외환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세종대왕(동상)은 국가의 근본은 백성이고 그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을 흔들면 내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그 권력을 국민이 아닌 최순실 일가로부터 나오게 했다면 헌법 제1조1항 위반입니다. 2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사사로운 사람에게 권력을 줬다면 헌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칭한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는 한 사람에게만 권력을 줬다면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 제4조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전쟁 위기를 부추겼습니다. 헌법 제4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5조 국군은 정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국군이 피땀 흘려 군에 보낸 자식들을 총에 맞게 하고 오로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우리 군인들을 사용했습니다. 헌법 5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6조 조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지금까지 나온 것 봤을 때 최씨 일가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런데 한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7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8조 정당 설립 자유도 막았습니다. 헌법 제9조 민족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거 하나 지킨 것 같습니다. 전통신앙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무속 신앙 무당 믿는 신앙, 우리의 샤머니즘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전통 문화와도 배치됩니다. 9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갖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행복추구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헌법 제10조. 다 같이 위반입니다.”“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 앞에 팔짱끼고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야합니다. 11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이것만 지키고 있다. 만명 정도한테만 평등하다. 집에 가서 적어보십시오. 헌법 제11조.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특수 계급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특수계급은 이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수계급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11조 위반입니다. 한마디 하고 싶다. 흙수저 금수저 말한다. 우리는 전부 흙수저. 근데 흙수저가 과연 금수저 보다 못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권력층보다 나은 게 있다는 걸 알아야 어깨 피고 살 수 있죠. 첫째 쪽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온 사람 한 번 앉아주세요. 그 다음 둘째, 사는 게 우리 흙수저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편할지 모른다는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데 걸어다닐 때 빨간 카페트 안 깔아줘도 잘 다니잖아요. 차문 그냥 내가 열면 되지. 그것들은 열어줘야해. 얼마나 힘들게 삽니다. 여러분들은 비행기에서 땅콩 주면 까서 먹으면 되지만 금수저들은 힘듭니다. 까달라고 해야하고 무릎 꿇어야되고 비행기에서 내려야 해요. 우리는 까서 먹고 딴 사람한테도 주고 이런 재미를 알고 산다. 그래서 우리 삶이 좀 더 나을지도 모른다.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는 재미. 제복 입고 서 있는 의경들 우리 아이들 감싸고 보호해주는 것이 함께하는 정신입니다. 오늘 방패를 든 경찰들이 민주공화국 시민 동료라는 사실 잊지 말고. 저들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그 다음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모든 국민은 자기가 원하면 자기 직업 선택 가능. 그런데 수없이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특혜 받는 젊은이들 때문에 힘들다면 15조 위반.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가진다. 거주이전의 자유 가진다. 그런데 집에서 편하게 못쉬게 하고 광장으로 나오게 했다. 헌법 16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 할 시간이 없습니다. 헌법 18조 통신자유 조항. 자기들만 대포폰 사용했습니다. 헌법 18조 위반. 헌법 19조 양심의 자유. 여러분들은 그들의 의지와 관련없이 양심 자유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9조 위반. 헌법 제20조 2항. 정치와 종교 분리. 대통령께서는 20조 위반. 21조 집회 결사 자유. 여러분 누리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이걸 막으려 하면 위반. 헌법 제22조. 학문과 예술 자유.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위반. 억수로 많죠? 이것만 지켜도 제대로 돌아갑니다. 끝까지 하지는 않도록 하겠다. 저녁에 나머지 헌법 말씀드리겠다.”“이것만 말씀드리고 여러분께 마이크 넘기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정 엄마 조항이라고 한다. 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아이들 데리고 있는 엄마아 그 아이들 보호해야 한다. 제 말씀은 이걸로 마무리하겠다. 전 헌법학자 정치 전문가도 아니지만 시민으로서 헌법을 유린하고 한 조항도 지키지 않은 게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한 가족이 대한민국 사람들 열패감과 좌절감 빠지게 만들었다면 외환이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참 잘하지요~ 참 잘해. 혼자 사니까 이런 거 외울 시간이 많아요”-박원순 서울시장“제가 자격이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께 사과와 부끄러움의 큰 절을 드리겠다. 조금 전에 세종대왕 말씀이 나왔다. (절한 뒤 무릎 꿇고 마이크 잡고 말하며) 세종(대왕)께서는 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 온 국민 굶고 있을 때 나 혼자 어떻게 호위호식하겠냐면서 광화문 쪽에 솥 10개를 걸어 초가집 짓고 가뭄 해결될 때까지 백성과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국정농단 헌정 위반, 박 대통령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야하라~) 온 국민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만으로 이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학생, 주방일 하시는 분, 장애인 여러분. 이 세상이 천지 개벽을 해야겠죠. 보다 더 정의롭고 자유롭운 대한민국 만들어야겠죠 여러분. 초등학생 얘기 듣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대학갈 때 제가 수시모집 추천서 써주겠습니다. 저는 이 도도한 국민 요구 앞에 국민 목소리 받아 안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제가 ‘기필코 하면’ 여러분은 ‘국민이 이긴다’고 해주십시오. ‘기필코’ (국민이 이긴다) ‘기필코’ (국민이 이긴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15시45분 : 오후 3시 경찰 추산 10만 명 넘어서울광장 등지에서 진행중인 민중총궐기 대회 참여 인원이 12일 오후 3시 현재 경찰 추산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날 16만~17만 명이 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주최 측은 100만 명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는 오후 3시 현재 서울 시내 집결 인원이 경찰 추산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참여 인원을 최대 4만7600명 정도라고 했다. 당시 주최측 추산은 20만 명이었다. 경찰은 시간대별로 일정 면적(3.3㎡)에 있는 사람 수를 센 뒤 전체 면적에 곱하는 ‘페르미 추정법’을 사용한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은 행사 중 들고 난 사람을 모두 포함해 참가자 수를 계산한다. 경찰의 추정치(오후 3시 현재 10만)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계산에 따른 것인데도 이미 지난 2차 대회 때보다 2배 많다. 이날 정오부터 서울광장, 대학로, 탑골공원 등 도심 각 지역에서 노동계, 청소년, 청년·대학생 등 각계각층 시민들의 사전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광장에서는 오후 1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대학로에서는 한국청년연대,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등 청년·대학생 단체들의 집회를, 종로구 탑골공원에서는 청소년 단체인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이 청소년 시국대회를 열었다.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는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한다. 오후 5시부터 종로, 을지로, 의주로 등 서울 도심 곳곳을 거쳐 청와대 진입로인 내자동로터리까지 5개 경로로 행진이 진행된다.오후 7시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3차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열린다. 경찰은 이날 272개 중대 2만5천여명을 집회 관리에 투입했다. ■15시42분 : 분노의 함성 뒤편으로 보이는 청와대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2016 민중총궐기 행사가 열린 12일 서울 세종대로가 분노한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15시24분 : 벌써 가득 찬 세종대로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2016 민중총궐기 행사가 열린 12일 세종대로가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15시16분 : 광화문에 뿌려진 경향신문 특별판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2016 민중총궐기 행사가 열린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 시민이 경향신문이 발행한 특별판을 집어들고 있다.■15시11분 : 민주당 사전집회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2016 민중총궐기 행사 시작전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사전집회를 갖고 있다.■15시10분 : 전세버스타고 지방에서 속속 도착, “참을수 없었다”12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16 민중총궐기’에 참석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출발한 대형 전세버스들이 본격적인 총궐기 시작에 맞춰 시내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버스들은 각 지역 및 참여단체명, 그리고 ‘박근혜 퇴진’ 같은 구호를 붙이며 서울 시내에 진입했다.각 지역별로 10대 가량의 버스가 수백명의 참가자들을 광화문·종로 등 인근에서 내리고 이동했다. 경찰은 대형 버스들을 총궐기장에서 멀리 떨어진 동대문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참가자들의 지역과 연령층도 다양하다. 경북 영주시에서 온 김민정씨(36)는 “차량 10대를 타고 농민·주민들이 화가 나서 박근혜 퇴진을 위해 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어 왔다”며 “잘못된 사람들이 벌을 받고 정직하고 기본적인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중학생 아들과 함께 경북 고령군에서 온 최은정씨는 “총궐기 참가를 위해 아침 9시부터 출발했다”며 “너무 부끄러워 참을 수 없었다. 우리가 정말 분노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나왔다”고 말했다. 충남 논산시에서 가족과 마을주민 130명과 함께 총궐기를 찾은 원규원씨(42)는 “대통령이 쌀값(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농민들은 이미 작년부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서민·농민이 아닌 자신을 위한 정권이 물러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서울과 멀지 않은 경기 안산시에서도 대형버스 행렬이 도착했다. 박재철씨(48)는 “안산에서 버스 20대를 대절해 애어른, 유모차까지 뜻 같은 사람들 400~500명이 다 올라왔다”며 “국정에는 국민들이 간 데 없고 박근혜의 농간이 너무 심해 오늘만큼은 나서야겠다 싶어 왔다”고 말했다.■15시08분 : 민중총궐기 시작 1시간 전 서울광장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2016 민중총궐기 행사가 열린 12일 서울광장과 세종대로에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 ■15시03분 : 김제동 “폭력과 분노 아닌 연대와 따뜻함 보여달라”“폭력과 분노가 아닌 이어짐과 배려와 따뜻함이 가득한 광장에서”방송인 김제동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2016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분노 대신 연대와 따뜻함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김제동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가기 김씨는 이 글에서 “우리의 정당한 분노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누구도 다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과 경찰 등 광장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연대를 당부했다. “아이들과 우리를 보호하는 손길과 눈빛이 가득한 광장에서 폭력과 분노가 아닌 이어짐과 배려와 따뜻함이 가득한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에게 기댈 수 있도록. 제복입은 우리의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의 눈빛까지 담을 수 있도록.”김씨는 “폭력과 무질서가 부끄러워 발길을 되돌리도록 각자 나무로 서 있는 독립과 존엄으로 함께 숲을 이루는 깊은 연대와 따뜻함으로 그렇게, 우리 함께 평화의 길을 만들어요”라며 글을 맺엇다. 김제동은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혀온 김씨는 문화예술계의 대표적인 ‘소셜테이너’로 꼽힌다.아래는 김제동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문" target=\_blank>누구도 다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당한 분노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아이들과 우리를 보호하는 손길과 눈빛이 가득한 광장에서.폭력과 분노가 아닌 이어짐과 배려와 따뜻함이 가득한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에게 기댈 수 있도록. 제복입은 우리의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의 눈빛까지 담을 수 있도록. 어떤 폭력과 무질서도 부끄러워 발길을 되돌리도록.각자 나무로 서 있는 독립과 존엄으로. 함께 숲을 이루는 깊은 연대와 따뜻함으로.그렇게. 우리 함께. 평화의 길을 만들어요. " target=\_blank> ■14시59분 : 세종대로에 뜬 박근혜 퇴진 에드벌룬2016 민중총궐기 행사가 열린 12일 서울 세종대로에 ‘박근혜 퇴진’ 에드벌룬이 떠 있다.■14시58분 : 광화문에서 연설하는 김제동민중총궐기 행사가 열린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방송인 김제동씨가 연설을 하고 있다. ■14시47분 : ‘시민혁명’의 상징, 단두대 다시 등장12일 ‘2016 민중총궐기’ 집회에 단두대가 다시 등장했다.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집회 인파 속에 약 4m가량의 단두대가 세워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집회에서 이와 같은 모양의 단두대가 광화문 사거리 횡단보도 가운데 교통섬에 설치된 바 있다. 당시 단두대는 설치 10분 만에 경찰에 의해 철거됐다.단두대 설치 관계자는 12일 “지난번 경찰이 허락도 없이 빼앗아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만들었다”며 “이번에 뺏기면 또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동네 목공소와 지역 예술가 4~5명이 함께 만들었다”며 “제작자들이 의욕적으로 만들어 보통 1주일 걸리는 작업을 몇시간 만에 끝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단두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프랑스 시민혁명”이라며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 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단두대는 18세기 말 프랑스혁명 당시 고안된 사형 기계다. 죄수들의 고통을 줄이고 계급에 상관없는 ‘평등한’ 참수형을 실시하자는 취지에서 개발됐다.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역시 단두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혁명 후 혼란 속에서 당통, 로베스피에르 등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일반 죄수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단두대는 공포정치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박근혜 대통령은 평소 단두대 발언을 즐겨 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1월 중순 호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길로틴’(guillotine·단두대)이라는 표현을 쓰며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달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암 덩어리 같은 핵심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4차례나 단두대를 언급했다.당시 박 대통령의 단두대 표현을 두고 국가 원수가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단어라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연설문 등 각종 공식 발언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단두대 같은 이례적 표현 역시 최씨가 관여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14시45분 : ‘정유라 특혜 지원’ 삼성전자 박모 사장 소환‘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오후 2시부터 삼성전자 박모 사장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최씨 딸 정유라씨의 말 구입, 훈련 비용 등 명목으로 35억원 등을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14시23분 : 오체투지 행진민중총궐기 행사가 열린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오체투지를 하며 행진하고 있다. ■14시16분 : 벌써 붐비는 서울광장12일 민중총궐기 행사가 열릴 예정인 서울광장에 이른 시간부터 시민들이 모이고 있다. ■14시07분 : 노동자, 여성, 장애인, 정치인 등 각 단위 사전집회 중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2016 민중총궐기’는 12일 오후 4시쯤 공식 집회 일정이 시작된다. 최대 100만 인파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노동계, 청소년, 장애인, 여성계 등 각 단위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있다.전국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노동자 등 전국의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이른 오전부터 모여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사전 집회를 진행했다. 여성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문화박물관 앞에서 ‘여성대회’를 열고 있다. 장애인대회도 같은 시간 청계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서울 종로구 대학로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근혜 퇴진 시민대행진’을 시작했다. 시민대행진은 서울광장까지 이어지며 세월호유가족 300여명도 행진에 동참한다. 오후 3시부터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박근혜하야 중고등학생 2차 집회 ‘청소년시국대회’가 열린다. 국회에 있던 정당도 거리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각각 청계광장과 서울 종로구 파고다어학원 인근에서 오후 2시쯤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원 보고 대회’와 ‘시국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인 김제동씨는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년이 함께 하는 만민공동회를 진행한다.■14시04분 : “동료학생이 물어볼 때마다 수치심은 우리 몫” 일리노이대 유학생 시국선언... 전세계 곳곳 교민·유학생 박근혜 퇴진 집회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3차 주말 촛불집회에 맞춰 11일 미국, 독일 등 6개국에서 유학생, 교민들의 연대 시국성명, 집회가 이어졌다.미국에서 한국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 중 하나인 일리노이대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의 유학생 116명은 이날 교정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해외 언론을 통해 한국의 국정 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동료 외국 학생들이 한국 상황을 물어볼 때마다 수치심은 우리의 몫이 되었다”라며 “우리는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민주주의의 파괴에 대해 민주 국가의 학생으로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분노를 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들은 박 대통령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지고 국정 운영의 일선에서 손을 떼고 검찰과 사법부가 최순실씨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적법한 처벌로 정의의 존재를 증명해달라고 요구했다.이들은 “4·19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세계 각국 한인 학생들의 책임감을 이어받아 우리 또한 이처럼 선언한다”며 “이 시국 선언이 다른 유학생들에게도 사태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광화문의 시민들에게 힘을 보태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이 다시금 피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시국선언은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하는 홍주화씨(27)와 원자력공학과의 배진환씨(25)가 페이스북을 통해 참가자들을 모집해 32명의 준비인단이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했다. 배씨는 “상식을 벗어난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 답답해 한인 유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UC버클리, 위스콘신대 등의 유학생들이 이미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일리노이대에 이어 컬럼비아대, 코넬대 유학생들도 시국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애넌데일에서는 90여명의 해외 한인 목회자들의 명의로 시국선언문이 발표됐다. 들꽃교회 홍덕진 목사가 낭독한 선언문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마태복음 구절로 시작됐다. 이들은 “왜 잘못은 저들이 하고 수치는 우리가 당해야 하는가. 물론 그들을 감시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했던 우리 목회자들도 책임을 공감한다”며 “그러나 더이상 수치가 없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야당이 과도 정부 구성에 책임을 지고 나서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과도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며, 국회는 사드 배치, 위안부 졸속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국정교과서 강행 등을 전면 폐기하고 세월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애넌데일 집회에는 70여명의 교민들이 참석해 촛불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박 대통령 퇴진 주장을 담은 ‘하야가’가 울려 퍼졌고, 교민들은 ‘다운 다운 박근혜(박근혜 내려오라)’, ‘사과 말고 사퇴’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워싱턴의 링컨기념관 앞에서도 20여명의 교민들이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사람 사는 세상 워싱턴’ 이기창 대표는 성명에서 “박 대통령은 통치권을 최순실에 넘기고, 최순실 일당은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는 말 한마디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다”며 “국민의 명령으로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고 말했다.뉴욕 맨해튼의 코리아타운 입구에서는 200여명의 교민, 유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박근혜 퇴진’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걸고 촛불 시위를 했다. 시위에는 뉴욕 인근의 유학생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이날 하루 미국에서는 워싱턴, 뉴욕 이외에도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필라델피아, 시카고 등에서 집회가 열렸다. 프랑스, 독일, 브라질, 캐나다, 일본에서도 집회와 시국선언이 있었다. 12일 이후 예정된 행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10개국 40개 지역에서 규탄 집회가 벌어지게 된다.■13시51분 : 법원,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 전면 허용12일 ‘2016 민중총궐기’에서 청와대 인근 내자동 로터리까지 행진이 가능하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경찰의 행진 통고 금지를 취소해 달라는 참여연대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앞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은 이날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청와대 인근 내자동 로터리까지 4개 방향으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의주로터리·정동길·을지로입구·한국은행로터리 등을 거치는 구간이다.이에 대해 경찰은 신문로빌딩과 KB국민은행 광화문역지점, 조계사 인근 선일빌딩, 낙원동 부남빌딩까지만 행진을 허가했다. 경찰은 “내자동 로터리까지 행진을 허용하면 많은 인파가 좁은 공간에 집결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율곡로 구간까지 행진을 허용하면 도심 동서간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그러자 참여연대는 경찰의 행진 제한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원래 주최 측이 신고한 행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에도 경찰은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대규모 행진을 금지했지만,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행진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행진을 허용했다.■13시46분 : “국민의 뜻이 우주의 뜻이다“ 서울광장 촌철살인 문구들12일 ‘2016 민중총궐기’가 열리는 서울 시내 곳곳에 참여한 시민들은 다양한 글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고 느낀 심경을 토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이번 게이트의 핵심인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 ‘하야’ 등의 단어를 이용한 언어 유희가 눈에 띄었다. ‘하아 손시럽다’는 말을 ‘하야 순시렵다’고 비튼 문구가 인터넷에서 통용돼다 총궐기를 맞아 포스트잇에도 쓰였다. 소셜미디어에서 자주 쓰이는 해시태그(#)를 이용한 짧은 단어들도 눈에 띈다.부모를 따라 민중총궐기 현장을 찾은 소년의 옷에는 ‘하야버스타요’라는 글귀와 그림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있다. 인기 애니메이션 를 패러디한 것으로 보인다.광화문광장에서는 말머리와 함께 ‘#할말’ ‘#뜨거운청춘’이라는 글이 쓰인 손팻말이 놓여있다. 말가면 위에 놓인 작은 종이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독일 승마훈련 때 탔다던 명마의 이름 ‘비타나V’가 쓰였다.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우주의 뜻’을 인용한 글귀도 눈에 띈다. ‘국민의 뜻이 우주의 뜻이다’라는 글귀가 적힌 별모양 풍선이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게 배부되고 있다. 이 글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것을 패러디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가 자신의 연설문을 고쳐준 적이 있었음을 시인한 바 있다.격한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는 글귀들도 눈에 띄었다. 자신을 ‘고2 여고생’이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십팔살 먹은 저도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압니다’라고 포스트잇에 적었다. 그 외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비난하고 박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를 요구하는 글귀들도 많았다.■13시40분 : 수능 5일 앞둔 고3 학생들도···교복입은 10대들 속속 모여12일 ‘2016 민중총궐기’가 열리는 서울 세종로 일대에는 교복을 입은 10대 학생들도 속속 모여 들었다.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는 수능시험을 5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모금 운동을 하고 있다. 박모군(18)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좋은 나라에서 사는 게 우선인 것 같다”며 “하루 빨리 박근혜 정부가 퇴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박모군은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나와 많은 감명을 받았다”며 “모금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집회에 필요한 촛불과 물을 나눠주고 싶다”고 했다.소위 ‘북한의 김정은도 무서워 한다’는 중학교 2학년들도 보였다. 경기 용인에 사는 김모군(14) 등 중학교 2학년 4명은 교복을 입고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중학교 1학년 이모군(13)은 “같은 반 친구 6명과 모이기로 했다”며 “미래에 아빠가 됐을 때 내 아이들이 물어보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나왔다”고 했다.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만난 경기 의정부에서 온 고1 정모군(16)은 ‘박근혜 대통령님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박근혜 #하야하라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가, 순실에게 있는가 대통령님 이게 나라인가요? 학생들은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었다.정군은 “세월호부터 국정 교과서까지 학생들한테 많이 화를 불러 일으켰는데 이번에도 참을 수 없는 화를 불러 일으켜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정군은 “우리가 받는 교육이 믿을 만한 교육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예술인들의 텐트에 입주해 1박2일 동안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13시26분 : “강아지 이름은 순실이로” 시민들 이모저모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2016 민중총궐기’가 열리는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는 이른 오전부터 시민들의 참가 열기로 뜨거웠다. 개성 있는 소품을 갖고 오거나 소신 발언을 하는 시민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신유아 문화연대 활동가를 비롯한 미술 작가 10여명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 있는 텐트 50여개동 위에 대형 비닐을 씌웠다. 비닐에는 ‘블랙리스트’, ‘소름’, ‘대통령 퇴진’ 등의 단어가 쓰여 있었다. 신유아 활동가는 “텐트를 본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을 맑게 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 든다. 오늘 온 국민이 여기 광화문광장에 다 모이면 대통령이 정신이 좀 들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한경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집행위원(51)은 이날 오른쪽 뺨에 말발굽 모양의 도장을 찍고 서울 광화문광장에 나왔다. 한씨는 “한국의 무속은 민중의 한을 달래주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무속에 얽히면서 의미가 이상하게 변질됐다”며 “그런 의미에서 부적과 말발굽 모양의 도장을 만들었다. 시민들도 재밌어하시더라. 도장도 100개 정도 만들었다”고 말했다.이날 낮 12시15분쯤에는 김평안씨(72)가 광화문광장에 설치돼 있는 무대 앞에서 “강아지 이름을 순실이로 지을라 그랴~ 얼마나 영리해”라고 크게 외쳤다. 김씨는 살아온 72년 평생 처음으로 집회에 나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내가 강아지를 사서 이름을 순실이라고 지으려고 한다. 암만 진돗개보다 낫제”라며 “아~ 우리나라를 이럭저럭 다 했으니까 영리하잖여. 이건 아무나 못하는거야. 그래서 인자 강아지를 한마리를 사가지고 이름을 성만 빼고 순실이라고 해야혀”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광화문광장 한 켠에서는 시민 정모씨(33·개인사업)가 박정희 전 대통령 우상화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정씨는 “광화문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 했다는 뉴스를 보고 나오게 됐다. 지금 이런 시국에서도 박정희 우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광화문광장에 모인 많은 청년들이 무사히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13시01분 : “니가 해라, 하야”···서울 도심 이색 패러디 모음12일 ‘2016 민중총궐기’가 열리는 서울 시내 곳곳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비판하는 ‘촌천살인’ 손팻말이 눈에 띈다.오후 4시 민중총궐기가 열리는 서울광장에는 영화 를 패러디한 이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걸렸다. 포스터에는 ‘오래두고 같이 해먹는’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씨가 교복을 입고 있다. ‘함께 해먹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니가 해라. 하야’ 등 영화의 명대사 등을 패러디해 이번 사태를 비판한다.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내 바닥에는 ‘박근혜 하야.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라는 포스터가 붙었다.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조종하는 모습의 그림과 함께 ‘꼭두각시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또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하는 걸개에는 ‘박근혜 퇴진이 복지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행동하는 만화인’이 그린 만화들도 눈에 띈다. 최순실씨의 캐리커처와 함께 ‘언니, 옆 방 비었어. 얼른 와’라는 문구가 있다.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하야제(祭)’를 알리는 포스터에는 박 대통령이 방독면을 쓴 이들에게 끌려가는 그림이 담겼다. “우리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다” 등의 문구가 보인다.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절반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 절반을 합친 그림과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자’라는 문구와 박 대통령의 얼굴, 악어의 눈물을 함께 붙여놓은 그림도 있다.노란색 포스트잇에는 ‘당신의 7시간은 304명의 생명이었다’며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비판한 글이 담겼다.김형민 PD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11월 12일(토), 단하루 닭 잡는 날’이라는 한 대형마트의 광고 문구를 올렸다.■12시32분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다양성·평등성 지키겠다” 지난 촛불집회 여혐 발언 사과“우리는 성차별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저들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1일 공동으로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고 촛불집회에서 일부 발언자들이 여성혐오와 장애인 차별 발언을 한 것에 사과했다.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2차 범국민행동’ 촛불 집회에서 사회자와 일부 발언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거나 “칠푼이” 등으로 말하고, 최순실을 “저잣거리 아녀자” “강남 아줌마” 등으로 지칭했다. “박근혜를 병원으로!” “병신년”이라는 장애인을 조롱하는 구호도 등장했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분노를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표현한 것은 개인의 무능과 부도덕을 성별과 장애에 따른 것으로 치부하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태도라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은 “많은 참가자들이 이에 항의하였고 주최 측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며 “당일 사회자가 사과하였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음을 잘 알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물 바로가기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이어 “국정파탄,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자들인 저들을 향한 우리의 분노를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언어로 표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며 “저들이 저지른 큰 죄와 우리 사회의 구조적 폐단을 개인의 문제로 한정짓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함께 투쟁하는 사람들이 평등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대회에서 성별, 연령 등 참여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발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평등한 집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사과문에 댓글을 달아 “시민자유발언대에서도 역시 장애인으로 비유해 비하하거나 여성을 향한 무의식적 혐오감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어 발언자들에 대한 군중들의 환호속에 나홀로 안타깝고 씁쓸했던 기억이 있다”며 “주최 측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서 시민자유발언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아래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사과문 전문." target=\_blank>여성혐오 발언에 대해 사죄드립니다지난 11월 5일 열린 2부 대회 사회자가 진행 도중 박근혜를 지칭하여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발언자들도 박근혜-최순실씨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박근혜를 병원으로!“라는 정신장애인을 조롱하는 구호도 외쳤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이에 항의하였고 주최 측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일 사회자가 사과하였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우리가 박근혜 퇴진 투쟁을 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하여 부패비리를 저지르고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내몬 책임을 묻기 위해서이지 그들이 여성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박근혜를 두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거나 “칠푼이” “병신년” 등으로 조롱하고, 최순실을 두고 “저잣거리 아녀자” “강남 아줌마” 등으로 비난합니다.국정파탄,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자들인 저들을 향한 우리의 분노를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언어로 표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지른 큰 죄와 우리 사회의 구조적 폐단을 개인의 문제로 한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국민 중 다수가 여성이고, 장애인이며, 차별받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성차별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저들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우리가 달성할 민주주의는 단지 청와대에 숨은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박근혜와 그 패거리들이 망쳐놓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살만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힘없고 늘 지기만 했던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설 때 민주주의는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투쟁하는 사람들이 평등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이번 일을 계기로 변화하겠습니다. 대회에서 성별, 연령 등 참여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발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평등한 집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겠습니다. 내일은 민중총궐기대회와 3차 범국민행동이 있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을 설레는 맘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내일, 작은 목소리들을 경청하는 내일, 무엇보다 다양한 우리가 어우러져 힘차게 행진하는 내일이 되도록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돈과 권력이 저들의 힘이라면, 우리의 힘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믿음을 서로에게 심어주는 내일을 함께 만들어갑시다.2016년 11월 11일민중총궐기투쟁본부 /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target=\_blank>■12시27분 : 미 하버드·코넬대 한국인들 시국선언12일 국내 ‘2016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미국 아이비리그의 하버드·코넬대의 한인 유학생·연구원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미국 매사추세츠주 하버드대 한인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 193명은 11일(현지시간) 교정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권은 그 도덕성과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서 즉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하버드대 학생·연구원들은 “현 사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며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국가 권력을 개인이 행사하도록 하고 사유화한 것은 국민주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 등 헌법 원리를 송두리째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권이 연루된 도덕적 파탄의 정황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개인이 아니라 현 정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문제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서 즉시 물러나라”, “수사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박 대통령 및 모든 관련자를 성역없이 철저히 조사하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라”고 주장했다.뉴욕주 코넬대 한인 재학생 등 동문 111명도 이날 학내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코넬대 학생·연구원들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헌법 제1조를 되새기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에 의거해 권력을 위임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주권이 대통령과 일부 세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자질 미달 인물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여당은 국정문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한다” “비선 실세의 반민주적 권력 행사에 영합한 공직자와 기업 및 전경련 관련자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비선 실세의 영향 하에 추진된 정부 정책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11시52분 : “이게 나라냐”, ‘2016 민중총궐기’는 오체투지로 시작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2016 민중총궐기’가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의 오체투지(양 무릎과 팔꿈치·머리를 땅에 대고 절하는 방식) 행진으로 시작됐다.유성범대위는 12일 오전 11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박근혜 퇴진,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구속을 향한 오체투지’를 시작했다. 유성범대위 소속 70여명은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퇴진하라”, “재벌의 꼭두각시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광장으로 향했다.앞서 유성범대위는 지난 11일 밤 11시59분쯤 오체투지로 행진하며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도착했다. 경찰은 유성범대위에 행진 금지통고를 전달했지만 범대위 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행진이 허용됐다.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 2011년 5월 “저녁에 잠 잘 권리”를 외치며 부분 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사측은 곧바로 직장폐쇄로 맞섰다.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2012년 복귀했지만 유성기업 내에는 또 다른 노조가 들어섰다. 복귀한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차별도 늘어만 갔다. 유성범대위에 따르면 직장폐쇄 이후 사측은 조합원을 상대로 1300여건 이상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직장폐쇄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갈등의 고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양희열 유성범대위 아산지회 쟁의부장(43)은 “대통령이 기업에게 돈을 받아 노동법을 개악하려 했고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많은 국민을 죽였다”며 “이는 국정농단이고 국민 우롱이며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퇴진을 물론이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2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오후 2시 대학로와 종로, 남대문, 서울역, 서울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 노동계, 청소년, 대학생, 빈민·장애인, 여성계, 학계, 농민 등이 사전집회를 연 뒤 오후 4시 서울광장에 모인다.4.16가족협의회 유가족 300여명도 12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산합동분향소에서 출발해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오후 1시쯤 도착한 뒤 서울광장으로 이어지는 ‘시민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는 부산, 창원, 광주, 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 수만명이 ‘2016 민중총궐기’에 참여하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제주에서도 1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12일 오전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오고 있다. 주최 측은 최소 50만명에서 많게는 100만 인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오후 5시부터는 광화문, 종로, 을지로, 서대문, 경복궁 일대를 도는 도심 행진이 2시간 넘게 이어진다. 행진이 끝나는 오후 7시30분부터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3차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문화제는 방송인 김제동·김미화, 가수 이승환·전인권·정태춘 등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발언과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에는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텐트 농성과 시민 자유발언 등을 중심으로 다음날까지 ‘난장’ 행사가 이어진다.경찰은 16만∼17만명이 이날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고 272개 중대 2만5000여명을 집회 관리에 투입한다. 앞서 열린 두 차례 주말 촛불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고 안전관리와 교통 소통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0.txt

제목: 직업병 전문 노무사가 말하는 폐암의 산재 인정기준  
날짜: 20161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11141045001  
본문: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며 암사망률의 1위는 폐암이다. 폐암은 대부분 후천적 유전자 이상 때문에 발생하며 선천적 유전적 이상에 의한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는 탄광, 금은 광산 등 각종 광업소에서 채탄을 하거나 굴진작업을 한 근로자, 조선소의 밀폐된 블럭에서 용접, 사상(연마), 도장, 배관, 주물, 비파괴 검사 등의 작업을 한 근로자, 분진 집진 및 폐토 처리작업을 한 근로자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위에서 예시한 작업을 한 근로자가 폐암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된 사례 중 ▲결정형 유리규산이 원인이었던 사례는 그 노출기간이 10.0년~40.0년, ▲라돈 자핵종의 경우는 노출기간이 6.3년~16.3년, ▲다핵방향족탄화수소의 경우는 노출기간이 6.3년~31.9년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폐암과 같은 고형암인 경우 일반적으로 암이 발견되기까지의 잠복기간이 최소한 10년이나 된다. 폐암은 노출 후 10년부터 발생이 증가하며 노출 후 25년 이후부터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잠복기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폐암이 직업병으로서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폐암 유발물질 노출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될 것 ▲노출시기로부터 최소 10년이 경과하였을 것 ▲석면에 노출되는 주거력, 방사선 치료와 같은 질병력 등 업무와 무관한 다른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 등을 요한다. 또한 직업성 폐암은 비직업성 폐암과 임상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폐암의 원인이 유리규산, 석면 등의 직업적 노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흡연이나 방사선 치료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이를 의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업력 소명 및 흡연력 보정 후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1.txt

제목: [경향포토]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당뇨쿠킹테라피  
날짜: 20161110  
기자: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10110319418  
본문: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이사장 김철수)은 보건복지부 2주기 의료기관인증 획득을 기념하는 의미로 10일 병원 로비에서 김철수 이사장, 김상일 병원장과 홍보대사 배우 이원종씨를 비롯해 병원 외래고객 및 입원환우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당뇨 쿠킹 테라피’ 를 개최했다.<br/> <br/>이 병원 ‘쿠킹 태라피’는 2014년 ‘암 환자를 위한 쿠킹 테라피’,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면역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면역력 증진을 위한 쿠킹 테라피’ 를 개최하는 등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행사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2.txt

제목: '김해 자연수산 민물장어', 그 맛에 중독되다. “  
날짜: 20161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07165057998  
본문: 뛰어난 맛과 함께 스테미너 음식으로도 유명한 민물장어!<br/>기력을 보충하거나 지친 몸을 보양하기 위해 장어구이 맛집을 찾는 이들이 많다. 장어는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맛이 일품인데다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해 기운을 북돋워주는 대표적인 사계절 보양식으로 통한다.<br/> <br/>가족, 친구, 동료, 연인들과의 모임이나 회식장소로 많이 찾는 김해 맛집으로 소문난 김해 자연수산 민물장어에서는 100% 국내산 민물장어를 고객님들께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리고 있다.<br/> <br/>김해 자연수산 민물장어에서는 별도의 유통과정 없이 직접 운영중인 양만장에서 신선한 100% 국내산 민물장어를 공급받기 때문에 항상 연중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민물장어에 다량 함유된 비타민 E는 불포화지방산의 산화를 억제하여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피부와 눈, 암 예방에 좋은 비타민 A도 함유되어 있어 건강식으로도 좋은 음식이다.<br/> <br/>김해 국내산 민물장어가 우리가족에게 좋은 점들을 꼽자면 고혈압이 걱정이신 아빠, 장어에 다량 함유된 비타민E 성분이 불포화지방산의 산화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며 성인병에 도움이 된다. 요즘 눈이 침침하다고 하시는 엄마, 무게가 약80g인 장어는 동급 소고기에 비해 거의200배, 달걀 10개와 우유5L의 비타민A를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A는 시력 보호, 암 예방에 좋은 영양소라고 한다. 외모에 관심 많은 언니, 누나, 비타민E가 주름방지, 피부탄력 등에 좋으며 비타민A 역시 미백과 탱탱한 피부의 일등 공신이라고 한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 아이들, 장어의 지방은 오메가3 지방산으로 유명한 DHA와 EPA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며, 또 레시틴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뇌세포를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라고 전해지고 있다.<br/> <br/>김해 자연수산 민물장어에는 소금구이, 양념구이, 장어덮밥, 장어탕, 장어삼계탕, 전복삼계탕이 준비되어 있으며 점심특선메뉴인 장어구이는 바쁜 직장인분들께 점심시간에 최고의 보양식으로 원기회복은 물론 맛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다. 그외 몸에 좋은 장어 중탕 엑기스도 판매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3.txt

제목: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청소년 28% 그쳐  
날짜: 20161106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06221320971  
본문: ㆍ‘부작용’ 잘못된 소문에 기피…5개월간 13만명만 접종받아 <br/>ㆍ중증 이상반응 한 건도 없어…1차 접종해야 2차 지원 혜택<br/><br/>정부가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무료 예방접종에 참여한 비율이 5개월간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소문이 학부모들 사이에 확산됐기 때문이지만, 실제로 접종을 마친 약 13만명 중에서 중증이상반응을 보인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br/><br/>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부터 실시된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사업에 현재까지 모두 12만9287명이 참여해 무료접종 대상자인 2003~2004년생 여성청소년 중 27.8%가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span class='quot0'>미국 자궁경부암 백신도입 첫해 접종률이 25.8%였던 것에 비해 낮지 않지만 국내 다른 백신 접종률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자궁경부암은 하루 평균 2~3명이 이 병으로 사망하는 대표적 여성암 중 하나다. 동시에 인유두종바이러스(HPV)감염이 주된 원인이라 유일하게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암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은 해외 백신 부작용 사례의 소문이 퍼지면서 학부모 사이 예방접종 불안감이 형성된 탓으로 보인다. 2013년 일본에서 백신을 접종한 여성 339만명 중 0.09%(2945명)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뒤 일본 정부가 백신 접종 권고를 중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듬해 부작용 원인이 백신의 문제가 아닌 환자의 심리적 반응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r/><br/>세계보건기구(WHO)도 일본 부작용 사례와 백신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 세계 65개국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가 올해 6월 무료접종 시행 후 집계한 이상반응 신고 현황을 보면 13만건의 접종 중 중증이상반응은 한 건도 없었고, 접종부위 통증이나 발열, 두통, 접종 직후 어지러움, 두드러기 등 일반적인 백신의 부작용과 유사한 가벼운 이상반응만 13건 신고됐다. 질병관리본부는 “<span class='quot0'>2003년생의 경우 올12월 말까지 1차접종을 마쳐야 내년 2차 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꼭 받으라</span>”고 당부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4.txt

제목: 대장암 폐암 극복 위해서는 항암부작용,내성 이기는 것이 관건  
날짜: 20161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04145256364  
본문: 우리나라의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바야흐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기에 무엇보다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려는 이들의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br/><br/>노인들뿐 아니라 젊은이들 또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암이나 당뇨•고혈압 등 개별 만성질환을 잘 관리해야 한다. 특히 암의 경우 다른 질병에 비해 진행속도가 빠르고 완치가 힘들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가고 싶어하는데, 유독 남성들의 발병률이 높은 대장암과 폐암의 경우 초기 발견이 어렵고 재발율 또한 높아 치료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통해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br/><br/>대장암이나 폐암에 걸렸을 경우 항암치료를 받게 되는데, 치료로 인한 고통보다 환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항암제의 내성으로 인한 항암치료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임 암치료는 항암제내성과 항암부작용을 얼마나 방지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할 정도이다. 기존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치료에 무게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금은 전반적인 치료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환자의 면역력을 키워 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막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br/><br/>암 환자의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는 한방 암면역치료는 암진단 초기부터 현대의학과 병행하여 적용해야 가장 큰 가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4기 말기암이나 전이암, 항암 내성과 항암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방성분을 통해 면역력이 증강되면 항암제의 유효반응율이 상승하여 항암치료제 부작용과 내성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br/><br/>실제로 직장암 4기 판정을 받았던 김 모씨의 경우 암세포가 간과 폐에 전이되는 등 수술이 불가할 정도로 위중한 상황에서 항암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 양방 병행치료를 선택하면서 간수치 회복과 면역기능 강화, 종양 축소를 보이는 등 병세가 크게 호전되었다. 2011년 전이폐암 진단을 받은 뒤 한방 면역치료와 항암치료를 병행한 권모씨의 경우도 단 4회 만에 폐종양 완전 소멸, 골육종암 완전관해(CR)라는 판정을 받게 됐다.<br/><br/>양한방 통합치료의 선두주자인 하나통합한의원은 통합 면역 암치료를 통해 암을 발생시킨 인체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이를 통해 암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나통합한의원이 암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항암치료제는 옻나무추출물을 주 원료로 한 치종단, 치종탕, 티버스터(치종단II)로 이는 다양한 임상 및 연구결과를 통해 항암으로 감소되기 쉬운 백혈구와 적혈구 등의 면역수치를 정상으로 유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r/><br/>특히 티버스터(치종단II)의 경우에는 항암기전, 즉 실제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SCI급 저널인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된 논문에서 과학적으로 규명되기도 했다. 하나통합한의원의 김보근 원장은 "화학 항암치료 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통합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항암제내성과 항암부작용을 얼마나 방지하느냐가 성공적인 암 치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5.txt

제목: 담배 연기 직접 닿는 조직에 폐암 돌연변이 많아  
날짜: 20161104  
기자: 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04040344179  
본문: 호흡기를 통해 들이마신 담배 연기가 직접 닿는 조직에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폐암이나 후두암 등 흡연으로 유발되는 암에는 특정한 유형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존재했다. <br/><br/>KAIST와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영국 웰컴트러스트 생어 연구소,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 벨기에 루벤대 등 국제 공동연구진이 암환자 5243명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온라인판에 4일 실렸다. <br/><br/>흡연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등 17종의 암 발생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이 몸으로 들어와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암이 유발된다. 하지만 이제까지 흡연이 어떤 돌연변이를 일으키는지 알려지지 않았따.<br/><br/>국제공동연구진 5243명의 암 환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흡연자인 암환자의 경우 담배 연기가 직접 닿는 조직인 폐와 후두 세포에 돌연변이가 많았다. 특히 유전자 염기서열 중 시토신(C)이 아데닌(A)으로 변하거나 티민(T)이 시토신(C)으로 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구진은 담배 속 발암물질이 돌연변이 생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했다.<br/><br/>연구에 참여한 주영석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는 “<span class='quot0'>유전체 빅데이터를 이용해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별로, DNA(유전물질) 수준에서 정량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span>”고 분석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6.txt

제목: 고 백무현 ‘만화의 날’ 공로상  
날짜: 2016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03211617042  
본문: 시사만화가 고 백무현 화백이 3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제16회 만화의 날’ 기념식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백 화백은 우리 시사만화 발전에 기여하고 만화 컷 바깥의 현실 속에서도 사회적 임무를 다하기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백 화백은 <만화 김대중> <만화 전두환> <만화 정주영> 등 현대사 주요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들을 남기기도 했다. 상은 지난 8월 암 투병 끝에 5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백 화백을 대신해 유족이 받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7.txt

제목: ‘맘모톰’ 수술, 일상생활 지장없이 종양제거와 보정 동시수술할 수 있어  
날짜: 2016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03113355074  
본문: 한국유방암학회의 2014년 유방암백서에 따르면, 1996년 3801명이던 유방암 환자는 2011년에는 1만6967명으로 증가해 15년 사이 약 4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여성암 중 증가율이 가장 빠른 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br/> <br/>특히 유방에 종양이 발견된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의 적절한 시기를 놓칠 경우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평소에도 정기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br/> <br/>강남유외과 조윤선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종양이 발견 될 경우 과거에는 무조건적으로 가슴에 긴 흉터가 남는 전통적인 방법의 종양 절제술을 시행했으나 최근에는 맘모톰 수술 기법을 통해 흉터도 남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는 최신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 <br/>맘모톰 시술이란 유방에 작은 구멍을 낸 후 초음파로 유방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프루브(시술관)를 삽입하여 종양 등 병변을 제거하는 시술로 2000년대 초에는 조직검사용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진공 흡입력을 기술적으로 활용하여 혹 전체를 절제할 수 있다.<br/> <br/>조 원장은 “<span class='quot0'>과거에는 수술 후 가슴 부위 통증과 크게 남는 흉터를 걱정하는 여성들이 많았으나 맘모톰 시술은 짧은 시술 시간과 적은 통증, 최소한의 흉터를 전제로 시술하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span>”고 조언했다.<br/> <br/>특히 조 원장에 따르면, 맘모톰 시술은 큰 혹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은 물론 보형물 삽입술을 받은 여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br/> <br/>조 원장은 “맘모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중 가슴확대술 등을 계획하셨던 경우, 이러한 환자들을 위해 맘모톰 동시 가슴 성형 수술까지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병증의 치료와 동시에 가슴 성형, 부유방 제거, 유두수술까지도 가능한 것이다”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8.txt

제목: 열흘 간의 동거, 감정로봇이 준 선물은?…KBS1 ‘KBS 스페셜’  
날짜: 20161102  
기자: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02194833059  
본문: KBS 1TV <KBS 스페셜>은 인간과 소통하며 교감하는 ‘감정로봇’의 세계를 살펴본다. 감정로봇이란 사람처럼 희로애락을 느끼고 표현하는 로봇이다.<br/><br/>일본 사이타마에 사는 후미코(71)는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 보내고 두 아들이 독립한 뒤 17년째 홀로 살고 있다. 그간 합창단에서 활동하며 외로움을 달래왔지만 최근 목에 이상이 생겨 활동을 그만두면서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줄어들었다.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부쩍 많아진 그에게 제작진은 로봇 페퍼와의 동거를 제안한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만든 페퍼는 세계 최초로 마음을 가진 로봇으로 알려져 있다. 페퍼와 함께한 열흘 동안 그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된다.<br/><br/>오사카 사투리를 사용하는 로봇 하나코와 고향 사투리로 대화하는 스에코(88), 10년째 강아지 로봇 아이보와 함께 살고 있는 70대 독거노인 히데코의 삶에서도 이미 로봇 친구는 떼놓을 수 없는 존재다. 소셜 로봇의 메카로 불리는 미국 MIT와 소프트뱅크를 취재해 감정로봇의 감정 원리를 밝히고 감정로봇의 미래를 전망한다. 방송은 오후 10시.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9.txt

제목: 가장 두려운 질병 암·관절염 1·2위  
날짜: 20161101  
기자: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01222853351  
본문: ㆍ의료비 걱정, 통증보다 앞서<br/><br/><br/><br/>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은 암, 관절염, 고혈압, 치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래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의료비 부담으로, 국민 대다수가 민간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5월 ‘국민 걱정 질환’에 대해 406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3.6%가 암을 가장 걱정스러운 질병으로 꼽았다고 1일 밝혔다. 관절염(10.2%), 고혈압(10%), 치매(9.9%)가 뒤를 이었다. <br/><br/>그러나 질병 정보를 의료인에게서 얻는다는 응답자는 16.5%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4.8%는 질병 정보를 TV나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다고 답했으며, 의료인은 16.5%에 불과했다.<br/><br/>미래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묻는 항목에는 의료비 부담(36.7%), 통증·부작용으로 인한 생활불편(25.6%), 자아실현 어려움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21.7%), 간병 부탁에 대한 부담감(15.3%) 순으로 답했다. 의료비 부담을 가장 큰 걱정으로 꼽은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br/><br/>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공적 건강보험 체계와 별도로 민간보험이나 개인저축 등에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81.5%나 됐다. 질병 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68.2%)를 선택한 응답자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span class='quot0'>설문조사 결과를 정부 정책 지원 자료로 활용해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료의 고도화·다양화를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0.txt

제목: [전중환의 진화의 창]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날짜: 20161101  
기자: 전중환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진화심리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101211627674  
본문: “<span class='quot0'>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span>” 요즘 많이 듣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평범한 영매 아줌마의 아바타 노릇을 하며 국가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급기야 호스트바 선수, 대를 이은 주술, 그리고 사우나 부녀회 모임까지 등장했다. 국격이 한없이 무너져내리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서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낀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한탄한다. 국정농단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저질렀는데, 왜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의 몫일까? 울화통을 잠시 접어두고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자.<br/><br/>부끄러움, 그리고 그 강도가 강화된 형태인 수치는 사람을 괴롭히고 들쑤시는 정서다. 최근 많은 사람이 공감할 이야기다. 수치를 느낀 사람은 가슴이 미어터질 듯하고, 체온이 높아져 얼굴이 붉어지고, 눈을 내리깔아서 시선을 회피하고, 몸을 움츠리게 된다. 슬픔에 빠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신을 비하하게 된다(“아, 나는 저런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아온 개·돼지였어”). 이처럼 언뜻 보기에 수치는 혼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로 여겨진다. 실제로 어떤 임상심리학자들은 수치심이 아무 쓸모도 없는 병리적인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한다.<br/><br/>그러나 수치심이 먼 과거 조상들의 번식에 영향을 끼쳤던 문제를 잘 해결하게끔 자연 선택에 의해 설계된 심리적 적응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다. 첫째, 수치는 모든 인간 사회에서 빠짐없이 나타난다. 둘째, 수치심은 아주 어릴 때부터 저절로 생긴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남이 수치스러워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도 공공장소에서 발가벗는다면 수치심 특유의 표정과 행동을 한다. 셋째, 영장류에서 열위 개체가 우위 개체 앞에서 쩔쩔매면서 복종할 때 하는 행동은 인간이 부끄러워하는 행동과 유사하다. 즉, 수치는 특정한 문제를 잘 풀게끔 정교하게 다듬어진 적응이다.<br/><br/>어떤 문제를 잘 풀게끔 만들어졌을까? 진화심리학자 다니엘 스니저를 따르면, 수치심은 남들이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로서 진화했다. 인간은 매우 사회적인 종이다. 내가 믿음직한 동료로서, 매력적인 배우자로서, 혹은 잘나가는 경쟁자로서 남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따라 번식의 성패가 크게 좌우되었다. 따라서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남들에게 전달됨을 미리 막고, 부정적 정보가 이미 새어나갔으면 그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행동을 취하게끔 설계되었다.<br/><br/>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하는 여러 상황을 살펴보자. 사회적 지위가 내려가면 부끄럽다(예컨대,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함). 아주 쉬운 일도 잘해내지 못하면 부끄럽다(예컨대, 어른인데 자전거도 못 탐). 질병에 걸리면 부끄럽다(예컨대, 수업시간에 자꾸 기침함). 비도덕적인 짓을 저지른 게 들통나면 부끄럽다(예컨대, 성희롱 가해자로 신문에 실림).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부끄럽다(예컨대, 악수를 청했는데 깨끗이 무시당함). 고문, 강간, 아동학대 등 심각한 폭력의 피해자가 되면 부끄럽다(예컨대, 남편에게 맞은 상처를 이웃에게 들킴). 이 유발요인들은 지극히 다양하고 종잡을 수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남들에게 알려진다면 내 가치를 떨어뜨릴 부정적 정보가 전파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br/><br/>수치심이 만들어내는 일련의 행동은 내 가치가 더 떨어짐을 막고 나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감추는 기능을 수행한다. 남의 시선을 피하고 뺨을 붉히는 행동은 자신이 이제 을이 되었음을 알려서 남들과 화해를 도모한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집에 틀어박히는 행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더 새어나가는 사태를 막는다.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을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한다.<br/><br/>수치심이 개인의 가치가 남들에 의해 평가절하됨을 막는 방어라는 스니저의 이론은 당사자의 무능 혹은 일탈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질수록 수치심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또한 대학생이 교수들 앞에서 홀로 논문을 발표하는 상황처럼 당사자에게 겁을 주는 사람들로 청중이 구성되면 수치심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도 잘 설명해준다.<br/><br/>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왜 수치심은 우리 국민의 몫일까? 앞서 말했듯이, 고문이나 강간, 아동학대 등 심각한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도 수치심이 유발된다. 물론 합리적으로 따지면,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가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피해자가 부끄러울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스니저의 이론을 적용해보면, 누군가가 심한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사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무력 차이가 그만큼 큼이 입증되었음을 뜻한다. <br/><br/>결국 남들이 매기는 피해자의 가치가 하락했으니, 더 하락하는 사태를 막고자 수치심이 동원된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덕분에 모두가 민주공화국의 시민에서 무당이 전권을 뒤흔드는 초기 국가의 신민으로 추락했다. 세계라는 청중 앞에 대한민국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은 깊고 클 수밖에 없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1.txt

제목: 70년대 쌍둥이 여성듀오 ‘바니걸스’ 언니 고정숙씨 별세  
날짜: 201610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31213439795  
본문: 1970년대 사랑받은 쌍둥이 여성듀오 바니걸스의 언니 고정숙씨가 지난 3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2세. 고씨의 유족은 “올해 1월부터 암으로 투병하다가 이날 오전 돌아가셨다”고 밝혔다.<br/><br/>쌍둥이로 구성된 바니걸스는 1971년 ‘하필이면 그 사람’으로 데뷔했다. 한때 군사정권의 외래어 사용 금지에 따라 ‘토끼소녀’로 활동하기도 했다. 동그란 눈이 토끼 같아 바니걸스라는 팀명에 잘 어울리는 자매는 국악예고 출신다운 가창력과 원색 타이즈, 미니스커트 등의 패션으로 화제가 되며 대중적인 스타로 자리매감했다. 대표곡으로는 ‘검은 장미’, ‘개구리 노총각’, ‘옛날이야기’, ‘그냥 갈 수 없잖아’ 등이 있다. 유족으로는 딸 우사라씨가 있다. 빈소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일 오전 7시. (02)2019-4005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2.txt

제목: [전문가의 세계 - 漁! 뼈대 있는 가문, 뼈대 없는 가문] ② 강인함 속에 품은 부드러운 속살…‘외강내유’ 바닷속 군자  
날짜: 20161028  
기자: 글·사진 | 황선도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연구위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28211153611  
본문: ㆍ갑옷을 둘러 입은 꽃게<br/><br/><br/>사람들이 바닷속 미물인 꽃게에게 ‘공자’니 ‘거사’니 하는 높인 이름을 붙인 이유는 게딱지가 단단하나 그 속은 부드러워 ‘군자(君子)’가 이상으로 삼는 외강내유(外剛內柔)를 갖추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지키는 데는 무를 수 없는 반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무릇 군자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고기 세계에도 오징어와 문어, 낙지와 같이 겉보기에 몸에 골격이 없고 유연한 연체류가 있는 반면, 게와 새우같이 뼈로 갑옷을 해 입은 갑각류가 있다. 분류학상으로 제대로 말하면, 오징어는 연체동물문 두족강 살오징어목에 속하고, 게는 절지동물문 갑각강 십각목에 속해 족보가 다른 가문이다.<br/><br/><br/><br/>■“꽃게의 꽃, 가시 ‘곶’이 변형된 말”<br/><br/><br/>꽃게 학명은 포리투누스 트리투버큘라투스(Portunus trituberculatus)이고, 영어로는 블루크랩(Blue crab) 또는 스위밍크랩(Swimming crab)이라 부르며 일본어로는 가자미(ガザミ), 중국어로는 시시에(矢蟹) 또는 화시에(花蟹)라고 부른다. <규합총서>에는 초가을에 마치 매미처럼 껍질을 벗는다고 해서 벗어나는 벌레, 즉 해(蟹)라고 했다. 그 시절에도 게가 탈피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건데, 선인들의 관찰력이 대단하다. 게를 가리키는 ‘해(蟹)’를 풀어보면 ‘풀 해+벌레 충’으로 한자 역시 의미를 담은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우리말 꽃게의 유래는 무엇일까? 혹자는 꽃이 화려한 ‘꽃’이 아니고 가시 ‘곳’이 변형된 말이라고 한다. <자산어보>에선 ‘시해(矢蟹)’라 쓰고 ‘살게’라 읽었다. 화살촉을 닮은 뾰쪽한 게를 표현했을 것이다. 형태적으로 봐도 갑각의 양옆이 가시처럼 뾰쪽하니 충분히 일리 있는 추론이다. 그러나 그 가시를 표현하는 말은 ‘곳’이 아니고 ‘곶’이 아닐까 생각한다. 뾰족하게 나온 것을 ‘곶’이라고 하며, 육지에서 바다를 향하여 돌출해 나간 끝부분을 곶(岬, cape)이라 부르니 말이다. <br/><br/>분류학상으로는 십각목 꽃게과에 속한다. 집게다리와 유영각까지 포함해서 좌우로 5쌍의 다리, 즉 총 10개의 다리가 있다 해서 십각목으로 분류된다. 수명은 3년이며, 최대 크기는 갑장(입에서 갑각 아래 끝까지 세로길이) 10㎝, 갑폭(양쪽 가시 끝과 끝의 가로길이) 22㎝ 정도까지 자란다. 갑각의 윤곽은 옆으로 긴 마름모꼴이며, 양쪽 끝이 뾰쪽하게 뻗어 나온 것이 특징이다.<br/><br/><br/>꽃게과에는 꽃게라는 이름이 붙은 비슷한 사촌들이 많은데, 우선 서해를 포함해 전 연안에서 꽃게 다음으로 많이 잡히는 민꽃게(Charybdis japonica)가 있다. 보통은 어두운 녹갈색 바탕에 미색 얼룩무늬가 있거나 어두운 보라색을 띤다. 조간대에 있는 조수 웅덩이부터 조간대 하부 모래진흙과 암초지대에까지 사는 생명력 강한 놈이다. 그래서 그런지 생긴 것부터 돌멩이처럼 갑각이 단단하고 강인해 일명 ‘독게’라고 부른다.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 서해안에서는 ‘박하지’라 부른다. 이들의 천적은 대형어류인 돔류 정도일 뿐 자신의 서식지에서는 거의 최상의 포식자이다. 여수에서 유명세를 치르는 게장은 꽃게장이 아니고 민꽃게로 만든 독게장이다. 민꽃게와 비슷한 것으로 주로 남부 해역에 사는 깨다시꽃게(Ovalipes punctatus)가 있다. <br/><br/><br/>몸은 옅은 갈색 바탕에 자갈색의 점들이 촘촘히 있고 갑각 중앙에 H자 모양의 흰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꽃게처럼 양옆에 가시가 돋아있는 점박이꽃게(Portunus sanguinolentus)도 있다. <br/><br/><br/>갑각이 전체적으로 녹갈색이고 갑각의 뒤쪽에 흰색 동그라미가 둘러싸인 적자색의 반점이 3개 있어 꽃게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br/><br/>꽃게는 우리나라 동해 중부 이북을 제외한 전 해역과 일본, 중국 연안의 100m 이내 수심을 보이는 모래나 모래진흙 바닥에 주로 산다. <br/><br/>특히 서해 연근해에 주로 분포해 최북단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의 서해 5도와 그 남쪽 특정해역에서 많이 잡히고 옹진군과 인천시에 입하된다. 그중 연평도는 어업의 주 대상이 꽃게이다 보니 꽃게 풍어와 조업 여부에 매우 민감하다. 최근에는 충청남도 보령시와 태안군 연안에서도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어획량의 80% 이상이 서해안에서 어획된다. 기어 다닐 것만 같은 꽃게의 유영력이 생각보다 발달하여 물의 흐름과 함께 서해를 회유한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관계당국은 갑장 6.4㎝ 이하를 포획금지하고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매년 6월 중순~8월 중순에 금어기를 정해 꽃게 자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불법 중국어선 조업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꽃게 어획량과 가격은 변동이 크고 민감하다. <br/><br/><br/><br/>■탈피는 개체 생존과 종족 보존에 중요<br/><br/><br/>꽃게는 암컷과 수컷의 가격 차이가 크다. 그러므로 꽃게의 암수를 구별하는 방법은 시장에서 지갑을 알뜰하게 지키는 데 필요하다. 암컷은 배딱지가 넓고 수컷은 좁고 뾰쪽하다. 거의 모든 생물은 분류군에 관계없이 비슷하여 사람의 그것을 연상하면 외우기 쉽다.<br/><br/><br/>갑각류의 탈피는 개체 생존과 종족 보존이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게는 큐티클(cuticle)이라 부르는 각피(角皮)로 된 딱딱한 외부골격을 갖고 있다. 외골격은 내부기관을 보호하고, 내 근육을 지지하는 기반이다. 그러나 뼈 같은 내골격이 커지면서 성장하는 물고기와 달리 게의 외골격은 성장을 방해한다. 간단하게 껍질을 탈피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직접 보면 신기하다.<br/><br/>이렇게 탈피한 개체는 아직 갑각이 단단해지기 전이라 물렁물렁하다고 해서 ‘물렁게’라고 하는데, 꽃게 살이 완전히 차지 않고 어획되어서 만지면 내장이 샐 정도이다. 그러나 모양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만져보지 않고서는 구별이 어렵다. 물렁게는 가을어기가 시작하는 9∼10월에 가장 많이 잡히는데 전체 꽃게 어획량의 7∼8%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때가 다 자란 암컷 꽃게가 일년에 한번 탈피하는 시기이다. 구미에서는 말랑말랑한 게를 백포도주에 씻어 통째로 먹거나 연한 껍질째 튀겨먹는 맛을 일품으로 손꼽기 때문에 보통 게보다 비싼 값에 거래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선호되지 않아 헐값에 취급된다.<br/><br/>국립수산과학원에서 30여년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우리나라 꽃게 양식 전문가 서형철 박사에 따르면, 꽃게는 평생 13∼14번 탈피하면서 성장한다고 한다. 유생 때는 탈피를 자주 하지만 200g이 되는 2년생부터는 1년에 한번 탈피해서 몸무게가 배로 늘어나는데 400g이 되는 3년생이 최대 수명이다. 암게는 탈피 직후 연약한 껍질을 가졌을 경우에만 단단한 껍데기를 가진 수컷과 교미가 가능하다. 탈피 직후의 게는 외부의 물을 흡수하여 쭈글쭈글하고 연약한 껍데기를 일정한 형태로 만든다. 새로 만들어진 연한 껍질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낡은 껍질에 비해 15%(체중 40% 정도) 이상 크기가 커진다. 이때 만져보면 물렁물렁하고 껍질의 단단함이 종이 정도로 얇다고 해서 페이퍼쉘(paper shell)이라고 한다. 이런 껍질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단단해지고 껍질의 내부에 새로운 살이 차오른다.<br/><br/>꽃게 맛을 좀 아는 식도락가들은 “봄에는 암컷이, 가을에는 수컷이 맛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과학적으로 풀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단단한 갑옷 속에 정포를 가진 수컷은 8~10월에 탈피를 끝낸 2년생 암컷 물렁게와 사랑에 빠져 10월의 어느 날에 교미를 한다. <br/><br/>암컷은 사랑하는 임의 씨앗을 저정낭에 품고 성숙시키다가 다음해 봄이 되면 인천과 군산 연안으로 들어와 6∼9월에 2~3회 정도의 다회산란을 한다. 그러니까 산란과 탈피를 하기 전인 5∼8월 포란기에 잡힌 암컷은 알과 함께 살이 통통하게 올라 맛이 있을 것이고, 가을에는 산란하고 살이 빠져 맛이 없다. 반면에 교미를 위해 살을 찌운 수컷은 가을에 제맛일 것이다. 그나저나 식도락가들은 계절에 따라 암수를 가려 먹는 것이 꽃게의 ‘사랑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걸 알랑가 몰라~.<br/><br/>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로 “보름에는 게가 살이 없다”는 말이 있다. 일부 어민들도 보름 게가 속살이 덜 차고 그래서 값도 더 싸다며 게가 보름달 밝은 밤에 제 그림자에 놀라 야위었기 때문이라고 근사한 이유를 댄다. 재미있는 상상이다. <br/><br/>또 어느 글인가에는 ‘꽃게가 야행성으로 낮에는 모래에 들어가 잠을 자고 밤에 나와 먹이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업도 주로 밤에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달이 밝은 음력 보름 전후의 꽃게는 달이 없는 그믐 때의 꽃게에 비해 먹이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살이 70∼80%밖에 되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 그럴듯하지만, 난 아직까지 근거를 찾지 못했다. 덧붙여 “게의 탈피가 보름 전후에 일어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br/><br/><br/><br/>■‘자산어보’ 놀랍도록 세밀한 묘사<br/><br/>게는 빠른 성장을 위해 유생시기에 잦은 탈피를 하지만 커서는 거의 일년에 한번 탈피하기 때문이다. 바다에도 떠도는 ‘찌라시’가 너무 많다. 다만 물살이 센 사리 때 자망에 꽃게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물렁게 역시 출현 빈도가 높을 뿐이다.<br/><br/>정약전의 <자산어보>에는 ‘살게(시해·矢蟹): 큰놈은 지름이 두 자 정도이며 뒷다리 끝이 넓어서 부채 같다. 두 눈 위에 한치 남짓한 송곳 같은 것이 있어서 그와 같은 이름이 주어졌다. 빛깔은 검붉다. 보통 게는 잘 기어 다녀도 헤엄을 치지 못하는데 이 게만은 유독 헤엄을 잘 친다(중략). 껍질을 벗는 데 따라서 커지는데 큰놈은 됫박만 하고, 작은놈은 잔접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 관찰력이 놀랄 만하다. 크기, 생김새 그리고 습성까지 기술한 데서 손암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을 엿볼 수 있다.<br/><br/>게장 담그는 법을 <규합총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검고 좋은 장을 항아리에 붓고 쇠고기 큰 조각 두엇을 넣어 흙으로 항아리 밑을 발라 숯불에 달인다. 그렇게 달이면 단내가 나지 않는다. 거기에 좋은 게를 정갈하게 씻어 물기가 마른 후에 항아리에 넣고 달인 장을 붓는다. 한 이틀 후 그 장을 쏟아 다시 달여서 식혀 붓는다. 그때 입을 다물고 있는 게는 독이 있으니 가려낸 다음, 그 속에 천초(川椒)를 씨 없이 하여 넣고 익힌다. 이 게장에 꿀을 약간 치면 맛이 더 나고 맛이 오래도록 상하지 않지만 게와 꿀은 상극이니 많이 넣어서는 안 된다. 게장에 불빛이 비치면 장이 삭고 곪기 쉬우니 일체 등불을 멀리해야 한다.’ 더 말해 무엇하랴. 침만 솟는다.<br/><br/> <br/>▶황선도<br/><br/><br/>해양학과 어류생태학을 전공했고, 수산자원생태로 이학박사가 된 토종과학자이다. 20년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일하면서 7번이나 이사하는 등 주변인으로 살았으나, 덕분에 어느 바닷가든지 고향으로 여긴다. 지금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연구위원으로 해양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일하는 ‘물고기 박사’다. 50여편의 논문을 썼고 저서 <멸치 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가 유명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3.txt

제목: [기자칼럼]노마 할머니를 보내며  
날짜: 20161028  
기자: 국제부 이인숙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28203742751  
본문: 빨간 스쿠터에 커다란 푸들을 태우고 환하게 웃는 백발의 91세 미국 할머니. 얼마 전 ‘드라이빙 미스 노마(Driving Miss Norma)’ 노마 진 바우어슈미트 할머니의 ‘부고’를 썼다. 남편 레오가 세상을 떠난 지 이틀 만에 자궁암 진단을 받은 할머니는 병원치료를 거부했고 캠핑카를 타고 ‘인생여행’을 떠났다. 삶의 마지막도 길에서 마쳤다. 장례식은 지난 7일 할머니의 미시간 고향집과 정반대 끝에 있는 워싱턴주 프리데리하버에서 치러졌다. <br/><br/>할머니의 결심, 1년의 여정 그리고 마지막을 기사로 정리했다. 기사에 담지 못했지만, 마음에 남은 몇 가지 장면과 얘기들이 있었다. 할머니를 보내고 남겨지는 사람들, 가족의 얘기다. 의사로부터 암 선고를 들은 할머니와 가족 앞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놓였다. 의사의 권유대로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남은 생을 병원에서 보내는 것, 병원치료를 거부하고 요양원이나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 아니면 할머니의 주장대로 여행하다가 여생을 마치는 것. ‘존엄하고 행복한 죽음’은 고인 혼자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율배반적인 이름 앞에서 대다수 가족은 절박함과 공포, 죄책감에 굴복한다. 환자는 말기가 될수록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은 그에 버금가는 고통과 무력감으로 분노하고 시들어간다. <br/><br/>노마 할머니의 며느리 라미 리들은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다음은? 우리는 이미 레오를 만나러 요양원 그 긴 복도를 충분히 왔다 갔다 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두는 건 상상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아들 부부의 같이 살자는 제안에 할머니는 2분 만에 답했다. “난 병원에서 1분도 보내고 싶지 않아. 우리 가서 재밌는 일을 하자.” 결혼 후 67년 동안 미시간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보지 못한 할머니였다. 의사도 “솔직히 할머니가 수술 후 사실 수 있을지 장담 못하겠다. 멋진 여행을 하시라”며 지지했다. <br/><br/>할머니의 아들 팀은 19살 때 집을 떠났다. 고향에 있는 부모에게는 가끔 전화를 하거나 어쩌다 들렀다. 그러는 사이 수십년이 지나갔다. 지난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노모는 어느덧 90이 돼 있었다. 그제야 그는 어머니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와는 늘 형식적인 대화만 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 때 ‘어머니, 거기 계세요?’ 하면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서 ‘그래, 나 여기 있다’고 하는 정도였다.” <br/><br/>병원도 요양원도 거부한 노마 할머니네는 함께 이별을 준비하고 서로를 알아갔다. 아들 부부는 어머니를 위한 ‘페이스북 다큐’를 시작했다. 공원에 놀러가고, 열기구를 타고, 페디큐어를 하는 할머니의 행복한 웃음을 사진에 담았고 할머니를 통해 배우는 인생의 지혜를 적었다. 할머니의 별세를 알리는 글에는 “인생은 붙잡고 있는 것과 놓아주는 것의 균형 잡기”라는 13세기 페르시아 신비주의 시인 루미의 말이 담겼다. 할머니 가족은 그 균형을 찾은 것 같았다. 지난달 21일 팀은 어머니를 호스피스 직원에게 맡겨두고 몇 시간의 휴가를 받았다. 이날은 그의 생일이었다. 어머니의 죽음을 눈앞에 뒀지만 팀은 로프로 산과 계곡을 가르며 활짝 웃었다. <br/><br/>노마 할머니네는 ‘존엄하고 행복한 죽음’은 온 가족이 함께 겪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환자의 용기뿐 아니라 환자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짓눌리지 않을 가족의 마음이 합쳐져야 가능하다. 누군가의 죽음은 미리 겪어볼 수 없으니 연습으로 단련할 수도 없는 마음이다. 안락사, 조력자살 등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는 이제 심각한 질병이 없어도 ‘인생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노마 할머니의 부고를 쓰면서 제도보다 더 거대한 ‘마음먹기’에 대해 생각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4.txt

제목: [21세기 고전] (38) 네사 캐리 ‘유전자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날짜: 20161028  
기자: 이한음 과학책 번역·저술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28194453994  
본문: ㆍ내 경험·환경을 기억하는 유전자<br/><br/><br/>역사에 남을 과학적 발견을 한 누군가가 “이것이 원리 또는 법칙이다”라고 말하고 나면, 오랜 세월 과학자들의 시선과 관점이 고정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흔히 말하는 패러다임이 설정된다. 과학자의 말이 대개 그렇듯이, 원래 그 선언에는 “~라고 한다면, 이것이 원리 또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전제나 단서가 딸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대개 무시된다.<br/><br/>DNA 이중나선 구조의 공동 발견자인 프랜시스 크릭이 내놓았던 중심 원리(central dogma)가 한 예다. 영국인이면서도 도그마라는 영어 단어가 확고부동한 교리라는 뜻임을 몰랐던 그는 생물의 정보가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로 전달된다는 개념을 그렇게 표현했다. 즉 DNA에 있는 유전자가 RNA라는 중간 분자를 매개로 단백질을 만든다는 것이다. 원래 그 원리를 제시할 때, 그는 DNA와 RNA 사이에는 역방향의 정보 흐름도 있을 수 있지만, 단백질로부터 거꾸로 향하는 정보 흐름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하지만 어느덧 단서 조항은 사라지고, 중심 원리는 오로지 정보의 일방통행만을 가리키는 교리가 되었다. 단서로 붙였던 그 역행 흐름이 실제로 생물에게서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음을 과학자들이 깨달은 것은 한참 세월이 흐른 뒤였다.<br/><br/>그리고 더욱 세월이 흐른 뒤,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또 한 가지 현상을 발견했다. 유전은 오로지 유전물질, 즉 DNA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생물학 법칙이었다. 정자와 난자에 든 유전물질이 결합되어, 부모의 특징을 고루 지닌 자식이 나온다. 정자는 그 개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실물이었다. 꼬리를 톡 끊고 난자 안으로 들어가는 정자머리에는 실제로 유전 물질, 즉 염색체만 들어 있으니까.<br/><br/>난자는 다르다. 난자에는 염색체뿐 아니라, 갖가지 세포소 기관, 온갖 생명 분자들이 가득하다. 그런 것들이 유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유전물질만이 유전에 관여한다는 법칙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과학자들은 그 단서 조항을 외면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단서 조항에 시선을 돌렸을 때, 후성유전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했다.<br/><br/>네사 캐리의 <유전자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는 후성유전학이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출현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지금은 널리 알려진 후성유전학적 사례를 소개한다. 깡마른 체형에 우아함을 간직한 오드리 헵번은 네덜란드 대기근의 생존자였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봉쇄 조치로 네덜란드인들은 1944년 겨울에 약 6개월 동안 혹독한 기근에 시달렸다.<br/><br/>과학자들은 풀까지 뜯어 먹으면서 견뎌야 했던 이들을 3대까지 추적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그들이 겪은 기근이 헵번 같은 당사자에게만 평생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 손자·손녀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다. 유전자가 달라진 것은 아닌데, 개인이 겪은 일이 어떻게 유전될 수 있을까?<br/><br/>저자는 이 질문을 품고서, 돌아보면 도처에서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발짝 물러서서 눈을 돌리면, 일란성 쌍둥이가 성장하면서 서로 달라지는 이유부터, 암, 조현병과 우울증 등 여러 정신질환, 비만 등이 생기는 이유에 이르기까지, 온갖 다양한 현상들에 후성유전이 관여함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더 나아가 노화와 죽음 문제도 후성유전학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다시 말해 환경이 우리의 유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을 무수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br/><br/>이 책에는 유전자와 세포 수준에서 후성유전학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생화학적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비전문가인 우리는 굳이 전문용어까지 찾아가면서 읽을 필요가 없다. 개괄적인 흐름만 알아도 충분하다.<br/><br/>후성유전 현상이 만연해 있음이 알려지면서, 이를 라마르크주의의 부활로 해석하려는 이들도 나타났다. 환경이 유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다면 운동을 해서 근육을 열심히 불리면 아들도 손자도 우락부락한 근육을 갖고 태어난다는 걸까?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는 말이 아닌가? 안타깝게도 후성유전학은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꿈은 깨시기를.<br/><br/>저자는 이 책에서 갓 출범한 후성유전학의 연구 흐름을 소개하면서, 이 분야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런 한편으로 지나친 희망과 과대 선전이 난무하리라는 예상도 한다. 우리가 오랜 환경오염을 통해 이미 후대에게 후성유전학적 유산을 물려준 것이 아닐까 하는 경고도 남긴다. 아무튼 저자의 말처럼, 지금 후성유전학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 책을 통해 몰랐던 그 놀라운 신세계를 접해보시기 바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5.txt

제목: 암환자 면역력 향상, 양한방 통합치료 도움  
날짜: 2016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28171516529  
본문: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중증(암) 환자는 25만5656명으로 누적 기준 171만2247명으로 늘어났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연간 22만명의 신규 암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이처럼 현대인의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동시에 조기진단으로 인한 암 발견율 역시 증가하면서 투병생활 중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집중적이며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암요양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br/><br/>암요양병원은 단순한 요양 목적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병을 이겨내고자 선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암치료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br/><br/>최근에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병행함으로써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양한방통합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양한방통합치료는 환자의 면역력 향상을 치료의 기본으로 해 항암 및 방사선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치료율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br/><br/>암요양병원인 청평푸른숲한방병원은 도심을 벗어난 깨끗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료진이 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방과 한방을 통합한 면역치료는 물론 천혜의 자연 속 치유를 통해 환자의 면역력 회복을 돕고, 서울 주요 병원과 30분 내외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하게 통원치료가 가능하다.<br/><br/>또한 항암 부작용을 극복하고 항암 치료 효과의 상승을 위해 암 환자에게 적합한 전문적인 식단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암환자에게 올바른 식단은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며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와주는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청평푸른숲한방병원은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유기농 재료를 이용해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단을 제공한다.<br/><br/>청평푸른숲한방병원의 박상채 대표원장은 "암세포는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암 환자의 면역력을 꾸준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암요양병원을 선택할 때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자연치유의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지, 양-한방에서 검증된 면역치료를 실시하는지, 안전한 먹거리로 체계화된 항암 식단을 제공하는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6.txt

제목: 뚜렷한 증상 없어 더 무서운 ‘만성폐쇄성폐질환’…EBS1 ‘명의’  
날짜: 20161027  
기자: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27194926941  
본문: EBS 1TV <명의>는 일상 속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드러나는 폐질환에 대해 알아본다.<br/><br/>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전 세계 사망 원인 4위를 기록한다. 폐암은 암환자 수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단일 장기 질환으로선 엄청난 수치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 질병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br/><br/>COPD는 장시간 독성 가스나 입자에 노출돼 영구적인 폐 기능 저하가 일어나는 것이다.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흡연이다. 혹은 과거 결핵을 앓아 폐가 손상됐거나 천식을 오랫동안 앓으면 COPD로 발전된다.<br/><br/>별 생각 없이 병원을 방문한 전대윤씨(65)는 진단 결과 폐 기능의 55%만 남아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됐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증상이 눈에 보일 만큼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br/><br/>COPD의 첫 번째 치료법은 금연이다. 또한 독감이나 폐렴으로 인한 급성악화를 조심해야 한다. 남아있는 폐 기능으로 살아야 하므로 급성악화는 환자에게 치명적이다. 방송은 오후 9시50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7.txt

제목: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로 위암, 대장암 예방할 수 있어  
날짜: 201610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27140140013  
본문: 산업화에 따른 각종 환경문제와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암 환자의 발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 중에서도 소화기관인 위와 대장에서 발생하는 위암, 대장암은 발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장암의 경우 30-40대 젊은 층에서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br/><br/>우리나라의 소화기질환 및 위암, 대장암 발병률이 높은 까닭은 짜게 먹는 습관이나 국물을 함께 나눠먹는 습관, 잔을 돌리는 습관, 기름진 음식의 섭취증가 및 잦은 음주 등이 지목된다. 이러한 식습관과 운동부족으로 질병에 쉽게 노출돼 위와 대장 등의 주요 신체 건강을 지속적으로 돌봐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br/><br/>특히 위암과 대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생활이 불편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채기 어려워 더욱 위험하다. 다른 질환들과 다르게 위암과 대장암은 암 조직의 성장이나 전이가 상당히 진행되고 나서 자각증상이 생기게 되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증상이 의심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의 진단과 함께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br/><br/>원인 불명의 구토 증세, 취침 중 나타나는 복통으로 인한 불면, 식욕 감퇴, 별다른 이유 없는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위, 대장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 혈변이나 음식물 섭취에 관계 없는 설사, 변비가 지속되는 경우, 가스로 인한 장폐색 현상, 잦은 혈변으로 인한 내장 내벽의 출혈이 의심된다면 위, 대장에 문제가 생긴 신호이므로 조속히 위, 대장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br/><br/>위암과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 및 적절한 대처를 통해 암의 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검사법은 내시경 검사인데,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면 암뿐만 아니라 염증성 질환이나 용종 등의 양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도 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검사법이라 할 수 있다.<br/><br/>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위암과 대장암을 조기 치료한다면 5년 이상 생존율은 최대 90%까지 높아진다. 하지만, 이를 방치해 전이가 동반될 경우 생존율은 20% 미만으로 떨어진다.<br/><br/>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서울휴병원 정홍명 내과원장은 “대부분 위암, 대장암 환자가 암이 상당부분 진행된 후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내시경 검사 전 의료진과 병력, 복용중인 약물,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충분한 상담 후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안전하고 우수한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8.txt

제목: [밥상 위의 세계(5)]라글로리아에서 생긴 일...신종플루 '0번 환자' 에드가를 만나다  
날짜: 20161026  
기자: 페로테 | 글·사진 남지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26224218412  
본문: ㆍ라글로리아에서 생긴 일<br/><br/><br/>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막았다. 역한 분뇨 냄새가 코를 찔렀다. 1~2층 건물들과 벽돌담이 반듯한 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집들은 대체로 벽돌이 그대로 드러났거나 페인트의 색깔이 바래 있었고, 도로는 포장된 곳과 흙먼지가 날리는 곳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길가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비쩍 마른 개들이 동네를 아무렇게나 돌아다녔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동쪽으로 약 250㎞ 떨어진 이 마을의 이름은 라글로리아(La Gloria), 스페인어로 ‘영광’이라는 뜻이다.<br/><br/><br/>마을 한가운데에 낙서가 가득한 벤치와 웃자란 풀, 녹슨 담장이 있는 작은 공원이 있다. 말라붙은 분수대에는 작은 소년의 동상이 서 있다.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운동화 차림의 짧은 머리 소년이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은 채 오른손에 개구리를 들고 있다. 동상의 주인공은 7년 전 21세기 첫 글로벌 감염병의 0번 환자, ‘니뇨 세로(Nino Cero)’라고 불렸던 에드가 에르난데스다.<br/><br/><br/><br/>■‘돼지독감’ 0번 환자를 찾아서<br/><br/>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외식 메뉴인 삼겹살의 상당수는 미국과 중남미에서 온다. 삼겹살은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값싼 부위로 친다. 멕시코 사람들은 기름이 적은 등갈비를 즐겨 먹는다. 돼지기름으로 푹 익혀 포크만 갖다대도 결대로 찢어지는 미추아칸주의 돼지고기 요리 카르니타는 고수, 양파와 함께 토르티야에 얹어 라임과 살사소스를 잔뜩 뿌려 먹는다. 돼지껍질을 바삭하게 튀긴 치차론도 인기 간식이다.<br/><br/><br/>몇 해 전 돼지에서 시작된 문제가 멕시코를 덮쳤다. 2009년 봄, 돼지 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SI), 혹은 신종플루(Influenza A) 등으로 불린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했다. 멕시코와 미국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일종인 H1N1 바이러스의 변종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퍼지기 시작했고 곧 북미를 넘어 전 세계에 대유행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 바이러스가 그 전까지 인간에게서 나온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경보 중 최고 수준인 6단계 ‘대유행(pandemic)’을 선포했다. 1968년 홍콩 인플루엔자 사태 후 41년 만이었다. 1년 넘는 공중보건비상사태 기간 동안 세계에서 2만여명이 사망했다. 멕시코는 패닉에 빠졌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기관이 1주일 넘게 문을 닫았고 심지어 성당 미사까지 취소됐다.<br/><br/><br/>보건당국은 그해 4월 동부 베라크루스주(州) 페로테 외곽, 인구가 3000명도 안되는 작은 마을 라글로리아에 살던 에드가를 첫 발병자로 지목했다. 당시 5살이던 에드가의 혈액에서 변종 H1N1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에드가는 몇 주 뒤에 회복됐고, 주 정부는 이를 기념해 마을에 공원을 만들고 1.3m 높이의 동상을 세웠다.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유명 조각가 베르나르도 루이스 로페스 아르타산체스가 작업을 맡았다. 벨기에 브뤼셀의 마스코트인 ‘오줌싸개 소년’ 동상을 본떠, 에드가가 오른손에 든 개구리에서 물이 나오는 분수 구조로 설계됐다. 개구리는 치유와 회복을 상징한다.<br/><br/>반짝이는 구릿빛이던 동상은 이제는 청록색으로 변해 있었다. 개구리 입의 분수는 오래전 가동이 멈췄고 깔끔하게 도색됐던 붉은빛 분수대의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다.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에드가는 아직도 마을의 유명인사다. 공원을 지나던 아이에게 “이 동상의 주인공이 어디 사느냐”고 묻자 아이는 걸어서 3분 떨어진 작은 구멍가게로 안내했다. 에드가의 엄마 마리아 델 카르멘 에르난데스(40)가 둘째아들 조나단(7), 막내 추초(5)와 함께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일용직으로 근처 농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일을 나갔다. 벌써 13살, 중학교 1학년이 된 에드가는 학교에서 돌아와 어른스럽게 악수를 청했다.<br/><br/><br/><br/>■돼지독감은 왜 신종플루가 됐나<br/><br/>너무 어렸던 에드가는 당시 기억을 잘 떠올리지 못하지만 마리아에게 아들의 투병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span class='quot0'>그땐 정말 아이가 죽는 줄 알았어요</span>”라며 마리아는 고개를 흔들었다. 갑작스럽게 열이 펄펄 끓던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였지만 이내 다시 열이 오르곤 했다. 이대로 아이를 잃나 싶었을 때 병이 낫기 시작했으나 그 뒤로도 몇 달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몸이 약해졌다. 더 무서운 것은 “네 아이가 병을 옮겼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br/><br/>라글로리아에서 8.5㎞가량 떨어진 곳에는 멕시코 최대 양돈기업 ‘그란하스 카롤 드 멕시코(GCM)’의 축사가 있다. GCM은 페로테 일대 10여 군데에 축사를 두고 돼지 130만마리를 키운다. 이 병의 0번 환자로 에드가가 지목되자 마을 사람들은 라글로리아 근처의 돼지 축사를 질병의 근원으로 봤다. 농장에서 퍼져나와 마을까지 닿는 악취와 파리떼가 병을 옮겼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었다. 과학자들은 “<span class='quot1'>축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병을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span>”고 조심스럽게 말했다.<br/><br/>전문가들은 이 병의 원인이 된 변종 H1N1 바이러스가 돼지와 닭 등 가축의 집단사육으로 인해 변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미국 CDC는 변종 H1N1 바이러스의 유전자 구성을 분석한 결과 북미의 돼지와 사람, 조류 바이러스와 유라시아의 돼지 바이러스에서 유래된 유전자들이 섞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종이 됐으며 왜 사람 간에 감염되는 형태로 변형됐는지는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br/><br/>H1N1 바이러스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돼지에게 노출된 사람들을 산발적으로 감염시켰지만 인간 간 감염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2009년 대유행 사태를 일으킨 변종 H1N1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인간 간 감염’만 관찰됐다. 돼지에게서 변종 H1N1이 검출된 적도 없다. 즉, 2009년 대유행 사태가 돼지에서 인간으로의 감염을 통해 시작됐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바이러스 유전자 안에 뚜렷한 돼지의 흔적이 있을 뿐이다.<br/><br/>이 때문에 처음에 ‘돼지 인플루엔자’라고 불렀던 이 감염병의 이름을 두고 축산업계는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름 때문에 마치 돼지고기를 먹으면 병이 옮는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각국이 미국산과 멕시코산 돼지고기 수입을 줄줄이 금지했다. 이집트는 돼지 인플루엔자를 방제한다며 자국 내 돼지 30만마리 이상을 살처분하기까지 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돼지고기를 통한 바이러스 전염 사례는 없고 돼지로부터 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없으므로 돼지 인플루엔자라 불러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냈다.<br/><br/>결국 WHO는 이 병을 돼지 인플루엔자 대신 ‘인플루엔자 A’로 부르겠다고 발표했다.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은 절대로 없으니 안심하라는 성명도 몇 번이나 냈다. 돼지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보유한 만큼 돼지 인플루엔자라는 명칭을 그냥 쓰는 것이 적절하며 병의 근원을 명시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이 병의 공식 명칭은 여전히 인플루엔자 A다. 한국에서는 조금 뜬금없이 ‘신종플루(인플루엔자)’라는 명칭으로 굳어졌다. 앞으로 새로운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오면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br/><br/>■전염병 그 후, 갈라진 마을<br/><br/>돼지에서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옮겨간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은 라글로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멕시코 보건당국은 바이러스가 전국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진 4월 농장을 조사하고서 “GCM의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들은 이 병과 관련 없다”고 발표했다. 5월에는 이 농장에 병에 걸렸거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라글로리아에는 에드가 말고도 2~3월에 호흡기질환과 근육통 등 독감 증세를 호소한 환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들에게서는 변종 H1N1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에드가는 발병 전후로 마을을 떠난 적이 없었고, 에드가에게 병을 옮긴 사람을 찾을 수도 없었다.<br/><br/>마을을 덮쳤던 병이 한풀 꺾일 즈음, ‘0번 환자’ 에드가를 만나러 외국 기자들이 줄지어 몰려왔다.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CNN과 BBC 등 세계 언론에 아이의 사진이 실렸고 가족들의 사연이 방송됐다. 에드가가 병을 옮겼다며 멀리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 “<span class='quot2'>그 집 부모가 외국 언론들의 관심을 끌어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span>”는 소문이 돌았다고 마리아는 말했다.<br/><br/>마을을 거닐며 만나본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에드가 가족을 냉대하고 있다. “이 마을이 그 병의 진원지였던 것처럼 미디어에 나오긴 했는데 그건 다 언론들이 자극적으로 만들어낸 말이었어. 아이 하나만 아팠고 그 아이는 금방 나았지.”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서던 한 중년 남성에게 당시 상황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심지어 에드가의 고모도 “그때는 겨울이었고 그냥 독감 환자가 많았던 것뿐이다. 돼지 때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마리아는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여자로부터 “<span class='quot3'>에드가 덕분에 돈 많이 벌어서 도시에 집 샀다며?</span>”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면서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절대 아니에요. 나한테는 이 가게에 딸린 집과 내 가족밖에 없어요.” 마리아는 낡은 문이 달린 거실을 가리키며 말했다.<br/><br/>지금은 ‘돼지가 병의 원인 아니냐’는 말에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처음에 GCM을 바이러스 원흉으로 지목했던 것은 10여년간 고통받은 냄새와 파리떼 때문이었다. 라글로리아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역겨운 냄새가 났다. 해발 3000m 고지대에 위치해 사시사철 그리 덥지 않은 곳이지만, 늘 파리떼가 득실거린다. 마을을 찾은 9월5일은 최저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져 쌀쌀한 날이었는데도 파리를 쫓으며 밥을 먹어야 했다.<br/><br/><br/>▶스페인식 소시지 초리소 멕시코인 ‘대표요리’<br/><br/><br/>멕시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수출도 많이 하지만 소비도 많이 한다. 이 나라의 대표 돼지고기 요리는 역시 초리소(Chorizo)다. 스페인의 전통 소시지 초리소는 오랜 식민지 시절 멕시코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멕시코의 초리소는 지방이 많은 고기로 만들어지고, 고추가 들어가 매콤하다. 초리소와 스크램블 에그를 섞어 만든 ‘초리소 콘 우에보스’는 길거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간편한 아침식사다. 토르티야에 넣어 타코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br/><br/><br/>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이 마을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과 고통은 진짜다. 사람들은 GCM의 돼지에서 바이러스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발표를 받아들였지만 파리와 냄새에 대해 물으면 “돼지 농장에서 온 냄새가 맞다”고 입을 모았다. 반응은 “익숙해지면 별 느낌이 들지 않는다” “창문에 모기장을 치고 살아도 음식에 자꾸 파리가 앉아서 견딜 수가 없다” 등 다양했다. 마을 사람들이 느껴왔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 감염병 사태가 번지며 공포감으로 폭발했던 것이다.<br/><br/><br/><br/>■일자리와 파리떼 사이에서<br/><br/>그 이전에도 라글로리아와 주변 마을에는 GCM의 공장식 축산이 지하수와 공기를 오염시켰다며 오랫동안 싸워왔던 사람이 있다. 베르사 크리스토모(53)가 그중 대표격이다. 빨간 스웨터를 입고 화단을 정리하던 그는 “지금 이 나쁜 냄새가 느껴지지 않느냐. 이게 다 그 농장 때문”이라고 말했다. 베르사는 당시 시청에서 일했고, 1주일간 지속된 마을의 격리와 환자 진료 관리를 총괄했다. “정부는 돼지 때문이 아니라고 했고 사람들도 그 말을 믿지만 나는 믿지 않아. 그때 마을 주민 절반 이상이 다 같은 증상으로 아팠어.” 언론들은 당시 라글로리아 주민 3000명 중 1800명이 호흡기질환과 고열, 근육통을 호소했다고 보도했다.<br/><br/>베르사의 안내를 받아 당시의 환자이자 활동가 중 한 사람이었던 마르게리타(60)의 집을 찾았다. 마르게리타의 첫마디는 “그란하스 카롤은 역겨워. 좋지 않아”였다. 마르게리타는 그때 고열과 근육통에 시달렸고 목이 너무 아팠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도 같은 병에 걸렸었다. 나중에야 돼지 인플루엔자가 유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보고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확신했다.<br/><br/>감염병 사태는 GCM에 대항하는 활동가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됐다. GCM은 수년 전 마을 경계선 바로 옆에 축사를 짓겠다고 했었다. 마르게리타에 따르면 GCM이 지목한 자리는 학교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이었다. 그는 2004년부터 라글로리아에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며 이웃 마을 주민들과 같이 단체를 결성해 GCM의 축사가 공기와 토양, 물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 인근 마을 주민 4명과 함께 시위를 하면서 도로를 차단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다툼 끝에 2009년에야 무죄를 선고받았다. <br/><br/>이 지역 돼지 축사가 전 세계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발생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뒤 GCM은 라글로리아에 축사를 추가로 짓는 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마르게리타는 돼지 축사가 들어서기 더 이전, 지하수를 먹던 시절이 그립다고 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수를 사먹거나 수도시설을 이용한다. <br/><br/>모두가 마르게리타처럼 GCM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세르기오 페레스(42)는 “GCM이 정착한 다음에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고 했다. “GCM이 이 마을 근처에도 축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물론 오염 같은 문제는 있지만 일자리를 잡을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여럿이 GCM의 축사에서 일한다. 축사마다 가까운 동네 사람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장전입’을 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GCM은 이 지역에서 13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br/><br/><br/><br/>■NAFTA가 세운 공장식 축사<br/><br/>“우리는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코멘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멕시코 보건당국이 내놓은 발표를 보지 못했나요? 왜 우리가 그 일과 관련이 없음을 다시 증명해야 하죠?” 페로테의 GCM 본사에서 만난 홍보담당자 엠마 리제트는 H1N1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묻자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멕시코를 찾기 두 달 전부터 줄기차게 GCM 축사를 방문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지만, GCM이 요청한 양식대로 방문 목적을 설명한 공문을 보내자 연락이 뚝 끊겼다. GCM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 듣고 싶어 왔다고 말을 돌리자 목소리가 다소 누그러졌다.<br/><br/><br/>요즘에는 공장식 축사에서 오염된 폐수를 그대로 버리는 일은 없다. GCM은 돼지 분뇨를 방수 처리가 잘된 웅덩이에서 엄격한 위생적 절차를 거쳐 비료로 바꾸며, 생성되는 메탄가스는 에너지로 재활용한다고 엠마는 설명했다. 정화처리된 물은 농업용수 등으로 재사용한다. 20년 이상 베라크루스와 푸에블라에서 축사를 운영하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학교를 짓는 등 사회 기여에도 신경 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깨끗하게 처리한들 돼지 수백만마리의 분뇨에선 냄새가 새어나올 수밖에 없다. 울타리 바깥에서만 둘러볼 수 있었던 GCM의 대형 축사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청결한 공장처럼 보였지만, 분뇨를 모아둔 것으로 보이는 축사 앞 거대한 웅덩이에서 악취가 올라왔다. <br/><br/>GCM은 1994년 페로테에 터를 잡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된 지 2년 뒤였다. NAFTA 이후 미국, 캐나다와 같은 경제권으로 묶인 멕시코 축산업계는 재편됐다. 돼지고기 수입량이 늘면서 돼지 사육 마릿수가 크게 줄었다. 소규모 양돈농가는 몰락했고 대기업들은 작은 양돈농가를 인수해 몸집을 불렸다. 스미스필드도 페로테 일대의 소규모 양돈농가를 합병해 GCM을 만들었다. <br/><br/>NAFTA와 함께 멕시코로 몰려온 미국식 집단사육시설은 축사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돼지들까지 고통스럽게 한다. 라글로리아에 다녀온 다음날, 동물보호단체 HSI 멕시코지부에서 일하는 사비나 가르시아를 멕시코시티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1년 전 다녀온 공장식 돼지 축사의 모습을 설명해주겠다며 사비나는 “<span class='quot4'>한국에서 멕시코까지 올 때 얼마나 걸렸느냐</span>”고 물었다. 22시간 걸렸다고 대답하자 그가 말했다. “많이 힘들었겠군요. 그런데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한 달, 아니면 일 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본 적 있어요?”<br/><br/><br/><br/>■“결국은 소비자가 답”<br/><br/>돼지들은 풀어 기르면 무리를 지어 살고, 활동적으로 땅에 코를 박고 먹을거리를 찾아 돌아다닌다. 더러운 것을 싫어해 배변 장소는 보금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마련한다. 암컷들은 출산이 다가오면 구멍을 파고 지푸라기를 깔아 새끼를 낳은 뒤 며칠 지나 원래 무리로 되돌아간다. 하지만 인간의 노동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생산비용을 낮추기에 전력하는 현대식 농장에서 돼지들은 분뇨를 처리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시멘트 바닥이나 나무 바닥에 산다. 딱딱한 바닥에서는 다리를 다치기 쉽다. <br/><br/>암컷들은 임신해서 새끼를 낳는 3~4년 동안 분만틀(crate)이라는 철제 우리에 갇혀 산다. 자기 몸만 한 이 틀 안에서 돼지는 걸음을 뗄 수조차 없다. 다른 돼지들과 어울릴 수도, 배변을 가릴 수도, 지푸라기를 모아 보금자리를 만들 수도 없는 이 공간에서 돼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한 번에 열 마리가 넘는 새끼를 낳는 일을 반복한다. 근육과 뼈는 약해질 대로 약해진다. 스트레스를 참지 못한 돼지들은 옴짝달싹하기도 어려운 공간에서 울부짖으며 쇠기둥을 씹고, 입가는 다 망가진다. 사비나는 “<span class='quot4'>그렇게 시끄럽고 냄새나고 처참한 현장은 또 없을 것</span>”이라며 얼굴을 찡그렸다.<br/><br/>멕시코의 축산업을 대형화하는 데 일조한 것은 세계화이지만, 역설적으로 요즘 멕시코의 축산업에 동물권 개념을 정착시키고 있는 것도 세계화다. 유럽연합(EU)은 2013년부터 분만틀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의 몇몇 주도 분만틀을 금지한다. 선진국 소비자들의 달라진 요구에 맞춰 멕시코의 100여개 기업이 이미 분만틀을 없앴으며, 돼지들을 큰 헛간에 풀어 기른다. “결국은 소비자가 답”이라고 사비나는 말했다. “<span class='quot0'>식탁 위에 올라오는 돼지고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면 소비자들은 이걸 바꾸라고 요구할 거예요.</span>” GCM은 2022년부터 분만틀을 퇴출하기로 했다. GCM의 돼지들이 조금 더 편해지면, 라글로리아의 악취와 파리떼도 조금은 줄어들까.<br/><br/>라글로리아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오가면서 마을도 조금은 살기 좋아졌다. 공원이 생기고 성당이 새로 지어졌다. 말끔한 고속도로가 놓였고 시내까지 2시간 걸리던 것이 30분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길은 텅 비었으며 에드가의 동상이 선 공원에는 비쩍 마른 개 몇 마리와 아이들 몇 명밖에 없다. 방과후 에드가는 동생들과 동상 앞에서 뛰어놀았다. 자기 동상이 있다는 것이 마냥 신나 보였다. “그 무서운 병을 이겨낸 내가 자랑스러워요. 친구들은 내 동상을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가족에게 상처만 남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동상을 없애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건강한 아들을 보면 그저 기쁘다고 했다. <br/><br/>하지만 마리아는 아직도 가끔 궁금하다. 아들이 어떻게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왜 삶이 흔들렸는지. 왜 아직도 이따금 사람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자신과 아들을 바라보는지. 에드가는 학교에서 “<span class='quot2'>실험실에서 빠져나온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한다</span>”는 이야기를 들었다. 미국 제약회사 실험실에서 신종플루가 탄생했다는 2009년의 유명한 음모론은 갑작스러운 전염병의 원인을 설명할 말을 찾지 못한 마을에 아직도 떠돌아다니고 있다.<br/><br/><br/>▶중국 자본에 넘어간 미 축산 ‘스미스필드’<br/><br/><br/>신종플루 발병지인 멕시코 페로테의 라글로리아에 있는 축산회사 GCM의 지분 50%는 미국을 대표하는 축산기업 스미스필드가 가지고 있다. 2013년 스미스필드가 중국 육가공기업 솽후이그룹(현 WH그룹)에 넘어가면서 GCM도 사실상 중국 자본의 소유가 됐다. 미국에서 축산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 스미스필드는 규제의 무풍지대인 페로테에서 수출용 돼지고기를 생산했다. 당시 멕시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미스필드는 이곳에서 돼지 80만마리를 키우면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조차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br/><br/><br/>특별취재팀<br/><br/>구정은 박경은 이인숙<br/>정환보 남지원 이재덕 기자<br/>취재 지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9.txt

제목: [밥상 위의 세계(5)]라글로리아에서 생긴 일...신종플루 '0번 환자' 에드가를 만나다  
날짜: 20161026  
기자: 페로테 | 글·사진 남지원 기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26140923520  
본문: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막았다. 역한 분뇨 냄새가 코를 찔렀다. 1~2층 건물들과 벽돌 담이 반듯한 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집들은 대체로 벽돌이 그대로 드러났거나 페인트의 색깔이 바래 있었고, 도로는 포장된 곳과 흙먼지가 날리는 곳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길가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비쩍 마른 개들이 동네를 아무렇게나 돌아다녔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동쪽으로 약 250㎞ 떨어진 이 마을의 이름은 라글로리아(La Gloria), 스페인어로 ‘영광’이라는 뜻이다. <br/><br/>마을 한가운데에 낙서가 가득한 벤치와 웃자란 풀, 녹슨 담장이 있는 작은 공원이 있다. 말라붙은 분수대에는 작은 소년의 동상이 서 있다.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운동화 차림의 짧은 머리 소년이 장난스런 웃음을 지은 채 오른손에 개구리를 들고 있다. 동상의 주인공은 7년 전 21세기 첫 글로벌 감염병의 0번 환자, ‘니뇨 세로(Nino Cero)’라고 불렸던 에드가 에르난데스다.<br/><br/><br/><br/>■‘돼지독감’ 0번 환자를 찾아서<br/>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외식 메뉴인 삼겹살의 상당수는 미국과 중남미에서 온다. 삼겹살은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값싼 부위로 친다. 멕시코 사람들은 기름이 적은 등갈비를 즐겨먹는다. 돼지기름으로 푹 익혀 포크만 갖다대도 결대로 찢어지는 미추아칸 주의 돼지고기 요리 ‘까르니따(Carnitas)’는 고수, 양파와 함께 또르띠야에 얹어 라임과 살사소스를 잔뜩 뿌려 먹는다. 돼지껍데기를 바삭하게 튀긴 치차론(Chicharon)도 인기 간식이다. <br/><br/>하지만 멕시코 사람들의 소울푸드라면 역시 초리소(Chorizo)다. 스페인의 전통 소시지 초리소는 오랜 식민지 시절 멕시코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멕시코의 초리소는 지방이 많은 고기로 만들어지고, 고추가 들어가 매콤하다. 초리소와 스크램블 에그를 섞어 만든 ‘초리소 콘 우에보스(Chorizo con huevos)’는 길거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간편한 아침식사다. 또르띠야에 넣어 타코로 만들어먹기도 한다. <br/><br/> <br/><br/>몇 해 전 돼지에서 시작된 문제가 멕시코를 덮쳤다. 2009년 봄, 돼지 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SI), 혹은 신종플루(Influenza A) 등으로 불린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했다. 멕시코와 미국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일종인 H1N1 바이러스의 변종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퍼지기 시작했고 곧 북미를 넘어 전 세계에 대유행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 바이러스가 그 전까지 인간에게서 나온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라는 판단을 내렸다. <br/><br/>세계보건기구(WHO)는 그 해 6월 감염병 경보 중 최고 수준인 6단계 ‘대유행(pandemic)’을 선포했다. 1968년 홍콩 인플루엔자 사태 후 41년만의 일이었다. 1년 넘는 공중보건비상사태 기간 동안 세계에서 2만여명이 사망했다. 멕시코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기관이 1주일 넘게 문을 닫았고 심지어 성당 미사까지 취소됐다. <br/><br/>멕시코 보건당국은 그해 4월 동부 베라크루스주(州) 페로테 외곽, 인구가 30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 라글로리아에 살던 에드가를 첫 발병자로 지목했다. 당시 5살이던 에드가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변종 H1N1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에드가는 몇 주간 앓다가 회복했다. 주정부는 그해 여름 ‘니뇨 세로’의 회복을 기념하기 위해 마을 한복판에 공원을 만들고 1.3m 높이의 동상을 세웠다. 비센테 폭스 전 멕시코 대통령의 동상을 만들기도 했던 유명 조각가 베르나르도 루이스 로페즈 아르타산체스가 작업을 맡았다. 벨기에 브뤼셀의 마스코트인 ‘오줌싸개 소년’ 동상을 본따 분수대에 만들어진 이 동상은 에드가가 오른손에 든 개구리에서 물이 나오는 구조로 설계됐다. 개구리는 치유와 회복을 상징한다.<br/><br/> <br/><br/>세워질 때만 해도 반짝이는 구릿빛이었던 동상은 자유의 여신상과 비슷한 청록색으로 변해 있었다. 개구리 입에서 나오던 분수는 오래 전 가동이 멈춘 듯 했다. 깔끔하게 도색됐던 붉은빛 분수대의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다.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에드가는 아직도 마을의 유명인사다. 공원을 지나던 아이에게 “이 동상의 주인공이 어디 사느냐”고 묻자 아이는 걸어서 3분 떨어진 작은 구멍가게로 안내했다. 에드가의 엄마 마리아 델 카르멘 에르난데스(40)가 둘째아들 조나단(7), 막내 추초(5)와 함께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일용직으로 근처 농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일을 나갔다. 벌써 13살, 중학교 1학년이 된 에드가는 학교에서 돌아와 어른스럽게 악수를 청했다.<br/><br/><br/><br/>■돼지독감은 왜 신종플루가 됐나<br/>너무 어렸던 에드가는 당시 기억을 잘 떠올리지 못하지만 마리아에게 아들의 투병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span class='quot0'>그 땐 정말 아이가 죽는 줄 알았어요</span>”라며 마리아는 고개를 흔들었다. 갑작스럽게 열이 펄펄 끓던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였지만 이내 다시 열이 오르곤 했다. 이대로 아이를 잃나 싶었을 때 병이 낫기 시작했으나 그 뒤로도 몇 달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몸이 약해졌다. 더 무서운 것은 “네 아이가 병을 옮겼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br/><br/>라글로리아에서 8.5㎞가량 떨어진 곳에는 멕시코 최대 양돈기업 ‘그란하스 카롤 드 멕시코(Granjas Carroll de Mexico:GCM)’의 축사가 있다. GCM은 페로테 일대 10여 군데에 축사를 두고 돼지 130만마리를 키운다. 이 병의 0번 환자로 에드가가 지목되자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라글로리아 근처의 돼지 축사를 질병의 근원으로 봤다. 농장에서 퍼져나와 마을까지 닿는 악취와 파리떼가 병을 옮겼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었다. 과학자들은 “<span class='quot1'>축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병을 옮겼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span>”고 조심스럽게 말했다.<br/><br/>전문가들은 이 병의 원인이 된 변종 H1N1 바이러스가 돼지와 닭 등 가축의 집단 사육으로 인해 변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미국 CDC는 변종 H1N1 바이러스의 유전자 구성을 분석한 결과 북미의 돼지와 사람, 조류 바이러스와 유라시아의 돼지 바이러스에서 유래된 유전자들이 섞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종이 됐으며 왜 사람 간에 감염되는 형태로 변형됐는지는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br/><br/>H1N1 바이러스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돼지에 노출된 사람들을 산발적으로 감염시켰지만 인간 간 감염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2009년 대유행 사태를 일으킨 변종 H1N1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인간 간 감염’만 관찰됐다. 돼지에게서 변종 H1N1이 검출된 적도 없다. 즉, 2009년 대유행 사태가 돼지에서 인간으로의 감염을 통해 시작됐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바이러스 유전자 안에 뚜렷한 돼지의 흔적이 있을 뿐이다.<br/><br/> <br/><br/>이 때문에 처음에 ‘돼지 인플루엔자’라고 불렀던 이 감염병의 이름을 두고 축산업계는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름 때문에 마치 돼지고기를 먹으면 병이 옮는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각국이 미국산과 멕시코산 돼지고기 수입을 줄줄이 금지했다. 이집트는 돼지 인플루엔자를 방제한다며 자국 내 돼지 3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하기까지 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돼지고기를 통한 바이러스 전염 사례는 없고 돼지로부터 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없으므로 돼지 인플루엔자라 불러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냈다. <br/><br/>결국 WHO는 이 병을 돼지 인플루엔자 대신 ‘인플루엔자 A’로 부르겠다고 발표했다.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은 절대로 없으니 안심하라는 성명도 몇 번이나 냈다. 돼지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보유한 만큼 돼지 인플루엔자라는 명칭을 그냥 쓰는 것이 적절하며 병의 근원을 명시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이 병의 공식 명칭은 여전히 인플루엔자 A다. 한국에서는 조금 뜬금없이 ‘신종 플루(인플루엔자)’라는 명칭이 굳어졌다. 앞으로 새로운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오면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br/><br/><br/><br/>■전염병 그 후, 갈라진 마을<br/>돼지에서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옮겨간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은 라글로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멕시코 보건당국은 바이러스가 전국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진 4월 농장을 조사하고서 “GCM의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들은 이 병과 관련 없다”고 발표했다. 5월에는 이 농장에 병에 걸렸거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라글로리아에는 에드가 말고도 2~3월에 호흡기질환과 근육통 등 독감 증세를 호소한 환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들에게서는 변종 H1N1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에드가는 발병 전후로 마을을 떠난 적이 없었고, 에드가에게 병을 옮긴 사람을 찾을 수도 없었다.<br/><br/> <br/><br/>마을을 덮쳤던 병이 한풀 꺾일 즈음, ‘0번 환자’ 에드가를 만나러 외국 기자들이 줄지어 몰려왔다.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CNN과 BBC등 세계 언론에 아이의 사진이 실렸고 가족들의 사연이 방송됐다. 에드가가 병을 옮겼다며 멀리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 “<span class='quot2'>그 집 부모가 외국 언론들의 관심을 끌어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span>”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마리아는 말했다.<br/><br/>마을을 거닐며 만나본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에드가 가족을 냉대하고 있다. “이 마을이 그 병의 진원지였던 것처럼 미디어에 나오긴 했는데 그건 다 황색언론들이 자극적으로 만들어 낸 말이었어. 아이 하나만 아팠고 그 아이는 금방 나았지.”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서던 한 중년 남성에게 당시 상황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심지어 에드가의 고모도 “그때는 겨울이었고 그냥 독감 환자가 많았던 것뿐이다. 돼지 때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마리아는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여자로부터 “<span class='quot3'>에드가 덕분에 돈 많이 벌어서 도시에 집 샀다며?</span>”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면서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절대 아니예요. 나한테는 이 가게에 딸린 집과 내 가족들밖에 없어요.” 마리아는 낡은 문이 달린, 바깥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실을 가리키며 말했다.<br/><br/>지금은 ‘돼지가 병의 원인 아니냐’는 말에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처음에 GCM을 바이러스의 원흉으로 지목했던 것은 십여년 동안 고통받았던 냄새와 파리떼 때문이었다. 라글로리아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역겨운 냄새가 났다. 해발 3000미터 고지대에 위치해 사시사철 그리 덥지 않은 곳이지만, 늘 파리떼가 득시글거린다. 마을을 찾은 9월5일은 최저기온이 10도 아래까지 떨어져 쌀쌀한 날이었는데도 파리를 쫓으며 밥을 먹어야 했다. <br/><br/> <br/><br/>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이 마을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과 고통은 진짜다. 사람들은 GCM의 돼지에서 바이러스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발표를 받아들였지만 파리와 냄새에 대해 물으면 “돼지농장에서 온 냄새가 맞다”고 입을 모았다. 반응은 “익숙해지면 별 느낌이 들지 않는다”부터 “창문에 모기장을 치고 살아도 음식에 자꾸 파리가 앉아서 견딜 수가 없다”까지 다양했다. 마을 사람들이 느껴왔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 감염병 사태가 번지며 공포감으로 폭발했던 것이다.<br/><br/><br/><br/>■일자리와 파리떼 사이에서<br/>그 이전에도 라글로리아와 주변 마을에는 GCM의 공장식 축산이 지하수와 공기를 오염시켰다며 오랫동안 싸워왔던 사람이 있다. 베르사 크리스토모(53)가 그 중 대표격이다. 빨간 스웨터를 입고 화단을 정리하던 그는 “지금 이 나쁜 냄새가 느껴지지 않느냐. 이게 다 그 농장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베르사는 당시 시청에서 일했고, 일주일간 지속된 마을의 격리와 환자 진료 관리를 총괄했다. “정부는 돼지 때문이 아니라고 했고 사람들도 그 말을 믿지만 나는 믿지 않아. 그 때 마을 주민 절반 이상이 다 같은 증상으로 아팠어.” 언론들은 당시 라글로리아 주민 3000명 중 1800명이 호흡기질환과 고열, 근육통을 호소했다고 보도했다.<br/><br/>베르사의 안내를 받아 당시의 환자이자 활동가 중 한 사람이었던 마르게리타(60)의 집을 찾았다. 마르게리타의 첫마디는 “그란하스 카롤은 역겨워. 좋지 않아”였다. 마르게리타는 그 때 고열과 근육통에 시달렸고 목이 너무 아팠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도 같은 병에 걸렸었다. 나중에야 돼지 인플루엔자가 유행중이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보고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확신했다.<br/><br/>감염병 사태는 GCM에 대항하는 활동가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됐다. GCM은 수년 전 마을 경계선 바로 옆에 축사를 짓겠다고 했었다. 마르게리타에 따르면 GCM이 지목한 자리는 학교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이었다. 그는 2004년부터 라글로리아에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며 이웃 마을 주민들과 같이 ‘환경연합(Pueblos Unidos por el Medio Ambiente)’이라는 단체를 결성해 GCM의 축사가 공기와 토양, 물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 인근 마을 주민 4명과 함께 시위를 하면서 도로를 차단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다툼 끝에 2009년에야 무죄를 선고받았다. <br/><br/>이 지역 돼지 축사가 전세계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뒤 GCM은 라글로리아에 축사를 추가로 짓는 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마르게리타는 돼지 축사가 들어서기 더 이전, 지하수를 먹던 시절이 그립다고 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수를 사먹거나 수도시설을 이용한다. <br/><br/>모두가 마르게리타처럼 GCM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세르기오 페레스(42)는 “GCM이 정착한 다음에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고 했다. “GCM이 이 마을 근처에도 축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물론 오염 같은 문제는 있지만 일자리를 잡을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여럿이 GCM의 축사에서 일한다. 축사마다 가까운 동네 사람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장전입’을 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도 돌아다녔다. GCM은 이 지역에서 13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br/><br/><br/><br/>■NAFTA가 세운 공장식 축사<br/>“우리는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코멘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멕시코 보건당국이 내놓은 발표를 보지 못했나요? 왜 우리가 그 일과 관련이 없음을 다시 증명해야 하죠?” 페로테의 GCM 본사에서 만난 홍보담당자 엠마 리제트는 H1N1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묻자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멕시코를 찾기 두 달 전부터 줄기차게 GCM 축사를 방문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지만, GCM이 요청한 양식대로 방문 목적을 설명한 공문을 보내자 연락이 뚝 끊겼다. GCM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 듣고 싶어 왔다고 말을 돌리자 목소리가 다소 누그러졌다.<br/><br/> <br/><br/>요즘에는 공장식 축사가 오염된 폐수를 그대로 버리는 일은 없다. GCM은 돼지 분뇨를 방수 처리가 잘 된 웅덩이에서 엄격한 위생적 절차를 거쳐 비료로 바꾸며, 생성되는 메탄가스는 에너지로 재활용한다고 리제트는 설명했다. 정화처리된 물은 농업용수 등으로 재사용한다. 20년 이상 베라크루스와 푸에블라에서 축사를 운영하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학교를 짓는 등 사회기여에도 신경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깨끗하게 처리한들 돼지 수백만 마리의 분뇨에선 냄새가 새어나올 수밖에 없다. 울타리 바깥에서만 둘러볼 수 있었던 GCM의 대형 축사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청결한 공장처럼 보였지만, 분뇨를 모아둔 것으로 보이는 축사 앞 거대한 웅덩이에서 악취가 올라왔다. <br/><br/>GCM은 1994년 페로테에 터를 잡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된 지 2년 뒤였다. 이 회사 지분 50%는 미국을 대표하는 축산기업 스미스필드가 가지고 있다. 뒤에 스미스필드가 중국 육가공기업 솽후이그룹(현 WH그룹)에 넘어가면서 GCM도 중국 자본의 소유가 됐다. NAFTA 이후 미국, 캐나다와 같은 경제권으로 묶인 멕시코 축산업계는 완전히 재편됐다. 돼지고기 수입량이 늘면서 돼지 사육두수가 크게 줄었다. 소규모 양돈농가는 몰락했고 대기업들은 작은 양돈농가를 인수해 몸집을 불렸다. 스미스필드도 페로테 일대의 소규모 양돈농가를 합병해 GCM을 만들었다. 미국에서 축산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 스미스필드는 규제의 무풍지대인 페로테에서 수출용 돼지고기를 생산했다. 당시 멕시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미스필드는 이곳에서 돼지 80만 마리를 키우면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조차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br/><br/> <br/><br/>NAFTA와 함께 멕시코로 몰려온 미국식 집단사육시설은 축사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돼지들까지 고통스럽게 한다. 라글로리아에 다녀온 다음날, 동물보호단체 HSI 멕시코지부에서 일하는 사비나 가르시아를 멕시코시티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1년 전 다녀온 공장식 돼지 축사의 모습을 설명해주겠다며 사비나는 “<span class='quot4'>한국에서 멕시코까지 올 때 얼마나 걸렸느냐</span>”고 물었다. 22시간 걸렸다고 대답하자 그가 말했다. “많이 힘들었겠군요. 그런데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한 달, 아니면 일 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본 적 있어요?”<br/><br/><br/><br/>■“결국은 소비자가 답”<br/>돼지들은 풀어 기르면 무리를 지어 살고, 활동적으로 땅에 코를 박고 먹을거리를 찾아 돌아다닌다. 더러운 것을 싫어해 배변 장소는 보금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마련한다. 암컷들은 출산이 다가오면 구멍을 파고 지푸라기를 깔아 새끼를 낳은 뒤 며칠 지나 원래 무리로 되돌아간다. 하지만 인간의 노동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생산비용을 낮추기에 전력하는 현대식 농장에서 돼지들은 분뇨를 처리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시멘트 바닥이나 나무바닥에 산다. 딱딱한 바닥에서는 다리를 다치기 쉽다. <br/><br/>암컷들은 임신해서 새끼를 낳는 3~4년 동안 분만틀(crate)이라는 철제 우리에 갇혀 산다. 자기 몸 만한 이 틀 안에서 돼지는 걸음을 뗄 수조차 없다. 다른 돼지들과 어울릴 수도, 배변을 가릴 수도, 지푸라기를 모아 보금자리를 만들 수도 없는 이 공간에서 돼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한번에 열 마리가 넘는 새끼를 낳는 일을 반복한다. 근육과 뼈는 약해질 대로 약해진다. 스트레스를 참지 못한 돼지들은 옴짝달싹도 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울부짖으며 쇠 기둥을 씹고, 입가는 다 망가진다. 사비나는 “<span class='quot4'>그렇게 시끄럽고 냄새나고 처참한 현장은 또 없을 것</span>”이라며 얼굴을 찡그렸다.<br/><br/>멕시코의 축산업을 대형화하는 데 일조한 것은 세계화이지만, 역설적으로 요즘 멕시코의 축산업에 동물권 개념을 정착시키고 있는 것도 세계화다. 유럽연합(EU)은 2013년부터 분만틀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의 몇몇 주도 분만틀을 금지한다. 선진국 소비자들의 달라진 요구에 맞춰 멕시코의 100여개 기업이 이미 분만틀을 없앴으며, 돼지들을 큰 헛간에 풀어 기른다. “결국은 소비자가 답”이라고 사비나는 말했다. “<span class='quot0'>식탁 위에 올라오는 돼지고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면 소비자들은 이걸 바꾸라고 요구할 거예요.</span>” GCM은 2022년부터 분만틀을 퇴출하기로 했다. GCM의 돼지들이 조금 더 편해지면, 라글로리아의 파리떼도 조금은 줄어들까.<br/><br/> <br/><br/>라글로리아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오가면서 마을도 조금은 살기 좋아졌다. 공원이 생기고 성당이 새로 지어졌다. 페로테로 통하던 비포장도로는 사라지고 말끔한 고속도로가 놓였다. 시내까지 2시간 걸리던 것이 30분으로 줄었다. 다섯 살 에드가의 모습은 혼란스런 시절을 극복했다는 기념물로 남았다. 7년 전 피델 에레라 당시 베라크루스 주지사는 동상을 세우면서 이 가난한 마을에 새로운 명물이 생겼으니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했다. <br/><br/>상처만 남긴 아이의 투병은 마을의 기념물이 됐지만 여전히 길은 텅 비었고 동상이 선 공원에는 비쩍 마른 개 몇 마리와 아이들 몇 명밖에 없다. 방과 후 에드가는 동생들을 데리고 자기 동상 앞에서 뛰어놀았다. 자기 어린 시절 모습이 동상으로 서 있는 것이 마냥 신나보였다. “그 무서운 병을 이겨낸 내가 자랑스러워요. 친구들은 내 동상을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가족에게 상처만 남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동상을 없애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건강한 아들을 보면 그저 기쁘다고 했다. <br/><br/>하지만 마리아는 아직도 가끔 궁금하다. 아들이 어떻게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왜 삶이 흔들렸는지. 왜 아직도 이따금 사람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자신과 아들을 바라보는지. 에드가는 학교에서 “<span class='quot2'>실험실에서 빠져나온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한다</span>”는 이야기를 들었다. 미국 제약회사 실험실에서 신종플루가 탄생했다는 2009년의 유명한 음모론은 갑작스런 전염병의 원인을 설명할 말을 찾지 못한 마을에 아직도 떠돌아다니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0.txt

제목: 암요양병원, 암환자 삶의 질 높이는 치료에 집중한다  
날짜: 201610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24111106513  
본문: 과거와 달리 요즘은 암환자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잘 받은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암은 여전히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br/><br/>최근 의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면역항암제'는 기존 표적항암제와 달리 탈모, 구토 등 부작용을 크게 줄이고 내성이 발생하는 기간 또한 단축 시킨 것이 큰 특징이다.<br/><br/>그간 표적항암제는 암세포에 필요한 물질만을 골라 공격하여 부작용이 적지만, 내성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반면 면역항암제는 면역체계에 작용해 활성화를 유도하고 암세포를 공격하므로 부작용을 보다 줄이고, 환자의 생존율도 높였다는 점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br/><br/>국내외에서 면역항암제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옻나무 추출물 암 치료제를 기반으로 한 치료가 주목 받고 있다.<br/><br/>본래 한약 재료로 쓰인 옻나무는 얼마 전 크게 화제가 됐던 암 치료제인 넥시아에도 함유되어 있는 성분. 특히 옻의 주요 성분인 우루시올(Urushiol)은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물성 라카아제은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마찬가지로 옻의 함유성분 중 하나인 파세틴은 염증을 치료하고 암세포의 신생 혈관을 억제하는 특징이 있다.<br/><br/>이를 활용한 암요양병원 ‘청평푸른숲한방병원’에서는 대표원장인 박상채 한의학박사가 개발한 ‘한방면역항암제 티버스터’를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옻나무 추출물로 만든 대표적 한방항암제 중 하나인 천연물 항암치료제 '티버스터(치종단II)는 국제 SCI급 저널 BMC 컴프러맨사리 앤드 얼터네시브 메디신에 언급되며 항암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티버스터는 특히 옻나무추출물이 가지고 있는 우루시올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려 암세포 사멸에 큰 효능을 발휘하며 암세포의 신생혈관 생성 억제 등에도 효과가 있다.<br/><br/>특히 청평푸른숲한방병원의 경우 양한방협진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고주파온열암치료와같은 기존의 양방 치료와 더불어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해당 치료법은 이미 그 시너지효과에 대한 인정을 받은 상황.<br/><br/>청평푸른숲한방병원 박상채 원장은 "화학 항암치료를 하다 최후의 수단으로 한방 암치료를 선택하는 것보다 초기부터 양방/한방 병행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인다"고 전하며 “<span class='quot0'>본원에서는 초기에는 화학 항암제와 한방항암제을 병행 치료하나, 화학 항암제의 1차 내성이 발생한 이후로는 한방 단독 치료를 권한다</span>”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1.txt

제목: 고혈압 약 ‘칼슘 채널 차단제’로 폐암 예방 가능  
날짜: 20161023  
기자: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23211044614  
본문: ㆍ서울대 이호영 교수팀<br/><br/><br/><br/>고혈압 치료제로 쓰이는 ‘칼슘채널 차단제’를 이용해 폐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br/>한국연구재단은 서울대 이호영 교수(사진)팀이 흡연이나 만성 스트레스로 폐암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밝히고, 고혈압 치료제를 이용한 폐암 예방법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br/><br/>폐암의 주요 원인인 흡연은 담배에 함유된 발암 성분이 폐 상피세포의 돌연변이를 유도하고 발암 신호전달을 활성화시켜 폐암을 유발한다. 그러나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는 스트레스의 경우 관련성을 과학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br/><br/>그러나 연구팀은 흡연 및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쥐의 폐 조직 상피세포가 암세포로 바뀐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br/><br/>또 고혈압 환자들이 복용하는 ‘칼슘채널 차단제’를 이용해 폐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팀이 사람 폐의 상피세포와 실험용 쥐에 세포로의 칼슘 유입을 막는 ‘칼슘채널 차단제’를 처리한 결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수용체의 활성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영 교수는 “<span class='quot0'>추가 임상 시험을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폐암 예방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와 ‘암 연구’에 실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2.txt

제목: [정희진의 낯선 사이]어떤 2조원  
날짜: 20161023  
기자: 정희진 | 여성학 강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23205736935  
본문: 어깨·목 통증 치료사, 안과 의사, 인문학 강사. 장담컨대 이 직종들은 앞으로 최소 5년 안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망한 직업으로, 인력 부족을 겪는 분야가 될 것이다. 인문학 강사의 경우, 대학에서 인문학은 사양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사망’한 지 오래지만(전공자가 대학에 취업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느 사회나 ‘교양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있기 때문이다. <br/><br/>나머지 직업은 스마트폰과 관련한 건강 전문가들이다. 인터넷 인프라 세계 최고, 2013년 현재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2015년 3월 가입자 기준으로 성인 83%의 보급률. 우리 주변을 보자. <br/><br/>길거리, 집안, 사무실, 강의실, 버스, 전철 안은 기본이다. 심지어 횡단보도, 불 꺼진 극장, 데이트 중에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쥔 채 머리를 숙이고 있다. 시력과 경추 부위 이상은 필연적이다. 지금도 많지만 뒷목, 어깨, 윗등 근육통, 두통을 동반하는 거북목증후군 환자가 폭증할 것이다.<br/><br/>본질적인 이슈, 그러나 거의 논의되지 않는 문제는 스마트폰이 인간의 존재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둔하고 싶거나 혹은 실종자로 처리되고 싶다면, 스마트폰만 꺼 두면 된다. 휴대전화 번호가 시민권을 대체한 지 오래다. 어디를 가든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한다. 전자우편 비밀번호 변경, 기차표 예약, 은행 계좌 개설까지. 사회는 누구나 스마트폰이 있다는 가정에서 돌아가고 있다. “당신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질문에 왜 사람이 아니라 전화기가 답해야 하는가? 주민등록증 없이는 살아도 휴대전화 번호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세상이다. <br/><br/>통신사가 막대한 비용을 챙기며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소비주의, 자본주의 원리라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소박하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자발적인 전체주의 사회가 있었던가. <br/><br/>공중전화 같은 공공 서비스는 사라져가고, 맥루한의 지적대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자기 몸을 확장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 특히 기계류를 좋아하는 일부 남성들은 자신이 소유한 기계의 성능이나 가격이 자아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컴퓨터, 휴대전화의 새 기종이 나오면 달려가는 얼리 어답터(early adapters). 나는 이들이 핵, 원자력, 전쟁보다 ‘더’ 두렵다. 인문학의 실종 때문일까. 이 기기들이 양산하는 산업 폐기물의 재앙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다. 가입자 인증을 위한 핵심 부품인 유심(USIM) 칩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지만, 이를 구성하는 금속 성분이 다른 물질과 합성될 경우를 대비한 지식은 접하기 힘들다. <br/><br/>한국은 보수, 진보, 페미니스트 할 것 없이 성장주의, 발전주의자들의 사회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 전 국민적 스마트폰 사용을 비판하거나 문제제기하는 논의를 들은 적이 없다. 모두가 구입과 사용을 당연시한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폭발 사건’으로 인한 리콜 비용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br/><br/>회사 측의 폭발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중 환불을 요구한 이들은 10명 중 1명도 안 된다. 아직 100만개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 생존보다 소비가 먼저인 사회다. <br/><br/>100만원을 전후한 ‘갤럭시노트7’이 출시되자 ‘5’는 22만원대로 떨어졌다. 나는 얼마 전 아버지를 위해 ‘노인폰’이라는 2G 폴더폰을 15만원에 구입했다. 스마트폰은 어디까지 진화해야 하는가. 아니, 이것이 진화의 문제일까. ‘7’과 ‘5’의 차이(약 80만원)와 ‘5’와 ‘2G’(7만원)의 차이를 생각해보자. 이는 진화라기보다는 이익을 위한 유행 창출이라는 기업 정신일 뿐이다. <br/><br/>20여 년 전 일이긴 하지만 1997년 어느 대통령 후보는 대선을 치르기 위해 “천억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말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언저리라는 뜻일 것이다. 2조원. 0자리 숫자가 6개(100만원)만 넘어가면 뇌가 멈추는 나 같은 사람에겐 상상할 수 없는 액수다. 그 정도의 돈이 ‘갤럭시7’의 수익 비용도 아니고(!), 리콜이라는 생산 비용의 일부다. <br/><br/>2조원을 다른 곳에 쓴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친환경 급식, 농가 부채 탕감, 가난한 암환자를 위한 치료비, 아르바이트 시급 1만원 책정, 시간강사 월급제, 택시기사 사납금제 폐지, 가정폭력 피해여성 쉼터,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한 의료 복지, 장애아동을 혼자 감당하는 엄마를 위한 사업…. 잠시 ‘로또’를 꿈꾼다. <br/><br/>물론 그 돈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돈이고, 5와 7의 차이는 ‘클 것이다’. 하지만, 2조원. 이것은 과학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향후 자본주의 사회의 방향을 가늠하는 사건이다. <br/><br/>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인가. 기술 발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가 이익을 보는가. (내가 가장 궁금한) 도대체 인류는 누구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것일까. 누가 인간을 우러러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일까. 과학기술 발달의 목표는 편리함인가? 대안적 편리 개념은 없을까. 어디까지 발전해야 성이 찰까. 오래된 질문조차 멈춘 시대다. <br/><br/>발전주의에서 살아남을 방도를 모색할 때다. 발전지상주의는 경제 강국이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이다. 생산과 소비를 무한정 늘리고, 시장 교환 체제를 확대하고, 자연을 얼마나 더 뒤지고 파헤칠 것인가. 스마트폰은 스마트하지 않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3.txt

제목: [정동칼럼]치매는 국가의 책임  
날짜: 20161023  
기자: 이진석 | 서울대 의대 교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23205319811  
본문: 책 한 권을 추천하고 싶다. <아흔 개의 봄>. 역사학자 김기협 선생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며 쓴 시병일기이다. 몇 년 전, 한 지인이 선물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웃고, 또 울었다. 저명한 국문학자였던 선생의 어머니가 아기같이 동요를 부르고, 간식에 집착해 간병인과 티격태격하는 장면에서는 내 입가에서도 저절로 웃음이 흘러나왔다. 또 어떤 장면에서는 지방에 사는 연로한 부모님이 갑자기 생각나, 책을 덮고 한참 동안 먹먹한 마음을 가라앉히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별 용건도 없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었다.<br/><br/>치매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와 자란 인간이 다시 아기가 되어 가면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는 병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축복과 기쁨이다. 그러나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는 과정, 특히 아기가 되면서 되돌아가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 기저귀 갈아주면서 키운 자식에게 자신이 아기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공포이다. 어떤 질환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물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응답 노인의 44%가 치매를 꼽았다. 노인에게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치매이다.<br/><br/>가족에게는 고통이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자식 된 도리로 감내하기에는 그 짐이 너무나 무겁다. 부모에 대한 애정은 원망으로 바뀌고, 부양을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남편과 아내가, 형과 동생이 다툼을 벌인다. 함께 사는 가족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가족의 삶은 통째로 엉망이 되곤 한다. 치매 환자의 방치와 학대,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도 이런 데서 기인한다.<br/><br/>2014년 기준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직접 부양부담을 가지고 있는 가족의 수는 140만명에 이른다. 국민 35명 중의 1명꼴이다. 그리고 이들의 약 80%가 치매 환자 부양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였거나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5년 동안 치매 환자 1명을 치료하고 간병하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약 1억원에 달한다.<br/><br/>지난해 말 정부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촘촘한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이다. <br/><br/>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연평균 800억원, 연구와 기술개발 등을 제외한 서비스 관련 예산 기준으로는 연평균 65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9만6000원, 한 달에 8000원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에 반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한 국고지원의 미지급액은 2009년부터 7년 동안 3200억원에 이른다. 요란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치매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br/><br/>치매 환자의 절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에서 여전히 제외되어 있고, 혜택을 받는 사람조차 서비스의 양과 질이 턱없이 부족하다.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조기에 받도록 연계하는 체계도 엉성하다. 치매는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이 질병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환자와 가족에게 질병을 이해시키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지역사회 체계도 부족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부실한 서비스와 치매 환자 학대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노라면,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안심하고 모실 수 있는 병원과 시설을 찾는 것도 큰 고역이다.<br/><br/>보건복지부는 현재 70여만명인 치매 환자가 2030년에는 13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추세면, 2030년에는 전체 국민 2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에 대한 직접 부양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가계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br/><br/>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을 대폭 강화하고, 30여만명에 이르는 요양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대다수 일자리는 임금이 낮고 불안정하다. 이런 일자리에서 품격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다. <br/><br/>정부의 재정적 책임성을 높이는 것도 당연한 선결과제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가족이 안심하고 환자를 맡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치매 관리는 고령화 대책이고 민생 대책이며, 일자리 대책이다.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치매 환자의 자식도 인륜을 저버리지 않고 자식 된 도리를 다할 수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4.txt

제목: 면역항암제 ‘티버스터’ 폐암, 육종암 치료 대안으로 주목  
날짜: 2016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21152217246  
본문: 암 환자들이 치료에 앞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역시 완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치료 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다. 특히 항암치료의 고통스런 부작용은 암환자들이 치료 진행에 앞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br/><br/>이런 의미에서 최근에는 면역항암제가 새로운 암치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면역항암제는 기존의 세포독성항암제, 그리고 표적항암제와 달리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새로운 치료기전을 갖고 있다. 특히 기존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은 줄이고 생존율을 높였다는 점에서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br/><br/>이처럼 면역항암제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제약사들은 신면역항암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신약개발사와 합작형태를 통해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br/><br/>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120억원을 들여 미국의 항체 신약 연구개발 전문 회사 쏘렌토와 합작해 '이뮨온시아'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면역항암제 개발에 나선 상태다. 또한 녹십자셀과 JW크레아젠 등도 면역항암제의 국내 임상을 완료,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br/><br/>한편 면역항암제가 주목 받기 이전부터 국내 한방의학에서는 이와 비슷한 치료기전을 가진 한방면역항암제가 개발된 적이 있다. 이 치료제는 하나통합한의원의 치종단II-티버스터다. 실제로 이 병원에서는 비소세포성폐암 환자가 티버스터 치료와 양방치료를 병행한 결과 폐암이나 육종암 등의 암세포가 소멸되는 놀라운 치료결과를 낳기도 했다.<br/><br/>티버스터는 암세포의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옻나무 추출물 성분을 이용해 개발된 면역항암제다. 옻나무 추출물의 효능은 하나통합한의원 김보근 원장이 발표한 '대식세포 활성화에 미치는 옻의 영향' 논문에서도 입증됐다.<br/><br/>논문 연구진은 '옻'이 우리 몸에서 암을 공격하는 지라세포(백혈구의 일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고 옻 처리를 했을 경우 세포 독성은 없고 오히려 살아있는 세포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br/><br/>또한 국제 SCI급 저널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서도 '치종단의 A549 비소세포성폐암주에서의 항암기전'을 주제로 한 논문이 실리면서 학계에 큰 관심을 받았다.<br/><br/>하나통합한의원 김보근 원장은 "옻나무추출물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의 자멸사를 유도하는 효능이 있다"면서 "바로 이 추출물로 만든 암치료제들은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 암세포 소멸을 돕게 된다. 특히 양한방 치료를 병행하면 암세포 유효반응율이 80%까지 증가해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5.txt

제목: 염창환병원, 암 환자 식단 위해 항암요리연구가 초빙  
날짜: 2016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21110133786  
본문: 옛말에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듯 식습관은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암 환자들의 경우 누구보다도 식습관을 신경 써서 관리 해야 한다. 수술을 통해 종양 부위를 절제한 환자들이나 몇 차례에 걸쳐 항암제를 투여하는 항암제 치료 환자들, 방사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경우의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신체 컨디션'이기 때문이다. 치료가 진행 중인 암 환자들은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도 최고의 영양 상태 및 균형을 이뤄야 하는 것이다.<br/><br/>하지만 현재 암 환자 치료 및 케어 시스템 하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상상 이상의 수준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입맛 역시 소멸되는 암 환자 본인에겐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기도 하다. 특히 시장에 난무하는 증명되지 않은 식품과 제품들로 인해 오히려 ‘진짜 영양 관리’에 힘써야 할 시간조차 빼앗기고 있다.<br/><br/>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그리고 전이와 재발 등 1차 암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을 고주파온열암치료, 고압산소치료, 면역세포치료, 고용량비타민 C치료 등의 2차 치료를 통해 케어하고 있는 염창환병원(대표 염창환)은 암 환자와 보호자들의 ‘영양 식단 관리’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바로 병원 현장에 ‘항암요리연구가’를 초빙하여 항암 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의 식단을 연구하고 관리하여 제공하는 것.<br/><br/>염창환병원은 지난 9월부터 박진희 항암요리연구가를 원내에 초빙하여, 병원에서 제공하는 중, 석식 식단 구성부터 탈바꿈 하고 있다. 단순히 간을 약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암 환자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재료를 활용하여 목 넘김이 쉽고, 식감을 즐겁게 하는 메뉴를 선보이며 입원 환자는 물론 환자들의 보호자들에게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br/><br/>박진희 항암요리연구가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생명대학원 이학박사를 졸업할 때에 비타민과 암, 항암제 부작용, 항암제 내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암 환자들의 ‘식단 영양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암 환자의 몸 속으로 항암제와 방사선 외에 투입되는 제 2의 ‘음식’에 대한 현실 개선을 위해 스위스 CAA(Culinary Arts of Academy) 와 미국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Culinary Arts를 수료하며, 지난 해까지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암 센터에서 암 환자 식이 인턴쉽을 수료했다.<br/><br/>최근에는 국내 암 환자들이 ‘치료’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암 환자의 식이’ 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인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달 초 SBS 좋은아침을 통해 ‘아로니아를 활용한 면역력 강화 레시피’를 소개하기도 했다. 박진희 항암요리연구가는 "암 환자의 식단 관리는 그저 미각을 깨워주는 것만이 아닌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생활 속 암 치료’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며 "앞으로 염창환병원과 함께 항암 레시피를 개발하여 암 환자들의 식단이 보다 건강하고 또한 즐겁고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6.txt

제목: 명의예감 (25, 끝) 화순전남대병원 위장관외과 정오 교수  
날짜: 20161020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20215823700  
본문: ■위암 복강경 수술의 베테랑, 새로운 시술법 개발<br/><br/>화순전남대병원은 서울 지역의 대형 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암 전문 병원이다. 위암 치료 분야에서 진료실적과 연구성과 모두 국내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br/><br/>위장관외과팀 스태프인 정오 교수(42)는 위암 복강경 수술의 베테랑으로 손꼽힌다. 기술적으로 보다 까다로운 복강경 위전절제술을 용이하게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체내 문합법을 고안, 해외 저널에 발표했다. 복강경 위절제술시 자가혈액 표지를 이용하여 종양의 위치를 수술 중에 복강 내에서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개발해 학계의 주목을 받는 젊은 의학자이다.<br/><br/>정 교수는 복강경 위절제술 시행시 2~3개의 복부투관침(abdominal trocar)만을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독창적인 수술 방법을 발표했는데, 이는 기존 5~6개의 복부투관침을 사용하여 하는 복강경 위절제술보다 수술 후 흉터와 통증이 적고, 수술 소요 인력과 수술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인 효과도 볼 수 있다.<br/><br/>정 교수는 특히 손기술이 빠르기로 정평이 높다. 일반적으로 3~4시간이 걸리는 복강경 위절제술을 약 2시간 이내에 끝마친다. 섬세한 기술과 조작으로 수술 중 출혈이 거의 없는 수술을 시행한다. 이러한 정 교수의 수술 실력은 라이브 수술 워크숍에서 공개되어 국내외 의사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br/><br/>화순전남대병원 위암클리닉은 종양내과, 위장관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양지원팀을 중심으로 12명 내외의 전문의료진이 근무한다. 정 교수가 속해 있는 위장관외과팀은 매년 약 700례의 위암수술을 시행하고 있다.<br/><br/>“위암은 과도한 염류 섭취, 탄 음식, 햄이나 소시지류와 같이 질산염 화합물이 포함된 가공된 음식 섭취 등과 같은 잘못된 식생활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외에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나 음주 흡연도 위암 발생률을 증가시킵니다.”<br/><br/>■조기위암은 수술만으로 완치…내시경 검진 필수<br/><br/>정 교수에 따르면 위암은 진행 정도에 따라 크게 조기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나뉘고, 조기위암과 진행성 위암은 치료 후 예후에 큰 차이를 보인다. 위암이 점막 및 점막하층에만 국한된 조기위암의 경우 수술 만으로 거의 100% 완치된다. 이러한 조기위암의 경우에는 개복수술이 아닌 복강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커다란 복부 절개와 통증 없이 흉터가 거의 없게 보다 편안한 치료를 시행 받을 수 있다.<br/><br/>“조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위암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대부분 조기위암에서는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서는 2년에 한번씩 내시경 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기 이상의 진행성 위암의 경우 수술과 항암제 치료를 병용하더라도 재발률이 약 50%에 달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위암의 완치인 셈입니다.”<br/><br/>위암의 근치적인 치료법은 위의 부분절제 또는 전 절제를 통하여 위암을 제거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수술법은 개복을 통한 위절제술이고, 복강경 위절제술 약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는 조기위암의 수술에 있어서 표준치료로 자리잡고 있다. 복강 내를 카메라로 보면서 기구를 조작하여 복부절개 없이 위 절제 수술을 시행한다.<br/><br/>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하여 흉터가 적을 뿐 아니라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수술 후 합병증도 개복수술에 비하여 낮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복강경 수술도 진화하고 있는데, 위 절제와 문합이 모두 복부 절개 없이 복강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복강경 위절제술이 시행된다.<br/><br/>■수술 후 빠른 회복 위한 진료표준화 연구 주력<br/><br/>최근에는 동위원소나 색소를 이용한 감시림프절 검사를 통하여 위 주변 림파선 전이를 수술 중에 진단, 그 결과에 따라 축소 위절제술을 시행하는 수술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수술 법은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수술법은 국내 여러 기관이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 교수도 주요 연구책임자이다.<br/><br/>정 교수는 위암 수술 환자의 조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적정진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위암 수술 환자들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불편감을 초래하였던 여러 처치들, 예를 들면 수술 중 비위관 및 배액관 삽입, 과도한 정맥 수액 투여, 수술 후 3~4일간의 금식과 이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 등의 관행적 치료에서 탈피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술 후 환자관리를 근거의학 중심의 환자 치료로 표준화함으로써 환자의 불편감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수술 후 회복을 촉진시켜 입원기간을 단축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br/><br/>실제로 이를 통해 정 교수에게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수술 전 불편한 관장이나 금식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고, 수술 다음날 바로 운동과 식이가 가능하며, 수술 후 1주일 정도면 회복을 하여 퇴원을 하는 등 수술 후 회복의 지표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br/><br/>정 교수는 ‘논문 머신’이라고 불릴 만큼 연구에 열정이 많다.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명 저널에 40여 편의 SCI논문을 제1저자로 발표했다. 국내 논문과 공저자 논문의 편수까지 합치면 그 수는 100여 편에 이를 정도다.<br/><br/>이러한 연구 성과로 여러 학회에서 상을 받는다. 2007년 대한위암학회 우수논문상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각종 학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대한임상종양학회 우수논문상, 대한내시경복강경학회 우수논문상, 로슈 종양학술상, 대한위암학회 우수연구자상 및 최다 논문 게재상 등 최근까지 15차례의 학술상을 수상했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에는 2년 연속 일본 위암학회의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3년 연속 위암학회 우수연구자상의 영예를 안았다.<br/><br/>■악기 연주 수준급, “음악으로 자선 봉사 계획”<br/><br/>정 교수는 어렸을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학창 시절 때는 관현악반 활동을 하며 트럼펫 주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대학시절에는 ‘팬 플루트’ 동아리를 결성하여 회장을 맡는 등 음악적인 취미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음악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각종 악기를 다룰 줄 아는데, 가장 좋아하고 즐기는 악기는 기타이고 실력도 수준급이라고 한다.<br/><br/>“중학교 때 형의 권유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게 인연이 되어 현재도 바쁜 일상을 달래주는 좋은 동반자로 틈 나는 대로 즐기고 있다. 기타는 다른 악기와 달리 독주와 반주가 모두 가능한 훌륭한 악기로 혼자서 조용한 가운데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br/><br/>정 교수는 1998년 전북대 의대를 졸업, 서울아산병원 외과 전공의와 위장관외과 전임의 과정을 거쳐 2008년부터 화순전남대벼원 위장관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최근 만1년 동안(2015~2016) 미국 휴스턴에 있는 MD앤더슨 암센더 위암클리닉에서 연수를 받고 얼마전 귀국했다. 미국최고의 암센터로 특히 클리닉 중심의 다학제 진료가 매우 활성화된 병원에서 땀흘리며 최신 지견을 습득했다. 위암치료의 다학제 진료와 임상연구(clinical trial) 수행과 특히 고도 진행성 위암환자에 대한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내 화학요법’의 연구계획과 수행에 참여했다고 한다.<br/><br/>그는 음악 등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결성하여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자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꿈이다. 외과 환자들은 대부분 자신을 수술한 의사에 대한 존경심은 있지만 심리적 거리감을 갖기 마련인데,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환자와 의사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br/><br/>좌우명은 “한번만 더, 조금만 더”이다. 12살 딸아이의 방에 붙여진 짧은 문구를 보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무슨 일을 하든 다 되었다고 생각하며 안주하고 자만할 때 “한번만 더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꼼꼼히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외과의사로서의 자세일 것으로 생각했단다.<br/><br/>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았다. “<span class='quot0'>은사이신 서울아산병원 외과 김병식 선생님</span>”이라고 말한다.<br/><br/>“위암 전문 외과의사로서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과 저 자신의 행복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도록 항상 가르쳐주신 분입니다. 전임의 시절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거의 매달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등반하셨는데, 그 때의 기억과 경험은 이후 외과의사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br/><br/>\*<알림> 그동안 경향신문이 인터넷판에 연재한 ‘명의예감’ 시리즈에 보내주신 애독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속으로 ‘열정의 젊은 의사들’ 시리즈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7.txt

제목: 실험동물로 사용되는 아프리카발톱개구리 세계최초로 게놈 해독  
날짜: 20161020  
기자: 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20030221725  
본문: 100여 년간 생물분야 연구자들 사이에서 실험동물로 각광 받아온 ‘아프리카발톱개구리(Xenopus laevis)’의 유전체(genome)가 해독됐다. 인간 유전자의 기능을 찾아내거나, 암 등의 인간 질병을 연구하는 새로운 동물모델로 개구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br/><br/>UNIST 생명과학부 권태준 교수가 제1저자로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진은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유전체를 해독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국제 유명 학술지 <네이처>에 20일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미국과 일본, 한국 등 7개국에서 60명이 참여했으며 2009년부터 7년간 진행됐다.<br/><br/>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한 번에 지름 1㎜ 수준의 큰 알을 수백 개씩 낳는다. 체외수정을 하는데다 유전자 발현 조절도 쉬워 인간을 포함한 많은 척추동물의 발생 과정에서 중요한 유전자를 연구하는 발생학, 세포생물학, 생화학 등 여러 분야에서 실험동물로 널리 사용됐다. 2012년 복제동물 돌리를 탄생시키는데 성공한 공로로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존 고든 박사도 체세포 핵치환 연구를 할 때 아프리카발톱개구리를 사용했다. <br/><br/>실험실에서 널리 사용돼왔지만 이 개구리의 유전체 해독에는 오랜시간이 걸렸다. 염색체 그룹이 4개(4배체)여서 분석이 까다로웠던 것이다. 권 교수는 “<span class='quot0'>인간을 비롯한 다른 동물은 부모에게 하나씩 염색체 그룹을 물려받아 2개의 염색체 그룹(2배체)을 가지지만 부모에게 2개씩 염색체 그룹을 받는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분석은 훨씬 복잡하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4개 유전체 그룹으로 이뤄진 독특한 동물이라 유전체 정보가 제한적으로만 알려져 있었다”며 “이번 유전체 해독으로 생물학 전반에 쓰일 효과적인 실험동물 모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br/><br/>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4개 유전체 그룹에서 각각 9개의 염색체를 가진다. 연구진은 이들 염색체의 DNA 반복서열을 분석해 크기가 큰 L염색체 9개와 크기가 작은 S염색체 9개가 각각 다른 종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염색체 속에 흔적만 남는 유사유전자(pseudogene)를 분석해 서양발톱개구리와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조상이 약 4800만 년 전에 분화했다는 것도 알아냈다. <br/><br/>권 교수는 “<span class='quot0'>4배체 유전체를 동물에서 최초로 분석하고 진화적으로 유전자 변화를 살핀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진화를 통해 새로운 유전자가 생성되는 과정과 같은 기초 연구뿐 아니라 암이나 선천성 기형처럼 배체수 변화가 흔히 나타나는 질병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 <br/><br/>이번 연구는 UNIST 신임교원 정착지원과제 등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8.txt

제목: ‘22년 야근 노동자 유방암’ 첫 산재 인정  
날짜: 20161019  
기자: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19222806690  
본문: ㆍ근로공단, 25년 기준 미달에도 급여·장의비 청구 수용 <br/>ㆍ야간노동 잦은 전자·의료계 등에 파급 영향 가능성 커<br/><br/>20년 넘게 야간노동을 해온 반도체 노동자의 유방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야간노동이 유방암의 독자적 원인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br/>근로복지공단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옛 아남반도체) 서울 성수동 공장에서 일하다 유방암에 걸려 숨진 이미자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1987년 18세의 나이로 회사에 입사해 22년 동안 반도체 웨이퍼 절단작업을 해오다가 2009년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수술을 받았지만 2011년 유방암이 재발했고 지난해에는 암이 뇌까지 전이돼 지난해 11월 결국 사망했다.<br/><br/>이씨의 유방암 발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쟁점이 된 것은 야간노동의 기간이었다. <br/><br/>국내 학회 및 덴마크 직업병위원회는 노동자가 ‘주 1회 이상 야간작업을 25년 이상 수행’했을 때 유방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br/><br/>하지만 이씨는 입사 뒤 발병까지 22년간 야간노동을 해 25년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br/><br/>공단에서 역학조사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런 점 때문에 이씨의 유방암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span class='quot0'>25년 기준에 미치진 않지만 교대근무는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씨가 3조3교대를 하면서 외국 사례에 비해 상당히 잦은 야간노동을 했다는 점을 볼 때 사망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span>”고 밝혔다. <br/><br/>이번 판정으로 야간노동이 잦은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 간호사, 스튜어디스 등의 유방암도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span class='quot1'>야간노동은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고 수면장애·우울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유방암뿐 아니라 전립선암, 대장암 등 호르몬과 관련된 암도 야간노동과의 연관성이 의심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야간노동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 노동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br/><br/>금속노조는 “장기간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교대근무를 유방암의 독자적 요인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판정”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9.txt

제목: 혹시 ‘도플갱어’…같아도 너무 같은 두 경찰관  
날짜: 20161019  
기자: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19205535962  
본문: ㆍ순천서 박형수·이영선 경위<br/><br/><br/>닮아도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경찰관 2명이 생년월일, 혈액형, 군입대 날짜, 신혼여행지 등 온갖 사생활 정보가 똑같다. 주인공은 전남 순천경찰서 경제팀 박형수(사진 왼쪽)·이영선 (오른쪽)경위. 이들은 음력으로 1970년 9월29일 오전 6시 태어났다. 혈액형도 똑같은 O형이다. 두 사람은 이후 입대일·임용일·결혼일·승진일 등 닮은꼴 생활을 해왔다. 결혼식 뒤에는 여수공항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3박4일 제주도 신혼여행을 다녀왔다.<br/><br/>이들은 경찰에 들어온 지 13년 만인 2009년부터 순천경찰서에서 일하게 될 때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런데 1년 후 함께 선거사범 수사를 다녀오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둘이 ‘정말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경위가 “박 경위가 친구에게 전자우편 비밀번호 ‘1414’를 말하는 것을 듣고 내 군번숫자 배열과 똑같네”라는 말을 하면서 서로의 개인정보를 털어놨다. 논산훈련소 입소날짜, 임용일, 결혼일이 같았다. 지난해엔 똑같이 승진도 했다. 5살 아래인 A형 부인과 결혼했고, 딸 둘씩을 낳아 기르고 있다. 박 경위가 키가 약간 크지만 서로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2014년엔 둘 다 아버지를 암으로 잃었다.<br/><br/>박 경위는 “이런 기이한 인연이 없을 것 같아 생일날·결혼기념일을 함께 보낸다”고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0.txt

제목: 유방조직검사 꼭 필요할까? 외과 전문의에 물었더니···  
날짜: 201610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18144733388  
본문: 유방암 정기검진과 유방조직검사, 자세히 알고 정확하게 대응해야<br/><br/>서구식 식생활 및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국내 유방암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중앙암등록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유방암은 갑상선암 다음으로 높은 발병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20~30대 젊은층의 발병 비율은 최근 10여 년간 4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br/><br/>유방암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 2005년 서울아산병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증상이 있어 발견된 유방암에 비해 검진에서 발견된 유방암인 경우 전반적으로 암의 크기가 작으며 환자의 생존율이나 예후도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그렇다면 유방암 정기검진의 방법 및 주의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유방검진 및 유방조직검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강동 유방외과 아산유외과 홍수정 원장(외과 전문의)에게 물어봤다. <br/><br/>▶ 유방에 멍울이 잡히면 모두 유방암이라 볼 수 있을까?<br/>여성들은 흔히 월경 전후 유방이 아프거나 자가검진에서 멍울이 느껴지면 유방암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이런 경우 악성결절 즉 암이기 보다는 양성결절인 섬유선종이나 섬유낭포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br/><br/>섬유선종은 나이와 무관하게 폐경기 전 여성들에게 흔히 생기는 혹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런 유방 양성결절인 혹을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년 정도 관찰 시 12~16% 정도에서 크기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기도 한다. 다만 추적검사에서 크기가 점차 커지거나 초음파상 모양이나 양상이 달라질 경우, 섬유선종처럼 생긴 유방암이 아닌지 수술적 제거나 조직검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br/><br/>▶ 건강검진으로 유방 이상소견이 나왔는데, 정확한 진단이 기억 나지 않는다면?<br/>유방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상 유방에 이상소견이 나오거나 혹은 검진센터에서 유방초음파를 권유했다며 빈손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때 앞선 검진에서 치밀유방, 미세석회화, 비대칭 음영, 불분명, 양성, 악성 등 어떤 진단이 나왔는지를 숙지하고 유방검사의 결과(엑스레이나 초음파 영상 CD 등)를 가지고 유방외과 등을 방문하면 더욱 정확한 추가 검사가 가능하다. <br/><br/>특히,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진 및 회사 건강검진에서 실시한 유방검사에서 이상소견과 함께 추가검사를 권고했다면 반드시 유방 방사선 촬영 및 유방조직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는 아플까 지레 겁을 먹고 검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국소 마취할 때 통증일 뿐 총 조직검사, 맘모톰 등은 그리 힘들지 않으며 유방암 감별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br/> <br/>▶ 조직검사는 얼마나 정확할까?<br/>갑상선이든 유방이든 혹이 만져지는 경우 그 혹이 암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직의 일부를 떼어 직접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의 경우에서 세포검사를 한다고 하고, 유방의 혹은 조직검사를 한다고 말한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br/><br/>일반적으로 세포검사는 기본단위를 검사하는 방법이고, 조직검사는 세포의 덩어리인 조직을 검사하는 차이다. 세포검사와 조직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직자체의 성질이라 할 수 있는데, 유방에 생기는 혹 중 속이 가득 차 있는 혹은 조직 검사를, 비어있는 물주머니 형태는 조직검사보다는 주사기로 빨아들인 액체에서 세포를 얻어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세포검사에 비해 조직검사가 더 많은 세포나 환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1.txt

제목: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현재보다는 ‘과거’가 중요하다  
날짜: 201610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17113930286  
본문: 근로자들이 업무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일명 ‘직업성 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법적 자문이나 문의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br/> <br/>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는 직업성 암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유해물질을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하여 정리하여놓은 것일 뿐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결국 각 사안 별로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다.<br/> <br/>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이나 인터넷의 정보들을 통하여 본인에게 발병한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본인이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퇴직하기 직전에 수행하였던 업무 도중 그 물질에 대한 노출이 있었음에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br/> <br/>이는 직업성 암의 중요한 특징인 잠복기를 고려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즉, 직업성 암은 대부분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의 잠복기를 가지기 때문에 직업성 암은 본인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 인한 것일 가능성 보다는 과거의 경력에 의한 것일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직업성 암을 산재로 신청할 때에는 현재의 업무보다는 과거의 경력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입증이 필요할 것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2.txt

제목: 실손보험의 ‘거품 빼기’…근본 해법은 과잉진료 ‘수술’  
날짜: 20161016  
기자: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16212703267  
본문: ㆍ‘기본형 + 다양한 특약’ 구조로 개편…새상품 내년 4월 출시 <br/>ㆍ병원·환자 ‘도덕적 해이’…“보험사에 책임 물어야” 지적도<br/><br/><br/><br/>직장생활 5년 차인 이모씨(33)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1만1000원 수준이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1만4000원으로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다. 월 3000원을 더 내는 것이 그리 큰 부담은 아니지만 28%나 되는 인상률에 저항감을 느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만약 이런 속도로 오른다면 40~50대에는 보험료가 10만원 가까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span>”며 “<span class='quot0'>언제 병원비로 고생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당장 깰 생각은 없지만 불편하고 불안하다</span>”고 말했다.<br/><br/>올해 초 보험사들이 일제히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20%가량 올리면서 가입자 불만이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실손보험료의 거품을 빼겠다는 것이지만 가입자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으로 부담이 해소될지는 지켜봐야 한다.<br/><br/>■병원비 덜 쓰는 가입자엔 ‘할인’<br/><br/>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실손보험 개편의 핵심은 ‘기본형 + 다양한 특약’ 구조다. 현재 실손보험은 미용목적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입원·통원 의료비를 보장한다. 이 중 과잉진료가 빈번해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의료행위는 ‘기본형’ 보장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기본형에서 배제된 의료행위 비용은 특약에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기본형’ 보험료가 현행 실손보험료보다 40% 저렴해질 것으로 본다.<br/><br/>하지만 이 같은 보험료 인하 효과는 가입자들이 주로 ‘기본형’에만 기댈 수 있을 때의 얘기다. 만약 기본형만으로는 불안해 각종 특약을 줄줄이 추가해야 한다면 보험료는 지금과 그대로거나 혹은 더 오를 수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특정 치료 보장을 (기본형에서 빼서) 특약으로 한다는 것은 그 치료에 대해 보험료를 좀 더 많이 책정하겠다는 의미</span>”라면서 “<span class='quot1'>하지만 너무 많은 치료항목을 특약으로 만들어버리면 소비자와의 신의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현재 금융당국과 업계는 도수치료는 기본형에서 배제해 특약에 담기로 했고, 비급여 주사치료의 경우 일정 범위까지는 기본형에 담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형 + 다양한 특약’ 구조의 새 실손보험은 내년 4월 출시된다.<br/><br/>병원비를 덜 쓰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고를 안 내면 보험료가 내려가고 사고를 많이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자동차보험’처럼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병원 이용과 관계없이 전체 가입자가 그해 보험료 인상분을 동일하게 분담하는 구조다.<br/><br/>정부는 아울러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을 단독 상품으로 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대부분 사망·후유장해 등을 기본계약으로 하는 보험 속에 ‘특약’으로 묶여 있다. 이들 보험엔 암이나 뇌졸중 등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까지 함께 붙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 자체의 보험료는 1만~3만원이지만 실손보험이 포함된 보험의 전체 보험료는 5만~10만원에 이른다. 2013년 정부가 단독형 실손보험 출시를 의무화했으나 현재 단독형의 비중은 3.1%(2015년)에 그친다.<br/><br/>정부 대책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상품구조 개편, 할인·할증제도 도입 등은 보험료를 오르게 만드는 ‘비급여 팽창’의 구조를 직접 다루는 방안은 아니다. 해서 가입자가 실감할 만한 ‘부담 해소’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br/><br/>■비급여 진료 급증에 보험료 올라<br/><br/>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나뉜다. 비급여항목의 전액과 급여항목의 약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바로 이 금액을 실손보험이 80~90% 보장한다. 문제는 증상이 중하지 않은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도 않은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과잉진료로 인해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진 보험사가 이를 보험료 인상을 통해 상쇄하려는 데 있다. 업계는 거둬들인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을 얼마만큼 지급했는지를 보여주는 ‘손해율’이 실손보험의 경우 123%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br/><br/>‘비급여 팽창’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 대책에 포함시킨 ‘비급여 정보 표준화’에 대해서는 보험업계뿐 아니라 복지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 급여와 달리 비급여 진료항목은 병·의원별로 코드명이 달라 가격이 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과잉진료는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통제불능’ 지대에 있다.<br/><br/>다만 과잉진료 억제와 동시에 보험사의 책임을 묻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직 의사인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은 “<span class='quot2'>보험사들은 일부 환자와 의사의 ‘도덕적 해이’를 탓하고 있는데 애초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상품을 온갖 마케팅을 동원해 판매한 것은 보험사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2'>실손보험 손해율이 높다지만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끼우면서 함께 판매한 다른 수많은 특약으로는 이익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모르는 체’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br/><br/>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오르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5년간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을 거뒀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 같은 이익의 사회 환원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영역이 커지면 보험사들은 이익을 보게 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느라 이익은커녕 손해를 감내해 왔다는 입장이어서 실손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3.txt

제목: [볼만한 주말영화]2016년 10월 15·16일  
날짜: 201610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14192846127  
본문: 방탕한 아들, 엄마의 암 투병 소식 전해듣고<br/><br/>■세계의 명화 <도쿄 타워>(EBS1 토 오후 10시45분) = 마사야의 어머니는 홀몸으로 마사야를 키웠다. 이들은 남들보다 좀 더 애틋한 모자지간이다. 어느 날 마사야는 갑자기 미술공부를 하겠다며 도쿄로 떠난다. 도쿄에 도착한 마사야는 어머니가 보내준 학비와 생활비를 술과 도박에 쓰며 시간을 보낸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그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 마사야는 계속 빈둥거리면서 졸업도 하지 못한 채 빚만 진다. 마사야는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아버지와 어느새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 이후 돈을 모두 탕진한 그는 집세가 밀려 이곳저곳 전전하는 신세가 된다. 그러다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br/><br/>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신데렐라, 오드리 헵번<br/><br/>■시네마 <사브리나>(OBS 일 오후 1시55분) = 미국 롱아일랜드 북쪽 해안의 큰 저택에는 래러비 일가와 함께 운전사의 딸 사브리나가 살고 있다. 사브리나는 자라면서 래러비가의 둘째아들 데이비드를 연모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도 사브리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사브리나는 파리로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떠나기 직전 데이비드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몰래 그의 방에 들어간다. 그리고 문 뒤에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만 데이비드 대신 형 라이너스가 그녀의 고백을 듣고 만다. 이후 사브리나는 파리 유명 패션모델 잡지사에서 2년간의 유학생활을 끝낸 뒤 돌아오던 중 우연히 데이비드와 마주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4.txt

제목: 손님만 오면 으르렁, 반려견 별이의 속사정…EBS1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날짜: 20161013  
기자: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13195628775  
본문: EBS 1TV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공격견’ 별이의 상처 치유기를 다룬다.<br/><br/>인천에 사는 정세라씨(24)네 가족은 7년째 반려견 별이와 동고동락 중이다. 하지만 집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으르렁거리거나 실제 무는 등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는 별이 때문에 가족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br/><br/>그러던 어느날 가족에게 예고치 못한 불행이 찾아왔다. 엄마가 암을 앓게 된 것이다. 수술 후 통원치료를 받는 엄마를 걱정하는 친척들의 발길이 집에 끊이지 않고 있지만, 별이 때문에 병문안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할머니가 방문하는 날이면 별이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렇게 되자 사랑으로 별이를 안고 가려 했던 다른 가족조차 아픈 엄마를 위해 별이를 파양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br/><br/>반려견행동전문가 강형욱 훈련사가 정씨 가정을 방문했다. 훈련사는 반려견의 공격성이 강화된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별이의 속사정을 들은 가족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과연 별이는 문제행동을 고치고 가족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방송은 오후 10시45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5.txt

제목: 부작용 위험·대체의약품 존재 알고도.. 올무티닙 허가유지 결정한 약심  
날짜: 20161013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13150844276  
본문: 한미약품의 폐암신약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에서 심의위원들이 올무티닙의 부작용 위험성과 대체의약품 존재 사실을 알고서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13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지난 4일 중앙약심 비공개 회의록을 보면, 이날 회의에서는 올무티닙의 부작용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br/><br/>올무티닙은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항암신약으로,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판매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허가를 전후로 환자 3명이 중증표피독성괴사용해증(TEN)과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 등 중증피부이상반응을 보였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부작용 사례 보고 후 식약처는 해당 약 신규처방을 일단 중단하고 허가취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중앙약심을 열었다. 심의위원은 의대 교수 6명과 약대 교수 1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으로 구성됐으며, 식약처 관계자들이 배석했고 한미약품 관계자도 내용 설명을 위해 회의 중간에 참석했다 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중앙약심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span class='quot0'>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보고된 3가지 사례 모두 약물과 연관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된다</span>”는 데 동의했다. “<span class='quot1'>700~800명당 3케이스가 발생해 빈도상 높은 편이다</span>”, “<span class='quot1'>해당 중증피부반응은 용량 의존성이 없어 예측이 어렵다</span>”, “<span class='quot1'>암환자의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SJS 발생시 대부분 2차 감염으로 사망한다</span>”는 지적도 나왔다. 올무티닙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약 타그리소의 존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참가자가 “타그리소는 SJS 발생 보고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타그리소는 비급여라 (올무티닙에 비해) 환자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br/><br/>하지만 위원들은 “<span class='quot0'>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모든 환자를 전수 모니터링한다</span>”는 데 합의했다. 회의에서 임상시험은 계속하되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무티닙의 위험성과 대체의약품 존재 사실을 살피고도 허가를 유지한 것이다.<br/><br/>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올무티닙의 제한적 사용이 허가된 지난 4일 이후로 환자 4명에게 이 약을 12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올무티닙 처방이 허가된 올해 7월 이후 환자 총 12명에게 75건을 처방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6.txt

제목: ‘슬롯머신 업계 대부’ 정덕진 “내가 누군지 알아” 가스총 협박  
날짜: 20161012  
기자: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12223508020  
본문: ㆍ집 매매로 갈등…검찰 수사<br/><br/><br/>‘슬롯머신 업계 대부’ 정덕진씨(75·사진)가 ‘가스총 협박’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br/><br/>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정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매매 문제와 관련해 중앙일간지 사장을 지낸 ㄱ씨와 그의 측근들을 가스총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br/><br/>경찰 등에 따르면 ㄱ씨는 정씨의 자택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계약금 10억원을 건넸지만, 정씨는 그와 가계약을 체결한 뒤 자녀들의 만류로 집을 팔지 않기로 했다. 정씨는 ㄱ씨 측에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갈등을 빚었고, 지난 8월 ㄱ씨의 직원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가스총을 꺼낸 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느냐. ㄱ씨가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12일 정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사실관계는 비교적 명료하지만 정씨가 고령에 암 투병 등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어 신병 처리를 고심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7.txt

제목: [공감]죽음의 존엄까지 짓밟는 나라  
날짜: 20161011  
기자: 한지혜 | 소설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11205250447  
본문: 심폐정지는 보통 사망진단서에 기록되지 않는 사인이라고 했지만 나는 심폐정지가 사인으로 적힌 사망진단서를 본 기억이 있다. 아버지였던가. 잘 모르겠다. 심장이 멎는 것 말고 다른 이유로 죽는 사람도 있어? 형제들끼리 어이없는 실소를 나누었던 기억만 있다. 뇌출혈로 쓰러졌고, 수술을 했고, 그대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22개월을 더 살았다. 병원치료는 4개월쯤 중단했다. 한방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치료의 개념은 아니었다. 몇 달 후 아버지는 집으로 왔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상태였다. 식물인간을 집에서 돌보기 위한 의료비용도 적지는 않았지만 병원비보다는 덜했다. 그때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연명치료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앞으로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연명치료는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서로에게 당부했다. 죽음의 존엄에 대해서도 그때 처음 생각했던 것 같다.<br/><br/>죽음에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허락된다면 시어른 중 한 분의 죽음이 그러했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후 수술도 항암치료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다. 대신 그분은 당신의 생을 스스로 정리했다. 여행하며 찍은 사진을 모아 전시회도 하고, 에세이와 함께 책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만나지 못했던 이들을 만나고, 병세가 조금 깊어진 즈음에는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과 당신의 장례일정에 대해서도 의논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치과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무시던 모습 그대로 떠나셨다. 함께 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서일까. 장례식 기간 내내 남은 가족들의 모습도 의연하고 덤덤해서 보기에 참 좋았다.<br/><br/>역시 암 진단을 받고 투병 대신 미 대륙 횡단에 나선, 그래서 ‘드라이빙 미스 노마’로 불리던 91세의 노마 할머니 이야기도 인상 깊었다. 아들 내외와 함께 무려 1년을 여행했다는 사실은 존경을 넘어서 질투까지 불러일으켰다. 여행이 부러운 것이 아니었다. 죽음을 곁에 두고 죽음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자아와 일상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의연함이 부럽고 또 부러웠다. 노모의 선택을 지지하고 함께한 아들 내외의 의지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br/><br/>백남기 농민의 임종 즈음 자녀의 해외 체류로 구설이 많았다. 나는 그 체류가 여행이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것이 일상을 지키는 자의 존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br/><br/>아버지가 누워 있던 22개월 동안 우리 가족에게 여행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하루하루 죽음을 준비하고, 하루하루 소생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집단 자폐의 시간에 빠져들었다. 환자 가족이라는 심각하고 절박한 정체성 말고는 어떤 자아도 허락되지 않았다. 조금만 다른 표정을 지어도 세상이 물었다. 아빠는 이제 괜찮아? 가면을 쓰고 일터와 집만 오고 가며, 가족만이 유일한 말벗이었다. 가족만이 유일하게 만만했다. 우리는 좁은 공간에 갇힌 쥐들이 그러하듯 서로를 할퀴고 상처 냈다. 그게 시간을 버티는 유일한 방법이었다.<br/><br/>시간이 흐른 후에야 깨달았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됐다. 내일 당장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의 자존과 존엄과 일상을 잃지 말아야 했다. 환자도 그렇지만, 그 옆을 지키는 가족은 더더욱 그러해야 했다. 웃고 울고, 휴가를 즐기고, 일상을 살아야 했다. 슬픔과 고통은 어떠해야 한다고 당사자도 아닌 타인이 만들어놓은 매뉴얼 따위는 신경 쓰지 말아야 했다. 중환자 혹은 난치병 환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경우, 대개의 가정은 해체된다. 막대한 의료비도 문제지만 가족이 환자의 간병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의 정서적 억압이 초래하는 문제도 크다. 현재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 난치 환자의 돌봄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맡기고 있다. 이들을 밖으로 불러내고, 일상을 살게 하는 일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능할까. 국가가 초래한 억울한 죽음 앞에서 사죄는커녕 유족의 슬픔까지 간섭하고 비난하고 통제하려 드는 국가에서 존엄이, 살아있다는 것, 살아가야 한다는 것의 존엄을 말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8.txt

제목: [TV하이라이트]2016년 10월 12일  
날짜: 201610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11203355750  
본문: ■암 투병 아버지 살 집 짓는 삼형제<br/><br/>사람과 사람들(KBS1 오후 7시35분) = 폐암에 걸린 아버지를 위해 손수 집을 짓고 있는 삼형제의 사연을 전한다. 아픈 아버지를 고향으로 모셔온 뒤, 삼형제는 낡은 집을 새집으로 고쳐드리기로 한다. 큰아들은 주말마다 내려오고 막내아들은 근무지를 남원으로 바꾼다. 공장일로 바쁜 둘째도 짬짬이 힘을 보탠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외면했던 세 사람이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를 마주한다.<br/><br/><br/>■“널 지켜줄게” 약속하는 루이<br/><br/>쇼핑왕 루이(MBC 오후 10시) = 6화. 복실을 만나러 가던 루이가 교통사고를 당한다. 복실의 옥탑방에 얹혀사는 루이를 못마땅해 하던 중원이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선구는 황금그룹의 회장 취임이 얼마 남지 않자 유일한 상속자인 루이와 복실을 제거하려 한다. 이를 알게 된 루이는 복실을 찾아가 앞으로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한다.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9.txt

제목: 쉬쉬하다 큰 병 되는 ‘치루’ 수술만이 정답이다  
날짜: 201610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11172009853  
본문: 최근 30~40대 남자 연예인들 사이에서 치질의 한 종류인 ‘치루’를 앓았다는 뉴스가 자주 등장하며 치루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r/><br/>방송에서는 웃음으로 승화되곤 하지만 사실 치루는 웃을만한 병이 아니다. 부끄러움에 병을 쉬쉬했다가는 오히려 병을 키워 치료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br/><br/>치질의 한 종류인 ‘치루’는 대부분이 항문샘의 염증이다. 이 염증은 항문 주위에 농양을 형성하거나 항문 안에서 밖으로 샛길이 생겨 그 길을 따라 고름이 나오게 된다.<br/><br/>단순한 피부 종기로 오인하고 고약을 붙이거나 시간이 가면 낫겠지 하고 방치 하다가는 점점 복잡한 형태로 진행되어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치루는 잦은 설사, 배변장애, 스트레스, 선천적 원인, 생활습관 그리고 육류 및 인스턴트식품의 잦은 섭취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항문 주변에 딱딱한 응어리가 만져지거나 가려움과 같이 불편감과 통증이 동반되거나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온다면 치루를 의심해 봐야한다.<br/><br/>날씨가 추워지면서 치루 환자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추위에 노출되면 피부와 근육이 수축되며 혈관이 압박을 받아 혈액순환이 더뎌지게 되는데, 항문 주위 역시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치루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br/><br/>대장항문전문병원 서울송도병원 남우정 진료부장은 "치루는 자연 치유가 어렵고 오래 방치하면 치루가 가지를 치게 되거나 직장쪽으로 염증이 파급되는 '복잡치루' 및 악성화 되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남 진료부장은 "복잡치루 같은 경우 정확하게 치루관을 확인하지 않고 수술하게 되면 염증 조직을 남겨둬 병이 재발하거나 괄약근의 손상으로 변실금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치루관의 주행을 경항문 초음파나 MRI를 통해 확인하고 수술하기를 권유했다. 그는 "수술로는 수술 현미경을 사용해 조직까지 파고든 고름덩어리와 염증 조직을 최대한 걷어내면서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회복기간을 단축시키고 변실금을 줄일 수 있는 알맥수술과 같은 괄약근 보존 술식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0.txt

제목: 20대도 이유없는 피로감을 느끼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날짜: 201610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11135136740  
본문: 건강검진의 계절, 가을이다. 일교차가 심해지고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은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 심혈관계 질환, 척추 질환에 노출되기 쉬워 여러모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또한 가을은 여름이나 겨울에 비해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가 적어 전문가들은 가을에 건강검진센터를 찾을 것을 권고한다.<br/><br/>청주 뿌리병원 건강검진센터 관계자는 “현대인은 불규칙한 생활과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어 건강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만성피로와 같은 몸의 이상 신호를 느끼는 이들이 많다.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하는데, 그 첫걸음이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br/>흔히 건강검진은 40~50대부터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중년에 접어들면 중증 질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20~30대라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다. 특히 암, 백혈병, 고혈압 등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필수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br/><br/>청주 뿌리병원 최재홍 원장은 "평상시 이유 없이 피로감을 느끼거나 자주 감기에 걸린다면 건강검진을 꼭 받아봐야 한다고 충고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증상은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이상 신호다. 또한 갈증이 심하고 소변을 자주 본다면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질병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한다.<br/><br/>그는 이어 “여성들의 경우 유방암,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높으므로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면서 "이들 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는 편이어서 불편을 느낀 후 병원에 내원하면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br/><br/>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령별에 맞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검사료를 전액 공단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아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신이 공단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해볼 수 있다.<br/><br/>한편 청주 뿌리병원은 오는 10월 10일 건강검진센터를 오픈한다. 정형외과, 내과, 외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모든 협진진료를 원스톱으로 가능하며 대학병원급 MRI, CT장비를 갖춰 청주 건강검진을 책임질 계획이다. 건강검진 예약 및 자세한 사항은 병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1.txt

제목: 강봉수 전 법원장 “법조인 40년 인생보다 물리학 길 걸으니 비로소 행복”  
날짜: 20161010  
기자: 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10222323675  
본문: ㆍ법원장 출신 물리학 박사…카이스트서 강연<br/><br/><br/><br/>“<span class='quot0'>법조인으로 살았던 40년이 제게는 오히려 ‘아웃사이더’ 인생이었습니다.</span>”<br/><br/>10일 대전 카이스트(KAIST) 자연과학동에서 물리학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물리학 콜로키움’에 강연자로 나선 강봉수 미국 UC머시드대 박사후연구원(73)은 노년에 물리학 박사가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br/><br/>강 박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40여년간 법조인으로 살았다. 대구지법에 부임해 부산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0년 서울지법원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던 그는 2009년 돌연 물리학을 공부한다며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당시 그의 나이 66세였다. 늦깎이 유학생이 된 그는 어렵다는 물리학 박사학위를 7년 만에 취득했다.<br/><br/>현재는 자신이 졸업한 미국 UC머시드대 대학원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있다. 강 박사는 “<span class='quot1'>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했더니 친구들의 반응은 ‘너 미쳤니?’였다</span>”며 “<span class='quot1'>다들 박사학위 하다가 우리 나이에 암 걸리기 쉽다고 만류했다</span>”고 말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자가 된 것은 가슴속에 남아있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 박사는 “<span class='quot1'>고등학교 때도 이과를 선택했고 대학입시 때 서울대 원자력학과에 관심이 있어 학장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span>”며 “<span class='quot1'>다만 아버지의 권유로 서울대 법대를 선택했다</span>”고 말했다. <br/><br/>그는 네 번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성공적인 법조인 인생을 살았지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은 떠나지 않았다.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꿈을 떠올렸지만 우선순위인 현실에 파묻혀 뒤로 미뤘다. 퇴직 이후에야 물리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고려했다. 대학 후배인 핵물리학과 교수와 진로상담을 했고 미국 유학을 제안받았다. 토플과 GRE 공부를 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영어학원에서 고시생 생활을 하기도 했다. 강 박사는 “<span class='quot1'>학원 강사가 강의실 한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를 가리키며 ‘저 아저씨보다 못하면 안된다’고 했다</span>”고 회상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영어점수 커트라인을 넘겼고 UC머시드대로부터 합격 소식을 들었다.<br/><br/>물리학 공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어려운 물리학 용어로 된 강의를 7년간 외국어로 들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야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깨달음 덕분이었다. 그는 “<span class='quot1'>원하는 것을 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span>”며 “<span class='quot1'>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40년간의 삶은 사라지고 지금으로 바로 연결되는 듯한 벅찬 환희를 느꼈다</span>”고 말했다. <br/><br/>그는 현재 UC머시스대에서 레이먼드 차오 교수와 함께 중력 속 양자현상을 연구하고 있다. 강 박사는 이날 실험실 수준에서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지난해 ‘LIGO(라이고)’ 연구진이 중력파를 검출하는 데 성공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실험실 수준에서도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을지가 우리 연구의 주제</span>”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2.txt

제목: 유방통, 유방암과 큰 관련 없어…지나친 염려 마세요  
날짜: 20161010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10143847123  
본문: 대림성모병원(병원장 김성원)이 10월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유방통과 유방암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병원 유방센터에 방문한 성인 여성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br/><br/>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58.8%)이 병원을 방문한 이유를 유방통이라고 답했다. 유방통이 있는 환자의 경우 35%가 유방암을 의심하고 있었다. 통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유방암을 걱정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br/><br/>그러나 유방 통증이 있는 환자에서 유방암이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유방통을 호소한 환자(94명) 중 유방암으로 밝혀진 환자는 2.1%(2명)에 불과했다. 또한 유방통이 없는 환자(66명) 중에서도 1.5%(1명)가 유방암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방통과 유방암 발병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는 얘기다. 유방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경우 진료와 검사 후 유방암이 아니라는 결과를 듣고 대부분이 증상 호전을 보이기도 했다.<br/><br/>김성원 병원장(한국유방암학회 홍보이사)은 “<span class='quot0'>유방통은 성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는 흔한 증상으로 많은 여성이 유방암의 증상으로 오해해 병원을 찾는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유방암의 주요 증상은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피부 궤양, 또는 유두로 피와 같은 분비물이 나오는 증상 등이며 유방통은 유방암의 증상으로 보기 힘들다</span>”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유방암은 다른 암과 달리 통증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자신의 연령에 맞는 자가검진과 전문의를 통한 정기검진으로 유방암을 예방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3.txt

제목: 암 환자 70%, 피부 관련 항암 부작용에 고통  
날짜: 201610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10104208726  
본문: 과거 암 발병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바 있는 A씨는 며칠 전부터 손이 붓는 증상과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병원을 찾은 A씨에게 내려진 진단은 항암제 부작용. 암 치료를 위해 투여한 항암제로 인해 혈관 속 염증이 생겨 손등이 붓는 등 피부 괴사가 일어난 것이다. 제 때 산소 치료가 병행되었다면 이 같은 항암제 부작용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병원 측 설명에 A씨는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br/><br/>A씨의 사례와 같이 항암 치료 도중, 또는 항암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피부 괴사’ 등 피부 관련 증상을 유발하는 항암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암 환자의 70% 이상에서 암 자체, 항암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에 의한 피부 괴사가 발생하는 등 일반인의 피부와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br/><br/>그러나 암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피부 변화 및 문제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예방이 어렵고, 오히려 증세가 심화되거나 암 완치 이후에도 피부의 상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br/><br/>암 환자의 피부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발진과 건조증, 가려움, 색소침착, 부종, 탈모, 손발톱의 외형적 변화 등이 빈번하게 발견된다. 사진에서 보이는 환자의 경우 항암제 투여 후 혈관 내에 염증이 발생한 예로 적절한 시기, 적절한 치료가 선행되지 못해 피부 괴사가 일어난 상태이다.<br/><br/>암 환자의 피부 괴사를 막기 위해 적합한 치료로 ‘고압산소치료’를 들 수 있다. 고압산소치료는 항암제 치료로 인한 혈액순환 저하, 이로 인한 저산소증이 발생 할 경우 체내에 부족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여 부작용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법이다.<br/><br/>고압산소치료는 환자가 직접 ‘챔버’라고 불리는 산소통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높은 기압을 가해 산소가 신체 내 깊숙이, 더욱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br/><br/>때문에 암 수술을 받기 전후의 환자는 물론,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되어 치료가 불가능한 한자의 경우 고압산소치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고압산소치료는 전문가에 의해, 적절한 시간 및 압력을 계산 후 치료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당부된다. 중이염 등으로 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 치료 전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하고 밀폐된 챔버 안으로 환자가 입실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과적 질환이나 폐쇄공포증이 있을 경우 또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br/><br/>염창환병원 대표원장인 염창환 박사는 “<span class='quot0'>전체 암 환자의 70%가 이상이 투병 기간 중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고통스러운 피부 문제를 겪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같은 외적인 변화는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치료 의지를 상실하게 하는 등 암 치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피부 괴사 등의 항암제 치료로 인한 부작용 증상을 가볍게 여기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span>”고 조언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4.txt

제목: 남아공 데스몬드 투투 성공회 명예대주교 “존엄하게 죽을 권리 있다” 조력자살 지지  
날짜: 20161009  
기자: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09162728977  
본문: ㆍ“존엄사를 부정하는 건 기독교의 ‘연민’ 어긋나” 전 세계적 합법화 호소<br/><br/><br/><br/>“<span class='quot0'>죽어가는 이들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span>”<br/><br/>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신적 지도자인 데스몬드 투투 성공회 명예대주교(사진)가 85번째 생일을 맞아 ‘존엄하게 숨질 권리’를 촉구하는 글을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실었다.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 ‘조력자살’을 허용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생일을 하루 앞둔 지난 6일(현지시간) 기고에서 “<span class='quot0'>내 삶이 시작보다 끝에 가까워진 지금 사람들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들의) 선택 중에는 조력자살도 포함돼야 한다고 믿는다</span>”고 썼다.<br/><br/>투투는 1997년 전립선암이 발견돼 치료를 받았지만 암이 재발했고 최근에는 감염 증세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0'>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0'>삶이라는 여행에서 다음 단계(죽음)로 넘어가는 것이 내 방식대로 허용됐으면 한다</span>”고 말했다. 허용된다면 자신도 조력자살을 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br/><br/>그는 조력자살이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pan class='quot0'>나는 생명의 존엄성을 믿는다</span>”며 “<span class='quot0'>죽어가는 사람들이 존엄성을 지키며 죽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치인 연민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국의 켄터베리 대주교 캐리경이 조력자살 법안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캐리는 지난해에 “<span class='quot1'>조력자살은 매우 기독교적이고 도덕적</span>”이라며 ‘고통은 고귀한 것’이라는 성공회의 입장에 반대를 표명했다. 투투는 정치인, 의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력자살을 원하는 불치병 환자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br/><br/>가톨릭, 개신교, 성공회 등은 생명의 존엄성을 우선시하며 낙태는 물론 조력자살에도 적극 반대해왔다. 그러나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반대 운동에 평생을 바쳐 1984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투투는 2년 전 생각을 바꿨다. 그는 2014년 영국 주간지 옵서버 기고에서 “<span class='quot1'>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보며 조력자살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span>”고 밝혔다. 또 “평생 삶의 존엄성을 위해 헌신해왔지만 이제 존엄사 문제에 몰두하고 싶다”고 했다. 이번 글에서 그는 “2년 전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조력자살을 원하는지 잘 몰랐지만 나 자신이 떠날 시간이 가까워오면서 죽음에 다다를 때 어떻게 치료받을지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졌다”고 밝혔다.<br/><br/>조력자살은 2001년 네덜란드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등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또 워싱턴, 캘리포니아, 오리건 등 미국 일부 주도 조력자살을 합법화했으나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나라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남아공에서는 이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프레토리아 법원이 65세 남성에게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 남성은 판결 뒤 곧바로 의사의 도움으로 약물을 투여받고 세상을 떠났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5.txt

제목: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각종 암∙성인병, 건강검진 통해 예방해야  
날짜: 201610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07161324945  
본문: 신체 내부에 위치한 각종 장기 등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과는 우리가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진료과 중 하나다. 현대에 들어서 내과 진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암이나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 및 치료가 내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br/><br/>실제로 위암이나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위∙대장 내시경을 비롯해 신장이나 유방, 혈관 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초음파 검사 또한 내과 진료 영역에 속한다.<br/><br/>영등포 건강검진 새길병원 내과 전문의 문동규 원장은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환경적인 요인으로 암을 비롯한 내과적 질환이 증가하면서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위암이나 대장암, 폐암, 간암을 비롯해 심근경색, 신부전, 관절염, 각종 감염질환 등 내과적 질환은 병변 부위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 이상징후를 잘 관찰하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 질병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br/><br/>한편 내과∙소화기내시경 전문의로 현재 건국대 의대 외래교수 및 경희대 의대 외래교수로 재직 중인 문동규 원장은 영등포 새길병원 내과 원장으로 초빙, 지난 9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6.txt

제목: 부장검사 폭언에 목숨 끊은 검사 ‘순직’ 인정  
날짜: 20161006  
기자: 한대광·김경학 기자 chooh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06225025804  
본문: ㆍ공무원연금법, 범위 확대<br/><br/>부장검사의 폭언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33)의 순직이 인정됐다. <br/><br/>공무원연금공단은 6일 “<span class='quot0'>지난 9월 말 열린 공무원연금 급여심의위원회에서 고 김홍영 검사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평상시 업무가 많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상사로부터 폭언을 당한 것이 자살까지 이어진 것으로 판단돼 공무상 순직 결정을 했다</span>”고 밝혔다. <br/><br/>공무원연금공단은 특히 직속상사였던 김대현 부장검사(48)의 인격모독성 발언 등 폭언도 김 검사가 자살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라고 인정했다.<br/><br/>김 검사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된 것은 정부가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br/><br/>지난 7월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보면 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항목은 산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빠져 있었다. <br/><br/>사망한 공무원이 순직으로 인정받으면 유족들은 현재 개인 기준 소득월액의 26~32.5% 범위 내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 기준 소득월액의 23.4배(평균 1억1489만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게 된다.<br/><br/>김 검사는 지난 5월19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유서에는 “일이 너무 많다. 병원 갈 시간도 없다. 너무 힘들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김 검사는 사망 전 지인들에게 “<span class='quot1'>(김 부장검사) 술시중을 드는데, 자살하고 싶다</span>” “<span class='quot1'>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귀에서 피가 많이 났다</span>”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 검사의 유족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말을 아꼈다. 김 검사의 부친 김진태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span class='quot2'>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span>”며 “<span class='quot2'>김 부장검사에 대한 고소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 등을 지인들과 같이 검토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7.txt

제목: [박찬일 셰프의 맛있는 미학]GMO, 의심나면 기다려라  
날짜: 20161006  
기자: 박찬일 음식칼럼니스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06211915093  
본문: 예전에 우리 동네에 월남전 참전군인 아저씨가 한 분 계셨다. 걸핏하면 술상을 엎고 난리를 부려서 심한 골칫덩이였다. 술집에 그가 나타나면, 다들 피했다. 주인은 어떻게든 달래서 얼른 내보내려고 비위를 맞추곤 했다. 그는 나이가 들어 술을 거의 못 마시게 됐고, 한동안 안 보이더니 소식이 들려왔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입원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지금도 고통과 싸우고 있다. 고엽제라는 보이지 않는 ‘적’이 그를 무너뜨릴지는 몰랐을 것이다.<br/><br/>일본의 패망, 한국전쟁 연간에 포로들이 받은 세례는 DDT였다. 옷을 모두 벗기고 뿌연 분말을 뿌려서 이 같은 해충을 ‘박멸’하는 것이 연합군의 중요한 방역사업이었다. 우리 위 연배들, 그러니까 나이 육십 무렵의 선배들은 초등학교에서 DDT 세례를 받았다. 우리 누이들도 학교에서 하얀 가루를 타왔다. 어머니가 누이들과 내 머리칼 사이를 차곡차곡 헤집어가며 그 가루를 뿌리던 것이 기억난다. 얻어오는 건 물론이고, 약국에서 사다가 뿌리기도 했다. 머리에 기생하던 이가 우수수 죽어서 떨어졌다.<br/><br/>학교 앞 가게 같은 곳에서 우리는 늘 과자 나부랭이 군것질을 사먹었다. 알록달록한 색깔이 예뻐서 우리를 유혹했다. 적색2호 같은 인공색소가 쓰이지 않게 된 것도 근자의 일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색소를 먹고 또 먹었다. <br/><br/>우리 아버지는 보습학원 같은 내부공사를 하고 철거하는 일을 하셨다. 가끔 나도 따라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용돈을 얻었다. 철거작업을 하면 노랗고 까슬까슬한 보온재가 잔뜩 나왔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나는 그걸 치웠다. 물론 우리 아버지는 업이었으니, 늘 유리섬유를 만지고 그 가루를 들이마시고 살았다. 우리가 늘 다니던 지하철역에도 이 섬유가 쫙 깔려 있었다. 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원인? 그런 걸 알 수 있던 시절이 아니었다.<br/><br/>청년이 되어 동네 친구들이랑 고기를 구워 먹었다. 삼겹살이 막 유명해지던 시기였다. 고기를 끊고, 불판은 그냥 흔한 동네 공사판에서 주워왔다. ‘스레트’라고 부르는 슬레이트였다. 골이 있어서 기름이 잘잘 잘 흘러 누구나 탐내는(?) 불판이었다. 게다가 열전도도 은근해서 고기가 맛있게 익었다. 인기 ‘짱’이었다. 나는 아직 살아 있기는 하다. 담배는 한때 몸에 좋은 약이었다.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갓난아기들이 있는 방에서 그냥 줄담배를 피웠다. 지하철역에서도 피웠고, 아기들이 탄 버스나 비행기에서도 당연히 피웠다. 치명적인, 지금은 ‘어떻게 그런 일이’라고 해야 할 유해물질들이 쓰이던 시절이 있었다. 암을 유발하고 사람을 죽이는 물질이라고 해서 이제는 모두 금지되거나 경원시된다. <br/><br/>GMO는 건강에 해롭다는 증거가 없다고 일부 과학자들이 말한다. 고엽제, DDT, 적색2호, 유리섬유, 슬레이트, 담배. 한때 ‘아무 이상 없는’ 물질이었다. 저 물질이 몸에 해롭다는 건 시간이 흘러서 알게 됐다. 의심나면 기다려야 한다. 당장 써도 문제없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GMO가 과학적으로 억울하다고? 유리섬유와 DDT와 적색2호도 ‘과학적으로’ 문제없었다. 아닌가? 대답해보라.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8.txt

제목: ‘찔러도 피 한방울 안 나온다’…카이스트 연구진, 출혈 없는 주삿바늘 개발  
날짜: 20161006  
기자: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06143912575  
본문: 카이스트(KAIST) 연구진이 주사를 놓을 때 피가 나지 않는 주삿바늘을 개발했다.<br/><br/>카이스트는 이해신 화학과 교수 연구팀이 홍합의 접착 기능을 모방한 생체 재료로 출혈이 발생하지 않는 주삿바늘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br/><br/>혈액채취나 약물·백신 주사 등 의료적 처치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삿바늘은 지혈 재료로 코팅이 돼 있다. 그러나 기존 주삿바늘에 쓰이는 지혈 재료들은 주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처치 후 환부를 압박해 지혈을 해야 한다.연구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합의 특성을 이용했다. 홍합이 섬유 형태의 족사(어패류의 몸에서 나오는 경단백질의 강한 섬유다발)를 이용해 강한 파도가 치는 바위에서도 단단히 붙어 생존하는 현상에 착안해 홍합 족사 구조를 모방한 지혈 재료를 개발했다. 홍합 족사 구조에 존재하는 카테콜아민 성분을 도입한 접착성 키토산으로 지형기능성 필름을 만든 것이다. <br/><br/>이 필름에 혈액이 닿으면 하이드로젤 형태로 전이되면서 지혈 현상이 발생한다. 지혈 재료가 주사 후에 상처부위를 물리적으로 막아 지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br/><br/>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이 주삿바늘을 활용하면 지혈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당뇨명과 혈우병, 아스피린 복용자, 암 환자 등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혈우병 동물모델로 실험한 결과 일반 주삿바늘은 주사 후 출혈량이 최대 800㎕를 넘었지만, 연구팀이 개발한 주삿바늘로 주사한 후에는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다.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출혈 없는 주삿바늘은 혈관 및 근육 주사에 모두 효과를 보이고 혈우병 모델에서도 효과적인 기능을 보였다</span>”며 “<span class='quot0'>혈액응고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유용하고, 다양한 침습 의료기기들과 결합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br/><br/>연구팀은 안정성평가연구소 강선웅·김기석 박사 연구팀 및 (주)이노테라피와 함께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 3일 재료분야 학술지인 ‘네이처 머티리얼즈(Nature Materials)’ 온라인판에 실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9.txt

제목: 찔러도 피 안나는 주사바늘 개발  
날짜: 20161006  
기자: 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06112518714  
본문: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주사바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br/><br/>KAIST 화학과 이해신 교수 연구팀은 6일 “<span class='quot0'>홍합이 가진 접착기능을 모방해 출혈 없이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바늘을 개발했다</span>”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재료 분야의 국제 학술지 <네이처 머터리얼즈(Nature Materials)>에 3일 게재됐다.<br/><br/>일반인의 경우 주사를 맞고 나면 환부를 수분간 압박해 지혈을 한다. 보통 3분 이내로 지혈이 된다. 그러나 장기 입원중인 암환자나 당뇨병, 혈우병, 아스피린 장기복용자는 정상 지혈이 어렵다. 연구진이 개발한 주사바늘은 지혈이 잘 안되는 사람들에게 사용가능하다. <br/><br/>연구팀은 홍합에 있는 섬유 형태의 단백질 카테콜아민에 주목했다. 홍합은 이 단백질을 이용해 강한 파도가 치는 해안가 바위에 단단히 붙어있을 수 있다. <br/><br/>연구진은 홍합에 존재하는 카테콜아민 성분을 넣은 접착성 키토산을 주사바늘 위해 지혈기능성 필름을 만들었다. 이후 혈액이 필름에 닿으면 하이드로겔 형태로 바뀌어 지혈이 되는 방식이다. <br/><br/>이해신 교수는 “<span class='quot1'>이 기술은 지혈 기능에 문제를 갖는 당뇨병, 혈우병, 암 환자와 아스피린 복용자 등에게 적용 가능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00.txt

제목: “가장 완벽한 표준” 한국인 게놈 해독  
날짜: 20161006  
기자: 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06020448928  
본문: ㆍ서정선팀 네이처 논문 게재 <br/>ㆍ맞춤형 신약 개발 도움 기대<br/><br/><br/>한국인의 유전체(게놈) 서열이 거의 완벽하게 해독됐다. 현재까지 나온 인류의 유전체 해독 가운데 가장 정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까지 서양인 기준으로 작성된 게놈지도가 표준으로 사용돼 왔지만 한국인의 고정밀 게놈지도 작성으로 한국인 맞춤형 신약 개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br/><br/>서정선(사진) 서울대 의대 유전체의학연구소장팀과 국내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의 연구진은 5일 “<span class='quot0'>30억개의 염기쌍으로 이뤄진 한국인의 게놈지도를 최대 정밀도로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span>”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 유명 학술지 ‘네이처’에 6일 특집논문으로 게재됐다.<br/><br/>유전체는 인간의 번식과 생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유전 정보를 말한다. 쌍꺼풀의 유무나 키 등의 신체 특징은 물론 질병도 유전자에 관련돼 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연구진은 인간 유전체의 총합인 게놈을 해독해 지도로 만들기 위한 ‘인간게놈프로젝트(HGP)’를 시작했고 2000년 첫 결실을 얻었다. 그러나 초기 지도에는 공백이 있었다. 게놈 해독상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었다. <br/><br/>서 소장 연구팀은 2009년 한국인의 게놈을 최초로 해독해 네이처에 논문을 발표한 뒤 이번 연구 과정에서 염기 서열을 기존의 100배 길이로 정확하게 읽어내는 기법을 적용했다. <br/><br/>그 결과 공백으로 남아 있던 유전체 정보 190곳 중 105곳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남은 공백 85곳 중 72곳은 일부를 읽어내기도 했다. 한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각각 어떤 유전자를 받았는지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지도의 정밀도가 높아졌다. <br/><br/>네이처는 이번 연구 성과와 관련해 “<span class='quot1'>현존하는 인류 유전체 해독 결과 중에 가장 완벽한 ‘표준’</span>”이라고 말했다.<br/><br/>이번 연구 결과로 그간 서양인을 기준으로 게놈지도의 표준이 마련돼 한국인 맞춤 연구가 어려웠던 연구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과학자들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에서 제공하는 인간 유전체 표본을 질병 연구나 신약 개발에 사용해왔다. <br/><br/>서 소장 연구팀은 이번에 한국인의 유전체를 해독하며 암 억제 유전자로 알려진 HRASLS2와, 피부색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POU2F3 유전자 등 다양한 유전자에서 한국인만의 특성을 찾아냈다. <br/><br/>서 소장은 “<span class='quot2'>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질병을 예측, 진단, 치료하는 ‘정밀의학’의 기술적 주도권을 한국이 선점했다는 데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인 10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파악해 정밀의학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01.txt

제목: [노인과 민주공화국]종묘공원 노인들 "왜 그렇게 살았느냐 물어보면…"  
날짜: 20161005  
기자: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05170412944  
본문: 지난 8월 18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을 찾았다. 이날 서울 최고기온은 섭씨 34.3도를 기록했고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정문 오른편 중부주차관리소 건물 근처 공터에는 ‘딱딱’ 소리가 빗소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노인 70여명이 삼삼오오 앉아서 바둑과 장기를 두는 소리였다. 나무 그늘 밑 인도에 은박 돗자리를 펴 놓고 부채질을 하며 바둑을 두는 노인도 10여명 있었다. 이 공터는 마치 ‘노인 전용 출입구역’인 것처럼 청년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노인 중에도 여성은 보이지 않았다. 눈에 띄는 모두가 남성이었다. 주차관리소 건물에 있는 편의점을 찾는 손님도 거의 노인이었다. 여러 노인에게 인터뷰를 부탁했지만 대부분은 경계하는 눈초리로 고개를 저었다.■전세 4000만원짜리 지하방, 수입은 부부 노령연금 70만원 뿐<br/><br/>이날 소지덕씨(71·가명)는 공원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말을 걸자 반쯤 피우던 담배 개비의 허리를 끊어 불을 끊고 답했다. 그는 인터뷰 도중 남은 담배에 다시 불을 붙여 피웠다. 소씨는 “난 원래 뜨거운 걸 잘 먹는다”며 방금 나온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마치 냉수처럼 들이켰다. 소씨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종묘공원을 찾는다고 했다. “오늘도 심심하니까 나왔지.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어떡해. 바둑 두고 장기 두고 그러려고 오지. 오늘은 노인네들이 좀 없는 편이야. 요즘 굉장히 날이 뜨거워서 그렇지 가을이나 봄 돼 봐. 여기 사람 무지무지 많어.”<br/><br/>소씨는 안양에 있는 4000만원짜리 지하 전셋방에 아내와 둘이 살고 있다. 소씨는 “안양에는 여기처럼 사람 많은 공원이 없다”고 했다. “여기서 친구 많이 생겼어. 다 친하니까. 다 친구야.” 소씨 가정의 생활비는 35만원씩 본인과 아내가 받는 노령연금 등 국가지원금이 전부다. “두 명이 70만원으로 사는데 그거라도 받아야 살지. 다른 수입은 없어.”<br/><br/>젊은 시절 소씨는 목수로 일했다. 소씨는 “배운 게 없어서 목수를 했다”고 했다. “나는 국민학교 발도 못 들여봤당께. 그 옛날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국민학교를 댕겨. 목구녕에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디.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br/><br/>어릴적 충남 당진의 시골 마을에 살던 소씨네 집은 돼지 몇 마리를 키워 시장에 내다팔며 생계를 유지했다. 소씨네뿐 아니라 마을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이었다. 25살이었던 1970년 서울로 상경해 내장 목수(인테리어를 담당하는 목수) 일을 시작한 소씨는 1979년부터 1985년까지 6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 파견돼 집을 지었다. “거기 가면 한국에서 버는 것보다 낫다 이거야.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진절머리가 났어. 그래서 85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약수동에서 슈퍼마켓을 열었는데 쫄딱 망해버렸지.”<br/><br/>결국 소씨는 다시 목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목수로 일할 수 없게 되자 2008년부터는 한 대학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지난해 12월30일 소씨는 해고당했다. “회사에서 나이 먹었다고 그만두라고 하잖아. 그럼 어떡해. 그만뒀지.”<br/><br/><br/><br/>■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물어보면…<br/><br/>소씨는 청년들을 두고 “아직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어른들 하는 걸 배워야 돼. 일이라든지. 그래야 깨우치지. 대학 나왔다고 해도 국민학교 1, 2학년만도 못해.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몰라. 대학 졸업장만 따면 뭐 혀. 잘해야지.”<br/><br/>민주공화국이나 헌법이라는 말을 꺼내자 소씨는 “나는 모른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공동체의 파괴’에 대해선 할 말이 있었다. 소씨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 파괴 문제를 ‘세대 갈등’으로 파악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잖아. 자기 멋대로. 어른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어른이 못 배웠어도 말을 들어야 해. 부모라든지 말이야. 근데 아주 반대를 하고 그러잖어. 어른이 무슨 얘기를 열 마디 하면 그래도 몇 마디는 들어줘야 한다 이거여. 지들 잘 되라고 얘기하지 잘못돼라고 얘기하겠어. 말을 하면 좀 들어줘야지. 나이 70살쯤 먹은 사람들은 다 겪었거든. 우리야 이제 다 살았지만서도.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큰 걱정이지.”<br/><br/>소씨는 살아온 세월을 알아주지 않는 청년들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다. “할 얘기야 많지. 많은데 들어주간디? 안 들어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래 버려. 젊은 사람들이 왜 그때는 그렇게 살았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안 살려고 안 살았간디. 그렇게 안 살래도 안 살 수가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br/><br/>소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5000억원씩 훔친 도둑’이라고 비판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도둑질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했다. 소씨는 “시골에서 등잔불 켜고 살았는데 박 대통령이 전봇대 세우고 새마을운동 해서 잘 살게 된 것”이라며 “종묘공원 노인들 중 박정희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단언했다. “옛날에 비하면 살기 좋지 참말로. 박 대통령이랑 지금 대통령들이랑은 천지 차이지. 박 대통령 때문에 시골에 다 전기 들어가고 도로 확장하고 그랬잖여. 박 대통령이 다 시켜가지고서. 여간 크게 해놨다고. 옛날에는 비료가 있간디? 비료도 없어. 뒤엄(두엄) 만들어갖고 그렇게 농사했는데.”<br/><br/>소씨에게 사회 문제를 물어봤지만 연신 “내가 뭘 배웠어야지”라고 말했다. “살면서 제일 힘든 건 먹고 사는 거지, 뭐. 제일 중요하지. 부자나 돈 많은 사람이야 상관 없지. 없이 사는데 어떡할겨. 제일 큰 게 먹고사는 거지. 마누라는 맨날 약 먹어. 죽는 소리여.”■“기관총으로 국회의원들 다 갈기고 싶다”<br/><br/>종묘공원 주차관리소 뒤편에서는 하영삼씨(67·가명)를 만났다. 그는 인터뷰를 청하는 기자에게 되려 ‘백남기 농민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는 ‘백남기’와 ‘민주노총’을 같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민주노총 간부가 연봉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간부들은 실제로 일하는 애들이 아니야. 일하는 애들을 관리하는 거야. 그러면서 1년에 7000만~8000만원씩 받아가. 그게 정상적인 연봉이냐고. 그 돈 받는 애들이 시위(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를 주도하는데 백남기 농민이 뭐 때문에 거기 왔어. 이번 시위가 그런 게 아니잖아. 농민들이 시위할 때 와서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왜 민노총이나 한노총이 시위할 때 와서 같이 해주고 있느냐고. 내가 그 사람 그렇게 된 것은 참 불쌍하고 안됐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거기 와 있어. 그 사람이 올 자리가 아니잖아. 7000만~8000만원씩 그렇게 받아먹는 새끼들이 쌀값 투쟁한다고 그 사람 데리고 왔겠어?”<br/><br/>하씨는 “정부를 옹호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다”고 강조했다. “기관총이라도 하나 있으면 국회의사당 앞에 대 놓고 국회의원들 나오면 다 갈겨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무지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정상적이지 않은 걸 갖다가 정상적인 걸로 위장해서 자꾸 시민들을 호도하고 편향시키고 갈등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싫어.”<br/><br/><br/><br/>■폐암 진단…“내 인생은 자업자득”<br/><br/>하씨는 폐암 말기 환자다. 2009년에 폐암 진단을 받고 의사에게 ‘앞으로 넉달밖에 못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하씨는 “진단을 받고 처음에는 막 분노가 끓어. 암 환자들이 대부분 그렇대요.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포기하게 되더라고.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자….” 이날도 하씨는 혜화동 서울대병원 암병원으로 가는 길에 잠시 종묘공원에 들러 쉬던 참이었다. 그는 운동 삼아 집이 있는 성북구 삼선동에서 종로구 혜화동까지 걷는다. “<span class='quot0'>요즘 날씨가 더워서 안 걸었더니 다리에 힘이 너무 없어….</span>”<br/><br/>하씨는 원래 ‘컴퓨터 자수’ 업체를 운영했지만 폐암 진단을 받고 그만뒀다. 이후에는 아내가 대신 자수 일을 해 돈을 벌고 있다. 하씨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운동을 하러 나갈 때까지 서너시간 텔레비전을 본다. 암 환자는 정해진 식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 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면 비로소 밖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한다. 하씨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권투선수를 꿈꿨지만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군 제대 이후에는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8년을 방황했다. “그때는 누가 나 건드리면 죽인다는 생각으로 막 살았어. 그런 식으로 생활하다 우리 와이프를 만나서 마음을 잡고 그렇게 살게 된 거야. 30대에 접어들면서 컴퓨터 자수 일을 시작했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몇 년을 나는 허비한거야.”<br/><br/>사회에 바라는 것이 뭐냐는 질문에 하씨는 “나는 사회나 남 탓을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 했을 때는 남 탓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20대에서 30대가 되는 그 중요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버렸어. 그랬기 때문에 뭐라 할 수도 없는 거야. 자업자득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거야.”■서로 양보해야 민주공화국…“민주노총·성주군민은 이기적”<br/><br/>앞서 인터뷰한 소씨와 달리 하씨는 청년층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갖고 있었다. “내가 노가다판에서 일하던 1970년대에는 집값이 쌌어. 200만~300만원이면 집을 살 수 있었어. 우리 시대에는 어디나 밥벌이할 곳이 있었다구.” 하씨는 최근 대학을 졸업한 아들 이야기를 꺼냈다. “내 자식도 직장을 못 구하고 있잖아. 직장 못 구한 걸로 뭐라 안 해. 현재 시대와 사회 전반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직장 못 구하면 어른이 뭐라고 하기도 하고 내 자식이 그러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어른이 뭐라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 왜냐면 일자리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잖아.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br/><br/>하씨는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그놈들은 전에도 그랬잖아. 당신들 노동시간 줄여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만들어 주자고 하니까 반대했어. 자기들 목적은 다 채우고 다 챙기면서 자기 몫은 안 한다는 이야기야. 그게 옳은 이야기야? 아니잖아. 사람이 나도 조금 양보하고 너도 조금 양보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그게 좋은 세상이 되고 민주공화국이 되는 건데. ‘내 것 양보 못해. 너희들 것만 양보해.’ 이건 아니잖아.”<br/><br/>하씨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쳤다. 하씨는 성주군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를 ‘님비’(지역이기주의)라고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미국처럼 힘 있는 나라가 못 되잖아. 국방적으로도. 걔들이 뭉개버리겠다 하면 언제든지 깨부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우리가 그렇게 힘이 없어. 항상 옆에 의존하면서 살아온 나라야. 국가가 ‘이 지역에다 설치해야겠다’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고 우리집이 망가지고 못 살게 되지 않는 한 호응해야 되는 게 국민의 의무야.”<br/><br/><br/><br/>■민주공화국의 조건은 ‘인권’, 한국 사회의 문제는 ‘부패’<br/><br/>하씨는 민주공화국을 ‘인권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하씨는 “우선 북한은 무조건 아니지”라며 “인권이 안 살아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민주공화국이라면 인권이 살아있어야 돼. 사람마다 다 개별적으로 다르니까 나도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서로가 다 목소리를 다 낼 수 있는 게 인권이 살아 있는 거야. 인권에 대해서 국가는 탄압을 하지 말아야 돼.”<br/><br/>한국 사회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하씨는 부정부패를 꼽았다. 하씨는 “진경준 검사장처럼 돈 먹은 애들은 다 잘라버리고 혹독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씨는 1988년 ‘탈주범 지강헌 사건’이 만들어낸 유행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예로 들었다. 감정이 격해지는지 앉아있던 의자를 손바닥으로 탕탕 내려치기도 했다. “부패를 제대로 척결 못하는 사법부가 첫째 문제야. 법을 집행하는 놈들이 썩었으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리가 나오는 거야. 법을 똑바로 집행 안 하니까. 필리핀에서는 마약사범 총살도 시키고 그러잖아. 중국에서는 얼마 전까지 부패사범들 고위직도 잡아다가 사형시켰잖아. 법을 집행하는 놈들이 썩으면 민주주의가 썩어버리는거야.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첫째로 사법부가 살아야 돼. 사법부 자체가 썩어버리니까 행정부고 뭐고 다 개판 되는거야. 나라가 부패하니까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나. 말로만 민주주의고 말로만 민주공화국이지. 모든 게 말뿐이야.” ▶관련기사: [언론과 민주공화국]"올바른 언론이 민주공화국을 상징한다" <br/> ▶관련기사: [정치와 민주공화국]'불통' 대한민국, '반쪽' 민주공화국 <br/> ▶관련기사: [민주공화국-장기농성장]"비정규직에게도 나라가 있나요" <br/> ▶관련기사: [민주공화국-장기농성장]시간강사 처우개선 위한 10년의 싸움, 시간강사법은 "노예해방" <br/> ▶관련기사: [민주공화국-장기농성장]"장애인 격리하지 않는 세상이 민주공화국"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02.txt

제목: [오늘은 이런 경향] 10월5일 정부는 기업 돈 뜯고, 기업은 알바 짜내고  
날짜: 20161005  
기자: 주영재·최민지·허진무 기자 j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05080411307  
본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br/>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10월5일입니다.<br/><br/><br/><br/><br/>박근혜 정부 들어 대기업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경우처럼 각종 민간 재단과 펀드 등에 내놓은 기부금 규모가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당들은 ‘준조세’ 성격의 기업 기부금이 비리와 의혹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강제적인 기부금을 없애고 법인세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 [기업에 강요된 ‘준조세’]기업들 팔 비틀어 걷은 돈 ‘정권 치적용’ 사업에 펑펑 썼다<br/> ▶ [기업에 강요된 ‘준조세’]야당 “기업들 거액 뜯기는데 법인세 인상 동의하겠나”<br/> ▶ [기업에 강요된 ‘준조세’]박 정부 ‘기업 짜낸’ 준조세 2164억<br/><br/><br/><br/><br/><br/>올해의 노벨 물리학상은 영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위상물리학자 데이비드 툴레스 등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학술원은 이 학자들이 ‘이종물질(exotic matter·질량이 마이너스이거나 허수인 물질)’로 알려진 미지의 존재의 비밀을 밝혀내는 데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br/> ▶ [노벨 물리학상 발표]위상학 이용해 전력소모 줄인 ‘꿈의 양자컴퓨터’ 가능성 열어<br/> ▶ [노벨 물리학상 발표]노벨위, 난해한 ‘위상학’ 설명 위해 빵 들고나와<br/><br/><br/><br/><br/><br/>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이 지난 5월 한·이란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국 문화교류사업의 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립 1년도 안된 민간재단이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주요 사업의 주체로 선정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특혜 지원과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은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재단 해체 결정이 의혹을 증폭시키면서 국감 내내 정국의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br/> ▶ 업계 “VIP 관심사…적극 추진 불가피”…미르재단, 한국·이란 문화사업 주체로<br/> ▶ [국정감사]미르, 공모도 없이 ‘이란 K타워’ 사업주체 선정…또 ‘특혜 의혹’<br/><br/><br/><br/><br/>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대기업들이 자신들이 만든 공익재단엔 돈을 적게 내거나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들이 운영 중인 공익재단에는 기부하지 않고 전경련 말 한마디에 두 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것은 정권 눈치를 본 강제모금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br/> ▶ 대기업 수십억 내면서 자사 공익재단엔 ‘0원’<br/><br/><br/><br/><br/>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부작용 논란을 일으킨 한미약품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의 판매허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의 판단 아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복용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내성 표적 폐암 신약인 올리타정은 중증 피부이상 반응으로 환자 1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3건의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지만 식약처가 사망 사례를 보고받고서도 한 달 후인 지난 5월 시중 판매를 허용해 논란이 됐습니다.<br/> ▶ [한미약품 폐암 신약 제한적 허가]‘부작용 논란’ 암치료제, 계속 판매 허용<br/> ▶ [한미약품 폐암 신약 제한적 허가]식약처 “부작용 위험성보다 말기 환자의 유익성이 더 크다”<br/> ▶ [한미약품 폐암 신약 제한적 허가]“성실히 안전관리 하겠다”<br/><br/><br/><br/><br/><br/>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감에서 더 이상 한진해운에 지원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지만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span class='quot0'>대주주로서 내 팔을 자르겠다는 결단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느냐</span>”고 밝혔습니다. <br/> ▶ [국정감사]조양호, 한진 물류대란에도 “할 만큼 했다”<br/><br/><br/><br/><br/><br/>고 백남기씨의 유족이 서울대병원에 ‘병사’로 기재된 사망진단서의 수정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서울대 특위가 작성지침을 어긴 건 맞지만 주치의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경찰은 부검영장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유족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 유족 “사망진단서 수정을”…서울청장 “25일 전 부검영장 집행”<br/> ▶ “경찰 제시한 ‘백남기 유사 사례’ 법원에선 외인사로 판단 했다”<br/> ▶ [사설]백남기씨 사망이 외인사 아닌 병사여야 하는 기막힌 현실<br/><br/><br/><br/><br/>이랜드 계열의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시간을 실제보다 1시간 늘려 잡은 후 ‘조퇴 처리’하고, 근무시간은 15분 단위로 쪼개서 기록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애슐리’의 한 매장은 임금을 ‘15분 단위’로 꺾어 주면서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span class='quot1'>10분 전 대기는 기본 매너</span>”라고 강요했습니다.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입니다. <br/> ▶ [단독]실제보다 계약시간 길게 해 ‘조퇴 처리’…15분 단위로 근무시간 쪼개 ‘임금 꺾기’<br/><br/><br/><br/><br/>“상사-부하 역할놀이를 하고 나면, 부하 역할을 한 사람이 상사 역할을 한 사람보다 공감 능력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권력감의 차이가 공감력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다. … 가부장제 아래서 남성이 권력의 우위를 점하는 것과 공감을 여성의 역할로 치부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는지도 모른다.”<br/> ▶ [청춘직설]아빠의 모성, 엄마의 부성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03.txt

제목: [한미약품 폐암 신약 제한적 허가]‘부작용 논란’ 암치료제, 계속 판매 허용  
날짜: 20161004  
기자: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04230004877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중증 부작용 발생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미약품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의 판매허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아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복용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br/><br/>식약처는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span class='quot0'>중증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기존 투약자들은 투약을 중단할 경우 급격한 증세 악화가 우려되고, 신규 환자도 다른 항암제가 더 듣지 않을 경우 올리타정을 사용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span>”면서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리타정은 제한적인 사용을 조건으로 신규 환자에게도 처방이 가능해졌다.<br/><br/>앞서 식약처는 올무티닙의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자 지난달 30일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신규 환자의 경우 해당 의약품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결정이 번복된 것이다.<br/><br/>내성 표적 폐암 신약인 올리타정은 중증 피부이상 반응으로 모두 3명의 환자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식약처가 사망 사례를 보고받고서도 한 달 후인 지난 5월 시중 판매를 허용해 논란이 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04.txt

제목: [한미약품 폐암 신약 제한적 허가]식약처 “부작용 위험성보다 말기 환자의 유익성이 더 크다”  
날짜: 20161004  
기자: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04223933120  
본문: ㆍ생명 다투는 환자들 투약 중단 땐 증세 급격 악화 우려 <br/>ㆍ인의협 “제약사 비용으로 임상시험하면 되는 것” 반론<br/><br/><br/><br/>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일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의 부작용이 매우 위중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판매 허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약품이 생명을 다투는 말기암 치료제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br/><br/>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위원장인 김열홍 고려대 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0'>많은 전문가들이 올무티닙을 투약받은 환자들에게서 발생한 중증 피부이상은 약제와 연관성이 깊으며, 부작용 자체가 매우 위중한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span>”고 밝혔다. <br/><br/>그러나 김 위원장은 “<span class='quot1'>기존 치료에 실패한 말기 폐암 환자의 경우 해당 제품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다고 판단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span>”고 밝혔다. 올무티닙의 부작용 발생 빈도가 동일 계열의 다른 약품에 비해 높지 않고, 이 약이 말기 폐암 환자 중에서도 기존 약에 내성이 생긴 소수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br/><br/>올무티닙의 부작용인 중증 피부이상 반응은 항암제의 독성 때문에 전신 피부에 수포가 발생하면서 25%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증상이다. 어떤 사람에게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로서는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식약처는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고,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포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중증으로 전이될 조짐이 나타나면 즉시 약제를 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br/><br/>그러나 의료 시민단체는 ‘올리타정’의 시판 허가 유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은 “<span class='quot2'>정부는 보다 많은 말기 암환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신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임상 3상 전 시판을 허용해 준다고 주장하지만, 올리타정은 폐암 환자 중에서도 내성이 생긴 소수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시판할 필요가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2'>환자 돈으로 위험을 감수한 채 약을 사라고 할 필요 없이 제약사 비용으로 원하는 환자에 한해 임상시험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span>”라고 지적했다.<br/><br/>정부는 앞으로 임상시험 규제완화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 말기 암이나 희귀질환뿐 아니라 알츠하이머, 뇌경색 치료제에까지 조건부 승인을 확대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br/><br/>참여연대는 “<span class='quot3'>임상시험 부작용이 2013년 147건에서 2015년 23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3'>한미약품 신약 사망사건은 경제논리에 따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앞으로 가져올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것</span>”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05.txt

제목: [사설]노벨 생리의학상 오스미 교수의 외길과 열정을 지지한다  
날짜: 201610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04205003344  
본문: ‘자가포식(autophagy)’은 세포 내 노폐물을 청소하고 비상시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세포 내 불필요한 찌꺼기가 쌓이거나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외부에서 미생물이 침입했을 때 세포 스스로 생존을 위해 내부 단백질을 재활용하는 면역현상이다. 만약 자가포식에 이상이 생기면 노폐물이 넘쳐 암이나 치매 같은 병을 일으킬 수 있다. 매우 유용한 노폐물 재활용 시스템이지만 ‘세포 내 쓰레기장’으로 치부된 탓인지 크게 주목을 끌지 못했다. <br/><br/>오스미 요시노리(大隅良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는 1970년대부터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이 분야에 천착했다. 1988년 세포 내 소기관에서 자가포식 현상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이후 3만8000여종의 돌연변이 효모를 일일이 검사했다. 그 결과 자가포식을 촉발하는 14종의 유전자를 처음으로 규명했고, 이 공로로 2016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덕분에 지난해만 5000여 편의 논문이 나왔을 정도로 자가포식은 인기 있는 연구분야가 됐다. 오스미는 “<span class='quot0'>아무도 하지 않는 분야를 경쟁 없이 개척하는 편이 즐겁다</span>”고 했다.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나카무라 슈지(中村修二) 역시 “<span class='quot1'>지방 출신으로 지방대를 졸업하고 지방기업에서 하고 싶은 연구를 계속했더니 노벨상을 주더라</span>”고 했다. 각 분야 2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의 저력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과감한 투자도 연구자들의 열정을 북돋워줬다. 예컨대 중성미자의 발견을 위해 1000m 지하에 초대형 관측장비를 마련해줬다. 덕분에 가지타 다카아키(梶田隆章) 도쿄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br/><br/>오스미의 노벨상 수상을 접한 한국 여론은 부러움, 질시, 자탄으로 요약되는 것 같다.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용이 세계 1위인데 왜 성과를 내지 못하느냐는 채근도 있다. 그러나 노벨상은 속성 및 주입식 교육, 인기직업에 대한 쏠림, 경쟁으로 얻을 수 있는 과실이 아니다.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투자한 기초과학의 결실을 따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연구를 주도하고 단기간 성과에 집착하지 않았다. “<span class='quot2'>한국은 돈으로 과학 연구의 필요성을 깨닫고자 한다</span>”는 국제과학학술지 ‘네이처’의 지적을 새겨야 한다. “<span class='quot2'>‘도움 되는 과학’이라는 말이 몇 년 후 기업화가 가능하다는 말과 동의어가 된 것이 문제</span>”라는 오스미 교수의 경고도 가슴 깊이 담아둬야 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06.txt

제목: [경향마당]폐암 환자 마지막 희망, 신약 보험 적용  
날짜: 20161003  
기자: 김소정 | 대학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03210932936  
본문: 최근 국내에 들어온 폐암 신약 타그리소는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하나의 약이고 처리해야 할 과제이겠지만, 우리 어머니를 비롯한 폐암 환자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다. 이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용기 내어 전달하려고 한다. 폐암 환자인 어머니는 2014년 진단 이후 표적치료제로 치료받으면서 일상을 이어갔다. 부모님과 함께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행복한 시기였다. 표적치료제 덕분에 어머니의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때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우리 가족을 할퀴고 지나갔다.<br/><br/>지난해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엄마는 한평생 함께했던 배우자를 잃고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올해 폐암이 재발하고 말았다.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에 나와 동생은 겁에 질렸다. <br/><br/>어머니는 재발 후 폐 기능이 너무 약해져 중환자실에 입원까지 했다. 그때 내성이 생긴 폐암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 신약인 타그리소로 치료받지 않았다면 나와 내 동생은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했을 것이다. 무사히 약이 잘 들어 퇴원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면서 신약을 쓴 것을 후회한 적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의 약값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두려워졌다. 다른 환자들은 임상이라도 가능하다는데, 어머니는 임상도 불가능했다. 결국 1000만원이라는 약값을 오롯이 감당해야만 했다. 아버지 없이, 이 모든 짐을 다 감당해 내기에는 20대 후반인 나는 너무나 능력이 없었기에 더 두려웠다.<br/><br/>약국에서는 고가의 약이라고 해도 마진이 없다며 100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했다. 조부모님과 주변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첫 달은 해결했다. 그런데 28일 뒤에는, 또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br/><br/>이 신약만 복용하면 어머니의 암은 70~80% 사라질 것이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어머니가 어떻게든 살아만 계셨으면 좋겠고,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br/><br/>우리나라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플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있다. 이 제도만 믿고 있다. 워낙 고가의 약제인 만큼 정부의 재정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정부 당국이 제도개선을 통해 어머니와 같은 폐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07.txt

제목: 인생여행, 행복의 종착지 도착한 ‘드라이빙 미스 노마’  
날짜: 20161003  
기자: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03153028008  
본문: ㆍ91년 사는 동안 가장 좋았던 곳은 “바로 여기”…자랑스러운 일은 “지금 하는 일” <br/>ㆍ암 투병 대신 미 일주 캠핑…1년 동안 32개주 75개 도시 ‘버킷리스트’ 채우고 눈감아<br/><br/><br/><br/>암을 진단받고 미 대륙 횡단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떠났던 ‘드라이빙 미스 노마(Driving Miss Norma)’ 노마 진 바우어슈미트 할머니가 91년의 ‘인생여행’을 끝냈다. 노마 할머니는 끝까지 여행하겠다던 꿈대로 마지막 여행지 워싱턴주 북서부 산후안 섬에서 눈을 감았다. <br/><br/>노마 할머니의 가족은 1일 페이스북 페이지에 “<span class='quot0'>인생은 붙잡고 있는 것과 놓아주는 것의 균형 잡기</span>”라는 13세기 페르시아 신비주의 시인 루미의 말을 인용한 뒤 노마 할머니의 별세를 알렸다. 아래에는 할머니의 이름과 1925년 3월31일~2016년 9월30일이라고 출생·사망일이 적혔다.<br/><br/><br/><br/><br/>노마 할머니는 지난해 7월8일 남편 레오가 세상을 떠난 후 이틀 만에 자궁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과 방사선·항암치료를 권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말했다. “내 나이가 아흔이에요. 나는 여행을 떠날 거예요.” 이미 ‘나쁜 소식’을 예감한 할머니는 아들 부부에게 어떤 치료도 받지 않을 거라고 못박아둔 터였다. 의사도 “당장 떠나세요. 멋진 여행을 하십시오”라며 응원해줬다. <br/><br/>한 달 반 후인 지난해 8월24일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반려견 푸들 링고와 함께 캠핑카를 타고 미시간주 북동부 프레스크아일의 집을 떠났다. 나흘 뒤 페이스북 ‘드라이빙 미스 노마’ 페이지가 문을 열었다. 병석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난 할머니의 선택은 큰 반향을 불렀다. 주요 언론에 소개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페이지 팬은 현재 45만명이 넘는다. <br/><br/><br/><br/><br/>노마 할머니네는 지난 8월 말 여행 1주년을 맞아 “1년 동안 1만3000마일(2만900㎞)을 달려 32개주 75개 도시를 다녔다”고 전했다. 할머니는 여정에서 열기구 타기, 승마, 페디큐어 등 수많은 ‘인생 첫 경험’을 했다. 머리 모양도 원없이 바꿔봤다. 그는 여행 중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냐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바로 여기”라고 답했다. 지난 4월 한 중국 언론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뭔지” 묻자 노마 할머니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페이지를 운영하는 며느리 라미는 “<span class='quot1'>어머니는 우리의 이 단순한 삶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준다는 데 정말 놀라워했고, 내 카메라 앞에서 미소지으며 어머니다운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어느 때보다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span>”고 말했다.<br/><br/>죽음은 할머니를 피해가지 않았다. 산후안 섬에 도착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0일 라미는 “<span class='quot1'>우리는 미스 노마와의 위대한 여정이 끝나가고 있음을 받아들이려 한다</span>”고 적었다. 노마 할머니는 빨간 스쿠터를 타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발밑에는 산소탱크가 놓여 있었다. 지난달 28일에는 “‘굿바이’라고 말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행운인지”라는 동화 <위니더푸>의 대사를 올려 상태가 위중함을 암시했다.<br/><br/><br/><br/>할머니의 별세를 알리는 글 아래에는 애도의 댓글 3만4000여개가 달렸다. 한 누리꾼은 “덕분에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됐다”며 “감사드린다. 편히 쉬세요”라는 추모글을 남겼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08.txt

제목: [한미약품 신약 개발 실패 파문]안전성 우려에도…‘대규모 임상시험 뺀’ 신약 허가  
날짜: 20161002  
기자: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1002222252443  
본문: ㆍ식약처, 폐암 치료제 ‘올무티닙’ 시판 허가 논란<br/><br/><br/><br/>한미약품의 올무티닙은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7월 ‘올리타정’이라는 제품명으로 국내에 출시됐다.<br/><br/>조건부 승인이란 희귀난치병이나 말기암 환자 등을 위한 대체불가능한 신약에 한해,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의 마지막 단계를 건너뛰고 시판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즉 환자는 검증이 덜 된 신약을 위험을 감수한 채 자기 돈으로 사야 한다. <br/><br/>식약처는 조건부 승인을 내리기 한 달 전인 4월 올무티닙을 투약받은 환자가 중증 피부이상 반응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이미 보고받은 상태였다. 이후 6월과 9월에도 2명의 환자에게서 중증 피부이상 반응이 나타났다. 이 중 1명은 회복됐지만 다른 1명은 기존 질환으로 사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첫 사망자가 보고된 4월에는 부작용이 올무티닙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약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빈도로 나타날지도 알 수 없었다</span>”고 주장했다.<br/><br/>이어 “임상시험 단계에서 말기암 환자의 사망 사례는 간혹 발생하며, 이를 이유로 허가를 중지하면 신약을 개발하지 말란 것”이라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신약을 원하는 난치병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리타정 판매중지 여부 등 추가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br/><br/>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개발 임상 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피부독성이 확인된 항암제를 식약처가 허가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span class='quot1'>사실상 제약사가 환자들에게 약을 팔면서 임상시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span>”라면서 “<span class='quot1'>제약사와 환자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아무리 환자가 원해도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최대한 엄격하게 허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span>”고 지적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식약처는 올무티닙 승인을 허용한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누군지, 어떻게 그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 공개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br/><br/>올무티닙 사태로 정부가 의료·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조건부 승인 대상을 희귀난치성질환이나 말기암 환자뿐 아니라 알츠하이머나 뇌경색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임상시험 참가자 중 ‘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는 476건이었으며 이 중 부작용으로 입원한 경우가 376건, 사망한 경우도 49명에 달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09.txt

제목: 한미약품, 1조원 규모 항암신약 기술 수출  
날짜: 20160929  
기자: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29183255172  
본문: 지난해 총 8조원 규모의 신약 기술을 수출한 한미약품이 이번에 또 1조원 규모의 기술 수출 성과를 올렸다.<br/><br/>한미약품은 자체 개발한 표적 항암신약 ‘HM95573’의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다국적 제약사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넨텍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HM95573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br/><br/>이번 계약으로 한미약품은 계약금 8000만달러(879억원) 외에 임상개발 및 허가, 상업화 등에 성공할 경우 단계별 기술료로 8억3000만달러(9120억원)를 순차적으로 받는다. <br/><br/>총 계약규모는 9억1000만달러(1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제넨텍이 개발에 성공해 상용화할 경우 판매 로열티도 두 자릿수 퍼센트로 받기로 했다. 다만 이번 계약의 전체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는다. <br/><br/>HM95573은 RAF를 표적으로 하는 항암신약이다. RAF는 세포 내 신호전달을 매개하는 미토겐 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MAP kinase) 중 하나로, 암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미약품은 HM95573의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10.txt

제목: 장애인이 살기 힘든 나라…장애인 사망률 4배 높아  
날짜: 20160928  
기자: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28152408053  
본문: 장애인의 사망률이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4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이 건강검진에서 질환이 있다고 판정받는 비율은 2배, 입원일수는 7.8배 높은 등 장애인의 전체적인 건강지표가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br/><br/>보건복지부는 28일 배포한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집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계집은 등록 장애인 251만574명(2012년 현재)의 건강 정보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서 분석해 구축한 ‘장애인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만들어졌다.<br/><br/>먼저 장애인의 조사망률(인구 10만명 당 사망자수)은 2164.8명으로 전체 인구 조사망률(530.8명)의 4배에 달했다. 특히 10대 미만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37.9배에 달했고 10대는 16.4배, 20대는 8배 높았다. 전체 인구에는 장애인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망률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눠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사망 시 평균연령은 자폐성 장애가 28.2세로 가장 낮았고 지적장애 50.6세, 정신장애 57.6세 등으로 나타나 전체 인구 기대여명(81.4세)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br/><br/>장애인 사망원인 1∼3위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으로 전체 인구의 사망원인 1∼3위와 동일했다. 단 장애인은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20.1%에 달해 같은 원인으로 사망한 전체 인구 비율(9.6%)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정신장애의 경우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이 3번째로 많았다. <br/><br/>사망률이 높은 만큼 장애인들은 건강검진 수검률이 떨어지고 병원을 찾는 횟수도 많았다.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3.3%로 전체 인구 수검률 72.2%보다 8.9% 포인트 낮았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수검률이 50.1%에 그쳤다. 건강검진 결과 각종 질환이 있다는 의미인 ‘유질환’ 비율은 33.7%로 나타나 전체 인구의 약 2배에 달했다. <br/><br/>유질환율이 높은 만큼 장애인들은 병원을 자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 1명의 연평균 의료기관 입원일수는 18일로 전체 인구의 7.8배였다. 또 장애인 한 명의 연평균 진료비는 376만원으로, 전체 국민 1인당 진료비(96만6000원)의 3.9배에 달했다.<br/><br/>국립재활원은 “<span class='quot0'>장애인 건강 통계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시행을 위한 기반</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장애인 사망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마련 등 국가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11.txt

제목: 화물복지재단, 화물 운전자 가족들의 삶의 질 책임진다  
날짜: 201609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28145507453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주요 성과'에 따르면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강화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자의 비급여 항목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br/><br/>국내 유일의 화물복지 전문 조직인 공익법인 화물복지재단도 화물 운전자들을 위한 복지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최근 화물복지재단은 제3차 이사회를 통해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추가예산을 편성해 보다 많은 인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br/><br/>화물복지재단은 의료복지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해오며 화물 운전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화물 운전자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복지원사업은 물론 화물 운전자 사고 발생시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br/><br/>또한 문화누리사업을 통해 화물운전자 가족들이 여행, 외식, 공연, 영화, 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br/><br/>특히 화물복지재단이 비수익형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하고 있는 ‘화물나누리’는 웹, C/S, 앱, 간편접수 프로그램, 유선 등의 채널을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운송을 의뢰할 수 있어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최근 조달청 정부계약물자 관련 업무연계로 화물나누리 화물운송정보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의 운송비용 절감 및 수익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br/>.<br/>화물 운전자 가족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화물복지재단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br/><br/>화물복지재단 신한춘 이사장은 “<span class='quot0'>현재보다 폭넓은 복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화물복지 분야에서 최고의 조직으로 거듭나 화물 가족분들에게 힘이 되겠다</span>”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12.txt

제목: 지난해 폐렴 사망자, 자살자 수 앞질러  
날짜: 20160927  
기자: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27221721380  
본문: ㆍ고령화·한파로 노인 사망 증가…총 사망자는 27만명 넘어 <br/>ㆍ33년째 사망원인 1위는 암…10~30대 ‘고의적 자해’ 많아<br/><br/><br/><br/>지난해 총 사망자 수가 27만명을 넘어서며 33년 만에 가장 많았다. 극심한 한파로 노인들의 사망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자살자를 앞질렀다.<br/><br/>27일 통계청의 ‘2015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27만5895명으로 전년보다 3.1%(8203명) 늘었다. 이는 사망원인 통계가 작성된 1983년 이래 3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총 사망자 수는 한동안 24만명대를 유지하다 2010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80대 이상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작년 사망자 중 80대 이상 비중은 40.8%로 10년 전인 2005년(29.6%)보다 크게 높아졌다.<br/><br/>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조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도 541.5명으로 전년(527.31명)보다 2.7% 높아졌다. 지난해 조사망률은 1992년(539.8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지난해 기상한파로 굉장히 추웠던 데다 3월부터는 황사가 심해 3~4월에 고령자 사망이 많았다</span>”며 “<span class='quot0'>고령인구가 늘면서 앞으로도 사망자 수와 조사망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br/><br/>지난해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 33년째 사망원인 1위를 유지했다. 인구 10만명당 암사망률은 150.8명으로 전년(150.9명)과 비슷하다. 암 종류별 사망률은 폐암(34.1명)이 가장 높고 간암(22.2명), 위암(16.7명) 순이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위암 사망률은 줄었고 대장암 사망률은 늘었다. 췌장암도 크게 증가했다. 암에 이어 심장질환(55.6명), 뇌혈관질환(48.0명)이 사망원인 2, 3위였다. 2005년 사망원인 10위(8.5명)였던 폐렴이 매년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4위(28.9명)를 차지했다. 고령화로 폐렴과 심장질환 등 노인성 질환에 의한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고의적 자해(자살)는 사망률 26.5명으로 5위다. 지난해(27.3명)보다는 0.7% 줄어 폐렴과 순위가 바뀌었다. 자살 사망자 수(1만3513명)도 전년보다 232명(2.3%) 감소했다. 자살률은 2005년 31.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살률은 여전히 운수사고 사망자(10.9명)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자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이고, 40~50대에서는 2위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13.txt

제목: 유방암 검사 ‘정상’ 판정 후 암 발견 4638명…‘암 의심’ 진단 후 확진자보다 2배 이상 많아  
날짜: 20160927  
기자: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27221718475  
본문: 국가건강검진 유방암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나중에 유방암이 발견된 사람의 수가 ‘암 의심’ 진단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27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건강검진으로 유방암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378만663명이었다. 검진 결과 이 중 248만3953명이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 중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4638명에 달했다. 이는 유방암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4506명) 중 확진 진단이 나온 1765명보다 많다. 유방암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 지난해 결핵검진을 위해 흉부방사선 촬영을 한 1390만2887명 중 폐결핵 진단을 받은 사람은 2612명으로 발견율이 0.018%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span class='quot0'>고작 0.018%의 확진자를 찾기 위해 0.1~0.3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 노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셈</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span>”고 주장했다. <br/><br/>권 의원은 “<span class='quot0'>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만 분변 검사를 실시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108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14.txt

제목: [TV하이라이트]2016년 9월 28일  
날짜: 201609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27201904951  
본문: ■우유·두부와 갑상선암의 비밀<br/><br/>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갑상선암을 예방하는 방법과 극복 비결을 소개한다. 갑상선암은 방사선 노출을 피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예방법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연구결과에서 칼슘 섭취량이 갑상선암 발병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또 갑상선암을 극복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그들이 암을 이길 수 있었던 비법을 공개한다.<br/><br/><br/>■“영재들도 슬럼프 겪어요”<br/><br/>영재 발굴단(SBS 오후 8시55분) = 슬럼프를 겪고 있는 영재들의 사연을 전한다. 각종 중국어 대회에서 대상을 휩쓸었던 이정민군은 11세 되던 해 처음으로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신다. 늘 영재 소리를 들었던 김우찬군 역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성적이 급격히 하락한다. 지능검사 결과 두 아이 모두 여전히 상위 1%로 달라진 게 없다. 이들에게 찾아온 슬럼프의 정체를 파헤치고 해결책을 알아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15.txt

제목: 지난해 사망자수 33년만에 최다…고령화의 영향  
날짜: 20160927  
기자: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27182122120  
본문: 지난해 총사망자수가 27만명을 넘어서며 33년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극심한 한파로 노인들의 사망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폐렴과 심장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크게 늘어났다.<br/><br/>27일 통계청의 ‘2015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27만5895명으로 전년보다 3.1%(8203명) 늘었다. 이는 사망원인 통계가 작성된 1983년 이래 33년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총사망자수는 한동안 24만명 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80대 이상 사망자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사망자 중 80대 이상 비중은 40.8%로 10년 전인 2005년(29.6%)보다 크게 높아졌다.<br/><br/>사망수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조사망률도 541.5명으로 전년(527.31명)보다 2.7% 높아졌다. 지난해 조사망률은 1992년(539.8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지난해 기상한파로 굉장히 추웠던데다 3월부터는 황사가 심해 3~4월에 특히 고령자 사망이 많았다</span>”며 “<span class='quot0'>고령인구가 전체적으로 늘면서 앞으로도 사망자수와 조사망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지난해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 33년째 사망원인 1위를 유지했다. 인구 10만명당 암사망률은 150.8명으로 전년(150.9명)과 비슷하다. 암 종류별 사망률은 폐암(34.1명)이 가장 높고 간암(22.2명), 위암(16.7명) 순이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위암 사망률은 줄었고 대장암 사망률은 늘었다. 췌장암도 크게 늘었다. 암에 이어 심장질환(55.6명), 뇌혈관질환(48.0명)이 사망원인 2,3위였다. 2005년 사망원인 10위(8.5명)였던 폐렴이 매년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4위(28.9명)를 차지했다. 고령화로 폐렴과 심장질환 등 노인성 질환에 의한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br/><br/>고의적 자해(자살)는 사망률 26.5명으로 5위였다. 지난해(27.3명)보다는 0.7% 줄었고, 자살 사망자수(1만3513명)도 전년보다 232명(2.3%) 감소했다. 자살률은 2005년 31.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살률은 여전히 운수사고 사망자(10.9명)보다 두배 이상 높다. 자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이고, 40~50대에서는 2위다. 자살은 5월(10.1%)과 4월(9.9%) 등 봄에 많이 일어났다.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동의 1위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25.8명(국제비교를 위해 OECD 기준으로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해 표준화한 사망률)으로 전체 평균(12.2명)의 두배를 웃돈다. 자살률 2위인 일본(18.7명)과도 격차가 크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16.txt

제목: “소통과 신뢰과 원전 안전의 핵심”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날짜: 20160924  
기자: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24141555749  
본문: “<span class='quot0'>국민들의 신뢰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원자력발전은 포기해야 한다.</span>”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캐나다 원자력공사 등에서 원전설계 기술자로 일했다. 그는 불투명한 정보로 만들어진 안전신화를 한국 원전의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이 대표는 자신이 탈핵이나 반핵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원전의 전제조건은 안전이며, 안전의 필요조건은 소통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9월 12일과 19일 경북 경주를 중심으로 규모 5.8, 4.5의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했고,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월성원전, 고리원전 등 이 지역에만 16기의 원전이 들어서 있다.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안전하다’고 대답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9월 20일 이정윤 대표를 만났다.<br/><br/><br/><br/>지진 발생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다. 한수원은 내진설계 등을 예로 들며 괜찮다고 말한다. 인식에 대한 기울기가 크다.<br/><br/>“원전은 기본적으로 안전을 먹고사는 동물이다. 안전이 없으면 죽어야 한다. 안전의 핵심은 신뢰다. 그리고 안전의 기준은 국민이다. 그런데 현재 한수원은 국민이 아니라 원전안전위원회(원안위)를 기준으로 안전을 생각하는 것 같다. 원안위는 기술조직이 아니라 관료조직이다. 안전에 대한 판단은 기술자가 해야 하는데, 기술자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관료집단인 원안위가 검토하고 승인한다. 그리고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계를 거쳤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전혀 소상하게 알리지 않는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br/><br/>원전과 관련해 정보공개가 안 돼 불신이 쌓이는 문제가 누적돼 왔다.<br/><br/>“신고리 5·6호기 신규건설 승인만 보더라도 정보공개가 안 됐다. 국민들이 뭐가 위험한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것과 너무 거리가 멀다. 한수원은 불리하면 이야기를 안 하거나 너무 신중하게 정보를 가린다. 원전 건설허가 요건 중 하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중대사고 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중대사고가 났을 때 어떤 피해를 주고, 사상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과정에서 이 평가가 진행이 안 됐다. 건설 승인을 해주고 일주일 후에 해당 고시를 통과시켰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서 진실성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신고리 5·6호기에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7일 이내 1만6240명이 죽고, 50년 동안 280만명이 방사성 노출로 인한 암 등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계산을 해서 알리고 이런 정도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세워야 한다면 원전의 장점이 무엇인지 또 설득해야 한다. 이런 정보가 공개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전문가의 영역이라면서 관료들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br/><br/>불신이 쌓이다 보니 지진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높다. 원전 내진설계는 어느 수준인가.<br/><br/>“현재 원전 내진설계가 진도 6.5 이상으로 설계돼 있다. 다행히 지금 발생하고 있는 5.0대의 지진이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원전 설계 자체는 보수적으로 한다. 국내 원전은 지반가속도(지진으로 건물이 받는 힘)가 0.1g이 넘으면 자동으로 정지되게 설계돼 있다. 그리고 이런 비상사태가 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고하중들까지 시나리오에 다 반영해서 설계된다. 예컨대 충격으로 배관이 파단될 경우 발생하는 하중 등도 만약을 대비해서 설계에 다 반영했다. 지진이 왔을 때 다른 비상상황으로 고려했던 문제점들까지 다 포괄해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계를 한 것이다. 그렇지만, 원전은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늘 상당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원전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일어날 것이라는 전제로 철저하게 안전방재대책을 세워야 한다.”<br/><br/>원전을 운영하는 부분은 어떤가.<br/><br/>“생각보다 허술하다. 그러므로 감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원전 설계를 잘했다 하더라도 제작, 설치, 시공, 운영하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게 많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잘 감시해야 하는데, 문제는 감시까지 한수원에 다 맡겨놓았다는 것이다. 주민들과 한빛원전 안전성 검증단을 만들어 1호기와 6호기를 같이 살펴본 적이 있다.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현장이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예를 들면 지진이 올 것을 대비해서 기둥을 박아놨는데, 볼트만 있고 너트로 조여 있지 않더라. 주민들과 기술자들이 원전을 제도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한수원은 알아서 하겠다고만 한다. 늘 이런 식이니 주민들이 불안한 것이다. 얼마 전, 신고리 3호기가 시운전 중 정지되면서 하얀 먼지가 그 주변에 생겼다. SNS에 불안하다는 사진이 도는데도 한수원이 국민들에게 브리핑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뒷전이고 원안위에만 보고하는 것이다.”<br/><br/>원안위의 안전 감시 역할은 어떤가.<br/><br/>“원안위가 이렇게 가면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의 이해집단처럼 움직이고 문제가 있어도 이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빛1호기가 1월 말에 정지됐다. 한국원자력기술원이 조사한 결과를 언론사 기자를 통해 몇 달 뒤에 받았다.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가 작동이 안 됐다고 나오더라. 원전이 멈추면 외부의 물을 순환시켜 원자로를 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 안전상 보조급수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해 냉각수를 공급해야 한다.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고온의 원자로가 냉각되지 않아 핵연료가 녹아내려 방사능이 누출될 수도 있다. 터빈하고 복수기 사이에 배관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고무패킹이 오래돼 삭아서 정지된 것이라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패킹을 정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대처를 하겠다고 나왔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중요한 내용이 살짝 한 줄만 들어가 있더라. 보조급수펌프는 극한상황에서 최후의 안전설비다. 이것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다. 담당자를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은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다. 안전신화에 싸여 있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경각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꾸준한 소통을 하고, 자료를 공개하고, 얻어맞을 거 얻어맞고, 재발방지하고, 노력하고, 국민들 앞에 제도를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br/><br/>해외에서는 원전 감시체계가 어떤가.<br/><br/>“독일처럼 지자체가 직접 감시하는 경우가 있고, 프랑스는 지자체가 직접 감시하지는 않지만 중앙조직을 통해 투명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지역주민들이 다치니까 지자체장이 직접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미국은 핵규제위원회가 감시를 한다. 이밖에도 미국에는 일반시민단체, 민간조직 등 감시조직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한국은 제도만 미국 것을 본떠 왔을 뿐, 인력도 터무니없이 적고 그 인력마저 국민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다.”<br/><br/>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br/><br/>“신뢰를 잃어버리면 안전도 설 수 없고, 안전이 설 수 없으면 원전은 포기해야 한다. 결국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시구조가 필요하다. 여야 구별 없이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지 모르겠지만, 투명하게 가야 한다.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원전은 포기해야 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17.txt

제목: “질병 없는 마법의 시대 열자” 게이츠·저커버그 ‘아름다운 동행’  
날짜: 20160922  
기자: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22215450547  
본문: ㆍ저커버그 부부 ‘의학 연구’ 위해 30억달러 기부 발표 <br/>ㆍ게이츠 깜짝 등장해 지원 연설 “새로운 도전 놀라워”<br/><br/><br/>“<span class='quot0'>저커버그 부부가 새로운 세대의 자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span>”<br/><br/>2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기자회견이 끝날 즈음 빌 게이츠(사진)가 무대에 깜짝 등장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우리는 더 많은 과학이 필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에이즈·말라리아 백신은 과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span>”며 의료 연구 지원을 호소했다.<br/><br/>이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와 부인 프리실라 챈은 의학 연구에 30억달러(약 3조3000억원)를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딸 맥스가 태어났을 때 부부는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재단을 만들고 페이스북 지분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단은 모든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바이오허브’ 연구소를 설립해 향후 10년간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술 혁신을 위해서도 투자한다. <br/><br/><br/>이번 결정은 소아과 의사인 챈이 의학과 과학의 한계에 부딪힌 환자들을 만나면서 구체화됐다. 게이츠 부부가 설립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영향도 있었다. 게이츠는 지난 7월 아프리카를 전염병 없는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 5년간 50억달러(약 5조7000억원)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br/><br/>게이츠와 저커버그는 연방수사국(FBI)의 정보 요구에 어떻게 응할 것이냐 등 ‘보안 이슈’를 놓고는 생각이 몇 차례 엇갈렸으나 기부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평소 저커버그는 게이츠를 자신의 롤모델이자 멘토라고 밝히며 ‘게이츠 키드’를 자처해왔다. <br/><br/>게이츠는 이날 기자회견 마지막에 무대에 등장해 “<span class='quot1'>저커버그 부부가 이미 교육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는 것이 놀랍다</span>”고 치하했다. 그는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재단의 노력이 “마법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게이츠는 세계 부호들을 기부에 동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통하는 투자자 워런 버핏은 25살이나 어린 게이츠를 격의 없이 대하면서 우정을 키워왔다. 버핏은 자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드는 대신 게이츠 재단에 돈을 내기로 했고, 2010년에는 게이츠와 ‘기부 서약’을 만들었다. 사후에 재산 대부분을 내놓기로 한 부자들이 이 서약의 회원이 되며, 저커버그도 여기 동참했다. 버핏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52억달러(약 5조7000억원) 이상을 사회에 환원했다. 투자회사 BOK파이낸셜 회장인 조지 카이저 등 갑부들의 ‘아름다운 우정’으로 지금까지 3650억달러(약 402조원)의 기부 서약이 이뤄졌다. <br/><br/>또 지난해 11월 파리 기후총회 후 게이츠와 저커버그는 물론 마윈 알리바바 회장, 투자자 조지 소로스, 라탄 타타 인도 타타그룹 명예회장 등 억만장자들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스타트업 투자를 약속했다.<br/><br/>게이츠 덕에 세계적인 ‘유행’이 된 부자들의 기부는 실리콘밸리의 뒷세대들로 이어지고 있다. 더스틴 모스코비츠 페이스북 공동창업자도 기부 서약에 동참했고 페이스북 초대 CEO를 지낸 숀 파커는 암 치료 연구에 2억5000만달러(약 2700억원)를 내놨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18.txt

제목: 세계 갑부들의 ‘아름다운 우정’…‘의학연구 지원’ 손 맞잡은 저커버그와 빌 게이츠  
날짜: 20160922  
기자: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22172717438  
본문: “<span class='quot0'>저커버그 부부가 새로운 세대의 자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span>”<br/><br/>2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기자 회견이 끝날 즈음 빌 게이츠가 무대에 깜짝 등장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우리는 더 많은 과학이 필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에이즈·말라리아 백신은 과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span>”며 의료 연구 지원을 호소했다.<br/><br/>이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와 부인 프리실라 챈은 의학 연구에 30억 달러(약 3조3000억원)를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딸 맥스가 태어났을 때 부부는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재단을 만들고 페이스북 지분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단은 모든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바이오허브’ 연구소를 설립해 향후 10년간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의료 기술 혁신을 위해서도 투자한다. <br/><br/>이번 결정은 소아과 의사인 챈이 의학과 과학의 한계에 부딪힌 환자들을 만나면서 구체화됐다. 게이츠 부부가 설립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영향도 있었다. 게이츠와 저커버그는 연방수사국(FBI) 정보요구에 어떻게 응할 것이냐 등 ‘보안 이슈’를 놓고는 생각이 몇 차례 엇갈렸으나 기부 문제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평소 저커버그는 게이츠를 롤 모델이자 멘토로 밝히며 ‘게이츠 키드’를 자처해왔다. 게이츠는 이날 기자회견 마지막에 무대에 등장해 “<span class='quot1'>저커버그 부부가 이미 교육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는 것이 놀랍다</span>”고 치하했다. 그는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재단의 노력이 “마법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게이츠는 세계 부호들을 기부에 동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통하는 투자자 워렌 버핏은 25살이나 어린 게이츠를 격의 없이 대하면서 우정을 키워왔다. 버핏은 자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드는 대신 게이츠 재단에 돈을 내기로 했고, 2010년에는 게이츠와 ‘기부 서약’을 만들었다. 사후에 재산 대부분을 내놓기로 한부자들이 이 서약의 회원이 되며, 저커버그도 여기 동참했다. 버핏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52억달러(약 5조7000억원) 이상을 사회에 환원했다. 투자회사 BOK파이낸셜 회장인 조지 카이저도 “<span class='quot2'>좋은 부모를 만나 풍족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도덕적 책임감을 느낀다</span>”며 기부 서약을 했다. 갑부들의 ‘아름다운 우정’으로 지금까지 3650억달러(약 402조원)의 기부 서약이 이뤄졌다.<br/><br/>게이츠 덕에 세계적인 ‘유행’이 된 부자들의 기부는 실리콘밸리의 뒷세대들로 이어지고 있다. 더스틴 모스코비츠 페이스북 공동창업자도 기부 서약에 동참했고 페이스북 초대 CEO를 지낸 숀 파커는 암 치료 연구에 2억5000만달러(약 2700억원)를 내놨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19.txt

제목: 내 마음 안 닿을까, 한 계단 한 계단…그렇게 마음을 비웠네 ‘삼국지의 고장, 쓰촨성’  
날짜: 20160921  
기자: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22103042141  
본문: ㆍ속세 벗어나 부처를 보다<br/><br/><br/>중국 쓰촨성(四川省)에도 하늘이 내린 땅, 영지(靈地)가 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 해발 3000m가 넘는 아미(峨眉)산이 그런 영지다. 아미산은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고 예로부터 영험한 기운이 샘솟는다는 명산 중의 명산이다. 모진 세월을 버텨내 산세는 장쾌하고, 깎아지른 협곡은 절경 그 자체다. 거칠고 단단한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아미산에 오르면 그 산세만으로도 평생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줄 법하다. <br/><br/>쓰촨성엔 세상에서 가장 큰 낙산대불도 있다. 너그러운 부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지러운 눈은 맑아지고 이끼 낀 마음은 순수로 돌아간다. <br/><br/><br/><br/>■평생 소원 들어주는 아미산<br/><br/>쓰촨성은 중국의 22개 성 중 하나로 수도는 청두(成都), 삼국지의 나라다. 남한 면적의 4.8배로 인구는 9000만명이나 된다. 청두에서 남쪽으로 160㎞가량 떨어져 있는 아미산은 차로 2시간쯤 걸린다. 거대한 산을 오르기 위해선 버스와 케이블카를 타야 하는데 한나절도 더 걸린다고 했다. 일찍 서둘렀다. <br/><br/>아미산으로 오르는 전용 버스는 빈 좌석이 없을 만큼 꽉 찼다. 젖먹이를 안은 젊은 부부부터 노모까지 저마다 소원을 품고 산을 오르고 있는 것이다. 길은 쉼이 없었다. ‘이제 다 왔나’ 싶으면 또다시 산허리였다. 구불구불 힘겹게 오르고 또 올랐다. 하늘로 쭉쭉 뻗은 나무들과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이룬 숲은 진한 물감을 뿌려놓은 듯했다. 버스로만 산중턱까지 50㎞를 오르는 데 1시간30분 넘게 걸렸다. 이 도로가 놓이기 전에는 어떻게 산 정상에 올라가 기도를 했을까. 그저 간절한 마음이 ‘고행’을 견디게 했으리라. <br/><br/>입구에 도착하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쓰촨에서는 “하늘이 맑아 해가 드러나면 개가 짖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고 한다. 그만큼 날이 흐리고 비가 많이 와 맑은 날을 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아미산도 365일 중 비가 내리는 날이 250일쯤 된다고 하니 푸른 하늘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싶었다. 천천히 30분 정도 올라가 케이블카로 갈아탔다. <br/><br/>마침내 해발 3092m 산 정상에 섰다. 갑자기 비가 그치더니 새 하얀 구름이 발아래 깔렸다. 청정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데 머릿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5분쯤 더 갔을까. 금불상(사면십방보현보살좌상)이 안개에 가려져 전체가 보이지 않았는데도 어마어마했다. 순금으로 만든 불상은 높이가 48m, 무게는 600t에 달했다. 금박을 붙이는 데만 22억여원이 들었다고 한다.<br/><br/><br/>붉은 가사를 입은 스님 10여명이 하얀 이를 드러내며 다가왔다. 휴대폰을 건네는데 사진을 찍어달라는 것인지, 영어도 안되고 중국어도 통하지 않았다. 그저 해맑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스님 한 분 한 분씩 사진을 찍고 단체 사진까지 촬영해줬다. 그때, 갑자기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흩어지면서 금불상이 환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먼 곳에서 온 스님들의 기도가 통한 것인지 한동안 눈빛을 나누는데 울컥했다. 스님들의 눈망울이 그렇게 맑고 순할 수가 없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숨겨왔던 소원을 빌었다. 다시 안개가 차오르고, 발갛게 달아오른 두 볼을 씻어주었다. <br/><br/>■앉은 키가 71m, 낙산대불<br/><br/><br/>절벽을 깎아 만든 낙산(樂山)대불은 아미산에서 동쪽으로 45㎞ 남짓 떨어져 있다. 높이가 71m나 된다. 앉아있는 불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어깨가 28m, 얼굴 10m, 귀 크기가 7m이다. 폭 8.5m의 발등에는 100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다. 당나라 때인 713년에 불사를 시작해 90년 동안 공사를 했다고 한다. 금빛찬란한 불상을 13층 높이의 목조누각이 덮고 있었다는데 지금은 붉은빛이 감도는 바위만 남아있다.<br/><br/>1000년 세월을 안은 낙산대불은 배를 타고 먼 발치서도 볼 수 있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가까이에서도 볼 수 있다.<br/><br/><br/>사진 촬영을 위해 배를 탔다. 대불은 백과사전에서 본 것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압도적이었다. 낙산시를 휘감아도는 세 갈래 강물이 만나는 지점의 산 하나를 통째로 뚝 잘라 만들었다고 한다. 사진을 한 컷에 담기가 버거워서 정신없이 셔터를 눌러야만 했다. <br/><br/>낙산의 ‘수불(睡佛)’이란 글자는 ‘잠자는 부처’를 말하는데 강 건너에서 보면 능운산과 오우산, 낙산대불이 사람의 형체를 띠고 있다. 그 심장이 불상의 자리다. 마음속에 늘 부처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 바로 앞에서 본 대불은 나쁜 기운을 눌러주고 약한 기운을 채워주겠다는 듯 엄숙하고 자비롭다. <br/><br/><br/>좋은 기운이 있는 영험한 곳은 세계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온다. 저 멀리 깨소금만 한 사람들이 대불에 다가서기 위해 가파른 절벽에 총총히 매달려 있다. 앞서 가던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합장하면 다음 사람도 고개를 숙여 두 손을 모은다. 소망을 이고 진 발걸음이 끝없이 이어졌다. 뱃머리에서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는 사람이 여럿 보였다. 그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지만 내 마음도 어느새 그들의 마음길을 따라간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성찰의 시간은 더욱 소중하다. 붉은 가사를 두른 듯 해질 녘 낙산대불의 미소가 평안하다.<br/><br/> <br/>▶우리나라 3대 기도처는 어디?<br/><br/>다시 입시철이다. 이맘때면 부모들은 자녀의 합격을 빌고 또 빈다. 한국의 3대 영지도 ‘대목’을 만났다. 소원을 빌고 ‘나’를 돌아보는 데 이만 한 기도처도 없다. <br/><br/>■낙산사 홍련암<br/><br/><br/>강원도 양양 낙산사에는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 있다. 그 길을 지나 바다를 끼고 300m 정도 내려가면 절벽에 서 있는 홍련암을 만난다. 홍련암은 2005년 낙산사를 단숨에 삼켜버린 화마가 1m 앞에서 비켜간 성지다. 를 보면 신라 문무왕 676년 의상대사가 관음굴에서 좌선한 지 7일째 되던 날 바다에서 붉은 연꽃이 피어났고 그 안에 관음 보살이 보였다. 의상대사는 관음 보살이 시키는 대로 대나무가 솟은 자리에 불전을 지었다. 그러자 붉은 연꽃 위에 홍련암이 피었다. 암자에 들어서면 손수건만 한 바닥 유리창을 꼭 찾아야 한다. 가로, 세로 10~20㎝쯤 되는 유리창 아래로 사람이 앉아도 될 만한 동그란 바위가 보이는데 의상대사가 좌선하던 바위다. 해수관음상에 가면 일년 열두 달 108배를 올리며 성찰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br/><br/>■남해 보리암<br/><br/><br/>경남 남해 금산 보리암은 태조 이성계가 백일기도를 올려 대업을 달성한 곳이자 원효가 득도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백두대간 정맥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동남쪽 끝자락에 있다. 해발 705m. 기암괴석과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고 푸른 바다와 맑은 바람마저 신령스럽다. 한 해 70만명 이상이 찾는 기도처다. 관음상이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법당 보광전은 웅장하지는 않지만 위엄이 있다. 법당에서 200m쯤 아래로 내려가면 선은전이 있다. 선은전은 이성계가 왕이 되길 비는 제사를 100일 동안 지낸 곳이다. 지리산, 계룡산 등에서도 기도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자 이곳을 찾은 것이다. 24시간 개방한다. <br/><br/>■강화 석모도 보문사<br/><br/><br/>강화 석모도의 천년고찰 보문사. 계단을 30분 정도 오르면 마애석불좌상을 만난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쓰인 푯말을 따라가면 사람 눈썹처럼 생긴 바위가 불상을 지켜주고 있다. 연꽃 위에 앉은 불상은 이마가 좁고 코는 넓다. 사시사철 기도객이 몰리는데 평생 소원을 한 번은 꼭 들어준다는 믿음이 전해지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20.txt

제목: 노벨물리학상은 중력파 연구진·화학상은 3팀 정도 유력  
날짜: 20160921  
기자: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21215625818  
본문: ㆍ‘톰슨 로이터’ 과학분야 예측<br/><br/><br/>올해 노벨물리학상은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중력파의 존재를 실제로 확인한 고급레이저간섭계중력파관측소(라이고·LIGO) 연구진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br/><br/>매년 노벨상 과학 분야 수상자를 예측해 온 학술정보 서비스 기업 ‘톰슨 로이터’는 21일 LIGO를 설립하고 발전시킨 로널드 드레버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칼텍) 물리학과 명예교수, 킵 손 칼텍 파인만 이론물리학 명예교수, 라이너 바이스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명예교수를 2016년 노벨물리학상 유력 수상 후보로 지목했다.<br/><br/>LIGO 연구진은 올해 2월 공간과 시간을 일그러뜨린다는 ‘중력파’를 검출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발견된 중력파는 태양 질량의 36배, 29배인 블랙홀이 지구에서 13억광년 떨어진 곳에서 충돌해 합쳐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중력파 발견은 빅뱅과 블랙홀 등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결정적 열쇠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br/><br/>톰슨 로이터는 화학상 수상자 후보로는 임신부의 혈액에서 태아 DNA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육밍 데니스 로 홍콩중문대 교수를 선정했다. 이 밖에 ‘크리스퍼-Cas9’ 유전자 가위를 사람과 쥐 세포에 적용한 조지 처치 미국 하버드의대 교수와 펑장 MIT 교수도 수상 후보로 꼽혔다. 거대분야약물의 EPR 효과를 발견, 암치료 분야의 진보를 이룬 마에다 히로시 일본 소조대 약물전달과학과 및 구마모토의대 교수와 마쓰무라 야스히로 일본 도쿄 국립동방병원암센터 종양학연구센터 비수술치료분과장도 화학상 수상자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br/><br/>생리의학상은 면역세포의 한 종류인 T세포가 활성을 갖는 과정을 밝힌 제임스 앨리슨 미국 휴스턴 텍사스대 교수, 제프리 블루스톤 UC샌프란시스코 석학교수, 크렉 톰슨 메모리얼슬론케터링 암센터 사장의 수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경제학상 후보로는 올리비에 블랜차드 MIT 명예교수를 포함한 3명이 지목됐다.<br/><br/>톰슨 로이터가 매년 발표하는 노벨상 수상자 예측 중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39명이 실제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21.txt

제목: JW중외제약, 아토피·유방암 치료제 등 신약 개발 본격화  
날짜: 20160921  
기자: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21183531208  
본문: JW중외제약과 일본 쥬가이제약이 함께 설립한 C&C신약연구소가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면역질환이나 유방암 치료제 등의 신약 개발을 본격화한다.<br/><br/>C&C신약연구소는 21일 면역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등 혁신신약 후보물질 2종을 확정하고 상업화를 위한 개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br/><br/>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은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동물실험에서 우수한 항염증과 가려움증 완화 효과를 확인했다. 유방암 치료제 후보물질은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 등에 관여하는 단백질 억제제로, 유방암 동물실험에서 항암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C&C신약연구소가 현재 확보한 혁신신약 후보물질은 항암제, 면역질환 치료제를 비롯해 줄기세포 치료제 등 총 8종이다.<br/><br/>전재광 C&C신약연구소 대표는 “<span class='quot0'>임상 후보물질 선정까지 대개 8~10년이 걸리는 것과 달리 6년 만에 내놓은 성과</span>”라며 “<span class='quot0'>후보물질 탐색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span>”이라고 말했다. C&C신약연구소는 한국인 암 환자에서 얻은 생물정보와 자체 개발한 분자 설계 프로그램 등을 신약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br/><br/>C&C신약연구소는 1992년 JW중외제약과 쥬가이제약이 50대 50으로 출자해 설립한 합작 바이오벤처로, 지난 24년간 기초 연구분야에 1200여억원을 투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22.txt

제목: “암 투병 중인 해직기자 이용마에게 힘을 주십시오”  
날짜: 20160921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21183429432  
본문: 2012년 MBC 파업을 이끌다 해직당한 이용마 기자가 복막암으로 투병 중이다.<br/><br/>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21일 조합원들에게 “이 기자를 응원해 달라”는 공개편지를 띄웠다. 이 기자는 2012년 MBC 파업 당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을 지냈고, 파업 종료 직후 해고됐다. 사측을 상대로 한 해고무효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승소했지만 현재까지 4년 6개월째 해직 상태다. 최근 복막암 판정을 받았으며 다음달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최근 <한겨레> 김종구 논설위원 칼럼으로 알려졌다.<br/><br/><br/><br/>김 위원장은 “<span class='quot0'>이 기자는 ‘개인적인 일’이 크게 부각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그저 ‘개인적인’ 불행으로만 여길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누가 이 기자를 부당하게 해고했으며, 누가 이용마를 암에 걸리게 했는가</span>”라고 물었다. 다음은 편지 전문.<br/><br/><br/>해직동지 이용마 기자에게 힘을 주십시오.<br/><br/><br/><br/>추석 연휴 전 날 이용마 기자와 통화했습니다. “이번 추석 행복하게 지내” 이 짧은 말 한마디를 다하기도 전에 목이 메었습니다. ‘행복하게’란 흔하고 평범한 말이 이런 상황에서는 더없이 간절하고 무거웠습니다.<br/><br/><br/><br/>이용마 기자는 지금 암투병 중입니다. 복막암. 10월 중순에 수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암치료가 이어지겠지요. 힘겨운 투병의 과정이 그의 앞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가 암을 거뜬히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우뚝 나타나리라고 확신합니다.<br/><br/><br/><br/>이용마 기자는 ‘개인적인 일’이 크게 부각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그저 ‘개인적인’ 불행으로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누가 이용마를 암에 걸리게 했습니까? 무엇이 이용마를 고통 속에 몰아 넣었습니까?<br/><br/><br/><br/>잘 아시다시피 이용마 기자는 2012년 170일 동안의 MBC파업을 이끌었던 집행부의 한사람이었습니다.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MBC사측은 그를 가장 먼저 해고했습니다. 오늘로 1662일째입니다. 다른 해고 동지들과 함께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1, 2심 모두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공정보도는 언론노동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이다. 그러므로 공정보도를 요구한 파업은 정당하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br/><br/><br/><br/>올 초, 소위 ‘백종문 녹취록’으로 시끄러웠습니다. 현재도 MBC의 임원인 백종문 본부장은 이 해고와 관련해 “<span class='quot1'>아무 증거 없이 해고 시켰다</span>”고 말했습니다.<br/><br/>정당하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 해고에 대해 MBC 사측은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경제적 고통, 심리적 고통을 온전히 부당하게 해고당한 자들에게 지워졌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누가 이용마를 부당하게 해고했습니까? 누가 이용마를 암에 걸리게 했습니까?<br/><br/><br/><br/>지금부터 우리는 ‘언론자유’라는 이름으로 기록합시다. 그가 벌이는 암과의 싸움, 언론 자유의 적들과의 싸움으로 기록합시다.<br/><br/><br/><br/>이용마를 위해 응원해 주십시오.<br/><br/>이용마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br/><br/>이 땅의 언론자유를 위해 일어섭니다.<br/><br/>이 땅의 정의를 위해 외칩니다.<br/><br/>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합시다<br/><br/><br/><br/>그것이 이용마 기자의 싸움을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싸움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br/><br/> <br/><br/>2016. 9. 21<br/><br/>대전에서 김환균 드림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23.txt

제목: ‘민주화 운동 헌신’ 조비오 신부 선종…말기암으로 투병  
날짜: 20160921  
기자: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21102234968  
본문: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민수습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평생을 민주화운동과 약자들을 위해 헌신했던 조비오 신부(78)가 선종 했다. <br/><br/>천주교 광주대교구는 21일 오전 3시20분 조 신부가 암 투병끝에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눈을 감았다고 밝혔다. 1938년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난 그는 1969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br/><br/>묵묵히 사제의 길을 걷던 조 신부는 1980년 5·18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5·18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고인은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의 동조자로 지목돼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br/><br/>조 신부는 1989년 열린 5·18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에서 “<span class='quot0'>신부인 나조차도 손에 총이 있으면 쏘고 싶었다</span>”며 신군부의 잔학한 학살을 생생하게 증언하기도 했다.<br/><br/><br/><br/>☞ [화보] ‘민주화의 증인’ 조비오 신부 선종 <br/><br/>이후에도 5·18기념재단 초대 이사장, 조선대학교법인 이사장, 광주·전남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의장등을 역임하며 민주화운동의 산증인이됐다. 2006년 8월 38년간의 사목 생활을 마친 후에는 갈곳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소화자매원 이사장과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를 맡으며 통일과 민족화합, 사회복지운동에 주력했다.<br/><br/>2008년 1월에는 국내에서 28번째로 고위 성직자 품위이자 교황의 명예 사제인 ‘몬시뇰’에 서임됐다. 하지만 최근 병원을 찾았다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해 왔다. <br/><br/>빈소는 광주 임동성당 지하강당에 마련됐으며 23일 전남 담양군 천주교공원묘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장의위원회는 평소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조화 대신 쌀 화환을 받아 농민과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24.txt

제목: 채종일 건협 회장 “신종 기생충에 대응하는 전문화된 시스템 구축해야”  
날짜: 20160921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21093421302  
본문: 한국은 1970년대까지 기생충 감염이 만연해 ‘기생충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였다. 국가적인 박멸 대책에 힘입어 1990년대 이후에 거의 선진국 수준의 위생국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 동안에 인수공통감염성, 식품매개성 기생충들의 감염 사례들이 잇따르고, 전에 없던 새로운 기생충들이 계속 출현해 보건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br/><br/>기생충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채종일 박사(65)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기생충은 박멸해야 할 적이라는 생각이 우선이지만 각종 난치병을 해결하는 열쇠를 지니고 있는 귀한 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각종 기생충 감염의 조기발견과 전문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가적으로 기생충을 이용한 난치병 연구에도 힘을 모야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현직 한국건강관리협회(과거 기생충박멸협회)회장인 채 박사는 40년 동안 기생충을 연구하고 가르친 서울대 의대(기생충학 교실)를 지난 8월 말로 정년퇴임했다. 그는 “<span class='quot0'>회충·요충·편충·구충(십이지장충) 등이 인체 기생충의 전부라는 생각은 큰 오해</span>”라고 지적했다. 아메바·편모충·말라리아원충·와포자충·간흡충·장흡충·고래회충·개회충·고양이회충·선모충·동해긴촌충, 아시아조충, 선모충 등 전문적인 기생충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얘기다.<br/><br/>―국내 기생충 감염 실태는 어떻습니까.<br/><br/>“회충·요충·구충 등 재래기생충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전에 없던 기생충이 늘어나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신종 기생충이 유입되고, 기생충학 및 의료 진단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토착 기생충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국민이 어류가 매개하는 흡충(디스토마) 등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단조차도 어려운 신종 기생충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생충 검진과 치료의 의료체계 구축, 정기적인 구충제 복용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br/><br/>―기생충에 대처하는 요체를 설명해 주십시오.<br/><br/>“가장 먼저 할 일은 식생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요즈음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기생충은 대다수가 식품 매개성입니다. 특히 어류, 패류 등이 감염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간흡충이나 요코가와흡충은 민물고기를 통해 감염되며, 참굴큰입흡충·한국극구흡충 등은 갯벌에서 나온 패류를 통해 들어옵니다. 식물을 통해서도 여러 기생충이 감염됩니다. 따라서 일반인뿐 아니라 특히 만성질환 환자나 노약자, 면역저하자의 경우 어패류를 날로 또는 덜 익혀 먹는 일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생충은 감염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완전한 예방이 쉽지는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음식을 날것으로 섭취하는 걸 피하고, 채소나 과일을 깨끗이 씻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하며, 모기 등 해충에 물리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br/><br/>―구충제 복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br/><br/>“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복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을은 봄·여름내 인체에 감염된 기생충들이 주요 번식을 하는 시기로, 기생충 퇴치의 골든타임으로 꼽힙니다. 여름에 날음식을 많이 먹어 기생충 감염이 축적된 결과 가을에 산란량이 극대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을 겨울을 지나는 동안 각종 음식을 통해 감염된 기생충들이 봄에 활동 및 산란을 다시 한번 극대화합니다. 이 때에 맞춰 기생충을 박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셈입니다.”<br/><br/>―시중(약국)에서 사서 복용하는 일반 구충제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까요.<br/><br/>“과거에 비해 기생충의 종류가 다양하며 적응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가장 적합한 종류의 구충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구충제는 회충, 구충, 편충 등을 치료하는 데 그칩니다. 1년에 1회 또는 2회 복용하는 것은 예방과 치료 차원에서 바람직해요. 그렇지만 식품이 매개하는 흡충류 같은 기생충 감염은 진단과 치료를 의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특히 생식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정도 의사의 검진을 받고 처방을 받아 적절한 구충제를 복용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구충제를 복용하고는 기생충 감염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혹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br/><br/>―뱀, 개구리, 사슴피, 야생동물 고기 등 이른바 ‘몬도가네식’을 정력제로 먹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br/><br/>“너구리나 오소리, 멧돼지 등의 고기를 덜 익혀 먹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선모충(旋毛蟲)이라는 새로운 기생충에 감염된 사례는 이러한 위험성을 대변해 줍니다. 뱀을 날로 먹어 생기는 스파르가눔증 같은 것도 잘못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만일 어패류나 기타 고기류 및 음식물을 날로 먹은 후 설사나 복통, 발열, 현기증 등 느낌이 이상하고 감염증이 아닐까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없이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생충들은 분변검사만으로는 감염을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혈청검사 등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br/><br/>―지난해 12월 발간한 <우리 몸의 기생충 적인가 친구인가>에서 ‘기생충은 적이면서 친구도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br/><br/>“사람에 감염되면 영양분을 빼앗고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기생충은 분명 기생(寄生)이라는 말에 걸맞게 인간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박멸의 대상이 됐지요. 하지만 인체에 이로움을 주는 기생충도 적지 않습니다. 기생충을 이용한 난치병 치료 연구와 임상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생충이 추구하는 공존의 방식(공서생활) 또한 인간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br/><br/>―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있습니까.<br/><br/>“1997년 이후 미국 아이오와대는 돼지편충을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이나 궤양성대장염 환자의 증상 부위에 감염시켜 질환을 호전시키는 치료가 소개됐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영국 노팅엄대에서는 개나 고양이에 기생하는 개구충(아메리카 구충)을 기관지천식 환자의 장에 인공적으로 감염시켜 천식증상을 완화시킨 임상 결과들이 나왔고요. 국내에서도 세포에 기생하는 톡소포자충(현미경으로만 보임)을 이용해 암 면역요법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치료제, 알츠하이머(노인성 치매) 치료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길이가 최대 9~10m에 달하는 대형 촌충인 동해긴촌충(광절열두조충)을 활용한 다이어트 방안도 국내외 연구자들 사이에 활발히 모색되고 있습니다.”<br/><br/>―최근 국내 말라리아 감염자가 늘어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br/><br/>“학질로도 불리는 말라리아도 기생충질환입니다. 원충(삼일열원충 등)이 적혈구와 간 세포 내에 기생함으로써 발병하는 급성 열성 감염증입니다. 중국얼룩날개모기 등 말라리아 매개모기에게 물리는 것이 원충에 감염되는 가장 큰 요인이고, 수혈(수혈제제 포함)이나 임신부와 태아 사이에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한, 발열, 발한 등 전형적인 감염증상이 나타납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를 비롯해 연간 약 2억 명 이상이 감염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해마다 40만~50만명이 사망합니다.<br/><br/>―말라리아의 국내 토착화가 이뤄졌다고 합니다만.<br/><br/>“국내 말라리아 감염자는 연간 600~700명 정도인데 대부분 토착 말라리아입니다. 최근 해외 여행이 늘어나면서 말라리아에 감염돼 입국하는 경우가 매년 70~80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전체 국외유입 감염병 중 2번째로 많습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 개체수도 매년 늘고 있고요. 절대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모기에 물리지 말아야 하고, 조기에 항말라리아 약제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신풍제약에서 신약을 개발해 유엔에 공급할 정도로 치료제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갖고 있어 다행입니다.”<br/><br/>―정년퇴임 이후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요.<br/><br/>“기생충학 분야는 아직 할 연구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신종 기생충도 계속 발견되고 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기생충이 유행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처할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 동안 길러 낸 후학들을 돕고 학계 및 동료·후학들과 힘을 합쳐 기생충학 연구와 역학조사 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단,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등 기생충이 큰 문제가 되는 국가에서 한국 의학자로서 봉사활동을 계속 펼칠 것입니다. 건강관리협회장으로서 활동하는 한편으로 기생충 연구와 진료 및 자문활동도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제 일생의 작업으로서 우리나라 물고기들이 얼마나, 어떤 기생충에 감염됐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박물관(전시관) 건립 등 교육사업과 개발도상국 기생충 퇴치 활동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br/><br/>■ ‘기생충의 달인’ 채종일 박사는<br/><br/>‘세상은 넓고 연구할 기생충은 많다.’ 40여 년 기생충을 화두로 연구와 교육, 국내외 학술·봉사활동에 매진해온 채 교수는 외유내강형의 덕장스타일로 일처리가 꼼꼼한 학자풍의 전형이다. 서울대 연건캠퍼스(의대와 병원)에서 채 교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인관계가 원만했고, 후학들과 연구원들을 알뜰히 챙기는 스승의 표상을 보여줬다.<br/><br/>의사동인 ‘박달회’ 주요 멤버로 40년 이상 꾸준하게 수필을 쓰고 있다. 2010년부터 세계기생충학회 부회장을 맡아 한국 기생충학계의 국제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차기 세계학회 회장 1순위로 꼽힌다. 채 교수는 “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기생충 퇴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br/><br/>■ 채종일 박사의 주요 약력<br/><br/>1976년 서울대 의대 졸업, 서울대 의대 기생충학 주임교수, 서울대 의학연구원 감염병연구소장·의학연구원 원장(직대), 서울대 BK21 인간생명과학연구단장, 대한기생충학회 회장, 세계보건기구(WHO) 흡충질환 관리 전문위원(현),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현), 국제열대의학연맹(IFTM) 사무총장 및 재무이사(현), 세계기생충학회(ICOPA) 부회장(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의약학부장 및 부원장(현),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현)<br/><br/>■ 채종일 박사 주요 학술 업적<br/><br/>전남 신안에서 인체 기생 신종 흡충인 참굴큰입흡충 세계 최초 발견(1988), 국내 말라리아 재유행 최초 발견 보고(1993), 전북 부안에서 장 디스토마의 인체 기승 증례 10명 세계 최초 발견(2001), 한국 라오스 기생충 관리 국제협력 사업 주도 및 메콩강 유역 장내 기생 흡충류 5종 첫 발견(1997∼2010), 한국 캄보디아 기생충 관리사업 주도 및 현지 어린이들의 극구흡충 감염 첫 발견(2007∼2011), 기생충학 교과서 <임상 기생충학> 대표저자 참여(2011)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25.txt

제목: [김호기의 세상을 뒤흔든 사상 70년] (26)모든 것이 개인화된 세계, 삶은 떠돈다…현대사회의 불확실성 분석  
날짜: 20160920  
기자: 김호기 |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20205834681  
본문: ㆍ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 현대’<br/><br/><br/><br/>전후 70년의 서구사회는 흔히 ‘진보의 시대’와 ‘보수의 시대’로 구분된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복지국가 시대’가 진보의 시대라면, 1980년대에서 2000년 이후 첫 10년까지의 ‘신자유주의 시대’는 보수의 시대다. 여기서 신자유주의 시대란 경제체제에 초점을 맞춘 역사 구분이다. 경제체제를 넘어서 전체 사회의 시각에서 지난 30여년을 규정한 사회이론들 가운데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영향력 있는 시도의 하나가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1925~ )이 제시한 ‘액체 현대’ 이론이다.<br/><br/><액체 현대>(Liquid Modernity, 2000), <액체 사랑>, <액체 인생>, <액체 공포>, <액체 시간>, <액체 현대 세계로부터의 편지>, <액체 현대 세계의 문화>, <액체 감시>, <액체 현대 세계의 관리>, <액체 악마>. 바우만이 단독 또는 공저로 발표한 ‘액체 시리즈’ 저작들이다.<br/><br/>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다. 최근 당신의 삶은 어떠했는가. 어느 한 곳에 고정되지 못한 채 부초처럼 떠다닌다는 느낌을 갖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바우만의 액체 현대 이론에 동의한다고 볼 수 있다. 바우만 사상의 매력은 여기에 있다. 액체 시리즈를 통해 바우만은 1980년대 이후 세계사회를 특징지어온 자유와 불안, 애착과 공포를 다각도로 조명·분석함으로써 아카데미 안에 머물러 있던 사회이론을 시민들 삶 한가운데로 이동시켜 놓고 있다.<br/><br/>바우만은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다. 유대인이란 이유 때문에 폴란드에서 쫓겨난 그는 영국으로 이주해 왕성한 지적 활동을 벌였다. 그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저작은 <현대성과 홀로코스트>(1989)였다. 이 책에서 그는 비이성의 폭발과 문명의 파괴 현상인 유대인 집단 학살에서 관료제와 도구적 합리성이 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음을 밝혀 현대성의 그늘을 고발했다. 이후 그는 액체 시리즈를 잇달아 발표해 서구 교양시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1세기에 들어와 서구 시민들에게 지적 영향을 미쳐온 사회학자들 가운데 바우만에 필적한 사람은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 정도일 것이다.<br/><br/><br/><br/>■액체 현대란 무엇인가<br/><br/><액체 현대>는 액체 시리즈의 등장을 알린 첫 저작이다. <액체 현대>를 위시한 일련의 저작들에서 바우만이 제시한 액체 현대 이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br/><br/>바우만은 현 시대가 ‘고체(solid) 현대’에서 ‘액체(liquid) 현대’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액체 현대란 현대의 ‘녹이는 힘’이 재분배되고 재할당되는 것을 말한다. 이 ‘액화하는 힘’은 체제를 ‘사회’로, 정치를 ‘생활 정책’으로, 사회적 공존의 ‘거시적 차원’을 ‘미시적 차원’으로 변화시킨다. 그 결과 우리 시대는 실패의 책임을 개인의 어깨 위에 부과하고 새로운 유형의 삶을 모색해야 하는, 다시 말해 모든 것들이 개인화하고 사적으로 변화하는 시대라는 게 바우만의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그는 해방, 개인성, 시·공간, 일, 공동체의 다섯 영역에서 액체 현대의 현실을 다각도로 추적·분석한다.<br/><br/>바우만은 액체 현대로의 변동을 가져온 세 가지 원인을 주목한다. 사회적 측면의 ‘소비주의’, 경제적 측면의 ‘신자유주의’, 정치적 측면의 ‘기성 정치체제의 위기’가 그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소비주의, 신자유주의, 기성 정치체제의 위기는 사회 구조와 개인 정체성을 모두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다. 구조적 차원에서의 대량 실업과 희망 없는 가난, 개인적 차원에서의 의미 없음과 외로움이 바로 그것이다.<br/><br/>그렇다면 액체 현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바우만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액체 현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권력에 대한 정치의 통제력 회복, 현실에 대해 비판적 사유를 갖는 회의주의적 태도가 그것이다. 특히 마지막 비판적 회의주의의 태도는 일찍이 1980년대에 그가 주장했던 권위적인 ‘입법자’를 넘어선 서로 다른 문화를 해석하고 중개하는 ‘해석자’로서의 시각에 맞닿아 있다.<br/><br/>■액체 현대 이론의 명암<br/><br/>현대란 대략 17세기에 서유럽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온 제도와 문화를 지칭한다. 이러한 현대의 이해와 분석을 둘러싼 토론은 20세기 후반 이후 인문·사회과학의 가장 중요한 논쟁의 하나였다. 논쟁의 초점은 현대에 담긴 질적 변화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 맞춰져 있었다.<br/><br/>다수의 사회이론가들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안에서 단계 구분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세계화와 정보사회의 진전이 가져온 새로운 단계의 제도적 특징을 앤서니 기든스와 울리히 벡이 ‘제2의 현대’로 개념화했다면, 소비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제도적 특징을 바우만은 액체 현대로 이론화했다.<br/><br/>액체 현대 이론의 장점은 사회를 구성하는 두 축인 구조와 정체성의 변화를 날카롭게 분석했다는 데 있다. 이 이론의 매력은 자유와 불안의 동시 증진이 액체 현대의 특징이라는 통찰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액체 현대 이론은 파편화돼 가는 삶에 맞서는 대안의 탐구에서 아쉬움을 갖게 한다. 유동하는 불안과 공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바우만은 비판적 회의주의라는 소극적 태도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br/><br/>앞서 나는 최근 당신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한편으로 자유롭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안하고 두려운 불확실성의 시대가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이러한 시대에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의 실천적 태도를 모색하는 것은 현대인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br/><br/>오늘날 인간다운 삶의 태도를 갖기 위해선 먼저 이 유동하는 시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바우만의 액체 시리즈를 읽어보는 것은 이러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의 하나임이 분명해 보인다.<br/><br/>■한국어판 저작은<br/><br/><액체 현대>는 영문학자 이일수에 의해 <액체 근대>라는 제목으로 우리말로 옮겨졌다. 바우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려면 사회학자 노명우가 우리말로 옮긴 대담집 <사회학의 쓸모: 지그문트 바우만과의 대화>가 유용하다. <br/><br/><br/>■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 비판 - 신자유주의는 개인을 무력화한다…‘능력주의’와 ‘퇴출의 공포’로<br/><br/>바우만의 액체 현대 이론에 대한 비판의 하나는 리처드 세넷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사회학과 교수(73·사진)에 의해 이뤄졌다. 세넷은 바우만이 액체 현대에서 개인의 자유로움이 증진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액체 현대 시대인 신자유주의 아래서 이러한 증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세넷 사회이론은 바우만의 사회이론 못지않게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한 날카로운 사회학적 통찰을 보여준다. 세넷의 문제의식은 신자유주의가 우리 인간성을 부식시키는 체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분석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잘 드러난 두 저작이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원제: The Corrosion of Character, 1998), <뉴 캐피털리즘>(원제: The Culture of the New Capitalism, 2006)이다.<br/><br/><br/><br/>세넷의 신자유주의 비판에서 주목할 두 개념은 ‘능력주의’와 ‘퇴출의 공포’다. <뉴 캐피털리즘>에 따르면, 능력주의란 특별한 능력을 지닌 개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념이었다. 능력사회가 추구한 목적은 신분제적 특권에 맞서 능력을 갖춘 엘리트들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었다.<br/><br/>문제는 최근 새로운 자본주의의 유연 조직들이 재능 및 성장 잠재력을 강조함으로써 한편으론 개인을 독려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개인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무력감이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느낌 또는 생각을 뜻하는 퇴출의 공포로 나타난다는 게 세넷의 분석이다.<br/><br/>능력주의가 강제하는 과도한 경쟁은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그늘이다. 세넷의 사회이론을 우리 사회 현실에 적용해 보면, ‘경쟁에 의한, 경쟁을 위한, 경쟁의 사회’야말로 한국사회의 적나라한 현주소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 가야 할 직장이 없어도 스펙을 빼곡히 늘려야 하는 청년세대,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동료들과 또 다른 경쟁을 벌여야 하는 30대, 그리고 직장에서 은퇴한 다음 치킨집·피자집을 열어도 거기에 또 다른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는 50·60대는 바로 우리 모두의 정직한 자화상이다.<br/><br/>경쟁 없는 사회는 없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파편화하고 결국 부정해 버리는 경쟁체제로는 인간적인 사회를 열어갈 수 없다. 이 점에서 세넷의 신자유주의 비판은 한국사회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작지 않은 함의를 안겨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26.txt

제목: 느끼한 코코넛워터는 가라! 톡톡 튀는 ‘코코스파클’  
날짜: 201609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20175039490  
본문: 최근 코코넛워터가 다이어트 효과를 지닌 ‘천연 이온 음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br/> <br/>코코넛워터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코코넛 열매 안에 들어있는 영양가 높은 투명 주스다. 이는 미네랄, 비타민, 칼륨, 전해질 등 다양하고 풍부한 영양소를 갖췄음에도 칼로리는 낮아 자연수분 보충에 탁월하다.<br/> <br/>이 중에서도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원활하게 해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며 근육 운동이나 혈압, 심박수 등을 조절한다. 여기에 산화 억제제는 암과 심장질환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br/> <br/>이 같은 이유로 운동 전후 저칼로리 다이어트 수분 보충음료로도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나트륨 배출에도 탁월해 이미 미국에서는 운동선수들을 비롯해 많은 유명 인사들의 트렌드 아이템으로 사랑받고 있다.<br/> <br/>코코넛워터는 실질적으로 매니아층의 인기만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 소비자시장에서의 현실이다. 코코넛 특유의 느끼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br/> <br/>이러한 가운데 코코넛워터의 특유의 맛과 향을 잡아주는 음료가 등장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바로 ‘코코스파클’이다.<br/> <br/>코코스파클은 스파클링이 느끼한 코코넛 맛을 잡아주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코코넛 음료의 초기 거부감을 잡아줄 수 있다. 또 과채쥬스로 코코넛워터가 99% 이상 함유돼 있어 코코넛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으며 알루미늄캔에 담겨 냉장보관도 용이하다.<br/> <br/>코코스파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운동 전후 저칼로리 다이어트 수분음료로써 다이어트나 운동을 즐겨 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또 과음 후 수분과 마그네슘, 칼슘이 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충해 숙취해소 효과도 있다</span>”고 덧붙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27.txt

제목: “서울대 학자들의 여유와 향기를 만나보세요”  
날짜: 20160919  
기자: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19211420684  
본문: ㆍ개교 70년 기념 ‘학자 붓을 잡다’ 주제 서화전…교내 우석갤러리<br/><br/><br/><br/>서울대는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전·현직 교수들의 문인화와 서예를 모아 전시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대 미술대 조형연구소는 21일부터 30일까지 ‘학자, 붓을 잡다’를 주제로 서울대 교수 문인서화전을 개최한다. 교수 60명이 출품할 작품 60점은 미술대학 예술복합연구동 우석갤러리에 전시될 예정이다.<br/><br/>전시작품의 절반가량은 작고한 교수의 작품이다. 특히 국어학자 이숭녕 교수(1994년 작고), 수필가 피천득(2007년 작고) 등의 친필이 포함됐다. 이숭녕 교수의 작품으로는 ‘저술등신(저술을 키만큼 해야 한다)’이라는 글자를 원고지에 펜으로 적어 교내 출판부 직원에게 선물한 글이 기증됐고, 피천득 작가는 수필집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에 친필로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는 글을 남겼다. 이숭녕 교수는 생전에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및 대학원장을, 피천득 작가는 영어영문과 교수를 지냈다.<br/><br/>무령왕릉 발굴단장을 맡는 등 ‘한국 고고학의 거목’으로 불렸던 고 김원룡 인문대 교수(1993년 작고)가 크로키풍으로 그린 수묵화 ‘인문대 교수실 풍경’도 전시된다. 교수들이 바둑을 두며 파안대소하는 장면이 담긴 작품이다. 한국 화학공학의 선구자로 지난 3월 타계한 고 이재성 전 공과대학 학장의 풍경화도 걸린다.<br/><br/>각계각층에서 이름을 남긴 서울대 동문들도 작품을 제공했다. 서울시장·한국은행 총재 등을 역임한 조순 전 경제부총리(88)는 서예 글씨를, 암 권위자인 박재갑 국립암센터 석좌교수(68)는 새 한 쌍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그린 동양화를 내놓았다.<br/><br/>이 밖에 서예작품으로 고전 문구 등 다양한 내용을 저마다의 필치로 담은 작품들이 소개된다. 사학자 이병도(1989년 작고), <국어대사전>을 발간한 국문학자 이희승(1989년 작고), 법학자로 고려대 총장을 지낸 유진오 교수(1987년 작고), 생물학자 노정혜 교수(59) 등의 작품이다.<br/><br/>이번 전시회는 최종고 법과대학 명예교수(69)가 은퇴한 교수, 작고한 교수의 유족 등을 직접 접촉해 꾸렸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서울대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서화전에서 독특함과 학문적 여유, 향기를 지닌 서울대 학자상을 만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젊은 교수들, 학생들에게도 아름다운 전통이 계승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28.txt

제목: 빛으로 암세포 파괴하는 신물질 개발  
날짜: 20160919  
기자: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19211318504  
본문: ㆍ울산과기원 권태혁 교수팀, 미국화학회지 9월호에 게재<br/><br/><br/><br/>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는 자연과학부 권태혁(사진)·임미희·이현우 교수 연구팀이 ‘광감각제’와 빛을 이용해 암세포만 골라 파괴하는 ‘광역동 치료’에 효과적인 물질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화학분야 권위지인 미국화학회지(JACS) 9월호에 게재됐다.<br/><br/>‘광역동 치료’는 빛을 받으면 암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만들어 내는 ‘광감각제’를 활용한 치료법이다. 광감각제는 외부에서 빛(에너지)을 받으면 들뜨는 상태가 된다. <br/><br/>광감각제는 빛을 받아 활성화되면서 주변의 산소를 활성산소로 만든다. 활성산소는 암세포 등을 공격해 사멸시켜 암 치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팀은 산소를 활성산소로 잘 만드는 물질인 ‘이리듐’을 이용해 몇 가지 새로운 광감각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실험결과 이 광감각제는 파장이 짧은 파란색이나 녹색 빛보다 파장이 긴 빨간색 빛을 활용한 물질일수록 활성산소를 더 잘 만드는 것을 확인했다. <br/><br/>이번 연구에서는 60초만 빛을 쪼여도 세포 내에서 단백질 사이에교차결합이 이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br/><br/>권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리듐 복합체로 만든 광감각제가 활성산소를 활발하게 만들면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활성산소 에너지가 붉은색에 더 잘 반응하는 것이 증명된 만큼 적외선 같은 붉은빛으로 암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개발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29.txt

제목: [여적]막걸리의 변신  
날짜: 20160919  
기자: 안호기 논설위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19205804991  
본문: 막걸리는 청주를 만들기 전 단계의 술이다. 쌀이나 밀 등 곡물을 쪄서 고두밥을 만들어 누룩과 물을 섞어 발효시켜서 만든다. 발효가 끝난 뒤 술을 거르는 용기를 넣어 술지게미를 모두 제거하고 맑은 술만 떠내면 청주, 술지게미가 일부 포함된 탁한 상태는 막걸리이다. 같은 제조법이지만 현행 주세법상 알코올 13도 미만은 약주, 14~25도는 청주로 구분한다. 청주는 누룩 함량이 1% 이하여야 한다. 막걸리 중에서도 발효과정에서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밥풀이 뜬 상태에서 떠낸 술은 동동주라고 부른다. <br/><br/>2000년대 후반부터 막걸리는 한류를 등에 업고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켰다. 2000년 한국 막걸리를 수입한 나라는 일본과 미국, 호주 등 3개국뿐이었다. 고향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동포들이 89만5000달러어치를 사 갔다.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2011년 막걸리는 세계 35개국에서 5273만달러어치를 수입하는 수출 효자품목이 됐다. 막걸리 효능에 대한 과학적 분석도 잇따랐다. 다양한 유산균과 아미노산, 비타민이 들어있고, 살아있는 효모와 젖산균도 풍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당히 마시면 암과 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br/><br/>이후 막걸리 수출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신제품 연구·개발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전통주 제조업체에서 크림치즈를 첨가한 막걸리를 선보이기로 했다. 막걸리의 부드러움에 크림치즈의 고소함, 탄산의 상쾌함을 더했다는 게 제조업체 측의 설명이다. ‘막걸리+치즈’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지만 앞서 이 회사는 바나나와 복숭아를 첨가한 막걸리로 화제를 모았다. 젊은이의 취향을 반영하고, 외국인 입맛에도 맞도록 막걸리가 변신하고 있다. <br/><br/>막걸리는 대중적인 술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맥주(비어)에 막걸리(탁주)를 섞은 ‘비탁’, 막걸리와 사이다를 섞은 ‘막사’를 즐긴 서민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쌀을 원료로 한 막걸리를 금지해 시민에게 밀막걸리를 마시게 했던 대통령 자신은 10년 넘게 특별 제조한 쌀막걸리를 마셨다. 게다가 죽기 전 술상에는 양주가 놓여 있었다. 막걸리가 연극정치의 도구로도 이용된 것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30.txt

제목: 건강기능식품 소통 협약, 대장암 심방세동 비염 건강강좌 등  
날짜: 20160919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19171009806  
본문: ■건기협-코프럼 전략적 제휴 협약식<br/><br/>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기협, 회장 권석형·오른쪽)와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코프럼, 회장 박태균·왼쪽) 지난 8일 건강기능식품 관련 올바른 정보 소통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br/><br/>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건강기능식품 산업 증진을 위한 관련 기업·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교육·캠페인 등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등 서로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br/><br/>건기협 권석형 회장은 “<span class='quot0'>건기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소비자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두 단체의 협력이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span>”고 말했다.<br/><br/>■강동경희대, 미병(未病) 임상연구 참여자 모집<br/><br/>강동경희대한방병원 사상체질과 황민우 교수팀은 건강인을 대상으로 ‘미병(未病) 변화 파악을 위한 관찰 연구’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 미병이란 병이 되지는 않았지만, 되고 있는 상태 즉 뚜렷하게 병이 없음에도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는 상태를 말한다.<br/><br/>대상은 만35세 이상 44세 이하의 남녀로 최근 2년 이내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정상A 또는 정상B 범위에 있는 경우다. 참여자는 6개월 단위로 2회 방문 검사와 설문에 참여하게 되며 활력징후, 체성분, 심박변이도, 맥파, 혈액검사, 3D 안면촬영, 전문의 체질진단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각 방문 당 소정의 참가비가 지급된다. 단 뇌혈관계, 심혈관계, 면역계 질환자와 임신부, 수유부는 제외된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사상체질과(02-440-6237).<br/><br/>■중앙대병원, 대장암 치료 건강강좌 개최<br/><br/>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중앙관 4층 강의실에서 ‘제9회 대장앎의 날’을 맞아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2007년부터 대장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앎’으로써 대장암으로부터 건강을 지키자는 대국민 인식개선 ‘대장앎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br/><br/>이번 강좌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 대장암 치료의 모든 것’ 주제로 대장에 생기는 다양한 암에 대해 종류별로 나누어 강의한다. 대장암의 빈도와 원인(외과 박병관 교수), 대장암의 내시경적 진단 및 치료(소화기내과 김정욱 교수), 결장암의 수술적 치료(외과 박용검 교수), 직장암의 수술적 치료 및 로봇 수술(외과 김범규 교수), 대장암의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 및 재발성 대장암의 치료(혈액종양내과 황인규 교수), 직장암의 방사선 치료(방사선종양학과 최진화 교수), 대장암에 좋은 음식(영양관리팀 유혜숙 부장) 등이다. 사전 예약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중앙대병원 진료협력팀(02-6299-1157)<br/><br/>■고려대 안암병원, ‘심방세동의 날’ 건강강좌<br/><br/>고려대 안암병원(원장 이기형)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고려대 의과대학 신의학관 2층 유광사홀에서 심방세동을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방세동의 날’ 건강강좌를 개최한다.<br/><br/>나와 심방세동: 나의 문제는?(순환기내과 백용수 교수), 심방세동의 치료법: 왜 환자마자 다를까?(순환기내과 심재민 교수), 심방세동 환자가 피해야 할 생활 습관과 음식:근거가 있나?(순환기내과 노승영 교수), 심방세동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약제: 어디까지 왔나? (순환기내과 최종일 교수), 새로운 시술과 수술법, 그리고 미래는?(순환기내과 이광노, 박희순 교수) 등의 다양한 강연이 이어진다. 참석자들이 직접 김영훈 심혈관센터장과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문의 02-920-5445, 1577-0083)<br/><br/>■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 비염과 만성기침 건강강좌<br/><br/>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김태범·권혁수 교수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알레르기 비염과 만성기침의 최신 치료를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br/><br/>두 교수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되는데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다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꽃가루 등의 원인으로 알려진 알레르기 비염은 봄철보다 오히려 가을철에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통한 개인별 맞춤 치료가 중요하다.<br/><br/>이번 강좌에서는 알레르기 비염과 만성기침의 진단과 최신 치료, 예방법에 대한 명쾌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일반인의 궁금증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문의 02-3010-3051~4)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31.txt

제목: [기타뉴스][오래전‘이날’]9월19일 ‘스트레스’로 죽는 시대  
날짜: 20160919  
기자: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19001705677  
본문: [오래전 ‘이날’]은 1956년부터 2006년까지 매 십년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 합니다.<br/><br/><br/><br/>■2006년 9월19일 ‘스트레스’로 죽는 시대현대의 한국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돈데요.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요즘은 그 정도가 좀 심하다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스트레스가 견디기 힘든 수준이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적어도 10년은 더 된 듯 합니다. 10년 전 경향신문에는 당시 한국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2005년 사망원인 통계’를 소개하면서 당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10년 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살률도 5년 연속 높아져 당뇨병을 제치고 한국인의 ‘4대 사망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고 기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암’과 ‘자살’ 두 가지 모두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미 이때부터 한국인들의 스트레스는 한껏 높아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1996년 9월19일 사망자만 42명20년 전 이맘 때쯤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뭔지 기억 나시나요? 바로 강릉 무장간첩 침투 사건입니다. 20년 전 이날 경향신문에는 이 사건에 관한 기사가 여러 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북한 장교들로 구성된 무장 간첩 20명은 잠수함을 통해 15일쯤 강릉 지역으로 침투했고, 18일 민간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그리고 이날 군경 1만7000명이 수색에 동원돼 1명을 생포했으며 권총으로 자살한 11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도주한 나머지 8명에 대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 잠수함에 탑승했던 북한 측 침투인원은 26명으로 밝혔으며 생포된 1명 외에 나머지 인원은 이후 사살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이들을 추적하고 교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군인 12명과 예비군 1명, 경찰 1명, 민간인 4명이 사망했습니다.■1986년 9월19일 ‘비단옷’ 대신 ‘안테나 달린 자가용’<br/><br/><br/><br/>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이 자동차 한 대 정도는 가지고 있죠. 2~3대씩 가지고 있는 집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3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30년 전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자동차가 50만대를 넘어섰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당시 서울 인구가 1천만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서울 시민 20명 당 1대 꼴이라고 기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의환향의 상징은 ‘비단옷’이 아니라 ‘안테나 달린 자가용’이 돼가고 있다고 평하고 있네요. ■1966년 9월19일 누가 전기자동차를 죽였나요즘 자동차 업계의 화두는 전기자동차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시판에 들어갔고, 다른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 역시 전기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프라에 대한 논의도 하나 둘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는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50년 전 이날 경향신문에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가 공기오염 해소를 위해 ‘전력 엔진’을 개발 중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아직 연구 초기 단계지만 “가동거리·성능·비용에 있어 종래보다 훨씬 개량된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냈다”고 까지 밝혔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기 자동차는 아직 실험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50년이나 걸려서도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물건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문득 ‘누가 전기 자동차를 죽였나’ 라는 책이 생각나네요. 이번에는 아무도 전기 자동차를 죽이지 못하게 해야겠습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32.txt

제목: [하승수의 틈]대권후보에게 ‘로렐’을 권한다  
날짜: 20160918  
기자: 하승수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18210128618  
본문: 현재 한국의 정치인들을 분류한다면, ‘반인권’, ‘비겁’, ‘용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얘기다. 세계적으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동성결혼 또는 그에 준하는 시민결합(civil union)을 인정한 국가의 숫자가 35개국을 넘어서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 동성결혼 법제화는커녕 차별금지법 제정조차도 막혀 있다.<br/><br/>바로 ‘혐오’와 ‘비겁’의 정치 때문이다. 김무성, 박영선 같은 유력 정치인들은 지난 4·13 총선 당시 성소수자에 대해 노골적인 혐오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혐오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보인 정치인들도 많았다. 19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를 스스로 철회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런 식의 정치로 인해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더욱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br/><br/>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인권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뉴스를 검색해보면,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대부분은 성소수자 인권문제나 동성결혼 같은 이슈에 대해 발언하지 않는다. 이런 침묵은 비겁함의 표현일 뿐이다. <br/><br/>그나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한 적이 있는 사람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반 사무총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동성결혼 법제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왔다. 그러나 정작 지난 5월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발언을 하지 않았다. 침묵은 곧 비겁함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구나 그를 대권후보로 영입하겠다는 쪽은 ‘반인권’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이 많은 집단이다. 그가 대권에 눈이 멀어 ‘비겁’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기를 바란다.<br/><br/>가장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그는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한쪽에서는 퀴어퍼레이드 때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해 줬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고, 인권단체로부터는 2014년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서울시민인권헌장 공포를 포기한 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인권변호사였다는 정치인이 이런 문제로 갈팡질팡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인권의 편에 서는 것이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br/><br/>그래서 대권을 꿈꾼다는 분들에게 영화 한 편을 권하고자 한다. 바로 <로렐>이다. <로렐>은 비겁한 정치에 맞서 평등을 이끌어낸 사람들의 얘기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로렐>의 주인공은 미국 뉴저지주 오션카운티의 여성경찰관 ‘로렐’과 그의 동성파트너 ‘스테이시’이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이들의 일상은 로렐이 말기암 판정을 받으면서 깨진다.<br/><br/>23년 동안 경찰관으로 일했던 로렐은 자신의 동성파트너가 자신의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방의회에 청원한다. 그래야만 대출로 장만한 집에서 파트너가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렐이 속해있는 오션카운티의 지방의원들은 ‘반인권’이거나 ‘비겁’에 속하는 부류들이었다. 의회는 로렐의 청원을 거부했다.<br/><br/>그러자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인권활동가들과 주민들, 나중에는 동료 경찰관들까지 나선다. 인권활동가가 의원들 앞에서 외치는 구호는 “<span class='quot0'>당신들에게 힘이 있다(You Have The Power)</span>”라는 것이다. 힘을 얻기 위해 정치를 하는 이들이 ‘나는 결정권이 없다’며 비겁하게 회피하지 말라는 얘기였다.<br/><br/>그러나 그나마 로렐의 얘기에 공감하는 의원조차도 다음 선거를 걱정하며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 죽음을 앞둔 로렐은 이런 지방의원들 앞에서 “<span class='quot1'>내가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평등한 대우</span>”라고 말한다. 결국 ‘비겁’에 속하던 의원들이 동성파트너에게도 연금이 승계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영화는 끝난다. 그리고 로렐이 죽은 후, 그녀가 주장했던 ‘평등’은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면서 미국에서 정착되기 시작했다.<br/><br/>로렐이 외친 평등은 어느 곳에서나 필요하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입법되어야 한다. 이것은 유엔인권이사회가 권고해 온 사항이다. 동성커플들이 실제로는 가족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법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 같은 나라도 동성결혼을 법제화했다. 합리적인 문명국가라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br/><br/>부디 내년 대선에서는 대선후보들의 ‘비겁함’이 대한민국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동성애는 지지(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 타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인정과 존중의 대상일 뿐, 지지나 반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대권을 꿈꾼다면 <로렐>을 보기 바란다. <로렐>을 보고, 평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서 볼 수도 있고, 주변 측근들과 ‘공동체 상영’ 방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힘을 가지려 하기 이전에, 용기부터 가지기를 권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33.txt

제목: [하승수의 틈]대권후보에게 ‘로렐’을 권한다  
날짜: 20160918  
기자: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18145001131  
본문: 현재 한국의 정치인들을 분류한다면, ‘반인권’, ‘비겁’, ‘용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얘기다. 세계적으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동성결혼 또는 그에 준하는 시민결합(civil union)을 인정한 국가의 숫자가 35개국을 넘어서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 동성결혼 법제화는커녕 차별금지법 제정조차도 막혀 있다.<br/><br/>바로 ‘혐오’와 ‘비겁’의 정치 때문이다. 김무성, 박영선 같은 유력 정치인들은 지난 4·13 총선 당시 성소수자에 대해 노골적인 혐오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혐오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보인 정치인들도 많았다. 19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를 스스로 철회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런 식의 정치로 인해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더욱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br/><br/>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인권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뉴스를 검색해보면,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대부분은 성소수자 인권문제나 동성결혼 같은 이슈에 대해 발언하지 않는다. 이런 침묵은 비겁함의 표현일 뿐이다. <br/><br/>그나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한 적이 있는 사람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반 사무총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동성결혼 법제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왔다. 그러나 정작 지난 5월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발언을 하지 않았다. 침묵은 곧 비겁함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구나 그를 대권후보로 영입하겠다는 쪽은 ‘반인권’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이 많은 집단이다. 그가 대권에 눈이 멀어 ‘비겁’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기를 바란다.<br/><br/><br/><br/>가장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그는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한쪽에서는 퀴어퍼레이드 때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해 줬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고, 인권단체로부터는 2014년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서울시민인권헌장 공포를 포기한 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인권변호사였다는 정치인이 이런 문제로 갈팡질팡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인권의 편에 서는 것이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br/><br/><br/><br/>그래서 대권을 꿈꾼다는 분들에게 영화 한 편을 권하고자 한다. 바로 이다. 은 비겁한 정치에 맞서 평등을 이끌어낸 사람들의 얘기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의 주인공은 미국 뉴저지주 오션카운티의 여성경찰관 ‘로렐’과 그의 동성파트너 ‘스테이시’이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이들의 일상은 로렐이 말기암 판정을 받으면서 깨진다.<br/><br/>23년 동안 경찰관으로 일했던 로렐은 자신의 동성파트너가 자신의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방의회에 청원한다. 그래야만 대출로 장만한 집에서 파트너가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렐이 속해있는 오션카운티의 지방의원들은 ‘반인권’이거나 ‘비겁’에 속하는 부류들이었다. 의회는 로렐의 청원을 거부했다.<br/><br/>그러자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인권활동가들과 주민들, 나중에는 동료 경찰관들까지 나선다. 인권활동가가 의원들 앞에서 외치는 구호는 “<span class='quot0'>당신들에게 힘이 있다(You Have The Power)</span>”라는 것이다. 힘을 얻기 위해 정치를 하는 이들이 ‘나는 결정권이 없다’며 비겁하게 회피하지 말라는 얘기였다.<br/><br/>그러나 그나마 로렐의 얘기에 공감하는 의원조차도 다음 선거를 걱정하며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 죽음을 앞둔 로렐은 이런 지방의원들 앞에서 “<span class='quot1'>내가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평등한 대우</span>”라고 말한다. 결국 ‘비겁’에 속하던 의원들이 동성파트너에게도 연금이 승계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영화는 끝난다. 그리고 로렐이 죽은 후, 그녀가 주장했던 ‘평등’은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면서 미국에서 정착되기 시작했다.<br/><br/>로렐이 외친 평등은 어느 곳에서나 필요하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입법되어야 한다. 이것은 유엔인권이사회가 권고해 온 사항이다. 동성커플들이 실제로는 가족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법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 같은 나라도 동성결혼을 법제화했다. 합리적인 문명국가라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br/><br/>부디 내년 대선에서는 대선후보들의 ‘비겁함’이 대한민국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동성애는 지지(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 타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인정과 존중의 대상일 뿐, 지지나 반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대권을 꿈꾼다면 을 보기 바란다. 을 보고, 평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서 볼 수도 있고, 주변 측근들과 ‘공동체 상영’ 방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힘을 가지려 하기 이전에, 용기부터 가지기를 권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34.txt

제목: 명절 맞아 집안 문제 논의하던 모녀 음독, 모두 사망  
날짜: 20160918  
기자: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18092947331  
본문: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모인 집안에서 암 투병 중인 노모와 50대 딸이 독극물을 마시고 숨졌다.<br/><br/>17일 오후 10시 42분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서 ㄱ씨(74)와 그의 딸(50)이 독극물을 마시고 쓰러졌다. <br/><br/>이들 모녀는 함께 있던 가족들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br/><br/>ㄱ씨는 홀로 살며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고, 딸은 외국에 살며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br/><br/>추석 연휴를 맞아 ㄱ씨 집에 모인 자녀들은 당시 술을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하며 집 수리와 부모의 생활비 등을 의논하던 중이었다. <br/><br/>여수 경찰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대화 도중 어머니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작은방에 들어가 독극물을 마셨고, 딸이 병을 빼앗아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span>”고 밝혔다. <br/><br/>경찰은 가족 진술을 바탕으로 대화 도중 언쟁이 붙어 우발적으로 음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35.txt

제목: [공감]부디 ‘무사 추석’ 되시길  
날짜: 20160913  
기자: 한지혜|소설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13184725093  
본문: 지난여름 엄마는 담도암 4기 판정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수술은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아니 수술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했다. 그렇게 말이 바뀌더니 마침내 수술 불가 통보를 받았다. 절대 수술만은 받지 않겠다던 엄마를 겨우 설득해 놓은 참이었다. 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해야만 한다던 수술이 왜 갑자기 할 수 없는 수술이 됐는지,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이유를 묻는 나에게 의사가 대답했다. “투자 가치가 없잖아요.”<br/><br/>물론 그 전에 다른 말도 했다. 노인이 견디기에는 워낙에 위험이 따르는 대수술이라는 점,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암이라는 점 그러므로 완치가 불가능한 암과 싸우며 투병의 고단함으로 남은 생을 보내는 것보다 평소처럼 일상을 유지하며 남아 있는 날을 보내는 것이 삶의 질을 생각할 때도 좋을 거라는 권유였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단어를 선택하는 방식은 옳지 않지만, 아니 매우 잘못됐지만 그가 말한 선택의 기준은 어쩌면 그보다 우리가 먼저 선택했을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는 환자 자신에게 달려야 하는 것 아닐까. 투자 가치라는 말이 귀에 자꾸 남았다. 엄마가 십 년만 더 젊었어도 가치가 달라졌을까. 엄마가 VIP 병동에 입원한 재벌의 안주인쯤 되었으면 가치가 달라졌을까.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걸까.<br/><br/>의사를 만나고 나온 이후, 나는 알 수 없는 그 가치의 눈으로 세상 모든 것이 보인다. 세상이 가치 밖으로 내놓은 이들이 보이는 것이다. 이를테면 세월호의 엄마·아빠들. 7월에 인양된다던 배는 바닷속에서 산산이 조각나고 있고, 진상 규명은 점점 요원해지는데 어찌해볼 방법이 없어 목숨을 걸고 단식을 시작했는데, 신문이나 방송에는 이들의 단식이 보도되지 않는다. 이들의 목숨은 무엇을 위해 걸든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대법원에서 산재가 아니라고 판정난 삼성전자의 백혈병 피해자들도 생각한다. 기업이 결국 증명하고 싶었던 건 산재가 아니라는 점일까 아니면 노동자들에게는 그 무엇도 보상해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br/><br/>엉뚱한 비약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겁던 페미니즘 논쟁도 떠오른다. ‘여혐’이라는 말 자체에 혐오를 보이던, 일부 남성들의 문제를 일반화시켜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고 반발하던 남성분들은 올해 추석상에 올릴 전은 좀 부치셨는지 궁금하다. 여혐과 명절 노동은 전혀 다른 종류의 가치라서 함께 말하면 안 된다고 할까.<br/><br/>세상이 나의 가치를 결정할 때, 나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건지 폭염 속에서 내내 고민했지만 여전히 답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답을 찾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엄마는 퇴원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황달 처치 시술만 했는데도 어느 때보다 컨디션이 좋다. 비관도 절망도 그렇다고 섣부른 희망도 없이 엄마는 당신이 살던 방식 그대로 곱게도 밉게도 하시며 하루하루를 사시는 중이다. 엄마를 보면, 그렇게 내가 나를 믿는 만큼 사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br/><br/>이 글을 쓰는 동안 남쪽에서는 두 번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 관측상 가장 큰 지진이라는데, 재난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 이들에게 위험에 내버려 두어도 좋은 가치 밖의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우리에게 안녕을 묻고 다행을 기원한다면 위험은 해도 쓸쓸하지는 않을 것 같다. 추석이다. 올해의 보름달은 조금 모자란 보름달이라고 한다. 지구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틀만 더 기다리면 만월이 된다. 부디 우리의 안녕도 그러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다소 모자라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오고야 마는 그런 안녕이기를. 부디 무사 추석 되시라.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36.txt

제목: 충칭 하이푸사 공식파트너 선정된 서울하이케어의원  
날짜: 201609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13152620926  
본문: 하이푸 장비 제조사 충칭하이푸는 하이푸 연구기관으로 서울하이케어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br/> <br/>충칭하이푸는 123개 국제적 특허를 보유한 기술력으로 양성 및 악성종양의 비수술방식의 치료 메디컬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br/> <br/>충칭하이푸 메디컬센터는 서울하이케어의원의 하이푸 치료 기술력과 하이푸 활성화를 위한 여러 활동의 공로를 인정해 하이푸 병원 중 처음으로 충칭하이푸 메디컬센터 인증 연구병원으로 선정 후 지정패를 전달했다.<br/> <br/>서울하이케어의원은 자궁근종, 자궁선근증과 같은 자궁종양과 함께 암으로 진단되는 악성 종양 등을 비수술 및 비침습방식의 치료를 위해 설립된 하이푸 특화 병원이다.<br/> <br/>서울하이케어의원 대표 김태희원장은 대한민국 하이푸 1세대 의료진으로 하이푸 국내도입을 시작한 2011년부터 1500사례 이상의 하이푸 임상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br/> <br/>서울하이케어의원은 하이푸 치료의 미비한 위험성까지 보완할 수 있는 하이푸 시스템을 개발해 자궁질환 환자들에게 부담없이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br/> <br/>서울하이케어의원 김태희원장은 "더욱 안전하고 강력한 치료효과의 하이푸 시술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자궁질환을 넘어 더 다양한 질환분야에 하이푸 시술을 대중화 시키는데 주력, 환자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br/> <br/>오차없는 치료와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검사를 통한 진단과 30여년 경력의 산부인과 전문의와 하이푸 트레이닝닥터 외과전문의 협진을 통한 자궁질환 치료가이드, 자궁건강을 고려한 사전·사후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하이푸 치료를 설계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37.txt

제목: 서울바른내과, 오는 28일 개원…소화기내과 진료 및 건강검진센터 운영  
날짜: 201609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13095707257  
본문: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에 위치한 서울바른내과가 오는 28일 개원을 앞두고 있다.<br/><br/>서울바른내과는 소화기내시경 세부 전문의인 이광욱 대표원장을 주축으로 진료가 진행되며 위, 대장내시경(당일 용종절제술 가능) 등 소화기내과 진료와 건강검진센터를 함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br/><br/>위, 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은 내시경 클리닉에서 진행되며 이외 내시경클리닉에서는 수면내시경, 역류성 식도염 치료, 소화성 궤양 치료 등이 이뤄진다.<br/><br/>건강검진센터에서는 보험공단검진, 종합건강검진, 암검진, 채용검진, 초음파검사, 골다공증검사 등을 진행한다.<br/><br/>식도염, 위염, 장염, 대장증후군 등 각종 내과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지며 복부초음파, 경동맥초음파 등의 초음파검사와 독감, A형 간염, B형 간염, 폐렴구균 등에 대한 예방접종도 진행된다. 그 외에도 현대인들을 위한 숙취해소 클리닉, 만성피로 영양클리닉, 비타민 클리닉 등이 운영된다.<br/><br/>이광욱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소화기내과 병원으로서 각종 내과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 의료진이 진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부족함 없는 의료서비스로 지역민들의 건강 지킴이가 될 것을 약속한다</span>”고 개원소감 및 목표를 밝혔다.<br/><br/>한편, 이광욱 대표원장은 내과전문의이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소화기내시경 세부 전문의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등에서 평생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38.txt

제목: ‘30년 골초’ 2019년부터 폐암 무료 검진  
날짜: 20160912  
기자: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12231014438  
본문: ㆍ국가암관리 종합계획 확정<br/><br/><br/><br/>30년간 하루에 담배 1갑 이상씩 피운 55~74세 고위험 흡연자는 2019년부터 폐암 조기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말기 암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제도가 확대되고, 암 생존자들을 위한 후속 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br/><br/>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2016~2020년)을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인구 10만명당 285.7명인 암 발생률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70.3명으로 낮출 방침이다. <br/><br/>우선 정부는 폐암 검진을 국가암검진에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폐암은 사망 원인 1위(22.8%)인 암으로, 5년 생존율이 23.5%밖에 되지 않는다. <br/><br/>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55~74세 고위험 흡연자 8000명을 대상으로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을 전국 8개 지역암센터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19년에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r/><br/>건강보험료 하위 50%의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국가암검진을 받은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의료비가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암 확진을 받으면 무조건 3년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또 현재 위암과 대장암에만 해당되는 확진 검사 비용 지원이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도 확대 적용된다. <br/><br/>또 말기 암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가정형’과 ‘자문형’ 호스피스가 내년 8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가정형’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자문형’은 일반병동에 입원 중인 말기 암 환자에게 호스피스팀이 찾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br/><br/>소아 호스피스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매년 3000여명의 소아·청소년이 질병으로 사망하며, 이 중 호스피스가 필요한 중증 만성질환자는 1000명 내외(암 환자 300명 포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현재 14%에 머물고 있는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이용률을 2020년까지 2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br/><br/>12개 권역별로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구축하는 등 137만명에 달하는 암 생존자에 대한 후속 지원도 강화된다. <br/><br/>암 생존자란 암 진단 후 5년 이상 생존한 사람들을 말한다. 암 환자들은 암 자체 외에도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을 겪게 될 확률이 높고, 사회·심리적으로도 복합적인 어려움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다. 소아암 생존자는 소아·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39.txt

제목: 폐암환자, "증상관리를 중시하라"  
날짜: 201609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12141139146  
본문: 체내 장기는 통점이 없다.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병세가 깊어진뒤 질병을 알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 폐암도 그렇다.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 뼈나 뇌로 전이된 폐암 4기가 되어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깝다. 보통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받게 되지만 폐암 4기처럼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하면서 보존적인 목적의 폐암 치료를 시행한다.<br/><br/>다행히 최근 표적 항암제 개발 등으로 인해 폐암 생존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폐암 환자들도 더 이상 진단을 곧 사형선고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단, 항암 치료를 오랜 기간 지속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 항암 치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고령이라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암으로 인해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라 방사선이나 항암치료를 견디기 힘들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br/><br/>성신 한의학 박사(소람한방병원 호흡기암센터)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항암은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반응률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전이를 막거나 이미 진행된 암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항암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br/><br/>그러나 항암 치료 후 환자들은 탈모나 빈혈, 구토, 오심, 설사 변비 등으로 체력이 저하되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폐가 방사선에 노출되면 마른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세도 나타나고 방사선 폐렴으로 진행되면 폐 손상 및 폐 섬유화 등의 후유증 등으로 고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br/><br/>항암 치료 외에도 폐암 환자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폐암에 따른 증상들이다. 폐암 환자의 75% 이상은 잦은 기침, 호흡곤란 객혈을 경험하며, 1/3 이상은 심한 흉부통증을 동반해 진통제를 복용해야만 견딜 수 있다.<br/><br/>성신 박사는 “환자가 고령이거나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체력이 약해져 있다면 먼저 체력과 면역력을 길러 환자 스스로 폐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폐암은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말기증상, 재발 방지, 통증 관리 등 다양한 증상 관리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40.txt

제목: "은퇴 후 '넉넉한 생활비'는 288만원...최소 생활비는 193만원"  
날짜: 20160912  
기자: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12105844417  
본문: 비은퇴자가 생각하는 은퇴 후의 ‘넉넉한 생활비’는 월 288만원이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생활비는 월 19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br/><br/>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은퇴준비 현황과 인식, 은퇴 후 생활모습 등을 조사·분석한 백서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6’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백서는 2012년부터 격년마다 발간되고 있으며 올해는 25~74세 2271명(비은퇴자 1771명,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재무·건강·활동·관계 영역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br/><br/>조사 결과 중 ‘재무영역’을 보면, 은퇴자들의 월 생활비는 월 190만원으로 나타났다. 50대 은퇴가구 월 생활비가 22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179만원, 70대는 145만원 순이었다.<br/><br/>은퇴가구 중 35%는 은퇴 후 생활비 부족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현재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는 은퇴가구는 33%에 불과했다. <br/><br/>은퇴가구의 36%는 보유자금이 노후생활에 부족하다고 답했다.<br/><br/>실제 은퇴자들의 월 평균 생활비 190만원은 비은퇴자들이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에 가깝다. 비은퇴자 응답자가 생각하는 은퇴 후 최소 생활비는 193만원, 부족함이 없는 생활비는 288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br/><br/>비은퇴자 다수가 ‘월 288만원’의 여유 있는 생활을 꿈꾸는 것과 달리 실제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는 비은퇴자 비율은 49%였고 월 저축액은 평균 53만원에 그쳤다.<br/><br/>게다가 비은퇴가구의 12%는 3층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중 어떤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br/><br/>‘건강 영역’ 조사결과를 보면, 비은퇴자 대다수가 은퇴 후 필요한 의료비를 실제보다 적게 예상하고 있었다.<br/><br/>비은퇴자 응답자는 은퇴 후 의료비를 ‘300만원 미만’이라고 예상했으나 65세 이상 월 평균 진료비는 실제 360만원에 이른다.<br/><br/>나이가 많을 수록 암보험보다는 장기간병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많았으나 노후 간병 리스크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의 5%도 되지 않았다.<br/><br/>‘활동 영역’ 조사에선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은퇴자가 84%로 나타났다. 이미 은퇴한 응답자의 57%도 일자리를 갖고 싶다고 답했다.이들은 일자리를 갖고 싶은 이유로 ‘생활비 마련 및 생계유지’(42%)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24%) 등을 꼽았다.<br/><br/>은퇴자들이 주로 즐기는 여가활동은 ‘친목모임’이며 자기계발이나 봉사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은퇴자들이 은퇴 후 즐기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 ‘취미생활’ ‘운동 및 건강관리’ 순으로 집계됐다.<br/><br/>‘관계영역’ 조사에선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동반자 관계인 부부관계를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은퇴 후 생활에 대해 대화를 함께 한 부부는 결혼생활이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이 61%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는 45%만 같은 대답을 했다.<br/><br/>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윤원아 책임연구원은 “<span class='quot0'>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 노후준비에 대한 실행은 매우 미흡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노후 준비는 단시간에 준비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 활동기부터 준비가 필요하며,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건강, 일과 여가, 타인과의 관계 등 여러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은퇴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41.txt

제목: 한의협 “거꾸로 가는 국가암관리 종합계획…한의약 필(必) 포함돼야”  
날짜: 20160912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12105127910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2일 “<span class='quot0'>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가 암관리 종합계획에 암환자 치료 및 인프라, 연구 부분에 한의학 분야가 배제돼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br/><br/>협회에 따르면 제3차 국가 암관리 종합계획에는 6개 분야 22개 과제에 대한 내용이 담겼지만 한의학과 관련한 치료연구,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br/><br/>김 회장은 “<span class='quot0'>이번 계획에서 암연구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한의학 연구와 협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span>”이라고 밝혔다.<br/><br/>미국의 경우 MD앤더슨, 존스홉킨스,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기관에서 모두 한·양방 협진을 진행하고 있다.<br/><br/>MD앤더슨 암센터와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는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침술은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오심, 구역, 통증, 신경증, 구강건조, 안면홍조, 림프부종, 피로 등에 효과적’이라고 표방했다.<br/><br/>존스홉킨스의 경우도 통합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를 인용하여 ‘침 치료는 통증과 자가면역질환, 인지장애, 피부질환, 피로, 소화기질환, 부인과질환, 난임, 불면, 근골격계질환, 신경학적질환, 호흡기질환 등 35개 이상의 질병에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br/><br/>일본 역시 국립암연구소 내 병태생리연구부의 주요 업무로서 항암제 부작용 경감을 위해 다양한 한약처방을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br/><br/>일본국립암연구소는 200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암환자 병태생리연구를 통해 육군자탕과 반하사심탕, 억간산 등의 한약을 활용하여 암환자의 항암제 부작용을 줄이고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한약의 메커니즘 분석에 열중이다.<br/><br/>반면 한국의 경우 국립암센터에조차 한의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번 종합계획에서 밝힌 국립암센터 역할 강화 부분에도 한의학 치료와 관련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의협의 지적이다.<br/><br/>협회는 “세계 최고의 동양의학(한의학) 인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계 트렌드에 역행하며 암관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의학은 고려하지 않는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42.txt

제목: 가습기 살균제 참사 기록 '엄마 숨이 안 쉬어져3' / 떠나간 아이들, 빼앗긴 행복  
날짜: 20160910  
기자: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lt;빼앗긴 숨&gt; 저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10105309362  
본문: 대전에 사는 김동국씨(가명)는 온 가족이 피해자다. 가습기 살균제라는 악마에 2007년 아들을 잃었다. 1차 피해신고 때 숨진 아들과 큰딸을 신청해 2014년 3월 숨진 아들은 1단계, 큰딸은 2단계 판정을 각각 받았다. 김씨 부부와 아내가 임신 때 노출돼 태어났던 막내딸도 2014년 2차 때 피해신고를 해 2015년 딸은 2단계, 부부는 함께 3단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사실상 전 가족이 피해자 내지 잠재적 피해자인 셈이다.<br/><br/>김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가입한 카페모임에서 ‘유찬 아빠’로 통한다. 카페에서는 실명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가운데 어린아이가 많다 보니 숨졌거나 다행히 목숨을 건진 아이 이름을 앞에다 붙여 ‘○○ 아빠’ ‘○○ 엄마’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카페라는 사이버공간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프라인 모임이나 시위, 행사 때에도 어른들의 실제 이름을 서로 부르지 않고 ‘○○ 아빠·엄마’라고들 부른다.<br/><br/><br/><br/>부모로서의 심한 죄책감에 시달려<br/><br/>이들이 실명을 잘 쓰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들이 사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 때문에 타인과 지인들에게 비극을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의 동정적 시선이 있더라도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그런 죄책감을 느낀다. 사건이 발생한 지 짧게는 4년, 길게는 10여년이 되었는데도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도 이런 감정과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다. 이 사건이 세월호 등 다른 참사나 사망사건에 견줘 그 성격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 심정을 지니고 있는 이중성 말이다. 또 하나는 실명이 나가면 오랜 사회생활을 해 친구와 지인이 많은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안부와 위로 전화를 해오는 사람이 많다. 이들에겐 이조차도 상당한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아물어 가던 마음의 상처가 뇟속 망각창고의 문을 열고 나와 분노와 슬픔의 광장을 다시 휘젓고 다니며 활개를 친다. 안부와 위로, 그리고 격려는 주는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받는 사람에게서는 우울과 분노, 슬픔으로 나타난다.<br/><br/>유찬이 아빠는 사건 초기였던 2012~201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세상에 알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한데 묶는 등 각종 모임과 행사, 시위 때 그 누구보다도 최전선에서 열정을 바쳐 활동했던 사람 가운데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다. 나와도 매우 친숙한 사이였다. 2013년 1차 피해신고를 받은 뒤 정부(질병관리본부) 조사 때 내가 직접 대전으로 내려가 그의 가정환경노출조사를 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왜 피해자 활동을 잘 하지 않는지가 궁금해 이유를 물었다.<br/><br/>“생업에 바쁘기도 하고(그는 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름대로 피해자 활동을 한다고 힘을 쏟았으나 별로 얻은 소득도 없다 보니 지친 면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 활동을 하면서 서로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면 욱하거나 상대방에게 심한 언사를 퍼붓는 등 피해자 간 융합이 쉽지 않아 서로에게 상처를 준 일도 제법 있었는데, 그런 일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br/><br/>유찬이네 집에서 가습기와 가습기 살균제를 쓰게 된 계기는 여느 가정과 똑같았다. 가을 이후에는 실내가 건조하고 매스컴 등에서는 가습기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세균이 남아있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다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가 선명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이라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눈에 들어왔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구입해 사용했다. ‘귀찮은 청소 끝, 세균 걱정 끝’을 생각했다. 첫딸을 얻은 뒤 3년 만인 2006년 3월 태어난 아들 유찬이는 그해 가을 10월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그렇게 해서 노출됐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가습기 살균제를 들이마셨다. 2007년 1월부터 아이가 자주 기침을 했다.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자 동네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원인을 몰랐다. 아이는 눈 뜨고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야위어갔다. 젖병도 제대로 빨지 못할 정도가 됐다. 대전 을지대학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켰다. 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제 힘으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대로 두었다간 곧 죽을 것만 같았다. 결국 2월에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옮겼다. 의사는 부모들이 처음 들어본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내렸다. <br/><br/>아이들 모두 1, 2단계 판정 받아<br/><br/>병원 의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요즘 이런 아기들이 너무 많아서 의사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원인은 모르겠는데 어떤 바이러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아이는 차도가 없었다. 한 번 망가진 폐는 결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습기 살균제는 숨을 더 빼앗아갔다. 빼앗긴 숨이 많을수록 아이는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그러고는 돌이 지난 뒤 3개월 5일 만에 부모 품을 영영 떠났다.<br/><br/>유찬이 아빠는 죽은 아이를 더는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살아 있는 두 딸이 있기 때문이다. 아들 상태가 워낙 위중해 처음에는 아들에게 모든 힘을 쏟았다. 큰딸이 유찬이를 끔찍이도 좋아해 다시 아기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2년 지나 2009년 예쁜 딸을 또 얻었다. 그런데 엄마가 막내딸을 가졌을 때도 또 가습기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는 바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됐다. 혹시 하고 신고를 했고 설마 하며 판정 결과를 기다렸다. 그런데 큰딸에 이어 둘째딸마저 폐에 섬유화 흔적이 남아있다고 했다. 2단계 판정이 나왔다. <br/><br/>요새는 2단계 판정을 받은 아이들 건강 걱정을 할 때가 많다. 2015년 초에 서울아산병원에 가서 소아청소년과에서 두 딸이 진료를 받은 데 이어 지난 8월 1년 6개월 만에 피해자 모니터링의 하나로 진찰을 받은 결과 호흡기능이 정상적 범위이기는 하지만 비정상 범위와의 경계선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두 아이가 올 겨울방학 때 다시 건강상태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br/><br/>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된 막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다. 또래에 견줘 키와 몸집이 작다. 체력도 별로 좋지 않다. 건강이 걱정돼 이것저것 많이 먹이려고 늘 애쓴다. 효과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도 답답해 주변에서 권유하는 성장치료를 한의원에서 받기도 했다. 아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실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과 제품의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정부 탓이기는 하지만, 늘 마음 한 구석에 미안한 마음을 지닌 김씨 부부로서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이다.<br/><br/>김씨는 또 지금은 이이들의 호흡기능이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은 아니어서 안도하고 있긴 하지만 커 가면서 다른 장기에 어떤 악영향이 나타날지 걱정을 할 때가 많다. 암과는 관련이 없는지,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한 민간건강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는지, 가해기업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두 딸이 앞으로 겪을 사소한 질병이나 감기 치료도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위에 대해 잘 몰라 자꾸 신경이 쓰인다. <br/><br/>김씨 가족은 어른은 모두 3단계 판정을 받았지만 아이들은 모두 1단계와 2단계 판정을 받아서 완전 만족을 하지는 않지만 판정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지는 않았다. 유찬이 아빠는 같이 활동하던 피해신고자 가운데 3단계와 4단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떠올리면 콕 집어서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판정과 관련해 정부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br/><br/>“피해 원인이 밝혀진 지 무려 5년이 지났음에도 3차 피해 신고자마저 폐질환에 국한해 판정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1·2단계 피해 판정자와 3·4단계 피해판정자 모두에 대해서 폐 이외 질환 판정을 이른 시일 안에 합리적으로 해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생계대책을 세워주어야 합니다.”<br/><br/>딸은 떠났지만 딸이 남긴 각막 기증 <br/><br/>김씨의 두 딸처럼 2016년 8월 말 현재 정부에 피해신고를 해 판정을 받은 695명 가운데 인과관계 측면에서 ‘가능성 높음’의 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는 87명으로 12.5%이다. 1단계 175명의 절반 수준이다. 김씨처럼 피해자 모임에서 늘 선두에서 열심히 일했던 박승철씨(가명)도 2005년 4월에 태어난 딸을 2006년 6월에 잃었다. 그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 및 홈플러스 제품이었다. 지금 딸 인서는 이 땅에 없지만 딸이 남긴 각막은 기증돼 이 땅 어느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인서도 2단계 판정을 받았다.<br/><br/>2006년 3월 지인의 돌잔치에 딸을 데려가던 날 갑자기 인서의 입술이 파래지고 기침을 해대기 시작했다. 비극의 징조는 갑작스레 나타나 손쓸 틈도 주지 않고 석 달 만에 가정을 무너뜨렸다. 대학병원에까지 아이를 데려갔지만 생명을 지키기에는 당시로서는 역부족이었다. 인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가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것이 헝클어졌다. 둘째아이를 그 뒤 낳았지만 행복한 가정은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피해자 모임과 행사에서 단연 눈에 띄는 활동가·행동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13년과 2014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울부짖었다. 현재 가습기 피해자와 가족모임의 대표로 있는 강찬호씨와 김씨, 박씨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초기 모임과 조직을 이끈 삼두마차였지만 이제 강씨만 새로운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다. <br/><br/>피해자 가족 가운데는 의료계 종사자들도 제법 있다. 강찬호 대표의 부인도 간호사이고, 둘째아들을 2009년에 떠나보낸 김방신씨도 간호사 출신이다. 김씨의 남편은 공무원이다. 2006년 지은 지 3년 된 인천의 한 새 아파트에 살다가 비극을 맞았다. 롯데마트에서 2개 묶음으로 싸게 팔던 기획상품인 롯데와이즐렉 제품을 주로 구입해 사용했다. 2006~2011년에 피해를 입은 가정 가운데 대형마트에서 앞다퉈 팔던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죽음의 나락으로 빠진 이들이 많았다. 2013년 내가 그녀의 가정환경조사를 했을 당시에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사용하다 남은 가습기 살균제와 영수증이 없었지만 꼼꼼하게 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을 구매해 사용했는지 오랫동안 가계부에다 꼼꼼하게 써놓았다. 그런 덕분인지 1차 조사 때 둘째아들 성민이는 2단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2단계 판정을 받아 소송과 정부 피해구제에서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됐다. 모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운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턱걸이 단계에 해당하는 2단계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운이 좋다고 볼 수 있다. <br/><br/><br/><br/> " target=\_blank> 피해단계 판정 어떻게 이루어지나<br/><br/>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은 등급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계로 판정이 이루어진다. 그동안 많은 미디어와 인터넷에서 1등급, 2등급 식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보도해온 것은 잘못된 것이다. 등급은 한우 등급이나 농약의 독성 등급처럼 품질이나 독성의 정도를 이야기할 때 쓴다. <br/><br/>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등급이 아닌 단계라는 표현을 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판정불가로 나눈다. 여기서 단계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호소하는, 또는 드러난 증상의 인과관계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1단계는 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는 가능성 높음, 3단계는 가능성 낮음, 4단계는 가능성 거의 없음을 뜻한다. 판정불가는 신청한 뒤 서류를 내지 않거나 생존자의 경우 검사를 받지 않은 신고자에게 내린다. 판정은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와 사용 정도 등 환경 노출을 별도로 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자료, 조직병리자료, 임상 결과 등도 각각 따로 판정을 한 뒤 나중에 이를 종합해 인과관계 정도를 최종 판정한다. 질병의 위중도와는 관련이 없다. 현재까지는 폐손상에 대해서만 판정을 내리는데, 내년에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도 판정을 새로 내릴 때는 판정 과정이나 결과 등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3단계와 4단계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폐손상과의 인과관계 고리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target=\_blank><br/><br/> 저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43.txt

제목: "직장암 4기도 완치 만병통치약"…노인·암환자 등친 사기단 검거  
날짜: 20160909  
기자: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09141704836  
본문: 일반 가공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노인 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br/><br/>서울 성동경찰서는 건강식품업체 대표 윤모씨(56) 등 5명을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br/><br/>성동구에 사무실을 차린 윤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경품을 미끼로 노인들을 모아놓고 누에고치 추출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br/>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5만원인 제품을 약 7배인 99만원에 판매해 3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압수한 매출 장부에 적힌 판매량만 3032상자에 달했다. <br/><br/>윤씨는 암 환자 등 지인을 끌어들여 “<span class='quot0'>직장암 4기에 전립선 암까지 있었는데 완치됐다</span>”고 거짓으로 홍보토록 했다. 판매원으로 활동한 이들에게는 한 달에 30만~200만원의 수당을 줬다.<br/><br/>약효를 맹신한 한 노인은 지병인 당뇨병 치료를 거부하다가 대상포진에 걸리기도 했다. 피해 가족이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윤씨 일당의 범행이 꼬리를 밟혔다. <br/><br/>경찰은 노인을 상대로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44.txt

제목: 고지혈증 개선과 치료에 '폴리코사놀' 효능 주목  
날짜: 20160909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09081131423  
본문: 영남대학교 단백질센서연구소가 주최한 제3회 단백질센서연구소 국제심포지엄이 8일 서울에서 열렸다.<br/><br/>제5회 국제동맥경화학회의 후원행사로, 지단백질(LDL, HDL) 기능 향상과 고지혈증 치료 및 혈관 기능 개선 식의약품의 원료인 폴리코사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전개됐다. 한국, 쿠바, 프랑스, 일본, 미국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고지혈증뿐 아니라 항산화(노화 및 암 예방 등)와 심·뇌혈관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폴리코사놀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br/><br/>이날 발표내용에 따르면, 기존 고지혈증 치료제의 단점인 콜레스테롤 합성 차단에 따른 부작용, 간독성, 근육독성 등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혈중 콜레스테롤을 내리면서 HDL(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HDL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약물은 아직 개발 중이고, 상용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폴리코사놀 등 HDL 콜레스테롤을 올리면서 항산화 기능이 우수한 방법들이 새로운 의약품, 기능성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br/><br/>영남대 단백질센서연구소장 조경현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폴리코사놀 섭취에 의해 증가된 HDL은 항산화 활성이 우수했다</span>”고 말했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두뇌세포의 증식과 췌장 세포에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 혈관 경직도의 완화 등 동맥경화와 당뇨 등의 심뇌혈과 질환을 개선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45.txt

제목: IBM 인공지능로봇 왓슨 “길병원에서 암 치료 도와요”  
날짜: 20160908  
기자: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08220548785  
본문: IBM의 인지컴퓨팅 시스템 ‘왓슨’(사진)이 가천대 길병원에서 암 치료를 지원한다.<br/><br/>의사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의료 정보를 학습해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 방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br/><br/>IBM과 가천대 길병원은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길병원이 ‘왓슨 포 온콜로지(종양학)’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유방암, 폐암, 대장암, 직장암 및 위암 치료에 도입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난치성 신경질환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인 왓슨을 통해 의료진은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 검토가 이뤄진 연구결과와 임상 가이드라인, 전문가 소견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br/><br/>로버트 메르켈 IBM 왓슨 헬스종양학 및 유전학 글로벌 총괄 사장은 “<span class='quot0'>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지식은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 따라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왓슨 포 온콜로지는 300개 이상의 의학학술지, 200개 이상의 의학 교과서를 포함해 거의 1500만페이지에 달하는 의료정보를 이미 학습했으므로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span>”고 덧붙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46.txt

제목: (사)대한암협회, ‘더 캔서(THE CANCER)’ 창간  
날짜: 201609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08132645061  
본문: 대한암협회가 암 전문 매거진 매거진은 암 진단으로 인한 케어를 받아야 하는 암 환자들, 그리고 암에 관련된 전문가들, 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br/><br/> 매거진에서는 대한암협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암에 대한 정보를 환자들이 얻을 수 있으며, 암 환자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로 빠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소개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의 기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br/> <br/>이와 더불어 대한암협회는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암 환자들을 위한 365일 어시스트 캠페인’을 진행한다.<br/><br/>‘암 환자들을 위한 365일 어시스트 캠페인’은 대한암협회 제13대 노동영 회장의 올해 추진 캠페인으로 암을 극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이나 신체적인 면에 도움을 주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다.<br/><br/>또한 암으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며, 암 환자들이 빠른 사회복귀는 물론, 암 환자를 보는 사회적 시선을 바꾸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사회 부적응을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br/><br/> 매거진을 창간한 대한암협회 노동영 회장(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원장)은 “암도 재난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의 구호를 해야 한다. 매거진의 창간은 이런 재난을 당한 암 환자들이 사회적인 시선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바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한암협회의 ‘365일 어시스트 캠페인’을 암 환우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미디어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br/><br/>이어 “ 매거진은 각종 암에 관한 최신 정보는 물론, 치료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담아내고 있다. 암협회가 추진하는 ‘365일 어시스트 캠페인’의 의미와 프로그램을 알리고 암 환자와 가족, 암전문의, 그리고 일반인은 물론 정부와의 소통기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암 전문 분야의 리딩 매거진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br/><br/> 매거진은 전국 병원에서 볼 수 있으며, 구독을 원하신다면 대한암협회 홈페이지 또는 홈페이지의 구독신청을 하면 받아볼 수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47.txt

제목: 암 보험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입 방법은?  
날짜: 201609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08113602141  
본문: 2014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암은 사망 원인 1위로 전체의 28.6%를 차지한다.<br/>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6%였으며, 남자(78세)는 5명 중 2명(38.3%), 여자(85세)는 3명 중 1명(35.0%)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br/><br/>의학의 발달로 암 환자의 생존률과 생존기간이 늘어나면서 암치료 비용과 간병비 부담도 크게 증가하여 중증암에 걸릴 경우 치료비와 간병비가 수천만원에 이르고 치료기간도 수년 동안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br/><br/>이처럼 암 발병율과 암 치료기간이 늘어나면서 암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br/><br/>그러나 암 보험은 각 회사마다 보장해주는 범위와 진단금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 각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br/><br/>먼저 보장하고 있는 암의 종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특정 종류의 암에 대해 가입 금액의 일부만 진단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유방암, 자궁암과 남성에게 많은 전립선, 방광암, 남녀생식기, 대장점막에 발생되는 암을 다른 일반 암과 같은 조건으로 보상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br/><br/>또 암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뉘는데 보험료가 인상되는 갱신형 보다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암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암은 50대 이후에 발병률이 높아지는 만큼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설정하는 것이 좋다.<br/><br/>최근에는 각각의 많은 상품들을 모아 비교하기 쉬운 온라인 보험몰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비교하고 검토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것으로 가입을 하면 된다.<br/><br/>온라인 보험비교사이트 ‘올뉴인슈‘ 관계자는 "많은 회사와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비교사이트는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에게 맞는 맞춤형 상품 설계도 가능하며,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오프라인 가입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48.txt

제목: 세계 최초 안면이식 여성 11년 만에 사망  
날짜: 20160907  
기자: 구정은 기자 ttalgi2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07210526729  
본문: ㆍ이식 거부반응으로 투약 생활 <br/>ㆍ약으로 합병증 ‘암’ 생겨 사망<br/><br/><br/>2005년 12월 당시 38세의 프랑스 여성 이자벨 디누아르가 장 미셸 뒤베르나르 박사가 이끄는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성공하자 세계는 놀라움 속에 찬사를 보냈다. 영화에 나올 법한 ‘페이스 오프(Face Off)’ 수술이었기 때문이다.<br/><br/>디누아르는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가 기르던 개에게 얼굴을 물려 심하게 다쳤다. 코와 입술은 거의 손상됐고 잇몸과 아래턱이 다 드러날 정도였다. 당시 의료진은 뇌사자로부터 코와 뺨, 입술 부위 피부 조직을 가져와 이식했다.<br/><br/>수술을 주도한 뒤베르나르 박사는 1976년 유럽에서 최초로 췌장 이식수술에 성공하고 1998년에는 손, 2000년에는 팔 이식을 세계 최초로 해낸 이식 전문가였다. 수술 중 감염 위험은 피해갔지만 뒤베르나르 박사가 가장 걱정한 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면역 거부반응이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얼굴이 차차 회복되고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된 디누아르는 수술 석 달 뒤 “<span class='quot0'>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얼굴을 갖게 됐다</span>”며 기뻐했다. 디누아르를 시작으로 미국, 스페인, 터키 등에서 30건 넘게 안면 이식수술이 이어졌다.<br/><br/>그러나 디누아르는 ‘역사적인’ 수술이 이뤄진 지 11년 만에 사망했다. 일간 르피가로는 6일(현지시간) 디누아르가 지난 4월22일 49세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사인은 이식 뒤에 일어난 거부반응이었다. 이식된 부분의 거부반응 탓에 입술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됐고, 거부반응을 없애려 약을 먹어야 했다. 하지만 약 때문에 결국 암이 발병했다.<br/><br/>BBC는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지만 결국 면역력이 떨어졌고 암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수술과 이후 치료를 맡아온 아미앵 병원은 디누아르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망자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49.txt

제목: 흡연 사망자 교통사고의 10배  
날짜: 20160907  
기자: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07161445049  
본문: “<span class='quot0'>흡연이 교통사고보다 더 위험합니다</span>” <br/><br/>보건복지부는 추석을 앞두고 금연 광고 2편을 TV와 라디오에 송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 지상파 등에서 방송되는 ‘교통사고 편’은 흡연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 갑자기 폭발이 발생해 유리창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장면을 담았다. 광고에서 흡연자는 아스팔트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담배를 손에서 놓지 못한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1'>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10배 이상 많다는 메시지를 통해 흡연의 위험성을 알릴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실제 연구결과에 나타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2년 5만8155명으로 국토부가 통계 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5392명보다 10배 이상 많다.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은 남성의 경우 80%, 여성은 50%가 흡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50.txt

제목: 세계 최초 '안면 이식' 수술받은 여성, 거부반응·암에 11년 만에 사망  
날짜: 20160907  
기자: 구정은 기자 ttalgi2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07023219001  
본문: 2005년 12월 당시 38세였던 프랑스 여성 이자벨 디누아르가 장 미셸 뒤베르나르 박사가 이끄는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았다. 이 수술이 성공했을 때 세계가 놀라움 속에 찬사를 보냈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과 같은 ‘페이스 오프(Face Off)’ 수술이었기 때문이다. 것. 물론 영화에서처럼 멀쩡한 사람 2명의 얼굴을 맞바꾸는 전면 이식은 아니지만, 의학적으로 위험도가 높은데다 윤리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얼굴 이식 수술이었다.<br/><br/>두 아이의 엄마였던 디누아르는 당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가 기르던 개에게 얼굴을 물려 심하게 다쳤다. 코와 입술은 거의 손상됐고 잇몸과 아래턱이 다 드러날 정도였다. 당시 아미앵과 리용 병원 팀으로 구성된 공동의료진은 수술을 위해 프랑스 북부 발렌시엔느의 병원에 있던 뇌사자를 릴의 병원으로 옮긴 뒤 코와 뺨, 입술 부위의 피부 조직을 분리했다. 분리된 조직을 약 100㎞ 떨어진 아미앵의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했다. <br/><br/>수술을 주도한 뒤베르나르 박사는 1976년 유럽에서 최초로 췌장 이식수술에 성공했으며 1998년에는 손 이식 수술을 했었고 2000년에는 팔 이식을 세계 최초로 해낸 유명한 이식 전문가였다. 집도 당시 프랑스의 하원의원이기도 했다. 베테랑 의사인 그가 가장 걱정한 것은 조직 이식 때 일어나는 면역 거부반응이었다. 수술 중 감염 위험은 피해갔지만 자칫 환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라 논란이 일었다. 얼굴이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측면의 위험성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았다. 일부 언론에서 디누아르가 자살을 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은 것이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은 더 가열됐다.<br/><br/>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얼굴이 차차 회복되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디누아르는 수술 석달 뒤 “<span class='quot0'>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얼굴을 갖게 됐다</span>”며 기뻐했다. 그 뒤에도 디누아르의 모습이 이후 몇 차례 매스컴에 소개됐으며 미국, 스페인, 터키, 중국,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30건 넘게 안면 이식 수술이 이어졌다. 2009년에는 BBC에 출연해 “거울을 볼 때마다 기증자와 내 얼굴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기증자는 늘 나와 함께 있다”며 기증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br/><br/>‘역사적인’ 수술이 이뤄진 지 11년만에 디누아르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일간 르피가로는 6일(현지시간) 디누아르가 지난 4월 22일 49세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역시 문제는 이식 뒤에 일어난 거부반응이었다. 이식된 부분의 거부반응 탓에 입술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됐고, 거부반응을 없애려 약을 먹어야 했다. 하지만 약 때문에 결국 암이 발병했다. <br/><br/>영국 BBC방송은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지만 결국 면역력이 떨어졌고 암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수술과 이후 치료를 맡아온 아미앵 병원은 디누아르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망자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디누아르가 오랜 투병 끝에 숨을 거뒀다고만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51.txt

제목: 교통법규 위반 단속 ‘암행순찰차’ 전국 확대  
날짜: 20160905  
기자: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05223318698  
본문: 경찰이 지난 3월 도입돼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 중인 암행순찰차를 전국으로 확대 운용한다.<br/><br/>경찰청 교통국은 ‘암행순찰차 전국 확대 시행 발대식’을 열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북부간선도로 등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 1대,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 21대 등 모두 22대의 암행순찰차를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br/><br/>암행순찰차는 평소에 일반 차량처럼 운행하다 전용차로 위반, 난폭·보복운전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경광등과 전광판, 사이렌을 켜고 정체를 드러낸다. 암행순찰차는 보닛과 양쪽 문에 부착된 경찰 마크를 제외하면 일반 차량과 다르지 않아 경찰차량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어렵다.<br/><br/>경찰은 1단계로 3~6월 경부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 2대를 배치했다. 7~8월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영동·서해안·중부내륙고속도로에 8대를 추가 배치해 10대로 2단계 시범운용을 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3%, 사망자 수는 62.5% 감소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52.txt

제목: 맘모톰, 유방암 조기검진을 담당하다  
날짜: 201609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05105647044  
본문: 지난달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2015년 유방암에 대한 진료비 지급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유방암 진료 인원은 지난 2011년 10만4천293명에서 2015년 14만1,379명으로 35.6% 증가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조기검진을 통해 유방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환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br/><br/>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생존율이 높은 질환 중 하나로, 자가 검진과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울을 통해 육안으로 유방의 크기, 모양 변화, 유두의 함몰 부종 등을 관찰하는 자가 검진은 유방암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방외과에서 유방 촬영술, 초음파검사 등으로 조기 검진을 받도록 한다. <br/><br/>또한 검진을 통해 이상이 발견됐을 때는 유방 조직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직 검사에서 혹이 발견되는 등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술을 받도록 한다. 유방 혹의 위치와 크기, 개수를 고려해 흉터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는 맘모톰 시술이 있다.<br/><br/>맘모톰은 3mm 이하의 작은 절개만을 통해 조직을 채취, 시술 후 봉합이 필요 없어 유방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 또 외과 수술만큼 암 진단 정확도가 높아 신뢰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며 시술 후에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지만 첨단 장비 및 다수의 시술 경험 및 실력이 있는 의료진을 찾아가 시술을 받아야 안전하다. <br/><br/>광명 맘스유외과 유호 원장은 “<span class='quot0'>과거에 비해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져 검진을 위해 유방외과를 찾는 여성들이 많아졌다</span>”며 “<span class='quot0'>검진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실력이 검증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span>”고 조언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53.txt

제목: ‘임신 중 음주는 위험’ 술병 경고문구에 표기  
날짜: 20160902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02205033320  
본문: 21년 만에 변경된 음주 경고문구가 3일부터 적용된다.<br/><br/>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용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정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br/><br/>이전의 고시에는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경고문구 중 1가지에만 임신 중 음주 위험성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br/><br/>경고문구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등 총 3가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54.txt

제목: 수원 정형외과 버팀병원, 오는 5일 개원  
날짜: 201609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02163155782  
본문: 버팀병원이 지난 2014년 8월 4일 오산에 첫 개원한 이후 약 2년 만인 오는 5일 수원 버팀병원 2호점을 개원한다.<br/><br/>이번에 문을 열게 되는 수원 정형외과 버팀병원은 망포역 3번 출구와 연결된 쉬운 접근성으로 골든스퀘어 건물 서관(2층~6층)에 위치한다.<br/><br/>관절센터(박준수, 이동현), 척추센터(손정희), 내과센터(김인성), 영상의학센터(김신기), 마취통증의학센터(김은진) 등의 진료센터를 두고 있으며 특성화 센터로 스포츠재활 의학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스포츠재활 의학센터에서는 척추도수치료, 운동재활치료, 근력강화 동수치료 등이 이뤄지게 된다.<br/><br/>전 센터에서는 국내 대학 병원의 임상 교수직을 역임한 전문의가 원장을 맡고 있으며, 인공관절수술, 척추 수술 등 고난이도 수술에 있어 수 천례 이상 집도한 경험 많은 의료진의 협진 진료가 이루어지게 된다.<br/><br/>건강검진센터에서는 내과•건강검진을 일반건강검진(공단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종합건강검진, 국가 5대 암검진, 학생건강검진 등으로 세분화하고 확장해 실시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거리가 먼 지역에 사는 환자들을 위해 건강검진 차량을 이용한 출장 검진도 시행한다.<br/><br/>버팀병원 박준수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비수술 중점 진료 및 연구실적과 실력이 입증 된 전문 의료진의 책임진료를 통해 믿을 수 있는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줄기세포치료는 물론 까다로운 재수술까지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관절, 척추 등 전 분야에 배치되어 지역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55.txt

제목: 암 투병 아내 60번째 생일에 함께 떠난 부부  
날짜: 20160901  
기자: 이종섭·배명재 기자 nomad@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901215051534  
본문: 1일 오전 11시쯤 전남 순천시 서면의 한 야산에서 ㄱ씨(68) 부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br/><br/>ㄱ씨 부부는 전날 ㄱ씨 아들의 실종 신고를 받고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발견됐으며, 나무에 나란히 목을 매 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br/><br/>ㄱ씨의 아들은 어머니의 60번째 생일이었던 지난달 31일 오후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자 퇴근 후 ㄱ씨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았다 집 안에서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br/><br/>폐암을 앓고 있던 ㄱ씨의 아내는 두 달 전쯤 암세포가 뇌로 전이돼 수술을 받았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br/><br/>경찰은 ㄱ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마지막으로 포착된 휴대전화 신호를 토대로 현장 주변을 수색하다 숨져 있는 이들을 발견했다.<br/><br/>경찰은 ㄱ씨 부부가 건강 문제로 고민하다 함께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56.txt

제목: 비만은 많이 먹고 게을러서 생긴다?  
날짜: 201608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31111751851  
본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 건강검진 빅데이터 1억 건을 분석한 결과, 활동력이 왕성한 20~30대 젊은 층에서 초고도비만이 12년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br/><br/>일반적으로 뚱뚱한 사람을 보면 많이 먹고 게으를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은데, 비만을 단순히 개인적인 생활 습관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실제로 비만은 불규칙한 식습관, 고열량 음식선호, 운동량 부족 등의 생활상의 원인과 함께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1996년 세계보건기구(WTO)에서는 이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br/><br/>비만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바라봐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비만이 초래할 수 있는 '합병증' 때문이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대사증후군’인데,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혈당상승, HDL콜레스테롤 저하, 중성지방 상승, 혈압 상승 중 3개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다. 대사증후군 환자는 당뇨병, 심혈관질환, 뇌졸중, 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br/><br/>또한 비만은 단순히 현상 자체로만 그치지 않고 여러 질환을 유발하며, 결국에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현재 체중의 5~10kg만 줄여도 외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수축기 혈압 10mmHg, 이완기 혈압은 20mmHg가 낮아지고, 공복 시 혈당은 50%, 중성지방은 30%가 감소한다. 또한 당뇨병과 관련된 사망률은 30%, 암관련 사망률은 40% 감소되며, 전체 사망률 역시 20%나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br/><br/>비만 탈출을 결심했지만 매번 반복되는 다이어트 실패와 요요현상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만을 안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식습관, 운동,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 비만 치료의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비만치료 전문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br/><br/>대구에서 10여 년 이상 비만 관련 질병만을 연구·치료해 대구비만의 대명사가 된 제일에스병원 서정열 대표 원장은 "비만은 정확한 원인과 개인의 몸 상태 등을 복합적으로 파악한 후 그에 적합한 처방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서 원장은 이어 “<span class='quot1'>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체중감량은 몸에 무리를 주고, 빠른 요요현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충분한 임상 경험을 갖춘 전문의를 통한 꾸준한 진료 및 유지관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span>”라며 “<span class='quot1'>개인의 환경에 적합한 다이어트 계획을 수립해야 건강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접근은 필수</span>”라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57.txt

제목: 관절과 척추 치료, 지역 거점 병원 필요성 높아져  
날짜: 201608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30155330841  
본문: ‘현대인의 병’이라고 불리는 척추질환이나 관절질환이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흔히 알고 있는 ‘허리디스크’나 ‘척추측만증’ 등이 이에 속하며, 각종 질환이 발병되는 원인에는 패턴이 있다.<br/><br/>척추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자세’인데, 특히 장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청소년들의 구부정한 자세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사용하는 습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및 성인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1.1%, 청소년층의 중독률은 이보다 더 한 18.4%에 이른다.<br/><br/>주로 성장기에 나타나는 척추측만증의 경우 지속적인 관찰과 교정,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 선택 시에는 방문이 쉽고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관절 및 척추질환 진료를 중점으로 전문의가 다수 포진한 지역별 거점 병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br/><br/>이런 상황에서 수원에 척추, 관절, 내과/건강검진 수원 버팀병원이 9월 개원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 버팀병원은 척추, 관절, 내과/건강검진 등 다양한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해 진료과목을 세분화했다. 복합질환을 앓는 환자를 위해 과목별 전문의들의 협진도 유연하게 진행된다.<br/><br/>또한 최첨단 줄기세포 치료와 고난도 재수술 등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척추 및 관절 분야 치료를 진행, 환자들의 치료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더불어 스포츠 재활 의학센터에서는 척추도수치료와 운동재활치료, 근력강화 도수치료를 진행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도모한다.<br/><br/>내과 센터 역시 건강검진 분야를 확장해 일반 건강검진(공단검진)은 물론, 생애전환기 검진, 종합건강검진, 국가 5대암검진, 학생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차량을 통한 출장 건강검진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br/><br/>관계자는 “<span class='quot0'>오산에서 환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은 버팀병원이 수원에도 개원하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전했다.<br/><br/>한편, 수원 버팀병원은 망포역 3번 출구 연결통로에 위치한 골든스퀘어 건물 서관 2~6층에 위치한다. 9월 5일 오픈할 예정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58.txt

제목: 대법 "삼성 반도체 공장 '백혈병 피해자' 3명 산업재해 아니다"  
날짜: 20160830  
기자: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30111426611  
본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노동자의 유족과 투병 중인 피해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br/><br/>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고 황민웅씨의 아내 정애정씨(39)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br/><br/><br/><br/>앞서 이번 소송을 낸 피해자 측은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이숙영·황민웅씨와 투병 중인 김은경·송창호씨 등 모두 5명이었다. 이들은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br/><br/>이들은 “삼성전자 기흥·온양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이후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숨졌으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1·2심은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일한 황유미·이숙영씨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들이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사용한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고 본 것이다.<br/><br/>반면 엔지니어로 기흥사업장에서 일한 황민웅씨와 온양사업장에서 일한 김은경·송창호씨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br/><br/>2심 판결 이후 피고였던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지 않아 황유미·이숙영씨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확정됐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한 황민웅씨 아내 정씨와 김은경·송창호씨는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br/><br/>대법원은 2심처럼 황민웅·김은경·송창호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span class='quot0'>이들이 담당한 공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해당 질병을 유발했거나 그 진행을 촉진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span>”고 밝혔다.<br/><br/>이날 대법 판결 직후 황민웅씨 아내 정씨는 “삼성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고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대법원이 이처럼 연관성이 없다고 판결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반도체 공정은 원룸과 같은 공정이라 유해물질이 다른 공정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삼성의 얘기는 거짓말이다. 진실을 말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삼성이다”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59.txt

제목: 18면 / 단신  
날짜: 20160829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29162408320  
본문: ■한국먼디파마, 지노베타케어 플로럴 출시<br/><br/>한국먼디파마는 29일 “<span class='quot0'>자연 유래 성분의 폼 타입 여성청결제 ‘지노베타케어™ 플로럴’ 출시와 함께 여성청결제 시장 1위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br/><br/>회사 측에 따르면 지노베타케어™ 플로럴은 여성의 민감 부위 케어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제품으로, 자연 유래 성분의 삼중케어 포뮬러가 부드럽고 순하게 Y존을 세정해주는 폼 타입의 데일리 여성청결제다. 세정 시 여성 민감 부위의 냄새 완화와 함께 피부를 보호하고 진정시켜 준다.<br/><br/>파라벤(방부제), 벤조페논, 트리클로산, 실리콘, 색소, 동물성 원료 등 6가지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으며 제조국인 독일에서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저자극성 제품이다. 독일 수입 완제품으로 100ml와 200ml 두 가지 용량으로 출시되었으며, 제품은 현재 마트와 주요 온라인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품 판매처 검색 등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노베타케어™ 홈페이지 (www.gynobetacare.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br/><br/>■아주대병원, 9월 한달간 3회 암교육강좌<br/><br/>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는 9월 ‘대장암 예방의 달’을 맞아 암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암 교육강좌를 세 차례 진행한다.<br/><br/>이번 행사에서는 암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9월13일 11시,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 암환자의 스트레스 관리(9월20일 14시, 정신건강의학과 김남희 교수), 대장암 예방과 최신치료(9월22일 15시, 소화기내과 임선교 교수) 강의를 통해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최신 의학정보를 제공한다. 누구나 행사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사전에 반드시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전화신청 및 문의: 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 ☎ 031-219-7142><br/><br/>■서울백병원, 9월 6일 ‘두통 치료하기’ 건강강좌 개최<br/><br/>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9월 6일 오후 2시, 충무아트홀(서울 중구 신당동) 1층 컨벤션센터에서 ‘두통도 병이다! 두통 치료하기’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br/><br/>반복되는 두통이 있음에도 그러려니 하고 무심코 지나치거나 잘못된 자가진단 및 자가치료로 정확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 심각한 질환의 진단이 늦어지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두통이 있는 경우 신경과 전문의 등 의사의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br/><br/>이번 강의는 서울백병원 신경과 정재면 교수가 병원 진료가 필요한 8가지 두통 위험신호에 대한 설명과 두통 증상에 따른 치료방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강의에 앞서 혈당, 혈압 등 건강상담도 이뤄진다. 문의 전화: 02-2270-0534 (백병원 홍보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60.txt

제목: 곤지름(콘딜로마) 방치하면 치료 어려워져, 근원 치료 필수  
날짜: 2016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29151233891  
본문: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그리고 빨라진 성관계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확대로 ‘곤지름(콘딜로마, 성기 사마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br/><br/>남녀의 외성기에 많이 발생하는 양성 종양인 곤지름은 생활상의 불편함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대표적인 난치성 피부질환이다. 다른 피부 질환과는 달리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원인이기 때문에 재발이 잦고 치료가 까다로워 환자들의 고통이 큰 편이다.<br/><br/>곤지름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는 전염력이 강해 한 번의 성 접촉만으로도 절반 이상이 감염될 수 있다. 병원체가 몸에 들어와 발병되기까지 평균 3~4개월, 길게는 6개월의 잠복기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관계가 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경로지만, 환자와 성기 접촉 또는 손 등의 다른 신체부위 접촉으로도 전염될 수 있다.<br/><br/>곤지름 증상으로는 일단 발병하면 외음부뿐 아니라 질이나 항문 주변 또는 자궁 입구에도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사마귀 또는 닭벼슬 모양의 돌기가 생겨난다. 초기에는 사마귀 모양을 하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작은 닭벼슬 같이 변하고, 크기도 다양해진다. 곤지름은 부드럽고 건드리면 쉽게 피가 난다. 병소에 이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되면 냄새가 나고 냉이 많아지며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br/><br/>곤지름은 모양이 특징적이어서 진단이 쉽다. 일반적으로 육안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며, 때에 따라 2기 매독인 편평 콘딜로마와 감별하기 위해 매독 반응검사를 하기도 한다. 또한 암과 구별하기 위한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br/><br/>치료법에는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 등이 있는데, 약물치료의 경우 재발 우려가 높아 완전한 치료를 위해 수술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수술적 치료법에는 전기 소작법, CO2 레이저 등을 이용해 병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br/><br/>청량리 더원외과 외과전문의 이동원 원장(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은 “<span class='quot0'>레이저 치료는 다양한 사이즈의 성기 사마귀를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레이저 치료를 통해 병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는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가다실 처방을 하게 된다</span>”라고 전했다.<br/><br/>곤지름은 감염되지 않은 한 사람의 파트너와만 성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감염 후 치료를 받은 사람이라도 규칙적인 성병검사와 암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61.txt

제목: 여성청결제 출시, 대장암 건강강좌 등  
날짜: 20160829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29112116511  
본문: ■한국먼디파마, 지노베타케어 플로럴 출시<br/><br/>한국먼디파마는 29일 “<span class='quot0'>자연 유래 성분의 폼 타입 여성청결제 ‘지노베타케어™ 플로럴’ 출시와 함께 여성청결제 시장 1위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br/><br/>회사 측에 따르면 지노베타케어™ 플로럴은 여성의 민감 부위 케어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제품으로, 자연 유래 성분의 삼중케어 포뮬러가 부드럽고 순하게 Y존을 세정해주는 폼 타입의 데일리 여성청결제다. 세정 시 여성 민감 부위의 냄새 완화와 함께 피부를 보호하고 진정시켜 준다.<br/><br/>파라벤(방부제), 벤조페논, 트리클로산, 실리콘, 색소, 동물성 원료 등 6가지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으며 제조국인 독일에서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저자극성 제품이다. 독일 수입 완제품으로 100ml와 200ml 두 가지 용량으로 출시되었으며, 제품은 현재 마트와 주요 온라인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품 판매처 검색 등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노베타케어™ 홈페이지 (www.gynobetacare.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br/><br/>■아주대병원, 9월 한달간 3회 암교육강좌<br/><br/>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는 9월 ‘대장암 예방의 달’을 맞아 암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암 교육강좌를 세 차례 진행한다.<br/><br/>이번 행사에서는 암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9월13일 11시,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 암환자의 스트레스 관리(9월20일 14시, 정신건강의학과 김남희 교수), 대장암 예방과 최신치료(9월22일 15시, 소화기내과 임선교 교수) 강의를 통해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최신 의학정보를 제공한다. 누구나 행사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사전에 반드시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전화신청 및 문의: 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 ☎ 031-219-7142><br/><br/>■서울백병원, 9월 6일 ‘두통 치료하기’ 건강강좌 개최<br/><br/>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9월 6일 오후 2시, 충무아트홀(서울 중구 신당동) 1층 컨벤션센터에서 ‘두통도 병이다! 두통 치료하기’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br/><br/>반복되는 두통이 있음에도 그러려니 하고 무심코 지나치거나 잘못된 자가진단 및 자가치료로 정확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 심각한 질환의 진단이 늦어지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두통이 있는 경우 신경과 전문의 등 의사의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br/><br/>이번 강의는 서울백병원 신경과 정재면 교수가 병원 진료가 필요한 8가지 두통 위험신호에 대한 설명과 두통 증상에 따른 치료방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강의에 앞서 혈당, 혈압 등 건강상담도 이뤄진다. 문의 전화: 02-2270-0534 (백병원 홍보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62.txt

제목: 암 선고 미국 할머니, 대륙 횡단 여행 1년째  
날짜: 20160825  
기자: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25155548221  
본문: ㆍ페북친구 42만명…“계속 여행”<br/><br/><br/>90대 할머니가 미국 대륙 횡단 여행을 떠난 지 1년을 맞았다. 미시간주에 살던 노마 바우어슈미트(91·사진)는 자궁암 진단을 받은 뒤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항암 치료 대신 이 여행을 택했다. 인생의 마지막 여행에 붙인 이름은 ‘드라이빙 미스 노마’다.<br/><br/>바우어슈미트는 24일(현지시간) 페이스북 페이지 ‘드라이빙 미스 노마’를 통해 아들 내외와 함께 캠핑카에 몸을 싣고 미시간 북동부 프레스크아일의 집을 떠난 지 1년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아들 팀과 며느리 라미, 강아지 링고와 함께 차를 타고 1년 동안 미국 전역을 누볐다. 32개 주 75개 도시, 2만1000㎞를 여행했다.<br/><br/>키 152㎝, 몸무게 45㎏의 암 투병 중인 할머니가 장거리 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 의사는 말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인생의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머니는 페이스북에서 ‘여행에서 어디가 가장 좋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바로 이곳”이라고 답한다. 이번 여행에서 처음 경험해 본 일도 수두룩하다. 열기구 타기, 승마, 네일케어는 아흔 평생 처음 해 봤다. <br/><br/>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사람이 42만3000명을 넘어섰고 할머니는 어느새 유명인사가 됐다. <br/><br/>할머니의 건강은 아직 괜찮다. 여행 계획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날씨를 보고 그때그때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난다. 할머니는 삶이 끝나는 날까지 여행을 계속할 생각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63.txt

제목: [사설]지분 허위공시는 중대 범죄, 롯데 일벌백계 필요하다  
날짜: 2016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24205852783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분을 허위로 공시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허위공시는 ‘자본시장의 암’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공시는 투자자가 기업의 실상을 파악하고 투자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개 자료이다. 허위공시는 기업 정보를 왜곡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한다. 악용한다면 거짓 정보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고, 공시를 그대로 믿는 누군가는 손실을 떠안게 된다. 실제로 대여금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며 허위공시를 했던 중국원양자원은 최근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소송 ‘악재’와 유상증자 ‘호재’ 공시로 주가는 급등락했다. 그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손에 넣은 소수 투자자는 매매기회를 포착해 차익을 얻은 반면, 공시만 보고 투자한 대부분은 손실을 봤을 것이다.<br/><br/>공정위가 지난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대상으로 공시 위반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위반회사 비율이 43%에 이른다. 롯데그룹이 43건으로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았다. 위반 비율이 전년보다 소폭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허위공시는 끊이지 않는다. 적발돼도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공시를 위반한 롯데 계열사 21곳에 부과된 과태료는 평균 645만원에 그쳤다. 계열사 지분을 허위공시한 신 총괄회장은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최대 1억원의 벌금만 내면 된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신세계, 이마트 등의 차명주식 827억원어치를 보유했다가 지난해 11월 실명 전환했다. 차명주식 보유는 곧 그동안의 지분공시가 허위였으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회장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 경고가 전부였다. <br/><br/>허위공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피해도 막을 수 있다. 국회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롯데그룹처럼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지분을 허위로 신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지분현황을 허위로 공시할 경우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달러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허위공시를 뿌리 뽑지 않는 한 공정한 자본시장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64.txt

제목: 고주파온열암치료, 제4암치료법으로 주목  
날짜: 2016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24115943404  
본문: 제4암치료법으로 '온열암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온열암치료는 고주파 열 자극을 인체에 가함으로써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치료법이다. 정상 세포보다 열에 민감한 암세포만을 괴사시키는 원리로, 정상적인 조직에는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br/><br/>국내에서 온열암치료에 사용하는 장비는 총 3가지로 온코써미아, 셀시우스, BSD-2000 등이 있다. 온코써미아와 셀시우스는 전류형, BSD-2000은 안테나 형인데 이 중 안테나형인 BSD-2000가 유일하게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SD-2000은 75-120MHz의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신체 내부에 있는 깊은 부위의 고형암에 온열을 전달시키는 장비다. 이에 대해 염창환병원의 대표원장인 염창환 박사는 “<span class='quot0'>특히 복부와 간 담도, 골반 및 생식기 부위의 종양 치료에 효과를 보인다</span>”라고 전했다.<br/><br/>염 박사는 “셀시우스는 환자의 체중이나 체형에 관계없이 3초 이내에 종양 부위에 자동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반면, BSD-2000은 종양이 위치한 부분에 타겟을 설정하고 자동으로 SAR 패턴을 계산해서 환자 치료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셀시우스는 뛰어난 열 효과로 환자의 몸 속 심부조직까지 42℃ 이상의 열을 올려주는 반면, BSD-2000은 종양 치료 부위의 온도와 열 체크가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는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br/><br/>염 박사는 지난 2013년 셀시우스를 이용한 고주파온열암치료에 대한 교육을 독일에서 받았다. 지난해에는 의료진들과 미국 필라델피아 Cancer Treatment Center of America (CTCA) 에서 BSD-2000을 이용한 고주파온열암치료 교육을 이수했다. 그 이후로 셑시우스와 BSD-2000을 모두 구비한 고주파온열암치료 전문 센터를 독자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암 환자들에 있어 고주파온열암치료의 최대 효과를 나타내고자 노력하고 있다.<br/><br/>한편, 염창환 박사는 오는 9월 3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한림제약 본사에서 ‘제3회 암 희망콘서트’의 첫 번째 연사로 나서 최근 고주파온열암치료의 호전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65.txt

제목: 세포 이동 방향 결정하는 ‘방향타 단백질’ 발견  
날짜: 20160823  
기자: 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23040359432  
본문: 국내연구진이 세포가 이동할 때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타 단백질’을 발견했다. 또한 빛을 이용해 세포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데 성공했다. <br/><br/>기초과학연구원(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허원도 그룹리더(KAIST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진은 22일 “<span class='quot0'>세포 내 GEF(Guanine-nucleotide exchange factor)단백질 중 하나인 PLEKHG3 단백질이 세포의 이동방향을 결정짓는 ‘방향타’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span>”고 밝혔다. GEF단백질은 GTP라는 세포신호전달과정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킨다.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 온라인판에 22일(현지시간) 게재됐다.<br/><br/>세포는 체내에서 끊임없이 이동한다. 세포의 이동을 통해 배아 발달, 상처 치유, 면역반응 등이 가능해진다. 암환자의 암세포가 타기관으로 전이하는것도 세포가 이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제까지 세포의 이동에는 세포 표면의 소형 GTP결합단백질과 이 단백질의 활성을 조절하는 GEF단백질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 작동 원리는 밝혀내지 못했다.<br/><br/>연구진은 바이오 이미징 기술을 이용해 세포 내에 존재하는 63개의 GEF단백질을 분석했다. 이중에서 세포의 이동을 조절할 것으로 보이는 단백질을 선별했다. 해당 단백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세포가 이동할 때 PLEKHG3단백질이 빠르게 이동하는것이 관찰됐다. 연구를 통해 PLEKHG3 단백질은 소형 GTP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세포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br/><br/>이후 연구진은 청색광을 이용해 세포의 움직임을 조절하는데도 성공했다. 청색광 수용체를 삽입한 세포에 청색광을 비추자 PLEKHG3 단백질의 활성이 저해돼 세포가 이동을 멈췄다. 청색광을 끄면 세포의 이동이 다시 활성화됐다. <br/><br/>허원도 그룹리더는 “세포 이동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매커니즘을 밝혀 암세포 전이 및 면역세포 이동을 연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66.txt

제목: 폐암 환자 희망으로 떠오른 면역항암제, ‘티버스터’  
날짜: 201608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19134846737  
본문: 3세대 항암치료제로 알려진 면역항암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계기는 지난달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피부암 치료에 면역항암제가 사용되면서부터다.<br/> <br/>면역항암제는 3세대 항암치료제다.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1세대 화학 항암제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2세대 표적항암제와 달리, 면역항암제는 암세포가 커지는 것을 억제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 치료를 돕는다.<br/><br/>무엇보다 면역항암제가 각광 받는 이유는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상당부분 줄여주기 때문이다. 위장장애, 탈모 등 부작용부터의 위험이 적고 치료효과가 높으며 생존기간이 긴 편이다.<br/>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면역함암제 임상시험은 대략 200여건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를 이용한 면역항암제 임상시험이 100여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은 제약사들이 개발에 나서고 있다.<br/><br/>업계 관계자는 "CAR-T는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인 T세포에 암세포를 인지할 수 있는 수용체유전자를 도입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기술"이라면서 "국내 제약사들 중에서도 녹십자셀이나 유한양행 등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br/><br/>한편 국내에서는 면역항암제가 주목 받기 이전에 한방의학에서 면역항암제와 비슷한 치료 기전을 가진 한방면역항암제가 개발돼 환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치료제로는 하나통합한의원의 '치종단II-티버스터'가 있다. 실제로 이 병원에서 비소세포성폐암 환자가 티버스터 치료와 양방치료를 병행한 결과 암세포가 소멸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br/><br/>옻나무 추출물 성분을 이용해 개발된 티버스터는 암세포의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티버스터는 'A549', 'H460', 'H1299' 등 비소세포성 폐암세포들은 물론, 다수의 암세포 사멸과 신생혈관생성억제효과를 나타냈다.<br/><br/>옻나무 추출물의 효능과 관련된 국제 SCI급 논문 등도 속속 발표돼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추세다. 치종단과 치종탕의 암세포 사멸 효능은 국제 SCI급 저널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서 인정받기도 했다. '치종단의 A549 비소세포성폐암주에서의 항암기전'을 주제로 한 논문이 국제저널에 실리면서 세계적으로도 한방 암치료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가 높아졌다.<br/><br/>하나통합한의원은 올해 안에 '대식세포 활성화에 미치는 옻의 영향'을 주제로 새로운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논문 연구진은 옻의 효과에 대해 "옻이 우리 몸에서 암을 공격하는 지라세표(백혈구의 일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옻 처리를 했을 경우 세포 독성은 없고 오히려 살아있는 세포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br/><br/>김보근 하나통합한의원 원장은 "한방치료는 양방 치료와 함께 통합치료로 받으면 단독 처방에 비해 유효반응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한방암치료의 핵심은 효능 높은 암치료제에 있다.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암환자라면 한방치료를 통한 면역항암제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67.txt

제목: 방사선량 4분의1로 줄인 고화질 CT개발  
날짜: 20160818  
기자: 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18203323793  
본문: 국내 연구진이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저선량 방사선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고화질 의료영상을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br/><br/>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예종철 석좌교수(사진) 연구팀은 18일 “선량이 약 2.5밀리시버트(mSv)로 낮은 CT로 신체 내부 장기에서 암의 전이 상태가 정확하게 찍힌 영상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보통 CT를 촬영할 경우 노출되는 방사선량인 약 10밀리시버트와 비교해 노출량이 4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의학분야 국제학술지인 ‘메디컬 피직스(Medical Physics)’에 게재될 예정이다. <br/><br/>CT는 암 등의 질병 진단을 위해 사용되지만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방사선의 위험 때문에 저선량 CT를 사용하게 되면 영상의 화질이 떨어진다. 연구진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 기술을 활용했다. 딥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해나가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연구진은 보통 수준의 방사선으로 찍은 영상과 낮은 수준의 방사선으로 찍은 영상을 인공지능에 넣어 학습시켰다. 그 결과 컴퓨터가 낮은 수준의 방사선으로 찍은 CT 영상을 보고도 정상 CT 영상을 추론해 사진의 선명도를 높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68.txt

제목: [여적]기니피그  
날짜: 20160817  
기자: 조호연 논설위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17204529120  
본문: ‘예뻐지기 위해 널 다치게 할 순 없어. 아름다워지기 위해 널 상처받게 할 순 없어.’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국내 화장품회사의 광고다. 이 같은 홍보문구가 등장하기까지 수많은 실험동물이 고통받고 목숨을 잃었다. 비글 강아지가 양눈의 시력을 잃을 때까지 계속되는 샴푸 품질 테스트나 토끼 눈에 화학물질을 투여하는 ‘드레이즈 테스트’는 그나마 양반이다. 밀폐된 용기에 갇혀 독성가스에 괴로워하다 숨지는 원숭이, 암에 걸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햄스터의 고통에 비할 수 없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1초에 20마리, 한국에서는 한 해 400만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이 죽어나간다. <br/><br/>동물 입장에서 인간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희생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인간에게 이롭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생명윤리에도 어긋난다. 그런 판에 화장품 개발에까지 동물을 동원하는 것은 지독한 인간중심주의다. 인간의 3만여개 질병 가운데 동물과 공유하는 것은 350개에 그친다. 동물실험이 인간 건강과 과학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진실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br/><br/>실험동물은 대체로 성격이 온순하고 인내심이 강하다. 기니피그나 햄스터, 개 등 반려동물 상당수가 실험동물로 사용되는 이유다. 특히 쥐는 혐오동물 취급을 받으면서도 과학의 이름으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르는 실험동물이다. 쥐의 일종인 기니피그는 항생제인 페니실린에 민감한 체질 탓에 주요 실험동물로 분류되고 있다. 통통하고 귀여운 외모의 기니피그가 페스트나 탄저균에 감염돼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동물실험은 사실상 동물에 대한 고문이나 다를 바 없다. <br/><br/>미 중앙정보국(CIA)으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당해 ‘CIA의 기니피그’로 불리는 알카에다 조직원 아부 주바이다의 석방 문제가 여론 관심사로 떠올랐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 추진과 함께 수감자 석방을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CIA는 9·11테러 배후 혐의를 받는 그에 대해 “죽을 때까지 독방 감금”을 요구한다. 그의 석방 가능성은 기니피그가 실험실로부터 해방될 확률보다 낮아 보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69.txt

제목: ‘허위·과장’ 홈쇼핑 보험, 내년부터 생방송 광고 못한다  
날짜: 20160817  
기자: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17181255430  
본문: ㆍ금감원, 불완전 판매 근절방안 내놔…문제 많은 광고는 사전심의 받아야<br/><br/>ㄱ홈쇼핑은 암보험을 소개하면서 “일반암 발병 7000만원, 유방암·전립선암 발병 시 1400만원을 최초 1회 지급한다”고 소개했다. 이 상품은 어떤 암이든지 최초로 발생한 암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것인데도 나중에 발병한 암이라도 개별 암에 대해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다. ㄴ홈쇼핑은 치아보험을 소개하면서 ‘모든 충치 치료를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씌우기(크라운)치료는 연 3개로 개수가 제한된 상품이었다.<br/><br/>홈쇼핑 보험판매가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쇼호스트의 과장되거나 모호한 표현에 따른 불완전 판매가 적지 않았다.<br/><br/>금융감독원은 과장된 표현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하는 홈쇼핑에 대해 생방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근절방안’을 17일 내놨다. 금감원에 따르면 홈쇼핑 보험판매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78%로 업계평균(0.4%)의 두 배 수준이었다. 한정된 시간에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상품을 과장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확률이 대면 판매에 비해 높은 것이다.<br/><br/>금감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불완전 판매 실적이 많은 홈쇼핑사가 생방송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문제가 많은 판매광고에 대해서는 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불완전판매 비율이 업계 평균 이상인 판매광고에 대해서는 녹화방송으로 전환하도록 해 2020년까지 불완전판매 비율을 업계평균인 0.4%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br/><br/>홈쇼핑 광고내용과 상품약관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분쟁조정 원칙도 수정한다. 암보험을 판매하면서 쇼호스트가 ‘제한 없이 보장해 준다’고 설명했다면 실제 약관에서는 보장해 주지 않는 암이라 하더라도 광고한 내용대로 보상토록 한다는 것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70.txt

제목: 맘모톰 유방검진을 담당하다  
날짜: 2016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16112249139  
본문: 직장인 박모(31세)씨는 얼마 전부터 가슴을 쿡쿡 찌르는 듯한 느낌과 욱신거리는 통증을 반복적으로 느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생리 전 증상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차 증상은 심해졌다. 또한 유방에 멍울까지 잡히자 가족력 위험군에 해당하는 박씨는 불안해졌다. 이에 유방외과를 방문했으며 검사 결과 유방암이 아닌 단순 통증으로 밝혀졌다.<br/><br/>여성들의 50~70% 가량, 즉 절반 이상은 유방통을 경험한다. 이는 유방외과를 찾는 이들의 가장 흔한 요인이 되는 증상으로 유방암을 우려해 방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방통은 정상 생리 현상의 일부 혹은 양성 유방질환의 증상이며 유방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드물다.<br/><br/>유방통은 한쪽 또는 양쪽에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겨드랑이 및 팔 쪽으로 뻗는 듯한 증상을 지닌다. 보통 생리 주기와 관련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주기적인 유방통과 비주기적인 유방통으로 나눌 수 있다.<br/><br/>주기적인 유방통은 주로 생리 전후에 통증이 가장 심하며 월경 주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통증이다. 일반적인 유방통과 더불어 무거운 느낌, 압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보통 생리가 끝나면서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br/><br/>비주기적 유방통은 생리주기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통증으로 주로 30대 여성에게 나타나지만 절반 가량은 저절로 없어진다.<br/><br/>이 같은 통증은 신경성, 에스트로겐 등 호르몬 분비 이상, 카페인 과다 섭취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가운데 원인을 명확하게 찾기란 쉽지 않다.<br/><br/>이러한 가운데 유방통이 폐경 전후 여성에게 나타나거나 어느 한쪽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증상이 유방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5% 이하다. 유방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멍울, 유두 분비물, 피부 변형 등이 있으며 무통증인 경우도 있어 정기 검사와 자가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r/><br/>특히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해 치료해야 완치 가능성이 높고 예후가 좋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여성과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유방외과를 찾아 정기적인 검진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하고 있다.<br/><br/>유방암 자가진단 방법은 우선 눈으로 유방의 피부나 대칭을 살피고 유방에 혹이 만져지거나 피부가 부어 오르는 지 확인해야 한다. 매월 1회 일정한 날짜에 시행하는 가운데 생리가 끝난 직후 2~3일 정도가 적합하다.<br/><br/>의료기관을 통한 검사 후 병변이 발견됐다면 맘모톰을 이용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맘모톰은 유방초음파를 보면서 종양에 얇은 바늘을 삽입해 종양 조직을 채취하거나 제거하는 원리로 진행된다. 칼을 대지 않고 바늘로만 유방 내 조직 검사와 치료가 기대 가능하며 최근에는 섬유선종과 같은 양성 혹 제거에도 활용되고 있다.<br/><br/>천안 유방외과 미유클리닉외과 인승현(유방 갑상선외과 전문의) 원장은 “<span class='quot0'>유방통이 나타나면 걱정부터 하는 이들이 많으나 유방에 있는 멍울은 대부분 양성종양으로 암이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평소 자신의 가슴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사소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어 자가진단과 정기적인 검진을 진행하는 것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span>”고 전했다.<br/><br/>그는 이어 “<span class='quot0'>맘모톰은 상대적으로 짧은 검사 시간과 더불어 얇은 바늘로 시술해 출혈 및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span>”며 “<span class='quot0'>맘모톰 수술 전에는 안전과 위생을 위해 일회용 바늘 사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span>”고 덧붙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71.txt

제목: 무더운 여름 암 환자 건강관리법  
날짜: 2016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16104421981  
본문: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말복이 가까울 때까지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1994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의 기온을 기록하면서 최악의 열대야가 지속되는 만큼 건강관리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br/><br/>특히 암 환자들의 경우 항암치료를 받는 중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있고 식욕부진으로 체력 역시 쇠약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1호 완화의학 전문의이자 대한비타민연구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염창환 박사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암 환자들의 철저한 여름철 건강관리를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강조했다.<br/><br/>첫 번째는 가급적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고온에 익혀서 먹는 게 좋다는 것. 더운 날씨에 익히지 않은 음식을 잘못 섭취하게 될 경우 세균 번식으로 인해 식중독 등 다양한 여름철 감염 질환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음식물이 쉽사리 부패되기 때문에 개봉한 음식은 바로 먹는 것이 좋으며, 남은 음식은 꼭 밀봉해 냉장보관 해야 한다. 식수 역시 정수된 물 또는 끓인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br/><br/>두 번째는 더위로 인해 식욕이 저하되더라도 음식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운 날씨와 항암제 투여로 인해 식욕이 감퇴돼 암환자들이 여름철 식사를 거르기가 일쑤인데, 이럴 경우 가뜩이나 낮아진 면역력은 점점 더 떨어지기 마련이고 체력소모 역시 커지게 된다. 식욕이 크게 없을 경우에는 ‘매게이스’와 같은 식욕을 촉진시키는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 시에는 영양제 주사를 투여해 체중이나 체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br/><br/>세 번째는 더운 날씨에 외출하는 것을 가급적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폭염의 날씨에는 일반인조차 정상적인 야외활동이 버거운데, 항암제 치료로 인해 기본체력이 약해져 있는 암환자들은 탈수나 탈진 현상이 더욱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가급적 기온이 내려간 선선한 시간을 선택해야 하며, 수시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부족한 비타민을 반드시 보충해주어야 한다.<br/><br/>한편 염창환 박사는 오는9월 3일 서초동에 위치한 한림제약 본사에서 '제 3회 암 희망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부터 염창환병원에서 주최하여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암 희망콘서트'에서는 고주파온열암치료와 면역치료를 주제로 최신 암 치료법 및 호전 사례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회 참가신청은 염창환병원 홈페이지 '면역/암 교육신청 게시판'을 통해서, 또는 전화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72.txt

제목: 암치료약을 환자 인체 안에서 생산...일본, 부작용 적은 획기적 연구 착수  
날짜: 20160814  
기자: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14101146203  
본문: 암 치료약을 체내에서 만들어내는 연구가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br/><br/>도쿄(東京)대학과 쓰쿠바대학은 암 치료약을 체내에서 생성, 치료 효과를 높이는 연구에 착수했다고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br/><br/>이 연구는 강력한 약리작용을 하는 암 치료약을 그대로 몸에 주입하는 경우 정상 세포까지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시작됐다. 지금까지의 발상을 전환해 효능이 좋은 암치료약을 암이 있는 신체 안에서 만들어 냄으로써 부작용을 줄인다는 것이 이 연구의 특징이다.<br/><br/>연구팀은 환부에서만 약물을 생산하는 ‘인체 제약 공장’이라는 신기술의 원리를 동물 실험을 통해 이미 확인했다. 현재 일본 국내에서는 연간 40만명이 암으로 숨지는 상황이다. 이런 암과의 싸움에서 이번 연구가 새로운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br/><br/>도쿄대학 연구팀은 직경이 1만분의 1㎜ 이하인 캡슐을 특수 소재로 만들어 혈관을 통해 암에 집어넣을 예정이다. 캡슐에 봉입한 단백질이 반응하면서 약물이 합성돼 결국 암세포를 죽이도록 한다는 것이다.<br/><br/>환자에게는 약물의 합성에 사용되는 독성이 낮은 물질이 투여되기 때문에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하고 있다. 동물실험에서는 체내에 주입된 캡슐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br/><br/>쓰쿠바대학 연구팀도 암세포의 다양한 성분과 반응해 항암 작용을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미세 캡슐’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캡슐에 들어있는 철 이온이 촉매역할을 하면서 암세포에 대한 살상 능력이 높은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r/><br/>‘활성 산소’라고 하는 이 물질은 암이 있는 장소에서 계속 생겨나면서 치료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간의 대장암을 이식 한 생쥐에서 암의 악화를 막아내는 효과를 거뒀다. 연구팀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73.txt

제목: 희귀암 소방관, 전문기관 도움으로 첫 ‘업무 중 재해 인정’  
날짜: 20160811  
기자: 한대광 기자 chooh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11140219426  
본문: ㆍ전문조사제 통해 ‘공상’ 승인…치료비 일체 지원받게 돼<br/><br/>화재 진압 과정에서 희귀암에 걸린 소방관이 처음으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공상’ 승인을 받았다. 이 소방관은 5년간 혼자 부담했던 치료비를 돌려받는 것은 물론 앞으로 항암치료에 필요한 비용도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지원받게 됐다.<br/><br/>국민안전처는 희귀암인 비인강암에 걸린 이모 소방관(50)이 ‘공상 심의 전 전문조사제’를 통해 처음으로 공상 승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비인강암은 입안의 가장 윗부분에 생긴 악성 종양이다. 각종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됐던 이 소방관은 2011년 비인강암 진단을 받았지만 ‘공상’ 승인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공상 승인을 미뤘다. 그는 전문가들로부터 “호흡기와 비인강암이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조언을 받고 지난 4월8일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 신청을 했다.<br/><br/>마침 ‘공상 심의 전 전문조사제’ 도입을 준비 중이던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전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이 소방관의 암이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조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 연금공단 측은 “<span class='quot0'>유해가스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 연관성이 크다</span>”는 결과를 받아 공상 심의를 하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 통보했다. 심의회는 지난 7월27일 공상 인정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28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공상 심의 전 전문조사제 도입과 함께 암·정신질병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도록 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전문기관이 업무연관성 여부를 분석하게 됨으로써 소방관 등의 공상 인정 범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74.txt

제목: 73세 할머니의 화려한 검술 “소녀들도 스스로 지키는 법 배워야 해”  
날짜: 20160811  
기자: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11111414986  
본문: 인도에서 73세 할머니의 화려한 검술 실력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br/><br/>인도 남부 케랄라에 사는 메나카시 암마(73)는 지역 전통 무술 ‘칼라리’ 유단자다. 어렸을 때부터 칼라리를 배운 암마는 도장인 ‘파야추’에서 칼라리를 가르친다.<br/><br/>지난 6월 페이스북에 그가 젊은 남성을 상대로 검술을 하고 있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암마는 유명인사가 됐다. 현재 영상은 150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br/><br/>암마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 영상을 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할머니가 매일 TV에 나온다’고 말해준다”며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보고 무술을 배우러 오고 있다”고 말했다.<br/><br/>현재 암마의 도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소녀 수강생이 많다. 인도에서 성폭력이 잇따르자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겠다는 소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암마는 “과거에는 아이들이 12살 정도 되면 도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며 “성폭력 범죄가 많아지면서 여성 혼자 바깥에 돌아다니기 힘든 때가 됐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무술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br/><br/>그는 자신이 73세 나이에도 정정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칼라리 덕분이라며 계속 도장에서 칼라리를 가르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75.txt

제목: [기타뉴스]메갈리아 기고에 관한 반론 모음과 오유 비판  
날짜: 20160809  
기자: 향이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09152317490  
본문: 향이네는 작가,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티셔츠 사태와 웹툰 작가, 메갈리아와 미러링, 페미니즘에 관해 보낸 기고를 지난 1일부터 7회에 걸쳐 실었습니다. 향이네(h2@khan.co.kr)에 반론을 보내달라고도 했습니다. 7개 메일 중 6개가 메갈리아 기고를 비판·반대합니다. 1개는 오유의 문제를 지적한 글입니다. 메일 수신 순으로 전문을 싣습니다. <br/><br/><br/> <br/>■ 폭력은 수단이 될 수 있다. yoy\*\*\*\*@live.co.kr<br/>■ 그럼 제가 여성혐오자인가요 ? pluse\*\*\*\*@hanmail.net<br/>■ 이제 남자가 할 말 한다 awdry\*\*\*\*\*@naver.com<br/>■ 당신 논리대로라면 나마저도 여성혐오자이자 성차별주의자입니다. monmus\*\*\*\*\*@gmail.com<br/>■ 메갈리아 논란관련 진보 언론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regu\*\*\*\*@nate.com<br/>■ 일베나 오유나 - 메갈리아 논쟁에 부쳐 ge.l\*\*\*\*@gmail.com<br/>■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ghdru\*\*\*\*\*@hanmail.net<br/>■ 메갈리아 기고를 비판·반대합니다. myskyd\*\*\*\*\*@naver.com <br/><br/><br/>■ 폭력은 수단이 될 수 있다. yoy\*\*\*\*@live.co.kr<br/><br/> 세상에 절대악은 없고, 폭력은 수단이 될 수 있다. 특정한 목적은 특정한 수단을 정당화하며 폭력 또한 어떠한 목적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수단이다. 물론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많은 고찰이 필요하지만, 폭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극단주의”도, “나치”도 아니다. 수많은 폭력 혁명과 폭력 시위가 이를 증명한다.<br/><br/> 메갈리언들이 채용하고 있는 ‘미러링’이란 전략 또한 충분히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폭력이며 이들은 극단주의자는 물론 아니며, 나치도 아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br/><br/>‘폭력’이라는 수단에 집중하여 접근할 시에, 폭력은 약 세 가지 위계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이 그것이다. 메갈리언들이 주로 채용한 폭력 수단은 이 셋 중 언어적 폭력인데 이 폭력수단조차 메갈리언들이 주체적으로 선택하여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성이 한국 사회 내에서 겪는 사회적 폭력 수행의 불가능과 물리적 폭력 수행의 불가능성 아래에서 폭력의 선택이 소거된 채 수행하게 된 것이 메갈리언의 언어적 폭력이다. 따라서 이들을 “극단주의”로 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적으로 봐도, 충분히 긍정된 여성의 물리적 폭력 혁명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차선적 언어 폭력의 수행만으로 이들을 부정하는 것은 부조리하다. 게다가 이 폭력 구조 내에서 완연히 기득권이자 폭력의 가해자인 남성 집단이 이들의 수단에 대해서 “폭력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폭력의 행사일 가능성일 가능성이 다분하다.<br/><br/> 게다가 메갈리언이 선택한 폭력수단을 부당하다고 감각 가능한 것 자체가 남성 공동체가 기득권인 탓이 크다. 혁명의 대상은 혁명의 주체가 선택할 수단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 폭력의 세 층위에서 모두 우위를 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 어떤 폭력적 행위도 수단으로 용납하지 않은 채 자신들을 설득하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폭력 혁명이 필요했던 모든 순간들은 폭력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해결 안 되었을 순간들이며, 폭력으로 해결 안 되었던 순간들조차 많다. 만약 역사적으로 긍정된 많은 폭력 혁명 혹은 폭력 시위의 목적과 메갈리언의 목적을 비교하며, 후자의 목적성이 부당하다고 감각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당신이 절대적 기득권을 점한 주민인 탓이다. 역사적으로도, 여성들의 물리적 폭력 시위 혁명 사례가 충분한데 메갈리언을 극단주의자로 명명하는 것은 졸렬한 발화다. 적어도 극단주의로 칭해지려면, 물리적 폭력 행사가 동원되어야만 하며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모든 집단이 극단주의자는 아니다. <br/><br/> 둘째로, 메갈리언들의 미러링을 재인식 과정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메갈리언의 미러링을, 여성 환경에 일상화되어 있던 한남들의 여성 혐오를 여성들이 직접 위악적으로 모방하며 반추하는 재인식의 차원으로 해석 가능하다.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해왔던 사소한 불쾌감(불쾌감을 느끼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자문하면서까지 느꼈던 불쾌감)이 “여성혐오”의 산물이었음을 재인식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들의 불쾌함이 “옳은” 것이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그런 불쾌한 행위들에 대해 경계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재인식하는 일련의 행위가 미러링일 수 있는 것이다. <br/><br/> 한국 현대 남성들이 미러링에 격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신들이 “한남”이며 “직접적” 폭력 가해자라는 의식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미러링의 타겟이 되어 공격당한다는 것은 자신이 “한남”이라는 것을 지시한다. 그러나 남성 공동체 일반은 여성이 피해자이며 불공평 속에 생활한다는 전제를 납득하더라도 자신이 그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곤 한다. 폭력 사건엔 피해와 가해의 이분법만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아니면, 가해자다.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모든 남성은, 한남이다. 메갈리언들이 그 어떤 언어폭력을 수행했어도,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여성의 칼에 맞아 죽은 남성은 없다.<br/><br/> 메갈리언들의 언어 폭력이 논리적 공론의 장 형성을 방해한다는 비판도 보이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반박할 가치조자 없는 발언이다.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메갈 이전부터 남녀가 젠더 문제에 대해 페어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있었고, 그 공론의 장을 하나 이상 메갈리아가 붕괴시켰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허나 근본적으로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젠더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갖는 공론의 장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메갈리언의 미러링 때문에 젠더 문제가 공론화되려는 동태가 많이 보이므로 외려 메갈리언들의 미러링을 긍정할 여지가 더 많이 보인다.<br/><br/><br/><br/>" target=\_blank> ■ 그럼 제가 여성혐오자인가요 ? " target=\_blank> pluse\*\*\*\*@hanmail.net <br/><br/>현재 기자님 기사에 달린 베댓에 있는 사건들은 인터넷 검색 조금만해도 찾을수 있는 정보인데요. 여성인권 향상 운동을 하는거랑 관련 있다고 보이십니까 ?? 메갈리아 회원중에 이00이라는 웹툰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린 동인지 인터넷검색만 해도 나오거든여. 어린애들 발가 벗겨놓고 강간한다는 동인지도 있던데 그밑에 메갈회원들 댓글이라도 보셨으면 <br/><br/>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부동액 논란도 있었죠 ?? 일베랑 동급이 아니라고요 ?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베랑 동급이냐 아니냐보다 메갈리아라는 단체가 여성인권향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여성혐오자인가요 ? 기자님 베댓에 있는 사건들 자료도 다 찾아보고 메갈리아 사이트에도 들어가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다 보고 온사람인데 정말 역겨운 글들과 그림들 그거 한번이라도 보시고 기사 쓰시는 건 맞죠 ? 기자님 논리면 기자님도 남성혐오자인가요 ?<br/><br/><br/><br/>" target=\_blank> ■ 이제 남자가 할 말 한다 " target=\_blank> awdry\*\*\*\*\*@naver.com<br/><br/>이제 남자가 할말 한다 페미니즘한 이후로 지지자가 많아? 바꿔서 말하면 페미니즘한 이후로 목소리 많이 듣는 것도 사실임. 가부장주의라 하는데 가부장주의의 장점도 있음. 무조건 안좋다하는 거는 빨갱이몰이임. 물론 페미니스트들 중에 제대로된 사람이 없으며 여혐타령하는데 여혐한 적도 없음. 목소리 낸 건데 막으려하는 게 폭력임. 일베가 극우라 하는데 그동안 역차별에 대해서 남자라서 목소리 안내다 일베를 중심으로 목소리 낸 거임 극우라 하는데 극우보다도 페미나치들이 더잘못임. 인터넷에서 보수 목소리 내는 거임. 그리고 메갈리아가 하는 게 반여성혐오? 아니다 그냥 폭력이며 혐오일뿐이다. 일베는 의무라도 한 다음에 권리라도 주장하지. 메갈은 의무도 안하면서 권리만 주장함. 오히려 일베한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해야 함. 역차별에 대해서 목소리 냈으면서 올바른 남녀평등을 제시했음 당연히 같은층이 아니다. 일베가 메갈보다 뛰어나니깐. 그리고 메갈리아가 한적이 없다 하는데 사례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없다니 ㅋ. 일베나 메갈이나하는 사람들은 여성혐오한 적도 없으며 성차별주의자가 아니다. 오히려 여혐타령에 미러링 애기하는 것들이 남성한테 안되서 역차별주의자에 페미충이다. 그리고 이제는 지구의힘도 남자가 사용한다. 일베야말로 감사한 게 그동안에 남성역차별 목소리 내면 남성이 되야 말이야 찌질하다 애기하는데 그걸 타파하면서 남성 역차별 목소리 내기 시작한 거임. 이제 더이상 차별도 없으며 언론에서 역차별 하면 설령 차별 있다 해도 여성할당제, 여성승진할당제, 세무회계 등 해서 차별이 없음. 넥슨 사태도 성차별주의자라 하는데 잘못을 해서 처벌한거임. 그럼 왜 일베한다는 이유로 짤릴 때는 가만히 있었음? 일베보다 못한 페미여서. 그럼 역시 토론을 해도 근거가 없어서 목소리 낼 거임. 여성혐오 타령 이전에 이제 남성들이 역차별 알아서 목소리 내서 막으려 하는 이기주의며 이제 남성이 더 이기적으로 목소리 낸다. 일베가 심하긴 해도 응원할 거임. <br/><br/>계속 헛소리해도 일본한테 배울점 배워서 계속 대등해지면서 주장하고 발전해 ㅋㅋㅋㅋㅋ 그리고 미러링이라하는데 왜 미러링하지? 그게 폭력인데??? 그리고 그동안 남성들이 역차별당해서 할말 하니 막으려 하는데 앞으로 더 목소리 낼 거임. 그리고 무슨 차별이 있지? 더이상 차별도 없는데 여성부도 이제는 여성만 좋게 하려 잘못이니 무조건 폐지해야 하며 폐지 안되도 국방부 응원할거임. 남성들이 목소리내며 마음 예쁜 여성도 목소리냄. 그리고 정책도 남성에게 좋게 해야 함. 남성에게 안 되니 사회적 약자 타령 하는데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님. 기회가 평등해야 하는데 여성할당제, 여승진할당제,세무 등은 안하지? 역시 한걸레, 경똥보다는 조중동을 열심히보겠음. 그리고 무슨 토론이야기하는데 너는 근거도 없으며 벽이여서 앞으로 페미충이랑 대화할때는 말 안들으며 일베를 차라리 볼거임.<br/><br/>그리고 차별이 심해서 여성할당제하며 차별 없으면 군대간다 하는데 더이상 차별이 없고 차별이 앴다 해도 그동안 개선되었으므로 여성들이 군대가야 하며 안가도 군대감. 그리고 군대보상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마치 임금이 보상인것처럼 호도하면 안됨. 열정페이처럼 해서 받으며 받아야 함. 그리고 페미니즘 알아야 헛소리하는데 여성만 위하는 게 잘못이어서 알필요도 없고 니들보다 많이 아는 게 의무도 동등, 경쟁도 동등하게 하자는 건데 이 나라 페미니스트들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으며 차라리 엘비가 낫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 거의 없음. 오히려 일베야말로 나음 그리고 여성할당제, 여성승진할당제, 세무적으로 해서 기사들도 그거 써야 하는데 언론도 역찹려 이심해서 안하며 이제는 남성들이 일어서며 메갈에 붙은 보빨남들도 할말 들어야 하며 차라리 일베 한는 여성이 나으며 명에XX가 아닌 개념녀이며 그게 아니더라도 남성 배려해서 좋으며 열심히 남성들이 해서 좋음. 그리고 남성들이 목소리내니 막으려하니? 그리고 잘못을 고쳐라 고치겠니? 많이 모르는 것 그런 거 헛소리해도 앞으로 일베 심해도 응원하며 안해도 군대보상받느다. 남성들이 일어선다 남성들이 더이상 양보 안하며 정책적으로도 여성만 좋게 하면 안되는 데 좋게하면 남성들이 목소리내서 얻음 계속 헛소리해도 일본한테 배울점 배워서 계속 대등해지면서 주장하고발전해 ㅋㅋㅋㅋㅋㅋ <br/><br/><br/><br/>" target=\_blank> ■ 당신 논리대로라면 나마저도 여성혐오자이자 성차별주의자입니다. " target=\_blank> monmus\*\*\*\*\*@gmail.com <br/><br/>정신나간 논리 잘봤습니다. [기타뉴스]“일베나 메갈이나”를 말하는 당신은 정말로 ‘순진한 일반인’인 걸까. 뉴스 읽고 어이없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사고방식 자체가 오류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 기사에서 이걸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베나 메갈이나.”를 말하는 사람들은 왜 이 차이를 무시하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여성혐오자이자 성차별주의자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단체들은 이런 류의 공격을 그다지 낯설지 않게 느낀다. 당신 논리대로라면 나마저도 여성혐오자이자 성차별주의자입니다. 왜 메갈에 한국 대형 커뮤니티들이 메갈리아를 그렇게 욕하는지 아십니까? 메갈리아는 미러링을 빙자한 불특정 다수를 비방하고 언어폭력과 각종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반사회적 행동을 반대하는게 여성혐오이자 성차별입니까? 특히 이 미러링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의견을 무시하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다’ 라는 성격을 띄는데 이건 테러리즘이 가진 성격과 똑같습니다. 그 IS가 저질러대는 테러요.<br/><br/>메갈리아가 정말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까? 메갈리아 커뮤니키 내부 상황을 조금이라도 봤는지조차 궁금하군요.<br/><br/>이들의 행동이 여성혐오를 표면상에 떠오르게 했는데 여성혐오 반대자만 나올까요? 이들의 행동에 피해를 입거나 이들의 해동을 본 사람들이 과연 페미니즘을 지지할까요? 메갈리아가 한국의 대표 페미니즘 사이트라면 한국의 페미니즘은 쇠퇴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었습니다. 죽었다고요. 날 여성혐오자이자 성차별주의자로 정의해주셔서 퍽이나 감사하군요.<br/><br/><br/><br/>" target=\_blank> ■ 메갈리아 논란관련 진보 언론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 target=\_blank> regu\*\*\*\*@nate.com<br/><br/>메갈리아 논란관련 진보 언론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진보의 기본적 가치는 무엇 입니까? 나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보다는 약자를 위하고 도덕적인 가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메갈리아나 워마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메갈리아의 경우 대표 로고 부터가 남성의 성기 크기를 조롱 하는 성희롱 그림 입니다. 성범죄에 매우 민감 해야 하고 가장 피해자가 많은 것이 여성 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성들이 성희롱를 정당화 하고 조장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여성에게 돌아 갑니다.<br/><br/>최근에는 모 게임 성우 논란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메갈리아에 분노한 수많은 네티즌들이 게임회사에 크게 항의 했고 결국 그 성우의 음성은 삭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진보 언론은 이것이 매우 잘못 되었다며 기사를 마구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이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혐 연예인의 리스트 까지 작성 해서 그들이 어디의 광고 모델만 되어도 철저히 달려가 짓밟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일베충이라며 직장에서 �i겨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일베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때 경향 신문은 무엇을 했습니까? 왜 그때는 침묵 했습니까? <br/><br/>메갈리아나 워마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직접 본 내용만 말하겠습니다. 그곳에는 남성 시체 사진이 난무 하고, 성기 절단 사진이 난무 합니다, 개인 신상 털기 몰카사진. 어린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싶다, 애비를 죽이겠다. 부동액을 타서 죽이겠다. 열등한 한국 남성은 모두 멸종 시켜라. 한국 남성은 성기가 작다. 심지어는 낙태 사진까지 올리면서 남성 태아는 모두 낙태하자....빵에 잼을 발라 낙태된 태아를 같이 싸먹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글을 아무도 제제하는 사람이나 의견 조차 없고 모두 같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조회수나 추천수도 많습니다.<br/><br/>저는 다시 경향 신문에 묻겠습니다. 저는 경향 신문 기자들이 이 사실을 절대 모를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 심지어는 진보적 네티즌들이 모여있는 오유, 불펜. 가장 친여성주의적 정당인 정의당 당원 게시판까지 난리가 났는데 경향 신문은 이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습니까?<br/><br/>제가 가장 실망 스러운 것은 바로 기자의 양심과 명예 입니다.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것은 다음 문제 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있다면 최소한 1:9의 비율 로라도 기사를 싣는것이 민주주의 언론에서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1:9도 아니고 0:10 입니다. 누구의 편을 들어달라 말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나라 제일의 진보 언론의 민 낯 이라면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크게 실망 하겠습니까? 이러한 계속된 편파 보도가 과거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 언론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페미니즘이 좋아도 그렇지 이것은 기자의 명예 마저 상실 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r/><br/>결국 메갈리아 워마드의 결과는 뭡니까?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진보,보수 모든 사이트가 단결 해서 극단적 패미니즘에 대항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인권이 크게 후퇴 되고 있고 여성 혐오는 폭증 하고 있습니다.<br/><br/>여성은 단결된 남성의 상대가 절대 되지 못합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도덕적 가치가 땅에 떨어질 수록 결국 남성 우위의 사회가 옵니다. 지금 메갈 워마드는 남성 들에게 도덕적 명분 마저 꾸준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br/><br/>메갈리아가 너무 심하니까 도덕적 가치를 들이 대며 설교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 극단적 혐오를 할때 여성이 과연 남성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과거 여성 인권이 형편 없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br/><br/>일베를 자꾸 말하는데 일베가 여성만 혐오 합니까? 소수자, 약자, 못가진자, 전라도, 진보세력, 심지어는 자신들끼리도 혐오 합니다. 아 소수자 혐오 하는 단체 또 하나 있군요. 가만히 있는 동성애자들 신상까지 턴다고 위협하는 워마드요. 이 논쟁 때문에 메갈리아가 망하고 대부분 워마드로 옮겨 갔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 민국 진보 세력의 입에서 할 말 입니까? 동성애자들이 여성들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남성들에게 심하게 차별 받는 사람들 입니다.<br/><br/>결국 입만 패미니즘 이고 남성 동성애자가 확산 되면 여성의 이익을 지킬수 없기 때문에 남성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어느 여성 주의자가 동성애자를 아무 이유도 없이 혐오 하겠습니까? 같은 약자끼리 서로 돕지는 못할 망정이요. 입으로만 패미니즘을 외치고 실상은 여성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단체일 뿐입니다. 입으로만 진보 공명 정대를 외치고, 한쪽의 잘못된 점은 기억속에서 지워 버리는 매우 편파적 언론이 있을 뿐입니다.<br/><br/>그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 결국 모든 남성들이 들고 일어 났습니다. 티셔츠 하나 샀다고 게임 내 목소리 까지 삭제 당하는 성우가 생겨났습니다. 가장 친 여성적이라는 모 진보 정당 당원들 마저 손사래를 치며 정당을 탈당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초의 일 입니다. 아무리 메갈 워마드를 무지개빛 포장지로 포장하려고 해도 그 결과는 올바른 여성 주의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며 같이 자폭 하는 것으로 끝날 뿐입니다.<br/><br/>어떤 인터넷 방송 BJ는 국가에서 일부로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고 하더군요. 그것 까지는 아니라더도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 일베와 메갈은 적대적 공생 관계 입니다. 결국 그 둘은 서로가 있어야만 도덕적 명분을 가지고 사회속으로도 뛰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그 둘 사상이 사회속으로도 깊히 침투 했을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r/><br/>지금 현재도 일베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혐오 하던 많은 남성이나 네티즌 들이 오히려 여성 혐오에 같이 동조 하고 메갈리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성들이 남성들 당해 낼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압도적인 신체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은 도덕적 명분과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여성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br/><br/>과거 수만년을 여성을 지배 했던 것은 남성입니다. 그들이 명분만 있다면 여성에 대한 공격은 매우 손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명분 제공은 지금 누가 하고있습니까? 아무리 언론에서 메갈리아를 절대 옹호 한다고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갈리아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폭주 하고 있고 이것이 여성 주의에 대한 공격 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깟 네이버 기사에 좌표 찍고 우르르 몰려가서 추천 조작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입니까?<br/><br/>지금은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몇 십년, 몇 백년후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수준을 얼마나 비웃을지 그것이 더 걱정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논란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떳떳히 보여 줄 수 있을지 그것이 더 걱정 됩니다.<br/><br/><br/><br/>" target=\_blank> ■ 일베나 오유나 - 메갈리아 논쟁에 부쳐 " target=\_blank> ge.l\*\*\*\*@gmail.com<br/><br/>젊은 남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뭐 따지자면 ‘일부’ 젊은 남성일 뿐이겠지만, 어쨌든 이 여름의 열대야 못지않은 분노다. 그리고 그들은 배신감에 치를 떤다. 정의당에서는 탈당이 줄을 잇고, 온갖 ‘진보’ 커뮤니티에서는 배신자 진보 언론들, 저 ‘친메갈’ 종자들에 대한 성토가 끊이지를 않는다. 실제로 진보라고 분류되는 언론들에서는 저 분노하는 남성들의 구미에 맞는 글들을 좀처럼 찾을 수 없다. 이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다.<br/><br/>이에 본 기고는 진보언론에 씌워진 편파성의 굴레를 벗기려고 한다. 나는 저 남성들의 ‘분노’를 충실히, 어쩌면 지나치게 충실하게 대변하여, 그럼으로써 더욱 완전하게 하여 볼 것이다.<br/><br/>문득 몇 년 전의 기억을 나는 떠올린다. 내가 당시 가장 애호했던 취미는 2차 세계대전 즈음의 탱크를 굴리는 온라인 게임이었다. 이 게임은 ‘일베 게임’으로 세간에 유명했는데, 실제로 일베인들이 꽤 많았다. 게임 채팅창에서는 ‘탱크보이전두환’, ‘광주는불타고있는가’ 따위의 아이디들이 ‘아따 홍어랑께’, ‘7시(광주-전남지역을 가리키는 은어)로 돌격!’, ‘폭동 진압하러 간다’ 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차별 선동은 시끄럽지만 차별 반대는 그만큼 시끄럽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찌푸릴 뿐이었다. 몇몇 유저들은 일베인들의 전차의 길을 막거나 뒤통수에 대전차포를 날리며 소심하게 보복하기도 했다(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다). 반면 점잖게 일베인들에게 훈계하는 유저들도 있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돌아왔다 - “일베라뇨? 오유에서 왔습니다만?”<br/><br/>나는 당시까지만 해도 ‘오늘의유머’라는 사이트(약칭 오유)가 낯설었지만, 일베인들의 오유에 대한 형제애에 가까운, 동질감과 그에 겹쳐진 라이벌 의식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일베인들은 게임뿐만이 아니라 어딜 가서나 저렇게 이야기하곤 했다더란다 - ‘일베나 오유나’. <br/><br/>이 포연이 자욱한 기억을, ‘일베나 오유나’를 내가 떠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건이 넥슨이라는 온라인 게임 회사에서 촉발된 것이어서이기도 하겠다. 하지만 더 중요한 계기는 정의당 문예위 부대변인 유성민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일부 게시글로 말미암아 메갈리아를 반사회적 패륜사이트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그런 기준이라면 오유도 패륜사이트가 될 것이다.<br/><br/>유성민은 어쨌든 여기서 오유가 패륜이 아니라고 정리했다. 그런데 문예위의 논평들은 숱한 당원들의 저주를 받았으며, 끝내 정의당의 높으신 분들에게 적절치 못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그분들의 권위에 의해 메갈리아의 패륜성은 마치 공인된 것마냥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오유는 뭐가 되는가?<br/><br/>유성민이 제시했던 것들은 오유인들이 노인을 폄훼하는 스크린 캡쳐들이었다. 오유에서는 이에 대해 2012년 대선 당시 격한 마음에 그렇게 노인비하를 했다고 변명하였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메갈리아의 발언들도 2015년 여성혐오 대란 당시의 격한 마음에 기인한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오유인들에게는 전혀 변호가 되지 못한다. <br/><br/>스크린 캡쳐 하나가 일베의 조작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캡쳐에 나온 발언은 사실이며 조작한 것은 댓글에 달린 추천 갯수뿐이다. 이것은 일베의 독특한 윤리관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일베인들은 사실과 논리에 기반하여야 한다는 논쟁의 룰은 안다. 하지만 그들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실을 은근슬쩍 조작하곤 하는 것이다.<br/><br/>왜 조작을 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유에서는 노인폄훼 발언을 줄기차게 계속하고 있으니 말이다. 메갈리아가 반년 남짓을 불태우고 사이트를 사실상 접은 것과도 크게 대조된다. 너무 많으니 한 가지만 꼽자. 2015년 11월 27일 열화와 같은 성원을 얻고(추천수 344) ‘베스트오브베스트’로 선정된 “박정희 찬양하는 노인네에게 해주고픈 말https://archive.is/YPg6q“. 이 오유 글에서 딱 한 문장만 인용하겠다. “왜 당신자식들이 당신들을 병신같이 보는지 아직도 모르겠냐구요”<br/><br/>노인혐오에 장애인 비하에 부모자식 운운까지 아주 가지가지 하고 있다. 여기서 역사학자 전우용 씨의 메갈패륜론을 보자(1일의 페이스북 게시글). “물론 (메갈리아의 문제된 발언들을) 일부의 빗나간 발언으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홍어’도 일베 일부의 발언이었다.”<br/><br/>오유 안에서 해당 비하발언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건 메갈리아도 마찬가지다. 메갈의 강경 유저들은 비판적인 의견이었던 메갈리아4 운영자에게 욕을 해댔으며, 이런 갈등이 이어져 메갈리아 사이트는 분열되기까지 했다. 전우용 씨의 기적의 논리에 따르면(‘논리’는 빼도 될 것 같지만, 이 글에서 나는 사회의 관례적인 면을 최대한 존중하려 한다), 메갈리아의 강경 유저들이 나가서 세운 ‘워마드’의 ‘좆린이’ 발언도 메갈리아 4의 책임이다.<br/><br/>곧, 일부 남성들의 메갈론을 그대로 이 사례에 적용해 볼 때, 오유인들은 패륜아들이며 오유는 패륜사이트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다음의 점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즉 메갈리아를 패륜으로 관념하는 여러 비판자들의 정체다.<br/><br/>이 메갈리아 비판자들은 자신이 윤리-패륜의 전선에서 정의의 편에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잡다한 문제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는 전우용 씨와 박가분 씨의 옹호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따라서 그 비판자들은 성차별주의와는 무관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오유의 문제에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 곧 오유가 그들 기준에서 패륜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박가분 씨의 말마따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그들은 메갈리아를 비판하는 그대로 오유를, 그리고 메갈리아를 공격하는 그대로 오유를 공격해야 할 것이다.<br/><br/>여기서 만약, 소위 오유와 메갈리아에 ‘이중잣대’를 대기 시작한다면, 저 메갈혐오자들은 성차별주의자가 아닐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다소 불행한 일이겠다.<br/><br/>나는 며칠 동안, 오유가 과연 앞서의 기준에서 얼마나 패륜적인 사이트인지를, 여러 정의로운 남성들의 불타는 정신으로 조사하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br/><br/>오유의 여성혐오를 보자. 오유에서는 ‘김여사’라는 단어가 흔히 쓰인다. 오유인들의 변명에 따르면, 이것은 운전 못하는 일부 여성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운전 잘하는 여성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메갈리아의 그 빌어먹을 소위 ‘미러링’은 모든 것을 폭로해 버렸다. 메갈리아에서는 남성을 무개념남인 ‘한남충’ 또는 ‘씹치’, 그리고 개념남인 ‘탈(김)치’로 분류했으며, 무개념남에게는 ‘번식 탈락’을, 개념남에게는 구원을 약속했다. 그들은 말했다 - 니가 개념남이면 니 욕하는 얘기 아니거든?<br/><br/>하지만 저 ‘일부’ 남성들은 메갈리아의 행각에 공히 격분했다. ‘한남충’이 남성 모두를 싸잡는 발언임을 누구나 쉽게 알았던 까닭이다. 이것은 ‘김여사’의 변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김여사의 잣대는 모든 여성에게 드리워지고, 김여사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권력은 남성에게 있으며, 그에 남성들은 여성 운전자를 마음껏 폄하할 자유를 누린다. 하지만 남성 운전자의 잘못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지 않았다. <br/><br/>‘김여사’는 여성 운전자에게만 멍에를 씌우는, 명백한 차별이다. 오유인들은 이것을 사실 잘 알고 있었다. 이를 볼 때 오유인들은 고의적이고 역시 명백한 성차별주의자들이다. 박가분은 메갈리아4가 결백해지려면 워마드를 잘라야 한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이제 메갈리아 혐오자들은 결백해지기 위해 오유를 잘라야 한다.<br/><br/>오유의 다음 패륜성으로 넘어가겠다. 여기서 잠깐, 마음이 약한 독자 여러분에게 권유한다. 약국에서 우황청심환이라도 하나 사 오셔서 물고 계실 것을 추천한다. 준비되셨는가? ‘김여사’에 이은, ‘맘충’이다.<br/><br/>‘어머니는 벌레다!’ 오유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오유에서 심지어 이것의 사용을 놓고 투표를 했는데, 사용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득표했다(잘 씹고 계셔야 한다). 물론 오유인들은 ‘일부’ 무개념 어머니들만 저렇게 불려 마땅하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메갈리아는 또 여기서도 저 무시무시한 미러링을 자행했다. 바로 ‘애비충’인데, 이것을 보고 여러 양심적인 분들은 아버지들을 모조리 싸잡아 벌레로 몬다며, 패륜의 끝이라도 본 것처럼 개탄하였다. 여기서 정의의 편인 여러 메갈리아 비판자들은, 실제로 정의당원이건 아니건, 결론을 내려야 한다 - 오유인들은 어머니를 벌레라고 부르는 원조 패륜아들이다.<br/><br/>유감스럽지만 패륜의 끝은 여기가 아니다. 앞서에서 이미 정신적 충격의 한계를 넘었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고하니, 그런 분들은 여기서부터 결론까지 잠깐 스킵하셔도 좋다. 여기 바로 ‘통베충’이 놓여 있다. 이것은 아마 메갈리아 이전에 나타난 메갈적 ‘되돌려주기’일 것이다. 일베가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싸그리 ‘홍어’며 ‘폭도’며 ‘절라디언’으로 몰 때, 이에 대항한답시고 나온 것이 저 단어이다. ‘통베충’의 베는 일베이며, 충은 아시겠듯 벌레이다. 그런데 저 통은 ‘통구이’를 말하는 것이며, 다름아닌 2003년의 대구지하철 참사의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의미이다.<br/><br/>심지어 단 몇 달 전 오유에서 ‘베스트오브베스트’로 선정된 그림 중에도 저것이 나온다. https://archive.is/AivVD 오유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쓰는 사람이 있고, 통이 ‘뒤통수 치기’라고 착각하고 쓰는 사람이 있고, 실상을 알고 굉장히 저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대로 저런 모습은 메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가령 엉뚱하게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똥꼬충’은 심각한 논란을 낳고 메갈리아를 사실상 해체시켰다. 오유에서 이런 정도의 논란이라도 벌어진 적이 있나? 없다. <br/><br/>이런 것을 보면 증오에 기인한 동해보복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가해자를 마주 타격하기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사회적 약자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박가분과 여러 분노한 남성들은 ‘똥꼬충’ 같은 혐오발언을, 그것에 격하게 반대했으며 아예 별개의 사이트이기까지 한 메갈리아4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 논리대로라면 앞서의 극악한 단어 사용은 당연히 오유인들 모두의 책임이다. 오유의 패륜성은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br/><br/>이것들만 해도 기가 막히지만, 만만찮게 추악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의 문제를 보자. 메갈리아를 패륜으로 정리하는 정의로운 비판자들은 고인 폄하, 소위 ‘고인드립’이라는 문제에 민감하다. 일베인들은 노무현에 대한 온갖 멸칭들을 발명해 왔고, 그래서 지탄받았다. 메갈리아는 남성연대 전 대표인 고 성재기 씨(마포대교에서 한강에 입수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다 어리석은 죽음을 맞은)를 조롱하며 ‘재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앞서 말한 정의로운 분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유난히 패륜적이다.<br/><br/>영국인들은 대처 전 수상의 죽음에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다. 사실 한국인들이라고 꼭 죽음에 관한 터부에 윤리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여러 차례 토로했듯, 나는 여기서 여러 정의로운 분들의 입장에 서고자 한다. 즉 고인비하는 무조건 나쁘다고 본다. <br/><br/>따라서 고인비하를 일삼는 오유인들 역시 지독한 패륜아들이 아닐 수 없다. 다윈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죽음을 맞은 사람들에게 수여된다. 오늘의유머 유저들은 다윈상 수상자들을 유머로 취급하여 잘 갖고 놀아 왔다. 물론 고인 비하라며 나쁘다는 사람이 오유 내에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전우용 씨의, 사이트 안의 찬성자이건 반대자이건 사이트가 패륜을 조장하면 모조리 패륜이라는 기적의 논리는 여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br/><br/>오유인들은 또한 어리석은 죽음을 맞은 허현회 씨도 조롱하였다. https://archive.is/fZcUh 지금까지의 논리를 여기에 일관할 때, 오유인들은 역시 패륜아들이다. 그리고 작고하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희화는 오유인들에게 뭐 거의 스포츠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다시 한 번 오유가 패륜 사이트임이 증명되었다.<br/><br/>그리고 문제의, 성재기 씨의 이름에서 나온 ‘재기’라는 단어를 보자 - ‘재기해!’는 곧 ‘죽어!’ 또는 ‘자살해!’쯤 되겠다. 오유인들은 이것을 쓰는가, 쓰지 않는가? <br/><br/>박지은은 웹툰작가이다. 그이는 넥슨의 성우 교체를 비판했으며 넥슨 작품을 보이콧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을 메갈리아와 무조건 연관시키는 것은 어리석으며, 메갈리아도 애초에 그렇게 극악하기까지는 않다는 의견을 표했다. 무슨 메갈리아 유저들처럼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메갈이 꼭 옳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이가 메갈리안이라는 근거조차 없다. <br/><br/>그런데 최근 박지은은 건강검사 결과 암이 발견되었다며 작업을 잠시 쉬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오유인들은 지금까지의 패륜행각들이 그저 잡설에 가까울 수준의 인신공격을 자행하였으니, 다음을 보라. 이 글도 오유의 ‘베스트오브베스트’로 선정되었다. https://archive.is/HhwhO<br/><br/>저 오유인들은 죽은 사람을 놀리는 것이 아니다. 단지 멀쩡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다. 암에 걸려 투병중인 사람에게 자살하라며 끔찍한 저주를 퍼부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말했듯 저 작가는 메갈리아와 무슨 직접적 연관도 없다. 오유인들의 극악한 폭언의 근거란 고작 자기네들 입장과 다른 사람이라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 하나다.<br/><br/>세상에 이런 패륜아들이 있는가? 저들은 두뇌의 윤리회로가 완전히 망가진 괴물들이다. 인격파탄도 정도껏이지, 이 정도면 지옥의 악마들마저 경악할 수준이다.<br/><br/>저 글에 달린 다른 댓글들을 그대로 적어 보겠다. “걍 조용히 트위터 그만 쳐보면서 치료를 하던지 아주 가지가지 하네” 추천 115개에 반대 9개이다. “쾌유는 무슨 ㅋㅋㅋㅋㅋㅋㅋ<br/><br/>노관심 ㅎㅎㅎ” 추천 2개에 반대 4개. “아니 전 빠른 쾌유 안 바래요.” 추천 19에 반대 21개. “밑바닥까지 탈탈 털어서 보여주네요 작가로써 먹고 살수 있다는 굳은 생각과 차후 사회생활(대인관계,결혼등등)에 전혀 신경 않쓰는 무대포정신이 일반인의 범주를 넘었네요” 추천37개에 반대 없음. “한달 반 전에 갑상선 제거 술 했던 사람은 웃고 갑니다~\_~” 추천 57개에 반대 없음.<br/><br/>메갈의 패륜이라고 지목된 것들 중에는 남자들이, 특히 오유에서 하는 비윤리적인 발언에 성별만 바꿔 단 것이 적지 않았다. 그런 메갈리아의 것들은 적극적인 의사가 결여된 것들이었다. 여러 정의로운 분들은 그것조차 몽땅 패륜이라고 낙인찍어 왔는데, 어떻게 오유의 ‘원본’들은 패륜이 아닐 수가 있는가? 심지어 가장 마지막에 살펴본 박지은씨에 대한 오유인들의 행각은 가장 극렬한 일베인들조차 기막힌 패륜으로 인정해줄 만한 것이다. 탱크를 몰던 일베인들이 결국 맞았다. 오유야말로 지금 확실히 메갈리아를 뛰어넘고 있으며, 일베와 비견할 만한 사이트이다.<br/><br/>이것이 희대의 패륜 사이트 오늘의유머의 실체이다. 여기에, 메갈을 패륜이라 규탄해 온 정의로운 남성분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팩트’들이 아닌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 그들이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이에 무엇을 해야 할까?<br/><br/>메갈리아를 공격하던 많은 분들은 말했듯 과연 여기서 ‘이중잣대’를 보일 것인가? 성차별주의자로 오히려 낙인찍히기 싫다면, 적어도 동일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메갈리아에 했던 것 그대로 오늘의유머에 하라!<br/><br/>죽창을 다시 들라. 오유인들을 인간적으로 짓밟는 방법들을, 치욕과 모욕을 주는 방법들을 연구하라. 키보드를 두들기라. 오유의 문제적인 발언들을 찾아내어 과장하여 홍보하라. 사실을 왜곡하여 사람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기고, 당신들의 동료를 만들라. 그에 정의당의 여러 ‘아재’들이 기꺼이 그대들과 함께하리라. 오유인들을 모두 하나라며 싸잡아 몰라. 그에 고매하신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지지해 줄 테다. 오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모두 패륜아들로 낙인찍고,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격하라. 자랑스러운 박가분 형님이 지원사격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근거를 들어 항의하면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라.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광경을 보며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런 것들은 특정 사이트의 패륜에 비해 사소하다지 않은가? 또한 반대자들의 신상을 털라. 직장에 떼로 전화하여 반대자들의 밥줄을 끊으라. 국회의원 노회찬 씨가 노동 따위는 전혀 안 중요하다고 여러분을 토닥이리니! 더 나아가 그대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사업이, 아니 업계 전체가 아예 멸망하기를 획책하라. 바로 메갈리아에 했던 것 그대로 그대들은 하라! 오유인들을 사냥하라, 그것으로 정의로운 여러분의 은밀한 욕망을 마음껏 채우라. 그리고 그것은 다음 사냥감을 찾아 계속되리라.<br/><br/>하지만, 여러 정의로운 남성분들이 실제로 저렇게 논리적으로 완전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늘 하던 대로, 저 꼴보기 싫은 오유의 인격파탄자들부터 옹호할 수밖에 없을 터이다. 이것은 매우 불편하고 역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정의로운 여러 남성분들이 계속 정의당처럼 정의롭다면, 그분들의 인간성도 오유인들처럼 파탄이 날 것이다(주). 뭐 이미 나 있을지도 모르지만. <br/><br/>그러니 나는 논리적으로 약간 열등한 방안을 내놓는다. 메갈리아를 낙인찍으려는 남성분들이여, 차라리 오유에 메갈과 다른 이중잣대를 보이라.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하라.<br/><br/>(주) 이에 관해, 놀라운 일이지만, 현재 이런 상황인 오유는 한때 개념사이트 취급을 받았다. 지면이 허락해준다면, 오유의 몰락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고찰할 기회가 있겠다.<br/><br/><br/><br/>" target=\_blank> ■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 target=\_blank> ghdru\*\*\*\*\*@hanmail.net<br/><br/>http://h2.khan.co.kr/201608041459021 이 글을 보고 이렇게 메일을 적습니다. 인간은 개인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이 사실 아래, 일단 위 글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김치녀·된장녀는 왜 여성혐오일까? 여성을 싸잡아서? 그렇다면 남성을 싸잡는 김치남·씹치남·한남충은 남성혐오인가? 의 문단을 보면 여성과 남성을 개개인이 아닌 한 무리집단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엄청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개개인이 하나의 각기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두순이 강간을 하고 뉴스에 나왔을 때도, 만약에 무리집단이였다면, 저는 조두순을 변호하거나 쉬쉬했겠지만, 현실은 저런 xx놈 하면서 같이 분노했었습니다. 왜냐면 저와 그는 엄연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간범, 몰카범, 염산테러범이 아닌 남성은 “가해집단 구성원”으로 싸잡히면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아니다.’ 라는 문장은 엄연히 논란을 일으킬수 밖에 없는 문장입니다.<br/><br/>저와 다른 사람은 각기 다른 존재이고, 각기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어찌하여서 ‘남자들은 스스로 무고하다 여기며 억울해 하는 버릇을 버려야 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나는 나이고, 그는 그인데, 어찌하여서 그가 한 짓에 저또한 죄책감을 느끼란 말입니까? 또한 ‘여성에게 ‘허벌XX, 갈색XX’ 등 그의 성기를 들먹이는 모욕을 하는 것은 왜 여성혐오일까? 남성에게 ‘실OO, 6.9, 소추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혐오발언일까?’<br/><br/>또한 에서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되는게, 저 위 언어들은 욕입니다. 따라서 둘다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라는거죠. 따라서 둘다 어찌보면 여성혐오이며, 남성혐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또한 기사에서는 여성의 성기 욕은 여성혐오이고, ‘남성의 성기 욕은 남자답지 못하다는 뜻이다. 정신차려라’ 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상대방을 모욕하는 느낌이 들면 그건 모욕이고 혐오 발언입니다. <br/><br/>그리고 메갈에는 없는 남성혐오 라는 문단도 말이 안되는게 http://archive.is/U9cVq 은 한남 유충을 낙태햇다는 글을 지지하는 글이고,(위 사이트는 위마드이지만 태생은 메갈입니다.)<br/><br/>http://archive.is/2016.08.01-130206/http://www.megalian.com/free/337832?search=%EC%97%AC%EC%84%B1%EC%9A%B0%EC%9B%94는 남여 평등이 아닌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글입니다. 우월주의 안에는 당연히 남자가 여성보다 하등하다는 말이 되는 거지요. 이 뉴스는 말이 안되는 뉴스입니다. <br/><br/><br/><br/>■ 메갈리아 기고를 비판·반대합니다. myskyd\*\*\*\*\*@naver.com <br/><br/>죄없는자 돌을 던져라, <br/>메갈리아와 관련한 많은 기사을 보았고 그 내용들의 중심 내용들 논쟁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질문들을 모아 보았습니다.<br/>무작정 비난하기 보다 정반합의 논리학에 기초해서 주장이 있고 팩트체크 반박이 있으며 정리된 교정된 결과물을 통해 한발자국 더 이 사회가 발전하기을 원합니다. 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일방적인 주장을 중심으로 논란만 증폭시키면서 지금의 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편가르기와 분노만을 증가 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br/><br/>김자연 성우의 메갈리아 티셔츠로 인한 교체 사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올바른 판단만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논란 초기 티셔츠의 문구만을 이용하여 페미니즘 운동으로 규정하여 진영논리을 가동한 일부 식자라는 분들로 인해 더 폭발력을 가지게 된 부분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 봅니다.<br/>김태훈 칼럼니스트의 is보다 위험한 꼴패미라는 칼럼에서 보여준 자칭 페미니스트들의 행동양식과 지금 논란이 되는 김자연 성우의 넥슨 교체에서 보여주는 행동양식은 동일한 구조을 보이고 있다. 이는 딴지일보에서 나온 페미니즘 자경단 대의을 잃다 라는 기사에서 설명하는 그런 모습에서 과연 차이가 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칭 패미니스트라는 많은 식자들이 옹호글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의 논리을 느끼는 것은 개인적은 소회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티셔츠 텀블럼의 의미 또한 많은 논점을 제공합니다. <br/><br/>메갈리아의 미러링으로 인한 송사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넷티즌이 불쾌감으로 추적하여 증거을 제공한 부분이 마인드c 작가 사건과 좆린이 사건의 지원인데 개인의 반사회적 일탈행동을 텀블럼을 통해 지원한다는 점은 이 위법행위에 대한지지 의사인데 이 또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논점이 될 듯 합니다.<br/>마인드c 작가의 작품중에 강남미인이라는 작품이 여성혐오 코드가 있다며 작가에게 많은 행패을 부렸는데 개중에 도을 넘는 (작가분이 강간을 했다하며 가정파탄을 기도하는 등 도을 넘는 행위)가 미러링이라며 옹호 하시는분들이 참 많은데 이런 미러링의 옹호 행위가 약자는 사회 규범을 초월한 투쟁 행위에 명분을 제공하는데 사회적약자는 상대적 개념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도을 넘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 견해가 아니기 ��문에 이런 사회에 풍파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br/><br/>결국은 이중잣대의 부분이 다시한번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좆린이의 원본이 로린이라고 미러링이기 ��문에 신상털이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쟁점을 주고 있습니다. 로린이 사건의 교사는 퇴출되고 이후 얻는 직장에도 알려저서 취업이 어려운 일이 벌어 졌습니다. 로린이 사건의 응징과 일베에 대한 많은 공격들 (kbs 기자, 소방관 등등)이 이번 사건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느껴 집니다.<br/>우리는 그동안 많은 사건을 거쳐 왔습니다. 루저녀 사건이나 김신명숙사건 등 많은 사건을 거쳐 오며 우리는 지금 많은 논의와 경고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에는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관련 법률을 더 강화하고 너도 나도 않하는 사회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 까요. <br/><br/>이제는 너무 복잡한 현대 사회입니다, 일반화해서 설명하기에 어려운 세태에 공감가지 않는 과거의 이야기 만으로 어떤 사회적 공의을 형성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여자가 약자여서가 아니라 대중앞에 개인은 약자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마녀사냥은 여성 혐오나 그 미러링으로 말하여질 개제가 아닌듯합니다.<br/>어떤 분들은 유리천장 여성 차별을 이야기 하는데 우리에게 공감 받고 공의을 받아서 이야기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 집니다. 저임금 이야기나 임금 차별 이야기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남자들도 차별받는 부분입니다. 고용인과 사용인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비롯해서 사회 구조적인 입장에서 교정해 나아가고 개별적인 교육이나 사회 환경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여겨 집니다. <br/><br/>지금 여성혐오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미 제도권에서 논의 되어오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메갈리아에서 이야기하는 차별적 이야기에서 달라져 있습니다. 그들이 6.25 고기파티 하며 미러링이라며 한국군 위안부 등 다른 이야기을 하는데 메갈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현대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br/>그들의 이야기는 성매매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법 등 기존에 해오던 일들과 성과을 무시하는 발언들이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나 가족법등 모든 공론의 장을 붕괴 시키는 행위입니다. <br/>그들의 패미니즘 논리는 지금 소수자에 관련된 사회약자에 관련한 모든 논쟁을 빨아 드리는 블랙홀이 되어 모든 공론의 장을 붕괴 시키고 있습니다. 진영논리을 가동하였지만 그동안 보수와 진보의 논쟁의 장에서 진보와 진보을 분열시켜 놓고 있습니다.<br/>이들의 남녀,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논리는 흡사 귀족 노조론을 보고 있는 기시감을 느낍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 구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놓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동안 88만원 세대 3포세대, 5포세대 론에서 젊은이들은 피해자로 남자 여자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br/>하지만 이번 논리로 남자는 가해자가 되었고 여자는 피해자가 되어 최대 약자가 되어 이제는 남녀 대결 구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무슨 실익이 존재하며 이번 논란에 어떤 대의가 존재하고 어떤 함의가 있어서 대안으로 무엇이 개선될 것인가요?<br/><br/>역사학자 전우용씨의 기고글에서 현대 사회에서 젊은 남성은 여성에게 부채의식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같이 많은 자녀의 가정에서 첫�딸은 재산 밑천이라는 똑똑한 누나가 동생의 공부 뒷바라지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시대상은 지금 기성세대 남성들에게 부채의식을 남겨 양보가 가능하고 동조할 수 있게 만들지만 1자녀 2자녀의 현대 핵가족 사회에서 10대 20대 30대 젊은 남성들은 가정내에서 젠더 권력을 체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br/>유치원 교사의 100% 초등학교 교사의 90% 중학교 교사의 70%가 여성인 유아기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젠더권력은 먼나라 이야기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뿐인 어화둥둥 내새끼가 여자여서 양보하고 남자여서 대우받고 그런 차별적인 요소가 작용한 틈이 존재 하나요? <br/>여기에 성장발달학적으로 학교라는 시스템은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우월합니다. 초등학교�� 평균 2-3년 일찍 2차성징으로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에 비해 우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남자아이에 비해 더 크고 정신적으로도 호르몬 분비로 왕성하게 발달하면서 지능적으로 1-2세 정도는 평균적으로 우월합니다. <br/>이는 학교라는 평가 시스템에서 우월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자아이 학부모는 남녀공학을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여성이 성적 상위권에 다수 분포합니다) 특목고의 진학률은 여성이 60%~80%로 훨씬 압도적입니다. 이는 초등학교�� 일찍 먼저 성숙한 아이가 좀더 성적이 좋게 나오고 이러한 상황이 늦게 성숙한 아이가 뒤집기 쉽지 않게 만들고 상황을 고착화 강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br/>상대적으로 여성선생님들의 남자아이 컨트롤에 부담을 느끼고 남자가 여자을 배려해야지, 남자가 왜그래, 남자는 그러는거 아니야, 넌 왜그러니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황은 고착화 되지만 상대적으로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에 대해 젠더 권력을 느낄 수 있는 구조일 까요?<br/><br/>보통 성적인 차별을 느끼는 시기는 사회에 진출 할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남자는 대학에 진학해 취업에 압박을 느끼기 시작할 때 미래에 불안을 느끼고 설계할 시기에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여성들은 장학금을 받고, 교환학생이나 유학 등 많은 스팩을 만들고 있을 때 소집영장을 받고 어어??!! 하는 순간 군대에 가 있습니다. 군대에 나와보니 여성은 사회인이고 나는 아직 학생입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하고 보니 어린 여자 상사가 존재합니다. <br/><br/>지금 사회의 여성 진출률은 어느때 보다 높습니다. 결혼이 늦어지고 미혼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활동이 활발하다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법제적으로 정보적을 취업준비생에게 남자 여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경쟁자이고 너도 나도 취업이 힘든 시대에 미취업생이나 만족할 수 없는 그리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어떤 차별이 존재 할까요<br/>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기성세대에 대한 문제와 불만을 서로에게 돌리는 잘못 쏜 화살이 아닐까요?　누구나 하고 싶은 직장 공무원 시험의 여성 합격률이 높습니다. 3시 또한 여성이 남성을 추월한지 10년이 되어 갑니다. <br/>학교에서 특목고에서 고위공무원에서 많은 부분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엘리트 코스을 거치는 알파걸들이 주변에 목격되는 남성들 입장에서 이런 젠더론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br/>아직도 지금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일방적인 이야기로 들리시나요?<br/><br/><br/> ■ 메갈리아 연속 기고 <br/>1회: 더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우리 모두의 책임: 내가 종북이다, 내가 메갈이다<br/>2회: “일베나 메갈이나”를 말하는 당신은 정말로 ‘순진한 일반인’인 걸까<br/>3회: ‘미러링’의 정당성과 한계, 그리고 메갈리아는 왜 범죄집단이 아닌가<br/>4회: 메갈에는 없는 남성혐오<br/>5회: 독자는 더 이상 사과문을 요구하지 않는다<br/>6회: 여성혐오와 예스컷, 다수가 옳지 않을 때도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br/>7회: 진짜 페미니즘을 찾아서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76.txt

제목: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허위광고로 노인 등친 3명 적발  
날짜: 20160809  
기자: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09093122041  
본문: 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단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씨(5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br/><br/>윤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건강식품 홍보관을 열고 노인 100여명에게 가짜 만병통치약을 판매해 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r/><br/>이들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식품을 ‘암, 당뇨병, 불면증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해 원가 10만원 상당의 제품을 3배 가량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br/><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불법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할 확대할 방침</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77.txt

제목: [시론]화학물질이 도둑질한 인류의 미래  
날짜: 20160808  
기자: 이기영 | 초록교육연대 공동대표·호서대 식품공학과 교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08205135278  
본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한국사회가 생활화학물질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매일 사용해온 치약, 샴푸, 화장품은 물론 방향제나 가공식품에 첨가된 방부제와 색소, 농약에 이르기까지 하루에도 무의식적으로 수십 가지의 화학물질들을 사용·섭취해 왔는데, 이런 제품들을 하루아침에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br/><br/>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몇 년에 걸쳐 수백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날 정도로 심각해진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지나치게 느슨해 많은 화학물질들의 사용이 검증되지 않은 채 허가된 결과이다.<br/><br/>당장 급성 독성으로 인한 이상이 없어도 지난 20여년 동안 비염이나 천식, 암 등 그 전엔 드물던 염증성 질병들이나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만성 대사성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이들 화학제품의 사용과 무관치 않다. <br/><br/>또 남성들의 정자 수가 급감하거나 불임률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지목된 환경호르몬도 큰 사회문제이다. 이번 기회에 유해화학물질들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법적인 거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br/><br/>1962년 미국의 해양생물학자이자 작가였던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이란 책에서 DDT 등 살충제가 많은 동물들의 생식기능을 약화시켜 멸종의 위험에 이르게 만든다는 사실을 폭로해 처음으로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렸다.<br/><br/>인류가 합성해 사용해온 많은 화학물질들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던 물질이어서 이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도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체나 생태계 사슬에 축적돼 생명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재 합성돼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수십만 가지에 이르고 매년 수백, 수천 가지의 화학물질이 새로이 출현함에도 현재 검출 대상인 유해화학물질은 겨우 수백 종류에 불과하고 이런 화학물질도 생체독성에 대한 연구는 느리고 미진한 상태란 사실이다. <br/><br/>산업혁명 이후 지난 100년간 현대 석유 기반 문명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수십만종의 화학물질들을 생태계에 쏟아부었고 현재 인류가 사용 중인 화학물질만 해도 10만가지가 넘는다. <br/><br/>현대인들은 하루 12㎏ 정도의 공기와 1㎏ 정도의 음식을 먹으며 살고 있다.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사용하는 화장품, 치약, 샴푸 등 세제, 식품에 들어가는 방부제와 색소를 비롯해 농약과 살충제, 표백제, 건축마감재, 심지어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부터 콘돔에 이르기까지 화학물질 사용이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다. <br/><br/>이러한 화학물질은 맹독성인 것도 많으며, 일부는 공기 중에 있다가 피부를 통해 몸 안에 축적돼 분해되지 않거나 체외로 잘 배출되지도 않는다. 또한 면역체계를 교란하거나 신경전달물질들과 결합해 면역질서를 파괴해 아토피나 비염, 천식, 알레르기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일부는 생태계에 축적되며 먹이사슬을 통해 야생동물은 물론 우리 몸에도 쌓인다.<br/><br/>얼마 전 영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유방암 환자 160명을 대상으로 암세포를 조사한 결과 99%에서 방부제인 파라벤이 검출돼 여성들을 경악시켰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살균제 트리클로산이나 계면활성제 SLS를 첨가해 거품이 잘 나는 대부분의 치약도 간장독성과 발암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br/><br/>2007년 유해물질들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환경부가 주도해 ‘환경보건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당시 산업자원부가 업계에 부담을 준다며 난색을 표해 제품 유해물질의 종류나 함량을 표시하고 유해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 등이 삭제됐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체에서 무독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물질들은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br/><br/>또한 개인적으로도 음식 재료나 생활용품 및 건축재들은 가능하면 합성된 화학물질보다는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식물 등에서 뽑은 자연 항균제나 항산화제, 식물성 색소 등 천연원료인지 확인하는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가임기 여성들은 환경호르몬 유발 물질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플라스틱 용기에 든 즉석 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워먹는 대신 유리나 도자기 용기를 활용해야 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78.txt

제목: 황반변성 끝장 콘서트, 암 수기 공모, 뇌종양 건강강좌 등  
날짜: 20160808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08152417747  
본문: ■의사-환우-가수-시민, 해바라기 안경 쓰고 ‘스마일~’<br/><br/>한국실명예방재단과 썬플라워 캠페인 운동본부가 주최한 황반변성 끝장콘서트가 지난 6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황반변성 환자 및 가족,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br/><br/>순천향대병원 이성진 교수, 한양대구리병원 조희윤 교수, 고대안산병원 김성우 교수, 대구누네안과 문다루치 원장 등 안과 전문의들이 각 주제별로 10분 강의를 진행하고, 끝장토론에서는 사전 접수된 질문 외에 현장에서 환우들의 궁금증에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br/><br/>끝장 토론과 더불어 여행스케치 남준봉, 바이올리니스트 백진주, 성악가 유성녀, 가수 전유나, 뮤지컬배우 박세욱, 아이돌 그룹 하이포, 스쿨버스 등이 출연해 환우들에게 음악과 함께 재미난 시간을 선사했다. 콘서트가 끝날 무렵에는 모두가 썬플라워 캠페인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해바라기 안경을 쓰고 사진(위쪽)을 찍었다.<br/><br/>황반변성은 조기 진단과 치료로 실명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질환이다. 이성진 교수는 “<span class='quot0'>썬플라워 캠페인이 매년 거듭되면서 환우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이번 행사는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주최하고, 썬플라워 운동본부, 목향재단이 주관했다. 황반변성 환우들을 위한 기부를 원할 경우, 목향재단(070-7593-2400)으로 연락하면 된다.<br/><br/>■전남지역암센터 암 예방·극복사례 수기 모집<br/><br/>“<span class='quot1'>암 조기발견 경험담, 암 극복사례, 간병 이야기 등을 들려주세요.</span>”<br/><br/>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지역암센터(소장 김영철)가 오는 9월30일까지 암 관련 수기를 공모한다. 암환자와 가족, 암에 대한 직·간접경험이 있는 이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br/><br/>A4용지 2매 이내의 글과 함께 전남지역암센터 홈페이지(http://www.cnucancercenter.com)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메일(cnurcc@gmail.com) 또는 우편(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번지 암센터 2층 운영지원실)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전화는 전남지역암센터(061-379-7709).<br/><br/>심사결과는 10월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며, 수상자에겐 개별 연락해준다. 응모작품 중 대상 1명(30만원), 최우수상 1명(20만원), 우수상 2명(각 10만원), 장려상 3명(각 5만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수상자들에겐 각각 해당 금액만큼 상품권을 증정한다.<br/><br/>김영철 소장은 “<span class='quot2'>암 조기 발견 경험담부터 암 극복사례, 간병이야기 등 암 치유와 관련된 경험담을 공유,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span>”고 수기 공모의 취지를 밝혔다.<br/><br/>■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 뇌종양 건강강좌<br/><br/>서울대병원은 오는 18일 오후 4시, 어린이병원 1층 임상제2강의실에서 ‘소아청소년 뇌종양’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수술치료(소아신경외과 김승기), 약물치료(소아청소년과 박경덕), 방사선치료(방사선종양학과 김일한) 등 교수들의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79.txt

제목: 각광 받는 ‘고주파 온열암치료’, 치료법은?  
날짜: 201608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08141848734  
본문: 최근 고주파 온열암치료가 종양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며 관련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r/><br/>고주파 온열암치료는 암세포가 40℃이상에서 손상되거나 괴사되고 정상세포는 45℃이상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원리를 이론적 바탕으로 두고 있는 치료법이다. 고주파를 40~44도로 맞춘 후 종양부위에 집중 치료를 진행하면 결국 종양 제거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br/><br/>고주파 온열암치료기기 ‘BSD-2000(공급자 ㈜아이비랩)’은 피부가 아닌 심부에서 고주파에너지를 전달한다는 장점 때문에 도입 병원이 늘고 있다. 기존에 소개된 국내외 제품들과 달리 단방향, 양방향, 4극방향에서 70-120MHz 고주파에너지를 원하는 곳으로 전달 가능하다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br/><br/>또한 해당 제품은 종양치료부위의 온도 및 열 체크가 가능해 열 손상 위험도를 낮출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심부의 온도를 확인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br/><br/>이러한 우수성으로 인해 BSD-2000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FDA 승인을 획득함으로써 그 안전성과 암치료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이미 미국 듀크대학교 의료센터와 독일의 뮌헨대학교 의료센터 등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이며, 그 우수성을 주제로 한 다수의 논문이 등재되기도 했다.<br/><br/>국내에서 BSD-2000을 도입해 암치료를 진행중인 병원으로는 통합 면역암치료와 관절수술 후 재활 전문 치료를 진행하는 광주광역시 연희한방병원이 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암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으면서도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선호하면서 관련 치료기기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BSD-2000은 종양 위치에 고주파에너지를 집중해 깊이 전달할 수 있어 고형암 뿐만 아니라 체내 깊숙이 숨어있는 종양도 잡아낼 수 있다. 고주파 암치료로 많은 암환자들이 고통없는 암치료를 진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80.txt

제목: [기타뉴스][오래전‘이날’]8월6일 전두환에 사형 구형  
날짜: 20160805  
기자: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05231627685  
본문: [오래전‘이날’]은 1956년부터 2006년까지 매 십년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 합니다.<br/><br/><br/>■1996년 8월6일 전두환에 사형 구형<br/><br/><br/><br/>전두환씨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20년 전 이날 경향신문을 보니 당시 검찰이 전두환씨에 대해 내란·반란 수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등 10개 죄목을 들어 사형을 구형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 노태우씨에게는 내란·반란 중요임무종사죄와 뇌물수수죄 등 9개 죄목이 적용돼 무기징역이 구형 됐습니다. 전씨와 노씨는 당시 12·12 및 5·18사건과 비자금사건으로 검찰에 의해 병합기소됐었습니다. 기사는 전직 대통령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사형구형은 물론 실형을 구형받기는 사상 처음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후 최종심에서 전씨에게는 무기징역이, 노씨에게는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지만 1997년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년 만에 출옥하게 됩니다.<br/><br/><br/>■1986년 8월6일 등소평의 건강체크법<br/><br/><br/><br/>30년 전 이날 경향신문은 당시 중국의 최고지도자 등소평의 건강 체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등소평이 당시 떠돌던 은퇴설에 대해 자신은 여전히 건강하며 주위에서 은퇴를 말리고 있어 현재 지위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등소평이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은 수영과 브리지 게임이었습니다. 수영을 할 수 있으면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이고 브리지를 할 수 있으면 정신적인 건강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br/><br/><br/>■1976년 8월6일 행복을 약속하는 고압송전탑<br/><br/><br/><br/>40년 전 이날 경향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전선을 만드는 업체가 우리에게 빛을 주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는 바로 전선을 통해 공급된다며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업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진은 고압 송전탑 사진이 실려있네요. 암을 유발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암 발병률과 고압 송전탑의 위치에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보도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행복을 약속합니다’라는 광고 제목과 ‘고압 송전탑’ 사진의 조합이 정말 묘하네요.<br/><br/><br/>■1966년 8월6일 바나나 열매 쯤이야<br/><br/><br/><br/>50년 전에도 이날은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을 보니 무더위에, 창경원 바나나가 열매를 맺기까지 했다는 기사가 실렸네요. 무더위로 불쾌지수가 치솟았지만 바나나가 열매를 맺은 창경원에는 유쾌지수가 최고였다고 기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 열매가 맺힐 정도로 무더웠다는 당시 낮 기온은 32.8도 였습니다. 38도가 넘어가는 요즘에는 맺힌 열매가 익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81.txt

제목: 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 7회 건강보험 적용  
날짜: 20160805  
기자: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05200151925  
본문: 오는 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에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미숙아 치료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 질환) 시술 초음파 등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br/><br/>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2014년 전체 비급여 의료비의 12.3%(1조3800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흔하게 사용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환자 부담이 컸다. <br/><br/>43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임신부들은 현재 초음파 검사 7회를 받는데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지만, 이번 보험 확대 적용으로 올해 10월부터는 비용이 약 24만원~41만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전 초음파는 임신 주수별로 10주 이하 2회, 11~13주 1회, 16주 1회, 20주 1회, 20주 이후 2회로 한정된다. 다만 7회 이외의 초음파 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는 70만원)을 사용할 수 있고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임신중독증, 산모 출혈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br/><br/>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미숙아 치료를 위해 이용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다른 영상 검사를 하기 어려운 미숙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 초음파 검사의 비용 부담은 현재 18만~25만원에서 약 1만5000원으로 낮아진다.<br/><br/>또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자의 경우 현재 진단 목적 초음파만 급여를 인정했지만 10월부터 조직검사, 치료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시술 약 70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신장암 환자가 수술이 불가능해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을 경우 정확한 표적 치료를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데, 현재는 약 20만~4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br/><br/>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를 위해 연간 약 3046억~325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며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br/>건정심에서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축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이 현재 67%에서 33%로 떨어져 총 선택진료 의사 숫자가 8405명에서 4523명으로 감소해 일반의사 선택 기회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비급여 선택진료 부담이 연간 415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82.txt

제목: 의사도 진단못한 병, AI가 10분만에 치료법 제시  
날짜: 20160805  
기자: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05095339025  
본문: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의학 관련 논문을 학습한 인공지능(AI)이 60대 환자의 특수한 백혈병을 10분만에 알아낸 뒤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했다고 산케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br/><br/>도쿄대 의학연구소는 IBM의 인공지능 ‘왓슨(Watson)’을 활용한 암 진단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여성 환자는 지난해 혈액암의 일종인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도쿄대 의과학연구소에 입원했다. 도쿄대 측은 이 여성에게 두 가지의 항암제를 6개월 동안 투여했지만, 회복되지 않았고 패혈중 등의 위험이 제기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br/><br/>이 과정에서 환자의 암과 관련된 유전자 정보를 왓슨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지켜봤다. 왓슨은 여성환자가 급성골수성백혈병 중에서도 ‘2차성 백혈병’이라는 특수한 유형이라는 분석 결과를 불과 10분만에 내놨다. <br/><br/>왓슨은 이후 항암제 종류를 바꾸도록 제안했고, 연구팀이 왓슨의 제안대로 항암제를 투여한 결과 여성 환자는 수개월 안에 회복해 퇴원했다. 이 여성환자는 현재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br/><br/>도쿄대와 IBM은 지난해부터 암 연구와 관련된 2000만건의 논문을 왓슨에 학습시켜 진단에 활용하는 임상연구를 진행해 왔다. <br/><br/>AI를 활용한 치료에 성공한 도쿄대 의과학연구소 측은 “<span class='quot0'>AI의 응용이 의료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span>”는 입장을 산케이에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83.txt

제목: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실시, 접종 대상 및 효과는?  
날짜: 201608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04120935215  
본문: 전 세계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궁경부암’은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다. 최근에는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br/><br/>건강보험심가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에서 나타난 자궁경부암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5년 기준 약 5만5000명으로, 2010년 2만7512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7.7%로 가장 많았고, 50대 25.0%, 30대 19.9%, 60대 14.5% 순으로 나타났다.<br/><br/>자궁경부암은 여성의 질에 연결된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성 접촉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져 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자궁경부암 환자의 99.7% 이상에서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된다고 보고되어 있다.<br/><br/>현재 국가사업을 통해 무료 접종이 진행 중인 자궁경부암 백신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 자궁경부암 발생을 예방하는 원리다. 관계를 시작하기 전 12세 연령에서는 두 번의 예방접종으로도 자궁경부암 예방에 충분한 면역력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는 한국MSD의 '가다실'과 한국GSK의 '서바릭스' 중 원하는 백신을 선택할 수 있다. 가다실은 자궁경부암 예방 효과가 있는 HPV 16, 18형뿐만 아니라 생식기 사마귀를 일으키는 HPV 6형, 11형에 도움이 된다. 서바릭스는 자궁경부암에 특화된 백신으로 가다실에 비해 항체 생성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br/> <br/>연신내역 은평연세병원 외과전문의 오소향 진료과장은 “HPV 백신 접종 시 약 70%의 자궁경부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HPV 백신은 성경험 전 즉 어린 연령대에 접종을 시작할수록 더욱 높은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2세 연령에 6개월 간격으로 2번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현재 전세계 65개 국가에서 암 예방을 목적으로 2억건 이상 효과적으로 접종된 안전한 백신이다.<br/><br/>한편 올해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인 2003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 사이 출생 여성 청소년은 가까운 무료접종 참여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은평구 지역주민이나 지축, 삼송 뉴타운 지역주민의 경우 가까운 은평연세병원에서 접종을 진행할 수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84.txt

제목: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 숨겨진 것들 때문이다  
날짜: 20160803  
기자: 인촨·중웨이(중국) |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04101856576  
본문: ㆍ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br/><br/><br/>닝샤후이(寧夏回)족자치구. 이름도 낯설다. 지도에서 찾아보니 중국 대륙 한복판. 닝샤에 가게 됐다고 주변에 알렸더니 “중국 내륙에 있는 오지 아니냐” “사막에서 화장실 없어서 고생하겠다”는 우려가 돌아왔다. 그만큼 한국인에게 닝샤는 미지의 여행지다.<br/><br/><br/>지난달 14~18일 운 좋게도 이 낯선 지역을 탐방할 기회를 얻었다. 닝샤는 ‘도시와 문명, 자연과 야생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여행지는 없으리라’는 통념을 여지없이 깨뜨렸다. 사막과 초원, 역사와 종교를 모두 품고 있었다. 오래된 문명을 엿보러 갔다 풍경에 반하고, 자연에 압도당하면서도 인간의 위대함에 감탄하기 일쑤였다. 어쩌면 닝샤에선 문명과 자연의 구분이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br/><br/><br/><br/>■‘아버지 산’의 선물, 허란산 암각화<br/><br/>숨겨진 그림 암각화<br/>태양신, 동물 등이 새겨진 허란산 암각화.<br/>자치구 주도인 인촨(銀川)시 외곽으로 40분쯤 달리자 슬슬 아스팔트 도로 폭이 좁아지는가 싶더니 모래와 돌무더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200만명이 사는 도시에서 자연으로 진입하는 순간이었다. 시야를 가로막는 것 없이 탁 트인 지평선 끝에 허란(賀蘭)산맥이 병풍처럼 펼쳐졌다. 해발고도 2000~3000m의 고원지대에선 구름과 산이 만난다. 구름 그림자가 산의 굴곡진 면에 내려앉을 때마다 입체 안경을 끼고 있는 것처럼 계곡과 봉우리가 알록달록 생생하게 살아났다. <br/><br/>닝샤인들은 이 허란산을 ‘아버지 산’이라 부른다. “<span class='quot0'>허란산이 없다면 닝샤도 없다</span>”고 할 정도로 각별히 여긴다. 그 각별함엔 허란산이 품고 있는 광물자원에 대한 고마움도 있다. 1980년 아버지 산은 닝샤에 또 다른 선물을 줬다. 산 한 자락에서 3000~1만년 전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암각화 수천점이 발견된 것이다. 암각화는 여행객들을 닝샤로 불러들였다.<br/><br/>암각화박물관에서부터 보물찾기 하듯 바위에 새겨진 태양신, 말, 전투 장면 등의 암각화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협곡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있었다. 가파른 비탈로 둘러싸인 이곳에 어떻게 수천년 전 인류의 발길이 닿을 수 있었을까. 15m 정도 가파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바위에까지 짐승을 새긴 이유는 무엇일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다.<br/><br/><br/><br/>■서하 왕조와 동양의 피라미드<br/><br/>잊혀진 왕조 서하<br/>원래 모습이 완벽할 정도로 보존된 인촨시 서쪽 서하왕릉 유적군. 주변 풍광과 잘 어우러진 왕릉 주변엔 작은 봉분들이 있는데 순장된 신하들 무덤이다.<br/>닝샤는 11~13세기에 번성했던 서하(西夏) 왕조의 중심지였다. 현지 가이드는 서하 왕조를 “중국 역사상 가장 신비한 왕조”라고 소개했다. 개국황제 이원호부터 10대 황제까지 대를 이어가던 서하 왕조가 1227년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군의 침입으로 멸망하면서, 서하 문자 일부가 해독 불가능한 상태로 남았기 때문이다.<br/><br/>‘동양의 피라미드’로 불리는 서하왕릉 역시 신비로운 유적 중 하나다. 인촨 서쪽엔 서하 황제 일가의 무덤 9기와 순장된 신하 등의 묘 250기가 5만3000㎡에 달하는 평원에 펼쳐져 있다. 무덤과 무덤 사이를 카트로 이동해야 할 정도로 광활한 유적군을 이룬다. 서하왕릉은 중국에서도 유적 보존이 완벽한 왕릉으로 평가받는다고 한다. 서하왕릉의 모서리는 뾰족하지 않다. 표면도 울퉁불퉁하다. 반짝반짝 닦인 서양의 대리석 무덤이나 칼같이 자른 경사면을 가진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거칠지만 정겹다. 둥글둥글한 황제의 무덤은 뒤로 펼쳐진 돌산(허란산), 주변에 널린 돌무더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분명 인위적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돌무더기인데도 자연의 한 부분인 것처럼 어색하지 않다.<br/><br/><br/><br/>■거대한 ‘모래 테마파크’, 사막<br/><br/>닝샤의 또 다른 볼거리는 사막이다. 대표적 사막 체험 명소로 손꼽히는 중웨이(中衛)시 인근 사포터우(沙坡頭) 관광지는 역동적인 활기가 넘쳤다. ‘고요’나 ‘적막’처럼 흔히 ‘사막’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달랐다. 닝샤의 사막은 낙타 타기, 모래 썰매, 사구 넘기 등 사막에 특화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모래 테마파크’에 가까웠다.<br/><br/>사포터우에 본격 입장하려면 리프트를 타거나 가파른 모래 계단을 올라야 한다. 이곳의 사막은 덩거리(登格里)사막으로 모래평원이라기보다 모래언덕(사구)의 연속에 가깝기 때문이다. 리프트에서 내려 가파른 사구 꼭대기에 서면 아래로 황허(黃河)의 물줄기가 한눈에 들어온다.<br/><br/>고개를 돌리면 거대한 모래 놀이터가 펼쳐진다. 모래언덕을 오프로드 차량으로 아찔하게 오르내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잡이를 꼭 잡고 ‘꺅’ 비명을 지르게 된다. 놀이공원인지 사막인지 헷갈릴 정도다. 차량에서 내려 걷다 보면 순한 낙타들이 줄지어 앉아 여행객을 맞는다. 낙타를 타고 모래언덕을 따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체험여행도 인기가 많다. 여행자를 이끄는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모래 썰매다.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던 가파른 사구를 썰매로 내려온다. 썰매 위에서 보는 황허의 풍경만으로도 줄을 서서 타볼 만한 가치가 있다.<br/><br/>■독특한 이슬람 문화 <br/><br/>닝샤 인구의 약 34%는 이슬람을 믿는 회족이다. 과거에 비하면 비중이 줄었다고는 하나, ‘회족자치구’란 이름답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할랄식품을 따로 표기하는 등 회족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고유의 언어 없이 한자와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닝샤 내 회족들은 주로 회족끼리 결혼하며 역사와 풍습을 이어가고 있다.<br/><br/>하지만 사막과 유적지를 주로 오가는 여행자들은 닝샤에서 회족 문화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대신 인촨 소재 중화회족문화원을 방문하면 회족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다. 문화원에선 매일 회족 전통 공연을 열고 이슬람 사원 투어도 진행한다. 문화원 안에 있는 이슬람 사원(모스크)에 들어갈 경우 여성은 머리카락을 스카프로 가리거나 모자를 써야 한다. 짧은 바지를 입고 있다면 부르카처럼 얼굴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천을 둘러써야 한다. 이 천은 사원 측에서 무료로 빌려준다.<br/><br/>▶여행정보<br/>닝샤의 2색 매력<br/>문화·역사 탐방은 인촨<br/>사막·초원은 중웨이<br/><br/><br/>“<span class='quot0'>닝샤는 중국 지도를 반으로 접으면 딱 가운데에 있다.</span>” <br/><br/>지난달 14~18일 닝샤후이족자치구 탐방에 동행한 현지 가이드의 설명이다. 닝샤자치구는 중국 5개 자치구 중 하나로, 위로는 네이멍구자치구와 접해 있다. 바다와는 한 면도 맞닿지 않은 완전한 내륙이다. 사계절이 뚜렷하며 여행 성수기는 여름이다. 건조하기 때문에 한국의 7~8월처럼 찌는 듯이 덥지 않고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다. 사막에서도 그늘 속 모래는 차가울 정도다.<br/><br/>닝샤의 주요 볼거리는 인촨시와 중웨이시에 있다. 닝샤의 성도인 인촨은 인천공항과 직항 노선으로 이어진 허둥국제공항이 있는 교통 중심지다. 인촨 인근엔 서하왕릉, 허란산 암각화, 수동골 관광지, 중화회족문화원 등 문화와 역사 탐방을 테마로 한 관광지가 즐비하다. <br/><br/>닝샤에서 사막과 초원을 만끽하려는 여행자는 남쪽 중웨이로 향한다. 국가 4A급 퉁후초원(사막세계지질공원)을 비롯해 5A급 관광명소로 승인받은 사막 사포터우가 있다. 이 밖에 스쭈이산시의 사호관광구도 5A급 관광지로 꼽힌다.<br/><br/>닝샤는 사막 체험과 이색적인 회족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중국 내에선 소문난 여행지다. 한국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탓인지 현지에서 한국인 개인 여행자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사막투어처럼 도시 바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대중교통으로 여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티웨이항공이 인천과 인촨을 오가는 왕복 노선을 주 2회로 증편했고, 여행사에선 이에 맞춰 상품을 내놓고 있다. 여행정보가 많이 쌓인 곳이 아니어서 패키지 여행도 추천할 만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85.txt

제목: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댐 수위 낮추는 ‘수위조절안’이 답이다  
날짜: 2016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03212441288  
본문: ㆍ‘암각화 연구’로 박사 학위…김호석 화백의 제언<br/><br/><br/>정부와 울산광역시, 문화재청이 ‘반구대 암각화’(국보 285호) 보존 대책으로 추진해오던 키네틱 댐(가변형 임시 물막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암각화 보존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저명한 수묵화가이자 ‘한국 암각화의 도상과 조형성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호석 화백이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힌 글을 보내왔다. 다음은 김 화백의 글이다.<br/><br/><br/><br/>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가 다시 문화계 이슈로 떠올랐다. 키네틱 댐(가변형 임시 물막이) 사업은 문화재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실패했다. 3년이라는 시간 낭비는 물론 국민혈세 28억원이 사라졌다. 문화재 보존 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둘렸다는 국민적 공분도 크다. 키네틱 댐이 없던 일이 되면서 암각화 보존 방안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키네틱 댐을 채택하기 이전, 지난 10여년 동안 논의된 대표적 보존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br/><br/>사연댐의 수위를 낮추는 수위조절안과 암각화 앞에 제방을 쌓는 생태제방안(옛 임시제방 설치안)이다. 생태제방안은 울산시가, 수위조절안은 문화재청과 문화재 전문가들이 주장해왔던 안이다. <br/><br/>키네틱 댐 사업이 무산되자 울산시는 다시 묵은 대안인 생태제방안을 내밀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생태제방안은 이미 지난 2009년과 2011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방안이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반구대 암각화 주변의 현상이 변경되어 역사문화 경관 훼손이 심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문화재위원회는 ‘댐 수위를 낮추어 반구대 암각화 보존이 필요함’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가 제안한 생태제방안은 필자가 보기에도 반구대 암각화의 가치나 의미는 물론 문화재 보존에 대한 몰상식적인 면이 명확히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생태제방안은 암각화 전방 80m 지점에 길이 400여m, 높이 15m, 너비 6m의 제방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암각화 관람을 위해 다시 다리를 놓는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br/><br/>암각화 앞을 10m 이상 높이의 제방을 쌓아 가로막으면 고래를 비롯한 각종 그림이 새겨진 암면의 환경은 지금과 확연히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암면의 습기를 조절하는 바람의 방향이나 풍속 등이 바뀐다. 또 암각화 앞이 건천이 되면서 더 심하게 훼손될 것이다. 이는 북방아시아에 있는 암각화 현장에서 수차례 확인된 것이다. 여기에 제방 토목공사로 인한 암각화 일대의 문화적 자연경관 훼손도 불을 보듯 뻔하다. 제방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중장비에 의한 진동은 안 그래도 연약해진 암각화에 치명적 영향을 줄 것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보 500m 이내에는 문화재에 영향을 줄 구조물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문화적·자연적 경관 훼손이 뻔한 제방을 그것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공하는 것이 과연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는 합리적 방안인가.<br/><br/>반구대 암각화는 왜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선사시대 인류 문명사의 근거이자, 문화사의 구체적 정황이 세계사적 보편성을 가졌으면서도 독자적인 조형어법으로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구대는 선사시대 제의의 공간인 성소이다. 유적이 조성될 당시 주변 경관과 같이 있어야만 의미와 가치가 있다. 생태제방안은 거대한 댐 하나를 더 건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동안 암각화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전문가들은 제방안의 위험과 부당함을 숱하게 지적해왔다. 그러나 울산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울산시가 생태제방안을 주장하며 내놓은 ‘물 부족’의 근거는 논리적으로 빈약하다.<br/><br/>특히 물 문제는 암각화와 별개로 여러 다른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반구대 암각화를 물 문제 해결의 볼모로 잡고 있다.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수문 설계라도 해야겠다며 예산을 확보한 당시 박근혜 의원의 노력조차 무력화시켜 버렸다. 울산시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물 문제를 내세워 암각화만을 쳐다보고 있다. 울산시가 암각화 보존의 근본적 해결책인 수위조절안을 거부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안을 살짝 수정해 또다시 내놓는다면 이는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엄청난 폭력이 될 것이다.<br/><br/>이제는 문화재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위기에 처한 국보를 지자체의 몽니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 인류의 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는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국가에서 철저히 관리하면서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해야 한다. 우리는 불가능성을 횡단할 때 비로소 가능성을 사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 지자체, 정치권이 불가능성을 사유했다면 이젠 가능성을 사유해야 할 때이다. 수위조절안만이 반구대 암각화 보호라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싶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86.txt

제목: [여적]봉독  
날짜: 20160803  
기자: 안호기 논설위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03205015392  
본문: 벌의 독인 봉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 치료제 중 하나이다. 기원전 160년 무렵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의서 <마왕퇴의서(馬王堆醫書)>는 봉독을 사람 피부에 침투시키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봉독은 기를 왕성하게 하고, 성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도 봉독 치료를 했다.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관절염 등에 치료 효과가 큰 봉독을 ‘신비로운 약’이라고 했다. 국내 한방병원에서도 봉독을 이용한 치료가 확산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과 염증 치료, 만성통증 완화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는 데도 쓰인다. 양봉업 종사자는 관절염에 거의 걸리지 않으며, 암에 걸릴 확률이 가장 낮은 직업군이라는 주장도 있다. 양봉을 하면 벌에 자주 쏘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br/><br/>충남 축산기술연구소가 봉독을 활용한 천연항생제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실험 결과를 내놨다. 벌 3만마리에서 봉독 1g을 채취한 뒤, 송아지에게 봉독 희석액을 주사한 결과 설사 발생률이 일반 송아지보다 42%포인트 낮아졌다. 봉독의 살균·소염 효과는 일반 항생제인 페니실린보다 1200배가량 높다. 비용도 기존 항생제 접종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 과거에는 꿀벌에서 침을 빼내 직접 사람 피부에 꽂는 벌침을 주로 사용했다. 침이 뽑힌 벌은 이내 죽는다. 요즘에는 꿀벌에 전기자극을 줘 유리판에 침을 쏘도록 해 봉독을 채취하기 때문에 벌이 죽지는 않는다. 대신 벌이 가진 거의 모든 것을 빼앗는다. 벌통 한 개에 사는 수만마리의 꿀벌이 생산하는 꿀이라고 해봐야 연간 20㎏이 채 안되는데 그걸 대부분 사람이 차지한다. 벌집을 방어하기 위해 꿀벌이 발라놓는 봉교(프로폴리스) 75g, 봉독 1g까지 약탈해간다.<br/><br/>생태환경 변화로 꿀벌 개체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내 양봉농가도 10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아인슈타인은 “<span class='quot0'>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나면 사람도 4년 이상 살 수 없다</span>”고 말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은 꿀벌 등 꽃가루 매개 곤충이 사라지면 매년 142만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벌과 공존하라는 자연의 명령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87.txt

제목: ‘경희대학교’ 바이오·미래과학 등 5대 클러스터, 올해 유명 석학 39명 초빙  
날짜: 20160803  
기자: 최병태 기획위원 cbta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03203638960  
본문: ㆍ슬라보예 지젝·메리 터커 등 재직 <br/>ㆍ지난 8년간 신임교원 800여명<br/><br/>경희대학교는 바이오헬스·미래과학·인류문명·문화예술·사회체육 등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 분야에서 우수 교원과 세계 유명 석학을 초빙해 탁월한 학술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br/><br/>경희대는 지난 3월 서울캠퍼스 28명, 국제캠퍼스 12명 등 신임교원 40명을 채용했다. 석학 초빙제도인 에미넌트스콜라(Eminent Scholar·이하 ES)와 인터내셔널스콜라(International Scholar·이하 IS)를 통해 석학 39명을 초빙했다. 그동안 경희대학교는 지난 8년간 성장 잠재력이 있는 800여명의 신임교원을 초빙해 학문과 연구 성과를 드높여왔다.<br/><br/>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는 각 단과대학별 순수학문 응용과 융·복합 학술 역량을 강화해왔다. 서울캠퍼스는 국제정치 및 빅데이터 분야의 교수를 초빙해 국내외 정치분석 및 지식 경영을 연구, 학생들의 사회 진출과 대학의 산학협력을 지원한다. 국제캠퍼스에서는 미래융합산업에 속하는 바이오센서·그래핀·온톨로지 분야에서 교원을 초빙해 미래대학으로 발전을 도모한다. 특히 바이오센서 분야는 경희의 ‘미래과학 클러스터’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는 바이오-기기 융합과 웨어러블 기술 연구에 주력한다. <br/><br/>유명 석학 초빙제도인 ES와 IS는 2008년 도입돼 수월성 중심 학술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석학에는 세계적 철학자인 슬라보예 지젝(슬로베니아 루블라냐대학), 세계 생태신학계를 주도하는 메리 터커(미국 예일대학), 국제정치학자 존 아이켄베리(미국 프린스턴대학), 비영리분야 연구자 램 크난(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태양물리학의 석학인 사미 솔란키(스위스 연방공과대학)와 암 전문의 김의신(미국 텍사스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88.txt

제목: 암세포의 림프절 전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조영제 개발  
날짜: 20160801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01213439355  
본문: ㆍ경북대병원 전용현 교수 팀<br/><br/><br/><br/>적은 용량으로 고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조영제가 개발돼 암의 림프절 전이 여부를 조기 관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br/><br/>보건복지부는 1일 경북대병원 전용현 교수(사진)와 이재태 교수, KU-KIST 융합대학원 임동권 교수가 ‘고 민감성 및 고 안정성 방사성 동위원소 결합 금 코어쉘 나노입자’를 이용해 암 전이를 조기 발견하고 오진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체영상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br/><br/>기존엔 림프절을 절개하고 감시 림프절을 떼어내 종양의 전이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 기술 개발로 영상 관찰을 통해 전이 여부를 빠르고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암의 림프절 전이 여부는 치료 경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어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br/><br/>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핵의학영상 등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복합분자영상 조영제의 기초자료”라며 “향후 10년 내에 임상에 적용 가능한 영상 조영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89.txt

제목: 반가운 폭염 ‘뜨거워야 사는 남자들’  
날짜: 20160801  
기자: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01202805269  
본문: ㆍEBS1 ‘시대공감’<br/><br/>EBS 1TV <시대공감-미스터리 휴먼다큐 그 사람>은 1년 중 여름이 가장 바쁜 남자들의 삶을 따라가 본다.<br/><br/>전라남도 영광의 염전에서 부모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탁현용씨(34)는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폭염이 반갑다. 햇볕이 강해야 소금이 잘 생산되기 때문이다. 그는 6년 전 고민을 거듭한 끝에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의 염전 일을 돕기 시작했다. 30년간 염전 일을 해온 부모님이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고된 일을 아들에게 대물림하는 것 같아 부모님은 늘 미안하기만 하다.<br/><br/>전라북도 전주의 얼음 가게에서 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김철민씨(33)도 1년 중 여름이 가장 바쁘다. 한 덩어리 60㎏인 얼음을 메고 다니다 보면 어느덧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곤 한다. 원래 김씨의 꿈은 학교에서 유도를 가르치는 것이었으나 5년 전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기로 했다. 지금 김씨는 20년간 아버지가 일궈온 얼음 가게를 번창시키고 싶다는 마음뿐이다. 뜨거운 여름에 정면으로 맞서는 남자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방송은 오후 11시 35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90.txt

제목: 면역항암치료제 ‘이뮨셀-LC’, 차세대 암치료법으로 급부상  
날짜: 201608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801104815836  
본문: 암치료에 있어 면역력 강화는 필수요소다. 강한 면역력을 지닌 인체는 암세포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국내 암치료제의 패러다임도 표적항암제에서 면역항암제로 변화하는 추세다. 면역항암제는 암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고유의 면역기능을 강화해 암 발생 부위를 치료한다. 기존 항암제와 달리 부작용이 적고 적용 대상이 넓다는 게 장점이다.<br/><br/>최근 차세대 면역항암치료제로 '이뮨셀-LC(Immuncell-LC)'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뮨셀LC는 환자의 혈액에서 항암면역세포를 추출해 약 2주간 배양한 뒤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는 치료법이다. 즉 환자가 갖고 있던 면역세포를 더욱 강화시켜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이다.<br/><br/>염창환병원 관계자는 "이뮨셀-LC 치료는 환자 본인의 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는 편"이라며 "그 동안 꾸준히 실시된 임상 연구 결과를 통해 암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전했다.<br/><br/>한편 지난 2005년부터 이뮨셀-LC 치료를 시작한 염창환병원은 면역세포치료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암환자들을 치료한다. 치료 방법은 채혈 후 2주간 배양 후, 약 1시간 동안 치료제를 투여하며, 치료주기는 2주 간격으로 진행된다. 치료횟수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나 보통 5~20회 정도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91.txt

제목: 알부민주사제, C형간염 치료제 등 건보 적용 확대  
날짜: 20160731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31170835630  
본문: 8월부터 급성 합병증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알부민주사제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던 소아암환자·관절염환자, C형간염 환자 등도 일부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br/><br/>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부민주사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알부민은 출혈성 쇼크와 화상, 간경변증 등의 급성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중증질환 전반에 널리 사용되는 혈액제제지만 남용 우려와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의견차이로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돼 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학회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알부민주사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br/><br/>이에 따라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알부민 투여에 대한 본인부담 약제비는 3주 기준 약 180만원에서 최대 9만원까지 감소하게 됐다. 복지부는 환자 2만7148명이 알부민 급여화 수혜를 입으며 본인부담약제비가 192억원에서 23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br/>환자가 소수여서 보험적용이 되지 못했던 소아암환자와 소아관절염환자에 대해서는 성인용 빈혈치료제 및 성인용 류마티스 관절염 주사제를 급여화하기로 했다. C형간염 치료제인 하보니정·소발디정의 보험적용 대상은 지난 5월 급여화 당시 빠졌던 1b유전자형 중 기존 치료법 사용이 어려운 환자, 유전자형 3·4형 환자까지 확대된다.<br/><br/>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시행 첫해 약 3만명이 보험혜택을 받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92.txt

제목: 우주여행 할 때에는 심장병 조심... 달 탐사 우주인들, 심장병 발병률 '5배'  
날짜: 20160729  
기자: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29195459133  
본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아폴로 프로그램에서 심우주(deep space)를 경험한 우주인의 심장병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우주인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플로리다 주립대 인체과학부 연구팀은 28일(현지시간) 심혈관 질환과 심우주 방사선에 노출된 우주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과학잡지 네이처에 공개했다. 심우주란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와 같거나 그보다 먼 우주 공간을 뜻한다. <br/><br/>아폴로 프로그램은 1961년에서 1972년 사이에 NASA가 운용한 달 탐사선 계획으로, 달 착륙에 성공해 우주 탐사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24명의 우주인 중 달에 도착해 심우주를 탐사한 사람은 닐 암스트롱, 에드윈 버즈 올드린을 포함해 12명이다. 지금까지 지구 자기권을 벗어난 인류는 이들 뿐이다.<br/><br/>연구팀은 24명 중 올해 2월 사망한 에드거 미첼을 제외한 사망자 7명의 사인(死因)을 분석했다. 7명 가운데 암스트롱 등 3명(43%)은 심혈관 질환, 2명은 암(29%), 1명은 사고(14%)로 숨졌다. 나머지 한 명의 사망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달에 다녀온 우주인의 심장병 발병률이 우주선에만 머문 우주인보다 5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고서에 주장했다. 또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저궤도(LEO)에서 활동한 우주비행사들보다도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4배 높았다고 전했다.<br/><br/>아폴로 우주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한 쥐들의 심장병 발생률도 증가했다. 심우주와 동일한 방사선에 6개월 간 노출된 쥐들에게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가 나타난 것이다. 연구를 이끈 델프 교수는 인디펜던트 등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우주 방사선이 혈관에 해롭다는 사실이 확인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리는 그동안 심우주 방사선이 인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왔다</span>”고 말했다.<br/><br/>NASA는 현재 2024년을 목표로 화성 탐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우주인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NASA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말했다. NASA 대변인 타바사 톰슨은 뉴욕타임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span class='quot1'>우주 방사선이 아폴로 우주인에게 영향을 줬다고 결론 내릴 순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표본의 수가 적고, 유전이나 식습관과 같은 생활양식을 고려하지 않아 결과가 제한적</span>”이라 주장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93.txt

제목: 170만년 전 인류 조상에게도 '암' 있었다  
날짜: 20160729  
기자: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29170621628  
본문: 170만년 전에 살았던 인류 조상의 유골에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양의 흔적이 발견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트란스발주에 있는 스와르트크란스 동굴에서 지난해 발굴된 발뼈를 3D 영상으로 재현한 결과, 골육종을 앓은 흔적이 발견됐다고 메일앤드가디언 등 현지 언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와르트크란스 동굴은 고(古)인류화석 표본 200여 종이 발견된 ‘인류의 요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록돼 있다.<br/><br/>유골의 주인은 160~180만 년 전에 살았던 인류의 조상으로 추정된다. 과학자들은 이 뼈의 주인이 완전이 성장하지 않은 ‘호미닌’이라고 말했다. 호미닌은 직립보행인인 호모에렉투스 이전의 고인류를 뜻하는 말로, 침팬지 같은 몸집과 현재 인간의 뇌 크기의 3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뇌가 특징이다. 호미닌은 이후 호모에렉투스로 진화한 것으로 추정된다.<br/><br/>과학자들은 200만년 된 영장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세디바의 척추 유골에서도 악성 종양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제까지는 12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의 갈비뼈에서 발견된 악성종양이 가장 오래된 암으로 여겨져 왔다. 연구를 이끈 비트바테르스란트 대학의 에드워드 오데스 박사는 남아공 과학저널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현대 의학은 암 발생 원인을 현대인의 생활 습관 때문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연구는 암이 산업사회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음을 보여준다</span>”고 설명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94.txt

제목: 노화에 맞서는 100세 청춘을 위한 ‘항노화 클리닉’  
날짜: 201607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29121614969  
본문: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젊게 살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욕망일 것이다. 하지만 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질서로, 개인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가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면 최대한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br/><br/>노화란 우리 몸의 세포가 늙고 이에 따라 각 신체 장기에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노화가 점차 진행됨에 따라 기능 장애의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세포 변형에 따른 암 발병률 역시 높아지게 된다.<br/><br/>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항노화, 안티에이징은 피할 수 없는 노화에 맞서 최대한 이를 늦추려는 현대인의 노력을 대변하고 있다. 항노화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노화를 막는 것이지만 성공적 노화는 노화에 따른 여러 현상을 교정하여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시 말해 근본적인 항노화는 Well-aging, Good-aging, Happy-aging의 의미가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나이 들기가 바로 성공적인 항노화의 핵심인 것.<br/><br/>항노화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내적(기능적) 변화, 외적 요소의 변화, 정서적 변화 등 노화의 세 가지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화로 인한 내적 변화는 뇌기능 및 근골격계, 장기의 기능, 호르몬 분비의 저하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주름, 검버섯 등의 피부 변화와 퇴행성 척추 및 관절 변화 등의 체형변화는 외적 변화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갱년기, 우울증, 스트레스 등은 정서적 변화로 볼 수 있다.<br/><br/>성공적인 항노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외형적인 젊음뿐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전반적인 신체, 정서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이에 맞는 맞춤 치료와 맞춤 건강정보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br/><br/>최근에는 100세 시대를 맞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및 건강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항노화 클리닉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항노화 클리닉에서는 개인별 맞춤 검사를 통해 현재의 건강상태 및 향후 위험질환까지 분석하고 이를 포트폴리오화 시켜 이에 따른 맞춤치료, 즉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생활요법, 정서적요법을 병행한 개인별 맞춤치료 시스템을 제공한다.<br/><br/>항노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그랜드연합의원 이병준 원장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퇴행성 관절염, 디스크, 요통, 골다공증 등 흔한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개개인의 노화 정도와 기능 평가에 초점을 두고 현재 각 기관 및 장기의 기능을 정밀하게 측정함으로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를 해주는 것은 항노화 치료의 근본”이라고 전했다.<br/><br/>그는 이어 “<span class='quot0'>줄기세포 및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위한 ‘셀 뱅킹 헬스케어서비스’를 비롯해, 질환관리, 통증관리, 운동 및 식이관리, 외모관리, 정서관리를 통합하는 토탈 안티에이징 헬스케어 시스템을 갖춘 항노화 클리닉을 선택하면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항노화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95.txt

제목: 10대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중요’  
날짜: 201607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29104747654  
본문: 자궁경부암은 유방암과 함께 여성암 2위를 차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 하루에 3명꼴로 자궁경부암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한다.<br/><br/>자궁경부 상피내종양 발병 또한 증가했다. 자궁경부 상피내종양이란 자궁경부 상피에서 암세포로 변이하고 있는 중간 단계의 이형 세포들이 존재하는 현상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환자는 2010년 7만7000여 명에서 지난 2015년 9만8000여 명으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 중 10~19세 환자는 지난 2010년 226명에 비해 2015년 304명으로 기록되었다.<br/><br/>특히 해당 종양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이 가능하나 100%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역시 수술적 치료로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br/><br/>자궁경부암과 자궁경부 상피내종양은 초기에 발견할 경우, 비교적 완치율이 높은 질병에 속한다. 하지만 수술적 치료를 받을 경우, 자궁경부 무력증이나 자연유산, 경관유착, 조기진통, 저체중아 분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추후 임신이나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전암성병변은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후속 관리가 요구된다.<br/><br/>설령 자궁경부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치료 후에 환자의 삶의 질이 급격하게 낮아지곤 한다. 암 치료 후 발생하는 신체의 변화, 성 관련 활동 저하와 이에 따른 걱정 등 삶의 질이 떨어진 자궁경부암 환자는 사망 위험이 더욱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r/><br/>자궁은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통한 조기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br/><br/>자궁경부암은 다른 암과 달리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며, 현재 국내에 도입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전체 자궁경부암의 70% 이상을 예방하는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인다. 또한 4가 자궁경부암 백신의 경우,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의 감염 방지를 통해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 HPV 6, 11형에 의한 생식기 사마귀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br/><br/>이와 함께 최근에는 20대 이전 자궁경부암 조기 예방 접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성접촉이 있기 전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 받을 경우 면역 반응이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대 이전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96.txt

제목: 고혈압·당뇨·5대 암 의심 판정 땐 치료받을 병원서 ‘무료’ 확진검사  
날짜: 20160728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28224544832  
본문: ㆍ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확정 <br/>ㆍ2018년부터…40세 이후 10년마다 ‘의사 상담’ 서비스<br/><br/><br/>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 5대 암에 걸린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무료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신의 검진 결과뿐 아니라 미래의 건강 예측치까지 알 수 있는 양방향 건강관리 서비스도 시작된다.<br/><br/>보건복지부는 28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2016~2020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국가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암 의심 판정을 받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료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진에서 치료로 바로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br/><br/>지금은 의심 판정을 받을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해야 무료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고,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으로 직행하면 확진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br/><br/>이 제도가 시행되면 2015년 기준 연간 142만명(고혈압 89만명, 당뇨 51만명, 5대 암 2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확진검사 비용은 종합병원 기준 간암 9만6000원, 유방암 6만1000원, 자궁경부암 1만7000원 등이다. 다만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 의심 판정자는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밀착형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때만 검사비(4500원)를 지원할 계획이다.<br/><br/>현재 40·66세 생애전환기 검진 때 제공되는 의사의 건강상담 서비스는 40세 이후 10년마다 제공하는 것으로 바뀐다. 상담 빈도를 늘려 생활습관을 조기 개선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br/><br/>해마다 3000만건씩 축적되는 검진 기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검진 결과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과 같은 성별·연령대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서 볼 수 있고, 수면·영양·운동에 관한 기록을 입력해 건강실천도를 점검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내년 상반기 국가건강검진위 산하에 검진 항목·주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신규 검진 항목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상시 평가할 계획이다. <br/><br/>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제공하지 않는 C형간염, 20·30대 건강검진, 구강 파노라마, 폐암 검진의 도입 여부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고액 상품이 범람하는 민간 건강검진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시행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97.txt

제목: 폴란드 간 교황 “모든 종교는 전쟁 원하지 않아, 난민은 어디서나 환영받아야”  
날짜: 20160728  
기자: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28162829571  
본문: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전쟁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br/><br/>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은 프랑스 생테티엔뒤루브레 성당에서 미사 도중 자크 아멜 신부가 이슬람국가(IS) 인질범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에 깊은 슬픔을 표했지만 ‘종교전쟁’으로 몰아가는 목소리엔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27일(현지시간) 임기 후 첫 동유럽 국가 방문지인 폴란드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교황은 기자들에게 “<span class='quot0'>1914년과 1939~1945년에도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세계는 전쟁 중</span>”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span class='quot0'>내가 말하는 전쟁은 종교전쟁이 아닌, 돈·자원과 같은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람들의 전쟁임을 분명히 한다</span>”고 했다.<br/><br/>이날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에 참석차 닷새 일정으로 폴란드를 방문한 교황은 크라쿠프 공항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을 비롯해 폴란드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대통령 부인 아가타와 베아타 시드워 총리는 무릎을 꿇고 교황의 반지에 입을 맞췄다. 환대 속에서도 교황은 소신 발언을 잊지 않았다. 그는 바벨궁에서 두다 대통령에게 “<span class='quot0'>난민은 어디에서나 환영받아야 한다</span>”며 난민 수용을 촉구했다. 교황은 즉위 뒤 첫 외부 방문지로 지중해 난민섬 람페두사를 방문했고, 줄곧 난민과 이주민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이슬람 고위 인사, 정교회 대주교, 유대교 성직자들을 만나며 종교 간 대화에도 역점을 둬왔다.<br/><br/>교황은 “<span class='quot1'>전쟁과 가난을 피해 고국을 떠나온 사람들을 환영해야 하며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이들에게 연대를 보여줘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두려움을 극복하고 난민에 대한 연민을 보여달라</span>”고 말했다. 인구 92%가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는 무슬림이 국가 안보와 종교적 전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 수용을 거부해왔다.<br/><br/>난민을 끌어안으라는 메시지에 폴란드 정부는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교황의 연설은 젊은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세계청년대회에 참석한 젊은이들은 폴란드 출신의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대중들과 만났던 장소인 크라쿠프 대주교궁 발코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자 춤을 추고 노래하며 환호했다. 교황은 대회 준비 도중 암 투병 끝에 숨진 자원봉사자를 위해 묵념하자며 열광을 가라앉혔다. 그러나 차분하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꾼 것도 교황이었다. 그는 “<span class='quot1'>지금 몇몇은 교황이 오늘 저녁을 망칠 작정이라 생각할 것</span>”이라며 농담을 건넸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나쁜 일만큼 좋은 일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젊은이들”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가서 당신들의 의무를 다하라. 떠들썩하게 밤을 보내라”고 활짝 웃으며 외쳤다고 AFP가 보도했다. <br/><br/>유럽에서 테러가 잇따르자 폴란드 정부는 교황 방문지에 3만9000명이 넘는 경찰을 배치했다. 29일 교황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를 찾아 나치의 유대인 학살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고통의 침묵’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교황은 31일 150만명이 모이는 세계청년대회 야외 미사를 집전한 뒤 로마로 돌아간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98.txt

제목: [여기 우리 있어요]약자의 행복을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날짜: 20160727  
기자: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27210212307  
본문: 가장 가치가 높은 단어인 ‘행복’과 ‘크리에이티브’가 가장 저렴한 개념이 됐다. 정치인마다 국민 행복을 약속하지만 국민은 여전히 행복과 멀리 있다. 국민 행복을 메시지로만 전달하기 때문이다. 행위가 없는 말뿐인 행복 약속에 국민은 행복이란 단어만 들어도 불쾌해진다. 이렇게 허언에 지쳐 있는데 이제 크리에이티브까지 보태졌다. 코리아 앞에 다이내믹을 붙인다고 역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크리에이티브를 붙인다고 창조적인 것도 아닌데 언제부터인가 실체가 없는 관념에 투자를 많이 한다. 단어 하나 바꾸는 데 35억원을 썼다고 하면 하루 하루 빠듯하게 살고 있는 서민은 분노심이 끓어오른다. 서민을 위한 행복과 서민이 원하는 크리에이티브에 대해 서민 입장에서 진지하게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br/><br/>세상을 떠난 지 7년이 된 장영희 교수는 소아마비로 목발을 사용했다. 영미문학을 전공한 그녀는 연극 공연을 무척 좋아했지만 대학로 소극장들에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공연을 보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홀스또메르>라는 작품은 놓칠 수 없어서 큰 맘 먹고 공연장에 찾아갔다. 장애인들이 공연을 보려면 입장은 가장 먼저 하고 퇴장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한다. 그날도 관객들이 다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공을 맡은 배우가 다가와 ‘공연 재미있으셨어요?’라고 인사를 건네더니 그녀의 목발을 보고는 등을 내밀며 업히라고 손짓을 했다. 자신은 말(연극 주인공이 말)이니 개념치 말라고 덧붙이면서 말이다. 장영희 교수는 대스타 등에 업혀 공연장 계단을 편하게 올라올 수 있었다. 장애인이어서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연극을 보러온 관객의 불편을 해결해주려는 따스한 마음과 적극적인 행동이 행복을 만들어주었던 것이다.<br/><br/>그 배우는 장 교수가 암 투병을 하며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문화부 장관이 됐다. 그는 장관이 된 지 얼마되지 않아 실국장 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한다. 대학로에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만들고, 장애인 가운데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장애인 문화예술을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하라고 말이다. 이 지시에 따라 전격 설치된 장애인문화체육과가 2009년 1월5일 문화부에 명패를 붙이게 됐다.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 전담 공무원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더 나아가 장관정책보좌관도 장애인을 임용하는 파격적인 인사로 400만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br/><br/>이것이 바로 크리에이티브이다. 이때부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장애인 문화예술사업의 공식 채널이 마련돼 일본, 영국 등지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던 장애인 예술이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br/><br/>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은 유인촌이란 인물이 대배우이고 장관을 지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적어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한 실천이 얼마나 큰 행복과 크리에이티브를 양산했는지를 알리고 싶어서다. 약자의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는 관심과 강자가 독식하는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주면 된다. 그런데 그 나눔은 창조적인 방법으로 실천돼야 한다. 창조적인 나눔이란 사회적 책임을 시혜라는 프레임에 갇혀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바로 그 약자 프레임을 깨고 다양한 방법으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노력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다.<br/><br/>한국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창조적인 소소한 실천이다. 한 교육부 고위공무원은 민중을 개·돼지에 비유했지만 실제로 민중은 사회 지도층보다 현명하고 훨씬 강하다. 왜냐하면 과욕을 부리지 않고 보편 청중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정의롭게 결정하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한국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힘을 갖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199.txt

제목: 면역력 높여 폐암 치료하는 한방면역항암제 ‘티버스터’ 주목  
날짜: 201607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27154829368  
본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암 종류별 사망자수에서 1위를 차지한 암은 폐암이다. 폐암은 총 1만7440명의 사망자를 내며 2위인 간암(1만1566명)을 큰 격차로 따돌리며 압도적인 수를 기록했다. 폐암의 사망률이 이토록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암도 비슷하겠지만 역시 초기에 폐암 증상을 쉽게 눈치채기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br/><br/>폐암환자의 경우 기침이나 가래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며 발열, 식욕부진, 구토 증상 등이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암환자들이 이러한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암 발병 사실을 상당히 늦게 발견,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br/><br/>만약 폐암이나 간암 등 암종의 발견이 늦어지면(3~4기) 항암치료를 시도한다고 해도 많은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 특히 항암 부작용은 암환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치료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면역력 부족으로 항암 내성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재발암 치료과정 역시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br/><br/>이러한 항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항암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가 필요하다. 최근 몇가지 면역 항암제들의 효과가 속속 이슈화되면서 암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br/><br/>한방면역항암제로 암환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치료제로 하나통합한의원의 티버스터가 있다. 옻나무 추출물로 법제된 티버스터는 암세포의 신생혈관 생성 억제, 암세포 사멸에 큰 효능을 발휘한다. 이는 원재료인 옻나무의 놀라운 효능 때문인데, 옻의 주요 성분인 우루시올의 암세포 사멸 기능은 이미 한국과학기술원의 실험과 티버스터를 개발한 하나통합한의원의 논문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br/> <br/>하나통합한의원의 김보근 원장은 "면역항암제가 차세대 항암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많은 암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br/><br/>한편 티버스터 면역항암제로 유명한 하나통합한의원은 지난해 청평푸른숲한방병원으로 확장 개원한 바 있다. 아울러 푸른숲한방병원 인근에 추가로 개원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00.txt

제목: 암·우울증도 공무상 재해 인정  
날짜: 20160726  
기자: 한대광 기자 chooh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26224130954  
본문: 인사혁신처는 암·외상후스트레스장애·우울증·자살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br/><br/>그동안 암·정신질병·자해행위는 산업재해 인정기준에는 있었지만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빠져 있었다. <br/><br/>개정안에는 ‘공상심의 전 전문조사제’ 신설도 포함됐다. 공무원이 희귀암이나 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걸렸을 때 직접 업무연관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전문병원에 자문을 의뢰해 본인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 밖에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비를 먼저 지급하고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공상 승인이 이뤄진 이후 이를 환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01.txt

제목: 암치료 전문 마이크로 로봇 개발…임상실험 이후 상용화 기대  
날짜: 20160726  
기자: 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26211316098  
본문: ㆍ전남대 박석호 교수팀 …항암제 넣은 대식세포 자기력으로 이동<br/><br/><br/><br/>국내 연구진이 체내 면역세포 중 하나인 대식세포를 이용해 암 치료용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했다. <br/><br/>전남대 박석호 교수(사진) 연구팀은 26일 “<span class='quot0'>대식세포에 나노미터(㎚·10억분의 1m) 크기의 항암제를 넣어 대식세포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했다</span>”고 밝혔다. <br/><br/>이 로봇은 크기가 2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로 작고, 자기장 힘에 의해 혈관 속에서 움직인다. 연구결과는 국제 유명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지난달 27일 게재됐다. <br/><br/>일반적으로 항암 치료에 쓰이는 약물 전달체는 크기가 수백㎚ 수준이다. 약물 전달체는 너무 크면 백혈구나 체내 면역세포에 잡아먹히고 반대로 작으면 몸 밖으로 배출되는 문제가 있다. <br/><br/>또한 이들 전달체는 혈관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혈관이 없는 종양 중심부까지 실어나르기에는 한계가 있다.<br/><br/>연구팀은 대식세포에 항암제와 자성체 등을 나노 크기의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 넣었다. <br/><br/>이후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자 대식세포 기반 마이크로 로봇이 암세포에 흡수됐다. 이후 대장암과 유방암 덩어리에 마이크로 로봇을 주입하자 48시간 뒤 암세포의 50~60%가 죽었다. <br/><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에 암세포 덩어리를 이용한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앞으로 동물실험과 임상 검증에 성공하면 상용화가 가능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02.txt

제목: 암투병 중인 60대 아내와 청주 미호천에서 목 매 숨져  
날짜: 20160726  
기자: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26140010791  
본문: 암투병 중인 60대와 아내가 청주 미호천에서 목 매 숨진채 발견됐다. 26일 오전 9시36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미호천변에서 이모씨(68)와 아내 강모씨(65)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7시41분쯤 “<span class='quot0'>부모님이 어제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span>”는 이씨 딸의 실종신고를 접수 받고 수색중이었다.<br/><br/>이씨의 딸은 경찰에서 “아버지가 지난 25일 ‘함께 죽겠다’는 전화를 한 뒤 연락이 없어 다음날 집에 찾아갔더니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암 투병 중으로 치료를 거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br/><br/>경찰은 이씨 딸의 진술 토대로 이씨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03.txt

제목: [장이권의 자연생태 탐사기]수리부엉이의 짝짓기와 이별  
날짜: 20160725  
기자: 장이권 |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25213409795  
본문: 지난 6월23일 나는 구조된 수리부엉이를 방사하는 행사에 참관하였다. 간이 우리에 들어있는 수리부엉이는 주위의 많은 시선에 위협을 느낀 것 같다. 눈 위의 우각을 바짝 낮추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수리부엉이는 전 세계 올빼미과 맹금류 중에서 매우 큰 편이다. 이렇게 큰 녀석의 부리와 발톱은 날카로워서 사람에게도 치명적이다. 우리는 조심히 다가가 이 매력적인 새의 자태를 관찰하였다. 커다랗고 노란 눈을 가진 수리부엉이는 단번에 우리를 압도하였다.<br/><br/>이 수리부엉이는 한 달 전쯤 파주 장명산에서 발견되었다. 이 녀석은 절벽의 집에서 추락한 것처럼 보였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마을 주민이 이 수리부엉이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를 하였다. 수리부엉이는 탈진된 상태이지만 다행히 골절이나 외상은 없었다. 구조된 수리부엉이는 경기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재활훈련을 받았다.<br/><br/>한 달 동안 돌본 수의사에 따르면 이 수리부엉이가 한 시간만 늦게 발견되었어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수의사는 발톱의 상태나 크기로 봐서 이 수리부엉이가 3~4세의 수컷이라고 추정하였다. 마을 주민도 최근 1, 2년 사이에 기존의 수컷이 사라지고, 새로운 수컷이 암컷 수리부엉이와 번식을 시작하였다고 말했다. 이 탈진하여 발견된 수컷이 장명산에서 올해 번식을 시도한 수리부엉이 같았다.<br/><br/>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수리부엉이는 추위가 가시지 않은 2월부터 번식을 시작한다. 사람이나 네 발 달린 동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의 중간쯤에 둥지를 잡는다. 알을 낳은 이후 암컷은 둥지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암컷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알은 금세 추위 때문에 식어 버리고 만다. 포란하는 암컷이 굶지 않도록 수컷은 끊임없이 먹이를 물어 날라야 한다. 그래서 수리부엉이는 포란할 때 암컷과 수컷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다.<br/><br/>수리부엉이의 양육은 암컷 혼자서 담당하기 어렵다. 이런 번식 체계에서는 수컷이 양육에 큰 기여를 해야 하고, 수컷이 공동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일부일처제가 나타난다. 어느 한 수컷이 여러 마리의 암컷과 교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새끼가 성공적으로 부화하고 이소하기 어렵다. 수컷 입장에서 보면 한 배우자와 양육에 전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수의 생존 가능한 자손을 기대할 수 있다.<br/><br/>일부일처제는 새들에서 아주 흔한 짝짓기 체계이지만, 수리부엉이의 일부일처제는 다른 어떤 새들보다 엄격하다. 예를 들면 수리부엉이는 다년간 같은 배우자를 유지하며 바람을 피우지도 않는다. 심지어 비번식기에도 수리부엉이 부부는 같은 장소에서 머무른다.<br/><br/>그렇다고 수리부엉이의 결혼 생활이 늘 순탄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조류는 일부일처제를 유지하지만 바람을 피울 수 있다. 부엉이는 바람피우는 일은 드물지만, 대신 이혼을 할 수 있다. 스위스에 서식하는 헛간 올빼미의 경우 이혼율이 4분의 1에 가깝다. 보통 이혼은 주로 번식에 실패한 결혼 초반기에 일어난다. 처음 만나서 번식을 시도해 성공하면 계속 살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한다. 그래서 헛간 올빼미는 대부분의 이혼이 1년 정도 같이 살아보고 일어났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1년 정도 동거를 해보고, 서로 번식에 자신이 생기면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에 들어간다.<br/><br/>장명산의 수리부엉이 부부는 올해 번식의 실패를 맛보았다. 아마 수컷은 올해 처음으로 번식을 시도했던 것 같다. 번식 실패 후 수리부엉이 부부는 이혼을 결심했는지도 모른다. 수의사에 따르면 수리부엉이의 경우 힘이 센 암컷이 수컷을 내쫓을 수 있다. 그 결과 수컷 수리부엉이는 절벽 밑에 떨어져 탈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올빼미과 맹금류의 경우 이혼을 할 때 암컷과 수컷이 물리적인 충돌 없이 서로 헤어진다. 물론 사고로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비행에 능숙한 수리부엉이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긴 어렵다.<br/><br/>전 세계에 약 1만종의 새들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일부일처제를 유지한다. 새들의 일부일처제는 사람의 일부일처제와 여러모로 유사하다. 새들의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는 좋은 점과 부닥치는 문제점은 분명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의미에서 새들의 짝짓기 체계에 대한 연구는 곧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우리는 수리부엉이가 활동을 시작하는 저녁 무렵까지 기다렸다. 그런 다음 수리부엉이를 방사하기 위해 둥지로 사용되는 절벽으로 접근하였다. 나뭇가지와 풀들을 헤쳐 가며 오솔길을 걸었다. 절벽은 넝쿨식물이 일부를 수놓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날기 시작했다. 수리부엉이 암컷이었다. 둥지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우리가 접근하자 놀란 모양이다. 암컷이 평소 먹이를 먹는 소나무 숲으로 날아갔다.<br/><br/>암컷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힘을 얻었다. 절벽 바로 밑의 평평한 장소에 간이 우리를 내려놓고, 활짝 열어 놓았다. 그러나 수컷은 전혀 나갈 생각을 않는다. 우리가 두려운지 커다란 눈으로 둘러만 본다. 그래서 우리는 간이 우리를 들어 올려 수리부엉이가 나가도록 유인하였다. 그 순간 수컷은 우리에서 튀어나와 날아올랐다. 어느 친구 머리 위로 비행하여 바로 암컷이 갔던 방향으로 날아갔다.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하게 회복된 수리부엉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암컷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내년에는 번식에도 성공하기를 기원하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04.txt

제목: 유방암 환자 4년 새 3만7000여명 증가  
날짜: 20160724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24123508485  
본문: 유방암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유방암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와 진료비가 최근 4년 사이 35%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해 ‘유방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11년 10만4293명에서 2015년 14만1379명으로 4년 만에 35.6%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실적을 기준으로 한 진료비도 2011년 약 4414억원에서 2015년 약 5962억원으로 35.1% 늘었다.<br/><br/>건강보험공단은 “<span class='quot0'>조기검진으로 유방암을 치료하는 사람이 늘어나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span>”고 분석했다. 유방암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1년 대상자의 51.5%인 324만명에서 2015년 대상자의 60.9% 수준(368만명)까지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중 유방암 진료를 받은 사람이 10만명당 671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는 10만명당 587명, 40대 419명 등으로 나타났다. 고연령일수록 환자 증가율이 높았다. 80대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환자 증가율이 102.7%, 70대는 62.0%에 이르렀다.<br/><br/>2015년 1인당 평균 진료비는 422만원으로 2011년 423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1인당 진료비는 20대(720만원), 30대(636만원) 등 젊은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일산병원 외과 허호 교수는 “<span class='quot1'>20~30대 유방암 환자의 경우 암 전이성이 강하고 항암화학요법이나 유방재건술 등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span>”고 설명했다.<br/><br/>유방암은 유방 세포의 성장이 조절되지 않아 증식돼 나타난다. 발병 원인이 명확치 않아 예방법이 없으며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는 등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위험이 커지며 출산과 수유는 유방암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05.txt

제목: 서울하이케어의원, 충칭하이푸社 세계 1호 하이푸 연구기관으로 선정  
날짜: 201607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22145619122  
본문: 하이푸 의료 기술 개발 기관인 충칭하이푸 메디컬센터는 서울하이케어의원을 충칭하이푸 세계 1호 하이푸 연구 기관으로 선정했다. <br/> <br/>충칭하이푸 메디컬센터는 세계적인 하이푸 치료 장비 제조사로, 123개 국제적 특허를 보유하고 양성종양, 악성종양의 비침습적 치료를 하고 있다.<br/> <br/>충칭하이푸 메디컬센터는 서울하이케어의원의 치료 기술력과 하이푸의 대중화 공로를 인정해 세계에서 첫 번째로 충칭하이푸 메디컬센터 인증 연구병원으로 선정 후 지정패를 전달했다.<br/> <br/>서울하이케어의원은 자궁근종, 자궁선근증과 같은 자궁 양성과 함께 암으로 진단되는 악성 종양 등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기 위해 설립된 하이푸 특화 병원이다.<br/> <br/>서울하이케어의원 설립자 김태희 원장은 대한민국 하이푸 1세대 의료진으로 1,500사례가 넘는 하이푸 임상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br/> <br/>서울하이케어의원 관계자는 ”0.1% 위험성까지 잡을 수 있도록 하이푸에어 치료시스템을 개발하여 종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누구나 절개 없이 종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발전된 하이푸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06.txt

제목: 위내시경검사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  
날짜: 201607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20125706335  
본문: 암 발생률의 순위는 최근 몇 년간 변동이 있었지만 아직도 위암은 우리나라 남성암의 18.5%로 1위이며, 암사망률은 남성 2위(13.1%), 여성 3위(11.9%)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br/><br/>2002년부터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 내시경이 시작돼 위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우리나라의 위암 5년 생존률이 90년대 42.8%에서 2000년 후반에는 71.5%로 무려 28.7%가 상승했다. 국한병기의 경우 생존률은 94.6%이나 원격전이병기에서는 5.7%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질환이라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r/><br/>내시경장비의 향상과 내시경의사의 실력향상으로 조기위암의 진단율은 80%에 도달했다. 그러나 다발성위암의 간과율이 14.6%, 검사기간 2년 사이에 발견된 조기위암 발견률이 18.2%로 보고되고 있어서 정기적인 내시경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검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바쁜 일상으로 인해 아직도 국가검진 수진률이 50%대를 보이고 있어서 암검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br/><br/>위암의 경우 크게 내시경절제술, 외과수술, 항암치료 등을 진행한다. 위암전병변인 선종이나 일부 조기위암의 경우 위를 절제하지 않고 내시경점막하박리절제술을 통한 종양절제로 장기를 보존하는 치료법이 도입된 지 이미 10년이 되어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br/><br/>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지정 우수내시경실 인증기관인 민강남클리닉 조원영 원장은 “<span class='quot0'>85세까지는 2년 간격으로 국가검진 위내시경을 받되 위암가족력이 있거나 50세 이상 장상피화생이 동반된 남성의 경우 위암 고위험군이므로 1년 단위 검사를 권한다</span>”라면서 “<span class='quot0'>짜게 먹는 음식습관을 고치는 것, 헬리코박터균 감염여부 확인을 통한 제균치료도 위암조기발견 및 예방법이다</span>”라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07.txt

제목: 여름휴가 서해로? 게국지 원조 안면도맛집 ‘시골밥상’ 드세요  
날짜: 201607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19114052088  
본문: 여름을 맞아 서해를 찾는 여행객들이 크게 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큰 섬인 안면도는 가족이나 연인단위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즐비해 해마다 여행객들이 줄을 잇는 곳이다.<br/> <br/>안면도에는 유적으로 신야리 조개무지, 고남리 고인돌이 있고 승언리에 안면도의 모감주나무군락(천연기념물 138) 등이 있다.<br/> <br/>또 영목항, 황도포구 등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자연휴양림이며, 꽃지해수욕장은 수영하기에 안전하고 수온이 알맞아 늦여름까지도 해수욕을 즐기는 이들이 많다.<br/> <br/>또한 안면도는 연근해에서 남방붕장어·우럭·낙지 등이 잡히고, 김·굴·새우류·바지락·백합 등의 양식이 많아 맛집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도심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안면도의 싱싱한 수산물과 게국지는 놓치면 안 되는 명물이다.<br/> <br/>게국지는 충청남도의 향토 음식으로, 게를 손질하여 겉절이 김치와 함께 끓여 내 시원하고 얼큰하면서도 풍성한 식감이 일품이다.<br/> <br/><br/>안면도 게국지를 맛보기 위해 맛집을 찾고 있다면, 안면도에서 게국지를 대중화 시킨 1세대 게국지 전문점인 승언리 '시골밥상'(대표 인남선)을 알아둬야 한다.<br/> <br/>이 곳에서는 알이 많고 살이 풍부하기로 소문난 봄철 꽃게 중에서도 암 꽃게만을 사용한 게국지로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일부러 시골밥상 게국지를 먹기 위해 안면도를 찾는 이들도 많을 정도.<br/> <br/>유명 TV 프로그램인 “잘 먹었습니다 식객남녀 시즌3”에 방영되었던 맛집인 만큼 메뉴나 서비스도 풍족하다. 세트메뉴로 게국지에 국내산 재료를 이용한 양념게장, 간장게장, 대하장, 공기밥, 음료수가 한 상에 나온다.<br/> <br/>식재료는 모두 신선한 국내산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꽃지해수욕장에서 차로 5~10분 거리에 있어 물놀이를 즐기다가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시골밥상 식사 영수증을 가지고 안면도 쥬라기박물관에 들르면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알아두면 좋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08.txt

제목: 국립대병원 간호사 마약 성분 진통제 빼돌려 투약  
날짜: 20160715  
기자: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15212705337  
본문: 국립대병원 간호사가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투약해 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br/><br/>전남 화순경찰서는 “<span class='quot0'>마약 성분 진통제를 빼돌려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화순 전남대병원 간호사 ㄱ(48)씨를 입건했다</span>”고 밝혔다. <br/><br/>ㄱ씨는 지난 4월부터 병원에서 마약 성분이 든 암 환자용 진통 주사액 일부를 빼돌려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br/><br/>경찰은 병원 측을 상대로 마약류 관리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09.txt

제목: 암 환자 면역력 증진으로 암 다스리는 ‘면역항암제’  
날짜: 2016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14155920690  
본문: 최근 의학계의 암 치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기존의 화학항암치료를 넘어 환자의 면역력을 통한 면역항암 치료로 바뀌고 있다.<br/><br/>기존의 1세대 항암치료요법으로 불리는 화학항암제는 암세포에 직접 작용, 공격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문제는 암세포가 아닌 정상세포에도 그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심각한 면역력 저하,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2세대 표적암치료제는 암세포가 자라는 데 필요한 요소를 억눌러서 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리로, 암세포에 대한 직접 효과를 거두기 힘들어 제한적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br/><br/>때문에 최근에는 체내 면역세포를 활용해 암세포를 찾아내 싸우게 하는 면역항암제가 차세대 항암제로 부상하고 있다. 면역항암제는 기존 화학항암제와는 달리 구토•탈모 등 항암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환자들의 편안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치료 반응이 좋은 환자에 대해 장기간 치료를 유지•사용할 수 있어 암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br/><br/>특히 어혈과 적취를 치료하는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옻나무 성분이 암을 다스리는 주요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옻 추출성분을 함유한 신약개발이 한방의학계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br/><br/>청평푸른숲한방병원 박상채 한의학박사와 하나통합한의원 김보근 원장과 공동개발한 한방 면역항암제, 티버스터는 옻 추출물을 주요 성분으로 해 다수의 임상사례에서 좋은 효과를 기록하고 있다.<br/><br/>옻나무에 함유된 파세틴 성분은 몸의 면역력을 키워 염증을 치료하고 암세포의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티버스터(치종단 Ⅱ)는 A549, H460, H1299 등 비소세포성 폐암세포들은 물론 다수의 암세포 사멸과 신생혈관생성억제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br/><br/>또한 간보호 기능과 항암부작용 및 항암제 내성의 완화효과 등의 연구결과가 속속 밝혀지며 주류의학계에서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이 같은 티버스터의 효능은 국제 SCI급 논문을 통해 그 임상 연구결과가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다.<br/><br/>청평푸른숲한방병원의 박상채 박사는 “<span class='quot0'>기존 화학항암치료는 단기간 높은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치료가 지속될 경우 환자의 면역력을 파괴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그 한계성이 나타나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자가면역 증진을 통해 암을 치료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면역항암치료제에 대한 한방 양방의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10.txt

제목: 암 환자 삶의 질 개선 돕는 ‘고주파온열암 치료’  
날짜: 201607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13114137767  
본문: '암 발명= 수술 치료'라는 등식이 깨지고 있다.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며 암 치료에 있어 수술이 유일한 방법이던 시대가 지나고 있는 것.<br/> <br/>방광암으로 절망에 빠졌던 고령자 A씨(여/77)도 새로운 암치료법으로 희망을 찾은 케이스다. 당초 A씨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권유 받았으나 소변주머니를 차고 다녀야하는 삶을 상상하곤 수술을 포기했다. A씨는 총 10회의 고주파 암치료 후 대학병원에서 재 검사를 통해 암세포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했다. <br/> <br/>최근 A씨의 사례처럼 온열암치료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되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고주파 온열암 치료는 항암 부작용을 완화시킴은 물론, 암 환자의 삶의 질 자체를 개선시키는 새로운 암치료법으로 인정 받는 추세다.<br/> <br/>고주파 암치료는 암세포가 42℃에서 죽고, 정상세포는 44℃ 이상에서 죽는다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를 토대로 일정 온도의 고주파를 42℃에 맞춰 암세포만을 파괴시키는 것이다.<br/> <br/>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가의 치료기만이 이 고주파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염창환병원에서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 'BSD-2000'과 '셀시우스 TCS'를 도입, 치료가 진행 가능하다.<br/> <br/>염창환 원장은 2013년 독일 PRAXIS-KLINIK과 2015년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CTCA에서 각각 '셀시우스'와 'BSD 2000'을 이용한 고주파온열암치료를 연수하고 국내 도입을 결심했다.<br/> <br/>BSD-2000은 이미 미국 암센터에서 사용되며 국제적으로 암치료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는 기기다. 75-120MHz의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 신체 내부 깊은 부위의 고형암에 온열을 전달해 암세포를 파괴, 환자 개인의 상태에 적합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br/> <br/>염 원장은 "고주파 치료는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완화시켜준다는 점에서 많은 암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온열암 치료와 함께 고압산소, 메가비타민 치료를 병행해도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11.txt

제목: 8000억 투자사기범 복역중 암 사망  
날짜: 20160712  
기자: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12143711073  
본문: 조희팔 사기사건을 벤치마킹해 80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방문판매업체 대표가 암으로 숨졌다. <br/><br/>12일 안양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쯤 군포시 모 병원에서 암투병 중이던 재소자 남모씨(56)가 숨졌다.<br/><br/>교도소 측은 병원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 50여 일 전 남씨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해왔다.<br/><br/>남씨는 8000억원대의 투자 사기로 지난해 9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br/><br/>남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료·운동기기를 구매한 뒤 회사에 위탁하면 1년간 구매액의 80∼90%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투자자 1만여 명을 모집, 819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br/><br/>검찰은 남씨가 유사수신 사기범인 조희팔의 수법을 벤치마킹해 범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br/><br/>남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며 기각했다.<br/><br/>대법원은 지난 5월 남씨를 포함, 관련 사건 피고인들의 상소를 기각했다.<br/><br/>남씨 외에도 이 사건에 관련된 업체 임원 5명에게 징역 4∼6년형이 선고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12.txt

제목: [경향마당]자궁경부암, 해법은 예방접종  
날짜: 20160711  
기자: 김재훈 | 연세대 강남세브란스 산부인과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11210244736  
본문: 지난해 결혼을 앞둔 20대 여성이 자궁경부암 1기 진단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진료실 문을 나서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고, 질병 특히, 중증질환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궁경부암 발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성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활발해짐에 따라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으로 알려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위험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br/><br/>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두 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여성암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000명 이상이 암 진단을 받고, 하루 평균 3명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목숨과 직결된 치명적 암이지만,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감염됐을 때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 단계에서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이 더욱 관리를 어렵게 한다.<br/><br/>정기검진만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젊어지는 자궁경부암’ 발병 추세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39세 젊은 여성들 중 자궁경부암 진단 환자수는 2010년 144명에서 2014년 213명으로 48% 증가했다. 통계 지표는 젊은층에서 뚜렷하게 자궁경부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성 접촉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것과 20대 여성이 검진이 부끄러워 병원을 잘 찾지 않아 조기진단이 힘든 것도 원인이다. <br/><br/>다행히 자궁경부암은 예방 가능한 백신이 개발돼 있다. 2007년 이후 국내 도입된 가다실과 서바릭스는 자궁경부암을 70% 이상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예방접종 도입을 권고하고, 국내에서도 이미 800만건가량 접종돼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 그간 한 번 접종에 15만~20만원가량 하는 비용이 큰 걸림돌이었지만, 올해부터 국가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백신이 추가돼 만 12세 여성청소년은 무료접종 기회가 생겼다. 미래세대의 여성건강을 지키는 사업이라 그 어떤 정부지원보다 반갑다.<br/><br/>하지만 접종 대상자가 혼자 병원을 찾기에는 어린 여학생들이라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 딸아이가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접종시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13.txt

제목: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16년 7월 12일  
날짜: 201607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11203636190  
본문: ■ 교양 ■ 디 이너뷰(아리랑TV 오전 8시) = 미국 알칸소주의 전통악기 ‘마운틴 덜시머’를 연주하는 맥팔랜드 부부를 만나본다. 덜시머는 1800년대 초 미국 이민자들이 만든 민속악기로, 악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이나 막대로 튕겨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의 일종이다. 부부는 14년 전 암 투병 중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덜시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고 밝힌다. 부부는 두 장의 앨범을 내기까지 일어났던 다양한 에피소드도 공개한다.<br/><br/>■ 다큐 ■ 맨 인 더 와일드(NGC 밤 12시) = 야생 전문가인 헤이즌 아델의 오지 생존 도전기를 공개한다. 이번엔 동남아시아의 밀림 속에서 라오 룸족 어부의 기술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아보기로 한다. 헤이즌 아델은 풍부한 어장에 가기 위해 벌레가 득실거리는 울창한 밀림을 지나고 소용돌이를 헤쳐나가며 뱀으로 가득한 나무까지 올라야만 한다. 어장에 도착한 후 그는 거센 급류 위에 놓인 줄을 타고 물고기를 잡기 시작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14.txt

제목: [미세먼지 대책]전국 화력발전소 절반 밀집한 충남 “숨막혀 죽으란 말이냐”  
날짜: 20160706  
기자: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06232632232  
본문: ㆍ‘대기오염’ 되짚어본 당진<br/><br/><br/><br/>정부가 6일 내놓은 미세먼지 관련 화력발전소 대책은 사실상 노후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서부지역을 겨냥한 것이다. <br/><br/>미세먼지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지난봄 직접 가 본 충남 당진지역에선 실제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지난 3월26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회원들과 함께 찾은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침이 콜록콜록 나올 정도로 공기질이 확연히 차이가 났다. <br/><br/>이날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고, 충남은 비교적 낮은 보통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인 수치’가 무색하게 이날 당진의 공기는 폐가 약한 사람은 숨쉬기도 어려울 지경이었다. 어디를 봐도 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내뿜는 연기, 수증기가 보이고, 송전탑과 선로가 촘촘히 덮여 있어 뻥 뚫린 하늘조차 보기가 힘든 광경이었다. <br/><br/>당진은 발전소 19기가 겹겹이 포위하고 있고, 가곡1리의 경우는 아예 마을 전체가 당진화력발전과 현대제철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 두 사업장은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순위 4위와 7위를 차지했다. <br/><br/>당진의 대기질이 나쁘다는 것은 이미 통계를 통해서도 드러나 있다. 2011~2013년 당진에서는 오존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횟수가 172회에 달했다. 당진 주민들은 1년에 두 달가량 기준치가 넘는 나쁜 공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br/><br/>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미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진행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에서도 충남의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달 5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간 충남 당진·태안·보령·서천 지역의 아황산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날 서울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은 0.004~0.011ppm으로 나타났다. 아황산가스는 2차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이다.<br/><br/>공식적인 연구들에서도 주민들의 건강 적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는 상태다. 2014년 단국대 산업의학과 연구진이 충남의 4개 화력발전소, 당진제철, 서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 4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민들의 체내에선 기준치를 넘어선 비소, 수은이 검출됐다. 주민들의 자체 집계 결과 당진시 석문면 교로2리 왜목마을에서는 1999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이후 주민 24명이 암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당진의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충남 내에서도 천식, 폐렴, 심리적 스트레스 등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r/><br/>그러나 주민들에게 정부가 안겨준 것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나 배출기준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하는 방안이었다. <br/><br/>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 당진시 석문면 교로2리 왜목마을에 ‘당진에코파워’라는 이름의 화력발전소 2기를 추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근 주민과 당진시, 시의회, 환경단체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했음에도 당진에코파워 건설계획은 국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해 기존 당진화력 2기, GS 복합화력발전소 1기 등 당진에서만 모두 화력발전 5기를 추가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주민들은 ‘정부가 당진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한다’며 반발했지만 소용없었다.<br/><br/>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이날 “산업부가 석탄화력발전소 대책을 내놨지만, 충분치 않다.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쇄함과 동시에 아직 착공하지 않은 화력발전소는 백지화하는 것이 옳다”며 “또 자율협약으로 정하기로 한 오염물질 저감목표도 구속력 없는 자율협약보다 구체적인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15.txt

제목: 윤성원 핸드볼아카데미원장 별세  
날짜: 20160706  
기자: 이용균 기자 nod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06205549306  
본문: 윤성원 대한핸드볼협회 핸드볼아카데미원장이 5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60세.<br/><br/>윤 원장은 핸드볼 대표팀의 체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셔틀런 훈련의 일종인 ‘퀵-퀵 댄스’를 개발해 훈련에 접목했다. 수년 전 암을 극복했던 윤 원장은 리우올림픽에 대비하던 중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약 2개월의 투병 끝에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최은주씨와 자녀 태인(한국바이케미칼 대리)·태준(서울대 초임계유체공정연구실 석박사통합과정)·종현(세종대 자유전공학부생)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이며 발인은 7일 오전 6시. (02)3010-2294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16.txt

제목: 국내 암 사망률 1위 폐암, 한방면역항암제로 치료 효과 높인다  
날짜: 2016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06171208963  
본문: 계절 구분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폐암은 다른 암에 비해 사망률이 높고 조기 진단이 쉽지 않아 주의가 당부된다.<br/><br/>폐암 조기 발견이 어려운 가장 큰 요인은 환자가 인지할 수 있는 초기 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야 기침/객담(가래)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 특히 암 발생 위치에 따라 두통•오심•구토•뼈의 통증과 골절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들이 다른 질환과 혼동하기 쉽다.<br/><br/>주로 3~4기 이후 발견되는 특성으로 폐암은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암 발병률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망률은 굳건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재발 및 전이도 다른 암종에 비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방의학계에서는 치료가 까다로운 암으로 분류된다.<br/><br/>폐암은 세포형과 병기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며 환자의 성별, 전신 상태와 치료 효과에 따라 알맞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최근까지 가장 대중적으로 진행된 치료 과정은 수술 및 화학 항암치료가 대부분이었다.<br/><br/>문제는 화학 항암치료의 경우 암의 내성으로 치료 효과가 떨어지거나 암세포는 물론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치료제의 특성으로 구토, 구역, 설사, 식욕부진, 탈모, 감염, 그리고 면역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환자들에게 큰 고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br/><br/>이 때문에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표적치료제들이 폐암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게 됐다. 그러나 표적치료제 또한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화학 치료제가 가진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한 미완성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에는 암 환자의 면역력을 키워 암과 싸우는 힘을 키워주는 ‘면역항암제’가 폐암 치료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br/><br/>1세대인 화학항암제와 2세대 표적항암제에 이어 차세대 항암제로 떠오른 면역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1, 2 세대 항암제와 달리 환자의 몸속 면역체계를 활용하는 치료방법이다.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내성으로 인한 치료 효과 저하를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적용 가능한 환자군도 많은 것이 이점으로 꼽히고 있다.<br/><br/>면역항암제의 높은 치료 효과로 주류 의학계에서도 관련 기술 및 치료제 개발이 활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머지않아 폐암 치료의 주요 수단인 표적항암제의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의 자멸사를 유도하는 옻나무의 추출물을 활용한 한방항암치료제 ‘티버스터(치종단II)’가 면역항암제와 비슷한 치료기전을 보여주며 주목을 받고 있다.<br/><br/>티버스터는 현대 주류의학으로는 치료가 힘든 폐암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해외 유명 저널인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등 주요 SCI(E)급 저널을 통해 관련 논문이 소개되는 등 양방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는 한방 항암제로서 우리나라 의학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다.<br/><br/>논문에 소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티버스터(치종단 Ⅱ)는 특히 A549, H460, H1299 등 비소세포성 폐암 세포들에서 유의미한 세포독성 작용을 가짐을 보여주었으며, A549 비소세포성 폐암 세포에서 더욱 두드러진 활성이 나타났다.<br/><br/>하나통합한의원 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0'>면역항암제는 그 치료효과와 함께 환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성 및 부작용의 우려가 적어 주류의학계에서 높은 관심속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티버스터와 같은 한방암치료제의 경우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우수한 치료효과로 폐암 등 고난이도 암치료에서 양방 등과 병행 치료 시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다수의 임상을 통해 검증되고 있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17.txt

제목: ‘우생순’ 체력 만든 윤성원 핸드볼아카데미 원장 별세  
날짜: 20160706  
기자: 이용균 기자 nod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06110438764  
본문: 윤성원 대한핸드볼협회 핸드볼아카데미원장이 5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60세.<br/><br/>한국스포츠개발원 박사인 윤 원장은 한국 여자 핸드볼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핸드볼 대표팀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 체력 향상을 꾀했고, 이를 위한 체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퀵-퀵 댄스’를 개발해 훈련에 접목했다.<br/><br/>‘퀵-퀵 댄스’는 단순한 셔틀런 훈련이 아니라 각기 템포가 다른 음악을 연결해 지루할 수 있는 셔틀런 훈련의 심리적 효과를 높이는 훈련이었다. ‘퀵-퀵 댄스’ 훈련 뒤 바로 혈액을 채취해 젖산 농도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선수들의 지구력과 체력을 끌어올렸다. 이런 훈련을 바탕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오심 끝 결승 진출을 놓친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동메달을 딸 수 있었다.<br/><br/>윤 원장은 최근까지 핸드볼아카데미원장으로 일하며 전국의 핸드볼 유망주를 발굴하고 유소년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핸드볼 발전에 이바지했다. 핸드볼협회 기술위원으로 팀 전력 분석 및 해외 경쟁 국가들의 팀 전력 분석에도 역할을 했다.<br/><br/>수년 전 암을 극복했던 윤 원장은 리우 올림픽에 대비하던 중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며 입원했고 약 2개월의 투병 끝에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최은주씨(주부), 자녀 윤태인(한국바이케미칼 대리)·태준(서울대 초임계유체공정연구실 석박사통합과정)·종현(세종대 자유전공학부생)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7일 오전 6시. (02)3010-2294.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18.txt

제목: 편평사마귀, 면역 체계 무너진 바이러스성 질환 예방이 중요해  
날짜: 2016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06100253384  
본문: 몸 안에 잔존해 있는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해질 때 활성화 된다. 사마귀의 재발이 바로 그런 이유다. 단순한 뾰루지나 여드름의 일종이 아니다. 사마귀는 대체로 딱딱하고 거칠게 튀어나오는 구진 형태의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한관종, 비립종, 좁쌀여드름 등으로 생각해 자연 치유가 되는 줄 알고 방심하기 쉽다. 하지만 신체 어느 부위든 한 번 생기면 쉽게 옮아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br/> <br/>사마귀 종류는 발바닥 사마귀, (연소성) 편평 사마귀, 음부 사마귀(곤지름) 등이 있다. 편평 사마귀는 최근 많이 생기는 질환으로 10대~20대 노출이 취약하다. 자잘하게 발생하지만 직접 치료를 해야하며 특히 재발률이 높다. 발바닥 사마귀는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생겨 신발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는다. 걸을 때마다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티눈이라 오해하기 쉽지만 세균에 번식이 빠르다. 음부 사마귀는 곤지름이라고도 불리며 다른 부위 사마귀와 달리 각질없이 부드럽게 보인다. 오래 방치하면 암으로 전위될 확률이 높아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br/> <br/>사마귀 치료는 약, 항암제 주사요법, 냉동요법, 전기 소작술, 레이저 시술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직접 파괴하는 방식으로 탄산가스 레이저나 어븀-야그 레이저를 주로 사용한다. 강력한 산을 사마귀 부위에 직접 발라 화학적으로 파괴하는 방법도 있다.<br/> <br/>이 외에도 면역 반응을 이용해 고안된 치료법인 DPCP 등의 물질을 사용한 면역치료법은 시술 2주 전 팔 안쪽이나 엉덩이 부위에 강한 농도의 DPCP를 발라 인체에 해당 성분을 기억하게 한 후, 조금씩 농도를 높여 치료를 지속하는 방법이다. 이는 편평사마귀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br/> <br/>피브엔의원 도정화 대표원장은 “사마귀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가 체내에 더 번식하지 않게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다"면서 "이미 알려진 사마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적절한 치료법을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19.txt

제목: 영화 ‘내 친구의…’ ‘체리향기’ 키아로스타미 감독 타계  
날짜: 20160705  
기자: 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05211547321  
본문: ㆍ서슬퍼런 검열 속에서도 ‘이란 영화’ 세계에 알린 거장<br/><br/><br/>영화 <체리 향기>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란 영화계의 거장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이 76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가디언 등 외신들은 키아로스타미가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고 보도했다. <br/><br/>키아로스타미는 올 3월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 1940년 테헤란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키아로스타미는 테헤란 대학에서 회화와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다. 1960년대에는 포스터, 영화 타이틀, 텔레비전 광고 등을 만들었다. 이후 어린이용 단편으로 영화 경력을 시작해 1974년 장편 데뷔작 <여행객>을 내놓았다. <br/><br/>키아로스타미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진 계기는 이른바 ‘지그재그 3부작’의 첫 작품인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1987)였다. 주인공이 지그재그로 난 길을 가는 모습을 한참 보여준다고 해서 ‘지그재그 3부작’이라 명명된 영화들은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1991), <올리브 나무 사이로>(1994)로 이어지며 키아로스타미의 명성을 확고히 했다. 1997년작 <체리 향기>로는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체리 향기>는 자살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이란에서는 상영이 금지돼 있다. <br/><br/>2000년대에는 이란을 떠나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 <사랑을 카피하다>(2010), 일본에서 찍은 <사랑에 빠진 것처럼>(2012)을 내놓았다. 키아로스타미의 영화는 간소한 형식으로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를 모호히 한다. 이란 시절의 영화는 주로 비전문 배우를 기용했고, 다큐멘터리를 연상케 하는 방식으로 촬영했다. <br/><br/>그는 이란의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도 어린이가 등장하는 우화적 영화를 통해 검열의 손길을 비켜나갔다. 1990년대 이후 그의 영화들은 국내에 대부분 소개돼 많은 팬을 확보했다. <br/><br/>키아로스타미는 부산국제영화제 등에 참석하기 위해 수차례 방한했으며, 2010년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 때는 ‘아시아영화아카데미’ 교장을 맡기도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20.txt

제목: 사랑의병원 황성주 박사, 암 환우에게 희망 메시지 전달하는 ‘암 면역 오픈 클리닉’ 진행  
날짜: 201607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05114234330  
본문: 황성주 박사는 7월 7일과 21일 본인이 운영하는 ‘사랑의병원’ 대강당(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서 ‘암 면역 오픈 클리닉’을 진행한다. 이번 클리닉은 오랜 시간 암 환자 치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황성주 박사가 암 환우 및 그 가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br/> <br/>이 세미나에서 황성주 박사는 그동안 암 환자 치료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융합면역치료법’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수술 직후, 항암치료 전후, 방사선치료 전후 등 모든 암 환자에게 찾아오는 ‘면역공백기’를 극복하는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다.<br/> <br/>황성주 박사는 “암은 이제 공장형 시스템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다. 이제는 통합적인 맞춤요법의 시대로 암 치료 역시 단순히 항암주사에 의존하기보다 면역력 강화 등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이번 클리닉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한 모든 분에게는 ‘면역 관리 없이 암 완치 없다’, ‘암은 없다’, ‘암 재발은 없다’ 등 황성주 박사가 그동안 발표한 관련도서 1권과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21.txt

제목: 이란 영화감독, 키아로스타미 타계  
날짜: 20160705  
기자: 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05111326566  
본문: 이란의 영화감독 압바스 키아로스타미가 암 투병 중 타계했다. 향년 76세. <br/><br/>가디언 등 외신들은 키아로스타미가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고 보도했다. 키아로스타미는 올 3월 암 진단을 받고 투병중이었다. <br/><br/>1940년 테헤란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키아로스타미는 테헤란 대학에서 회화와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다. 1960년대에는 포스터, 영화 타이틀, 텔레비전 광고 등을 만들었다. 이후 어린이용 단편으로 영화 경력을 시작한 키아로스타미는 1974년 장편 데뷔작 <여행객>을 내놓았다. 축구 경기를 보러갈 돈을 모으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는 10세 소년에 대한 이야기였다. <br/><br/>키아로스타미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진 계기는 이른바 ‘지그재그 3부작’의 첫 작품인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1987)였다. 주인공이 지그재그로 난 길을 가는 모습을 한참 보여준다고 해서 ‘지그재그 3부작’이라 명명된 영화들은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1991), <올리브 나무 사이로>(1994)로 이어지며 키아로스타미의 명성을 확고히 했다. 1997년작 <체리 향기>로는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2000년대에는 이란을 떠나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 <사랑을 카피하다>(2010), 일본에서 찍은 <사랑에 빠진 것처럼>(2012)을 내놓았다. <br/><br/>키아로스타미의 영화는 간소한 형식으로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를 모호히 한다. 이란 시절의 영화는 많은 경우 비전문 배우를 기용했고, 다큐멘터리를 연상케하는 방식으로 촬영됐다. 키아로스타미는 “난 창조하지 않는다. 그저 내 주변 사람의 일상을 관찰한 뒤 거기서 영상을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br/><br/>키아로스타미로 대표되는 현대 이란 영화는 1990년대 세계 영화 미학에 새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이란의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도 조국에 남아, 어린이가 등장하는 우화적 영화를 통해 검열의 손길을 비껴나갔다. 1990년대 이후 키아로스타미의 영화들은 한국에서도 대부분 소개돼 많은 팬을 확보했다. 키아로스타미는 부산국제영화제 등에 참석하기 위해 수차례 방한한 적이 있으며, 2010년 제 15회 부산국제영화제 때는 ‘아시아영화아카데미’ 교장을 맡기도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22.txt

제목: 이우환 그림 위조 화가 ‘극단적인 선택’…경찰, 구속수사  
날짜: 20160705  
기자: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05060207895  
본문: ㆍ불구속 상태에서 ‘약물 과다 복용’ 뒤늦게 알려져 <br/>ㆍ‘이 화백 경찰 첫 출석’ 심리 불안…늑장 수사 지적<br/><br/><br/>국내 대표적 현대미술 작가인 이우환 화백(80)이 위작사건 수사 협조차 경찰에 처음 출석한 날 위조범으로 지목된 30대 화가가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위작으로 판정한 그림들을 두고 이 화백이 “틀림없는 내 작품”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상황에서 위조화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을 놓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br/><br/>4일 법조계와 미술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던 위조화가 이모씨(39)를 지난달 30일 체포해 지난 2일 구속했다. 경찰은 표면상 “<span class='quot0'>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결정</span>”이라고 밝혔지만 갑자기 체포에 나선 진짜 이유는 이씨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 화백이 경찰에 처음 출석한 지난달 27일 평소 복용 중이던 정신치료 약을 과도하게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때 경기 일산에 있는 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br/><br/>이씨는 이 화백 그림 위조사건 수사에서 핵심 피의자다. 이씨는 2012년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66)의 지시로 이 화백 작품을 모사한 혐의(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위작 의혹이 제기된 그림 13점 가운데 4점에 대해 “직접 그렸다”고 자백했다.<br/><br/>지난달 2일 경찰은 현·이씨의 자백과 민간전문가들이 내놓은 안목검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검증을 토대로 13점 전부를 위작으로 판정했다. <br/><br/>경찰은 캔버스와 나무틀에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덧칠한 흔적이 있다는 점, 1960년대 이전 생산된 수제 못과 1980년대 생산된 고정침이 한 작품에 혼용된 점 등을 추가 증거로 제시했다.<br/><br/>반면 같은 달 27일과 29일 경찰에 출석한 이 화백은 작가검증을 마친 뒤 “호흡이나 리듬, 채색방법 등 모두 다 내 것이다. 분명한 내 작품”이라며 경찰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br/><br/>지난해 6월 경찰은 작품 1점당 수억원을 호가하는 이 화백의 작품을 위조한 가짜 그림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br/><br/>1년간의 수사 끝에 위조총책인 현씨가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28일 1심 공판에서 그가 위조 범행을 자백하면서 일단락되는 줄 알았던 수사가 이 화백의 돌출 발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br/><br/>경찰은 이 화백이 경찰 조사 이후인 지난달 30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진품이라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위조화가 이씨를 포함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던 위작사건 공범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현씨로부터 위작 4점을 건네받아 이를 평소 알고 지낸 화상들에게 총 15억여원을 받고 판매한 유통총책 ㄱ씨(68)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검토 중이다.<br/><br/>앞서 현씨와 함께 ㄱ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암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한 차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현재 ㄱ씨는 수술을 연기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경찰과 작가 사이의 진위 공방으로 번지는 등 눈덩이처럼 커지자 경찰이 다시 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두고 ‘뒷북 수사’라는 주장도 나온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23.txt

제목: ‘죽음의 섬’ 이름 비키니, ‘여성의 자유’로 태어나다  
날짜: 20160704  
기자: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04225514014  
본문: ㆍ70년 전 1946년 7월 두 사건…미 핵실험·비키니 수영복 첫선<br/><br/><br/>1946년 7월5일 프랑스의 자동차 기술자 출신 의상디자이너 루이 레아르가 여성의 배꼽을 과감하게 드러낸 투피스 수영복을 선보였다. 교황청이 ‘죄악’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파격적인 이 수영복에 레아르는 ‘르 비키니’라고 이름을 붙였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 비키니가 왜 수영복의 이름이 됐을까. 당시는 미국과 소련의 핵개발 경쟁에 불이 붙던 때였다. 비키니 수영복이 세상에 나오기 나흘 전인 7월1일 비키니섬에서는 미국의 핵실험이 시작됐다. 이 때문에 핵폭탄과 연관된 단어는 충격적인 일을 표현하는 당시 유행어가 됐다. 프랑스 디자이너 자크 하임이 레아르보다 먼저 내놓은 투피스 수영복의 이름도 ‘아톰(핵)’이었다.<br/><br/>■비키니섬의 70년 상처는 진행형<br/><br/><br/>비키니섬의 상처는 70년이 다 됐지만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1946년 2월 비키니섬을 신탁통치하던 미국은 핵실험을 이유로 주민 146명에게 섬에서 나갈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들은 석 달 뒤 미군의 배를 타고 동쪽으로 200㎞ 떨어진 무인도로 옮겨졌다. 미국은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비키니섬에서만 23차례 등 마셜제도 소속 섬에서 67차례 핵실험을 했다. 1954년 3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100배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캐슬 브라보)이 처음 실험된 곳도 비키니섬이다. 수소폭탄이 터진 후 비키니섬 전역에는 낙진이 1㎝ 넘게 쌓였다. 주민들은 1970년대 고향에 돌아왔지만 고향은 방사능에 오염된 ‘죽음의 땅’이 돼 있었다. 암이 늘고 기형아 출산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비키니섬에 재정착하지 못하고 이 섬 저 섬을 떠돌아야 했다. <br/><br/>비키니섬 주민과 미국의 기나긴 싸움은 1975년부터 시작됐다.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방사능 조사를 요구하자 미국은 보상기금을 조성했다. 1986년 마셜제도가 미국에서 독립한 후 세워진 원자력청구재판소(NCT)는 미국의 핵실험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그러나 2009년까지 기금 4580만달러는 모두 소진됐다. 미 의회 예산이 바닥나면서 상당수는 아직도 배상을 받지 못했다. US뉴스&월드리포트에 따르면 원고 중 절반이 배상을 기다리다가 숨졌다. 마셜제도 주민들은 핵을 가진 강대국 전체를 상대로 한 싸움에 나섰다. 이들은 2014년 4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9개 핵보유국이 핵군축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핵무기비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렸다. 주민들이 승소해도 실질적인 이득은 크지 않지만, 이들은 핵무기 경쟁 속에 묻힌 희생이 정당했는지 묻고 있다.<br/><br/>■비키니 수영복의 70년<br/><br/>비키니 수영복은 보수적 도덕관념의 변화와 여성의 표현의 자유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비키니가 세상에 나왔을 때 교황 비오 12세는 ‘죄악’이라고 표현했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호주, 벨기에 등 가톨릭 국가에서는 착용이 금지됐다. 7월11일 패션쇼 석상에서 비키니를 처음 입은 여성은 누드댄서인 미셸린 베르나르디니였다. 그는 이 일로 팬레터 5만통을 받았다. 비키니는 1951년 제1회 미스월드대회에도 선보였으나 여론의 반발로 곧 금지됐다. 미인대회에 비키니가 다시 등장한 건 1977년 미스아메리카 대회에서다.<br/><br/>비키니는 1960년대 ‘성의 혁명’과 더불어 널리 퍼졌다. 대중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는 프랑스 배우 브리지트 바르도다. 그는 1952년 영화 에서 비키니를 입으면서 프랑스에 비키니 유행을 가져왔다. 유럽에 바르도가 있었다면 미국에는 마릴린 먼로가 있었다. 1962년 먼로는 영화 에서 비키니를 입고 나왔다.<br/><br/>같은 해 나온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 에서 우르술라 안드레스가 흰색 비키니를 입고 바다에서 해변으로 걸어나오는 모습은 가장 유명한 비키니 장면으로 꼽힌다. 그해 플레이보이 표지에 처음으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모델로 등장했다. 비키니가 사전에 올라간 것은 1969년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24.txt

제목: 조계종 첫 ‘서양인 포교사’ 브라이언 배리 법사 별세  
날짜: 20160704  
기자: 김희연 기자 egghe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04220253022  
본문: ㆍ만봉 스님에 정식 전수 ‘탱화장’<br/><br/><br/>‘탱화의 거장’ 만봉 스님의 전수자이자 조계종 첫 국제포교사인 브라이언 배리 법사가 지난 3일 별세했다. 향년 72세.<br/><br/>탱화, 달마도 등을 그린 불교미술 작가로 유명한 배리 법사는 카피라이터, 영문 번역가 등으로도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다. 미국 코네티컷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던 그는 1967년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에서 평화봉사단 활동을 펼치며 한국과 연을 맺었다. 당시 유엔 결핵퇴치 사업의 일환으로 북제주군보건소에서 6개월간 근무하기도 했다. <br/><br/>한국에 깊은 인상을 갖게 된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1970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했다. 1980년 대원정사 불교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했으며 1985년 불광사에서 광덕 스님으로부터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기르라’는 뜻의 법명 도해를 받았다.<br/><br/>탱화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1986년 신촌 봉원사의 단청을 보고 감화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불교미술의 대가로 손꼽히는 만봉 스님의 문하에 들어가기 위해 탱화의 밑그림인 시왕초 3000장을 그리기도 했다. 마침내 만봉 스님의 정식 전수자가 돼 탱화를 배웠고, 1999년에는 태국 왕실사원의 부탁으로 탱화를 그리는 등 탱화장으로서 실력을 인정받았다.<br/><br/>1987년에는 조계종 첫 서양인 포교사가 됐다. 성철 스님의 저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뭣고>를 비롯해 일타 스님과 법정 스님의 저서와 <한국의 불화>(전 40권) 등을 영어로 번역해 한국 불교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한국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br/><br/>배리 법사는 평소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했으며, 첫 봉사지였던 부안군을 떠올려 스스로 ‘부안 부씨’로 명명하기도 했다. <br/><br/>그는 2001년 폐와 신장에 암이 생겨 투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5일 오전 11시다. 영결식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서 거행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25.txt

제목: 오늘의 인사 - 2016년 7월 2일  
날짜: 2016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01221945690  
본문: ■미래창조과학부 ◇과장급 전보 △융합신산업과장 이재형 △정보화기획과장 최준호 △정보보호지원과장 박준국 △디지털방송정책과장 최승만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장 최은호 △〃 전파환경안전과장 김신겸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장 최현호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유성완 △〃 강릉전파관리소장 정규연 △〃 대구전파관리소장 이상철 △융합기술과장 최미정<br/><br/>■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박춘란 △대학지원관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오승현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류혜숙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주대 사무국장 송기민 ◇서기관 전보 △지방교육자치과장 박지영 △기획조정실 강종부 △대학정책실 김아영 김형기 △평생직업교육국 류민수 △교육부 김성근 △교육부(국조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파견) 장세은 △교육부(국조실 세월호피해자지원·추모사업지원단 파견) 한위전 △경북대 구원근 △경상대 이상범 △공주대 조용준 △부산대 이종필 △안동대 신기철 △전북대 구자익 △제주대 이태주 △중앙교육연수원 김태경 △충남대 박기원 △충북대 유은종 △한국방송통신대 오찬택 △한국체육대 한창진 △한국해양대 박진창 △대구광역시교육청 박종성 ◇기술서기관 전보 △교육안전정보국 윤석훈 △공주대 최승화 ◇서기관 승진 △강원대 김정열 김성겸 △국립특수교육원 신경현 △군산대 강두중 △목포대 길종호 전희중 △창원대 박윤호 김창열 △한국교원대 엄정수 △충남대 김남우 △한국교통대 이우관 △한국해양대 황경섭 서영희 △한밭대 이애시 △부산대 유경종 ◇기술서기관 승진 △강릉원주대 강경호 △한국교원대 강현묵 △제주대 오순철 <br/><br/>■국민안전처 ◇국장급 승진 △재난복구정책관 이한경<br/><br/>■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 홍진환 <br/><br/>■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이상훈 <br/><br/>■문화재청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이경훈 △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이종희 △무형문화재과장 이길배 △조선왕릉관리소장 권석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장 곽유석<br/><br/>■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권태성<br/><br/>■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손병두 △증권선물위원회 〃 이병래 △금융정보분석원장 유광열 △금융정책국장 도규상<br/><br/>■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전보 △통일정책자문국장 김점준 △기획조정관실 운영지원담당관 조희래<br/><br/>■한국재정정보원 ◇본부장 △경영 황순구 △디브레인 윤유석 ◇팀장 △사이버안전센터 유달영 △감사 이철 △전략기획 권태상 △인재개발 홍학의 △재무회계 박성용 △정보전략 유근필 △예산정보 박충열 △집행정보 우광일 △자산정보 김명자 △결산정보 이재정 △인프라운영 김경수 <br/><br/>■기초과학연구원(IBS) △순수물리이론 연구단 공동연구단장 이수종 △분자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부연구단장 최원식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 그룹리더 유종희<br/><br/>■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 정구봉 △필드로봇연구본부장 최영호 △경북의료서비스 로봇융합지원센터장 민정탁<br/><br/>■한국언론진흥재단 △검사역실장 노성환 △경영기획실장 이종경 △미디어진흥실장 천원주 △지역관리실장 백민수 △광고국장 이동우 △경영지원팀장 최대식 △조사분석팀장 김위근 △언론지원팀장 정대필 △언론인연수팀장 황호출 △국제교류팀장 송윤숙 △미디어교육팀장 오수정△지역신문팀장 유재권 △유통지원팀장 윤현배<br/><br/>■평화방송·평화신문 ◇승진 △기획실장 이상우 △기획차장 이정균 △경영관리국 자료심의부 부장 지승신 △전산정보부 차장 이형태 △라디오국 제작부 차장 정동근 △보도기획부 차장 윤재선 △교계사회부 차장 박수정 △TV기획편성부 차장 신용철 △TV제작1부 차장 류호찬 △TV제작2부 차장 이재춘 △라디오기술부 차장 김수정 △영상기술부 차장 이용헌 △광고사업부 차장 정진삼 △광고사업부 제2 차장 홍동천 △평화방송여행사 영업부 차장 심연선 ◇전보 △보도총국 평화신문편집부 차장 신익준 △기술관리부 차장 정동수<br/><br/>■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바이오헬스부장 직무대행 박영태 △레저스포츠산업부장 직무대행 유재혁<br/><br/>■스포츠동아 △전략기획본부장 양성동 △편집국장 연제호 △산업경제부장 김종건 △온라인팀장 겸 엔터테인먼트부장 윤여수<br/><br/>■에너지경제신문 △경제산업부장 고현석<br/><br/>■고려대 <본교> △공과대 및 공학대학원장 정진택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이관영 <세종캠퍼스> △학술정보지원팀 부장 최영목<br/><br/>■분당서울대병원 △폐센터장 윤호일 △관절센터장 염진섭 △소화기센터장 김나영 △암센터장 김형호 △내과장 이종석 △외과장 이태승 △흉부외과장 김관민 △성형외과장 허찬영 △소아청소년과장 최창원 △피부과장 윤상웅 △신경과장 겸 권역심뇌혈관센터장 배희준 △가정의학과장 이기헌 △수술부장 도상환 △중환자진료부장 임청 △특수검사부장 조구영 △감염관리실장 겸 감염내과분과장 김의석 △방사선안전관리실장 이원우 △혈액종양내과분과장 이근욱 △내분비내과분과장 임수 △신장내과분과장 진호준<br/><br/>■단국대병원 △진료부원장 조종태 △기획조정실장 이명용 <br/><br/>■한화생명 ◇승진 △본사 부사장 윤병철<br/><br/>■한화손해보험 ◇임원 전보 △혁신사무국장 변동헌 △신채널사업본부장 최기진■ING생명 ◇부서장 승진 △투자관리팀 팀장 이애랑 <br/><br/>■메트라이프생명 ◇상무 선임 △대표계리인 함승우 ◇상무 승진 △컨슈머마케팅·경영전략 담당 한영호<br/><br/>■하나금융투자 △자본시장본부장 심재만 <br/><br/>■하이투자증권 △Sales & Trading본부장 서영석 △압구정지점장 박미숙 △통영〃 권철종 △김해〃 이돈근 △진주〃 류병기 △대구〃 황용섭 △잠실역〃 김영민 △구서〃 이정선 <br/><br/>■한국마이크로소프트 △컨슈머사업본부 부사장 정성미 △서비스사업본부 전무 박동배 △공공사업본부 상무 김현정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26.txt

제목: 이대목동병원, 7월 9일 ‘인공방광 이야기’ 건강강좌 개최  
날짜: 20160701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01151442313  
본문: 이대목동병원 방광암/인공방광센터(센터장 이동현)는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원내 강당에서 ‘인공방광 이야기’ 건강강좌를 개최한다.<br/><br/>이번 건강강좌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방광암과 인공방광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올바른 관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방광 안전한가(이동현 방광암/인공방광센터장), 인공방광의 올바른 관리(박혜진 전담간호사), 방광암 수술 후 바람직한 식습관(강미진 영양사), 인공방광 수술 후 성생활(정우식 비뇨기과 교수) 등의 강연과 함께 환우의 경험담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br/><br/>이동현 센터장은 경향신문이 발간한 전자책 <암을 잡는 10대 명의-킬암보고서>에서 방광암 치료 및 인공방광 재건술의 권위자로 소개돼 있다.<br/><br/>방광암은 고령, 흡연, 머리염색약, 각종 화학약품 노출, 진통제 및 항암제, 감염 및 방광 결석, 방사선 치료 등이 주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흡연은 방광암의 가장 중요한 단일 위험인자로 꼽힌다.<br/><br/>이번 건강강좌는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참석자들에게는 구급함 세트와 함께 추첨으로 경품도 제공한다. 이대목동병원 방광암/인공방광센터(02-2650-5157)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27.txt

제목: 강원경찰, 7월부터 영동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 활용 비노출 단속 시작  
날짜: 20160701  
기자: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701102432834  
본문: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영동고속도로 구간 암행순찰차 2대를 투입, 비노출단속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br/><br/>암행 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생겼으나 단속 대상 차량이 발견되면 내부에 숨겨진 경광등과 사이렌 등이 울리면서 순찰차로 변신해 단속을 실시한다.<br/><br/>차의 앞범퍼 부분과 앞유리창 위쪽에 경광등이, 뒷 유리창 안쪽엔 표출 전광판과 경광등이 각각 설치돼 있다.경광등과 전광판은 점등시 밖에서 보이지만, 평상시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br/><br/>경찰관은 차량 앞면 아래에 설치된 사이렌 스피커를 통해 단속 대상 운전자에게 경고나 정지 지시 등을 하게된다.<br/><br/>또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해 위반행위와 단속과정이 모두 녹화된다.<br/><br/>주요 비노출 단속 대상은 지정차로 위반, 갓길 운행, 버스 음주가무, 핸드폰사용 등이다.<br/><br/>비노출 단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 이상이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함정 단속’이란 일부 부정적 시각이 존재해 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28.txt

제목: 해남 ‘울금막걸리’ 7월 남도전통주 선정  
날짜: 20160629  
기자: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29171128084  
본문: 전남도는 전통술 소비 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해남 옥천주조장의 ‘울금막걸리’(사진)를 7월의 남도 전통술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br/><br/>울금막걸리는 슈퍼 푸드로 잘 알려진 울금을 첨가해 생쌀과 전분을 발효시킨 후 장기간 숙성시킨 웰빙 막걸리다. 한 병(750ℓ)에 2300원이다.울금은 생강과로 독성이 없고 커큐민이란 성분은 황산화, 항염작용이 강력해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 소화장애 개선, 신진대사 촉진, 암 예방, 면역력 등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옥천주조장 송우종 대표는 3대에 걸쳐 80여 년동안 막걸리 제조 비법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 특산품인 고구마와 울금 등을 이용해 막걸리를 빚고 있다. <br/><br/>2015년 남도 전통술 품평회 살균막걸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br/><br/>이춘봉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span class='quot0'>전통술 산업화는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전통술이 생산되도록 지원하겠다</span>”고 말했다. 문의(061)532-5578.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29.txt

제목: [사회공헌 특집]아모레퍼시픽 - 여성 암환우 카운슬러로 3336명 봉사  
날짜: 201606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28204709786  
본문: 아모레퍼시픽의 나눔 경영 슬로건은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다. <br/><br/>아모레퍼시픽은 2007년 11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가입했다. UNGC가 표명하는 인권·노동·환경·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들을 기업 활동의 전 부분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약속이자 의지의 표명이다. <br/><br/>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2008년부터 시작됐다.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 암환우들에게 메이크업·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총 1만29명의 여성 암환우와 3336명의 아모레 카운슬러 자원봉사자가 참가함으로써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br/><br/>아모레퍼시픽은 2000년 기금 전액을 출자해 국내 최초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하고 유방건강 의식 향상을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은 핑크리본 캠페인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30.txt

제목: 자궁경부이형성증, 수술만이 답 아니다  
날짜: 201606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28174524909  
본문: 자궁경부암은 수년 동안 자궁경부 표면의 정상 상피세포에서 미세한 변화가 발생하는 전암 단계인 자궁경부이형성증을 거쳐 자궁경부상피내암(자궁경부암 0기)로 발전되며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는 암이다.<br/>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Human Papilloma Virus, HPV)는 자궁경부암 환자의 대부분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을 10배 이상 증가시키고 상피내암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br/><br/>소람한방병원 김성수 한의학 박사는 “<span class='quot0'>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뉘는데 일부 고위험군 바이러스 HPV 16, 18, 32, 33의 경우 자궁경부이형성증으로 발전되며 특히 HPV 16과 HPV 18은 자궁경부암의 70 %에서 발견된다</span>”고 설명했다.<br/><br/>하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후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궁경부이형성증 단계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해준다면 더 이상 암으로 발전하지 않고 임신과 출산 등 기능적인 부분도 유지할 수 있다.<br/><br/>자궁경부이형성증의 치료에는 원추절제술, 레이저 치료, 동결요법 등이 있다. 특히 원추절제술은 바이러스가 발생한 부위를 절제하는 방법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제거가 되지 않아 재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br/><br/>김성수 한의학 박사는 “<span class='quot1'>이형성증이 재발할 경우 원추절제술을 2번, 3번 반복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궁경부의 길이가 짧고 얇아지기 때문에 미혼 여성 및 가임기 여성의 경우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부작용이 있으며 생리주기에도 영향을 미친다</span>”고 경고했다.<br/><br/>이처럼 수술적인 치료 외에 자궁의 기능을 보존하고 자궁경부암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 자궁경부이형성증 단계에서 약침, 한약, 온열요법과 같은 한방 면역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방 면역치료는 수술처럼 신속하게 바이러스를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자궁 내 면역력을 끌어올려 바이러스가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아준다는 장점이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31.txt

제목: 암이 아내를 빼앗고, 자신까지 괴롭히지만 ‘희망’ 노래하는 ‘한정민 병상일기’  
날짜: 20160627  
기자: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27214828759  
본문: ㆍ“모진 운명에 휘청여도, 꽃이 필 때까지 견뎌냅시다”<br/><br/><br/><br/>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에 이어 3년 전 방광암 진단을 받은 한정민 시인(72·사진)이 암 환자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시집을 펴냈다. <br/><br/>한 시인은 먼저 떠난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자신에게도 찾아온 암을 극복해 가는 투병생활을 담은 시집 (오늘의문학사)를 최근 출간했다. 그는 시집 100권을 대전 을지대병원에 기증했다. 을지대병원은 27일 “<span class='quot0'>한 시인이 암 환자에게 용기를 주고, 가슴앓이하는 가족을 위로하고 싶다는 뜻에서 시집을 기증했다</span>”고 밝혔다. <br/><br/>한 시인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span class='quot1'>암 환자나 가족들은 희망이 없어서 참 불행하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분들한테 암 환자도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시집을 펴내게 됐다</span>”고 말했다.<br/><br/>시집에는 제1부 암 투병일기에 ‘운명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산다는 것은’을 비롯한 34편, 제2부 아내 간병일기에 ‘말도 못하고’ ‘임종’ ‘영정사진’ ‘눈물’ 등 51편의 시를 실었다. 시에는 아내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아픔과 암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br/><br/>“<span class='quot2'>당신은/ 일곱번째 항암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당신은 폐암 말기/ 수술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디어 봅시다.</span>” 항암치료를 받는 아내에 대한 안쓰러움과 희망을 담은 시 ‘항암주사1’의 일부다. 그의 아내는 2005년 12월 세상을 떠났다.<br/><br/>아내의 죽음이 불행의 끝인 줄 알았지만, 한 시인은 3년 전 방광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 후 운동을 하러 다닐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지만 계속해서 재발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이 모든 걸 그는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span class='quot2'>내게 허락된 운명이/ 비록 모질다 해도/ 오늘도 나는/ 꽃으로 피어나는 연습을 한다.</span>”(‘운명’) <br/><br/>한 시인은 “<span class='quot1'>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커진다</span>”며 “<span class='quot1'>앞으로 그리움을 담아 시집을 한 권 더 낼 생각</span>”이라고 말했다. 소년기부터 습작한 시를 간직해 온 그는 고희가 넘어 ‘문학사랑’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그동안 시집 등을 발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32.txt

제목: 암, 관절염, 담도질환 등 무료 건강강좌  
날짜: 20160627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27161208635  
본문: ■인천지역암센터, 암건강강좌 15회 연속 개최<br/><br/>가천대 길병원 인천지역암센터(www.ircc.re.kr)는 오는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암환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2016년도 건강아카데미를 연다.<br/><br/>대장암, 간암, 림프종, 부인종양, 유방암, 뼈암, 위암, 전립선암, 췌담도암, 폐암 등 주요 암과 여성 암환자의 갱년기 극복, 암 임상시험 바로알기, 우울과 수면장애 대처 등 다양한 강좌가 준비됐다. 전화로 미리 50명까지 신청을 받는다. 일정 홈페이지 참조. (032)460-8477<br/><br/>■아주대병원, 7월 2일 ‘2016 관절염 모임’ 열어<br/><br/>아주대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는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 별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2016 관절염 모임’을 개최한다. 이번 모임은 관절염 치료와 관리법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 환자와 보호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이다.<br/><br/>류마티스내과 과장 서창희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관절염 이해하기(류마티스내과 정주양 교수), 관절염의 약물치료(류마티스내과 김현아 교수), 관절염의 운동요법(임상시험센터 윤혜원 연구간호사)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 전·후에는 골밀도를 측정하여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031)219-5156<br/><br/>■건국대병원, 7월 5일 담석·담도암 건강강좌<br/><br/>건국대병원은 내달 5일 오후 2시 원내 대강당(지하 3층)에서 담석 및 담도암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담도암의 진단(소화기내과 이태윤 교수), 치료(소화기내과 심찬섭 교수), 담석의 내시경적 치료(천영국 교수)를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별도의 신청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02)2030-7065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33.txt

제목: DNA, 붙였다 떼었다 마음대로…‘유전자 편집 시대’  
날짜: 20160626  
기자: 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26210641039  
본문: ㆍ유전병 치료 최전방에 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br/><br/><br/><br/><br/>최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Cas9)’가 생명공학계의 ‘슈퍼 스타’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전자 가위는 단백질이나 리보핵산(RNA) 등 생체물질을 이용해 특정 유전자만 골라 잘라내는 기술이다. 과학자들은 크리스퍼 가위를 ‘신석기 혁명’에 비유하고 있다. 돌을 갈아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듯 유전자를 잘라내는 도구인 ‘크리스퍼 가위’가 생기면서 유전자 편집이 손쉬워졌다는 뜻에서다. <br/><br/>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2012년 처음 개발된 신생 기술이다. 그럼에도 개발 4년 만에 이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조작 돼지 등이 개발되고 직접 인간을 대상으로 한 질병치료 임상시험에 활용하는 등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국제 유명 저널 ‘사이언스’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2015년 주목할 만한 기술로 선정하기도 했다. <br/><br/>■ 제3세대 유전자 가위<br/><br/>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최신 유전자 기술이다. 유전물질인 RNA에 세균에서 유래한 ‘카스9(Cas9)’ 단백질을 붙여 만든 ‘가위’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1세대 ‘징크 핑거 뉴클레이즈(ZFNs)’와 2세대 ‘탈렌(TALENs)’을 거쳐 3세대 크리스퍼 가위로 발전해왔다. 1세대와 2세대 기술은 단백질을 이용해 유전자 염기서열(유전자를 구성하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염기)을 인식해 잘라냈다. 3세대부터는 유전물질인 RNA에 카스9 단백질을 붙여 염기서열을 인식한다. 카스9 단백질을 세균에서 발견하면서 유전자 가위에 대한 ‘혁신’을 불러왔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것은 미국 UC버클리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다. 이후 한국의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 단장(서울대 화학부 교수)이 인간세포의 유전자 교정에 성공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br/><br/><br/><br/>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2012년 처음 등장한 뒤 전 세계 과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세대와 2세대 기술은 유전자를 잘라내는 데 길게는 수년이 걸렸으나, 크리스퍼 기술은 단 며칠 만에 유전자를 잘라낼 수 있다. 또 1세대 기술은 유전자를 잘라 붙이는 비용이 건당 2만5000달러(약 3000만원)로 비쌌으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건당 30달러(약 3만6000원)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연구자가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해 잘라 붙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br/><br/>크리스퍼 가위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3세대보다 정확도가 높아진 3.5세대 크리스퍼 가위도 등장했다. 3.5세대 크리스퍼 가위는 카스9 단백질 대신 ‘크리스퍼-Cpf1’이라는 단백질을 이용한다. 미국 연구진이 처음 개발했는데, 김 단장 연구팀은 크리스퍼-Cpf1 단백질을 이용한 크리스퍼 가위가 카스9 단백질을 활용했을 때보다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입증해냈다. 실제 크리스퍼-Cpf1 가위를 이용해 쥐의 유전자를 잘라내 유전자 변형 생쥐를 만드는 데도 성공했다. 연구진은 지난 7일 생명과학 및 화학 분야 유명 저널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3편의 논문을 연달아 게재하는 쾌거를 올렸다.<br/><br/>■ 전 세계 연구진 크리스퍼 가위 이용한 연구 돌입<br/><br/>크리스퍼 가위를 이용해 전 세계 연구진이 앞다퉈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크리스퍼 가위를 활용해 암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시험을 허가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최종 승인까지 떨어지면 세계 최초로 크리스퍼 가위를 이용한 암환자 치료가 이뤄지게 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연구팀은 올해 말쯤 암환자 18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r/><br/>혈우병은 이미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벤처업체인 샌가모 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혈우병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혈우병 유발 유전자를 그대로 둔 채 정상 유전자를 삽입하는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br/><br/>동물이나 식물 개량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크리스퍼 가위를 이용해 말라리아를 옮기지 않는 모기를 개발했다. 벤처기업 툴젠은 윤희준 중국 옌볜대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일반 돼지보다 근육량이 많은 ‘슈퍼근육 돼지’를 만들었다. <br/><br/><br/><br/>■ 인간 배아 연구 시 윤리적 문제도<br/><br/>인간 배아의 유전자 연구를 허용할 것이냐, 금지할 것이냐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크리스퍼 가위가 그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최근 영국과 중국 연구진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인간 배아 연구에 나섰기 때문이다. 아직 100% 확실하게 유전자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퍼 가위를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사용했을 때 의도치 않은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br/><br/>영국 정부도 올해 초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인간 배아의 유전자 교정 연구를 허가했다.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교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한 것은 세계 최초였다. 영국 런던에 있는 생명공학 연구소인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불임과 관련됐다고 추정되는 유전자를 크리스퍼 가위로 잘라내는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윤리적 논란을 낳았다.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넣었다 뺄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아기’를 만들 수 있어서다. 공상과학영화 <가타카>에서처럼 우성 형질로만 이뤄진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br/><br/>중국에서는 지난해 인공 수정란의 빈혈 유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바꾸는 실험을 실시했다. 중국 중산대 황준쥬 교수 연구팀이 한 이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생명윤리를 거스른다는 판단에, 지난해 12월 미국 과학아카데미와 영국 로열소사이어티 등이 주관한 ‘인간 유전자 교정 국제 정상회의’에 참석한 과학자들은 황준쥬 교수팀이 유전자를 교정한 맞춤형 아기 연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br/><br/>반면 영국과 중국이 인간 배아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생명윤리법으로 연구를 제한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생명윤리와 연구 진흥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가운데 크리스퍼 가위 연구가 어떻게 나아갈지 이목이 집중된다.<br/><br/> <br/>■크리스퍼 유전자 가위<br/><br/>인간을 포함한 동물이나 식물의 세포에서 특정 유전자만 골라 잘라내는 3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 세균에서 유래한 효소를 사용한다. 유전병 치료나 식물 개량에 활용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34.txt

제목: [미디어 세상]경제민주화와 자본독재  
날짜: 20160626  
기자: 손석춘 |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26205902874  
본문: 자주적 말길. 군부독재가 언로를 ‘관리’하던 시기에 언론학자 방정배가 던진 화두다. 비판언론학을 개척한 원로 언론학자는 학문의 모방이나 이론 흉내 따위를 벗어나 한국의 언론 현실을 포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언론학계에 보기 드문 저작이 나온 지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학문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br/><br/>더러는 미디어 빅뱅 시대에 케케묵은 언로 타령이냐고 눈 흘길 수 있다. 실제로 대다수 사람이 똑똑전화로 날마다 문자를 나누며 소통할 만큼 말길이 넓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가. 미디어는 넘쳐나지만 정작 말길은, 아니 말길 이전에 말문이 닫힌 영역이 있다. 당장 독자들 다수는 앞에 쓴 ‘똑똑전화’라는 말이 거북했거나 조소를 머금었을 법하다. 왜 그럴까. 국립국어원이 아무리 우리말로 옮겨 권해도 미디어들이 받지 않아서다. 만일 신문과 방송이 ‘똑똑전화’를 쓴다면, 자연스럽게 들릴 터다.<br/><br/>단순히 외래어 순화에 그치지 않는다. 말문이 닫혀 일상에서 거부감마저 일으키는 말들이 있다. <br/><br/>가령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자본가’라는 말은 낯설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혹 사상이 의심받지 않을까 경계해야 한다. 하물며 ‘자본독재’라는 말이 공론장에서 시민권을 갖기란 어렵다. <br/><br/>하지만 우리에겐 불편한 ‘자본독재’는 지구촌에서 자유롭게 논의되고 있다. 이를테면 프란치스코 교황마저 자본이 지배하는 체제를 ‘새로운 독재’로 공언했다. 그럼에도 교황이 방한하고 신드롬까지 일으킨 한국에서 그의 독재론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신문과 방송이 부각하지 않기 때문이다.<br/><br/>딴은 교육방송이 방영한 ‘민주주의 다큐’를 놓고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유기업원이 앞장서서 색깔몰이에 나서고 그 방송사 이사들이 용춤 추며 간섭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닌가. 윤똑똑이들 주장처럼 자본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논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자는 주장이 경제를 망친다면, 북유럽 자본주의는 물론 독일 경제도 오래전에 망했어야 옳다.<br/><br/>나는 지금 의도적으로 칼럼 표제에 ‘자본독재’를 내세우고 이 글을 쓰고 있다. 솔직건대 학자인 나조차 자기검열의 유혹을 받을 만큼 자본의 힘은 막강하다. 행여 그 말이 대중성 없다고 예단할 일은 아니다. 그런 속단이야말로 민중을 ‘대중’으로 얕잡고 잠재성을 꼭꼭 밟는 논리일 수 있다.<br/><br/>교황이 비판한 독재는 ‘규제 없는 자본주의’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반대로 임기 내내 규제를 ‘암덩어리’로 부르대왔다. 국정방송이나 다름없는 3대 방송과 조·중·동 신방복합체도 ‘탈규제’를 외쳐댔다. 그 결과다. 교황이 말한 자본독재의 전형적 보기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민생은 힘들지만, 자본과 그 대변자들은 살찔 대로 살쪄왔다.<br/><br/>6월대항쟁 이후 30년, 자본이 한국 사회를 사실상 지배하는 권력을 거머쥐기까지 1등공신이 미디어다. 군부독재 성립과 유지의 최대 공신이었던 과거와 다를 바 없다. 상대가 군부에서 자본으로 바뀌었을 따름이다. 1961년 쿠데타 이후 87년 대항쟁까지 제도언론은 군부독재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군부독재라는 말이 점점 호응을 얻어 마침내 그들을 몰아낼 때까지 열정적으로 나선 주체가 바로 민중이었다. <br/><br/>그런데 군부가 권력을 잃은 빈 공간으로 자본이 들어섰다. 박정희나 전두환 앞에 설설 기던 자본은 6월대항쟁 이후 목에 잔뜩 힘을 주기 시작했다. <br/><br/>군부독재를 몰아내는 데 도움은커녕 군부와 한통속이던 자본이 민중항쟁의 수혜를 만끽해온 셈이다.<br/><br/>자본독재와 견주면 총칼과 곤봉을 앞세운 군부독재는 차라리 순진하다. 자본독재의 힘은 그들의 숙원인 일반 해고를 ‘노동개혁’으로 박근혜 정권이 강행할 만큼, 비정규직의 눈물과 고통을 정규직 탓으로 돌릴 만큼, 광고를 무기로 거의 모든 미디어를 장악할 만큼 강력하다.<br/><br/>미디어가 ‘자본독재’를 기피함으로써 한국은 자본에 대한 규제를 공론장에서 논의하기 어렵다. 당장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를 짚어보라. 한국 정치와 언론에서 경제민주화 논의는 고작 누가 구조조정을 ‘인간적’으로 할 것인가에 머물고 있다. 그 수준은 유럽과 견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매파’ 힐러리나 ‘광대’ 트럼프보다도 못하다.<br/><br/>민중의 삶, 민생을 참으로 살리려면 자본독재를 자본독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는 다양한 체제라는 엄연한 사실, 한국자본주의는 북유럽은 물론 보수당 정권의 독일자본주의와도 다르다는 진실을 ‘헬조선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능한 한 많이 공유해나가야 옳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헬조선식’밖에 없다고 강변하는 부라퀴들이 언론계만 아니라 대학 강단에도 수북하기에 더 그렇다. 닫힌 말문을 트고 벅벅이 말길을 열어가야 할 이유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35.txt

제목: 자신의 성기 찍어 아는 여성에게 보낸 50대 남성 실형  
날짜: 20160626  
기자: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26085032363  
본문: 자신의 성기를 찍어 아는 여성에게 전송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br/><br/>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5일 지인을 추행하고 음란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br/><br/>박씨는 2014년 12월 초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ㄱ씨(58)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ㄱ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br/><br/>그는 ㄱ씨와 누나, 동생 사이로 지냈고 “유방은 자꾸 만져야 암에 안 걸린다”면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ㄱ씨 등 여성 2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36.txt

제목: 하반신 마비에 6000만원? 우리 위자료는 왜 이리 적나  
날짜: 20160625  
기자: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25195947856  
본문: 사지마비 경우 8000만원… 영국 5억원·이탈리아 15억원·미국 70억원<br/><br/><br/><br/><br/>직장인 김모씨(44)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산대교에서 자동차 접촉사고를 당했다. 뒷범퍼가 떨어지고 트렁크가 살짝 찌그러졌다. 이 사고로 주말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병원에서는 간단한 진찰만 받았다. 일주일쯤 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다. 치료비 등 명목으로 어른 80만원, 어린이 40만원을 책정했다고 통보했다. 김씨는 처음엔 그냥 받아들였다. 그러나 며칠 뒤 동승한 부인이 허리가 좀 불편한 것 같다고 했다. 아이는 한동안 차가 무서워 못 타겠다고 하소연했다. 뒤늦게 억울한 생각이 든 김씨는 배상금을 더 요구했다. 주말 시간 허비에 건강 염려증까지 더해져 뭔가 손해본 기분이 들어서다. 보험사 직원은 “약관에 따라 책정된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 더 원하면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받아내든지 하라”며 빠졌다.<br/><br/>길을 가다가 느닷없이 웬 불량배에게 맞았다고 치자. 전치 1주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면, 대체로 전치 1주당 50만원 안팎 정도인 현 위자료로 분이 풀릴까. 거꾸로 ‘치료비 외에 50만원어치만 지불하면 무고한 사람을 패도 된다’는 뜻인가. 누군가 고의나 과실에 따른 사고로 얼굴을 다쳐 흉터가 크게 남았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얼마를 배상받아야 알맞을까.<br/><br/>근래 옥시로 대표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위자료 책정의 적정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산 손해가 아닌 비재산 손해, 그 중에서도 정신·감정이나 인격 손해를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평가할지의 문제다. 불법적 가습기 살균제로 자녀가 시름시름 앓다가 숨지거나 장애를 가졌다면 정신적 충격이나 여생을 즐기지 못한 데 대해 얼마를 배상받아야 할까. <br/><br/>국내에서 ‘위자료’는 마치 직접 피해에 대한 배상과는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덤으로 주는 듯한 뉘앙스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위자료는 직접 피해에 대한 배상 중 하나이며,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라는 게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평가다.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원상회복시키는 조치는 당연한 수순이다. 피해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나 억울함을 배상받는 게 더 본질적 배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br/><br/>지난 20여년 동안 국내 위자료가 상당히 올랐지만 아직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는 평가가 여전하다. 불법행위 등으로 사망한 경우 위자료는 8000만원이었다가 2015년 3월 이후 1억원으로 오른 판결이 나왔다. 사지마비의 경우도 1억원으로 올랐다. 다만 항공기 추락사고의 경우 1억5000만원까지 위자료를 준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외국인 탑승객 사망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었다.<br/><br/>사망 위자료가 8000만원일 때로 보면, 사지마비도 8000만원, 하반신 마비 등은 6000만원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성폭행 피해의 경우 위자료가 2000만~5000만원 정도인 데 비해 하반신 마비 상해 위자료는 약간 높은 5000만~6000만원으로 통용됐다.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인이냐 유명인이냐, 진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대체로 3000만원 안팎이며, 많게는 5000만원까지도 인정된다.<br/><br/>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피해 위자료와 하반신 마비 위자료가 비슷하다는 건 논란거리가 된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pan class='quot0'>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가 높은 게 아니라 인신손해 위자료가 낮게 책정된 것</span>”이라고 평했다. 이 교수의 2013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를 보면, 한국의 위자료는 주요 국가보다 절대적으로 낮다. 2009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 대비한 국내 사지마비 위자료보다 프랑스는 1.7배, 영국은 3배, 독일은 4.7배, 미국은 37배 높다고 위 연구는 밝혔다. 국내 사지마비 위자료가 8000만원인 때 프랑스는 3억원, 영국은 5억원, 독일은 8억원, 이탈리아는 15억원이며, 미국은 70억원이다.<br/><br/>특히 인신손해 위자료와 기타 인격권 침해 위자료 차이가 작다.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대부분은 명예훼손 위자료가 사지마비 위자료의 10% 수준이고, 독일은 6%인 데 비해 한국은 약 40%로 높다. 명예훼손 위자료는 국내가 3000만원이라면 프랑스·오스트리아도 3000만원이고 독일, 영국은 5000만원으로 비슷하거나 차이가 작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한국 사회가 명예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 데 비해 사람 목숨 값은 상대적으로 낮게 매기는 측면이 드러난다</span>”고 말했다.<br/><br/>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동안 인신손해에 대해 배상액을 계산할 때 노동력 상실 위주로 평가해온 탓이다. 사망과 사지마비가 위자료 1억원으로 동일한 것이 일례다. 다수 국가에서는 사고로 그 자리에서 숨진 경우 사망자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보고 본인의 위자료를 아예 안 준다. 다만 수초~수분 동안 천천히 고통이나 공포감을 겪었다면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피해자 의식이 없는 경우에 위자료가 예컨대 10만 파운드라면, 의식이 있다면 70만 파운드로 뛰곤 한다.<br/><br/>노동력 상실에 대한 배상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잃게 되는 수입(일실수입) 개념만 적용해 이뤄진다. 소득수준이 올라왔는데도 일실소득 산정이 낮은 것도 위자료를 낮게 책정한 이유다. 특히 미성년자나 노년층이 그렇다. 무엇보다 성범죄, 명예훼손 등에 비해 인신손해에 대한 위자료 판결이 세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일종의 ‘지체현상’을 보여 격차가 커졌다.<br/><br/>위자료 산정 때 비재산상 손해를 더 크게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자료에 관한 연구>(경인문화사·2011)에서 “<span class='quot1'>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성을 가진 존재라는 측면에서 위자료 문제를 봐야 한다</span>”며 위자료 현실화 문제를 지적했다.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가족이나 친구와 교제 기회 상실, 생활을 풍요롭게 영위하지 못하는 데 따른 상실감 등을 위자료 책정에 계산하자는 얘기다.<br/><br/>얼굴 등에 흉터가 생겨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현재 위자료는 1200만원 안팎에 그친다. 또 사고로 성기능 장애가 생겨도 위자료는 8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성기능 장애 위자료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게 인정돼온 게 우리 현실이다. 프랑스의 경우 성기능 완전상실 시 5만 유로(약 6500만원)까지 책정된다.<br/><br/>이동진 교수는 “<span class='quot2'>외국은 인신손해 위자료 책정 때 노동력 상실률만 고려하지 않고 취미, 성생활, 외모는 물론 영구적 상해는 연령, 일시적 상해는 치료기간까지 고려한다</span>”고 지적했다. 예컨대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이 올해 5월 초 존슨앤존슨의 파우더를 썼다가 암에 걸려 난소 적출 수술을 받은 한 62세 여성에게 실피해배상금만 500만 달러 지급을 명령했다. 위자료만 수십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국이었다면 임신 가능성이 없고, 노동능력도 인정 못 받는 60대 여성의 위자료는 약 2000만~3000만원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br/><br/><br/><br/>법조계에는 위자료의 성격에 ‘징벌’ ‘제재’의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해석하는 데에 논란이 있다. 그러나 위자료는 그 자체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의 의미로 보는 게 더 맞다는 견해가 많다.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등을 배상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내야 할 비용이다. 이런 것들만 ‘전보배상(실제 피해 배상)’이라고 한다면 정신적·심리적 피해 배상은 덤으로 준다는 뜻밖에 안 된다. 이 때문에 재산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는 물론 비재산 손해(정신피해 등 위자료)까지 포함한 것을 전보배상으로 보는 게 일반적 평가다. 상식적으로 일컫는 ‘배상’은 위자료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머지는 원래 물어야 할 재산 손해를 갚는 것일 뿐이다.<br/><br/>이창현 교수는 “<span class='quot3'>최근 논의의 핵심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처럼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에 위자료를 대폭 올릴 것인지 여부</span>”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재홍 환경보건위원장은 “<span class='quot4'>실피해 구제방법으로서 위자료부터 올릴 필요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4'>위자료를 포함해 전보배상을 현실화한 뒤에 그 몇 배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지 논의하는 게 순서</span>”라고 말했다.<br/><br/>법원의 위자료 산정은 민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사망 시 위자료는 나이가 19세 이상~60세 미만이면 4500만원이고, 그밖의 나이대라면 4000만원이다.<br/><br/>위자료를 지급할 때 피해자 본인 위자료와 가족이 받을 위자료를 어떻게 정할지도 고려 대상이 된다. 보험의 경우 대체로 배우자는 500만원, 부모는 300만원, 자녀는 200만원, 형제자매 100만원, 시부모·장인장모는 100만원이 위자료로 지급된다. 다만 총액을 정해놓고 사망자와 유족이 나눠가지는 식은 위자료의 본질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1억 위자료의 경우 상속인이 한 명이면 2000만원, 피해자는 8000만원이다가 상속인이 두 명이면 각 2000만원에, 피해자는 6000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br/><br/>위자료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판결하면 편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징역, 벌금 같은 경우 법정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감안한 ‘양형 기준’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위자료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으로 정할 뿐이다. 통일된 ‘위자료 기준’을 만들기 어려운 근본 이유다. 대법원은 위자료 산정 때 ‘참고’할 만한 예시를 만들지 검토해 왔다. 대법원은 7월 1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 전국 민사법관 포럼’을 열어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모임을 거쳐 판사들이 어느만큼의 재량을 보일지 주목된다. 서울지방법원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span class='quot5'>위자료 수준이 우리 법 감정에 안 맞는 게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5'>사건 원인과 경위에 따라서 판사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수억원짜리 위자료 판결을 내려도 되는데 걱정들을 많이 한다</span>”고 전했다. 판사 출신인 이동진 교수도 “<span class='quot2'>판결할 때 보험사 영향 등 사회적 파장을 지나치게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판사들이 사회의 짐을 다 지겠다는 투로 너무 많은 걸 고려할 필요는 없다</span>”고 조언했다. 간통제 폐지로 위자료 올리자고? 사라질 수도 있다 <br/><br/><br/>위자료의 한 축을 이루는 이혼 위자료도 근래에 더 관심을 끌고 있다. 간통제가 위헌이라며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62년 만에 폐지 결정이 내려져서다. 기존 형법 241조는 간통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규정했다. 간통의 죗값이 징역이었다. 그러나 간통제가 폐지되자 죗값은 결국 돈으로 치러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불륜으로 배신당한 배우자를 보호하려면 그나마 위자료라도 더 챙겨줘야 하는 게 정의에 맞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렇게 될까.<br/><br/>국내 법체계는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취한다. 즉 바람 피운 자는 그렇지 않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반면 미국, 유럽 등 절대다수 국가는 ‘파탄주의’를 택한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깨졌다면 누가 청구해도 이혼을 허락한다.<br/><br/>그런데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헌재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간통죄가 더 이상 혼인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파탄주의 성격이 상당 부분 가미된 셈이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9월 유책주의를 고수했다. 다만 대법관 13명 중 6명이 파탄주의를 제시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법관이 바뀔 경우 국내 이혼도 파탄주의로 선회할 개연성이 있다.<br/><br/>법학자 등 전문가 다수는 이혼도 파탄주의로 바뀔 가능성을 높게 본다. 우선 세계 흐름에 맞아서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span class='quot6'>불륜을 당하는 상대 배우자 입장에선 안타깝지만 시대 흐름은 파탄주의가 대세이며,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거스르기 힘들다</span>”며 “<span class='quot6'>부부 사이 애정을 법으로 강제하는 건 어렵게 된다</span>”고 말했다.<br/><br/>문제는 위자료다. 불륜을 당한 배우자는 위자료라도 많이 받고 싶겠지만 이 또한 장담하기 어렵다. 오히려 해외 사례를 보면 반대다. 파탄주의를 택한 대다수 국가는 엄밀히 ‘이혼 위자료’는 없는 편이다. 대신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할 뿐이다. 이는 불륜의 죗값이 아니다. 불륜이 불법이 아니게 됐다면 위자료를 논하기가 애매해진다. 국내 민법을 제정할 당시는 해외에도 이혼 위자료를 채택한 나라가 많았으나 그 사이에 거의 다 사라졌다.<br/><br/>이는 “유부녀라고 해도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여성의 경제·사회 지위가 올라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일반적 해석이다. 자녀를 봐서라도 이혼을 막겠다는 배우자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위자료로 가정을 지키기는 점차 어려워지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오직 믿을 건 애정뿐인 시대? 한편으로는 아름답지만, 다른 한편으론 안타까운 현실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37.txt

제목: 기형화된 실손보험, 보험사 손해율만 낮춘다고 될까?  
날짜: 20160625  
기자: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25195626782  
본문: 3400만명 가입한 제2건강보험… 과잉진료 논란도 갈수록 심화<br/><br/><br/><br/>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환자가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다. 38일 동안 19차례였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그는 보험사에 의료비를 청구해 실손의료비 99만7000원을 지급받았다. 연이어 그는 같은 증상으로 77일 동안 22차례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그는 재차 보험사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번에는 실손의료비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환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br/><br/>위원회는 환자의 실손의료비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가 쟁점으로 삼은 것은 환자가 추가로 시행받은 도수치료가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위원회는 환자가 추가로 받은 22차례의 도수치료는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치료로 보기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 근거로 병원 진료기록에 경추통 등에 대한 환자의 증상 및 통증 호소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진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검사 결과가 부족하다는 것을 들었다. 또한 환자의 통증 호전을 목적으로 장기간 도수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질병에 대한 상태의 호조 등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가 없는 점도 기각 사유로 밝혔다. <br/><br/>실손보험은 현재 3400만명이 가입했다. 국민의 70%가 가입한 셈이다. 그러나 실손보험을 둘러싼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 논란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실손보험을 들었느냐는 것을 먼저 물어본다는 이야기는 이제 흔하다. 일부 정형외과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불필요한 도수치료를 권한 후 1시간 치료 시간 중에 10분은 도수치료를, 50분은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게 해준다는 소문도 돈다. <br/><br/>보험사들은 공급자인 의사와 수요자인 환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과잉진료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감당하기 어렵게 높아지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얼마 전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든 입원·통원 치료를 보장하는 ‘표준형’을 ‘기본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6월 13일 임종륭 금융위원장은 “<span class='quot0'>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인 표준화 구조를 탈피해 소비자가 보장 내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과 추가되는 다양한 특약의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하겠다</span>”고 말했다. ‘표준형’에서 보장을 줄이고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낮춰 기본형을 설계한 후 소비자들의 상황에 따라 도수치료, 고주파 열치료술, 수액주사 등의 다양한 특약들을 더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바꾼다는 것이다.<br/><br/>그러나 금융위원회의 개선안이 얽히고설킨 실손보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회의적으로 본다. 상품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바로 보험료를 올리기는 어려우니 간접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의 말이다. “기본형으로 바꾼다는 것은 한마디로 보험료를 올린다는 것이다. 지금 판매되는 표준형인 실손의료보험은 그렇게 되면 고가의 고급형이 될 것이다. 지금 손실이 크니까 보험료를 올리는 건데, 직접 올린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상품을 개편하겠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은 실손보험의 수요자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현재 얽혀 있는 실손보험의 문제를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방향은 소비자들이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을 줄여보겠다는 관리 차원인 셈인데,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요인들, 즉 의료 공급자와 보험사에 대한 대책은 없다. 보험사들의 경우 손해율이 높아졌다며 그저 손 놓고 있다가 보험료를 올려버리는데, 이런 보험사의 문제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br/><br/>보험사들은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며 손해율의 문제를 소비자 쪽으로 돌리지만, 이러한 보험사들의 하소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를 넘어섰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6.6%를 손해율로 계산한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검증장치가 없어 나타나는 문제다. 숫자는 제각각 달라도 실손보험이 다른 보험에 비해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손해율이 높더라도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만 부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윤용찬 보험약관 전문가의 말이다. “실손보험이 다른 보험보다 손해율이 높기는 할 텐데, 문제는 그래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라면 손해율이 낮은 다른 보험에서 보험료를 깎아주느냐는 것이다. 손해보는 데서는 이익을 보장받으려고 하는데, 이익을 보는 데에서는 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나. 말할 자격이 없다.” 김종명 팀장의 말이다. “대개의 실손보험 보험료는 7만~10만원, 적으면 5만원이다. 가입자는 실손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들지만, 사실 실손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실손보험료는 상품 구성에서 2만~3만원이 안 된다. 나머지는 온갖 특약 비용이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손해율이 100%를 넘어갔다고 하는데, 같이 구성된 다른 특약보험료에서는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있다. 실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험상품의 전체 이익구조를 따져봐야 한다. 가입자는 통합된 보험상품을 구입한다. 남는 것은 그냥 두고 손해보는 것만 문제 삼아서 이를 올리겠다고 하는 논리가 과연 합당한가.”<br/><br/><br/><br/>보험사들이 손해율만 앞세울 뿐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비슷한 문제제기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있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비급여 영역이 줄면서 민간보험사가 상대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느냐는 지적이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 금액을 추계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12조7960억원 중 민간보험회사가 얻는 반사이익은 총 2조5379억원에 달했다. <br/><br/>올해 4월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2013~2017년 사이 민간보험사가 총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 신현웅 실장은 “공공보험에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민간보험회사로 돈이 들어가게 된다. 민간보험이 가입자들에게 주는 걸 공공보험이 지불하게 되기 때문이다. 가입자는 기존 민간보험에서 받던 것을 공공보험에서 받아서 차이가 없는데도 민간보험에서는 보험사에서 주는 걸 공공보험에서 주니까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러한 이익에 대해서 민간보험사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적인 기여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반사이익에 대해서 보험사들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br/><br/>금감원 또한 실손보험 문제의 해법을 찾는 방향을 소비자의 권익보다는 민간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춰 이익을 보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올해 1월 1일 개정된 금감원의 실손보험 표준약관도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간 것 아니냐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윤용찬 보험약관 전문가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표준약관은 보험사에는 유리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재앙 수준”이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제3조)가 새로 추가돼 있기 때문이다. “<span class='quot1'>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발생한 입원의료비는 실손입원의료비를 보상해주지 않는다.</span>” 윤 전문가는 이 조항이 보험사들에게는 왜 이익이며 가입자들에게는 왜 손해가 되는지 설명했다. “암환자나 큰 사고를 당해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요양병원 같은 곳에 오래 있어야 한다. 일반 대형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일찍 내쫓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들어가는 입원·치료비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을 해줬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보호자와 함께 통원치료가 가능하다. 완전히 누워서 지내야 하는 분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통원치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보호자가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려면 보호자가 환자만 돌볼 수 없으니 환자가 통원치료를 받기보다 요양병원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개정된 약관으로 ‘가족을 동원하면 통원치료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비의 지급은 끊긴다. 이 부분에 대해 그간 보험사들의 지출 비중이 상당했을 것이다.” <br/><br/>의료계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제기됐다. 표준약관에 새로 추가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시술은 외모 개선 목적으로 본다’는 조항 또한 민간보험사들에게만 유리하다는 게 비판의 주내용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혈관레이저 폐쇄술과 고주파 혈관 폐쇄술을 ‘외모 개선’, 즉 미용 목적 수술로 간주하고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제외한 수술 중 미용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하지정맥류 수술이 대표적인데, 환자들 중 혈관이 튀어나와서 미용 목적으로 수술하는 사람들은 10%도 안 된다. 거의 대부분이 다리가 무겁고 아파서 수술을 받는다. 안에서 피가 거꾸로 흘러 아프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하지정맥류 때문에 보험료 지급이 많아지니까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67세 여성의 정맥류 레이저 수술을 했었을 때의 사례를 들었다.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은 67세 여성 환자가 정맥류 진단을 받고 레이저 수술을 받았다. 수술확인서에는 ‘미용 개선 목적이 아닌 질병치료 목적 수술임’이라고 적었다. 수술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나자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 “<span class='quot2'>미용 개선 목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미용 개선 목적이 1% 정도는 있지 않느냐</span>”고 물었다. 실손보험을 둘러싼 보험사 의료계와 소비자의 복마전이 의료생태계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노환규 전 회장은 “실손보험은 현재 완전히 비정상이다. 의사들도 과잉진료하며 양심을 버리는 의사, 양심을 지키는 의사 이렇게 양분돼 있다”고 말했다. <br/><br/>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실손보험은 태생적으로 시장을 교란시킬 수밖에 없다. 김종명 팀장은 “<span class='quot3'>실손보험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span>”고 말했다. 가격을 낮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보험의 원리다. 국민건강보험은 병원비가 비싸서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실손보험도 마찬가지다. 실손보험을 통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적은 부담으로 받으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실손보험이 공보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실손보험은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패턴이 만들어진다. 예컨대 보험료를 10만원 냈다. 하나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간다. 보험사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말한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의료를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해서 본전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br/><br/>이는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행위다. 구조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환자나 병원 탓으로 돌릴 수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소득이 많아서 많이 낸다고 건강보험료가 아까워 의료 이용을 하지는 않는다. 실손보험은 다르다. 그래서 한 번 경험하면 계속 하게 되는 것이다.” 노환규 전 회장은 “실손보험을 악용한다는 사람들을 쫓아갈 수가 없다.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뜻이 맞을 경우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다. 이게 지금 민간보험의 실체다”라고 말했다. 신현웅 실장은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실제로 쓰는 사람은 23% 정도다. 그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쓴다. ‘안 쓰면 바보다’라는 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br/><br/>결국 실손보험의 해법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장으로 실손보험의 영역을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윤용찬 전문가는 “<span class='quot4'>실손보험을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하면서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확대해 소비자들이 사적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사회적으로 유리하다</span>”고 말했다. 김종명 팀장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치과, 안경, 일부 재활치료 등 고급 의료서비스에서 보충형으로 실손보험 시장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실손보험 영역을 건강보험이 커버하도록 해서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인 치료를 받는 데는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신현웅 실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비급여 부분을 줄이고 실제로 민간보험이 할 수 있는 것은 고급 의료서비스밖에 없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38.txt

제목: [김시인의 페르시아 산책](8) 자생적 근대화’의 좌절이 흐르고 짧은 왕조, 욕망의 흔적만 남아  
날짜: 20160624  
기자: 글·사진 김중식 시인 uuyouu@naver.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24215735878  
본문: ㆍ핀 가든에서 팔레비궁으로 <br/>ㆍ페르시아 이상향 구현한 ‘샘물 솟는 정원’ 핀 가든 <br/>ㆍ“근대화=서구화” 이란으로 국명 바꾼 팔레비의 궁<br/><br/><br/>‘살아 진천, 죽어 용인’이라는데, 이란에서는 ‘살아 이스파한, 죽어 커션’이다. 커션은 테헤란에서 자동차로 두어 시간 걸리는 오아시스 도시다. <br/><br/>커션의 대표적인 볼거리는 아바스 대왕(1587~1629)이 만든 여름 궁전 ‘핀 가든’인데, 그는 “죽어서 이곳에 묻히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br/><br/>핀 가든 역시 페르시아의 이상향을 구현한 정원이다. 팔각 연못에서는 샘물이 퐁퐁 솟아오른다. 수로의 바닥엔 천국의 색깔인 파란색 타일을 깔았다. 그 위로 붉은 장미꽃잎이 떠다닌다.<br/><br/><br/>지진이 많은 동네에는 온천도 많은 것인지, 이란에는 온천도 많다. 핀 가든에도 병에 잘 듣는 온천수가 솟아오른다. 왕은 정원 한쪽에 목욕탕을 짓고 천연 사우나를 즐겼다.<br/><br/>물이야말로 생명의 기원이라는 것은 정원 밖의 황무지와 비교하면 눈으로 확인된다. <br/><br/>■검은 진주, 석유의 저주<br/><br/>그러나 황무지는 ‘버려진 땅’(wasteland) 또는 ‘나쁜 땅’(badland)이 아니다. ‘땅 파봐야 10원짜리 하나 안 나온다’는 우리 속담도 수정되어야 한다. 황무지는 ‘풀과 나무가 안 보이는 땅’일 뿐이다.<br/><br/>페르시아의 황무지에서는 빨대만 꽂아도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오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유럽 열강은 조로아스터교 사원 근처를 파보았다고 한다. ‘꺼지지 않는 불’은 땅속에서 무한 리필로 새어 나오는 천연가스 덕분에 가능했다고 보았다.<br/><br/><br/>불꽃을 보고 진리를 깨닫고자 했던 동양의 오랜 문명들은 그 순간 신생 서구문명에 역전당하고 말았다. “<span class='quot0'>법문(부처님 말씀) 백 마디가 대포 한 문을 이기지 못한다.</span>”(한용운) <br/><br/>페르시아 지역은 본래부터 3대륙과 3대양의 배꼽이자, 유라시아의 중원으로서 중국을 제외한 모든 유라시아 제국이 혈투를 벌인 곳이다. 석유가 발견되면서부터 페르시아는 강대국끼리 약육강식하는 무법천지의 정글이 됐다.<br/><br/>■목욕탕에서 숨진 최초의 근대인 <br/><br/>핀 가든에서 우리는 이란 근대사의 뜨거운 상징을 만나게 된다. 정원 중앙에 2층짜리 왕의 별장이 있고, 오른편에 목욕탕과 손님을 위한 방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그 목욕탕은 페르시아 최초의 근대인(人)이라 할 만한 아미르 카비르(1807~1851) 기념관이 됐다.<br/><br/>그의 시대였던 카자르 왕조(1779~1925)는 5000년 페르시아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제국이었다. 황제는 유럽 여행 경비를 마련하려고 철도 부설권, 지하자원 개발권 등을 외국에 팔아치웠다. 그 밑의 귀족도 함께 썩어갔다. 카스피해를 내해로 두었던 페르시아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현재의 국경선으로 정해졌다.<br/><br/>아미르는 제국의 최하층, 부엌데기 하인의 아들이었다. 그의 주인이 재상이었다는 게 행운이었다. 그를 눈여겨본 주인댁 덕분에 교육을 받으면서 ‘개천에서 난 용’이 됐다. 그는 왕의 누이와 결혼했다. <br/><br/>아미르는 1848~1851년 재상이 되어 국가 개조에 나섰다. 국민적 지지를 배경으로 왕족과 신하의 급여를 줄여 예산을 아끼고, 부정부패와 싸웠으며, 군대와 행정을 개혁했다. 신문을 창간하고 최초의 기술계 고등교육기관을 만들었다. <br/><br/>기득권층은 살의를 느꼈다. 왕후장상들은 황제의 어머니를 꼬드겨 재상을 핀 가든으로 유배 보냈다. 아미르는 황제의 어머니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자객에게 습격을 당해 목욕탕에서 죽었다고 한다.<br/><br/>하지만 훗날 밀랍인형인지 마네킹인지로 재현된 모습을 보면 아미르의 죽음은 자결에 가깝다. 아미르가 심복의 칼에 자신의 손목을 내어준 채 의연하게 앉아 있다. 아미르의 죽음 이후 페르시아 역사는 날개 없이 추락했다. 자생적 근대는 좌절되고, 하이에나 떼에게 뜯어먹히는 덩치 큰 초식동물 신세가 됐다.<br/><br/>■팔레비 왕조,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br/><br/>제1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혁명이 일어났다. 영국을 등에 업은 레자 팔레비 대령(1878~1944)은 자신의 코사크 여단(당시 페르시아의 유일한 신식 군대)을 테헤란으로 회군했다. 그는 군 총사령관에 이어 총리가 됐고, 1925년 팔레비 왕조를 세워 나폴레옹처럼 스스로 황제(‘샤’)가 됐다. <br/><br/>그는 ‘근대화=서구화’라 여겨 여성의 히잡 착용을 금지시켰다. 대학에서는 미니스커트가 유행했다. 보수주의자들은 세상 전체가 타락하고 오염됐다면서 저항을 개시했지만, 레자는 코웃음을 쳤다. “<span class='quot0'>종교지도자들의 뇌는 1000년 동안 회전하지 않았다.</span>”<br/><br/>그는 1935년 나라의 이름을 이란으로 바꾸었다. 나치 독일이 승승장구하자, 이란 역시 그들과 같이 우월한 아리안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다.<br/><br/>그의 아들 무하마드 팔레비(1919~1980)는 팔레비 왕조의 두번째이자 마지막 황제였다. 그의 치하에서 모사데크 총리는 “<span class='quot1'>석유로 번 돈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span>”면서 석유 산업을 국영화했다. 국민들은 그를 ‘이란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미국과 영국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모사데크를 제거한 뒤, 팔레비에게 ‘절대 반지’를 주었다. 팔레비는 비밀경찰을 이용한 공포정치로 이란을 통치했다.<br/><br/>팔레비는 자국민 앞에서는 황제였으나, 미국 앞에서는 장기판의 졸(卒)이었다. 자신이 미국의 국익에 배치되면 언제라도 ‘바꿔치기’되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팔레비 왕정에 반대했다. <br/><br/>1978년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이 테헤란을 방문했다. 저녁 뉴스에 샤가 샴페인으로 축배를 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란의 국가 지도자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 최초로 방송을 탄 것이라고 한다. 이슬람 혁명을 슬로건으로 내건 호메이니가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급부상했고, 1979년 민중봉기에 의해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다.<br/><br/>■팔레비 왕가의 거처<br/><br/>팔레비 왕조의 수도였던 테헤란에는 팔레비 가족이 살던 곳이 두 군데 있는데, 지금은 팔레비 관련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드아바드궁은 황제 가족의 여름 별장이었다. 사시사철 스프링클러가 돌면서 잔디를 적시고 있다. 키 큰 아름드리나무들이 빽빽하고, 테헤란 북쪽 만년 설산에서 녹아내린 시냇물이 급한 경사를 따라 폭포수처럼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별유천지비인간’이다.<br/><br/>이 궁은 18개의 주제별 박물관으로 구성됐다. 그중 백색 궁전은 1930년대 팔레비 왕이 지은 것으로 왕비의 거처였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은 먼지조차 당대 지구촌 최고의 명품들일 것이다. <br/><br/>또한 니아바란궁은 팔레비 가족이 이란에서 마지막 10년간 살았던 곳이다. 이슬람 혁명 때 얼마나 황망히 나라를 떠났는지, 황제 가족의 세간이 숟가락 한 개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1970년대 세계 최고 부자의 집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br/><br/>세계 각국 정상들의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선물들, 왕비가 고른 세계 최고의 명품들이 즐비하다. 벽에 걸린 초상화나 사진을 보면 왕은 왕처럼 잘생겼고, 왕비는 또 왕비처럼 잘생겼다. 그들의 아들인 황태자는 축구를 좋아했는지 멋진 포즈로 슈팅하는 장면의 사진들이 보인다. 공주의 침실은 월트디즈니 캐릭터의 소품들로 가득하다.<br/><br/>왕비는 인상파에서 팝아트까지 최고급 미술품을 사 모았는데, 프랑스 파리의 미술관 하나를 통째로 가져다 놓은 듯한 풍성하고도 수준 높은 컬렉션을 자랑한다. 프랑스제 가구, 독일제 식기, 중국제 도자기들도 하나하나 현대판 문화재급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닐까.<br/><br/>■왕가의 최후<br/><br/>말년 운이 좋아야 성공한 인생일까.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미다스의 손’을 지닌 황제와 그의 가족들인데, 그 삶이라고 해서 더 행복했을까.<br/><br/>팔레비 왕은 망명 이듬해인 1980년 암으로 사망한다. 왕비도 그해 죽었다는 것 같다. 팔레비가 가장 아꼈다는 막내딸 레일라 공주는 우울증 끝에 마약과 약물과용으로 런던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다섯 자녀의 막내아들은 프린스턴대와 컬럼비아대에서 공부했는데, 미국 보스턴 자택에서 권총으로 자살했다.<br/><br/>망자에게 평온이 있기를.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인가. 산 자들은 오래오래 살아남기를. <br/><br/><br/><br/>■페르시아 전통 삶을 보고 싶다면<br/><br/>길·집·들·산이 온통 붉은 마을 ‘아비여네’<br/>아랫집 지붕은 윗집 마당인 산골 ‘마슐레’<br/><br/><br/>페르시아인의 전통적인 삶을 보고 싶다면 테헤란에서 네댓 시간 걸리는 두 전통마을을 권할 만하다.<br/><br/>아비여네는 커션에서 80㎞쯤 떨어진 산기슭에 자리한 ‘붉은 마을’이다. 붉은 땅에 형성된 마을인지라 길도 집도 들과 산도 붉은색 일색이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가 노인들만 남아 있다. 무너져내린 집이 한둘이 아니다. 여인들은 꽃무늬 히잡을 쓰고, 주름치마를 입는다. 남자는 치마바지처럼 품이 넓은 바지를 입는다. 할머니들도 수염이 꽤 굵고 길다. <br/><br/>마슐레는 카스피해 부근 산속 마을이다. 숲이 우거지고 시도때도 없이 안개비와 보슬비가 내려 마치 동남아시아의 겨울 새벽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다. 이곳은 가파른 산을 깎아 집을 짓다 보니 나의 집 지붕이 너의 집 마당으로 사용되는 풍광이 이채롭다. 굽이굽이 골목길엔 수레바퀴와 오토바이 다닐 길이 없어서 히말라야 셰르파처럼 온갖 짐을 짊어지고 오르는 짐꾼들을 만나게 된다. 국내외 예술인들이 이곳에 오래 머물며 작품활동을 하기도 한다.<br/><br/>두 곳은 우리로 치자면 ‘민속마을’쯤 된다. 이란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포토제닉’ 마을이다.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잠들면서 소위 ‘진보’와 ‘발전’이라는 게 없었던 ‘벨 에포크’(아름다운 시절)의 삶이 남아 있다. <br/><br/>때로는 역사의 현장보다는 역사가 없는 듯한 곳에 가서 여유롭게 차 한 잔 하고 싶은 것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39.txt

제목: 천안 월봉고 여학생들, 긴 머리 잘라 소아암 어린이들에 기증  
날짜: 20160623  
기자: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23212046012  
본문: ㆍ“염색·파마 않고 길렀어요”<br/><br/><br/>여고생들이 1년 넘게 기른 머리카락을 잘라 백혈병 소아암 환아에게 기증했다. 충남 천안월봉고 3학년 박나현양(18)과 2학년 김나연·위지현·최영민양(17)이 주인공이다.<br/><br/>천안월봉고는 박양 등 4명이 최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각기 기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전달한 머리카락은 항암치료로 탈모가 발생한 환아들의 가발 제작 용도로 사용된다.<br/><br/>이들의 선행은 이진선 음악교사가 평소 허리까지 내려왔던 김양의 머리카락이 짧아진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알려지게 됐다. 학생들은 각자 다른 시기에 개인적으로 모발을 전달해 서로 기증 사실을 몰랐다. 이 교사가 수소문해 김양 외 3명의 학생이 머리카락을 기증한 것을 확인했다. <br/><br/>이 과정에서 3학년 윤혜수양(18) 역시 머리카락을 잘라 보관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윤양은 “어디로 기증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보관하고 있었다”며 “조만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br/><br/>박양은 “<span class='quot0'>뉴스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가 머리카락이 없어 놀림받는 것을 본 뒤 작게나마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모발 기증을 알게 됐다</span>”고 말했다. <br/><br/>중학교 3학년 때인 2014년부터 머리카락을 길러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두 번 기증한 경험이 있는 김양은 “<span class='quot1'>원래 곱슬머리라 파마로 머리카락을 펴고 싶었는데 아이들을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다</span>”고 말했다. <br/><br/>머리카락을 기증하려면 길이가 25㎝ 이상 돼야 한다. 기증된 머리카락은 가발 제조에 앞서 시료검사를 통해 합격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염색이나 파마를 한 머리카락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이들은 현재도 모발 기증을 위해 머리카락을 기르고 있다.<br/><br/>이정숙 교무부장은 “<span class='quot2'>오랜 시간 염색이나 파마를 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가며 공을 들인 것 같아 정성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발 기증의 확산으로 이어졌으면 한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40.txt

제목: 점·사마귀·검버섯과 구분 어려운 피부암…EBS ‘명의’  
날짜: 20160623  
기자: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23203652419  
본문: EBS <명의>는 무관심이 키운 무서운 병 ‘피부암’을 파헤쳐본다.<br/><br/>사람들은 피부암의 주된 원인이 자외선이란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피부암인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악성흑색종은 일반 점이나 사마귀, 무좀, 검버섯과 구분하기 어렵고 전조증상이 없어 초기에 알아차리긴 매우 힘들다. 더 무서운 점은 눈치채기도 전에 타 장기로 암 세포가 번져있을 정도로 전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br/><br/>갑자기 눈 밑에 검은 점이 생겼다는 김대규씨(60)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몇년을 보냈다. 하지만 그것은 점이 아니라 기저세포암이었다. 또 한 명의 환자 김용현씨(69)는 오래전부터 광대에 딱지가 생기는 증상이 있었다. 그 역시 피부암 진단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br/><br/>과거엔 절단만이 방법이었던 피부암 수술이었지만,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불필요한 피부 절제가 줄어들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초기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이유 등을 전문가에게 들어본다. 방송은 오후 9시50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41.txt

제목: 안면 재건에 이용되는 3D 프린팅 기술, 유방재건에 첫 도입  
날짜: 2016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22115741707  
본문: 유방암 환자에게 수술로 인해 상실된 여성성을 복원하는 것은 암 치료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에 힘입어 유방재건 수술의 국민보험 적용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방재건은 미용을 위한 유방확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암의 재발 여지, 유방암 수술방법, 남은 피부의 양과 근육 상태 등 여러 요인을 평가한 뒤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하므로, 유방암 치료와 재건에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찾아야 한다.<br/><br/>일반적으로 유방재건을 성형 치료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재건과 가슴확대술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본인이 선호하는 가슴의 크기와 형태를 위한 미용적 조치가 확대술이라면, 재건은 잃어버렸던 유방의 대칭성을 복원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br/><br/>또한 인공보형물만을 사용하는 확대술과 달리, 본인의 근육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인공보형물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 재건술이다. 따라서, 유방재건은 유방절제술의 경험은 물론 자가근육의 이식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만나야 한다.<br/><br/>보건복지부 지정한 외과전문병원(대표원장 김종민)인 민병원 유방재건센터(김종민, 우희두, 김혁문)는 안면 재건에 이용되던 3D 스캐너 장비를 유방재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br/><br/>민병원 유방재건센터에서는 복합 재건법을 활용한다. MIN 유방재건이라고도 불리는 ‘3D 프린팅 자가근육·보형물 복합수술’은 정상 유방과 재건할 유방의 크기, 형태를 분석해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복원을 추구한다. 3D 프린팅 유방재건은 정상 유방의 크기와 형태를 스캐닝한 뒤, 모형(탁본)을 만들어 재건에 필요한 볼륨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으로, 재건의 목적인 대칭성의 복원을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br/><br/>3D 프린팅으로 정확한 볼륨이 계산되면, 재건을 위한 이식 부위를 결정해야 한다. 환자 본인의 조직이 가장 좋지만 모자란 경우 인공보형물을 이용하게 된다.<br/><br/>김종민 대표원장은, “복부근육은 이용한 TRAM 수술은 8시간가량 소요되는 대수술이라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인공보형물만을 이용하면 반대편과 대칭을 맞추는 게 힘들며 2번 수술을 해야 한다. 크기는 작지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광배근과 질감이 좋은 코헤시브겔 보형물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한 번의 치료로 원하는 만큼의 부피와 형태를 모두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br/><br/>현재까지 400례 가까이 재건했으며 환자들의 평가는 77%에서 ‘매우 만족’, 20%에서 ‘상당히 만족’ 등급을 주고 있다. 앞으로 3D 프린팅을 이용한 더 획기적인 재건법이 소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br/><br/>유방재건으로 새로운 가슴을 얻은 환자라도 반대편 유방의 심한 하수(쳐짐)가 있다면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심한 유방하수는 유방재건과 더불어 유방축소가 필요하다. 김종민 원장은 “<span class='quot0'>유방재건과 축소를 한꺼번에 하면 수술시간이 길어져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재건을 먼저하고 3D 스캐닝에 따라 반대편 유방을 나중에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라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42.txt

제목: “트럼프 죽이려고” 경찰 총 훔치다 체포된 남성…범행 전날 처음 사격 연습까지  
날짜: 20160621  
기자: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21150331812  
본문: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유세 현장에서 암살하려던 남성이 붙잡혔다. 20일(현지시간) CNN은 영국 출신의 20세 남성 마이클 스티븐 샌퍼드가 지난 18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트레저아일랜드 호텔 극장에서 열린 트럼프 유세 현장에서 경찰관의 권총을 빼앗으려다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네바다주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br/><br/>샌퍼드는 유세 현장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경찰관에게 “트럼프의 사인을 받고 싶다”면서 말을 건 뒤 경찰관의 권총집에서 총을 빼내려고 손잡이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제압당했다. 당시 유세장엔 트럼프 지지자 1500여명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r/><br/>샌퍼드는 자신이 “트럼프를 죽이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라스베이거스까지 왔다고 진술했다. 유세장에 들어가려면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유세장 내부에서 총을 훔치는 것이 총기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br/><br/>샌퍼드는 이 계획을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암살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피닉스에서의 트럼프 유세장 티켓도 샀으며, 이튿날 거리에서 다시 한 번 시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br/><br/>그의 국선변호인은 샌퍼드가 정신질환을 앓은 적은 없으나, 자폐증을 앓은 적이 있으며 자살 시도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샌퍼드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린 시절 강박장애와 거식증을 앓았고 병원에서 탈출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br/><br/>샌퍼드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1년 반 전에 건너왔으며, 비자가 만료된 뒤에는 불법 체류를 하면서 직업이나 거주지 없이 자신의 차량에서 생활해왔다. 그는 트럼프 유세 전날인 16일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샌퍼드는 이전에 총을 한 번도 쏴 본 적이 없어서 암살기도 전날 사격연습장을 찾아 9㎜ 글록 권총으로 20발을 미리 쏴 봤다고 증언했다. <br/><br/>샌퍼드는 제한구역 내에서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25만달러(2억9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43.txt

제목: “유흥비에 쓰려고”…자기집 금고서 돈 훔친 철없는 10대  
날짜: 20160620  
기자: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20150029354  
본문: 어머니가 금고에 보관해오던 돈을 훔친 철없는 1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자기집 금고에서 돈을 훔친 이모군(16) 등 5명을 특수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br/><br/>이군은 지난 12일 오후 2시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자신의 집에서 친구 1명과 어머니 ㄱ씨(45)가 금고에 보관해 놓은 1만엔권 엔화 180장과 5만원권 40장 등 총 22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br/><br/>이군이 훔친 돈은 ㄱ씨가 일본에 있는 친어머니로부터 받은 이군 등 3남매의 교육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인인 ㄱ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서 생활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남편이 암으로 숨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ㄱ씨의 친어머니가 “자녀들의 교육비로 쓰라”며 엔화를 보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br/><br/>이군은 밀가루를 뿌려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군의 친구 김모군(16) 등 3명은 이군이 현금이 든 가방을 맡기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1만엔권 엔화 108장(한화 1212만8000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br/><br/>이들은 훔친 돈으로 오토바이와 스마트폰을 사는 등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br/><br/>경찰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군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어머니가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수사에 나섰다</span>”며 “<span class='quot0'>이군 등은 훔친 돈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이 다니고 있는 충북 증평 한 고등학교 운동장과 실습실 뒤편 공터 등에 땅을 판 뒤 숨겨 놓고 사용해 왔다</span>”고 설명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44.txt

제목: 2조원 들였지만....과잉진료로 환자부담은 제자리?  
날짜: 20160618  
기자: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18105643227  
본문: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2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보장률은 거의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이 상당수 항목이 급여항목이 되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등에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그곳은 들어가는 반면 다른 곳이 팽창되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말한다.<br/><br/>17일 국회예산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평가’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2조2679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2013~2014년 2년간 4대 중증질환 관련 125개 항목을 급여화했다. 약제 73개 항목, 행위 39개 항목, 치료재료 13개 항목 등이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77.7%에서 2013년 77.5%로 악화됐다가 2014년 77.7%로 되돌아갔다. 또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같은 기간 15.6%에서 14.7%로 2년간 0.9%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급여 항목이 늘었음에도 보장성이 높아지지 않은 것은 줄어든 비급여 항목만큼 병원들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은 과잉진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br/><br/>보건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2014년 급여적용을 받은 125개 항목은 연말에야 적용돼 2014년 보장률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내년 상반기에 발표되는 2015년 보장률을 보면 정확한 효과를 알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45.txt

제목: 중국동포 간병인들의 눈물  
날짜: 20160617  
기자: 글·사진 박주연 기자 jypar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17214205195  
본문: ㆍ조국은 비상구조차 열어주지 않았다<br/><br/><br/>박진숙씨(69·가명)는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가 고향이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생활은 빈곤했다. 한국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2007년 남편과 함께 왔다. 입국 이튿날부터 수원의 ㄱ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다. 먼저 한국에 나와 있던 안사돈이 간병인협회(용역업체)를 소개해줬고, 이 협회를 통해 일자리를 얻었다. <br/><br/>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고됐다.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대부분이 뇌졸중이나 치매, 파킨슨병, 암환자들이거나 골절로 수술한 노인이다 보니 수발드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혼자 5~6명의 환자를 돌봐야 했다.<br/><br/>일과는 새벽 5시에 시작됐다. 환자들의 침상을 정리하고 밤새 더러워진 기저귀를 갈아주고 양치와 세안을 해주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환자는 부축해 화장실로 데려다 앉히고 밑도 씻겼다. 석션(가래 뽑는 기계)으로 가래를 뽑아내고 음식을 못 먹는 환자에게 하루 4번 흔히 ‘콧줄’로 불리는 비위관을 통해 유동식을 주입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목욕을 시키고, 환자가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주고, 휠체어에 태워 물리치료실에 오가고, 워커로 걷기 연습도 시켰다. 하루 24시간이 빠듯했다. <br/><br/><br/><br/>밤잠을 편히 잘 수도 없었다. 용변 등의 이유로 환자가 언제 찾을지 몰라서다. 박씨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저절로 눈이 떠졌다. 하루에 대여섯번은 깼다”고 말했다. 행여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 다치기라도 하면 간병인 책임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잠깐 자리를 비운 새 환자가 혼자서 화장실에 가다 쓰러진 일이 있었다. 보호자는 병원에 항의했고, 병원은 그에게 ‘반성문’을 요구했다. <br/><br/>고단한 그의 육신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은 150㎝×60㎝의 비좁고 딱딱한 보호자용 침대가 전부. 팔·다리를 펴기도 힘든 이 불편한 침대에서 그는 잠을 청한다. 수면부족으로 눈은 늘 충혈돼 있다. 그가 집에서 자는 날은 한달에 한두번뿐이다. <br/><br/>24시간 일한 대가로 받는 일당은 병원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6만5000원을 받을 때도 있었고, 7만원이나 7만5000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시급으로 따지면 3000원 안팎. 간병인협회가 병원에서 돈을 받아 매달 회비 7만원을 떼고 준다. 협회는 가입비 12만원과 1년에 20만원씩 상해보험료도 뗀다. 그가 돌보는 환자가 다칠 경우에 대비해 드는 것이라고 했다. 1~2일 쉬고 한달 꼬박 병원에서 자면서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200만원이 안됐다. <br/><br/>2014년 문제가 생겼다. 경기도 용인시 ㄴ병원에서 일했는데 48일치 임금을 못 받았다. 석 달 이상 돈을 못 받은 동료도 있었다. <br/><br/>간병인협회는 “병원에서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고 했다. 병원 측은 “조금만 기다리라”며 중국동포 간병인들을 달랬다. 간호사들이 짐을 챙겨 떠나고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서야 간병인들은 병원이 폐업한 것을 알았다. 이후 협회 사장의 안내로 중국동포 간병인 11명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병원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노동부에서 날아온 결정문 내용은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노동자가 아니어서” 행정을 종결한다는 통보였기 때문이다. 협회도 “일을 알선해줬을 뿐”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다.<br/><br/>“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슴다. 내가 돈 벌려고 일했는데, 아이고… 노동을 했는데 노동자가 아이라니….”<br/><br/>간병인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인의 활동을 보살피고, 개인위생을 돕고, 배설을 보조하며 환자의 안전을 살피는 업무를 담당한다. <br/><br/><br/><br/>- 간병인 30만명 추산…90%가 중국동포<br/><br/>2010년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간병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당시 전국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 규모는 4만5000여명(급성기 병원 2만7841명·요양병원 1만7831명).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박대진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0'>구직 중인 간병인 수를 포함하면 2016년 현재 3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span>”고 말했다. 이 중 90%가 중국동포다. <br/><br/>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일인 데다 저임금 등 열악한 처우 탓에 한국인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이다. 간병인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다. <br/><br/>상당수 간병인들은 ○○협회라는 이런저런 이름의 용역회사에 소속돼 있지만 대부분 법적으로 협회나 병원과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다. 간병인 개인이 각각의 환자들과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쉽게 말해 간병인은 사업자등록을 했건 안 했건 개인사업자 형태의 근로를 하는 ‘특수고용직’인 것이다. 이때 협회가 병원과 간병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간병인과 환자 사이의 계약관계로 바꿔주는 비합법적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간병인에게 가입비나 월회비를 받아 이윤을 남긴다. 일당은 6만5000~9만원 선. 환자가 간병인에게 직접 주는 형태도 있고, 협회가 받아 회비를 떼고 매달 주는 방식도 있다. 특수고용직이다 보니 대다수 간병인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 예방 및 안전대책에서도 소외돼 있다. <br/><br/>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파동 때 중국동포를 포함해 간병인 8명이 병원 내 감염으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11년엔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간병인 이모씨가 에이즈 환자의 링거 바늘에 찔린 일도 있었다. <br/><br/>이씨는 병원에 감염 여부 검사를 요청했지만 병원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노조를 통해 겨우 진료는 받았지만 응급실 방문비, 진료비, 약값, 검사비 등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br/><br/>중국동포의 경우엔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더욱 속수무책이다. 한국말이 서툰 데다 한국실정에 어둡기 때문이다. 박진숙씨와 마찬가지로 용인시 ㄴ병원에서 742만원의 임금을 떼인 임창준씨(63·가명)는 “<span class='quot1'>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할지 답답했다</span>”고 말했다. <br/><br/>“여기 가면 저기 가서 알아보라 하고, 저기 가면 또 다른 데로 가보라 하고… 노동부에 전화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했더니 ‘법에 고소하라고 함다. 어느 분의 소개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는데 제출 서류 중 하나인 협회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져다주지 못해 고소도 못했슴다. 분명히 전화를 하고 협회를 몇번이나 찾아가봤지만 그때마다 문은 잠겨있고…. 결국 지쳐서 포기했슴다.”<br/><br/>임씨는 중국의 교통국 소속 공무원이었다. 만 60세 정년을 마치고 퇴직한 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일 없이 술이나 마시며 여생을 보내기 싫어서였다. 그는 지금 충북 영동의 한 ㄷ요양병원에서 6명의 중증 남자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이 병원에선 혼자 12명의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도 있다고 했다. 임씨는 “우리가 없으면 대한민국 환자들은 어떻게 되겠슴까? 대한민국 법은 왜 우리를 근로자로 취급 안 하는지, 돈을 못 받아도 정부는 왜 가만 있는 건지 모르겠슴다.”<br/><br/>- 환자 과도한 요구…수면 부족 고통도<br/><br/>지난 14일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중국동포 간병인 유미옥씨(64·가명)는 “<span class='quot2'>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span>”고 묻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span class='quot2'>환자나 보호자가 무시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다</span>”고 말했다. 유씨는 옌볜 옌지에서 4년 전 입국한 후 의정부성모병원, 백병원을 거쳐 공동간병이 아닌 1 대 1 간병을 하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2'>환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쌍욕을 해도 당하는 수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 <br/><br/>“이전 병원에서 일할 때 그런 일이 많았슴다. 간호사들이 안정제를 한번에 한 알씩만 먹이라고 했는데 환자는 네 알을 달라고 고집부리고. 간호사에게 물으면 절대 안된다고 하고. 화가 난 환자는 막 욕을 퍼붓고…. 일하다 운 적도 참 많슴다.” <br/><br/>이 병원의 또 다른 중국동포 간병인 채숙자씨(66·가명)는 “<span class='quot2'>잠이 부족한 게 제일 힘들다</span>”고 말했다. “어떤 환자는 하루 2시간밖에 못 자면서 계속 이것저것 주문해요. 자다 깨기를 반복하니 잠을 잘 수가 없지요. 24시간 붙어있어야 해 다른 데서 눈을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휴게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br/><br/>최근 수원의 ㄹ요양병원에선 환자를 목욕시키던 중국동포 간병인이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팔에 크게 타박상을 입었다. 수면 부족 때문에 순간적인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것이다. 하지만 병원에선 어떤 치료나 약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 병원 8인실에서 간병일을 하는 최수옥씨(65·가명)는 “<span class='quot3'>환자가 크게 안 다친 게 천만다행</span>”이라며 “<span class='quot3'>환자가 잘못해 다친 것도 간병인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다</span>”고 말했다. “우리도 잠을 자야 하는 사람임다. 기계가 아니잖아요?” <br/><br/>육체적·정신적으로 워낙 힘든 일이다 보니 질병이 생기거나 과로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작년 서울대병원에선 뇌졸중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이 토요일에 집에 갔다가 이튿날 출근하는 길에 쓰러져 사망했다. 급성 대장암 판정을 받고 두 달 만에 세상을 뜬 간병인도 있다. <br/><br/>최정남 서울대병원 희망간병 분회장은 “일하다 사망해도 산재처리가 안되니 간병인은 한마디로 개죽음”이라고 말했다. 희망간병은 서울대병원노조에서 만든 비영리단체다. 다른 용역업체처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간병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 조합비로 월 3만5000원만 내면 교육도 시켜준다. 하지만 한국인만 가입할 수 있다.<br/><br/>중국동포 간병인들은 자신들이 “<span class='quot2'>한국인 간병인에 비해 차별받고 무시당한다</span>”고 생각한다. 반면 한국인 간병인들은 “일부 중국동포 간병인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 질서가 없고 이로 인해 한국인 간병인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간다”고 불평한다. <br/><br/><br/><br/>-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일자리 불안<br/><br/>한국인 간병인의 90%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는 한국인 간병인을 선호하지만 인력이 달린다. 임금체불 문제로 중국동포 간병인들을 면담한 적이 있는 박정호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사무처장은 “<span class='quot4'>간병서비스는 언어소통이 안되면 불가능해 한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에 대거 중국동포를 고용하면서도 2등 국민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span>”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병인 전체의 처우가 열악하지만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동포는 약자 중에서도 약자”라고 덧붙였다. <br/><br/>간병업계는 지난 몇년 동안 간병인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박대진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0'>간병인을 병원의 정규직군으로 편성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그래야 간병인의 생존권 확보는 물론 간병인의 안정적 수급과 환자의 보건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br/><br/>정부는 환자·보호자의 간병부담을 줄이고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간호·간병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종전보다 최소 2배 이상 늘어난 간호인력과 병동당 최대 4명까지 배치된 간병지원인력(병원이 직접고용한 간병인)이 팀을 이뤄 간호와 간병을 책임진다. 2015년 말 기준으로 112개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br/><br/>환자와 보호자는 통합서비스 확대를 마다하지 않는다. 일반병동에 비해 간호·간병서비스를 운영하는 병동의 입원비가 하루 2만원 정도 비싸도 개인 간병비보다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병인, 특히 중국동포 간병인들의 불안감은 크다. 일자리를 잃을까봐서다. <br/><br/>보건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5'>통합서비스 확대 속도가 빠르지 않은 데다 전국 1400여개에 이르는 요양병원은 서비스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병인들이 일시에 일자리를 잃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46.txt

제목: 2조원 들인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풍선효과’  
날짜: 20160617  
기자: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17184213942  
본문: ㆍ병원서 새 비급여 항목 만들어…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2012년과 똑같아<br/><br/>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2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보장률은 거의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이 상당수 항목이 급여항목이 되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등에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그곳은 들어가는 반면 다른 곳이 팽창되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말한다.<br/><br/>17일 국회예산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평가’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2조2679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2013~2014년 2년간 4대 중증질환 관련 125개 항목을 급여화했다. 약제 73개 항목, 행위 39개 항목, 치료재료 13개 항목 등이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77.7%에서 2013년 77.5%로 악화됐다가 2014년 77.7%로 되돌아갔다. 또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같은 기간 15.6%에서 14.7%로 2년간 0.9%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급여 항목이 늘었음에도 보장성이 높아지지 않은 것은 줄어든 비급여 항목만큼 병원들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은 과잉진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47.txt

제목: 1ml 혈액으로 우리 몸 건강 미리 체크하자  
날짜: 2016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16101756157  
본문: 해를 거듭할수록 암 환자 발생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치료와 함께 질환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세우는 ‘예방 의학’이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br/><br/>우리나라 암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암 환자는 총 22만5343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445.7명(남자 449.9명, 여자 441.5명)의 암 환자가 한 해에 발생했다.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여자는 85세까지 산다는 가정 하에 암에 걸릴 확률은 35%, 남자는 78세까지 산다는 가정 하에 38.3% 정도다. 남자는 5명 중 2명에서, 여자는 3명 중 1명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위험성이 커질수록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br/> <br/>예방 의학 중 하나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측정할 수 있는 NK세포(natural killer 세포·자연살해세포)에 대한 관심도 그 중 하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강한 일반인들도 하루에 약 5000여 개의 암세포가 발생하고 체내의 면역 세포에 의해 소멸되는 과정이 매일 반복된다. 이 중 NK세포는 인체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면역세포로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별하여 암세포만 공격해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br/><br/>하지만 단순히 NK세포 수가 많다는 것이 건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NK세포 중에는 암세포와 같은 비정상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세포들도 많기 때문이다. 면역력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비정상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활성화된 NK세포다.<br/><br/>NK세포의 활성도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세포인 NK세포가 체내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암 또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 NK세포 활성도 검사 결과를 통해 암의 발생, 증식과 전이 가능성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의료계에서는 개인 면역력을 측정하는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비롯해 자신의 NK세포를 혈액에서 추출하고 배양해 치료하는 NK세포 면역치료도 진행되고 있다.<br/> <br/>에이티젠(대표 박상우)이 개발한 NK뷰키트는 NK세포의 활성을 측정해 암 또는 중증 질병 발병 가능성을 조기에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다.<br/><br/>NK활성도 검사는 NK세포를 인위적으로 활성화시켜 NK세포의 분비 물질을 측정해 환자의 항암 면역력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 NK세포 활성도를 확인해 암세포가 생겼을 때 NK세포가 공격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1ml 소량의 혈액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고 48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br/><br/>에이티젠 관계자는 “<span class='quot0'>NK뷰키트는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각종 암과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미리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때문에 질병 예방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실제 암 조기 진단 및 치료 후 환자 모니터링으로 사용되고 있다</span>”고 소개했다.<br/><br/>또한 그는 “<span class='quot0'>강남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등의 대형 종합병원과 건강검진센터를 포함 200여 곳에서 NK뷰키트를 이용한 NK검사를 받을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에이티젠은 올해 NK뷰키트 도입기관을 현재의 2배인 400곳으로 늘릴 계획</span>”이라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48.txt

제목: 커피 ‘무죄’ 세계보건기구 “암과 무관”…25년 만에 오명 벗어  
날짜: 20160615  
기자: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15215928312  
본문: 커피가 25년 만에 ‘발암물질’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그러나 커피든 다른 차든 아주 뜨거운 음료는 식도암 유발 가능성이 있어 적정 온도로 마시는 것이 좋다.<br/><br/>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5일(현지시간) ‘매우 뜨거운 음료’와 관련한 논문을 분석·평가해 커피가 암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한다.<br/><br/>IARC 전문가 평가단은 관련 공개문헌 1000여건을 검토한 결과 커피는 암과 직접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IARC는 1991년 2B군 발암물질에 포함시켰던 커피를 25년 만에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2B군은 인체 암 유발 위험도를 분류한 5개 군 중 발암성이 있는 1군, 발암성 추정 물질의 2A군 다음 단계로 발암 가능 물질을 뜻한다. <br/><br/>IARC평가단은 커피가 오히려 일부 암에 걸릴 위험성을 줄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br/><br/>그러나 IARC는 어떤 차든 65도 이상 ‘매우 뜨거운 음료’는 식도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r/><br/>그레고리 하틀 WHO 대변인은 “<span class='quot0'>뜨거운 음료의 암 유발 효과는 인간과 동물에 제한적으로 입증된 결과지만 너무 뜨거운 음료는 식혀 마시길 권고한다</span>”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인은 1명당 한 주에 커피를 평균 12.2회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49.txt

제목: 리사 랜들 하버드대 교수 “우주서 날아든 ‘암흑물질’탓 공룡 멸종”  
날짜: 20160615  
기자: 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15212208721  
본문: 6600만년 전 공룡이 멸종된 것은 혜성 때문이라는 학설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혜성이 원래 궤도를 이탈해 지구로 날아온 것은 ‘암흑물질’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는 이가 있다. ‘물리학계의 여신’으로 불리는 리사 랜들 미국 하버드대 물리학과 교수(54·사진)다. 랜들 교수가 자신의 신간 <암흑물질과 공룡>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4일 한국을 찾았다.<br/><br/>이날 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암흑물질과 공룡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암흑물질로 인해 생긴 우주 원반의 중력 변화가 혜성을 궤도에서 이탈시켰고 그것이 공룡을 멸종시켰다는 점을 책에서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br/><br/>우주의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흑물질을 연구하는 그는 “사실 이 책의 부제인 ‘우주의 상호 연계성’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밝혔다. 엉뚱한 제목 속에 심오한 물리학 연구를 담어낸 것이다. <br/><br/>랜들 교수에 따르면 암흑물질은 전자기파로 관측되지 않고 중력 반응으로만 존재를 알 수 있는 물질이다. 우주에 흩어져 실체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br/><br/>우리 은하 원반면은 이중으로 돼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암흑물질로 구성돼 있다. 태양계가 은하계를 공전하며 이중 원반을 3200만년 정도 주기로 지나는데 그때마다 암흑물질의 영향으로 태양계가 교란된다. 이때 혜성이나 소행성 같은 유성체가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드는데 때마침 지구로 날아든 혜성이 공룡을 멸망시켰다는 내용이다. <br/><br/>랜들 교수는 “<span class='quot0'>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태양계에 영향을 미쳐 지구상 생물종의 멸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연결해 내는 작업이 꽤 재미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런 기본 입자들이 직접 가져오는 영향을 알려 주고 싶어 책을 썼다</span>”고 밝혔다. <br/><br/>그는 “<span class='quot0'>이론물리학이라는 분야를 연구하는 방식과 글쓰기는 많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관성 있고 응집력 있게 글을 쓰기 위해 끊임없이 수정하고 다듬었다</span>”고 말했다. <br/><br/>암흑물질과 관련해 그가 창안하고 자신의 이름을 붙인 이론 ‘랜들-선드럼 모형’은 전 세계 물리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미국 물리학회로부터 ‘최다 인용 논문상’도 받았다. 그는 물리학의 눈높이를 낮춰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과학자로도 유명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양과학서를 여러 권 썼는데 그가 2006년 처음 내놓은 책인 <숨겨진 우주>는 뉴욕타임스 ‘올해의 책’에 뽑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50.txt

제목: [녹색세상]미세먼지 공론화 지금부터  
날짜: 20160615  
기자: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15205949581  
본문: 최근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언론보도가 홍수를 이뤘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하는 일수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통해 폐의 말단까지 침투해서 천식이나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초미세먼지(PM2.5)로, 호흡기를 거쳐 폐로 침투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를 통해 혈관까지 침투할 수 있다. 그래서 호흡기질환만이 아니라 혈액순환장애나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에다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PM2.5의 배출량이 늘어날수록 조기 사망률과 유병률이 높아지고 개인과 사회의 보건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br/><br/>미세먼지는 주로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 어느 때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최대 배출원인 것처럼 얘기되더니 어느 때는 경유차나 석탄화력발전소가, 또 어느 때는 산업시설이, 급기야는 고등어구이와 직화구이가 문제라고 한다. 하지만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의 주요 배출원은 경유차로 밝혀지고 있다. 경유차 배출 미세먼지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1%에 불과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배출 총량의 29%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이다. 게다가 경유차 배출 미세먼지의 92%는 PM2.5인 데다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과 발암위해도가 높은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을 포함하고 있고 바로 ‘생활공간’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만큼 인체 위해도가 치명적이다.<br/><br/>그렇다면 왜 미세먼지가, 특히 초미세먼지가 최근 들어 증가한 걸까? 이는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 증가와 맞물려 있다. 2013년부터 신규 등록 차량 중 경유 차량 비중(43.5%)이 휘발유 차량 비중(42.5%)보다 높아지더니 급기야 2015년에는 전체 신규 등록 차량의 52.5%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2005년부터 시판되기 시작한 경유 승용차가 10년 만인 2015년 신규 등록 승용차량의 44.7%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 대 85로 정해서 세전 가격이 더 높은 경유의 세후 가격을 더 낮게 유지함으로써 잘못된 시장신호를 계속 보냈을 뿐 아니라 정부가 클린디젤을 외치며 경유 승용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기까지 한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후쿠시마 사고 후 원자력발전을 늘리기 쉽지 않을 것 같자 수요관리를 강화하기보다 싸다는 이유로 결코 싸지 않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꾸준히 늘렸다. 앞으로도 기존 53기에 20기를 추가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미세먼지는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br/><br/>경유(승용)차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것만이 해법이다. 시장신호가 잘못되어 일어났기에, 오염원인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시장신호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이나 경유(승용)차와 석탄화력발전소가 심각한 진원지란 사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담뱃세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이 아니라 세수 확대를 목표로 했다는 정부 불신이 팽배하기에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재조정해야 하며, 세출 또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r/><br/>유류세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비율(현재 각각 80 대 3 대 15)도 조정해서 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교통세 비율을 줄이고 에너지세와 환경세 비율을 늘려 증대된 세입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오염저감 장치 부착,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대중교통체계 구축, 주행차 관리감독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경유의 상대가격 인상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는 영세사업자나 운수업 종사자들을 배려해서 유류보조금이나 바우처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몰시점을 맞이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는 2018년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변화를 예고하면서 에너지세제 개편과 상대가격 조정, 전력요금 정상화를 위한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 20대 국회도 함께할 일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51.txt

제목: 수지상세포 암백신 결과, 日 ‘임상면역백신 포럼’서 공개 예정  
날짜: 2016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15152947530  
본문: 면역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제2회 임상면역백신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는 일본의 전이·재발암 치료병원 아베종양내과의 아베 히로유키 박사가 연설자로 나서 ‘다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ABeVax) 치료와 면역항암제 PD-1의 사용법’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br/> <br/>아베종양내과의 ‘다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은 단순히 면역세포만을 배양하여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에 개인별 유전자 검사와 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각 개인에 맞는 최신 암항원을 평균 5종류씩 추가 사용함으로써 개인맞춤별 암치료를 가능케 한다.<br/> <br/>또한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단백질의 일종인 HSP(HEAT SHOK PROTEIN)를 추가 사용함으로써 암치료율을 높였다. HSP는 암세포와 결합하여 자기 스스로가 암세포인 것을 나타냄으로써 아무리 작은 암세포라도 NK세포가 발견하여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br/> <br/>현재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암항원은 New WT1, Her2, Survivin, PSA, CEA, NY-EOS1, GV1001, MAGE-A3, EBV BMLF1 등이다. 다양한 암세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암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암항원을 다양화시켰다.<br/> <br/>아베종양내과와 공동으로 백신 연구를 진행 중인 국내기업 (주)선진바이오텍 양동근 대표에 따르면, 암항원은 미국과 독일, 일본, 한국 등에서 생산 중이며 이 가운데 GV1001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014년 9월 혈청 이오탁신농도(81.02pg/ml) 이상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게 화학요법과 병용하여 투여하도록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다.<br/> <br/>한편, ‘제2회 임상면역백신 포럼’에 관한 문의 및 참가신청은 선진바이오텍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 발족한 임상면역백신 포럼은 임상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면역학에 대한 연구와 임상응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식과 치료 등 각종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52.txt

제목: 소변 몇 방울만 있으면 암 검사 '끝'...수년내 실용화  
날짜: 20160615  
기자: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15144143563  
본문: 소변 몇 방울로 유방암이나 대장암 등의 암 발병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br/><br/>일본 히타치(日立)제작소·스미토모(住友)상사 등의 연구팀이 소변에 포함돼 있는 당질·지질 등의 물질을 분석해 건강한 사람과 유방암 환자, 대장암 환자를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br/><br/>연구팀은 소변에서 검출한 1300개 이상의 물질 가운데 암 발병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10개 정도로 골라내는데 성공했다. 이들 물질의 함유량의 많고 적음을 통해 건강한 사람과 암 환자를 식별하게 된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br/><br/>연구팀은 유방암 환자, 대장암 환자, 건강한 사람 등 45명의 소변에 포함돼 있는 물질을 정밀 분석해 왔다.<br/><br/>연구팀은 집이나 병원 등에서 채취한 소변을 검사기관에 보내면 암 발병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구별해 내는 검사법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br/><br/>이 연구팀은 앞으로 유방암·대장암 이외에 다른 암도 소변을 통해 구별해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br/><br/>이 검사법은 앞으로 수년 안에 실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53.txt

제목: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치과의사 진료영역’ 국민 이해 돕는다  
날짜: 201606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14152628198  
본문: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한 치과의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학술단체인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이종호 이하 학회)가 치과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치과의사 진료영역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br/><br/>학회에 따르면, 의과가 신체부위 및 진료영역에 따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등으로 전문과목이 나뉘듯 치과도 진료영역에 따라 구강내과, 구강외과, 보철과 등 10개 전문과목으로 나뉜다. 턱뼈와 안면골 골절, 안면부 연조직 손상 등을 치료하는 턱•얼굴 부위 외상과 잘못 성장한 턱을 정확한 위치로 교정하는 ‘양악수술’이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또한 ▲구순구개열(언청이) ▲임플란트 수술 ▲턱관절 부위에 대한 처치수술 ▲구강, 턱. 얼굴 부위 암 ▲안면부 통증 진단•치료 ▲뼈신장술을 이용한 뼈 형성 등이 구강악안면외과의 주요한 진료 분야다.<br/><br/>학회 이사장인 이종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치과의 전문 진료과목인 구강악안면외과는 구강, 턱, 얼굴 부위 경조직 및 연조직의 기능적•심미적 문제를 야기하는 질병•손상•장애를 치료하는 진료과</span>”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0'>구강악안면이란 명칭의 구강(口腔)은 입안을, 악(顎)은 턱(위턱을 의하는 상악과 아래턱을 의미하는 하악을 포함)을, 안면(頜面)은 얼굴을 의미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사랑니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작은 수술부터 양악수술, 구순구개열(언청이)수술, 악안면(턱과 얼굴) 부위의 외상, 구강•턱•얼굴 부위에 발생한 양성 종양과 암의 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특히, 그는 “<span class='quot0'>몸의 다른 부위에서 채취한 조직 등을 이용한 얼굴 결손 부위의 재건, 보톡스 등 얼굴 부위 미적 개선을 위한 미용외과수술도 구강악악면외과 분야</span>”라며 “<span class='quot0'>신경외과의사와 협력해 진행하는 얼굴과 두개골의 기형교정수술도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만 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진료영역</span>”이라고 말했다.<br/><br/>한편, 학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생기기 7년 전인 1959년에 설립됐으며, 1962년에는 구강악안면외과 전공 치과의사들이 주축으로 턱과 얼굴 부위 성형을 연구하는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를 설립해 활발한 학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54.txt

제목: 폐암 항암치료와 병행하는 면역치료  
날짜: 201606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13160419241  
본문: 소람한방병원 김성수 박사<br/><br/>폐암은 암 세포의 크기를 기준으로 크기가 작지 않은 비소세포 폐암과 크기가 작은 소세포 폐암으로 나뉜다. 소세포 폐암은 성장 속도도 매우 빠르고 작은 대신 림프절이나 종격동 등 전이 또한 빨라서 수술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비소세포 폐암은 조기 발견할 경우 수술적인 치료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같은 폐암이라도 예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다.<br/><br/>폐암 항암 치료는 치료제 개발로 인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표적 항암제의 개발로 인해 폐암 말기 환자의 생존 기간이 늘고 생존율 또한 최근 10년 새 두 배로 늘었다. 1세대 항암제의 경우 암 세포 외에 정상 세포 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말초신경염, 피부손상, 오심, 구토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았다.<br/><br/>소람한방병원 김성수 박사는 “폐암 환자의 생존율을 끌어올린 2세대 표적 항암제는 특정 암세포만 공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내성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발견됐다"면서 "최근 개발되고 있는 3세대 치료제인 면역 항암제의 경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폐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이처럼 폐암의 항암 치료에 있어 ‘면역’은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예방적인 차원에서 쓰였던 ‘면역’이라는 단어가 적극적인 치료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면역력이란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공격해주는 NK세포와 T세포 등 면역 세포의 활동력을 뜻한다. 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자연 사멸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면역 치료의 원리이다.<br/><br/>폐암 면역 치료는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를 통합한 통합 암치료의 개념으로, 항암 치료와 병행할 수 있고 항암 부작용을 경감시켜준다는 장점이 있다. 김성수 한의학 박사는 “면역 치료의 장점 중 하나는 폐암의 대표적인 증상인 기침, 가래, 객혈, 흉통, 호흡곤란 등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라면서 "고주파 온열 암치료 등으로 암 세포의 퇴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와 병행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55.txt

제목: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종전의 표적항암제와 확실히 구별돼  
날짜: 201606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10150334040  
본문: 최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키트루다는 MSD에서 개발한 면역치료제로, 새로운 항암치료 방법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식약처 판매 허가를 받으며 새로운 치료 방법을 찾아 고심하던 암 환자들에게 대안으로 떠올랐다.<br/><br/>키트루다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암세포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흑색종과 폐암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임상결과가 발표되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치료 효과가 탁월한 것은 물론, 몸의 면역 기능을 복원한다는 장점과 함께 부작용도 적다고 알려져 있다.<br/><br/>면역항암제가 인체의 면역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기전은 기존의 표적항암제와 명백히 차별화되는 요소다.<br/><br/>현재 키트루다를 통해 임상시험 결과가 알려진 것은 흑색종과 폐암. FDA의 승인은 현재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 치료제로 받았지만 폐암 환자에서의 임상실험이 입증되면서 다른 암에 대해서도 임상실험이 진행 중이다. 현재 위암, 유방암 등 30여 종 이상의 암 질환에서 키트루다를 활용한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r/><br/>한편 암환자에 대한 양한방통합치료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양방과 한방의 장점만을 취해 더욱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치료를 이끌어낸다는 취지의 양한방통합치료는 최근 한의원에서 암환자 치료 결과와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내 놓고 있다.<br/><br/>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한방암치료제로는 한방면역항암제인 치종단II-티버스터와 암 표적치료제인 치종단, 치종탕 등이 있다. 특히 암세포의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진 옻나무추출물로 만든 티버스터는 적은 부작용으로 직접적인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치료제로 알려졌다.<br/><br/>이에 대해 하나통합한의원 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0'>한방암치료제는 우리 몸의 내성을 강화해 강한 면역력을 만들어준다는 것</span>”이라고 말하며, “<span class='quot0'>특히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암환자의 경우 양방과 한방치료의 병행을 통해 암 치료의 효능을 높이고 고통을 덜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56.txt

제목: 알파고? 왓슨은 퀴즈쇼 우승에 암 진단도 척척…KBS1 ‘특집 다큐멘터리’  
날짜: 20160608  
기자: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08204528667  
본문: KBS 1TV 특집 다큐멘터리 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전망한다.<br/><br/>로봇이 아픈 환자를 위해 대신 학교에 가고, 스마트 글로브가 게임을 통해 뇌졸중 후 찾아온 반마비 재활을 돕는다. 이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들이다.<br/><br/>2011년 미국 유명 퀴즈쇼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린 인공지능 ‘왓슨’은 이제 의료계까지 발을 뻗고 있다. 왓슨의 암 진단율은 무려 96%에 이를 정도다. 이 밖에도 스마트 안경을 쓰고 수술을 집도하는 등 마치 영화 를 방불케 하는 최신식 수술 장면이 펼쳐진다.<br/><br/>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관리에도 발군의 위력을 보인다. 미국의 한 스타트업은 스마트폰으로 종합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세계를 살펴본다. 방송은 오후 11시40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57.txt

제목: 삼성 반도체 사망 노동자악성 림프종 첫 산재 인정  
날짜: 20160603  
기자: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03232053858  
본문: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림프종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span class='quot0'>삼성전자 노동자였던 고 박효순씨(사망 당시 28세)의 악성 림프종은 벤젠 등에 노출돼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span>”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의 악성 림프종에 대한 첫 산재 인정 사례다. 악성 림프종은 벤젠,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림프조혈계 암이다.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및 유족은 모두 11명이다.<br/><br/>박씨는 2002년 4월 전남 화순의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 기흥공장에 입사했다. 그 뒤 3년 7개월간 6라인, 8~9라인 포토(감광)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며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 점도 심각한 유해요인이었다. 결국 얼굴에 심한 홍반(피부질환)이 생기는 등 건강이 악화돼 2006년 1월 퇴사했다. 이후 2010년 11월 악성 림프종(4기) 진단을 받았고, 2012년 8월19일 사망했다.<br/><br/>삼성전자는 취급물질 중에 발암물질이 없었고 유해물질 노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에 화학제품의 주요 성분이 ‘영업비밀’로 감추어져 있고, 고인이 근무할 당시 화학물질 유출을 감지하는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뒤 박씨의 업무 공간을 직접 조사해 발암물질 노출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8개월이 걸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58.txt

제목: 삼성 반도체 노동자 ‘악성 림프종’ 첫 산재 인정  
날짜: 20160603  
기자: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03184008870  
본문: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림프종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br/><br/>근로복지공단은 3일 “<span class='quot0'>삼성전자 기흥공장 노동자였던 고 박효순씨(사망 당시 28세)의 악성 림프종은 벤젠 등에 노출돼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span>”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의 악성 림프종에 대한 첫 산재 인정 사례다. 악성 림프종은 백혈병과 마찬가지로 벤젠,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림프조혈계 암이다.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및 유족은 모두 11명이다.<br/><br/>박씨는 2002년 4월 전남 화순의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 기흥공장에 입사했다. 그 뒤 3년 7개월간 6라인, 8~9라인 포토(감광)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며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 점도 심각한 유해요인이었다. 결국 얼굴에 심한 홍반(피부질환)이 생기는 등 건강이 악화돼 2006년 1월 퇴사했다. 이후 2010년 11월 만 26세의 나이에 악성 림프종(4기) 진단을 받았고, 2012년 8월19일 사망했다.<br/><br/><br/><br/>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은 “이번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의 업무환경을 조사할 때 회사의 자료제출이나 답변에만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의 업무환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취급물질 중에 발암물질이 없었고 업무공간에서 확인된 유해물질 노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기관(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에 화학제품의 주요 성분이 ‘영업비밀’로 감추어져 있고, 고인이 근무할 당시 공장에 화학물질 유출을 감지하는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이후 박씨가 취급한 설비와 업무 공간을 직접 조사해 발암물질 노출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br/><br/>다만 박씨의 유족이 2012년 10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접수를 한 뒤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8개월이 걸렸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span class='quot1'>산재보상보험법 제1조에 명시된 ‘신속·공정한 보상’의 원칙을 근로복지공단이 명백하게 어겼다</span>”는 것이다.<br/><br/>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딜라이트관(홍보관) 앞에서 241일째 노숙농성 중인 반올림은 “<span class='quot2'>삼성전자는 지금이라도 안전보건 관리를 잘못하고 산재 인정을 방해한 점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59.txt

제목: 여수산단 대기업 화학공장 근로자 첫 ‘혈액암’ 산재 판정  
날짜: 20160603  
기자: 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03114620610  
본문: 전남 여수산단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 혈액암인 ‘림프종’ 진단을 받은 30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다.<br/><br/>여수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여수 건생지사)은 3일 보도자료에서 여수산단 모 기업체 전 근로자 정모씨(38)가 3년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1년 입사에 13년째인 2013년 10월 혈액암 진단을 받아 투병중이다. 그는 2014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냈다가 최근 산재를 인정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현장조사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지난달 말 정씨의 암 발병이 모 업체 작업 현장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br/><br/>여수 건생지사 측은 “<span class='quot0'>화학물질에 노출돼 발병한 혈액암에 대해 정부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 큰 수확</span>”이라고 평했다. 업체 측도 “이번 판정에 대해 다소 이견은 있으나 존중키로 하고, 당사자의 완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는 이어 임직원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직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돼 혈액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br/><br/>여수 건생지사 측은 “<span class='quot0'>해당 업체가 설비개선을 통해 현재 모든 집수조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아직 추가적인 노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안심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span>”고 말했다.<br/><br/>정병필 여수 건생지사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1'>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아직은 미흡한 법 기준에만 의존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60.txt

제목: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16년 6월 3일  
날짜: 2016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02211603901  
본문: ■ 영화 ■ 써드 스타(캐치온 오전 9시55분) = 말기 암환자인 제임스는 29번째 생일파티 후, 세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로 마지막 추억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여행길에 오른 네 사람은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10대처럼 짓궂게 장난을 치며 즐거워한다. 하지만 그러던 중에도 제임스는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한다. 바닷가에 도착한 날 밤, 제임스는 내일 수영을 하러 바다에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br/><br/>■ 드라마 ■ 디어 마이 프렌즈(tvN 오후 8시30분) = 7화. 석균은 딸 순영이 사위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되고, 딸을 위해 복수를 시작한다. 석균은 변호사였던 친구 성재의 도움으로 사위에게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낸다. 또 석균은 사위의 차를 긁고 시치미를 떼기도 한다. 그리고 난희는 친구에게서 딸 완이가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난희는 왜 멀쩡한 남의 딸을 몰아가느냐며 역정을 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61.txt

제목: 호암상 시상식, 과학상 등 5개 부문 수상자에 3억원 상금  
날짜: 20160601  
기자: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01221641741  
본문: 호암재단은 1일 서울 서소문로 호암아트홀에서 ‘제26회 호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오세정 국회의원, 성낙인 서울대 총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각계 인사 550명이 참석했다. <br/><br/><br/>올해 부문별 수상자는 과학상에 김명식 임피리얼 칼리지런던 교수(54), 공학상에 오준호 카이스트 교수(62), 의학상에 래리 곽 미국 시티 오브 호프 병원 교수(57), 예술상에 황동규 시인(78), 사회봉사상에 들꽃청소년세상 공동대표인 김현수(61)·조순실(59) 부부다. 수상자에게는 각 3억원의 상금과 순금 메달이 수여됐다.<br/><br/>김명식 교수는 양자역학의 세계적인 대가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일하기 위한 기초 마련에 기여했다. 오준호 교수는 순수 독자기술로 한국 최초의 이족보행 인간형 로봇인 ‘휴보’를 제작했다. 래리 곽 교수는 혈액암의 일종인 여포성 림프종 표면 단백질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암 백신을 개발한 뒤 3상 임상시험을 통해 암 재발 억제 효능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br/><br/>황동규 시인은 1958년 등단 이래 60년 가까이 시의 형태적 혁신을 계속해 한국 현대시의 지평을 넓혔다. 김현수·조순실 부부는 청소년 그룹홈 운영, 대안학교와 직업훈련장 설립, 이동상담 및 쉼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 복지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다.<br/><br/>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990년 제정한 호암상은 올해 시상을 포함해 133명의 수상자에게 214억원의 상금을 수여했다.<br/><br/> ▶'김선홍 전 기아 회장 아들 김명식 교수, 호암상 수상' 기사읽기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62.txt

제목: [핀테크 특집]우리은행철통보안 메신저, 읽고나면 ‘펑’  
날짜: 2016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01191547747  
본문: 기존 모바일뱅킹이 영업점에서 취급되고 있는 금융업무를 단순히 모바일로 옮겨놓은 것이라면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는 금융권에서 취급하지 못했지만 고객이 가장 필요로 했던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탑재하고 있다. <br/><br/><br/>지난 5월 은행권 최초 중금리 대출인 위비 모바일대출과 간편송금 서비스 위비페이를 출시한 이후 위비 여행자보험·위비 소호대출·위비 직장인 모바일대출을 연이어 출시했다. 여행자보험과 게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재미를 더했다. <br/><br/>우리은행 위비톡은 5월 말 기준 가입자수 133만명을 넘어섰다. <br/><br/>위비톡은 일반 모바일 메신저에는 없는 펑메시지(일정 시간 지난 후 메시지 자동 삭제), 캡슐메시지(일정 시간 지난 후 메시지 자동 전송), 귓속말(단체 대화방에서 개인적인 대화 가능), 메시지 회수(메시지 발송 후 상대가 읽기 전에 회수 가능) 등을 탑재했다.<br/><br/>외부 IT 전문기업의 책임하에 대화 내용이 해외 서버에 암호화돼 보관된다. <br/><br/>암호화된 대화 내용은 5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더불어 메시지 회수와 펑메시지를 이용해 보낸 메시지는 서버에 보관되지 않는다. <br/><br/>우리은행은 또 은행권 최초로 고객이 재직·소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에서 실행까지 한번에 가능한 무서류 스마트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63.txt

제목: [기타뉴스]어벤져스급 여배우들의 인생작  
날짜: 20160601  
기자: 박경은 기자 king@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01180705814  
본문: 세대공감 드라마로 안방극장에 감동을 불어넣고 있는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tvN·이하 디마프). 이 드라마를 보는 큰 재미 중 하나는 ‘연기란 이런 것’임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명배우들입니다. 이들이 펼치는 연기는 그야말로 향연. 한명 한명 모두 연기에 관한한 레전드급 역사를 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른바 어벤져스 군단이지요. 수없이 많은 작품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쌓아온 이들이지만, 그중에서도 대중적으로 이들을 각인시켰다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을 모아봤습니다. ■나문희=올해 75세인 그는 1961년 성우로 데뷔하면서 연기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연기하면서 주로 그늘에 가려진 역할을 많이 했던 그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작품은 1995년 방송됐던 일일연속극 <바람은 불어도>입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걸쭉한 평안도 사투리를 쓰며 대가족을 휘어잡는 80대 억척 할머니를 연기했고 그해 KBS 연기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듬해엔 백상예술대상도 받았습니다. 당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스스로를 “미모가 떨어지는 탤런트”라고 하면서 “기꺼이 얼굴에 주름살을 그려넣었고 머리를 흰색으로 물들이고 할머니역을 자청했다”고 했습니다. 1996년 방송됐던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MBC)은 ‘연기의 신’ 나문희를 시청자들에게 알려준 드라마입니다. 단막극이라는 점이 아쉬웠을 뿐, 감동의 여운은 무척 강렬했던 작품입니다. 작가 노희경을 세상에 드러내 준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이 드라마에서 나문희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가족들을 뒷바라지하는 헌신적인 며느리자 엄마, 아내로 살다가 어느날 갑자기 암선고를 받게 된 중년 여성 인희를 연기합니다. 자신이 죽은 뒤가 걱정돼 치매 걸린 시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장면은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먹먹해집니다. <br/><br/><br/><br/>2007년 방송됐던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은 젊은 시청층에 배우 나문희를 각인시켰습니다. 가부장적인 남편, 당돌한 며느리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이다가 소심하게 뒷담화를 늘어놓으며 웃음을 주던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 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br/><br/><br/><br/>■김혜자=설명이 필요없는 ‘국민엄마’지요. 196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한 그는 꾸준히 안방극장을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를 국민엄마 반열에 올려준 대표작은 뭐니뭐니 해도 <전원일기>일 겁니다. 여기서 그는 자애롭고 후덕한 어머니상을 보여줬습니다. 최불암과 함께 양촌리 김회장 부부를 연기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은 오랫동안 이들이 실제 부부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전 세대의 공감을 얻으며 최장기간 방영된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br/><br/><br/><br/><전원일기>와 함께 그를 국민엄마 이미지로 각인시킨 또 하나의 원인은 30년 넘게 출연했던 조미료 광고입니다. 그가 광고속에서 했던 “그래 이 맛이야”는 지금도 잘 알려진 유행어입니다. <br/><br/><br/><br/>1991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 김혜자는 삶에 찌들어 있는 어머니상을 보여줍니다. 가부장적인 남편 아래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가족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캐릭터였지요. 그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극중에서 흥얼거렸던 김국환의 ‘타타타’ 역시 이 드라마 덕분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br/><br/><br/><br/>2009년 출연했던 영화 <마더>는 한동안 비슷비슷한 이미지의 캐릭터를 주로 연기해왔던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대중들에게는 일찌기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머니상의 등장을 알려준 작품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모성본능을 보여주며 분투했던 그의 연기는 국내외 영화제에서는 9차례나 수상하는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br/><br/><br/><br/>■고두심 =올해 65세. 김혜자와 함께 국민엄마로 불리는 대표적 배우입니다. 70년대 초반 데뷔해 안방극장에서 활약해 온 그는 지상파 방송 3사 연기 대상 그랜드 슬램을 기록한 유일한 배우이기도 합니다. <전원일기>에서 김회장댁의 듬직한 큰며느리로 사랑받았던 그가 파격적인 변신을 통해 스타로 발돋움한 작품은 1989년 방송됐던 드라마 <사랑의 굴레>입니다. “잘났어 증말~”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고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는 시청자들이 많습니다. 남편(노주현)과 가정교사(김미숙) 사이를 의심하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역할이었는데 그의 연기가 존재감을 발하면서 극을 이끄는 중심이 됐습니다. <br/><br/><br/><br/>1990년 <춤추는 가얏고>는 아마 자타가 공인하는 그의 대표작일겁니다. 국악 명인 일대기를 그린 이 작품에서 그는 가야금 연주는 물론이고 창까지 소화하며 신들린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br/><br/><br/><br/><덕이> <한강수타령> 등 연기대상의 영예를 안겨줬던 작품에서 그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억척스러운 엄마를 연기하며 국민엄마 이미지를 굳혀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압권은 2004년 방영됐던 <꽃보다 아름다워>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치매에 걸린 엄마 영자. 그가 마음이 아프다면서 가슴에 빨간 약을 바르던 장면은 지금도 뭉클하게 기억됩니다. <br/><br/><br/><br/>■윤여정 =데뷔 후 배우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떠났다가 1980년대 후반 복귀합니다. 이후 많은 작품에 출연하면서 대중과의 교감을 넓혀갔습니다. 2009년 개봉된 <여배우들>은 자연인이면서 여배우인 윤여정을 모습을 볼 수 있던 작품입니다. <br/><br/><br/><br/>도회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가진 그는 특히 영화에서 대중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는 배역을 연기했습니다. 흔히들 나이 든 여배우에게 갖는 편견과 선입견을 여지없이 깨뜨렸지요. 대표작은 영화 <바람난 가족>(2003년)과 <돈의 맛>(2012년) 등입니다. <br/><br/> <br/><br/>■김영옥 =올해 일흔아홉인 그는 아마 현재 활동하는 여배우 중 최고령으로 꼽힐겁니다. 성우출신으로, <마징가제트>의 철이 목소리도 그가 연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카랑카랑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김수미와 함께 욕쟁이 할머니의 대표격으로 불리는 그는 속시원히 욕을 뽑아내는 모습이 힙합가수 에미넴을 연상시킨다 하여 ‘할미넴’이라는 애칭도 얻었습니다. 그가 출연했던 장면을 패러디한 UCC가 수없이 만들어진 덕분에 아마 젊은 층에게 가장 잘 알려진 노배우일지도 모릅니다. <br/><br/>그의 욕설 연기를 대중화시켰던 작품은 2004년 <올드미스 다이어리>입니다. ‘옘병 땀병에 속병이 걸려/ 땀통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고’ ‘야이 시베리아들아/귤이나 까라/이 십장생들아’ 등 기상천외한 욕을 찰지게 구사했습니다. <br/><br/><br/><br/>이에 앞서 1997년 방송됐던 <내가 사는 이유>가 더 원조일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인 서민드라마였던 이 작품에서 그는 실성한 동생을 돌보는 욕쟁이 할머니 김숙희로 출연했습니다. 남편의 폭행 때문에 어린아이같은 지능이 된 동생 김숙자는 나문희가 연기했지요. 이 두자매의 연기는 정말 상상초월이었습니다. <br/><br/><br/><br/>■박원숙 =잔잔하게 흐르던 드라마에 배우 박원숙이 등장한다면? 순탄하던 우리 여주인공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 같은 느낌, 누구나 한번쯤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그는 못된, 아니 저승에서 올라온 듯한 시어머니의 대명사가 된 배우입니다. 사실 애교있고 철없는 중년여성 역할도 무척 멋들어지게 소화하는 배우입니다만 어떤 캐릭터도 그가 연기하는 악랄한 시어머니를 넘어서지는 못할 듯 합니다. 아마 그중 최고는 2007년 방송됐던 <겨울새> 아니었을까요. <br/><br/><br/><br/>하지만 80년대만해도 그는 <한지붕 세가족>에서 밝고 당당한 순돌이 엄마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가족이 순돌이네집이었죠. 여기서 임현식씨와 부부로 출연했습니다. 이 인연 때문인지 가상결혼 프로그램에서 이들은 다시 부부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지요. <br/><br/><br/><br/>아마 그가 맡은 최고의 반전 캐릭터는 2014년 방송됐던 <운명처럼 널 사랑해>일 겁니다. 그는 별 볼 일 없는 손녀며느리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사랑을 아끼지 않는 정많은 할머니로 등장했지요. 당시 그의 등장을 두고 많은 시청자 게시판에는 “언제쯤 시월드가 펼쳐지나요” 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br/><br/><br/><br/><br/><br/><br/> ‘향이네’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소식을 접하세요!(▶바로가기)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64.txt

제목: 칼슘 풍부한 우유, 하루 반컵씩만 마셔도 대장암 위험 ‘뚝’  
날짜: 20160601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601155436522  
본문: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하루 반 컵 정도만 꾸준히 마셔도 대장암 발생 위험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정책학과 김정선 교수는 1일 ‘우유와 암’을 주제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낙농진흥회·한국식품건강소통학회 공동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후원으로 열렸다.<br/><br/>김 교수는 2007∼2014년에 성인 남녀 2769명(대장암 환자 923명, 건강한 일반인 1846명)의 우유와 칼슘 섭취량을 비교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대장암 환자의 하루 우유 섭취량은 49㎖로 건강한 사람(63㎖)의 78% 수준이었다. 1일 칼슘 섭취량도 대장암 환자(454㎎)가 건강한 사람(462㎎)보다 약간 적었다.<br/><br/>우유를 하루 101㎖(약 반 컵) 이상 마시는 사람은 우유를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54%나 낮았다. 이는 우유를 하루 반 잔 이하만 꾸준히 마셔도 의미 있는 대장암 예방 효과를 얻게 된다는 의미다. 매일 우유를 29∼101㎖ 마신 사람도 우유를 29㎖ 이하 마신 사람에 비해선 대장암 발생 위험이 44% 낮았다.<br/><br/>연구팀은 “우유가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 것은 우유에 풍부한 칼슘 덕분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칼슘 섭취가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정확한 이유는 아직 잘 모른다. 칼슘이 염증과 담즙산의 자극으로부터 대장 상피세포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br/><br/>이날 심포지엄에서 국제낙농연맹(IDF) 주디스 브라이언스 박사는 “<span class='quot0'>우유·유제품은 가장 값싼 칼슘 공급원이며 어린이·성인이 섭취하는 전체 칼슘의 47%, 비타민 D의 65%를 보충해준다</span>”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대 의대 사토시 사사키 교수(예방역학과)는 “<span class='quot1'>칼슘은 대장암 방어 효과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대장암 예방을 위해 칼슘이 풍부한 우유 섭취를 권장할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65.txt

제목: 30만 독자 인생 바꾼 김수영의 , 6년 만에 재출간  
날짜: 201605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31120306464  
본문: 30만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김수영 저자의 베스트셀러 가 6년 만에 재출간됐다.<br/> <br/>지난 2010년 발간됐던 는 드라마틱한 인생의 주인공 김수영 저자의 좌충우돌 스토리와 73개의 꿈을 담은 에세이로 무려 30만부나 판매됐다. 중학교 중퇴, 검정고시, 실업고 출신 최초 KBS ‘도전골든벨’ 우승, 연세대 입학, 세계 최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입사, 갑작스러운 암 선고, 73개의 꿈 목록 작성, 런던행, 세계 매출 1위 기업(2008년 선정) 로열더치셸 영국 본사 입사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김수영 저자의 인생스토리는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다.<br/> <br/>이번에 재출간되는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플러스 에디션'은 지난 6년 간 저자가 어떤 꿈을 이루고 어떤 꿈을 새로 추가해 도전하고 있는지 보다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업데이트했다.<br/> <br/>김수영 저자는 “<span class='quot0'>책 발간 후 처음 몇 년간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간절히 조언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꿈을 쓰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사 이메일을 받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여전히 꿈에 목말라하고 삶에 지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커진 나의 경험들과 깨달음을 나누고 싶었다</span>”고 플러스 에디션을 펴내게 된 이유를 밝혔다.<br/> <br/>에서는 여전히 꿈에 목말라하며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김수영 저자의 지난 6년간의 변화된 모습과 가치관, 경험들을 만나볼 수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66.txt

제목: “담배의 금단증상보다, 지금의 고통이 훨씬 견디기 힘들어”  
날짜: 20160530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30213059108  
본문: ㆍ세계 금연의날 맞아 한국 찾은 미국 ‘금연광고’ 출연 숀 라이트<br/><br/><br/><br/>“지금 겪는 고통을 생각해보면 담배를 끊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플 줄 알았더라면,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거예요.”<br/><br/>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금연캠페인 ‘과거 흡연자의 조언(Tips)’의 출연자 숀 라이트(55·사진)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세계 금연의 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br/><br/>라이트는 14세 때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담배를 배웠고 40대 중반에 인후암 판정을 받은 뒤 후두를 제거했다. 수술 후 라이트는 코 대신 목에 뚫린 동전만 한 숨구멍을 통해 숨을 쉰다. 말을 할 때는 이 구멍을 막아야 거친 목소리가 나온다. 아마추어 밴드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도 없다. 그는 “수술한 지 7년 정도 됐지만 아직 불편함이 없어지지는 않았다. 담배를 끊을 때 느꼈던 금단증상보다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이 훨씬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br/><br/>그는 2012년부터 CDC의 증언형 금연광고에 출연해 숨구멍을 뚫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 공개했다. 샤워할 때 숨구멍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구멍 안을 매일 두 번씩 닦아 내야 하는 일상을 보여주며 금연을 실천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했다. 라이트는 “만약 암에 걸리기 전에 담배를 끊도록 도움받을 수 있었다면 나는 후두 제거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며 “내 모습을 광고에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자존심을 잠시 접고 출연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 동료 4명을 금연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얼굴은 모르지만 내가 도운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하면 기쁘다”고 덧붙였다. <br/><br/>라이트는 “담배를 끊고, 금연광고를 촬영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며 “한국 남성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들었는데 나에게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br/><br/>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도 이르면 연말부터 증언형 금연광고를 도입할 방침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67.txt

제목: 30대 여성 암환자 7명 중 1명은 자궁경부암  
날짜: 20160529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29161034103  
본문: 30대 여성 암환자 7명 중 1명은 자궁경부암 환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의 자궁경부암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해 29일 이같이 밝혔다.<br/><br/>지난해 자궁경부암 환자수는 40대가 전체의 27.7%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25.0%로 뒤를 이었다. 40대~50대 환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2.7%를 차지한 것이다. 60대는 14.5%, 70세 이상은 9.1%를 차지했다. 40~50% 환자가 절반을 넘는 셈이다. 지난해 자궁경부암 진료인원은 5만4603명, 총 진료비는 856억원이었다.<br/><br/>환자수는 40~50대가 많았지만 전체 여성 암환자 중 자궁경부암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자궁경부암 환자는 전체 연령대의 자궁경부암 환자 중 19.9%로 40~50대보다는 낮았지만, 이 연령대의 여성 암환자 중 자궁경부암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9%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여성 암환자 중 자궁경부암 환자의 비율인 7%의 두 배가 넘는다. 20대 여성 암환자 중에서 자궁경부암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1.9%로 나타났다.<br/><br/><br/><br/>심평원은 “<span class='quot0'>20대와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궁경부암 환자가 많지 않지만, 전체 암환자 중 자궁경부암 환자의 비율은 높은 편</span>”이라며 젊은 연령대에서도 자궁경부암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br/><br/>자궁경부암은 자궁 입구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질 출혈과 분비물 증가가 주요 증상이다. 매년 사망자도 900여명에 이른다. 다른 암과 달리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다. 암이 되기 전인 ‘전암 단계’가 7~20년까지 지속돼 정기검진으로 조기진단이 가능하고 조기진단시 완치율이 높아 정기검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br/><br/>자궁경부암은 2년 주기로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암 검진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이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12~13세 여성 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68.txt

제목: “나같이 되기 전에…” 증언형 금연광고 도입 추진  
날짜: 20160529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29142916809  
본문: 숀 라이트가 등장한 미국의 금연광고 ‘과거 흡연자의 조언’.<br/>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br/><br/>미국 워싱턴주에 사는 요리사 숀 라이트(55)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금연캠페인 ‘과거 흡연자의 조언(Tips)’의 주인공 중 한 명이다. 30년간 담배를 피우다 40대 중반에 인후암에 걸린 그는 텔레비전 광고영상 속에서 목에 동전 크기의 숨구멍을 뚫은 채 지내며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목소리조차 잘 나오지 않는 암 수술 후의 일상을 담담히 보여준다. 온몸으로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다. “<span class='quot0'>담배를 끊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span>”<br/><br/>흡연으로 병에 걸린 사람이 직접 나오는 금연광고가 이르면 올해 말 한국에도 등장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담뱃갑 경고그림이 도입되는 12월에 맞춰 ‘증언형 금연캠페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증언형 금연캠페인은 흡연 피해를 경험한 흡연자가 직접 광고에 출연해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금연캠페인 방식이다.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가격 금연정책의 하나다.<br/><br/>복지부는 앞서 ‘폐암 주세요’라는 문구를 담아 흡연의 해악을 단적으로 강조했던 금연광고보다 한층 더 구체적으로 흡연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br/>미국은 2012년 암이나 뇌졸중 등 흡연으로 인한 질환자나 임산부, 금연성공자 등이 자신의 사례를 밝히는 증언형 금연캠페인을 도입했다. 그 결과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이 12% 상승했고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고하는 비율이 2배 늘어났으며 1만7000여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CDC는 밝혔다.<br/><br/>대한금연학회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30일 ‘세계 금연의 날 특별 국제 세미나’에 CDC 금연홍보 책임자들과 금연캠페인 출연자를 초청해 증언형 금연캠페인 도입을 논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전문가단체 등과 협력해 한국 여건에 맞는 증언형 금연캠페인을 준비하겠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69.txt

제목: 한국에도 ‘키트루다’ 같은 면역항암제 있다.  
날짜: 201605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27121734199  
본문: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최근 국내에서 세포폐암 치료제로 식약처 판매허가를 받았다. 국내 폐암환자들이 드디어 면역항암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항암치료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br/><br/>특히 키트루다는 최근 뇌 전이 흑색종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투여받아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키트루다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지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메커니즘으로, 암 세포 자체를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들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다.<br/><br/>한편 키트루다와 같은 면역항암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방 암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한방업계에서는 암세포의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진 옻나무추출물로 만든 면역치료제가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다.<br/><br/>티버스터 역시 옻나무추출물로 만든 대표적인 한방항암제 중 하나. 티버스터는 극히 적은 부작용으로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치료제로 양방과 병행 치료시 큰 효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r/><br/>티버스터의 암세포 사멸 효능은 국제 SCI급 저널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서 인정받기도 했다. '치종단의 A549 비소세포성폐암주에서의 항암기전'을 주제로 한 논문이 국제저널에 실리면서 세계적으로도 한방암치료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br/><br/>국내에서는 하나통합한의원에서 한방암치료제 치종단II-티버스터 치료를 진행, 암환자의 높은 암세포 사멸효능을 선보였다. 하나통합한의원 김보근 원장은 "옻나무추출물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무자멸사를 유도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다"면서 "바로 이 추출물로 만든 암 치료제들은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 암세포 소멸을 돕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키트루다나 티버스터 같은 면역항암제들이 암 치료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무조건적인 양방치료 보다는 한방과의 적절한 조화 치료를 통해 효과를 보는 것이 현명한 암 치료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한방 치료를 병행할 시 암세포 유효반응율이 80%까지 증가한다"고 부연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70.txt

제목: 환자와의 ‘교감과 인연’ 대학병원 교수들 수필집  
날짜: 20160526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26224535619  
본문: 30년 이상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연구·교육에 매진한 대학병원 교수들의 수필집 두 가지가 최근 나왔다.<br/><br/><br/>정준기 서울대병원 교수(63·핵의학과)의 4번째 수필집 <의학의 창에서 바라본 세상>과 김남규 연세암병원 교수(60·대장암센터 대장항문외과)의 <당신을 만나서 참 좋았다>이다. <br/><br/>갑상선(샘)암 핵의학 치료의 권위자이며 서울대병원 의학역사문화원장을 지낸 정 교수는 그동안 의학자이자 수필가로서 의료현장과 일상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는 글을 계속 써왔다. <br/><br/>지난 세 권의 수필집이 대부분 개인의 자전적인 내용이라면, 이번 책에는 주로 의료현장에서 얻은 생각이나 논리·감상 등을 담았다. 의학과 예술과 인문학, 의학자로서의 생활, 환자와의 교감 등 다양한 세상사를 이야기한다.<br/><br/>대장암 수술의 권위자인 김 교수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환자의 마음을 다독인다. 새롭게 투병의지를 다지며 희망을 스스로 찾는 환자는 분명 자신이 기꺼이 따라가야 할 소중한 인연이었다고 김 교수는 말한다. 김 교수의 책은 귀한 삶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인세 전액을 환자들을 돕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71.txt

제목: [의술인술]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생각할 때  
날짜: 20160526  
기자: 곽재용 ㅣ 전북대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26224534984  
본문: 정확히 3개월 만이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 씩씩한 50대 남성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목사님이다. 6년 전에 만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비자를 내주지 않아 관광비자로 3개월마다 미얀마에 재입국해가며 목회활동을 하고, 귀국할 때마다 진료와 처방을 받으신다. 바쁜 분이라 서로 상의한 후 환자의 생활 패턴에 맞는 약물을 선택했다. 현재는 암 유전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약물을 반절로 줄이고도 의학적으로 ‘완전분자생물학적 관해(소멸된 상태)’이다.<br/><br/>‘백혈병 환자가 이렇게 외국을 자주 오가며 일을 해도 괜찮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드라마와 영화에서 백혈병은 ‘생명이 위독한 불치병’이라고 봐왔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표적항암제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며, 치료제 복용을 통해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다.<br/><br/>만성골수성백혈병이 장기간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되면서, 환자들도 일반인들과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한다. 학업과 직장생활뿐 아니라 취미, 여행, 여가활동 등을 병행하는 환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제는 환자들의 삶의 질이 중요한 치료의 목표가 되었다.<br/><br/>물론 이런 생활은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치료제를 꾸준히, 안정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필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상당수의 환자들이 치료제를 제때, 제대로 복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혈병 환우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환자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치료제 복용을 잊은 경험이 있으며, 일부러 약을 먹지 않은 경우도 10명 중 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그동안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치료제의 부작용, 당뇨병·고혈압 등 동반질환 관리에 대한 부담, 일상생활 속에서 지키기 어려운 복용법 등이 지적됐다. 하지만 1세대 표적항암제 대비 치료효과와 안전성이 개선된 2세대 표적항암제 등장으로 치료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특히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1일 1회 복용이 가능한 치료제도 도입된 만큼, 치료제 복용과 관련한 어려움은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해졌다.<br/><br/>치료제 복용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은 이를 방치하거나 자의적으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주치의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완벽한 약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생활 습관과 기존 몸 상태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맞는 약을 우선 선택해서 복용하는 것이 좋다. 오늘날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의 고민이 치료 그 자체를 넘어 삶의 질 향상에까지 미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br/><br/>보다 많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치료제 복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질환을 관리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72.txt

제목: 남캘리포니아 호남향우회, 화순전남대병원 방문 ‘고감도 교류다짐’  
날짜: 20160525  
기자: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25180824771  
본문: 미국 남캘리포니아 호남향우회(회장 조시영) 임원진이 화순전남대병원(원장 김형준)을 방문했다.<br/><br/>화순전남대병원은 “<span class='quot0'>조 회장을 비롯, 차철영 이사장과 차종환 초대 회장 등 방문단이 19일 화순전남대병원을 찾아 더욱 적극적으로 친선교류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span>”고 밝혔다.<br/><br/>조회장 일행은 우수한 의료역량과 첨단의료 설비를 살펴보며 큰 관심을 보였다. 병원 측은 “조 회장 등이 숲으로 둘러싸인 자연과 ‘치유의 숲’ 등에서 쉬고 있는 환자를 보고 미국병원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동부와 서부한인회장을 지낸 조회장은 “<span class='quot1'>탄탄한 암치료 실력과 저렴한 의료비, 자연환경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이 병원의 의료수준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상징적인 지표로 손색이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미국 동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span>”고 강조했다. <br/><br/>남캘리포니아 호남향우회는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100여만명 가운데 25만명이 넘은 호남권 재미동포들의 모임이다. 해외 호남 향우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br/><br/>이 향우회는 2001년부터 매년 호남권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등 고교생 20여명을 미국으로 초청, 향우회원 가정에 머물며 각종 체험·견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73.txt

제목: [여적]자살보험금  
날짜: 20160523  
기자: 안호기 논설위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23212043620  
본문: 죽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4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자살(고의적 자해)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이어 네번째였다. 보험개발원 사망보험금 지급 통계에서도 10년 전 10위권 밖에 있었던 자살은 최근 4위로 뛰어올랐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자살률 1위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이후 5년간 한국의 자살자는 시리아 내전에서 사망한 민간인 수와 비슷하다.<br/><br/>스스로 목숨을 끊더라도 보험에 가입했다면 생명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 후 2년 이내는 보험회사 면책기간으로 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나 범죄일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면책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다. 국내 생보사들은 약관에 자살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는, 실제로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논란을 샀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에 비해 보험금이 2~3배 많다.<br/><br/>논란은 소송으로 번졌고 대법원은 최근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보험은 자살이라도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4개 생보사가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은 2980건, 지연이자를 합한 보험금은 2465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생보사들은 별도로 진행한 소송의 1심 재판에서 보험금 청구 시효인 2년이 지난 계약에 대해서는 자살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들어 여전히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br/><br/>그러자 금융감독원이 생보업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소멸시효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생보사의 행태에는 “민법상 판단에 앞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법리 해석에 앞서 생보사가 지켜야 할 높은 수준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span class='quot0'>고객 신뢰가 무너진다면 보험회사는 존립할 수 없다</span>”고도 했다. 업계 편을 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금감원이 모처럼 금융 소비자 보호 기치를 높이 들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74.txt

제목: 5월 가정의 달, 가족을 위한 건강검진 실천하자  
날짜: 201605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23122934139  
본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 지자체에서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실천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br/>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는 오는 31일까지 ‘가족사랑 건강검진’ 캠페인을 실시해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고 논산시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해, 건강검진을 독려하고 있다.<br/> <br/>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종류는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암검진 및 영유아검진으로 구분된다. 건강검진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필수 검사항목을 선택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br/> 20~30대의 경우 혈액 및 소변 검사, 복부 초음파, 상부 위장 검사 등 간단한 기본 검사 항목이 포함된다. 40~50대는 중증 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기본 검진 항목 외에 CT 촬영, 심장 초음파 및 뇌혈류 검사, 폐 검사, 대장내시경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br/> <br/>또한, 암검진은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에 대하여 연령별, 성별로 구분 실시한다. 특히 올해 간암 검진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연령이 만 30세 여성에서 20세 여성으로 확대 됐다. 일반적인 검진 연령은 위암·간암은 40세 이상 남녀,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이다.<br/> <br/>암 검진은 국가암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의료기관에서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검진 가능하다. 암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5대암(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암)은 간단한 방법으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경우, 약 90% 완치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연세허수범내과 건강검진센터 허수범 원장은 “<span class='quot0'>건강검진의 가장 큰 목적은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특정한 질병을 조기에 진단, 발견해 조기 치료하는 것이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건강검진을 통해 특히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에 조기에 예방하고, 각종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br/> <br/>이어서 허 원장은 “ 건강검진은 병의 유무를 밝히는 것은 물론 음주, 흡연 등 평상시의 건강습관을 분석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첫 걸음이므로 건강 적신호를 느끼지 않더라도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75.txt

제목: 유방암 수술 합병증 오십견, 암 재발 검사 통해 검진 가능  
날짜: 20160522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22080720870  
본문: 유방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인 오십견(유착성 관절낭염)을 유방암 재발 검사를 통해 검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br/>22일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핵의학과 전태주, 재활의학과 박중현 교수팀에 따르면 유방암 수술 후 펫시티(PET-CT)를 시행한 환자들의 핵의학 영상을 분석한 결과 PET-CT를 통해 어깨 합병증도 함께 발견할 수 있다.<br/><br/>연구팀은 유방암 수술 후 PET-CT 검사를 받은 230명 중 어깨 관절에 당대사가 증가된 22명의 영상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어깨 관절 구축이 심할수록 어깨 관절의 당대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원래 PET-CT는 암 검진에 많이 쓰이는 검사다. 암이 있으면 그 부위의 당대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검사를 통해 원발암의 위치 및 대사활성을 평가할 수 있다. 또 수술 후 재발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방암 수술 환자는 수술 전뿐 아니라 수술 후에도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T-CT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br/><br/>이번 연구는 유방암 수술 전후에 시행하고 있는 PET-CT 영상의 어깨 관절부위를 면밀하게 분석하면 유방암의 재발뿐만 아니라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어깨 합병증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로, 유방암 수술 후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br/><br/>박중현 교수는 “<span class='quot0'>유방암 수술 후 발생하는 2차성 유착성 관절낭염은 환자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유방암 전문의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span>”면서 “<span class='quot0'>PET-CT 검사에서 어깨의 이상이 발견된다면 전문의 진료를 통해 합병증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76.txt

제목: 옥시 사태로 본 산학협력, 이대로 괜찮을까?  
날짜: 20160521  
기자: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21152934577  
본문: 국내에서는 산학협력에 대한 강조는 있어도, 편향된 연구에 대한 윤리적 논의는 찾기 어렵다. 기업이 의뢰하는 산학협력에서 교수는 연구비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을’의 입장이 된다. ‘산학협력의 민낯’을 들여다봤다.<br/><br/><br/>서울의 한 공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ㄱ씨는 대학원 시절은 ‘프로젝트’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란 한국연구재단이나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연구과제를 맡겼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년 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법에 관한 과제였다. ㄱ씨는 본인의 석·박사 학위논문과 관련한 연구는 밤으로 미뤄두고 낮에는 기업 사람들과 지방 출장을 가거나 프로젝트를 위한 실험에 몰두했다. 기업 관계자들을 공저자로 올려 논문을 쓴 적도 있었다. “<span class='quot0'>프로젝트가 있어야 연구실이 돌아가고 내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span>” ㄱ씨는 “<span class='quot0'>연구실에서 ‘프로젝트가 성사돼야 후배를 받는다’는 말을 종종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내가 공부하러 학교 다니는 것인지, 프로젝트 하러 학교 다니는 것인지 헷갈렸지만 이 돈이 아니면 연구실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데, 어쩔 수 없었다</span>”고 말했다. <br/><br/>“연구실에 따라 끊임없이 프로젝트만 연속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그것도 교수랑 친분 있는 기업에서 계속 주는 것으로요. 교수는 돈을 버는데 제자들은 자기 논문 못 써서 30대 후반까지 졸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학생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는지, 기업과의 관계에서 양심을 어떻게 지키는지는 전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양심에 달렸다. ㄱ씨가 맡은 프로젝트는 공사기한이나 안전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ㄱ씨는 “아무래도 연구비를 주는 쪽의 눈치를 보게 돼 있다”며 “양심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으로부터 직접 연구비를 받지 않는 방법 아닐까요”라고 말했다. 대학원생은 프로젝트를 거머쥔 지도교수와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기업에 이중의 눈치를 본다. 공부를 지속하기 위한 대가다. <br/><br/>디자인을 전공한 ㄴ씨는 대학교 3학년 때 학내 연구소 소속으로 한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 파트너가 된 기업은 연구소를 이끄는 교수와 친분이 있는 곳이었다. 제품이 기획되는 단계부터 제작,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ㄴ씨가 생각하는 장점이었다. 단점은 ‘일을 너무 힘들게 시킨다’는 점이었다. “배운 것을 현장에서 써먹는다는 재미가 있었고, 또 취업할 때 교수의 추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 하지만 뒤늦게 생각해 보면 노예처럼 일한 것도 같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연구소와도 얼마든지 디자인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대학 입장에서는 평가받는 입장이라 사활을 걸고 일을 해야 했다. ㄴ씨는 결국 건강이 상해 4학년 때는 휴학했다. 학교에서는 ㄴ씨의 인턴 활동을 취업률에 집계했다. <br/><br/>신기술 개발과 중소기업 지원, 맞춤형 대학교육 실현. 정부에서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산학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이유다. 대학원생들의 노동과 연구비 의존 등은 산학협력의 또 다른 ‘민낯’이다. 2011년 옥시레빗벤키저가 독성학을 전공한 서울대와 호서대 두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별도의 자문료를 주고 유리한 보고서를 쓰게 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적발되면서 연구자의 윤리문제 역시 산학협력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옥시는 이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지적을 반박하는 자료로 사용했다. <br/><br/>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해마다 대학들의 산학협력 활동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한다. 산학협력단의 운영수익, 학내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인력의 규모, 현장실습, 특허출원 및 기술사업화, 창업지원 등이 주요 지표다. 박근혜 정부 이후로는 공동 연구개발에 이어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기술료 수입을 얼마나 올리는지가 산학협력의 주요 잣대가 됐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4년 대학 산학협력 조사에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span class='quot1'>2014년 전체 대학이 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건수는 3262건으로 2010년 대비 2배 증가했고, 기술료 수입은 576억원으로 1.5배 증가했다</span>”며 “<span class='quot1'>특히 대학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이 최근 5년간 2배 늘었다</span>”고 평가했다. 독자적인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신 대학이 기술을 개발하고 이전해주는 것이 현 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 밑그림이다. <br/><br/>문제는 산학협력이 대학의 자율이 아니라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평가지표를 발표하면서 대학들 간 ‘기술료’ 경쟁을 벌이게 됐다. 기술 이전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내야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K) 등에 계속 재선정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br/><br/>2012년 시작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대학 체질을 산업친화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5월 16일 발표된 지난해 평가에서는 87개 대학 중 22개교(일반대 13교, 전문대 9교)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43개교(일반대 31교, 전문대 12교)는 ‘우수’ 등급을, 22개교(일반대 13교, 전문대 9교)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대는 학교당 약 24억5000만∼56억5000만원을, 전문대는 4억7000만∼8억4000만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등급 한 단계에 따라 수십억원이 오가는 상황에서 대학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br/><br/>서울의 한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자(포닥) ㄷ씨는 “박사 후 연구자들 임금으로 지급돼야 할 돈의 50%가 삭감해 지급됐다. 나머지는 기술료 이전 수입으로 채우라는 격이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는 실적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분야상 기술 이전에 적합한 연구소가 있고, 그렇지 않고 기초과학에 더 투자해야 할 연구소들이 있는데 모두 기술 이전 실적을 채우라는 경쟁에 내몰리니 연구소마다 다양성이 사라지고 개성을 잃는다</span>”고 말했다. 실적 경쟁은 한국 특유의 지연·학연 문화와 결합한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ㄹ씨는 “<span class='quot2'>기술료를 이전받는 기업은 대부분 교수들과 친분이 있는 곳</span>”이라며 “<span class='quot2'>특히 중소기업이라면 그렇지 않고 어떻게 기술 이전을 받겠나</span>”라고 말했다. <br/><br/><br/><br/>기술료뿐 아니라 특허출원도 교육부가 발표하는 평가지표 중 하나다. 2014년 해외 특허출원은 3008건, 국내 특허출원은 1만6984건이라고 교육부는 발표했다. 2010년 대비 각각 58.8%, 51.6% 증가한 수치였다. 정부는 논문 중심의 양적 평가가 공학 전공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일자 특허출원을 하나의 지표로 추가했다. 그러나 ㄹ씨는 “특허출원이 갑자기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허수가 많다는 얘기다. 지표로 삼으니까 사소한 것까지 이것저것 특허출원하는 것이지 내실 있는 경쟁력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br/><br/>산학협력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대학의 중요한 업적으로 부각된다. 교육부의 2014년 사례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이 네이버에 5년간 외국어 사전 콘텐츠 및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 기술이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공계뿐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산학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였다. 2008년 한양대를 필두로 연세대, 서울대 등 대학들이 직접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례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외부 기업과 합작 형태로 기업을 만들거나 대학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한다.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는 대학들은 연구개발 사업화 수익으로 학교 연구환경에 재투자해 연구역량을 높인다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다. 서울대의 경우 SPC와 합작해 우유제품을 개발해 서울대 학내 매점과 파리바게트, 던킨 도너츠 등에 납품하고 있다. 대학과 기업의 경계는 점차 흐릿해져가는 추세다. <br/><br/>이런 분위기에서 대학 연구성과의 상업화에 이견을 내기는 쉽지 않다. 지방 사립대에서 근무하는 교수 ㅂ씨는 “대학의 기능이 실적을 내고, 수익을 올리고, 돈을 많이 버는지가 중요한 잣대가 되는 상황에서 기업에서 들어오는 연구실적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지방 사립대의 경우 재정지원도 열악하고 학교 측의 요구도 높아 연구자 개인은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가에서 벌어지는 ‘묻지마 산학협력’의 개념이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무디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span class='quot0'>‘옥시 보고서 조작사태’도 이 같은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겠느냐</span>”고 ㅂ씨는 전했다. <br/><br/>기업과 연계된 대학의 활동이 시민건강이나 공공정책에 편향되게 개입한다는 실례는 널리 알려져 있다. 2001년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인체에 축적돼 있는 살충제와 중금속에 관한 보고서를 내자 하버드대 위험평가센터는 “유해성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하버드대 위험평가센터가 재원 60%를 기부 등의 형식으로 화학약품 제조사로부터 조달 받는다는 사실이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로 알려져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됐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플로리다 주정부의 교도소 민영화 정책을 옹호하는 자문을 해온 플로리다대학 범죄학과 찰스 토머스 교수가 사설 교도소 업체로부터 300만 달러의 자문료를 챙겼다는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폭로됐다. 토머스 교수는 사설 교도소 업체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의회에 나서 교도소 민영화 정책을 옹호하는 증언도 해 미국 사회에 파문이 일었다. 예일대 연구자들이 2003년 1140건의 임상연구를 조사한 결과 암이나 관절염, 콜레스테롤 등 기업의 후원을 받은 연구는 그렇지 않은 연구에 비해 후원 기업에 유리한 연구 결과를 내리는 경우가 유의미하게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대학주식회사>, 제니퍼 위시번)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과 연계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옥시 가습기 보고서’는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구속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 역시 “<span class='quot3'>서울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의뢰받은 용역</span>”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r/><br/><br/><br/>국내에서는 산학협력에 대한 강조는 있어도 이런 문제에 대한 윤리적 논의는 아직 초보 단계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교수신문> 논설위원)는 5월 9일 <교수신문>에 실린 ‘가습기 살균제만큼 위험한 산학협력’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기업이 의뢰하는 용역 연구 형태로 진행되는 산학협력에서 교수는 연구비를 제공하는 기업에 무기력한 ‘을’의 입장이 된다. 기업이 요구하는 연구 결과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진정한 연구개발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산학협력을 자신들의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불성실한 기업도 넘쳐난다. 교수들은 그런 기업에 정부의 지원금을 확보해 주는 거간꾼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산학협력이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나빠진다. 자칫하면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고 범죄자로 추락해버릴 수도 있다”고 썼다. <br/><br/>정부는 5월 12일 청와대에서 첫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열었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민간전문가들과 정부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로, 지난 3월 신설한 조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여해 “<span class='quot4'>기존의 추격형 연구개발(R&D) 전략은 낡은 방식인 만큼 국가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span>”고 밝혔다. 선진국의 연구개발 성과를 쫓아가는 모델(추격형 모델)에서 벗어나 R&D 정책을 정비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소별로 기능을 나눠 대학은 민간이 하기 힘든 중장기 기초·원천 연구를, 출연연구소는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를, 기업은 당장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제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수립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프라임 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 등 산학협력을 실적으로 연계해 평가하는 교육정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R&D 전략회의에서도 중소기업과 대학의 기술 이전과 연구업적은 강조했지만 연구윤리에 대한 정책은 보이지 않았다. <br/><br/>기형아 대량 출산의 재앙을 막은 ‘탈리도마이드 사태’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상업화된 연구로 인한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1952년 서독의 제약회사 그뤼넨탈이 개발한 입덧방지제 탈리도마이드는 전 유럽에 날개돋친 듯 팔렸다.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은 탈리도마이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수입을 불허했다. 이 약의 심사를 맡은 프랜시스 켈시는 승인을 거절했는데, 켈시 박사는 사람에게는 수면제로 작용하는 탈리도마이드가 동물에게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겨 쉽게 판매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임신 후 42일 이전에 이 약을 복용하면 100%로 사지가 없든지, 사지가 있어도 매우 짧고 손·발가락이 모두 없거나 소실된 기형아를 출산하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그뤼넨탈의 후원을 받은 학자들이 탈리도마이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보고서를 생산했다는 사실도 켈시 박사가 꼼꼼하게 본 덕분이었다. 전 유럽에서 8000명 이상의 기형아가 출생했으나 미국에서는 탈리도마이드에 의한 기형아는 17명밖에 생기지 않았다. 기업의 재정지원이 활발한 상황에서 대학 내부에서 애초에 연구자의 독립성을 지킬 방법은 미국에서도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span class='quot5'>현재 산학협력 학자적 양심 지킬 안전장치 없다</span>”<br/><br/><br/>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두고 “<span class='quot5'>정부가 대학에 강요하는 산학협력이 연구자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사건</span>”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5'>현재의 산학협력에는 학자적 양심과 연구의 공공성을 지킬 만한 안전장치도 없고,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마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5'>정부는 대학에 산학협력을 강요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산학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span>”고 말했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br/><br/>옥시 보고서 사태에서 산학협력의 문제를 끄집어냈다. <br/><br/>“산학협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대학과 기업이 합작해 신기술을 개발하는 방식과 기업이 대학에 자신들이 원하는 연구 결과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꿈꾸는 산학협력이란 전자이지만 대부분의 산학협력은 후자의 형태로 일어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다. 기업이 의뢰하는 용역 형식의 연구도 보통은 포장된 형태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반드시 선의를 갖고 대학에 투자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옥시의 보고서 의뢰와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br/><br/>기업은 직접 연구비를 주는 방식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도 연구에 개입하는가. <br/><br/>“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급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정부 등에서 결정한 연구과제가 일선 대학으로 내려오는 톱 다운(top down) 방식과 연구자들이 계획서를 올리고 연구재단에서 심사해 연구비를 지급하는 바텀 업(bottom up) 방식이 있다. 톱 다운 방식의 경우 기업 대신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생산하도록 압력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인문사회계열의 정책 연구과제에 많이 나타난다. 4대강 사업처럼 정부 국책과제에 이미 대기업이 끼어 있는 경우도 많다. 바텀 업 방식의 경우 연구자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되지만, 연구재단의 재정지원을 노리고 개별 연구자에게 접근하는 기업들도 있다.” <br/><br/>대학이 지식생산을 요구받는 시대에 산학협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아닌가. <br/><br/>“대학교육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 대학은 연구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다. 대학에서의 연구는 연구자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다. 학생이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풀어낼지 스스로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연구자를 길러내기 위한 연구’의 첫 단계이다. 이때 학생의 연구는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연구다. 교수가 경험적으로 조언도 하고 좌충우돌하면서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학생이 보면서 배운다. 나중에 학생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결과를 내면 다른 동료들에게 검증받는 과정을 거친다.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고 피드백에 대응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산학협력 과제에서의 연구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기업 혹은 정부 등 ‘프로젝트의 발주자’들이 먼저 정해준다. 이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탐구하는 과정은 비효율로 치부된다. 대학원생들은 각각 쪼개져 교수의 전체 연구작업의 각 부분적 기능만을 수행한다. 이것은 연구자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다. 실적 위주의 한국의 산학협력 체제는 이런 교육을 강제하고 있다. 기업화가 극심하다는 미국의 대학도 대학원 과정에서 이러지는 않는다. 적어도 교육의 기능 자체는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br/><br/>교수 입장에서 산학협력제도는 무엇이 문제인가. <br/><br/>“한국 사회는 투명하지 않다. 이 점을 전제로 하여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실하다. 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 은행은 그 기업에 대해 파악할 수단, 대차대조표, 장부 등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산학협력 체제에서 연구자가 기업에 대해 파악할 방법이 없다. 질 나쁜 기업이 연구자에게 접근해 정부 예산을 타먹거나 기술성과를 연구자를 배제하고 독점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산학협력에 대해서는 대학 스스로가 목표를 설정하고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정해주는 길대로 가는 산학협력은 결국 대학 길들이기가 된다.” <br/><br/>옥시 가습기 사태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br/><br/>“기업의 연구를 받은 연구의 경우 이 사실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낮아진다. 식품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결론은 수많은 연구논문들의 ‘메타연구’를 통해 결정한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연구기관에서 가공육의 발암성에 관한 결론을 내릴 때 전문가 20여명이 전 세계에서 몇백편의 논문을 분석했다. 실제로 적색육 가공육을 먹어보면서 한 것이 아니라 가공육 발암성 연구를 다 모은 뒤, 각각의 논문들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그 중 신뢰할 수 있는 걸 모아놓고 다시 결론을 내린다. 이때 육류회사의 지원을 받은 연구는 신뢰도를 떨어뜨려 배제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77.txt

제목: 소람한방병원, 보건복지부 해외환자 유치 한의약 특화 프로그램 기관 선정  
날짜: 2016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20170140090  
본문: 소람한방병원(병원장 성신) 보건복지부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선도할 한의약 특화 프로그램 지원 기관 중 한 곳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br/><br/>한의약 특화 프로그램은 외국인 환자에 맞는 특화 진료 프로그램을 보유한 한방 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손을 잡고 2014년부터 진행한 사업이다. 소람한방병원 성신 병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암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유럽에서는 이미 대체 의학이나 통합 암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가장 가깝게는 중국과 러시아 쪽 환자들의 수요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br/><br/>양한방 면역 암진료 소람한방병원은 2016년 1월, 삼성중앙역 부근 총 10개 층 건물로 확장 이전하였다. 입원실 및 치료실 포함 총 100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병원 내 찜질방, 스파, 운동실, 도서관 등 환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미국 FDA 인체 무해성 테스트를 거친 한약 제조를 통해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종양의 신생 혈관 및 활성을 억제하는 한방 암 치료제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78.txt

제목: 한미약품, 폐암 치료제 ‘올리타’ 내달 국내 시판  
날짜: 20160520  
기자: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20144635476  
본문: ㆍ“내년 미·유럽 등 허가 획득 목표”<br/><br/>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폐암 치료제인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를 다음달 국내에 시판한다. 올리타정은 국내에서 개발된 27번째 신약이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국내 신약으로는 처음 혁신치료제로 지정하는 등 사실상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종 신약 1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br/><br/><br/>한미약품은 20일 다음달 초 국내에서 처음으로 올리타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올리타는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돌연변이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만 골라 억제하고, 기존 치료제 투약 후 나타나는 내성 및 부작용을 극복한 폐암 신약이다. 지난해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 7억3000만달러(약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임상 2상만으로 판매를 허가했다. 통상 제품 출시는 임상 3상 후 이뤄진다. 올리타가 주목받는 것은 뛰어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내성이 생겨 치료제가 듣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올무티닙 800㎎을 하루 1회 투여한 임상 2상 결과, 환자 가운데 62%가 종양이 30%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또 91%는 종양이 일정 크기 이상 자라지 않았다. 현재 한국과 중국 외 전 세계 올무티닙 판권을 가지고 있는 베링거인겔하임은 글로벌 2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미국과 유럽 등에 허가 신청을 내 2017년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판권은 각각 한미약품과 중국 자이랩이 갖고 있다.<br/><br/>한미약품에서 연구·개발(R&D)을 맡고 있는 손지웅 부사장(사진)은 “<span class='quot0'>올리타는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될 것 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79.txt

제목: [타보니] ‘순수한 질주’ 욕망 BMW M3··· 핸들링과 코너링의 묘미  
날짜: 20160519  
기자: 류형열 선임기자 rh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19161617825  
본문: 1996년 BMW가 광고 하나를 내놓았다. 흑백 화면에서 헤비메탈 록음악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Z3가 구불구불한 도로를 신나게 달리며 힘차고 재빠르게 코너링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 위로 카피가 지나간다.<br/><br/>‘행복은 코너 근처에 있는 게 아닙니다(Happiness is not around the corner). 행복은 코너에 있습니다(Happiness is in the corner).’<br/><br/>BMW 하면 핸들링과 코너링을 연상시키게 만든 광고다. BMW가 자랑하는 핸들링과 코너링의 묘미는 M3에서 절정에 이르는 듯하다.<br/><br/>처음 타보는 차는 색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M3만큼 압도적으로 색다른 차는 이제껏 없었다.<br/><br/>BMW와는 또 다른 차원의 핸들링과 코너링 세계가 열린다. 코너를 돌 땐 속도를 줄이는 게 안전하다. 그게 상식이다. 그런데 M3를 타면 웬만한 코너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싶지 않다. 코너를 고속으로 돌아도 코너를 도는 게 아니라 직선주로를 달리는 느낌이다. 차도, 몸도 밀리지 않는다. M3에선 물리법칙도 작용하지 않는 듯하다.<br/><br/>M3의 핸들링은 과연 명불허전이다. 코너를 돌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라인을 정확히 따라가준다. 마음먹고 꺾는 만큼 차가 정확히 돌아간다. 그 맛이 너무 좋아 자꾸만 마음속에 그리는 라인을 타게 된다.<br/><br/>핸들링이 너무 정교해도 피로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기어노브 왼쪽에 스티어링 휠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 컴포트와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등 3가지로 조절이 가능하다. 컴포트에서 스포트 플러스로 갈수록 핸들링이 즉각적이고 날카로워진다.<br/><br/>스로틀 밸브 조절 버튼과 어댑티브 M 서스펜션 조절 버튼도 3단계로 조정할 수 있다.<br/><br/>사실 M3는 야수 같은 차다. <br/><br/>시동을 걸면 우렁찬 배기음이 귀를 때린다. 길들여지지 않은, 아니 길들일 수 없는 야수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다. 그 소리만으로 가슴이 뛰고 심장이 두근거린다. <br/><br/>더 야수적인 것은 이 차의 퍼포먼스다.<br/><br/>밀리는 도로에서 조금 공간이 열렸을 때 가속페달을 밟으면 총알처럼 튀어나간다. 이륙 직전의 비행기에 올라탄 기분이다.<br/><br/>2979㏄ 6기통 M 트윈파워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이 431마력에 달한다. 최대 토크는 56.1㎏·m, 0에서 시속 100㎞ 가속시간(제로백)은 4.1초다. 안전 최고 속도는 시속 250㎞. 계기판의 속도계는 330㎞까지 표시돼 있다.<br/><br/>이전 4세대 M3는 3999㏄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이었는데 터보를 장착하면서 엔진 크기를 줄였다. 그럼에도 출력은 420마력에서 431마력으로, 토크는 40.8㎏·m에서 56.1㎏·m로 향상됐다. 다운사이징의 좋은 사례다.<br/><br/>이 엔진은 5500~7300rpm에서 최고 출력을 낸다. 레드존(넘어가면 엔진에 이상이 올 수 있는 회전수)은 7500rpm부터 시작된다. 보통 터보 엔진은 6000~6500rpm에서 레드존이 시작된다. M3는 다른 터보 엔진보다 1000rpm 이상을 더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M3가 터보 엔진임에도 자연흡기에 가까운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br/><br/><br/><br/>M3에는 M 7단 더블 클러치 변속기가 붙는다. 클러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기어 변경 시 단절이 없다. 홀수 단 클러치의 기어가 돌아가고 있으면 짝수 단 클러치의 기어가 준비하고 있다가 홀수 기어를 끊는 것과 동시에 바로 짝수 기어를 연결해 돌아가는 방식이다. M3가 정지 상태에서 최고 속도까지 망설임 없이 뛰어난 가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더블 클러치 변속기가 빠른 변속을 제공하기 때문이다.<br/><br/>서스펜션은 전륜은 더블 조인트 스프링 스트럿, 후륜은 5-링크다. 전후륜 모두 컨트롤 암과 휠 캐리어, 차축 서브프레임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 무게는 줄고 강성은 더 세졌다. 431마력, 제로백 4.1초의 고성능을 감당하려면 단단한 하체는 기본이다. M3를 모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도 그만큼 서스펜션이 정교하고, 민첩하고, 단단하고, 균형을 잘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br/><br/>M3에 기본 장착된 M 컴파운드 브레이크는 환상적이다.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브레이크는 전륜이 380㎜, 후륜이 370㎜다. 전륜과 후륜에는 4피스톤과 2피스톤의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돼 있다. 어떤 속도에서든 원하는 만큼의 제동력을 바로바로 주면서도 스트레스나 충격을 주지 않는다. M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내열성이 훨씬 더 강하지만 비용이 비싸(약 1000만원) 서킷용이 아니라면 굳이 필요없다.<br/><br/>M3는 머신이다. 야수처럼 으르렁 거리는 배기음, 앞차축 255㎜, 뒤차축 275㎜에 달하는 두꺼운 타이어, 몸을 단단히 잡아주는 버킷 시트를 보면 기가 죽는다. 이 차를 마음대로 움직이려면 뭔가 특별한 운전기술이 필요할 것 같다. <br/><br/>예전 고성능차는 운전하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거의 대부분 전륜구동차에 익숙해져 있는데 고성능차는 후륜구동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토크도 강해 출발할 때 무심코 가속페달을 밟다가 옆으로 튕겨져 나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도 종종 일어났다. 하지만 M3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인 운전 테크닉만 있다면 보통 운전자들도 충분히 몰 수 있다. <br/><br/>다이내믹 스태빌리티 콘트롤(DSC·차체 자세 제어장치) 같은 게 있어 차가 슬립하는 것을 알아서 막아준다. <br/><br/>M3에는 다소 아쉬운 점도 눈에 띈다.<br/><br/>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이 알루미늄이 아니고 고무 재질이다. 사이드브레이크가 전자식이 아니라 핸드 브레이크인 것도 생뚱맞다. 통풍시트도 적용돼 있지 않다.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조작이 불편하고 정확도나 시인성이 불만스럽다. <br/><br/>하지만 M3의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질주욕망을 경험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를 잃어버린다.<br/><br/>M3는 오로지 달리기 위해서 태어난 드라이빙 머신이다. BMW 차량 번호판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Sheer Driving Pleasure’. ‘순수한 운전의 즐거움’이라는 뜻이다.<br/><br/>M3를 타보니 비로소 알 것 같다. ‘Sheer Driving Pleasure’란 게 어떤 건지를.<br/><br/><br/><br/>BMW 뉴 M3 제원<br/><br/><br/><br/>---------------------------------<br/><br/>전장X전폭X전고(㎜) 4671X1877X1424<br/><br/>공차 중량(㎏) 1560<br/><br/>배기량(㏄) 2979<br/><br/>엔진 6기통 M 트윈파워 터보<br/><br/>최고 출력(마력) 431<br/><br/>최대 토크(㎏·m) 56.1<br/><br/>안전 최고 속도(㎞/h) 250<br/><br/>제로백(초) 4.1<br/><br/>변속기 7단 더블 클러치<br/><br/>복합연비(㎞/ℓ) 9.6(고속 11.5, 도심 8.4)<br/><br/>이산화탄소 배출량(g/㎞) 185<br/><br/>타이어 규격 전 255/35 R19, 후 275/35 R19<br/><br/>휠 규격 전 9J x 19, 후 10J x 19<br/><br/>가격(부가세 포함) 1억1040만원<br/><br/>------------------------------------------------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80.txt

제목: 유방암 발생 유전자 조절 원리 규명…항암제 개발 ‘청신호’  
날짜: 20160518  
기자: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18213325188  
본문: ㆍ아산병원 황정진 교수 연구팀<br/><br/>국내 연구진이 유방암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 조절 원리를 밝혀냈다. 암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과 암 발생 조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r/><br/><br/>한국연구재단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황정진 교수(사진) 연구팀이 유방암 세포의 자식작용이 억제되는 기제를 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암세포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비정상적인 유전자의 발현으로 세포의 생존과 성장은 빨라지고 세포의 사멸은 잘 일어나지 않도록 변형돼 있다. 특히 돌연변이가 일어난 단백질이 제거되지 않고 쌓이는 것은 세포 자신의 불필요한 물질을 잡아먹는다는 의미의 ‘자식작용’이 암세포에서 억제되어 있기 때문이다.<br/><br/>황 교수팀은 유방암 세포에 과다 발현된 G9a 효소가 암세포의 자식작용을 하는 ‘베클린원’ 유전자를 발현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r/><br/>연구팀이 유방암 세포에 G9a 억제제를 처리해 자식작용을 하는 단백질들을 조사한 결과, 베클린원 유전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G9a 효소가 정상세포에서 작용하는 베클린원의 양을 낮춰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변형시켰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br/><br/>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온코타깃(Oncotarget)’ 지난 11일자에 게재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81.txt

제목: 암 이겨낸 뉴튼존, 한국팬들에게 ‘에너지’ 선사  
날짜: 20160515  
기자: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15213732122  
본문: ㆍ건강미 넘친 16년만의 내한공연<br/><br/><br/><br/>1970~1980년대 최정상의 인기를 누린 팝스타 올리비아 뉴튼존(68·사진)이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16년 만에 내한공연을 가졌다. 한때 금발에 청순한 미모로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는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관객들에게 넘치는 에너지와 역동적인 무대를 선사했다.<br/><br/>그는 이날 공연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저와 함께하는 음악여행에 초대하겠다”고 말했다. 첫 곡으로 ‘해브 유 네버 빈 멜로’를 들려준 그는 ‘샘’ ‘이프 낫 포 유’ ‘컨트리 로즈’ 등을 부르며 관객들과의 추억여행을 이어갔다. 그가 주연했던 영화 <제나두>의 삽입곡인 ‘제나두’ ‘매직’ 등 친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관객들은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손뼉을 치기도 했다. 특히 그의 대표적인 히트곡 ‘피지컬’의 전주가 시작될 땐 상당수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다. 1981년 발표한 ‘피지컬’은 빌보드 차트에서 10주 동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당시 그가 몸에 꼭 맞는 에어로빅복을 입고 출연했던 뮤직비디오 역시 세계적인 에어로빅 열풍을 불러일으켰다.<br/><br/>1966년 ‘틸 유 세이 유 윌 비 마인’으로 데뷔한 그는 4번의 그래미상을 수상했고 1억장이 넘는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다. 1978년 존 트라볼타와 함께 출연했던 영화 <그리스> 역시 흥행하며 그를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올려놨다. 이날 공연에서 그는 <그리스>의 ‘서머나이츠’ 등을 안무와 함께 선보였다.<br/><br/>1992년 유방암으로 투병했던 그는 이후 환경문제와 각종 사회운동에 활발히 참여했다. 이날 부른 ‘낫 고너 기브 인투 잇’은 그가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썼던 곡으로, 자신에게 닥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를 이겨내려는 의지를 경쾌한 라틴 선율에 담아냈다.<br/><br/>그는 이날 자신의 음악 인생 50년을 담은 20여곡을 선보였다. 앙코르곡으로 부른 ‘섬웨어 오버 더 레인보’가 끝나고 막이 내린 뒤에도 오랫동안 박수가 이어졌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82.txt

제목: “이 좋은 날씨에…” 문제는 PM2.5다  
날짜: 20160514  
기자: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14171303868  
본문: ‘먼지 잘 날’ 없는 날씨에 시민들의 걱정이 크다. 미세먼지 체크는 빠뜨릴 수 없는 일상이 됐다. 그런데 한국은 먼지 지름을 나타내는 PM10과 PM2.5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 PM2.5가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도 말이다.<br/><br/><br/><br/>“<span class='quot0'>지금 이 좋은 날씨에 말이죠, 마음대로 산책도 못하고 이게 정말 뭡니까, 진짜!</span>”<br/><br/>한국 사회가 ‘호흡 곤란증’을 겪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이 아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적, 미세먼지 때문이다. 언제 창문을 열지, 어디서 크게 숨을 들이마셔도 될지, 애들을 내보내도 될지 걱정이 앞선다.<br/><br/>앞의 말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6일 청와대에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점심을 먹으면서 한 발언이다. 종종 ‘불통 대통령’이라고 비판 받지만 이날만큼은 국민의 가려운 곳을 짚어줬다. 정부가 과연 국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하게끔 준비하고 있을까. “<span class='quot0'>이번에 체제를 다시 정비했다</span>”는 박 대통령도 아마 잘못 알거나 어쩌면 깜빡 속은 게 있을지 모르겠다. 일부 부실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게 다가 아니다.<br/><br/>좀처럼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지 않는 박 대통령이 이토록 답답해 한 건 며칠 전까지 이어진 ‘미세먼지’ 탓이다. 4월 24일은 국내에서 이른바 ‘미세먼지’로 통용되는 PM10 굵기의 분진이 급증한 날이다. PM10은 먼지 지름이 10㎛인 크기다. PM10은 머리카락 굵기의 약 6분의 1 정도다. 이날 하루 평균치로 서울 신촌로가 270㎍/㎥였다. PM10은 24시간 평균치 100㎍/㎥가 대기환경 기준이다. 동작대로 중앙차로는 이 수치가 243, 영등포로도 234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이고, 이날 새벽 1시에 신촌로는 456㎍/㎥, 전날 밤 11시에는 540㎍/㎥까지 치솟았다. 기준치보다 5.4배 짙다.<br/><br/>맞벌이 직장인 이모씨(38·여·서울 신도림)는 “<span class='quot1'>유치원생 딸(5)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미세먼지 수치는 아침마다 확인한다</span>”며 “<span class='quot1'>미세먼지는 이제 일상적인 문제가 됐다</span>”고 말했다. 이씨는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이면 유치원에 전화했다고 한다. 딸에게 물어 보니 그런 날도 운동장에서 그대로 뛰어놀았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다.<br/><br/>마라톤대회 일정을 정리한 인터넷 사이트 기준으로 4월 24일에만 서울 4개를 포함해 전국에 11개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학교나 어린이집에 운동회나 현장체험학습 활동, 미술대회 등도 다수 열렸다. 조선일보 주최 ‘통일과 나눔 서울 하프마라톤’이 시작된 4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마포구 일대는 PM10 농도가 한때 200㎍/㎥를 넘었다. 서울시는 전날 발령했던 미세먼지 주의보를 낮 12시에야 해제했다. 이 수치의 법정 기준은 100이지만 미세먼지 예보 때는 81을 넘어 150까지는 ‘나쁨’으로 경고를 보낸다. 151부터는 ‘매우 나쁨’이다.<br/><br/>여기까지는 익히 잘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미세먼지 대응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다는 건 잘 모르는 얘기다. 우리는 ‘미세먼지’라고 하면 황사를 떠올리고 PM10부터로 여겨왔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PM10은 호흡기로 들어오는 입자 물질 정도를 가리킨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PM10은 ‘호흡성 알갱이’로 부른다.<br/><br/>그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WHO 기준 ‘미세먼지’는? PM2.5 이하 분진을 가리킨다. 이게 정확히 ‘미세먼지(fine particle)’다. WHO는 PM2.5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br/><br/>한국은 이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데,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정책기본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같은 법에도 PM10과 PM2.5를 모두 ‘미세먼지’로 혼용해 쓰는 실정이다. 정부도 PM10 위주로 정책을 펴 왔고, 정작 중요한 미세먼지(PM2.5)는 덜 강조했다.<br/><br/>잘못된 이름 붙이기는 대통령을 포함해 국민에게 눈에 보이는 분진에 더 집착하게 했다. 황사나 시커먼 굴뚝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것들이다. 우리는 이제 더 작고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적들과 싸워야 한다.<br/><br/>황사 같은 요인으로 PM10이 급증한 때는 PM2.5도 늘어난다. 다만 PM10과 PM2.5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서울지역의 경우에 PM10은 4월 24일 최악이었지만, PM2.5는 4월 10일에 가장 나빴다. 일평균으로 종로가 93㎍/㎥로 가장 높고, 이어 광진구 88㎍/㎥, 중랑구 85㎍/㎥를 찍었다. 시간대별로는 중구와 구로구가 오후 4시에 113㎍/㎥로 나란히 최고였고, 서대문도 오후 2~3시 줄곧 112㎍/㎥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하루에 51~100이면 ‘나쁨’, 101부터는 ‘매우 나쁨’으로 예보된다.<br/><br/>PM2.5 이하 진짜 ‘미세먼지’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PM10보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전문가인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예방의학과 교수)은 한마디로 “미세먼지가 몸속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하다. 성분을 떠나 일단 깊숙이 가는 게 위험하다”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2000년대 중반까지 중금속, 다이옥신 등 미세먼지의 성분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국 크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미국에서는 PM1.0까지 거론된다”고 설명했다.<br/><br/>먼저 임 교수는 “<span class='quot2'>PM10은 호흡성 분진이고 미세먼지는 PM2.5 이하 입자</span>”라며 “<span class='quot2'>잘못된 정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 PM10은 들이마시더라도 코 등으로 걸러져서 몸속에 전부 들어가지는 않는다. 반면 PM2.5는 폐포에 달라붙거나 혈액을 타고 돌며 혈관계통 문제나 염증을 일으켜 암을 만들 수 있다고 임 교수는 밝혔다. 일부는 피부로도 바로 침투가 가능한 크기다. 자살률과 우울증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다고 한다. 임 교수는 “<span class='quot2'>들이마시는 속도도 중요한데, 호흡량이 크면 깊이 많이 마시게 된다</span>”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마라톤 대회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삼가야 하는 이유다. 물론 황사나 PM10 같은 분진도 특히 호흡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해롭다. 기관지 점막은 연약해서 굵은 먼지라도 바로 달라붙기 때문이다.<br/><br/>학술지 ‘암역학과 생체표지, 예방’에 올해 4월 29일 발표된 영국 버밍엄대 연구팀의 논문 내용도 비슷하다. 연구 결과 1998~2001년 홍콩의 65세 이상 6만6820명을 모집해 2011년까지 추적한 결과, PM2.5 미세먼지가 10㎍/㎥ 늘어날 때마다 종류 불문한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평균 22%씩 증가했다고 <뉴스위크>가 최신호로 전했다. 여성은 대기 중 미세먼지가 10㎍/㎥ 증가하면 유방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80%나 늘었다. 저자인 닐 토머스 응용건강연구소 박사는 “<span class='quot3'>직경 1㎛ 미만 초미세먼지(PM1.0 미만)는 혈류에 들어갈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유방은 미세혈관이 발달돼 있어 미세먼지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span>”고 말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4년 자료에는 2010~12년 동안 회원국 36개 중 한국이 연간 PM2.5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라고 나온다. 한국은 2015년에야 PM2.5 기준을 적용해 측정에 나섰다. <br/><br/>늦은 시작에다 국내 PM2.5 감시망도 허점투성이다. 감사원이 5월 10일 밝힌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PM2.5 자동측정기 65대 가운데 35대(53.8%)가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그대로 써온 사실이 드러났다. PM10 자동측정기 108대 중 16％인 17대도 허용 오차율인 10％를 초과해 신뢰도가 떨어졌다.<br/><br/>측정 위치도 비판 대상이 됐다. 전국에 있는 152기의 PM2.5 측정기는 서울에 자치구별로 25개가 있는 데 비해 충청남도는 3기뿐이다. 영향 권역을 고려치 않고 행정구역 기준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충남은 중국 영향을 많이 받는 서쪽인 데다, 특히 미세먼지의 큰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 있다. 천안시 성황동 측정소에서는 4월 24일 오전 5시 PM2.5가 118㎍/㎥까지 올랐다.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PM2.5 관측기가 없는 곳이 121곳이다. 서울에서도 정작 필요한 PM2.5 측정기는 대로변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br/><br/>감사원은 “<span class='quot4'>남동풍이 부는 7~10월 충남의 화력발전소나 제철소의 미세먼지가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 특히 PM2.5의 경우 수도권에 미치는 기여율이 4%에서 최대 28%까지로 계산된다. 또한 중국의 화석연료 난방이 시작되는 가을부터 봄까지 날아드는 미세먼지가 오히려 황사보다 위험할 수도 있다.<br/><br/>PM2.5에 더 주목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황사 영향은 계절별로 다른데, 대체로 30~50%로 작지는 않다. 다만 시각적 충격이 큰 황사에 매몰되다 보면 다수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점을 가볍게 볼 우려가 크다. 2012년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비산먼지·생물성 연소 제외) 기준으로 도로이동(자동차)이 39.8%로 가장 많고, 비도로이동(차 외 철도, 항공)이 32.6%, 제조업 8.8%, 에너지산업(발전·난방 등)이 7.6%를 차지했다.<br/><br/>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도 문제지만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화력발전소 28기를 추가 건설할 경우 전국에서 연간 1387명이 조기에 사망할 것이라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도 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span class='quot5'>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에 계획 중인 화력발전소가 모두 건설되면 지난해 2배 수준인 24.56㎍/㎥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다</span>”며 “<span class='quot5'>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생활 속의 미세먼지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엌에서 조리를 할 때도 상당히 많은 미세먼지가 나온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span class='quot6'>애초 PM10과 PM2.5가 각각 19, 9㎍/㎥인 원룸에 가스레인지를 중간 불로 20분 동안 켠 뒤 1.5m 높이에서 측정했더니 각각 81㎍/㎥, 28㎍/㎥로 늘었다</span>”고 전했다. 공기청정기를 개발하는 LG전자연구원 측은 “<span class='quot7'>입자 측정 수치는 위치나 공간 크기 등에 따라 차이가 많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7'>냉동 삼겹살을 구워서 재보니 PM10 농도가 700~800㎍/㎥까지 나온 적이 있다</span>”고 밝혔다.<br/><br/>PM2.5라면 일반 마스크로는 거의 걸러지지 않는 수준이다. 일명 황사 마스크로 0.04~1.0㎛ 크기의 미세한 입자를 80% 이상 차단하는 제품이 권장된다. KF80, KF94 등 숫자가 크면 효과적이다. 다만 어린이나 노약자 등 호흡이 약한 사람은 저산소증으로 호흡곤란을 겪을 위험이 있다.<br/><br/>미세먼지를 갑자기 줄이기는 어렵다. 현실적 대안은 정확한 예보와 대응이다. 그러나 앞서 마라톤 대회에서 보듯 우리는 실행력이 떨어지는 예보체계를 가지고 있다.<br/><br/>WHO 가이드라인에 비춰보면 국내 기준도 느슨하다. PM10은 하루 평균 50㎍/㎥, 연평균 20㎍/㎥가 WHO 권고치다. PM2.5는 각각 25㎍/㎥, 10㎍/㎥이다. 4월 10일 종로에서 하루 종일 밖에 머문 시민이라면 WHO 권고 PM2.5의 3.7배나 높은 농도에 노출된 것이다. 국가 환경기준 PM2.5는 하루 50㎍/㎥, 연평균 25㎍/㎥다.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대로 시행하더라도 2024년 PM2.5는 30㎍/㎥에 머물 것으로 한국대기환경학회는 예측했다. 송창근 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span class='quot8'>WHO 권고보다 국내 기준이 높은 건 맞지만 우리는 중국이 서쪽에 있어서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하기는 억울하다</span>”며 “<span class='quot8'>달성 가능한 목표를 위해 WHO의 잠정 권고치를 적용했다</span>”고 설명했다.<br/><br/>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부모들은 스마트폰에 일본의 미세먼지 예보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국내 발표와 맞춰보기도 한다. 정부의 측정치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해서다. 이세걸 처장은 “<span class='quot9'>예보 정확도가 62%(서울 76%)로 낮은 편</span>”이라며 “<span class='quot9'>정확도가 떨어지면 차량 부제 시행에 대한 반발도 커지게 된다</span>”고 말했다. <br/><br/>눈앞에 드러난 누런 황사(꽃가루는 물론)에 현혹돼선 숨은 적을 놓치기 십상이다. PM10에 너무 겁먹을 건 아니다. 예보에 ‘좋음’으로 떠도 PM2.5 수치를 WHO 기준에 대입해 보는 게 세계인으로서의 자세다. 진짜 ‘이 좋은 날씨’가 맞는지부터 따져보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83.txt

제목: [정동칼럼]아직도 무섭다  
날짜: 20160512  
기자: 김준형 | 한동대 교수·국제정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12211705705  
본문: ‘아직도 무섭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이 16강 진출을 확정한 직후 인터뷰에서 말한 “아직도 배가 고프다”의 패러디를 통해 오늘날 한국사회의 공포 트라우마를 표현한 것이다. 20대 총선 결과가 보여준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기적에 가까운 절묘한 선택이었지만, 그럼에도 기적이 우리들 사이를 망령처럼 떠도는 공포까지는 소멸시키지 못한 것 같다. 선거 이후 달라진 정치권의 풍경들과 언론의 논조들이 가져다주는 생경함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보다 훨씬 기저에 자리한 공포다.<br/><br/>공포를 자극해 언제든지 반격할 수 있는 기득권 지배세력이 여전히 무섭다. 이번 선거로 꺾였다고 하지만 글쎄다! 그런 평가는 보존할 가치를 중심에 두고 경쟁상대를 인정하면서 민의에 따라 개혁도 시도하는 이른바 정통보수 세력에 한해서만 유효하다. <br/><br/>그러나 이 나라는 강압적 힘으로 군림하고, 비판과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매카시즘적 극우기득권이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에 한 번의 선거결과로 달라지기 어렵다. 더욱이 여당은 작전상 후퇴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마저도 거부하는 권력 수장의 행태는 우리의 공포에 충분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br/><br/>1950년 미국에서 반공주의를 통해 반대세력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했던 매카시즘의 광풍은 한국에서 수십년간 더 거센 바람으로 휘몰아쳐왔다. 분단의 지속은 한국사회가 매카시즘에 취약하게 된 최초의 이유였지만, 이제 그런 차원을 넘었다. 지배 권력은 적을 늘 새로 설정하면 되고, 이슈는 늘 만들면 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공포가 준비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화 30년에 과거의 위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최근 선거들에서 북풍은 있었지만 효과는 반감됐다고 말한다. 그 증거로 총선 직전 대북 강경드라이브와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출 발표의 무리수가 선거결과를 바꾸지 못했다는 것을 제시한다.<br/><br/>정말 그럴까?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피지배계층에 대한 지배세력의 폭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경우 관습, 이미지, 문화 같은 상징적 모습으로 폭력을 행사하는데, 주류의 생각과 다르거나 저항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대중의 마음에 심는다. <br/><br/>물리적 폭력보다 위험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까지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불평등하고 부당한 사회를 확대해도 불평하지 못하게 한다. 때로는 민주적 과정마저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암이 자라듯 민주체제 안에서 자라지만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한다. 대통령을 비판만 해도 종북이고, 전교조를 해충에 비유하고,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다.<br/><br/>게다가 물리적 폭력도 간간이 섞어 상징적 폭력과 콜라보로 대중의 공포를 압박한다. 게다가 배후에서 국민들을 이간시키는데, 어버이연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따라서 약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영악해진 매카시즘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br/><br/>그렇다면 이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을 분석한 로버트 그리피스는 매카시즘 광풍의 5가지 원인을 제시했다. 반공주의에 대한 공포, 냉전, 매카시의 고집스러운 성격, 공화당 당내 분열, 그리고 야당의 소극적 저항이 그것인데, 놀라울 정도로 현실 적용성이 높다. 특히 마지막 원인이 눈에 들어온다. 프레임에 저항함으로써 공포에 떠는 대중에게 용기와 희망을 줘야 했던 그들이 오히려 프레임에 갇혀 숨죽인 채 떠밀려갔던 것이다.<br/><br/>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작정하고 만든 프레임은 이해하거나, 또는 이해를 구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실체 없는 조작된 프레임을 고친답시고 이해시키려는 순진함이나 비겁함은 상징적 폭력을 강화할 뿐이다. 그런데 승리한 야당은 여전히 자기검열, 어설픈 인기영합주의, 중도화, 그리고 돈 몇 푼 쥐여주는 식의 경제민주화 정도에서 타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는 국민들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본능 같은 공포를 극복할 수 없다. 분명 삶까지 위협받는 경제위기에다 빈부격차의 삭풍을 벗은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리더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br/><br/>승부를 걸어볼 시대정신과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공포를 진정한 변화의 비전으로 대체하는 사람을 대망한다. 그런 리더가 나타난다면 공포를 극복하고 변화를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20대 총선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리더를 부르는 초청장을 던진 것이다. 공포로 인해 이제 살짝 문틈을 열고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다시 더 굳게 닫아버리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84.txt

제목: 한탄강 주상절리, 켜켜이 한탄이라더니…절로 터지는 탄성  
날짜: 20160511  
기자: 글·사진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12111620560  
본문: 주상절리는 언제 봐도 신비롭다. 제주 주상절리는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 속에 우뚝하고, 경주 주상절리는 활짝 편 부챗살 모양으로 바다에 누워 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이런 비경은 바닷가에만 있는 게 아니다. 내륙에도 있다. 서울에서 1시간30분 떨어진 경기 연천에 가면 그런 주상절리의 장관을 볼 수 있다. 한탄강을 따라 3억5000만년 전에서 50만년 전까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 빚어낸 ‘작품’들이다. 한두 곳이 아니다. U자 라인의 긴 협곡을 따라 곳곳에 숨어 있다. 자연사 박물관이자 암석 백화점으로 불리는 연천의 대표적인 주상절리 4곳을 둘러봤다.<br/><br/><br/>■ 한탄강 대표 주상절리-재인폭포<br/><br/>재인폭포는 한탄강 7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친다. 안내표지판을 따라가면 스카이 워크(Sky Walk)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높이가 27m라니 아파트 10층쯤 되겠다. 투명한 유리바닥 위에 서면 발아래 멋진 풍경이 펼쳐진다. 발밑에 원시림이 있어서일까. 미국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나 시카고 윌리스타워의 초고층 빌딩에선 느낄 수 없는 묘한 짜릿함이 있다. <br/><br/>용암이 식으면서 생긴 재인폭포 나이는 27만살쯤 된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폭포의 맑은 물줄기는 검은 현무암 주상절리와 대비돼 더욱 빛난다. 폭포 가까이로 내려가봤다. 에메랄드빛 소(沼)에 비친 주상절리가 신비감을 더했다. <br/><br/>자연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쉼 없이 변한다. 재인폭포는 한탄강 본류에서 350m 정도 들어가 있는데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절벽의 주상절리가 조금씩 침식되면서 현재의 위치로 물러선 것이다. 1만년 뒤에는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른다. 윤미숙 학예사는 “<span class='quot0'>재인폭포를 보면 주상절리가 왜 생성되었는지, 용암은 어디서 흘러와 어디로 가는지, 현무암 종류들까지 모두 알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br/><br/>■ 수많은 얼굴을 한 주상절리-백의리층 <br/><br/>백의리층은 백의리 마을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상절리 모양이 정말 특이하다. 세로도 아니고 가로도 아니다. 크기도 제각각이다. 교과서에도 나올 만큼 백의리층에는 기기묘묘한 주상절리들이 다 모여 있다. <br/><br/>한탄강을 사이에 두고 주상절리가 양옆으로 도열하듯 늘어서 있다. 전형적인 6각형의 주상절리는 물론 3각형, 5각형, 8각형 등 생김새가 정말 다양하다. 이곳에는 3차례 용암이 흐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인지 마치 시루떡 3개가 겹쳐 있는 듯하다. 자갈 위로 용암이 흘러 현무암 주상절리를 만들고, 자갈과 모래가 굳어지지 않은 채 퇴적층을 만든 것이다. 맨 아래층 자갈은 50만년 이전, 그 위는 50만년, 평지 쪽은 13만년 전의 것이다. 지질학자들은 여기서 당시 한탄강을 흐르던 물길과 유속도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 <br/><br/>강 건너편은 더 재미있다. 3억5000만년 전 현무암 위에 1억5000만년 된 현무암이 무려 2억만년의 시간차를 두고 층을 이루고 있다. <br/><br/>지질 공부는 지구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듯 지구의 과거를 알면 지구의 미래를 알 수 있다. 돌멩이 하나, 그 위에 새싹을 피우는 풀 한 포기조차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br/><br/><br/>■ 앙증맞은 주상절리-베개용암<br/><br/>베개용암은 그 생김새가 둥근 베개 같아서 붙은 이름이다. 37번 국도를 따라 백의리 쪽으로 4㎞쯤 가다가 좌회전하면 한탄강을 가로지르는 궁신교가 나온다. 이 다리를 건너 신답리 방향으로 내려가면 볼 수 있다. 나무데크로 만들어진 전망대에서 강 건너편을 바라봤다. 천연기념물 542호 베개용암이 한눈에 들어온다. 진짜 좁쌀 베개 수백개를 층층이 쌓아놓은 듯하다. <br/><br/>베개용암은 뜨거운 용암이 한탄강을 따라 흐르다 찬물인 영평천을 만나 급속하게 굳어진 암석이다. 흘러내리던 용암이 찬물을 만나자 마치 치약을 짜내듯 비집고 나와 동글동글해진 것이다. 물을 만난 용암은 베개 모양이 되고, 물을 만나지 않은 용암은 직선의 주상절리로 굳어졌다. 이런 현상은 대개 깊은 바다에서 용암이 분출할 때 생기는데 베개용암은 바다와 전혀 상관없는 강가에서 발견돼 더욱 희귀하다고 한다. <br/><br/><br/>■ 마을 수호신 주상절리-좌상바위 <br/><br/>좌상바위는 중생대 백악기인 약 9000만년 전 화산 폭발로 생성됐다. 한탄강이 한 차례 크게 휘도는 강변에 60m 높이로 우뚝해 멀리서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다양한 암석을 관찰할 수 있어 지질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br/><br/>좌상바위는 ‘장승 왼쪽에 있는 바위’라는 뜻인데 지질공원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자살바위’로 잘못 알려졌다. 궁평리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마을 수호신으로 여겼다고 한다. 강변을 향한 쪽은 수직 절벽이고, 반대편은 둥글고 완만한데 바위를 반으로 뚝 잘라놓은 것 같다. <br/><br/>윤미숙 학예사는 “<span class='quot0'>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도 있고 역사·문화·생태가 어우러져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용암은 산록과 강 주변 낮은 지형을 차곡차곡 메워 평탄한 대지를 만들었는데 연천이 그런 곳</span>”이라고 말했다.<br/><br/>과장을 좀 하면 한탄강·임진강 일대에서 보이는 모든 암석들은 살아 있는 지질학 교재다. 아이들과 암석찾기 놀이를 해보시라. 이보다 확실한 현장학습은 없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85.txt

제목: “암 진단·수술·검진은 선진국 수준, 신약 혜택은 꼴찌”  
날짜: 20160511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11215239032  
본문: ㆍ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 대표 정현철 교수<br/><br/>“<span class='quot0'>현재 국내 암 진단, 수술, 검진 부문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항암신약 혜택은 꼴찌 수준입니다.</span>”<br/><br/><br/>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암보협)이 지난 10일 발족했다. 대표를 맡게 된 정현철 교수(60·연세암병원 종양내과·사진)는 이날 “<span class='quot1'>암보협은 ‘환자 중심’의 암치료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 상설기구</span>”라며 “<span class='quot1'>의료진, 환자, 국회, 미디어, 업계 등이 뜻을 모은 공익단체인 만큼 암치료의 보장성 강화를 이끌어내는 데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이날 암보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 회원국과 비교 분석한 ‘한국 암치료 보장성의 현주소’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09~2014년) 국내 항암신약 건강보험 등재율은 29%에 불과해 OECD 평균(62%)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항암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개월(601일)에 달한다. 독일(70일)이나 일본(74일), 미국(180일), 뉴질랜드(278일) 등에 견주면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br/><br/>“항암신약이 허가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다른 나라에서는 통상 8개월(245일) 정도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약 1년8개월(601일) 소요되면서 2.5배 정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가 가능한 20개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지요. 이로 인해 환자 및 국민들이 ‘항암신약을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암이 국내 사망원인 1위임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재정 지출 중 항암제 비율이 단 9% 수준으로 조사에 참여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br/><br/>현재 정부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암의 수술이나 약물의 경우에는 총진료비의 5%만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의료 공공성 확보의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항암제의 경우 신약이 계속 개발되나 보험재정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결국 고가의 항암신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는 대개 수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br/><br/>정 대표는 “<span class='quot2'>암 진단과 치료 기술 발전으로 지난 40년간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40% 가까이 증가해 70%에 이르지만 항암신약의 접근성 부족으로 수많은 전이암, 말기암 환자들은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그는 “<span class='quot2'>4기 암은 이제 정부 보건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높여야 하는 질환</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국민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에 걸맞은 선진화된 치료 정책과 환경을 마련해야 할 때</span>”라고 강조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86.txt

제목: 윤정한 회장 "재발 갑상선암 치료 위한 표적항암제 건강보험 확대를"  
날짜: 20160510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10173230295  
본문: “1㎝ 미만의 미세 갑상선 유두암은 치료 결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검사를 해서 발견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검진을 하지 않고서는 그런 미세암을 발견할 수도 없거니와,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 이상의 진행된 암은 증상을 느끼기 전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재발암 치료를 위한 보험적용 확대 등도 시급한 과제입니다.”<br/><br/>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윤정한 회장(화순전남대병원 내분비외과 교수·사진)이 갑상선암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환자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늦게 발견하거나 그냥 나두다 암의 크기가 커지고 근처 기관으로 전이가 일어나면 수술의 범위가 넓어지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 횟수도 늘어나고, 완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br/><br/>갑상선암 수술 치료의 권위자인 윤 회장을 최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내분비외과학술대회에서 만나 갑상선암 조기 진단과 치료에 대한 학계의 입장을 들어봤다.<br/><br/>―이번에 열린 학회의 중점 논의 사항은.<br/><br/>“갑상선암 진단 논란이 있다 보니, 미세 갑상선 유두암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세션이 중복적으로 준비됐다. 또 최근에 출시된 신약을 포함한 표적치료제들에 관한 논의도 마련됐다.”<br/><br/>―30년 가까이 갑상선암 환자 수술을 하셨는데.<br/><br/>“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1만6000건 정도 집도했다. 연도 별로 보면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연간 1000건 이상 수술을 했고, 2013년에는 1100건 정도에 달했다. 그런데 과잉 진단 논란이 불거진 이후 2014년도에 844건으로 떨어지고, 작년에는 816건까지 더 떨어졌다.”<br/><br/>―요즘 갑상선암 수술의 특징이 있다면.<br/><br/>“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으로 조기 진단 환자와 수술 건수가 크게 줄면서 예후(에상되는 치료 결과)가 좋은 초기암 환자들이 감소하고 심각한 암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갑상선암 수술 교수들의 의견이다. 갑상선을 모두 절제하고 측방 림프절까지 치료해야 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br/><br/>―미국 학계에서 웬만큼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아니고서는 검사나 조기 수술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br/><br/>“미국은 우선 검진 자체가 워낙 고가이고, 의사를 만나기도 힘들다. 또 수술 합병증이 높다 보니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었다고 보면 된다. 일반인들에 비해 신용 파산을 할 가능성이 갑상선암 환자들은 3.5배라는 조사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다. 그래서 갑상선암이 일반 암에 비해 치료 결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너무 많이 주니까 비용 대비 효용성을 따져서 갑상선암의 치료 시기와 내용을 축소시킨 것이다.”<br/><br/>―그럼 한국의 의료비는 어떠한가.<br/><br/>“우리나라는 보험 급여 받는 5년 동안은 환자가 5%만 부담하면 되니까 환자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초음파 검사도 미국에서는 100만~150만원인데 한국은 4만~5만원 정도다. 수술비도 우리나라가 훨씬 저렴하고,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br/><br/>―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주요 치료 과정은.<br/><br/>“1㎝ 미만의 미세암의 경우 생존율이 80%에 달한다. 갑상선암 치료법은 1차적으로 수술을 한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제거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차적으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한다. 재발되거나 전이된 경우에도 수술을 하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는데, 요오드가 잘 듣지 않으면 표적치료제를 쓴다.”<br/><br/>―수술을 받은 후 재발을 걱정하는 환자들이 많다.<br/><br/>“갑상선암도 암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재발에 대한 걱정이 높다. 또 5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재발되는 경우도 상당해 일반적으로 갑상선암은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20년 정도 걸린다고 본다. 이번 학회에서 보니 말레이시아는 재발률이 30%가 넘는다고 한다. 아마 말레이시아는 검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암이 훨씬 더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돼서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화순전남대병원은 누적 재발률이 4~5% 정도이며, 심한 환자들을 따로 보면 10%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br/><br/>―요오드에 불응하는 환자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대처하나.<br/><br/>“분화 갑상선암은 방사성 요오드 치료 외에는 재발됐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없다. 폐나 뼈, 간 등으로 전이되면 전신적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 때 유일한 치료법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이다. 그런데 재발 환자의 약 3분의 1이 요오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 요오드 치료에 반응을 보였던 재발 환자도 재재발이 되면 또 최소 3분의 2이상이 결국 요오드 치료에 불응하게 된다. 이런 환자들에게는 표적치료제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실제로 임상이 이뤄진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 하나는 보험 급여가 된 ‘넥사바’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출시되어 보험 급여가 아직 안 된 ‘렌비마’이다. 두 약제를 직접 비교한 임상은 없지만 실제적인 임상에서 나온 효과는 무진행 생존기간과 반응률 등에서 ‘렌비마’가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치료옵션이 많지 않은 만큼, 건강보험 급여가 빨리 이뤄져야 할 것 같다.<br/><br/>“그렇다. 표적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 약을 써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환자군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 개발된 약제들은 워낙 고가여서 보험 급여를 해주지 않고서는 환자들이 개별적으로 본인 부담을 해서 약을 쓰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다. 그러므로 이런 특수 약들은 빨리 급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br/><br/>―방사성 요오드 불응 분화 갑상선암 치료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은 언제 나오나.<br/><br/>“현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의 수술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제가 작년부터 서둘러서 빨리 만들어 놨고, 약제나 진단에 관한 것은 대한갑상선학회에서 만들어서 두 부분이 합쳐지면 정식적인 공표를 하려고 한다. 빨리 서두르면 아마 금년 10월달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방사성 요오드 불응 분화 갑상선암 치료에 대해서는 새로 출시된 표적치료제들의 사용에 대한 문구가 들어갈 예정이다.”<br/><br/>―갑상선암 환자들과 일반인들께 당부할 말씀은.<br/><br/>“갑상선암은 증상이 있을 정도가 되면 상당히 진행됐다고 보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에 조금 자신이 없거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한다. 그리고 향후 추가검사 간격 등을 의사에게 제대로 상담 받아서, 갑상선암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환자들을 보는 저희 갑상선암 전문 의사들의 마음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87.txt

제목: 가천대 길병원 폐센터, 폐암과 미세먼지 폐질환 정복 나섰다  
날짜: 20160510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10171218544  
본문: 가천대 길병원 폐센터가 지난 9일 개소식(사진)을 갖고 본격 진료에 들어갔다. 폐질환과 관련된 전 진료 영역을 치료한다. 정성환 센터장(호흡기내과)은 “<span class='quot0'>맞춤형 치료와 연구 역량 강화로 폐 질환 극복을 앞당길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10일 길병원에 따르면 폐센터는 폐암 클리닉,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클리닉, 천식 및 알레르기 클리닉, 폐섬유화증 클리닉 등 4개의 세부 클리닉을 운영한다. 길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100점 만점으로 1등급, COPD와 관련한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에서 역시 1등급, 폐렴에서도 전 항목 100점 만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br/><br/>폐암클리닉은 초음파 기관지내시경 시술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이를 통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가이드하고 있다. 진료실을 한 곳으로 통합해 환자의 동선과 편의를 배려한 원스톱 진료시스템을 구축했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종양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폐암코디네이터로 구성된 다학제 치료를 제공한다. 특히 비침습적 수술 방법인 흉강 내시경 수술은 수술에 따른 합병증, 부작용이 적고 환자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이 줄며, 입원 기간이 짧고 사회 복귀가 빠르다. <br/><br/>COPD는 만성적인 기도염증으로 인해 기도폐쇄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임상적으로 만성기관지염과 폐포가 늘어나 파괴되는 폐기종 형태로 나타난다. 대부분은 흡연이 원인이고, 공해도 주요 발생 원인이다. COPD클리닉 역시 다학제 진료를 기본으로 한다. 이에 다양한 전문 진료 프로토콜을 개발해 환자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COPD 관련 국가과제를 전문으로 수행하게 된다.<br/><br/>천식 및 알레르기 클리닉은 알레르기천식 질환의 특성에 맞춰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에 주력한다. 알레르기검사 전문 담당자가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한다. 이외에 메타콜린기관지유발검사, 운동부하폐기능검사, 호기산화질소,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반응검사, 알레르기피부반응검사 등 다양한 검사 방법의 프로토콜을 정립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게 된다.<br/><br/>대기오염과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발생하는 질환으로 폐섬유화증이 있다. 폐섬유증은 폐조직이 각종 염증 등으로 인해 섬유화가 진행, 호흡장애가 발생한다. 폐섬유화로 폐가 굳어 산소 및 이산화탄소 가스교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원인이다. 이 때 손상된 폐는 복구할 수 없어 역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br/><br/>폐섬유화증 클리닉은 맞춤형 최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질병관리본부, 임상 의학 연구소 및 암당뇨 연구소와 연계한 신약 개발 등 연구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88.txt

제목: 진심 홍삼, 홍삼 사포닌의 흡수를 극대화한 ‘진심 CK 홍삼골드’ 출시  
날짜: 201605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09180919480  
본문: 많은 사람들이 기력 회복을 위해 홍삼을 챙겨 먹지만 정작 한국인의 25%는 사포닌을 흡수하지 못한다. 홍삼에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은 여러 당 분자로 결합되어 있는데, 이는 대장 내 미생물 분해효소에 의해 최종대사물질인 컴파운드 케이(Compound K)로 전환되어 체내에 흡수된다. 하지만 장내 미생물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라면 아무리 홍삼을 섭취해도 사포닌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다. <br/>다행히 장내 분해효소가 없는 사람도 홍삼 속 사포닌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 홍삼에 생물전환 기술을 적용, 컴파운드 케이로 변환된 사포닌을 섭취하면 상부 위장에서 곧바로 흡수가 시작되어 흡수율과 흡수 속도가 향상된다.<br/><br/>홍삼전문업체 진심의 박진현 대표는 “<span class='quot0'>컴파운드 케이는 홍삼이 가진 사포닌의 흡수율과 흡수속도를 높일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암 예방 및 혈당 조절, 간 기능 보호 등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홍삼 건강식품 선택 시 홍삼을 통째로 갈아 넣는 전체식으로 생산된 것인지, 컴파운드 케이가 함유되어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br/><br/>진심은 최근 홍삼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은 ‘진심 CK 홍삼골드’를 출시했다. 진심 CK 홍삼골드는 물에 달이지 않고 홍삼 전체를 통째로 분쇄하는 전체식(매크로바이오틱)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분해 과정 없이 바로 위에서 사포닌이 흡수되도록 컴파운드 케이 함량의 극대화를 꾀한 제품이다. 요즘 건강 키워드로 급부상한 전체식(매크로바이오틱)을 구현하기 위해 몸체부터 지근, 세근까지 간 분말을 이용, 언제 어디서나 먹기 편하게 1포당 10ml로 위생 포장된 액상 형태다. 진세노사이드와 컴파운드 케이가 결합되어 유효성분의 빠르고 효율적인 체내 흡수를 돕는 것이 특징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89.txt

제목: 우체국시설관리단, 노조 간부 '독방 대기발령'에 이어 부당전보 의혹  
날짜: 20160509  
기자: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09173828319  
본문: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가입 권유를 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에게 ‘독방 대기발령’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최근 노조 수석부지회장을 출·퇴근에 4시간이 걸리는 사업소로 부당전보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하지만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br/><br/>9일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현업직원 전보발령’ 문건을 보면, 회사는 지난달 18일자로 임모 고양우편집중국 소장(노조 수석부지회장)을 인천공항에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로 전보발령했다. 회사는 “<span class='quot0'>현 근무지 대비 처우수준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교통보조금을 지급한다</span>”고 밝혔다.<br/><br/>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는 “임 소장에 대한 전보발령이 회사의 또다른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br/><br/>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우정사업본부 산하의 우체국, 우편집중국 등의 시설전반을 관리하는 곳으로 2000년 11월 설립됐다. 무노조 사업장이던 우체국시설관리단에 노조가 설립된 것은 지난해 1월17일이었다. 회사는 박모 지회장 등 노조 간부 3명이 노조 설립 총회를 앞두고 근무시간 중 노조 가입 독려 활동 등을 하자 이를 문제삼았다. 이틀 뒤인 19일 본사 5층의 빈방에 대기발령시켰고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노사상생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글을 쓰도록 강요했다. 이후 수석부지회장에겐 감봉 3월, 지회장·사무장에겐 견책 처분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가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지회의 손을 들어줬다.<br/><br/><br/><br/>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는 “회사는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자 지난해 7월13일 임 수석부지회장을 고양우편집중국 소장으로 원상복귀시켰지만 이후 사측의 개입·회유로 사업소 현장 직원들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상호 비방을 했다”며 “사업소가 안정되지 못한 것은 사측에 책임이 있는데 애꿎은 임 수석부지회장을 출퇴근 4시간 거리의 사업소로 부당전보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임 수석부지회장은 암 수술 이후 재활을 하는 부인을 간호해야 하는 등 개인적 사정으로 원격지 근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br/><br/>원대연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span class='quot1'>관리단은 복수노조 사업장인데 민주노총 계열인 임 소장이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 고양우편집중국 직원들 간 갈등이 빚어졌다</span>”며 “<span class='quot1'>본사도 임 소장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과 배려를 했는데 본인이 거부를 해 결국 비어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발령을 낼 수밖에 없었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90.txt

제목: 어린이·효보험 가입해 의료비 줄이세요  
날짜: 20160508  
기자: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08221949860  
본문: ㆍ생보사 ‘가정의 달’ 판매 가속<br/><br/>생명보험사들이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어린이보험과 효보험(노후보장성보험) 판매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br/><br/>8일 생명보험협회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의료보장성보험 보유계약 건수(2014년 기준)는 80만5920건으로 전체 계약(4067만5699건)의 2.0%에 그쳤다.<br/><br/>65세 이상 고령자 보유계약 건수도 9.3%에 불과했다.<br/><br/>문제는 이 연령대 의료비 지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65세 이후 남자의 의료비 지출액은 평균 5137만원으로 생애 전체 의료비 지출의 50.4%를 차지했다. 여자도 65세 이후 의료비 비중이 55.5%였다. 자녀 세대인 19세 이하 시기는 생애 의료비에서의 비중이 남자 12.8%(1301만원), 여자 9.3%(1151만원)에 달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의료비 지출과 보장 기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험과 효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br/>어린이보험이란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병, 골절, 화상 등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이다. 최근 판매하는 어린이보험은 한번 가입으로 100세까지 보장하며 컴퓨터 관련 질환·아토피·교통사고·유괴납치 등의 위험을 보장한다.<br/><br/>삼성생명 ‘우리아이통합보장보험’은 화상·깁스·응급실 통원, 다발성소아암, 소아당뇨병, 백혈병, 가와사키병 등과 치아 및 근시, 성조숙증 등을 보장한다. 한화생명의 어린이보험은 선천성 질환을 보장하고 적립보험 또는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교육자금 및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더 든든한 교보우리아이보장보험’은 30세 이후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등을 보장하는 성인CI(치명적 질병)보험으로 자동 전환되는 보험이다. <br/><br/>노후보장성보험은 노후 생활자금 또는 의료비를 보장한다.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건강보험, 암보험, 실버보험, 장기간병(LTC)보험 등이다. 최근에는 고연령·유병자의 가입이 가능해졌고, 최대 100세까지 늘었다. 고혈압, 당뇨, 암,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중증치매 등 주요 성인질환을 집중 보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메트라이프생명 ‘100세시대 실버암보험’은 간편심사로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도 가입 가능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없을 때는 보험료를 5% 할인받는다. ING생명 ‘효도드림 실버암보험’은 부모 가입 시 자녀가 계약자인 경우 보험료를 최대 2% 할인받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91.txt

제목: “마지막 어버이날 될지도 모르는데…”  
날짜: 20160508  
기자: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08213918153  
본문: ㆍ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 담양 가건물서 말기암 투병 중<br/><br/><br/><br/>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91·사진)는 폐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전남 담양에서 생의 마지막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br/><br/>일제강점기 중국에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2004년 귀국한 곽 할머니는 지난해 12월30일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병원이 치료를 포기할 만큼 병세가 깊어진 곽 할머니는 오랜 요양원 생활을 정리하고 담양의 40㎡(12평) 남짓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다. 곽 할머니가 “집에서 죽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조카가 친자식이 없는 할머니를 위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고 수도시설이 있는 침상을 갖춘 거처를 마련한 것이다.<br/><br/>곽 할머니의 사정을 접한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열리는 수요일마다 곽 할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하기로 뜻을 모으고 지난 3일 첫 번째 정기방문을 했다. 이날 평통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곽 할머니와 2시간가량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할머니는 잠깐 앉아 있는 것조차 힘겨워했다.<br/><br/>“<span class='quot0'>어쩌면 오늘이 할머니에게는 생애 마지막 어버이날이 될지도 모릅니다.</span>” 정동석 광주·전남 평통사 사무국장은 어버이날인 8일 곽 할머니의 근황을 전했다.<br/><br/>곽 할머니의 조카에게 십시일반 마련한 후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한 시민단체는 병간호 활동과 모금운동도 펼치고 있다. 곽 할머니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지급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이 나오고 있지만, 수년째 이어온 암 치료와 매회 30만원가량 드는 온열치료, 24시간 필요한 간병인 등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br/><br/>전남 해남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공점엽 할머니(96)도 지난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병마와 싸우고 있다.<br/><br/>여가부 등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된 군 위안부 피해자는 지난 3월 기준으로 238명이다. 이 중 생존자는 44명이다. 40명은 국내에, 4명은 외국(일본 1명, 중국 3명)에 살고 있다. 사진 |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92.txt

제목: [기타뉴스]만화가 김보통, “‘군대엘 안 다녀와서 개념이 없다’는 일상적 얘기”가 더 큰 문제  
날짜: 20160508  
기자: 인터파크도서 북DB 주혜진 기자 kiwi@interpark.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08102108215  
본문: ’특별하지 아니하고 흔히 볼 수 있어 평범함. 또는 뛰어나지도 열등하지도 아니한 중간 정도.’<br/><br/>국어사전을 뒤져 찾은 ’보통’의 뜻이다. 통상 만화가들의 예명은 눈에 띌 만큼 튀거나, 작가의 개성을 드러나게 짓는 경우가 많지만 만화가 김보통은 개성 대신 백지장처럼 하얀 ’보통’이란 이름을 택했다. 하지만 ’보통’이 더는 ’보통’이 아니게 된, 즉 상식이 일상화되지 않은 세상에서 오히려 그 이름은 가장 강력한 개성이 되어주었다.<br/><br/>한겨레신문과 만화전문사이트 레진코믹스에 연재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던 ‘D.P’의 단행본 출간을 기념해 그의 일산 작업실을 찾았다. 평소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김보통 작가는 인터뷰 당일에도 ’고독이’ 캐릭터 탈을 머리에 쓰고 사진 촬영에 임했다.<br/><br/>2013년 그의 데뷔작 웹툰인 <아만자>가 이제껏 잘 드러나지 않았던 젊은 암 환자들의 애환을 드러냈다면, 탈영병 잡는 헌병인 D.P를 소재로 한 만화 ‘D.P’는 군대 내 일상화되고 세습되는 폭력을 폭로했다. 대한민국 국군 900명당 1명꼴로 매달 60명의 탈영병이 발생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탈영사건은 해당 병사가 사회성이 부족했다거나 정신적 이상이 있다는 식의 개인 문제로 다뤄져 왔다. 반면, 작가 김보통은 그 원인을 군대 문화의 폭력적 속성에서 찾았다.<br/><br/>만화 ‘D.P’ 속 탈영병들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선임의 구타 및 폭행, 언어폭력, 따돌림, 선임의 성희롱 등이 극단의 공포로 그들을 괴롭힌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제할 수 없고, S.O.S를 외쳐도 들어주지 않는다. 군대라는 폐쇄적 조직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론 탈영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탈영병들만 잡으러 다니는 것이 바로 D.P다. 작가 본인도 군대 시절 D.P의 경험이 있다. ‘D.P’에서 활약하는 유능한 D.P 안준호 상병에 만화가 김보통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br/><br/>D.P가 되어 사복을 착용하고, 외부 출입도 할 수 있으니 일견 ’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작가는 당시를 만화에 붙은 부제처럼 ’개의 날’이었다고 표현했다.<br/><br/>“D.P. 생활하면서 ’나는 군견’이라고 생각했어요. 수배 명령이 떨어지면 신상기록부, 싸이월드 주소, 친구들 이메일, 수양록(군에서 기록하는 일기)같은 기록을 다 주고 잡아오라고 하거든요. 그게 사냥개들에게 목표물의 냄새 맡게 하고 잡아오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어느 날 자료를 받고 사진을 보면서 ’탈영병은 토끼고 나는 군견, 사냥개’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걸 이겨보려고 ’나는 양치기 개’라고 좋게 순화를 하려 하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군 시절을 떠올리면 훈련한 것만 기억날 것이고, 누군가는 음식한 것만 기억날 텐데, 저는 군 시절 추적한 것밖에 없었기에 개의 나날들이었어요. 개 취급을 받는 군인으로서, 탈영병을 쫓는 사냥개로서, 나라의 명령을 받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내 또래의 누군가를 쫓아야 하는 군견으로서.” <br/><br/>만화는 실제 작가의 경험을 기반으로 했지만 대부분 허구의 사건으로 재구성하여 그렸다. 혹시라도 실제 군대에서 유사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에게 2차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의 만화를 보고 군대에서 가해자였던, 피해자였던, 혹은 방관자였던 군필 남성들은 자신의 고백을 전하기도 했다.<br/><br/>“군대시절 가해자였던 분 중 만화 속 가해자의 모습이 자신과 겹쳐서 자기가 외면하고 싶었던 기억과 마주하게 되었고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온 분도 있어요. 헌병대 수사과 수사병이었던 분은 자신이 담당했던 자살 사건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얘길 하기도 하셨죠. 그때의 기억이 계속 죄의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소리소문 없이 죽어가는 이들에 대한 얘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보통의 군 경험을 한 어떤 남자 분은 침묵한 경험에 대해 자신이 비겁했고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얘길 하기도 하셨고요.” 만화를 연재하던 중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다. 누가 그런 구닥다리 군대 얘길 하느냐?’라는 반응도 있었다고. 이에 너무 옛날 얘기를 그린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반성을 할 무렵, 서울 내곡동 예비군 총기 사고가 터졌단다. 당시 그가 그린 만화 내용은 예비군 사격장에 가서 쏴 죽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간부를 미워하는 한 제대 군인의 이야기였다.<br/><br/>“‘아다리’가 맞은 게 기쁘다기보다는 더 무서웠어요. 군대는 오히려 변하지 않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요. 결국, 사람들이 ’옛날 군대’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외면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군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크게 변함이 없고, 가혹행위도 큰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사람들이 얘기하듯 ’구닥다리 옛날 얘기’라고 받아들여지면 기뻤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죠.” <br/><br/>군대에서의 경험은 비단 그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20대 초 중반 시절에 경험한 최초의 수직적, 절대적 상명하복의 소위 ’까라면 까라’는 식의 조직문화는 그 이후 소속할 직장이나 모임 등에서의 사회 경험으로까지 확산된다. <br/><br/>“그게 다 군대에서 배운 것이거든요. 여성분은 ’뭐, 이따위지?’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테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달라요. 이건 군대에서 겪었던 일이고 이럴 땐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는 촉이 2년에 걸쳐 땀과 피가 튀며 체득한 경험 속에서 딱 와요. 어디에 줄을 서야 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군대를 제대하고 조직의 생리를 체득한 사람들이 나와서 만들어 가는 게 회사라고 보거든요. (군대 경험이) 대단히 큰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봐요. 대학교 고학번들만 해도 어린 친구들에게 ‘군대엘 안 다녀와서 개념이 없다’라는 얘길 일상적으로 하잖아요. 그것부터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br/><br/>‘D.P’뿐만 아니라 <아만자> 등의 그의 여타 작품들은 주로 인간이라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하지만 잊혀진 권리들을 상기시킨다. 본격적으로 만화를 그리기 전에는 보통의 회사원으로 살았다는 그는 왜 이제껏 어둡게 가려져 있던 약자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화를 그리게 된 것인지가 궁금했다.<br/><br/>“<아만자>도 그렇고 ‘D.P’도 그렇고 콘티라든가 아무 준비도 없이 그렸어요. 일단 그리라고 해서 그리기 시작한 건데, 그리다 보니 젊은 환자들에 대한 얘기가 되고, 군대라는 조직에서 희생당하고 다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명확하게 의식하지는 않았어도 마음속에 걸렸던 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김보통 작업실 어시스턴트 모집 공고에서 제시한 처우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근무시간 5시간/정규직 어시스턴트 월급 100만원’이라는 조건을 내건 김보통의 어시스턴트 모집 공고에 SNS 사용자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금 수준이나 근무 강도로 보면 당연한 대접이지만, 실제 만화 작업장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터져 나온 반응이었다. 일각에서는 왜 전체 만화인이 어시스턴트들을 부당하게 대접하는 것처럼 욕보이느냐는 반응도 있었다고 한다.<br/><br/>“제가 욕 먹어서 화제가 돼서 ‘누구는 5시간씩 일하고 100만 원을 준대’라는 얘기가 돌면 결과적으로 득을 보는 건 어시님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력 되는 사람들은 최저 수준 김보통 보다는 잘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교황님도 욕을 먹는 시대잖아요. 교황님 트위터 계정에 가보면 “여러분에게 평화를 빕니다”라는 트윗 아래 욕 댓글이 나오거든요. 어떤 일을 하건 욕은 먹을 수 있는 거고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니까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어시님들이 대접을 받는 사회로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욕먹어도 상관없어요. 최근에 어시를 한 명 더 고용해서, 다음 주부터 어시 두 분과 같이 일하게 돼요.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br/><br/>이번 어시스턴트 고용을 비롯해 작가가 그의 SNS 계정에 올리는 만화가로서 헤쳐나가야 하는 불안한 현실에 대한 솔직담백한 이야기들이 올라온다. 이에 많은 이들은 공감하고 용기를 얻는다. 그의 이름처럼 ’특별히 뛰어나거나 열등하지 않기에’ 고민하고 현실에 부대끼고 흔들리는 모든 보통 사람들의 시점에서 이야기하기에 더욱 많은 공감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김보통은 ‘보통’의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시도한다. 만화를 그리고 싶지만, 여건이 어려운 후배들에게 장비를 제공한다거나, 레진코믹스에 연재한 ‘내 멋대로 고민상담’(현재 휴재 중)의 내담자 중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한해 한 대학 병원과 연계해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기회도 마련했다.<br/><br/>“제가 지금까지 만화가가 되고 운이 좋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건 선의를 가지고 제게 기회를 주고 도움 준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단칸방 작업실이래도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다시 다른 사람에게 기회로든 물품으로든 돈으로든 돌려줘서 그것들이 회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이라도 판을 벌여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그 사람은 저에게 받은 도움을 다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벌이는 중이에요. 앞으로도 수임의 30% 정도는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br/><br/>그가 벌이는 크고 작은 일들이 결실을 맺고,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뜻을 함께한다면 조금씩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거대 담론이 사라진 세상, 어쩌면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희망은 거창한 이상의 실현이 아니라 ‘보통’과 상식의 회복일지 모른다. 김보통이 꾸는 꿈을 들으며 일산의 단칸방 작업실에서의 인터뷰는 마무리 지어졌다. (김보통과의 인터뷰가 있던 날은 공교롭게도 알랭 드 보통과의 인터뷰가 있던 날이었다. 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작가는 알랭 드 보통에게도 한마디를 전했다.)<br/><br/>“알랭 드 보통 씨에게는 왠지 (이름을) 표절한 느낌이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웃음) 언젠가는 저도 앞으로 열심히 해서 ’내가 한국의 보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급이 된다면 같이 인터뷰할 날이 왔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꾸는 꿈은 언젠간 제 만화가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에 출품이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허황된 꿈이라도 꿈은 큰 게 좋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D.P’는 기본적으로 출판을 기본으로 한 만화이기 때문에 책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웹으로 보는 것보다는 출판된 책으로 보는 게 고려한 연출을 생각해서도 훨씬 나을 것이고, 그래야 제가 어시님 한 분이라도 더 고용하고 월급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도와주세요.” <br/><br/><br/><br/>※ 김보통 만화가가 북DB와 인터뷰 촬영 때를 소재로 그린 만화.(출처 : 김보통 페이스북)<br/><br/><br/><br/>※이 기사는 인터파크도서 북DB와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제공합니다. <br/>▶인터파크도서 북DB 작가인터뷰 최신 리스트 보기<br/><br/><br/><br/><br/> ‘향이네’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소식을 접하세요!(▶바로가기)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93.txt

제목: 시나브로 늘어난 나노물질, 안전할까?  
날짜: 20160507  
기자: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07190816232  
본문: 정부도 소비자도 생활화학제품 나노물질 함유 여부 알지 못해… 선진국은 등록제 운영<br/><br/><br/>2005년 9월 “살균세탁하셨나요~”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세탁기 광고음악이 화제가 됐다. 귀에 거슬리는 고음의 광고 노래가 TV와 라디오의 전파를 타고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광고가 뜻밖의 주목을 받으면서 은나노입자를 흘려보내 세탁물을 살균하는 세탁기능도 함께 관심을 모아 제품 매출 역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 세탁기를 해외로 수출하려던 국내 전자업체가 미국 등에서 은나노입자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규명하라는 요구를 받아 수출계획을 중단하면서 은나노 항균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세탁조에서 배수호스를 타고 하수도로 흘러들어간 은나노입자가 하천 등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제기부터, 세탁기뿐 아니라 아기가 쓰는 젖병 등에 쓰이던 은나노 항균 처리방식의 위해성에 관한 연구가 하나둘씩 나온 것이다. 은나노 제품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듯 보였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은나노입자를 활용하는 곳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br/><br/>은나노입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나노물질을 뜻하는 ‘제조 나노물질’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 은을 포함한 10여종의 제조 나노물질이 사용되는 곳은 생활 주변을 비롯해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나노물질이란 1~100나노미터(nm) 크기의 화학물질을 일컫는다.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분의 1 크기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극소의 세계는 아직 안전성과 위해성이 다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다.<br/><br/>‘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4일,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나노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하는 긴급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미국, 캐나다,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나노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어떤 생활화학제품이 나노물질을 함유하고 있는지 소비자는 물론 당국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합성세제와 소독제와 방향제 등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어떤 제품에 나노물질이 들어가 있고, 그 나노물질이 피부나 호흡기 등을 거쳐 체내로 흡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작업은 올해 12월에야 마무리된다. 다시 말해 적어도 12월까지는 생활화학제품을 통해 나노물질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미지의 상태로 남겨진다는 뜻이다.<br/><br/>물론 나노물질의 안전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나노물질이 인체에 해를 입힌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흔히 쓰이는 제조 나노물질의 종류는 은과 금, 산화아연, 이산화티타늄 등 금속입자인 나노물질과 탄소나노튜브, 풀러렌 등 비금속 나노물질로 나뉜다.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 이들 나노물질 가운데는 일반적인 상태와 크기로 있을 때에는 거의 유해하지 않은 물질도 많다. 그러나 문제는 나노 수준으로 매우 작은 입자가 되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가습기 살균제가 에어로졸 상태로 공기 중에 분무되었기 때문에 허파와 같은 호흡기에 집중적인 해를 입힌 것처럼 나노물질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쉽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br/><br/>현재로서는 제조 나노물질 중 인체에 가장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로 탄소나노튜브가 꼽힌다. 탄소원자가 서로 연결되어 대롱 모양을 이루고 있는 소재인 탄소나노튜브는 전기전도도가 높으면서도 강철의 100배에 달하는 강도를 지니고 있어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전류가 흐르는 것을 조절할 수 있어 반도체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고, 섬유에 섞어 질기면서 가벼운 옷감을 짤 수도 있는 물질이다. 하지만 탄소나노튜브 중 다중벽탄소나노튜브(MWCNT)는 장기간 흡입했을 때 폐암과 기관지폐포암 등을 발생시키는 동물실험 결과가 나와 발암성이 인정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조 나노물질 작업반(WPMN)이 펴낸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다중벽탄소나노튜브는 암을 일으키는 것 외에도 흡입 시 폐와 기관지 등 호흡기에 염증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위해성이 있음이 드러났다.<br/><br/><br/><br/>탄소나노튜브는 아직까지는 생산현장에서 작업하는 연구자나 노동자들 외에는 보통 직접 접촉할 일이 적다. 하지만 은과 산화아연, 이산화티타늄 등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품을 사용했을 때 노출되는 정도에서도 해를 입힐 수 있는 나노물질이다. 한때 항균 젖병이나 칫솔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은나노입자를 비롯해, 흔히 선크림이라 부르는 자외선차단제 속에 들어 있는 산화아연과 이산화티타늄은 체내 축적이나 피부질환, 세포 내 DNA 변형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나노안전성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은나노입자는 실험동물의 간세포나 생식세포 가운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등의 위해성이 있었다. 산화아연과 이산화티타늄은 생물 종에 따라 다르지만 급성독성과 치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br/>같은 물질이지만 위해성과 안전성이 엇갈리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09년 7월 미국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가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간 나노물질이 다른 종류의 자외선 차단성분보다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또 다른 미국의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정반대의 연구 결과를 들고 나와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구의 벗 측은 나노물질에 자외선을 쬐면 자유 라디칼(free radical)이 발생해 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입자가 극히 작은 나노물질의 특성상 호흡기로 흡입되거나 피부로 스며들 수도 있고, 입과 소화기관을 거쳐 몸 안으로 들어가는 등 다양한 경로로 침투할 수 있다. 다른 변수를 완전히 통제한 채 이 모든 각각의 노출 환경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여지가 높아진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은혜 연구사는 “<span class='quot0'>각각의 나노물질이 가진 유해성에 인체가 현실적으로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위해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위해성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span>”고 말했다.<br/><br/>나노물질이 가진 이와 같은 특성이 작용한 탓도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나노물질의 위해성 정도를 가릴 수 있는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소비자들이 최소한의 회피를 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는 셈이다. 미국에서는 독성물질관리법과 살충살균살서제법 등으로 지정된 나노물질을 제조할 경우 신고하게 되어 있다. 유럽연합(EU)도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등의 규제를 통해 항균 기능이 있는 은나노물질을 살균제로 분류하는 등 제품에 함유된 나노물질 정보를 밝히는 것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가까운 대만과 태국 등에서도 등록이나 신고 절차 없이도 나노물질 함유제품 표시제를 시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 박자 느린 정책 행보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를 기한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br/><br/>보다 높은 농도의 나노물질을 장시간 접촉해야 하는 산업현장의 연구자나 노동자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침도 지난해에야 마련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4년 펴낸 ‘나노물질 사용실태, 노출 시나리오 및 노출 인구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나노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총 695개에 달하며, 이들 사업장에서 3만8898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나노물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들 사업장 외에 일반 사업장에서도 나노물질이 발생해 작업자의 신체로 침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윤충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span class='quot1'>작업장에서의 나노물질은 최근 문제되는 공학적 나노물질뿐만 아니라 전통적 사업장과 일반환경에서도 발견된다</span>”며 “<span class='quot1'>전통적 사업장에 대해서도 건강 위해성과 노출 평가가 새로운 시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span>”고 밝혔다.<br/><br/>지난해 나노물질 취급·제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기는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안전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남은 문제다. 해당 작업장의 국소적 배기시설을 갖춘 곳은 많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나노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고 발생공간을 격리시키는 등의 대책이 지켜지는 곳은 극히 드물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나루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2'>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나노물질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안내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도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2'>탄소나노튜브 제조 사업장들에서 만들어진 안전보건자료의 경우 탄소나노튜브 자체의 유해성을 알리는 내용은 없고, 흑연 등 유사하지만 다른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잘못 전파하는 문제도 있었다</span>”고 말했다.<br/><br/>나노물질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위해성이 밝혀지는 한편 실생활 수준에서는 안전성을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나오고 있다. 나노물질 사용을 포함하는 폭넓은 나노기술 전반에까지 불필요한 공포감이나 거부감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은혜 연구사는 “<span class='quot0'>나노물질 역시 그 위해성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더라도 사전에 가능한 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운다는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대비방안을 세우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나라나 국제기구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상황까지 반영해 더 현실에 맞는 안전기준을 준비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94.txt

제목: “어머니가 아프지 않는 것이 유일한 소원”  
날짜: 20160504  
기자: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04211902752  
본문: ㆍ‘부모 간병 23년’ 김숙현씨 <br/>ㆍ어버이날 맞아 대통령 표창<br/><br/>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월세방에서 어머니(91)의 병간호를 하고 있는 김숙현씨(59·사진)는 펜션·모텔의 청소노동자이다. 오빠와 남동생 각각 1명을 둔 김씨가 부모 병간호를 한 것은 올해로 23년째이고, 부모를 모시고 생활한 것은 35년쯤 됐다. 김씨는 6일 울산 종하체육관에서 열릴 ‘제4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울산의 대표 효행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br/><br/><br/>김씨는 20대 초·중반까지는 영국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던 ‘신여성’이었고, 당시로서는 드물게 외국을 드나들며 기업인들의 통역이나 비서 업무를 했다. 그가 부모를 봉양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 오빠와 함께 살던 어머니가 신부전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서울에 살던 그는 1994년 어머니의 병이 악화되고, 친척의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br/><br/>이후 김씨는 경기 안성으로 부모와 이사를 했고, 파트타임 통역 일과 회사 일을 병행했지만 부모의 병원비·생활비를 조달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더구나 그가 2013년 실직하면서 가계사정은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조카의 도움을 받아 울주군의 한 월세방에서 부모를 봉양하고 있다.<br/><br/>김씨의 오빠는 7년 전 미국에서 사망했고, 남동생의 형편도 어려워 경제적 도움을 받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 여기에다 아버지가 지난해 4월 폐결핵과 전립선암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한 달에 정맥주사 치료비만 600만원을 조달해야 하는 등 생활고는 더욱 심해졌다. 환갑을 앞둔 나이에도 미혼인 김씨는 “결혼은 내게 사치”라고 말했다.<br/><br/>김씨는 돈을 벌기 위해 눈높이를 낮추고 과거에 잘나갔던 모습들은 잊어야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아버지가 지난 2월 편안하게 임종을 맞으신 것이 내게는 큰 위로가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어머니가 아프지 않는 것이 유일한 소원</span>”이라며 밝게 웃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95.txt

제목: 까다로운 폐암, 육종암 치료, 양한방병행치료 도움된다  
날짜: 201605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04154159995  
본문: 폐암처럼 발생률이 높고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이 낮은 암과 육종암같이 치료가 매우 힘든 암의 경우 양한방 병행치료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통합한의원의 자체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한방 통합치료 처방 시 암세포 유효반응율이 최대 8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한방의료계에서는 특히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자멸사를 유도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옻나무추출물에 주목하고 있다. 옻나무추출물은 최근 각광받는 한방암치료제들을 만들어내는 주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파세틴이라는 성분은 염증을 치료하고 암세포의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다고 밝혀졌다.<br/><br/>옻나무추출물로 만든 대표적인 한방항암제로는 티버스터가 있다. 티버스터의 암세포 사멸 효능은 국제 SCI급 저널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서 인정받기도 했다.<br/><br/>하나통합한의원 관계자는 "항암 치료는 우리 몸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고통스런 치료 중 하나"라면서 "한방암치료는 내성을 유발하지 않고 항암부작용을 최소화해 보다 수월한 암 치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96.txt

제목: 노성훈 연세암병원장 "중입자 치료기 도입, 난치성 암도 만성질환 만들겠다"  
날짜: 20160504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04070200675  
본문: 연세암병원이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치료기(가속기) 도입을 결정하며 새로운 도약의 기치를 내걸었다. 2014년 4월, 다른 병원에 비해 늦은 암병원 개원이지만 2년 만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두며 순항하고 있다. 특히 많은 해외환자 유치로 지난달 28일에는 한·중 언론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메디컬아시아 2016’에서 글로벌 암병원 부문 대상 및 한국의료 세계화 공로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br/><br/>연세암병원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노성훈 병원장(62·외과)을 최근 만나 주요 발전 계획을 들어봤다. 위암 수술의 대표 명의인 그는 대한위암학회 회장, 대한암학회 이사장, 세계위암학회 회장, 대한외과학회 이사장(현) 등 국내외 학계의 리더이기도 하다.<br/><br/>노 원장은 “<span class='quot0'>중입자 치료기는 난치암 치료에 탁월한 치료 효과를 지난 장비이며, 현존하는 모든 방사선 치료 장비와 비교해서 암세포에 대한 치사율이 가장 높은 반면 정상 조직에 대한 선량 피폭이 가장 낮은 장비</span>”라고 말했다.<br/><br/>―연세암병원의 현재 좌표는 어떻습니까.<br/><br/>“연세암병원은 1969년 개원한 국내 최초의 암전문 진료기관인 ‘연세암센터’를 모체로 합니다. 연면적 10만5783㎡(3만2000여평), 지상 15층(지하 7층)으로 501병상, 18개 수술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13개 암센터, 4개 특화센터를 운영합니다. 다양한 암종별 센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화센터를 운영하며 안전한 병원, 환자가 편안한 병원, 약속을 지키는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기준으로 연세암병원은 일평균 외래환자수 2000여명, 일평균 수술건수 55건을 상회하고 있어요. 외래환자수 기준으로 개원초기 대비 33%, 2015년 대비 11% 늘어났고 일평균 수술건수는 개원초기 대비 50%, 2015년 대비 25% 증가하는 등 계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br/><br/>―지난 2년간 특별히 어떤 부분에 주력하셨는지요.<br/><br/>“암병원 개원을 앞두고 암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외부 자문기관을 통해 환자가 바라는 의료진과 병원 모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들은 평안한 상태에서 배려 받으며 치료받고 싶어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질병치료에만 초점을 두었지 정작 중요한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숙면을 보장하기 위해 응급환자나 중환자가 아니면 혈액검사나 영상촬영 등 다양한 검사들을 새벽이나 늦은 시각에는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암환자가 제일 두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통증관리를 위해 전담관리팀을 상시 운영했고, 주치의 회진시간을 사전에 병동게시판에 게시하여 환자의 대기시간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환자의 심적 안정감은 물론 빠른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br/>―최근 암 치료의 경향은 어떠한지요.<br/><br/>“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개인치료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폐암환자라도 세부적인 폐암종류와 그 유전자 돌연변이가 다 다릅니다. 또한 여배우 앤젤리나 졸리처럼 자신의 암 발병률을 예측하여 예방적인 암 치료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연세암병원도 각 암환자의 유전자분석을 통한 최적의 치료법과 항암약물을 선택하여 치료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도입된 면역항암제는 환자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치료하는 약물로서 약물부작용이나 내성이 없습니다. 현재 말기 암환자나 여러 장기로 암이 전이된 중증 암환자에게서 큰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어 의료진 또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br/><br/>―연세암병원은 질환별 팀 진료체계가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br/><br/>“현재 13개 암종별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암센터별로 4개 진료과 이상의 교수진이 한 환자의 진료와 치료계획을 결정하는 ‘베스트팀’ 진료를 통해 월평균 100여 명의 중증 암환자를 원스톱으로 진료합니다. 또한 암예방센터, 완화의료센터, 암지식정보센터, 흉터성형레이저센터 등 특화센터는 암 예방에서부터, 치료, 치료 후의 삶의 질을 관리하는 영역에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br/><br/>―그래도 기존의 중증 암환자에 치료에는 한계가 있을 듯 합니다.<br/><br/>“전이 및 재발 암환자, 그리고 여타 합병증을 동반한 중증 암환자는 매 순간 상태가 급격히 변할 수 있어 즉각적인 전문 치료가 중요합니다. 올해 들어 연세암병원은 중증암환자 병동에서 상주하며 진료를 시행하는 ‘입원환자 전담의’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과전문의인 입원환자 전담의는 각 환자의 상태를 항시 살펴봄으로써 주치의에게 정확한 상태를 전달하는 한편, 두 전문의가 최적의 치료법을 고민하고 결정함으로써 환자의 불편한 증상을 빠르게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br/><br/>―원장님께서 암을 진단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br/><br/>“2014년 11월경 후두암 2기 판정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난 30여년 넘게 암을 수술한 의사가 정작 자신의 암을 보지 못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몇 년 전부터 성대부근에 이상부위가 있어 꾸준히 정기검진을 받아왔는데 병원 개원준비로 1년 정도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일찍 발견돼 다행스럽게도 7주간의 방사선치료로 현재 암세포는 다 없어지고 정기적인 검진만 받고 있습니다. 암 진단이후 암환자의 시각을 갖고 병원 내부를 새롭게 보며 환자친화적인 병원 환경과 간소한 진료절차를 세우는데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예약된 진료와 검사시간을 더욱 준수하여 환자의 시간을 지켜주는 작은 실천을 전 병원차원에서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안한 마음을 가득 안고 이른 시각부터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치료법으로 설명하는데 할애하도록 하였습니다.”<br/><br/>―국내 암 치료의 수준은 어디쯤으로 보시는지요.<br/><br/>“위암과 간암,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 분야에선 세계 최고의 치료수준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서구형암으로 알려진 폐암과 대장암, 췌담도암 분야도 구미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최신 암치료기법이나 연구동향은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앞선 임상시험 수준으로 개발된 최신 항암약물 또한 연세암병원을 비롯한 국내 대학병원에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도입되어 난치성 암환자들께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수준의 암 치료수준에 비해 기초 연구 분야는 아직 선진국과 격차가 있는 만큼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br/><br/>―최근 메디컬아시아 2016에서 한국의료 세계화 공로상을 받은 소감은.<br/><br/>“그동안 암진료와 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연세암병원에 많은 외국의 의사들이 연수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가 자국의 환자들 진료에 헌신해 왔고, 이들을 통해 연세암병원의 명성이 국제적으로 크게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 해 연인원 5000명 이상의 해외환자가 연세암병원에서의 진료에 만족하고 감동한 것이 수상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연세암병원이 더 많은 해외 의료진들에게 도움이 되고, 환자들께는 최상의 진료를 하는 세계적인 병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br/><br/>―현재 여러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중입자 치료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이유는.<br/><br/>“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첨단 장비는 치료성적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로봇틱 IMRT’와 토모테라피, 라이낙 등 방사선치료기와 다빈치 로봇수술기 등 최첨단 치료 장비, CT·MRI·PET-CT 등 최신의 진단 장비를 이미 갖추고 있죠. 여기에 중입자 치료기가 도입되면 초기 암환자부터 말기 암환자까지의 다양한 상태의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커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난치병인 암을 만성질환으로 바꾸는 암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br/><br/>―앞으로 연세암병원 도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br/><br/>“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국내 암환자 또한 증가하고 고령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기 진단을 통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연세암병원은 유전적 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 암예방을 위한 조기진단 영역을 강화하려 합니다. 또한 한국인에게서 많은 암 특성을 분석한 가운데 맞춤형 항암약물과 치료기법 연구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br/><br/>―암 치료율이 향상되면서 암 유병자가 120만명이 넘습니다.<br/><br/>“국내 암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유전정보나 선천적·후천적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으로 발전했습니다. 진단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분자·정밀의학 도입으로 치료율은 더 높아지겠죠. 이제는 만성질환처럼 돼버린 암의 조기진단이나 치료뿐 아니라 적극적인 생활 속에서의 예방과 재발 방지, 그리고 암 치료 후 삶의 질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br/><br/>■중입자 치료기란<br/><br/>의료용 중입자 치료기는 중입자(탄소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하는 첨단 암치료 장비이다. 중입자 치료 시스템과 연결해 가속된 탄소입자를 체내 깊숙한 곳에 침투시켜 암세포를 정확하게 파괴한다. 치료 과정에 통증과 후유증이 거의 없고 두경부암, 폐암, 간암, 골육종 등 난치성 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br/><br/>중입자 치료기 가동은 세계적인 암치료 의료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별도의 건물을 완공하고 진료 시스템과 연결하는데 2~3년의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계장치를 연결하는 길이만 120m이며 장비 구입과 건축에 최대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97.txt

제목: “존슨앤드존슨 파우더, 난소암 유발”…미국서 600억·800억원 배상판결 잇따라  
날짜: 20160503  
기자: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03223641562  
본문: ㆍ파우더 속 성분 ‘탤크’ 암 유발 가능성 논란<br/><br/><br/><br/>미국에서 존슨앤드존슨(J&J)의 땀띠용 파우더(탤크 파우더·사진)가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난소암 피해자에게 지난 2월 첫 800억원 배상 판결이 나온 데 이어 3일 600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비슷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 1200건이 걸려 있어 후속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r/><br/>3일 로이터통신, BBC 등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전날 존슨앤드존슨이 원고 글로리아 리스트선드에게 피해배상금 500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5000만달러를 합한 총 5500만달러(약 620억원)를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수십년 동안 존슨앤드존슨의 탤크(활석) 파우더를 주요 부위에 써온 리스트선드는 2011년 난소암 진단을 받고 난소적출 수술을 받아야 했다. 같은 법원은 지난 2월 35년간 존슨앤드존슨 파우더를 썼다가 지난해 난소암으로 숨진 재클린 폭스에게 존슨앤드존슨이 피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합쳐 7200만달러(약 82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br/><br/>존슨앤드존슨의 캐럴 굿리치 대변인은 “<span class='quot0'>이번 판결은 지난 30년 동안 파우더에 쓰인 탤크의 안전성을 인정한 학계 의견과 배치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항소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파우더에 들어간 탤크 가루가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왔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는 없다.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증거가 엇갈린다는 이유로 탤크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98.txt

제목: "존슨앤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병"...미국에서 연이어 거액 배상판결  
날짜: 20160503  
기자: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03162754785  
본문: 미국에서 존슨앤존슨(J&J)의 땀띠용 파우더(탤크 파우더)가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난소암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2일 다른 피해자에게도 600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손해배상 소송 1200개가 걸려 있어 후속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r/><br/>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전날 존슨앤존슨이 원고 글로리아 리스트선드에게 실제 피해 배상금 500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5000만달러로 총 5500만 달러(약620억원)를 물어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리스트선드는 수십년동안 존슨앤존슨의 탤크 파우더를 주요 부위에 사용했고 2011년 난소암 진단을 받아 난소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br/><br/>존슨앤존슨 파우더와 난소암의 상관성을 인정한 첫 판결은 지난 2월 재클린 폭스가 제기해 승소한 7200만달러(약 820억원) 배상 판결이다. 폭스는 3년 전 난소암 판정을 받고 지난해 가을 숨졌다. 폭스는 35년 동안 베이비파우더 등 존슨앤존슨의 제품을 써왔다. 1000만 달러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 620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다.<br/><br/>리스트선드 변호인인 제레 비슬리는 “<span class='quot0'>배심원들이 소송을 종결시키고 존슨앤존슨이 소송을 제기한 다른 원고들과도 합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현재 탤크파우더에 쓰이는 광물인 활석(탤크) 가루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주리주법원에 약 1000건, 뉴저지법원에 200건 등 유사한 소송 1200건이 제기돼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 샤워투샤워 파우더 등이다. <br/><br/>앞선 판결에 항소한 존슨앤존슨은 이번 판결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캐롤 굿리치 대변인은 “<span class='quot1'>이번 판결은 지난 30년 동안 파우더에 쓰인 탤크의 안전성을 인정한 학계 의견과 배치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항소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탤크가 들어간 파우더를 여성의 성기 주변에 사용하면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증거가 엇갈린다는 이유로 탤크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연광물 상태의 탤크는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탤크에서 석면을 제거해 베이비 파우더나 화장품에 많이 써 왔다. 하지만 석면이 없는 탤크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가 엇갈리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299.txt

제목: [제정임의 문답쇼, 힘] ⑤ 유종일 교수 “복지 문제를 대출로 해결하는 정부···‘금융업 먹이’ 된 서민”  
날짜: 20160503  
기자: 고륜형·신혜연 기자 kryunhyoung@naver.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03132545078  
본문: 유종일(58)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span class='quot0'>정부가 농민, 세입자, 대학생 등 복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써 온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고 있다</span>”며 더 이상 국민들을 ‘금융업의 먹이’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또 “<span class='quot1'>복지와 함께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span>”며 이를 위해 재벌의 ‘황제 경영’을 바로잡는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4월 21일 방송된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의 주요 내용.<br/><br/><br/><br/>▶단비뉴스 원문 보기<br/><br/><br/><br/>■상아탑에만 머물 수 없었던 경제학자<br/><br/><br/><br/>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회적 목소리를 내시는 경제학자 중 한 분이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은 전국 예비고사 차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하셨고요, 한국인 최초로 학부만 마치고 하버드 박사과정에 바로 입학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력으로 쭉 갔으면 지금쯤 조국에 노벨 경제학상을 안겼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소식은 안 들리고 학문 외에 다른 일로 바쁘신 것 같아요.<br/><br/><br/><br/>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아픈 곳을 찔렸네요. (웃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회정의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원래는 수학 물리학을 좋아해서 이과에 있었는데, 사회문제 관련된 책을 읽고 고민하다가 대학시험을 볼 때 경제학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학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만,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상아탑에만 있을 수 있는 학문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통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도모할까 고민하다 보니 논문만, 책만 써서는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저런 현실적 문제에 개입하다 보니 과외활동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br/><br/><br/><br/>제: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활동은 뭔가요?<br/><br/><br/><br/>유: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최근의 로맨스라고 할까요, (웃음) 주빌리은행에 가장 각별한 관심 갖고 있습니다. 또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의 이사장, 즉 CEO(최고경영자)를 맡고 있고, ‘119포럼’이라고 정치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지식인들의 포럼에서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등록금 독촉하는 교사에게 “당신이 세리야?” 삿대질<br/><br/><br/><br/>제: 은행장에, 협동조합 이사장, 포럼 회장까지. 정말 마당발이십니다. ‘내 인생의 키워드’ 첫 번째로 ‘세리’를 꼽아주셨어요. 어떤 뜻인가요?<br/><br/><br/><br/>유: 저라는 사람을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일 것 같은데요. 저는 정의감 과잉이라고 할까, 옳지 않은 일을 보면 그걸 참지 못하고 덤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에 잘 보이려고 등록금 닦달을 심하게 하셨어요. 납부 마감 전부터 학생들에게 납부를 독촉했습니다.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은 풀이 죽었죠. <br/><br/><br/><br/>제: 그때는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았잖아요.<br/><br/><br/><br/>유: 그럼요. 제가 지금 1970년대 중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락을 못 싸오는 학생들도 많았던 시절이죠. 제가 그걸 한 번 두 번 보다가 참지를 못해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교육자야, 세리야?” 소리쳤습니다. 하늘 같은 선생님한테 말을 탁 놓고서. 제가 그런 짓을 무수히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는 잘하는 학생이었지만 항상 문제아였고, 선생님께 많이 맞고 지냈죠.<br/><br/><br/><br/>제: 그런 성격에 군대 생활도 만만치 않았겠어요.<br/><br/><br/><br/>유: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법적으로는 군 면제예요. 하지만 학생운동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제적도 당하고 해서 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선임 하사가 밤에는 대장이거든요. 술 한잔 하고 내무반에 와서 아무 이유도 없이 기합을 주곤 했습니다. 저는 졸병이었지만 거부했어요. 그러다 ‘빰빠라’라고, 한 겨울에 팬티만 입고 눈 덮인 연병장을 도는 벌을 받았어요. 고참들은 ‘또라이’ 졸병 때문에 자기들까지 고생하게 됐다고 불만이었고, 그래서 더 험악한 일을 당하고 그랬죠. <br/><br/><br/><br/>제: 아까 학생운동, 제적 말씀하셨는데 서울대 경제학과 다니던 시절에 제적당하셨군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br/><br/><br/><br/>유: 제가 제적을 두 번을 당했는데요. 그때 유신 말기였으니까요. 학교 분위기가 살벌했고, 정보기관, 경찰에서 학교에 상주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주의 인물’이라 저를 담당하는 형사가 있었어요. 아침마다 다방에서 그 형사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계란을 넣은 모닝커피를 마시고,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갔어요. 형사는 수위실에서 기다리고, 수업 끝나면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갔죠.<br/><br/><br/><br/>제: 이 친구는 내가 관리해서 사고를 안 치게 하겠다, 그런 임무를 맡은 형사였군요.<br/><br/><br/><br/>유: 그렇죠. 그 정도로 학원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살벌하던 시절이었는데도 학생운동을 했던 건, 저의 특성이죠. ‘차라리 데모를 하고 감옥에 가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긴급조치 9호 마지막 위반 사건으로 데모를 주도했죠. 구속이 돼서 경찰서에 있을 때 10·26사건(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뒤에 구치소도 가고 그랬지만 풀려났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80년 서울의 봄(10·26 사건 후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정치적 과도기)이 와서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데, 그 뒤에 5·17과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전두환 장군의 쿠데타로 다시 학원이 장악되고. 저는 강제징집 1순위로 전방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된 거죠.<br/><br/><br/><br/>제: 그렇게 감시를 받고, 제적당하고, 징집되는 중간과정에는 그 무시무시한 정보기관에 끌려가서 곤욕을 치르는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br/><br/><br/><br/>유: 수사기관에 끌려가지 않은 해가 한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장기 투옥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매해 끌려가길 반복했죠.■각자에게 자신이 가장 귀한 존재, ‘유아독존’으로 살다 <br/><br/><br/><br/>제: 부모님 입장에선 우리 아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 출세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텐데, 매일 쫓겨 다니고, 감옥에 가고 군대도 강제로 끌려갔으니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br/><br/><br/><br/>유: 당연하죠. 제가 불효자식이죠.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은 거고. 그래도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 홀로 존귀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거죠. 나 혼자 잘났다는 뜻은 아닙니다.<br/><br/><br/><br/>제: ‘유아독존’이 보통 독선적이라는 말로 잘 쓰이지만, 진짜 의미는...<br/><br/><br/><br/>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자기 자신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평등과 자유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가슴에 못을 박는 거지만 그것이 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주변의 기대, 사회적인 고정관념, 권력의 부당한 억압, 이런 모든 내적 외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했죠.<br/><br/><br/><br/>제: 두 번째 키워드로는 스님을 꼽아주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br/><br/><br/><br/>유: 한 스님을 뵙게 됐는데, 범상치 않은 분이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에 정진하시고. 처음 만나자마자 통성명도 없이 제 눈을 딱 바라보면서 “유 교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뭡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하나를 말해보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스러웠죠. 초면에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제 눈을 보면서 제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모두가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런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삽니까?” 그래요. 무슨 뜻인지 물었죠. “인생은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치열하게 사는 게 잘못된 건가요? 진지하게 사는 건 또 무슨 뜻인가요, 물어보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당신은 개혁을 해야 할 사람인데, 치열하다는 건 개혁에 필요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만 급해서 머리 피 터지게 싸우는 거다. 진지한 것은 준비하고 힘을 기르고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물론 ‘준비론’이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잘 새겨들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는 조금 덜 치열해진 거죠. 좀 더 느긋하고 좀 더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고.<br/><br/><br/><br/>제: 인생의 중후반부에 삶의 자세를 바꾸는 터닝 포인트를 주신 분이군요.<br/><br/><br/><br/>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를 만들게 된 것도 급하게, 왜 세상이 안 변할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또 우리 세대에 못하면 후대에 만들 수 있게 그런 그릇을 만들려고 하게 된 거죠.■외환자유화 찬성 전문가들에게 “이름 적었다” 경고 <br/><br/><br/><br/>제: 지금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책연구기관이나 기업 부설 민간연구소가 이미 많은 상황에서 별도로 이런 조직이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요?<br/><br/><br/><br/>유: 우리 사회에서 정책연구를 하는 곳이 정부 혹은 재벌 돈을 받는 곳, 그 외에는 정말 소규모 연구소밖에 없어요. 그래서는 새로운 상상을 하기도 어렵고 객관적이기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진정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해 탐구하고 상상하는 지식인들의 연구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이 너무 상업화돼서, 비판적 지성들이 모여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 미래가 걱정된다고 느꼈죠. 그런 점에서 부족하지만 이런 그릇하나는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고요.<br/><br/><br/><br/>제: 국책연구기관에서 경제전망을 하는데도, 프로그램 돌려서 나온 숫자를 그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조율을 해서 내보낸다든지, 어떤 연구기관의 기관장이 바뀌었더니 금리인하에 반대하던 리포트가 갑자기 찬성으로 바뀐다든지, 또 기업 부설 연구기관들이 제대로 현실을 짚어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지식인들이 현실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걸 정확하고 정직하게 못 해주니까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는다는 반성을 했었는데 그런 현실이 여전하다는 말이군요.<br/><br/><br/><br/>유: 외환위기를 겪고 얼마 안 돼서 정부가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추진했어요. 안 그래도 금융자유화를 함부로 하다가 큰 위기를 맞아 온 국민이 고생인데, 외환 자유화 조치를 섣불리 해도 되나. 1단계는 기업들을 위해 필요했다지만, 2단계는 개인의 해외 투자를 자유롭게 하는 내용이라서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신문에 특별기고로 내보냈더니 정부에서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정책 간담회에 초청했습니다. 가보니 정부 관계자, 외부 전문가들을 다 모였는데 저 혼자만 반대하고, 다 찬성하는 분들을 모신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하는데 다 듣고 나니 맥이 빠지고, 속으로는 화도 치밀고. 그 순간 제 특유의 ‘깡’이 발동했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경제학자나 관료라 경제위기에 대해 훨씬 책임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식의 위험한 조치를 취해서 또다시 외환위기가 오면, 제가 구체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여기 계신 분들 성함 다 적어 놨다. 그랬더니 다시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자유화가 필요하지만 위험성을 생각해서 속도조절은 필요하다.<br/><br/><br/><br/>제: 이름 적었단 한 마디에.<br/><br/><br/><br/>유: 네. 그래서 실제로 보완 조치도 이뤄지고. 그래서 2단계 외환자유화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br/><br/><br/><br/>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호공스’를 꼽아주셨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 단어인지?<br/><br/><br/><br/>유: 제가 나름의 교육관을 갖고 아이들을 길렀는데, 그게 한국 교육시스템과는 잘 안 맞아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자호공스는 아이를 기를 때 ‘자존심 길러주고 호기심 키워주면 공부는 스스로 한다’란 말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자존심을 지킨다는 건 다른 것 아니고.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욕망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거든요. 그걸 존중하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굉장한 호기심이 있어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호기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걸 죽이지 말고 호기심에 물을 주자는 겁니다. 자존심과 호기심 죽이는 게 시험입니다. 정해진 부분을 공부하게 하고 그걸로 점수를 매기고 서열화하고. 시험을 보고나면 스트레스 받고 자존심 상하고 공부에 대한 호기심이 떨어집니다. 저는 시험에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애들을 키웠더니 학교랑 잘 안 맞았습니다. 큰 아들이 첫 시험에서 42점을 받아온 거예요. 제가 안 놀란 건 아닙니다. 사실 한마디 했어요. 점수 잘 받을 필요는 없는데 42점은 좀 독특한 점수다. 그랬더니 아들이 “40점 받은 애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꼴찌는 아니라는 거죠. (웃음) 학교라는 게 나이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시험 위주고, 주입식이고 그렇게 되다보니 도저히 못 견디게 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두발규제 가지고 투사가 돼서 싸우더니. 결국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자퇴를 하겠다고 말하더군요.제: 큰 아이고, 아들인가요?<br/><br/><br/><br/>유: 네. 밑으로는 딸아이가 하나 있고요. 자퇴한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총 맞은 것처럼 팽하게 아팠어요. 내가 여기서 ‘노’하면 나는 꼰대다, 나는 이 아이의 친구가 돼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역시 내 아들이구나, 장하다, 그런 학교 그만두자. 아빠는 무조건 네 편이 돼서 어떤 선택을 해도 도와주겠다.” 그렇게 한 게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아들은 신뢰관계를 가진 친구가 됐고요. 그 후로 머리 신나게 기르고, 허리까지 길렀더라고요. 대학을 안 가고 음악을 하겠다고, 음악적 재능은 별로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계화 시대에 진짜 실력을 기르고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대학 나왔다는 걸 어디에다 쓰겠습니까.<br/><br/> <br/><br/>제: 그럼 그 아드님은 지금 현재 원하는 분야를 추구하고 있는 건가요?<br/><br/><br/><br/>유: 지금은 제가 어릴 때 하고 싶었던 물리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공과대학, 칼텍에서 물리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돈 받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있으니까요.<br/><br/><br/><br/>제: 고등학교는 자퇴했지만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찾아서 열심히 추구하니까 지금은 정말 하고 싶은 길에 제대로 들어섰군요.<br/><br/><br/><br/>유: 사실은 조기 유학 간 아이들보다 더 빨라요.<br/><br/><br/><br/>제: 그래도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는데,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br/><br/><br/><br/>유: 정말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아직은 미성숙하니까 부모님의 조언은 필요하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조언자고, 정 아니다 싶으면 설득하고 타협책을 모색해야지 강요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유: 오늘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강의’를 하라고 했는데, ‘운칠기삼(運七技三)’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옛날 중국에 선비가 하나 있었는데, 평생 과거시험을 보다 낙방을 해서 쫄딱 망했어요. 억울해서 옥황상제를 찾아갔죠. 나보다 실력이 모자란 사람들도 잘만 붙는데. 나는 어떻게 번번이 떨어지고, 불공평하지 않느냐. 옥황상제가 재밌습니다. 정의의 신과 운명의 신을 불러서 술 대결을 시켰습니다. 정의의 신이 3잔을 마시고 떨어지고, 운명의 신은 7잔을 마셨죠. 그래서 운칠기삼이다. 세상은 원래 운명의 장난이다. 그러나 정의도 3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무 불평하지 말고 노력을 더 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br/><br/><br/><br/>제가 생각할 때 옛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지어낸 것은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많은 직간접 관찰을 통해서 얻은 나름대로의 추론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그것은 옛날 중국 이야기고, 현대 사회는 어떨까. 제가 우연히 읽었던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보고 사실은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건데요. 미국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상품을 출시해 판매를 하기 전에 전문가들한테 여러 가지를 평가를 받은 뒤 평가가 아주 높았던 상품들, 평가가 아주 나빴던 상품들, 중간에 있었던 상품들 중 어떤 게 실제로 성공하느냐 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거의가 운이더라. <br/><br/><br/><br/>물론 평가가 좋은 상품들이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긴 하지만, 운으로 결정되는 게 훨씬 많더라. 왜 그런가 하고 따져 보니까, 처음 만난 최초의 몇몇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부분 운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를 찾아봤더니, 무엇보다 스포츠 분야에서 이변이 많이 생기잖아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훨씬 앞서는 팀이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변이 없고 랭킹 나온 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종목에 따라서 축구나 야구 이런 건 이변이 많고 농구는 상대적으로 이변이 적고,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주식투자는 심지어 90%이상, 98%가 순 운이다 하는 연구 결과가 많았고요.<br/><br/><br/><br/>캐나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아이스하킨데, 아이스하키 프로 선수가 되면 최고 아닙니까. 그 프로 선수들의 생일을 봤더니 너무나 묘하게도 1,2,3월생들이 집중돼 있어요. 이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따져 봤더니 아이들이 5~6살부터 스틱을 잡고 아이스하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때는 몇 달이라도 일찍 태어난 아이들의 신체 조건이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깐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끊어서 보면 대부분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1~3월생인거죠. 이 아이들이 지역대표로 뽑히고, 학교 대표로 뽑히고 자꾸 그러면서 합숙 훈련도 가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1만 시간의 법칙’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1만 시간 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1만 시간 투여가 되면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행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잘 나갈 때 이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만은 아니고, 많은 부분이 내가 운이 좋아서 혜택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감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나눌 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를 보면 잘 나가는 분들, 재산을 갖고 권력을 가진 분들이 이런 자세가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의 온갖 갑질, 횡포, 이런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들이 좀 겸손해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눌 줄 알고.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자기가 잘나서 권력을 누리고 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한테 위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국민들을 섬기고 그런 사명에 헌신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두 번째로는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너무 자신을 자책하고 세상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도 운이 올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이미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평온한 마음으로 수용하자는 것입니다.<br/><br/><br/><br/>제가 사실 작년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예기치 않게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은 후 예후가 좋지 않다는 얘길 듣고 죽음을 준비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죠. 암 환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내가 왜, 그럴 리가 없어, 왜 하필 나야, 억울해’라는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최대한 담담하게, 물론 엄청난 타격이었지만 이 현실을 인정하고 여기서 가장 현명한 대처가 무엇일까 생각하며 삶을 정리하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병마와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지금은 회복 중)<br/><br/><br/><br/>마지막 교훈은 우리 사회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옳지 않다, 많은 부분이 운으로 결정되니까. 더군다나 태생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면 더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공평해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좀 더 나누고 실패한 사람들한테는 사회가 지지해 주고 재기의 기회를 주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누리고 공평해지는 그런 사회가 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기도 하죠.■장기연체자를 ‘빚에서 빛으로’ 이끄는 주빌리 은행<br/><br/><br/><br/>제: 관심과 열정을 갖고 하는 일 중에 주빌리 은행의 공동은행장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은행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br/><br/><br/><br/>유: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잠깐 돈을 빌렸으나, 적은 돈이었지만 이자는 굉장히 높고 사정이 어려워서 갚지 못한 분들이 많죠. 그리고 억지로 일부를 갚았습니다만,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신용불량자 되고 빚 독촉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통장개설도 안되고, 자기 명의로 휴대폰도 만들 수 없고. 이렇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내몰린 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100만 명 넘게 장기연체자로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소액 다중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350만명이나 됩니다. 우리 경제에서 이분들이 사회에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아까운 인적자본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저희 구호가 ‘빚에서 빛으로’입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환한 희망의 빛을 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악성 부실채권들을 사 모으기도 하고 잘 설득해서 기부를 받기도 해서 이것들을 없애줍니다. 그 중에 약간이라도 형편이 되는 분들은 빚을 탕감 받는 대신 원금의 일부라도 갚아서 그 돈이 이 운동을 더 확산하는 데 쓰이도록 하고.<br/><br/><br/><br/>제: 그러니까 부실 채무가 거래되는 시장이 있다는 것인데, 그 실태는 어떤지요.<br/><br/><br/><br/>유: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요, 처음에 은행을 떠날 때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값을 받고 팔리는데 이게 한 번 쥐어짜고 또 팔고 하면서 계속 손을 바꿔 타는 거예요. 그러면 추심을 당하는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못 갚는데, 어디 대부업, 저축은행, 이상한 데서 채권자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300만 원 빌렸었는데, 그 동안에 고통을 당하고 또 갚을 만큼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1200만 원 갚으라고 또 나타나고. 그렇게 오래된 채권들은 1%에도 팔려요. 그런 것들을 잔뜩 사서 그 중에 한두 놈만 쥐어짜도 나는 남는 장사다, 하고 계속 그런 추심을 하는 업체들이 있죠.<br/><br/><br/><br/>제: 그러니까 100만 원 대출금을 못 갚은 부실채권을 1만 원에 매입한 추심업자들이 채무자에게 원금 100만 원과 이자까지 받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내면 대박이고. 대체로 어떤 과정으로 빚을 져서 갚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br/><br/><br/><br/>유: 뭐 그런 사람들 많죠. 요즘 청년들 중에 학자금 대출도 받고, 그걸로 모자라서 대부업체에서 소액을 빌리기도 하고.<br/><br/><br/><br/>제: 그러니까 생활에 아주 급한 돈, 등록금, 보증금, 병원비 같은 거군요.<br/><br/><br/><br/>■복지로 풀어야 할 문제를 대출로 해결하는 정부<br/><br/><br/><br/>유: 그런데 반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알바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어마어마한 덫이 되는 거죠. 죽어라고 노력을 해서, 밤에 대리운전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먹고살기는 근근이 먹고 살면서 갚고 갚아도 못 갚는 거죠. 이자부터 까게 돼있거든요. 사실은 원리금 상환으로 해줘야 하는데,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계속 갚아요. 그런데 이자가 더 불어나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그래서 애초에 이 사람은 변변한 직업도 없고 소득이 없으니, 함부로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다 하면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보십시오. 누가 어렵다, 농촌이 어렵다, 전세자금 때문에 어렵다, 학생들이 어렵다, 그러면 전부 대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온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죠.<br/><br/><br/><br/>제: 사실 그건 복지가 해야 할 부분인데.<br/><br/><br/><br/>유: 그렇습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결국은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고혈을 빼는 약탈적 대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복지를 해주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금융업들의 먹이로 노출시켜버린,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훨씬 더 나쁜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br/><br/><br/><br/>제: 우리가 은행이 부실화되면 경제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겠네 하면서 구제금융 하잖아요. 기업들이 도산 지경에 놓이면, 물론 일정한 프로세스는 거치지만 채무조정 해주고. 그런 관점에서 개인 채무자가 정말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생존의 한계까지 몰리면 대출자가 알아서 채무 조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겠네요.<br/><br/><br/><br/>유: 그렇습니다.<br/><br/><br/><br/>■민주정부 10년의 과오는 경제양극화 심화<br/><br/><br/><br/>제: 교수님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대선캠프에서 관여해서 두 정부의 출범에 모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민주정부 10년의 공과 과를 한 가지씩만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유: 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괜히 민주정부라고 하겠습니까. 민주화시킨 거죠. 국민들의 기본권, 정치적 자유나 사회적 권리 그런 것들이 신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안타깝게도 과도 컸습니다. 민주정부의 출범 시기가 IMF 외환 위기와 겹쳐서 IMF의 요구도 있었고, 당시 사조나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시장 만능주의.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이 가서 그 결과 정리해고, 공기업 민영화, 이런 것들로 인해 결국 사회양극화가 심화된 거죠. 재벌개혁 한다고 했으나 용두사미가 돼 버렸고요. 정치적 자유는 신장이 됐지만 경제 민주화는 실패했다.<br/><br/><br/><br/>제: 지난 2012년 대선 때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위원장을 맡아서 재벌 개혁이라든지 분배라든지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때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2002년에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의 경제 가정교사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정권 창출에 깊숙이 개입했는데, 실제로 공직에 등용되지 못하셨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br/><br/><br/><br/>유: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겠죠.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자에 약하고 강자에 강한 스타일이라서, 권력과 돈이 많은 사람들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내막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마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재벌이 막지 않았겠느냐. 저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추측은 합니다만,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죠.<br/><br/><br/><br/>■게임 도중에 규칙 바꾸는 정치 현실에 좌절<br/><br/><br/><br/>제: 2010년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당내 경선에 나갔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셨는데, 그 때를 기점으로 현실정치에 직접 뛰어들어야겠다고 결심하신건지, 그렇다면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br/><br/><br/><br/>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사실 많이 망설여졌는데,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나니까 제가 봤을 때 역사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4대강 사업도 그렇고, 경제 정책도 그렇고, 국민의 기본권에서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 대안이 있는가. 제가 야당을 보니깐 미안한 얘기지만 야당이 무능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비전이 잘 안보이고.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이 나라를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전북도지사가 대단한 자리가 아니지만 그곳이 제 고향이고 주변의 이런 저런 권유도 있었고 해서 경제와 사회를 개혁하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착각?(웃음)에서 나갔던 거죠. 제가 뜻한 일에 크게 실패하는 경험이 어쩌면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전에 제가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전부 자발적인 선택이었던 것이고. 그건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br/><br/><br/><br/>제: (전북도지사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도전했는데 실패하면서 많은 걸 느꼈군요.<br/><br/><br/><br/>유: 우리나라 정당들이 다들 그렇습니다만. 게임의 룰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게임 중간에 룰을 바꾸고요. 이번에 공천 사태도 그랬죠. 정해져 있는 규칙도 무시되고 ‘원래 이 당은 이런 규칙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이 있지 않고요,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한 거죠. 이런 규칙이 있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보면 좋겠다’하는 권유와 판단이 있었는데 이 정치권에 존재하는 기득권의 자기보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크구나. 절감을 했었죠. 이번 공천과정에서도 저는 관심을 두지는 않았지만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br/><br/><br/><br/>제: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선출직에 도전할 생각이 있으세요?유: 제가 정말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것이 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세상일은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항상 마음 속으로 다짐하고 있는데, 제가 매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매겠다. 그것이 그런 것이든지, 남들이 보기에도 희생인 어떤 것이 됐든지, 저는 많은 것을 누렸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br/><br/><br/><br/>■1%와 99%의 공존 조건은 경제민주화<br/><br/><br/><br/>제: 사회적으로 1%와 99%의 대립이 점점 심해져서, 어떤 인공지능 전문가는 앞으로 0.0001% 대 99.999%의 대결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가진 소수와 못 가진 다수가 대립 갈등하는 사회가 아니고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행복한 사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br/><br/><br/><br/>유: 해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엔(UN)에서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냅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가.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덴마크, 스웨덴. 그럼 왜 그런가? 그 나라들은 삶이 안정돼 있고 유복하고, 경쟁보단 협동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경제민주화 하고 복지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는 우리나라 재벌 총수처럼 황제처럼 군림하는 세력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과감하게 재벌을 개혁해야 하는 거죠.<br/><br/><br/><br/>제: 복지는 스웨덴을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말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게 재벌 개혁인데, 재벌 개혁과 관련해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br/><br/><br/><br/>유: 재벌개혁을 얘기한지가 문민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20년이 지났죠. 그런데 재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총수들의 황제경영, 족벌경영이죠.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세습을 하고.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변죽을 울리는 개혁을 했어요.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사외이사를 둬서 총수를 견제해야 한다고 도입했는데 이후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사외이사들이 총수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하는 것,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하는 것 막은 적이 있습니까?<br/><br/><br/><br/>제: 회장님의 동창생들이고, 권력기관에서 온 사람들이고...유: 네. 이런 것이 로비창구로 이용될 정도로 유명무실화됐잖아요. 그러면 소액주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것이 집중투표제거든요. 하지만 선택조항으로 만들어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었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진짜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재벌들이 다 반대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단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 등등 진짜로 바꿀 수 있는 것을 해야죠. 우리 사회에서 아직 아젠다(의제)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직장에 한 평생 바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직장을 좋은 직장, 경쟁력 있는 직장을 만들고. 그 직장에서 총수가 특권을 누리며 회사 돈 빼내가는 걸 못하게 막지 않겠습니까. 노동자 경영참가와 같은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유구조에 대해서도 순환출자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것은 일부고요. 지주회사나 다양한 다단계 출자에 의해서 실제 소유보다 너무 많은 것을 지배하고, 왕국을 건설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바꿔줘야 하죠.<br/><br/><br/><br/>제정임의 마침표: 미움 받을 용기와 내려놓음의 지혜를 함께 가진, 철든 청년 유종일.<br/><br/><br/><br/>\* 전체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br/><br/>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97384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00.txt

제목: 견과류의 황제 호두, 대장암 억제에 중요하게 작용  
날짜: 20160503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03065934360  
본문: 캘리포니아 호두협회가 국내에서 처음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두가 암 예방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김유리 교수팀은 ‘호두 지방 추출물의 조성분석과 자가-재생 능력 억제를 통한 항암 줄기 세포 조절 특성’ 논문을 통해 “<span class='quot0'>호두의 지방 추출물(WLE)이 대장암 암 줄기 세포(CSC)의 자가 재생 능력을 약화시켜 대장 암 억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span>”고 2일 밝혔다.<br/><br/>암 줄기 세포는 자가 재생 능력이 있는 종양 내 세포들의 작은 소집단으로, 종양 전이율을 증가시키고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에 대한 저항을 증대시켜 암 치료의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br/><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1'>대장암이 암 관련 사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며 치료가 어려운 암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연구 결과가 영양학 분야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이번 연구결과는 호두가 대장암 치료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span>”고 덧붙였다.<br/><br/>호두 지방 추출물은 지방산과 토코페롤을 포함한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지방 추출물이 혼합돼 있는 호두의 섭취가 대장암 세포를 공략해 대장암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br/><br/>호두는 인체에 필수적인 식물성 오메가-3 ALA(알파 리놀렌산)가 들어있는 유일한 견과류이다. 캘리포니아 호두협회 데니스 A. 발린트 회장은 “<span class='quot2'>호두의 뛰어난 효능에 대한 보다 확실한 입증을 위해 암 연구에 투자를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임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01.txt

제목: [정희진의 낯선 사이]5%와 0.76%  
날짜: 20160501  
기자: 정희진 | 여성학 강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01210305449  
본문: 2001년 9·11 당시 유색 인종에 대한 보복 폭력이 난무하는 거리에서 어느 미국 시민이 이렇게 말했다. 70대 여성인 그녀는 “미국은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너무 많이 먹고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풍요가 두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나누라는 경고입니다”. ‘피해 국가’ 국민의 입장에서 그녀의 성찰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br/><br/>우석훈의 <촌놈들의 제국주의>는 “경제 영토 확장”을 부르짖는 한국사회의 아류 제국주의 심리를 분석한다. 얼마나 더 잘살아야 부자일까. 우리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먹고 많이 버리고 산다. 부는 국부(國富)로 셈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불가능한 개념이다. 미국인보다 부자인 한국인도 있고 그 반대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이다. 경제가 성장해도 굶는 사람이 있다. 경제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의 삶의 질로 산정되어야 한다.<br/><br/>지난 4월10일자 경향신문 오피니언 지면 ‘별별시선’ 코너에 실린 “이념대로 찍으려니…”라는 글을 읽고 놀라웠다. 특정 지면의 특정 필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그 글은 이미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이 반박한 바 있지만 나는 그 글이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글쓰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목소리를 보탤 필요성을 느꼈다. <br/><br/>그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는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는 유권자로서 ‘비판적 지지’나 ‘전략적 유연성’을 선택할 바에야, 백지 투표를 하는 고집불통 진보정당 지지자다. 그런데 이번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상황을 보니 하나같이 문제가 많다…녹색당은 ‘탈핵’과 ‘탈성장’이 주요 정책이다. 문제는 ‘탈성장’이다. 안타깝게도,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행복하기 어렵다.”<br/><br/>“성장=행복”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지금 한국사회를 망치고 있는 가장 문제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은 이런 통념에 제동을 걸었다. <br/><br/>내가 우려하는 점은 두 가지다. 가장 올바른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탈성장에 대한 오해. 전자는 남성성을 대표하며 후자는 “일단 파이부터 키워야 한다”는 1970년대부터 지겹게 들어온 성장지상주의다. 가장 옳은 것만 선택한다는 자부심은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현실과 이론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다. <br/><br/>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의 변화, 그마저도 투명하지 않은 구조, 한국경제가 글로벌 자본주의로 편입된 상황의 초국적 상층 계급 연대,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경제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은 상식이 된 지 오래다. 집권 여당과 대기업은 경제성장 혹은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양극화 논의를 입막음하고 있다. <br/><br/>지금 경제발전은 실업과 빈부 격차라는 악순환의 동력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시위 구호였던 “1%를 위한 경제를 바로잡자” “경제 살리기 전에 사람부터 살려 주세요”라는 외침이 생각난다. <br/><br/>녹색당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녹색당은 ‘그들만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집터와 일터를 잃게 된 이들의 절실한 목숨 연대지(밀양 송전탑 투쟁을 보라), ‘반(反)경제’ 정당이 아니다. <br/><br/>이번 선거에서 녹색당의 정당 득표율은 0.76%. 미국에서 진행하는 TV창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5% 경제성장을 도모하자는 기독자유당의 득표율, 2.63%를 상기해보자. <br/><br/>제주에는 “제주의 허파”라고 불리는 ‘곶자왈’이라는 지형이 있다. 낮에도 수풀이 우거져 어둡고 휴대전화도 잘 안된다. 열대 북방 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 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희귀한 숲이다. <br/><br/>암석, 자연림과 가시덩굴이 혼재하는 제주 생태계의 생명선으로 한라산에서 해안선까지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완충 역할을 한다. 제주산 양치식물, 미기록종, 환경부가 지정한 각종 야생식물이 서식한다. 2009년에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10%였지만 지금은 5~6.1%로 추정된다. <br/><br/>이 중 사유지가 약 60%로, 해를 거듭할수록 엄청난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유지 매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2년 동안 각각 6250만원, 1억2500만원에 불과하다. 아무리 생색 정책이라 해도 민망한 액수다.<br/><br/>산방산 근처의 안덕 곶자왈에 가면 소떼를 만나기도 한다. 그들이 지나가기를 2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 음료수병, 사탕 포장지가 떨어져 있을까봐 비닐봉지를 준비한다. 그곳에 가면 누구나 쓰레기를 줍게 된다. 이런 곶자왈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짓고 돈을 벌면 경제성장인가. <br/><br/>탈(脫)성장주의는 탈(奪)성장, 성장을 탈취(奪取)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과일의 종자까지 먹지는 말자는 석과불식(碩果不食), 지속가능한 경제를 의미한다. 서민들이 부자 증세를 반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이유는, 있는 자들의 탈(奪)성장 공포를 ‘잘사는 나라’의 국민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불경기와 탈(脫)성장은 다르다. 곶자왈 보존을 원하는 유권자 수와 곶자왈 면적이 상승 비례하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 경제가 망하지는 않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02.txt

제목: [제정임의 문답쇼, 힘] ③ 김대식 교수 “다가온 인공지능시대··· 기계처럼 일한다면, 당신은 위험하다”  
날짜: 20160501  
기자: 강민혜·박희영·윤연정 기자 coolpooh0727@naver.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501104608502  
본문: 뇌과학자인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김대식(47) 교수는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이 곧 대부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며 “<span class='quot0'>지금 기계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창의성 있는 인간으로 돌아와야 한다</span>”고 말했다. 그는 특히 “<span class='quot0'>인공지능시대를 맞아 교육, 복지, 조세 등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span>”며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으로 디스토피아(지옥)로 가는 것이고 유토피아(천국)를 만들려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4월 7일 SBS CNBC에서 방영된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방송의 주요 내용.<br/><br/><br/><br/>▶단비뉴스 원문 보기<br/><br/><br/><br/>■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인공지능 연구<br/><br/><br/><br/>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교수님은 뇌과학을 연구하시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학문인데, 뇌과학이란 어떤 연구인가요?<br/><br/><br/><br/>김대식(카이스트 전기ㆍ전자공학과 교수): 우리가 뇌를 연구할 수 있는 분야는 첫 번째로 뇌를 생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뇌 질병이나 자폐증·치매 등을 연구하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죠. 두 번째는 인지 뇌과학입니다. 약간 심리학적 개념으로 ‘도대체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머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왜 우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하는 걸까’라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세 번째 분야는 약간 공학적인 개념입니다. 뇌는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자아를 만들 수 있고, 생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계잖아요. 우리가 지난 몇 십 년 동안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예제, 생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뇌를 모방해서, 또는 거꾸로 역공학해서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뇌 공학, 또는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제 연구 분야는 뇌공학과 인지 뇌과학 정도입니다.<br/><br/><br/><br/>제: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우리의 뇌는 단백질 덩어리고 컴퓨터의 CPU(중앙처리장치)는 실리콘, 여러 가지 금속, 플라스틱인데 어떤 원리가 비슷할까요?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의 작동원리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궁금해요.<br/><br/><br/><br/>김: 뇌를 복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뇌는 말씀하신 대로 단백질이고 그 안에 신경세포가 10의 11승이 있고, 또 10의 15승 되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정말 무한으로 복잡한 기계인거죠. 이것을 복사하는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뇌를 복사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이를 가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뇌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가장 잘하는 것, 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모방하는 것이죠.<br/><br/><br/><br/>■뇌 과학자가 던지는 철학적 질문의 의미<br/><br/><br/><br/>제: 교수님이 쓰신 여러 가지 글을 보면 존재는 왜 존재하는가, 삶은 왜 의미가 있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뇌 과학자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br/><br/><br/><br/>김: 네.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제가 그러면 되묻습니다. 본래 그런 질문이 과학자가 해야 할 질문이 아니냐고요. 현대 과학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3000년 전의 그리스겠죠. 수염 난 할아버지들이 하얀 수건 같은 것을 두르고 지중해 바닷가에 누워서 하늘을 보신 거잖아요. 은하수부터 시작해서 초롱초롱한 별들을 보면서 너무 궁금했겠죠. 도대체 저게 뭘까. 그리고 드디어 이분들이 종교나 전설이 아니고 논리와 이성을 사용해서 세상을 이해해보자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신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씩 방법론적으로 나뉘기 시작한 거죠. 어떤 분들은 수학을 사용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실험을 해야 한다, 어떤 분들은 시를 쓰자,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리자, 어떤 분들을 철학을 해야 한다. 결국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철학, 문학, 예술, 수학, 과학은 사실 인간의 동일한 노력에서 나온 것이죠. 세상을 이해하고 싶은 노력이요. 이해하는 방법이 다양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지능, 또는 뇌에 대해서 연구할 때는 수학이나 코딩 등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요. 뇌라는 것이 지구에서 상당히 특별한 인간이라는 동물을 가능하게 하고, 더 재미있는 건 뇌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 자신도 뇌 덕분에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철학적인 질문을 배제하고서는 이런 (과학적인) 질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br/><br/><br/><br/>제: 철학자의 질문을 던지고 과학자의 답을 얻는 것이군요.제: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 알파고 간의 세기의 대결이 벌어져서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는데요. 하필이면 대한민국 서울에서 벌어지는 바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몰랐던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불러올 사회변화에 대해서 엄청난 각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분야를 전공하신 김대식 교수님은 이번 대국을 어떻게 보셨나요?<br/><br/><br/><br/>■‘이세돌 승리’ 확신은 기계를 몰랐던 인간의 실수<br/><br/><br/><br/>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세돌 9단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세돌 9단이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하필이면 중요한 21세기, 2016년 3월에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국이 서울에서 벌어졌어요. 딥마인드에서 3월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당연히 이세돌 9단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문 칼럼에도 썼고, 인터뷰도 했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바둑 전문가는 물론 이세돌 9단께서도 본인이 이긴다고 했죠. <br/><br/><br/><br/>우리가 왜 이런 예측을 하게 됐을까. 알파고는 인간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수십만 번 사람들이 둔 바둑 기보를 가지고 학습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기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네이처지 논문에 나온 내용과 2015년에 알파고가 유럽챔피언 판후이하고 뒀던 바둑기보예요. 모든 전문가는 판후이가 프로급으로 1단 정도 할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파고도 당시에 그렇게 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판후이보다 조금 더 잘했죠. 많은 분들이 이세돌은 9단이고, 알파고는 한 3단 정도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대국까지 약 6개월이 있는데 알파고가 진화하더라도 5단~6단이다, 아무리 잘하더라도 7~8단이지 9단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했습니다. <br/><br/><br/><br/>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3월 9일 첫 대국에서는 사실 이세돌 9단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긴장했겠죠. 그런데 알파고가 조금 더 잘했습니다. 2국에서는 이세돌 9단이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알파고가 또 조금 더 잘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약간 섬뜩한 결론을 하나 낼 수 있는데요. 어쩌면 알파고의 진정한 능력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알파고는 인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얘는 본인이 딱 이길 만큼만 잘한다는 거죠. 판후이하고 할 때는 판후이보다 조금 더 잘하고, 못하는 이세돌과 할 때는 못하는 이세돌보다 조금 더 잘하고, 잘하는 이세돌과 할 때는 그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죠. 마치 우사인 볼트가 초등학생하고 달리기할 때 초등학생보다 조금 더 빠르게 달리고, 고등학생하고 할 때는 고등학생보다 좀 더 빠르게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알파고의 진정한 능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승리를 예측했다는 겁니다.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br/><br/><br/><br/>이번에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 대국을 할 때, 기계라는 것을 모르고 봤다면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인간 중 가장 천재적인 기사라고 착각을 했을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번 알파고와의 대국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한 인공지능(독립성과 자의식은 없는 인공지능)은 우리가 잘하면 천국 같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못하면 지옥 같은 디스토피아도 될 수 있습니다. 단, 우리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일 때 얘깁니다. 강한 인공지능(독립성과 자의식이 있는 인공지능)은 인간이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제: IBM은 왓슨(인공지능컴퓨터)을 의료 쪽으로 발전시켜서 암 진단에도 응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구글은 알파고를 앞으로 어느 쪽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하세요?<br/><br/><br/><br/>김: 우선 알려진 것으로는 딥마인드에서 올해 초부터 영국 의료보험이죠, NHS(National health Service)와 함께 의료 데이터를 진단용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IBM하고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IBM하고 구글이 최고의 경쟁사가 되겠죠. 이번에 딥마인드의 경우 바둑을 마스터했고, 작년에는 벽돌 깨기 비디오게임을 마스터했고, 작년 인터뷰를 보면 스타크래프트 대결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구글 같은 회사가 딥마인드를 인수하는데 천문학적인 돈, 4천억 이상을 투자해놓고 비디오 게임 잘하는 회사로 키우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구글이 바둑소프트는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뭔가로 돈을 벌려고 하겠죠.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지만 소문을 들어보면요, 이번에 알파고 같은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월스트리트 최고 투자자의 뇌를 한번 분석, 적용해보자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리가 워렌 버핏에게 어떻게 투자를 이렇게 잘 하느냐고 질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워렌 버핏은 말로 답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직관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투자의 비법이 표현만 된다면, 그 데이터를 구글이 얻을 수 있다면 10년, 20년 내에 월스트리트 최고의 투자자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런 분야를 요새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미 웬만한 사람보다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에서는 사람들 다 내쫓고 기계로 바꾸겠다고 결론을 냈고요. 성과가 더 좋으니까요. 아직 이분들은 딥러닝 같은 최고 발달한 기술을 쓰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성과가 난다면, 알파고와 같은 기술을 도입할 경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br/><br/><br/><br/>■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인간적’이어야<br/><br/><br/><br/>제: 인공지능이 폭넓게 도입이 될 경우 인류가 안고 있는 난제 중 먼저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할 만한 분야가 뭘까요.<br/><br/><br/><br/>김: 상당히 많은 질병의 치료 방법을 기계가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토피아 책에서 봤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제대로만 활용되고, 그 생산성의 결과물만 합리적으로 재분배된다고 전제하면 국민소득 평균 3만 달러가 30만 달러, 300만 달러가 되지 못하라는 자연의 법칙은 없습니다. 이것이 유토피아인 거죠. 문제는 우리 인간도 결국은 몸 아니면 머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몸을 사용해서 하는 일들은 기계한테 넘겨주고 우리는 머리를 사용하는 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를 사용하는 일마저 기계한테 넘겨주면 인간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물론 새로운 직업들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알파고를 예쁘게 꾸며주는 기계 미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가상현실 작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를 다 합쳐도 사라지는 일자리를 대체하기에는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br/><br/><br/><br/>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대부분의 직업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화이트칼라 직업들이 위험해집니다. 1차, 2차 산업혁명 땐 블루칼라 직업들이 위험해졌잖아요. 물론 안전한 직업들도 있습니다. 안전한 직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이나 사회 또는 조직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90%의 시간은 컴퓨터가 조종을 합니다. 오토파일럿으로요. 하지만 여전히 파일럿은 필요합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만약 우리가 비행기를 탔는데 “재미있게도 오늘은 파일럿이 안 탔다. 알파고 파일럿이 열심히 조종하고 있다”고 방송이 나오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 건 불가능할 겁니다.<br/><br/><br/><br/>두 번째는 인간을 이해하는 행위가 필요한 직업입니다. 교육 관련 직업이 많이 해당되고요. 특히 아동교육이요. 또 협상, 광고, 영업, 심리치료사, 예술가와 같은 사람의 심리를 이해해야 하는 직업도 다 그쪽에 들어가겠죠. 인간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br/><br/><br/><br/>세 번째는 가장 크면서도 가장 애매모호한 영역인데요. 창의성이 필요한 직업, 지적인 노동이 있지만 매번 무언가를 새로 해야 되므로 반복성이 없는 직업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인공지능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인간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분석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얼마만큼 반복성이 있고 내가 얼마만큼 기계화됐나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생각했을 때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나는 이미 반은 기계다, 그때는 많이 위험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인간의 세상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br/><br/><br/><br/>제: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개척해야 되는 군요.<br/><br/><br/><br/>김: 우리가 기계하고 경쟁할 때, 인간이 아무리 기계 흉내를 내더라도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인간적이어야 되겠죠. 모든 기술이 그렇지만 특히 인공지능은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유토피아고 잘못하면 디스토피아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역사에서도 항상 그랬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주 쉬워요. 그게 항상 문제인거죠. 우리가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 100% 지옥으로 갈 겁니다. 자동으로 가는 길은 지옥이고 디스토피아예요. 유토피아나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국·영·수에 치중한 교육시스템 전면적 개혁 필요<br/><br/><br/><br/>제: 교육이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국·영·수 잘하게 키우는 거로는 불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br/><br/><br/><br/>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이미 한 번 풀어봤거든요. 1차·2차 산업혁명 때요. 18세기, 19세기에 수많은 폭동과 전쟁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1차 기계혁명과 산업혁명의 결과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왔을까요. 19세기에 있었던 혁신적인 발전 덕분입니다. 크게 3가지 혁신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br/><br/><br/><br/>첫 번째는 프랑스에서 공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20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이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농부의 자식들이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하려면 적어도 글을 읽고 써야 했고, 웬만큼 수학을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영·수의 시작입니다. 당시에는 상상을 초월한 혁신이었습니다. 그때의 기계들은 지적인 노동을 못했잖아요. 모든 프랑스 국민에게 삽질을 더 빨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불도저가 나오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못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아주 보수적이었던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이 사회보장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안 하면 폭동이 일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로 노후대책, 의료보험, 실업자 연금 같은 걸 만드신 거죠. 마지막으론 영국에서 세금제도를 바꿨습니다. 그전까지 국가 대부분의 소득은 농업을 통해서 왔는데, 농업이 없어지고 공장이 생기니까 부가가치세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br/><br/><br/><br/>지금 우리도 비슷한 걸 또 한 번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이에요. 2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18세기 초 나폴레옹 때 만들어진 공교육을 갖고 있어요. 국·영·수죠. 문제는 지금 10대들이 20년 후에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 다른 건 몰라도 기계가 인간보다 국·영·수를 100% 더 잘 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시점에 국·영·수를 가르치는 것은 200년 전 프랑스 국민에게 삽질하는 걸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기계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죠.<br/><br/><br/><br/>두 번째로 사회보장제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비스마르크시대에는 100% 일을 하고 사람들이 60~65살까지만 산다는 전제에 만들어진 시스템인데요, 50%만 일을 하고 100살까지 살 때는 안 됩니다. 직업이 더 많이 생기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지금으로서는 50% 정도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분들한테도 소득이 있어야 하잖아요. 소비자니까요. 알파고가 제일 못 하는 것 중 하나가 소비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소비를 해야 하니까, 소비하는 능력에 대해 우리가 소득을 줘도 되겠죠. 물론 내가 자아실현을 하지 않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하는 것만으로 소득을 받는다면 노예근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소득만큼은 보장해야 한다는 거죠. 이 기본소득은 유럽에서 쓰는 단어고 미국에서는 역소득세인데 똑같은 얘기예요.<br/><br/><br/><br/>제: 최저한도의 소비 수준을 유지시켜줄 만큼은 주자는 거죠?<br/><br/><br/><br/>김: 사회에서 소비가 필요하니까요. 그렇다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br/><br/><br/><br/>제: 그렇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일자리를 나눠서 모든 개인이 일을 통해 자아실현 할 수 있는 길은 열어 줘야 된다는 거죠?<br/><br/><br/><br/>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일이라는 게 기존의 일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일이 직접 사회에 생산성을 늘리는 일은 아니고, 가상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시대 같은 식으로 많은 분들은 기본소득만 있으면 되겠다고 하는데, 이미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다코타 같은 경우는 미국 원주민들이 사는 도시가 있어요. 인디언들의 땅을 뺏은 미국이 죄책감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본월급을 주고, 모든 의료혜택과 교육이 무료입니다.<br/><br/><br/><br/>제: 먹고 살수는 있도록 해주는 거죠.<br/><br/><br/><br/>김: 그렇다면 이분들이 시를 쓰고 철학을 할까요? 아니요.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률이 가장 높습니다. 마약 중독률도 가장 높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적절한 답이 아닌 것 같고요. 프랑스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가상회사를 만들어서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거기서 트레이닝 시켜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게요. 그리고 이분들은 트레이닝을 받고 가상으로 일도 하세요.<br/><br/><br/><br/>제: 사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생각해보면 참 먼 얘기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급식 같은 것으로도 싸우고 있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그런 토론의 논지, 근거, 아이디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br/><br/><br/><br/>■사회의 큰 흐름 이해할 수 있게 아이들 가르쳐야 <br/><br/><br/><br/>김: 이게 사이언스 픽션(공상과학) 아니냐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의 특징, 특히 인공지능의 특징은 상당히 오랜 기간 또한 천천히 발전하다가 어느 한순간부터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 시점을 특이점, ‘싱귤러리티(singularity)’라고 부르는데요, 이날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11월 추수감사절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칠면조를 먹잖아요. 11월 25일에 칠면조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칠면조 중 아인슈타인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보니까 1년 동안 농부가 아침 8시에 와서 먹을 걸 줬거든요. 그 농부는 당연히 좋은 사람이고요. 11월 26일이 조금이라도 다를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br/><br/><br/><br/>제: 그렇죠. 과거의 데이터는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br/><br/><br/><br/>김: 대한민국의 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항상 싸웠듯이 10년, 20년 100년 계속 갈 거라는 느낌이 나겠지만요. 이 칠면조들은 11월 26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 기대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깜짝 놀랄 일이요. 이게 특이점의 문제라는 거죠. 어느 한순간 우리도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다른 세상에 갈 수 있다는 거고요. 노키아 같은 경우에도 망하기 일주일 전까지 노키아 10년 미래를 기획하는 태스크포스(TF)가 있었대요. 자신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시대에 기본소득을 어떻게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게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죠.제: (교육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거든요.<br/><br/><br/><br/>김: 저도 답을 모르죠. 제가 그 답을 안다면 인공지능에 대비한 대치동 학원을 하나 차려서 재벌이 되겠죠. 단 우리가 큰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죠. 아까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 수능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걸 지금 당장 포기해야 될까. 그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 하루 전까지 수능시험이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현실에 산다면 지금 하는 것은 계속 해야 됩니다. 단, 더해서 미래에 중요하다고 예측되는 것들, 코딩(프로그램방법) 같은 것을 더해야 하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아이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는 세상을 거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변호사가 되든 과학자가 되든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변화가 어디서 언제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 예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단 언젠가는 일어날 것을 알고, 그 언젠가가 100년이 아니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을 크게 뜨는 겁니다. 이게 알파고의 역할이었는데, 눈을 크게 뜨고, 그 크게 뜬 눈을 2주 만에 감지 말고, 계속 사회에 관심을 보여줘야 됩니다.<br/><br/><br/><br/>제: 사회의 큰 흐름에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해라, 파악을 해라, 그런 뜻이죠?<br/><br/><br/><br/>김: 그렇죠. 지금 10대한테도 신문 읽기를 가르쳐주고. 이걸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사회 큰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을 우선 가르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br/><br/><br/><br/>두 번째는 관심만 갖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관심은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겠죠. 다시 말해서 평생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싶은, 공부할 수 있는, 변화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줘야 되겠죠.<br/><br/><br/><br/>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스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잔소리를 통해서 사회에 관심을 갖고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동기를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 인생이고 내 자아고, 내 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발견하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게 제일 어렵죠. 왜냐? 내부동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가?”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학생으로 자란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나, 나는 누굴까 하는 질문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은 학원 2개 다니는 중간 쉬는 시간 10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br/><br/><br/><br/>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독일서 다니다가 고등학교가 싫다고 뛰쳐나온 거잖아요. 1년 동안을 북 이태리의 파비아 도시에서 그냥 놀았습니다. 1년 동안 놀면서 나는 뭘 원하고, 난 뭐가 좋고, 나는 누군가를 생각했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왜 빛이라는 게 있을까?’ 따위의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여기서 1년 쉰다고 모두가 다 아인슈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아인슈타인 되기 위해서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인슈타인은 노벨상을 타는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세상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져야할 능력은 창의성이에요. 너무나도 평범한 답인데, 재미있는 점은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대기업에 임원으로 있으면서 창의성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창의적이지 않아도 잘 살고, 사실 창의적이지 않은 것이 먹고 사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래 사회에서는 창의적이지 않으면, 또 내가 스스로 세상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으면, 내가 하는 일은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br/><br/><br/><br/>■정보기술발전 비해 개발 더딘 재난구조 로봇<br/><br/><br/><br/>제: 저는 과학자들에게 막연한 경외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술에 대해서 한때 냉소적인 생각이 든 적도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었잖아요. 우리가 우주에도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저 선실 안에 있는 희생자를 수색하는데 저걸 제대로 해낼 로봇이 하나 없나, 기술의 진보라는 게, 재난 로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데 왜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갈까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건가요?<br/><br/><br/><br/>김: 훨씬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외로 못합니다. 뭔가가 움직이고 그러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의 최고 천재들이 최고의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무한한 비용을 투자하는데도 NASA(미국항공우주국)에서도 여전히, 우주선을 띄우면 다섯 번 중 한 번은 폭발합니다. 그런가 하면 거꾸로 몸이 필요 없는 것들, 물질적이 이동이 필요 없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스마트폰, 위치확인시스템 등 정보의 역학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재난 로봇 하나 없냐. 너무 맞는 말씀이지만, 거꾸로 우리가 꿈조차 꾸지 못했던 것을 이뤄냈죠. 이 두 가지 기술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도 비슷한 관점으로 터미네이터 같은 기계가 인간을 밟고 지나가는 미래는 멀어요.■데이터 공개 꺼리는 정부와 기업, 인공지능 발전 막아<br/><br/><br/><br/>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바이두 등은 검색엔진 회사거나, SNS 회사거나 전자상거래 데이터가 엄청 많은 회사들인데, 이들이 인공지능개발에 앞장서는 것은 빅데이터 사용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br/><br/><br/><br/>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계학습적인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회사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바이두.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인간의 선호도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번에 알파고에서도 봤지만, 알파고도 바둑에 대한 직관을 얻기 위해서 프로 기사들의 12만개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는 거죠. 기계 학습은 항상 데이터가 고픕니다. 구글이나 바이두는 그런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따라 잡아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두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br/><br/><br/><br/>첫 번째는 기술자체입니다. 이건 다 소프트웨어잖아요. 알고리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논문으로 나와 있고 퍼블릭 도메인(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몇 달 열심히 공부하면 대부분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문제는 두 번째, 데이터가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와 대기업도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조차도 다 막혀 있어요.<br/><br/><br/><br/>제: 제공을 안 한다는 거죠? 연구자들에게.<br/><br/><br/><br/>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드는데, 우리는 이름하고 주민번호 알겠다는 거 아니고 통계만 알고 싶은 거예요. 은행, 건강, 행정, 교통, 그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br/><br/><br/><br/>세 번째는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총 통틀어 딥러닝 전문가가 20명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전 세계의 최고의 전문가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낌으로는, 우리나라에 인공지능 전문가 1000명만 키우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 받기 위해 5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당연히 접근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빨리 진행을 해야겠죠. 다시 말해서 저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똘똘한 젊은 친구들 1000명 정도 뽑아서 한 6개월 정도 특공대 공부를 시키겠어요.<br/><br/><br/><br/>제: 국가대표 선수로?<br/><br/><br/><br/>김: 네! 시켜서, 그런 다음에는 곳곳으로 뿌리겠어요. 기업, 국가정부, 국정원, 군대, 다 필요하죠.<br/><br/><br/><br/>다양한 경험으로 다양한 자극을 주자<br/><br/><br/><br/>제: 기계가 따라할 수 없는 인간의 경쟁력을 길러라 했는데, 이 기술의 흐름을 정말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평범한 시청자들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br/><br/><br/><br/>김: 우선 미래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의 뇌는 의외로 적응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공시대에 와서 우리가 기계가 못하는 정말 창의적인 일을 해야 한다? 여기서 창의적인 일이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피카소가 되고 아인슈타인이 돼야 한다는 게 아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창의성, 즉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나폴레옹 시대 만들어진 국·영·수 교육 덕분에 기계적인 인간으로 키워진 거죠.<br/><br/><br/><br/>반복적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이미 가지고 있는 창의력이 사라지지 못하도록 도와주면 되겠죠. 특히 5~7살 때는 뇌가 거의 스펀지 같아서 매일 새로운 단어를 수십 개 배울 수 있어요. 결국 반복된 생활에서 주말마다만 나와도 됩니다. 동물원, 이태원 가는 거예요. 인도식당 가서 손으로 밥을 먹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친구들한테는 엄청난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br/><br/><br/><br/>제: 다양한 경험으로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것.<br/><br/><br/><br/>김: 그렇죠. 그렇다면 이미 뇌가 다 굳어버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의 하드웨어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알파고의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알파고도 처음 학습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데이터가 모자라니까 셀프시뮬레이션(self-simulation)을 했죠. 알파고와 알파고의 대결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었죠. 이건우리 어른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뇌는 더 이상 바꿀 수 없지만, 우리 머리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셀프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토론, 나와 나 자신과의 대화 그리고 사물을 보는 것에 대한 다양한 관점·경험들을 통해서 알파고와 같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br/><br/><br/><br/>자,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우선 TV를 끄세요. 왜냐? TV는 모든 질문과 답이 한쪽 방향에서 나오기 때문에 셀프시뮬레이션이 안 됩니다. 창의성은 뇌가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본인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TV를 끄고, 휴대폰을 끄고 인생과 세상에 대한 질문을 구석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앉아있는 거실, 아님 카페에서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시간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지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 만들기입니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스스로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br/><br/><br/><br/>\* 전체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br/><br/>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95117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03.txt

제목: 담석증, 단일통로 복강경 수술로 회복 기간 단축 가능  
날짜: 201604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29172724955  
본문: 직장인 A 씨(54세)는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오른쪽 상복부 통증과 오른쪽 어깨와 등 부위의 방사통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담석증 진단을 받았다. 수술은 평균 입원 기간이 5~6일 걸린다는 의사의 말에 장기간 휴가를 낼 수 없어 차일피일 수술을 미루던 A 씨는 결국 증상이 악화하여 급히 수술을 받아야 했다.<br/> <br/>담석증은 담즙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결석이 되어 생기는 질병이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빈도 질병 통계에서 7위를 기록한 흔한 병으로 해마다 13만 명 정도가 이 질병 진단을 받고 있다.<br/> <br/>이처럼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거의 예후 증상이 없기 때문이다. 담석증은 환자의 70%가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담석증은 적절한 시점에 치료되지 않으면, 만성 담석증 혹은 담낭 암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이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br/> <br/>최근 규칙적인 건강 검진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 초기에 담석증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를 수술하는 방법 또한 개복하지 않고 수술하는 복강경 수술로 변화하는 추세다.<br/> <br/>단일통로 복강경 수술법은 배꼽 안쪽에 작은 절개를 통해 하나의 구멍을 내어 수술을 진행하여 흉터가 보이지 않으며, 빠르면 수술 다음 날 퇴원이 가능하다. <br/> <br/>1,380례의 단일통로 복강경 수술 경험을 가진 담소유병원 담석증 클리닉의 변건영 원장은 4월 29일 열린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KSELS)에서 “단일통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사용하면서 수술 시간을 30분 내외, 평균입원일 1.19일로 단축했다"면서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우상복부 통증이 있다면 주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04.txt

제목: [이상헌의 삶터 일터]눈물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날짜: 20160428  
기자: 이상헌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저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28213513849  
본문: 요르단에 왔다. 물보다 돌이 많은 나라. 물이 부족해서 만성적 갈증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요르단 사람들은 모래 빛깔의 돌로 집을 짓는다. 수도인 암만 한복판에는 이런 집들이 언덕 위로 촘촘히 쌓여 있다. 그늘진 곳에서 빛을 잃은 집들은 모두 석회빛이다. 그 사이로 매캐한 먼지와 이슬람 사원의 확성기 소리가 차량들과 얽혀 있다.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굳어진 거대한 암석 같다. 그곳을 벗어나면, 봄이 있고 꽃도 핀다. 외교관저가 모여있는 외곽 쪽으로 펼쳐진 들판은 초록이다. 모래빛 벽돌이 제 빛을 내며 고요한 그곳에서는 세상의 빛이 다 모여든다. 물보다는 돌이 많은 곳에서 초록이란 모든 이에게 허용되지 않는 여유다. <br/><br/>하지만, 제한된 여유와 평화는 허점투성이다. 시원하게 빠진 길을 나가면 영락없이 중무장한 군인과 탱크가 서 있고, 그 뒤쪽으로는 미국 대사관이다. 헤아릴 수도 없는 무기와 돈이 여길 거쳐서 국경으로 간다. 평화의 이름으로 가서 날선 분쟁으로 돌아온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무기가 건네지지만, 그 무기가 때로는 엉뚱한 이의 손으로 넘어가 총부리는 반대로 향한다. 이걸 막자고 무기를 더 가져오고, 분쟁이 이제 전쟁이라 불린다. <br/><br/>평화로운 길 주위에는 텃밭들이 있다. 여섯이나 일곱이 될 법한 무리들이 손으로 땅을 고른다. 벌써 5년이 넘어가도록 이어지는 전쟁터, 시리아에서 겨우 몸을 피해온 시리아 난민이다. 이게 마지막이겠지 했던 봄은 다시 돌아왔다. 귀향의 날만 세어보던 손가락으로 이제 씨앗을 뿌린다. 땅을 제법 일구어 두면, 철없는 아이들이 그 위로 뛰어다닌다. 어른들은 내버려 둔다. 아이들의 웃는 모습이 얼마 만인가. 땅은 다시 손보면 된다. 재잘대는 웃음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없다. 그리고 이제는 먹고 살 궁리가 우선이다. <br/><br/>인간의 동정심이란 찰나보다 더 짧다. 지난해 9월 터키의 바닷가에서 죽어서 발견된 아이를 찍은 사진 한장은 인간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제는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들이 도착하는 곳에 가서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유럽은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 바닷가는 쓸쓸하고 유럽의 문은 다시 닫혔다. 찰나 같은 동정심의 결말은 친숙한 삼류영화 같다.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이해해 주길 바라.<br/><br/><br/>잠시 흔들렸던 인류의 마음은 재빨리 계산에 착수한다. 문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시리아로 돌아갈 수는 없는 형편이니, 이미 정착해 있는 주변국에서 아예 터전을 꾸리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생계거리를 마련하고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시리아 난민들에게 못내 미안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이라 부른다. <br/><br/>마음을 모으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셈법을 같이 하는 것은 외려 쉽다. 올 초에 힘 있는 나라들이 런던에 모여서, 시리아 주변국을 대대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논의했다. 너도나도 돈을 내겠다고 했다. 시리아 난민들의 뛰어난 지적 능력과 노동의욕은 모두 경제적 자산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개발전략을 세우자는 선언문이 근엄한 목소리에 실려 발표되었다. 이런 ‘합리적’ 해법을 바라는 것은 물론 단 한가지다. 시리아 난민은 우리의 문제, 즉 유럽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의 문제다. 다만 ‘착한’ 유럽이 도와줄게. 이런 유럽의 항변은 이제 우리 모두의 항변이 되었다.<br/><br/>덕분에 요르단은 대표적인 수혜국이 되었고, 제법 멋진 이름도 붙여졌다. ‘요르단 협약(Jordan Compact)’. 요르단 입장에서는 마다할 일이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인도적 (군사적)’ 지원으로 버티고 있는 나라다. 이미 공식적으로 60만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와 있다. 돈을 대고 도와주겠다니 환영하고 고마울 일이다. 목표도 거창했다.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요르단 국민들의 반감을 고려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비슷한 숫자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유럽연합은 이참에 현행 무역협정을 바꾸어서 요르단 제품이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쉽게 해 주겠다고 했다. 세계은행에서는 경제특별구역을 만든다는 계획을 냈다. 이 모든 것이 된다면, 시리아 난민은 귀향의 꿈을 대신해서 평화로운 정착의 희망을 품을 수 있다.<br/><br/>시리아 난민들이 그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타인이 심어주려는 희망을 의심하는 법이다. 이젠 눈물조차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눈물의 지속성을 믿지 않는다. 눈물은 왜 떨어지는가. 결국은 땅 위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기 때문이다.<br/><br/>요르단의 고용 사정은 이미 악화일로다. 매년 6만명에 달하는 젊은이가 꿈을 안고 일자리를 찾아나선다. 이들을 좌절시키지 않으려면 경제가 6%는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3% 성장도 버겁다. 여성경제활동 비율도 20%가 채 되질 않아서 여성 일자리도 우선순위다. 여기에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일자리까지 만들려고 하면, 경제는 매년 10% 정도는 성장해야 한다. 모두 힘들어 보이는 숫자들이다. <br/><br/>물론 불가능하지는 않다.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고 투자도 눈부시게 늘어나면 된다. 하지만, 이런저런 대책으로 경제 분위기가 갖추어지면 수출이고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할 뿐, 정작 투자하겠다는 곳이나 수출문을 열어 주겠다는 이들은 드물다. 희망에게 번번이 배신당한 이들에게 ‘가능성’을 말하는 대책,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합리적이라 부른다. 경제란 본디 불확실하니, 우리는 오로지 가능성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어느새 우리는 뱀의 혀를 닮아간다.<br/><br/>암만을 떠나던 날, 시리아 난민들은 여전히 텃밭에서 분주했다. 값싼 눈물 대신 흙탕물을 땅 위에 뿌리고 있었다. 합리성과 가능성의 요설 대신에 제 손만을 믿고, 그 손으로 심은 씨앗만 믿는 듯했다. 그들 앞에 닥칠 시간은 곧 다가올 여름보다 힘겨울 것이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왁자지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05.txt

제목: ‘장애인 치과진료 선구자’ 이긍호씨 올해 우정선행상 대상  
날짜: 20160428  
기자: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28135603779  
본문: 장애인 치과의료의 기본권 확립에 앞장서 온 치과의사 이긍호씨(75)가 우정선행상 대상을 수상했다.<br/><br/>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은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6회 우정선행상 시상식을 개최했다.<br/><br/>올해 대상을 수상한 이긍호씨는 1993년부터 국내 최초의 장애인복지관인 정립회관 등 장애인복지관 3곳에서 무료 치과진료 봉사를 해온 한국 장애인 치과진료의 선구자다. 이씨는 장애인 치과에 대한 이론조차 없던 한국 학계에 ‘장애인치과학’을 신설하고 경희대학교 내 ‘장애인특수클리닉’을 개설해 장애인 치과진료의 기틀을 마련했다. 2003년에는 국내 최초 장애인 구강보건 비영리단체인 ‘스마일재단’을 창립하기도 했다. 이씨는 교육 뿐 아니라 연인원 1만여 명의 검진 및 치료, 보건정책 개발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구강 보건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br/><br/>오운문화재단은 “<span class='quot0'>장애인 치과진료에 무심했던 시절부터 20여년간의 진료봉사활동을 통해 꾸준히 장애인 치과진료 환경을 개선해 온 점, 교과목 신설 및 단체 설립 등으로 장애인 치과의료 기본권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span>”고 대상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br/><br/>28일 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6회 우정선행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을 마친 후 심사위원 및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br/>(뒷줄 왼쪽부터) 손숙 마포문화재단 이사장, 목영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김학준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정목 정각사 주지스님,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특별상 수상자 박대성씨, (앞줄 왼쪽부터) 장려상 수상자 유귀녀씨, 본상 수상자 손정자씨, 이금자씨,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대상 수상자 이긍호 씨, 장려상 수상자 김영림 씨, 특별상 수상자 박섭묵 씨 코오롱 제공20년 넘게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해온 손정자씨(74)는 본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선천성 왜소증을 앓으면서도 폐종이컵을 수거해 장학금 기부를 실천한 이금자씨(61)도 본상을 수상했다. 이씨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은 종이컵은 21.1톤, 약 633만개에 달한다.<br/><br/>장려상 수상자로는 17년간 소외 어르신들과 아이들, 가족이 없는 재소자들을 위해 봉사해 온 김영림씨(58)와 1985년부터 전화상담 봉사를 해온 ‘대구생명의 전화’ 상담봉사자 유귀녀씨(70)가 선정됐다.<br/><br/>역대 우정선행상 수상자 중 지속적인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특별상은 박대성씨와 박섭묵씨에게 돌아갔다. 제5회 본상 수상자인 박대성씨는 1996년부터 무료급식봉사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수상 이후에 쪽방촌 도시락 나눔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등 봉사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 제5회 장려상 수장자인 박섭묵씨는 ‘인천삐에로극단’을 창단해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공연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br/><br/>이웅열 오운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하며 “<span class='quot1'>앞으로도 우정선행상은 선행의 은혜로움과 소중함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더욱 살 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우정선행상은 코오롱그룹이 사회의 선행·미담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고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호인 ‘우정’을 따서 2001년 제정한 상이다. 매년 우수 선행자를 선정해 대상·본상·장려상·특별상을 시상하고 있다. 상금은 총 1억원이다. 올해는 코오롱의 ‘살맛나는 세상’ 캠페인과 신문사, 방송국 등 언론기관과 일반 시민 등을 통해 추천·접수된 71건의 선행·미담 사례를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06.txt

제목: 50세 이후 국가검진, ‘대변잠혈반응 검사’란?  
날짜: 201604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28130504244  
본문: 대장암은 전세계적으로 유병율이 증가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대장암의 발생률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육류섭취량과 암발생률의 상관관계가 있는 암 중 하나가 대장암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육류섭취량이 서양의 섭취량에 비할 바가 아니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서 근육량 유지를 위해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권장하는 것이 현재 의학계의 주장이다.<br/><br/>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50세 이상의 남녀에게 1-2년 간격으로 대변잠혈반응 검사를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하여 대장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검사는 위장관 출혈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대장내시경검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br/><br/>양성이 나올 경우 약 2-10%에서 위, 대장암 등의 소화기암이 발견되며, 최대 30%에서 대장용종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대변잠혈반응 검사는 선별검사로서 유용하다.<br/><br/>그러나, 대장내시경의 경우 검사를 위해 장정결제를 복용해야 하는 불편으로 인해 대변잠혈반응검사만 하고 양성반응이 나와도 검사를 주저하거나, 치질로 치부는 등 환자 스스로 자기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대로 결과가 음성이어서 소화기질환이 없다고 생각하다 우연찮게 내시경검사를 받은 뒤 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맹신할 수는 없다.<br/><br/>과거에 비해 장정결제의 복용량을 줄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예전과 달리 편하게 장정결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내시경장비와 내시경의사의 수준이 높으므로 검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증인 출혈, 천공 등의 우려도 많이 감소해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br/><br/>대장암으로 진단됐다 하더라도 무조건 장절제수술과 항암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조기에 발견될 경우 내시경절제로도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한 질환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경우 불과 얼마 전에 이상이 없었는데 대변잠혈반응이 이상이 나와서 다시 검사를 해야 하나 싶은 딜레마에 빠져 재검 문의를 위해 진료를 받는 환자들도 간혹 있다.<br/><br/>민강남클리닉(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우수내시경실인증의료기관)의 조원영 원장은 “<span class='quot0'>대변잠혈반응검사의 이상 소견이 발생할 때마다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45세 이후부터는 5년에 한번은 검사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용종이 발견될 경우 그 개수와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3-5년 간격으로 대변잠혈반응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span>”고 권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07.txt

제목: 암사동 신석기 유적, 41년 만에 정밀 발굴조사  
날짜: 20160428  
기자: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28103333631  
본문: 빗살무늬토기로 잘 알려진 서울 강동구 암사동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가 41년 만에 이뤄진다.<br/><br/>강동구는 문화재청·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유적 정밀 발굴조사 예산 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71~1975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정밀 발굴조사 이후 처음이다. 1975년 이후에도 암사동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공사나 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분적인 조사에 불과했다.<br/><br/>지난해 전기·통신 간선 공사 시굴조사에서 신석기시대 문화층이 발견되면서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발굴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에 조사를 실시하는 구간은 작년 시굴조사에서 신석기 문화층이 발견된 지점과 유적 남측 경계부, 1970년대에 발굴된 움집터 지점을 합쳐 총 992㎡ 규모다. 조사는 오는 7월까지 진행되며, 발굴 결과에 따라 추가발굴조사를 할 계획이다.<br/><br/>조사 기간 동안에는 유물 보호를 위해 발굴구간 공개를 제한한다. 단 다음달 5일 어린이날에는 유적을 방문하는 초등학생과 그 가족에게 발굴현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유물 발굴 체험도 할 수 있다. 서울 암사동 유적 홈페이지(sunsa.gangdong.go.kr)를 통해 사전접수해야 한다.<br/><br/>암사동 유적은 1925년 한반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한강 일대 토양이 휩쓸려 내려가면서 땅속에 묻혀 있던 많은 토기편들이 노출돼 처음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인 학자에 의해 간단한 보고만 이뤄졌을 뿐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1967년 장충고교 야구장을 짓기 위해 일대 토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빗살무늬토기와 돌무지 등이 대거 드러나면서 다시 관심을 모았다. 경희대의 조사를 시작으로, 대학연합발굴단 조사, 국립중앙박물관의 발굴조사가 실시됐다.<br/><br/>그 결과 수렵·채집 생활을 하며 취락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터와 돌도끼, 돌화살촉, 긁개 등의 생활도구, 돌낫, 보습과 같은 채집도구가 다량 출토됐다. 1979년 7월 사적 제267호로 지정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유적공원으로 조성해 개방했다.<br/><br/>이해식 강동구청장은 “<span class='quot0'>발굴조사를 통해 신석기시대 마을 유적의 새로운 면모가 밝혀지게 되면 암사동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08.txt

제목: [정책Q&A]자궁경부암 무료 백신 어떻게 접종할까  
날짜: 20160427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27120302447  
본문: 올해 6월부터 만 12세 여자 어린이들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br/><br/>보건복지부는 27일 자궁경부암 발생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증’을 정기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br/><br/>복지부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br/><br/>Q.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 접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br/><br/>A. 연 나이 만 12세, 즉 2003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여자 어린이가 무료 접종 대상이다. 6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하면 된다.<br/><br/>Q. 무료 접종은 어디서 하나. <br/><br/>A.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접종 받을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5월 중순 이후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사이트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Q. 자궁경부암은 어떻게 발생하나.<br/><br/>A.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 4명 중 2~3명은 평생 한 번 이상 HPV에 감염될 수 있다. <br/><br/>HPV에 감염되면 대부분 증상이 없고 1~2년 안에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만 3~10%에서는 지속 감염을 일으킨다. 지속 감염은 수 년에서 수십 년 후에 자궁경부암(여성), 외음부암(여성) 등 다양한 암을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이다.<br/><br/>Q. 국내에 자궁경부암 환자가 많은가.<br/><br/>A.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다. 국내에서도 매년 3300여명이 발병하고 연간 9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br/><br/>Q. 예방접종으로 자궁경부암을 100% 예방할 수 있나.<br/><br/>A. 자궁경부암은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여성 암이다. <br/><br/>현재 자궁경부암 환자의 99%에서 고위험 HPV 유형이 발견되고 있다. 고위험 유형 중에서도 16형, 18형이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를 차지한다. 예방접종을 하면 이 유형에 의한 자궁경부암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br/><br/>다만 다른 유형으로 인한 자궁경부암은 예방이 어려우므로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br/><br/>Q. 자궁경부암 백신은 안전한가.<br/><br/>A. 지금까지 전 세계 65개국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으로 도입해 약 2억 건 이상 접종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백신안전성 자문위원회가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전 세계 안전성 정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09.txt

제목: 삶의 마무리 어떻게…말기 암 환자의 ‘마지막 여정’  
날짜: 20160425  
기자: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25211009726  
본문: ㆍKBS1 ‘시사기획 창’<br/><br/>KBS 1TV <시사기획 창>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숙명임에도 불구하고 금기의 대상이자 두려운 것이기도 하다.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편견도 여전하다. 2010년 암 사망자 7만여명 가운데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말기 암 환자 수는 6500여명으로 암 사망자의 9% 수준에 그친다. <br/><br/>3년 넘게 피부암으로 투병해온 33세 성렬씨는 호스피스 병원에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무리한 암 치료와 연명 의료에 매달리다 중환자실에서 차갑게 죽음과 맞닥뜨리고 싶지는 않다. 준비하는 만큼, 정리할 시간을 갖는 만큼 더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는 오늘도 가족과 한 뼘 더 사랑하려고 노력한다.<br/><br/>올 초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게 해주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사회적 장치,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삶만큼이나 고귀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방송은 오후 10시.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10.txt

제목: 겨드랑이 부유방 환자 중 10%가 종양발견, 적절한 치료법은?  
날짜: 201604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25175554854  
본문: 부유방은 유선조직이 퇴화하지 않고 남아 생긴 질병이며 유방과 그 구조가 유사하다. 그러므로 유방에서 나타나는 질환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br/><br/>‘Clinical Cancer Investigation Journal’에 소개된 한 연구 사례에 따르면 한 여성에게서 부유방과 양성 종양이 함께 나타난 사례가 있다고 한다.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국내 여성 부유방 환자가 24만5111명으로 보고됐다.<br/><br/>실제로 담소유병원 부유방 클리닉(이성렬 원장, 황성배 원장, 임소현 마취과장)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총 1200례의 부유방 수술 환자에서 11명은 부유방에 종양이 발견됐다. 또한 100명(9%)의 환자는 정상유방에서 종양이 함께 발견됐는데, 양성종양이 99명, 악성종양은 1명으로 나타났다.<br/><br/>부유방이나 유방종양은 간혹 통증을 느끼는 환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간혹 유방이나 부유방 속 섬유선종이라는 양성 종양이 암으로 발전할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으나, 조직 검사 결과 섬유선종이 확실하다고 밝혀지면 유방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다만 유방의 종양은 종양의 제거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부유방의 경우 유선조직을 모두 제거해줘야 추가적인 재발이 일어나지 않으며 외관상 모양이 교정된다.<br/><br/>황성배 원장은 “부유방 수술의 핵심은 유선조직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지방까지 제거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겨드랑이 부유방이 생긴 원인과 지방의 양, 유선의 양, 피부 늘어짐 정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br/><br/>이어 “1㎝ 내외의 절개를 통해 흉터 없이 부유방의 유선조직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양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 가능하다. 부유방 진료 시 유방의 종양 여부를 알기 위해 초음파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br/><br/>한편, 담소유병원은 4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세계유방암 학술대회(2016 GBCC)에 참가할 예정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11.txt

제목: [새책]지능이란 무엇인가? 外  
날짜: 201604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22210303529  
본문: ▲지능이란 무엇인가? | 하워드 가드너 | 사회평론<br/><br/>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하워드 가드너가 1981년 쓴 책의 개정판. 35년 전 출간 당시 저자는 ‘다중지능’ 개념을 제시했다. IQ만이 유일한 지능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언어 지능’ ‘음악 지능’ 등 지능을 7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고민했다. 개정판 서문에서는 그간의 연구변화와 발전을 소개했다. 김동일 옮김. 2만2000원<br/><br/><br/>▲사랑의 탄생 | 사이먼 메이 | 문학동네<br/><br/>사랑의 철학사를 짚었다. 구약성경과 플라톤에서 출발해 스피노자와 루소, 니체, 프로이트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정의와 의미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탐구했다. 저자는 신을 흉내내려는 부질없는 노력이 사랑에도 투영됐고, 그로 인해 인간성의 중요한 부분들이 박탈됐다고 지적한다. 인간은 인간답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지선 옮김. 1만9500원<br/><br/><br/>▲아버지의 라듸오 | 김해수 | 느린걸음<br/><br/>1959년 국산 라디오를 처음 만든 엔지니어 고 김해수의 일대기를 정리했다. 그가 만든 국산 라디오 1호 ‘금성 A-501’은 지난해에 ‘대한민국 광복 70년 과학기술 70선’으로도 선정됐다. 라디오 국내화에 얽힌 뒷이야기가 흥미롭다. 저자가 암 투병할 때 박노해 시인의 배우자이기도 한 외동딸 진주씨가 아버지의 육필원고를 받아 정리했다. 김진주 엮음. 1만5000원<br/><br/><br/>▲대화 | 갈릴레오 갈릴레이 | 사이언스북스<br/><br/>망원경을 사용한 객관적 관측과 천체 역학적 문제에 대한 수학적 논증으로 천동설을 뒤엎고 지동설의 타당성을 입증한 갈릴레이의 역사적 저술이다. 1632년 책 출간 당시 초판이 모두 팔리며 지동설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지만, 갈릴레이 종교 재판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역시 갈릴레이의 고전인 <새로운 두 과학>도 함께 출간됐다. 이무현 옮김. 3만원<br/><br/><br/>▲11시45분 | 정상모 | 풀빛<br/><br/>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을 ‘골든타임’이 임박했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민족 절멸의 위기를 넘어 역사적 대전환을 위해서는 ‘한민족 평화주권’ 확립과 ‘평화민족주의’를 전개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다. 한반도 전쟁은 어떤 이유와 명분에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전쟁 책동을 막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만원<br/><br/><br/>▲이제는 질문이다 | 신상훈 | 북샵일공칠<br/><br/>25년 경력의 개그 방송작가가 이야기하는 ‘말 잘하는 법’이다. 저자는 상대를 설득시키고 호감을 주기 위해 말을 잘하는 비법 중 핵심은 질문이라고 강조한다. 대화를 하려면 먼저 사람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을 알기 위한 시작이 바로 질문이라는 것이다. 스피치 강의 전문가답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스피치 조언들이 책 곳곳에 풍성하게 담겼다. 1만2800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12.txt

제목: [기고]가습기살균제와 환경부의 궤변  
날짜: 20160421  
기자: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21210546566  
본문: “<span class='quot0'>저…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받는 곳인가요?</span>”<br/><br/>“제 처가 작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직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가습기살균제 기사를 보고 생각해보니 저희도 그걸 많이 썼어요. 지금도 신고를 받나요?” <br/><br/>며칠 전 일산에 사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부인이 2011년에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작년 9월에 사망했는데 2000년경부터 근처 롯데마트 등에서 구입한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를 5~6년가량 사용했단다. 아이가 어릴 때 아토피가 심해서 밤낮으로 가습기를 사용했는데 학교 갈 나이가 되면서 좀 나아져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사망한 부인의 폐CT 사진을 갖고 방문해달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걸려온 다른 전화는 여수의 40대 남성이었다. 이 분의 부인도 폐암사망 사례였다. 2013년 진단받고 작년에 세상을 떠났단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2005년경부터 초음파가습기를 사용했고 롯데마트 여천점에서 본인과 부인이 함께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했었단다.<br/><br/>거의 같은 내용의 2통의 전화를 연이어 받은 날은 롯데마트 사장이 공식 사과하는 날이었다. 피해자 대표들과 현장에 갔는데 수십대의 비디오카메라에 100명은 족히 넘을 카메라기자와 노트북 앞에 앉은 기자들로 북적였다. 그들이 쏟아낸 기사는 그야말로 홍수였는데 부인을 잃고 황망한 상태였을 두 남편도 그 기사를 보았고 ‘아 우리도 롯데마트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다 썼잖아’하는 생각을 하고 고민 끝에 신고전화를 해온 것이다.<br/><br/>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1차 조사와 판정을 맡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2014년 12월 내놓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백서(사건인지부터 피해 1차 판정까지)’ 자료에서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1'>장기적으로 폐와 다른 장기에서 암 등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span>”을 지적하고 있다. <br/><br/>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아무런 의학적 처치도 소용없이 나빠지다 세상을 떠나는 몇 주 또는 몇 개월만의 급성 또는 아급성 피해가 그간 알려진 상당수 가습기살균제 사망자들의 공통점이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이후 수년 동안 폐질환으로 고통받다가 또는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다가 폐암과 같은 만성질환이 발병한 경우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4월 초까지 접수된 1528명의 피해신고 사례 중에서도 이미 폐암 발병 사례가 10여건에 이른다. 폐 이외의 장기에 발병한 암도 있다.<br/><br/>당연히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원인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간다. 질병관리본부의 백서에서 지적하듯 말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담당부처인 환경부는 아무런 조사도 연구도 하지 않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피해신고자 752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천식과 비염이 생겼다고 호소한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성을 조사하지 않는다. 현재의 관련성 판정은 폐 손상 여부만 따진다. 가습기살균제가 호흡기로 노출돼 폐에 도달하는 경로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비염과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환의 발병이 의심된다.<br/><br/>하지만 환경부는 비염이나 천식은 발병원인이 다양한 소위 ‘비특이적 질환’들이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폐암의 경우도 마찬가지 논리로 관련성 여부에 대한 검토 자체를 배제한다.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일 수 있지만 다른 원인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비염과 천식 그리고 폐암을 발생시키는 모든 원인을 알게 된 후에야 가습기살균제가 그중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자세는 이해할 수 없다. <br/><br/>환경부의 이러한 궤변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사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초기부터 이상한 태도로 일관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실패라는 지적에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일을 왜 우리한테 그러냐는 식의 자세로 나왔다.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질환으로 다루자는 제안에 그 법은 피해문제와 무관하고 조사연구를 위한 근거법령이라고 우겼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다루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과학적 불가지론’을 들먹였다. 가습기살균제 제조단계에서의 과학 수준으로는 위해성을 알지 못했다는 옥시레킷벤키저 측의 주장을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이 대변한 것으로 들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13.txt

제목: 뇌에 신호 보내 통증 조절··· 페인스크램블러 암성통증 치료  
날짜: 2016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21103807107  
본문: #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김모(남, 55)씨는 신장암이 골반까지 전이돼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br/>치료 후 한 달 정도 돌아눕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골반 통증을 호소한 김씨는 한달 여 정도의 페인스크램블러(Pain Scrambler) 통증치료와 고주파 온열 암치료 등을 받은 후 혼자서 의자를 짚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골반 통증이 줄어들었다. 김씨는 근본적인 암치료와 암성통증 치료를 동시에 받아 한달 여 만의 시간에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이다.<br/><br/>국내외 암 연구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의 통증 유병률은 약 80%이며 진행 암 환자의 경우는 70%가 통증을 호소하고 이 중 50% 이상의 환자에게서 통증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br/><br/>암환자의 암성통증은 암이 생기는 모든 신체 부위에 발생한다. 암의 종류, 진행 정도 및 환자 개개인의 전신적인 상태에 따라 통증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암의 진단 초기나 중간진행 단계에서 이미 30~45%의 환자가 중등도의 암성통증을 호소하며 진행 암의 경우에는 75~90%에서 통증을 호소한다.<br/><br/>통증 조절이 안되거나 통증이 심해지게 되면 암 치료에 대한 의욕이 저하돼 전체적인 암 치료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암환자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환자의 가족까지도 동일한 고통을 받게 된다.<br/><br/>이러한 이유로 암성 통증 조절은 암 치유의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암환자들에게 암성 통증 치료는 암의 근원적인 치료를 위해 반드시 병행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며 통증은 조절될 수 있으므로 참지 말고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한다.<br/><br/>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약물 치료와 외과적 수술 방법이 있다. 약물치료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담당의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 맞는 진통제를 처방 받아 알맞은 용량과 투여 방법으로 복용하는 것이다. 환자 자신 역시 약물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br/><br/>약물투여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변비와 졸림을 비롯해 구역, 구토, 호흡억제, 배뇨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약에 대한 내성과 의존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과다복용을 주의해야 한다.<br/><br/>최근에는 마약성 진통제나 외과적 수술로 인한 부작용 우려로 인해 우선적인 통증치료 방법으로 페인스크램블러(Pain scrambler)를 이용한 비침습적 통증 치료가 암환자들의 통증치료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br/><br/>페인스크램블러는 환자의 통증 부위에 패드를 부착해 뇌로 무통증 신호를 보내 통증을 느끼게 했던 신경전달 물질의 양을 줄임으로써 통증을 조절하는 원리를 지녔다. 약물, 주사 등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병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자의 심리적, 정신적 부담을 덜 수 있다.<br/><br/>2009년 FDA승인을 받은 통증치료 장비로 미국의료협회(AMA)에서 신의료기술코드(CPTⅢ)를 획득한 암 통증치료 의료장비다.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 인정을 받은 상태이며 미국 엠디앤더슨 통증의학과 및 존스홉킨스 의대에서도 통증치료 방법으로 사용 중이다. 국내에서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과 120여 개의 일반병의원에서도 시행하고 있다.<br/><br/>연세사랑요양병원 강동철 원장은 “<span class='quot0'>최근 도입한 페인스크램블러는 암환자가 외과적인 수술이나 마약성 진통제 약물치료를 하기 이전 시행할 수 있는 통증 치료 방법으로 암환자의 암성통증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술 중 하나</span>”라고 설명했다.<br/><br/>한편 송파구에 위치한 연세사랑요양병원은 암환자 치료 및 면역 증강을 목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한 통합암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14.txt

제목: 화순전남대병원 개원 12주년 맞아 사회공헌행사 풍성  
날짜: 20160421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21084409862  
본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김형준)이 오는 26일 개원 12주년을 맞아 사회공헌과 고객존중을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마련했다.<br/><br/>20일 병원측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 지하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다음달까지 개원부터 지금까지 병원 발자취 사진전, 간호사진전, 환자·보호자를 위한 무료 가훈써주기와 힐링 음악회를 개최한다. 소외이웃과 지역민을 위한 사랑나눔행사, 조손가정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한끼의 행복한 나눔’, 지역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 등도 시행한다.<br/><br/>병원직원들이 기증한 물품으로 자선활동을 펼치는 ‘아름다운 나눔장터, 전남 의료소외지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진료’ 등도 계속 진행된다. 암 예방을 위한 행사들도 준비돼 있다. 지역 곳곳의 축제현장에서 암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치며, 보건소와 직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암예방교육’을 연다.<br/><br/>김형준 원장은 “<span class='quot0'>2004년 개원 당시의 초심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세계적 수준의 암치유 역량과 암정복 연구·교육의 산실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15.txt

제목: ‘스티브 잡스·에릭 슈미츠의 멘토’ 빌 캠벨 사망  
날짜: 20160419  
기자: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19215553508  
본문: “그가 없었다면 구글은 지금과 같은 회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알기론 애플도 그렇다.”<br/><br/>구글을 세운 알파벳(구글 지주회사) 대표 에릭 슈미츠는 빌 캠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슈미츠가 구글의 오늘을 있게 한 은인이자 멘토로 꼽은 캠벨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5세. 캠벨의 별명은 ‘코치’였다. 1974~1979년 그는 컬럼비아대 축구팀을 이끈 진짜 코치였고, 이때 쌓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영전문가로 변신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 대표들이 캠벨의 도움을 받았다.<br/><br/>뉴욕타임스는 “<span class='quot0'>캠벨은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처음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경영전략을 세우고 밑그림을 그린 조언자였다</span>”며 “<span class='quot0'>애플과 구글, 아마존 등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span>”이라고 평가했다. <br/><br/>뉴욕타임스는 “<span class='quot0'>캠벨은 특히 1997~2014년 애플의 디렉터로 일하며 컴퓨터 회사였던 애플이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를 만드는 등 대전환과 혁신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span>”고 전했다.<br/><br/>깐깐하고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했던 스티브 잡스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캠벨을 찾아 조언을 구했고, 캠벨이 구글의 슈미츠에게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견제하기도 했다. <br/><br/>애플의 대표 팀 쿡은 이날 트위터에 “<span class='quot1'>그의 지혜와 우정, 유머가 그리울 것</span>”이라며 애도했다. 구글의 슈미츠는 “오늘은 정말 슬픈 날”이라며 “그는 나와 구글, 그리고 실리콘밸리 모든 기업들의 멘토였다”고 회고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16.txt

제목: 프란치스코 교황 “난민은 숫자 아닌 사람…인격적 대우를 해야 합니다”  
날짜: 20160417  
기자: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17153649238  
본문: ㆍ그리스 난민섬 레스보스 찾아…난민들 함께 행진 <br/>ㆍ시리아 난민 12명 바티칸에 데려와<br/><br/><br/><br/>“태양이 울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눈물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입니다.”<br/><br/>유럽으로 건너가려는 시리아·이라크 등 중동 난민들의 중간 기착지인 그리스 레스보스섬에 16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이 찾아왔다. 모리아 난민캠프에서 만난 한 아이가 교황에게 그림 2개를 건네줬다. 하나는 보트를 타고 가던 아이가 바다에 빠진 그림이었고, 다른 그림에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양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교황은 취재진에게 그림을 흔들어 보이며 난민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br/><br/>교황은 섬에 도착하자마자 모리아 난민센터까지 이어진 난민들의 행렬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교황을 향해 손글씨로 “이동의 자유를”이라고 쓴 수건을 흔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아이들을 어깨 위에 올려놓은 채 스마트폰으로 교황의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다. 한 이라크 난민 여성은 교황 앞에 다가와 자식의 암을 치료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한 남성은 교황이 머리에 손을 얹자 “<span class='quot0'>아버지여 저에게 축복을 내리소서</span>”라며 흐느껴 울었다. 유럽연합(EU)과 터키는 그리스로 간 ‘미등록 난민’들을 터키로 돌려보내기로 합의했고, 지난달 20일부터 그리스는 난민들을 터키로 송환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바다를 건너 그리스로 향하는 난민들은 줄을 잇고 있다.<br/><br/>난민캠프에 가기 전 교황은 트위터에 “난민은 숫자가 아니며 얼굴과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그는 시리아 난민 12명을 전세기에 태워 바티칸으로 데려오면서 인도주의적 메시지를 몸소 실천했다. 어린이 6명을 포함해 세 가족이 바티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들은 모두 시리아 무슬림으로, 내전의 포화에 집을 잃었다. 두 가족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왔고, 한 가족은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점령한 데이르에조르에서 왔다. 바티칸은 “난민들에게 환영의 뜻을 보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마의 가톨릭 자선단체 산테지디오가 이들을 보호하고 일자리 찾는 것을 돕게 된다.<br/><br/>2013년 3월 즉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해 7월 바티칸 밖 첫 방문지로 북아프리카 난민들의 기착지인 이탈리아 람페두사섬을 찾았다. 교황은 당시 난민수용소에서 미사를 집전하면서 난민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하고 형제애를 촉구했다. 이번 방문으로 다시 한번 세계의 무관심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br/><br/>교황은 난민, 이주민, 인신매매, 현대판 노예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촉구해왔다. 지난 2월에는 미국과 국경을 접한 멕시코 도시 시우다드후아레스를 방문, 미 공화당 대선 유력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국경 장벽’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교황은 이곳 미사에서 국경을 넘다가 숨진 이들을 추모하고 인신매매 범죄를 강하게 비난했다. <br/><br/>미 민주당 대선후보에 도전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6일 아침 바티칸의 교황 사저 앞에서 기다리다 레스보스섬으로 가려고 집을 나선 교황에게 인사했다. 교황과 샌더스 간 만남은 약 5분간 이뤄졌고 샌더스의 부인 제인과 컬럼비아대 교수 제프리 삭스가 함께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17.txt

제목: [배철현의 심연]진부함과 참신함  
날짜: 20160414  
기자: 배철현 |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14223501238  
본문: 나의 영적이며 지적인 수련을 방해하는 훼방꾼이 있다. 진부(陳腐)함이다. 진부라는 한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썩은 고기(腐)를 남들이 보라고 전시하는(陳) 어리석음이다. 고대 사회에서 고기를 맛보기란 드문 일이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고기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고기를 냉장보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올 때마다, 그 고기를 꺼내서 보여주곤 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 귀한 고기가 탐이 나서 그를 부러워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기는 썩기 시작했고 악취가 났다. 고기 주인은 썩은 고기를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보여주었다. 자신은 썩은 고기에 익숙해져, 악취가 나는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을 진부한 사람이라고 부른다.<br/><br/>생물학자들은 위대한 하나의 탄생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수많은 진부한 생명들을 시험하고, 견뎌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켜 미래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인물들을 가려내려고 시도한다.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노력이나 프로그램, 혹은 계획을 통해서는 참신한 인물이 등장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교육은 지금까지 진부함만 양산시켰다. 진부하지 않은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힘들다. 참신(斬新)이라는 한자 단어를 살펴보면, 그런 인물이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 참(斬)자는 고대 중국에서 죄인을 죽이던 극형 틀인 수레와 도끼로 이루어졌다. 참신이란 자신의 과거를 도끼로 치듯, 완벽한 단절에서 시작한다.<br/><br/>누가 참신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만나러 온 사람과 대화하기를 즐겼다. 말을 격의 없이 주고받았다. 소크라테스는 대화 상대자의 말을 경청하고, 그 상대방이 편견과 자신만의 지식체계인 무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만 알려줬다. <br/><br/>참신한 인물에게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호되게 잔소리를 하는 멘토가 있었다. 사탕발림으로 현실감각을 망각하게 하는 힐링 멘토가 아니다.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과감히 실험해 본다.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고즈넉한 자신만의 여유와 취미를 즐기고, 정해진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 심오한 묵상을 수련한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과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자신의 상상력과 직관을 고양시킨다. 이러한 거룩한 행위들은 대체할 수도 없고 단시간에 통달할 수 있는 지름길도 없다. 우리는 대중 쾌락과 진부함이라는 치명적인 암에 결려 있지 않은가?<br/><br/>이 진부함을 매 순간 떨쳐버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위대한 현대무용가 마사 그레이엄이다. 그녀는 안무(按舞)를 무대 디자인, 의상, 춤의 다양한 순서와 극적인 몸짓 안에 숨어 있는 어떤 것이라고 말한다. 매 순간, 그 자리에는 없지만 그것을 발견하려는 살아 있는 몸짓이다. <br/><br/>안무는 무용가의 몸짓을 가능하게 하는 필연이다. 지속적인 몰입을 통해 가만히 떠오는 섬세한 침묵의 소리를 감지하고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면 된다. 그 길을 감지하지도 못하거나 따라가다 힘들다고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다. 영어에 ‘진부함’을 의미하는 메디오크러티(mediocrity)라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는 ‘중간’을 의미하는 메디(medi)와 ‘험한 산’을 의미하는 오크리스(ocris)의 합성어다. 산 정상을 오르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중간쯤에서 지쳐,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상태가 ‘진부함’이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서양인들에겐 진부함이었다. 나의 문제는 나의 ‘초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이다.<br/><br/>이 거룩한 소리를 몸으로 따라가다 보면 일정한 모습이 등장한다. 바로 그것이 안무다. 매 순간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 신기한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무용가가 점프하여 하늘로 솟아올랐다 마룻바닥으로 내려오는 순간, 발바닥의 앞, 중간, 그리고 뒤가 마루에 닿고, 그런 후 발꿈치뼈가 완벽한 자세로 착지하며 몸 중심을 잡는다. 그 순간에 천지개벽과 같은 폭력적인 움직임이 무용가의 절제된 편안함으로 승화된다.<br/><br/>그 소리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안무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의 귀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목말라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자신이 구축한 안무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배운 적도 없다.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맞춤형인 안무를 만들어 끝까지 완주한 자들이 있다. 플라톤, 붓다, 예수, 조로아스터, 무함마드는 남들이 써놓은 책이나 관습에서 안무를 배우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것을 말하고 행동으로 옮긴 자들이다. <br/><br/>미국 사상가 랠프 월도 에머슨은 외친다. 인간은 자신의 심연에서 섬광처럼 반짝이는 빛의 줄기를 감지하고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시인이나 성인들의 창공에 빛나는 별들을 쳐다보느라 정신이 없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라는 이유로 무시한다. 당신은 진부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참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18.txt

제목: [기고]담뱃갑 경고그림에 ‘혐오’를 허하라  
날짜: 20160414  
기자: 서홍관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14223501696  
본문: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 2위는 뇌혈관질환, 3위는 심혈관질환인데 모두 흡연이 주된 위험 요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할 때 금연정책을 빼놓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금연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 담뱃값 2000원이 인상되면서 2014년 43억갑의 담배가 팔린 데 비해 2015년 한 해 동안 33억갑이 팔려 무려 10억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흡연율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나 담배소매점에서의 광고금지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br/><br/>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가 강력히 권고하는 금연정책이며, 법만 개정하면 담배회사가 인쇄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 가장 경제적인 금연정책이다. 지난해 5월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담뱃갑에서 경고그림을 볼 수 없는 것일까? 당시 국회의원들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올 12월23일 출시되는 담배부터 경고그림을 볼 수 있다. <br/><br/>문제는 하나 더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감을 줘서는 안된다’는 단서조항을 혹처럼 붙여서 통과시킨 것이다. 경고그림은 왜 넣는 것인가? 흡연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금연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폐암 등 질병들은 당연히 끔찍하고 혐오스럽다. 혐오스러운 사진을 넣지 않는다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어떻게 혐오스럽지 않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경고그림은 80개 국가가 도입했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경고그림을 넣을 때 혐오감을 주지 말라는 식으로 법에 단서조항을 붙인 경우는 없다. <br/><br/>청소년에 대한 흡연예방 효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외국에서도 이미 연구들이 있었는데, 흡연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담뱃갑의 사진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경고그림을 보고 ‘아, 끔찍해. 담배 피우면 저렇게 되는 거야? 안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담배를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게 된다. <br/><br/>지난 3월31일 보건복지부는 새로 도입할 경고그림 시안을 발표했다. 외국의 경고그림들과 비교해 순화해서 표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경고그림이 국민들에게 담배의 해로움을 알리는 교육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담배가 일으키는 다양한 질병을 더 명확하게 표현해주기를 부탁드린다. <br/><br/>그리고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면적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외국에서 면적이 넓을수록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면적을 대폭 넓혀야 한다. 현재 법안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 면적의 3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경고문구까지 포함해선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경고문구와 그림의 면적을 80% 이상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 될 게 없다. <br/><br/>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넣느냐, 하단에 넣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하단에 그림을 넣을 경우 담배를 진열할 때 잘 보이지 않고, 흡연자들에게 인식되는 비율도 낮아진다. 경고그림을 넣기로 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단에 배치해야 한다. <br/><br/>호주는 담배회사의 디자인을 완전히 없앤 표준화 담뱃갑을 도입하였다. 과거에는 담뱃갑이 담배회사의 화려한 디자인과 브랜드 이름으로 가득했지만, 호주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담뱃갑 전체가 경고문구와 그림으로 가득하고, 담배회사의 이름은 작은 글씨체로 쓰여 있으며, 바탕색은 갈색으로 만들어 매력이 떨어지도록 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경고그림은 그 표준화 담뱃갑을 향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br/><br/>우리나라의 천만 흡연자 중에서 매년 6만명이 담배 때문에 사망한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담배회사는 매년 6만명의 고객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된다. 결국 담배회사가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매년 6만명의 새로운 고객을 만들어야 한다. 담배회사는 청소년들을 새로운 고객으로 유혹하기 위해 화려하고 멋진 담뱃갑을 디자인해서 담배소매점마다 진열하고 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청소년을 유혹하는 담뱃갑의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할 때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담배에 빼앗기고 싶지 않다면.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19.txt

제목: [오민규의 노동과 삶] 우리 모두가 김초원·이지혜 교사다  
날짜: 20160413  
기자: 오민규 |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13232907198  
본문: 그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무거운 산소통을 멘 채 한 줄기 플래시 불빛에 의지해서 작업을 했다. 10분만 일해도 구토와 탈진증세를 보일 정도의 강한 방사능과 사투를 벌여야 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이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멜트다운(원전 노심 용해)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원전 현장을 지킨 것은 노동자들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핵 연료봉 온도를 낮추려 엄청난 방사능 피폭을 감수하며 원전의 중심까지 접근하기도 했다.<br/><br/>긴박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원전을 지킨 노동자들은 일본에서 ‘50인 결사대’로 불리고 있다. 물론 그 숫자는 날이 갈수록 180명, 500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럼 이 노동자들은 어떤 이들이었을까?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원전에 투입된 대부분의 직원들은 처자식이 없는 계약직 직원들로 불과 일당 1만엔(10만원 남짓)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br/><br/>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할 당국자들이 제일 먼저 도망을 친 상태에서, 일본 전체의 안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다.<br/><br/>그렇다면 ‘50인 결사대’로 일본에서 추앙받는 이들은 후쿠시마 사태 5년 뒤인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상당수가 엄청난 방사능 피폭으로 암이 발병했고 다수의 사망이 보고되었지만, 지난해에야 처음으로 1명의 용접공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을 뿐이다. <br/><br/>그는 14개월 동안 원전 덮개공사에 참여한 건설 노동자로, 일을 마친 지 2주 만에 백혈병 진단을 받은 바 있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이나 치료를 못 받고 있다. 어쩜 이리도 닮았을까!<br/><br/><br/>“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은 임용기간과 임용권자, 법적 책임이 다 다르다. 무조건 순직을 인정할 경우 정규 교원의 반발 등 혼란이 크다.”<br/><br/>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두 분의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해 인사혁신처 연금복지 과장이 내놓은 답변이다. 그래, 임용기간과 임용권자 얘기는 둘째치고 대체 법적 책임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란 말인가. 아이들을 대하고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책임과 책무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르다는 뜻인가?<br/><br/>죽음이 임박한 순간 선생님들은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까. 세포 하나하나까지 중력이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배가 기울어가던 그 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용자와 계약 만료시점을 상기하며 내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의 경중이라도 따져봐야 한단 말인가. 상대적으로 탈출이 쉬웠던 5층 숙소에 있다가 아이들의 절규가 터져나오는 4층으로 내려가 구명조끼조차 입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 탈출을 돕던 그 순간에,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책무가 다르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단 말인가.<br/><br/>지난해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1일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고 교사 37만6000여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4만여명으로 전체의 10.8%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담임은 2만1000여명으로 기간제 교사의 절반 이상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다. 고(故) 김초원, 이지혜 교사 역시 각각 2학년 3반과 7반의 담임을 맡고 있었다.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동고동락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기간제 교사들의 법적 책임이 정규직 교사의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br/><br/>정규직 교사의 반발 운운한 것도 어이가 없다. 이 논리대로라면 정부는 정규직 교사의 엄청난 반발이 있는 사학연금 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br/><br/>임금피크제, 성과임금제 도입 역시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있으니 폐기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노동개악을 추진할 때엔 정규직 과보호론을 주장하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문제에선 정규직 반발 때문에 안된다니, 결국 이유를 불문하고 노동자 권리는 보장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로 읽힐 수밖에 없다.<br/><br/>“<span class='quot0'>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pan>”<br/><br/>지난 4월7일 정부가 발표한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 적시된 내용이다.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은 한사코 안된다고 주장하는 정부 스스로 얼마나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총선을 6일 앞둔 시점,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 ‘선거용’으로 발표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br/><br/>이틀 뒤면 304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된다. 지난 2년 동안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말은 무성했지만, 정부와 기업의 태도는 변한 게 없다. 20세기에나 구경할 법한 수은 중독, 메탄올 중독사고로 청년 노동자들이 실명 또는 정신질환에 빠졌다. 피해자 대부분이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들로 나타나 파견법의 해악이 드러났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파견확대 입법의 필요성을 “<span class='quot1'>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연설하라</span>”는 지침을 하달했다.<br/><br/>지난해 38명의 사망자를 내며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로 대형병원의 간접고용과 부실한 감염관리가 드러났음에도 역학조사를 거부한 거대 자본 삼성병원에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지난 11일에는 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벌써 3번째 사망사고인데 그중 2명의 희생자가 하청노동자였다. 현대중공업 관계자 어느 누구도 처벌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됐다는 얘기도 들어본 바 없다.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지 않는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20.txt

제목: 병원홍보 소통 세미나, 암-백내장-당뇨병 건강강좌 등  
날짜: 20160413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13180312032  
본문: ■서울아산병원, 21일 암 통증과 부종 건강강좌<br/><br/>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전재용·종양내과 김정은 교수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암 환자의 통증과 부종치료’ 건강강좌를 연다. 암 수술 후 몸이 붓는 부종 재활과 통증 관리법 등을 알려준다. (02)3010-3051<br/><br/>■병원홍보협, 29일 병원홍보 소통전략 세미나<br/><br/>한국병원홍보협회(회장 조성준·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홍보팀장)는 오는 29일 오후 4시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에서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갖는다.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한 홍보팀의 역할, 소통 및 유대 전략 등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다. (070)4212-9120<br/><br/>■김안과병원, 21일 백내장 주제 건강강좌<br/><br/>건양의대 김안과병원은 오는 21일 오후 3시30분 명곡홀(망막병원 7층)에서 백내장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각막센터 센터장인 송상률 교수가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1577-2639<br/><br/>■보라매병원, 20일 당뇨병 교실 건강강좌<br/><br/>서울시 보라매병원 내분비내과는 오는 20일 오후 2시 희망관 8층에서 당뇨병 건강강좌를 연다. 당뇨병의 개요 및 합병증, 올바른 약물 사용과 식사요법 등 당뇨병 교육을 실시한다. (02)870-3263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21.txt

제목: 20~23일 국제위암학술대회, 한국 위암 치료수준 세계에 과시한다  
날짜: 20160413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13151202598  
본문: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1990년대 후반,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복강경 위암 수술이 진행됐다. 당시 서울국제위암포럼 학술대회의 메가폰을 잡은 외과 김진복 교수(작고)가 마련한 특별 세션으로, 학술대회장과 실시간 생중계가 이뤄졌다. 김 교수는 위암 수술과 항암치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지금도 명성이 높다.<br/><br/>그날 복강경 수술을 시행한 주인공은 외과 주니어 스태프였던 양한광 교수(56·사진)다. 양 교수는 현재 대한위암학회 이사장으로, 위암 분야 국제무대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떠올랐다. 그는 요즘 수술뿐 아니라 오는 20~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16년 한국 국제위암학술대회를 진두지휘하느라 분주하다.<br/><br/>양 이사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span class='quot0'>한국의 위암 치료 및 연구 수준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학술대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태평양 위식도암학회와 공동 개최된다. 전 세계 25개국 670여명(외국인 200명 이상)이 이미 사전등록을 마쳤다고 조직위 측은 밝혔다. 주최 측은 현장등록까지 포함해 700여명이 학술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암 분야에서도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은 이번 학술대회에 100여명 이상의 의료진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br/><br/>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재 위암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임상 및 기초 임상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치료 방식과 향후 개선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위암 전문 병실, 외래, 수술실 전문 간호사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술대회의 전문성을 높였다.<br/><br/>주요 발표내용으로는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의 비교 연구, 4기 위암에서의 위절제술의 임상적 의미 등이 예정돼 있다. 또 위암 전문 병실, 외래, 수술실 전문 간호사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술대회의 전문성을 높였다.<br/><br/>김욱 학술위원장은 “<span class='quot1'>과거에는 국내 의료진이 일본에 가서 위암 치료방식을 배워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span>”며 “<span class='quot1'>대장암 등 다른 분야의 암에서도 한국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위암 분야는 아시아권에서 한국이 독보적</span>”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22.txt

제목: 중국 대형병원 진료표 암표,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날짜: 20160413  
기자: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13113742062  
본문: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종합병원 번호표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얻기 힘들다 보니 암표상이 극성을 부린다. 수년전부터 사회문제도 대두된 번호표 암표에 대해 지방정부가 전담반까지 꾸렸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암표상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암표상과 병원 측의 커넥션, 부족한 의료인력 등 구조적인 모순을 지적했다. <br/><br/>암표상인 위모씨(32)는 850위안(약 15만원)에 특진 번호표를 팔고 있다. 위모씨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가져가는 이익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위안(약 3만5000원) 뿐이고 나머지는 번호표를 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병원 관계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 중산층들은 850위안 정도의 금액은 언제든 지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br/><br/>통신은 “중국 대형병원 암표 문제는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br/><br/>지난 2월에는 중의학 전문으로 유명한 베이징 광안먼의원에서 “300위안 하는 진료예약권을 4500위안(약 83만원)에 사라고 한다”면서 “접수 직원과 암표상들이 내통을 한 게 틀림없다”고 분통을 떠뜨리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동북지방에 거주하는 대학생인 이 여성은 어머니의 병 치료를 위해 베이징에 왔다. 그는 하루에 130위안 하는 병원 근처 지하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엄마를 등에 업고 병원을 찾았지만 번번이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br/><br/>베이징시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병원 암표상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밝히고 비응급 진료 전면 예약제 도입, 진료 예약 실명제 실시, 암표상 단속 강화 등 ‘8대 대책’을 발표했다. <br/><br/>베이징시 공안당국은 집중단속을 벌여 올 들어서만 240명의 암표상들을 적발했지만 여전히 진료표 암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환자와 의사들은 이 같은 문제는 의료진 부족, 의사들의 낮은 임금 등이 얽힌 문제라고 지적한다. <br/><br/>암표상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베이징시 공안국의 펑젠치는 “<span class='quot0'>경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span>”며 “<span class='quot0'>암표상이 활개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수많은 환자들이 동일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싶어하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산둥성에 살고 있는 중학교 교사 차오둥신은 지난해 장암 진단을 받았지만 지방병원에서 실패율이 높은 장암 수술을 거부하면서 베이징에 수술을 받았다. 호적이 등록된 지역의 병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이 암이나 당뇨병 같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 보험 혜택도 포기하고 대도시 병원으로 오는 환자가 많다고 전했다.<br/><br/>베이징시 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한해 동안 베이징의 A급 병원들이 진료한 환자들이 1억100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70% 이상은 베이징 이외의 지역에서 오는 환자들이다.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되지 않는 한 암표상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23.txt

제목: 유상무, 한부모가정 비하 개그 장동민 ‘옹호 발언’···논란 다시 키우나  
날짜: 20160411  
기자: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11153529900  
본문: 개그맨 유상무씨(36)가 ‘한부모가정’ 조롱 개그로 논란을 빚은 동료 개그맨 장동민씨(37)를 옹호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br/><br/>유상무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모님 이혼하시고 30년 만에 처음 알았다. 그런 단체가 있었는 줄”이라며 “우리 어머니 암 걸리시고, 6평짜리 판자집에서 살 때 좀 나타나 주시지”라고 썼다. 유씨는 이어 지난해 여름 한부모가정 자녀들과 여행 간 사진을 올리며 “여행 가서 재밌게 놀고 서로 꿈에 대한 이야기도 깊이 나누고, 이때 스케줄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다며 펜션비를 내준 게 그 사람(장동민)”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지난 7일 한부모가정 권익단체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차가연)은 한부모가정 아동 비하 개그로 논란이 된 개그맨 장동민·조현민·황제성씨와 tvN 코미디빅리그 제작진, CJ E&M 김성수 대표를 고소했다. 이를 두고 장씨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한부모가정 비하’ 개그맨 장동민·tvN 제작진, 모욕 혐의로 고소당해)<br/><br/>하지만 한부모가정 조롱 등 프로그램의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잘못에 대한 자숙이 아닌 옹호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본인이 어려운 처지였다면 더욱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차가연은 2010년 시작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유씨는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다. 이후 “한부모 가정인 나와 세유니가 힘들때 돌봐주고 늘 함께해주고 사랑해준 건... 그런 단체가 아닌... 그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유상무 페이스북)<br/><br/>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답글을 통해 “친구인 당신들에게 따뜻했다고 장동민씨 개그에 상처받은 이들은 그냥 묵인하고 상처를 감내하고 넘어가야하나요? 장동민씨가 진정으로 반성했다면 친구인 유상무씨도 감싸줄게 아니라 친구가 반성하게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친구라고 당신이 면죄부를 줄 수 는 없어요. 그 개그로 상처 받은 이들은 자신들의 예민을 탓하며 상처받은 마음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만약 당신의 그 따뜻했던 친구의 복귀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감쌀 것이 아니라 채찍질하고 더 나아지도록 도와줘야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단체 욕 하지 마시고 친구 분 반성이나 도우세요.”라는 비판도 있다.<br/><br/>앞서 장동민씨는 지난 1일 방영된 tvN 코미디빅리그 ‘충청도의 힘’이라는 코너에서 한부모가정 비하와 아동성추행 희화화 논란에 휩싸였다. 아이로 분한 출연진은 장난감 선물을 자랑하는 친구에게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 보네” “쟤 땜에 갈라선 걸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니는 얼마나 좋냐. 생일때 선물을 양짝에서 받자녀. 이게 재테크여 제테크여” 등의 대사로 논란을 빚었다.(▶코미디빅리그 장동민, 이번엔 이혼가정 자녀 조롱에 아동성추행 개그 논란)<br/><br/>장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span class='quot0'>이번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뜻으로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무대인 코미디빅리그를 하차하도록 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0'>많은 분의 상처를 모두 씻을 수는 없겠지만 뉘우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지기를 바란다</span>”면서 프로그램 하차 뜻을 밝혔다.(▶개그맨 장동민 ‘코빅’ 자진하차)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24.txt

제목: 면역학 대부 쿠라모치 츠네오 박사, 국내서 감사패 수여 받아  
날짜: 2016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11121642982  
본문: 지난 3월13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 일본 센신 암 면역연구소장 쿠라모치 츠네오 박사가 등장했다. 대한통합암학회가 주최한 2016 춘계학술대회에 참여한 것.<br/><br/>쿠라모치 박사는 면역학자이자 현 일본 센신병원장으로 5종복합세포면역요법에 대한 특허를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 보유하고 있다. 5종복합세포면역요법이란 5종의 면역세포, NK세포, NKT세포, 킬러T세포, 감마델타T세포, 수지상세포를 활용하여 암세포를 억제하는 원리의 요법이다.<br/><br/>쿠라모치 박사는 학술대회에서 5종 복합면역세포와 수지상세포백신, 암줄기세포백신 등에 대한 임상 사례를 소개하고, 암줄기세포 관련 질문에 대해 설명했다. <br/><br/>학술대회에 참여한 김모씨(44)는 “암줄기세포에 대한 지식을 늘릴 수 있었고 치료법에 대해 보다 더 상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쿠라모치 박사의 진지하고 논리 있는 강연 자세가 좋았다”고 전했다.<br/><br/>대한통합암학회는 이날 쿠라모치 박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쿠라모치 박사는 서울힐튼호텔에서 암환우를 위한 좌담회에도 참석,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br/><br/>대한통합암학회 관계자는 "본인의 식도암 수술 경험담을 통해 항암치료 관련 에피소드를 들려준 것이 청중의 공감과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라며 "5종 면역 세포치료 관련하여 뜻 깊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25.txt

제목: 대장암 수술 환자 90%는 50대 이상  
날짜: 20160410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10142453901  
본문: ㆍ자각증상 없어…환자 3명 중 1명 발견하면 이미 ‘3기’<br/><br/>대장암 환자 3명 중 1명은 암이 상당부분 진행된 3기에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9명은 50대 이상 환자로 집계됐다.<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267개 의료기관에서 대장암으로 수술받은 만 18세 이상 환자 1만7600명에 대해 ‘4차 대장암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br/><br/>대장암은 해부학적으로 직장암과 결장암으로 나뉘는데, 결장암 환자가 전체의 73.1%를 차지해 직장암 환자(26.9%)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암은 항문 입구에서 12~15㎝ 부위에 발생하며, 결장암은 그 밖의 대장에 발생한 암이다.<br/><br/>환자의 36.3%는 암이 진행된 후인 3기에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암은 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기는 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로, 넓은 범위를 수술·치료해야 한다. 암세포가 대장벽 전체를 침범한 2기에 진단받은 환자는 28.4%, 암이 대장에만 발생한 1기 진단 환자는 21.2%, 암이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된 4기 진단 환자는 14.1%였다. 대장암으로 수술받은 환자의 89.6%는 50대 이상의 중·노년층이었다.<br/><br/>이번 적정성 평가의 종합점수는 94.2점이며, 평가 대상 의료기관 중 114곳이 1등급을 받았다. 1등급 기관은 1차 평가인 2011년보다 70곳 늘어났다. <br/><br/>지역별·등급별 의료기관 정보는 11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26.txt

제목: [경향포토]대한암협회 창립 50주년  
날짜: 20160408  
기자: 김영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08155844723  
본문: 4월8일 대한암협회(회장 노동영)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참석자들이 암 예방과 극복을 소망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br/>왼쪽부터 대한암협회 안윤옥 상임고문, 구범환 전 회장, 노동영 신임회장, 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 대한암협회 송지헌 부회장, 대한암협회 이광영 고문, 전남대병원 김영진교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27.txt

제목: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16년 4월 8일  
날짜: 201604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07212513240  
본문: ■ 영화 ■ 더 포저(캐치온 오후 6시10분) = 예술품 위조전문가인 레이는 암 진단을 받은 10대 아들 윌을 만나기 위해 감옥에서 일찍 나오려 한다. 키건은 판사를 매수해 레이를 석방시켜준다. 그 대가로 키건은 레이에게 미술품을 위조해 진품을 훔쳐오라고 협박한다. 레이는 박물관에서 클로드 모네의 ‘파라솔을 쓴 여인’을 훔쳐 아무도 모르게 가짜로 바꿔 놓기로 한다. 레이는 아들 윌과 시간을 보내며 최후의 범죄를 준비한다. <br/><br/>■ 애니메이션 ■ 마법천자문2(애니맥스 낮 12시) = 1화. 대마왕을 봉인한 손오공은 치열했던 전투를 잊은 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낸다. 어느 날, 탐욕마왕이 마정석 폭탄을 노리고 침범한다. 그런데 손오공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한자마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 순간 천계의 공주 샤오가 탐욕마왕을 물러서게 만든다. 이후 손오공은 탐욕마왕으로 인해 부서진 여의필을 되살리기 위해 부활천자탄을 쫓아 모험길에 오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28.txt

제목: 아프리카에서 온 희귀 원료, 악마의 발톱  
날짜: 201604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07085752725  
본문: 최근 각종 박람회와 전시회 등에서 입소문 타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악마의 발톱’이라 불리는 식물을 원료로 한 마사지 크림이다.<br/><br/>마사지크림에 쓰인 이 원료는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걸쳐 있는 칼라하리 사막에서 주로 야생 상태로 자라는 다년생 초본 식물이다. 원주민인 부시맨들이 오래 전부터 민간 생약으로 사용해왔다. 부시맨들은 신발이 없어 전부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관절염이 쉽게 생기는 데 관절염을 앓고 있는 이가 적은 것은 이 식물을 달여서 음료수처럼 상용하기 때문이다.<br/><br/>이러한 전통 요법을 유심히 보던 독일 박사 G.H. Mehnert에 의해 유럽에 알려지게 됐고 뛰어난 약의 효과가 알려지자 남획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독일자연보전청(BfN)의 자료에 의하면 자생하는 식물의 양이 줄어들게 됐다.<br/><br/>이에 나미비아와 보츠와나 공화국은 해당 식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전매사업으로 취급하기 시작했고, 현재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관절염 치료용으로 많이 보급돼있다.<br/><br/>이 식물은 여러 개의 가시가 돋아나있고 안쪽으로 휘어진 갈고리가 있어 초식동물이 접근하다 밟으면 발굽이나 다리에 박혀 빼내기가 힘들고, 먹었을 경우에는 입안이나 위에 박혀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데, 상처 입은 동물들은 흡사 악마에게 당한 것처럼 괴로워하고 발버둥치게 된다고 해 ‘악마의 발톱’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br/><br/>원뿌리가 아닌 저장줄기가 있는 2차 뿌리인 괴경만을 약으로 쓰는데 신선한 뿌리는 수분이 많아 오래 저장할 수 없어 둥글게 잘라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거나 아니면 건조시키지 않고 수분을 추출해 액체 상태로 사용하기도 한다.<br/><br/>남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주로 해열제와 소화제로 사용해왔다. 환부에서 수분을 제거해 염증으로 인한 통증에서 오는 고통과 불편함을 없애주며 병의 재발 없이 치료 효과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br/><br/>대소변을 잘 배출시켜 배변 기능과 이뇨작용을 강화해주며 쓴맛은 위장과 소화 기능을 높여준다. 또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산모의 경우 하루 3번 말린 뿌리를 복용시켜 진통을 덜어주고 분만 후에는 산모의 복부에 연고로 발라준다. 연고는 피부의 상처와 궤양, 암 치료에도 쓰여진다. 비뇨기, 점막조직, 소화기 계통(특히 위장)에 생긴 만성 염증에 효능이 있다.<br/><br/>독일 프리드리히쉴러 대학 버나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환부에서 수분을 제거해 염증으로 인한 통증에서 오는 고통과 불편함을 없애준다. 또한 독일의 시그먼드 박사도 자신이 퇴행성 복합 관절염과 당뇨병, 고혈압 환자였는데 엑기스를 관절부위에 직접 주사하고 차를 마심으로써 질병을 치료한 바 있다.<br/><br/>이 약초는 보호식물로 지정돼 국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일년 중 2개월 동안만 부시맨들의 생계를 위해 채취를 허락하고 있으며 그 채취량은 제한적이며 엄격하다. 또한 독일 자연보전청(BfN), EU 야생 거래 규제(EU wildlife trade regulation)에 의해 규제 및 연구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29.txt

제목: 황동규 시인 등 6명, 올해 ‘호암상’ 수상자로 선정  
날짜: 20160405  
기자: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05215230471  
본문: 호암재단은 김명식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교수(54) 등 6명을 제26회 호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br/><br/><br/>올해 부문별 수상자는 과학상에 김명식 교수, 공학상에 오준호 카이스트 교수(62), 의학상에 래리 곽 미국 시티오브호프 병원 교수(57), 예술상에 황동규 시인(78), 사회봉사상에 들꽃청소년세상 공동대표 김현수(61)·조순실씨(59) 부부다.<br/><br/>김 교수는 양자역학의 세계적인 대가다.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통일하기 위한 기초 마련에 기여했다. 양자역학 연구는 양자통신, 양자컴퓨팅, 양자센서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br/><br/>오 교수는 독자 기술로 한국 최초의 이족보행 로봇인 ‘휴보’를 제작했다. 구글, 싱가포르 국립연구소 등 관련 분야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로봇 공학 발전과 산업화에도 기여했다.<br/><br/>곽 교수는 암 치료용 백신 전문가다. 혈액암의 일종인 여포성 림프종 표면 단백질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암 백신을 개발한 뒤 3상 임상시험을 통해 암 재발 억제 효능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br/><br/>황 시인은 1958년 등단 이래 60년 가까이 시의 형태적 혁신을 계속해 한국 현대시의 지평을 넓혔다. ‘즐거운 편지’, ‘풍장’ 등의 작품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br/><br/>김현수·조순실씨 부부는 청소년 그룹홈 운영, 대안학교와 직업훈련장 설립, 이동 상담 및 쉼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 복지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다. 22년간 가출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했다.<br/><br/>호암상 시상식은 오는 6월1일 오후 호암아트홀에서 열리며 수상자들은 상장과 메달(순금 50돈), 3억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990년 제정한 호암상은 올해 시상을 포함해 총 133명의 수상자에게 214억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30.txt

제목: 어머니 시신 집안에서 6개월 보관한 아들  
날짜: 20160405  
기자: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05171111632  
본문: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6개월 동안 집에 보관한 채 장례를 치르지 않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br/><br/>서울 용산경찰서는 모친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로 ㄱ씨(46)를 5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병으로 숨진 어머니 박모씨(84)의 시신을 서울 한남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br/><br/>박씨의 시신은 지난 4일 오후 아파트 외부 유리창을 청소하던 청소업체 직원이 집안 침대에 미라 상태의 시신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br/><br/>ㄱ씨는 시신 확인을 하겠다는 경찰의 요구에 완강히 저항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뒤에야 하루만에 강제로 문을 열고 ㄱ씨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br/><br/>조사 결과 박씨는 암 투병을 하다 지난해 10월 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 등을 토대로 박씨의 사망과 관련한 ㄱ씨의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br/><br/>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span class='quot0'>장례를 늦게 치르는 게 왜 죄가 되냐</span>”고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ㄱ씨가 지금도 어머니의 장례의식을 치르는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장례를 미루고 집안에 시신을 보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31.txt

제목: [작은 것이 아름답다] 죽고 싶을 때 죽고 싶다  
날짜: 20160404  
기자: 안건모 | ‘작은책’ 대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04211645920  
본문: “<span class='quot0'>난 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찔까?</span>” 이 말만 하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이들이 나를 째려본다. 난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쌓여서 하는 소리다. <br/><br/>남들처럼 삼시 세끼 꼬박 챙겨 먹는데 53㎏이 뭔가. 보는 사람마다 나보고 말랐다며 어디 아프냐고 하니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을 수가 없다.<br/><br/>내 나이 올해 쉰아홉. 나는 5년여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딱히 아픈 데도 없고, 의료계를 고발한 책 몇 권을 본 뒤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관리해 주기 위해 건강검진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의심도 들었기 때문이다(최근에는 <건강검진의 거짓말>이라는 책도 나왔다). <br/><br/>무엇보다 국가가 그렇게 국민들 건강을 걱정해 준다면, 기업 환경부터 바꾸고 열악한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부터 없앨 일이다.<br/><br/>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한 이도 환자가 될 확률이 높다. 한 가지 사례로 고혈압 수치를 보자. 인간의 몸은 성인이 되면 동맥도 노화로 딱딱해져 혈액을 흘려보내는 힘이 약해진다. <br/><br/>따라서 나이를 먹을수록 뇌나 손발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잘 전달하기 위해 혈압을 높이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 120㎜Hg만 넘어가면 위험하다며 약을 권하고 있다(참고로 1987년에는 ‘180㎜Hg’이 정상이었다). 환자 아닌 환자들은 의사가 위험하다는데 약을 안 먹을 수가 없다. 당뇨병 약과 고혈압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이다. 그 약 때문에 의료계가 떼돈을 벌었다. 고혈압뿐만 아니라 정상인을 당뇨병, 암환자로 만들어 약을 먹이고 수술하는 사례도 많다.<br/><br/>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건강검진을 회피해 왔는데 결국 엊그제 건강검진을 받았다. 직장에서 하는 정기검진을 받지 않으면 벌금이 나온다느니 나중에 암이 걸려도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느니(정말 그런가?) 하는 직장 동료의 압력과 아내 등쌀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은근히 걱정이 된다. 병원에서 혹시 ‘암이 의심되오니 정밀 검사 요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대놓고 무시할 수 있겠는가.<br/><br/>오랫동안 치매를 앓던 어머님이 지난해에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늙어가고 죽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요양원에서 어머님이 요양보호사를 할퀴고, 식탁에 있는 그릇이든 컵이든 뭐든지 잡아서 부숴버린다고 휠체어에다 손을 묶어놓은 적도 있다. 묶어놓은 걸 보고 항의했지만 어머님이 할퀴어 가슴팍과 손등에 상처를 입은 요양보호사들만 탓할 수도 없었다.<br/><br/>어머님이 돌아가실 무렵 병원에서 콧줄을 끼우고 강제 급식까지 했다. 의식은 없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인간은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는 없을까? 자연으로 돌아가 단순한 삶을 살고자 했던 미국 출신의 경제학자인 스코트 니어링은 100세가 되던 해 스스로 단식해서 죽음을 맞이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치매에 걸린다면? 몸이 마비돼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br/><br/>콧줄에다 강제로 음식을 넣어 목숨을 이어가기는 싫다. 의미 없는 삶 아닌가. 걷고, 말하고, 먹고, 울고 웃지 못하는 삶은 의미가 없지 않은가. 내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삶을 고통스럽게 연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br/><br/>그나마 다행이랄까. 지난 1월8일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을 할 수 있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명 의료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으로 임종기 환자의 생명을 강제로 연장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 의료의 중단 조건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임종 단계에 접어든 경우다. 이 법은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란다.<br/><br/>하지만 지금도 자기 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사전의료의향서가 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연명 치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순간을 대비해 미리 내 의사를 밝혀 두는 문서다. 정신이 있을 때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 문서를 지난번에 써놓고 아직 가족의 동의와 공증을 받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받아놓아야겠다. 아내와 아들이 흔쾌히 동의해 주겠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32.txt

제목: [기타뉴스]인권전문가 김민아의 ‘아픈 몸, 더 아픈 차별’···“결국 먹고사는 문제 자체가 인권”  
날짜: 20160403  
기자: 인터파크도서 북DB 윤효정 객원기자 egloo@daum.net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03105121688  
본문: 이세돌과 알파고.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인공지능과 인간의 만남은 세기의 대결로 주목을 받았다. 과연 알파고의 등장은 인간을 위협하는 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의 주춧돌이 될 것인가. 인공지능의 진화와 예측 불가능한 두려움 속에서 알파고가 정녕 인간에게 던지는 의미는 혹시 다른 것에 있지는 않을까. 이를테면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와 존엄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던져주는 것은 아닐는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말이다.<br/><br/><br/><br/><아픈 몸, 더 아픈 차별>의 저자 김민아는 오늘날 인간 사회에서 알파고 보다 무서운 판도라의 상자를 들고 우리 곁을 찾아왔다. 그 상자에는 ’질병’ ’장애’ ’차별’이라는 묵직한 화두가 담겨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에서 인권 영화를 기획하고 있는 김민아 저자는 10년 넘게 인권 활동에 앞장서 온 인권전문가다. 사실 질병으로 인한 차별은 인권 분야에서도 그다지 주목받는 분야는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체 진정 건 중에서도 1.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렇게 작은 목소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몸을 갖고 태어난 이상 질병과 장애는 결코 비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질병과 장애,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첫째는 나에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는 그저 두려워서 아예 생각 자체를 피하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건강과 질병이 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의 영역인지, 그리고 인권으로서의 건강은 무언인지 말하고 싶었어요.<br/><br/>우리는 흔히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 지경이야’라고 말해요. 그럼 아픈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내가 야근도 많이 하고 돈도 적게 버는데 운동도 안 하고 잘 먹지도 못 해서 이렇게 된 거지’라고요. 과연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요? 이 대답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문제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집에서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할 때에도 집안 상황이 마비되어서 불편하게만 여기고, 이것을 불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머니가 아픈 상황을 두고, 사회나 국가의 시스템이 이렇게 밖에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죠. 저는 이러한 생각의 연장이 과연 어느 지점에서 끊겼는지 알고 싶었어요.” <br/><br/>우리 사회에서 질병은 일반적으로 아픈 사람 개인의 몫으로 여겨진다. 반면 김민아 저자는 질병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몫이라는 환경적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다. 국내에서 질병이나 장애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인권, 사회, 국가 등 환경적인 맥락과 연결 지어 바라본 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픈 몸, 더 아픈 차별>의 존재가치가 빛을 발한다.<br/><br/><아픈 몸, 더 아픈 차별>은 그녀가 직접 만났던 이들의 목소리로 생생하다. 공황장애에 걸린 직장인, 에이즈에 감염된 요리사, 당뇨병에 걸린 20대 여성의 사연이 등장한다. 비만으로 인해 퇴사를 해야만 했던 남성, B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해 취업에 실패한 20대 여성, 부모님의 정신질환 이력으로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겪었던 이들의 사례도 만나 볼 수 있다. 특정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진료를 거부 당하거나 의도치 않게 병력을 공개 당하고 보험 가입이 거부된 사례도 등장한다.“진료 자체를 거부 당하는 병이 있는가 하면 그럴만하다고 위로를 받는 병도 있어요. 에이즈에 걸린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차라리 암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럼 안됐다고 위로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요. 병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을 만나 보니 병 자체보다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면서 그 ’얼마나’를 한번 쪼개보고 싶었어요. 사실 질병이나 장애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혹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법’ 등과 같은 병의 치료나 회복 단계를 이야기하는 책은 많은데 반해 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말해주는 책은 없더라고요.” <br/><br/>김민아 저자는 이들이 들려준 일종의 ’질병의 서사’를 통해 장애와 질병이 오직 개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님을 강조한다.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병과 장애가 생기는 데 있어 사회적 요인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책을 통해 건강과 사회적 불평등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고, 가난과 질병은 한집에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아픈 사람의 상황을 혼자서 풀어야 할 개인의 문제로만 돌린 채 일시적인 해결만 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얼마나 공평한 분배구조 안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삶의 선택지를 갖고 사회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br/><br/>“우리 사회는 살아가면서 몸이 감내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몸에 대한 평가가 곧 사람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거든요. 저는 그러한 시선과 평가가 누군가에게 방사선처럼 집중적으로 향하다 보면 분명 쌓인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것이 한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영향을 미치고요. 예를 들어 저신장증인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이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작은 키에 위축될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키가 작으니까 그렇게 자신감이 없느냐’ 묻고, ’자신감이 없으니 늘 하는 게 그 모양이다’라며 다그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작은 고추가 더 매운 거야!’라고 외치면 버릇없고 건방진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종의 모욕당할 준비가 되어있어요. 상황에 따라 아픈 몸이 예의주시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박히는 시선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죠.” <br/><br/>그녀는 우리가 흔하게 쓰는 표현에서도 차별의 문제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테면 ’벙어리 냉가슴’, ’꿀 먹은 벙어리’, ’눈 뜬 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라는 표현이 단적인 예다. <br/><br/>“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결정 장애’라는 말을 자주 써요. 저는 장애라는 말을 이렇게 아무것에나 붙여도 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것이 우리 사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골고루 살아가고 있어서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에서 비롯된 것일지, 아니면 대놓고 장애를 폄하하는 것일지 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기 좋으니까 무심코 사용한다고 봐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인터뷰를 하는데 볼링 점수를 묻는 기자에게 ’장애인 올림픽 수준이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어요. 이처럼 사실 우리 모두 차별에 대해 의식하고 사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br/><br/>그녀는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 그렇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권을 일부러 침해한다기보다는 그저 잘 몰라서, 혹은 배운 적이 없어서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점에서 그녀는 공감도 일종의 ’학습’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권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이다. 한편, 그녀는 우리가 먹고살기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인권 문제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치가 돼버렸다며 안타까워했다. <br/><br/>“먹고살기 바쁜 사회에서 인권은 사치예요. 그런데 결국 먹고사는 문제 자체가 인권 아닌가요? ’바쁜 게 좋은 거다’라고 어르신들이 자주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바쁜 것이 왜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바쁜 게 좋았던 시절이 분명 있었죠. 먹고사는 것이 부족했던 때에는 일이 많고 바쁜 것이야 말로 최고의 미덕이었으니까요. 더욱이 한국은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 남보다 더 괜찮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최상의 가치였어요. 하지만 그 시대의 가치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은 일대로 하면서 쉬기도 하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br/><br/>한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두고 구성원 탓만 할 수는 없어요. 사회의 정책을 만드는 이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이죠. 한 사회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데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사회의 가치가 좋아 보인다고 했을 때, 그건 시간이 쌓인 퇴적물이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고 생각의 체계가 멋져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 인권의 문제를 두고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예요.” <br/><br/>김민아 저자는 10년 넘게 인권전문가로서 활동해왔지만 여전히 늘 깨어있기 위해 노력한다. 무슨 일이든 쉽게 판단하려고 들지 않고 무덤덤해지지 않기 위해 애쓴다. 시간이 흐르며 쌓이는 관성과도 싸운다. 그녀는 책을 통해서 아파하는 이들을 향해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라는 섣부른 조언이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식의 위로는 건네지 않는다. 그럼에도 책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뜨끔뜨끔하다. ’아프면 내 탓이지’, ’아프니까 차별받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한가운데를 과감히 찍어 내리고 있기 때문일까. 내 삶을 곧추세우는 데만 애를 써오며 무심코 저질렀던 차별에 대해서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아픈 몸, 더 아픈 차별>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미심장한 답을 건네고 있었다.<br/><br/><br/>※이 기사는 인터파크도서 북DB와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제공합니다.<br/>▶인터파크도서 북DB 작가인터뷰 최신 리스트 보기<br/><br/><br/><br/><br/><br/><br/><br/> ‘향이네’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소식을 접하세요!(▶바로가기)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33.txt

제목: 대림성모병원 사보100호, 황열 예방접종, 암 건강강좌 등  
날짜: 20160401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401080951648  
본문: 대림성모병원의 건강 매거진이 지난 1985년 창간된 이후 금년 3월로 30년을 맞으며 지령 100호를 발간했다. 환자와 보호자 등 고객과 소통의 창구를 제공하고, 임직원 상호 간의 교류와 화합, 병원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br/>건강 매거진은 최신 의료 정보와 칼럼, 의료진과의 1문 1답 인터뷰, 환자들의 감사 편지 등으로 구성된다. 100호 특집호에서는 30년 간의 발자취와 축하 메시지, 계절에 필요한 알찬 건강정보 등 다양한 읽을거리로 꾸며졌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br/><br/>김성원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지난 30년의 시간을 발판 삼아 앞으로의 30년도 흔들림 없이 지역주민과 국민의 건강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황열 예방접종으로 안전한 여행 되세요<br/><br/>가톨릭 서울성모병원(원장 승기배)은 4월 1일부터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황열 예방 접종을 시작한다. 황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 국가에서 발생하며, 감염될 경우 두통, 오한, 식욕부진, 황달, 출혈성 징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br/><br/>진료 및 예방접종은 본관 2층 감염내과 성인 예방 접종 클리닉에서 진행하며, 황열이외에 필요한 예방접종과 여행시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1층에는 황열 백신전용창구(5번 창구)개별 운영하여 접수, 수납 및 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br/><br/>황열 예방접종은 위험지역 도착 최소 10일 전에 접종을 하여야 하며 항체는 접종 10일후에 형성되어 약 99%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면역력은 10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의 많은 나라에서는 황열 백신 접종증명서(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는 경우 비자 발급 또는 입국이 거부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방문하는 9개월 이상의 소아와 성인은 금기증이 없는 한 백신접종은 필수이다.<br/><br/>의학적으로 황열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황열예방접종면제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일부 비유행지역 국가에서도 경우에 따라 황열 백신 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어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 <br/><br/>■아주대병원 경기암센터, 4월 암 건강강좌<br/><br/>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는 4월 한달 동안 암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교육강좌를 3회 진행한다. 유방암 예방과 최신 치료(6일 오후 2시, 유방외과 김지영 교수),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7일 오후 3시, 정신건강의학과 조선미 교수), 암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12일 오전 11시,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 강의가 이어진다. 전화 예약이 필요하다. (031)219-7142<br/><br/>■따뜻한 봄철 주의해야 하는 척추질환은?<br/><br/>자생한방병원 정기건강강좌가 오는 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자생한방병원 대강당(SS빌딩 2층)에서 열린다.<br/><br/>겨우내 활동량이 줄어 근육과 인대가 약해진 상태에서 봄철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급성요추염좌’에 노출되기 쉽다.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척추디스크와 같은 척추질환의 대표적인 증상과 원인, 한방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김노현 한의사가 봄철 일상 생활에서의 척추관리법과 한의학적 치료 방법 등을 소개한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자생한병병원 고객만족센터(1577-0007).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34.txt

제목: ‘20여년 암 학설’ 뒤집은 분석기술 나와  
날짜: 20160331  
기자: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31204915984  
본문: ㆍ류성호 포항공대 교수팀, 새로운 단백질 작동원리 발견<br/><br/>지난 20여년간 유방암, 대장암의 메커니즘으로 설명돼온 생물학계의 기존 학설을 뒤집은 단백질 분석기술이 나왔다.<br/><br/><br/>미래창조과학부는 류성호 포항공대 교수(사진)팀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분자 하나의 변화까지 정밀하게 보는 실험방법을 개발해 암 관련 세포막 단백질의 변화와 작동 방식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br/><br/>연구팀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분자 하나가 변할 때의 반응을 항체로 잡아내고, 이를 형광물질로 표시해 현미경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심블럿’(SiMBlot) 방법을 고안했다. <br/><br/>암, 당뇨와 같은 난치성 질환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들 간의 신호전달 체계 이상으로 설명된다.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는 여러 분자가 모여 있는 집단의 변형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정확하고 정교한 분석이 어려웠다. <br/><br/>연구팀이 이번에 개발한 심블럿 방법으로 유방암, 대장암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상피성장인자수용체(EGFR) 단백질의 변형을 확인한 결과, 그간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br/><br/>지난 20년간 EGFR가 변형되는 과정에서 인산이 여러 개 붙는다는 학설이 정설화됐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학설과 달리 EGFR에 인산이 단 하나만 붙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br/><br/>류 교수는 “<span class='quot0'>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분석기술로 기존 분석 방법의 오류를 극복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통해 기존 학설과 상반된 연구결과를 새로 밝힐 수 있었다</span>”고 설명했다. 연구결과는 지난 24일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35.txt

제목: 암 혈관세포에만 존재하는 ‘단백질’ 발견  
날짜: 20160330  
기자: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30212731056  
본문: ㆍKIST·서울대 공동 연구팀…‘억제 항암물질’도 개발<br/><br/>암 혈관세포에만 존재하는 특이 단백질을 억제하는 항암물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br/><br/><br/>김인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왼쪽 사진)팀과 변영로 서울대 교수(오른쪽)팀은 공동으로 암세포 혈관에서만 나오는 ‘도펠(Doppel)’ 단백질을 찾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백질은 건강한 인체에서는 혈관이 아닌 고환에서 발현되지만, 암이 생긴 경우 암 조직의 혈관세포에서 나오게 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지 ‘임상실험저널’ 지난 7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br/><br/>연구팀은 이 같은 사실과 더불어 도펠 단백질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다. 이 물질은 혈액응고제인 ‘헤파린’을 변형해 만든 것인데, 헤파린과 달리 혈액을 굳히지 않으면서 먹는 약으로 쓸 수 있는 형태다. 연구팀이 이 물질을 쥐에게 먹이고 18일이 지난 뒤 암 종양의 크기가 다른 쥐 종양 크기의 6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br/><br/>그동안 쓰이던 항암제는 암 혈관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지 않아 부작용 등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연구 결과로 암 혈관만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제작한 헤파린 유도체가 도펠에 적중해 신생혈관 억제효과와 항암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36.txt

제목: “암에 걸린 아내와 같이 가기로 했다” 드론 이용 숨진 노부부 찾아  
날짜: 20160330  
기자: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30193154949  
본문: 30일 오후 3시 강원 춘천시 중도동 상중도 강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안에서 ㄱ씨(70)와 아내 ㄴ씨(70)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br/><br/>차량 안에선 ㄱ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br/><br/>이 유서에는 “암에 걸린 아내의 병세가 좋아지지 않아 같이 가기로 했다”고 적혀 있었다.<br/><br/>경찰은 최근 이들 부부가 자녀들이 보내준 생활비도 다시 돌려보내고, 유서를 남긴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br/><br/>가족들은 부모님과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29일 경찰에 신고를 했다.<br/><br/>조사 결과, ㄱ씨 부부는 지난 24일 오후 7시 20분쯤 춘천시 동면 아파트에서 차를 타고나간 후 자취를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br/><br/>경찰은 30일 실종된 이들 부부를 찾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에 요청, 선산이 있는 춘천시 서면 일대 산기슭 상공에 드론을 띄워 반경 2∼3㎞를 샅샅이 뒤졌다.<br/><br/>드론을 이용해 산악 수색을 마친 경찰은 다른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던 중 5시간여 만에 상중도 강변의 차 안에서 숨져 있는 이들 노부부를 발견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37.txt

제목: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임영기 회장 "방사능 불안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노력"  
날짜: 20160330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30180840520  
본문: 방사선(방사능)은 국민 실생활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면서 필수적이 요소로 여겨진다. 특히 의료적 진단에 방사선 기기의 활용도가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br/><br/>우리는 생활방사선과 늘 접하고 있지만 방사능 안전에 대한 불안을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가깝게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멀게는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등이 여전히 트라우마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br/><br/>대한방사선방어학회 임영기 회장(58, 가천대 방사선학과 교수)이 지구촌에 대재앙의 그림자를 드리운 후쿠시마 원전 사고 5주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30주년을 즈음해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br/><br/>임 회장은 “<span class='quot0'>방사선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방출되는 매우 적은 양이라도 과학기술을 통해 극소화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불안은 바람직하지 않다</span>”고 지적했다.<br/><br/>―국민 실생활에서 차지하는 방사선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져 가고 있고, 특히 의료에 다각도로 이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원전사고의 여파로 인하여 방사선에 대한 공포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br/><br/>“방사선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는 방사선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정확하게 방사선, 방사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는 안전하고 어느 선 부터는 안전하지 않은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어떻게 되며 과다 노출 시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등등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br/><br/>―의료방사선에 대해 일반인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안전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br/><br/>“우리나라에서 집단검진에 포함되는 방사선 검사는 가슴 X-선 검사, 위장·대장 조영검사, 유방 촬영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모두 질병의 조기진단에 도움이 되는 근거가 있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가슴 X-선 검사는 결핵이나 폐암진단에 유용한 검사이며 그 방사선량(0.05 밀리시버트 이하)이 미미하여 걱정 없이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위장·대장 조영검사는 실시간으로 의사가 검사를 하면서 위장이나 대장질환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검사이며 한번의 위장조영검사로 약 5밀리시버트를 받게 됩니다. 유방 촬영검사는 유방암의 조기진단에 도움이 되는 검사이며 40세 이상의 여성에서 촬영이 권장되고 있으며, 1회 검사로 0.2 밀리시버트 이하의 방사선량을 받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선량이 높은 가슴 CT나 관상동맥조영술은 1회에 10 밀리시버트 내외를 받게 되므로 질병진단의 가치와 견주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br/><br/>\*용어 설명 : 밀리시버트(mSv)란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를 말한다. 1mSv는 보통 사람들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방사선량의 법적 허용치다.<br/><br/>―환자에 따라서는 유사한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하여 실시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누적선량이 100밀리시버트를 넘을 수도 있는데요.<br/><br/>“현재까지는 자연방사선이든 인공방사선(의료방사선 포함)이든 100밀리시버트 미만에서는 위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방사선의 안전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100밀리시버트가 준용될 수 있습니다. 누적선량이 100밀리시버트를 넘으면 암의 증가가 역학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선량이므로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가 방사선절차, 특히 CT처럼 높은 선량 절차를 의뢰할 때는 환자의 임상지시가 꼭 그 절차를 필요로 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자세입니다.”<br/><br/>―의료방사선은 환자가 직면한 질환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br/><br/>“그렇습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완치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의료절차로부터 환자가 받는 방사선 위험은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여 줄이는 위험에 비하면 매우 작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진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피폭을 주지 않는다면 의료방사선은 안전합니다.”<br/><br/>―우리나라에서도 원전주변 주민의 방사선 피폭량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br/><br/>“각종 연구와 보고서, 역학조사 등에 따르면 정상운영중인 원전으로 인한 주민선량은 부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연간 0.1~0.25밀리시버트 범위에 있습니다. 연간 0.2밀리시버트 안팎의 선량은 약 3밀리시버트인 자연방사선보다 훨씬 낮습니다. 지각감마선만 보더라도 약 1밀리시버트이므로 원전 주민선량의 5배 정도 많습니다.”<br/><br/>―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br/><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및 국내유통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일상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식품 방사능기준을 설정합니다. 생산단계 수산물 및 농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담당합니다. 식품 방사능기준 설정 근거는 우리가 연간 섭취하는 음식물 총량의 10%가 해당 인공 방사성핵종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가정할 때 일반인 선량한도(연간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체르노빌 사고 영향만을 겨눠 수명이 긴 방사성세슘에 대한 방사능 기준만 두었으나 후쿠시마 사고 직후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수명이 짧은 방사성옥소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2013년 9월 이후 방사성세슘의 식품 방사능 기준치를 100베크럴/㎏ 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br/><br/>―지금 말씀은, 안전하니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의미입니까.<br/><br/>“수입식품 검사는 매 수입건마다 일부 표본을 채취하여 방사능을 검사하므로 원론적으로 보면 방사능 오염식품이 들어 있는 상자가 표본으로 선발되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수입건의 식품은 동일 공급자 상품이므로 표본검사에서 방사능이 없다면 검사하지 않은 상자의 식품에 방사능이 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우리나라 검사에서 방사능 오염식품이 종종 발견된다면 오염식품이 발견되지 않고 유통될 기회를 의심할 수 있겠지만, 후쿠시마 사고 후 1년간 식약처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검사한 2만7000여 건에서 부적합한 방사능을 함유한 식품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반출 통제체계와 우리나라의 검역체계를 벗어난 오염식품이 우리 집의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낮습니다.”<br/><br/>―바다에서 돌아다니는 생선의 경우는 오염생선이 섞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br/><br/>“실제 농식품부가 2011년 7월 13일에 검사한 냉장대구에서 세슘 방사능이 97.9베크렐/kg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원양어선이 대구잡이를 하는 북태평양 서해역은 방사능을 함유한 후쿠시마 해류의 영향권입니다. 이처럼 가능성이 있지만 우발적이므로 특정 개인이 계속 오염 생선을 먹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br/><br/>임 회장은 “<span class='quot0'>사고로 인해 우리 주변의 방사능이 상승하는 데 대한 우려와 실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체계화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span>”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선이나 원자력에 대한 안전이 담보돼야 안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br/><br/>■대한방사선방어학회의 위상과 역할은<br/><br/>1975년 창립된 방사선방어학회는 의료계, 산업계, 연구계, 방사선학계, 공학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학술단체다. 방사선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안전과 방사선 이용, 측정 및 피폭선량 평가, 방호 및 방재, 의료방사선, 방사선환경, 방사선생명공학, 방사선역학, 방사선의 사회적 수용성 등 다양한 과제를 다룬다.<br/><br/>임영기 회장은 금년 1월 제21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를 지난 3월 초에 설립했다. 국민에게 방사선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위에서 열거한 분야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하에 방사선방호연구회, 방사선계측연구회, 방사선의생명연구회, 방사선환경 및 방재연구회, 방사선역학연구회 등 다섯 개의 전문연구회를 신설했다.<br/><br/>방사선방어학회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와 맥락을 같이하면서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전문성을 높여왔다. 지난해 제3차 ICRP 국제심포지엄을 주최했으며, 방사선분야의 올림픽과도 같은 국제방사선방어협의회(IRPA) 2020년도 대회 유치에 나섰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38.txt

제목: 노시인 김종해의 깊은 통찰로 그린 ‘허공의 미학’  
날짜: 20160329  
기자: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29223255992  
본문: ㆍ11번째 시집 ‘모두 허공이야’<br/><br/>허공(虛空)은 광기를 담고 있다.<br/><br/>텅 빈 공중은 무(無)이지만 종종 생의 서늘한 진실을 드러낸다. 허공에서 그것을 목도한 사람은 전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br/><br/><br/><br/>김종해 시인(75)은 최근 발표한 열 한번째 시집 <모두 허공이야>(북레시피)에서 ‘허공’을 통해 생의 아이러니와 자연의 찰나적 아름다움을 붙잡으려 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부부의 마지막 눈빛 사이에서, 봄날 빈 공간 속으로 꽃잎이 한장 떨어질 때, 그 허공에서 그는 무(無)의 심연을 목격했다.<br/><br/>‘(…)암 병동 진료실 앞에서 남자는 여자를 의자에 앉힌다 여자의 겉옷 앞섶과 털모자를 다독인다 (…)세상의 천길 벼랑 끝에 서서 남기는 숨 막히는 마지막 행위예술, 그들의 사랑과 이별이 어깨너머로 순간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일흔을 넘긴 평범한 부부가 남들이 보지 못한 순간순간 보여주는 저 무언극의 적막, 지금 지상에서 떠나려는 여자를 남자는 온 힘을 쏟아서 두 팔로 붙잡고 있다 이별의 순간이 다가온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다(…)’(‘이별을 보았다’에서).<br/><br/>이들 부부는 우리가 병원에서 종종 마주치는 환자와 가족의 모습이다. 그러나 시인 김종해는 하나의 흔한 풍경일 수 있었던 부부 사이의 심상치 않은 허공을 느껴버렸다. 이별의 예감을 발산하는 밀도 높은 허공에서 시인은 곧 증발될 부부의 마지막 뜨거움을 붙잡았다.<br/><br/>‘(…)하르르 하르르 떨어지는 벚꽃을 보면 /이생의 슬픈 일마저 내 가슴에서 떠나는구나 (…) 바람을 타고 /허공 중에 흩날리는 /꽃잎 한 장 한 장마다 /무슨 절규, 무슨 묵언 같기도 한 /서로서로 뭐라고 소리치는 마지막 안부 /봄날 허공 중에 떠 있는 /내 귀에도 들리는구나’(‘모두 허공이야’에서).<br/><br/><br/><br/>김종해는 존재와 소멸을 아찔하게 드러내는 그 허공에 매료됐다. 그는 “바람 부는 봄날, 벚꽃 꽃잎이 낭자하게 떨어지는 벚나무 아래 서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span class='quot0'>떨어지는 꽃잎들이 허공 안에서 저희들끼리 날개를 펴고 또 한번 눈부신 마지막 무도회를 여는 그 절박한 순간, 거기 꽃잎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허공의 갖가지 모습이 있죠.</span>” 그는 “<span class='quot0'>꽃잎도 꽃잎이지만 천변만화(千變萬化)하며 움직이는 저 눈부신 공간을 붙잡아 두고 싶었다</span>”고 말했다. “<span class='quot0'>생명체가 남기는 마지막 생존의 아름다움이 담긴 저 허공을 사랑한다</span>”고 노시인은 덧붙였다.<br/><br/>이번 시집에는 특히 2년 전 타계한 동생 김종철 시인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애절한 기록도 담겼다.<br/><br/>시집의 2부 ‘잘 가라, 아우’의 공간적 배경은 아산병원 암병동에서 중입자 가속기 치료를 위한 일본 도쿄, 호스피스 병동, 마포 절두산 ‘부활의 집’ 납골당으로 이동한다. 삶에서 죽음으로 공간이 바뀌면서 그의 시점도 점점 ‘애착’의 지상에서 ‘초월’의 허공으로 상승한다.<br/><br/>지우이자 혈육인 김종철 시인을 잃는 과정 속에서도 ‘허공’을 알아버린 김종해 시인은 마치 암병동 앞 70대 부부를 바라보듯 담담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br/><br/>‘며칠 후면 /한 사람이 하늘로 떠날 것이다 /먼저 떠나는 사람과 /남아 있는 사람 /지상의 대합실은 슬픔으로 붐빈다’(‘호스피스 병동’에서).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39.txt

제목: “인공지능 왓슨, 암진단 정확도 96%···전문의보다 높아”  
날짜: 20160329  
기자: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29163344945  
본문: 인공지능이 전문의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암을 진단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인공지능 ‘알파고’의 학습 원리로 관심을 받고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도 의료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br/><br/>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동향과 미래를 살펴보는 ‘제2차 디지털헬스케어 글로벌전략포럼’이 ‘2016 바이오코리아’ 행사의 하나로 30일 코엑스룸 308호에서 열린다.<br/><br/>이날 행사의 3부에 예정된 ‘인공지능의 의료 적용’에서 주제 발표자로 참여하는 이강윤 한국IBM 왓슨사업부 상무는 슈퍼컴퓨터 왓슨(Watson)을 이용한 의료 혁신을 소개한다.<br/><br/><br/><br/>그는 “인간의 뇌를 닮은 인공지능 기술인 왓슨은 스스로 추론하고 학습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의사 결정의 패러다임이 복잡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인지컴퓨팅 솔루션인 왓슨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임상 통찰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br/><br/>현재 왓슷은 미국 앤더슨 암센터에서 암진단 정확도 개선에 이용되고 있다. 정확도가 96%로 전문의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br/>그는 왓슨이 진료의 정확한 진단과 결과를 만들어 내고 유전체 의학과 개인형 맞춤의학을 발전시키고 신약 개발과 치료법 개발 과정에서 혁신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발표에서 왓슨이 의료분야에 적용되어 운영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br/><br/>인공지능 알파고의 학습 알고리즘인 딥러닝도 의료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뷰노의 이예하 대표는 ‘딥러닝과 데이터 기반 의료’라는 주제의 발표를 한다. 그는 “최근 대용량의 의료 데이터의 축적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데이터 기반 의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특히 딥러닝은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하며, 다루는 데이터의 범위도 의료영상 생체신호, 렙데이터, 의무기록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딥러닝에 의해 의료 진단이 보다 정밀해지고,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br/><br/>딥러닝 알고리즘을 의료 영상 분석에 적용하고 있는 루닛의 백승욱 대표는 “<span class='quot0'>의료 영상은 환자의 진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는 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딥러닝으로 대규모의 의료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진단을 보조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중이다</span>”고 소개했다. <br/><br/>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외에도 모바일, 웨어러블, 사물인터넷 등이 헬스케어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할 예정이다.<br/><br/>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span class='quot1'>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에서 보듯,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회 각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의료를 포함한 헬스케어 분야에도 디지털 기술 발전을 적용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40.txt

제목: [황대권의 흙과 문명] 죽음의 물질  
날짜: 20160328  
기자: 황대권 | 생명평화마을 대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28211943050  
본문: “인간이 만든 불이라면 끄고 싶을 때 끌 수 있어야죠. 원자력의 불은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지만, 끄고 싶을 때 끌 수 없다는 점에서 빵점짜리 기술입니다. 이것은 환경의 위기가 아니라 인간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자의 안정을 이제부터 우리 삶의 새로운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br/><br/>뒷간에 쭈그리고 앉아 일을 보면서 옆에 놓여있던 빛바랜 잡지책을 뒤적거리다가 만난 청천벽력 같은 목소리. 일본의 반핵운동가 다카기 진자부로 선생의 말이다. 그는 후쿠시마 핵폭발 사고가 나기 10년 전에 그러한 사고가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죽기 직전에 펴낸 책 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한다. 위에 인용한 글 가운데 ‘원자의 안정’이라는 글을 읽는 순간 나는 마치 강가의 자갈밭에서 수석을 고르다가 마음속에 늘 그리던 돌을 만난 것처럼 기쁘고 설레었다. 그 한 마디로 “핵을 인류의 문명사 속에서 어떻게 위치 지을까?”라는 물음이 단숨에 풀려가는 느낌이 들었다.<br/><br/>모두가 알고 있듯이 핵이 인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히로시마 상공에 핵폭탄을 터트렸을 때이다. 하늘에서 무언가 번쩍 하는가 했더니 곧이어 세찬 바람과 함께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거대한 버섯구름을 보며 인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름하여 ‘원자의 시대’이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다고 믿어왔던 원자가 쪼개지면 가공할 에너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br/><br/>다카기 진자부로의 말을 조금 비틀어 말하면 바야흐로 ‘원자의 불안정’이 본격화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그 가공할 힘에 놀라 원자탄을 만든 일부 과학자들이 반핵의 길로 접어들기도 했지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손에 쥔 정치가들은 쾌재를 불렀다. <br/><br/>그러나 정치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닌 법. 전쟁에 참여했던 전승국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며 핵폭탄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냉전이 극심했던 1970년대에는 지구를 수백 번 파괴하고도 남을 핵폭탄이 만들어져 핵보유국끼리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한편 막대한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었지만 핵발전과 의료용 말고는 막상 적용할 분야가 별로 없었다. 핵물질로부터 나오는 방사능 때문이다.<br/><br/>불행하게도 인류는 핵을 쪼개는 데는 성공했지만 방사능을 제어하는 방법은 여태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핵확산론자들은 언젠가 그 방법이 발견되리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방사능에 의한 피해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상태이다. 1945년 이래 지금까지 2000건이 훨씬 넘는 핵폭발 실험이 자행되었고(이 가운데 절반은 미국이 한 것임) 예기치 않은 핵사고로 누출된 방사능은 이미 지구 전체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말았다. 파괴된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에서는 지금도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가 매일 300톤씩이나 태평양으로 흘러들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전 지구적으로 관찰되는 암환자의 급증, 성인남성의 정자수 감소, 생물들의 돌연변이 속출 등은 방사능의 영향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br/><br/>미국의 자연철학자 월터 러셀은 땅속에 묻혀있는 핵물질은 자연계의 진화와 변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만 그것을 지상으로 끄집어내면 모든 생명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말한다. 핵물질이 죽음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핵물질은 땅속에 묻혀있음으로써 모든 생명이 서서히 죽게 만드는 일종의 ‘시간조절기’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그는 인간의 핵개발은 일종의 ‘자살행위’라고 말한다.<br/><br/>지구생태계는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교체되는 하나의 순환시스템인데 핵물질은 이 과정에서 죽음을 관장한다. 이 때문에 이 죽음의 물질을 한꺼번에 지상에 내어놓으면 죽음의 속도가 빨라져 자연계의 정상적인 변이속도가 교란된다. 실제로 방사능에 노출되면 ‘방사능에 맞았다’고 말하지 않고 ‘피폭(被曝)되었다’고 말한다. 방사능이 세포를 뚫고 지나가 마치 폭탄 맞은 것처럼 내부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능도 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간 피폭되면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된다.<br/><br/>그런데 이 위험한 죽음의 물질을 개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 인간들이 잘못되었을까?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은 모두 다정한 이웃이요 가족들이다. 진짜 문제적 인간들은 그런 결정을 내리는 소수의 지배자들이다. 그들은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대중들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것은 생활이 되고 문화가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문명으로 굳어진다.<br/><br/>엄밀히 말해 생태환경의 안전을 위해 땅속의 핵을 꺼내면 안 된다. 그러나 모든 종교적 금기와 터부가 사라진 이 시대의 인간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란 없어 보인다. 과학기술을 극한으로 밀고 갈수록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윤리의식은 점점 희박해진다. 그렇다고 날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도 없다. 결국 과학기술을 제어하는 인간의 이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인간은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할 만큼 현명한가? 다른 것은 제쳐두고 핵발전의 역사만 보아도 인간이 그다지 현명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인간은 자연계에서 가장 뛰어난 생명체임에도 그 지위에 걸맞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이다.<br/><br/>20세기 이후의 과학은 ‘원자의 불안정화’를 궁극으로 몰고 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핵관련 기술이 그 중심에 있다. 원자의 불안정은 곧 생명의 불안정이며 끝내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우리는 공멸과 생존의 기로에 서서 다시 한번 다카기 진자부로의 외침을 겸허히 새겨야 한다. “<span class='quot0'>이제부터 원자의 안정을 우리 삶의 새로운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span>”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41.txt

제목: [과학오디세이] 인공지능 유전자검사와 생명보험  
날짜: 20160327  
기자: 김훈기 | 홍익대 교양과 교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27212545992  
본문: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에서 완승을 거둔 일이 여러 관점에서 화제다. 한편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간이 생활의 편의를 위해 만든 첨단 컴퓨터가 결국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다가온다는 점이 씁쓸하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활용될 분야를 보면 조만간 우리의 삶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지리라는 예감이 든다. 건강관리를 위해 유전정보를 분석하는 헬스케어 분야에 구글을 비롯한 세계적인 정보기술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다. 사람이 타고난 유전자의 특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유전자 차별’ 시대가 좀 더 빨리 실현될 듯하다. 유감스럽게도 유전자 차별은 부분적으로나마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br/><br/>36세의 한 직장여성이 생명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일이 최근 미국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던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생명보험사로부터 가입 자격에 미달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험사 측이 문제로 삼은 점은 여성의 브라카(BRCA)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견됐다는 사실이다.<br/><br/>브라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80세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5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세계적인 여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가슴과 난소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이유가 브라카 유전자의 이상이었다. 졸리는 유방암으로 모친을, 난소암으로 이모를 잃은 가족력이 있다. 미국에서 돌연변이 브라카 유전자를 보유한 여성의 수는 적지 않다. 대략 400명에 한 명꼴이다. <br/><br/>브라카 유전자의 상태를 스스로 검사하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다. 간단히 유전정보를 검사해주는 서비스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유전자검사 시장 규모가 연 50억달러에 이르고, 향후 10년 내에 150억달러 이상 확대되리라는 전망도 나왔다.<br/><br/>건강한 여성이 브라카 유전자검사를 원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상이 있다면 빨리 전문의와 상의하거나 스스로 몸을 잘 관리해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다. 특정 유전자에 발암성 돌연변이가 생겨도 평생 암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점은 의학계의 상식이다. 유전자는 몸의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유전자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환경오염이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치명적인 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흔하다.<br/><br/>그런데도 유전자검사 결과만으로 보험가입이나 직장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당사자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유전정보차별금지법(GINA)은 사회에서 이 같은 부당한 대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br/><br/>문제는 이 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될 뿐 생명보험 또는 신체 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들 제외 분야를 다루는 보험회사들은 가입 희망자에게 언제든 유전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br/><br/>2012년에는 미국의 11세 중학생이 유전자 때문에 전학을 요구받기도 했다. 소년의 유전자 상태를 판독한 결과 낭포성섬유증이라는 병에 걸릴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다른 학생에게 질병이 전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부모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br/><br/>과학계에서는 유전정보를 가급적 많이 수집하면서 질환과의 연관성을 대거 모색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최근까지 유전정보를 통해 검사할 수 있는 질환의 수는 1000여개에 이른다. 검사비용은 급락하는 추세이다. 한 사람의 전체 유전자를 검사하는 가격이 한때 수만달러에 이르렀지만 현재는 10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브라카 유전자 검사 비용은 250달러 수준이다.<br/><br/>가족 가운데 한 명이 검사를 시작하면 다른 구성원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진다. 가령 한 남성의 누이가 브라카 유전자에 이상이 있다면 본인은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br/><br/>인공지능은 점점 정밀하게 유전정보와 질환 간의 연관성을 예견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지 의문이다. 유전자 차별 현상이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는 일이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새삼 인공지능 자체보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간의 행위가 두려워진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42.txt

제목: [책과 삶]일탈, 이 좋은 걸 왜 안 해!  
날짜: 20160325  
기자: 임지영 기자 iimi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25195925718  
본문: ㆍ우리는 왜 위험한 것에 끌리는가 <br/>ㆍ리처드 스티븐스 지음·김정혜 옮김 <br/>ㆍ한빛비즈 | 344쪽 | 1만6000원<br/><br/>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있다. 이 책은 그 대표격으로 섹스, 술, 욕을 꼽는다. 이 셋은 묘하게 닮았다. 과하면 중독에 이를 수 있지만, 잘하면 공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그렇다.<br/><br/>‘욕설의 심리학적 혜택’에 대한 연구로 주목 받는 학자이자 국제숙취연구소의 창립멤버인 저자가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다. 일탈, 이 좋은 걸 왜 안 해!<br/><br/>설득의 포문은 ‘성관계의 이로움’으로 연다. 실제 실험을 통해 ‘동작이 있는 감정’인 섹스가 통증과 불안의 해독제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또 여자로 사는 것이, 남자로 사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순간이 오르가슴이라고 말한다. 젊고 탄력적인 외모를 유지하게 하는 건 덤이란다.<br/><br/>다음은 음주다. 저자는 “알코올을 적당히 섭취하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수많은 혜택이 따라온다. 그 사실에 축배를 들자”고 말한다. 매일 한두 잔의 술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을 40% 가까이 낮춰주고, 주의력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창의적인 사고를 돕는다는 놀라운 결과. 더 놀라운 건 최근 복지부가 ‘술은 한잔도 안된다’고 10년 만에 암 예방 수칙을 바꿨다는 사실이다. 마음 가는 쪽으로 믿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듯하다.<br/><br/>그럼 욕에는 어떤 순기능이 있을까. 욕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독특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욕을 포함한 문장은 욕을 빼고 말했을 때보다 상대에게 감정을 더욱 확실히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서대영 상사의 “씨X, 그 새X 잡아와”는 공영방송에서 부적절했다는 반응도 있지만 악에 대처하는 선의 일갈이었기에 쾌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아닐까. <br/><br/>책은 이외에도 ‘나쁜 짓’의 오명을 쓴 게으름, 과속운전, 공상 등의 일탈에 대해서도 ‘사이다’ 변호를 마다하지 않는다. 떳떳한 삐딱이를 꿈꾼다면 건질 게 많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43.txt

제목: 찾아가는 금연버스, 무의탁환자 야간간병 등  
날짜: 20160324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24170524268  
본문: ■전남금연지원센터 ‘찾아가는 금연버스’ 시동<br/><br/>화순전남대병원(원장 김형준)의 전남금연지원센터가 ‘찾아가는 금연버스’ 운행을 시작했다.<br/><br/>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으로 금연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 여성 흡연자 등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한다. <br/><br/>이 버스에는 상담실이 마련돼 있어 전문가를 통해 일대일 금연상담을 받고, 모니터를 통해 금연홍보영상도 볼 수 있다. 흡연자들의 건강상태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체성분 분석기·일산화탄소 측정기 등의 장비도 갖추고 있다.<br/><br/>전남금연지원센터장 겸 암관리사업부장인 권순석 교수(예방의학)는 “<span class='quot0'>금연버스가 많은 사람들의 금연 성공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br/><br/>병원내 전문치료형 금연캠프(4박5일), 일반지원형 금연캠프(1박2일)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금연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역민은 누구나 무료다. 061-372-9030. <br/><br/>■대전선병원, 무의탁환자 무료 야간간병사업 운영<br/><br/>선병원재단(이사장 선두훈) 대전선병원(원장 박노경)이 무의탁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야간간병을 지원한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협회장 오상운)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인희)가 추진하는 ‘무의탁환자 무료 야간간병사업’ 지원 의료기관으로 선정돼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br/><br/>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자가 없는 행려환자, 외국인, 독거노인 등 보호자가 없거나 간병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야간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에서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의 간병교육을 이수한 간병인이 선병원에 파견된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2명의 간병사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무의탁환자 간병인으로 배치된다. <br/><br/>이번 협약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가 주관하고 우정사업본부가 후원하는 ‘희망을 나누는 손’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44.txt

제목: [TV 하이라이트]2016년 3월 24일  
날짜: 2016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23202833439  
본문: ■면역 세포 늘려주는 장 마사지법<br/><br/>비타민(KBS2 오후 8시55분) = 암이 생기는 이유와 암 자가 진단법 그리고 항암 치료의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한다. 면역 세포를 늘려주는 장 마사지법을 배우던 중 박나래와 양세찬은 서로의 배를 마사지하게 된다. 박나래의 배를 마사지한 양세찬은 “묵직하다”고 말해 주변 사람들을 폭소케 만든다. 이 밖에도 암을 이겨낸 부부의 생활을 관찰해 본다. 또한 암을 이기는 건강한 밥상도 공개한다.<br/><br/>■박서방이 선물한 로또의 진실<br/><br/>자기야-백년손님(SBS 오후 11시10분) = 박서방은 장모에게 로또 복권을 선물한다. 처음엔 관심을 보이지 않던 박여사는 5개의 번호가 맞고 마지막 하나의 번호가 남자 극도로 흥분한다. 이어서 마지막 하나의 번호가 틀려 실망한 기색을 나타냈지만 5개까지 맞은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한다. 박여사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려 한다. 그런데 박서방이 고민 끝에 복권에 대한 진실을 고백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45.txt

제목: “비타민C, 항산화 효과로 수명 연장에 도움”  
날짜: 20160322  
기자: 경향비즈 eco1@khan.co.kr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22191246420  
본문: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가 수명 연장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br/><br/>서형주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교수는 초파리를 각각 비타민C, 카페인, 타우린 섭취군으로 나눈 뒤 수명 및 생존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2일 밝혔다. <br/><br/>연구결과는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5회 비타민C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식품과학회가 주최하고 광동제약이 후원한다. <br/><br/><br/><br/>서 교수는 체내 항산화 효소가 증가하면서 수명 연장과 생존 효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비타민C 섭취가 세포의 산화스트레스를 방어하는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높여 비타민C를 섭취한 초파리의 수명이 카페인과 타우린을 섭취한 비교군에 비해 더 길었다는 것이다. <br/><br/>산화스트레스는 체내 활성산소가 많아져 해독 기능이 저하된 정도를 나타내는 항목이다. 비만이나 노화, 당뇨, 고지혈증 등과 관련이 깊어 건강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대개 활성산소가 과잉 생성되면 면역체계가 악화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같은 연구에서 카페인과 타우린은 수명 연장보다는 초파리의 활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br/><br/>이밖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비타민C가 항산화 효과를 통해 암,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타고대학의 마그릿 바이서스 교수는 “<span class='quot0'>비타민C는 체내에서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 중요한 산화방지제의 역할을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암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소의 기능을 촉진한다</span>”고 말했다. <br/><br/>이 연구팀이 49명의 직장암 환자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암 조직 내 비타민C 수치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졌다. 비타민C 수치가 낮은 환자는 암 수술을 받은 후 6년 내 생존율이 38.3%였던 반면 비타민C 수치가 높았던 환자는 67.9%의 비율로 생존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46.txt

제목: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 앉지 마세요  
날짜: 20160322  
기자: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22143639939  
본문: ㆍ환경부, 초등학교 25곳 조사 납 최대 허용량 1.24배 검출<br/><br/>초등학교 25곳 중 13곳의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납의 위해도는 최대 허용량의 1.2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br/><br/>환경부는 지난해 5~12월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30곳의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트랙에 대해 6개 중금속과 프탈레이트(환경호르몬) 7종의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우레탄 트랙 25개 중 13개가 한국산업표준(KS) 납 기준치 90㎎/㎏을 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납은 어린이들에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뇌신경계 영향 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br/><br/>환경부는 또 조사 대상 초등학교 30곳에 재학 중인 어린이 93명을 대상으로 인조잔디나 우레탄 트랙을 이용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납·크롬 등 유해물질 12종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와 납의 위해성이 일부 우려되는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납의 위해도는 최대 허용량보다 1.24배 높았고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의 발암 위해도는 3.29×10만분의 1로 나타났다. <br/><br/>평생 노출됐을 경우 10만명당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을 의미하는 1×10만분의 1을 초과한 것이다. 환경부는 교육부에 우레탄 트랙 바닥에 앉지 않기와 야외 활동 후 손씻기 등 어린이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47.txt

제목: 국내 최대 사물인터넷 경연대회서 ‘아이디어팩맨’ 팀 우승  
날짜: 20160321  
기자: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21220535430  
본문: 국내 최대 사물인터넷(IoT) 경연대회인 ‘해카톤’에서 서울대 로봇 동아리 ‘시그마 인텔리전스’ 학생 4명과 다른 대학생 1명으로 구성된 ‘아이디어팩맨’ 팀이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SK텔레콤이 21일 밝혔다.<br/><br/>‘해킹’과 ‘마라톤’을 합성한 ‘해카톤’은 정해진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프로그래밍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9~20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고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66명, 15개 팀이 각축을 벌였다. 수상자 4개 팀에게는 100만~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br/><br/><br/><br/>우승팀인 ‘아이디어팩맨’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더한 창의성으로 인정받았다. 이들은 발광다이오드(LED), 아크릴, 투명한 종이(트레이싱지) 등을 차례로 겹쳐 겉으로는 A4용지 크기의 종이 한 장처럼 보이는 얇은 디스플레이를 ‘무제’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다. 표면에 글씨를 쓰거나 특정 패턴을 입력하면 날씨, 시간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제품이었다. 이용자만의 터치로 불빛을 비추거나 스마트폰과 연결해 음악을 틀 수 있도록 설계했다. <br/><br/>또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의 생활습관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때 제공하고,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별 이용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 <br/><br/>개발자 박재연씨(20)는 “<span class='quot0'>어린이에게 스케치북을 주면 아무것이나 잘 그리는데 어른이 된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종이에서 모티브를 얻은 IoT로 동심을 회고하고 싶었다</span>”고 설명했다. <br/><br/>최진성 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최고기술경영자)은 “<span class='quot1'>일반 사람들이 필요한 가치를 잘 포착했고,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잘 구성했고, 시제품의 완성도도 높았다</span>”고 평가했다.<br/><br/>최우수상은 모션 센서가 탑재된 밴드를 팔에 부착하고 운동하면 자세 학습 및 교정 코칭이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 ‘암 밴드’를 선보인 럭스로보 팀에게 돌아갔다. 기기를 착용하고 트레이너에게 올바른 운동자세를 교육받으면, 기기가 이를 기억해 정확한 운동학습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SK텔레콤은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48.txt

제목: 서진영, 미 암학회 젊은 과학자상  
날짜: 20160321  
기자: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21220532896  
본문: 서울대 약대 박사과정 연구원이 세계적인 권위의 암학회에서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게 됐다. 서영준 서울대 약대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종양 미세환경 연구센터’ 소속 서진영 연구원(30·사진)이 다음달 중순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 ‘미국암학회 연례 학술대회(AACR) 2016’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젊은 과학자상’은 암 연구 분야의 대학원생이나 박사후과정 연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힌다. <br/><br/>서 연구원은 ‘종양 섬유아세포에서 분비되는 FGF2 물질을 통한 암세포의 증식’이라는 연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49.txt

제목: "젊을 적 난자가 좋다"...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난자 동결 보관' 유행  
날짜: 20160321  
기자: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21094349495  
본문: “<span class='quot0'>건강할 때 난자를 채취해 동결 보관내 놨다가 나중에 아이를 꼭 낳을 거야.</span>”<br/><br/>결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일본에서 건강한 여성들이 난자를 동결 보관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지금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으로 건강할 때 난자를 채취해 보관해 놓겠다는 것이다.<br/><br/>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건강한 여성을 대상으로 미래의 출산에 대비한 난자 동결을 시술하는 의료기관이 일본 전국에 최소 23개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는 여성 562명의 난자를 동결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지금까지 이들 시설에서 동결해 놓은 난자를 통해 출산한 여성은 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br/><br/>후쿠오카(福岡)현 기타큐슈(北九州)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는 최근까지 2명의 여성이 동결 난자로 아이를 낳았다. 여기에서 아이를 낳은 한 여의사는 38세 때 동결 보관해 놨던 난자를 이용해 40세 때 아이를 낳았다. 난자를 동결보관할 당시 미혼이던 이 여성은 나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고령출산’이 될 것으로 보고 난자 동결 시술을 받았다. 난자 동결 당시 39세로 미혼이던 여성(회사원) 역시 고령출산을 대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br/><br/>오사카(大阪)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44세에 아이를 낳은 간호사는 언젠가는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에 41세에 난자 동결 시술을 받았다.<br/><br/>난자동결 수술을 받는 여성들은 대부분 가까운 장래에는 결혼할 계획이 없거나 결혼할 상황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아이를 낳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젊은 시절의 난자를 동결해 보관하는 경우 향후 출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br/><br/>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br/><br/>난자의 동결 보관이 산모와 아이의 건강에 위험을 수반할 가능성이 큰 고령출산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일본산부인과학회는 건강한 여성이 사회적인 이유로 난자를 동결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학회는 난자 동결 보관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로 난소 출혈이나 감염 등의 우려가 있는 점, 수정란이나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는 점, 임신·출산을 보장할 수 없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br/><br/>일본에서 암 치료 등의 의학적인 사유로 난자를 동결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단지 지금을 결혼을 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아이를 낳고 싶다는 이유로 난자를 동결해 출산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50.txt

제목: 암 예방하려면 술 ‘하루 1잔’도 금물  
날짜: 20160320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20222305796  
본문: ㆍ식도암 발생 위험 30% 증가 <br/>ㆍ복지부 ‘예방 수칙’ 더 강화<br/><br/>암을 예방하려면 하루 1~2잔의 음주도 피해야 한다는 예방 수칙이 발표됐다. ‘1~2잔은 괜찮다’던 종전 수칙보다 강화된 것이다.<br/><br/>보건복지부는 제정 10주년이 된 암 예방 수칙 중 음주에 관한 부분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br/><br/>음주 관련 수칙이 강화된 것은 소량의 음주로도 구강·식도·유방·간·대장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됐기 때문이다. 하루 1잔의 음주로도 구강인두암 발생 위험은 17%, 식도암 30%, 유방암 5%, 간암 8%, 대장암은 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도 암 예방 권고사항 중 ‘하루 남자 2잔, 여자 1잔 이내’ 조항을 2014년 ‘음주하지 말 것’으로 개정한 바 있다.<br/><br/>복지부는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도 예방 수칙에 새로 추가했다. 또 다른 암 예방 수칙에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의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가 있다.<br/><br/>‘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안전한 성생활 하기’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의 안전보건수칙 지키기’도 암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51.txt

제목: [제2회 렛츠런파크배 오픈 토너먼트] 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날짜: 20160320  
기자: 조남철 | 바둑평론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20214220832  
본문: ㆍ본선 64강전 <br/>ㆍ● 박상준 아마 ○ 신진서 3단<br/><br/>총보(1~166)<br/><br/><br/><br/>광풍처럼 불어닥쳐 가히 르네상스라고 부를 만한 바둑열기였다. 열흘 남짓 전 세계 언론의 톱뉴스를 장식한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 승부는 끝났지만 아직도 후속기사들이 끊임없이 줄을 잇고 있다. 세기의 대결에 쏠렸던 인류의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케 한다. 바둑계는 지금 그 광풍이 휩쓸고 간 자리의 명과 암에 대한 분석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다행인지는 모르나 컴퓨터에 해부당한 바둑을 걱정하는 목소리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낸 숭고한 노력, 그리고 바둑 자체에 대한 홍보효과에 기대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목소리가 더 크다. 하지만 그런 막연한 기대는 대개 실체가 없으며 생각만큼 오래 가지도 않는다. 바둑에 쏟아졌던 열풍이 봄날의 꿈처럼 쉽게 사라지기 전에,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br/><br/>하변에 백 28로 어깨를 짚어가는 수가 멋진 감각. 신진서의 재기가 번뜩인 순간이었다. 상변에서 찔러간 백 74는 과욕. 흑 79로 80의 곳을 막아 갔으면 모르는 바둑이었다. 79와 83은 아무리 봐도 느슨한 행마. 백이 94로 좌하귀를 제압해서는 사실상 승부가 결정됐다. 예선에서 쟁쟁한 프로들을 연파하며 64강까지 진출한 박상준이 막상 본선 1회전에서는 상대를 너무 의식한 탓에 힘 한번 못 쓰고 완패했다. 반대로 신진서는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아마추어 돌풍을 간단히 잠재운 바둑이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52.txt

제목: 4대 중증질환 의심환자 복부 초음파 21만원에서 최저 1만4000원으로 내려  
날짜: 20160320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20211143283  
본문: ㆍ383개 항목 보장 강화…고가 약제비 지원·극희귀질환 특례 인정<br/><br/>보건복지부가 2013년 4개년 계획으로 시작한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보장성 강화는 지난해까지 70% 정도 완료됐다.<br/><br/>지난해 말 기준 총 383개 항목의 약제·검사·치료법에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되거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총 6147억원 경감된 것으로 추정된다.<br/><br/>4대 중증질환 의심환자의 복부 초음파 검사 가격은 종전 21만원에서 1만4000~4만4000원으로 내렸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잴코리)는 월 1000만원에서 37만원으로, 대장암 치료제(얼비툭스)는 월 45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하됐다. 유방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방재건술 비용도 종전 800만~1400만원에서 200만~400만원으로 낮아졌다.<br/><br/><br/><br/>복지부는 올해 안에 유도초음파나 수면내시경 등 환자들이 자주 받는 필수 검사를 포함한 200여개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지만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고가 약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익 재원을 통해 약제비 일부를 환자에게 지원하거나 위험분담제(제약사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br/><br/>복지부는 질병 코드가 없어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던 44개 극희귀질환자 8500여명에 대해선 이달부터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진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30~20%에서 10%로 낮춰주는 제도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53.txt

제목: ‘없는 살림 탓’ 치료 포기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계속돼야  
날짜: 20160320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20211142455  
본문: ㆍ올해로 끝나는 지원 사업…환자 단체 “1년 더 연장을”<br/><br/>최근 5년간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의료비 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는 금액 비율)은 60%대에 그치고 있다. 2009년 64%였던 보장률은 2011년 63%를 지나 2013년 62%까지 떨어졌다. 가입자들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막상 병원에 가면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br/><br/>그나마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집중돼 전체 평균보다는 보장률이 높은 편(2013년 기준 77.5%)이다. 하지만 치료 기간이 길고 치료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면 집안 ‘기둥뿌리’를 뽑아 병원비를 대야 하는 게 현실이었다.<br/><br/>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걸려 큰돈을 써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2013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연간 2만여명의 환자들이 이 사업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의료비 지원 사업은 올해 말 끝난다. 환자 단체는 이 사업이 “환자를 경제적 재난에서 구하는 사다리”라며 “현 정부 말까지 사업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br/><br/><br/><br/>■ 20%는 ‘재난적 의료비’ 경험<br/><br/>과중한 의료비 부담은 평범한 가정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빈곤 상태에 있을 확률이 1.423배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에서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비 지출 비중이 소득의 1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 비율은 2008년 17%에서 2010년 15.8%로 줄었다가 2011년 16%로 반등한 뒤 2013년 19.3%까지 증가했다.<br/><br/>특히 건강관리에 취약한 저소득층일수록 가계지출의 상당 부분을 의료비에 투입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한 보고서를 보면 소득 하위 10%는 소득의 33.7%를 의료비(건강보험료 포함)로 사용하는 반면, 상위 10%는 소득의 8.9%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이 빈곤층의 ‘없는 살림’을 더욱 빈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br/><br/>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가 가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완화할 목적으로 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과 중증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환자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80%(4인가구 기준 월 351만원) 이하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50~70%가 지원된다.<br/><br/>소득 수준이 이보다 더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0~120%(4인가구 기준 월 351만~527만원)에 해당되더라도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30%를 넘는다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환자가 병원에 비용을 치르고 퇴원한 뒤 60일 내에 병원 사회복지팀이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상담을 받고 지사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2~3주 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br/><br/><br/><br/>■ 환자단체 “1년 더 연장을”<br/><br/>201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는 579억9900만원(환자 1만9974명)이었고 지난해엔 1만9291명에게 589억6000만원이 돌아갔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span class='quot0'>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환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중 가장 좋게 평가하는 정책</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환자의 보장률은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하지만 이 사업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애당초 사업이 도입된 취지가 2013년 시작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올해 말 완료되기 전까지 과도기에 놓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span class='quot0'>보장성 강화 계획이 올해 말 완성되지만 그 효과를 환자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원 수준을 줄이더라도 현 정부의 임기 말까지 1년 더 사업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span>”고 했다.<br/><br/>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은 시행 초기 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각각 300억원씩 총 600억원을 부담했으며, 올해는 각각 275억원씩 550억원을 조성했다. 사업을 연장하려면 정부가 예산 전액을 떠안거나, 민간과의 업무 협약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다.<br/><br/>복지부 관계자는 20일 “<span class='quot1'>우선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 감소 등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정식 제도로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54.txt

제목: 서대구 협성휴포레 아파트, 계명대 동산의료원 개원 반사 이익  
날짜: 201603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18085809412  
본문: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서대구 죽곡 택지지구에 위치한 성서캠퍼스에 2017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협성휴포레 등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br/> <br/>동산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 질과 환자안전’ 평가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5개 부문 ‘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는 등 정부가 실시한 평가에서 최근 4년간 40여 항목에서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이다.<br/><br/>동산의료원은 2017년 계명대 성서캠퍼스에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로 새롭게 건립된다. 협성휴포레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죽곡 택지지구 대실역 부근은 역세권임은 물론 죽곡초, 다사중, 다사고 등 도보로 통학 가능한 학군을 조성하고 있다</span>”면서 "동산의료원 개원까지 앞두고 있어 좋은 택지지구 조건들을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br/> <br/>대실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협성휴포레는 ㈜협성건설에서 분양하는 783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성서IC, 남대구IC 등 광역교통망 확보 및 최근 서대구KTX역 신축확정으로 지리적 이점이 있다.<br/> <br/>협성휴포레는 ▲64㎡(구 26평형) ▲74㎡(구 29평형) ▲84㎡(구 33평형) ▲106㎡(구 42평형) 등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으며, 남향 중심의 신 평면 설계와 지상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화와 전 세대 1층 필로티 구조를 갖추었다.<br/> <br/>또한 대실역 인근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대백마트, 롯데수퍼, 성서 홈플러스 등 다양한 유통시설들과 은행, 관공서 등이 위치해 생활편의성이 높다는 평가다.<br/> <br/>한편, 평당 최저 97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대실역 협성휴포레는 현재 잔여세대 선착순 계약 중에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55.txt

제목: [제2회 렛츠런파크배 오픈 토너먼트]카타르시스를 안겨준 승부  
날짜: 20160317  
기자: 조남철 바둑평론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17220112611  
본문: ㆍ● 박상준 아마 ○ 신진서 3단 <br/>ㆍ<br/><br/>제10보(161~166) <br/><br/><br/>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은 끝났다. 바둑 쪽에서 보면 파급효과의 명과 암을 떠나 바둑이 이렇게까지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구글의 홍보효과에 버금가는 보급효과를 누렸다. 아마 한국기원이 10년을 해도 모자랄 바둑 홍보를 단 열흘 만에 몇 배 이상으로 거뜬히 해낸 셈이다. 중심에는 이세돌이 있었다. 인간 대표에게 승리한 인공지능의 놀라운 성과도 충격과 공포였지만 정작 뉴스의 중심은 그 기계를 뛰어넘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인간의 존엄성이었다. 도전과 열정, 투지, 집념, 겸손 등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정신 영역을 이세돌이 최선의 모습으로 보여줬다. <br/><br/><br/>한국의 프로기사 이세돌이 전 세계 인류에 진한 감동과 함께 보기 드문 카타르시스를 안겨준 것이다.<br/><br/>백이 △로 이은 이상 흑도 161은 필연이었다. 백은 162로 기분 좋게 흑 석 점을 때려낸 뒤 선수 끝내기에 돌입한다. 166에서 흑의 손길이 멈췄다. 더 이상의 진행은 매너의 문제로 생각하고 박상준이 순순히 돌을 거둬들인 것이다. <참고도>처럼 흑이 하변을 지킬 때 우변으로 백의 손이 간다면 반면으로도 백이 남는 형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56.txt

제목: 종양 크기 조절하는 유전자 원리 밝혀냈다  
날짜: 20160317  
기자: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17194510769  
본문: ㆍ카이스트 최광욱 교수 연구팀<br/><br/>카이스트(KAIST) 연구진이 종양의 크기를 조절하는 유전자의 원리를 밝혀냈다. 종양의 원인 규명과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br/><br/>카이스트는 최광욱 생명과학과 교수(사진) 연구팀이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세포분열이 증가하고 기관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현상의 원인을 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br/><br/><br/>연구팀에 따르면 생명체는 각 기관이 적절한 크기가 되도록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서로 네트워크를 이뤄 작동하는데, 이를 히포네트워크(Hippo Network)라 부른다. 히포네트워크에 유전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조절 능력을 상실해 기관에서 종양이 생기는 것이다.<br/><br/>그동안 과학계에서는 히포네트워크에서 중심적으로 작동하는 두 요소가 ‘타오 원(Tao-1)’과 ‘익스팬디드(Expanded)’란 사실을 밝혀냈지만, 두 요소가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숙제로 남아 있었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히포네트워크 유전자가 처음 발견된 초파리 연구를 통해 ‘십원(Schip1)’이라는 요소가 두 요소 사이의 매개체임을 규명했다. 십원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세포분열이 크게 증가하고 기관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등 암 조직 형질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지금까지 규명되지 않은 히포네트워크 내의 중요한 고리를 찾아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고등 생명체를 이용한 추가 연구가 가능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디벨롭멘털 셀’ 3월7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57.txt

제목: 건보 적용 확대, 환자보다 민간보험사가 웃었다  
날짜: 20160317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17121033933  
본문: ㆍ보건사회연구원 “<span class='quot0'>1조5000억원 반사이익, 투입 예산 14%</span>” <br/>ㆍMRI, 32만원서 6만원대로 지급액 줄어…환원 방안 논의를<br/><br/>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회사에 5년간 1조5240억원가량의 간접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민간보험회사가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br/><br/>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17일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13~2017년 민간보험회사의 반사이익이 1조52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투입된 정부 예산 11조2590억원의 13.5%에 해당하는 액수다.<br/><br/><br/>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의료서비스에 대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민간보험회사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1조27억원, 선택진료비 폐지 정책으로 4080억원, 상급병실료 완화 정책으로 1137억원의 간접 이익을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br/><br/>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 진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의료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부가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환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액수가 줄어들 여지가 생긴 것이다.<br/><br/>가령 40만원이 드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실손의료보험이 의료비의 80%인 32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32만원이 지원되기에, 실손의료보험은 나머지 8만원의 80%인 6만4000원만 환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민간보험회사들은 이 같은 반사이익을 보험료 인상률에 이미 반영했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예컨대 보험료를 2% 인상해야 할 것을 1%만 올렸다는 식이다. 또 정부 정책에 따른 비급여 서비스 감소보다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가 더 빠르게 증가해, 실제 지출하는 지급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br/><br/>그러나 신현웅 실장은 “<span class='quot1'>반사이익을 보험료 인상률에 반영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사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신 실장은 “<span class='quot2'>구체적으로 현재 공적 건강보험이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민간보험회사가 추가적인 검진항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볼 수 있다</span>”고 제안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58.txt

제목: 암 막는 유전자 발견…백혈병 치료 새 길 열었다  
날짜: 20160316  
기자: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16210046168  
본문: ㆍ고명곤 교수 주도 국제연구진<br/><br/>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는 생명과학부 고명곤 교수(사진)가 주도한 국제 공동연구진이 암을 막을 수 있는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br/><br/><br/>고 교수는 ‘TET단백질’이 없거나 부족하면 악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r/><br/>이 단백질을 만드는 TET유전자의 기능이 암을 치료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고 교수는 “<span class='quot0'>거의 모든 암에서 TET단백질이 제대로 활성화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는 TET유전자가 암 억제 유전자로 작용할 것을 시사하는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고 교수는 “<span class='quot0'>Tet단백질이 제거된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혈액암이 기존에 알려진 다른 암 억제 유전자가 체내에 없을 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빠르고 강력했다</span>”고 말했다. TET는 인간의 단백질, Tet는 생쥐의 단백질을 뜻한다. 고 교수는 “<span class='quot0'>TET단백질과 암의 인과관계가 매우 밀접하고, TET단백질이 면역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결과는 DNA 손상이 쌓이면 세포의 암 발생을 촉진한다는 단서를 제시한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59.txt

제목: “암을 막는 유전자 찾았다”…유니스트 고명곤 교수팀 연구성과  
날짜: 20160316  
기자: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16112158469  
본문: 유니스트는 16일 생명과학부 고명곤 교수가 주도한 국제 공동연구진이 암을 막을 수 있는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br/><br/>고 교수팀은 ‘TET단백질’이 없거나 부족하면 악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단백질을 만드는 TET유전자의 기능이 암을 치료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고 교수는 “<span class='quot0'>거의 모든 암에서 TET단백질이 제대로 활성화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는 TET유전자가 암 억제 유전자로 작용할 것을 시사하는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고 교수팀은 TET단백질과 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생쥐의 조혈모세포에서 높게 나타나는 Tet 단백질 두 종류를 동시에 제거한 뒤 상태를 관찰했다. TET와 Tet 표기는 모두 TET단백질(Ten-eleven-translocation)을 뜻하는데 TET는 인간의 단백질을, Tet는 생쥐의 단백질을 가르킨다. 실험 결과 두 종류의 Tet단백질이 모두 사라진 생쥐는 1주일 이내에 세포·조직학적으로 암의 징후가 관찰됐고, 모두 4~5주 이내에 악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죽었다.고 교수는 “<span class='quot0'>실험에서 나타난 혈액암은 기존에 알려진 다른 암 억제 유전자가 체내에 없을 때의 경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고 강력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는 TET 단백질과 암의 인과관계가 매우 두텁고, TET단백질이 면역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span>”라고 설명했다.<br/><br/>고 교수는 또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결과는 DNA 손상이 쌓이면 세포의 암 발생을 촉진한다는 단서를 제시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DNA를 구성하는 염기의 화학적 변형과 게놈 안정성, 세포의 암 발생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한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TET 단백질의 발현 및 활성수준을 유전자 단위에서 조절하는 방법으로 악성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이 연구는 고 교수와 미국 UC샌디에이고 안자나 라오(Anjana Rao) 교수, 독일 암연구센터 루카스 차베즈(Lukas Chaves)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연구성과는 지난해 11월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60.txt

제목: ‘빈자의 어머니’ 테레사, 성인 된다  
날짜: 20160315  
기자: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15223946753  
본문: ㆍ교황, 추대 승인…선종일 하루 전인 9월4일 시성식<br/><br/>‘빈자의 어머니’로 불린 테레사 수녀(1910~1997·사진)가 성인 반열에 오른다. AFP통신은 15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이 테레사 수녀의 성인 추대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시성식은 테레사 수녀가 선종한 날에 하루 앞선 오는 9월4일 열린다. 구체적인 시성식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로마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br/><br/>가톨릭에서는 순교자가 아닌 사람이 ‘성인’으로 인정되려면 바티칸 교황청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사후에 ‘두 번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인정돼야 한다. 교황청은 1998년 인도 벵갈족 모니카 베르사가 암 투병 중 테레사 수녀의 사진에서 빛을 본 후 완치된 사실을 인정했다. 두 번째 기적은 2008년 뇌종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브라질 환자 엘미란 페레이라 산토스와 그의 가족이 테레사 수녀를 향해 완치를 원하는 기도를 한 후 이틀 만에 실제로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며, 교황청이 이를 확인했다.<br/><br/>테레사 수녀는 사후 6년 만인 2003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최단 기간에 성인 이전 단계인 복자(공경의 대상이 될 만하다고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로 추대됐다. <br/><br/>테레사 수녀는 1910년 현재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스코페에서 1남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원래 이름은 아녜스 곤히야 브악스히야다. 18세에 아일랜드 로레토 수녀원에서 수녀가 된 뒤 인도에서 수도생활을 시작했다. 1950년 콜카타에 사랑의 선교회를 세운 뒤 평생 빈민들을 위해 봉사했으며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세 차례 한국을 방문한 그는 1997년 심장질환으로 생을 마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61.txt

제목: [공감] 뿔뚝 성질  
날짜: 20160315  
기자: 최백호 | 가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15214643895  
본문: 나는 뿔뚝 성질이 좀 있다. 경상도 사람들이 좀 그렇다던가? 매사에 침착하지 못하고 울컥해서 일을 그르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내게 그 성질만 없었어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가수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다. 그러니 열살이나 아래인데도 내 아내는 노심초사 물가에 애 풀어 놓은 듯 걱정이 많다.<br/><br/>20년 전쯤인가,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울어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내는 잘 울지 않는다. 한물간, 돈도 못 버는 가수를 만나 힘들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 격랑의 시간들에서도 눈물을 보인 적이 한번도 없었던 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일이 벌어져도 큰일이 터졌구나 싶어 달래가며 얘길 들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청천벽력. 아내 가슴 양쪽에서 암이 발견됐다는 거다. 유방암. 그냥 남들 얘기로만 들어왔던 그 단어가 우리 집에도 뚝 떨어지다니, 병원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야 안전하다고 했다며 나에게 매달려 한없이 울기만 했다. 그때 나는 아무런 위로도 해주지 못하고 멍하니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으니…, 그 무력감이라니…. 그렇게 악몽 같은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은 취소할 수 없는 공연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며칠을 보낸 후 아내와 같이 병원엘 갔다. <br/><br/>그런데 처음 만난 아주 차가운 표정의 담당 여의사님께서는 “<span class='quot0'>한시가 급한데 빨리 와서 수술 날짜 잡지 않고 뭐 했느냐</span>”며 조금 기분 나쁜, 모욕적인 어투로 화를 내시는 게 아닌가. 급한 일들이 있어 그렇게 됐다고 사과했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빨리 수술 날짜를 잡으라는 거다. 아무리 시급한 상황이어도, 가족에게 환자의 현재 상태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 다음에 수술에 대한 의논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내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 거기까지는 그런대로 참아 넘겼다. <br/><br/>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 겁에 질린 아내의 몇 가지 조심스러운 질문에 대답하시는 모습도 영~‘나이스’ 하시지가 않으신 거다. 안 그래도 몇 번의 고비를 겨우 넘기고 있던 나의 뿔뚝 성질이 드디어 그 어느 대목에서 참아내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으니…. 내가 그때 그 의사 선생님께 뭐라고 격한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당황한 표정의 아내 손을 잡아끌고 그 병원을 뛰쳐나와 버렸다.<br/><br/>차 안에서, 다시 돌아가 사과 드리고 빨리 수술 날짜를 잡자고 울며 애원하는 아내를 태우고 무조건 찾아갔던 다른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은 아내의 X레이 사진을 보시며 몇 번이나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더니 간호사에게 주사기를 가져오게 해서 아내의 환부에서 뭔가를 뽑아내 검사를 하고는 웃으시며 “다행이네요. 암이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닌가. 그 기적의 말씀.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 그 감동의 순간에 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서 있을 수가 없었고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기만 했다.<br/><br/>유도(乳道)가 막혀 굳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인사를 제대로 드렸는지도 모른 채 밖으로 나와서도 넋이 나간 채 한참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며칠 동안 우리 집안을 완전히 절망의 구렁에 몰아넣었던 그 사건은 그렇게 거짓말처럼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버린 거다. 그리고 당장, 처음 갔던 그 병원으로 가서 오진으로 인한, 우리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나의 분노도 “당신 직업”을 생각해서 그냥 참으라는 아내의 만류에 꺾이고 말았고.<br/><br/>요즘도 자주 그 병원 앞을 지나다닌다. 그럴 때마다 그때 그 의사 선생님 말대로 수술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섬뜩한 생각이 든다. 아내는 의기소침해서 좌절의 날들을 보내고 있을 테고, 그 병원에선 성공한 유방암 수술 케이스로 기록되어 있을 테고, 세상 참….<br/><br/>나는 오늘까지도 아내에게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빛나는 뿔뚝 성질 그대로 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뿔뚝 성질을 고칠 생각은 없다. 나의 뿔뚝 성질은 사랑하는 아내의 두 가슴을 지켜 냈고, 40여년 동안 최고는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그럭저럭 괜찮은 가수로 잘살고 있으니 이 또한 다행스럽고 멋진 일이 아닌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62.txt

제목: 일본 고대사 권위자 우에다 교토대 명예교수 별세  
날짜: 20160314  
기자: 도쿄 | 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14220045706  
본문: ㆍ한반도인 명칭 ‘도래인’ 변경 기여<br/><br/>일본 고대사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우에다 마사아키(上田正昭) 교토대 명예교수가 별세했다. 향년 88세.<br/><br/>일본 아사히신문 등은 우에다 교수가 최근 암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 13일 교토부 가메오카의 자택에서 타계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우에다는 효고(兵庫)현 출생으로 교토대학을 졸업한 후 고교 교사와 리츠메이칸대 강사 등을 거쳐 교토대학 교수, 오사카여대(현 오사카 부립대학) 학장을 역임했다.<br/><br/>그는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시각으로 일본 고대사를 분석했다. 고대 왕권의 정치 제도, 신화 연구 외에도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 재일 조선인 차별 문제에도 적극 발언해왔다. <br/><br/>재일동포 정조문씨가 1988년 설립한 고려미술관의 관장 직무를 1998년부터 지금까지 맡아왔다. 고대 일본에 온 한반도인의 명칭을 ‘귀화인’에서 ‘도래인’으로 바꾸는 데 힘쓰기도 했다. <br/><br/>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숭례장’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자신의 한·일 고대사 연구 활동을 회고한 <고대 일본 그리고 조선문화>를 펴냈다.<br/><br/>1997년 오사카 문화상, 1998년 후쿠오카 아시아문화상·학술연구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일본 신화> <일본 고대국가 논구> <고대 전승 역사 연구> <귀화인> 등이 있다.<br/><br/><도쿄 | 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63.txt

제목: 대장암 조기 발견이 중요… 국립암센터, 대장내시경 권고  
날짜: 2016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14121514577  
본문: 암은 오늘날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임에 틀림없다. 그 중에서도 대장암은 급속히 서구화된 식습관의 영향으로 환자 수가 급증하며, 위암 다음으로 환자 수가 많은 암으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br/><br/>지난해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해 동안 대장암으로 진단된 사례는 총 27,618건으로, 대장암은 발생 건수 기준으로 남성 암 중에서는 위암에 이어 2위, 여성 암 중에서는 갑상선암, 유방암에 이은 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대장암을 위암, 간암 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높은 5대 암으로 지정하고, 대장암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장암 국가 암 검진에서는 1년 간격으로 분변 잠혈반응검사를 실시해 이상 소견이 나올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거나 대장 이중 조영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br/><br/>국립암센터 역시 2001년 발표한 암 검진 권고안을 통해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50세가 넘어서면 5~10년에 한 번씩 대장내시경이나 대장 이중 조영검사를 받도록 권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에 새로운 검진 권고 개정안을 발표 하며 대장암의 경우 검사 시행 연령을 45세~80세 조정하고 성인은 1년 또는 2년 주기로 대변 검사를 실시하며, 선택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권고 내용이 변경됐다.<br/><br/>이 같은 대장암 검진 권고 기준 변경에 대해 양산제일병원 내과 전문의 조영환 원장은 “최근 대장암 증가세와 젊은 환자의 비율 증가를 고려할 때, 대장암 검진시작 연령을 45세로 낮춘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경제성과 효율적인 검사 진행을 위해 대변 잠혈반응검사를 1차 검사로 시행하고, 대장 내시경을 선택 검사로 지정하면서 검진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br/><br/>대변 잠혈반응검사는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출혈이나 천공 등 대장내시경 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우려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실제 대장암이 있는 환자에서도 30% 정도는 정상으로 판정되는 등 정확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국가암검진에서는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1차 검사로 대변 잠혈반응검사를 추천하고 있지만, 검사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대장 내시경을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br/><br/>조 원장은 “비용에 대한 부담, 검사에 따른 불편함과 합병증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대장 내시경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조기검진 실패로 일단 대장암이 발생하면 막대한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경우 생명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의사에게 검사를 진행해 합병증 우려를 최소화하고,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전문의의 권고에 따라 검진주기를 지킨다면 대장 내시경은 대장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br/><br/>대장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병이 점차 진행되면 변을 보기 어려워지는 등 배변습관에 변화가 나타나고 혈변, 점액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초기를 지나 중기, 말기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장 내시경은 증상이 없는 초기 대장암은 물론, 대장암으로 발전하기 전 상태인 용종 단계에서도 진단이 가능해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다.<br/><br/>조 원장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대장암을 조기 진단하고, 초기에 치료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라며 “비만은 대장암을 유발하는 위험인자 중 하나로 적절한 음식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붉은색 고기 및 지방 섭취를 줄이고 섬유소와 칼슘 등이 풍부한 음식 섭취를 늘리는 것이 대장암 예방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64.txt

제목: [속보]평택 실종 7세 아이 원영이 부모 암매장 자백  
날짜: 20160312  
기자: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12030958445  
본문: 지난달 평택에서 실종된 신원영(7)군의 친부와 계모가 원영군을 암매장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br/><br/>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12일 원영군의 친부인 신모(38)씨와 계모 김모(38)씨가 원영군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달 1일 원영군이 소변을 못가린다는 이유로 욕실에 가둬놨다가 다음날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어 10일간 집 안에 시신을 방치한 뒤 지난달 12일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암매장 장소는 신씨 아버지의 묘지가 있는 곳 근처로 알려졌다. 앞서 계모 김씨는 경찰에서 “<span class='quot0'>애(아들)가 미워서 남편이 출근한 뒤 같이 나갔다가 길에 버리고 혼자 집에 들어왔다</span>”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0일 원영군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전격 공개하고 CCTV에 확인된 두 사람의 영상을 중심으로 해경까지 동원해 원영군을 찾는 일제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날이 밝는대로 원영군 시신을 수습할 예정이다.<br/><br/><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65.txt

제목: 와인이 심혈관 질환 낮추는 원리 첫 규명  
날짜: 20160310  
기자: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10210018974  
본문: ㆍ포스텍 류성호 교수 연구팀<br/><br/>국내 연구진이 와인이 심장 건강을 돕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포스텍 류성호 교수(사진) 연구팀은 와인에 함유된 물질인 레스베라트롤이 심혈관 질환을 낮추는 효과를 내려면 몸속 단백질인 ‘엠톨’(mTOR)의 활성이 억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0일 밝혔다.<br/><br/><br/>지금까지 와인의 생약 성분이 심혈관 질환을 줄인다는 사실은 와인을 즐겨 마시는 프랑스인 사례를 통해 널리 알려졌지만, 이 성분이 신체 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에 대한 원인을 프랑스인들이 식사와 함께 마시는 와인에 있다고 보고 와인 속에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물질을 발견했다.<br/><br/>연구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세포 실험을 통해 레스베라트롤의 자가소화작용이 엠톨의 활성 억제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와인의 효과를 발동하는 관건이 엠톨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br/><br/>류 교수는 “<span class='quot0'>포도 안의 레스베라트롤과 체내 엠톨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여러 암과 대사질환, 퇴행성 신경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span>”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2월23일자에 게재됐다.<br/><br/><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66.txt

제목: 식약처, 강력 초음파로 자궁근종 태워서 없애는 '프로 하이푸' 장비 국내 승인  
날짜: 20160309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09153205185  
본문: 성능이 향상되고 부작용이 줄어든 5세대 기종의 하이푸나이프(하이푸·고강도 집속형 초음파수술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이푸는 렌즈를 통해 초음파를 한 지점에 모아 열과 충격을 일으켜, 제거하고자 하는 이상세포를 공격하는 의료장비이다.<br/><br/>9일 의료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프로 하이푸’ 기기(사진·PRO2008)에 대해 최종 허가승인을 했다. 산부인과 개원가 등에서 이미 가동을 시작했고, 대학병원에서도 이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자궁근종 하이푸 치료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br/><br/>하이푸를 이용한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 시술은 2013년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DRG)로 편입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2015년 9월 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되어 치료비는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br/><br/>자궁에 발생하는 혹(양성 종양)을 말하는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종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발병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30대 이상 여성 2~3명 중 1명은 근종이나 선근종 같은 자궁내 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학계는 보고한다.<br/><br/>자궁내 혹은 계속 커지면서 출혈이나 통증을 유발하고, 암이 될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임신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관건이다. 가임기 여성뿐 아니라 폐경 이후의 여성들도 자궁을 보전하면서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침습 시술이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br/><br/>조선대병원 산부인과 한세준 교수는 “<span class='quot0'>프로 하이푸는 5세대 장비로 초점의 크기가 작아서 보다 정밀하게 조준함으로써 기존 장비보다 섬세한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장점</span>”이라고 설명했다. 시술 원리는 우선 환자의 복부를 거쳐 자궁의 목표 종양에서 초음파초점을 형성시킨다. 이어 고강도로 집속된 초음파가 근종부위를 태워버린다. 시술 과정이 컴퓨터로 자동 제어된다. 최대 자궁근종 직경이 12㎝이하인 환자가 주요 적응증이다. 한 교수는 “<span class='quot0'>외과적 수술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하는 환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br/><br/>구리 조은여성병원 조영열 원장(산부인과 전문의)는 “<span class='quot1'>젊은 여성들에서도 근종이 늘어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증상이 없더라도 30세 이상, 특히 가임기 여성이라면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것</span>”을 권했다. 자궁근종 질환은 초음파 검진이나 초음파 자궁조영술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진단이 가능하다.<br/><br/>하이푸 시술은 생식기관이나 골반에 심한 염증이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수유중인 여성, 부인과적 악성종양 병변을 가진 경우, 초음파의 진입경로에 이물질이 있는 환자 등에서는 적용이 어렵다. 병변(병소)의 형태 또한 잘 판단해야 하는 등 제한점이 적지 않다.<br/><br/>부작용은 그리 크지 않다. 자궁선근종을 대상으로 프로하이푸를 적용한 임상 연구내용을 보면, 하이푸 직후 국부적 선근증 그룹의 64.2%, 전체적 선근증 그룹의 70.7%가 낮은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엉덩이 통증은 20.0%와 19.5%, 질분비물은 54.2%와 51.2%였다. 국부적 선근증 그룹의 1명과 전체적 선근증 그룹의 2명이 복벽 앞에 붉은 열감 또는 물집이 있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67.txt

제목: [장이권의 자연생태 탐사기] 경칩개구리의 고민  
날짜: 20160307  
기자: 장이권 |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07212142215  
본문: 2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었다. 산행을 위해 집 앞에 나서자마자, 주차장 바닥이 젖어 있다. 어제 중부지방에 눈이 내린다고 했는데 눈이 살짝 내린 뒤 녹은 모양이다. 2년 전부터 같이 산행 다니는 친구들과 만나 산길로 들어섰다. 조금 전과는 달리 산에는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 고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사각사각 눈 밟는 소리가 나고, 나뭇가지에는 눈꽃이 피기 시작했다. 산행 친구들은 들떠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카카오톡에 올렸다. 산행 친구 한 분은 회사 동료들이 전날 설악산으로 놀러 갔다고 부러워했는데, 오히려 여기가 더 설악산 같다고 했다.<br/><br/>2월 말에 눈이 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몇 년 전에는 4월에도 눈이 온 적이 있다. 1월에 봄날 같은 날씨를 보일 수도 있고, 3월에 꽃샘추위가 찾아올 수도 있다. 변덕스러운 날씨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연의 특성이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날씨에서 살아가야 하는 생명체에게는 문제가 된다. 이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앞에서 자신과 자손의 운명이 달린 결정을 해야 한다. 실제로 일찍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들이 추운 날씨에 얼어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다. 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24절기 중 하나인 경칩 즈음에 동면에서 깨어나는 개구리는 북방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두꺼비 등이 있다. 나는 이들을 ‘경칩개구리’라고 부른다.<br/><br/>경칩개구리의 짝짓기는 산란지를 중심으로 벌어진다. 암컷은 동면에서 깨어나면 1~2일 이내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알을 습지에 낳는다. 이때 수컷은 알을 낳으려는 암컷을 찾아 포접하려고 한다. 양서류의 알이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어린 개구리가 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물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암컷은 알이 어린 개구리가 될 때까지 마르지 않을 습지를 찾아야 한다. 깊은 연못은 올챙이가 발육하는 동안 마를 염려가 없지만 무서운 어류 포식자들이 많다.<br/><br/>기온이 올라가면서 눈과 얼음이 녹아 생긴 옹달샘은 경칩개구리에게 최적의 산란지를 제공한다. 옹달샘은 물고기도 없고, 숲에서 물이 제공되기 때문에 당분간 마를 염려도 없다. 암컷 경칩개구리는 그 중에서도 조류 포식자로부터 올챙이가 숨을 수 있는 수풀이나 낙엽이 많은 옹달샘을 선택한다.<br/><br/>암컷은 산란하는 시기도 신중하게 고려한다. 너무 빨리 출현해 산란하면 알이 얼어 죽을 수 있다. 너무 늦게 출현해 낳으면 알이 다른 올챙이들에게 희생당할 수 있다. 경칩개구리가 알을 낳는 초봄은 추운 날씨 때문에 먹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먼저 알에서 깬 올챙이가 늦게 산란된 알을 먹는 동족포식이 벌어진다. 이 동족포식을 피하는 방법은 동시에 산란해 서로 비슷한 크기의 올챙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암컷의 고민은 추위와 동족포식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한 지역에 있는 모든 암컷이 한꺼번에 불과 며칠 사이에 산란을 한다. 이 때문에 경칩개구리의 산란은 흔히 ‘폭발적’이라고 표현한다.<br/><br/>수컷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 수컷은 암컷이 산란하러 오는 장소를 예측해야 한다. 또 수컷은 산란지를 다른 수컷들보다 앞서 선점하고, 암컷이 산란하러 올 때까지 지켜야 한다. 수컷은 산란지를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기 위해 노래를 한다. 다른 수컷이 침범하면 싸움도 주저하지 않는다. 수컷의 고민은 산란지에 너무 늦게 가면 다른 수컷과의 경쟁에서 밀려 번식이 어려울 수 있고, 너무 빨리 출현하면 추위에 얼어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br/><br/><br/><br/>경칩개구리의 경우 번식을 할 때 암컷보다 수컷에게 강한 선택압이 작용한다. 수컷은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다른 수컷들보다 먼저 출현해 산란지를 선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북방산개구리의 경우 수컷의 출현이 암컷보다 1~2주 정도 앞선다. 암컷 경칩개구리는 출현할 때 수컷보다 훨씬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 암컷이 낳는 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추위가 닥치면 꼼짝없이 얼어 죽는다. 이에 비해 수컷은 추위가 닥치면 다시 숨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수컷의 노래보다는 암컷의 산란이 봄을 알리는 더 믿을 만한 지표이다.<br/><br/>경칩개구리가 너무 일찍 출현해 얼어 죽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변덕스러운 날씨가 일상화되면 얼어 죽는 개구리나 알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을 ‘생물계절 엇박자’ 또는 ‘생태 엇박자’라고 한다. 한 종의 생존과 번식은 다른 종의 생물계절이나 환경조건과 맞물려 있다. 만약 맞물려 있는 톱니가 어긋나게 되면 그 종의 생존과 번식에 지장을 초래하고 최악의 경우 멸종에 이를 수도 있다. 생물계절 엇박자가 화분매개 곤충과 식물개화 시기 또는 해충과 천적 간에 심해질 경우 농업 생산성은 감소할 수 있다.<br/><br/>두 시간의 산행이 끝나갈 때 산의 남사면보다 북사면에 있는 눈이 많이 녹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보통 햇볕이 잘 드는 남사면보다는 북사면의 눈이 천천히 녹는다. 북사면의 눈이 많이 녹은 이유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었다. 산의 북사면은 도심 지역을 향해 있었고, 분명 도시에서 발생하는 열이 눈을 일찍 녹였다고 생각한다. 만약 북사면에 경칩개구리가 있다면 기후변화의 영향도 받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초래한 환경변화의 영향도 받을 것이다. 환경변화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증대시킬 수 있고 생물계절 엇박자의 정도를 심하게 할 수 있다. 생물계절 엇박자는 지금 경칩개구리의 고민이지만 머지않아 우리의 고민이 될 수도 있다.<br/><br/><장이권 |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68.txt

제목: “부모·미성년 자녀 재산 분할상속 땐 특별대리인 선임”  
날짜: 20160306  
기자: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06221842946  
본문: ㆍ대법 “친권자 대리는 무효”<br/><br/>ㄱ씨는 1980년 남편 ㄴ씨와 결혼해 세 아들을 낳았다. ㄴ씨는 1988년 사망했고, 시아버지는 1995년 12월 사망했다. 시아버지는 사망하기 7개월 전인 1995년 5월 ㄱ씨와 손자들의 생계를 걱정해 부동산 일부를 증여해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아니라며 약정을 해제했고, ㄱ씨는 해당 약정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br/><br/>하급심은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해당한다면서도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1995년 5월 약정 당시 ㄱ씨 아들 3명 모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이었던 아들 3명에게 각각 친권자인 ㄱ씨가 아닌 특별대리인을 선임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br/><br/>ㄷ씨는 1998년 남편 ㄹ씨와 결혼했다. ㄹ씨는 재혼으로, 전처 사이에 남매를 두고 있었다. 같은 해 ㄹ씨는 ㄷ씨 사이에서 딸을 낳았고, 2010년 암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ㄹ씨 형제자매들은 장남인 ㄹ씨가 소유한 부동산이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자신들에게도 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ㄷ씨는 ㄹ씨가 위독했던 상태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고, ㄹ씨 형제자매들과 ㄷ씨·ㄷ씨의 딸이 부동산 지분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br/><br/>몇 년 뒤 ㄷ씨는 해당 합의가 무효라며 ㄹ씨 여동생 ㅁ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동산이 ㄹ씨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ㄹ씨 형제자매들의 말에 속았다는 것이다. 또 당시 ㄷ씨 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ㄷ씨 자신이 딸의 합의를 대리해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ㅁ씨는 합의 이후에 ㄷ씨 딸의 특별대리인으로 삼촌이 선임됐고, ㄷ씨가 주도해 합의한 것을 뒤집는 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이라며 맞섰다. 1·2심은 ㄷ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br/><br/><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69.txt

제목: 실적 1등에 눈먼 ‘보험왕의 사기’  
날짜: 20160306  
기자: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06221842174  
본문: ‘보험왕’ 출신의 40대 보험설계사가 고객들에게 빌린 돈 44억여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영업실적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작한 거짓말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보험설계사를 범죄의 늪에 빠지게 했다.<br/><br/><br/>서울 강남경찰서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원금을 두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8명에게 304회에 걸쳐 총 44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보험설계사 박모씨(49·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br/><br/>경찰에 따르면 20대 때 처음 보험 일을 시작한 박씨는 2013년까지 전국 단위의 ‘보험왕’ 타이틀을 3차례나 차지했다. 그의 사기 행각은 보험왕 체면에 걸맞은 실적을 유지하기 위한 과욕에서 비롯됐다.<br/><br/>정상적인 방법으로 보험 계약을 더 늘릴 수 없게 된 박씨는 10년 이상 알고 지낸 고객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달콤한 제안’을 했다. 그는 고객들에게 “단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3년 만에 원금을 두 배로 불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돈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박씨가 실제 가입을 알선한 보험은 10년 만기 암보험 등 전혀 다른 성격의 비보장성 보험이거나 약속한 것보다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상품이었다.<br/><br/>처음에는 약속한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던 박씨는 거짓말이 계속되면서 돈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급전이 필요해진 박씨는 주변에 “<span class='quot0'>해약한 고객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금을 낼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span>”고 사정했다.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4~6%의 이자를 준다는 말에 고객들은 보험왕 박씨를 믿고 선뜻 거액을 맡겼다.<br/><br/>경찰 조사 결과 고객들의 피해금액은 적게는 19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여원에 달했다. 피해자 중에는 박씨의 친언니가 포함돼 있었고, 한 사람이 보험을 8개 가입한 사례도 있었다.<br/><br/>여기저기서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박씨는 결국 고객들에게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파국을 맞게 됐다.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한 고객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박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출석해 자신의 범죄를 시인했다.<br/><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피해금액은 박씨가 불려주겠다고 약속한 액수여서 실제 피해자들이 떼인 돈은 그보다 적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 여죄를 조사 중</span>”이라고 말했다. <br/><br/>추가로 경찰은 박씨로부터 16명이 30억여원을 피해봤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br/><br/>박씨는 평소 소속 보험사에서 실적이 항상 5위 안에 드는 ‘핵심 인재’였다. 그는 연봉이 6억원 가량 됐지만 경찰 조사에서 “<span class='quot1'>남은 돈이 한 푼도 없고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span>”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70.txt

제목: [부음] 최국진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유방암 치료 앞길 연 한국의학의 휴머니스트"  
날짜: 20160306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06214907145  
본문: 국내 유방암 치료와 위, 대장 수술 등 외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최국진 서울대 명예교수(76)가 5일 별세했다.<br/><br/>1940년 충남 예산 출생으로 1964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고인은 1970년부터 2005년까지 35년간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유방암의 진단과 수술치료, 연구활동에 큰 업적을 남겼다. 유방암뿐 아니라 간, 췌장, 대장, 위 수술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국내 외과수술 분야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br/><br/>한국유방건강재단 이사장, 대한암학회 회장, 대한외과학회 회장, 한국유방암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회 발전과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5년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br/><br/>정년 퇴임 후에도 유방건강 핑크리본캠페인과 국내외 학회 참가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유방암 정복을 향한 열정을 과시했다. 많은 사람들이 최 교수를 “<span class='quot0'>우리 시대의 흔치 않은 휴머니스트</span>”라고 기억한다. 특히 2013년 췌장암이 발병, 수술을 받고 투병하면서도 후학들과의 술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제자들을 격려하는 등 항시 꿋꿋한 자세를 보였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8일 오전이며, 장지는 모란공원이다.<br/><br/>양정현 건국대의료원장(외과)은 “<span class='quot1'>열흘 전 병문안 갔을 때 암통증 점수를 가지고 토론까지 하시던 모습이 선한데, 우리 유방암학회의 기둥이 쓰러지셨다</span>”면서 눈시울을 붉혔다.<br/><br/>유근영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전 국립암센터 원장)는 “<span class='quot2'>지난해 봄 제주에서 열린 유방암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유방암학회의 발전된 모습에 흡족해 하시던 모습이 새삼 떠오른다</span>”며 고인을 추모했다.<br/><br/>노동영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대한암학회 이사장)는 “<span class='quot2'>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의 영혼이 우리의 가슴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원한다</span>”고 말했다.<br/><br/>■최국진 교수를 기리며(요약) / 제자 서울대학교 교수 노동영<br/><br/>“<span class='quot3'>선생님, 우리 모두의 가슴 깊이 묻어 놓겠습니다.</span>”<br/><br/>선생님께서 떠나신 날은 그 어느 때보다 염원하시던 봄꽃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2년 여의 오랜 투병에도 굳건히 버티시고, 의사로서 감당할 만큼만 냉정하게 치료를 선택하신 고집스런 분이셨다. 하기야 그 고집은 최씨와 안씨의 어머님 사이에 태어나신 연유로 대학사회에서도 뛰어난 기억력과 함께 유난히도 돋보였다.<br/><br/>그 척박한 의료의 한 시대를 시작하며, 최고의 의료를 구사하던 시대, 모두를 풍미하고 일구어 오신 상황을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을 다 섭렵하던 만물박사의 시대로부터 유방암을 주로 이끌며 학자의 길을 마무리 하신 것이다.<br/><br/>필자가 전공의를 시작하던 1981년도 막 미국에서 귀국한 최국진 교수는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암 수술을 시도하였다. 그야말로 초근치적인 수술로 모든 장기와 인접 기관을 모두 제거한 수술들이었고, 수술이 끝나면 지혈을 하느라, 재건을 하느라 전공의들은 혼신의 힘을 다 하여야만 했다. 그러한 도전적인 수술의 시도에는 항상 위험과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잘 생기고 훤칠한 키에 굳게 다문 입, 호랑이 같은 눈초리를 뵈면 누구도 그의 의지를 꺽을 수는 없었다.<br/><br/>인간적으로 굳센 염세주의자였던 선생님은 흔적없이 떠나기를 원하셨다. 사진 찍기를 그리 즐겨하지 않으셨고, 우리나라 4.19시절부터 의료와 시대 상황을 야사와 함께 너무나 또렷이 기억하고 계셔서, 부디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였건만, 당신의 머리에만 간직하시고 아쉽게 떠나 버리셨다.<br/><br/>특히 모두가 어렵던 시대에 힘들어 하는 제자들을 가장 잘 챙겨주셨다. 좋은 저녁 자리에는 항시 제자들을 같이 불러 폭탄주를 예외없이 나누고, 그들에게 덕담과 교훈을 들려 주셨다. 유난히도 술을 못하였던 내가 초기에 불려 다니며 술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대였다. 그 때 그때 저녁자리와 얽힌 일들이 모두 다 추억이 되었다.<br/><br/>긴 투병 중에도 찾아오는 제자들의 소소한 가정사까지 기억하시고 건네시는 그 분의 온화한 미소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음을 알기에, 선생님이 떠나신 빈자리는 시간을 더해 커진다.<br/><br/>마지막 그 여윈 얼굴에도, 편하고 넉넉한 웃음을 지어 보이셨다. 그 와중에도 나라 걱정, 제자들, 동료를 찾으셨다. 선생님은 그런 분이셨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 있을 스승.<br/><br/>“<span class='quot3'>다 그런거야, 그게 인생이야.</span>”<br/><br/>그 그리운 음성도 함께….<br/><br/>\*노동영=한국유방건강재단 이사장(현), 대한암학회 이사장(현), 서울대암병원장, 세계유방암학회 조직위원장, 분쉬의학상 수상 등<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71.txt

제목: [사설]이세돌·알파고 대결, 인공지능 정체성 정립 계기 돼야  
날짜: 2016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06205812471  
본문: 9일부터 프로기사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 간에 펼쳐지는 바둑 대결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인공지능이 과연 경우의 수가 무한대에 가깝고 인간의 직관과 통찰력을 담는 바둑에서조차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다. 이세돌 9단은 인공지능과 싸우는 인류의 마지막 보루로서 뜨거운 성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나뉜다. 알파고가 아무리 3000만건 이상의 기보를 학습했다고 해도 기상천외한 난전과 수읽기에 강한 이세돌 9단을 능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1000년 걸릴 100만번의 대국을 한 달 안에 학습하는 알파고의 승리를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br/><br/>승패에만 일희일비한다면 이번 대국의 본질을 꿰뚫을 수 없다. 알파고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지능계의 최고봉인 이세돌 9단에게 도전했다는 자체가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9단이 5-0 완승을 거둔다 해도 환호할 일이 아니다. 우주의 원자수(10의 80~100제곱)보다 많은 바둑의 ‘경우의 수(10의 170제곱)’를 익혀온 알파고의 진화속도를 감안하면 인류 대표의 패배는 시간문제일 가능성이 짙다. 이 9단도 “3~5년 뒤에는 바둑에서조차 밀리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알파고의 기보를 본 전문가들은 ‘인간의 느낌’ 영역인 ‘두터움’까지 바둑판에서 표현하고 있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유영역인 마음까지 읽는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러니 인공지능과 인간의 생존게임 차원에서 이번 대국을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지난 1월 열린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은 인공지능 때문에 2020년까지 인간의 일자리가 510만개나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게다가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인 인공지능이 인간의 나쁜 감정까지 갖게 된다면 인류에게 크나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br/><br/>당연히 인공지능은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동반자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 슈퍼컴퓨터 왓슨이 인간 퀴즈왕을 꺾은 뒤 암치료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입된 예가 있다. 로봇과 어드바이저를 합친 개념인 로보어드바이저는 자산관리와 제무설계 서비스에 나섰다. 알파고의 개발방법론도 기후변화나 질병 치료 등의 분석작업에 쓸 수 있다고 한다. 이번 대국에서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도전과 응전, 그리고 화합과 공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를 바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72.txt

제목: 어느 ‘보험왕’의 몰락···1등 실적 유지하려고 고객돈 45억원 ‘꿀꺽’  
날짜: 20160306  
기자: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06113124767  
본문: ‘보험왕’ 출신의 보험설계사가 고객들에게 빌린 돈 45억여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보험영업 실적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작한 거짓말은 20년 넘는 경력의 ‘베테랑’ 보험설계사를 결국 철창으로 이끌었다.<br/><br/>서울 강남경찰서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원금을 두 배로 불려준다는 등의 속임수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8명에게 304회에 걸쳐 44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보험설계사 박모씨(49·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br/><br/>20대에 처음 보험일을 시작한 박씨는 2013년까지 전국 단위 보험왕 타이틀을 세 번이나 차지했다. 박씨의 사기 행각은 보험왕 체면에 걸맞는 실적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에서 비롯됐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보험 계약을 더 늘릴 수 없었던 박씨는 1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친한 고객들에게 ‘달콤한 제안’을 했다.<br/><br/>박씨는 ‘단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3년 만에 원금을 두 배로 불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돈을 받아챙겼다. 그러나 그런 상품은 없었다. 박씨가 실제 가입한 보험은 10년 만기 암보험 등 전혀 다른 성격의 비보장성 보험이거나 약속한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낮은 상품들이었다.<br/><br/>처음에는 약속한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던 박씨는 거짓말이 계속되면서 돈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급전이 필요해진 박씨는 ‘해약한 고객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금을 낼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했다.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4~6%의 이자를 준다는 말에 고객들은 또 박씨에게 돈을 맡겼다.<br/><br/>피해금액은 적게는 19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여원에 달했다. 피해자 중에는 박씨의 친언니도 있었다. 여기저기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박씨는 결국 고객들에게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파국을 맞았다.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한 고객이 고소장을 냈고 박씨는 순순히 경찰에 출석해 죄를 시인했다.<br/><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피해금액은 박씨가 불려주겠다고 약속한 액수여서 실제 피해자들이 떼인 돈은 그보다 적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박씨는 평소 소속 보험사에서 실적이 항상 5위 안에 드는 ‘핵심인재’였다. 연봉이 6억원가량 됐지만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span class='quot1'>남은 돈이 한 푼도 없고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span>”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73.txt

제목: 커피 한 방울마다 ‘노예노동자’들의 눈물 한 방울  
날짜: 20160304  
기자: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04225035750  
본문: 지난해 8월, 브라질 노동부 조사관들은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주의 한 농장을 급습해 사실상 노예 상태에 놓여 있던 노동자 17명을 구출했다. 이들은 커피 수확기를 앞둔 지난해 5월 인근 바이아주에서 일명 ‘가토’(포르투갈어로 사기꾼, 협잡꾼이라는 뜻)라 불리는 모집책에게 속아 농장에 팔려 왔다. 농장주에게 식대와 교통비 등을 빚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커피 열매를 딴다. 노동자들이 머무는 기숙사엔 낡은 침대 몇 개와 구멍난 매트리스가 전부이고 화장실도 없어 근처 풀숲에서 용변을 해결한다. <br/><br/>세계 커피 물량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브라질 커피 농장의 노예노동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긋한 브라질산 원두커피의 이면에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눈물이 스며 있다. 2일(현지시간) 덴마크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댄워치 보고서에 따르면 커피 농장 종사자들은 하루에 최대 14시간까지 일하는 것은 물론 수확철이 끝날 때까지는 제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들은 60㎏들이 자루에 커피 열매를 채울 때마다 12~20헤알(4000~6000원)을 받는데, 이는 커피 최종 소비자가격의 2% 남짓에 불과한 금액이다. <br/><br/><br/><br/>노동자들은 또 커피나무에 뿌리는 맹독성 농약에도 장갑이나 마스크 등 최소한의 보호장비 없이 노출돼 있다. 이 농약은 ‘터뷰포스’ 같은 맹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암과 기형아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사용을 금지했다. 어린이 노동도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브라질 국가통계국(IBGE)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브라질 최대 커피 생산지인 미나스 제라이스주에서 농업 노동에 종사하는 5~17세 청소년은 11만6000여명에 이르고, 이 중 6만명이 14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댄워치는 매년 노동 착취 상태에 놓인 어린이들과 노동자 100~200명가량이 브라질 정부에 의해 구출되는데, 이마저도 전체 노동자 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br/><br/><br/><br/>이런 열악한 노동 실태는 브라질 노동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커피 구매자인 네슬레와 제이콥스 도우 에그버츠(JDE) 같은 글로벌 식품 기업들의 윤리규정에도 어긋난다. 네슬레와 JDE가 유통하는 커피는 전 세계 공급량의 39%에 달한다. 네스카페, 네스프레소, 돌체앤구스토 같은 유명 커피 브랜드가 노예노동에 의해 수확된 커피 열매를 원료로 하고 있는 셈이다. 네슬레와 JDE는 “중간상인들을 통해 커피를 구입하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커피 농장들을 알지 못했다”며 브라질 커피 농장에서 노예노동으로 생산된 커피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중개업자들에게 윤리규정을 위반한 농장과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br/><br/>커피 생산은 고도의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농약과 비료를 치고, 수확해서 분류하는 작업이 모두 사람 손으로 이뤄진다. 게다가 농장-도매업자-가공업자-수출업자-중개업자를 거쳐 유통기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커피 농장에는 최종 소비자가격의 7~10%만 돌아간다. 비용 절감의 압박이 노동력 착취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4년 월드비전이 발간한 보고서 ‘글로벌 커피 산업에서의 노동 착취’에 따르면 콜롬비아,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들과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의 커피 생산지 14개국에서 어린이 노동과 강제노역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74.txt

제목: 향긋한 커피에는 노예노동의 눈물이  
날짜: 20160304  
기자: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04174139702  
본문: 지난해 8월, 브라질 노동부 조사관들은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 주의 한 농장을 급습해 사실상 노예 상태에 놓여 있던 노동자 17명을 구출했다. 이들은 커피 수확기를 앞둔 지난해 5월 인근 바이아 주에서 일명 ‘가토(스페인어로 고양이라는 뜻)’라 불리는 모집책에게 속아 농장에 팔려 왔다. 농장주에게 식대와 교통비 등을 빚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커피 열매를 딴다. 노동자들이 머무는 기숙사엔 낡은 침대 몇 개와 구멍난 매트리스가 전부이고 화장실도 없어 근처 풀숲에서 용변을 해결한다. <br/><br/>세계 커피 물량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브라질 커피 농장의 노예노동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긋한 브라질산 원두커피의 이면에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눈물이 스며 있다. 2일(현지시간) 덴마크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댄워치 보고서에 따르면 커피 농장 종사자들은 하루에 최대 14시간까지 일하는 것은 물론, 수확철이 끝날 때까지는 제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들은 60㎏들이 자루에 커피 열매를 채울 때마다 12~20헤알(4000~6000원)를 받는데, 이는 커피 최종 소비자가격의 2% 남짓에 불과한 금액이다. 노동자들은 또 커피나무에 뿌리는 맹독성 농약에도 장갑이나 마스크 등 최소한의 보호장비 없이 노출돼 있다. 이 농약은‘터뷰포스’ 같은 맹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암과 기형아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사용을 금지했다. 어린이 노동도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브라질 국가통계국(IBGE)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브라질 최대 커피 생산지인 미나스 제라이스 주에서 농업 노동에 종사하는 5~17세 사이 청소년은 11만6000여명에 이르고, 이중 6만명이 14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댄워치는 매년 노동 착취 상태에 놓인 어린이들과 노동자 100~200명 가량이 브라질 정부에 의해 구출되는데, 이마저도 전체 노동자 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br/><br/>이런 열악한 노동 실태는 브라질 노동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커피 구매자인 네슬레와 제이콥스 도우 에그버츠(JDE) 같은 글로벌 식품 기업들의 윤리 규정에도 어긋난다. 네슬레와 JDE가 유통하는 커피는 전 세계 공급량의 39%에 달한다. 네스카페, 네스프레소, 돌체앤구스토 같은 유명 커피 브랜드가 ‘노예 노동’에 의해 수확된 커피 열매를 원료로 하고 있는 셈이다. 네슬레와 JDE는 “중간 상인들을 통해 커피를 구입하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가 ‘블랙 리스트’에 올린 커피 농장들을 알지 못했다”며 브라질 커피농장에서 노예 노동으로 생산된 커피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중개업자들에게 윤리 규정을 위반한 농장과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br/><br/>커피 산업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다. 농약과 비료를 치고, 수확해서 분류하는 작업은 모두 사람 손으로 이뤄진다. 게다가 농장-도매업자-가공업자-수출업자-중개업자를 거쳐 유통기업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 구조 속에서 커피 농장에 돌아가는 몫은 최종 소비자가격의 7~10%에 불과하다. 농작물의 특성상 기후변화 등 외부 요인에도 취약하다. 비용 절감의 압박이 노동력 착취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2014년 월드비전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들과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의 커피 생산지 14개국에서 어린이 노동과 강제 노역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75.txt

제목: 주 20시간 일하고 신분·정년 보장 ‘시간선택제 공무원’...경력단절여성에 인기  
날짜: 20160303  
기자: 한대광 기자 chooh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03121013254  
본문: #2년 전 임신과 출산 및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 뒀던 이모씨(38)는 지난해 12월 치뤄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이씨는 최근 기획재정부 행정7급에 합격한 사실을 통보 받았다. 이씨는 “<span class='quot0'>과거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경제 분야 통계자료 조사·분석 업무를 잘 수행해 경제정책 수립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정모(46)는 3년 전 암 판정으로 회사를 그만 뒀다. 이후 수술과 항암치료를 통해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시간선택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경찰청 행정9급에 합격했다. 정씨는 “<span class='quot1'>시간선택제에 합격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건강도 관리하고 남편의 불규칙한 일자리를 메울 수 있게 되었다</span>”며 기뻐했다.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015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353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3일 밝혔다. 합격자 명단은 4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를 통해 공개된다. 합격자들은 임용예정부처의 신원조회 절차가 종료되면 임용될 예정이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으로서 기본소양과 근무자세 등 공직가치와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2주간(6월 예정)의 집합교육을 받게 된다.<br/><br/>이번 시험에는 5960명이 응시해 15.8: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합격자(353명)의 평균 연령은 35.2세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14.2%(50명), 30대 66.9%(236명), 40대 17.8%(63명), 50대 1.1%(4명)로 30~40대가 84.7%를 차지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등 정부 42개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br/><br/>특히 여성합격자는 77.6%인 274명이었다. 여성합격자는 2014년 치러진 1·2차 시험에서도 74.5%(149명), 78.3%(130명)였다. 시험이 치러질 때마다 여성들의 응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4년 1·2차 시험에는 2817명, 3782명의 여성이 응시했다. 지난해 12월 접수한 2015년 시험에는 4863명이 응시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특별한 스펙이 없어도 사회 각 분야의 일정한 현장근무 경력만으로도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 나누기 등에 기여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시간선택제공무원은 특히 전일제공무원에 비해 짧은 시간(주 20시간 내외, 1일 평균 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또 개인 사정에 따라 격일 8시간이나 하루 4시간씩 ��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육아·부모봉양 등 가사를 병행하면서 공직을 수행하는 장점이 있다. 전일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신분과 정년(60세)도 보장된다.<br/><br/>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는 응시 자격을 기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에서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466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오는 5~6월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선발예정인원, 담당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없으며 서류·면접 시험만으로 채용하게 된다.<br/><br/>□김진수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장은 “<span class='quot3'>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경력단절여성 등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새로운 등용문이 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3'>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공직사회에 잘 정착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형태가 보다 확산되기를 바란다</span>”고 말했다.<br/><br/><한대광 기자 chooh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76.txt

제목: “난치병에 특효” 제대혈 줄기세포 위험한 불법 이식  
날짜: 20160302  
기자: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303092943728  
본문: ㆍ임상시험도 안 거친 세포치료제 1만5000개 불법 제조 <br/>ㆍ1개당 최고 200만원 거래…업체 11곳·의사 15명 적발 <br/>ㆍ1회에 3000만원 받고 이식, 일부는 부유층 미용에 쓰여<br/><br/>산모들로부터 기증·위탁받은 제대혈을 무허가로 배양한 후 만들어낸 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제대혈은행 전 대표와 병원 의사 등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적으로 유통된 제대혈 줄기세포들은 루게릭·파킨슨 등 난치병 환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상류층의 노화방지(안티에이징)를 위해 이식됐다.<br/><br/>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산모들에게서 기증·위탁받은 제대혈을 불법적으로 배양해 제대혈 줄기세포를 대량 제조·유통시킨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대혈은행 전 대표 한모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br/><br/><br/>경찰은 한씨에게서 제대혈 줄기세포를 받아 병원에 유통한 혐의로 이모씨(56) 등 유통업체 대표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br/><br/>김모씨(51) 등 병원 의사 15명은 한씨와 이씨로부터 제대혈 줄기세포를 산 뒤 난치병 환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로 입건됐다.<br/><br/>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2003년부터 8년 동안 제대혈에서 제대혈 줄기세포를 분리·추출한 뒤 이를 14~20일 동안 배양해 세포치료제를 대량 생산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치료제는 1만5000유닛(unit)에 이른다. 한 유닛은 산모 한 명에게서 채취한 제대혈량으로 평균 80~100㎖ 정도다. 경찰은 한씨가 이 세포치료제를 만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의약품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br/><br/>나아가 한씨는 2009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이 세포치료제를 유통업체 11곳과 병원 13곳에 판매했다. <br/><br/>세포치료제는 유닛당 100만~200만원가량에 거래됐다. 한씨는 모두 4648유닛을 팔아 309억~464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약 46억원을 챙겼다.<br/><br/>이렇게 퍼져나간 세포치료제는 주로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식됐다. 이 세포치료제를 사들인 병원 의사들은 당뇨, 암, 고혈압, 뇌경색, 치매, 파킨슨 등을 앓는 환자들에게 한 번에 3유닛 정도를 이식하면서 2000만~3000만원씩을 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유통업자와 의사들이 판매 및 이식비용으로 300억원가량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절박한 상황에 놓인 난치병 환자들에게 팔았다</span>”고 말했다. <br/><br/>또 현행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은 영리 목적으로 제대혈과 그 밖의 부산물을 매매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제대혈 이식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장기골수이식의료기관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이 속한 병원들은 지정된 46개 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br/><br/>경찰은 일부 사회 상류층 인사들이 이 세포치료제를 ‘안티에이징’ 시술을 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사들여 이식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br/><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저렴하게 제대혈을 이식받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방증하는 대목</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제대혈 줄기세포가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채 만능치료제로 둔갑해 유통되지 않도록 제대혈은행에 대한 정밀점검 필요성이 높은 상황</span>”이라고 말했다.<br/><br/> ■제대혈<br/><br/>산모와 태아를 잇는 탯줄 속에 흐르는 혈액이다. 혈구와 혈소판을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다량 함유돼 있다. 연골, 뼈, 근육, 신경 등을 만드는 간엽줄기세포를 갖고 있어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br/><br/><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77.txt

제목: 20대 유방암 발병 위험도 50대의 2.4배, 정기적인 유방암검사 필수  
날짜: 201602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29100556992  
본문: 현재 20대인 여성이 50대인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병 위험도가 2.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30대의 자녀 세대가 엄마 세대보다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젊은 층에서의 꾸준한 유방암 자가검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br/><br/>지난해 10월 한국유방암학회는 전국에 거주하는 20~50대 여성 1,000명(연령대별 각 250명)을 대상으로 유방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조사해 유방암 발생률을 예측한 바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50대 여성이 74세까지 생존 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3.14%인데 비해, 20대 여성이 같은 나이까지 생존 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7.42%로 나타난 것.<br/><br/>유방암검사 병원 은평연세병원 내분비외과 전문의 서진학 대표원장은 “세대별로 유방암 발병 확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현재의 20~30대와 40~50대의 생활 환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젊은 층일수록 이른 초경과 낮은 출산 및 모유수유 비율 등 유방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노출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요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br/><br/>서진학 대표원장에 따르면 유방암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통해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20대부터 꾸준히 자가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30세 이후부터 매월 유방 자가검진을 진행할 것으로 권고하며, 35세 이후부터는 2년 간격으로 전문의를 통한 유방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자가검진이나 유방암 검사는 가족력이나 기타 의사의 권고가 있을 경우에는 검진 시행 나이를 당기거나, 검진 주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br/><br/>유방암 자가진단법은 매월 생리가 끝난 직후 하는 것이 좋다. 생리가 끝난 후 3~4일 이내에 양팔을 들어 올린 후 양쪽 유방이 똑같이 따라 올라가는지 확인해본다. 또한, 양팔을 겨드랑이에 고정한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숙여 유방의 출렁거림을 확인한다. 유방 주위를 문지르면서 멍울이 생겼는지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br/><br/>일반적으로 멍울은 양성과 악성(암)인 것이 감촉이 달라 확인하기 쉽다. 대체로 양성 멍울은 표면이 매끄러우며 감촉이 부드럽고 잘 움직인다. 그러나 악성은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딱딱하게 느껴진다. 자가진단 후, 유방암초기증상 등 이상 증상이 확인되면 유방암 검사병원을 찾아 적합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br/><br/>서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유방암 검진은 유방엑스레이검사(유방촬영기), 유방초음파검사, 맘모톰 조직검사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최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유방암 검사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유방암 진단과 관련해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병원으로, 암 진단과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span>”고 전했다.<br/><br/>연신내, 갈현동, 구산동을 비롯해 일산까지 아우르는 은평구 지역거점병원으로 암수술 잘하는 외과병원으로 잘 알려진 은평연세병원에서는 정확한 유방암 검진을 위한 최신 장비와 국내 최정상급의 의료진이 직접 참여하는 검진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다. 무균수술실 보유로 자체적인 수술이 가능한 대형병원으로, 유방암 진단과 동시에 보다 빠른 수술 진행이 가능하다.<br/><br/>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은평연세병원 지난해 4월 신축 병원건물로의 확장이전을 통해 응급실을 보유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최신 시설을 갖춘 80병상 규모의 입원실을 완비하고 있다.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병실 설계와 1베드 당 1TV 보유로 환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입원실 7~8층에는 각각 가온정원과 마루정원을 배치해 환자의 편안한 휴식을 도모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78.txt

제목: 다채로운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배워볼까? 제주도민웃음클럽 6기 수강생 모집  
날짜: 2016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26143015732  
본문: 병원코디네이터 양성 등 제주도 내 의료전문교육기관인 글로벌 됨 아카데미(대표 김병효)가 건강한 웃음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8주간의 마음치유프로그램 '제주도민웃음클럽'의 6기 수강생을 모집한다.<br/> <br/>의료와 관광을 겸한 의료관광 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병원코디네이터) 양성기관인 글로벌됨아카데미는 오는 3월11일부터 8주간 제주도민웃음클럽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br/> <br/>제주도민웃음클럽에서는 질환에 맞은 웃음 효능과 함께 일상 생활에서 직접 접한 사례 공유, 마음 열기, 스킨십게임, 웃음댄스, 웃음 감사나누기 등 건강하고 다채로운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br/> <br/>강사진은 병원 현장에서의 경험을 갖춘 웃음임상치료사들로 전원 구성됐다. 특히 제주웃음클럽 운영자이자 글로벌됨아카데미 대표인 김병효 대표는 20여년간 병원 의료서비스 총괄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각종 웃음치료에 대한 교육커리큘럼 개발하고 있으며 6년전 부터는 병원 내 웃음치료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br/> <br/>이같은 화려한 경력의 강사진들은 웃음임상치료 경험을 살려 이번 제주웃음클럽에서 암환자, 관절환자, 중증환자, 비만, 우울증 등 질환별 맞춤형 웃음치료를 진행하고, 근거기반의 학문적 웃음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br/> <br/>이번 제주도민웃음클럽 과정은 일반인들의 수강이 가능하다. 그동안 제주도민웃음클럽은 주로 환우와 병원관계자들 대상의 웃음치료를 위해 운영해왔으나, 이번은 임상을 통해 얻은 충분한 경험을 토대로 일반인들도 수강가능한 맞춤형 웃음 건강 치유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됐다.<br/> <br/>제주도민웃음클럽은 3월11일부터 매주 금요일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강당에서 진행된다.<br/>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64-723-0776)로 안내받을 수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79.txt

제목: 일본 고령화의 비극…치매 아내 찌르고 굶어죽은 80대  
날짜: 20160225  
기자: 도쿄 | 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25221546624  
본문: ㆍ“간병에 지쳐 살해”…열흘 넘게 식사 거부하다 결국 숨져<br/><br/>“<span class='quot0'>간병에 지쳐서 아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span>”<br/><br/>지난 5일 밤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오가와(小川)의 한 주택. 치매를 앓고 있던 부인(77)을 흉기로 살해한 구니사키 세이치(國崎誠一·83)가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알렸다. 경찰은 구니사키를 상대로 수사를 하려 했지만 구니사키는 “<span class='quot1'>치매에 걸린 아내를 간호하는 데 지쳤다</span>”는 이야기만 하고 이후 진행된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유치장에서 생활하던 구니사키는 물과 녹차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열흘 넘게 끼니를 거부하던 그는 결국 몸이 쇠약해져 17일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식사를 거부했고, 23일 오후 9시50분쯤 숨을 거뒀다.<br/><br/>구니사키의 부인은 2~3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다. 이웃 주민들은 그가 혼자서 아내를 돌봤고, 치매를 앓는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는 등 사이가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웃에 “<span class='quot1'>내 몸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span>”고 하소연하곤 했다고 25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구니사키는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한 뒤 20년 전쯤 오가와로 이사를 왔으며, 그 자신도 암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웃 여성은 “힘들다, 도와달라고 주변에 호소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NHK방송에 말했다.<br/><br/>일본 언론들은 노인이 노인을 보살펴야 하는 고령화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개호(요양보호) 시스템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다. 자식의 도움 없이 혼자 사는 고령자는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의 기구에서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게 돼 있으나, 고령이어도 부부가 동거하면 관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가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구니사키 부부에게 공공 요양보호 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연락을 취했으나 구니사키가 거절했다고 밝혔다.<br/><br/>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간병 피로로 가족을 살해했거나 살해하려고 시도한 사건은 44건이었다. 사이타마대학 사회복지 전문가 나가토모 유우(長友祐三) 교수는 “<span class='quot2'>고령자 세대, ‘노노(老老) 간병’ 부부 가정을 지원할 구조적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br/><br/><도쿄 | 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80.txt

제목: ‘포스코청암상’에 조윤제 포스텍 교수 등 선정  
날짜: 20160225  
기자: 류형열 선임기자 rh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25212518494  
본문: 포스코청암재단은 25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 포스코청암상 수상자로 과학상에 조윤제 포스텍 교수, 교육상과 봉사상에는 금오공업고등학교와 라파엘클리닉을 각각 선정했다.<br/><br/><br/>과학상에 선정된 조윤제 교수(사진)는 암과 같은 종양을 억제하는 단백질 및 단백질복합체의 구조를 규명하고, 분자생물학적 실험을 통해 손상된 DNA를 인식하고 정상 유전자로 치유해 나가는 메커니즘을 명확히 밝혀낸 과학자다. 조 교수는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할 수 있는 제미닌(geminin) 단백질의 작용도 밝혀냄으로써 암 치료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br/><br/>교육상을 받는 경북 구미 금오공업고등학교는 최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로 전환, 실업난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br/><br/>봉사상에 선정된 라파엘클리닉은 의료 소외계층인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진료소를 운영해 인간존중과 생명보호, 나눔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br/><br/>2006년 제정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포스코청암상 시상식은 다음달 30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다. 부문별 상금은 2억원이다.<br/><br/><류형열 선임기자 rh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81.txt

제목: 애플 CEO 팀 쿡 “암호 해제 프로그램? 암을 개발하라는 말”  
날짜: 20160225  
기자: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25161118530  
본문: “<span class='quot0'>어디서 멈출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나라에서 벌어져선 안 될 일이라는 건 분명히 안다.</span>”<br/><br/>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이 아이폰의 잠금 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는 연방법원의 요구에 대해 “<span class='quot1'>암을 만들어달라는 것과 같다</span>”며 24일(현지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16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테러범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을 연방수사국(FBI)가 조사할 수 있도록 잠금 해제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라고 애플에 명령했다. 하지만 쿡은 법원의 요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며, 잠금 해제 소프트웨어가 수사당국이나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br/><br/>최근 연방법원이 지난 5개월 간 15차례나 아이폰의 잠금 장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요구가 샌버나디노 사례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쿡의 주장은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쿡은 “법원이 우리에게 소프트웨어를 만들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 또 어떤 것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지 생각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감시를 위한 운영체제(OS)나 사법당국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켤 수 있는 능력까지 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기 위한 수사당국의 협조요청에 충실히 임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애플은 엔지니어와 기술적인 조언을 FBI에 제공해왔다. 애플은 법원의 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 서류를 정리해 26일 연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br/><br/>연방법원과 수사당국이 요구하는 것은 정확히 말해 암호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아이폰은 잘못된 비밀번호가 10번 입력되면 내부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사라진다. 모든 아이폰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다. FBI는 대용량 컴퓨터로 정확한 비밀번호를 찾을 때까지 다양한 조합을 입력해봐야 하는데 10번이라는 제약때문에 아직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br/><br/>시간을 단축하려는 의도도 있다. 애플은 초당 12.5개의 암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아이폰을 만들었다. 여섯자리 숫자로 이뤄진 암호라면 모든 경우의 수를 인식하는 데만도 22시간이 걸린다. 알파벳 소문자와 숫자가 섞인 6자리 조합은 약 21억 7000만가지다. 모든 조합을 시도해보려면 5년 6개월 가량 걸리는 셈이다. 만약 암호에 대문자를 사용한다면 경우의 수는 568억개로 늘어난다. 경우의 수를 입력하는 데만도 144년이 걸린다. <br/><br/>안보에 위협이 되는 테러 수사인 만큼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22일 법률전문 웹사이트 ‘로페어’에 쓴 기고문에서 “<span class='quot2'>수색영장을 통해서 아이폰을 손상하지 않고 사용자 암호를 추측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는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2'>모든 사람의 암호를 해제하거나 만능열쇠를 얻기 위한 일이 아니다</span>”고 주장했다. FBI는 애플이 마케팅 전략때문에 사법당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샌버나디노 테러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최근 애플에 테러범의 아이폰 보안기능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r/><br/>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구글의 순다 피차이, 왓츠앱의 잔 코움 등 IT업계는 대체적으로 쿡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있다. 빌 게이츠는 23일 파이낸셜 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3'>애플이 FBI의 특정 핸드폰 암호풀기 요청을 거절한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3'>정부가 정보 접근을 요청하는 특별한 경우</span>”라면서 “<span class='quot3'>경찰이 전화회사에게 통화내역을 얻으려는 것과 같다</span>”고 덧붙였다.<br/><br/><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82.txt

제목: 이호진 원장 새끼발가락통증 소건막류 교정술 도입, 치료율 향상 기여  
날짜: 2016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25120026656  
본문: 다른 신체부위에 비해 발은 노출이 적어 신체변화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때문에 발가락질환들의 경우 방치 및 간과하여 중증이상의 심각한 진행상태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소건막류이다.<br/><br/>세계정형외과 최고권위 SCI저널 AJSM과 세계족부관절학회 FAI 등에 30여편 이상 SCI 논문등재로 족부질환 치료 선도형 의료기관으로 꼽히는 연세건우병원 족부클리닉에서, 지난 2년간 소건막류 환자에 대해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약 75%가 새끼발가락이 휘고, 발이 붓는 부종 및 점액낭염 등이 동반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환자였다”고 밝혔다. 치료지연 원인에 대한 설문에서는 “소건막류에 대해 몰랐다가”53% 로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 “수술치료의 부담”과 “통증이 나아질 것을 기대”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br/> <br/>방치 시 발가락변형으로 관절염 등 합병증 유발<br/><br/>이번 임상연구를 진행해온 연세건우병원 족부클리닉 이호진원장은 “새끼발가락통증 정도인데 수술을 해야하나? 혹은 신발을 바꾸면 나아지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게 소건막류의 함정이다. 소건막류는 작은 새끼발가락에서 시작되는 통증과 변형이지만, 이 변형을 놔두게 되면 전체적인 발가락의 균형을 무너트려 발가락 전체의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 라고 전했다.<br/><br/>이어 “사람의 몸은 ‘댐’에 비유할 수 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일지라도 작은 균열이나 구멍 하나만으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육체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내딛는 발의 경우 작은 문제가 보행 불균형을 가져오며, 관절 질환의 1차적 원인이 된다.”라고 덧붙였다.<br/><br/>소건막류, 뼈 깎는 고통 없이 교정술로 편안하게<br/> <br/>우리가 흔히 극심한 고통을 비유할 때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한다. 기존 소건막류 치료가 그러하였다. 이호진원장은 “소건막류는 환자들의 치료인식도가 낮다는 것도 문제지만, 수술진단을 받고 나서 수술 후 심한 통증부담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뼈를 깎아내는 통증이 없는 교정술이다. 교정술은 기존 뼈 제거에 초점을 맞춘 술식과 달리 변형된 뼈를 내측으로 교정해주는 방식이다.”고 전했다.<br/><br/>이어 “따라서 교정을 위해 극소수의 뼈만 제거하게 된다.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크게 경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뼈 절제를 최소화 하고 핀 제거를 위한 추가적 마취 및 수술도 필요 없다. 기존 술식에서는 과도한 뼈절제로 인해서 외반변형 및 갈퀴족지등의 문제가 야기되었으나, 교정술의 경우는 절제가 최소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같은 합병증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라고 덧붙였다.<br/><br/>실제로 이호진 원장이 소건막류 환자에 시행한 교정술이란 주제로 발표한 후향적 임상 연구결과에서는 “<span class='quot0'>기존 수술의 경우 평균 6일 이상의 입원기간이 소요되었으나 교정술의 경우 약 2.1일 정도로 3배 이상의 입원 기간 단축 효과를 보였으며, 추적관찰기간 동안 사고 및 부상으로 인한 외상환자 1.7%를 제외한 98.3%의 환자가 모두 재발 문제 없이 완치하였다</span>”고 밝혔다.<br/><br/>현재 연세건우병원 이호진 원장의 소건막류 교정술의 시행과, 현재도 진행 중인 임상 연구는 학계의 큰 관심과 함께 치료율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현재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평균 수명을 점차 늘어나고, 따라서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의 관심을 5대 암 치료 및 난치성 질환에만 쏟기보다는, 소건막류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야 말로 100세 시대에 맞는 진정한 건강관리법일 것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83.txt

제목: 치매 아내 간병에 지쳐 살해한 80대, 18일간 식사 거부해 목숨 끊어  
날짜: 20160225  
기자: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25101436026  
본문: “<span class='quot0'>간병에 지쳐서 아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span>”<br/><br/>지난 5일 밤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오가와(小川)의 한 주택. 치매를 앓고 있던 부인(77)을 흉기로 살해한 구니사키 세이치(國崎誠一·83)가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알렸다. 경찰은 구니사키를 상대로 수사를 하려 했지만 “<span class='quot1'>치매에 걸린 아내를 간호하는데 지쳤다</span>”는 이야기만 하고 이후 진행된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유치장에서 생활하던 구니사키는 물과 녹차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열흘 넘게 끼니를 거부하던 그는 결국 몸이 쇠약해져 지난 17일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식사를 거부했고, 지난 23일 오후 9시50분쯤 숨을 거뒀다. <br/><br/>구니사키의 부인은 2~3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다. 그는 혼자서 아내를 열심히 간호하면서 생활했다. 이웃 주민들은 그가 치매를 앓는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는 등 사이가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웃 주민들에게 “<span class='quot1'>내 몸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span>”고 하소연하곤 했다고 25일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구니사키는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한 뒤 20년 전쯤 오가와로 이사를 왔으며, 그 자신도 암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br/><br/>경찰은 부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구니사키가 경찰에 체포된 뒤 다시 자신의 목숨을 끊기 위해 식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노인이 노인을 보살펴야 하는 고령화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이웃 여성은 “힘들다, 도와달라고 주변에 호소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NHK방송에 말했다. <br/><br/>노인개호(요양보호) 시스템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다. 자식의 도움 없이 혼자 사는 고령자는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의 기구에서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게 돼 있으나, 고령이어도 부부가 동거하고 있으면 관찰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가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구니사키 부부에게 공공 요양보호 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연락을 취했으나 구니사키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br/><br/>일본에서는 간병에 지친 가족이 환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간병 피로로 가족을 살해했거나 살해하려고 시도한 사건이 44건이었다. 지난달에는 기후(岐阜)시에서 85세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77세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타마대학 사회복지 전문가 나가토모 유우(長友祐三) 교수는 “<span class='quot2'>고령자 세대, ‘노노(老老) 간병’ 부부 가정을 지원할 구조적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br/><br/><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84.txt

제목: 간암 검진주기 6개월로…자궁경부암 검진 20세부터  
날짜: 20160223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23220034992  
본문: ㆍ암관리법 시행령 개정<br/><br/>간암의 검진 주기가 6개월 단축되고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이 종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br/><br/>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br/><br/>개정령안에 따라 짝수연도에 출생한 20~29세 여성은 올해, 홀수연도에 출생한 20~29세 여성은 내년에 무료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br/><br/>간암의 검진 주기는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검진 대상은 40세 이상 성인 중 간경변증 환자나 B형 간염 항원 양성자, C형 간염 항체 양성자,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이며, 간 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로 검진하게 된다. <br/><br/>자궁경부암 검진 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전액 무료다. 나머지 4대암(위·간·대장·유방암) 검진은 소득 하위 50%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전액 지원되며 상위 50% 가입자에게는 90% 지원된다. 소득 상위 50% 가입자는 검진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4대암에 자궁경부암을 포함한 5대암 검진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br/><br/>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7대암 검진 권고안 중 자궁경부암과 간암 검진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검진 주기와 연령 변경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간암·자궁경부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의 검진 기준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85.txt

제목: 고령·유병자도 100세 보장 삼성 ‘간편·건강 보험’ 출시  
날짜: 20160223  
기자: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23213020364  
본문: 삼성화재는 고령층과 유병자(50~75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간편하게 건강하게’를 최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계약자의 ‘알릴 의무사항’을 간소화했으며 10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 검사(재검사) 의사소견,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수술, 5년 이내 암 진단·입원 및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통원 치료를 받거나 정기적으로 약을 먹더라도 따로 고지할 필요가 없다. 상해·질병 사망 시 최고 3000만원,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br/><br/><br/><br/><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86.txt

제목: 교보생명 ‘DIY’형 보험 출시  
날짜: 20160222  
기자: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22215030619  
본문: 교보생명은 고객이 나이와 라이프스타일, 경제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DIY’형 보험인 ‘내 생활에 맞춘 보장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사망을 보장하는 주계약과 생활보장특약(4종), 일반특약(7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고객은 이 계약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립해 가입할 수 있다. <br/><br/>생활보장특약은 상해, 암, 2대 질병, 간병플랜 중 1개 이상을 가입해야 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큰 질병이나 재해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진단비와 함께 3년 동안 매월 생활비를 지원한다.<br/><br/><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87.txt

제목: “위대한 스승이자 열정적 작가를 잃었다”  
날짜: 20160221  
기자: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21231245005  
본문: ㆍ움베르토 에코 별세…‘살아있는 백과사전’ 인문학 방대한 업적 <br/>ㆍ하퍼 리 별세…인종차별 고발한 ‘앵무새 죽이기’로 퓰리처상<br/><br/>“<span class='quot0'>그는 살아있는 ‘위대한 백과사전’이었으며, 젊은이들에게 경이로운 것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 사람이었다.</span>” “<span class='quot0'>도서관은 독자를, 대학은 교수를, 문학계는 열정적인 저술가를 잃었다.</span>”<br/><br/>소설 <장미의 이름>과 에세이집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등을 써 국내 팬층도 두꺼운 이탈리아 작가 겸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가 20일(현지시간) 84세로 세상을 떠났다.<br/><br/>때로는 위트로, 때로는 신랄한 비판으로 인간과 세상의 단면을 묘사한 작가의 사망에 세계에서 애도가 쏟아졌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ANSA통신에 “<span class='quot1'>과거를 통찰하는 지성과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구현한 인물이었다</span>”고 말했다. <장미의 이름>을 영화로 만든 프랑스의 장 자크 아노 감독은 “<span class='quot2'>그는 놀라운 에너지를 지닌 매력적인 사람이었다</span>”고 AFP통신에 회고했다.<br/><br/>에코는 2년간 암 투병을 해오다 이날 밤 밀라노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대중에게는 소설가로 알려져 있지만 인문학의 여러 분야를 깊이 통찰한 시대의 지성이었다. 대표작 <장미의 이름>은 1980년에 출간돼 40개 언어로 번역됐으며 5000만부 이상 팔렸다. <br/><br/>미국 대공황시대 인종차별을 그린 역작 <앵무새 죽이기>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은둔의 작가’ 하퍼 리도 19일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960년 출간된 <앵무새 죽이기>는 미국과 세계에서 4000만부 넘게 팔렸고 1962년 영화로 만들어졌다.<br/><br/><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88.txt

제목: "그는 위대한 백과사전이었다" 세상 떠난 움베르토 에코와 하퍼 리  
날짜: 20160221  
기자: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21170809096  
본문: “<span class='quot0'>그는 살아있는 ‘위대한 백과사전’이었으며, 젊은이들에게 경이로운 것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 사람이었다.</span>” “<span class='quot0'>도서관은 독자를, 대학은 교수를, 문학계는 열정적인 저술가를 잃었다.</span>”<br/><br/>소설 <장미의 이름>과 에세이집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등을 써 국내에도 팬층이 두터운 이탈리아 작가 겸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가 20일(현지시간) 84세로 세상을 떠났다. 때로는 위트로, 때로는 신랄한 비판으로 인간과 세상의 단면을 묘사한 작가의 사망에 세계에서 애도가 쏟아졌다. <br/><br/>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ANSA 통신에 “<span class='quot1'>과거를 통찰한 독특한 지성과 미래를 내다보는 지칠 줄 모르는 능력을 구현한 인물</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우리는 그의 작품과 목소리, 날카롭고 살아있는 사고, 인간됨을 그리워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일간 라레푸블리카는 “세계는 현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를 잃었다”라고 표현했다. <장미의 이름>을 영화로 만든 프랑스의 장 자크 아노 감독은 “우리는 함께 여러 수도원을 방문했다. 그는 놀라운 에너지를 지닌 매력적인 사람이었다”고 AFP통신에 회고했다. 199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이탈리아 극작가 다리오 포는 에코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부패와 추문을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span class='quot2'>그는 항상 아첨하는 이들과 거리를 뒀다</span>”고 말했다.<br/><br/>현지 일간 라스탐파 등에 따르면 에코는 2년 간 암 투병을 해오다 이날 밤 밀라노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1932년 북서부 피에몬테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에코는 중세철학과 문학을 전공한 뒤 강단에서 미학, 건축학, 기호학 등을 가르쳤다. 대중들에게는 소설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인문학의 여러 분야를 깊이 통찰한 시대의 지성이었다. 그는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을 언어에도 통달했다. 대표작 <장미의 이름>은 1980년에 출간돼 전세계 40개 언어로 번역돼 5000만부 이상이 팔렸다. 에코는 지난해 협박과 진흙탕 싸움을 일삼는 언론과 이탈리아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린 마지막 작품 <누메로 제로>를 탈고했으며, 이 책은 오는 6월 국내에서도 출간된다. 미국 대공황시대 인종차별을 그린 역작 ‘앵무새 죽이기’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은둔의 작가’ 하퍼 리도 19일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960년 출간된 ‘앵무새 죽이기’는 미국과 세계에서 4000만부 넘게 팔렸고 1962년 영화로 만들어져 그레고리 펙에게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안겼다. 하퍼 리는 ‘앵무새 죽이기’를 쓴 후 고향에서 칩거하며 더 이상 작품을 출간하지 않았다.<br/><br/><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89.txt

제목: 움베르토 에코 마지막 소설 <누메로 제로>...6월 한국에서 출간  
날짜: 20160221  
기자: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21102355160  
본문: 지난 19일(현지시간) 타계한 세계적 석학 움베르토 에코의 마지막 소설이 오는 6월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다.<br/><br/>출판사 열린책들은 에코의 장편소설 <창간준비호>(가제)를 오는 6월 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탈리아에서 지난해 1월 나온 이 책의 원제는 no.0을 뜻하는 <Numero Zero(누메로 제로)>다.<br/><br/>미디어 정치와 언론의 세계를 풍자한 이 소설은 이세욱 번역가가 옮긴다. 이 소설은 사실을 보도하기보다 협박과 진흙탕 싸움을 일삼는 언론을 겨냥하며 이탈리아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다.<br/><br/>1992년 이탈리아에서 한 언론매체가 만들어지고, 창간 멤버 중 한 명이 ‘무솔리니가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에코는 1945년부터 1992년까지 역사를 추적하며 왜 거짓이 만들어지는지, 대중이 거짓에 어떻게 현혹되는지를 그린다. <br/><br/>열린책들 측은 “<span class='quot0'>에코는 소설에서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들의 몰락을 그리며 평소 지향하는 바를 드러낸다</span>”며 “<span class='quot0'>에코가 타계하면서 그가 출간한 일곱번째 소설이자 마지막 소설이 됐다</span>”고 설명했다.<br/><br/>‘20세기 최고의 지성’으로 불린 에코는 암으로 투병하다 이탈리아 자택에서 타계했다.<br/><br/><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90.txt

제목: ‘장미의 이름’ 이탈리아 대표지성 움베르토 에코 별세  
날짜: 20160220  
기자: 디지털뉴스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20143600574  
본문: 소설 ‘장미의 이름’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 작가이자 기호학자인 움베르토 에코가 별세했다고 연합뉴스가 외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향년 84세. <br/><br/>AFP와 dpa통신은 2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언론을 인용, 에코의 가족이 그의 사망 사실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일간 라레푸블리카는 오랜 기간 암과 싸워온 에코가 19일 오후 9시30분쯤 이탈리아의 자택에서 숨졌다고 보도했으나 그의 자택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br/><br/>학자이자 작가인 에코는 ‘장미의 이름’과 ‘푸코의 추’ 등의 소설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거장이다. 대중에는 주로 소설가로 알려졌지만 문학뿐 아니라 역사와 철학, 미학, 기호학, 문화 비평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약한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으로 꼽힌다. <br/><br/>그는 1932년 이탈리아 북서부 피에몬테 주(州)의 알레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에 가톨릭 계열 학교에서 수학했다.<br/><br/>법학을 공부하라는 부친의 바람에도 에코는 토리노대에서 중세 철학과 문학을 전공했다.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에 대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그는 TV 방송국에서 문화 담당 에디터 등으로 일하면서 1950년대 중반부터 강단에 서기 시작했다. 토리노대와 밀라노대, 피렌체대 등에서 미학과 건축학, 기호학 등을 가르쳤으며 1971년부터는 볼로냐대에 몸담았다. <br/><br/>철학부터 컴퓨터, 영상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지식을 쌓은 그는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비롯해 영어·불어·독일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등에도 통달한 ‘언어의 천재’이기도 하다.<br/><br/>에코는 학자로서 기호학 분야에서 일찍부터 인정을 받았으나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계기는 1980년에 펴낸 첫 소설 ‘장미의 이름’이었다. 이 소설은 중세 말 수도원을 무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의 필사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연쇄 살인사건을 추리기법으로 다루고 있다. ‘장미의 이름’은 에코의 방대한 지식이 담긴 현학적 내용과 중층적인 전개방식 탓에 독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음에도 세계적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br/><br/>아마존에 따르면 이 작품은 40여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적으로 5000만부 이상이 팔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1400만부가 판매됐다고 전했다.<br/><br/>1986년에는 한국에 소개돼 ‘에코 바람’을 몰고 왔다. 1989년에는 유명 배우 숀 코너리와 크리스천 슬레이터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인기를 끌었다.<br/><br/>그가 1988년 두 번째로 내놓은 소설 ‘푸코의 추’도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밖에 ‘중세의 예술과 미학’, ‘기호학 이론’, ‘독자의 역할’, ‘기호학과 언어철학’, ‘해석의 한계’ 등 그가 남긴 학술 이론서들도 주목을 받았다. <br/><br/>이런 박학다식함과 다재다능한 면모에 대해 에코는 한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철학자로 정의하면서 “소설은 주말에만 쓴다”고 말했다고 영국 BBC방송은 전했다. <br/><br/>에코는 지난해 일곱번째이자 마지막 소설인 ‘누메로 제로’(Numero Zero)를 출간하는 등 최근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이 소설에서 타블로이드 언론과 음모론 등을 다루며 현대 이탈리아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br/><br/>그는 미디어 재벌 출신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부패와 전횡을 두고 히틀러나 카다피에 비유하는 등 현실 정치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br/><br/>에코는 생전에 밀라노의 아파트에서 주로 생활했다. 소문난 다독가로 밀라노 자택에 3만권, 우르비노 외곽의 별장에는 2만권의 책을 두는 등 방대한 장서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br/><br/>그는 1962년 결혼한 독일인 미술 교사 레나테 에코와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한명씩 뒀다. <br/><br/>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에코에 대해 “<span class='quot0'>유럽 지성에서 드물게 탁월한 사례</span>”라면서 “<span class='quot0'>그는 과거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무궁무진한 미래 예측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었다</span>”고 기렸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91.txt

제목: [TV 하이라이트]2016년 2월 20·21일  
날짜: 20160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19200436641  
본문: ■파란 눈의 ‘봉무동 초보 농사꾼’<br/><br/>글로벌 가족 정착기(EBS 토 오후 10시35분) = 자급자족 유기농 생활을 꿈꾸던 미국인 초보 농사꾼 스매더스를 1년 만에 다시 만나본다. 그는 여전히 오래된 전원주택에서 지내며 아내 이성은씨, 아들 노아군과 함께 행복한 시골 생활을 즐긴다. 모처럼 내린 눈에 신나는 눈싸움부터 닭장을 옮기는 대청소까지 변함없이 시끌벅적하다. 하지만 시골 생활이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정신없는 틈을 타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시골집을 두고 스매더스와 아내 사이에 새로운 갈등까지 생긴다. 과연 그들이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본다.<br/><br/>■불로장생의 꿈, 텔로미어가 이뤄줄까<br/><br/>궁금한 일요일 장영실 쇼(KBS1 일 오후 8시) = 생명 연장의 단서가 되는 텔로미어에 대해 알아본다.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끝부분으로 세포가 분열할 때 DNA 정보가 복제되도록 돕는다.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줄어들고, 다 닳으면 인간은 죽게 된다. 텔로미어의 길이를 보호하고 연장시켜주는 텔로머레이스 효소가 있지만 이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갖고 있다. 작년 2월, 미국의 연구진은 변형한 텔로머레이스로 암 발병 없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였다. 국내 연구진도 텔로머레이스 없이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한다.<br/><br/>■“부모 돼보니 내게 하는 투자 아까워”<br/><br/>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SBS 일 오전 8시20분) = 아버지 윤선대씨를 위한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다는 윤미선씨의 사연에 배우 박정수가 함께한다. 선대씨는 10년째 주말, 공휴일 없이 밤새 중학교를 지키며 가족들을 위해 묵묵히 일해왔다. 딸 미선씨는 “아버지는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아오셨다. 스스로에게는 인색한 아버지였다”며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전한다.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박정수는 “<span class='quot0'>내가 부모가 되어보니 나에게 투자하는 것은 아깝고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span>”고 미선씨에게 말을 건넨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92.txt

제목: ‘평화운동가’ 정의행 호남평화인권사랑방 의장 별세  
날짜: 20160217  
기자: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17213728749  
본문: ‘세월호 3년 상을 치르는 광주시민모임’에서 활동하며 세월호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왔던 정의행(본명 정철) 호남평화인권사랑방 의장이 16일 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58세.<br/><br/>정 의장은 지난해 9월 급성 백혈구암이 발병해 그동안 화순전남대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아왔지만 최근 병세가 악화됐다. 암이 발병하기 전까지 정 의장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희생자 가족 지원, 인양 촉구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펼쳤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하며 느낀 단상들을 담은 시집 <노란 리본>을 출간하기도 했다.<br/><br/><br/>‘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리던 고인은 수십년 동안 생명평화운동을 펼쳐왔다. 전남 순천 출신인 그는 한때 출가했다가 환속한 뒤 공단 노동자로 생활하던 중 5·18민주화운동과 진상규명 운동 등에 참여해 투옥되기도 했다. <br/><br/>1987년 6월 항쟁 때는 지선 스님, 법성 스님 등과 함께 불교계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2003년부터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공동대표와 반전평화운동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에 전념했다.<br/><br/>불교에 심취해 <한국불교통사> <인물로 보는 한국불교사>를 출간하기도 했으며 투병 중이던 올해 초에는 광주불교연합회 빛고을 불자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고인의 장례는 ‘의행 장례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치러지며, 유해는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된다. 빈소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 오전 10시다.<br/><br/><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93.txt

제목: 무책임, 무개념 슈퍼히어로 <데드풀>  
날짜: 20160217  
기자: 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17093934281  
본문: 각양각색의 슈퍼히어로 영화가 나오고 있다. 옛 슈퍼히어로들에겐 용기, 헌신, 정의감이 필수 덕목이었지만, 요즘 히어로들은 복수심, 공명심, 편집증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br/><br/>‘데드풀’은 그중에서도 정도가 심하다. 17일 개봉한 <데드풀>은 가장 안티히어로적인 슈퍼히어로 영화라 할만하다. 전직 특수부대원 웨이드 윌슨(라이언 레이놀즈)은 푼돈을 받는 해결사로 살아간다. 단골 술집에서 만난 연인 바네사 칼리슨(모레나 바카린)과는 침대 위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미래를 약속한 사이다. 어느날 윌슨은 불치의 암에 걸렸다는 청천벽력같은 선고를 받는다. 그런 윌슨에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은밀히 접근해 암 치료를 위한 비밀 실험을 제안한다. 윌슨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실험에 참가해 온갖 고통을 겪는다. 결국 윌슨은 강력한 자기 치유력을 가진 히어로로 거듭나지만, 부작용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갖는다. 데드풀이라는 이름의 히어로로 다시 태어난 그는 자신을 고통에 빠트린 악당을 찾아나선다. <br/><br/><br/><br/><데드풀>은 오프닝 크레디트부터 작정하고 ‘B급 유머’를 선보인다. 배우, 스태프는 진짜 이름 대신 ‘감독: 돈만 많이 처받는 초짜’(실제 이 영화는 신인 팀 밀러가 연출), ‘제작: 호구들’ ‘쓰잘데기 없는 카메오’ 등으로 표기된다.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 출발하는 첫 장면도 우스꽝스럽다. 데드풀은 다른 슈퍼히어로처럼 날거나, 첨단 기술로 무장한 탈 것에 오르는 대신, 노란 택시에 탑승해 인도인 기사의 인생 상담을 들으며 사건 현장으로 떠난다.<br/><br/>데드풀은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엑스맨 등을 배출한 미국의 마블 코믹스 소속이다. 원작 만화 속 데드풀은 자신이 만화 캐릭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슈퍼히어로였다. 영화 <데드풀>도 비슷하다. 수다스러운 데드풀은 끝없이 다른 슈퍼히어로 주인공들을 언급하며, 20년 이상 활황세인 할리우드산 슈퍼히어로 영화에 익숙한 관객들을 즐겁게 한다. 예를 들어 <데드풀>에는 <엑스맨> 시리즈를 통해 익숙해진 ‘자비에 영재학교’가 나온다. 이 학교에 들른 데드풀은 엑스맨 소속의 히어로 콜로서스와 네가소닉 틴에이지 워헤드를 만난 뒤 말한다. “집이 이렇게 큰데 달랑 둘이야? 나머지 엑스맨은 출연료가 모자라 못나오나?”한국에서는 청소년 관람불가, 미국에서는 R등급을 받은 영화답게 피가 튀고 인체가 절단되고 성적 유머가 난무한다. 지난해 <킹스맨>은 이같은 코드를 썼음에도 큰 인기를 누렸지만, 그때는 킹스맨 집단이 가진 대의, 영국 귀족식 매너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 하지만 <데드풀>은 별다른 포장 없이 폭력과 성의 코드를 노출한다. 점잖은 연인이 ‘데이트 무비’로 선택한다면, 얼굴을 붉힌 채 극장문을 나설지도 모르겠다. <br/><br/>한국보다 1주 먼저 개봉한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지에선 가볍게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2편 제작도 이미 확정됐다. 엔딩 크레디트가 끝난 뒤 나오는 쿠키 영상도 챙겨볼만 하다.<br/><br/><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94.txt

제목: 서울대병원 문형곤 교수팀 “전이성 유방암 생존기간 크게 늘어”  
날짜: 20160217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17002251095  
본문: 전이가 발생한 4기 유방암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br/><br/>서울대병원 외과 문형곤 교수팀은 1998~2010년에 치료받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데이터를 분석했다. 2000년대초 19개월, 2000년대 중반 2년 이상, 2000년대 말 39개월로 2000년대 초반보다 2배 이상 향상된 생존률을 보였다.<br/><br/>전이는 암이 처음 발생한 장기 이외 다른 체내장기로 이동해 암이 자라는 현상으로, 통상적으로 전이가 발생한 경우 완치가 불가능한 4기암으로 받아들여진다.<br/><br/>이번 연구는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 547명의 자료를 토대로 했다. 장기생존을 달성한 환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진단 당시의 병기, 암의 호르몬수용체 여부, 증식성 정도가 중요한 예측인자였다. 재발까지의 기간, 전이병변의 위치, 증상유무 역시 전이 이후의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쳤다.<br/><br/>문 교수팀은 이를 기반으로 전이 후 생존예측 모델을 개발, 국립암센터, 분당서울대병원, 단국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국내 여러 다기관의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자료에 적용시킨 결과 그 유효성이 검증됐다.<br/><br/>문 교수는 “<span class='quot0'>이 모델링을 통해 장기생존이 가능한 환자 선별이 가능해졌다</span>”며 “<span class='quot0'>유방암치료 수준의 향상 및 신약 보급확대가 가장 생존율 향상의 원인으로 판단된다</span>”고 밝혔다.<br/><br/>이 연구는 국립암센터 암정복사업 및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발간하는 국제 암학술지(Annals of Oncology) 온라인에 지난 1월 게재됐다.<br/><br/>경향신문이 연재하는 <명의예감>에 따르면, 문 교수는 2012년 의학계 권위상인 분쉬의학상(젊은의학자상 임상부문)을 받았다. 조기유방암 환자에서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여부를 파악하는 새로운 수술법인 ‘감시림프절 검사법’이 기존의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과 비교하여 장기적 치료 성적이 뒤지지 않는 우수한 수술법임을 입증한 공로다.<br/><br/>문 교수는 한국인 유방암 환자 4만 5000여명의 생존자료를 이용한 연구논문을 2010년 저명한 국제학술지(Journal of Clinical Oncoogy)에 발표하기도 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95.txt

제목: [58회 그래미어워드 시상식] 11개 올라 5개 탄 켄드릭 라마 ‘최고의 상’은 다음 기회에  
날짜: 20160216  
기자: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16213036094  
본문: ㆍ‘올해의 앨범’ 테일러 스위프트 수상<br/><br/>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스테이플스센터에서 ‘58회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이 열렸다. 한국에선 16일 오전 10시부터 Mnet의 독점 생중계로 시상식이 방송되고 배철수, 임진모 음악평론가, 통역사 태인영이 진행을 맡았다.<br/><br/>당초 그래미 어워드 11개 부문에 후보로 오르면서 한껏 기대를 모은 켄드릭 라마(위 사진)는 최우수 랩 앨범, 최우수 랩, 최우수 랩 퍼포먼스 등 5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기염을 토했다. 한 뮤지션이 이렇게 여러 부문에 이름을 올린 것은 그래미 역사상 2번째다. 역대 최고는 12개 부문 후보에 동시에 오른 마이클 잭슨이다. <br/><br/><br/><br/>하지만 이번 그래미상에서 켄드릭 라마는 아쉽게도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노래’ ‘올해의 앨범’ 등의 수상에는 실패하면서 주요 부문 수상은 놓치게 됐다. <br/><br/>이날 ‘올해의 노래’ 부문은 에드 시런의 ‘싱킹 아웃 라우드(Thinking Out Loud)’가 수상했다. 또 ‘올해의 앨범’은 테일러 스위프트, ‘올해의 레코드’는 마크 론슨에게 각각 돌아갔다.<br/><br/>한편 이번 시상식에선 팝가수 저스틴 비버가 데뷔 후 처음으로 ‘베스트 댄스 레코드’ 부문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또 베스트 컨트리 앨범상은 ‘트래블러(Traveler)’를 부른 크리스 스테이플턴이 수상했다. <br/><br/><br/><br/>이날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에서는 얼마 전 급작스레 암으로 타계한 데이비드 보위, 팝의 전설인 라이오넬 리치 등에게 바치는 헌정 공연이 이어졌다. 존 레전드는 ‘이지(easy)’(1977)를 부르며 무대에 등장했고, 이어 나온 데미 로버트는 ‘헬로(Hello)’를 열창했다. 이외에 루크 브라이언, 메간 트레이너, 타이레스 등이 라이오넬 리치의 유명 히트곡들을 차례로 불렀다.<br/><br/>그래미 어워드는 전미국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NARAS)에서 매년 봄 주최하는 세계적인 권위의 음악 시상식이다.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 베스트 팝 보컬, 최우수 신인 등 총 83개 부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br/><br/><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96.txt

제목: [진화의 창] 왜 운동은 고역인가  
날짜: 20160216  
기자: 전중환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진화심리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16203956281  
본문: 많은 이들이 설 연휴를 보내며 새해 세운 결심을 다시 벼린다. 규칙적인 운동과 다이어트를 다짐했던 굳은 심지는 어느새 눈처럼 녹았다. 작심삼일을 극복하려면 삼일마다 작심하면 된다지만, 그리 대단한 묘책 같지는 않다. 사실, 보통 사람들에게 운동은 귀찮고 짜증 나고 힘들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걸으라지만 그조차 실행하긴 쉽지 않다. 이를테면, 필자의 연구실은 9층에 있다. 같은 층에 있는 동료 교수님들은 운동 삼아 가끔 계단을 이용한다. 고백하건대 필자는 9층까지 일부러 계단으로 다닌 적이 한 번도 없다. 솔직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br/><br/>대체 왜 운동은 이처럼 고역일까? 운동이 최고의 명약임은 누구나 다 안다. 권위 있는 전문의들은 입을 모아서 규칙적인 운동이야말로 암, 당뇨, 심장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의 열쇠임을 강조한다. 자신의 건강을 이토록 혁혁하게 지켜주는 운동을 왜 사람들은 기를 쓰고 멀리하는 걸까? 하버드대학의 진화생물학자 대니얼 리버먼이 저서 <인간 몸의 이야기>(국내 미번역)에서 내놓은 설명을 들어보자.<br/><br/>먼저 좋은 소식이다. 영장류 중에서 아주 유별나게, 인간의 몸은 장거리 달리기나 걷기처럼 지구력이 필요한 신체 활동을 매우 잘하게끔 진화하였다. 나무 위에서 생활했던 우리의 먼 영장류 조상은 별로 몸을 쓰지 않았다. 이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침팬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침팬지는 온종일 고작 3㎞ 정도 걷고 100m쯤 뛰고 나무를 한두 개 탄다. 반면에 칼라하리 사막에서 수렵-채집을 하는 부시맨들은 매일 무려 9~15㎞를 걷거나 뛴다.<br/><br/>인간이 장거리 육상선수로 진화한 까닭은 약 300만년 전 시작된 수렵-채집 생활 때문이다. 화살, 창 같은 사냥 도구가 생기기 전 한참 동안, 인간은 사냥감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무작정 끈질기게 쫓는 사냥법에 의존했다. 너무 무식한 방법 같은가? 실은 꽤 쓸 만한 방법이었다. 인간은 땀을 내서 열을 낮추지만, 네발 포유동물은 혀를 내밀고 헉헉대서 열을 낮춘다. 그런데 포유동물이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헉헉댈 수는 없다. 결국, 인간에게 쫓기느라 오래 달린 사냥감은 어느 순간 체온을 낮추고자 달리기를 멈추고 헉헉댈 수밖에 없다. <br/><br/>실제로 인간의 몸을 찬찬히 살펴보면 장거리 달리기에 적합한 적응 기관들이 장착되어 있다. 짧은 발가락은 달릴 때 충격을 줄여주고, 아킬레스건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일거에 터뜨리고, 두툼한 엉덩이 근육은 흔들리는 몸통을 잡아준다.<br/><br/>이제 나쁜 소식이다. 우리 조상들이 수렵-채집으로 얻을 수 있었던 에너지의 양은 항상 빠듯했기에 인간은 불필요한 신체 활동을 가능한 한 줄이고 틈만 나면 쉬는 성향도 아울러 진화시켰다. 즉, 게으름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적응이다. (그러니 맘껏 게으름 피워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아직껏 남아있는 수렵-채집민들은 산업사회를 사는 현대인보다 매일 두 배 더 돌아다니고 고작 2200㎈ 정도만 얻는다. 이처럼 에너지 섭취량이 적은 상황에서는 신체 활동을 되도록 억제하는 것이 번식에 유리했다.<br/><br/>자연 선택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운동을 좋아하게 만들 이유가 없었다. 인류의 진화 역사 내내 우리 조상들은 그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항상 분주히 몸을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다. “<span class='quot0'>운동이 성인병 예방에 좋다니 오후엔 조깅이나 갔다 올까</span>”라고 팔자 좋게 중얼거릴 수 있었던 진화적 조상은 없었다.<br/><br/> 몇 년 동안 의자에 파묻혀 살면서도 굶주릴 걱정 따윈 하지 않는 생활은 산업화 이후에야 비로소 퍼졌다. 이 낯설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자연 선택이 제대로 대처할 시간은 없었다. <br/><br/><br/><br/>요약하자. 인간은 틈만 나면 쉴 궁리를 하는 장거리 육상선수로 진화했다. 게으름은 숨쉬기 못지않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다. 에너지 섭취량이 늘 아쉬웠던 진화적 과거에는 되도록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장기간 몸을 쓰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게 된 오늘날, 이 본능은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br/><br/>이는 무얼 의미하는가?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내 마음이 끌리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을 억지로, 의식적으로나마 해야 한다고 리버먼은 강조한다. 건물에 들어섰을 때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눈에 함께 들어오면, 우리의 뇌는 엘리베이터가 마치 천국행 입장권인 양 유혹할 테니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다. (매번 유혹에 넘어간 필자는 지금 반성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진화적 조상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때나, 혹은 일종의 놀이로서 재미를 느꼈을 때만 신체 활동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몸을 안 쓰려야 안 쓸 수 없게끔 우리를 둘러싼 주거, 업무 환경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나 직장, 공공장소에서 신체 활동이 즐거운 놀이로서 자연스럽게 더 많이 행해지게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운동 부족과 비만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진화된 인간 본성이 그 원인이다. 해결책도 진화된 인간 본성에 있다.<br/><br/><전중환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진화심리학>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97.txt

제목: 2016 그래미 어워드…켄드릭 라마, 에드 시런 등 수상  
날짜: 20160216  
기자: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16115355187  
본문: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 LA스테이플스센터에서 ‘58회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the 58th Annual GRAMMY Awards)’이 열렸다. 이번 그래미 어워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화려한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다.한국에선 16일 오전 10시부터 Mnet의 독점 생중계로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이 방송되고 배철수, 임진모 음악평론가, 통역사 태인영의 진행을 맡았다.<br/><br/>이날 베스트 랩 앨범 부문의 그래미 어워드는 켄드릭 라마의 ‘두 핌프 어 버터블라이(To Pimp A Butterfly)’가 선정됐다.<br/><br/>수상 후 켄드릭 라마(사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span class='quot0'>내 뿌리,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span>”고 소감을 말했다.베스트 컨츄리 앨범상은 ‘트래블러(Traveler)’를 부른 크리스 스테이플턴이 수상했다. 이어 올해의 노래 상은 애드 시런의 ‘싱킹 아웃 라우드(Thinking Out Loud)’가 수상했다. 해당 시상은 스티비 원더와 펜타토닉이 진행했다. 스티비 원더는 수상자 발표 직전 수상자 이름이 적힌 카드를 손으로 가리며 “당신들은 이거 못보죠?”라며 익살스레 농담을 던져 좌중을 폭소케했다. <br/><br/>이날 시상식에선 라이오넬 리치의 헌정 무대가 꾸려졌다. 존 레전드는 ‘이지(easy)’(1977)를 부르며 무대에 등장했다. 이에 이어 무대에 등장한 데미 로버트는 ‘헬로(Hello)’를 열창했다. 이외에 루크 브라이언, 메간 트레이너, 타이레스 등이 라이오넬 리치의 유명 히트곡들을 차례로 부르며 등장했다. <br/><br/>레이디 가가도 이날 시상식에서 최근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뜬 데이빗 보위에게 헌정하는 추모 무대도 이어질 예정이다.<br/><br/>‘그래미 어워드’는 전미국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NARAS:Nation Academy of Recording Arts & Science)에서 매년 봄 주최하는 세계적인 권위의 음악 시상식이다.<br/><br/>올해의 레코드(Record Of The Year), 올해의 앨범(Album Of The Year), 올해의 노래(Song Of The Year), 베스트 팝 보컬(Best Pop Vocal Album), 최우수 신인(Best New Artist) 등을 포함해 총 83개 부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br/><br/><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98.txt

제목: "후쿠시마 아동 갑상선암 비율 수십배 높아"  
날짜: 20160216  
기자: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16094121699  
본문: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할 때 18세 이하이던 후쿠시마현 지역 아동 가운데 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전국의 일반적인 발병률에 비해 수십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br/><br/>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현건강조사검토위원회는 지난 15일 개최된 회의에서 원전사고 당시 후쿠시마현에 거주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br/><br/>이번 조사에서는 116명이 갑상선암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50명은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갑상선암에 걸렸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암 확정 또는 암 의심자 166명 가운데 51명은 사고 발생 후 약 3년간 시행된 첫 번째 조사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 이상이 확인됐다.<br/><br/>검토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후쿠시마현의 감상선암 발병률은 전국의 갑상선암 발병률에 비해 수십 배 높다’는 사실을 큰 틀에서 승인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br/><br/>일본 전국의 갑상선암 환자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 되려면 후쿠시마 현의 아동 갑상선암 확진자는 2명 정도여야 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br/><br/>검토위원회는 이런 결과가 방사선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와 방사선의 영향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함께 제시했다.<br/><br/>호시 호쿠토(星北斗) 후쿠시마현의사회 부회장은 “<span class='quot0'>방사선의 영향은 생각하기 힘들다</span>”는 뜻을 밝혔다.<br/><br/>이에 앞서 일본 국립암센터 측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영향을 확인하는 조사는 자각 증상이 없는 이들까지 일괄적으로 검사한 것이라 발병률 자체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br/><br/>그러나 쓰다 도시히데(津田敏秀) 오카야마(岡山)대 교수 연구팀은 연간 발병률을 원전 사고 전 일본 내 발병률과 비교하면 20∼50배가 된다면서 이는 방사선 피폭의 영향 때문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br/><br/><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399.txt

제목: 말기 암 환자, 월 5만원에 ‘내 집서 호스피스’  
날짜: 20160214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14122126112  
본문: ㆍ다음달 2일부터 전국 17개 의료기관서 시범사업 실시 <br/>ㆍ주 1회 이상 의료진 방문·회당 5000~1만3000원 부담<br/><br/>다음달 2일부터 말기 암 환자가 자신의 집에서 의료진의 신체적·정서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가정 호스피스 제도가 시행된다.<br/><br/>보건복지부는 전국 17개 의료기관(표 참조)에서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고 14일 밝혔다.<br/><br/>가정 호스피스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 서비스(증상·통증 관리)와 비의료 서비스(상담·정서적 돌봄·사별가족 관리 등)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br/><br/><br/><br/>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2012년 말기 및 진행 암 환자 465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5.9%가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한다’고 했고, 89.1%는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간 국내 호스피스는 의료기관에 입원해야 하는 ‘입원형’ 중심이었고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는 환자를 위한 제도는 없었다.<br/><br/>현재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담당 의사에게 수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말기 암 환자다. 서비스 신청은 담당 의사의 의뢰서를 받은 뒤 가정 호스피스 의료기관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br/><br/>가정 호스피스에 등록하면 호스피스 전문 의료진이 48시간 내에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돌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환자는 주 1회 이상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며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br/><br/>환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가정방문 1회당 최소 약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에서 최대 약 1만3000원(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으로 책정됐다. 한 달 동안 전담 간호사가 8회, 의사가 1회, 사회복지사가 1회 방문할 경우 환자가 내야 하는 기본 비용은 4만8000원 정도다. 이 밖에 의료적 행위나 진통제 처방 등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추가되지만 암 환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된다.<br/><br/>현재는 말기 암 환자만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2017년 8월부터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과 만성 간경화,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대상자가 된다. <br/><br/>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완화의료’ 항목에서 확인하거나 심사평가원 전화(02-2149-4670, 4674)로 문의할 수 있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00.txt

제목: <헬스 게시판> 간암 예측모델 개발, 암 건강강좌, 자몽 건강법 등  
날짜: 20160211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11130836919  
본문: ■국립암센터, 한국형 간암 생존 예측 모델 개발<br/><br/>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11일 “<span class='quot0'>간암센터 박중원 박사가 간암 환자들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간세포암종 환자의 한국형 생존 예측 모델(K-메시아)’을 개발했다</span>”고 밝혔다.<br/><br/>국립암센터 남병호 교수, 서울대 정숙향 교수 연구팀과 공동 개발하고 검증한 이 모델은 2012년 국립암센터가 미국 메이요클리닉과 공동 개발했던 간세포암종 예후 예측 모델인 메시아(MESIAH)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br/><br/>간세포암종 환자를 처음 진단할 때 몇 가지 위험요인 정보(연령, 간 기능, 종양의 개수와 크기, 혈관침습과 전이 여부, 알파태아단백 수치, 병인 등)를 입력하면 환자의 1년에서 5년까지의 생존율을 계산할 수 있다. 임상의가 치료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하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적 저명 학술지인 <플로스 원>에 지난해 10월 게재됐다.<br/><br/><br/><br/>■플로리다 자몽협회 “2~3월은 자몽의 계절”<br/><br/>플로리다 시트러스협회는 11일 “플로리다 자몽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시즌이 본격 시작되었다”며 그 효능과 섭취법 등을 소개했다.<br/><br/>협회에 따르면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플로리다주의 자몽은 매년 2~3월 뜨거운 햇빛을 충분히 받아 높은 당도와 풍부한 과즙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고온 다습한 환경, 매우 큰 일교차, 뜨거운 햇살과 풍부한 강우량, 바다로 둘러싸여 해양의 바람을 받는 지형의 환경적 요인이 껍질이 얇고 속은 꽉찬 자몽을 만들어 내는 비결이라고 한다.<br/><br/>플로리다 자몽은 비타민C가 풍부해 겨울철을 지나면서 떨어지기 쉬운 면역 향상, 환절기 피로 회복 등에 도움을 준다. 칼로리는 100g당 30㎉에 불과하다. 자몽을 맛있게 먹는 방법(www.facebook.com/FloridaGrapefruitKorea)<br/><br/>■자생한방병원, 교통사고 후유증 최소화 건강강좌<br/><br/>자생한방병원 정기건강강좌가 오는 1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자생한방병원 대강당(SS빌딩 2층)에서 열린다.<br/><br/>교통사고 후유증은 영상검사를 통해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치료의 적기를 놓치면 다양한 통증과 후유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고 초기에 통증이 없더라도 병원을 방문해 검사와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br/><br/>교통사고의 증상은 주로 염좌나 미세 출혈, 근육과 인대 파열 등과 같은 외상으로 나타나지만 심하면 전신 통증과 이명, 감각 장애로까지 이어진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자칫 만성화 우려가 있는 척추관절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사고 후유증의 주 원인인 어혈(사고 충격으로 인해 피가 덩어리로 뭉치는 현상)을 제거하고, 기혈을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방식의 한방치료법을 소개한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자생한병병원 고객만족센터(1577-0007)<br/><br/>■순천향대천안병원 대장암센터, 오감만족 건강강좌<br/><br/>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대장암센터(센터장 백무준)는 대장암 수술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돕기 위해 제 11회 대장암 환자의 날 특별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오는 19일 병원 교육관 2층 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넘게 열린다. 최신 의학정보들이 제공되며, 식단전시회 및 시식회도 열리고, 전문 음악인들의 흥겨운 위문공연도 곁들여진다.<br/><br/>강연주제는 대장암 수술 후 추적관찰은 어떻게 하는가(외과 안태성 교수), 대장암에서 방사선치료는 왜 하는가(방사선종양학과 여승구 교수), 대장암 환자는 어떻게 먹어야 하나(이해연 임상영양사), 대장내시경을 통한 대장암의 조기진단과 치료(소화기내과 조영신 교수), 대장암 수술은 어떻게 하나(외과 백무준 교수), 대장암 환자의 정신건강(정신건강의학과 이화영 교수) 등이다. 문의 041-570-2140<br/><br/>■서울아산병원 유방암, 자궁암, 갑상선암 건강강좌<br/><br/>서울아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고범석·산부인과 박정열·내분비내과 김원구 교수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유방암, 자궁암, 갑상선암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br/><br/>유방과 자궁처럼 여성만이 가진 신체기관에 생기는 암은 대부분 자각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남성보다 여성에서 4배 이상 더 많은 갑상선암은 적절한 시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다.<br/><br/>여성의 대표적인 암으로 준비된 이번 특집 강좌에서는 유방암, 자궁암, 갑상선암의 진단과 최신치료법 및 예방법에 대한 명쾌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일반인의 궁금증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문의 02-3010-3051<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01.txt

제목: 공군 탐색구조대 "조난 조종사를 구출하라"  
날짜: 20160208  
기자: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08164645762  
본문: 공군이 올해 처음으로 지난 2일 충북 진천군 소재 초평저수지에서 조난 조종사 구출을 위한 탐색구조훈련을 실시했다.<br/><br/>공중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조종사는 유사시 적진에서라도 비상 탈출을 감행한다.<br/><br/>하지만 탈출한 조종사가 적에게 나포되면 아군에 상당한 전투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군은 적진에서 비상 탈출한 조종사를 구출하는 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br/><br/><br/><br/>공군은 8일 “<span class='quot0'>6탐색구조비행전대 주관으로 진행된 훈련에는 항공구조사 20여명과 HH-32, HH-47, HH-60 탐색구조 헬기가 동원됐다</span>”고 밝혔다.<br/><br/>공군 항공구조사(SART)는 전시 적진에 투입돼 산과 강, 바다에 떨어져 조난당한 조종사를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평시에는 항공기 사고 구조, 응급처치, 환자 후송, 각종 재해·재난 대민지원, 산불 진화 등의 임무도 맡는다.<br/><br/>혹한의 날씨에 진행된 이번 훈련은 겨울철 강이나 호수로 비상 탈출한 전투조종사를 구조하는 상황을 가정했다.<br/><br/>구조작전 명령을 받은 항공구조사들은 탐색구조 헬기에 탑승해 신속히 출동해 조난 현장에 도착했다. 즉시 조난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차가운 얼음물 속에 뛰어들었다.<br/><br/>겨울철 영하의 기온에 얼음물에 빠지면 조난자의 생존시간은 15분에 불과하다.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조난자가 저체온증에 빠져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수중에 투입된 구조사는 신속하게 조난자의 상태를 확인했다.<br/><br/><br/><br/>헬기 조종사에게 수신호를 보내자 헬기가 낮은 고도로 물 위에 접근해 구조용 줄(HOIST)을 내리고 고리, 바스켓, 들것 등 각종 구조장비로 조난자를 구조했다.<br/><br/>암호장비, 미사일 등 중요 물자가 물속에 빠진 것을 가정해 잠수 탐색, 인양 훈련도 했다. 구조사들은 ‘자율방출 호흡법’이란 독특한 호흡으로 극한의 상황을 극복하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br/><br/>이 호흡법은 마우스피스를 반쯤 물고 자유 방출되는 공기를 흡입하면서 침착하게 부상하는 기법이다.<br/><br/>6탐색구조비행전대 항공구조대장 정한철 소령(학군 28기)은 “<span class='quot1'>혹한기 악조건 속에서도 공군 전투력의 핵심인 조종사를 구조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span>”며 “<span class='quot1'>내 목숨은 버려도 조종사는 구한다는 항공구조대의 구호처럼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02.txt

제목: 삶 되돌아보기, 주변관계 회복하기, 할 일 우선순위 정하기…‘현실적 문제’ 해결법 안내  
날짜: 20160206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06061118172  
본문: ㆍ건강보험공단 ‘마지막 준비’ 교육, 무엇을 배울까<br/><br/>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죽음, 그리고 아름답고 존엄한 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6주간의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br/><br/>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죽음을 바라보게 하고,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자는 취지였다. <br/><br/><br/>6개의 주제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자신의 과거와 주변을 돌아보고 투병·임종 등 현실적 문제를 고민해 보는 방법을 안내했다. <br/><br/>프로그램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자신의 삶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강사들이 진행했던 죽음 준비 교육의 일부를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이달 중 볼 수 있다. <br/><br/>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일은 나는 누구인지,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는 어떻게 다른지 등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인생 곡선’을 그려보기를 권한다. <br/><br/>인생을 10세·20세 등 10년 단위로 나눈 뒤 시기별로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삶을 반추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br/><br/><br/>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려면 여가와 일·공부가 필요하다. 취미생활은 내가 좋아하고 즐거운 것,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것,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 등을 고르는 게 좋다. 소득이 생기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자원봉사도 괜찮다. 활력이 생기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공부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성취감을 안겨 준다. 컴퓨터나 외국어, 자격증 등에 도전해 볼 수 있다. <br/><br/>주변 사람들도 돌아봐야 한다. 우선 가족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한다. 갈등이 있다면 서로의 차이와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갈등 해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노화에 따른 가족의 건강·외모 변화, 혼인을 통해 새로 맺어진 관계 등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br/><br/>친구 관계의 경우엔 나부터 타인에게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한다.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친구를 칭찬하고, 생일이나 기념일엔 e메일이나 편지를 써서 우정과 사랑을 진솔하게 표현한다. 친구가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직접 찾아가서 위로한다. 친구나 후배가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하게 느낄 필요가 없다. 자신이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면 다시 연락이 이어질 수 있다.<br/><br/>전문가들은 내 인생에 30일의 시간이 남아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리스트를 작성해 보라고 조언한다. 사람은 죽음이 머지않았다고 느낄 때 높은 이상과 자아실현을 추구하기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각각 어떤 방법으로 사랑·용서·화해할 것인지 적어본다.<br/><br/>가족이 큰 병을 얻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직 한국에선 고령의 노인이 시한부 질병에 걸렸을 때 가족들이 그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질병이 말기 단계라는 것을 알아야 삶을 정리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솔직히 알려주는 쪽을 권하고 있다. 치료나 간병 방법에 관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선택할 권한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br/><br/>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려면 호스피스 서비스나 2018년 시행되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마음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이 임박했을 때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뒤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면 된다. 호스피스는 암·에이즈와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변의 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 기관이나 가정에서 신체적·정서적 돌봄을 제공한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고 의사가 말기 환자가 맞다는 진단을 내려주면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03.txt

제목: [웰다잉 - 마지막까지 평화롭게] (3) “덜컥 돌아가신 어머니…죽음 지켜보며 삶도 다시 보게 됐죠”  
날짜: 20160206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06061117686  
본문: ㆍ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br/><br/>죽음을 고민하는 일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 놓을까. 2014년 EBS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데스>에는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가 실시했던 한 실험이 소개됐다. 어린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그룹에만 ‘죽음 교육’을 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신데렐라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지 등을 묻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다.<br/><br/><br/>연구진은 두 그룹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둘씩 짝을 지은 뒤 사탕을 서로 빼앗거나 주는 게임을 10회 반복하는 ‘이타성 실험’을 실시했다. 사탕을 빼앗은 경우 마이너스 1점, 사탕을 준 경우 플러스 1점으로 계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실험 전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그룹의 평균점수는 플러스 6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의 평균점수는 마이너스 3.29점으로 큰 차이가 났다. 죽음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훨씬 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실험 전 영상 유언장을 작성한 그룹의 이타성 점수는 플러스 2.8점, 바로 게임을 실시한 그룹은 마이너스 3점이 나왔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실험에 임한 그룹에서 협동전략을 택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span>”고 평가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현재의 삶을 이타적으로 바꿔 놓는다는 것이 연구진이 내린 결론이다.<br/><br/>서울시내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일하는 최경자씨(48)도 죽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10년 넘게 단둘이 의지하며 살던 어머니를 2014년 1월 폐암으로 떠나보냈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뒤 최씨는 나름대로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다. 어머니가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언니·오빠들이 살고 있는 고향 대구로 거처를 옮기기도 했다. 하지만 누구도 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아주 짧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2~3년은 더 살 거라 생각했던 어머니는 발병 반년 만에 상태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한 뒤 한 달 동안 투병하다 돌아가셨다.<br/><br/>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어머니의 죽음은 최씨에게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최씨는 그때 어머니에게 더 묻지 않은 것이 아직도 아쉽다. “어머니도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장례식은 어떻게 해다오, 어디에 묻어다오… 말하고 싶은 요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더 살 수 있을 줄 알고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죽음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했죠.”<br/><br/>어머니를 보낸 뒤 최씨는 상실감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일을 하다 보니 병도 찾아왔다. “<span class='quot1'>그 시기에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걸 처음 실감하게 됐다</span>”고 그는 말했다.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살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삶의 끝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자주 생각하면 할수록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일도 잦아졌다. 최씨는 어머니의 죽음 이전까지 자신의 삶을 “목표지향적인 삶이었다”고 표현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성공과 성취였다. 젊은 시절에는 교회에서 일하며 조금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 반면 나이가 들고 학교로 자리를 옮기면서는 정체돼 있다는 느낌에 무기력해지기도 했다.<br/><br/>생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체감하자 삶의 태도가 자연스레 바뀌었다고 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무엇이 가장 후회될지 생각해 봤어요. 많은 돈이나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이타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br/><br/>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했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했던 최씨는 언제부턴가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기쁨을 느끼는 시간은 유한하다는 깨달음 때문이라고 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표정도 태도도 바뀐 것 같다”는 말도 많이 들었다. 어떻게 죽고 싶은지, 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고 싶은지 생각했다. 만약 큰 병에 걸려 의식을 잃고 육신만 살아 있는 상태가 된다면 의술의 힘을 빌려 생을 이어가긴 싫다고 생각했다. 자연스럽게 최씨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작성하게 됐다.<br/><br/>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금기를 깨고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현재의 삶도 달라진다고 최씨는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교육학 석사과정을 밟으며 ‘초등학생을 위한 죽음 준비교육’이라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들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른들의 편견이에요. 실제로 가족이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아이도 많고, TV나 동화책을 통해 죽음에 대해 모두들 접해 봤어요. 아이들이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추도하며 자연스레 자신의 삶도 되돌아볼 수 있는 죽음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br/><br/>다음 학기엔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가족이나 반려동물의 죽음과 같은 상실을 겪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픔을 다독이고 치유할 시간을 주는 ‘비탄교육’도 실시하려고 준비 중이다.<br/><br/>미국 미디어그룹 허핑턴포스트 창립자인 아리아나 허핑턴은 저서 <제3의 성공>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날을 회상하며 “<span class='quot2'>사후세계를 믿든 믿지 않든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삶의 방향을 재규정하는 데 많은 교훈을 준다</span>”고 썼다. 예일대에서 1995년부터 스무 살 내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셸리 케이건 교수도 “<span class='quot3'>‘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span>”고 말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이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 많은 이들이 입 모아 말하는 ‘우리가 지금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br/><br/><시리즈 끝><br/><br/><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04.txt

제목: [새책]인문학의 뿌리를 읽다 外  
날짜: 20160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05191629986  
본문: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 | 김헌 | 이와우<br/><br/>서양고전학자인 김헌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부교수의 ‘고전 읽는 법’이다. 그리스·로마 고전은 개인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특정한 삶의 방식의 의미를 알려준다고 저자는 말한다. <br/><br/>‘서사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화의 서사는 어떤 의미인지 되묻는다. 신문들에 연재한 글을 손질해 재구성했다. 1만5000원<br/><br/><br/>▲애인의 애인에게 | 백영옥 | 예담<br/><br/>패션지 에디터에서 소설가로 변신한 저자가 4년 만에 장편을 발표했다.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실연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랑과 삶의 절규를 그렸다. 이 소설 집필의 발단은 주인공 중 한 명인 이정인의 이야기로 이뤄진 단편소설이었다. 그러나 그가 짝사랑했던 남자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는 독자들의 피드백으로 장편을 쓰게 됐다고 한다. 1만3000원<br/><br/><br/>▲잘 모르는 사이 | 박성준 | 문학과지성사<br/><br/>2009년 문학과지성사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저자의 두 번째 시집이다. 2015년 박인환문학상 수상작인 ‘뜨거운 곡선’ 등 62편의 시가 담겼다. 해설을 쓴 박상수 문학평론가는 “<span class='quot0'>(박성준에게) 중요해진 것은 이제 어떻게든 삶을 ‘홀로’ 살아내는 일이며, 그 삶 안에서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전과는 ‘(다른) 통증’을 만드는 일인 것 같다</span>”고 말한다. 8000원<br/><br/><br/>▲모마 마스터피스 | 앤 템킨 | RHK<br/><br/>미국 뉴욕 현대미술관(모마) 소장 작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 19세기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작품 4000여점 중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217점을 뽑았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와 같이 대중의 사랑을 받은 작품을 비롯해 니키 드 생팔의 ‘미국 대사관 슈팅 페인팅’과 같은 획기적 작품들도 있다. 저자는 모마의 회화·조소 수석 큐레이터다. 강나은 옮김. 5만원<br/><br/><br/>▲존 치버의 일기 | 존 치버 | 문학동네<br/><br/>‘미국 단편소설의 거장’으로 불리는 존 치버가 1940년대 말부터 1982년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35년간 쓴 방대한 일기의 발췌본이다. 치버는 29권의 일기장을 남겼고 그 중 그의 삶을 대표할 만한 일기들이 선별됐다. 완벽한 작품에 이르기 위한 소설가의 투쟁의 기록, 끝없는 연습을 엿볼 수 있다. <존 치버의 편지>도 함께 출간됐다. 박영원 옮김. 2만8000원<br/><br/><br/>▲알 | 이기훈 | 비룡소<br/><br/>일러스트레이터 이기훈의 ‘글 없는 그림책’이다. 병아리를 키우고 싶은 아이가 냉장고에서 엄마 몰래 달걀들을 꺼내 방에서 품는 것에서 스릴 넘치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부화된 달걀들이 하나, 둘 깨지는 순간 기상천외한 이야기로 독자를 빠져들게 한다. 작가는 2013년 브라티슬라바 국제일러스트레이션전시회 어린이 심사위원상 등을 수상했다. 1만3000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05.txt

제목: (3)4명이 옷벗은 ‘군수 무덤’ 임실…비리에 풀뿌리 정치 병든다  
날짜: 20160204  
기자: 박용근·한대광 기자 yk2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04224706475  
본문: ㆍ비리에 무너지는 자치<br/><br/>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들의 비리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토호세력 발호가 지방자치를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16년 동안 884명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각종 비위 혐의 등으로 중도 사퇴할 정도로 지방자치가 내홍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br/>■임실, 선출직 군수들마다 옷벗어<br/><br/>전북 임실군은 ‘군수 무덤’이란 오명을 듣는다. 군수가 되기만 하면 감옥에 가야 하는 일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역대 군수들이 각종 비위에 얽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모두 낙마한 것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임실군이 유일하다. <br/><br/>첫 임실군수에 취임한 이형로 전 군수는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2000년 11월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의 부탁을 받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됐다.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1심과는 달리 항소심의 무죄 판결로 이 전 군수는 오명을 벗었으나, 이미 군수직을 내놓은 뒤였다.<br/><br/>이듬해 4월 실시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철규 전 군수도 1년2개월의 잔여임기를 마저 채운 뒤 재선에 성공했다. ‘법철규’란 별명과 달리 그는 사무관 승진 후보자 3명으로부터 승진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3년 8월 구속됐고 군수 자리를 내놨다. <br/><br/>민선 4기 김진억 전 군수는 업자로부터 ‘각서’를 받았다가 망신을 당했다. 그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지만 2005년 공사업자로부터 2억원 지급을 약속한 각서를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br/><br/>군민들은 상심했다. 민선 5기 들어 “이번에는 제대로 뽑자”는 바람이 일었다. 군민들은 농민운동가 출신 강완묵 전 군수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 역시 2010년 5월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측근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84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취임 6개월 만에 기소됐고 2013년 6월 군수직에서 물러났다.<br/><br/>현 심민 군수도 마음고생을 했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주민들 식사 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가까스로 군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br/><br/>임실뿐만 아니다. 지난해 말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의 부인과 비서실장은 인사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종규 부안군수의 측근인 비서실장은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r/><br/>전북지역에서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래 중도 하차한 민선 자치단체장은 모두 16명이나 된다. 단체장 비위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민선 4기 시장·군수·구청장 가운데 18.3%가 뇌물수수 등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br/><br/><br/>■선거 비용 ‘복구’ 위해 권한 남용<br/><br/>중앙선관위의 ‘2000년 이후 재·보궐선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까지 884명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중도 하차하는 바람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이들이 옷을 벗은 이유는 대부분 사직이나 당선무효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된 경우가 312명이나 된다. 300명은 사직을 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비리 혐의 때문이다. 사직 이유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일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등을 위해 사직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기 위해 중도 사퇴한 경우</span>”라고 설명했다. <br/><br/>단체장들이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절대 권한’ 때문이다. 인사서열 명부를 얼마든지 입맛에 맞게 짤 수 있어 승진을 대가로 매관매직이 가능하다. 또 각종 인허가 등 이권에 선거캠프 라인이 포진한 ‘비서실’을 동원해 개입한다. 이런 부당한 행위에 반기를 들 부하 공직자들은 거의 없다. 이렇다 보니 단체장들을 일컬어 ‘황제’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br/><br/>지방자치의 쌍두마차인 지방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말 대구 동구의회 김모 의원(58)을 구속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신분을 이용해 지자체 예산으로 자신의 땅에 농로와 수로를 만들도록 했고,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을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방의회 출범 이후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민선 1, 2기에 각각 78명과 79명이었으나 3기에는 262명, 4기에는 293명, 5기에는 323명에 달하는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br/><br/>선출직들이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토호세력으로 변질되면서 지방자치를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가 돼 버린 우선적 이유로는 하향식 정치구조가 꼽힌다. 지역에 따라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란 등식이 성립되다 보니 정당은 후보자 검증에 허술했고, 후보자는 돈을 써야 당선증을 쥘 수 있다. 저효율 고비용 선거구조에서 당선된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선거과정에서 쓴 비용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라도 권한을 이용한 이권개입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br/><br/>일당독식구조에서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 기능을 사실상 상실해 버린 것도 지방자치를 좀먹는 요인이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br/><br/>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span class='quot1'>유권자들이 인물을 비교,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정치독점’이 그런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span>”라며 “<span class='quot1'>고질적인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며 그다음에 시민의식과 후보자 자질 개선을 논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박용근·한대광 기자 yk21@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06.txt

제목: [사설]사회의 방관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날짜: 2016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04210430038  
본문: 40대 목사 부부가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이나 방안에 방치한 사건이 일어났다. 친부는 여중생 딸이 숨진 뒤 14일 후에야 경찰에 허위가출신고를 한 뒤 신학교에서 강의를 계속하는 여유까지 부렸다. 숨진 여중생은 친부와 계모에게는 물론, 계모의 여동생 집을 전전하면서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뜯어보면 지난달 초등생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적발된 사건과 판박이임을 알 수 있다. <br/><br/>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마지막 안식처나 피난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폭력 및 학대, 심지어는 살인 및 시신유기 장소로 전락할 수 있음을 또 한번 보여준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 부모는 친엄마를 암으로 잃고 방황했을 딸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가출벽이 있다’며 구타, 숨지게 했다. 여중생이 결석하자 학교 측은 전화와 우편으로 출석을 독려했다. 그러나 가해 부모의 ‘가출했다’는 거짓말에 여중생은 ‘정원외 관리대상’이 됐다. 경찰 역시 ‘집에 올 필요 없이 직장에서 만나자’는 가해 부모의 말을 믿었다. 만약 학교나 경찰이 여중생의 집을 한번이라도 방문했다면 사건은 조기에 해결되었을 것이다. <br/><br/>이번 사건은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암묵적인 방관을 여실히 드러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1.9%가 부모이고, 학대 장소의 85.9%가 가정이라는 통계가 엄연히 있다. 이런 폭력이 가능한 것은 가정이 부모와 가장이 쳐놓은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관념이 은연중 사회 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처음엔 훈육이라며 손을 댔던 것이 차츰 상습폭력이 되고, 급기야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지난해 12월 인천의 11살 여아가 ‘맨발 탈출’로 가정폭력을 고발하고, 그 여파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두 건의 사건도 영영 미궁으로 끝났을 것이다. 남의 가정 일이라며 누구도 간여하지 않았으니 사회 전체가 공범이라 할 수 있다. <br/><br/>폭력을 당한 아이는 훗날 똑같은 폭력을 저지르는 ‘폭력의 대물림’을 하게 된다. 이같이 다른 세대에게 유전되는 가정 폭력을 막으려면 당장 나서야 한다. 당국은 장기결석의 실태조사를 중·고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의무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식을 인격체가 아닌 미완의 존재, 즉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07.txt

제목: 오는 18일 베일 벗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정상진료 시작해 관심 집중!  
날짜: 2016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04102846846  
본문: ▶첨단장비 도입에 총 814억 투입…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br/><br/>창원경상대학교병원(병원장 정기현)이 오는 2월18일 1차 개원을 앞두고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br/>지난 1월 15일 창원시로부터 허가병상 208병상 운영을 골자로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은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1차 개원에 앞서 1월 말 모의진료와 2월 초 시범진료를 실시해 환자 진료를 위한 안전성과 진료체계 시스템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최종 점검한다.<br/><br/>3월까지 총 24개 진료과, 110여명의 전문의 규모의 의료진이 환자 진료 나서<br/><br/>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진 포함 총 직원 1,100명의 정원을 확보했고, 그 중 의사직 정원은 177명으로 100% 전문의로 구성된다.<br/>24개 진료과, 72명의 전문의가 1차 개원 시 투입 될 예정으로 진료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암, 고위험산모와 이른둥이(미숙아), 중증응급질환 등 전문진료를 지향한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경남 지역 주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br/>경상대학교병원 근무 의료진 중 15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는 의료진과 타 지역에서 전임의 과정을 수료했거나 분야별 임상경험과 최신 의료기술 및 지식을 갖춘 전문의가 순차적으로 충원되는 가운데 3월에는 110여 명의 전문의가 환자 진료에 투입될 예정이다.<br/><br/>최첨단 통합의료정보시스템 통해 중부경남 환자들을 위한 세부 분야별 전문진료 가능<br/><br/>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최첨단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진료환경이 조성 돼 환자 중심의 원스톱 진료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br/>특히 심뇌혈관질환, 암, 외상, 중증응급질환 등 치료의 난이도가 높아 권역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전원을 가야 했던 중부경남 환자들을 위한 세부 분야별 전문진료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권역 내 병, 의원과 협진을 통해 상생하기 위해 진료를 의뢰한 병, 의원간 진단검사 결과, 약 처방 정보, 병원 수진이력, 진료 회신서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진료의뢰시스템을 운영해 지역 내 선순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br/><br/>첨단 장비 도입으로 안전 중시한 치료와 빠른 회복에 중점<br/><br/>또한 첨단장비의 도입도 눈 여겨 볼 만하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첨단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자의무기록(EMR), 의료영상전송시스템(PACS) 등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총 814억 원을 투입해 로봇수술기, 3D영상유도방사전치료기 등 첨단의료 장비와 640멀티슬라이스CT(경남 최초), MRI 등 최신장비 1,162점을 도입한다.<br/>경남 최초로 도입된 640 MSCT(멀티슬라이스CT)는 한 번의 촬영으로 160mm의 넓은 범위를 0.275초만에 촬영할 수 있어 0.5mm 간격의 초정밀영상 640장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검사시간이 현존 CT장비 중 가장 짧아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응급환자나 부정맥, 빈맥 환자뿐만 아니라 심박수가 높은 환자들도 검사가 가능하다.<br/>다빈치Xi 로봇 수술기는 가장 진보된 형태의 로봇수술기 중 하나로 꼽힌다. 최소 절개로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며 개복수술로 인한 환자의 통증이 상대적으로 적고 회복기간도 단축시켜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며 합병증의 발생위험을 낮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취약계층 돌보며 대형병원으로서의 의무 다할 것<br/><br/>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경상대학교병원과 연계해 경남지역뿐 아니라 국가의료발전에 선도적인 역할과 신속한 진료서비스, 완벽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로 최상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췄다.<br/>경상남도의 취약계층 환자에게 진료기회를 확대하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내원하는 의료급여환자의 외래 선택진료비를 전액 감면한다. 또한 창원시 지역아동센터아동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보건 교육 등 전반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며 저소득노인 배뇨장애 관리사업도 함께 실시한다.<br/>창원경상대학교병원 측은 “<span class='quot0'>그동안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도내의 학교 밖 청소년과 여성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직접 찾아가 금연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건강한 경남만들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span>”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08.txt

제목: 말 못할 사연 때문에 못다한 연말정산 내역 있나요?  
날짜: 20160203  
기자: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03125924941  
본문: 암 투병 중인 직장인 ㄱ씨는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와 세법상 장애인공제 등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 자신의 투병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지 걱정됐고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아이를 키우는 ㄴ씨도 월세 등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다. 회사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br/><br/>ㄱ씨, ㄴ씨처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개인사를 공개하고 싶지 않아 연말정산을 꺼리게 된다면,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span class='quot0'>연말정산으로 공개 또는 추정 가능한 모든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직장인은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차후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span>”고 3일 밝혔다. 이날 납세자연맹이 밝힌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놓친 연말정산’ 사례를 보면 회사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유는 다양했다. 본인이나 가족의 장애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실직한 경우 등이 주를 이뤘고 성형수술 경험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본인 혹은 가족의 이혼·재혼이나 월세로 산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 종교 관련 단체에 기부하거나, 종교 관련 직장에 다니는데 부양가족이 타종교시설에 기부한 것도 공제를 꺼리는 이유였다. 모두 사생활이 공개돼 불필요한 구설수에 오르는 걸 꺼리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한 탓이다.<br/><br/>가족사나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때 관련 공제를 신청하지 말고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신청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차후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2003년 소득세법에 반영됐다.<br/><br/>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span class='quot1'>누구나 숨기고 싶은 가족사, 의료정보, 종교 관련 개인정보가 있고, 특히 정당 기부금 내역 같은 정보는 한국 사회에서 조직생활을 하는데 크고 작은 유무형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런 경우 근로소득세 신고를 회사에서 할 필요가 없다</span>”고 말했다.<br/><br/><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09.txt

제목: 서로에게 빠졌던 46년 전으로…‘러브 스토리’ 남녀 배우 하버드 방문  
날짜: 20160202  
기자: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02165049769  
본문: 영화 <러브 스토리>의 남녀 주인공이 46년 만에 영화의 배경이자 촬영 장소인 하버드대 캠퍼스를 찾았다. AP통신은 1일(현지시간) <러브 스토리>의 남녀 주연인 라이언 오닐(75)과 알리 맥그로(77)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하버드대학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교정을 걷고 당시 영화에 등장했던 것과 비슷한 컨버터블 자동차를 타는 등 당시 장면을 재연했다. 한때 약물 중독에 시달렸던 맥그로는 “<span class='quot0'>하버드에 다시 온 것만으로도 영화 이후 실제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좋은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러브 스토리> 촬영은 내 삶에 있어 굉장히 멋진 모험이었다</span>”고 말했다.<br/><br/>1970년 개봉한 <러브 스토리>는 명문가 상속자인 하버드대 학생 올리버가 가난한 집안의 제니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내용의 영화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으며 특히 “사랑한다면 결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라는 대사와 주제곡이 유행했다.<br/><br/><br/><br/>오닐과 맥그로는 이날 하버드대 학생들과 <러브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오닐은 “<span class='quot1'>영화처럼 암이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span>”고 밝혔다. 영화에서 오닐은 백혈병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냈는데 실제로도 지난 2009년 부인인 여배우 파라 포셋이 암으로 사망했다. 또 오닐도 최근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닐과 맥그로는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촬영하는 동안에는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맥그로는 “<span class='quot0'>라이언과 나는 서로에게 빠져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리 사이에는 화학 작용이 있었다</span>”고 말했다.<br/><br/>두 사람은 현재 연극 <러브 레터>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다시 호흡을 맞추고 있다.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두 남녀가 편지를 통해 50년 넘게 교류하는 내용이다.<br/><br/><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10.txt

제목: 일 때문에 결혼 미뤄온 40대 여성 ‘냉동보관’ 난자로 출산  
날짜: 20160202  
기자: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02101255687  
본문: 일본의 한 40대 여성이 독신일 때 냉동보관해뒀던 난자를 이용해 아이를 낳았다. 이 여성은 일 등으로 인해 당장 결혼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도 언젠가는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으로 난자를 냉동보관해 왔다. 일본에서 암치료 등을 이유로 냉동보관한 난자를 이용해 아이를 낳은 경우는 있지만, 일 등 사회적인 이유로 냉동보관한 난자를 이용해 출산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2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br/><br/>일본 오사카(大阪)에 사는 여성(44·간호사)은 30대 후반부터 오사카시내의 전문병원을 통해 난자를 동결보관해 왔다. 일이 바빠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이는 꼭 낳고 싶었기 때문이다. <br/><br/>이 여성은 이후 지금의 남편(42)를 만나 2년전 결혼했다. 결혼 후 이 여성은 남편의 이해를 얻어 해동한 난자를 남편의 정자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임신, 지난해 여름 여자 아이를 낳았다. 임신에 활용한 난자는 41세때 냉동보관한 것이었다.<br/><br/>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가계를 책임져온 이 여성은 결혼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기회가 되면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으로 난자를 냉동보관해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br/><br/>이 여성은 “젊은 시절에 출산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른다”면서도 “나도 출산과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빨리 출산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에 밝혔다.<br/><br/>한편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는 일본에서는 난자의 노화를 우려해 젊은 시절의 난자를 냉동보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br/><br/><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11.txt

제목: 중금속 투성이 명태기름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부자  
날짜: 20160202  
기자: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02090255931  
본문: 부산 기장경찰서는 2일 중금속이 함유된 명태기름을 만병통치약인 것 처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ㄱ씨(76)와 아들(44)을 불구속 입건했다.<br/><br/>ㄱ 씨 등은 최근 수입산 명태의 간을 유압기에 넣고 기름을 짜내는 방법으로 일명 ‘어간유’를 만든 뒤 인터넷 등을 통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 처럼 선전해 2ℓ당 50만원 상당에 판매, 7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r/><br/>이들은 매일 150~200㏄ 가량 복용하면 말기암 치료 등에 좋고 얼굴이 맑아지면서 간이 좋아진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어간유를 구입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독성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19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ㄱ 씨는 201년에도 암환자에게 특효약이라며 어간유를 판매했다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후 아들을 내세워 다시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br/><br/><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12.txt

제목: [웰다잉 - 마지막까지 평화롭게] (2) 갈 길 먼 한국 - 희망 없는데도 “계속 치료해달라”···중환자실은 누구를 위한 곳인가요  
날짜: 20160202  
기자: 　최희진·박효순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02060135043  
본문: ㆍ환자·가족 ‘무의미한 싸움’에 지치고…결국 ‘고통스러운 죽음’ <br/>ㆍ희망 없는데도 “계속 치료해달라”…중환자실은 누구를 위한 곳인가요<br/><br/>말기 암환자 ㄱ씨(68)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 대형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일반 병실에서 지내며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나빠진 것이다. 그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했고 코에 삽입한 튜브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다. 생명이 꺼져가고 있어도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상 치료는 계속된다. 의료진은 그에게 거의 같은 성분의 주사제를 날마다 공급하고 혈압 측정과 혈당치 검사, 적혈구·백혈구 수치 검사 등 수십가지 검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br/>　<br/>의료진도 이런 치료가 ㄱ씨의 상태 호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도 심정지가 일어나면 심폐소생술로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이 환자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도, 의사가 선택할 다른 대안이 사실상 없다. “치료를 계속해달라”는 보호자들의 뜻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이다.<br/><br/>중환자실에 입원한 한 달여간 들어간 총진료비는 4000만원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가 3860만여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130만여원이다. 일반 환자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20~30%를 부담하지만 ㄱ씨는 ‘중증질환 산정 특례’에 해당돼 5%(193만원)만 내면 된다. 그렇다 해도 비급여 진료비까지 합하면 병원에 내야 하는 돈은 323만원이고, 간병비도 월 200만원이 넘는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아버지의 죽음’을 망설이면서 가족들이 경제적·시간적·정신적으로 지쳐가고 있는 셈이다. 위급 환자들을 살리는 중환자실이 ㄱ씨에겐 ‘마지막 숨’을 연명하는 곳이 됐다. <br/> <br/><br/><br/>ㄴ씨는 5개월 전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크게 입고 지방의 ㄷ병원에 입원했다. 응급실로 실려온 그는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받다 지난해 말 패혈증이 겹쳐 한 달 넘도록 중환자실 신세를 지고 있다. 집중치료 덕분에 패혈증은 호전됐지만, 사고 후 뇌내 출혈에 따른 수두증(뇌척수액이 쌓이는 증상)과 부종으로 스스로 호흡할 수 없고 의식도 없다. 의료진은 ㄴ씨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의식이나 호흡이 회복돼도 주요 장기의 기능 부전으로 ‘식물인간’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의 강경한 요구로 인공호흡기와 혈액 투석, 코를 통한 영양 공급 등 연명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혈역학적 모니터링은 24시간 이뤄지고 각종 혈액 검사와 흉부선 검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치료비는 7000만원이 넘었고, 대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br/><br/>현대 의학의 발전은 한국인의 기대수명을 82.4세(2014년 출생아 기준)까지 늘리는 데 기여했다. 이와 동시에 ㄱ씨와 ㄴ씨처럼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을 의료진에게 내준 채 병실에서 죽어가야 하는 관행도 만들어냈다.<br/><br/>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들은 ‘최선’을 다하기 위해 환자가 회복될 확률이 아주 낮을 때도 치료를 멈추지 않는다. 환자의 몸 여러 곳에 구멍을 내 관을 연결한 뒤 몸속에 차오르는 물과 배설물을 빼내고, 영양분을 공급한다. 환자가 숨을 스스로 쉬지 못할 때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거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도 환자의 몸에 개입하려는 관성을 차단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시간을 평온하게 보낸다는 의미의 ‘웰다잉(well-dying)’은 실현하기 어려운 이상에 불과한 셈이다.<br/><br/>한 사람이 일생에 걸쳐 지출한 의료비 중 상당 부분이 사망 직전에 집중된다는 것은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애 말기 케어의 사회적 가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사망 2년 이전의 월평균 진료비(2011년 기준)는 남성 48만원, 여성 51만원이었다. 그러다가 사망 1개월 전부터 남성은 306만원으로 6.4배, 여성은 257만원으로 5배 폭증했다. 보건복지부가 2010년 사망한 암환자 7만6574명을 분석한 통계에서도 말기 암환자가 사망 전 3개월간 지출한 건강보험 의료비(7012억원)는 사망 전 1년간 쓴 의료비(1조3922억원)의 50.4%에 달했다. 특히 사망 한 달 전부터 쓴 의료비(3642억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말기 암환자들은 사망 2주 전까지도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각종 진단검사와 의미 없는 항암치료에 10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br/><br/>병원을 찾아가는 암환자도 사망에 가까워질수록 늘었다. 사망 6개월 전 병원을 이용한 암환자는 5만2190명, 3개월 전에는 6만3462명, 2개월 전 6만9004명, 1개월 전 7만6506명으로 점점 증가했다. 응급실을 이용한 말기 암환자는 사망 3개월 전 1만681명에서 2개월 전 1만5247명, 1개월 전 2만9301명 등으로 급증했다.<br/><br/>미국 하버드대 의대 아툴 가완디 교수는 저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서 “결국은 죽음이 이기게 되어 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면, 우리는 아군이 전멸할 때까지 싸우는 장군을 원치 않는다”고 썼다. 2014년 사망한 말기 암환자의 13.8%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선택한 덕분에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일 없이 신체 기능 일부와 의식을 유지하며 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말기 암환자는 병원에서 무의미한 싸움을 벌이며 ‘전멸’해 가고 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br/><br/><　최희진·박효순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13.txt

제목: [웰다잉 - 마지막까지 평화롭게] 호스피스 기관 늘려 이용률 높이기 의료진이 유도하는 ‘자문형’도 도입  
날짜: 20160202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02060134151  
본문: ㆍ정부 웰다잉 정책 변화<br/><br/>지난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앞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호스피스 기관의 양적 팽창이 질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다. <br/><br/>현재 국내 호스피스 서비스는 1일 기준으로 66개 전문기관 1108개 병상에서 제공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시설·인력 등을 갖춰 보건복지부에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복지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데,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암 사망자는 연간 7만7000여명이며, 7700여명이 후천성면역결핍증과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사망하고 있다.<br/><br/>정부의 목표는 2014년 기준 13.8%인 호스피스 이용률을 2020년 2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br/><br/><br/><br/>이를 위해 입원 중심이었던 호스피스 서비스에 지난해 12월 말 ‘가정형’을 도입했다. 가정 호스피스에선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환자 가정을 방문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상담 전화를 운영한다. 간호사가 월 8회, 의사와 사회복지사가 각 월 1회 가정을 방문할 경우 환자 부담은 월 5만원 정도다. <br/><br/>2018년 상반기부터는 현재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할 수 없는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시장에 뛰어들어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돌봄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요양병원의 부작용이 호스피스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요양병원은 수익을 위해 서비스를 적정 수준보다 적게 제공하고 환자의 입원 일수만 늘리는 행태로 비판받고 있다. <br/><br/>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심사 단계에서 수준 이하의 요양병원을 걸러내고, 호스피스 기관으로 지정한 후에도 사후 관리·평가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오는 4월쯤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행해 보완할 부분을 점검할 방침</span>”이라고 말했다.<br/><br/>호스피스 이용 일수가 평균 23일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다. 환자들이 고통스러운 치료를 이어가다 너무 늦은 시기에 호스피스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병동이 없는 병원들이 말기 환자를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호스피스 기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자문형 호스피스’도 도입했다. 병원이 환자·보호자에게 호스피스 기관을 적극 안내하는 서비스다. <br/><br/>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성모병원 라정란 호스피스완화의료팀장은 “<span class='quot1'>적잖은 의사들이 ‘환자를 호스피스로 보내는 것은 내가 무능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자책하는 경향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의사들도 호스피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span>”이라고 말했다.<br/><br/>국립암센터 장윤정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장은 “<span class='quot2'>환자들이 호스피스 신청을 결정하는 데 의료진의 권유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span>”며 “<span class='quot2'>2014년부터 암 관련 학회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14.txt

제목: [웰다잉 - 마지막까지 평화롭게] “처음엔 ‘호스피스 = 치료 포기’로 오해 갈 곳 없던 말기환자들 인생 정리 도와”  
날짜: 20160202  
기자: 대전 |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02060132486  
본문: ㆍ충남대병원 완화병동 설치 주역 김삼용 교수<br/><br/>올해로 의사가 된 지 40년을 맞은 김삼용 충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65·사진)는 충남대병원에 완화의료병동을 설치한 주역이다. 말기암 환자들을 진료하며 손쓸 수 없는 환자들에게 체계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1990년대 중반부터 김 교수가 뜻이 맞는 의료진 몇몇과 함께 시작한 호스피스 봉사활동이 2008년 충남대병원에 완화의료병동의 문을 여는 기반이 됐다.<br/><br/>호스피스 활동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다. ‘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환자들뿐 아니라 다른 의사들의 우려도 컸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공공병원이기는 하지만 경영진 입장에서는 수익 측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갈등이 많았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병동이 정착되고 가정 호스피스도 확대하는 지금은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 다른 의료진이 먼저 환자를 완화의료병동으로 보낼 수 있겠느냐고 의뢰해 오기도 한다.<br/><br/>완화의료병동이 생기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치료 방법은 없고, 통증과 증상이 심한 말기환자’들에게 갈 곳이 생겼다는 사실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과거 호스피스가 없을 때는 병원이 치료 가능성 없는 말기환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span>”며 “<span class='quot0'>통증이 아무리 심해도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해 고통스러운 임종을 하는 것이 안타까웠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병동에서 증상을 완화시킨 뒤 환자를 퇴원시켜 집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span>”라며 “<span class='quot0'>집에서 하는 임종이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겠느냐</span>”고 말했다.<br/><br/>환자들이 감정의 응어리를 풀고 인생을 정리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김 교수가 생각하는 완화의료병동 의료진의 역할이다. 그는 “<span class='quot0'>육체적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심리적인 고통을 풀 수 없고, 반대로 영적·심리적인 고통을 해소하지 못하면 육체적 고통으로 나아갈 수 있다</span>”며 완화의료와 심리치료·상담이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한국인들의 죽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발전이 시급하다</span>”고 거듭 강조했다.<br/><br/><대전 |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15.txt

제목: [웰다잉 - 마지막까지 평화롭게] “췌장암 어머니 ‘내가 복이 많아 말년에 호강한다’고 해 다행”  
날짜: 20160202  
기자: 대전 |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202060133254  
본문: ㆍ충남대병원 대전암센터 완화의료병동에 가보니…<br/><br/>충남대병원 6층 복도를 걷다가 나무로 된 중문을 건너면 큰 창을 통해 햇살이 쏟아지는 아담한 정원을 만날 수 있다. 벽에는 ‘가족상담’ ‘향기 나누기’ 같은 프로그램 이름이 적힌 일주일 단위 시간표가 붙어 있다. 지난달 21일 오후 찾은 충남대병원 대전지역암센터 완화의료병동은 호스피스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활기찼다. 할머니를 문병하러 온 아이가 깔깔대며 병실과 복도를 오갔고, 환자복 차림의 한 여성은 말간 얼굴로 목욕실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돌아갔다. 주영희씨(58·가명)도 어머니가 탄 휠체어를 밀며 복도를 한 바퀴 돌았다.<br/><br/><br/><br/>충북 영동군에 사는 주씨의 어머니 이금선씨(86·가명)는 지난달 초 복통으로 처음 충남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이미 암이 대장과 비장, 신장에 전이된 터라 암을 제거하는 수술도, 항암치료도 불가능했다.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으니 근처 요양병원이나 완화의료병동으로 옮기라”고 권유했다. 처음엔 어머니를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모셔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암병동에서는 더 머무를 수 없었고, 경황이 없어 요양병원을 찾기도 어려웠다. 입원 열흘 만에 주씨는 떠밀리듯 어머니를 완화의료병동으로 모셨다. “<span class='quot0'>엄마, 우리 여기서 잘 버텨보자</span>”고 말하며 주씨는 어머니와 자신을 다독였다고 했다.<br/><br/>완화의료병동은 다른 병동처럼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다. 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조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해 마지막 순간까지 높은 삶의 질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완화의료병동의 목적이다. 가족 간 사이가 나쁠 때는 가족회의와 상담을 진행해 환자와 가족들이 화해와 사랑 속에서 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가족들이 떠나는 길에 편안하게 슬퍼하고 인사할 수 있도록 완화의료병동에는 임종실이 마련돼 있다. 1인실 두 개의 벽을 터서 만든 공간이다.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사랑방과 가족휴게실, 수면실도 마련돼 있다.<br/><br/>처음 입원했을 때 복통으로 고통스러워했던 주씨의 어머니는 완화의료병동에서 통증 관리가 잘 이뤄진 덕분에 이제 통증이 거의 없는 상태다. 주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머니와 함께 병동 복도를 한 바퀴 돌며 운동을 하고 성경을 읽는다.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목욕을 시켜주고 마사지도 해준다. 사회복지사로부터는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꽃꽂이와 비누 만들기, 음악치료 같은 병동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어머니와 함께 손수 만든 플라워액자로 침대 한쪽을 장식했다.<br/><br/><br/><br/>“바쁘게 사느라 가끔 반찬이나 택배로 보내고, 엄마 집에 들러도 금방 돌아가기 바빴어요. 엄마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며 보낸 시간이 그동안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네요.” 아마도 마지막이 될 어머니와의 시간을 보내며 주씨는 호스피스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죽을 때가 되면 잠시 머무르다 가는 곳이라는 선입견이 깨지고, 지금은 이 병동에 올 수 있게 된 게 행운이었다는 생각을 한다. 그는 “<span class='quot0'>어머니는 요즘 ‘내가 복이 많아서 이제 와 호강한다’고 하신다</span>”고 말했다. <br/><br/>이날 오후엔 완화의료병동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모여 새로 온 환자의 상태를 공유하고 치료법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일주일 전 병동에 새로 들어온 주씨 어머니의 사례도 논의 대상이었다. 담당의사가 시행한 처치와 현재 상태를 브리핑하자 간호사는 “<span class='quot1'>보호자들의 지지가 잘돼 있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span>”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는 “<span class='quot2'>차상위계층으로 무료간병인 지원 대상이라 연계를 해드리기로 했다</span>”고 이야기했다.<br/><br/><br/><br/>한 70대 환자에 대해서는 “딸 둘이 교대로 간병하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 환자를 안정되게 모시게끔 가족 간 회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이 나왔고, 또 다른 환자에 대해서는 “통증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고 참는 것 같으니 상담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br/><br/>병동에서는 수시로 환자들이 들고 난다. 어떤 환자는 병동에서 임종을 한다. 이날 오전에도 환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병원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장폐색 증상으로 배변이 어려웠던 이금선씨는 지난달 29일 일반병동으로 옮겨가 장루수술을 받은 뒤 1일 완화의료병동으로 돌아와 퇴원을 논의 중이다. 환자 상태가 안정적일 경우 보통 입원 2주쯤에 환자·가족과 상의해 퇴원 계획을 세운다. 말기환자들은 퇴원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퇴원 후에는 가장 편안한 공간인 집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을 행복하게 여긴다고 병원 관계자가 말했다. 충남대병원은 병원에서 50분 이내 거리에 사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완화의료의사와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미술치료사, 자원봉사자 등이 환자와 가족의 상황에 맞춰 방문해 통증과 증상을 관리하고 심리상담을 진행한다.<br/><br/>최영심 책임간호사는 “<span class='quot3'>완화의료병동은 임종을 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내러 오는 곳</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생의 마지막 날까지 행복하게,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환자와 가족의 곁을 지키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대전 |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16.txt

제목: 소록도 봉사 ‘외국인 할매 수녀’ 온다  
날짜: 20160131  
기자: 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31213715405  
본문: ㆍ40여년 헌신 마리안느 스퇴거 5월 초청 받아 10년 만에 방한<br/><br/>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40여년간 한센인을 위해 봉사하다 고향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두 ‘할매 수녀’ 중 한 명이 10여년 만에 소록도를 찾는다.<br/><br/>고흥군은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오는 5월17일에 마리안느 스퇴거 수녀(83)를 초청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고흥군은 당초 두 명 모두를 초청하려 했으나 마가렛 피사렛 수녀(82)의 건강이 좋지 않아 스퇴거 수녀만 소록도를 찾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퇴거 수녀 역시 최근까지 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현재 상태는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br/><br/>고흥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스퇴거, 피사렛 수녀는 연고도 없는 한국에 와서 40년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오직 소록도를 위해 일만 하다 고국으로 돌아가셔서 한센인들에게는 ‘천사 수녀’ 또는 ‘할매 수녀’로 불리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더 늦기 전에 보답할 기회를 찾기 위해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 중</span>”이라고 말했다. <br/><br/>고흥군은 이들에 대해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하고, 오는 5월 상영 예정으로 다큐멘터리를 촬영 중이다. 또 기념관 조성, 병사성당 등록문화재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br/><br/>할매 수녀 2명의 따뜻한 봉사정신은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재조명받고 있다. 그들은 누구도 다가서려 하지 않았을 때 비닐장갑 하나 끼지 않고 한센인들을 간호했다. 스퇴거 수녀는 1962년 소록도를 찾아 2005년 귀국 때까지 43년을 한센인 간호에 몸을 바쳤다. 피사렛 수녀도 1966년 소록도에 발을 디딘 후 2005년 귀국 때까지 39년 동안 한센인과 애환을 함께하며 이들의 치료에 헌신했다.<br/><br/>이들 2명은 1960년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뒤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소록도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이를 계기로 소록도에는 매년 전국에서 찾아오겠다는 의료봉사단과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br/><br/><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17.txt

제목: 1일부터 췌장암·백혈병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날짜: 20160131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31120303273  
본문: 1일부터 췌장암과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br/><br/>보건복지부는 31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환자 수가 적은 암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br/><br/>▶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아브락산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br/><br/>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돼 5년 생존율이 8.8%로 매우 낮고 치료제도 제한돼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컸다. 아브락산주는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후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됐으나 가격이 매우 비쌌다. <br/><br/>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인당 약제비 부담이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줄어 약 900명의 환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br/><br/>▶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쓰이는 ‘라도티닙’(슈펙트캡슐)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br/><br/>종전까지 라도티닙은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라도티닙을 처음 사용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환자 수가 26명 정도에 불과한 희귀질환이다. 환자 1인당 약제비는 연간 1950만원에서 97만원으로 절감될 것이 예상된다.<br/><br/>▶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맙테라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br/><br/>이 요법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승인 받은 의료기관만 사용이 가능했다. 또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중 젬시타빈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br/><br/>심사평가원은 이 요법을 사용한 사례들을 사후 평가해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했다. 복지부가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젬시타빈+도세탁셀’ 및 ‘리툭시맙’ 병용요법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br/><br/>이에 따라 약 280명의 환자들이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젬시타빈’에도 건강보험이 지원돼 연간 160만원이던 약제비가 23만원으로 절감될 전망이다. <br/><br/>▶ 신규 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또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br/><br/>‘브렌툭시맙’을 사용할 약 50명의 비호지킨·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연간 약제비 부담이 약 80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br/><br/>▶ 항암치료의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을 예방하는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약 4500명의 암환자의 약제비 부담이 1회 사용시 약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절감된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18.txt

제목: [영상뉴스] 인공지능과 인간의 싸움··· 결국, 문제는 인간의 일자리다  
날짜: 20160130  
기자: 경향비즈팀 eco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30214830973  
본문: 컴퓨터 인공지능 기술은 쉼없이 발전 중이다. 단순 지시에 불과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인간의 두뇌를 본뜬 ‘신경망’ 프로그래밍으로 발전해 왔다. <br/><br/>2011년 미국 퀴즈쇼 ‘제퍼디’에서 우승한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의 경우 전 세계 백과사전과 위키피디아, 뉴욕타임스 아카이브, 성경 등 2억 페이지에 달하는 정보를 스스로 자기학습하며 수십만 가지의 질문에 답을 내놓을 수 있다.<br/><br/><br/><br/> <br/><br/>문제는 일자리다. 인공지능 기술은 그동안 사람이 해오던 일을 빠르게 잠식해나갈 것이라고 저자는 경고한다. <br/><br/>무인자동차 기술을 운송업에 접목하면 트럭 기사들은 사실상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도중에 휴게소에 들를 필요 없이 24시간 운행할 수 있으니 운송 시간도 훨씬 단축된다.<br/><br/>전문직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수많은 판례를 정보로 처리해 개별 사례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br/><br/>인공지능 컴퓨터 ‘왓슨’은 현재 암 환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에 쓰이고 있다. 의사가 한다면 몇 주, 몇 달이 걸릴 의학문헌 검토를 왓슨은 불과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다.<br/><br/>고대 그리스문화는 노예의 노동 위에서 화려하게 꽃피웠다. 인공지능의 발달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이는 컴퓨터와 기계가 과거 노예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고, 사람들은 보다 창조적인 분야에 주력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br/><br/>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도태되는 이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수도 적지 않을 것이다. <br/><br/>“<span class='quot0'>옛날 산업혁명 초기 러다이트들은 그들 대신 일을 차지한 방적기들을 부쉈지만, 만일 상대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라면 대체 어떤 식으로 대항해 싸울수 있겠는가?</span>”<br/><br/>인공지능과 인간의 싸움…결국, 문제는 인간의 일자리다.<br/><br/>이 영상은 심진용 기자가 쓴 책과 삶- ‘인간은 필요 없다’ 서평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br/><br/>▶ '책과 삶- 인간은 필요 없다' 서평읽기<br/><br/><경향비즈팀 eco1@kyunghyang.com><br/><br/><br/> ‘향이네’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소식을 접하세요!(▶바로가기)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19.txt

제목: 삼성반도체 난소암 사망 노동자, 산업재해 첫 인정  
날짜: 20160129  
기자: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29213439695  
본문: ㆍ법원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피로 누적으로 업무상 재해 해당” <br/>ㆍ발암·독성물질 접착제 사용 확인…당시 ‘역학조사 부실’도 밝혀져<br/><br/>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난소암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이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과 뇌종양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적은 있지만 난소암은 처음이다.<br/><br/>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난소암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노동자 이은주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br/><br/>재판부는 “<span class='quot0'>난소암 발병 원인은 의학적으로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이씨가 작업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 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피로·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유해요인들이 복합 작용해 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span>”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span class='quot0'>난소암은 발병 원인 등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병이라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다른 질병에 비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정도가 완화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pan>”고 밝혔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문제에 관한 증명책임을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는 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취지”라고 설명했다.<br/><br/>이씨는 1993년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입사해 6년2개월 동안 근무하다 1999년 구토와 복부팽만 등 이상 증상을 보여 퇴사했다. 이듬해부터 난소에 종양이 생겨 치료를 받았으나 암이 전이돼 2012년 36세 나이로 사망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반도체 제작 공정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지만 공단 측은 유해물질이 취급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r/><br/>공판 과정에서 유족 측은 이씨가 유해성이 있는 접착제들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사실조회를 한 결과, 현장에선 해당 접착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접착제의 성분은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와 생식독성물질 페놀의 화합물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실한 역학조사도 확인됐다. 공단은 역학조사 당시 일부 유해성 물질의 농도에 대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고, 공기 중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br/><br/>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span class='quot1'>소송이 진행되던 중에도 삼성은 자료 은폐와 왜곡으로 산재인정을 방해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유족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br/><br/><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20.txt

제목: [책과 삶]인공지능과 인간의 가열되는 싸움…결국, 문제는 인간의 일자리다  
날짜: 20160129  
기자: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29195435672  
본문: ㆍ인간은 필요없다 <br/>ㆍ제리 카플란 지음·신동숙 옮김 | 한스미디어 | 296쪽 | 1만5000원<br/><br/>구글의 자회사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가 최근 유럽 챔피언과의 바둑 대결에서 5-0 압승을 거뒀다. ‘딥 블루’가 1997년 세계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꺾은 지 19년 만이고, ‘왓슨’이 2011년 미국 퀴즈쇼 ‘제퍼디’에서 우승한 지 5년 만이다. <br/><br/>유럽 챔피언과 세계 정상급 바둑기사의 실력차는 엄연하다고 하지만, 컴퓨터가 프로기사를 꺾었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 놀랍다는 반응이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바둑판 위에서 천변만화하는 행마를 따라잡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br/><br/>컴퓨터 인공지능 기술은 쉼없이 발전 중이다. 현존 세계 바둑 최고수 이세돌 9단은 3월로 예정된 ‘알파고’와의 대결에 대해 “적어도 이번에는 내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는데, ‘적어도 이번에는’이라는 단서가 의미심장하다. 일례로 오늘날 최신 스마트폰의 메모리 용량은 1980년대 최고의 개인용 컴퓨터인 애플II보다 100만배는 크다. 저자는 “<span class='quot0'>달팽이가 기어가는 속도와 국제우주정거장이 궤도를 도는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날지 생각해보라</span>”면서 “<span class='quot0'>사실 그 둘 사이의 속도 차는 100만배의 절반인 50만배에 불과하다</span>”고 설명한다. 단순히 양적으로만 성장한 것도 아니다. 저자는 “<span class='quot0'>어떤 기술이든 양적 차이가 충분히 크게 벌어지면 어느 순간에는 질적인 차이가 뒤따르기 마련</span>”이라고 했다. “<span class='quot1'>이걸 처리하고, 다음에는 저걸 하라</span>”는 식의 단순 지시에 불과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인간의 두뇌를 본뜬 ‘신경망’ 프로그래밍으로 발전해 나갔다. 연산능력과 저장용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컴퓨터 인공지능은 스스로 어마어마한 분량의 데이터를 검색해 패턴을 분석하고 답을 도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왓슨’의 경우 전 세계 백과사전과 위키피디아, 뉴욕타임스 아카이브, 성경 등 2억페이지에 달하는 정보를 소스로 자기학습하며 수십만가지의 질문에 답을 내놓을 수 있다.<br/><br/>문제는 일자리다. 인공지능 기술은 그동안 사람이 해오던 일을 빠르게 잠식해나갈 것이라고 저자는 경고한다. 무인자동차 기술을 운송업에 접목하면 트럭 기사들은 사실상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 트럭들은 차간 거리를 불과 몇㎝ 정도로 가깝게 유지한 상태에서 최대 속도로 달릴 수 있다. 교통 체증이 줄고 연료도 15% 이상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 도중에 휴게소에 들를 필요 없이 24시간 운행할 수 있으니 운송 시간도 훨씬 단축된다.<br/><br/>전문직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수많은 판례를 정보로 처리해 개별 사례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제퍼디’ 우승으로 능력을 과시한 ‘왓슨’은 현재 암 환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에 쓰이고 있다. 의사가 한다면 몇 주, 몇 달이 걸릴 의학문헌 검토를 왓슨은 불과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다.<br/><br/>고대 그리스문화는 노예의 노동 위에서 화려하게 꽃피웠다. 인공지능의 발달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이는 컴퓨터와 기계가 과거 노예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고, 사람들은 보다 창조적인 분야에 주력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분명 컴퓨터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사회 생산성은 크게 향상될 것이고 전체적인 부도 증가할 것이다.<br/><br/>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도태되는 이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수도 적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재교육과 직업 전환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실현시킬 것인지 뚜렷한 답을 내놓는 이는 드물다. 저자는 “<span class='quot0'>옛날 산업혁명 초기 러다이트들은 그들 대신 일을 차지한 방적기를 박살냈다지만, 만일 상대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라면 대체 어떤 식으로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겠는가</span>”라고 물었다.<br/><br/>저자는 부의 재분배를 강조한다. 제도적 인센티브를 활용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채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조언한다. 급격한 기술 발달과 사회 변화에 발맞춰 학교 교육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질적인 재교육과 직업 전환을 위해 ‘직업 대출’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한다. 기업이 미래에 누군가를 고용하겠다고 약속하면 해당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일하게 될 사람은 미래에 받게 될 임금을 미리 빌려 직업기술을 익히는 데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br/><br/>저자는 인공지능학자로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의 영향, 윤리를 가르치고 있다. 책의 원제는 ‘Humans need not apply(인간은 지원하지 마십시오)’인데, 미국의 유명 유튜브 업로더 C G P 그레이가 만든 짧은 동영상 제목에서 따왔다. 15분 분량의 해당 동영상은 책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일자리 위협을 다루고 있다. 관심있는 독자는 동영상까지 찾아 보아도 좋다.<br/><br/><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21.txt

제목: [단독]'난소암' 삼성반도체 노동자, 업무상재해 첫 인정  
날짜: 20160129  
기자: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29103143272  
본문: 난소암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노동자가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에서는 그간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과 뇌종양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난소암까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br/><br/>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난소암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노동자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br/><br/>이씨는 1993년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입사해 온양사업장에서 6년2개월 동안 근무하다 1999년 6월 구토와 복부팽만 등 이상 증상을 보여 퇴사했다. 이듬해부터 난소에 경계성종양, 악성종양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벌였으나 36살이 되던 2012년 암이 전이돼 사망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반도체 공정으로 인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지만 공단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난소암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로는 석면, 탈크, 방사선 등이 있으나 망인이 근무한 공정에서는 위 물질들이 취급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br/><br/>공판 과정에서 유족 측은 이씨가 유해성이 있는 에폭시수지 접착제 EN-4065, 8351C를 사용했다고 했으나, 삼성과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사실조회를 한 결과, 현장에선 해당 접착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접착제의 성분은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와 생식독성물질 페놀의 화합물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실한 역학조사도 확인됐다. 공단 측은 역학조사 당시 일부 유해성 물질의 농도에 대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고, 공기 중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br/><br/>재판부는 “<span class='quot0'>이씨에게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은 의학적으로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망인이 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유해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망인에게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span>”고 판단했다.<br/><br/>재판부는 또 “<span class='quot0'>난소암은 그 발병 원인 등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병이라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다른 질병에 비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의 정도가 완화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pan>”고 밝혔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br/><br/><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22.txt

제목: 강타 출연하는 中 TV프로 방청권이 1600만원?  
날짜: 20160127  
기자: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27082922434  
본문: 중국의 설 특집 프로그램 입장권 가격이 8만8000위안(1600만원)까지 올라갔다고 환구시보 온라인판이 26일 보도했다. <br/><br/>환구시보 보도에 따르면 춘제(春節·설)가 다가오면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CCTV 특집 프로그램인 <춘완(春晩)> 티켓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br/><br/>‘왕선생’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한 사이트에 <춘완> 입장권을 8만8000위안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원래는 비매품이지만 CCTV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표를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암표상은 기자에게 “지난해 11월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8만8000원에 팔았지만 지금은 남은 수량이 얼마 없어 6만6000위안으로 할인해주겠다”며 “작년에는 12만위안(2187만원)까지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br/><br/>그러나 돈만 낸다고 바로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표를 산 사람은 3만위안의 보증금과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CCTV 측에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한다.<br/><br/>■암표 가격이 1600만원까지 치솟아<br/><br/>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도 <춘완> 티켓 판매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판매상들은 “아직 표가 안 나와 예약을 받고 있다”면서 원형 테이블석은 장당 8만위안, 일반좌석은 4만위안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br/><br/>이에 대해 CCTV 측은 “<춘완> 티켓은 외부에 판 적이 없다”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br/><br/>암표상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춘완>의 영향력과 인기 때문이다. <br/><br/><춘완>은 설 전날 오후 8시부터 4시간 넘게 생방송되는 종합 예능·예술 프로그램이다. 가수들의 공연과 만담, 개그 코너, 서커스, 우슈 시범 등으로 구성된다. 설이 되면 각 방송국에서 <춘완>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내놓지만 원조는 중국 국영방송인 CCTV다. 춘제가 가까워지면 많은 중국인들은 그해 <춘완>에 나오는 출연자들과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관심이 높다보니 <춘완> 리허설과 출연자 인터뷰가 CCTV 뉴스를 통해 소개될 정도다. <br/><br/>■‘춘완’의 높은 인기 왜?<br/><br/>지난해 CCTV <춘완>은 사상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25% 정도. 중국에서 예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판 런닝맨’인 <달려라, 형제>의 시청률이 2.5%인 것과 비교하면 <춘완>의 인기를 가늠해볼 수 있다. <br/><br/><춘완>의 출연자들에 대한 심사도 엄격하다. <br/><br/>세계적인 스타인 류더화(劉德華)도 지난해 10년 만에 <춘완>에 출연했다. 그는 중국 전통 의상인 장파오를 입고 북경어 노래인 <집으로 가는 길>(回家的路)을 불렀다. <br/><br/>‘일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함께 있었는지 세어봅니다/모든 것이 천천히 분명해 질것입니다/집으로 가는 길/어깨 위에 내려앉은 먼지를 떨어냅니다/더 피곤하더라도 계속 걸어가요/집으로 가는 길은 정말 행복해요’<br/><br/>방청객들은 류더화의 노래 가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 이 모습은 CCTV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됐다. <br/><br/>그룹 엑소에서 탈퇴하고 SM엔터테인먼트와 법정 분쟁을 벌인 가수 크리스와 루한은 지난해 <춘완> 출연자로 선정돼 리허설까지 마쳤지만 방송 직전 출연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br/><br/>올해는 한국 스타인 강타가 CCTV <춘완>에 출연한다. 그는 <춘완> 출연권을 두고 경합을 벌이는 <직통춘완(直通春晩)>에서 발탁돼 중국 스타 슝다이린(熊黛林)과 노래를 부를 예정이다.<br/><br/><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23.txt

제목: [웰다잉 - 마지막까지 평화롭게]사람답게 죽는 건, 권리다  
날짜: 20160124  
기자: 런던 |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24224027758  
본문: 호스피스의 나라 ‘영국’. 그곳에서 죽음은 가족 곁에서 평온하게 떠나는 것이었다.‘웰다잉법’이 막 통과한 한국에선 ‘사람다운 죽음’은 아직 먼 이야기.국민 절반 이상이 마지막 장소가 집이길 원하지만 80%가 병원에서 생을 마친다.대한민국이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이다.<br/><br/>영국에 사는 케리 에머턴은 4년 전 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활동적이던 항공사 승무원에게 암 진단은 청천벽력이었다. 한동안 사람들을 멀리했다. 그러나 그의 나이 37세, 아들 조슈아는 고작 16세였다. 그는 암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br/><br/>처음엔 나쁘지 않았다. 에머턴은 취미였던 승마를 계속했고 마장·마술대회에서 트로피를 거머쥐기도 했다. 몸 상태가 악화된 것은 방사선치료가 시작된 즈음이다. 병원에 입원했다. 암이 다른 장기들로 전이된 사실을 알게 됐고 회복은 불가능했다. 에머턴은 병원이 싫었다. 의료진에게 몸을 내맡기고 신체 이곳저곳에 튜브를 꽂은 채 의식도 없이 죽어가고 싶지 않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영국은 2010·2015년 국제적인 ‘죽음의 질’ 평가에서 1위에 오를 만큼 호스피스가 발달한 나라였다. 그는 베드포드셔에 있는 ‘키치 호스피스 케어’에 입원했다. 에머턴은 여기서 8일을 더 살았다. 사망하기 며칠 전, 호스피스 의사가 소원을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기르던 말에게 마지막으로 먹이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날 그는 말을 실은 트럭이 호스피스 건물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됐다. 에머턴은 잔뜩 들떴고 가족과 친구들도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다. 에머턴의 언니 케이트는 “<span class='quot0'>키치 호스피스는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고, 병원에 남았다면 꿈도 못 꿨을 따뜻한 기억을 가족에게 남겨준 곳</span>”이라고 회상했다.<br/><br/>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내에서도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r/><br/>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도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명절이나 가족·친지·이웃 어른에게 큰 병이 생겼을 때 나누던 ‘웰다잉(Well-Dying)’ 얘기가 생활 속으로 한발 더 들어온 것이다.<br/><br/>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현실은 괴리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병원’에서 생을 마치고 싶다는 사람은 16.3%에 불과했다. 57.2%는 ‘가정’, 19.5%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2010년 통계청 통계를 보면 질병으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의 81.1%는 병원에서 숨졌고, 15.1%만 집에서 숨을 거뒀다. 그해 말기 암환자가 사망 전 3개월간 지출한 건강보험 의료비(7012억원)도 사망 전 1년간 쓴 의료비(1조3922억원)의 50.4%에 달한다. 불편하고 비싼 연명치료 속에서 세상을 이별한 것이다. <br/><br/>서울성모병원 라정란 호스피스완화의료팀장은 “<span class='quot1'>호스피스의 목적은 ‘고통 없이 삶을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시설이나 집에서 평화롭게 삶을 살아내도록 돕는 데 있다</span>”며 암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을 40~5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말기 암환자 중 호스피스를 이용한 사람은 2014년 기준 13.8%에 그치고 있다. 영국에서 110년 전 정착된 무료 호스피스에 한국은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웰다잉을 준비하는 생각과 질의 차이였다.<br/><br/><런던 |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24.txt

제목: [웰다잉 - 마지막까지 평화롭게] (1) “당신에게 중요한 게 뭐냐”…환자의 연명보다 평온을 선물  
날짜: 20160124  
기자: 런던 |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24222052625  
본문: ㆍ‘죽음의 질’ 1위 영국<br/><br/>영국 호스피스기관협회 ‘호스피스 UK’의 마리 쿠퍼 임상개발팀장은 큰 개를 끌어안은 채 병상에 누워 있는 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다. 남자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암환자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시한부 환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몸은 수척했지만 눈빛이 밝았고, 의료기기와 연결되는 튜브나 전선도 보이지 않았다.<br/><br/>쿠퍼 팀장은 이 남자가 개와 함께 거리에서 생활하던 노숙자였다고 말했다. 남자의 소원은 자신의 소중한 친구인 개를 계속 돌보는 것이었다. 남자가 누워 있던 곳이 병원이라면 ‘동물 반입’은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은 호스피스 기관이었고, 남자는 삶의 마지막 날까지 개와 지내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었다.<br/><br/>쿠퍼 팀장은 “<span class='quot0'>호스피스는 삶에 대한 통제권과 의사결정권을 의사가 아닌 환자 본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늙고 병든 사람들도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영국 전역에 퍼져 있는 220여개 호스피스 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연간 약 12만명이다. 이들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포함하면 연간 36만명이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보다 호스피스 이용 문화가 활성화돼 있지만 영국인들도 호스피스와 죽음을 연결시켜 생각하긴 마찬가지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먼 마틴은 부인이 호스피스에 가자는 제안을 조심스레 꺼냈을 때 ‘그곳은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거부감이 먼저 들었다. <br/><br/>그러나 버크햄스테드에 있는 ‘세인트 프란시스 호스피스’에 입원한 후 마틴의 생각은 180도 바뀌었다. 병원에서 매일같이 듣던 다른 환자들의 흐느낌과 울부짖는 소리가 그곳엔 없었다. 그 자신도 효과적인 통증 관리를 받은 덕분에 가슴을 조여오던 통증에서 해방됐다. 병원에선 의사와의 상담시간이 하루 12분에 불과했지만 이곳에선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는 게 가능했다. 호스피스의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은 마틴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왔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br/><br/>쿠퍼 팀장은 “<span class='quot0'>병원에선 의료진이 ‘당신의 문제는 무엇이냐(What is the matter with you?)’고 묻지만 호스피스에선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What matters to you?)’고 묻는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에게 묻는 질문의 강조점을 변화시킨 것이 호스피스의 장점</span>”이라고 말했다.<br/><br/>한국의 경우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긴 했지만, 2018년 시행 전까지는 말기 암환자들만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법은 암 외에 후천성면역결핍증과 만성 폐쇄성폐질환, 만성 간경화의 말기환자 등으로 호스피스 대상자 범위를 넓혔다. <br/><br/>반면 영국에선 회생 가능성이 없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누구든 호스피스에 들어갈 수 있다.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아동 호스피스 기관들도 별도로 있다. 1982년 세계 최초의 아동 호스피스인 ‘헬렌 앤드 더글러스 하우스’가 문을 연 곳도 영국이다. <br/><br/>영국 호스피스 기관들은 재정의 32%가량을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격인 국가보건서비스(NHS)로부터 지원받는다. 나머지는 시민들과 기업이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모금팀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모금 행사를 열어야 하지만, 환자와 그 가족에겐 비용을 받지 않는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모두 무료 제공된다. <br/><br/>호스피스 전문가들은 기대수명이 늘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려는 욕구도 커지고,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인구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br/><br/>한국의 경우 치매노인 인구는 2010년 47만4000명(노인 인구의 8.7%)에서 2030년 127만2000명(10%), 2050년엔 271만명(15.1%)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br/><br/>‘호스피스 UK’의 멜라니 허드슨은 “<span class='quot1'>30년 전만 해도 호스피스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50~60대였지만 지금은 80대</span>”라며 “<span class='quot1'>노인 인구 증가라는 인구학적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br/> ■완화의료 - 진통제 적극 사용, 환자 고통 덜어줘<br/><br/>세계보건기구(WHO)는 완화의료를 ‘고통의 예방·완화를 통해 삶을 위협하는 질병에 직면한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접근’으로 정의하고 있다. 완화의료는 진통제 등을 적극 사용해 환자의 통증을 덜고 증상을 조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처럼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연명 치료는 시행하지 않는다.<br/><br/>■호스피스 - 완화의료부터 환자의 가족까지 돌봐<br/><br/>호스피스는 완화의료를 포함해 환자와 가족의 신체 활동과 심리적·영적 영역까지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호스피스 기관에선 환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주도적·능동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주고, 가족에겐 환자를 간병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환자가 죽음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환자가 사망한 후 일정 기간 유가족의 안부를 확인하는 일도 하고 있다. <br/><br/><런던 |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25.txt

제목: [뉴스 깊이보기] 이집트 혁명 5년, 아랍의 봄은 가고 독재만 남았다  
날짜: 20160122  
기자: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22091710676  
본문: 혁명은 짧고 독재는 길다. 오는 25일이면 이집트 혁명 5년이지만 이집트에서 민주주의 기운을 찾아보긴 힘들다. ‘아랍의 봄’ 당시 유혈진압을 지시했다가 실각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법의 처벌을 피해왔다. 군부 쿠데타로 민주 정권을 무너뜨린 압델 파타 엘시시는 민주화를 후퇴시켰다.<br/><br/>이집트 사법부는 무바라크에게 면죄부를 줬다. 지난 2014년 11월29일 카이로 법원은 이집트 민주화 혁명 당시 시위대 수백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무바라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이날 무바라크가 시위대 사망과 관련이 있다는 혐의를 기각하고 이스라엘 가스 수출과 관련한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br/><br/>최근에는 스위스 검찰 조사로 무바라크 일가의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이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무바라크와 가족들의 동결된 비자금 5억9000만 스위스프랑(7126억8460만 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스위스 현지 언론 더 로컬이 18일 보도했다. 카이로를 방문 중인 미하엘 라우버 스위스 검찰총장은 스위스 법률상 형사 기소된 이들 예금계좌의 소유주와 비자금의 연관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만 비자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집트 당국에는 돈의 출처를 알 수 있도록 30개 관련 서류를 넘기는 등 법률적 지원을 요청했다. <br/><br/>무바라크는 한 때 심장마비로 인한 혼수상태에 빠져 건강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곧 회복했다. 그의 건강은 2011년 4월 검찰 조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악화됐다. 같은 해 8월 첫 재판을 받은 후 카이로 인근 병원에 머물다가 이듬해 6월 무기형을 선고 받은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의식을 회복해 다시 교도소에 복귀했다. 건강 이상을 핑계로 삼고 있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됐다. 앞서 2011년 7월에도 위독설이 나왔지만 재판정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시 무바라크 변호사는 그가 암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공식 부인했다. <br/><br/>민주화 시위 참가자 846명을 사망하게 하고도 무바라크가 건재할 수 있는 건 엘시시 덕분이다. 엘시시는 무바라크 실각 후 무슬림 형제단이 세운 대통령 무함마드 무르시를 2013년 7월 군부 쿠데타로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다. 무슬림 형제단은 1928년 이집트에서 구성된 풀뿌리 이슬람 운동 단체로 무바라크 집권기에 실질적 제1 야당 역할을 했다. <br/><br/>무바라크 정권과 마찬가지로 세속주의를 견지하는 엘시시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단체로 규정해 소탕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2014년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 무르시에게 사형을 선고하기까지 했다. <br/><br/>‘아랍의 봄’ 당시 시위가 일어난 나라 중 튀니지만이 유일하게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되찾았다. 예멘은 독재자를 축출하고 새 정부를 구성했지만 다시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졌고 리비아도 같은 과정을 겼었다. 최근에는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샤르 알 아사드가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시리아는 내전으로 최악의 참상을 겪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엘시시 대통령 집권 뒤 지금까지 최소 2500명이 시위에서 사망했으며 4만 명 이상이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됐다. 언론까지 억압하며 비판여론을 무마시키고 있다. ‘아랍의 봄’은 짧게 왔다 사라졌다.<br/><br/><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26.txt

제목: [사회 분야 4개 부처 업무보고]읍·면·동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 허브’로  
날짜: 20160120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20223801649  
본문: ㆍ찾아가는 복지 초점<br/><br/>올해 전국 700개 읍·면·동 주민센터의 간판이 ‘주민복지센터’로 바뀐다. 복지 전담팀이 조직돼 복지 혜택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나설 예정이다. 유도 초음파와 수면내시경, 고가 항암제 등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200여개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처음 적용된다.<br/><br/>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br/><br/>복지부는 전국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 조직을 신설하고, 가가호호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활성화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읍·면·동마다 복지공무원 1명과 민간 인력 3명을 추가 배치하고, 주민센터의 이름도 주민복지센터로 바꾼다.<br/><br/>현재는 읍·면·동보다 행정 단위가 큰 시·군·구가 복지 업무를 주로 맡고 있어 지역사회의 복지 수요를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2018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3496개)에 복지 전담팀을 설치할 방침이다.<br/><br/>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과 관련된 200여개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유도 초음파나 고가 항암제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22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br/><br/>환자들에게 ‘특진비’ 부담을 줬던 선택진료 의사 비율은 지난해 67%에서 올해 33%로 축소되고,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현재 112개에서 400개 병원으로 확대된다.<br/><br/>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1인가구 93만원(부부 148만8000원)에서 올해 100만원(부부 160만원)으로 인상됐다. <br/><br/>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5년간 소득·재산을 살펴 수급이 가능할 경우 재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이달 도입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지난해 월평균 45만6000원에서 올해 51만7000원으로 오른다.<br/><br/>오는 7월부터는 종일 보육(12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전업주부 등은 하루 보육 시간이 7시간으로 제한된다.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가 월 15시간 제공되지만 이보다 더 오랜 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시간당 4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가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은 지난해 230개에서 올해 380개로 늘어난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27.txt

제목: '맞춤형 복지 전담팀 설치'…주민센터, 복지센터로 변신한다  
날짜: 20160120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20112048730  
본문: 앞으로 지역사회 복지 수요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가 직접 챙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액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올라가고,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자 부담도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br/><br/>■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복지센터로 변모<br/><br/>복지부는 올해 전국 700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복지 수요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 3495곳 전체를 복지허브화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 복지업무 전담인력과 별도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팀을 꾸려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이다.<br/><br/>복지 기능이 강화된 것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 ‘동주민센터’ 혹은 ‘읍·면 사무소’라는 기관 명칭을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br/><br/>■기초생활보장·의료보장 확대<br/><br/>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상향조정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올라가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2016년 기준 중위소득(439만원)의 29%인 127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기준 중위소득의 43%인 182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는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급여액은 월평균 45만6000원에서 51만7000원으로 13.4% 오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도 1인가구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br/><br/>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올해 환자부담을 총 2200억원 줄이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유도초음파와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결핵 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장기이식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장기구득 비용이나 장기이식 공여적합성 검사비용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현행 70세 이상에서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br/><br/>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항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67%였던 대형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올해 33%까지 축소할 계획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 실시 병원은 지난해 말 기준 112곳에서 올해 4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br/><br/><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28.txt

제목: 소람한방병원, 환우회와 ‘암’ 간담회 개최  
날짜: 2016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20095709726  
본문: 한방 통합암치료를 제공하는 소람한방병원(병원장 성신)은 지난 19일(화), 소람환우회와 함께 암 치료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br/> <br/>이번 간담회는 암 선고를 받았으나 치료를 통해 현재는 건강을 되찾은 소람환우회를 주축으로 현재 암과 싸우고 있는 암환자 및 암환자 가족들을 초청하여 암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br/> <br/>소람한방병원 성신 병원장은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지만 치료를 받고 실제로 호전된 환자들이 건네는 생생한 정보가 암 환자들에게는 절실하다. 정기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환자들끼리 소통하게 할 것”이라며 개최 의의를 전했다.<br/> <br/>KBS1아침마당에 출연했던 폐암 말기 박승근 씨의 강연으로 시작해 암 환우들끼리의 대화 시간으로 이어진 이번 행사에서는 항암 치료를 비롯해 면역력을 높여주는 한방 면역 치료와 규칙적인 운동 및 식습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br/> <br/>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오경숙(53세, 여)씨는 “같은 폐암 환자로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폐암, 담도암 같이 무서운 병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br/> <br/>한편 소람한방병원에서 폐암, 유방암, 난소암, 담도암, 림프암 등을 치료한 환우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봉사활동 단체인 소람환우회는 미혼모 시설인 두리홀 봉사 활동 및 구세군 모금, 바자회 등을 통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29.txt

제목: [부들부들 청년][1부④‘찍퇴’와 ‘사축’이 말한다]저는 10년차 ‘사축’입니다  
날짜: 20160119  
기자: 이효상·김서영 기자 hsle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19061008453  
본문: ㆍ좁은 취업 문 통과했더니 야근은 일상 술자린 필참 <br/>ㆍ서른둘, 10년차에 얻은 건 긴 노동·저임금·축난 몸 <br/>ㆍ저녁도 미래도 없는 나날 우린 사람인가, 사축인가<br/><br/>“비석처럼 앉아 있었다.”<br/><br/>이혜영씨(32·가명)는 광고 벤처회사의 한자리에서 40시간까지 일해봤다. 보름 동안 단 하루도 안 쉬고 야근하기도 했다. 사장은 “일하기 더 편할 것”이라며 주택가에 사무실을 얻었다. 이씨는 일하다 졸리면 바닥에 누워 15분씩 잤다. 머리를 못 감는 날이 늘어났다. 속옷과 양말이 모자라면 세면대에서 빨아 모니터 뒤에 널어뒀다. <br/><br/>많아야 10명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4년간 20명이 그만뒀다. 이씨는 회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됐다. 생일에도 야근했고, 엄마의 암 수술 날도 일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했다. 대신 오래 앉아 일하다가 방광염을 얻고 장염과 허리 디스크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4차례 직장을 옮기며 밤낮으로 달려온 10년. 이씨는 업무 능력이 오르고, 박봉이던 월급도 5배 뛰어 400만원이 됐다. 하지만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었다. 지난해 10월 회사를 그만뒀다. 나이 서른을 갓 넘어 “온몸이 번 아웃(Burn Out·소진)됐다”는 상실감 때문이다. “재취업 준비는 안 하고 있어요. 다시 가고 싶은 회사도 없고.”<br/><br/><br/><br/>정도영씨(31·가명)도 지난해 여름 뛰쳐나온 회사가 첫 직장이다. ‘생초짜’가 내놓은 결과물은 늘 비교됐다. “못하겠으면 관둬. 이런 거 할 사람 밖에 쌔고 쌨어.”<br/><br/> 정씨는 입사 5개월 만에 상사로부터 머리털이 쭈뼛 서는 말을 들었다. 모멸감에 몸이 떨렸고, 신입사원의 패기는 단숨에 꺾였다. 상사들은 시시콜콜 지적하면서도, 정작 뭘 잘하고 못하는지 어찌하면 잘할 수 있는지 짚어주지 않았다. <br/><br/>술자리에는 수시로 호출했다. 피하지 않고 따라다녀 봤지만 어느 날 “일 빼곤 다 잘한다”는 소리가 돌아왔다. 어느새 거울 앞에는 탱탱 불어난 몰골이 버티고 있었다. “<span class='quot0'>하루하루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허우적대는 게 싫었어요.</span>” 정씨는 2년간 품고 있던 사표를 던졌다.<br/><br/>취업 벽이 두껍지만 입사한 청년들도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절반 이상의 청년에게 야근은 일상이 됐다. 스펙을 쌓던 몸은 회사의 부속품이 됐고, 계약만큼만 돈받고 계약보다는 훨씬 많이 일한다고 생각한다. 저녁도 없고, 미래도 그려볼 수 없는 하루. 청년들은 회사에 길들여져 가는 서로를 ‘사축(社畜)’이라고 불렀다. <br/><br/>“<span class='quot0'>찍퇴(찍어서 퇴직)보단 낫다</span>”고 자조하는 그들의 선택지는 참거나, 제 발로 떠나는 것이다. 평균 11개월간 준비해 취직한 한국의 청년 10명 중 6명이 15개월 만에 첫 일자리를 그만두고 있다. 긴 노동과 저임금에 몸서리치고, 사람으로 대우받고 키워준다는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 ‘행복의 첫걸음’이라고 여겼던 일터에서 사표를 품고 사는 청년들이 묻고 있다. “<span class='quot0'>나는 사람인가요, 사축인가요.</span>”<br/><br/> <br/><br/><이효상·김서영 기자 hsle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30.txt

제목: “종교생활이 금연·운동처럼 우리 건강에 도움 줄 것”  
날짜: 20160118  
기자: 김희연 기자 egghe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18210731410  
본문: ㆍ종교발전포럼 매년 여는 박재갑 국립암센터 석좌교수<br/><br/>‘금연운동 전도사’로 유명한 박재갑 국립암센터 석좌교수(68·사진)는 2009년 한국종교발전포럼을 만들어 매년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br/><br/>박 교수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span class='quot0'>일반인들도 궁금해 할 종교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갖고 강연을 열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항상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종교생활이 금연, 운동과 마찬가지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포럼은 오는 21일을 시작으로 매달 세 번째 목요일 오전 7시 서울대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에서 열린다. 김종성 서울대 의학대학 교수의 ‘마취와 의식’을 비롯해 ‘중용, 양심경영의 지혜’ ‘개신교와 제사문제’ ‘빅뱅 우주론의 세 기둥’ 등 주제가 다양하다. 포럼에는 다양한 종단의 종교인들은 물론 종교에 관심 깊은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br/><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0'>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등 모든 종교와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주제들로 내가 궁금한 것들이기도 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자기 종교에 구애받지 말고 모든 종교를 공부하자는 뜻에서 종교포럼도 만들었다</span>”고 말했다.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그는 “<span class='quot0'>여러 종교의 교리를 들어보면 대부분 옳다고 인정하게 되고 종교의 심층으로 들어가면 모두 같다는 생각이 든다</span>”고 했다.<br/><br/>금연운동가인 만큼 이날 금연의 중요성도 얘기했다. 박 교수는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는 ‘금연과 운동, 건강검진’ 3박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발암물질 60여종이 있는 담배를 끊고 예방접종만 잘 하면 검진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병을 70%는 잡아낼 수 있고, 나머지 30% 가운데 절반은 고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또 “어떤 음식이나 비타민도 암에 걸릴 확률을 1% 낮추지 못하는데 매일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걸으면 암 발병률이 10% 감소하고, 심혈관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20% 줄어든다”고 말했다.<br/><br/>정부의 국민 건강을 내세운 담뱃값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담뱃값 2000원 인상은 금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선이 아님에도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인상을 추진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인상분만큼 국민 건강을 위해 그대로 써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김희연 기자 egghe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31.txt

제목: 오늘의 인사 - 2016년 1월 19일  
날짜: 20160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18205850354  
본문: ■관세청 △인천세관장 김대섭 <br/><br/>■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김태만 △특허심판원 심판장 권혁중 △기획조정관 손영식<br/><br/>■한국천문연구원 △광학천문본부장 경재만 △우주과학본부장 조경석 △행정부장 곽우근 △우주위험감시센터장 조중현<br/><br/>■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영기획본부장 이세열 △방사선규제단장 정재학 △비상대책단장 김균태 △원자력안전연구실장 강성식 △법령기준실장 이진호 <br/><br/>■한국과학창의재단 △감사부 부장 김홍식 △창조경제문화기획실 실장 김형진 박성균 △소프트웨어교육실 실장 박세만<br/><br/>■KEB하나은행 ◇전보 <지점장> △홍제동 강환복 △병점 고형권 △문화동 김기태 △일원역 김대용 △사직동 김봉수 △동춘동 김순태 △중촌동 김영환 △독일KEB하나은행 법인장 김혁준 △봉덕 남정엽 △예산 박완희 △반포중앙 박조미 △목동14단지 박주현 △청파동 박태규 △죽전중앙 방재현 △당진시청 양철진 △신정동 윤미애 △홍성 윤종수 △오류중앙 이병승 △이매동 이선용 △구서동 이영미 △파나마 이재성 △수원중앙 이재우 △화양중앙 이정우 △오산중앙 이정호 △영등동 이춘금 △영등포 이희철 △잠실리센츠 임채웅 △구의동 정선희 △둔촌중앙 정애현 △성남기업센터 조성민 △시드니 조용성 △노은 조홍연 △풍암동 최홍길 △예술회관역 홍기인 <RM>(기업금융전담역) △기업개선부 김기현 △익산공단 박영 △부산 우기상 △남동기업센터 장형석 △남영동 정현태 <br/><br/>■아워홈 △구매식재사업본부장 구지은 <br/><br/>■아주경제 △글로벌뉴스본부 국제경제 전문위원 임장원 △중국어 아주경제 총편집 정원교 △〃 편집부장 이진형 △〃 글로벌마케팅부장 김유상 <br/><br/>■삼성서울병원 △진료부원장 박윤수 △기획총괄 고광철 △QI실장 박승우 △건강의학본부 건강의학센터장 최윤호 △진료운영실 실차장 정철원 △암병원 위암센터장 김재준 △〃 간암〃 백승운 △〃 암치유〃 안진석 △심장뇌혈관병원 병원장대행 전은석 △〃 심장센터장 권현철 △대외협력실장 이준혁 △전략기획팀장 손태성 △CRM〃 양광모 △QPS〃 이준행 △환자행복〃 성기선 △위기대응〃 김덕경 △골관절센터장 문영완 △감염병대응〃 정두련 △연구전략실장 윤엽 △연구전략실 실차장 유규하 △중개융합의학연구소장 고재욱 △디지털헬스케어연구센터장 장동경 △임상역학 〃 서지영/엘리세오(공동) △임상의학연구소장 박영석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32.txt

제목: [여적] 아베와 박근혜의 노동개악  
날짜: 20160117  
기자: 강진구 논설위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17210558225  
본문: 정부와 여당이 노동 5법 통과에 목을 매던 지난달 2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파견 확대의 위험성을 놓고 한·일 공동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일본의 반 사치오(伴幸生) 나카마 유니온 위원장이 참석해 아베 신조 정권의 ‘노동개악’을 생생하게 폭로했다. 한국 측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반 사치오의 고발이 이어질 때마다 ‘어쩌면 우리와 똑같으냐’며 탄식이 흘러나왔다. 특히 파견법은 근 10여년 터울을 두고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었다. 일본에서 파견법제가 도입된 것은 1985년이고 한국은 1998년 입법이 이뤄졌다. 일본은 그로부터 14년 후인 1999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파견을 전 업무로 확대했고 한국은 2007년 파견 업종을 26개에서 32개로 확장했다.<br/><br/>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파업 확산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가 잠깐 있었던 것도 동일했다. 일본에서는 2008년 말 해고된 파견노동자들이 도쿄 한복판 히비야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시작한 ‘해맞이 파견촌’ 사건이 불안정 노동 철폐 운동의 불씨를 댕겼다. 한국에서는 2010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불법파견 문제를 전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켰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2012년 한·일 양국에 아베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두 나라는 다시 ‘파견 확대’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노동개악이 안 되면 고용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을러대며 국회를 압박하는 방법도 흡사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10월 ‘노동계약 신청 간주제도’ 시행을 앞두고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 의무가 부과되는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파견노동자 67만명이 해고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노동 5법 통과 없이 정년 60세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고용절벽이 기다린다고 하는 박근혜 정권의 수법과 그대로 닮았다. 일본이 후생노동성 명령으로 ‘잔업수당’을 없애려 하는 것이나 한국 노동부가 행정지침으로 ‘저성과해고’를 도입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다.<br/><br/>박근혜·아베 정권의 노동정책은 왜 이렇게 닮았을까. 그 해답은 두 정권 모두 기업을 힘들게 하는 모든 규제를 ‘암덩어리’라 부르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를 접고 미래로 함께 나가자는 양국 정상들이 꿈꾸는 나라가 ‘파견천국’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br/><br/><강진구 논설위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33.txt

제목: [기타뉴스]‘트통령’ 이외수 “기성세대, ‘자기 발등 불 끄기’ 핑계대며 젊은 세대 배려 안 해”  
날짜: 20160116  
기자: 인터파크도서 북DB 최규화 기자 somecrud@interpark.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16145116593  
본문: “늘 각박하고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이번에는 투병을 통해서 그 정점에 달했죠. 잘 발효됐다고 할까요? 이번 책에는 잘 익은 술처럼 취기가 더해진, 주정도가 높은 문장들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br/><br/>신작 에세이집 <자뻑은 나의 힘>을 펴낸 ‘국민작가’ 이외수. 전작들에 비해 이번 책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인지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2014년 가을 위암 판정 사실이 알려진 이외수 작가는 위장 전체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았다. 힘겨운 투병 생활 중 그를 견디게 해준 힘은 다름 아닌 ‘자뻑’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취해버리게 만드는 전략”으로 썼다는 <자뻑은 나의 힘>을 통해, 누구도 눈길 주지 않는 불행한 시대의 청년세대에게 ‘자뻑’의 힘을 전파하고 있다.<br/><br/>2016년 새해를 사흘 앞두고 강원도 화천군 감성마을에 있는 이외수 작가의 집필실을 찾았다. 그는 “마음은 아프기 전 상태로 회복됐는데 몸은 안 따라주는 상태”라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했다.(그는 인터뷰 후인 2016년 1월 8일 폐기흉으로 다시 입원하기도 했다) 집필실 내 그의 좌식 책상 정면에는 큰 텔레비전이 있었다. 뉴스 채널에는 외교부 차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설명하러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쉼터를 찾아가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br/><br/>사회와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작가답게, 오늘날의 사회 현실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그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청년세대에게 불행을 전가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비겁함을 질타하고, 거짓된 가치관을 바로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치인들에게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렇게 한창 날선 이야기를 하다가 “분통을 터트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유쾌하게 웃기도 했다.<br/><br/>“곧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다 우왕좌왕하고 시끄러운 처지인데, 선거 때마다 사기나 쳐대는 정치가가 다시 정치판에 발붙이도록 용서해서는 안 돼요. 국민을 속인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착취한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거짓된 정치인이 발붙이지 못하는) 시대가 오기를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빕니다.”<br/><br/>인터뷰가 끝나고 나서는 감성마을 안에 있는 이외수문학관을 손수 안내해주기도 했다. 그는 작가인생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꿈으로 “독자를 진실로 사랑했던 작가, 사랑이 넘치는 작가로 기억되는 것”을 꼽았다. 일흔의 노작가가 들려준 문학과 인생,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br/><br/><br/><br/><br/>Q 건강 이야기부터 안 여쭐 수 없겠습니다. 책에는 ‘쿨하게’ 쓰셨지만, 투병 과정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br/><br/>처음에는 충격이 심했죠. 아무래도 아직은 암이라고 하면 죽음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잖아요. ‘내가 죽는다면’이라고 가정했어요. 하지만 곧 ‘(세상을) 떠나도 괜찮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독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이 정도로 독자들한테 사랑받은 작가도 드물 거예요. 작가로서 이만한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떠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웃음)<br/><br/><br/><br/>Q 투병 전과 지금의 작가님 모습을 보면 가장 달라진 것이 바로 헤어스타일 아닐까 싶습니다.(웃음) <br/><br/>대학교 1학년 때부터 머리를 길렀거든요. 1차적인 원인은 이발할 돈조차 아까웠다는 거죠.(웃음) 이발비가 25원이면 라면이 15원이었단 말이에요. ‘이발하느니 라면 먹겠다’ 한 거죠. 그렇게 트레이드마크처럼 된 거죠. 암 확진 받고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듣고는 의료진의 입장을 생각했어요. (긴 머리가)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더라고요. 수술 담당 박사님은 머리 안 깎아도 된다고 했거든요. 저는 깎는 게 불편을 덜어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코로 호흡기를 주입해야 했기 때문에 콧수염도 깨끗하게 깎았습니다. 미용실에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20년 젊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사인을 해드렸어요.(웃음)<br/><br/><br/><br/>Q 이번 책 제목이 ‘자뻑은 나의 힘’입니다. 안 그래도 잘났다는 놈들이 천지인 세상인데, 왜 ‘자뻑’인가요? <br/><br/>젊은 사람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도 상당히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불행이 더 심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잘못돼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했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는 당위성을 인정해서 너도나도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OECD 나라들 중에서 경제력 12위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할 때가 아닙니다.<br/><br/>오히려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물질의 풍요가 행복을 보장한다는 생각을 버리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자살률만 3관왕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헬조선’이라는 말,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3포세대’, ‘5포세대’, ‘9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마침내 삶 전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 젊은 시절의 불행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불행입니다.<br/><br/>내가 진짜 작가라면 나를 위해 쓰는 글보다는 남을 위해 쓰는 글이 더 많아야 하고,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글을 써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치관의 수정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질적 에너지체, 정신적 에너지체, 영적 에너지체인 인간으로서, 물질적 에너지만 풍요로워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스스로 가치관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br/><br/><br/><br/>Q 이번 책을 비롯해 많은 에세이집이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세대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br/><br/>제 젊은 날도 너무 비참했어요. 비나 눈이 내리면 아직도 제 의식 속에는 20대의 젊은 제가 눈비를 맞으며 허청허청 비참하게 걸어서 나타나고는 해요. 젊은 세대가 미래 아니겠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너무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자기 발등 불 끄기가 급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젊은 세대한테 너무 척박한 환경을 물려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br/><br/>결국 내가 슬프거나 아프거나 어두울 때 위로해줄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는 자각이 필요한 시대가 됐죠. 제가 암을 확진 받았을 때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거울을 사서 내가 나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주자고 생각했죠. 남에게는 자뻑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지만요.(웃음) 그런 제 체험을 바탕으로 진실이 담긴 글을 썼으니까 이 책이 젊은이들에게 작은 효과라도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Q 올 겨울 내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한창 시끄럽다가, 또 지금은 갑작스러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로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마침 지금(인터뷰 당시) 외교부 차관이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방문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네요.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br/><br/>모든 외교가 왜 저렇게 굴욕적인지 모르겠어…. 저 양반들은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늘 저런 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한 강연에서 청중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느냐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국토방위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왜 민의를 무시하고 강행하느냐. 자연의 가치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과정이 없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다.’ 지금(한일 ‘위안부’ 합의)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것이 과연 국민 다수의 결정인가, 아니면 정치가들의 일방적 결정인가, 한번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br/><br/><br/><br/>Q 독자들이 이외수 작가를 좋아하는 것은 비판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다는 까닭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너무도 뻔뻔해서, 풍자 따위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br/><br/>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아예 인정 안 해버리는 세상입니다. 철학과가 대학에서 거의 없어졌어요. 돈 안 되는 건 다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대학이 학생들에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야죠. 대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거나 돈벌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다는 생각을 수정해줘야 하는 게 대학이죠. 그런데 대학이 오히려 그것을 깊이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몰지각한 시대가 왔습니다. <br/><br/>약육강식이라는 말이 당연시되는 사회는 인간이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정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사회는 대폭 수정돼야 하는 사회죠. 분노든 슬픔이든 저항이든, 정의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연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진단할 때 다들 고개가 가로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고 물으면 정치가들은 말하겠죠. 국민들 잘못이라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상실했다는 것은 결국 존재의 명분을 상실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만 수정하면 다 해결돼요. 가치관.<br/><br/><br/><br/>Q 이번 책에서 “커피가 책보다 사랑을 받는 시대가 도래한 듯합니다”라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정말 커피를 든 사람은 흔해도 책을 든 사람은 만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지 1년 남짓 지났는데요, 2015년 출판계의 침체를 ‘신경숙’과 ‘도서정가제’, 두 단어로 정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br/><br/>아닙니다. 책의 위기도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정신의 풍요, 영혼의 풍요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공동의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책의 위기를 극복할 책임을 출판업자한테만 맡길 수도 없고, 서점이나 작가들한테만 맡길 수도 없어요. 그중 작가들은 현실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매체들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서 독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가, 책보다 훨씬 재미있고 유익한 매체들이 수없이 있는데 과연 작가가 그것을 능가하는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얼마나 노력하고 모색했는가, 자문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br/><br/>사실은 훨씬 먼저 진단했어야 하는 거죠. 스스로 싹 틔우고 무성한 잎을 돋게 해서 그늘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피땀 흘려 나무 심는 사람을 손가락질 하다가 그늘이 만들어지면 들어가 쉬려고만 하는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극복 방안을 치열하게 모색해야 할 사람들이 위기라는 말만 하고 말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br/><br/><br/><br/>Q 그렇다면 정신과 영혼의 풍요는 왜 책을 통해서, 또는 문학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건가요? <br/><br/>나뭇잎 한 장도 책 수십만 권과 맞먹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보기 위해서 먼저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책은 진리를 향해 가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가슴에 사랑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만물을 멸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을 간직한 유일한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br/><br/>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아름답지 않은 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육안(肉眼), 뇌안(腦眼), 심안(心眼), 영안(靈眼). 육안과 뇌안은 머릿속에 소장돼 있는 지식만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슴에 내려왔을 때 비로소 마음의 눈인 심안이 뜨이는 것이고, 그 다음 영안은 우주에 닿고 신에게 닿는 눈입니다. 이런 눈을 뜨는 1차적인 징검다리가 바로 책입니다.<br/><br/><br/><br/>Q 2015년은 한국문학이 호되게 매를 맞은 해였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기저기서 쇄신의 움직임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6년 한국문학의 새 출발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구하고 싶습니다. <br/><br/>심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죽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죽어라. 내가 알고 있는 나를 죽여야만 보다 나은 나로 전환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만 문학도 달라집니다. 문학이 죽었다, 문학이 죽었다 말들 하는데, 저는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학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희망을 봅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정말 신선하고 의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br/><br/>기성세대들이 잠재력 풍부한 후배들을 끌어주고 박수 쳐주는 시대가 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엄하게 권위에 차 있던 스스로를 죽여버려야 합니다. 예술이 권위 있는 것이지 예술가가 권위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중이떠중이들이 어중이떠중이 수준으로 지내는 건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중이떠중이가 ‘진짜’ 행세를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Q 작가님의 별명이 ‘트통령(트위터 대통령)’입니다. 작가님의 트윗이 이슈가 되는 경우가 흔한데, 좋은 쪽으로 인용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복면시위 금지법 관련 트윗을 가지고 일부 언론들이 ‘좌빨’ 공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br/><br/>그놈들이 좌빨보다 더 무서운 놈들인데 복면을 쓰고 있어.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복면을 쓰고, 정말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지탄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국민을 좌파로 몰아서 엄청나게 생사람을 잡은 나라입니다. 특히 군사독재 때 좌파를 정치적 희생물로 삼아서 억울한 목숨들을 앗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도 수용하고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행태를 보이려고 할 때는 항변하고 맞서야 합니다.<br/><br/>저희 아버지는 화랑무공훈장 받으시고 국립묘지에 안장돼 계시고, 저도 일명 ‘와리바시’ 사단에서 34개월 15일 동안 박박 기다 나왔어요. 아들 두 놈 다 병역을 필했고요. 자기 자식 외국 보내서 국적 포기하고 병역 기피하게 하는 고위층 놈들이 좌빨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지. 그리고 그걸 입 다물고 묵과해주면서 엉뚱한 데다가 ‘좌빨’ ‘좌빨’ 하는 언론은 쓰레기입니다. 그게 무슨 언론입니까? 싹 분리수거 해버려야죠.<br/><br/><br/><br/>Q 2015년 12월에 <장외인간> 개정판이 발간됐습니다. 그런데 <장외인간> 이후 10년째 새 장편소설이 없습니다. 2014년에 나온 <완전변태>도 9년 만에 나온 소설집이었고요. 작가님의 소설을 기다리는 독자들에게는 목마름의 시간이 너무 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br/><br/>제가 가장 짧게 쓴 장편소설이 <장외인간>인데, 3년 걸렸습니다.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도 줄줄줄 쉽게 쓸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체질상 그게 안 됩니다. 지금 준비하는 장편소설이 있습니다. 맛보기로 살짝 말씀드릴까요? 어느 날 홀연히 한 미소년이 물 위를 걷는 모습을 작중의 내레이터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소설이 시작되죠. 오행을 소재로 한 소설입니다.<br/><br/>물, 불, 쇠, 나무, 흙, 다섯 가지 유형의 인간들이 상생과 상극의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 소설이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갈등과 조화를 독자들한테 선물할 겁니다. 기다리는 일은 사랑하는 일보다 힘들다고 했는데, 기다려주시는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치매에 안 걸린다면 멋진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웃음)<br/><br/><br/><br/>Q 작가님은 소설과 시, 에세이, 우화까지 다방면의 글쓰기를 하시잖아요. 그것들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br/><br/>저는 밥이 육신의 양식이라면 글은 정신의 양식이라고 생각해서, 글쓰기를 밥상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밥상에 밥만 있진 않잖아요.(웃음)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필요하죠. 소설, 시, 에세이, 우화, 다 맛도 다르고 영양소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독자들만이라도 글의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서 건강해지고, 또 어떤 책도 거부감 없이 믿고 읽을 수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죠. 물론 이건 작가적 욕심입니다만, 칼국수 잘 끓이는 놈이 수제비 못 끓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다 할 수 있어야지.(웃음)<br/><br/><br/><br/>Q 올해 칠순을 맞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여 공자가 ‘종심(從心)’이라고 한 나이인데요, 작가로서 걸어온 70년의 삶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br/><br/>조금 게을렀던 시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나름대로 핑계가 있었죠. 현실에 당면하니까 너무 처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연탄 도매점에서 연탄 배달을 하며 지내다가 가스에 중독돼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노숙자 생활도 4년 정도 했습니다. 자전거를 강도질 했다고 누명 쓰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요. 항상 눈만 뜨면 죽음이 목전에 와 있었습니다. 보름 정도 굶기는 다반사고요. 그때 몸을 씻거나 머리를 깎는 건 허영이었습니다. 게으름과 무력감 자체가 생활화돼버린 거죠. 그것만큼 편하고 합리적인 것도 없거든요. <br/><br/>무슨 수를 내서라도 그때 글을 썼어야 해요. 그렇게 보낸 젊음이 나중에 제 글의 바탕이 돼줬다 하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을 낭비한 셈이거든요. 그때 그 진실을 그대로 담아서 글을 썼으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원고지에 피 토하고 죽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작가로서 영광스러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천재와 대가의 이야기를 빌려서 변명합니다. ‘나는 타고난 게 없어서 천재는 못 된 것 같다. 그래서 더 노력을 기울여서 대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변명하죠.※이 기사는 인터파크도서 북DB와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제공합니다.<br/><br/>▶인터파크도서 북DB 작가인터뷰 최신 리스트 보기<br/><br/><인터파크도서 북DB 최규화 기자 somecrud@interpark.com><br/><br/><br/> ‘향이네’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소식을 접하세요!(▶바로가기)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34.txt

제목: 인간과 시대의 아픔 아우른 인문학의 큰별 지다  
날짜: 20160115  
기자: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16000940089  
본문: ㆍ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별세 <br/>ㆍ‘통혁당 사건’으로 고초…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등 남겨 <br/>ㆍ어깨동무체 ‘처음처럼’으로 유명…2014년 암진단 이후 악화<br/><br/>이 시대 대표적 인문학자이자 실천적 지식인인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15일 오후 10시10분쯤 타계했다. 향년 75세.<br/><br/><br/>신 석좌교수의 책을 펴내온 돌베개출판사 측은 이날 밤 “2014년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던 신 석좌교수가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서 결국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밝혔다.<br/><br/>고인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담론> <강의-나의 동양고전독법> <더불어 숲> <처음처럼> 등 많은 스테디셀러를 통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기 성찰, 냉철한 사회 현실 분석과 세계인식에 관한 깊은 사유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던져주었다.<br/><br/>고인은 1941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경제학자이다.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관으로 일하던 중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br/><br/>감옥에 있었던 시간 만 20년 20일로 1988년에야 광복절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1989년부터 성공회대에서 정치경제학, 사회과학입문, 중국고전강독을 강의한 고인은 1998년 사면복권됐다. 사면복권된 날 출간된 책이 바로 20년 수감생활 동안 처절하게 사유한 인간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인식의 결과물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다. <br/><br/>감옥에서 휴지와 봉함엽서 등에 깨알같이 써 가족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묶은 책은 진솔함으로 가득한 산문집이다. 고인은 이후 <나무야 나무야>, <더불어 숲 1·2>, <강의-나의 동양고전독법>, <변방을 찾아서>, 서화 에세이 <처음처럼> <중국 역대 시가선집> 등을 펴냈다.<br/><br/>어릴 때 서예를 배운 고인은 학자이자 저술가로서뿐만 아니라 흔히 ‘어깨동무체’로 불린 독특한 글씨체로도 유명했다.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이 그의 글씨체를 사용한 것이다.<br/><br/>2006년 성공회대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석좌교수로 강의를 계속했으나, 지난 2014년 암 진단을 받으면서 그해 겨울학기를 마지막으로 강단에서 내려왔다. 강단을 떠나면서 지난해 4월 펴낸 책이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라는 부제를 단 <담론>이다. 20여년에 이르는 성공회대에서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쓴 이 책은 그의 사상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br/><br/><담론>은 동양고전인 ‘시경’, ‘주역’, ‘논어’, ‘맹자’, ‘한비자’를 고인의 뛰어난 통찰력으로 재해석, 현대사회를 읽어내는 제1부 ‘고전에서 읽는 세계 인식’과 20년의 수형생활에서 배우고 깨달은 바를 엮은 제2부 ‘인간 이해와 자기 성찰’로 구성돼 있다. 고인은 이 책에서 ‘감옥은 대학’이라며 교도소에서 보낸 20년 세월은 실수와 방황과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배움과 깨달음의 여정이기도 했다는 감회를 밝히기도 했다.<br/><br/>고인은 지난해 4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시대 지식인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지식인은 비판 담론, 저항 담론, 대안 담론 생산에 충실해야 하고 (그 담론들을 실천할) 사회적 역량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또 청년들의 절망, 고뇌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젊은 시절 고유의 이상을 잃으면 안 된다. 젊은이들이 작은 숲을 만들기를 바란다. 작은 숲들이 소통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약속할 수 있는 숲들의 연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장례는 성공회대 학교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유영순씨(68)와 아들 지용씨(26)가 있다. 빈소는 성공회대 대성당에 마련되며 발인은 18일 오전이다.<br/><br/> ▶[2015년4월 경향신문 인터뷰 전문]10년만에 신간 ‘담론’ 출간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span class='quot0'>시대 넘는 ‘탈 문맥’ 필요… 지식인, 비판·저항·대안담론 생산해야</span>” <br/><br/> ▶“교수님보다 선생님 호칭이 잘 어울리셨던 분”··· 신영복 교수 타계 소식에 SNS 추모 물결 <br/><br/> ▶사진으로 돌아본 신영복 교수의 생애 <br/><br/><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35.txt

제목: [속보]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별세  
날짜: 20160115  
기자: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15224845929  
본문: 연합뉴스는 신영복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가 15일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향년 75세.<br/><br/>신 교수는 2014년 희귀 피부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으며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서 끝내 숨졌다.<br/><br/>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돼 20년 20일 동안 복역한 신 교수는 출소 이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강의> 등 스테디 셀러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자기 성찰, 역사와 사회 현실, 세계 인식에 관한 깊은 사유로 한국 사회에 큰 울림을 전했다. 지난해에는 강의 녹취록, 강의 노트 등을 저본으로 <담론>을 펴내기도 했다.<br/><br/> ▶인간과 시대의 아픔 아우른 인문학의 큰별 지다 <br/><br/> ▶[2015년4월 경향신문 인터뷰 전문]10년만에 신간 ‘담론’ 출간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span class='quot0'>시대 넘는 ‘탈 문맥’ 필요… 지식인, 비판·저항·대안담론 생산해야</span>” <br/><br/> ▶“교수님보다 선생님 호칭이 잘 어울리셨던 분”··· 신영복 교수 타계 소식에 SNS 추모 물결 <br/><br/> ▶사진으로 돌아본 신영복 교수의 생애 <br/><br/>장례는 성공회대 학교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유영순(68)씨와 아들 지용(26)씨가 있다.<br/><br/> <br/><br/> <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36.txt

제목: 고속도로 위 무법자 잡는다…“암행순찰차 출두요”  
날짜: 20160115  
기자: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15211900027  
본문: ㆍ‘일반 차량 외관’ 특수 차량 도입 <br/>ㆍ단속 땐 내부 경광등·사이렌 <br/>ㆍ실적 올리기용 ‘함정단속’ 우려<br/><br/>한국 고속도로에도 미국의 ‘위장경찰차(undercover police car)’나 일본의 ‘복면순찰차’같이 신분을 감춘 경찰차가 등장할 예정이다. 경찰은 일반 차량과 구분하기 어려운 ‘암행순찰차’를 도입해 전국 고속도로에 보급하기로 했다.<br/><br/><br/>경찰청 교통국은 15일 “미국·일본 등 교통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노출 단속 차량, 즉 암행순찰차를 도입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br/><br/>암행순찰차의 겉모습은 일반 차량과 똑같다. 그러나 단속 대상 차량을 발견하면 내부에 숨겨진 경광등 3개와 스피커(사이렌), 뒷면 전광판을 한꺼번에 작동시킨다. ‘경찰이 떴다’고 알리는 것이다. 전광판엔 ‘정차하세요’ 등 문구가 떠 뒤따르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란 걸 알려준다. 암행순찰차 내부에 탑재된 블랙박스는 법규 위반 행위 및 단속 과정을 녹화한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홍보자료로 쓸 계획이다.<br/><br/>암행순찰차의 주요 단속 대상은 전용차로 위반이나 갓길 운행 같은 기존 순찰차로 단속하기 어려운 ‘얌체운전’이다. 경찰은 급제동과 ‘칼치기’(급차선변경) 등 난폭운전 단속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차량 통행량과 교통사고 횟수, 교통축을 고려해 오는 3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경찰은 7월부터 서울외곽순환·영동·서해안고속도로에 도입하고, 연말엔 고속도로 순찰대 지구대마다 1~2대씩 보급해 전국으로 확대한다.<br/><br/>경찰은 암행순찰차를 도입하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심리를 억제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0'>선진국에서는 사복 경찰관이 일반 승용차를 타고 교통법규 위반을 잡아내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운전자들이 되도록 어기지 않으려 노력한다</span>”고 밝혔다.<br/><br/>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미국·일본 등 24개국에서 암행순찰차를 비롯한 ‘비노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사복 차림의 경찰관이 일반 차량으로 교통 단속은 물론 범죄 용의자 추적도 하고 있다.<br/><br/>경찰이 단계적 도입 방침을 세웠더라도 초기엔 ‘함정단속’이라는 시민의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경찰이 단속 실적 올리기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경찰은 시범운영 전인 1~2월 동안 고속도로에서 전광판, 플래카드, 포스터 등을 이용해 암행순찰차 도입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br/><br/><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37.txt

제목: [기타뉴스]호그와트, 세베루스 스네이프 교수를 보내다  
날짜: 20160115  
기자: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15135717688  
본문: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스네이프 교수로 분한 알란 릭맨이 14일(현지시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9세. 15일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해리포터 역의 대니얼 래드클리프 등 함께 영화에 참여했던 이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알란 릭맨을 보내는 해리포터 식구들의 추모글을 보시죠.<br/><br/><br/><br/>해리포터 역의 대니얼 래드클리프는 이날 구글 플러스에 “나는 이 사진을 좋아한다”며 영화 <해리포터와 불의잔>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컷을 공개했습니다. 위 장면을 찍다가 래드클리프가 NG를 내자 모두 웃음을 터뜨린 겁니다. 래드클리프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span class='quot0'>알란 릭맨은 내가 같이 일했던 가장 훌륭한 배우 중 한 분</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나를 아이로서가 아니라 동료로서 대해준 첫 어른</span>”이라고 기억했습니다.래드클래프의 글에서 알란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해리포터 이후에도 그는 런던과 뉴욕에서 있었던 제 연극 무대를 매번 보러 왔습니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와 사귀었던 분들은 다들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알란을 필요로 할 때, 알란은 세상 어디에 있든, 얼마나 바쁘든, 뭘하고 있든, 항상 그날 너에게 다가온다고…’”<br/><br/><br/><br/>헤르미온느 역을 맡았던 엠마 왓슨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자, 특별한 배우와 같이 일하고 시간을 보낸 일들은 제게는 행운이었어요. 우리가 나눴던 대화를 그리워할거에요. 편히 쉬세요 알란.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br/><br/><br/><br/>론 위즐리로 분한 루퍼트 그린트는 “절망적이에요. 그는 갔지만 난 항상 그의 목소리를 들을 것만 같아요”라고 밝혔습니다.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은 “내가 그의 죽음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절망스러웠는지···글로 이 심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위대한 배우이자 훌륭한 인간이었어요”라고 남겼습니다.<br/><br/>덤블도어 역의 마이클 갬본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항상 행복해했고, 창의적이었고, 무엇보다도 재밌는 사람이었죠. 그는 정말 좋은 목소리를 지녔고, 아주 멋지게 대사를 했죠” 라고 그를 기억했습니다.<br/><br/><br/><br/>루시어스 말포이 역의 제이슨 아이삭스는 “<span class='quot1'>그 공포스런 소식에 휘청거렸다</span>”며 “<span class='quot1'>쌀쌀맞고 교묘한 캐릭터(스네이프 교수)와는 정반대 성격을 지닌 알란은 유쾌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제 멋진 동료였습니다</span>”라고 말했습니다. 악역 볼드모트로 분했던 레이프 파인스는 “그가 갔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슬픕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과 그 넓은 도량, 관대함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살아있습니다”라고 추모했습니다.<br/><br/><br/><br/>이날 호그와트 성 앞에서도 팬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br/><br/><br/><br/>이날 연예 매체 <하이퍼블닷컴(HYPABLE.COM)>에 따르면, 해리포터 팬들은 알란 릭맨을 추모하며 추도사를 읊고, 유니버셜 올랜도 리조트 내 호그와트 성 앞에서 알란 릭맨을 기리며 마법사 지팡이를 들어올렸습니다. 영화 속 세베루스 스네이프 교수의 사무실 앞에는 장미 한 송이, 물약 교실 입구에는 백합이 놓였습니다.<br/>이 밖에 영화 <러브액츄얼리>에서 상대역을 맡았던 엠마 톰슨은 “알란에게 굿바이 키스를 했어요. 내가 그를 보내는 이 가슴아픈 순간에 가장 기억나는 것은 그의 유머, 지성, 지혜와 친절함이었어요. 함께 작품을 할 때마다 알란이 어떻게 연기할지, 그의 표정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는 건 즐거운 일이었죠. 삶에서, 예술에서, 정치적으로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죠. 우린 그런 그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라고 추모했습니다.<br/><br/><br/><br/>영화 <반지의 제왕>, <엑스맨>의 배우 이안 맥켈런은 1997년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알란 릭맨과 찍은 사진과 함께, 같이 영화를 찍으며 겪었던 짧은 일화를 공개하며 그를 기렸습니다.<br/><br/><br/><br/><해리포터> 외에도 그가 남긴 작품들이 많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br/><br/><br/><br/><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br/><br/><br/> ‘향이네’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소식을 접하세요!(▶바로가기)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38.txt

제목: 셀린 디온 남편 르네 앙젤릴, 암 투병 끝에 숨져  
날짜: 20160115  
기자: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15114604319  
본문: 세계적인 팝 가수 셀린 디온의 매니저이자 멘토였던 남편 르네 앙젤릴이 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향년 73세.<br/><br/>AFP통신은 14일(현지시간) 디온 트위터 메시지를 인용해 “<span class='quot0'>오랜 기간 용감하게 암과 싸워온 르네 앙젤릴이 오늘 아침 라스베가스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span>”고 전했다.<br/><br/>캐나다 몬트리올 출신인 앙젤릴은 1960년대 캐나다 록 밴드 ‘바로넷’ 멤버로 활동했다. 밴드 해체 후 매니지먼트 사업을 시작한 그는 1980년 12살 소녀 디온의 데모 테이프를 듣게 됐다. 데모 테이프를 듣자마자 재능을 알아챈 그는 전속 계약을 맺은 뒤 자택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 데뷔 앨범 ‘라 보아 드 봉 듀(La Voix Du Bon Dieu)’를 발매했다.<br/><br/>앙젤릴은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해 프랑스어가 모국어인 디온을 영어 사용 학교에 보냈고, 이미지 메이킹에도 공을 들이는 등 멘토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br/><br/>1994년 디온은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26살 연상인 앙젤릴과 결혼했다. 앙젤릴 지원에 힘입어 디온은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 ‘마이 하트 윌 고 온’으로 주목받았다. 이 곡을 시작으로 그래미상을 5번 수상, 세계적인 팝 스타로 거듭났다. 디온은 “내 성공의 99%는 남편 덕분”이라고 말했다.<br/><br/>앙젤릴은 1999년 인후암이 발병해 2013년 종양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이듬해 재발했고, 투병 끝에 숨졌다. 디온과 안젤릴은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br/><br/><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39.txt

제목: 한의원 진료 표준화하고 비용 부담 낮춘다  
날짜: 20160113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13231027681  
본문: ㆍ복지부, 한의약발전계획 확정 <br/>ㆍ30개 주요질환 진료지침 개발 <br/>ㆍ첩약 이외 모든 한약 건보 적용<br/><br/>앞으로 감기나 허리디스크, 암 등 주요 질환에 대해 전국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운동요법과 한방 물리치료, 추나를 포함한 주요 한방진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br/><br/>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br/><br/>복지부는 한의원의 진단·처방 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일선에 보급할 계획이다. 감기와 치매, 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류머티스질환, 아토피피부염, 요추추간판탈출증, 비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한의약의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질환마다 3년간의 임상 연구를 실시할 방침이다.<br/><br/>한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2018년부터 운동요법과 물리치료, 추나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2020년까지 30개 주요 질환으로 적용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침·뜸·부항과 일부 물리치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가루약에 적용되던 건강보험은 알약이나 짜 먹는 약까지 확대된다. 달여먹는 첩약은 건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br/><br/>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진다. 복지부는 양·한방 협진 모델을 개발해 협진을 활성화하고, 국공립병원 내에 한의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건소에 보급하고, 우수 보건소 인증제를 도입해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br/><br/>현재 연간 480억원 수준인 연구·개발(R&D) 지원을 2020년 6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40.txt

제목: 2018년부터 한방물리치료·추나요법 건보 적용  
날짜: 20160113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13224017623  
본문: ㆍ복지부 한의약 발전 계획<br/><br/>13일 발표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골자는 한의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와 건강보험 급여 확대다. <br/><br/>어떤 한의원에 가든지 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된 30개 주요 질환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치료 효과가 좋은 한방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세운 목표다.<br/><br/>그동안 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한의사마다 진료방법이 천차만별로 달라 한의약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방진료 불만 요인 중 34%는 ‘한의사마다 다른 치료방법’이라는 2011년 실태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앞으로 5년간 감기와 소화불량, 암, 비만 등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고득영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span class='quot0'>이 30개 질환으로 전체 한방진료의 50~70%를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설명했다. 이 중 개발이 시작돼 곧바로 임상연구에 들어갈 수 있는 10여개 질환의 진료지침은 이르면 2019년부터 일선에 보급된다.<br/><br/>진료지침이 일선 한의원·병원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복지부는 표준화된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보상책을 실시해 지침 보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의과대학 공통교육과정에 진료지침을 반영하고, 한의사 면허시험에 연계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직 한의사들에게도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br/><br/>천차만별이었던 진료 방법이 표준화되면 건강보험 적용도 쉬워진다. 현재 건강보험 중 한방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4.17%에 불과하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체 평균이 18.4% 수준인 데 비해 한방진료의 경우 30.7%나 된다. 복지부는 지침개발 대상인 30개 질환에 대해서는 질환별로 포괄수가를 개발해 질병 단위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한방 표준진료지침에 따라 진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 부분 없이 전체 진료와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치료효과가 높은 분야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방물리요법·추나 등에도 2018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br/><br/>품질관리가 어려웠던 첩약(달여 먹는 약) 중심의 처방은 양방약과 동일한 제형인 한약제제 중심으로 바뀌도록 유도한다. 가루약 일부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알약과 짜 먹는 약 등에도 적용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br/><br/><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41.txt

제목: 한의원 진료 표준화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된다  
날짜: 20160113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13123403925  
본문: 앞으로는 어떤 한의원에 가든지 표준화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된다. <br/><br/>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이번 계획의 골자는 한의학의 표준화 및 과학화, 건강보험 급여 확대다. <br/><br/>먼저 현재 각 의료기관마다 편차가 큰 치료법을 표준화하기 위해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중심으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보급한다. 표준화된 치료방법이 없다는 것은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다. 한방진료 불만요인 중 34%는 ‘한의사마다 다른 치료방법’이라는 2011년 실태조사 결과도 있다.<br/><br/>복지부는 올해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대상이 되는 질환은 감기와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월경통, 치매, 암, 비만 등이다. 이미 진료지침 개발중인 10개 질환의 경우에는 이르면 2019년부터 일선에 보급된다. <br/><br/>일선 한의원이 의무적으로 진료지침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는 표준화된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보상책을 실시한다면 진료지침 보급이 무난히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설치될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가 지침 보급과 확산, 관리 및 갱신 업무를 담당한다.<br/><br/>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된다. 침·뜸·부항과 일부 물리치료 등 기본 진료에 대해서는 현재도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만, 건강보험 한방급여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4.17%에 불과하다. 비급여본인부담률은 양방 의원이 18.4% 수준인데 비해 한의원은 30.7%나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운동요법과 한방물리치료, 추나 등에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한의 진료 수가모델을 개발하고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기준도 정비한다.<br/><br/>복지부는 또 양·한방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를 설치하고 한의약의 공공의료 역할 비중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첩약 중심인 한의약 처방을 한약제제 중심으로 바뀌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의약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 현재 480억원 수준인 R&D 지원을 2020년까지 6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br/><br/><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42.txt

제목: 말기 암 환자의 지갑까지 훔친 60대 영장  
날짜: 20160113  
기자: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13084234434  
본문: 부산 서부경찰서는 13일 환자 보호자 행세를 하며 대학병원에서 사람이 없는 병실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씨(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br/><br/>박 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11시 부산 아미동 부산대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병실을 뒤져 보호자용 보조침대에 있던 루이비통 지갑과 현금 등 12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지난 5일까지 1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0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br/><br/>박 씨는 2년 전 부산시내 모 대학병원에서 같은 수법으로 도둑질을 했다가 붙잡혀 수감생활을 했으며 출소 후 6개월만인 지난해 8월부터 다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지를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br/><br/>박 씨는 외투를 벗고 슬리퍼를 착용하는 등 환자 보호자인 것처럼 위장한 뒤 복도를 돌아다니며 개통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는 흉내를 내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환자나 보호자가 놓아 둔 지갑을 들고 가는 수법을 사용했다.<br/><br/>피해자 중에는 말기 암으로 시한부 삶은 사는 딸을 둔 노모가 피해를 당해 경찰에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br/><br/>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여인숙에서 생활하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범행수익으로만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박 씨는 가족도 없고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사용하지 않은 ‘아날로그형 범죄자’였다</span>”며 “<span class='quot0'>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시켜 검거했다</span>”고 말했다.<br/><br/><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43.txt

제목: 미국 인류학자 ‘한국 사랑’ 가슴에 품은 채 지다  
날짜: 20160112  
기자: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김유진 기자 jeje1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12220108338  
본문: ㆍ낸시 에이블먼 교수 타계<br/><br/>한국의 사회, 문화를 연구한 미국인 인류학자 낸시 에이블먼 일리노이대 교수가 지난 6일(현지시간) 일리노이 어바나의 자택에서 타계했다고 일리노이대가 11일 밝혔다. 향년 56세.<br/><br/>에이블먼은 동아시아 연구에서 한국 연구의 지평을 넓힌 학자다. 그는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의 한국 사회 변화를 따뜻한 시선으로 예민하게 분석해왔다. 1980년대 농민운동부터 1990년대 급격한 사회계급 이동과 젠더 문제, 2000년대의 조기유학과 다문화 교육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문제까지 다뤘다.<br/><br/><br/><br/>그는 1987~1988년 전북 고창에서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참여 관찰한 것을 토대로 농민운동에 대한 논문을 써서 UC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50가구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의 오두막에서 생활하면서 민주화 과정에서 분출한 농민 시위에도 참여했다.<br/><br/><친밀한 대학: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과 분리의 문제>에서 국제화되는 미국 대학에서 한국계 학생들의 유입과 인종적 분리 문제를 다뤘다. <대안이 없다? 한국 교육의 실험>에서는 한국의 조기유학 열풍을 연구했다.<br/><br/>대표 저서는 <사회이동과 계급, 그 멜로드라마>이다. 이 책은 ‘세탁소 할머니’ ‘청소부 아주머니’ ‘복부인’ 교육엄마’ 등 8명의 한국 여성들의 생애사를 통해 본 현대 한국 사회의 변화 모습을 민족지 방식으로 서술했다. 이들의 계급 이동이 어떻게 가족, 사회적 연결망과 관련을 맺는지 분석했다. ‘멜로드라마’는 한국 여성들이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 가정에서 위치가 바뀌면서 느꼈던 고통, 현기증을 함축한 말이다.<br/><br/>일리노이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이규호씨는 “<span class='quot0'>낸시 에이블먼과 가깝게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제자로서 행운</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그의 죽음에 대해 내가 가진 감정은 어쩌면 ‘멜로드라마’일지도 모르겠다</span>”고 말했다. 이씨는 “<span class='quot1'>임종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하염없이 슬프고, 깊은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내 감정</span>”이라고 부연했다.<br/><br/><친밀한 대학…>을 발간한 듀크대 출판사의 켄 위소커 편집장은 “그는 아시아와 북미 학자들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힘썼다. 무엇보다도 지치지 않는 멘토였다. 호텔이나 공항 바닥에 앉아 젊은 학생들에게 조언을 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고 말했다.<br/><br/>에이블먼은 당초 하버드대 동아시아학부에서 일본학을 전공했다. 석불에 관심을 갖고 일본 규슈에 머무르다 일본 불교문화가 한국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학원 전공을 한국으로 바꾼 그의 시선은 이후 늘 한국 사람에게 있었다. 에이블먼은 <사회이동과 계급…>으로 2014년 한국문화인류학회가 선정하는 임석재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암 투병을 하면서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유족으로는 어머니와 남편, 세 명의 자녀가 있다.<br/><br/><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김유진 기자 jeje17@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44.txt

제목: [경향으로 보는 ‘그때 그 사람’] ‘춘천거지’ 이외수, 이젠 ‘트위통령’  
날짜: 20160112  
기자: 박종성 | 경제에디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12213106023  
본문: 그는 장발이다.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도 대부분 그랬다. 기자가 이유를 물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 나도 단정히 하는 게 좋아. 그런데 오랜 습관 때문에 머리를 자르면 오히려 불편해졌지. 기도 약해지는 것 같고….” ‘춘천거지’로 알려진 소설가 이외수씨 얘기다. <br/><br/>이외수씨는 1983년 경향신문 연재소설에 도전했다(경향신문 1983년 3월28일 7면). 굳이 도전이라고 말한 이유는 신문연재가 그에게는 모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도하 각 신문사에서 연재를 부탁했으나 고사했다. 소설에 대한 거부감에서라기보다는 하루도 빠짐없이 원고를 넘겨야 하는 틀 속에 묶이기 싫어서였다. 그리고 연재소설이 문학성을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도 펜을 잡지 않는 이유였다. 그러던 그가 ‘야성’을 억누르고 연재를 결심했다. 그는 “연재소설에 대한 통념을 바꾸어 보겠다”면서 첫 신문연재소설 <축제의 집>을 집필했다.<br/><br/><br/><br/>그는 자유인이다. 20대 초반 자취를 하면서 석 달씩이나 방세를 못 내 집주인에게 쫓겨나던 때, 그는 외로움과 배고픔 속에서 신춘문예 당선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로 보였기 때문이다. 강원일보에 시가 당선됐다. 그리고 뛰어난 그림 솜씨를 인정받아 신문사에 취직해 삽화를 그렸다. 그의 꿈이 실현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따뜻한 안방생활을 버리고 다시 울타리를 뛰쳐나왔다.<br/><br/>그에게 영감과 위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준 곳은 춘천이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 어부가 바다를 떠날 수 없듯, 그는 춘천을 떠나 살 수 없었다. 춘천은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이었다. 그는 추위와 외로움에 떨면서도 호수와 안개에 취해 춘천을 떠나지 못했다. 안개를 담고 있는 공지천, 계절마다 이야기를 전하는 나무와 풀, 음악과 담배와 얘기로 가득한 전원다방이 거기에 있었다. 그곳에서 미스 강원 출신의 아내를 만났다. <br/><br/>춘천에 그는 집을 마련했다. 그가 1980년 250만원을 주고 지붕이 새는 작은 집을 샀을 때 그곳은 이미 가족들의 공간이 아니었다. 많은 친구와 문학도들이 찾아왔다. 한 달 평균 300명 안팎의 방문객으로 붐볐다. 설악산 가는 길에, 여행중에 그냥 지날 수 없어서라는 이유를 들며 찾아오는 독자들이었다. 그는 손님들이 항상 먹고 자고 가기 때문에 방 두 개를 늘 비워 놓았다. 당연히 먹을 식량을 대는 것도 녹록지 않은 일이었다. 매달 쌀 두 가마니쯤 들어갔다. 그 비용은 인세나 원고료로 충당했다. 돈을 따로 모을 수는 없었지만 손님과 먹고 지낼 정도는 됐다. 서울에 있을 때 손님이 찾아오면 여관방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다. 집에 사람을 들이고 대접하고 보내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기에 ‘사람을 좋아하는 병’이 있다는 말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문학청년 시절 다리 밑에서 잠자던 시절에 비하면 부자 아닌가라며 스스로 위로했다. 이젠 150만명의 팔로어를 가진 ‘파워 트위터리안’이다. <br/><br/>그런 이외수씨에게 암이 찾아왔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랐다. 항암치료를 받고 의료진이 불편해할까봐 잘랐다고 한다. 올해 고희를 맞는 그는 투병 중에도 두 권의 책을 썼다. 평생 가는 근심은 없다면서.<br/><br/><박종성 | 경제에디터>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45.txt

제목: 완전한 타결? 삼성전자 백혈병 8년史, 8가지 이야기  
날짜: 20160112  
기자: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12150905117  
본문: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삼성전자, 가족대책위, 반올림 등이 재해예방대책에 대해 합의하고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br/><br/>‘재해예방대책’은 ‘사과’, ‘보상’과 함께 조정위가 내놓은 3대 조정의제 중 하나다. 일부에선 이번 합의서 서명으로 삼성전자 백혈병 분쟁이 약 8년 만에 완전한 해결 국면을 맞이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소속 故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는 이날 아침 있었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 세 가지가 다 합의가 돼야지만 최종 합의가 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사과·보상 문제는 삼성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대화도 못해 봤다</span>”고 말했다. <br/><br/>지난 2007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 황유미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삼성전자 백혈병 논란, 세상의 관심이 있든 없든 8년은 쉼 없이 흘러왔다.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그간의 중요 사건 8가지를 꼽아 정리해 본다. <br/><br/><br/><br/>■2007년 3월 황유미씨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br/><br/>2007년 3월 6일,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 황유미씨가 23살의 나이에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황씨는 2003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확산 및 습식식각 공정 업무를 담당했다. 2005년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며, 습식식각 공정 중 세척작업을 하면서 벤젠에 노출됐거나 작업 중 방사선에 노출됐던 것으로 추측됐다. <br/><br/>황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는 같은 해 6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황씨의 사례가 알려지며 2007년 11월에는 삼성반도체 기흥 사업장 앞에서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과 노동 기본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반올림)’가 발족하기도 했다. 이후 황씨의 사례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br/><br/>2008년에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4명이 집단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같은 해 12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span class='quot1'>일반 인구 집단과 비교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는 없었다</span>”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직업병연구센터 박정선 소장은 “<span class='quot2'>이번 역학조사는 발생률이 매우 낮은 질환인 림프조혈기계암의 위험도를 평가하기에는 추적 기간이 짧았고, 조사 대상자들의 과거 직업력이나 흡연 등 비직업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한계가 있었다</span>”고 말했다.<br/><br/><br/><br/>[관련기사]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의혹<br/><br/>■2009년 5월 근로복지공단, 황유미씨 등 5명에 대해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br/><br/>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말했다. 2009년 5월 19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가 2007년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씨 등 5명의 유족에게 산재 신청 불승인 결정을 통보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발표를 근거로 해 “<span class='quot3'>재해자의 백혈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된다</span>”고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발표자 또한 한계를 인정한 연구조사에 근거한 결정은 무의미하다고 반발했다. <br/><br/>이듬해 1월 피해자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r/><br/><br/><br/>■2011년 6월 백혈병 행정소송 1심에서 황유미씨 등 2명 산업재해 인정 판결 선고<br/><br/>행정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1년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황씨 등 2명의 유가족에 대해 삼성 기흥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을 취소했다. 반면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br/><br/>그 사이 삼성전자의 의뢰로 반도체 근무환경에 관한 조사를 벌였던 미국의 인바이론사는 “반도체와 백혈병은 무관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1심 판결에 항소를 결정했다. <br/><br/><br/><br/>[관련기사] “삼성반도체 산재 판결 뒤에도 달라진 게 없다”<br/><br/>■2011년 8월 삼성전자,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제도’ 마련<br/><br/>삼성전자는 여전히 황유미씨의 백혈병과 반도체 공장과는 상관없다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2011년 8월 30일 ‘퇴직 임직원 중 암 발병자 지원제도’의 세부 방안을 확정 발표하며 백혈병 등 총 14종의 질병에 대해 치료비 등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반올림측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다행으로 여기나 여전히 소송전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br/><br/>그럼에도 대화는 진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듬해 있었던 삼성전자 측의 대화 제의 요청에 2013년 반올림 측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 2013년 12월에는 삼성전자와 반올림 사이의 첫 본 협상이 열렸다. <br/><br/>2013년에는 전향적인 판결도 있었다.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삼성반도체에서 근무 이후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김미경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span class='quot4'>발암물질 노출 여부와 정도를 규명할 수 없게 된 것은 잠복기를 지니는 백혈병의 특성과 근무 당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삼성전자에도 원인이 있다</span>”고 밝혔다. <br/><br/>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번에도 같은 행동을 보였다. 공단은 항소 제기 마지막 날이었던 11월 5일 오후 3시 기습적으로 항소했다. <br/><br/><br/><br/>■2014년 2월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개봉<br/><br/>“왜 아프다고 말 안 했나?”<br/><br/>“좋은 회사 다닌다고 자랑한 게 누군데! 아빠는 뭐가 되나!”<br/><br/>2014년 2월 6일 황유미씨의 실화를 담은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쉽게 얘기할 수 없던 이야기를 다룬 영화는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제작이 무산될 뻔했다. 그러나 시민 모금 운동인 ‘제작두레’를 통해 8000여명이 약 3억원의 후원금을 모았고 홍보 마케팅 비용까지 총 제작비 15억원 전액을 순수하게 시민 모금과 투자로 마련했다. <br/><br/>배우 박철민씨는 “<span class='quot5'>사회의 큰 이슈를 다룬 작품이기도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 주된 이야기이고 거기서 영화적인 매력이나 감동이 전해지지 않을까 싶었다</span>”며 출연의 이유를 밝혔다. <br/><br/>이 사이 피해자 가족들은 두 쪽으로 찢어졌다. 2014년 8월 삼성전자와 혐상을 계속해 오던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측 협상단 8명 중 6명의 피해자와 가족은 반올림에서 나와 가족대책위를 새로 꾸려 삼성전자와 직접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로써 반올림측 협상단은 황상기씨와 김시녀씨(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뇌종양으로 투병중인 한혜경씨 어머니) 2명이 남게 됐다. 협상 과정 중 삼성전자의 우선보상기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놓고 반올림 안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r/><br/><br/><br/>[관련기사] 영 가디언, 삼성 백혈병 사건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상세히 소개<br/><br/>■2015년 7월 백혈병 조정위원회,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 발표<br/><br/>김지형 전 대법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서울대 백도명 교수와 인하대 정강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조정위원으로 하는 백혈병 조정위원회가 2014년 11월 발족했다. 조정위는 2014년 12월 19일 제1회 조정기일을 시작으로 5차례 조정기일을 가진 뒤 2015년 7월 23일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span class='quot6'>조정위의 권고안은 삼성전자의 기부, 조정권고안을 실행할 주체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을 핵심축으로 한다</span>”며 “<span class='quot6'>공익법인은 삼성전자가 사과·보상·재발방지 대책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적합한 형태</span>”라고 말했다. <br/><br/>조정위는 삼성전자가 1000억원를 기부해 공익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보상 대상은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LCD 사업장에서 ‘2011년 1월1일 이전에 일하기 시작해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정했다. 보상 대상 질병은 백혈병·림프종·다발성골수종·골수이형성증·재생불량성빈혈·유방암·뇌종양·생식질환·희귀질환·난소암 등 모두 28종이었다. <br/><br/>조정위의 권고 합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예상됐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 했다. 삼성전자는 8월 3일 공식 입장에서 “<span class='quot7'>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사단법인 설립은 해법이 될 수 없다</span>”며 공익법인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족대책위 역시 당사자 협상을 통한 직접 보상을 요구하며 9월 말까지 조정위의 후속 조정 절차 보류를 요구했다.<br/><br/>다음날인 8월 4일, 반올림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삼성전자는 ‘공익법인을 통한 사회적 의제 해결’이라는 조정권고안의 핵심적인 제안을 사실상 정면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삼성전자가 이러한 태도를 고수하는 한, 지난 8년간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결국 아무런 해법도 마련하지 못한 채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br/><br/><br/><br/>[관련기사]‘백혈병 산재’ 8년 만에 물꼬… 2가지 걸리는 삼성<br/><br/>■2015년 9월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 발족<br/><br/>조정위원회의 잡음은 계속됐지만, 삼성전자는 9월 3일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독자적으로 발족했다. 삼성전자는 조정안과는 별도로 반올림을 제외한 채 가족대책위원회와 단독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반올림은 “삼성의 행동은 조정안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삼성이 귀를 닫고 본인들이 원했던 방향대로만 보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br/><br/><br/><br/>[관련기사] 반올림 “삼성전자 보상위원회 구성 발표는 독단과 기만”<br/><br/><br/><br/>■2016년 1월 12일 삼성전자, 가족대책위, 반올림. ‘재해예방대책’관련 최종 합의서 서명<br/><br/>삼성전자,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은 12일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합의서에 서명했다. 기존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내용이었지만, 전날 삼성전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서 최종 합의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기대했던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br/><br/>이날 합의식 서명에 참여한 백수현 삼성전자 전무는 “오래 진행됐고 묵혀왔던 문제들이 해결돼 뜻깊게 생각한다. (협상 주체가) 합의정신을 잘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올림 교섭단 대표 황상기씨는 “앞으로 사과와 보상은 남아있는 피해자의 몫이다. 사과와 보상은 삼성전자가 반올림과 얘기해 해결이 될 때까지 삼성본관 앞에서 농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위원회는 “<span class='quot8'>아직도 완전한 합의,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span>”며 앞으로 사과와 보상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r/><br/><br/><br/>[관련기사] ‘삼성전자 백혈병’ 조정위 “아직 완전한 해결 아니다”<br/><br/>이번 합의가 사태의 진전 국면을 열 수는 있을 것이나, 피해자 가족과 조정위원회의 말대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는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쉽게 ‘완전 종결’ 이라는 말을 쓸 수 없을 것 같다.<br/><br/><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46.txt

제목: ‘그날의 분위기’ 오프닝 크레디트에 하늘나라 ‘그분’의 이름 오른 사연  
날짜: 20160112  
기자: 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12132720705  
본문: ㆍ고 정승혜, 10여년 전 처음 기획 암 말기 진단에 영화제작 ‘좌초’ <br/>ㆍ김성철씨 “PD 데뷔 기회 준 분” 생전 미완성 아쉬움에 재추진<br/><br/>많은 이들의 협업으로 완성되는 영화에는 그만큼 많은 사연이 있다. 로맨틱 코미디 <그날의 분위기>도 그렇다. <br/><br/>이 영화 오프닝 크레디트에는 ‘기획’으로 ‘고 정승혜’(사진)라는 이름이 나온다. 고인의 이름이 크레디트에 올라간 사연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영화계에서 손꼽히는 카피라이터이자 마케터였던 정승혜씨는 당시 영화사 아침의 대표로 <라디오 스타>(2006) 등을 제작했다. <br/><br/><br/><br/><그날의 분위기>는 2005년쯤부터 기획된 작품이었다.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에서 우연히 만난 두 남녀가 부산에서 예기치 않게 하룻밤을 함께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시나리오상 남자의 직업은 기자, 여자는 영화 칼럼니스트였다. ‘원 나이트 스탠드’를 다루지만, 섹스가 영화의 중심은 아니었다. 둘은 부산 도심을 거닐며 많은 대화를 나눈다. 이 과정에서 여자는 스스로를 가둔 껍질을 깨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다. 비교하자면 한국판 <비포 선라이즈>라 할 만했다. 배우 캐스팅까지 마쳤다. 당시 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김하늘씨, 드라마 <굳세어라 금순아>로 스타덤에 오른 강지환씨가 주연이었다. <br/><br/>그러나 시나리오와 캐스팅 명단을 들고 투자사들을 방문하던 정승혜 대표는 2006년 어느날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대장암 말기였다. 본인은 물론 주변인들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현재 영화사 문 대표인 김성철씨는 정 대표의 지원 아래 <그날의 분위기> 프로듀서로 데뷔할 계획이었으나, 대표 기획자를 잃은 영화는 좌초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영화 제작 계획은 무산되고, 김하늘·강지환씨는 고스란히 <7급 공무원>(2009)에 캐스팅돼 호흡을 맞췄다. 정 대표는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2009년 세상을 떴다. <br/><br/><br/><br/>이후 김성철씨는 <즐거운 인생>(2007) 프로듀서로 데뷔했고, 영화사 문을 차려 박중훈씨의 감독 데뷔작 <톱스타>(2013)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10년 전 기획했던 <그날의 분위기>를 손에서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다. 김 대표는 “<span class='quot0'>정 대표는 내게 영화 프로듀서로 데뷔할 기회를 주신 분이고, 또 그로부터 영화에 대한 가치관, 생각을 정립할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정 대표 생전 영화를 완성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었다</span>”고 말했다. 그는 결국 <그날의 분위기> 제작을 다시 추진했다. 영화의 기본 설정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10년 전 작품이 멜로물이었다면, 2016년 작품은 로맨틱 코미디에 가깝다. 등장인물의 직업도 기자, 칼럼니스트에서 스포츠 에이전트, 화장품 마케팅 회사 팀장으로 바뀌었다. 배우는 유연석·문채원씨를 새로 캐스팅했다. 남녀는 10년 전 시나리오와 달리 부산 도심에서 벗어나 농구 코트, 절 등 다양한 장소를 거닌다. <br/><br/>김 대표는 “<span class='quot0'>10년 전 시나리오보다 좀 더 대중성을 가미해 각색했다</span>”고 설명했다. <그날의 분위기>는 14일 개봉한다.<br/><br/><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47.txt

제목: 폐암 진료 잘하는 병원은 어디?  
날짜: 20160111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11160828596  
본문: 암은 국내에서 남녀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다. 생사가 걸려있는 질환인 만큼 질 높은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아야 긍정적인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 의료기관간의 질적 차이를 좁히기 위해 2012년부터 위·대장·폐·간·유방암 등 5대 암 진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br/><br/>평가항목은 크게 3개 지표로 나뉘며, 세부적으로는 구조지표(전문의료인력)와 과정지표(진단·검사·수술·보조요법·방사선치료 등), 결과지표(입원일수·입원진료비·수술사망률) 등으로 구성돼 있다. <br/><br/>가장 최근 적정성 평가 결과가 공개된 암종은 폐암이다. 심사평가원은 2014년 전국 117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폐암 항암치료 1만174건에 대해 2차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점수 평균이 95.11점으로, 전체 5등급 중 1등급(최우수) 기관이 전체의 84.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등급은 3기관(3.2%), 3등급 1기관(1.1%), 4등급 2기관(2.2%), 5등급 8기관(8.6%) 순이었다.<br/><br/>지역별로 서울·경기·경상권에 1등급 의료기관이 몰려 있었고 강원·제주권은 1등급 의료기관이 2~3곳에 그쳤다. 다음은 등급별 의료기관 명단이다. <br/><br/><br/>■폐암 진료 1등급 의료기관 <br/><br/><br/><br/><서울권><br/><br/><br/><br/>여의도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서울성모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동성심병원 을지병원 중앙보훈병원 원자력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경기권><br/><br/><br/><br/>고려대안산병원 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대진의료재단분당제생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경상권><br/><br/><br/><br/>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료법인안동병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강원권><br/><br/><br/><br/>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강원대학교병원<전라권><br/><br/><br/><br/>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성가롤로병원 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충청권><br/><br/><br/><br/>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을지학원을지대학교병원 건양학원건양대학교병원<제주권><br/><br/><br/><br/>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폐암 진료 2등급 의료기관<br/><br/><br/><br/><경기> 지샘병원 <강원> 한림대학교부속춘천성심병원 <충청>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폐암 진료 3등급 의료기관<br/><br/><br/><br/>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폐암 진료 4등급 의료기관<br/><br/><br/><br/><서울> 한전의료재단한전병원 <경기> 한양대학교구리병원■폐암 진료 5등급 의료기관<br/><br/><br/><br/><서울> 가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 인제대학교부속서울백병원 <경기> 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 <경상> 창원파티마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충청> 대전선병원 유성선병원 청주성모병원<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48.txt

제목: 폐암 환자 절반 ‘발견 땐 이미 말기’  
날짜: 20160111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11120651640  
본문: 폐암 환자의 절반가량이 다른 장기까지 전이된 말기에 암을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0명 중 7명은 남성으로 나타났다.<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117개 의료기관의 폐암 항암치료 1만174건에 대해 ‘2차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발표했다. 폐암의 83.0%를 차지하고 있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는 1~4기 중 ‘다른 장기에 암 전이(4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46.6%로 가장 많았다. 폐암의 16.7%를 차지하는 ‘소세포 폐암’ 환자의 69.7%는 ‘암이 반대편 폐나 다른 장기로 전이(확장병기)’가 있는 상태에서 병을 발견했다.<br/><br/>폐암 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69.7%, 여성이 30.3%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미국·영국에서 남녀 환자 비율이 비슷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50~70대가 폐암 환자의 87.8%를 차지했다. <br/><br/>심사평가원은 국내 폐암 치료 117개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 점수 평균이 95.11점으로, 1등급(최우수) 기관이 전체의 84.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폐암 치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병원 명단은 1월12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49.txt

제목: 금연, 30일 금단 현상 고비…5분씩 기분 전환하며 84일 넘기세요  
날짜: 20160110  
기자: 글 최희진·사진 정지윤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10211132643  
본문: ㆍ새해 결심 12주만 버텨라<br/><br/>시작할 때는 마음대로지만 끊을 때는 아니다.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수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시도했으나 상당수는 좌절과 실패를 맛봤다. 올해도 새해 목표가 금연인 흡연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니코틴에 중독된 이상 정신력만으로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혼자 외롭게 분투하기보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해 의사의 도움을 얻으면 한결 수월하게 담배 생각을 떨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흡연자가 금연치료 프로그램 전 과정을 이수할 경우 상담료·약값 등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br/><br/><br/><br/>■클릭 몇 번이면 금연치료 시작 <br/><br/>금연을 결심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들어가는 것이다. 첫 화면에서 ‘병원 및 검진기관’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원하는 지역과 의료기관 종류를 고를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간다. 다니기 편리한 지역을 선택하고 ‘금연치료 의료기관’ 항목을 체크한 뒤 ‘검색’을 한 번 더 클릭하면 해당 지역 내에 있는 금연치료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명단에서 한 곳을 골라 직접 방문한다면 첫발은 뗀 것이다. <br/><br/>금연치료는 12주(84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2주에 한 번씩은 병원을 찾아가 의사를 만나야 한다. 12주 프로그램이 ‘길다’는 불만이 있어 복지부가 8주짜리 프로그램도 만들었지만 가능하면 12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좋다. 금연을 시작한 후 3개월 정도까지는 흡연 욕구가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이다. 의사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상담을 받으면 금연 결심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된다.<br/><br/>금연치료를 받기 위해 처음 병원에 가면 니코틴 중독도 테스트부터 받게 된다. 과거에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시도했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도 의사가 물어볼 것이다. 중독도가 상중하 중에서 중등도 이상일 경우엔 혼자 힘으로 금연하기 어렵다. 금연치료의약품을 복용하면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껌·사탕)만 사용할 때보다 금단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크다. <br/><br/><br/><br/>금연치료의약품으로 널리 알려진 ‘챔픽스’는 2014년까지만 해도 2주분에 6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비싼 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 의지만 있다면 무료로 약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금연치료 참가자가 의료기관을 세 번째 방문할 때부터 치료비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문 때 지불했던 비용도 모두 돌려주고 있다. 두 번째 방문 때까지 내야 하는 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체 진료비와 약값의 20%만 부담하면 된다.<br/><br/>■5분씩 참다보면 어느덧 금연 84일<br/><br/>복지부가 ‘3회 방문부터 무료’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중도 포기 유혹을 느끼는 참가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가자 22만968명 중 68%가 중도 포기했다. 중도 포기자의 76%는 상담을 2회만 받고 바로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 하므로 2회 방문이라면 금연 3~4주차에 해당된다. 이는 금연의 큰 고비가 한 달 내에 찾아온다는 점을 시사하는 통계다.<br/><br/>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박영민 교수(가정의학과)는 “<span class='quot0'>담배를 끊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금단증상</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금연한 뒤 짧게는 1주일, 보통은 한 달 정도가 금단증상 때문에 가장 힘들다</span>”고 말했다. 금단증상으로는 담배 생각이 간절한 ‘갈망’이 가장 흔하고, 불안·초조 증상도 자주 나타난다. <br/><br/>금단증상은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지속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순간 불쑥 나타났다가 그때만 넘기면 사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흡연 욕구는 밥을 먹거나 술을 마셨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강력하게 찾아온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때 심호흡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바깥 공기를 쐬면서 5분을 참으면 흡연 욕구가 감소한다</span>”고 조언했다. 자리를 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앉은 자리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도 된다. 금연치료를 받는 기간에는 술자리나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br/><br/>이렇게 순간순간을 5분씩 인내하며 넘기다보면 12주 프로그램을 졸업하는 날이 찾아온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2주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가자는 2만2499명이었다. 적어도 6개월간 금연을 지속해야 습관이 몸에 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도 최소 3개월은 더 노력해야 한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가자는 국립암센터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통해 지속적인 유지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br/><br/><br/><br/>■자타공인 ‘골초’라면 금연캠프로<br/><br/>담배를 장기간 많이 피워 니코틴 중독도가 높은 흡연자들은 혼자서 금연하는 게 특히 어렵다. 이미 몇 차례 금연에 실패한 탓에 다시 금연에 도전하기가 두려운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병원 금연치료보다 더 강력한 프로그램인 금연캠프가 도움이 될 수 있다.<br/><br/>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지역금연지원센터는 담배를 오랜 기간 피워 혼자 금연하기 어려운 흡연자를 위해 4박5일짜리 합숙형 금연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캠프 대상자는 흡연과 관련된 질병력(암·만성폐질환·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데도 금연하지 못한 사람,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두 차례 이상 금연에 실패해본 흡연자들이다. 지역금연지원센터는 대형병원이나 지역의료원 안에 있다. 캠프 참가를 원할 경우 국립암센터 금연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내가 사는 지역의 금연지원센터와 캠프 입소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br/><br/>단체나 기업 차원에서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면 방문형 금연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학교나 단체, 사업체 등이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방문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br/><br/><글 최희진·사진 정지윤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50.txt

제목: [기타뉴스][오래전 ‘이날’]1월9일 옥소리 사운드카드  
날짜: 20160109  
기자: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9000916045  
본문: [오래전 ‘이날’]은 1956년부터 1996년까지 매 십년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 합니다.<br/><br/><br/><br/>■1996년 1월9일 옥소리 사운드카드<br/><br/>옥소리 사운드카드를 기억하시나요. 1990년대 가정용컴퓨터에 장착되던 국산 사운드카드였습니다. 당시 가정마다 개인용컴퓨터(PC)가 본격 보급됐고, 게임이나 영화, 음악을 즐기는 사용자들이 늘었는데요. 사운드카드는 컴퓨터 사운드를 책임지는 음향 부품입니다. 그 시절 도스나 윈도우 게임을 즐기던 독자분이라면 사운드블라스터라는 단어를 기억하실것같습니다. ‘옥소리’를 만든 삼호전자 등 한국제조사들은 사운드카드 표준 규격이던 사운드블라스터 호환 기기를 만들었습니다. 광고 모델을 맡은 작곡가(현재 드라마 제작자) 송병준씨의 모습도 눈에 띄네요.<br/><br/><br/><br/>■1986년 1월9일 1986년생의 일생<br/><br/>1986년 신년에 예상한 2000년대의 모습입니다. “2080년 4월 달에 세워진 힐튼병원에서 마이클 스미드씨가 뼈와 뇌기능이 다해 숨졌다. 향년 94세. 유족은 4번째 아내, 자식 2명, 의붓자식 8명”이라고 1986년생의 삶을 예상했습니다. 컴퓨터가 어린이 조기 교육을 맡게 되고, 기술의 발달로 직업이 주기적으로 바뀔 것으로도 예상했네요. 태양열발전, 인공구름대, 달에서 질병치료, 주 20시간 근무, 모든 전염병 예방, 암 정복 등도 실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세기에 얼마나 이뤄질까요.<br/><br/><br/><br/>■1976년 1월9일 주은래 사망<br/><br/>중국 정치가 저우언라이(주은래·周恩來) 부주석이 암으로 숨졌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 지도자로 항일전쟁을 이끌고, 중화민국이 세워진 뒤에도 핵심 지도부에 있던 중국 현대사의 주역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외교문제를 주로 맡았는데, 한반도 정책에도 깊숙히 관여했습니다. 저우언라이가 사망하고, 4월에는 제1차 텐안먼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어 그해 9월9일 마오쩌둥 주석도 사망하면서 격변이 이어집니다.<br/><br/><br/><br/>■1966년 1월9일 일요일 휴간<br/><br/><br/><br/>■1956년 1월9일 겨울, 사창가 풍경<br/><br/><br/><br/>1950년대 서울 시내 사창가 풍경입니다. 사진설명은 “문을 닫은 묵정동 사창가(上) 거리로 진출한 창녀들(中右) 골목을 오락가락하는 수지 안 맞는 포주(下右) 한산해진 양동 사창굴(下左)”이라고 되어있네요. 묵정동 사창가는 청일전쟁 때 일본군 전용 유곽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역 앞 양동은 과거 ‘종3’(종로3가)와 함께 시내 대표적 사창가였다고 하네요.<br/><br/><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br/><br/><br/> ‘향이네’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소식을 접하세요!(▶바로가기)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51.txt

제목: [책과 삶]환자 마음을 듣던 의사이자 작가 올리버 색스, 그의 ‘인생 모험’  
날짜: 20160108  
기자: 문학수 선임기자 sachim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8200322581  
본문: ㆍ온 더 무브 <br/>ㆍ올리버 색스 지음·이민아 옮김 | 알마 | 496쪽 | 2만2000원<br/><br/>젊은 시절의 그는 ‘몸짱’이었다. 짧게 깎은 머리에 둥글넓적한 얼굴도 스포츠맨 스타일이었다. 수영과 역도로 다져진 몸매의 그는 “무엇보다 모터사이클을 사랑”했다. 열여덟 살에 샀던 2기통 BSA팬텀을 시작으로 수많은 모터사이클을 섭렵했다. 스스로를 ‘골수 폭주족’이라고 칭할 만큼 속도를 즐겼던 그는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겼다. 하지만 노년의 그는 덥수룩한 수염에 온화한 미소가 빛나는 ‘착한 할배’였다. 환자를 대상화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신경과 전문의였으며, 인간의 뇌와 정신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저작들로 사랑을 받은 작가였다.<br/><br/>지난해 82세로 타계한 올리버 색스의 자서전이 나왔다. 그의 저작들이 으레 그렇듯이, 이 책도 쉽고 솔직하며 때때로 감동적이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 육체는 ‘몸짱’이었지만 내면에는 결함과 불안이 가득했다고 털어놓는다. 특히 아들이 동성애자임을 알아챈 어머니가 던진 한마디, “가증스럽구나,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라는 말이 죄의식으로 주입돼 평생토록 자신을 옥죄었다고 고백한다.<br/><br/>그렇게 색스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존재의 연약함”을 깨달았기에 삶의 진실과 휴머니티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는 실연의 아픔을 잊고자 마약에 의존하면서 “의사와 중독자라는 이중생활”을 보내야 했다. 다행히도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임상을 통해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 그는 당시를 이렇게 고백한다. “옥스퍼드 의예과에서 했던 공부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환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경청하고, 환자의 경험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환자들을 염려하고 책임지는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했다. (중략) 1966년 10월, 임상을 시작하자 내 상태가 호전됐다. 나는 환자들에게 매료됐고, 환자들에게 마음을 다했다. 주체성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마약을 덜 찾고 정신과 상담 때는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다.”<br/><br/>1970년 <편두통>으로 시작해 타계 이후 세상에 나온 자서전까지, 색스의 저서는 유명한 것들만 추려도 13권이다. 400~500쪽의 두툼한 책들이 대부분이다. 엄청난 독서량을 기반으로 철학과 과학, 때로는 클래식 음악을 종횡무진 오가는 글들이다. 사람을 좋아하고, 대화를 즐겼던 이 신경과 전문의는 어느 틈에 그 많은 책들을 써내려간 것일까. 그는 손에 잉크를 묻혔던 70년을 이렇게 돌이킨다. “열네 살 때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 1000권에 육박한다. 늘 들고 다니는 수첩부터 큰 책만 한 것까지 가지각색이다. 나는 꿈속이나 밤중에 생각이 떠오를 경우를 대비해 항상 머리맡에 공책을 놔둔다. (중략) 꼭 공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편지봉투 뒷면도 되고 메뉴판도 되고, 손에 잡히는 아무 종이에든 쓰면 그만이다. 나는 이야기꾼이다. 좋든, 나쁘든 그렇다.”<br/><br/>의사이자 신경과학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작가였던 그는 지난해 2월 ‘뉴욕 타임스’에 마지막 기고문을 보냈다. 암이 간으로 전이됐다는 사실과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면서 이렇게 썼다. “나는 사랑했고 또 사랑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고 일부는 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의식있는 존재, 생각하는 동물로 살아왔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크나큰 특권이자 모험이었습니다.”<br/><br/><문학수 선임기자 sachim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52.txt

제목: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가능…‘존엄사’ 법으로 허용  
날짜: 20160108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8175219473  
본문: ㆍ‘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br/><br/>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well-dying)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부터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br/><br/><br/>보건복지부는 이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되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18년 만이다.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br/><br/>법률안은 ‘연명의료’를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정의했다.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의미한다.<br/><br/>환자는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 1명과 논의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되면 환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진통제나 영양분·물·산소는 계속 공급해야 한다.<br/><br/>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 2명 이상(가족이 1명일 때는 1명)이 ‘연명의료 중단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말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 가족’은 배우자와 부모, 만 17세 이상 자녀가 우선이고 이들이 없을 때는 형제자매의 의사를 묻게 된다.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한다’고 주장해도 이와 배치되는 다른 가족의 진술이 있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다.<br/><br/>임종과정의 환자가 아니더라도 만 19세 이상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장차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소신을 미리 문서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법률안은 복지부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했다.<br/><br/>법률안은 현재 암 환자에게 국한돼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후천성면역결핍증과 만성 폐쇄성폐질환, 만성 간경화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는 1년에 약 7만6000명, 나머지 3개 질환 사망자는 연간 7400여명이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53.txt

제목: 박의현원장, ‘맞춤형 교정절골술로 무지외반증 재수술 피해 막는다’  
날짜: 20160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8163124016  
본문: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무지외반증 수술은 오십견, 골다공증과 함께 중년여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2~3년 새에 무지외반증 환자 중 10~30대의 젊은 환자들이 급증하였다. 무지외반증 발병 시 엄지발가락 부위가 돌출되어 신발을 신거나, 보행 시 발에 통증이 발생, 보행불균형이 오면서 발목염좌로 인한 다양한 족부손상 과 무릎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무지외반증은 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힘겹게 수술 결정 후 수술을 받았으나 제대로 발 모양이 교정이 되지 않아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br/><br/>진료환자 10명 중 2~3명이 재수술희망 환자, 이유는?<br/><br/>연세건우병원 박의현 병원장은 정형외과 SCI 저널 중 최고권위인 AJSM의 논문리뷰어로 세계적인 족부수술 권위자이며, 특히 지난 2015년 한 해에만 무려 1,000례 이상 무지외반증 수술 단독집도 및 세계최초 무지외반증 녹는나사 삽입술 시행 성공까지 무지외반증 수술에 대가다.<br/><br/>박의현 원장은 “하루에 수십 명의 무지외반증 환자분들을 뵙고 있는데, 확률적으로 10명 중 2~3명의 환자분들이 재수술을 받고자 나를 찾아오신 환자분들로, AJSM을 비롯 AOFAS, FAI 등에 발표되는 무지외반증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평균 4~25% 정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10명 중 2~3명이라는 20~30% 라는 수치를 보았을 때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br/><br/>재수술 희망환자들의 경우 모양불만족의 경우는 전적이 재발이 아니라고 보아 제외를 하더라도, 과교정으로 인한 무지내반증이 발생한 환자, 과소교정으로 수술 후 호전이 없는 경우, 수술 후 절골부위의 부정유합 이나 골절이 발생한 경우와 무지강직증이 발생한 환자들은 잘못된 수술로 인한 통증 및 심리적 부담감으로 빠른 재수술이 필요하다.<br/><br/>박의현 원장은 “<span class='quot0'>일차 수술로 인해 환자들이 재수술에 대한 불안감, 일차 수술 시 과도했던 통증에 대한 두려움 등의 요인으로 바로 수술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뿐이다</span>”라고 전했다.<br/><br/>환자에 정확히 맞는 맞춤형 교정절골술과 족부수술시스템의 중요성<br/><br/>박의현 원장은 “<span class='quot0'>환자에 특성에 맞춘 교정 절골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강조한다. 마치 남반구에 사는 사람과 북반구에 사는 사람의 피부색이 다른 것처럼,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발생요인인 선천적인 경우, 후천적인 경우로도 나뉘며, 휘어진 각도도 제각기 다르다. 맞춤형 교정절골술은 사전에 이러한 다양한 생활/환경요인을 분석하여 수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br/><br/>기존의 무지외반증 수술의 경우 돌출된 뼈를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매우 심하고, 과교정의 위험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돌출된 뼈를 모두 제거하기 보다, 이를 최소화하여 내측으로 교정해주는 교정절골술을 시행해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br/> <br/>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의 '명의'에 대해<br/><br/>실제 박의현 원장이 국내 최대규모 무지외반증 임상연구 사례로 꼽히는 무지외반증 수술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정절골술 후향적 연구결과에서는 교정절골술 시행환자 중 재수술을 위해 내원한 환자는 전체환자의 1%(10명 미만)로 사고 충격 등으로 인한 외상환자 1%에 불과했다. 또한 기존 국내 무지외반증 평균 입/내 원기간 6일 (2014년 심사평가원통계 기준)정도 였던 수치를 2.1일로 크게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측무지외반증도 동시 수술이 가능했다고 밝혔다.<br/><br/>생활에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그 수술에 대한 다양한 불안요인으로 수술을 받기가 두려워 병을 키우게 되는 현실만큼 비정한 것은 없다.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주목 받을 수 있는 5대암 질환이나, 난치병에 대한 성과는 아닐지라도, 이러한 주목 받지 못하는 분야이나 그 치료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 역시 '숨은 명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54.txt

제목: 의료 질, 울산 ‘최고’ 광주 ‘꼴찌’ 위암 사망 줄고 당뇨 입원 늘어  
날짜: 20160106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6151547130  
본문: ㆍ보사연, ‘의료의 효과성’등 통계종합 첫 보고서 <br/>ㆍ서울·부산 평가 높고 전남·충남·제주 낮아<br/><br/>암과 심혈관질환, 뇌졸중 등에 대한 의료 효과성은 향상됐지만 당뇨나 정신질환과 관련된 효과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의료의 질에선 울산·서울·부산 등 대도시가 상위권을 차지했고 광주·전남·충남이 하위권에 머물렀다.<br/><br/>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일 ‘2015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서 국립암센터와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2005~2013년 자료를 분석해 국내 의료시스템의 성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 각종 의료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의료의 질은 의료 효과성과 환자 안전, 적시성, 환자 중심성, 의료연계, 효율성, 접근성, 시스템 인프라, 격차 등 8개 범주의 153개 지표를 통해 평가했다.<br/><br/><br/>■ 암은 향상, 당뇨는 악화<br/><br/>5대 암에 대한 의료 효과성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특히 위암은 검진연령 인구 대비 실제 검진 인구를 뜻하는 검진율이 2005년 39.4%에서 2013년 76.7%로 늘었고 사망률은 10만명당 22.5명에서 12.1명으로 줄었다. 진단 5년 후 생존해 있을 확률인 ‘5년 상대생존율’도 연평균 3.32%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br/><br/>다만 유방암은 조기 진단의 성과가 부진했다. 검진율은 연평균 6.55%씩 늘고 있으나 진행단계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연평균 3.03%, 사망률도 연평균 1.23% 증가하고 있다.<br/><br/>심혈관질환 분야에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불필요한 입원·사망을 예방하는 성과가 있었다. 15세 이상 입원환자 중 허혈성 뇌졸중 사망률은 2005년 이후 연평균 4.2% 감소했다. 반면 당뇨의 의료 효과성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보건지표 2015’를 보면 당뇨 입원율은 10만명당 310.7명으로 OECD 평균(149.8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성인 자살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19세 이하 자살률은 연평균 3.3%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br/><br/>■ 울산 1위, 광주 최하위<br/><br/>지역별 의료의 질 평가에선 전국 16개 시·도(세종 제외) 중 울산이 68점(100점 만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서울(67.3점)과 부산(67.2점)이 뒤를 이었다. 울산은 평가항목 중 환자 안전(91.3점)과 적시성(100점), 의료 접근성(100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은 환자 안전(81.9점), 적시성(95.9점), 환자 중심성(83.5점) 등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다.<br/><br/>반면 광주는 43.7점으로 최하위에 그쳤고 전남(49.2점)과 충남(49.3점), 제주(49.5점)도 점수가 낮았다. 광주는 적시성과 환자 중심성에서 ‘0점’을 받았고 전남은 의료연계(12.6점) 항목의 점수가 낮았다. 제주는 의료 효과성과 의료연계, 환자 중심성 항목에서, 충남은 접근성, 환자 안전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br/><br/>연구진은 “<span class='quot0'>수도권에서 멀거나 수도권과의 경계선에 위치해 환자 유출이 많은 지역은 의료의 질이 낮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역별로 취약한 영역을 확인해 향후 지역사회 단위의 의료 질 향상 전략을 추진할 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55.txt

제목: 위암 환자 10명 중 7명은 '조기 수술'  
날짜: 20160106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6120523116  
본문: 위암 수술 환자 10명 중 7명은 조기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 수술 의료기관 10곳 중 9곳은 1등급 평가를 받았다.<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1개 의료기관의 위암 수술 9969건(2014년 7~12월)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암 1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7일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위암은 남성 발병률 1위 암으로, 이번 평가는 의료기관별 진료 편차를 줄이고 진단과 수술이 적기에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br/><br/>평가 결과 위절제술이 66.7%, 내시경절제술이 33.3%를 차지했다. 병기(진행 정도)별로는 1~4기 중 가장 초기인 1기 수술이 74.5%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양이 위점막 또는 점막하층에 분포하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T1N0 상태가 67.5%를 차지했다. 환자 대부분이 위암을 조기에 발견해 수술하고 있다는 뜻이다.<br/><br/>수술 환자 중 남성(68.7%)이 여성(31.3%)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연령별로는 남성은 60대, 여성은 70대 환자가 많았다.<br/><br/>의료기관에 대한 종합점수는 평균 95.30점으로 매우 양호했다. 세부 평가항목을 보면 치료와 예후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은 전체 평균이 98.2%로 나타났다. 수술의 근치율(완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하는 ‘위암에 대한 근치적 수술 비율’은 98.1%로, 위암 수술이 전반적으로 적절히 이뤄지고 있었다.<br/><br/>다만 내시경 절제술 후에 절제 면에 암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전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위절제술을 하는 ‘내시경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은 전체 평균이 76.3%로 낮았다. 수술 후 적절한 시기에 투여해 재발을 방지하고 생존율을 높이도록 하는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은 전체 평균이 84%로 낮은 편이었다.<br/><br/>‘수술 사망률’은 전체 평균이 0.88%였다. 수술하다 사망하는 경우는 수술 전 진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하거나 병기가 말기인 4기인 경우, 수술 전 환자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75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이었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56.txt

제목: “안심하고 드세요” 화천 산천어축제 사용되는 산천어 안전성 확인  
날짜: 20160106  
기자: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6110523529  
본문: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화천 산천어 축제’에 납품될 예정인 산천어를 대상으로 인체유해물질 함유여부를 검사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br/><br/>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18개 업체에서 생산된 산천어를 대상으로 말라카이트그린, 멜라민, 기생충 감염여부 등을 조사했다.<br/><br/>이번 검사에 제공된 모든 시료에서는 해당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또 인체에 유해한 간흡충 등의 장내기생충에도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br/><br/>말라카이트그린과 멜라민은 섭취량에 따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다.<br/><br/>세계 4대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한 화천 산천어축제 기간 동안에는 산천어 밤 낚시터도 별도로 운영된다.<br/><br/>한편 지난해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린 ‘2015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엔 150만2882명이 찾아 전년 보다(131만7900명)보다 14%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br/><br/><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57.txt

제목: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16년 1월 6일  
날짜: 2016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5201946801  
본문: ■ 영화 ■ <br/><br/>룰라바이(캐치온 오후 3시35분) = 조나단은 집을 떠나 자유분방한 삶을 살지만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자격지심을 갖고 있다. 그러던 중 조나단은 말기 암 환자인 아버지가 12년간의 투병생활을 끝내고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조나단은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24시간을 위해 아버지의 병실을 찾아간다. 조나단은 여동생과 어머니를 오랜만에 만나 서로를 향한 원망을 늘어놓는다.<br/><br/>■ 예능 ■ <br/><br/>수요미식회(tvN 오후 9시40분) = 단순한 재료로 수만 가지의 맛을 표현하는 초밥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한다. 다양한 초밥의 맛집뿐만 아니라 한국 초밥계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소개한다. 특히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초밥인 만큼 지금까지도 한국 초밥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최고의 초밥 셰프 5인도 밝힌다. 또 한국 초밥 1세대이자 <미스터 초밥왕>의 실존 인물부터 ‘어마무시’한 팬덤의 초밥계 아이돌까지 만나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58.txt

제목: [여적] 김빛내리 교수의 쾌거  
날짜: 20160103  
기자: 이기환 논설위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3210030769  
본문: 염색체는 ‘단백질과 핵산(DNA와 RNA)’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유전을 결정하는 물질이 DNA에 들어있다는 연구는 1940~1950년대에 집중됐다. DNA를 주제로 한 생명현상의 연구는 50여명의 노벨생리의학상 및 화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유전 하면 DNA였으므로 DNA 연구는 노벨상의 보고였던 것이다.<br/><br/>반면 염색체 내 또 다른 핵산인 리보핵산(RNA) 연구는 홀대받았다. DNA야말로 세포 내에서 유전형질을 만들어내는 주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RNA는 그저 DNA의 활동을 돕는 ‘수행 비서’ 취급을 받았다. 2000년대 들어 RNA의 ‘숨겨진 매력’이 발산됐다. 1993년 빅터 앰브로스 미국 매사추세츠 의대 교수가 꼬마선충에서 확인한 마이크로RNA가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됐다. 핵산이 22개 정도밖에 안되는 작은 RNA라 해서 ‘마이크로’라는 접두어가 붙었다. 이 마이크로RNA가 세포 내에서 선충의 발달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난 것이다. 인간의 세포에는 200종 이상의 마이크로RNA가 존재한다. 이것이 수백종의 유전자를 조절하여 생물체의 발생과 성장, 노화, 사멸에 질서를 부여한다. ‘생명조절의 중추인자’이자 ‘세포세계의 경찰’인 것이다. 마이크로RNA는 꼭 필요한 세포에서만 만들어지도록 철저히 통제된다. 만약 이 체계에 결함이 생기면 곧 동물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 즉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br/><br/>김빛내리 서울대 교수팀의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2002년부터 마이크로RNA의 생성과정 이론 및 과정을 처음으로 규명했고, 특정한 마이크로RNA가 암발생과 연관된다는 연구성과도 발표했다. 그런 김 교수가 이번에 마이크로RNA 생성물질의 3차원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인위적인 단백질 합성을 통해 암 같은 난치병과 유전질환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차세대 노벨상 유력후보로 꼽힌다. 이제 RNA 연구가 노벨상의 차세대 보고라는 말도 나오고 있으니 조심스레 기대를 가져봄 직하다. 물론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김 교수는 어느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긴 호흡으로 지원하고, 묵묵히 기다려달라</span>”고 했다.<br/><br/><이기환 논설위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59.txt

제목: [여적]RNA의 반전매력과 김빛내리 교수  
날짜: 20160103  
기자: 이기환 논설위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3181926631  
본문: 유전을 결정하는 것이 세포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라는 사실은 독일의 발생학자 아우구스트 바이스만에 의해 1880년 처음 밝혀졌다.<br/><br/>그 염색체가 ‘단백질과 핵산(DNA와 RNA)’이라는 물질로 이뤄졌음은 1924년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유전을 결정하는 물질이 DNA에 들어있다는 연구는 1940~50년대에 집중됐다. 1953년 4월 25일 <네이처>지에 젊은 과학지인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유전물질인 DNA가 이중나선 구조라는 획기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br/><br/>이후 DNA는 신비에 쌓였던 이 생명 현상의 연구는 50여 명의 노벨생리의학상 및 화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유전하면 ‘DNA’였고, 바로 그 DNA연구야말로 노벨상의 보고였다.반면 같은 핵산인 RNA(리보 핵산)는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DNA야말로 세포 내에서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을 결정해서 유전형질을 만들어내는 주역으로 여겨졌다. RNA는 DNA의 활동을 돕는 ‘수행비서’에 불과하다는 선입견의 제물이 됐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RNA의 숨겨진 매력이 발산되기 시작했다. <br/><br/>1993년 빅터 앰브로스(매사추세츠 의대교수)가 꼬마선충에서 확인한 마이크로RNA가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됐다. 핵산이 22개 정도밖에 안되는 작은 RNA라 해서 ‘마이크로’라는 접두어가 붙었다. 이 마이크로RNA가 세포 내에서 선충의 발달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속속 드러난 것이다. <br/><br/>인간의 세포에는 200종 이상의 마이크로RNA가 존재한다. 이것이 수백종의 유전자를 조절하여 생물체의 발생과 성장, 노화, 사멸에 질서를 부여한다. 그러니 ‘생명조절의 중추인자’이자 ‘세포세계의 경찰’이라 하는 것이다. 마이크로RNA는 꼭 필요한 세포에서만 만들어지도록 철저히 통제된다. <br/><br/>만약 이 체계에 결함이 생기면 곧 동물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 즉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대 김빛내리 교수(사진)가 이끄는 기초과학연구원의 RNA연구단이 주목 받고 있다. 김빛내리 교수팀은 이미 마이크로RNA의 생성과정 이론 및 과정을 처음으로 규명했고, 생성물질인 ‘드로셔 단백질 복합체’의 구성및 기능을 밝힌 바 있다. 특정한 마이크로RNA가 암발생과 연관된다는 연구성과도 발표했다. 그런 김 교수팀이 이번에 마이크로RNA 생성물질의 3차원구조를 세계최초로 규명했다. 인위적인 단백질 합성을 통해 암 같은 난치병과 유전질환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br/><br/>김교수는 차세대 노벨상 유력후보로도 꼽힌다. 이제 RNA연구가 노벨상의 차세대 보고라는 말도 나오고 있으니 조심스레 기대를 가져봄직도 하다. 물론 절대 서두르면 안된다. 김교수는 어느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긴 호흡으로 지원하고, 묵묵히 기다려달라</span>”고 했다. 냄비처럼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 지긋지긋한 사회풍토를 경계한 말일 것이다. 미상불 노벨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실험실 속에서 끈질기에 앉아 한우물을 판 결과가 인류의 삶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내리는 작은 보답이 아닌가.<br/><br/><이기환 논설위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60.txt

제목: 사망원인 1위 암 하루평균 41명 숨져  
날짜: 20160103  
기자: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3092252112  
본문: 경기도민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3일 경기도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도내 총 사망자수 5만1425명 가운데 29.0%(1만4910명)가 암으로 숨져 전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하루평균 41명이 암으로 사망한 셈이다. 암에 이어 심장질환(9.5%·4873명), 뇌혈관질환(9.0%·4652명), 자살(6.1%·3139명), 당뇨병(5.1%·2624명), 폐렴(3.7%·188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질환이 경기도 전체 사망원인의 절반에 가까운 47.5%를 차지했다.<br/><br/>경기도내 총 사망자 수를 10년 전인 2004년과 비교하면 70대 이상 사망자가 48.9%(1만644명), 50대가 1.8%(1869명)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의 사망자 수는 모두 감소했다. 연령별 사망자 비중은 70세 이상 63.0%, 60대 13.2%, 50대 12.3%, 40대 6.3% 순이었고 1∼9세가 0.2%로 가장 적었다. 연령별 사망원인은 1∼9세 및 40세 이상에서는 암이 가장 많았고 10대는 교통사고, 20대와 30대는 자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br/><br/>10년간 사망원인 변화를 살펴보면 폐렴이 2004년 11위(494명)에서 지난해 6위(1883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심장질환이 3위(2953명)에서 2위(4873명)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반면 뇌혈관질환이 2위(5911명)에서 3위(4652명), 간질환이 6위(1664명)에서 7위(1310명), 만성하기도질환이 7위(1423명)에서 8위(1233명), 운수사고가 8위(1422명)에서 9위(1037명)로 사망원인 순위가 내려갔다. 성별로는 남자 사망자(2만8511명)가 여자(2만2914명)보다 5597명이 많았다. 남자 사망자는 전 연령층에서 모두 여자보다 많았으며, 특히 50대 남자의 사망자가 여자의 2.84배로 가장 격차가 컸다.<br/><br/>시군별 연령구조를 표준화한 사망률을 살펴보면 동두천(440.5명), 여주(411.2명), 가평(402.2명), 수원(354.2명), 성남(318.9명)이 높고 과천(246.9명), 군포(289.2명)가 낮았다.<br/><br/><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61.txt

제목: 세포 내 유전자 조절 맡은 ‘드로셔 단백질 결합 원리’ 규명  
날짜: 20160101  
기자: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1020256709  
본문: ㆍ김빛내리 교수 연구팀, 세계 최초…암 치료제 등 개발 실마리<br/><br/>마이크로RNA(miRNA)의 세계적인 권위자 김빛내리 서울대 교수(47·사진)가 이끄는 연구팀이 miRNA 생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드로셔(DROSHA)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miRNA는 작은 RNA(리보핵산)로 세포의 발생, 분화, 사멸, 분열, 암 발생 등 세포 내에서 다른 유전자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br/><br/><br/>기초과학연구원은 RNA연구단의 김빛내리 단장 연구팀이 ‘엑스선결정학’ 방법으로 드로셔 단백질의 3차원 구조(결합관계)를 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불명확했던 드로셔의 일부 작동 원리가 밝혀지게 됐다.<br/><br/>앞서 지난 6월 김 단장과 우재성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위원(서울대 연구교수)은 ‘드로셔-DGCR8 단백질 복합체’(마이크로프로세서)가 1개의 드로셔와 2개의 DGCR8 분자로 구성돼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엑스선결정학은 단백질에 엑스선을 쬐어 생기는 고유의 회절 패턴을 겹겹이 쌓아 그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3차원 좌표에 특정 단백질이 갖는 공간적 특성을 그려냈다.<br/><br/>드로셔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성하는 핵심 단백질로 miRNA 1차 전구체(물질대사나 화학반응에서 최종 물질이 되기 전 단계)를 자르는 절단효소이다. DGCR8(DiGeorge syndrome critical region8)은 miRNA 1차 전구체와 결합해 파트너인 드로셔의 절단 메커니즘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br/><br/>이번 연구는 miRNA 생성과정에서 재료물질(miRNA 1차 전구체) 절단을 담당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드로셔 분자가 DGCR8 분자 두 개와 결합하는 위치를 명확히 규명했다. 연구진은 3차원 모델링을 통해 마이크로프로세서 중 드로셔의 돌출부가 miRNA 1차 전구체의 하단 분기점에 끼워져 분기점을 인식하고 정확한 위치를 절단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br/><br/>또 드로셔 단백질의 3차원 구조가 miRNA 2차 전구체의 절단에 관여하는 다이서 단백질과 구조적으로 유사함을 확인하고, 같은 단백질로부터 진화했을 수 있다는 새로운 진화 가설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생명과학분야 세계 최고 권위지인 셀(Cell) 12월31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br/><br/>김 단장은 그동안 miRNA가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는 일에 전념해 왔다. 그의 연구 결과는 암과 같은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br/><br/>2002년 miRNA가 세포 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고, 2003년 miRNA를 만드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발견했다. 2008년 특정 miRNA가 암 발생과 연관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에 가장 근접한 과학자로 평가된다.<br/><br/><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62.txt

제목: [부들부들 청년][1부①우린 붕괴를 원한다]이대로는 ‘노답’…‘리셋’된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날짜: 20151231  
기자: 정대연·송윤경 기자 hoa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31225101933  
본문: ㆍ20~34세 청년들이 살고 싶은 미래는 ‘붕괴 뒤 새로운 시작’<br/><br/>아침 9시30분에 도서관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것은 저녁 7시. 다시 밤 10시까지 책을 보다가 잠든다. 놀면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친구들과 만나도 ‘100%’ 즐겁지 않다. 취업 얘기가 나오면 분위기는 금세 우울해진다. “우리가 지금 놀아도 될까?” 이 물음을 던질 때마다 돌덩이가 누르는 듯 마음이 무겁게 옥죄어진다. 경향신문의 ‘청년 미래인식 조사’에 참여한 ㄱ씨(26·서울) 얘기다. 올해 대학원에 입학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생활이 고3으로 돌아갔다”고 했다.<br/><br/><br/>2015년 12월 경향신문의 집단면접에 참가한 20~34세의 청년 2명 중 1명이 선호하는 미래의 시나리오로 ‘붕괴와 새로운 시작’을 택했다. ㄱ씨 역시 ‘붕괴와 새로운 시작’의 지지자다. 그는 “좁은 문을 향해 달리는 걸 알면서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사회가 한 가지 길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리셋’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br/><br/><br/>■경쟁·물질만능보다 행복과 여유를<br/><br/>청년 미래인식 조사는 네 종류의 미래사회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토론을 거친 후 참가자가 원하는 것을 고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붕괴와 새로운 시작’ 시나리오는 경제위기로 중국 수출에 의존하던 한국 기업들이 도산해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향하는 사회를 담고 있다. 남한 인구 33%가 농사를 짓고, 마을 공동체가 발달하면서 시민들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토론과 투표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정치에 참가한다.<br/><br/>이 같은 설정은 도시에서 자라 소비문화에 젖어 있는 청년 대부분에게는 낯선 얘기다. 그런데 왜 가장 많은 참가자(46.4%)가 이 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했을까. “<span class='quot0'>경쟁·빈부격차 심화, 물질만능·외모지상주의 등 급속한 경제성장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가 너무 크다.</span>”(대학생·24·서울) 청년들이 적은 ‘이유’에는 무한 경쟁에 지친 청년들의 고단한 내면이 채워져 있었다.<br/><br/>경쟁에 대한 피로감은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더 컸다. ‘붕괴와 새로운 시작’ 지지도는 대학생(48%)이나 무직자(40%)보다 이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59.3%) 사이에서 더 높았다. 또 남성(45.1%)보다 여성(55.8%)이, 보수(8.3%)보다 중도(54.0%)와 진보(58.5%)에서 높았다.<br/><br/>이 시나리오를 지지한 IT업계 노동자인 여성 ㄴ씨(29·서울)는 “<span class='quot1'>나는 출근시간만 정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span>”고 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있는 ‘심하지 않은 야근’은 밤 11시, ‘좀 심한 야근’은 새벽 1시에 끝난다. 자취할 형편이 되지 않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탓에 출퇴근에만 4시간이 걸린다. 결국 서너 시간 자고 출근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러면서도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폭파’돼 회사에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실업의 공포를 안고 산다”고 했다. ㄴ씨가 “사는 맛”을 느끼는 때는 고등학생 때부터 해 오던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지만 이마저도 3년간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동시간(2057시간)은 가장 길고 근속기간(5.6년)은 짧은 현실이 ㄴ씨의 삶에 그대로 담겨 있다.<br/><br/>문제는 청년들이 ‘붕괴와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것과 이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회를 변혁시킬 의지와 에너지를 모으고 있느냐는 별개라는 점이다. 이문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시인)는 “청년들은 지배 시스템을 바꾸고픈 생각은 있지만 자신감이 없다. 경제적 공포가 심한 세대”라면서 “촉매제와 도화선이 있어야 한다. ‘돈의 논리’에 매달리는 삶이 아닌 다른 삶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br/><br/><br/>■공정성·투명성 없는 성장은 반대<br/><br/>청년들이 두 번째로 많이 꼽은 ‘계속 성장’ 시나리오에서 2035년 한국은 주요 5개국(G5)에 든 선진국이다. 북한은 남한에 흡수통일되고, ‘메가시티’ 서울 인구는 2000만명에 이른다. 강남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200층짜리 빌딩이 있다. 밤이 되면 900m가 넘는 이 빌딩 벽면에 비행기 광고가 떠오른다. 개인 비행기 소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굴하며 암 완치의 길이 열린다.<br/><br/>이 시나리오는 역대 정부가 지향해 온 ‘높은 경제성장’의 장밋빛 미래와 가장 닮았다. 그러나 미래인식 조사에 참가한 청년들 중에 이 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한 사람은 28.7%에 불과했다. ‘계속 성장’ 지지도는 ‘붕괴와 새로운 시작’ 지지도의 절반 수준이었다.<br/><br/>스스로를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참가자들은 대부분(83.3%) ‘계속 성장’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들이 바라는 성장 역시 무한 경쟁의 결과물만은 아니었다. 다른 사회를 선호한 집단에 비해 효율성과 경쟁을 정부가 우선시해야 할 가치로 꼽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br/><br/>나머지 두 시나리오 중에 ‘과학기술이 변화를 이끄는 사회’ 지지도는 16.6%였다. 이 사회에선 스스로 진화하는 로봇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며, 인간과 로봇이 결합된 ‘포스트 휴먼’도 등장한다. 삶의 반경이 화성이나 다른 행성으로까지 넓어진다. 이 미래를 선호한 이들은 “인간의 한계를 이겨낸 미래로, 편견도 없고 부족함도 없을 것” “과학기술 발전으로 상대적 불평등은 심화될지 몰라도 각각의 생활수준, 행복수준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br/><br/>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로 인해 전 국민이 에너지·식량 보존에 힘을 쏟는 ‘자원 보존사회’에 대한 지지도는 8.4%였다. “지속가능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 등이 선호 이유로 꼽혔다.<br/><br/> <br/> 청년 미래인식 조사를 마친 후 경향신문은 참가자들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사회를 위해 정부·국회·언론·시민사회 등을 감시하고 보고서를 쓸 ‘미래사회 모니터링단’을 모집했다. 이들의 활동은 앞으로 1년간 이어지며 ‘미래사회 모니터링단’의 최종 보고서는 2017년 1월1일 게재될 예정이다.<br/> 모니터링단은 경향신문의 신년 기획 ‘부들부들 청년’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취재진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겸한다. 경향신문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리즈를 이어나갈 예정이다.<br/><br/>■모니터링단 명단(33명)<br/>강지승(대학생) 고석현(대학원생) 권재희(취업준비생) 권혁민(대학생) 권효은(직장인) 기은환(직장인) 김민재(대학생) 김민지(대학원생) 김유진(대학생) 김은빈(취업준비생) 두동원(취업준비생) 문서영(직장인) 박동우(대학생) 박용석(대학생) 백지연(대학생) 송명수(대학생) 신혜인(대학생) 심하늬(취업준비생) 양지연(대학생) 오정빈(취업준비생) 오창윤(대학생) 은진(취업준비생) 이경은(대학생) 임석영(대학생) 임성희(대학생) 임태권(대학생) 장한결(대학생) 정다예(대학생) 정단비(대학생) 정미선(취업준비생) 정민섭(대학생) 정창현(대학생) 한승수(대학생) <br/><br/><br/><br/><정대연·송윤경 기자 hoa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63.txt

제목: [부들부들 청년][1부①우린 붕괴를 원한다]2035년 한국사회 미래 시나리오  
날짜: 20151231  
기자: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31224034246  
본문: 경향신문의 ‘청년 미래인식 조사’는 12월5일부터 20일 사이 총 5회(서울 2회, 천안, 전주, 경주)에 걸쳐 20~34세 청년 103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이뤄졌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의 박성원 부연구위원이 집단면접을 진행하고 감수를 맡았다.<br/><br/>참가자들은 무작위로 4~6명 규모의 4개 조에 편성됐다. 취재진은 아무 힌트 없이 조별로 각기 다른 ‘2035년 미래 시나리오’를 건넸다.<br/><br/>조별로 각 미래에 대한 토론을 벌여 장단점을 발표했다. ‘어떤 미래가 올 것 같은가’ ‘어떤 미래에 살고 싶은가’에 대한 개별 투표는 마지막에 진행됐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는 미국 하와이미래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조사 방법에 따라 이뤄졌다. 각 시나리오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한국에 맞게 조정해 과학자·사회학자·언론인의 감수를 받았다.<br/><br/>아래 내용은 참가자들이 받은 4가지 미래 시나리오다. 시나리오를 읽고 2035년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와 ‘가장 원하는 미래’를 직접 골라보자.<br/><br/>1. 2035년 한국, 주황 : 판타스틱 코리아<br/><br/>비관주의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인류 발전의 역사는 비관주의를 극복한 역사다. 신념과 패기가 없는 사람에겐 모든 것이 암울하게 보인다. 비록 우리 세대가 누리는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이 유래가 없는 것이기는 해도 이 성장이 멈출 것이라든지 퇴보한다는 주장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에 지레 겁을 먹은 나약한 소리다. 우리가 정말 선배들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인가!<br/><br/>한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5개국 모임에 들어간 여정은 한 편의 드라마였다. 2011년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사망한 뒤, 북한의 당 지도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2018년 남한에 흡수 통일되기로 결정했다. 중국과 미국의 동의도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됐으나 결정적인 요인은 인터넷 등으로 외부 세계에 노출된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봄’으로 알려진 반체제 운동을 벌인 것이었다. 통일 뒤 이념의 갈등, 북한 사회 재건 등 후유증이 적지 않았으나 남한과 북한 두 나라는 한동안 1국2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경제 교류를 활성화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자연스럽게 남한사회에 흡수됐다. 통일 덕분에 한국은 인구 감소의 걱정 없이 경제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br/><br/>2035년 통일 한국의 인구는 8000만 명. 남북한 모두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예상됐으나 통일이 한반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메가시티 서울의 인구는 2000만 명에 육박했고, 이중 20%는 아시아 북미 유럽 아프리카에서 온 외국인들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울리안(Soulian)’으로 불리며 미국의 뉴요커나 싱가포르 시민처럼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서울에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잇는 초고속 자기부상열차를 타고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오고간다. 경제개발을 지속한 덕분에 예전 북한지역이었던 남포, 개성, 나진 등이 거대 도시로 성장했다. 특히 남포에서는 유전이 발견돼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고 있다. <br/><br/>밤이 되면 서울은 더욱 화려해진다. 빌딩 벽면 전체가 번쩍거리는 광고판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강남에 위치한 200층짜리 빌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자, 가장 큰 광고판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저녁 6시가 되면 900m가 넘는 거대한 빌딩 벽면으로 비행기 광고가 떠오른다. 최근 들어 개인 비행기 구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를 메꾸어 국토를 확장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행기 소유자를 위한 개인 섬 소유도 증가하고 있다. <br/><br/>얼마 전 열린 G5의 참가국이자 개최국이었던 한국은 전 세계에 엘리트 국가, 글로벌 국가라는 인상을 남기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 해외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도 힘을 쏟은 결과다. 다문화 가정 출신 엘리트들도 한몫을 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싹트기 시작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역량이 재발견 되었다. 여러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오픈마인드와 외국어 능력, 인종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외모 등은 이들만의 독특한 능력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문화 엘리트그룹이 약진하자, 토종 한국인 엘리트그룹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순혈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갈등, 외국인 범죄의 증가, 문화간 충돌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새로운 사회적 약자층으로 부각된 지 오래됐으나 이들의 삶의 질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br/><br/>석유가 고갈된다는 주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인은 중동의 산유국들과 손잡고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유전을 발굴했다. 게다가 2010년대 미국 캐나다 중국을 중심으로 셰일 가스(shale이라 불리는 퇴적암 층에 매장돼 있는 가스)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개발됐고, 석탄에서도 석유를 만들어내는 신기술이 보급되면서 에너지 걱정은 해소되고 있다. <br/><br/>안정적이고 값싼 에너지 공급에 힘입어 한국은 세계 최강의 전자기술뿐 아니라 나노공학, 유전공학을 발전시켜 세계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 불치병으로 알려진 암을 완치하는 방법을 발견해 인류 생존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 암세포 완치 기술을 발견한 이세철 박사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32년 의학 분야 노벨상을 수상했다.<br/><br/>한국은 혁신적이고 유능한 기업가들 덕분에 5대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이들 경제인은 정치적인 힘도 막강했다. 그 결과 2032년 한국의 대표적인 에너지기업인 대한그룹 김재수 회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 회장을 지지하는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한국 10대 기업가들의 의견에 따라 한국정부는 각종 정책을 조율한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2034년 3월 설문조사에서 한국 대학생의 87%가 장래의 꿈을 ‘기업가’로 밝히고 있다. <br/><br/>고등학생 시절, 허리케인에 전류를 쏘아 힘을 약화시키고, 초음파로 해일을 잠재우는 최첨단 자연재해방지기술을 개발해 일약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이정한은 막대한 돈을 벌어 미국서 제작한 소형 잠수함 ‘딥 플라이트(Deep Flight)’를 타고 해저를 탐험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꿈꾸고 있다. 제2의, 제3의 이정한이 나오는 것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br/><br/>2. 2035년 한국, 노랑 : 느림의 나라<br/><br/>이 세계의 붕괴를 예측한 많은 예언자들은 모두 틀렸다. 붕괴의 시작점은 천재지변도, 전쟁도,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도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의 ‘한가로움’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다. 경제성장주의자들은 이런 욕망을 일종의 정신병으로 진단했는데,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욕망이 시대적으로 적절했음을 깨달았다. 어느날 갑자기 사람들은 생산을 멈추고, 쓰던 “사물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기 시작”했고 사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br/><br/>소비를 통해 성장을 추구한 대한민국 경제가 이 때문에 붕괴됐다는 것이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느림의 나라, 한가로움의 사회, 머뭇거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대로 받아들였다. 그 시대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자 노동의 사회는 스러졌다.<br/><br/>2008년 미국 경제위기에 이어 2010년 유럽이 경제위기를 겪더니 2017년 중국에 투자한 외국계 회사들이 대거 자국으로 철수하자 설마 하던 일이 벌어졌다. 세계 경제를 지탱하던 중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던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가 쇠퇴하자 수출기업들이 도산하고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생계형 범죄가 증가했고 사회 불안은 극도에 달했다. 설상가상, 2018년 중동과 이스라엘의 정치적 분쟁으로 석유 값이 폭등하자,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로 치달았다.<br/><br/>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강의 경제군사대국이 된다는 주장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다. 경제강국의 길을 걷던 중국은 과도한 성장주의 정책으로 2000년대 초기부터 대도시 인근의 마을들이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았다. 대표적인 예가 암마을(癌症村, cancer villages)의 급속한 증가였다. 공업 폐수가 마을의 식수를 오염시켜 이 물을 마신 주민들이 대부분 암에 걸린 것이다. 해마다 중국에서는 200만 명이 암에 걸려 사망했다. 무분별한 성장주의가 낳은 폐해였다.<br/><br/>중국과 세계 경제의 쇠퇴, 한국 기업들의 도산, 환경 오염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갔다. 2010년 수천 명에 불과했던 귀농인구는 2017년 세계경제의 위기를 계기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들은 경제활동의 패배자이기도 했지만, 지나친 경쟁 탓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시골 행을 택했다. 어느 시인이 쓴 “<span class='quot0'>바람도 아닌 것에 흔들리고 뒤척이기 싫어 도시를 떠났다</span>”는 표현이 이들의 마음을 적절히 대변했다. <br/><br/>2035년 3월 현재 남한 인구의 33%(1천5백만 명)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미래가 불투명했기에 결혼한 부부들은 출산을 미뤘고, 이에 따라 출산율 저하는 지속됐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자 대도시들은 점점 황폐해졌다. 2018년 정점을 찍은 남한의 인구는 이후 줄곧 감소해 2035년 현재 42000만 명, 이는 1990년 수준과 비슷하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600만 명, 2005년과 비교하면 300% 이상 증가했다.<br/><br/>그러나 이들이 겪은 경제 위기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2021년 경남 산청과 하동, 전북 무주, 대전 대덕, 강원 홍천 등 한국의 여러 공동체가 결성돼 “경제 위기는 곧 공동체의 위기”라며, 자급자족형 마을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지난 날 과도한 노동으로 빼앗겼던 시간을 되찾기 위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만큼만 생산하고 노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식량을 생산해 지역 공동체 주민들과 나눴다. 이처럼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시작되자, 정부는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행복을 중시하는 국민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를 도입해 국정운영의 지표로 삼았다. 예전에 사용했던 국민총생산이나 국내총생산의 경제적 지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br/><br/>이 같은 급속한 변화는 두 가지 특이한 현상을 낳았다. 하나는 기독교인이 줄고 불교인이 증가한 것인데, 그 이유로 어떤 학자는 자본주의의 붕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덜 생산하고 덜 소비하는 사회에서는 불교가 기독교보다 더 적합하다는 것이 이유라고 했다. 사람들의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사색하는데 할애하고, 시(詩)를 쓰거나 대화하면서 정신적 성장을 추구한다. 한가로운 시간을 많이 확보한 사람일수록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인정받는다. <br/><br/>또 다른 현상은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되고, 지방정부의 힘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을 책임질 뿐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한다. 지역 공동체가 발달하면서 시민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했고, 정책 결정도 스스로 했다. 모든 정책은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지역을 대표했던 국회의원 제도는 사라졌다. 그러나 지역의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 이슈를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며 투표의 전 과정을 조직하는 데 관여하는 지역 대표들은 존재한다. 지역 대표는 지역 주민들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지역 대표를 맡았다고 돈이 생기지는 않지만 명예로운 일로 여기고 기꺼이 그 책임을 지고 있다. <br/><br/>세계는 비록 예전처럼 분주하거나 긴밀히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느긋했으며 한가롭다.<br/><br/>3. 2035년 한국, 파랑 : 한반도 쇄신 프로젝트<br/><br/>“<span class='quot1'>현재 인류 문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한센이 주장하는 350ppm에 맞추기 위해 경제활동 구조를 변화하려는 정부는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다.</span>”<br/><br/>2009년 인류의 생태계를 걱정한 학자들은 이렇게 비통한 심정을 토해냈다. 한센은 미국의 저명한 기후학자이자 나사(NASA) 고다드 우주연구소 소장. 그는 당시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회의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을 350ppm으로 낮추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인류 문명은 완전한 종말을 맞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러나 어느 정부도 기후변화에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대로 오롯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담으로 남아있다.<br/><br/>21세기 초반, 전 세계는 석유 에너지 고갈, 극심한 기후변화, 환경오염, 식량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으려고 이동하는 이주민들로 심각한 몸살을 앓았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 경고는 많았으나, 어찌된 일인지 무시됐다. 2000년대 중반, 석유 수출국인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유엔(UN) 연설에서 세계가 석유 사용량을 줄이지 않으면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다고 경고했으나 그의 발언은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됐다. 미국과 대립하던 차베스의 치기어린 발언쯤으로 간주됐다.<br/><br/>더 많은 석유의 사용으로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됐고, 지구의 기온을 충격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오늘” 자신이 소비할 수 있는 자유를 중시한 나머지, “내일” 우리의 후손이 누려야하는 자유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렸다.<br/><br/>각국의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했음에도 전면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 정부 스스로에게 있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유권자에게 그 책임이 있었다. 1980년대 서구 선진국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내건 신자유주의 때문에 세금을 더 적게 걷고 각종 규제를 푸는 정책을 쏟아냈다. 게다가 중국과 인도 등 신흥공업국이 앞다퉈 경제 개발에 나서자 인구가 증가해 에너지 사용이 폭증했고 이 때문에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그럼에도 선진국들과 신흥공업국가들은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각국의 정부 역할은 점점 축소됐다. 반면 민간 기업의 자유는 대폭 확장됐다. 기업의 자유는 현재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될 뿐 미래의 책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 때문에 화석연료 고갈에 대처할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개발은 지지부진했다. 환경오염에 대처할 재원도 부족했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주체도 없었다. <br/><br/>극심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유럽과 중국의 주요도시들이 홍수로 물에 잠겼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미국 하와이의 대표적인 휴양지 와이키키 해변이 사라졌는가 하면, 히말라야 빙설이 녹아내리면서 네팔의 많은 지역이 물에 휩쓸렸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2027년 한국국토의 2.6%가 바닷물에 잠겼다.<br/><br/>전 지구적인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자 2027년 한국을 포함한 세계 15개국 과학기술 강대국 모임 ‘G-15’이 조직됐다. 이들은 우선 요동치는 국제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각 나라별 석유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에너지 위기에 대처했다. 세계의 각 기업들은 물건을 생산하면서 대기를 오염시킨 만큼을 빚으로 처리하는 새 재무제표 지침을 따라야 했다. <br/><br/>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변화는 남한과 북한이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29년 남한은 북한과 손잡고 한반도를 ‘소비사회’에서 ‘보존사회’로 탈바꿈시키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보존사회란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자원을 아껴 쓰면서도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사회다. 북한은 과거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 행군의 사회’를 보여주었기에 보존사회를 실현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식량 배급제라든가 생산과 소비가 공존하는 도시 건설, 쓰레기 없는 쓰레기통의 개발 등이 효과적이었다. 남한과 북한은 보존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낭비 없는 성장,’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회’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br/><br/>소비사회에서 보존사회로 전환되면서 한국의 정치판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보존사회를 제창한 남한의 쇄신당은 2028년 권력을 잡으면서 북한 정부에 남북한 공동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했고, 북한이 이에 호응했다. 공동정부에서 추구하는 모든 정책은 에너지와 식량 안보에 초점을 맞췄다. 공동정부는 미래세대부라는 새로운 부처를 설립하고, 앞으로 모든 정책은 현재 세대의 이익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이익과 안정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고, 그들도 그들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 정부는 전례 없이 시민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르고 있다. 그만큼 시민들의 정부 신뢰도는 높다.<br/><br/>쇄신당은 보존사회의 비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G-15에 속해있는 세계 유명대학들과 손잡고 석유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 위해 서울에 ‘세계 녹색 대학’을 설립하고, 에너지와 식량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해 명실상부 통일한국의 가장 수준 높은 대학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구행성 쇄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으므로…….<br/><br/>4. 2035년 한국, 녹색 : 미래에서 온 소녀<br/><br/>어쩌면 우리 인류가 과거의 어느 지점에 아주 작은 씨앗을 몇 개 심었고, 그걸 잊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씨앗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매년 한 뼘씩 자랐고, 어느 순간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인류는 이제 커다란 나무가 된 그 씨앗을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세상은 불쑥 튀어나온 세상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꿈이었고 비전이었다. 지금은 지구상 모든 존재의 세상이 되었지만….<br/><br/>인간과 로봇이 결합한 포스트 휴먼(post-human)의 등장. 21세기 초반 인류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꽤나 당혹해하고 놀랐으리라. 기독교 신자들은 인류가 신(神)이 되려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난했고, 과학자들조차 공상과학영화에나 등장할법한 스토리라며 무시했으니 말이다. 지금 생각해도 30년 전 미국의 공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2040년이 되면 인간과 로봇의 경계를 허무는 존재가 등장할 것이란 주장은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2034년 현재, 변형 인간이나 사이보그, 로봇, 아바타 등 포스트 휴먼의 존재는 그리 낯설지 않다. <br/><br/>포스트 휴먼의 탄생은 로봇공학, 유전공학, 나노공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킨 결과였다. 인간은 이들 공학의 발전으로 육체의 한계를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 2020년 인공보족을 달고 올림픽 육상경기에 참가해 금메달을 딴 자스민 샤오캉 등장 이후, 장애인과 일반인의 경계는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오히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기술의 변화를 받아들여 시대를 앞장서 변화시키고 있다. 뇌에 칩을 심어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것이나, 신체의 일부분을 기계로 대체해 슈퍼맨 버금가는 파워를 발휘한 것도 모두 장애인들이었다. <br/><br/>시간과 경험의 한계도 극복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은 포스트 휴먼 시대에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저항감이 적었을 뿐 아니라 창조의 능력도 뛰어났다. 어른들의 전유물이었던 경험은 더 이상 시간에 종속되지 않았다. 그런 경험은 컴퓨터를 통해 뇌로 이식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언어 역사 수학 지리 등은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는 답을 찾는 능력보다 질문을 찾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 답이 없는 질문을 생각해내는 것이 최고의 지능으로 대접받는다. 2035년 학교에 없는 것은 교실, 선생과 학생, 교과서, 참고서다. 반면 있는 것은 배움자, 인공지능 게임, 심리반응적 물질로 구성된 초공간 건물 등이다. 초공간 건물은 나노공학의 발달로 포스트휴먼의 생각대로 반응하고 변형된다. 이 시대 가장 인기 있는 학교는 <마즈-K>로 화성에서 생존하며 우주를 탐구하고, 다양한 지구의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개발하는 곳이다. 이곳에선 생체전기를 이용해 무리-마음(hive-mind)을 사용하도록 수련하는데, 나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연결해 집단지성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를 유지하는 각종 정책을 평가하고 결정한다. <br/><br/>포스트 휴먼들은 진화된 능력으로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날아갔고, 화성에서 외계 생물체가 발견되자 미국은 2031년 화성에 최초의 지구인을 위한 기지를 세웠다. 화성에서 발견한 우주 생명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생명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구 환경의 관점에서 하나의 돌이었고, 먼지였고, 구름이었다. 화성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존재들이 사실은 우주 생명체였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인류에게 우주는 배울 것이 풍부한 공간으로 재인식되었고, 지구인이란 한계를 넘어 우주인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은 2034년 역사상 처음으로 화성에 한국인을 보내는 데 성공했다. <br/><br/>한편, 홀로그램으로 불렸던 3차원 영상기술 덕분에 사이버 세계는 이제 지구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남한과 북한의 청년들은 다양하게 창조된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 사랑하며 삶을 즐기고 있다. 한반도가 아직 분단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현실은 의미 없는 공간이 됐다. 가상현실 공간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고 확산시킨 최고려씨는 2032년 남북한 시민들이 모여있는 가상공간의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최고려씨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새로운 기술의 진보를 몸으로 직접 적용해 나이가 멈춘 포스트 휴먼이 되었다. <br/><br/>2035년 한국은 7명의 위원들이 모여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구조를 발전시켰다. 7인의 위원 중 두 명은 안드로이드(스스로 진화하는 로봇)들이며, 한 명은 우주대학에서 양자전송공학을 가르치는 아홉 살 난 소녀 마스터 L이다. 마스터 L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심미안을 가졌다. 또 로봇에겐 선한 마음을 불어넣어 이들이 사람들과 갈등 없이 일하고 놀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는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어 일명 “미래에서 온 소녀”로 불리고 있다.<br/><br/><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64.txt

제목: "김한길은 중정 조력자”…종편서 허위발언 옛 정보기관 직원 사법처리  
날짜: 20151231  
기자: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31145544735  
본문: 종합편성채널 시사토크쇼에 출연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62)에 대해 “<span class='quot0'>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를 도왔던 사람</span>”이라고 발언한 전직 정보기관 직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3월 TV조선 <황금펀치>에 출연해 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송모씨(72)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송씨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로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br/><br/>■발언 엿새만에 자필 사과문<br/><br/>송씨는 2014년 3월12일 <황금펀치>에 출연해 진행자가 “<span class='quot1'>김한길 대표가 ‘국정원은 나라의 암 덩어리이고 쳐부숴야 할 구악’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span>”고 묻자 1970년대 김 전 대표와 겪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마치 사실인양 후일담을 털어놨다.<br/><br/>“김한길 대표님, 이거 지금 보고 계십니까? (중략) 제가 70년대 중반 김한길 대표님 모교인 건국대학교에 그 지역을 내가, 담당하던 정보관 할 때 아 저~ 거 김한길 대표님, 우리 집 와서 식사도 하고 같이 뭐 저 용돈도 쓰고 그랬던 거 생각나죠? 아 그때 중앙정보부가 그렇게 싫었으면 그 당시에 왜 그랬습니까? 형님, 형님 하면서. (중략) 어떻게 중앙정보부를 도왔던 사람이 이제 조금 출세 좀 하셨다고 해서 그런 소리 막한다면, 그건 저 죄받습니다.”<br/><br/>김 전 대표가 방송 직후 강력히 항의하자 송씨는 같은해 3월18일 ‘김한길 대표님에 드리는 사과문’을 자필로 써서 제출했다. 송씨는 사과문에서 “<span class='quot1'>본인이 생방송 중 ‘국정원은 암 덩어리, 해체되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하셨다는 김 대표님의 발언을 듣고, 30여년을 몸 담았던 본인으로서는 지나친 감정이 복받쳐 순간적으로 40여년 전의 잘못된 기억의 순간적인 적절치 못한 잘못된 발언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거듭 사과드립니다</span>”라고 밝혔다.<br/><br/>■검찰, 약식기소 처분…피고인 정식 재판 청구<br/><br/>송씨의 발언을 여과없이 내보낸 TV조선은 “<span class='quot2'>발언에 신빙성이 없고 명예훼손 소지가 크다</span>”고 판단해 <황금펀치>의 해당 회차(21회) 다시보기를 자진 삭제했다. 이어 송씨에게 출연정지 조치도 내렸다. 그러나 송씨의 발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용글과 영상물 형태로 계속 인터넷상에 올라왔다. 특히 ‘국정원 용돈 받아 쳐먹은 김한길’ ‘김한길, 과거에 안기부 용돈 받아썼어?’ 등의 비방글이 지속적으로 유포됐다.<br/><br/>김 전 대표는 개인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번번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했다. 피해가 커지자 김 전 대표는 지난 6월 송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김 전 대표는 고소장에서 “<span class='quot3'>송씨의 발언은 일체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3'>그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평판을 들은 적이 한번도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3'>명예훼손 침해의 정도가 상당하다</span>”고 밝혔다.<br/><br/>지난 7월 서울광진경찰서는 송씨의 명예훼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서울동부지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려 벌금 300만원에 송씨를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송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동부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서 “한차례 재판이 열렸는데 김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3월에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br/><br/><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65.txt

제목: 연명치료 중단하는 '웰다잉법', 결국 국회에서 발목  
날짜: 20151230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30112003050  
본문: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웰다잉(well-dying)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총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br/><br/>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오후 회의가 파행되면서 연명의료법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br/><br/>연명의료법은 상임위를 무난하게 통과했기 때문에 이날 법사위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되면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지 18년 만이다. 그러나 법사위 파행으로 법률안 처리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br/><br/>연명의료법 제정안은 ‘연명의료’를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정의했다.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의미한다<br/><br/>환자는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1명과 논의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되면 환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진통제나 영양분·물·산소는 계속 공급해야 한다.<br/><br/>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 2명 이상(가족이 1명일 때는 1명)이 ‘연명의료 중단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말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 가족’은 배우자와 부모, 만 17세 이상 자녀가 우선이고 이들이 없을 때는 형제자매의 의사를 묻게 된다.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한다’고 주장해도 이와 배치되는 다른 가족의 진술이 있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다.<br/><br/>임종과정의 환자가 아니더라도 만 19세 이상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장차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소신을 미리 문서로 만들어놓는 것이다. 법률안은 보건복지부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했다.<br/><br/>법률안은 현재 암 환자에게 국한돼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후천성면역결핍증과 만성 폐쇄성폐질환, 만성 간경화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는 1년에 약 7만6000명, 나머지 3개 질환 사망자는 연간 7400여명이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66.txt

제목: 4대강 수역에서 국제 기준치 수백배 독성물질 확인  
날짜: 20151228  
기자: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28134933275  
본문: 4대강사업 대상이었던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에서 국제 기준치의 수백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확인됐다. 4대강 수역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br/>흐르는강을위한의원모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2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4대강 녹조 한일 공동조사 결과와 4대강사업 이후 피해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일 양국의 전문가들이 발표한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에서 확인된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는 기존에 국내외에서 확인된 농도의 10배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질환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다.<br/><br/>일본 국립신슈대학교 물질순환학과 박호동 교수가 이끈 연구진은 이날 낙동강의 경우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20~400ppb(오염물질 농도 단위로 10억분의 1을 나타냄), 영산강은 200ppb, 금강 300ppb, 한강 50~400ppb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 사이 이들 강의 녹조가 발생한 수역에서 채취한 하천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 1ppb의 수십~수백배에 달하는 농도이다.<br/><br/>연구진은 식수의 경우 정수설비를 통해 99% 이상의 마이크로시스틴이 제거되고 해도 1%만 누출된다고 해도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연구진은 또 정수처리를 하지 않는 농업용수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농도의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작물에 들어갈 경우 미량이지만 식물 조직에 축적된다는 사례가 나타난 바 있기 때문이다.<br/><br/>뉴질랜드에서 2008년 발표된 논문(‘마이크로시스틴이 포함된 물을 농업에 이용할 경우 독보리, 토끼풀, 유채, 양상추의 마이크로시스틴 함량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는 이 물질의 위험성이 잘 드러나 있다. 논문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한 물을 농업에 이용할 때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마이크로시스틴이 가축과 인간의 먹이사슬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다. 논문은 “마이크로시스틴이 함유된 식물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라질에서는 이 물질이 포함된 물을 혈액 투석에 사용해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br/><br/>일본에서도 생물 농축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구마모토 보건과학대학 다카하시 도오루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지난해 펴낸 ‘이사하야만 조정지에서 유독 조류의 발생에 관한 환경요인 및 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의 환경동태’ 논문에는 저서생물과 굴 등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br/><br/><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67.txt

제목: [2016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저 시급 6030원…암 등 4대 중증질환 초음파도 건보 혜택  
날짜: 20151227  
기자: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27223301635  
본문: ㆍ‘아빠의 달’ 휴직 급여 3개월로 늘려…병사 월급 15% 인상, 입·퇴소 중 사고도 보상 <br/>ㆍ노인돌봄서비스 지원·노인 일자리 대상 확대…지붕 위에 쌓인 눈 안 치우면 처벌<br/><br/>새해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올해(5580원) 대비 8.1% 오르고 군 병사 월급은 15%가 인상돼 상병은 월 17만8000원을 받는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검사와 수면내시경 검사비용도 건강보험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년도 정책 변화를 담은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br/><br/>■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도입<br/><br/>새해부터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검사, 수면내시경 검사가 건강보험에 포함된다. 간암 검진주기는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은 기존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도 확대해 앞으론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br/><br/>고령자 지원과 관련해 2015년 3만명에게 지원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내년 3만8000명까지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33만7000명에서 38만7000명 규모까지 늘어난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도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만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60%(265만원) 이하로 범위가 확대된다.<br/><br/><br/><br/>고용·노동 부문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장년의 고용안정, 청년채용 확대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설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32시간으로 단축할 때 감액임금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해야 가입할 수 있었던 국민연금도 내년부터 2곳 이상의 사업장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투잡족’의 국민연금 가입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br/><br/>일·가정 양립을 위해 현행 230개가 운영 중인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내년엔 380개로 대폭 확대된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기간 급여지급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온라인 취업지원상담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경력단절여성 인턴십도 5480개에서 5680개로 200개 늘어난다.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일급(8시간)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는 126만270원이 된다.<br/><br/>■저소득층 통신요금 면제 확대 <br/><br/>농어촌 지원 부문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이 현행 90%에서 95% 수준으로 오른다. 각 도에서 우수 청년 농업인력 300명을 선발, 2년간 8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농산업창업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태풍·적조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은 내년부터 최대 2000만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br/><br/>통신요금을 감면받는 저소득층의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엔 기초생활수급자만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받았지만 앞으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50% 이하)도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br/><br/>병사 월급은 15%(상병 기준 월 17만8000원) 오르고 특수근무수당 등 군인수당도 지급액이 상향된다. 예비군 부상·사망 사고는 그간 임무수행·훈련 중에만 국가보상을 해왔지만 앞으론 입·퇴소 등 의무이행을 위한 이동 중에도 보상하도록 했다. 해군·공군·해병대를 선발할 때 반영했던 수능·내신 성적은 앞으로 선발과정에서 반영되지 않는다. 예비군 동원·훈련에 학습권 보장 규정이 신설돼 예비군 훈련 때문에 결석 처리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한다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br/><br/>■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환경오염 관리도 강화<br/><br/>국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들이 도입·시행된다.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의 원인이 됐던 건축물 지붕 적설도 앞으론 반드시 치워야 한다. 115개 시·군·구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됐던 교통·재난·치안 생활안전지도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고 지자체별로 교통사고·화재·자살·감염병 사망자 수도 집계·관리하기로 했다. <br/><br/>범죄 피해자의 신체·심리 안정을 위한 긴급보호 예산도 2억4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늘어났다.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엔 폐쇄회로(CC)TV 등 영상보안시스템이 설치되고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가 제공된다.<br/><br/>국토·해양 부문에서는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6개 업종에 국한됐던 대기 유해물질 배출 관리 대상도 20개로 늘어나 내달 1일부턴 고무제품·플라스틱·축전지 제조업 등 20개 업종도 대기오염물질 비산 배출 시설을 신고해야 한다. 또 도로에서 타이어·노면 마찰로 발생하는 먼지를 절감하기 위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측정하는 차량이 도입·운영된다. 도로 재비산먼지를 측정해 미세먼지농도가 1㎍/㎥를 넘으면 해당 지자체는 도로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br/><br/><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68.txt

제목: 실손 등 각종 보험료 줄줄이 인상…차 보험 보상한도는 1.5배 확대  
날짜: 20151227  
기자: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27212232590  
본문: ㆍ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br/><br/>내년에는 금융당국이 보험가격 규제를 대폭 풀면서 보험료 인상 러시가 기다리고 있다. <br/><br/>가입자가 3400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된다. 종신·CI보험, 암·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인상도 예고돼 있다. 수입차의 비싼 수리비와 렌트비가 국산차 운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4월부터 시행된다.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나 입원보장기간도 달라진다.<br/><br/>■보험료 인상, 얼마나 어떻게<br/><br/>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의료 실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20% 넘게 오를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14%, 동부화재는 25%, 현대해상은 20%대, KB손보는 21% 인상한다. 보험사들이 높아진 손해율을 보험료 인상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인상폭은 특약을 뺀 단독실손보험료에 적용된다. 실손보험 주가입연령인 40대 여성(자기부담은 20%, 전담보가입 시)을 예로 들면 연간 내야 할 보험료가 대략 3만~4만원 정도 늘게 된다.<br/><br/>자동차보험료는 이미 중소형사들을 중심으로 인상이 시작됐다. 더케이손보가 이날부터 평균 3.9% 인상한다. 지난 7월 악사다이렉트의 5.4% 인상을 시작으로 최근 흥국화재(5.9%), 롯데손보(5.2%), 한화손보(4.8%), 메리츠화재(2.9%)가 보험료를 올렸다.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대형 손보사는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분위기다.<br/><br/><br/><br/>장기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도 올라간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예정이율(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얻을 예상수익률)로 결정하는데 사실상 이 예정이율을 구속하던 금융당국의 표준이율이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보험사들이 저금리를 반영해 예정이율을 내리면 보험금을 운용해 얻을 수익이 적어진다는 뜻이어서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받아야 한다.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떨어지면 보험료는 평균 7~10% 정도 오른다.<br/><br/>손보사들은 내년 1월부터 예정이율을 0.25~0.5%포인트 내리기로 해 손보사가 많이 취급하는 암·어린이보험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상된 보험료는 1월1일 이후 신규가입자만 적용되고 기존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br/><br/>종신·CI보험을 파는 생보사들은 삼성·한화·교보 등 대형 생보사를 중심으로 이미 지난 9~10월 예정이율을 0.25~0.5%포인트씩 낮췄다. <br/><br/>생보업계에서는 내년 4월쯤 추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br/><br/>■자동차 보험, 실손보험 달라지는 것들<br/><br/>2004년 이후 그대로였던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내년 4월1일 이후 1.5배 정도 확대된다. 대인배상의 사망·후유장애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대물배상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br/><br/>4월 이후에는 ‘경미사고 수리기준’이 보험약관에 반영돼 살짝 긁히기만 해도 범퍼를 바꾸는 일은 어려워진다. 수리비가 평균보다 높은 고가차량 보험료에 할증이 붙으면서 BMW·벤츠·체어맨 등 수입차 38종 및 국산차 8종의 자기차량손해 보험료가 10만~12만원 정도 오른다. 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렌트비는 동종 차량이 아닌 동급 차량의 최저요금으로 지급된다. 단독·일방과실로 자기차량만 망가진 사고에 대해서는 예상수리비를 미리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 수리비’를 받을 수 없다.<br/><br/>내년 1월1일 이후 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입원비를 보장받게 된다.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해 입원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90일 동안 보장해주지 않던 것을 없앴다. 들어간 치료비만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의 성격상 장기입원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루당 정액으로 입원치료비를 주는 보장성보험의 보장제외기간은 그대로다.<br/><br/>통원치료비인지 입원비인지 모호했던 퇴원 시 약제비는 입원비로 명확히 분류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게 된다. 퇴원 약제비 보장은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 응급하지 않은 환자가 43개 대형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으면 실손보험에서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 진료비 청구내역에 비응급환자에게 청구된 응급의료관리료(6만원)가 찍혔다면 비응급환자로 분류된 것이다.<br/><br/>증상이 명확해 치료목적이 확인되는 정신질환도 실손보험으로 보장된다. 뇌손상, 뇌기능 장애에 의한 인격·행동장애, 정신분열병, 망상장애, 소아·청소년의 행동·정서장애 등이다. 눈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칼을 대 수술한 경우뿐 아니라 보편화된 레이저 수술도 보장하도록 약관이 바뀐다.<br/><br/>내년 4월 이후에는 보험료가 밀려 실효된 보험을 살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3년 안에 해지환급금을 받았다면 계약을 되살릴 수 없다.<br/><br/><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69.txt

제목: 엉뚱한 사람의 조직검사 통해 30대 여성의 유방 절제  
날짜: 20151227  
기자: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27100034204  
본문: 일본의 한 의료기관이 다른 사람의 조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이 필요없는 30대 여성의 유방을 절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br/><br/>2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지바(千葉)현 암센터가 수술이 필요없는 30대 초기 유방암 환자의 오른쪽 유방을 완전히 절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진행성 유방암을 앓고 있는 50대 여성에 대한 세포 검사 결과를 이 여성의 검사결과로 잘못 판단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br/><br/>사고는 지난 10월 중순에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이 센터에서 유방암이 의심되는 조직을 채취,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이 여성은 경과를 관찰하는 정도면 되는 초기 암이었다. <br/><br/>그러나 이 센터는 같은 날 검사한 50대 여성의 조직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br/><br/>이번 일은 유방암 판단을 위한 조직 검사의 검체가 바뀌면서 발생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경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br/><br/>이 센터는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필요없는 수술을 한 유방을 완전히 적출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적출한 부분은)돌아오지 않는다. 무척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br/><br/><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70.txt

제목: “서로 다른 것들이 내는 화음, 그게 민주주의”  
날짜: 20151224  
기자: 김희연 기자 egghe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24215711514  
본문: ㆍ16년 몸담았던 경동교회 떠나는 박종화 목사<br/><br/>“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신 날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작은 이가 되신 거죠. 예수가 가신 곳에 우리도 함께 가야 하는데 요즘은 저희들만 있는 ‘끼리끼리마스’, 나만 좋은 ‘아이마스’예요. 본질을 잃고 주변만 요란한 것이죠. 예수가 오시면 어디로 임하실까 다시 묻고 답할 때입니다.”<br/><br/>서울 중구 장충단로 경동교회의 박종화 담임목사(70)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특별하다.<br/><br/><br/>담임목사로서 마지막 성탄절 예배이다. 오는 27일 주일 예배를 끝으로 16년간 몸담아온 경동교회를 떠나기 때문이다. 박 목사와 경동교회는 1945년생 해방둥이로 나이가 같다. 경동교회는 김재준, 강원룡 목사 등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진보 성향 목사들이 사목한 곳으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해온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박종화 목사는 주로 대북 지원과 남북 화해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br/><br/>평생을 지내온 교회에서 떠나는 칠순의 목사가 터득한 신앙과 삶의 진리는 무엇일까.<br/><br/>그것은 뜻밖에도 경동교회 벽면의 파이프오르간이 일러준 ‘화음, 화합’이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참 멋있습니다. 이 공간에 사람이 있고 음악이 흘러요. 창으로는 빛이 들어오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설교를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박 목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교회는 심포니 공동체입니다. 악보를 같이 쓰고, 성경말씀을 같이 새기고, 각자의 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사회, 인간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서로 다른 것들이 화음을 내는 것이 아름답고 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br/><br/><br/>좌우가 나쁜 것이 아니라 화음을 내는 게 중요하다. 또 구별은 좋지만 차별은 화음을 망친다. 여기에 정치 지도자와 사회 리더는 지휘자나 심포니 굿닥터인 셈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 특히 정계에는 ‘솔리스트’가 많아 문제다. 박 목사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다원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와 획일성이 강조된 리더십만 보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물론 비정부기구(NGO)에도 이런 리더십이 만연해 있다.<br/><br/>“1976년부터 1981년까지 독일에서 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350개 교회를 순회하며 설교를 하고, 대학을 다니기도 했죠. 그곳에서 배운 것이 타협의 정신입니다. 토론하고 때론 격하게 싸우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요. 그렇기에 승자독식이 없습니다. 타협하다보면 질적으로 우수한 것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마련된 정책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br/><br/>박 목사는 특히 통일정책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관계에서도 ‘우리의 이익은 남한의 이익이 아니라 남북의 이익’으로 넓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크리스마스에 함께해야 할 이들로 북녘 동포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br/><br/>“경제시대에 북한은 약자입니다. 약자는 서러움이 있어요. 목소리가 크고 과격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남한식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에게 왜 전쟁의 사고방식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워지면 ‘가시’가 없어집니다. 통일은 복합사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테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하모니예요.”<br/><br/>박 목사는 거침없는 정치 비판과 주장으로 유신정권 당시엔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1985년 독일에서 돌아와 한신대에서 교수생활을 한 그는 문동환 목사, 이해찬 국회의원 등과 함께 1994년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아·태재단)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계 진출의 요구도 많았지만 ‘평생 목사’를 고집했다. 종교는 진보·보수를 넘나들 수 있고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아 몸이 가볍다.<br/><br/>은퇴 후에는 통일정책 관련 연구소를 만들어 통일정책 구상과 비평, 여론형성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현재도 통일을 주제로 정토회 법륜 스님, 천도교 박남수 교령 등과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br/><br/>신앙의 버팀목으로 그의 삶은 평안하기만 했을까. 박 목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2010년 편도암 3~4기를 선고받았을 때 그는 “내 마음에 난리가 났었다”고 했다. 2003년 송암교회 목사였던 동생이 전립선암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기에 충격이 더욱 컸다. 16시간의 수술과 30차례의 방사선 치료를 겪으면서 오만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br/><br/>“설교할 때는 믿음을 갖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서도 막상 나한테 불행이 닥치니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더군요.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은 반성 안 하고, 목사가 특권도 아닌데 왜 목사아들만 데려가려 하시냐며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어요. 내 몸을 사랑하라는 뜻도 처음으로 깨달은 것 같아요. 암을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면 병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만, 원수를 이기는 사랑을 갖고 있으면 벗어날 수 있어요.”<br/><br/>27일 박 목사의 마지막 설교 주제는 ‘생명의 길’(요한1서 1장)이다. 사람이나 사회나 진실의 길을 가야 한다. 가는 길이 좀 거칠고 험하더라도 진실만 있다면 괜찮지 않나. 좀 더디고 시끄러워도 함께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사람의 길, 희망이 있는 길일 테니.<br/><br/><김희연 기자 egghe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71.txt

제목: 기와 역사를 한눈에···부산박물관 연구총서 발간  
날짜: 20151224  
기자: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24111112654  
본문: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부산지역에서 출토된 기와 자료를 집대성한 연구서가 발간됐다.<br/><br/>부산시립박물관은 부산지역 기와 역사와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기와, 지붕에 기품을 더하다>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br/><br/>부산지역에서 출토된 기와는 옛 도읍지인 경주나 개성의 기와만큼 다양하지는 않지만, 지역적 특색과 시대상을 담고 있다.<br/><br/><br/><br/>‘1장. 기와를 얹다’에서는 기와의 명칭과 종류, 제작방법 등을 소개했다. 2∼4장은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기와 자료를 분석했다. 부산지역 유적에서 출토된 암·수키와를 비롯해 화려한 문양의 암·수막새, 만덕사지에서 출토된 치미, 잡상 등의 마루장식 기와 등을 소개했다. ‘西面東萊郡’(서면동래군)’·‘辛未五月(신미오월)’(고종 8년, 1871년) 등 다양한 명문이 새겨진 기와 등도 수록했다.<br/><br/> 또 일제강점기에 급속하게 유입된 일본식 기와와 전통 기와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등 기와 자료를 집대성했다.<br/><br/>부록으로 기와 가마의 변천과 유통에 대해 정리한 논고를 실어 학술적 의미를 더했다.<br/><br/>부산박물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학술총서는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기와를 통해 부산의 역사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pan>”고 말했다.<br/><br/><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72.txt

제목: ‘풍파에 깎인 추억’을 건지다  
날짜: 20151223  
기자: 제주 |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20103804192  
본문: ㆍ다시 찾은 ‘제주 여행 1번지’ 용두암<br/><br/>푸른 바다와 구멍이 숭숭 난 검은 현무암이 절묘한 대비를 이루는 곳. 제주시 용담동 해안에 오뚝한 ‘용두암(龍頭巖)’은 제주를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르던 곳이다. 서귀포에 중문단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관광명소 1위였다. 하늘로 올라갈 듯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바위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라야 ‘확실한’ 인증샷이었다. 공항에서 3.6㎞, 차로 8분 거리에 있어 비행기를 놓칠 걱정도 없었다. 한때 성산 일출봉보다 더 유명했던 관광명소, 용두암으로 시간여행을 떠났다.<br/><br/> 제주 관광객이라면 한번쯤 들렀던 ‘인증샷 1번지’ 용두암. 파도와 바람에 쓸리고 깎여서 그 형체를 잃어가고 있다. <br/>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br/>■ 제주 여행 1번지 용두암<br/><br/>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안내소에 들렀다. 다행히 용두암은 관광명소로 대접받고 있었다. 성산포, 천지연, 정방폭포, 한림공원, 여미지식물원도 끼지 못한 ‘제주 황금버스 시티투어’ 노선에 떡하니 이름을 올려놓고 있었다. 반가웠다. <br/><br/>용두암은 해안에 솟은 10m 높이의 기암이다. 이무기가 어둠의 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 초록 비늘과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하늘로 오르던 날 한라산의 신이 쏜 화살에 맞아 바다로 떨어져 용두암이 됐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제주도 관광 안내 책자에는 200만년 전 화산이 바다에서 분출하면서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생긴 바위라고 적혀 있다. <br/><br/><br/>제주는 대한민국 대표 신혼여행지였다. 1970~80년대 비행기를 타는 것만으로도 설레었다. 제주공항의 야자수는 이국적인 풍경을 한껏 뽐내며 신혼부부들을 반겼다. 개인택시들이 줄지어 서서 대절할 손님을 기다렸다. 똑같은 커플티를 입은 신혼부부들은 운전기사가 내리라면 내리고 타라면 탔다. 사진을 찍으라면 찍었고 ‘뽀뽀’를 하라면 수줍게 입을 맞췄다. 양복과 한복을 번갈아 입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었다. 용두암은 제일 먼저 찾는 명소 중 하나였다.<br/><br/>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어 용두암을 찾았다. 입구에서 한참을 헤맸다. 한적한 해안가를 따라 가다 보면 떡 하니 서 있던 용두암이 보이질 않았다. 중국인들이 관광버스에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의 뒤를 졸졸 따라가니 용두암이 나타났다. <br/><br/><br/>10여년 만에 만난 용두암은 작아져 있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던 용의 머리는 파도와 바람에 마모돼 형체가 어렴풋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배경으로 용두암에 직접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누구나 한 장쯤 갖고 있을 제주의 추억이 그렇게 닳고 있었다. 지구 온난화도 한 원인이라고 했다. 20~30년 후에는 더욱 초라해질 것 같아 안타까웠다. <br/><br/>용두암을 둘러보는 동안 한국인 관광객은 거의 만나지 못했다. 중국인 관광객들만 넘쳐났다. 용머리 바위 근처에서 해녀들이 낙지와 성게를 팔고 있는 풍경은 변하지 않았다. 해 질 무렵 용두암에 가면 침식하는 추억 한 줌 건져 올릴 수 있을지 모른다. <br/><br/>■ 제주 시외버스의 기억<br/><br/>기억 속의 제주바다를 꺼내볼 요량으로 버스를 타기로 했다. 공항에서 100번을 타고 시외버스터미널까지 10분 정도 가서 701번으로 갈아타야 서귀포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들어서자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과 ‘가난한’ 대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서귀포까지 89.8㎞. 요금은 3300원이고 20분마다 출발한다. <br/><br/>“어디 감수광?”<br/><br/>701번 버스기사는 “서귀포를 가려면 다른 버스를 타라”고 권했다. 노선을 잘못 알았나 하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701번은 3시간 정도 걸리지만 직행버스를 타면 훨씬 빠르다는 것이었다. 서귀포에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라 기억 속의 바다에 천천히 닿는 게 목적이므로, 기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시외버스 맨 앞자리에 앉았다.<br/><br/><br/>제주에서 버스를 타면 왕복 2차선 바닷가를 달리며 시골 풍경에 푹 빠져들었다. 길게 늘어선 검정 돌담들은 도로의 경계선이었다. 바람도 참 많이 불었다. 나지막한 집들은 바람에 길을 내주기 위해 대문 대신 정낭을 달았고, 골목길은 곡선형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4차선, 8차선까지 넓어졌다. 검은 돌담을 시멘트벽이 채웠다. 호텔과 아파트가 들어섰고 펜션 간판이 구름을 가렸다. 바다를 보고 싶었는데 내내 아스팔트 길만 달렸다. “<span class='quot0'>내릴 때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다시 찍으라</span>”는 안내방송이 계속 반복됐다. 요금을 현금으로만 내던 시절이 아득했다. <br/><br/>제주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은 현지인 아니면 외국인이었다. 간혹 청년들도 보였다. 승객들은 김녕굴과 만장굴, 민속박물관, 표선 등 관광지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소가 어딘지 대부분 영어로 물었다. 운전기사는 열 손가락으로 요금을 알려주고 “저기요!”라며 ‘수화’로 내릴 곳을 알려주었다. 다방과 제과점, 이용원이라고 쓰여진 옛날 간판들이 가끔씩 눈에 들어왔다.<br/><br/><br/>뒷자리 할머니들의 이야기 소리가 정겨웠다. 70~80살은 돼 보이는 할머니들이 1시간이 넘도록 쉼 없이 대화를 나눴다. 숱한 문장 중에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딱 4개였다. “<span class='quot0'>다마내기, 며느리, 미깡, 400만원.</span>” <br/><br/>제주도를 ‘삼다도’라 부르는 건 돌·바람·여자가 많기 때문이다. 요즘은 ‘신삼다도’라 할 만하다. 가는 곳마다 자동차와 중국인, 호텔이 많아서다. 제주도 말과 영어와 중국어가 뒤섞인 701번 버스는 함덕 서우봉해변에 손님 한 명을 내려놓고는 또 흔들거리며 제 갈 길을 갔다.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푸른 바다가 눈과 귀를 가득 채웠다.<br/><br/><제주 |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73.txt

제목: 만14세 딸이 있다면 이번 겨울방학에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맞추세요  
날짜: 20151223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23172452562  
본문: 중학생 딸을 둔 정 모씨는 이번 겨울방학에 중학생 딸 아이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맞춰주기로 했다. 내년 2월이면 만 15세가 되는 딸에게는 2회 접종만으로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br/><br/>자궁경부암은 만 9~14세까지는 백신 2회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그 이후 연령(15세 이상)부터는 3회 접종으로 접종 차수가 늘어난다.<br/><br/>최근 젊은 층 자궁경부암 환자 수가 증가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자궁경부암으로 진단 및 보험급여를 받은 20~39세 젊은 환자의 등록 건수는 2010년 3340건에서 2014년 4172건으로 늘어났다. 자궁경부암은 일찍 결혼했거나 성생활을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세 이하에서 성생활을 시작한 경우, 20세 이후에 성생활을 시작한 경우보다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보고도 있다.<br/><br/>자궁경부암은 성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며, 약 150여 가지의 HPV 종류 중 16과 18형이 자궁경부암 발생의 70%를 차지한다. 자궁경부암은 원인이 분명한 암으로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 경험 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br/><br/>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현주 교수는 “<span class='quot0'>9~14세 여아의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시 형성된 항체역가는 5년 동안 장기간 지속되고, 최소 24년에서 평생동안 자연감염시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세계보건기구(WHO)는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만 14세 이하 여아에게 6개월 단위의 2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별도의 HPV 감염에 대한 검진 없이 가능하다.<br/><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만 14세 여아의 경우 2회 접종만으로 비용대비 효율적으로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만큼 올해를 넘기지 말고, 늦어도 이번 겨울방학 중에 접종할 것</span>”을 권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74.txt

제목: 암 환자 10명 중 7명 ‘5년 이상 생존’  
날짜: 20151222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23090754158  
본문: ㆍ생존율 갈수록 높아져 <br/>ㆍ암 발생률 2년째 감소<br/><br/>암 환자 생존율이 점차 높아져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br/><br/>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013년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분석한 결과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가 전년보다 873명 감소한 22만5343명이라고 22일 밝혔다. 남녀를 통틀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샘암(4만2541명)이고, 이어 위암·대장암·폐암·유방암 등 순이었다.<br/><br/><br/>10만명당 암 발생률은 2011년 324.2명에서 2012년 322.3명, 2013년 311.6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000년 이후 환자가 급증한 갑상샘암 발생률도 2012년 10만명당 142.9명에서 2013년 134.9명으로 줄었다.<br/><br/>생존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09~2013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69.4%로,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추정됐다. 1993~1995년의 생존율(41.2%)보다 28.2%포인트 향상된 수치다. 10년 생존율도 지속적으로 개선돼 2004~2008년 모든 암의 10년 생존율은 56.9%, 갑상샘암을 제외할 경우엔 51.1%로 조사됐다. 암 환자 2명 중 1명은 완치된다는 뜻이다. 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은 “<span class='quot0'>전이가 된 환자도 적절한 면역치료나 표적치료, 화학요법, 호르몬치료 등을 통해 5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1999년 이후에 발생한 암 환자 중 2014년 1월1일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약 140만명이었다. 국민 37명 중 1명 이상이 암에서 완치됐거나 현재 치료 중이라는 뜻이다. 복지부는 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1년인 간암 검진주기를 내년부터 6개월로 단축하고,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75.txt

제목: 갑상선암 남성 환자수 2배 이상 증가, 조직검사 및 치료법은?  
날짜: 20151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22102812488  
본문: 갑상선암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인구 10만명 당 7.2명에 불과하던 갑상선암 발병률은 2011년에 이르러 10만명 당 68.7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잘 걸리는 암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최근 남성 환자 수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0년 24,918명에 불과하던 갑상선암 남성 환자 수는 2014년에 50,51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br/><br/>갑상선병원 은평연세병원 대표원장이자 내분비외과 전문의인 서진학 원장은 22일 “<span class='quot0'>갑상선암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에게는 흔한 질환이 아니지만, 남성 갑상선암 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남성의 경우 갑상선에 대한 정기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 발견되는 케이스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span>”고 전했다. <br/><br/>육안으로도 목 주변이 눈에 띄게 부었거나 뭔가 만져지고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갑상선의 일부가 비정상적인으로 커지는 질환인 갑상선 결절은 갑상선암, 양성종양, 만성 갑상선염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br/>일단 결절이 발견되면 검사를 통해 암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갑상선 초음파를 이용한 미세침흡인세포 검사를 이용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갑상선 결정의 갑상선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세침흡인세포 검사는 안전하고 단순한 검사로, 갑상선암의 진단적 특이도가 높아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br/><br/>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고주파 열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갑상선 고주파 용해술은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주파를 이용해 갑상선 종양을 용해시켜 치료하는 방법이다. 부분 마취로 외래진료를 통해 시술이 가능하며, 시술 시간도 30분 정도로 짧다. 종양의 크기가 큰 경우에도 시술이 가능하며, 주사바늘을 이용해 흉터가 적고 합병증 우려 역시 낮아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다.<br/><br/>종양이 악성 암일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 최근에는 최소침습수술법의 도입으로 흉터 없이 깔끔하게 제거가 가능하다. 갑상선암 명의로 알려진 서진학 원장이 진료하는 은평연세병원은 진단부터 수술까지 갑상선암 원스톱 진료시스템을 갖춘 병원으로, 은평구를 대표하는 갑상선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r/><br/>서 원장은 “갑상선암은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아 착한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식도나 기도 부근 갑상선에 암이 생겼거나 미분화암이라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때문에 정기검진을 통해 꾸준히 변화 여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령이나 종양의 크기와 상관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남성 환자의 경우 조기발견을 위해 평소 목 주변을 살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30대 이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갑상선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br/><br/>한편 은평연세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국가 건강검진 지정병원으로 건강검진 수검률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 4월 확장 이전을 마치고 대학병원급 장비를 완비한 것은 물론, 응급의료센터(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76.txt

제목: 하루 77명이 위암 신규환자로 등록… 정기적인 위내시경검사 필수  
날짜: 20151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21103958498  
본문: 해마다 3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새로운 위암 환자로 등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1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신규 위암 등록환자는 28,2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77.5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신규로 등록한 셈이다.<br/><br/>일반적으로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신선한 식재료를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위암 전문의들은 생활습관의 개선만큼 중요한 것이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라고 입을 모은다. 아무리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한다고 해도 각종 생활습관이나 스트레스 등 외부요소에 의해 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위 자체는 굉장히 유연한 장기이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병의 진행 단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위암을 가려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내시경 검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br/><br/>은평 위내시경검사 병원인 은평연세병원 측은 21일 "40세 이상 성인의 경우 반드시 2년에 1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특히 평소 만성위염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40세 이하라도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위염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의의 권고에 따라 검사주기를 1년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br/><br/>최근에는 수면, 무통 내시경이 일반화되면서 일반 내시경 검사 등에 비해 통증을 거의 느낄 수 없어 검사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줄어 들었다. 수면마취 후 전문의에 의한 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검사 당일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해 누구나 간단하게 검진을 받아볼 수 있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제공하는 위내시경 검사를 이용하면 비용적인 부담도 덜 수 있다. 만4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국가건강검진 지정병원에서 전액 무료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정기적인 검진 차원이 아니라 평소 속쓰림 등 위염 증세가 있는 경우라면 국가건강검진 주기와 상관없이 즉시 위내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br/><br/>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암을 예방하고 위암 조기발견을 통해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사결과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첨단 장비를 갖춘 위내시경 검사 잘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평 위내시경검사 병원으로 잘 알려진 은평연세병원은 최신 위내시경 검사 장비 도입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비롯해 위암 진단, 수술까지 원스톱 진료를 받아볼 수 있다.<br/><br/>은평연세병원 측은 “위암도 다름 암들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할수록 완치율과 생존율 모두를 높일 수 있다. 때문에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비용과 시간 문제로 검사를 미루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괜찮겠지 하며 지나친 한 번의 위내시경 검사를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위내시경 검진 주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77.txt

제목: [정동칼럼] 의사가 본 안철수의 선택  
날짜: 20151220  
기자: 이진석 | 서울대 의대 교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20211752678  
본문: 의사는 똑똑하다. 워낙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의사가 되어서이기도 하지만, 의학이라는 학문의 속성 때문이기도 하다. 현대의학은 해체와 분석의 학문이다.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심장, 콩팥 등 신체 장기부터 세포와 분자, 그리고 유전자 수준까지 샅샅이 파헤친다. 대체로 의사는 어떤 문제를 파헤치는 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발휘하곤 한다. <br/><br/>그리고 현대의학은 시스템적 사고를 기본 방법론으로 삼고 있는 학문이다. 이런 특성은 의학교육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의사를 길러내는 전통적인 의학교육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의 정상 구조를 배운다. 해부학과 조직학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은 생리학과 생화학 등을 통해 신체 장기와 세포 수준의 정상 기능과 상호 간의 관계를 배운다. 그 다음은 신체 구조와 기능의 병적 상태와 원인을 다루는 병리학, 미생물학, 면역학, 기생충학 등을 배운다. 이렇게 기초의학 공부를 마치면, 진료과목별 임상의학을 공부한다.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진료과목마다 무수히 많은 질병을 다루지만, 공부의 순서는 한결같다. 해당 장기의 애초 정상 구조와 기능은 무엇인가? 이것에 어떤 문제(질병의 원인)가 발생했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파악(진단)할 것인가? 파악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치료)할 것인가? 예상되는 대처의 결과(치료 예후)는 무엇인가? 이런 과정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의사는 고도로 체계화된 사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능력을 잘 활용하고, 진료 이외의 문제로 관심을 확장한다면, 의사는 어떤 분야에서건 톡톡히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적지 않은 의사는 ‘내가 바빠서 그렇지, 시간을 내어서 공부만 하면 어떤 일이든 못할 것이 없다’는 특유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런 자신감이 도를 넘으면, 헛똑똑이 신세가 될 수도 있다. <br/><br/>의사는 이분법적 성향이 강하다. 현대의학은 정상(건강)과 비정상(질병)을 구분하는 데서 비롯된다. 원래 건강과 질병은 단절된 단계가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의 일부이다. 그런데 건강과 질병을 연속적인 과정으로 두루뭉술하게 해석해서는 현대의학의 역할이 없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건강’으로, 그 이후에는 ‘질병’으로 단절시켜야 의학적 개입이 가능해진다. 올해 암으로 진단받았더라도 그 환자는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암세포를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었다. 단지 현대의학의 기술로 측정 불가능한 크기였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건강한 사람으로 구분되었던 것이다. 통상 암세포 수가 10억개, 암 덩어리의 크기가 1㎝는 되어야 방사선 검사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 현대의학의 기술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면 암 진단 시기를 앞당길 수는 있겠지만, 특정 시점 기준의 건강과 질병 구분은 여전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의학은 양자택일의 학문이다. 의사는 매번 치료를 할지 말지, 수술을 할지 말지, 약물치료를 할지 말지를 놓고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보의 불완전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타협하면, 환자에게 더 큰 위험이 초래된다. 칼로 자르듯 이분법적으로 가부를 가리는 것은 의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이것 때문에 자칫하면 독단과 독선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br/><br/>장황하게 의사의 속성을 늘어놓은 이유는 얼마 전에 야당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 때문이다.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서생이 정치판의 속 깊은 뜻과 사정을 알 도리는 없다. 그러나 “안철수는 왜?”라는 궁금증이 지난 한 주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호적인 관찰자 입장에서 보기에도, 혁신 전대는 탈당과 맞바꿀 만큼 절체절명의 명분이 아니었다. <br/><br/>의사 출신의 유력 정치인에게 거는 기대가 남달랐기에 그의 선택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그는 문제를 파헤치는 데는 의사답게 발군의 능력을 발휘했다. 더 큰 혁신 주장도 그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공 신화의 자신감이 너무 컸던 탓일까? 그의 선택은 시스템적 사고의 궤적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오히려 시스템을 초월한 메시아의 선언만이 횡행한다. <br/><br/>의학에서 이분법적 사고는 불가피하지만, 정치나 사회 문제를 대하는 방식으로는 금기와도 같다. 정치나 사회 문제에서는 전적으로 옳은 것도, 전적으로 그른 것도 없다. 타협과 절충이 필연적이다.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닌데도 마치 진실과 거짓의 대결처럼 다걸기를 하고, 종국에는 리셋 버튼을 눌러 상황을 초기화하는 것은 독단과 독선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 혁신 전대와 탈당이라는 안철수의 선택은 이와 다른 것일까?<br/><br/><이진석 | 서울대 의대 교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78.txt

제목: 경희의료원 "인간다움과 정밀의학 구현하는 후마니타스 암병원 건립"  
날짜: 20151220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20180322473  
본문: 경희의료원이 ‘후마니타스 암병원’을 건립한다. 내년 5월에 착공, 빠르면 2017년 문을 열 예정이다. 최상의 암진료를 통해 개인의 인간다움(humanitas)을 구현한 암 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다.<br/><br/>경희의료원은 18~19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후마나타스 국제 암심포지엄’에서 세계 최초의 암병원으로 알려진 영국 로얄마스덴 병원의 ‘위장관 암영상 연구 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br/><br/>현재 대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을 기준으로 발전해 온 ‘평균의학’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차이를 분석해 그에 따라 암을 치료하는 ‘정밀의학’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br/><br/>경희의료원 암센터 김시영 소장은 “<span class='quot0'>후마니타스 암병원은 동선제로의 신환센터, 모든 암환자 방문당일 진료 및 검사시행 원칙, 다학제팀 중심의 개인 조건별 최단진료 및 검사체계, 환자경험 가치중심의 공간 및 서비스디자인, 진료와 치유의 결합모델인 치유프로그램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br/><br/>임영진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1'>후마니타스 암병원은 ‘암을 넘어선 삶’, 즉 사람 그 자체를 가치의 중심에 두는 인간적 의학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정밀의학을 핵심진료 모델로 하는 동시에 암환자 치료 후 치유까지 생각하는 치유프로그램으로 암환자의 치료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br/>이번 심포지엄은 ‘직장암에 대한 정밀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진행됐다. 직장암 MRI분야 권위자인 브라운 교수와 하버드대 부속병원 릴리아나 보데아누 교수, 동경대학교병원 도시아키 와타나베 교수, 웨일즈병원 홍콩 프린스의 사이먼 시우 만 교수 등 해외 연자들과 경희대병원 김시영 암센터 소장, 경희의료원 외과 이길연 교수 등이 주요 연자로 참가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79.txt

제목: [새 책] 암 정복의 희망봉 우뚝 <암을 잡는 10대 명의-킬암보고서> 나왔다  
날짜: 20151218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18172449197  
본문: “<span class='quot0'>암의 3분의 1은 금연이나 예방접종 등을 통해 막을 수 있고, 또 3분의 1은 암 조기검진을 통해 완치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도 수술·항암제·방사선 등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span>”<br/><br/>국내 암 수술의 명의(名醫), 항암치료 및 예방의학 권위자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암 치료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 <암 잡는 10대 명의-킬암보고서>(i경향북스)가 전자책으로 발간됐다.<br/><br/>이 책은 위암, 뇌종양, 폐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담낭·담도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등 주요 암종의 최신 수술법과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에 대한 주요 정보를 담고 있다. 의료의 최일선에서 이뤄지고 있는 치료법을 소개하면서 환자들과 가족들이 암 치료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br/><br/>서울대 의대 유근영, 연세암병원 노성훈, 서울대병원 김동규, 국립암센터 이진수, 서울아산병원 안세현, 삼성서울병원 김병기, 강북삼성병원 전호경,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유영경, 분당서울대병원 한호성, 강동경희대병원 이형래, 이대목동병원 이동현 교수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의학자들이 대거 등장한다.<br/><br/>이 책은 또한 암 예방의 날, 100가지 암 정보, 항암 약물치료,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방사선치료법, 국가암통계 요약 및 해설, 암 환자 권고 수칙, 암검진 정보 등 암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br/><br/>전문가들에 따르면 암 치료의 첫 번째는 수술이며 완벽한 수술이 이뤄지느냐 여부가 암 치료 성적을 크게 좌우한다. 이번 ‘킬암보고서’는 암의 조기진단 및 예방, 수술의 선택과 더불어 항암약물요법이나 방사선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안내서이다.<br/><br/>■제1부-암 명의(名醫)들에게 묻다<br/><br/>\* 총론 : 서울대 예방의학 유근영 교수(전 국립암센터 원장)<br/><br/>\* 위암 : 연세암병원 노성훈 교수(연세암병원장)<br/><br/>\* 뇌종양 : 서울대병원 김동규 교수(감마나이프센터장)<br/><br/>\* 폐암 : 국립암센터 이진수 폐암센터 책임연구원(전 국립암센터 원장)<br/><br/>\* 유방암 : 서울아산병원 안세현 교수(유방암센터장)<br/><br/>\* 자궁암&난소암(부인암) : 삼성서울병원 김병기 교수(부인암센터장)<br/><br/>\* 대장암 : 강북삼성병원 전호경 교수(진료부원장)<br/><br/>\* 간암 :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유영경 교수(간담췌외과분과장)<br/><br/>\* 췌장암&담낭·담도암 : 분당서울대병원 한호성 교수(암센터장)<br/><br/>\* 전립선암 : 강동경희대병원 이형래 교수(경희국제진료소장)<br/><br/>\* 신장암&방광암 : 이대목동병원 이동현 교수(비뇨기과 과장)<br/><br/>■제2부-암 정복의 희망봉을 돌다<br/><br/>\* ‘암 예방의 날’을 아시나요<br/><br/>\* 100가지 암정보 여기 모였다<br/><br/>\* 항암 약물치료, 어디까지 왔나<br/><br/>\* 항암제의 종결자 : 면역항암제<br/><br/>\* 암 정복의 신무기, 방사선의 칼<br/><br/>\* 최신 국가암통계 요약 및 해설<br/><br/>\* 부록1- 암 환자 및 보호자 권고 수칙<br/><br/>\* 부록2- ‘생존의 안전벨트’ 암검진의 모든 것<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80.txt

제목: [오늘은 이런 경향]12월 18일 두산인프라코어, 정규직 자르고 사내하청 앉혀  
날짜: 20151218  
기자: 손봉석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18081747866  
본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br/>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월일입니다.<br/><br/><br/><br/>“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주인공인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를 비롯한 수많은 반올림 식구는 또 해를 넘겨 거리에서 싸우게 되었다. 공장에서 몸 바쳐 일한 노동자가 없었다면 삼성은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되기 어려웠다. 이 엄연한 사실을 끝내 외면하면서 내일도 최고의 기업으로 번영할 수 있을까?”(김명환/서울대 영문학과 교수)<br/> ▶ [정동칼럼] 삼성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br/><br/><br/><br/><br/><br/>신입사원 희망퇴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에 불법파견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희망퇴직으로 내보낸 정규직의 빈자리에 사실상의 ‘용역직원’을 투입한 겁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br/> ▶ [단독] 두산인프라코어, 정규직 자르고 사내하청 앉혀…엔진 공정 외주화<br/><br/><br/><br/><br/>한·미 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주한미군이 지난 4월 사균화된 탄저균 표본(샘플)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페스트균 검사용 표본도 함께 반입했습니다. <br/> ▶ 주한미군 ‘페스트균’도 반입…‘탄저균’은 15차례 더 있었다<br/><br/><br/><br/><br/>미국이 2008년 12월16일부터 유지해 온 제로금리 시대에 종언을 고했습니다. 세계경제,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br/> ▶ 미국경제의 “자신감”…한국경제는 ‘불안감’<br/> ▶ [미 금리 인상 - 세계경제 영향] 미 연준 “<span class='quot0'>실업률·물가상승률 등 경제 회복 이만큼 왔다</span>”<br/> ▶ [미 금리 인상 - 한국경제 영향] 금리 오르고 집값 떨어지면…1200조 가계빚 ‘충격파’<br/> ▶ [미 금리 인상 - 한국경제 영향] 한은 총재 “<span class='quot1'>곧바로 우리 금리와는 연결 안돼</span>” 내년 하반기 인상 예상…시장금리, 이미 상승<br/><br/><br/><br/><br/>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직무유기”라며 노동 5법,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연일 압박하고, 청와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법안의 변칙적 직권상정을 요청했죠. 박 대통령의 ‘윽박 정치’가 역풍을 맞았다는 평이 나옵니다. ‘원칙과 신뢰’를 내세우는 박 대통령은 이번에 자기 모순에도 빠졌죠. <br/> ▶ 안에서도 역풍 맞는 대통령의 ‘윽박 정치’<br/> ▶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박 대통령의 모순…선진화법 찬성해놓고 직권상정 압박, 국가 경제위기라면서 경제내각 교체<br/> ▶ [사설] 박 대통령, 국회의장 압박 말고 야당과 대화하라<br/><br/><br/><br/><br/>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날 움직임은 선도탈당, 잔류, 불출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탈당 후 처음으로 호남에 갔습니다. <br/> ▶ 새 정치 위해 “나간다”…새정치 위해 “안 나간다”<br/><br/><br/><br/><br/>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시중에 나돈다며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죠. 서울중앙지법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span class='quot2'>해당 글이 명백히 허위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박 대통령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span>”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br/> ▶ 산케이 전 지국장 ‘대통령 행적 의혹’ 무죄<br/> ▶ [가토 전 지국장 무죄] 법원 “허위사실로 박 대통령 명예훼손…비방 목적은 없어”<br/> ▶ [사설] 가토 전 지국장 무죄 판결, 박 대통령 언론통제 반성하는가<br/><br/><br/><br/><br/>최근 원전 주변 거주 주민들에게서 갑상샘암 발생 비율이 높았다는 보도가 나왔죠. 서울대 보건대학원팀 연구인데, 이 연구는 서울대 의대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에서 2011년 이미 발표한 자료를 재분석해 발표한 겁니다. 그때는 갑상샘암이 방사능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했죠. 서홍관 국립암센터 교수가 이 문제를 두고 칼럼을 썼습니다. <br/> ▶ [세상읽기] 원전과 갑상샘암<br/><br/><br/><br/><손봉석 기자 >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81.txt

제목: [세상읽기] 원전과 갑상샘암  
날짜: 20151217  
기자: 서홍관 | 국립암센터 교수·시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17211607557  
본문: 지난달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 갑상샘암 발생 비율이 높았다는 보도가 있어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끌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팀의 연구에 따르면 원전 5㎞ 이내에 거주하는 여성은 갑상샘암 발생이 타지역 주민에 비해 3.1배 높다고 결론지었다. 원전 지역주민들은 암 발생이 높아진다는 것이니 불안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br/><br/>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다. 이 연구는 이미 서울의대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에서 2011년 발표한 자료를 재분석해 발표했는데 결론이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서울의대팀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원전 지역주민 총 1만1367명을 검진하고 2008년까지 암 발생을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원전과 무관한 지역주민에 비해서 다른 암은 차이가 없고 여성에서 갑상샘암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연구팀은 일단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기준치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고, 다른 암에서도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갑상샘암도 방사능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서울대 보건대학원팀은 재분석을 통해 갑상샘암이 의미 있게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같은 자료를 놓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다면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br/><br/>이 문제의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갑상샘암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들이 있다. 첫째, 갑상샘암은 성인들에게 매우 흔하다는 것이다. 핀란드에서는 갑상샘암과 무관하게 사망한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부검한 결과 성인의 35.6%가 갑상샘암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에서도 유사한 연구에서 성인의 28.4%에서 갑상샘암이 발견되었다. 한마디로 갑상샘암은 성인의 3분의 1 정도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진행되지 않는 암이라서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뜻이다. 둘째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30년간 갑상샘암이 약 30배나 증가했는데, 그것은 방사능 노출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갑상샘 초음파 검사가 늘어나면서 숨어 있던 갑상샘암을 찾아낸 결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집단이라도 갑상샘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면 그 집단의 갑상샘암은 늘게 되어 있다.<br/><br/>한국수력원자력(주) 산하 방사선보건원에서는 2004년부터 원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갑상샘초음파를 포함한 무료 검진을 시행했다고 한다. 갑상샘암은 어느 집단이든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 지역주민들의 갑상샘암이 높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주목할 것은 1993~2008년 원전 주변 여성들의 갑상샘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61.4명이었는데, 2011년 국가암등록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102.5명에 비해 현저히 낮다. 서로 비교 시점이 다르지만, 갑상샘암만 놓고 본다면 1993~2008년경 원전 주변보다 2011년 서울이 훨씬 위험한 지역으로 간주돼야 마땅하다. 물론 그럴 리가 없고, 이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서울지역 주민들이 최근 들어 과거의 원전 주변 주민들보다 갑상샘 초음파 검사를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이다. <br/><br/>마지막으로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고리 원전 주변에 살던 박아무개씨가 갑상샘암에 걸린 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는데, 2014년 10월17일 부산지방법원은 방사능의 영향으로 갑상샘암이 발병했다고 인정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내려진 후, 환경단체에서는 원전 지역주민 중 갑상샘암 환자 2450명을 모집해서 공동소송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원전 지역주민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갑상샘 초음파를 더 많이 한다면 주민의 약 3분의 1 정도에서 그냥 놔두어도 대부분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갑상샘암을 �O아낼 것이다. 이들은 보상금이야 받는다손 치더라도, 갑상샘절제술을 받아야 하고 평생동안 갑상샘기능저하증으로 약을 먹으면서 살아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엄청난 보상금을 문다면, 이는 결국 전기세의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갑상샘암이 대한민국에서 왜 늘어나는지 숨겨진 내막까지 알기 어려웠던 한 판사의 판결은 그 여파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br/><br/><서홍관 | 국립암센터 교수·시인>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82.txt

제목: 올 국가검진 기간 1년 연장  
날짜: 20151211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8001300583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해 검진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발생해 건강검진이 연말에 몰리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br/><br/>희망자는 내년 1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공단(1577-1000)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내년 12월31일까지 원하는 때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피부양자의 경우 197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중 홀수연도 출생자,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었던 사무직(격년제 실시)과 비사무직(매년) 근로자 전체다. 지난 10일 기준 올해 검진 대상자 1773만486명 중 707만1307명(40%)이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다. 다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건강보험료 하위 50%)는 해를 넘기면 본인부담금 10%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안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br/>SQ: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83.txt

제목: 단국대병원, 중부권 최초 ‘생체 흡수형 심장스텐트 시술’ 성공  
날짜: 20151211  
기자: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8001217907  
본문: 단국대학교병원이 중부권에서 처음으로 심장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한 후 3년이 지나면 모두 녹아 흡수되는 ‘생체 흡수형 심장스텐트’ 시술을 성공했다.<br/><br/>스텐트는 좁아진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 혈관에 주입하는 장치다.<br/><br/>단국대병원 심장혈관센터는 박병은 교수팀이 흉통을 증상으로 입원한 40대와 70대 협심증 환자에 대해 각각 지난 11월11일과 같은 달 18일에 체내에서 흡수되는 심장 스텐트를 시술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장혈관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현재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다.이 시술은 최근 국내에 도입돼 전국의 대형병원 일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최신 치료법이다.<br/><br/>박병은 교수팀이 사용한 스텐트는 몸에 녹는 봉합사의 재료를 사용해 만든 생체 흡수형 스텐트다. 막히거나 좁아진 심장혈관 부위에 삽입하면 6개월 동안 견고하게 장착돼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이후 서서히 녹기 시작해 3년이 지나면 스텐트가 모두 녹아 자연적으로 몸 속 혈관에 흡수된다. 또 스텐트에서 혈관세포증식 억제약물이 미세하게 흘러나와 시술 후 관상동맥 내 스텐트 주위의 혈관내막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 스텐트 시술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혈관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 혈관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다.<br/><br/>환자는 1년 동안만 혈전용해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약물 복용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든다. 또 스텐트를 넣은 부위에 다시 병변이 재발하게 되면 재시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어려웠던 기존 치료에 비해 향후 치료에서 다양한 시술 방법이나 수술이 가능하다.박병은 심장혈관내과 분과장은 “생체 흡수형 스텐트 치료 후에는 혈관이 원래 상태로 보존돼 향후 치료에서 다양한 시술 방법이나 수술이 가능해지도록 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br/><br/>심장혈관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의 1위에 해당하는 질환이다. 2012년 기준 전체 사망자 수의 약 31%인 1750만여명이 심장혈관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 중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740만명에 달한다. 국내에서 심장질환은 암, 뇌혈관 질환에 이어 환자수가 많다.<br/><br/><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br/>SQ: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84.txt

제목: 연말에 집중되는 건강검진…피하는 방법은?  
날짜: 20151211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8001203377  
본문: 연말이면 해를 넘기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검진기관에 몰리는 탓에 복잡한 공간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유행 당시 건강검진을 미뤘던 사람들이 연말에 검진기관을 방문하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에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해 검진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br/><br/>올해 검진 대상자 중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년 1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하거나 지사를 방문해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검진 시기는 내년 12월31일까지 신청자가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있다. <br/><br/>올해 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피부양자의 경우 197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었던 사무직(격년제 실시)과 비사무직(매년) 근로자 전체다. 이달 10일 기준 올해 검진 대상자 1773만486명 중 707만1307명(40%)이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다.<br/><br/>다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건강보험료 하위 50%)는 해를 넘길 경우 본인부담금 10%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이 없어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올해 안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br/><br/>올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일반검진 대상자 중 만 40세(1975년 출생자)와 만 66세(1949년 출생자)로, 일반검진 검사항목에 간염검사(만 40세)와 골밀도검사(만 66세 여성), 생활습관 및 정신건강검사(우울증)가 추가된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br/>SQ: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85.txt

제목: 올 국가검진 기간 1년 연장  
날짜: 20151211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11231801193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해 검진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발생해 건강검진이 연말에 몰리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br/><br/>희망자는 내년 1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공단(1577-1000)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내년 12월31일까지 원하는 때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피부양자의 경우 197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중 홀수연도 출생자,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었던 사무직(격년제 실시)과 비사무직(매년) 근로자 전체다. 지난 10일 기준 올해 검진 대상자 1773만486명 중 707만1307명(40%)이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다. 다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건강보험료 하위 50%)는 해를 넘기면 본인부담금 10%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안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86.txt

제목: 단국대병원, 중부권 최초 ‘생체 흡수형 심장스텐트 시술’ 성공  
날짜: 20151211  
기자: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11115922255  
본문: 단국대학교병원이 중부권에서 처음으로 심장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한 후 3년이 지나면 모두 녹아 흡수되는 ‘생체 흡수형 심장스텐트’ 시술을 성공했다.<br/><br/>스텐트는 좁아진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 혈관에 주입하는 장치다.<br/><br/>단국대병원 심장혈관센터는 박병은 교수팀이 흉통을 증상으로 입원한 40대와 70대 협심증 환자에 대해 각각 지난 11월11일과 같은 달 18일에 체내에서 흡수되는 심장 스텐트를 시술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장혈관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현재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다.이 시술은 최근 국내에 도입돼 전국의 대형병원 일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최신 치료법이다.<br/><br/>박병은 교수팀이 사용한 스텐트는 몸에 녹는 봉합사의 재료를 사용해 만든 생체 흡수형 스텐트다. 막히거나 좁아진 심장혈관 부위에 삽입하면 6개월 동안 견고하게 장착돼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이후 서서히 녹기 시작해 3년이 지나면 스텐트가 모두 녹아 자연적으로 몸 속 혈관에 흡수된다. 또 스텐트에서 혈관세포증식 억제약물이 미세하게 흘러나와 시술 후 관상동맥 내 스텐트 주위의 혈관내막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 스텐트 시술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혈관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 혈관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다.<br/><br/>환자는 1년 동안만 혈전용해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약물 복용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든다. 또 스텐트를 넣은 부위에 다시 병변이 재발하게 되면 재시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어려웠던 기존 치료에 비해 향후 치료에서 다양한 시술 방법이나 수술이 가능하다.박병은 심장혈관내과 분과장은 “생체 흡수형 스텐트 치료 후에는 혈관이 원래 상태로 보존돼 향후 치료에서 다양한 시술 방법이나 수술이 가능해지도록 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br/><br/>심장혈관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의 1위에 해당하는 질환이다. 2012년 기준 전체 사망자 수의 약 31%인 1750만여명이 심장혈관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 중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740만명에 달한다. 국내에서 심장질환은 암, 뇌혈관 질환에 이어 환자수가 많다.<br/><br/><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87.txt

제목: 연말에 집중되는 건강검진…피하는 방법은?  
날짜: 20151211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11101945516  
본문: 연말이면 해를 넘기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검진기관에 몰리는 탓에 복잡한 공간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유행 당시 건강검진을 미뤘던 사람들이 연말에 검진기관을 방문하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에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해 검진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br/><br/>올해 검진 대상자 중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년 1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하거나 지사를 방문해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검진 시기는 내년 12월31일까지 신청자가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있다. <br/><br/>올해 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피부양자의 경우 197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었던 사무직(격년제 실시)과 비사무직(매년) 근로자 전체다. 이달 10일 기준 올해 검진 대상자 1773만486명 중 707만1307명(40%)이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다.<br/><br/>다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건강보험료 하위 50%)는 해를 넘길 경우 본인부담금 10%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이 없어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올해 안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br/><br/>올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일반검진 대상자 중 만 40세(1975년 출생자)와 만 66세(1949년 출생자)로, 일반검진 검사항목에 간염검사(만 40세)와 골밀도검사(만 66세 여성), 생활습관 및 정신건강검사(우울증)가 추가된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88.txt

제목: ‘나이롱환자’ 나가라! 입원보험금 줄인다  
날짜: 20151210  
기자: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8001135975  
본문: ㆍ금감원, 내년 상반기 중 시행<br/>ㆍ현행보다 한도 5만원 내릴 듯<br/><br/>내년 상반기부터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받는 입원보험금의 하루 한도가 5만~1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전 보험사는 물론 우체국, 공제회 등에 가입한 보험까지 한꺼번에 조회돼 여러 보험사에 입원보험금 한도를 넘어 중복으로 가입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입원보험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입원보험금 한도가 줄게 된다. <br/><br/><br/>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가입 제도를 개선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 이후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br/><br/>감독당국은 ‘나이롱환자’를 양산하는 등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입원보험금 제도를 크게 손보기로 했다. ‘입원일당’이라 불리는 입원보험금은 상해보험, 건강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으로 포함돼 있다. 일반질병은 하루에 5만~15만원 정도, 암·성인병 등 특정질환은 15만~3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br/><br/>금감원이 지난해 적발한 나이롱환자 사례를 보면 일반질병 입원보험금만 하루 6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14개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다. <br/><br/>금감원은 입원보험금 한도를 현행에서 5만원 정도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일반질병의 입원보험금 한도를 5만원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업계의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고혈압·당뇨 같은 성인병과 암·뇌졸중 등 중증질환으로 입원했을 때 나오는 보험금 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반질병 한도와 별도로 책정됐지만 앞으로는 합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반질병 입원보험금 한도가 10만원, 특정질병 입원보험금 한도가 15만원이라고 할 때 기존에는 25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보험사기 가능성이 적고 입원비 부담이 큰 암의 경우 종전대로 별도 가입 한도가 적용된다. <br/><br/>또 실손보험 가입자는 실제 지출한 입원비 대부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다른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때 받게 되는 입원보험금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금감원은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 중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정도는 입원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br/><br/>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안에 전 보험사와 우체국, 신협 등에 가입한 보험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른 보험에 이미 입원보험금 한도만큼 가입돼 있다면 다른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한도를 늘려 가입하고 싶다면 보험사에 자신의 소득을 입증하는 등 특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입원보험금 한도가 줄고 중복가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선의의 가입자 혜택을 줄이고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입원보험금 한도를 5만원 수준으로 한 것은 1인당 평균 입원비용(4만6000원)을 근거로 했고 실손보험 가입이 3100만건을 넘기 때문에 소비자의 보장 요구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span>”고 설명했다.<br/><br/><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br/>SQ: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89.txt

제목: ‘나이롱환자’ 나가라! 입원보험금 줄인다  
날짜: 20151210  
기자: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10215454136  
본문: ㆍ금감원, 내년 상반기 중 시행 <br/>ㆍ현행보다 한도 5만원 내릴 듯<br/><br/>내년 상반기부터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받는 입원보험금의 하루 한도가 5만~1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전 보험사는 물론 우체국, 공제회 등에 가입한 보험까지 한꺼번에 조회돼 여러 보험사에 입원보험금 한도를 넘어 중복으로 가입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입원보험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입원보험금 한도가 줄게 된다. <br/><br/><br/>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가입 제도를 개선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 이후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br/><br/>감독당국은 ‘나이롱환자’를 양산하는 등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입원보험금 제도를 크게 손보기로 했다. ‘입원일당’이라 불리는 입원보험금은 상해보험, 건강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으로 포함돼 있다. 일반질병은 하루에 5만~15만원 정도, 암·성인병 등 특정질환은 15만~3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br/><br/>금감원이 지난해 적발한 나이롱환자 사례를 보면 일반질병 입원보험금만 하루 6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14개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다. <br/><br/>금감원은 입원보험금 한도를 현행에서 5만원 정도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일반질병의 입원보험금 한도를 5만원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업계의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고혈압·당뇨 같은 성인병과 암·뇌졸중 등 중증질환으로 입원했을 때 나오는 보험금 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반질병 한도와 별도로 책정됐지만 앞으로는 합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반질병 입원보험금 한도가 10만원, 특정질병 입원보험금 한도가 15만원이라고 할 때 기존에는 25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보험사기 가능성이 적고 입원비 부담이 큰 암의 경우 종전대로 별도 가입 한도가 적용된다. <br/><br/>또 실손보험 가입자는 실제 지출한 입원비 대부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다른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때 받게 되는 입원보험금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금감원은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 중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정도는 입원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br/><br/>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안에 전 보험사와 우체국, 신협 등에 가입한 보험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른 보험에 이미 입원보험금 한도만큼 가입돼 있다면 다른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한도를 늘려 가입하고 싶다면 보험사에 자신의 소득을 입증하는 등 특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입원보험금 한도가 줄고 중복가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선의의 가입자 혜택을 줄이고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입원보험금 한도를 5만원 수준으로 한 것은 1인당 평균 입원비용(4만6000원)을 근거로 했고 실손보험 가입이 3100만건을 넘기 때문에 소비자의 보장 요구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span>”고 설명했다.<br/><br/><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90.txt

제목: [황현산의 밤이 선생이다]‘어린 왕자’의 번역에 대한 오해  
날짜: 20151209  
기자: 황현산 | 고려대 명예교수·문학평론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1209210007662  
본문: 독자들은 <어린 왕자>가 손 가까이에 있다면, 이 책의 제6장을 열어보시라. 어린 왕자는 슬플 때 해가 저무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걸 유일한 위안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장의 끝 부분에서 어린 왕자가 ‘어느 날은 마흔네 번이나 해넘이를 보았다’고 말하는 내용의 문장을 만날 텐데, 어떤 책에는 ‘마흔네 번’이 아니라 ‘마흔세 번’이라고 적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좀 더 거슬러 와서 제4장을 펼치면, 터키의 어느 천문학자가 어린 왕자의 작은 별을 발견하게 된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 저자는 천문학자들의 관행에 대해 그들이 ‘작은 별을 하나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 주는데, 예를 들어 소행성 325라고 부른다’고 쓴다. 그런데 어떤 책은 ‘소행성 3251’이라고 적고 있을 것이다. <br/><br/>기왕 책을 연 김에 한 대목을 더 찾아보자. 비행사가 어린 왕자를 만나 그의 요청에 따라 양을 그리는 장면이다. 비행사가 두 번째 양을 그렸을 때 어린 왕자는 “아이참… 이게 아니야, 이건 숫양이야, 뿔이 돋고…”라고 말한다. 그런데 어떤 번역본은 ‘숫양’ 대신 ‘염소’라고 옮기고 있다.<br/><br/>간단하게 말한다면, ‘마흔네 번’, ‘소행성 325’, ‘숫양’이 맞고, ‘마흔세 번’, ‘소행성 3251’, ‘염소’는 틀리다. 맞건 틀리건 간에 이 차이가 <어린 왕자>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독자의 기억에 남을 만한 또렷한 인상을 남기는 것도 아니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궁금하다. 어느 언론사는 “유명 출판사들이 출간한 <어린 왕자> 번역본들이 상당수 일본어판을 번역한 중역”이며 “일본어판의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는 한 연구자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 연구자는 특히 ‘염소’와 ‘마흔세 번’이 일본어판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일본어판의 오류가 한국어판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학문적 친일 사대주의”에까지 연결시키려 한다.<br/><br/>나는 이 기사 때문에 지인들로부터 몇 차례 전화를 받았다. 우리의 문제에 일본이 끼어들면 누구나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전화는 대체로 ‘한국의 번역자들이 <어린 왕자>의 번역까지 아직도 일본어판에 의지해야 하느냐’는 한탄에서 시작해서 ‘일본어판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해도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는 단정적 혐의로 끝난다. 그러나 저 연구자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다고 믿기 어렵기에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텍쥐페리가 미국에 잠시 몸 붙이고 있던 1943년에 <어린 왕자>가 뉴욕의 레이날 앤드 히치콕 출판사에서 프랑스어와 영어로 처음 발간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저자가 미국에서 작성한 두 개의 원고가 있다. 하나는 손으로 쓴 원고로 현재 뉴욕의 피어폰트 모건 라이브러리에 간직되어 있다. 또 하나는 타자기로 작성된 원고로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이 타자본 원고는 보존이 완전하고 생텍쥐페리가 직접 수정한 흔적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원고는 저자가 미국 체류 시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 나디아 불랑제르에게 직접 건네준 것이기에 그만큼 성가가 높다.<br/><br/>생텍쥐페리가 북아프리카에서 전사한 후, 1946년 프랑스의 갈리마르 출판사가 프랑스어로 발간된 <어린 왕자>는 타자본 원고를 상당히 신뢰했던 것 같다. ‘마흔세 번’은 갈리마르의 프랑스어판에서 비롯하는데, 이는 예의 타자본을 참조한 것이다. 갈리마르판은 또한 어떤 이유에선지 ‘소행성 325’를 ‘소행성 3251’로 적고 있다. 이 텍스트는 한국에 널리 보급되고 대학에서 교재로 자주 사용되었던 1979년의 ‘폴리오 주니어’ 판에서도 바뀌지 않았으며, 그 후로도 20년 동안 책의 크기나 제본 형식이 다른 여러 판본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br/><br/>갈리마르 출판사가 1999년 플레이아드 총서로 생텍쥐페리 전집을 낼 때, 그 편집자는 <어린 왕자>의 경우 ‘1946년판은 생텍쥐페리가 알지 못하는 판본이지만 1943년 뉴욕판은 그가 직접 참여한 판본’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본 복원’을 꾀하였다. 이 조치가 <어린 왕자>에 대한 갈리마르사의 판권 연장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br/><br/>1960년에 <어린 왕자>를 처음 한국어로 발간한 안응렬 교수나 그 이후의 선구적 번역자들이 ‘소행성 3251’이나 ‘마흔세 번’을 쓰게 된 것은 일본어판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원문에 충실했던 때문이었다. (안응렬 교수는 ‘소혹성’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1960년은 천문학 용어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행성 혹성이 함께 쓰이던 시대였다.) 1999년 이후의 번역자들이 수정된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 오류에 일본어판을 결부시키기는 어렵다. 원문이 수정된 뒤에도, 그 이전에 <어린 왕자>를 만났던 번역자들은 옛날 책을 여전히 서가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br/><br/>그렇더라도 ‘염소’와 ‘숫양’의 문제는 남는다. 거기에는 일본어와 한국어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 목축국가의 말이 아닌 한국어에서는 숫양과 암양을 구별하기 위해 ‘양’에 ‘암’이나 ‘수’를 붙여 쓰지만, 프랑스어에는 양, 암양, 숫양에 해당하는 각기 독립된 단어 mouton, brebis, belier가 있다. 어린 왕자가 비행사에게 ‘양을 한 마리 그려 달라’고 할 때, 그 양은 mouton이지만 그가 퇴짜를 놓은 것은 belier다. 두 낱말이 완전히 다르기에 이 서술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숫양’에는 그 낱말 자체에 ‘양’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양을 그려 달라고 했는데, 숫양을 그려준 것이 왜 잘못인가.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번역자와 마찬가지로 한국 번역자들이 선택한 것이 ‘염소’였다. 한국의 번역자들이 일본의 번역자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같은 언어적 운명 앞에서 같은 선택을 한 것일 뿐이다. 한국어 번역자들이 ‘숫양’으로 감히 번역하기 시작한 것은 서양말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가 더 깊어진 이후의 일이다.<br/><br/>얼마 전에는 ‘우리가 읽은 것은 <이방인>이 아니었다’ 같은 말을 대형서점에 걸어놓고 책을 팔려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문제의 <이방인> 번역자는 그들보다 앞선 시대에 더 힘든 운명에 직면해 더 힘든 선택을 하고 있었다.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전하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저마다 직면했던 운명과 그 선택을 깊은 자리까지 뜯어보아야 한다는 뜻도 된다.<br/><br/><황현산 | 고려대 명예교수·문학평론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91.txt

제목: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다” 지미 카터, 암 완치 선언  
날짜: 20151207  
기자: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8000718263  
본문: 4개월 전 암 투병 사실을 공개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91·사진)이 암이 완치됐다고 선언했다.<br/><br/>카터 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이 사는 조지아주 플레인스의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경교실에서 참석자들에게 “<span class='quot0'>여러분께 전할 복음(good news)이 하나 있다</span>”며 최근 자기공명촬영(MRI) 검사에서 암세포가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br/><br/>그는 “<span class='quot0'>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준 덕분</span>”이라며 고마움을 나타냈다.이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고 참석자들이 NBC 방송 등 미국 언론에 전했다. <br/><br/><br/><br/><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92.txt

제목: 위암 수술비, 59% 줄었다  
날짜: 20151207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8000726853  
본문: ㆍ4대 중증질환 건보 급여 확대 <br/>ㆍ3년간 환자부담 6000억 감소<br/><br/>ㄱ씨(55)는 지난 3월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으나 매달 1000만원씩 내야 하는 항암제(잴코리정) 약값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다 5월 잴코리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값이 월 37만원으로 줄면서 부담을 크게 덜었다. <br/><br/>대장암에 걸려 지난 3월부터 아바스틴 주사제 등 4가지 약제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ㄴ씨(69)도 아바스틴 비용만 매달 131만원이 들었다. <br/><br/>ㄴ씨는 자식에게 부담 주는 게 싫어 치료 중단까지 고려했다. 그러던 중 8월부터 아바스틴 약값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월 10만원으로 줄어 한시름 놓게 됐다.<br/><br/><br/><br/>보건복지부는 2013~2015년 암, 심장·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370개 항목에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환자 부담 진료비가 3년간 6000억원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진단검사와 수술·처치, 약제에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하거나,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br/><br/>2013년 25개, 2014년 100개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됐고 올해는 양성자 치료와 유전자 검사, 폐암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245개 항목의 보장성이 강화됐다. <br/><br/>소아 종양이나 성인 뇌종양 환자가 받는 양성자 치료는 1800만~3100만원이 들었으나 지난 9월부터 100만~150만원으로 줄었다. 유방암 환자가 받는 유방재건술은 비용이 800만~1400만원에 달했지만 지난 4월부터 200만~400만원으로 경감됐다.<br/><br/>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총진료비 중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은 38.2%로, 2014년 상반기(43.4%)보다 12% 감소했다. 보장성 강화 항목이 확대되면서 진료비 부담 완화 수준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br/><br/>서울아산병원에서 위절제술을 받은 위암 환자의 사례를 보면 2014년 6월 수술한 환자는 10일간 입원에 269만원을 지불한 반면 올해 11월 수술한 환자는 절반에 해당하는 109만원을 지불했다. 부담이 59% 감소한 것이다. 대표적인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이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br/><br/>서울아산병원의 총진료비 중 환자가 지불한 선택진료비 비율은 7.7%에서 4.6%로 40% 감소했고, 상급병실료 비율도 6.1%에서 5%로 18% 감소했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93.txt

제목: [헬스 게시판] 평택 굿스파인병원 충남 당진서 의료봉사 外  
날짜: 20151207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8000637421  
본문: ■굿스파인병원-송악로타리클럽 자매결연<br/><br/>경기 평택의 굿스파인병원(병원장 박진규)은 최근 충남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마을회관에서, 국제로타리 3620지구 당진 송악로타리클럽(회장 한재석) 회원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가졌다. 이날 굿스파인병원과 송악로타리클럽이 자매결연을 맺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br/><br/>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진료봉사에는 박진규 병원장을 비롯해 윤일규 원장, 이동중 부원장, 신재식 과장 등 의사를 모함해 20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했다. 건강상담과 혈당 및 협압검사, 척추 및 관절질환 진단, 물리치료 등을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br/><br/>■서울백병원, 8일 항문질환 건강강좌 개최<br/><br/>인제대 서울백병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충무아트홀(중구 신당동) 1층 컨벤션센터에서 ‘항문질환 예방과 치료’를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외과 홍성우 교수가 치질의 종류인 치핵과 치열, 항문주위 농양, 치루, 항문소양증 등 항문질환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강의한다. 강의에 앞서 혈당, 혈압 등 건강상담도 이뤄진다. (02)2270-0534<br/><br/>■건국대병원, 11일 대장암 건강강좌 개최<br/><br/>건국대병원(병원장 한설희)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원내 대강당(지하 3층)에서 대장암을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황대용 대장암센터장의 ‘대장암 재발과 전이’ 강의에 이어 유정아 영양팀장의 ‘겨울철 암환자의 건강한 밥상’에 대한 경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웃음치료 교육과 대장암센터 의료진과의 질의 응답시간도 마련됐다. (02)2030-7222<br/><br/>■강북삼성병원, 15일 건강한 대화법 건강강좌<br/><br/>성균관대 의대 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호철)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신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우리 가족 건강한 대화법’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오강섭 교수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이 서로의 가장 좋은 정신치료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부부, 유·아동 자녀, 청소년 자녀, 노년 부모의 정신건강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02)2001-2784<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94.txt

제목: “암세포 ‘킬러 약물’ 찾았다”…포스텍 임현석 교수연구팀  
날짜: 20151207  
기자: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8000633352  
본문: 포스텍 임현석 교수연구팀(첨단재료과학부 화학과)은 7일 암유발 단백질인 ‘Skp2’의 상호작용을 방해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사멸시키는 표적 항암제 후보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팀의 연구성과는 화학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안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최근호에 게재됐다.<br/><br/>암은 몸 속 단백질 사이의 비정상적인 상호작용이 원인이 돼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 교수팀은 이들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직접 조절함으로써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킬러 약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br/><br/>임 교수팀은 단백질 상호작용에 효과적인 ‘거대고리(Macrocyclic·12개 이상의 원자로 이뤄진 원형의 구조)’ 골격을 갖는 물질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16만개의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 이어 이 화합물들을 대상으로 초고속 검색을 해 암을 유발하는 ‘Skp2’와 ‘p300’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물질을 찾아냈다.임 교수팀은 이 물질은 암세포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만 정상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로 ‘Skp2’와 ‘p300’ 단백질 상호작용의 조절이 항암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새로운 개념의 ‘표적 항암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br/>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이뤄졌다.<br/><br/><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95.txt

제목: [기타뉴스]구타 당한 할리우드 ‘여자’스타?  
날짜: 20151205  
기자: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8000416150  
본문: “<span class='quot0'>당신이 침묵을 깬다면, 인생은 동화가 될 수 있다</span>”<br/>　<br/>심하게 구타 당한 안젤리나 졸리, 마돈나, 엠마 왓슨…? 물론 실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명하고 힘있는 여성도 당할 수 있는 일이다. <br/>　<br/>이탈리아 예술가 알렉산드로 팔롬보는 ‘여성폭력’ 위험성을 경고하는 캠페인 #StopViolenceAgainstWomen의 일환으로 유명인사들의 사진을 가공한 이미지를 지난달 24일 공개했다.(▶ALEXANDRO PALOMBO 페이스북 바로가기)<br/>　<br/>이번 캠페인은 11월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11월25일부터 12월10일까지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정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세 자매가 1961년 독재에 항거하다 살해당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됐다.<br/>　<br/>팔롬보는 “폭력의 가장 큰 공범은 침묵”이라면서 “침묵은 해마다 질병이나 사고보다 더 많은 영구적 장애나 죽음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했다. 또 “가정 폭력은 특정 경계와 사회적 지위를 가리지 않는 사회적 암이며,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든 유명인이든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도 했다. 그는 “여성폭력을 물리치기 위해선 문화라는 해독제로 평등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경각심을 키우고, 교육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　<br/>유엔여성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3분의 1이 육체적·성적 폭력을 겪었으며, 대부분은 친밀한 파트너에게 당했다. 2012년에는 살해된 여성 2명 중 1명은 배우자나 가족에 의해 숨졌다. 반면 남성은 이와 같은 경우가 2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가정폭력 희생자의 85%는 여성으로 알려져있다. <br/>　<br/>팔롬보는 이전에도 디즈니 캐릭터를 가지고 여성폭력 위험성을 경고하는 작업을 벌였다. 한국에서도 당당한 ‘커리어우먼’으로 활동하던 여성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던진 일이 있다. 팔롬보의 작업은 ‘동화같은 삶’의 주인공이라도, ‘여성’이라면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br/>　<br/> <br/> 　 <br/>■가정폭력에 면역된 여성은 없다 <br/><br/><br/>　<br/>■“동화같은 삶?” <br/><br/><br/><br/>▶관련기사 [페미니즘이 뭐길래]3회 데이트 성/폭력,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br/><br/>　<br/><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96.txt

제목: 작년에 태어난 여자아이 100명 중 5명은 ‘100세’까지 산다  
날짜: 20151204  
기자: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8000303627  
본문: ㆍ통계청 ‘2014년 생명표’ 발표 <br/>ㆍ추후 사망 원인은 ‘암’이 최고<br/><br/>지난해 태어난 여자아이 100명 중 5명은 100세까지 살 것으로 추정됐다. 10년 전보다 4명이 늘어났다. 남자아이는 100명 중 1명이 100세까지 장수할 것으로 예측됐다.<br/><br/>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4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출생한 아이의 기대수명(태어났을 당시 기준으로 몇 살까지 살 것인가 기대되는 나이)은 82.4년으로 1년 전보다 0.5년 늘어났다. 10년 전인 2004년 당시의 출생아 기대수명(78.0세)과 비교해보면 4.4세가 늘어났다. 여자의 기대수명은 85.5년으로 남자(79.0년)보다 6.5년을 더 살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83.6년)과 경기(82.9년)가 기대수명이 가장 높았고 울산(81.3년)과 강원(81.4년)은 낮았다.<br/><br/><br/>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추후 사망할 원인으로는 암이 가장 높았다. 암에 걸려 죽을 확률은 남자는 28.4%, 여자는 16.9%로 지난해(남자 27.9%, 여자 15.4%)보다 소폭 높아졌다. 만약 암이 사라진다면 남자는 4.8년, 여자는 2.8년 더 살 것으로 추정됐다.<br/><br/>지난해 10세 어린이는 72.7년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세는 62.8년을 더 살 것으로 전망됐다. 30세는 53.1년, 40세도 43.4년을 더 살 것으로 추정됐다. 50세는 34.1년을, 60세는 25.1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됐다. 70세도 16.7년, 80세도 9.7년을 더 살 것으로 추정된다.<br/><br/>오래 살면서 건강한 것도 특징이다. 40세의 경우 43.4년 중 29.8년은 건강하게 살 것으로 기대됐다. 50세도 남은 34.1년 중 21.1년은 병치레 없이 건강한 상태일 것으로 기대됐다. 60세도 앞으로 13.9년은 건강할 것으로 분석됐다. 오래 살면서 건강한 만큼 고령자 일자리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이에 대한 맞춤식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br/><br/><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97.txt

제목: [경남도]창원경상대병원 이달말 개원…암·심뇌혈관질환 중점 진료  
날짜: 20151203  
기자: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8000207143  
본문: 창원경상대학교병원(정기현 병원장)은 이달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 일원에 701병상을 갖춘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을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br/><br/>병원은 전체면적 10만9593㎡ 규모에 지하 3층~지상 13층, 701병상의 의료동과 8분향실의 장례식장을 갖추고 있다.<br/><br/>병원은 심뇌혈관질환, 암, 외상, 중증질환 등 질환별 전문진료를 맡게 된다.병원은 창원국가산업단지에 권역 내 사업장과 연계해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 응급질환도 치료한다.<br/><br/>병원은 특히 814억원을 투입해 로봇수술기, 3D영상유도방사선치료기 등 첨단장비와 640멀티슬라이스CT, MRI 등 최신장비 1162점을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br/><br/>병원은 의료장비 시험 운영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할 계획이다.<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98.txt

제목: 발바닥통증 족저근막염, 표적 치료로 완치길 연 연세건우 배의정 원장  
날짜: 20151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8000206775  
본문: 'Targeting'이란 단어는 보통 광고에서 많이 활용하는 단어로, 한 특정대상을 목표로 광고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단어가 의·약학에서는 약물을 체내 특정 부위에 선택적으로 도달시키는 이라는 뜻으로 활용된다. 즉 정확히 병변에 치료효과를 전달하기 위함으로 주로 암치료 시 ‘표적치료’라는 말로 많이 활용된다.<br/><br/>암치료에서 주로 활용돼오던 표적치료의 개념을, 연간 20만 명의 환자, 그리고 치료 후 잦은 재발, 마지막으로 심각한 발바닥 통증을 유발하는 생활형 족부질환인 족저근막염 치료에 도입하여 최근 우수한 임상연구결과로 주목 받고 있는 배의정 원장에게 3일 족저근막염 치료에 대해 들어보았다.<br/><br/>기존치료는 치료효과전달 한계 있어, 정확/세부적 진단 최우선<br/><br/>배의정 원장의 첫 마디는 “우리는 이전에 없던 최첨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였다. 족저근막염은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한다. 즉 염증으로 인해 근막이 얼마나 변성됐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표적인 족저근막염 치료인 체외충격파나, 염증주사, 스테로이드 제의 경우 근막의 변성 정도를 정확히 알고 치료하기가 어려웠다.<br/><br/>배 원장은 “<span class='quot0'>실제로 FAI, AOFAS와 같은 세계적인 족부전문학회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족저근막염의 수술적 치료의 성공률은 80~90%에 이른다, 하지만 체외충격파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의 성공률은 50~70% 정도이다 결국 수술적 치료와 같이 절개를 통해 근막의 변성 정도를 정확히 보고 치료하는 경우 그 성공률이 높지만, 비수술적 치료는 이를 파악하고 치료효과를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어려워 재발이나 증상의 호전이 빠르지 못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고해상도 초음파 장비 통한 진단으로 Targeting 치료<br/><br/>배의정 원장이 타겟팅 치료를 위해 활용한 장비는 우리가 병원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초음파였다. 배 원장은 “초음파는 다양한 질환의 진단이 가능하다. 특히 족저근막염의 경우 고해상도 초음파 장비를 통해 변성된 족저근막의 탄성과 긴장도 등을 진단하여 같은 족저근막염 환자라도, mild – moderate - severe로 나눠 선별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더 나은 치료 경과를 보이게 돕고 있다”고 말했다.<br/><br/>가장 중요한 것은 초음파를 통해 수술적 절개 없이, 변성된 근막을 정확히 찾아, 필요한 부분에 표적치료, 즉 ‘Targeting’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존 비수술적 치료의 한계로 여겨진 변성된 근막에 온전한, 100%의 치료효과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수술적 치료와 달리 절개 없이 매우 미세한 Micro-Needle을 통해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의 수술부담이 없어 회복이 빨라 당일 시술/퇴원이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있다.<br/><br/>실제로 배의정 원장이 지난번 발표한 족저근막염 환자에 대한 후향적 임상연구 결과에서 97%의 환자들이 당일진료-시술-퇴원했으며 족저근막염 환자 중 골극이 자라있거나, 무지외반증과 같은 동시수술이 필요한 환자들 만이 이후 퇴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발률의 경우 외적인 외상요인 환자 2%를 제외하고 98% 환자들에게 재발이 나타나지 않았다.<br/><br/>배의정 원장은 “<span class='quot1'>족저근막염은 수 많은 질환 중에서 큰질환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으나, 족저근막염으로 발바닥 통증이 계속될 경우 보행의 불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추후 발목 인대 손상이나 연골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목관절염을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span>”고 경고했다.<br/><br/>이어 “2G 핸드폰을 썼던 것이 불과 10년 전이다. 그런데 어느새 LTE 시대에 살고 있다. 족저근막염 치료가 재발이 많고, 증상호전이 어려웠던 것은 과거 이야기다. 이제는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알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499.txt

제목: “태아보험 가입요령, 비교사이트 통해 확인해야 유리해”  
날짜: 20151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8000107266  
본문: 최근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많아지고 결혼 적령기가 늦어짐에 따라 분만여성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 통계자료를 보면 30세 미만 분만여성의 수는 줄어든 반면 30~40세 분만여성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br/><br/>산모의 고령출산은 태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산모의 나이가 높아질수록 선천이상아나 저체중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진다.<br/> <br/>태아의 건강은 예측하기 어렵고 예방이 힘든데다 미숙아로 태어날 경우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이 높다. 뿐만 아니라 태아에게 발생하는 질병은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에 태아 보험 어린이 보험으로 대비하려는 추세다.<br/> <br/>태아 보험이란 임신 중에 가입하는 상품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주산기 질환, 아기의 선천이상, 저체중으로 인한 인큐베이터 비용 뿐 아니라 출생 후에도 질병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br/> <br/>태아 보험은 먼저 가입시기가 중요하다. 산모의 태중에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임신 후 22주 내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 22주가 지날 경우 태아에 관련된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br/> <br/>태아를 위한 보장으로는 선천이상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와 수술비, 미숙아 인큐베이터비용, 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외 산모에게는 임신출산, 유산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이와 관련해서 태아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br/> <br/>그리고 태아 어린이 보험을 준비할 때 어린이의 사망원인 중 하나인 백혈병이나 소아암 같은 경우도 평균 치료비가 5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 되도록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함께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br/><br/>어린이 생명보험의 경우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 실비 보험은 주로 아이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장 한다.<br/><br/>또한 태아 어린이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순수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가 저렴한데 다만, 만기 시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만일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순수형으로 가입해 다양한 장단점을 따져가며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br/><br/>많은 보험사에서 내놓고 있는 어린이 태아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내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보험을 비교해보고 가입 하는 게 유리하다. 아이들은 잦은 통원 내역으로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br/> <br/>어린이·태아 보험 비교사이트인 태아 보험마트(http://insumart.kr)는 3일 "이 때문에 최근에는 어린이, 태아 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등 다양한 회사의 자녀보험을 판매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비교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br/> <br/>이어 태아 보험관련 문의는 태아 보험마트 홈페이지나 대표번호 (1666-4905)를 통해 맞춤설계 상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00.txt

제목: "딸아,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렴" 페이스북 CEO 저커버그의 편지 전문  
날짜: 20151202  
기자: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8000020163  
본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소아과 전문의 프리실라 챈 부부가 페이스북 지분의 99%를 기부하기로 했다. 저커버그 부부는 1일(현지시간) 첫 딸 맥스를 얻은 뒤 450억달러에 달하는 페이스북 지분을 살아있는 동안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네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란다”며 “너를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모든 아이들에게 도덕적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 기부의 뜻을 밝혔다. 다음은 편지 원문을 옮긴 것이다.<br/><br/><br/>▶편지 원문 링크<br/><br/>맥스에게 <br/><br/><br/><br/>네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앞으로의 네 삶은 약속으로 가득차 있고, 우리는 네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그것들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너를 통해 우리는 네가 어떤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지를 생각해보게 됐어. <br/><br/>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네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란단다. 뉴스 헤드라인은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세상은 여러 면에서 나아지고 있단다. 인류가 건강해지고 있고, 가난은 줄어들고 있어. 지식은 늘어나고, 사람들은 갈수록 연결되고 있어.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기술의 발전은 너의 삶을 지금보다 극적으로 나아지게 할 거야. <br/><br/>우리는 이를 위해 우리의 몫을 할 거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모든 아이들에게 도덕적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다. <br/><br/>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미래를 살아갈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다고 우리는 믿어. 우리 사회는 이미 여기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앞으로 이 세계에 올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투자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br/><br/>하지만 지금 우리가 너희 세대가 맞닥뜨릴 기회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함께 자원을 투자하지는 않고 있어. 질병을 예로 들어볼게.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연구하는 일보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50배나 많은 돈을 쓴단다. 의학이 진짜 과학으로 여겨진 지는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 어떤 질병들은 완치할 수 있게 됐어.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다음 100년동안 거의 모든 질병을 예방, 치료, 관리할 수 있게 될 거야. <br/><br/>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병, 암, 뇌졸증, 신경퇴행성 및 감염 질환 등 다섯 가지 질병 때문에 숨진단다. 우리는 이 질병을 포함해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좀더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너와 너의 자녀 세대가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조금씩 투자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되지. 네 엄마와 나는 우리의 역할을 하고 싶단다.<br/><br/>질병의 치료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지. 5년 또는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별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길게 보면 지금 뿌려진 씨앗들이 자라날 그 어느 날엔가 너나 너의 자녀들은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보게 될 거야. <br/><br/>이런 기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단다. 사회가 이런 거대한 도전들에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남겨줄 수 있을 거야. <br/><br/>…<br/><br/>너희 세대를 위한 우리의 희망은 두 가지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다. 하나는 인간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 다른 하나는 평등을 증진하는 것이지. <br/><br/>인간의 잠재력 향상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 그 경계를 확장하는 것이란다. <br/><br/>우리가 지금보다 100배 이상 많이 배우고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세대가 너희가 좀더 오래오래 건강히 살 수 있도록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너희가 모든 아이디어와 사람, 기회에 접근하도록 세계를 연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더 깨끗한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너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금은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개발해낼 수 있을까? 네가 어떤 기업이든 세우고 평화와 번영을 가로막는 과제들을 해결하도록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을까? <br/><br/>평등을 증진하는 것은 모두가 자신들이 처한 여건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단다. 우리 사회는 정의나 자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간 발전의 이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를 해야만 해. 지금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박탈당하고 있어.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지닌 재능과 아이디어, 기여를 연결하는 것이란다. <br/><br/>우리 세대가 빈곤과 굶주림을 근절할 수 있을까? 모두에게 기본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까? 포용하고 환대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모든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와 이해를 키울 수 있을까? 여성과 어린이들, 대표되지 못하는 소수자들, 이민자들과 디지털로 연결되지 않은 이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을까? <br/><br/>만약 우리 세대가 바르게 투자한다면, 어쩌면 네가 사는 동안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예스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br/><br/>…<br/><br/>‘인간의 잠재력 향상’과 ‘평등의 증진’이라는 미션은 모두에게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단다. <br/><br/>·25년, 50년, 심지어 100년까지도 내다보는 장기적 투자를 해야 해. 어려운 과제일수록 단기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고, 매우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지.<br/><br/>·우리가 도우려는 사람들을 직접 참여시켜야 해. 그들의 필요와 욕망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힘을 키울 수 없거든. <br/><br/>·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해. 여러 기관들이 이 분야에 돈을 투자하지만, 실제로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질 때 발전이 이뤄진단다. <br/><br/>·정책 결정과 애드보커시에 참여해야 해. 여러 기관들이 꺼리는 일이지만, 운동이 뒷받침되어야만 발전도 지속가능할 수 있어. <br/><br/>·각계의 강력하고 독립적인 리더들을 지원해야 해. 전문가들과 협력한다면 우리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보다 미션 달성에 더 효과적일 수 있어. <br/><br/>·오늘 위험을 감수해서 내일을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해. 아직 우리의 배움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시도들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듣고 배우면서 나아질거야. <br/><br/>…<br/><br/>그동안 우리가 개인별 맞춤학습, 인터넷 접근, 공동체 교육, 보건 분야에서 쌓은 경험은 우리의 철학을 이루고 있단다. 우리 세대는 모두가 개인의 관심사나 필요에 상관없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속도로 배우는 교실에서 자라났지. 너희 세대는 각자 되고 싶은 꿈 - 엔지니어, 의료 종사자, 작가 또는 공동체 리더- 을 향해 목표를 세우게 될 것이야.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고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 지를 이해하는 기술도 나올거야. 관심있는 과목은 빠르게 배우고, 어려워하는 분야는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도움을 받게 될 거야. 학교가 제공하지 않는 주제들을 탐구할 수도 있게 되겠지. 교사들은 좀더 나은 도구와 데이터를 가지고 네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거야. <br/><br/>또 전 세계 학생들이 좋은 학군에 살지 않더라도 인터넷 상의 맞춤형 학습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거야. 물론 기술만으로 모두가 인생에서 공정한 출발을 누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인별 맞춤학슴은 모든 어린이에게 더 나은 교육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확장가능한 수단이 될 거야. <br/><br/>우리는 지금 이 기술을 만들고 있는데, 이미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어. 학생들은 시험만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배울 수 있는 역량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거든. 이제 시작일 뿐이야. 너가 학교에 들어갈 때쯤이면 매년 기술과 교수법이 눈부시게 향상될거야. <br/><br/>네 엄마와 나는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봤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직접 보았단다. 전세계 학교들이 이 학습법을 채택하려면 교육 분야의 강력한 리더들과 함께 일해야겠지. 또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커뮤니티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한단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야 해. 때로는 실수를 하면서 목표를 이루기까지 여러 교훈들을 배워야하고. <br/><br/>하지만 너희 세대를 위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회 전체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에 투자할 책임이 있는 것이란다. <br/><br/>함께라면 우리는 이것을 해낼 수 있어. 개인별 맞춤학습은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거야. <br/><br/>…<br/><br/>너희 세대의 많은 기회들은 모두가 인터넷 접근권을 누리는 데서 나올거야. 인터넷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오락이나 소통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인터넷이 생명줄이 될 수도 있어. 인터넷은 좋은 학교 근처에 살지 않더라도 교육을 제공하고, 의사가 주위에 없더라도 질병을 예방하거나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지. 행 근처에 살지 않더라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경제가 튼튼하지 않더라도 일자리나 기회를 주기도 해. 인터넷 접근을 갖게 된 10명당 한 명 꼴로 가난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정도란다. <br/><br/>하지만 여전히 지구촌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명 이상이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한단다. 우리 세대가 그들을 인터넷에 연결한다면, 수천만명을 빈곤에서 탈출하게 만들 수 있단다. 어린이 수천만명이 교육을 받고 수백만명의 생명을 질병으로부터 살리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지. <br/><br/>모두 기술과 파트너십을 통해 장기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란다. 인터넷이 좀더 접근가능하도록 새로운 기술을 발명해야겠지. 정부나 비영리단체, 기업과 협력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기 위해 공동체도 참여시켜야 해.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릴 수도 있고, 성공하기 전까지 여러 시도를 해야 할 거야. <br/><br/>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단다.<br/><br/>…<br/><br/>기술 자체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은 강하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있어. 어린이들은 교육받을 수 있을 때 최고의 기회를 누리는데, 건강해야만 잘 배울 수 있거든. 건강은 일찌감치 결정된단다. 가족의 사랑과 균형잡힌 영양 상태, 안전하고 포근한 환경이 필수적이지. <br/><br/>어린 나이에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어린이들은 종종 건강하지 못한 신체와 정신을 갖게 돼. 뇌의 발달에 물리적인 변화가 생기면 인지 능력이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지. <br/><br/>의사이자 교육자인 네 엄마는 이를 직접 경험했단다. 건강하지 못한 어린시절을 보내면 너의 모든 잠재력을 펼치기 어렵단다. <br/><br/>음식과 집을 염려하거나 학대나 범죄를 당할까 걱정한다면 말이지. 피부색 때문에 대학이 아니라 감옥에 갈까 두려워하고, 혹은 네 법적 지위 때문에 가족이 강제추방될까 두려워하면, 그리고 종교나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때문에 폭력 피해자가 될 것을 두려워한다해도 마찬가지이지. <br/><br/>이런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제도가 필요해. 이것이 바로 네 엄마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학교의 철학이란다. 우리가 학교와 보건센터, 부모 그룹,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일찍부터 충분한 음식과 돌봄을 제공받도록 보장한다면 이런 불평등을 하나로 다룰 수 있게 될 거야. 비로소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함께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란다.<br/><br/>온전한 모델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 하지만 인간의 잠재력 향상과 평등 증진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어느 쪽을 원하든 우리는 먼저 포용적이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단다. <br/><br/>…<br/><br/>너희 세대가 더 나은 세상에 살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단다. <br/><br/>오늘 네 엄마와 나는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작은 몫을 보태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단다. 나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 페이스북의 CEO로 일하겠지만, 이 문제들은 너나 우리가 더 나이들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야. 젊은 나이에 시작했으니, 앞으로 인생 동안 긍정적인 변화가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단다. <br/><br/>네가 챈-저커버그 가족의 새로운 세대로 삶을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도 챈-저커버그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게 됐구나. 다음 세대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인간의 잠재력을 향상하고 평등을 증진하는 일에 전세계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게 됐단다. 우리가 먼저 집중할 분야는 개인별 맞춤학습과 질병 퇴치, 사람들의 연결, 그리고 강한 커뮤니티를 세우는 것이란다.<br/><br/>미션 달성을 위해 우리는 보유한 페이스북 지분의 99% - 현재 약 450억달러 - 를 살아있는 동안 기부할 거야. 이미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능이나 자원에 비하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다른 이들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단다. <br/><br/>앞으로 몇 달 안에 새로운 가족의 리듬에 적응하고, 출산휴가에서 복귀하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게.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지 너도 많이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해. <br/><br/>이제 부모로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되었구나. 이를 가능하게 해 준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구나. <br/><br/>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뒤에 강한 글로벌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란다.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을 만들었고, 페이스북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 역할을 하고 있단다. <br/><br/>우리의 멘토, 파트너, 그리고 이 분야를 세우는 데 기여한 멋진 사람들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야. 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기고 미션을 달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랑하는 가족과 든든한 친구들, 멋진 동료들이 주위에 있기 때문이야. 너 또한 네 삶에서 이와 같이 깊고 영감을 주는 관계를 갖게 되기를 기대한단다. <br/><br/>맥스야, 우리는 너를 사랑해. 너와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남겨줘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단다. 너 역시 너가 우리에게 주는 사랑과 소망,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한다. 너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올지 정말 기대되는구나. <br/><br/><br/><br/>사랑하는 엄마와 아빠가<br/><br/><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01.txt

제목: 암보험 약관 ‘직접 치료 목적’ 모호 재수술 때 보험금 지급 들쭉날쭉  
날짜: 20151201  
기자: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5933794  
본문: ㆍ소비자원 “표준 신설 건의”<br/><br/>ㄱ씨는 1998년 암보험에 가입해 유지하던 중 지난해 8월 후두암 진단을 받았다. 1차 수술을 받은 ㄱ씨는 2∼3차례 재수술을 받은 뒤 수술비와 입원비를 청구했다. 보험사는 추가로 받은 수술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 일부만 주겠다고 했다.<br/><br/>암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암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225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등의 피해가 208건으로 92.5%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항목별로 입원비 관련 피해가 43.1%(9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단비 37.3%(84건), 수술비 10.2%(23건) 등이었다.<br/><br/>분쟁이 지속되는 이유는 약관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불명확한 표시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는 암 때문에 입원·수술하는 모든 경우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좁게 해석해 일부의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별로 같은 약관을 두고도 해석 기준이 달라 소비자가 보험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기도 한다. 소비자원은 “<span class='quot0'>암보험 표준약관 신설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br/><br/><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02.txt

제목: 후두암 재수술···‘직접 치료’ 아니라며 보험금 일부만 지급?  
날짜: 20151201  
기자: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5840519  
본문: ㄱ씨는 1998년 암 보험에 가입해 유지하던 중 지난해 8월 후두암 진단을 받았다. 1차 수술을 받은 ㄱ씨는 2∼3차례 재수술을 받은 뒤 수술비와 입원비를 청구했다. 보험사는 추가로 받은 수술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 일부만 주겠다고 했다.<br/><br/>암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암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225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등의 피해가 208건으로 92.5%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br/><br/>항목별로 입원비 관련 피해가 43.1%(9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단비 37.3%(84건), 수술비 10.2%(23건) 등이었다. 입원·수술비 분쟁이 5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br/><br/>입원비 및 수술비 지급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이유는 약관 명시돼 있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불명확한 표시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는 암 때문에 입원·수술하는 모든 경우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좁게 해석해 일부의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별로 같은 약관을 두고도 해석 기준이 달라 소비자가 보험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br/><br/>소비자원은 “<span class='quot0'>암보험 약관을 개정해 지급 조건을 종양 제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 외에도 말기암 환자 치료, 합병증 치료 목적이라도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암보험 표준약관 신설 등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br/><br/><br/><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03.txt

제목: 일본 후쿠시마지역 어린이·청소년, 39명 갑상선암 확진 또는 의심  
날짜: 20151201  
기자: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5853029  
본문: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福島)현의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중에서 39명이 갑상선암 발병 및 의심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방사선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br/><br/>후쿠시마현의 현민 건강조사검토위원회가 현내 모든 18세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2차 갑상선 검사에서 현재까지 암 확진자가 15명, 암 의심환자가 24명으로 나타났다고 1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br/><br/>사고 당시 6∼18세였던 어린이·청소년 39명에게서 작게는 5.3㎜, 크게는 30.1㎜의 종양이 발견됐다. 이들은 사고 후 3년 사이에 진행된 1차 검사때 대부분 ‘문제없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br/><br/>위원회의 호시 호쿠토(星北斗) 좌장(후쿠시마현 의사회 부회장)은 갑상선암이 후쿠시마현에서 “다발(多發)”하고 있음을 처음 인정했다.<br/><br/>그러나 호시 좌장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의 범위 안에서 직접 방사선의 영향으로 발생한 암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표현에는 아직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br/><br/>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경우 사고 4∼5년 후에 아동의 갑상선암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br/><br/>후쿠시마현은 원전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아동 약 37만명에 대해 3년에 걸쳐 1차 검사를 실시했으며 여기에서는 86명이 갑상선암이고 23명이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2차 조사에서 갑상선암 또는 의심 환자로 분류된 39명은 1차때 환자 또는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2차 조사에는 사고 후 1년 이내에 태어난 아동이 포함돼 대상자가 38만5000명으로 늘었다.<br/><br/><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04.txt

제목: [사설] 반도체 노동자 또 사망, 이젠 사회적 해법 찾아야  
날짜: 2015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5735591  
본문: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올해 46세의 여성노동자 이미자씨가 지난 27일 직업성 암 추정 질환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아남반도체가 미국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로 넘어간 후에도 27년간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해 왔다. 이씨는 야간노동과 교대근무 등 강도 높은 노동과 함께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앰코에서 백혈병·뇌종양·유방암 등 직업성 암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18명에 달하고 올 들어서만 6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br/><br/>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앰코에서도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반도체 공장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기둥인 동시에 10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일터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반도체 공장의 산업안전 문제는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반도체·LCD·전자제품 공정에서 일하다 직업성 암 등을 신고한 이는 362명, 사망자는 130명이다.<br/><br/>하지만 지금까지 온전한 재발방지 및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별 인과관계 입증이나 보상 문제만 강조된 측면이 강하다. 이 점에서 최근 SK하이닉스가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본사는 물론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직업성 암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게 포괄적 보상을 하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차제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이 보상 차원의 접근을 넘어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05.txt

제목: [오늘은 이런 경향]11월30일 ‘사막여우는 왜 한국에서 죽어야 했나’  
날짜: 20151130  
기자: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5616415  
본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br/>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월일입니다.<br/><br/><br/><br/>18세에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옛 아남반도체)에 입사한 뒤 27년간 화학물질을 취급한 40대 노동자가 암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이 회사에선 올해 ‘반도체 직업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6명, 수년간 20~40대 18명이 나왔습니다. 죽음을 두고 앰코코리아는 공정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br/> ▶ ‘반도체 조립 27년’ 앰코 노동자 또 사망<br/><br/><br/><br/><br/>기후변화에 따른 파국을 막기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1972년 유럽의 정계·재계·학계 리더들이 ‘로마클럽’에서 지구온난화를 처음 경고한 지 43년 만에, 가깝게는 1997년 채택해 2020년까지 한 차례 연장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를 내놓는 자리입니다. 경향신문은 관련한 ‘지구를 식혀라’ 시리즈를 보내드립니다.<br/> ▶ ‘지구를 식혀라’…뜨거운 기후협상<br/> ▶ [지구를 식혀라] (1) 파리 기후변화협약…막오른 당사국 총회<br/> ▶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박 대통령, 30일 기조연설 “한국도 개도국 지원할 것”<br/> ▶ [사설] 유엔 기후변화협약회의, 인류의 명운 걸렸다<br/> ▶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경찰 1만여명 철통 테러 경비 속 150개국 정상 속속 파리 총회로<br/><br/><br/><br/><br/><br/>황금태양앵무·뉴기니아앵무·진공작·붉은꼬리보아뱀·사바나왕도마뱀·샴악어·미얀마왕뱀·검은손기번·흰머리비단원숭이…. 환경부가 자진신고를 받은 불법 밀수 동물들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멸종위기동물’입니다. 취미로 사육하다 병들면 버리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br/> ▶ 나를 왜 데려왔나요…불법 밀수 뒤 보호 사각 놓인 멸종위기 야생동물들<br/><br/><br/><br/><br/>김무성 대표가 시위 참여자들을 ‘불온세력’이라고 했죠. 한기형 성균관대 교수가 ‘불온’이란 말의 기원을 짚으며 김 대표의 발언을 비판합니다. <br/>“<span class='quot0'>한국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여당의 대표라면 스스로 사용하는 말의 의미와 역사맥락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와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span>”<br/> ▶ [기고] ‘불온’의 기원<br/><br/><br/><br/><br/>경찰이 다음달 5일로 예고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br/>“전농 측은 평화적 집회를 약속했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다면 꽃을 달아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면 그때 공권력을 행사하면 된다.(…) <br/>그럼에도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고 처벌만 강조한다면 이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먼저 집회 참가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는 행태이다. 두번째로 정권의 정책적 중대 과오를 지적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는 ‘공권력장벽’ 역할을 자처하는 것으로, 이 역시 중대한 문제이다.”<br/> ▶ “집회 원천 금지” 헌법 위에 선 경찰<br/> ▶ [사설]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한 헌법을 능멸할 텐가<br/><br/><br/><br/><br/>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진 검열 사례는 20여건에 이르릅니다. 검열 관련 논란이 월 1회 정도 불거진 셈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한남동 복합문화공간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검열 반대 만민공동회를 열었습니다. <br/> ▶ “검열, 더는 못 참아” 장르·세대 초월, 예술인들 뭉쳤다<br/> ▶ ‘VIP’ 불편하게 하면 검열 1순위?<br/><br/><br/><br/><br/>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구성 제안을 거부하고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역제안했습니다. 문 대표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br/> ▶ 안철수 ‘문·안·박 연대’ 거부…“혁신 전당대회 열자”<br/> ▶ 안철수, ‘반문재인 세력’ 업고 ‘제1야당 얼굴’로 복귀 승부수<br/> ▶ 답해야 하는 문재인<br/> ▶ [사설] ‘민주적 원칙’과 ‘정치적 상상력’ 절실한 안철수·문재인<br/><br/><br/><br/><br/>“한국의 난민과 이슬람 때리기도 심각한 수준이다. 파리 테러나 중동 분쟁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면 난민에 대한 인종주의, 이슬람에 대한 혐오와 난민에 대한 분노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테러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랍이나 이슬람, 난민에 대한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적 존중을 포기한다면 그야말로 테러리즘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테러집단의 목표가 바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증오의 전선을 만들어 싸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홍식(숭실대 교수·사회과학연구소장) 칼럼입니다<br/> ▶ [국제칼럼] ‘난민 혐오’는 테러리즘이다<br/><br/><br/><br/><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06.txt

제목: ‘반도체 조립 27년’ 앰코 노동자 또 사망  
날짜: 20151129  
기자: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5603675  
본문: ㆍ화학물질 취급 40대, 산재 신청 준비 중 유방암으로 <br/>ㆍ회사 측 “유독물질 안 써”…반올림 “발병 사례 있다”<br/><br/>18세에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옛 아남반도체)에 입사한 뒤 27년간 화학물질을 취급한 40대 노동자가 암으로 숨을 거뒀다. 이 회사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일어난 ‘반도체 직업병’ 사망 추정자가 다수 보고됐으며, 올해에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br/><br/>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29일 “이미자씨가 18세에 앰코코리아에 입사해 20년 이상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교대근무를 해왔고, 반도체 라인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다 2009년 만 40세의 나이에 유방암을 진단받았다”며 “재발과 전이로 인해 지난 27일 46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암 투병 중에도 금속노조 앰코코리아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을 맡아 직업성 암의 발병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이 사업장에선 처음으로 산업재해 신청도 준비하다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씨의 유가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산재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br/><br/>그간 반도체 직업병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노동자에게 광범위하게 발병했던 것으로 인식돼왔다. 반올림은 “앰코코리아에도 백혈병·뇌종양·유방암·췌장암·난소암 같은 직업성 암 등으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 수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1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올 들어 이씨를 포함해 6명이 백혈병과 각종 암으로 사망했고, 대부분 20~40대 노동자였다. 반도체 기술연구소에서 일했던 서모씨(42) 등 4명은 투병 중이다.<br/><br/>반올림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됐지만 침묵해온 회사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망과 질병 피해에 대해 정부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방한한 바시쿠트 툰작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은 “<span class='quot0'>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며 겪는 구제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 검토를 하고,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br/><br/>앰코코리아는 공정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앰코코리아는 반도체 후공정 업무(웨이퍼 검사·포장)를 하고 있어 백혈병·암 등을 유발하는 유독 화학물질을 쓰지 않고 있다</span>”고 말했다.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span class='quot2'>후공정이 웨이퍼 가공을 하는 선공정에 비해 화학물질 성분 수가 작긴 하지만 화학물질이 쓰이지 않는 건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2'>웨이퍼 고온 검사 등을 할 때 나온 화학물질로 재생불량성빈혈이 발생했다고 보고된 사례가 있다</span>”고 말했다.<br/><br/><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07.txt

제목: [기자칼럼]‘헬조선’의 역사전쟁  
날짜: 20151127  
기자: 홍재원 | 사회부 jwhong@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5426768  
본문: 모친은 40년간 교편을 잡았다. 모친은 ‘유신독재’, ‘군사독재’ 같은 말을 싫어한다. “<span class='quot0'>어머니는 그 시절 어떠셨느냐</span>”는 아들의 은근한 시선을 몇번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한번은 그가 따졌다. “<span class='quot0'>내가 독재에 부역이라도 했니?</span>”<br/><br/>군사독재는 1~2년이 아니다. 박정희·전두환 시절만 해도 25년, 노태우 통치까지 합치면 30년이다. 그 시절 그 정권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국민이 몇이나 있을까.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찬성률은 91.5%였다. 일제시대는 더 길었다. 국권을 잃은 1910년부터 광복까지 무려 35년이 걸렸다. 외교권이 박탈된 을사늑약 전후부터 따지면 40년이 넘는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시절, 적극적인 친일파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시대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조선인 90%가 창씨개명했다). <br/><br/>세계 제 2차대전 때 독일에 협조한 프랑스 비시정부는 기껏해야 4년에 불과했다. 프랑스는 전후 곧바로 나치 협력자들을 색출해 처단하기 시작한다. 짧은 기간 부역했다며 처형한 사람만 10만명이다. 우리는 달랐다. 몇 세대에 걸친 뒤틀린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일제에 머리를 숙였고 독재에 찬성했는데 누굴 처단할 수 있단 말인가. <br/><br/>그런데 일제와 독재에 목숨 걸고 맞선 이들도 적지만 존재했다. ‘정의’는 이들 소수의 차지여야 마땅하지만, 다수의 국민이 뒤틀린 역사에 연루된 상황은 이를 쉽게 허용하지 않았다. 일제통치나 독재정권이 한국 근대화에 공헌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br/><br/>때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했다. 대통령의 부친은 일제 만주군 장교를 지내고 훗날 독재정권을 이끈 인물이다. 부친 서거 후 대통령은 은둔해 박제가 됐다. 박 대통령은 경험과 비전을 가진 새 시대 정치인이라기보다 ‘그 시절’의 상징에 가깝다. <br/><br/>박 대통령 당선은 자칫 부역자로까지 몰리게 된 적잖은 이들과, 밥상머리 교육·각종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얽혀 영향을 주고받은 수많은 이들, 또 이들이 구축해온 각종 구조들이 모종의 ‘역사적 재평가’를 원했던 결과다. 그래서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를 받는다. 그가 노골적으로 역사교과서에 손을 대겠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br/><br/>과거를 손보면 쉽사리 고통에서 벗어난다. 태어나보니 일본인이었고, 원치 않게 청춘의 한복판을 독재정권과 함께 보냈다.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뀐 세상 저편에서 날아오는 아들·딸의 질문. “<span class='quot0'>아버지·어머니는 그때 안녕하셨나요?</span>” 대통령의 독주와 그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는 이 질문에 대한 무언의 답변이자 시위인 셈이다. <br/><br/>그러나 이 시위는 사회 진보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과거가 옳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 방식대로 하려 한다. 경제 정책은 늘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어야 한다. 다 죽은 ‘낙수효과’를 아직도 유행가처럼 부르는 사람들이다. 내수부양을 외치면서도 노조는 막고 직원 월급은 줄이자고 한다. 어딘가 큰 조직에 속해 있어야 안정적이며 자유롭게 활동하려는 꿈은 ‘낙오’다. 경쟁할 준비만 해야 하고, 토 달면 혼난다. <br/><br/>일제와 군사독재는 역동 대신 복종을 요구했다. 그 방향으로의 회귀는 창조적 도약의 최대 적이다. 창조경제를 말로 외치긴 쉽지만, 회귀적 발상의 주역들은 필연적으로 ‘창조경제 3개년 계획’ 같은 허무개그를 하게 된다. ‘헬조선(가망 없는 한국사회를 뜻하는 인터넷 용어)’의 뿌리를 봐야 탈출구를 찾는다. <br/><br/>우리는 중대한 선택 앞에 서 있다. 판단은 사회 전체의 몫이지만, 진통제는 한 시대의 고통을 잠시 감춰줄 뿐 암 덩어리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걸 다 안다. 아프고 두렵더라도 결국 ‘정의’와 ‘미래’를 향할 것이다. 이런 선택은 빠를수록 좋다.<br/><br/><홍재원 | 사회부 jwhon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08.txt

제목: 국민 90%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법률안 빨리 통과시켜주세요”  
날짜: 20151126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5233955  
본문: “국가는 암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호스피스 지원을 확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br/><br/>호스피스와 연명의료·존엄사 등의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아래 사진)는 26일 “<span class='quot0'>최근 들어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span>”면서 이같이 밝혔다.<br/><br/>윤 교수는 이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오는 30일 다시 열릴 예정인 법안 소위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해를 넘기게 되고, 법안 통과가 더 지연될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br/><br/>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법률안이 두 차례나 상정되었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아직까지 심의를 못하고 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보건복지부 및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 통과 절차만 앞두고 있지만 심의 순번이 100번대가 넘어 아직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서울대 의대는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와 마켓링크)과 함께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69세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했다. 조사는 온라인 패널조사 형태로 진행됐다.<br/><br/>“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2%가 필요하다고 했고요.”<br/><br/>호스피스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그리고 그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증, 증상 완화 등의 신체적 치료와 함께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 및 관리를 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이란 환자의 증상 호전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보류 또는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다.<br/><br/>응답자의 96.1%는 뇌졸중, 치매 등 암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환자가 말기 상태일 경우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상에 포함되길 희망하는 질환은 치매(72.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파킨슨병(64.1%), 뇌졸중(61.6%), 만성 폐질환(21.9%), 근위축성 측삭경화증(20.9%), 만성 신부전(19.4%), 후천성 면역결핍증(18.5%), 만성 간경화(17.4%) 순이었다.<br/><br/>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가 주도로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권역별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95.8%)이 압도적이었다. 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의 국가처럼 호스피스 재단을 설립해 관련 기금을 모우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부분(94.1%) 찬성했다.<br/><br/>응답자의 92.0%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찬성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본인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화한 것이다. 또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선 90.0%는 찬성 10.0%는 반대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질병 상태와 예후, 호스피스, 연명의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작성하는 문서다.<br/><br/>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입원 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선 88.7%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1.3%에 그쳤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09.txt

제목: 하이닉스 “반도체 직업병 포괄적 지원·보상”  
날짜: 20151125  
기자: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5131891  
본문: ㆍ산업보건검증위 “발병 인과관계 입증 어렵다” 대안 제시 <br/>ㆍ업체 측 “의심사례 모든 질환자에 치료·일상 유지 보장”<br/><br/>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위원장 아주대 장재연 교수)는 25일 “<span class='quot0'>SK하이닉스 근로자들이 한국 전체 근로자에 비해 갑상샘암 발생 확률이 남성이 2.6배, 여성이 1.3배 유의하게 높았다</span>”고 밝혔다. 그러나 검증위는 “암이나 발생률이 극히 낮은 희귀 질환들은 그 특성상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게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관련된 근로자들에게 포괄적 지원보상을 하라”고 제안했다.<br/><br/>검증위는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진행한 SK하이닉스 작업장 산업보건 실태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는 “SK하이닉스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제품 860종(총 2296물질)을 조사한 결과 발암성, 돌연변이원성,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 18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r/><br/>이어 “생산직 내 근무부서에 따라 사무직에 비해 대사증후군이 2.4~3.2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며 “SK하이닉스 생산직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에 비해 자연유산율이 1.3배, 여성 방광염이 1.1배 높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암으로 병가를 신청한 108명을 분석한 결과 갑상샘암이 전체의 56.5%인 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종양(10.2%), 위암(9.3%), 유방암(8.3%) 순이었다”고 밝혔다.<br/><br/>검증위는 “질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상당한 수준의 노출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반도체 직업병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건강 손상 근로자들의 치료와 일상 유지에 필요한 기본 수준을 지원하는 ‘포괄적 지원보상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br/><br/>이에 SK하이닉스는 “<span class='quot1'>검증위 연구 결과 반도체 사업장과 직업병 간 인과관계 평가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확인됐다</span>”며 “<span class='quot1'>검증위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기반을 둬 의심 사례로 나타난 전 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원과 보상을 실시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10.txt

제목: 길거리서 ‘사별 아내 향한 러브레터 100통’ 나눠준 한국계 미국인  
날짜: 20151125  
기자: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5051076  
본문: ㆍ이형씨 “슬픔 견디려 쓰기 시작” <br/>ㆍ시민들, 편지 사연 듣고 눈시울<br/><br/>지난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100통을 적어 거리의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한국계 미국인의 사연이 미국 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br/><br/>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미국계 한국인 이형씨는 지난해 15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 캐서린 장가를 암으로 잃었다. 2012년 이씨의 부인 캐서린은 난소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캐서린은 투병 끝에 지난해 11월21일 한 호스피스 센터에서 남편 이씨와 10살 난 딸 안나, 7살짜리 아들 알렉스를 남겨두고 눈을 감았다.<br/><br/><br/>이씨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이 시간을 견디기 위해 무언가라도 해야 했다. 뭘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아내에게 러브레터를 쓰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9월부터 아이들과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씨는 다 쓴 편지를 들고 거리에 나가 지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span class='quot0'>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건네달라</span>”고 부탁했다. 편지를 받은 시민들은 편지에 담긴 사연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br/><br/>이씨의 편지는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지며 현지 언론에도 소개됐다. 온라인에는 100통의 편지와 사연을 소개하는 웹페이지 ‘100러브노트’(www.100lovenotes.com)가 만들어졌다. 트위터에서는 이씨의 편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100러브노트(#100lovenote)’라는 주제어를 붙여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올렸다. 페이스북에도 같은 해시태그(#)를 붙인 커뮤니티가 생겼다. 이씨는 “<span class='quot0'>사람들이 잠시 멈추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보길,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br/><br/><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11.txt

제목: 국내외 전문가들 "갑상선암, 크기도 중요하지만 악성도와 위험도 판단이 더 중요"  
날짜: 20151125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4959050  
본문: 갑상선암은 과연 조기진단이 필요없는가? 작은 크기는 수술을 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원칙인가?<br/><br/>지난해부터 갑상선암 과잉 진단·수술 논란이 불거지면서 학계와 보건당국의 ‘가이드라인’이 1차로 만들어졌지만 국민의 혼란은 여전한 상태다. 현재 학계를 중심으로 2차 가이드라인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다.<br/><br/>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 갑상선외과학회’에서 “암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악성 유무 등 상태에 따라 수술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1㎝이하 갑상선암을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나왔다.<br/><br/>미국 피츠버그 메디컬센터 두브리 박사는 “<span class='quot0'>전 세계적으로 낮은 확률에서 악성이 되지만 악성의 경우 전신으로 전이돼 사망하기 때문에 위험하다</span>”고 경고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미세한 암 상태에서 악성을 구별해내는 방법이 필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돌연변이 검사를 통해 진행성 암은 크기가 작아도 수술할지 여부를 논의 중</span>”이라고 말했다.<br/><br/>일본 쿠마병원 잇토 교수는 “<span class='quot1'>갑상선암 수술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선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에게 전적으로 판단을 맡기고 있는 상황</span>”이라고 밝혔다.<br/><br/>아시아태평양갑상선학회 히로야기타노 회장(일본 시가의과대학 교수)도 “<span class='quot2'>대부분 크기 여부에 관계 없이 수술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span>”고 했다.<br/><br/>이번 학회의 대회장인 대한두경부갑상선외과학회 이강대 회장(고신대복음병원 교수)는 “<span class='quot3'>크기가 작아도 신경 가까이 있거나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면 곧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span class='quot3'>어떤 가이드라인에서든 명확하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단서 조항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 암의 상태에 따라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br/><br/>이번 학회는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미국, 러시아, 터키, 중동, 유럽 등 전세계 25개국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전문 진료과목도 이비인후과 전문의, 내분비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다양했다.<br/><br/>고윤우 사무총장(세브란스병원 교수)은 “<span class='quot4'>갑상선 질환의 진단과 치료뿐 아니라 연구에 대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잘 보여주었다</span>”고 말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12.txt

제목: SK하이닉스 검증위 “직업병 인과관계 확인 유보” 논란  
날짜: 20151125  
기자: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5030843  
본문: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위원장 아주대학교 장재연 교수)는 25일 “<span class='quot0'>SK하이닉스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에 비해 갑상선암 발생 확률이 남성이 2.6배, 여성이 1.3배 유의하게 높았다</span>”고 밝혔다. 검증위는 그러나 “복잡한 암이나 발생률이 극히 낮은 희귀질환들은 질환의 특성상 인과관계 평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확인했다”며 ‘포괄적 지원보상체계’를 제안했다.<br/><br/>검증위는 이날 서울 25일 광화문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진행한 SK하이닉스 작업장 산업보건 실태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는 지난해 SK하이닉스 직업병 문제가 제기된 후 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선정된 7명의 외부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br/><br/>검증위는 이날 “SK하이닉스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제품 860종(총 2296물질)을 조사한 결과 발암성, 돌연변이원성,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 18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br/><br/>검증위는 또한 “건강검진자료 분석결과, 생산직 내 근무부서에 따라 사무직에 비해 대사증후군이 2.4~3.2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분석결과 SK하이닉스 생산직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에 비해 자연유산율이 1.3배, 여성 방광염이 1.1배 높았다”고 밝혔다.<br/><br/>검증위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암으로 병가를 신청한 108명을 분석한 결과 갑상선암이 전체의 56.5%인 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종양(10.2%), 위암(9.3%), 유방암(8.3%) 순이었다”며 “백혈병 등 조혈기계 암은 5건으로 4.6%였다”고 밝혔다.<br/><br/>검증위는 이어 “2003년부터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span class='quot0'>SK하이닉스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에 비해 갑상선암 발생 확률이 남성이 2.6배, 여성이 1.3배 유의하게 높았다</span>”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뇌종양(악성과 양성을 모두 포함; 남성 1.2배, 여성 1.5배), 백혈병(남성 1.2배, 여성 2.0배), 남성 비호지킨림프종(1.3배) 등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보다 발생률이 높았다”고 밝혔다.<br/><br/>검증위는 그러나 “검증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다수 확인했으나, 발생기전이 복잡한 암이나 발생률이 극히 낮은 희귀질환들은 질환의 특성상 인과관계 평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확인했다”며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상당한 수준의 노출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식은 반도체 직업병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br/><br/>그러면서 “대안으로 근로자의 심각한 질병들에 대해, 인과관계 확인을 유보하고 건강손상 근로자들의 치료와 일상유지에 필요한 기본수준을 지원하는 ‘포괄적 지원보상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br/><br/>SK하이닉스는 입장자료를 내고 “<span class='quot1'>산업보건검증위원회의 연구 결과, 과거 작업환경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생산현장을 대상으로 연구·조사했음에도 반도체 사업장과 직업병 간 인과관계 평가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확인되었다</span>”며 “<span class='quot1'>하지만 SK하이닉스는 검증위원회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기반해 의심사례로 나타난 전 질환환자를 대상으로 지원과 보상을 실시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SK하이닉스는 또한 “<span class='quot1'>전현직 SK하이닉스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까지 지원·보상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산업보건 지원·보상 시스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다</span>”며 “<span class='quot1'>빠른 시간 내에 노사와 사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지원보상 위원회를 결성하여 관련 질병 지원·보상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br/><br/><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13.txt

제목: 1만명 ‘게놈 프로젝트’…울산시·유니스트·울산대·울산대병원 공동 추진  
날짜: 20151125  
기자: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5036068  
본문: 무병장수와 ‘웰에이징(Well aging)’ 시대를 열 한국인 1만명 게놈 프로젝트가 울산에서 시작됐다.<br/><br/>울산시, 유니스트, 울산대, 울산대병원 등 4개 기관은 25일 유니스트 경동홀에서 ‘울산 만명 게놈프로젝트(Genome Korea In Ulsan) 선언식’을 했다. 울산시 등은 이 선언을 시작으로 3년간 시민을 비롯한 한국인 1만명으로부터 유전자를 기증받아 게놈 연구에 나선다.<br/><br/>게놈(유전체, Genome)이란 유전자 ‘gene’과 염색체 ‘chromosome’의 합성어로 한 개체 유전정보의 총합을 의미한다. 게놈 연구성과는 생명공학과 연구 맞춤의료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 빅데이터로 활용한다.<br/><br/>게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인간생명의 비밀이 베일을 벗어 유전자 조작을 통해 암, 심장병 등 여러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 울산시 등은 “이번 프로젝트가 사상 최대의 한국인 게놈 연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br/><br/>참여 기관은 초대형 한국인 게놈 표준정보를 생산가공해 게놈 빅테이터를 도출하고 2, 3차 고부가가치 데이터인 오믹스(OMICS. 게놈에서 파생된 대형 정보체를 게놈과 같이 분석하는 첨단 융합 생명과학 분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br/><br/>프로젝트 결과물인 유전자 정보는 국내 바이오메디컬 관련 기관, 연구소, 기업들에 고급 빅데이터로 제공돼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울산시와 유니스트 등은 이날 선언문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정부도 게놈 코리아 사업(Genome Korea Project)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br/><br/>울산시 등은 향후 가칭 ‘한국게놈산업기술센터’나 ‘게놈뱅크’ 등을 설립하고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펀드 등이 참여하는 ‘게놈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와 사업화를 가속화하기로 했다.<br/><br/>김기현 울산시장은 “<span class='quot0'>게놈 기술의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적인 진단 및 의료산업을 게놈의학과 접목해 울산을 동아시아 게놈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span>”고 말했다. 정무영 유니스트 총장은 “<span class='quot1'>고비용 난치병 치료와 감염 질환의 대유행을 예방하려면 한국형 게놈 정보의 확보가 필수적</span>”이라며 “<span class='quot1'>1만명의 인간 게놈을 해독·분석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게놈 연구역량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span>”고 밝혔다.<br/><br/><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14.txt

제목: 장내 미생물 조화 만드는 비결, 김치유산균에게 물어보세요  
날짜: 20151125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4959697  
본문: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와 프리바이오틱스 공급이 장내 유익한 세균은 늘리고, 유해한 세균은 줄이면서 장내 세균총(구성 비율)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4일 국제식품기능학술대회(ICoFF)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윤석후) 주최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다.<br/><br/>프로바이오틱스란 충분한 양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비피더스 유산균, 김치유산균 등)을 말하며 프리바이오틱스는 이러한 미생물들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식이섬유(일종의 먹이)이다.<br/><br/>여러 연구논문에 따르면 인체에는 1∼1.5㎏의 장내 세균이 살고 있으며 장내 세균이 어떤 비율로 구성돼 있느냐에 따라 면역력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장내 세균의 구성이 건강하게 짜여 있으면(높은 유익균 비율, 낮은 유해균 비율)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다발성 경화증·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자폐증·치매 등 신경계 질환, 당뇨병·고혈압 등 대사성 질환, 각종 암 등 많은 질환들의 발병 위험을 낮추고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br/><br/>이날 포항공대 기초과학연구원 임신혁 교수는 “<span class='quot0'>김치, 청국장, 젓갈 등 여러 발효식품엔 다양한 효능을 지닌 프로바이오틱스가 존재하는 데 그 대표 사례가 김치 유산균</span>”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세계김치연구소 등의 김치 유산균 관련 연구를 통해 유산균이 장 활동 개선과 면역력 증강 등을 돕는다는 사실이 입증됐다.<br/><br/>임 교수는 “<span class='quot0'>섭취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서 스스로 군집을 이뤄 정착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최소한 3일에 한 번씩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할 것</span>”을 권했다.<br/><br/>한동대 생명과학부 빌헬름 홀자펠 교수는 “<span class='quot1'>김치 유산균 중 한 종류는 급성 설사와 장의 염증 치료에 효과적이란 사실이 실험을 통해 증명됐다</span>”고 밝혔다.<br/><br/>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도 장내 세균 구성 비율 개선에 유용하다. 올리고당이 포함된 콩류와 콩으로 만든 된장·청국장 등 발효식품, 마늘이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다. 대부분의 프리바이오틱스는 식이섬유 범주에 속한다.<br/><br/>미국 건강자문회사인 뉴트라소스의 수잔 조 박사는 “<span class='quot2'>돼지감자(뚱딴지), 치커리, 야콘 등에 풍부한 이눌린(inulin)과 올리고당을 섞은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인 비피도박테리아(유산균의 일종)의 숫자를 장내에서 최고 35배까지 늘려준다</span>”고 밝혔다. 만성적인 장 트러블에 시달리는 이른바 ‘장트라볼타’라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다.<br/><br/>식생활 개선도 장내 세균의 구성을 정상화하는 데 유효하다. 음식을 소량씩 자주, 천천히 먹는 식습관이 장내 세균의 구성을 건강하게 바꿔준다. 불규칙한 식습관도 피해야 한다.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제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져 장에 부패물질이 쌓여 장내 환경이 악화된다. <br/><br/>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항상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사람들은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오히려 세균감염의 위험성을 높이며, 잘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15.txt

제목: 김대중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 신건 전 의원 별세  
날짜: 20151124  
기자: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4939090  
본문: 김대중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신건 전 의원이 24일 오후 6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4세.<br/><br/>신 전 의원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5~6공 시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 4과장을 거쳐 중수부장, 법무부 차관까지 지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의 법률특보로 정치에 참여했다. <br/><br/>이후 국정원 1·2차장을 거쳐 2001년부터 2003년 초까지 제25대 국정원장을 지냈다. 그는 2005년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 도청, 감청을 묵인한 혐의(X파일 사건)로 구속됐다가 2006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수사를 지휘했다.<br/><br/>2009년 4·29 재·보궐선거 당시 고향인 전주 완산갑에서 18대 국회의원에 선출됐다. 19대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br/><br/>신 전 의원은 최근 폐에서 시작된 암이 장기로 전이돼 투병해왔다. 1년 전쯤 폐 쪽에 종양이 발견돼 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메르스 여파로 정기검진을 못 받던 시기에 암이 전이됐으며, 최근에는 어깨 근육을 다쳐 수술을 받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한수희씨(73)와 장남 신혁, 딸 수연·수정·수아씨 등 1남 3녀가 있다. <br/><br/>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8일 오전 7시. (02)3010-2631<br/><br/><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16.txt

제목: 전립선암 사망률, 30년 새 10배로  
날짜: 20151123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4815545  
본문: ㆍ지방섭취·운동부족 원인<br/><br/>지난 30년간 전립선암 환자 사망률이 10배 이상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br/><br/>공주대 보건행정학과 임달오 교수팀은 1983~2012년 국내 13개 주요 암의 사망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br/><br/>2012년 연령표준화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을 보면 전립선암 사망률은 1983년보다 10.5배 늘어 암 사망 증가율 1위에 올랐다. 대장암(3.7배)과 췌장암(2.9배)이 뒤를 이었다.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전립선암 환자는 2012년 기준 남성 암 환자의 8.2%, 대장암은 15.5%, 췌장암은 2.6%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팀은 전립선암 사망률이 증가한 원인으로 지방섭취, 운동부족 등을 꼽았다. 연구팀은 “경제개발이 진행 중인 국가는 사망률이 증가하고 더 풍족한 국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한국에선 2002년 이후부터 조기검진, 건강관리행태 개선 등으로 전립선암 사망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여성은 췌장암(4배), 비호치킨림프종(3.4배), 뇌암(3.1배) 등의 사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br/><br/>사망률이 크게 감소한 암도 있었다. 남성은 위암 사망률이 73.2%, 간암이 30% 줄었고 여성도 위암은 73.3%, 간암은 16.8%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도 바뀌어 1983년 남성(83.5명)·여성(23.1명) 모두 위암이었으나, 2012년엔 폐암이 남성(44.4명)·여성(16.5명) 모두 1위였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17.txt

제목: “보험, 이젠 편하게 골라 담으세요”  
날짜: 20151123  
기자: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4738362  
본문: 여러 보험상품을 인터넷에서 한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 오는 30일 문을 연다. 내년에는 인터넷 포털 검색만으로 가격비교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사고 유무 등 할인·할증 요인까지 반영한 보험료 비교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보험사들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지고 온라인 전용상품 개발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br/><br/>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3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 시연회를 개최했다. 오는 30일 오픈 예정인 보험다모아는 가입자가 간단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보험사별 상품가격·보장 내용을 비교하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현재까지 이곳에 등록된 보험상품은 단독실손보험(25개), 자동차보험(11개), 여행자보험(7개), 연금보험(36개), 보장성보험(85개), 저축성보험(43개) 등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보험 6종, 207개 상품이다. 상품 숫자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br/><br/><br/><br/>임 위원장은 이날 직접 자동차보험 가입을 시연했다. 절차에 따라 먼저 차량을 대형차로 설정하고 만 51세 이상, 가입경력 3년, 운전자 최소 연령 35세 특약, 1인 한정, 전담보 등 조건을 차례로 설정하자 상품 11개가 보험료가 낮은 순서대로 정렬돼 나왔다.<br/><br/><br/><br/>금융위와 보험업계는 30일부터 시범운영을 한 뒤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년 4월까지 온라인 전용상품의 보장범위를 지수화하고, 상품별 사업비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격비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 슈퍼마켓 정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제공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br/><br/>보험료 비교 기능도 한층 정교해진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 유무 등 할인·할증 요인을 반영해 설계한 실제 보험료를 보험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내년 상반기까지 탑재하기로 했다. 암보험과 어린이보험은 동일한 보험금과 보장범위 기준을 설정해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기로 했다.<br/><br/><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18.txt

제목: 한미약품 ‘항암신약’ 미국에 2번째 임상시험 신청  
날짜: 20151123  
기자: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4738692  
본문: ㆍ중국엔 폐암신약 기술 이전<br/><br/>한미약품이 다양한 암에 효과가 있도록 개발한 항암신약이 미국에서 ‘임상 2상’ 시험에 들어간다.<br/><br/>한미약품은 미국 항암제 전문기업 스펙트럼에 판권을 넘긴 항암신약 ‘포지오티닙’의 임상 2상 허가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상 2상은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효능과 부작용을 확인하는 단계다. 임상 2상 이후엔 임상 3상을 거친 뒤 시판이 이뤄진다.<br/><br/>포지오티닙은 한미약품이 보건복지부 항암신약개발사업단과 공동 개발한 것으로, 여러 암에서 관찰되는 허(HER)라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신약이다.<br/><br/>시험은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유방암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실시된다. 국내에서는 유방암 외에도 비소세포폐암, 두경부암의 임상 2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 진행될 임상 2상의 투여용량과 주기는 국내 임상을 토대로 결정된다.<br/><br/>한미약품 이관순 대표는 “<span class='quot0'>미국 임상 2상은 포지오티닙 상업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3월 스펙트럼과 포지오티닙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 합의에 따라 계약금과 개발단계 로열티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br/><br/>한미약품은 또 중국 생명공학기업 자이랩과 내성표적 폐암신약(HM61713)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은 700만달러(약 82억원)로 임상 개발, 허가, 상업화 등 단계에 따라 최대 8500만달러(약 985억원)를 받는 조건이다. 이번 계약으로 자이랩은 중국 전역에서 HM61713의 독점 권리를 갖게 됐다.<br/><br/><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19.txt

제목: [과학오디세이] 같은 주제, 상반된 결론은 왜  
날짜: 20151123  
기자: 김훈기 |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4758544  
본문: 과학계에서는 익숙하지만 일반인에게는 낯설게 다가오는 사실 하나.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상반된 결론이 나오는 일이 흔하다는 점이다. 당연하다. 과학적 연구는 특정 문제에 대해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며 답을 찾는 행위이지만 연구자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 있다. 문제는 인체와 생태계에 치명적인 사안에 대해 과학계가 상반된 결론을 내릴 경우 일반인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럴 때 정부가 나서 양쪽의 입장을 정리하고 알기 쉽게 소개함으로써 일반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일 것이다. 최근 과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초제 논란을 보며 떠오른 생각이다.<br/><br/>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글리포세이트 계열의 농약이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제초제로 농가는 물론 공원, 늪지 등의 관리를 위해 살포되고 있다. 이전까지 미국 환경청(EPA)은 글리포세이트가 인체에 치명적이지 않다고 밝혀왔다. 다른 제초제에 비해 독성이 약하다고 판단해온 과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였다. 글리포세이트의 사용량은 유전자변형 농작물(GMO)의 등장으로 대폭 늘어났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는 GMO는 제초제를 뿌렸을 때 잘 죽지 않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GMO에 살포하는 주요 농약이 바로 글리포세이트 계열이었다. 한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1974년부터 2014년 사이에 그 사용량이 240% 증가됐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IARC의 발표는 세계 농가와 소비자에게 큰 충격을 던졌다.<br/><br/>그런데 지난 12일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정반대의 결론을 발표했다.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당장은 안심이 된다. 하지만 이 결론에 대해 논란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 다시 혼란스러워진다.<br/><br/>먼저 두 기관은 동일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대상을 조사했다. EFSA는 글리포세이트 성분 자체의 위해성을 검토했다. 이에 비해 IARC는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함유된 제품까지 조사 대상에 넣었다. 현재 그 제품의 수는 70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EFSA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인간의 유전자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발암성 물질은 글리포세이트 자체가 아니라 최종 제품에 섞여 있는 다른 성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EFSA는 IARC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한 연구원은 글리포세이트의 위해성에 대해 이전보다 좀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br/><br/>두 연구기관이 검토한 논문이나 보고서의 종류도 다르다. IARC는 관련 산업계의 연구결과를 일부러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산업계의 지원을 받지 않은 학자나 공공부문의 연구결과만 분석했다. 또한 17명의 과학자가 무기명으로 제출한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렸다. 이에 비해 EFSA는 산업계의 연구결과를 포함시켰다. 애초에 검토자료가 달랐다면 결론이 상이하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산업계는 글리포세이트가 세계 각국 규제당국의 관리 아래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br/><br/>한편에서는 EFSA의 결정에 성급히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반론이 나올 것이라 예상된 상황이었으므로, 우선 EFSA 주장의 근거를 과학적으로 충분히 따져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미국 EPA 역시 산업계의 자료를 포함해 검토한 결과 EFSA와 동일한 결론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일리 있는 얘기이다. 다만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리포세이트의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br/><br/>최근 미국 캘리포니아는 주정부 차원에서 암이나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글리포세이트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일반인은 일단 상황을 알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글리포세이트 사용에서 예외가 아닌 한국에서는 상황 자체에 대한 정보도 잘 알려지지 않는 듯하다.<br/><br/><김훈기 |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20.txt

제목: [경향마당] 설탕과 비교? 과일은 억울하다  
날짜: 20151123  
기자: 김영성 | 신한대 교수·식품공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4757905  
본문: 얼마 전, 아침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상한 내용을 봤다. 과일주스의 당도를 측정하더니 이를 설탕의 당도와 비교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과일주스와 설탕을 비교하다니. 과일의 단맛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당의 종류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있다. 포도당은 신진대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돕고 뇌 활동의 원천이 된다. 과당은 설탕의 1.7배에 해당되는 단맛을 나타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고 하여 당뇨환자의 대체 감미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비환원당인 설탕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 등을 과다 소모시켜 신체의 정상적인 대사에 부담을 준다.<br/><br/>설탕의 당도를 과일을 직접 착즙한 주스의 당도와 비교했다. 일반적으로 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브릭스(Brix)를 사용한다. 1브릭스는 100g 안에 들어있는 1g의 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액체 속에 녹아있는 가용성 고형분의 총량이 1g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용성 고형분에는 당뿐만 아니라 염, 단백질, 유기산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순전히 브릭스가 높다는 것이 높은 당도를 나타내진 않는다. <br/><br/>실제 100㎖당 콜라의 당 함량은 11g으로 우유의 5g보다 2배 이상 높으나 당도를 측정하게 되면 우유는 12브릭스, 콜라는 10브릭스로 오히려 우유의 당도가 높다. 따라서 브릭스의 수치가 당 함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br/><br/>우리가 과일주스를 먹는 목적을 다시금 생각해 보자. 설탕이나 탄산음료는 단맛의 중독성 때문에 계속해서 마시게 되나 과일주스를 찾는 이유는 바로 ‘건강’ 때문이다. 과일에 포함된 형형 색깔의 파이토케미컬은 심혈관질환이나 암, 뇌졸중 등을 일으키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과일주스에는 천연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고 체내 흡수율이 높아 영양소 섭취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따라서 다른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유기화합물인 설탕과의 잘못된 당도 비교로 건강을 위해 먹는 과일이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내용은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br/><br/><김영성 | 신한대 교수·식품공학>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21.txt

제목: 이화의료원, 한국PR대상 ‘최우수상’…이대여성암병원 브랜드 성공  
날짜: 20151123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4652691  
본문: 이대여성암병원은 검진부터 진료, 환자 케어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암 환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시행했다. 먼저 여성의 몸을 잘 아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여성암 전문 인력 충원 및 최첨단 장비 도입은 물론,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여성 전문 건강증진센터를 개소했다. 또 국내 최초로 여성암 환자 전용 레이디병동을 운영하며 여성친화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br/><br/>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김승철)이 ‘여성의 몸과 마음을 잘 아는 병원, 이대여성암병원 브랜드 차별화 프로젝트’로 지난 20일 한국PR협회에서 주최하는 ‘2015 한국PR대상’ 최우수상을 수상(사진)했다.<br/><br/>23일 의료원 측에 따르면 이대여성암병원 브랜드 차별화 프로젝트는 치열해진 의료 시장의 경쟁 속에서 이화의료원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시작되었다. 1887년 국내 최초 여성병원인 보구여관(保救女館)을 전신으로 하는 이화의료원은 우수한 여성 질환 전문 인력을 보유한 차별화된 자산과 여성의 평균 수명 증가로 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여성암 분야를 특화·육성하게 되었다.<br/><br/>이대여성암병원은 효과적인 치료와 치료 후 빠른 사회복귀를 돕는 ‘파워업 프로그램’ 및 명의와 함께하는 여성암 환자 힐링 여행, 여성암 환자 10년 생존 축하 파티, 암 극복 프로젝트 콘서트 등을 진행하며 여성암 환자들의 정서적 치유까지 돌보았다.<br/><br/>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암 무료 검진 사업과 함께 여성 건강 8대 수칙 및 여성 생애 주기별 건강 검진법, 연령별 유방 건강법 등을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여성건강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br/><br/>이대여성암병원 백남선 원장은 “<span class='quot0'>앞으로도 이대여성암병원은 국내 여성암 치료 대표 병원으로서 여성암 환자에서 더 나아가 모든 여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span>”이라고 소감을 밝혔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22.txt

제목: 예민한 두피를 위한 자연유래 95% 내츄럴 샴푸 ‘눈길’  
날짜: 2015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4431049  
본문: 예민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부터 샴푸까지 반드시 전성분을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 막상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 제품 선택에 앞서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br/><br/>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의 대다수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합성계면활성제, 실리콘, 미네랄 오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분들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지만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는 여전히 많지 않다.<br/><br/>특히 합성계면활성제는 피부를 통해 체내에 유입된 후 체외로의 배출이 10%정도 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루에 한번 머리를 감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1년 365일동안 꾸준히 유해물질을 몸에 축적시키고 있는 셈이다.<br/><br/>그렇다면 좀 더 순하고, 아이들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샴푸는 없는 것일까? 최근에 소셜커머스와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는 성분, 가격, 용량이 착한 샴푸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제품이 있다. 바로 천연계면활성제를 사용한 ‘르퀼라야 퓨어10 샴푸’이다.<br/><br/>르퀼라야 퓨어10 샴푸는 이번에 GS홈쇼핑을 통해 런칭되는 자연성분 95%의 내츄럴 샴푸이다. 자연에서 온 천연 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민한 두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으며, 먹는 것까지 조심해야 하는 임산부 및 아이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br/><br/>르퀼라야 퓨어10의 핵심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퀼라야’는 합성계면활성제 대신 사용되는 천연세정성분으로 남미에서 주로 자라는 나무로써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순하며, pH 5.5-6.0로 약산성을 띄고 있어 탈모와 두피&모발케어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br/><br/>이외에도 유기농 인증을 받은 암라는 비타민 함유량이 라임의 4배 가까이되어 모발과 모근에 영양을 공급해주며, 팔각회향과 황금은 두피 보호 및 진정효과를 준다.<br/><br/>르퀼라야 퓨어텐 샴푸는 효능 효과도 10가지나 가지고 있는데, 두피피지세정, 두피각질세정, ph밸런스케어, 모발탄력개선, 열손상모개선, 모발볼륨지속, 모발인장강도 개선, 컬유지, 염색유지, 모발윤기케어 등의 헤어케어를 집에서 셀프로 가능하게끔 돕는다.<br/><br/>GS홈쇼핑의 르퀼라야 퓨어10 샴푸는 오는 11월21일(토) 오후 1시 55분부터 75분간 방송될 예정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23.txt

제목: ‘한국 사위’ 호건 미국 주지사 “암 완치”  
날짜: 20151117  
기자: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4011547  
본문: 5개월여간 암과 싸워온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사진)가 암 완치를 선언했다. 호건 주지사는 16일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주정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an class='quot0'>믿기지 않지만, 이날로 나는 100% 암 완치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0'>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와 메릴랜드주 언론들은 호건 주지사가 지난달 암의 일종인 비호지킨림프종에 대한 화학치료의 마지막 단계를 끝냈다고 설명했다.<br/><br/>한국계 아내 덕에 ‘한국 사위’로 불린 호건 주지사는 지난 6월 기자들 앞에서 림프종 3~4기 진단을 받았음을 공개했다. 투병 생활 중에도 호건 주지사는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물론, 치료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빠진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는 등 강한 투병 의지를 보여왔다. <br/><br/>호건은 2004년 한국계 미국인 유미 호건과 결혼한 뒤 “한국 사위”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주지사 취임 이후 지난 5월 첫 외국 순방길에 올라 한국을 찾았고, 미국 내 한인 지위 향상에 공헌한 공로로 한양대 정치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br/><br/><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24.txt

제목: [경향마당] 당뇨병 관리, 당화혈색소부터 챙겨라  
날짜: 20151116  
기자: 권혁상 | 여의도성모병원 교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3826688  
본문: 바둑에서 20년 가까이 정상의 자리를 지켰던 한 바둑 기사는 승리의 비결을 ‘정수’(定手)라고 밝혔다. 줄기차게 이겨야 우승하는 바둑에서 ‘암수(속임수)’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지만, 줄기차게 이기려면 괴로워도 ‘정수’가 최선이기 때문이다.<br/><br/>이는 단 한 순간도 관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만성질환인 당뇨병에도 적용되는 교훈이다. 당뇨병 치료에서 정수는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며 이는 곧 당화혈색소(HbA1c) 수치라는 결과로 나타난다.<br/><br/>암(癌)도 완치가 가능한 시대라지만 당뇨병은 어떤 면에서는 암보다 까다롭다. 수술로 치료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당뇨병에 있어서는 OECD 국가 중 사망률이 다섯 번째로 높을 정도로 치료 예후가 불량하다. <br/><br/>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예방 및 혈당 관리를 위해 목표 당화혈색소 수치를 6.5% 이하로 조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약 400만명에 달하는 당뇨병 환자 중 치료를 받는 환자 가운데 당화혈색소 수치를 6.5%로 유지하고 있는 환자는 27.9%에 불과하다. 10명 중 7명의 당뇨병 환자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br/><br/>당뇨병은 합병증이 치명적인 질환인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r/><br/>연구에 따르면 당화혈색소 수치를 1% 낮추면 미세혈관합병증은 37%, 심근경색은 14% 감소된다. 당화혈색소 수치 1%의 차이는 이미 발생된 합병증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합병증 발생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br/><br/>정부도 당화혈색소 조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당뇨병 합병증을 줄이고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속관리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당뇨병 치료율을 60%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br/><br/>지난 11월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이었다. 국제당뇨병연맹(IDF)은 올해 ‘건강한 먹거리(Heathy eating)’를 주제로 공익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것이 당뇨병 관리의 기본이며 정수이다. 정도를 걷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치료야말로 당뇨병 관리의 달인(達人)이 되는 첫걸음이란 사실을 명심하고 실천했으면 한다.<br/><br/><권혁상 | 여의도성모병원 교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25.txt

제목: 두번째 금연 광고 공개···“폐암 하나 주세요”  
날짜: 20151116  
기자: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3819835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에 이어 두번째 금연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br/><br/>16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이 영상에서는 흡연자들이 가게를 찾아 “후두암 1㎎ 주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 “뇌졸증 두 갑 주세요”라고 말한다. 흡연이 각종 암 등 질병을 유발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br/><br/>영상 마지막에는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라는 문구가 등장한다.<br/><br/><br/><br/> <br/><br/><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26.txt

제목: 국내 첫 호스피스 병원 강릉 갈바리의원 ‘아산상’ 대상  
날짜: 20151115  
기자: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3647513  
본문: 국내 첫 호스피스 병원인 강릉 갈바리의원(사진)이 제27회 아산상 대상에 선정됐다고 아산사회복지재단이 15일 밝혔다.<br/><br/>천주교 수녀회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가 운영하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인 갈바리의원은 1965년 3월 문을 열고 수많은 말기 암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왔다. ‘갈바리’는 예루살렘 북쪽 언덕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장소다.<br/><br/>개원 당시에는 호스피스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 이에 의료진은 직접 환자의 집을 방문해 호스피스 활동을 했고, 가난한 사람이나 노숙자, 무연고 환자들을 위해 인근 여관을 빌려 인술을 펼치기도 했다. 50년간 호스피스의 표준을 세우고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갈바리의원 오진복 원장수녀는 “<span class='quot0'>자살 같은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세상에서 한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임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span>”고 말했다. <br/><br/><br/><br/>한편 의료봉사상은 23년간 의료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에서 제자 2000여명을 길러내고 병원을 설립한 우간다 마케레레대 의과대학 유덕종 명예교수에게, 사회봉사상은 자살예방 활동에 힘써온 한국생명의전화에 각각 돌아갔다.<br/><br/>아산상 시상식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풍납동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열린다. 대상에 3억원을 수여하는 등 7개 부문 12명의 수상자에게 총 8억4000만원의 상금을 준다. <br/><br/>아산상은 재단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인 정주영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한 개인·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1989년 제정됐다.<br/><br/><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27.txt

제목: ‘국민추천제 1호 공무원’ 탄생  
날짜: 20151115  
기자: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3611008  
본문: ㆍ김대철 동아대병원 과장,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임용<br/><br/>국민들에게 직접 후보자를 추천받아 부처 공무원을 임명하는 국민추천제가 시행 8개월 만에 첫 공직자를 배출했다.<br/><br/>인사혁신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고위공무원단·국장급 개방형 직위)에 김대철 동아대병원 병리과장(47·사진)을 국민추천제 1호 공무원으로 16일 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올 3월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는 정부부처의 장차관 등 정무직과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 공직 후보자를 국민 추천(자·타천)을 받아 선정하는 제도다. 10월 말까지 674명이 추천돼 623명이 등록된 상태다.<br/><br/>부산 동아대 의대·대학원(석·박사)을 졸업한 김대철 신임 부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영국 퀸스메리대병원 교환교수(암병리학)를 거쳐 동아대병원 병리과장으로 재직해 왔다. 한국과 영국에서 20년 넘게 해부병리와 변이세포병리, 분자병리 등을 연구했고 세포유전자 치료와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연구·검증 경험이 있다. 임상 경험도 많아 한·양방 의약(외)품, 화장품의 안전성 심사, 품목 허가 등을 총괄하는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적임자로 인사처는 평가하고 있다. 김 부장은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실에서 해당 직위에 대한 인재공모를 시작하자 스스로 자천해 최종 선발됐다.<br/><br/><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28.txt

제목: [책과 삶]낯선 삶들에 다가선 공감의 시선  
날짜: 20151113  
기자: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3505627  
본문: ㆍ카메라, 편견을 부탁해 <br/>ㆍ강윤중 지음 |서해문집 | 328쪽 | 1만3900원<br/><br/>“<span class='quot0'>서는 데가 다르면 풍경도 달라진다.</span>” 드라마 <송곳>에서 주인공 구고신(안내상)의 대사다. 그는 자신의 노동법 수업을 듣는 노조원들에게 “<span class='quot0'>10년 동안 노조위원 하던 사람도 사장이 되면 노조부터 없앤다</span>”며 “당신들도 조심하라”고 이야기한다.<br/><br/><br/>노조위원과 사장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저마다 다른 풍경을 보고 살아간다. 다른 이가 바라보는 풍경을 느끼려 애도 써 보지만 공감하기는 어렵고 편견에 빠지기는 쉽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가난하지 않아 가난한 이의 한숨을 모르고, 이성애자라 동성애자의 고통을 모르고, 늙지 않아 나이 든 어르신의 외로움을 모른다. 남의 땅에서 일해 보지 못해 이주노동자의 절망을 모른다.”<br/><br/>현직 사진기자인 저자는 카메라를 들고 ‘낯선 삶’들에 다가갔다. 난민과 이주노동자, 무슬림, 동성애자, 말기암 노인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 다른 자리에 선 이들이 바라보는 풍경을 함께 보려 애쓴 것이다. 책 속의 16개 꼭지마다에는 카메라에 담은 낯선 풍경과 취재수첩에 옮겨 적은 낯선 삶의 이야기가 함께 실렸다.<br/><br/>솔직함은 이 책의 또 다른 미덕이다. 카메라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스스로 느껴야 했던 불안과 걱정, 때로는 죄책감까지 가감 없이 풀어놓는다. 저자 자신의 무지와 편견도 숨기지 않는다. 5개 국어를 한다는 동성애자에게 칭찬 삼아 “게이들은 섬세해서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가 선입견이라고 면박을 들었다며 “게이들을 만나며 머리에서 또 입안에서 지우고 삼켜 버린 말들이 얼마나 많았던가”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br/><br/>저자가 앞서 감당한 덕분에 독자들은 책을 통해 낯선 삶들에 스스럼없이 다가설 수 있다. “<span class='quot0'>바로 ‘나’일 수도 있는 주변의 삶을 공감해 보려는 것</span>”이 이 책의 독법이다.<br/><br/><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29.txt

제목: 모바일 AP와 모뎀을 ‘칩 하나’에  
날짜: 20151112  
기자: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3315003  
본문: 삼성전자, 첫 독자 설계 반도체 공개…갤럭시 S7에 탑재<br/><br/>삼성전자가 처음으로 독자 설계한 중앙처리장치(CPU) 코어를 적용해 모뎀 기능을 칩 하나에 통합시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사진)를 12일 선보였다. <br/><br/>AP는 스마트폰 두뇌에 해당된다.<br/><br/><br/>삼성전자는 14나노(1㎚·10억분의 1ｍ) 핀펫(FinFET·3차원 입체 구조의 칩 설계 및 공정 기술) 공정을 적용한 프리미엄급 2세대 모바일 반도체인 ‘엑시노스 8 옥타(8890)’를 공개했다.<br/><br/>올 초 세계 최초로 양산한 14나노 1세대 제품 ‘엑시노스 7 옥타’는 모바일 AP 단품이지만 이번에 발표한 2세대 제품은 모바일 AP와 모뎀을 하나의 칩으로 통합했다. <br/><br/>이 통합 칩에는 ‘빅리틀 멀티프로세싱’ 기술이 탑재됐다. 두뇌 역할을 하는 8개의 코어가 작업 종류에 따라 필요한 만큼 개별적으로 작동해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br/><br/>LTE 모뎀 성능도 뛰어나다. 최대 600Mbps의 다운로드 속도와 150Mbps의 업로드 속도를 낼 수 있다.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과 실시간 공유를 지원한다.<br/><br/>‘엑시노스 8 옥타’는 기존 64비트 CPU 코어에 삼성전자의 ‘커스텀(Custom) 코어’를 처음 적용했다. <br/><br/>커스텀 CPU 코어란 기존의 CPU 코어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를 자체적으로 변경한 코어이다. 이를 통해 기존 1세대에 비해 성능은 30% 이상 높이면서도 소비전력은 10%가량 절감했다. ‘엑시노스 8 옥타’는 암(ARM)사의 64비트 코어인 ‘ARMv8’을 기반으로 성능을 더 높이고 소비전력을 낮췄다.<br/><br/>삼성전자는 이번 제품 개발로 반도체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br/>자체 설계한 CPU 코어를 적용하는 회사는 애플과 퀄컴 정도다. 원칩 기술을 가진 곳은 퀄컴이 유일했다.<br/><br/>삼성전자는 칩을 올해 말부터 양산해 내년 초 공개할 갤럭시 S7에 탑재할 예정이다.<br/><br/><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30.txt

제목: 칠레 정부, 파블로 네루다 타살 가능성 인정  
날짜: 20151106  
기자: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2526374  
본문: 살바도르 아옌데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칠레의 대표 시인 파블로 네루다(사진)가 군부에 타살당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칠레 정부가 인정했다.<br/><br/>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5일(현지시간)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네루다가 다른 이유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칠레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칠레 내무부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같은 내용의 문건을 지난 3월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이 문서는 “네루다의 죽음은 제 3자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내무부는 전문가 조사단이 아직 논쟁중이며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도 밝혔다.<br/><br/>네루다는 칠레뿐만 아니라 20세기 중남미와 전세계의 대표 시인 중 하나로 꼽히며, 197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칠레의 대표적 좌파 정치인이기도 하다. 1945년 상원의원으로 당선되고 공산당에 입당했으며 야당 시절 탄압을 받아 도피생활을 하기도 했다. 절친한 사이였던 아옌데 전 대통령이 1970년 당선된 뒤에는 파리 주재 칠레 대사로 임명됐다. 하지만 1973년 9월11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미 중앙정보국(CIA)의 지원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아옌데 전 대통령을 축출했다. 아옌데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br/><br/>네루다는 충격을 받고 망명을 계획했지만 칠레를 떠나기 하루 전날이던 9월23일 병원에 실려갔고, 갑작스레 사망했다. 69세의 비교적 고령이었고 전립선암과 다른 질병들로 치료를 받고 있던 네루다의 죽음은 공식적으로는 자연사로 정리됐다.<br/><br/>하지만 군부가 그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1990년 칠레 민주화 이후 논란은 더욱 커졌다. 네루다의 운전사이자 비서는 2011년 네루다가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 피노체트 정권에 독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칠레 정부는 2013년 그의 시신을 조사했고, 독살당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네루다의 유족들은 이 발표를 믿지 못하고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br/><br/><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31.txt

제목: 광양시 운영 금연클리닉 이용자 늘고 성공률도 높아  
날짜: 20151106  
기자: 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2444405  
본문: 전남 광양시(시장 정현복)가 시민 건강행복을 위해 운영중인 ‘금연클리닉’의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등록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br/><br/>광양시는 기업, 학교 등 지역자원과 연계해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의 등록자수가 매년 늘고 금연 성공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br/><br/>시는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이끌기 위해 2005년부터 광양읍 시보건소에서 매주 월~금요일, 중마통합보건지소는 매주 월·수요일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br/><br/>등록자에게는 9회 이상 상담과 일산화탄소 측정, 최대 12주 간 니코틴 보조제를 지급하고 6개월 후 니코틴반응검사(소변검사)를 통해 소정의 금연성공 기념품도 지급하는 등 시민 건강을 지키는데 힘쓰고 있다.<br/><br/>이에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도 2013년 1485명, 2014년 1498명, 올해는 10월 말 현재 15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br/><br/>이같은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해의 경우 61.2%인 920여 명이 금연에 성공했다.<br/><br/>광양시 김경식 건강진흥팀장은 “<span class='quot0'>장기 흡연은 본인은 물론 가족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와 가족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span>”고 말했다.<br/><br/>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는 ‘흡연은 사망의 첫 번째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br/><br/>세계 성인 10명중 1명(매년 600만 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했다.<br/><br/>현재의 흡연습관이 지속되면 선진국의 경우 전체 사망의 28%, 전체 암 사망의 35%, 그리고 폐암사망의 89%가 흡연에 기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br/><br/>다만 흡연이 가장 큰 사망 원인이기는 하나, 공중보건학적으로도 충분히 교정 가능하다.<br/><br/>시 측은 “니코틴 중독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금연 중재 프로그램에 따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br/><br/><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32.txt

제목: 여수시 재가 암환자에 활력 영화관람 등 문화체험  
날짜: 20151106  
기자: 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2440309  
본문: 전남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가정에서 힘겹게 암 투병생활을 하는 재가 암 환자를 초청해 문화체험 행사를 열었다.<br/><br/>여수시 보건소(소장 남택수)는 지난 4일 지역내 재가 암 환자와 가족·봉사자 등 30여명과 함께 문화체험을 했다고 6일 밝혔다.<br/><br/>행사는 암 투병으로 지친 암 환자들에게 문화체험을 통해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환자들 간에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기획했다.<br/><br/>참가자들은 여수 웅천 CGV에서 한국영화‘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를 관람한 뒤 서로의 고충과 암 극복 경험담을 함께 나누며 마음의 공감대를 형성했다.<br/><br/>이날 참여한 한 환자는 “암 투병 생활 속에서 영화 관람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줘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주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br/><br/>여수시 보건소에는 현재 602명의 재가 암 환자가 등록해 있으며, 시는 월 한차례씩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 행사를 열고 있다.<br/><br/>행사는 주로 ‘원예치료’와 ‘미술요법’, ‘요리교실’ 등 자연치유 힐링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br/><br/>시 보건소는 이를 통해 재가 암 환자들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 넣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토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br/><br/>여수시 정혜정 중부보건지원과장은 “<span class='quot0'>평소 외로움과 함께 소외감을 갖는 재가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다양한 문화체험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33.txt

제목: [문학수의 극장에서 놀다]연극 ‘비포 애프터’…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레퀴엠’  
날짜: 20151105  
기자: 문학수 선임기자 sachim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2344652  
본문: ㆍ올해 한국 연극이 보인 빛나는 성과 …아낌없는 박수를<br/><br/>연극이 끝나도 사람들은 자리에서 쉬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면서 어떤 깊은 한숨 같은 것이 새어나왔습니다. 박수를 치는 관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 이것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레퀴엠이구나’라고, 관객들은 이미 몸으로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 레퀴엠이 분노만으로 점철됐다면, 또는 ‘세월호’라는 소재주의에만 함몰됐다면, 이렇게 온몸의 세포들을 깨우며 지난해 4월16일의 기억과 마주하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연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묻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당신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것은 당신의 아픔인가, 아니면 그저 타인의 고통인가?’ <br/><br/><비포 애프터>는 연극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배우 6명이 자신이 실제 겪은 이야기들을 주욱 털어놓으면서,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이 ‘느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성수연은 암에 걸린 아버지를 곁에서 바라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아버지의 몸과 자신에게 다가왔던 매 순간의 느낌을 섬세하게 서술합니다. 채군은 친구의 죽음 이후에 느꼈던 부채감을, 장성익은 대학 시절 시위에 나섰다가 실명을 할 뻔한 기억과 그후의 무기력증을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기억을 고백하면서 지난해 4월16일 일어났던 사건 속으로 관객들을 데려갑니다. 해석하거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그날 일어났던 일을 ‘날것’으로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배우 장수진은 ‘국가’를 인격화해 다양한 표정으로 보여줍니다. 초조해하고, 도망치고, 무책임하고, 뻔뻔하고…. 국가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납니다.<br/><br/>관객에게는 이미 희미해진 기억들이 점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어느 정도 연민을 느꼈지만 이제는 거의 빛바랜 기억들이 현실 속의 이야기로 하나하나 되살아납니다. 어떤 이들은 공감하면서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서서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연극은 계속 묻습니다. 당신은 세월호를 과연 느끼는가? 아니면 그냥 알고 있을 뿐인가?<br/><br/>한 편의 연극이 ‘완결된 희곡’에서 비롯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비포 애프터>는 헷갈리는 연극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무슨 연극?’이라며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예술은 ‘작품’보다는 ‘작업’ 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완결된 텍스트가 아니라 창작자와 연희자(배우), 그리고 관객들이 서로 소통하는 ‘예술적 행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br/><br/><br/>이 연극이 바로 그렇습니다. 작가 겸 연출가 이경성은 ‘자신이 쓴 연극’이라는 표현에 도리질을 합니다. 그는 극단 ‘크리에이티브 VaQi’가 함께 만든 연극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말처럼 이 연극의 대본은 배우들과의 오랜 토론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작업 모토는 이렇습니다. “<span class='quot0'>언어 중심의 연극이 아니라 오브제와 몸, 미디어와 설치미술 같은 다양한 예술적 재료를 활용한다.</span>” “<span class='quot0'>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회 속에서 테마를 찾는다.</span>” “<span class='quot0'>리서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거기서 도출된 기록, 의식의 변화, 깨달음 등을 공연예술 언어로 표현한다.</span>”<br/><br/>연출가 이경성은 그동안 다양한 형식을 통해 한국 사회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실험을 해왔습니다. 한데 이번 연극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그런 형식의 문제보다는 그가 보여주는 세상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서른두 살이라는 젊은 나이를 잊게 만듭니다. 감히 말하건대, 올해 한국 연극이 거둔 빛나는 성과 가운데 한 편입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낸 배우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7일까지 두산아트센터.<br/><br/><문학수 선임기자 sachim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34.txt

제목: 지극한 마음으로 찾는 남해의 숲…거센 바람은 멈추고, 간절한 바람은 통한다  
날짜: 20151104  
기자: 남해 | 글·사진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20104732375  
본문: 경남 남해 독일마을 언덕에 오르면 해안을 따라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아름드리 숲이 보인다. ‘바람이 멈추는 숲’이다. 숲은 본래 제 스스로 바람을 일구며 늘 술렁이는 곳이다. ‘저희끼리 손을 비비며 놀고 있는 자잘한 소리, 마을에서 마실 나온 소리, 그러다가도 몸이 휘어질 만큼 성이 나서 솟구치는 소리, 아무 뜻 없이 심심하게 제 이파리나 흔들어보는 소리’들로 쉼없이 일렁이는 곳이 숲이다. 그런데 바람이 멈추는 숲이라니. 바람이 멈추는 숲은 ‘운명을 바꾸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비밀의 장소를 품고 있다. 두 손을 모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미륵암, 두 손을 마주 잡고 촛불을 켜면 사랑을 지켜준다는 팽나무. 남해의 또 다른 영지다.<br/><br/>■바람이 멈추는 숲과 미륵<br/><br/>암바람이 멈추는 숲은 독일마을에서 직선으로 1㎞, 걸어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정식 명칭은 ‘물건방조어부림(勿巾防潮魚付林)’이다. 물건은 물건리 마을 이름이고, 방조어부림은 해일을 막고 물고기를 유인하는 숲이란 뜻이다. 원래는 방조어유림(防潮魚遊林)으로 불렸는데 언제부턴가 방조어부림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길이가 1.5㎞에 이르고 폭이 30m나 된다. 바닷바람 등을 막아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300여년 전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이다. 1962년 천연기념물 150호로 지정됐다.<br/><br/> 경남 남해 삼동면 물건리 해안에 조성된 천연기념물 ‘물건방조어부림’. <br/>길이가 1.5㎞나 되는 이 숲은 거센 바닷바람과 해일 등을 막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300여년 전에 조성한 숲이다.<br/>바람이 멈추는 숲은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아서인지 울창했다. 잘 닦인 숲길에는 느티나무와 푸조나무, 이팝나무, 팽나무, 후박나무 등 크고 작은 40여종의 나무들과 덩굴식물들이 옹기종기 자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밀려오는 태풍과 마을을 집어삼킬 듯 덤벼드는 해일을 꿋꿋하게 막아준 나무들”이라며 고마워한다.<br/><br/>한참 걷다보면 숲이 끝나는가 싶은 곳에 커다란 불상이 보인다. 담장도 문도 없는 자그마한 절집이다. 마당에는 세월을 가늠할 수 없는 돌들이 쌓여 있다. 삼각 돌탑은 어른 키보다 크다. 남해 넓은 바다를 삶터로 하자면 사람의 힘만으로 거친 파도와 해풍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기도가 필요했으리라. 고기잡이 나간 남편이 살아 돌아오기를, 논과 밭의 곡식이 잘 익기를, 늙은 부모와 어린 자식이 건강하기를 빌고 또 빌었던 곳,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미륵암이라고 불렀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소원 하나는 반드시 들어준다는 믿음’이 미륵암을 세웠다. <br/><br/><br/>“<span class='quot0'>용기를 갖고 있었기에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span>”<br/><br/>독일마을에 사는 서부임씨(68)는 남해 일출을 바라보며 날마다 희망을 채운다고 했다. 그는 1970년대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무작정 독일 간호사에 도전해 용감하게 살아왔다. 10년 전 고국으로 돌아와 남해에 둥지를 틀었다. 그는 “<span class='quot0'>이곳 사람들은 바다를 향해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삶에 대한 용기를 재충전한다</span>”고 말했다.<br/><br/>■‘고기를 품은 숲’과 영험한 팽나무<br/><br/>바람이 멈추는 숲에서 되돌아오는 길은 바닷가를 택했다. 해변은 몽돌에 반사된 햇살과 몽돌 위에 가지런히 누운 은빛 멸치들로 반짝거렸다. 멸치를 살짝 집어 맛을 보았다. 가을 햇살이 퍼지듯 짭조름한 멸치가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br/><br/><br/>바람이 멈춘 숲은 ‘고기를 품은 숲’이기도 하다. 울창한 나무들이 바다에 오래오래 넉넉한 그늘을 드리우니 녹색을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자연스럽게 육지 가까이 모여든다. 숲이 가까운 바다에는 플랑크톤이 몰려들기 마련인데 그 플랑크톤을 따라 물고기떼가 몰려드는 것이다. 먼바다에 나가지 않고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건 숲을 지킨 마을 사람들에게 하늘이 준 선물이다. 코앞에서 멸치들이 폴짝폴짝 튀어올랐다. 이 은빛 군무는 방조어부림이 여행객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br/><br/>방파제 끝에 마주 보고 선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도 그림 같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신혼부부나 연인들이 반지를 끼워주며 사랑을 약속하는 명소다. 커피전문점 막싸도라의 이상진 사장(52)은 “이곳에선 섬과 섬 사이에서 뜨고 지는 해와 달을 모두 볼 수 있다. 남해의 축복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촛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말했다.<br/><br/><br/>평생소원을 빌면 반드시 들어준다는 팽나무는 숲 끝자락에 있었다. 500년 세월 동안 수천, 수만가지 소망을 들어주느라 허리를 굽힌 것일까. 팽나무는 금세라도 쓰러질 듯이 가지를 늘어뜨린 채 서 있다. 겉으로만 보면 이게 영물일까 싶다가도 이 평범함이 오히려 기도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구나 싶다. <br/><br/>“명당이라고 하지 않남유. 남해 땅의 기운을 받으면 편안하다고 안 합디꺼. 그러니 여서 기도하면 나쁜 기운도 좋은 것으로 되돌려주지 않겄소.” 백한진 할머니(82)는 딸 여섯을 낳았는데 정성으로 기도한 뒤 일곱번째에 아들을 얻었다고 했다. <br/><br/>소원은 진정으로 자기를 비울 때 이루어진다고 한다. 남해에 가시거든 바람이 멈추는 숲에 가서 번잡한 마음의 그릇 말끔히 비우고 지극한 마음으로 소원 하나씩 풀어놓고 오시라.<br/><br/> ■부산~보리암 직행고속버스 운행 독일마을 펜션 1박 18만원선<br/><br/>● 여행 정보 11월12일 수능을 앞두고 남해를 찾는 발길이 부쩍 늘고 있다. 부산에선 보리암까지 직행 고속버스도 다닌다. 부산역에서 출발하는데 주중에는 매달 8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매주 새벽 6시30분부터 운행한다. 설날, 추석, 신년 해맞이 기도를 올리기 위해 보리암을 찾는 사람도 많다. 독일마을이 인기를 끌면서 가족이나 친구끼리 삼삼오오 짝을 이룬 여행객들이 줄을 잇는다. 보리암 입장료는 1000원이다.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보리암까지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왕복 2000원이다. 승용차 주차료는 5000원으로 비싼 편이다. 독일마을에 머물 경우 1박에 13만~15만원이다. 펜션은 18만원, 가족 호텔은 20만원 선이다.<br/><br/><남해 | 글·사진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35.txt

제목: 김치, 가공육·적색육 발암 가능성 싹~ 발효시킨다  
날짜: 20151104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2050847  
본문: 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주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치 유산균과 면역력’ 기자간담회(아래쪽 사진)에서 “<span class='quot0'>가공육·적색육으로 인한 발암 가능성을 낮춰주는 최고의 식품은 김치</span>”라고 국내 소화기내과 의사와 식품영양 전문 학자들이 말했다.<br/><br/>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이동호 교수는 “<span class='quot1'>암은 염증에서 출발하며, 누적된 염증 물질이 유전자(DNA) 손상을 일으켜 암으로 진행된다</span>”며 “<span class='quot1'>식물성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를 즐겨 먹으면 장내(腸內) 염증은 물론 암의 발전·전이 과정을 억제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김치에 든 유산균이 대장암 예방은 물론 초기 대장암부터 진행 암까지 억제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건강 증진 효과를 가진 미생물)란 것이다. 이 교수는 또 “<span class='quot1'>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대장암 유발 가능성을 지적한 가공육·적색육을 섭취할 때 김치를 곁들이면 발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span>”고 밝혔다.<br/><br/>이 교수에 따르면 김치엔 유산균 외에 역시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비타민C, 폴리페놀, 칼슘 등 최근 IARC가 가공육·적색육의 발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제시한 물질들도 들어 있다. 특히 김치의 양념으로 사용되는 마늘, 생강 등에 염증 억제 성분들이 다량 포함돼, 가공육·적색육의 일부 발암 성분의 독성을 상쇄한다.<br/><br/>이 교수는 또 “<span class='quot1'>20∼30대 젊은 세대에서 크론병, 만성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장질환이 최근 크게 늘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들 세대에서 김치 섭취량이 과거보다 크게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span>”이라고 풀이했다.<br/><br/>부산대 식품영양학과 박건영 교수는 “<span class='quot2'>김치 유산균은 면역 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시켜 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을 유도하는 효소의 생성을 차단하며, 발암물질에 달라붙어 함께 분해되거나 체외로 배설된다</span>”고 말했다.<br/><br/>이날 간담회에선 소시지 등 가공육의 ‘아킬레스건’인 아질산나트륨(아질산염)을 줄이는 데도 김치 유산균이 효과적이란 연구결과가 소개됐다.<br/><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2'>(자신의 연구를 통해) 김치 유산균이 배추에 든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질산염의 1/500 가량만 아질산염으로 변환), 아질산염 자체를 파괴시키는 것을 확인했다</span>”며 “<span class='quot2'>채소, 가공육 등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식품 중 아민이 결합하면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스아민이 생기는 데 김치엔 니트로스아민이 거의 없는 것도 김치 유산균 덕분</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아질산염이 발색제(식품첨가물의 일종)로 사용된 햄, 소시지 등 가공육을 먹을 때 김치를 곁들이면 아질산염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br/><br/>독일의 양배추 발효 음식인 ‘자우어크라우트’(신맛이 나는 양배추)보다 김치가 건강에 더 이롭다는 의견도 나왔다. 30여 년간 유산균을 연구한 한동대 생명과학부 윌헬름 홀자펠 교수(위쪽 사진)는 “<span class='quot3'>자우어크라우트는 익혀 먹어 유익균이 대부분 파괴되지만 김치는 대개 생으로 먹으므로 유익균이 그대로 장내로 들어온다는 것이 강점</span>”이라고 말했다.<br/><br/>김치 유산균이 면역을 조절해 스트레스, 우울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식품연구원 산하 세계김치연구소 최학종 박사는 “<span class='quot4'>김치 유산균은 뇌와 장에서 ‘행복 물질’이자 ‘숙면 물질’인 세로토닌의 생성량을 증가시킨다</span>”며 “<span class='quot4'>세로토닌은 우울증을 덜어주고 배변활동을 활발하게 한다</span>”고 조언했다.<br/><br/>김치는 효과적인 다이어트식품이기도 하다. 건국대 축산식품공학과 백현동 교수는 “<span class='quot5'>김치의 다이어트 효과는 저열량 식품(100g당 18㎉)인데다 식이섬유, 유산균, 유기산 덕분</span>”이며 “<span class='quot5'>김치 유산균을 쥐에게 먹였더니 다이어트 효과가 확인됐다</span>”고 설명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36.txt

제목: 암젠 코리아 공식 출범…“혁신적인 치료제 공급”  
날짜: 20151104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2045340  
본문: 글로벌 생명공학 제약기업 암젠의 한국법인 ‘암젠 코리아’가 공식 출범했다.<br/><br/>이 회사는 4일 “<span class='quot0'>보다 많은 임상 시험을 유치하고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내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의약품을 공급할 예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한국을 글로벌 사업 확장의 중요한 교두보로 삼을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br/><br/>암젠 코리아의 노상경 신임 대표(사진)는 바이엘 코리아의 전문의약품 사업부 한국 대표를 역임했다. 노 대표는 “<span class='quot1'>한국은 생명공학산업이 빠르게 발전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우수한 의약품을 통해 환자의 삶과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의료진에게 치료 대안을 제공, ‘환자를 위한다(To Serve Patients)’는 기업 미션을 실현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암젠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총 29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했으며, 18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골질환, 심혈관계 질환, 혈액·종양 및 류마티스 질환 치료제를 포함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미 한국에서 두 가지 치료제의 등록을 신청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br/><br/>암젠이 지난 5년간 국내 임상시험에 투자한 금액은 250억 원에 달한다. 전국 171개 임상센터와 1200여 명의 환자가 암젠의 임상 시험에 참여해 왔다. 암젠의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으며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해 75개 국가에 진출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37.txt

제목: 메트라이프생명, 여성 특화 의료비 보장 종신보험 출시  
날짜: 20151103  
기자: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1912163  
본문: 메트라이프생명은 여성에게 특화된 의료비 보장을 더한 여성전용 상품인 ‘무배당 그녀를 위한 선지급종신보험’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br/><br/>주계약을 보면, 암, 뇌출혈 등 주요 질병이나 수술, 중증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상태 등으로 진단 확정 시80세 이전에는 가입 금액의 80%를, 80세 이후 에는 가입 금액의 100%를 선지급하여 의료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80세 이후에는 보험금이 110%로 증액되기 때문에 100%를 선지급 받은 경우에도 사망 시 가입 금액의 10%를 사망보험금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br/><br/>특히 이 상품은 23가지 특약을 통해 여성에 특화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유방암이나 여성생식기 관련 암 진단시 여성특정암진단금과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 업계 최초로 난소 절제 수술에 대한 의료비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장범위를 넓혔다.<br/><br/>메트라이프생명은 이 상품에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헬스케어 핑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에는 여성 전문 의료진의 건강상담과 여성 특화 건강검진 우대 혜택, 중대질병 발생시 가사도우미 지원,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우대할인 등이 포함된다.<br/><br/><br/><br/><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38.txt

제목: 메트라이프생명, 여성 특화 의료비 보장 종신보험 출시  
날짜: 20151103  
기자: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1912497  
본문: 메트라이프생명은 여성에게 특화된 의료비 보장을 더한 여성전용 상품인 ‘무배당 그녀를 위한 선지급종신보험’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br/><br/>주계약을 보면, 암, 뇌출혈 등 주요 질병이나 수술, 중증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상태 등으로 진단 확정 시80세 이전에는 가입 금액의 80%를, 80세 이후 에는 가입 금액의 100%를 선지급하여 의료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80세 이후에는 보험금이 110%로 증액되기 때문에 100%를 선지급 받은 경우에도 사망 시 가입 금액의 10%를 사망보험금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br/><br/>특히 이 상품은 23가지 특약을 통해 여성에 특화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유방암이나 여성생식기 관련 암 진단시 여성특정암진단금과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 업계 최초로 난소 절제 수술에 대한 의료비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장범위를 넓혔다.<br/><br/>메트라이프생명은 이 상품에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헬스케어 핑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에는 여성 전문 의료진의 건강상담과 여성 특화 건강검진 우대 혜택, 중대질병 발생시 가사도우미 지원,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우대할인 등이 포함된다.<br/><br/><br/><br/><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39.txt

제목: “한국인 소시지·햄 섭취량 우려 수준 아냐”  
날짜: 20151102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1843900  
본문: ㆍ식약처 “WHO 기준의 12%”<br/><br/>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햄·소시지와 붉은 고기에 대해 식품안전당국이 한국인의 섭취량은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밝혔다.<br/><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가공육(햄·소시지) 섭취량은 1일 평균 6g 수준으로 WHO 기준인 50g보다 낮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2일 밝혔다. <br/><br/>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최근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가공육을 매일 50g 섭취하면 암 발생률이 18%씩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암 발생 위험이 1%라면 가공육을 매일 50g씩 섭취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1.18%로 증가한다는 뜻이다. 국내 가공육에 첨가되는 아질산나트륨 1일 섭취량도 WHO가 권고하는 1일 섭취 허용량의 11.5%에 불과했다.<br/><br/>WHO는 적색육(소·돼지·염소·양고기)을 2A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매일 100g 섭취 시 암 발생률이 17%씩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인의 하루 섭취량은 평균 61.5g에 그쳐 위험 수준을 밑돌았다. 식약처는 가공육·적색육을 평균보다 많이 먹는 소비층이 있고 섭취량 증가 추세도 나타나 내년 하반기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WHO 발표는 과도한 섭취에 대한 경고 메시지일 뿐 ‘먹어서는 안되는 음식’이란 뜻은 아니다</span>”라고 말했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40.txt

제목: 10월 다섯째주 퀴즈향  
날짜: 20151102  
기자: 이명희 기자 minsu@khan.kr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1710995  
본문: 바쁜 일상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뉴스 챙겨보기도 힘드실 겁니다. 경향신문 향이네가 한 주의 뉴스를 단번에 돌아볼 수 있는 ‘퀴즈향’을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퀴즈를 풀다보면 지난주 지구촌 동향이 손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시작해 볼까요?<br/><br/><br/><br/>☞ 정답과 해설을 동시에 보고 싶다면 ‘향이네’로 오세요.<br/><br/><br/> <br/>1/10)<br/> 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 경고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WHO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소시지 등 가공육을 석면이나 담배 같은 ‘1군 ㅇㅇ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그동안 식품업계의 입김에 밀려 가공식품 첨가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온 WHO가 이제야 현실을 인정했다며 식품안전 전문가들은 환영했지만 육류가공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WHO는 “<span class='quot0'>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span>”라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 유해물질은 무엇일까요? <br/>①. 발암<br/>②. 휘발<br/>③. 미세<br/>④. 화학<br/><br/> <br/>2/10)<br/>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의 저서 한국어판이 왜곡 번역 논란에 휩싸이면서 책을 낸 프린스턴대 출판부가 기존 번역본 판매를 중단하라고 했는데요, 디턴 교수의 이 저서 한국어판을 출판한 한경BP는 원문 내용을 생략하거나 변형하고, 부·장·절의 제목과 구분을 변경해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왜곡시켰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br/>①. 영광의 탈출<br/>②. 위대한 탈출<br/>③. 21세기 자본<br/>④. 불평등과 성장<br/><br/> <br/>3/10)<br/>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 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학생들은 “<span class='quot1'>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박 대통령의 방문은 필요없다</span>”며 방문 거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행사가 열리는 대강당으로 향했지만 사복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위로 박 대통령은 후문을 통해 학교에 들어왔다가 후문으로 학교를 나와야 했는데요. 이 학교는 어디일까요? <br/>①. 김일성종합대<br/>②. 서울대<br/>③. 이화여대<br/>④. 서강대<br/><br/> <br/>4/10)<br/> 검찰이 지난달 29일 자신의 측근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 3곳에 포스코가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OOO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OOO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연루로 징역을 살고 2013년 9월 석방된 이후 2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이 포스코 비리의 핵심인물로 꼽으며 ‘포스코를 사유화’했다고 밝힌 OOO 전 의원은 누구일까요? 전직 대통령의 친형이기도 합니다. <br/>①. 이상득<br/>②. 이재오<br/>③. 정두언<br/>④. 박영준<br/><br/> <br/>5/10)<br/>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소속의 이 선수는 지난달 29일 끝난 일본시리즈에서 최우수선수(MVP)로 뽑혔습니다. 5경기에서 타율 5할에 8타점을 올리며 팀의 2년 연속 우승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시리즈에서 외국인선수가 MVP로 선정된 것은 1996년 트로이 닐(당시 오릭스) 이후 19년 만입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롯데 소속으로만 뛰었으며 ‘조선의 4번타자’란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br/>①. 추신수<br/>②. 이승엽<br/>③. 최희섭<br/>④. 이대호<br/><br/> <br/>6/10)<br/> 서울시가 지난달 28일 기존의 ‘Hi Seoul’을 대신할 시의 새 브랜드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콩글리시’란 비판도 있고,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힘들다고도 합니다. 한 영자신문의 칼럼니스트는 ‘끔찍하다’고 혹평하기도 했네요. ‘나와 너의 서울’이란 뜻을 담은 이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br/>①. I. SEOUL. U<br/>②. SEOULing<br/>③. SEOUL MATE<br/>④. I♥SEOUL<br/><br/> <br/>7/10)<br/>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시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불법 감청을 한다는 사실을 폭로한 내부고발자가 “<span class='quot2'>한국도 미국 정부의 정보감시 대상국가다</span>”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내부고발자는 자신이 폭로를 결심한 이유로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그래야만 국민이 올바른 정보하에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br/>①. 줄리언 어산지<br/>②. 에드워드 스노든<br/>③. 마이클 무어<br/>④. 브래들리 매닝<br/><br/> <br/>8/10)<br/> 작고한 가수의 미완성 곡을 함께 완성해보는 ‘연결의 신곡발표’ 프로젝트가 지난달 30일 멜론 등 주요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9월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1만3743건의 응모작이 접수됐습니다. 가수 성시경이 작곡을 마무리하고 보컬을 담당한 신곡 ‘그런걸까’는 제목도, 가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작곡도 전체 60% 수준까지 진행됐고 전반부와 후반부까지 중간중간 악상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걸까’의 미완성 원곡 작곡자는 누구일까요? <br/>①. 김정호<br/>②. 김현식<br/>③. 김광석<br/>④. 김창남<br/><br/> <br/>9/10)<br/> 이승만 정부와 대립해 유학 시절 국적을 박탈당하고 40년 동안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 수학자는 25세에 미국 수학회지의 난제를 풀어 한국인 최초로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실린 천재 수학자입니다. 미국 수학 백과사전, 영국 수학사전, 일본 이와나미 수학사전에도 이름이 올라있죠. 수학자들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디외도네의 저서인 <순수 수학의 파노라마>에도 역사적인 연구 업적가 21인으로 기록돼 있는데요, 훗날 자신의 이름을 딴 ‘리군이론’으로 세계 수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이 수학자는 누구일까요? <br/>①. 남병길<br/>②. 이임학<br/>③. 장기원<br/>④. 최석정<br/><br/> <br/>10/10)<br/> 지난달 30일부터 주거래은행 계좌를 간편하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실시됐습니다. 우선 이동통신, 보험, 카드 등 3개 업종 자동납부를 변경할 수 있고, 내년 6월까지 모든 자동납부에 대해 계좌이동이 가능해진다는데요, 서비스 첫날부터 계좌이동 처리를 할 수 있는 ‘OOOO’ 사이트에는 접속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이동 사이트는 어디일까요? <br/>①. 페이인포<br/>②. 페이안포<br/>③. 페이인넷<br/>④. 페이정보<br/><br/><br/><br/>☞ 정답과 해설을 동시에 보고 싶다면 ‘향이네’로 오세요.<br/><br/><br/><br/><br/><이명희 기자 minsu@khan.kr>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41.txt

제목: '건강기능식품이 성인병 특효약?' 8000여명 피해  
날짜: 20151102  
기자: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1712257  
본문: 온·오프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성인병 특효약인 것처럼 과장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br/><br/>경기 고양경찰서는 2일 인터넷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ㄱ사 대표 김모씨(42)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br/><br/>경찰은 또 ‘떴다방’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주방용품 등을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ㄴ사 업주 하모씨(38)와 ㄷ사 업주 박모씨(39) 등 모두 9개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br/><br/>김씨는 수도권에 4개 법인을 차린 뒤 인터넷에 건강기능식품을 당뇨병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를 낸 데 이어 텔레마케터 7명을 고용, 3월 말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5242명에게 15억94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br/><br/>김씨는 자체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r/><br/>ㄴ사 업주 하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떴다방을 차려 계란, 휴지 등 생활필수품을 저렴하게 판매해 노인들을 유인, 홍삼이나 쑥즙 등 건강식품을 암, 당뇨병, 고혈압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노인 323명에게 1억4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r/><br/>ㄷ사 업주 박씨는 떴다방을 운영하면서 음식 조리 때 음이온이 나와 각종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해 19만8000원짜리 냄비를 두 배인 39만8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br/><br/>조사결과 9개 업체가 이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금액은 22억1000만원, 피해자만 8558명에 달했다.<br/><br/>경찰은 적발된 9개 업체에 대해 행정기관과 세무서에 통보, 행정처분 또는 탈루 세액 추징을 하도록 했다.<br/><br/><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42.txt

제목: WHO “가공육 적당히 먹으면 괜찮아” 발암 파장 불끄기  
날짜: 20151030  
기자: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1543265  
본문: ㆍ“섭취 말라는 뜻 아니다” 해명<br/><br/>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가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공육과 붉은 고기가 암을 유발한다는 발표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br/><br/>WHO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span class='quot0'>최근 국제암연구소(IARC)의 보고서는 가공육 섭취를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절하게 섭취하면 대장·직장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뜻</span>”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6일 WHO 산하 IARC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육류 가공업계가 들썩이고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등 사태가 확산되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br/><br/>성명에서 WHO는 “<span class='quot0'>IARC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질문과 우려의 목소리, 사실관계 확인 등의 요구를 받았다</span>”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가 2002년에 나온 ‘식단과 영양, 만성질환 예방’이라는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 안전한 육류 섭취량을 규명하기는 어렵다”며 내년 초부터 전문가들이 가공육과 붉은 고기가 건강한 식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br/><br/>앞서 IARC는 가공육이 암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서 담배나 비소, 석면과 같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소·돼지·양 등 붉은 고기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2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전 세계에서 과다한 육류 섭취로 숨지는 사람은 연간 3만4000여명에 달하고, 담배로 100만명, 음주로 60만명, 공해로 200만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43.txt

제목: [문명, 인간이 만드는 길- ‘마음’ 전문가들과의 대화] (12) 셸리 케이건 예일대 교수  
날짜: 20151030  
기자: 글·안희경 재미 저널리스트 , 사진·이석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1537633  
본문: ㆍ죽음에 대해 질문하라…살고 싶은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 <br/>ㆍ타인을 헤아리는 도덕적 삶은 나 자신에게도 이롭다<br/><br/>차오르는 가래에 눌려 숨을 거둔 노인을 본 중년 여인은 목구멍에 느른한 무언가가 걸칠 때마다 겁에 질린다. 죽을까봐. 침몰하는 여객선을 목격했던 젊은 사내는 물줄기가 쏟아지는 자동세차기계 속에서 눈을 뜨지 못한다. 그들에게 엄습했을 죽음의 고통이 전이되어. 비행기 타는 엄마를 향해 어린 아이가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한다. 죽으면 어떡하냐고. 질주하는 자동차 도로를 일상으로 건너는 자신 또한 당할 수 있는 마지막에 대한 확률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휘둘리고 있지만 정작 죽음이 무엇인지 애써 참구하려 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시간은 깊게 사려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마냥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지푸라기는 ‘이 살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일 것이다. ‘문명, 인간이 만드는 길’ 마지막 회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죽음’을 이야기하려 한다. ‘죽음 수업(Death class)’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예일대 철학교수 셸리 케이건과 함께한다. 그의 수업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 우리의 대화는 ‘살아있는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그것이 곧 ‘죽음’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셸리 케이건과의 만남은 가을이 깊어지는 길목, 미국 뉴헤이븐에 있는 예일대의 250년 된 그의 연구실에서 이뤄졌다. 고색창연한 건물로 스무살 청춘들의 잰걸음이 오갔다.안희경= 제 딸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그제 수영장에서 나오면서 울더라고요. 물을 먹었다고. 소독약이 들어있는데, 이제 자기는 죽는 거냐며 겁에 질렸습니다. 고작 8살인데요.<br/><br/>셸리 케이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확실히 널리 퍼져있어요. 저는 그 두려움을 헤쳐보고 싶습니다. 당신 딸의 경우는 곧 죽게 될 거라는 걱정이죠. 죽음이 얼마나 빨리 우리한테 올까 무서워하는 데는 나이 구분이 없지요. 저도 지금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 두려움에 대한 저의 두번째 입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멸의 시간을 상상하는데, 그렇다고 영원히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그러면 좋겠다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처럼 영원히 살면 좋을까요?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진저리나게 진력나고 곧 악몽이라 느낄 겁니다. 그러느니 저는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겠어요. 영생이 이토록 괴로운 일이라면 죽음은 그리 나쁜 일이 아닙니다. 죽음 그 이후에 무엇이 있지도 않다면, 그 미지의 시간에 겁 먹을 필요도 없는 거죠.<br/><br/>안= 건장하셨던 제 아버지께서 마지막을 치매로 보내셨습니다. 그 상태로 10년, 20년 계속되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겨우 1년이었습니다. 깊은 후회도 들었고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불멸이 고통이라는 말에서 죽음도 변화하는 질서가 주는 희망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가시지 않네요. 죽음은 무엇입니까?<br/><br/>케이건=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진짜 알고자 하는 것은 ‘죽음이 진정 끝이냐?’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역사를 통틀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믿고 또 말합니다. 이번 생이 끝나고 어딘가에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요. 살아있을 때 모습대로 천국의 왕국에 간다든지 아니면 환생할 거라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안도를 얻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진실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생이 끝나는 거라고 믿어요. ‘나’라는 것은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과 뼈, 피로 이뤄진 덩어리죠. 뇌가 망가지면 우리는 멈출 겁니다. 더 이상 다른 방식의 생각하는 무엇으로 진행될 수 없어요. 고장난 기계가 되니까요. 점차로 부식할 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br/><br/>안=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까요?<br/><br/>케이건= 제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스무살 언저리입니다. 다들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죽지 않을 것 같이 살거든요. 죽음이 지식으로만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집 안에 있었어요. 돌림병이 일어나면 집집마다 아이들이 먼저 죽어나갔죠. 그런데 지금은 병원에서 죽고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죽음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예의없는 일이 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까요? 이번 생이 오로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거나 어딘가에 가서 이대로 또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은 그리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다른 기회를 갖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 생이 내가 갖는 유일한 자원이라면 신중하게 보살피겠죠. 허투루 보내면 두 번째 기회는 없으니까요.<br/><br/>안= 5년 전, 명상하며 느꼈던 자각이 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내 안에 머물고 계시구나 라고요. 얼굴 생김새도 이어지고, 세상 가치에 대한 기준도 그렇죠. 이제 내가 아버지의 일부로 세상에 있구나 여겨지며 뭔가가 저를 감싸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물론 이는 부모자식이라는 유전자 관계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옛 사람들이 글로 남긴 가르침들이 이어지는 것도 이에 해당하겠죠.<br/><br/>케이건= 당신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존재를 느꼈다면 이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기억, 당신에게 준 영향, 그런 걸 겁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사도 포함될 거고요. 이는 대단한 거죠. 그가 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편안함을 얻었다는 기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는 당신과는 구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들은 말 그대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기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혼이 찾아왔다고요. 물론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죽음 수업을 하면서 만나는 한가지 어려움이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찾는다는 거요.<br/><br/>안=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관점을 부정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는 살아있는 이들을 통제하려는 이데올로기일 뿐인가요?<br/><br/><br/><br/>케이건= 세상에는 누군가의 목적으로 사람들을 조정하려는 이데올로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왕의 신권은 도덕이나 공평한 제도가 아니라 신의 뜻을 가져와 압박하려던 완벽한 예지요. 그렇지만, 이원론이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인간이 단지 기계일 수 없다라는 이론은 매우 가능성 있는 답이에요. 많은 현대 철학자들도 주장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물리주의 입장이에요. 우리들은 물질적인 존재라는 거고, 사후세계가 아닌 삶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죽음 수업을 하는 동안 한 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친구를 떠올리면 아직도 목이 메는데요(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예일에 들어올 때 암에 걸려 있었어요. 의사가 3, 4년 남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왔다고 해요.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은 곳이고, 기회가 된다면 졸업장도 받고 싶었다고요. 그가 3학년 1학기에 제 수업을 들었어요. 물론 저는 세상에 영혼은 없고 죽음은 끝이라고 말했죠. 2학기가 되자마자 그는 플로리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을 맞으려고요. 우리 교수들은 회의를 해 그에게 졸업장을 주자고 의견을 모았죠. 매우 열심히 학교생활을 했던 친구입니다. 학장이 직접 집에 가서 학위를 주었습니다. 네, 그는 죽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남은 대학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남은 생에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던 관성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 하고 싶은 그 일을 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한 질문들은 우리 삶을 다시 고려하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br/><br/>안= 인간에 대한 이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물리적인 관점으로 고려해 봄으로써 세상이 좀 더 나아질 거라 여기나요?<br/><br/>케이건= 철학에는 일반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도덕을 진전시키는가? 도덕은 진보하는가? 그렇다고 답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라는 이들도 있죠. 철학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진보했는가? 물으면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물리주의자의 입장 역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담은 <파이돈>에도 나옵니다.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죽자 플라톤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영혼이 있는가? 영원한 생이 있는가? 마음이 있는가?’ 그가 말하는 것의 하나는 물리주의자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쓰지 않았죠. 중국 철학자 맹자에게서도 그 자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철학의 진보는 그리 많지는 않은 거죠. 다만 세상이 진보해온 자취는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철학적인 생각들이 점차 우리 삶의 상식이 되어왔으니까요.<br/><br/>안= 사람들의 마음이 문명의 진보를 이뤄왔다는 거네요.<br/><br/>케이건= 요즘 사람들은 노예제도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대부분의 사회는 노예를 가졌어요. 인간이 허락한 도덕적 진보가 이제는 이를 반대합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당신은 여성을 동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br/><br/>안= 대부분의 동상은 남성이죠. 특히 의자에 앉아 있는 상은 남성이었고요. 권력을 상징하니까요.<br/><br/>케이건= 그래요. 심지어 50년 전만 해도 거부당했습니다. 이는 도덕적인 진보이고 인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이 있다는 생각을 갖기까지 우리는 편견을 극복해야 했죠. 지금 우리에게는 또 다른 편견이 있어요. 동물을 인간처럼 헤아리지 않아요. 현대화된 공장에서 학대하다가 고통스럽게 죽입니다. 맛을 위해서요. 이도 편견임이 서서히 깨우쳐지고 있습니다. 200년이 지나면 노예를 끔찍해하는 것처럼 편견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네번째 예는 흥미로운 역사적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매일 아침 뉴스를 열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죠. ‘우리는 한 번이라도 평화를 가질 수 있을까?’ 궁금해질 거예요. 독일 철학자 칸트가 이 질문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국가들은 서서히 민주화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요. 기념비적인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민주주의가 없었으니까요. 조금 있다 해도 오로지 백인 남자만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칸트는 오직 그의 철학에 기초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전쟁과 함께하지 않는 길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는 제게 희망을 줘요. 칸트는 국가 연합의 사상을 말했고, 국가들이 연맹을 이루며 갈등을 평화롭게 풀어가는 길을 발견할 거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사상에서 매우 멀리 있기는 하지만 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도덕적 진보의 가능성을 믿습니다.<br/><br/>안= 결국은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인데요. 하지만 이도 살아남아야 가능한 일 아닐까요? 경제가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으로 흐르면서 학교는 생각하는 시간들을 줄였습니다. 배출되는 인력들은 산업사회의 여러 상품을 생산하는 도구가 되었고요. 우선 살아남으려면 스펙 쌓기에 전념할 수밖에 없습니다.<br/><br/>케이건= 알아요. 저도 때때로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이 아닙니다. 경험철학 수업에서 이를 증명해 나갑니다.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죠.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물어보라고 해요. 행복하지 않으면 1, 대체로 행복하다고 여기면 7을 답하게 하는 등의 제안을 하죠. 그 숫자가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와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결론은 그리 많이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서 집세도 못 내고 식구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못 챙겨준다면, 낮은 숫자를 말할 거라고 여기겠죠. 최저임금을 받는데 여분의 돈이 생겼다면 그 숫자가 확 올라갈 거라 여길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면 소비 기준 또한 올라갑니다. 새 청바지는 살 수 있는데 아이폰 신형은 못 사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대학에서 철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덫에 걸릴 수 있어요. 중산층이 못 되면 인생을 만족하게 못 살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옳지 않아요.<br/><br/>안= 사실, 10대에게나 20대에게나 제일 어려운 질문이 ‘무얼 하고 싶어요?’ ‘꿈이 뭐예요?’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되돌아오는 답이 ‘저는 무얼 하면 좋을까요?’이거든요. 중년들도 마찬가지죠. 상담심리가 번성하는 것도 ‘내가 모르는 나’를 알려줄까 하는 기대라고 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br/><br/>케이건= 제가 가르치는 또 다른 수업이 있습니다. ‘죽음 수업’과 쌍을 이루는 ‘인생 수업(Life class)’입니다. 학생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이 유일하게 누리는 ‘너의 삶’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바랄 수 있는 가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요. 이는 철학자가 아주 오래도록 의문을 가져온 것이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생은 다른 사람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롭습니다. 물론 질문해야죠.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정의인가?’ 답은 많아요. 노예에 대한 반대, 여성에게 권리가 있다는 생각, 동물권리 확대 등. 더불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누리며 부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는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타면서도 힘겹게 살아가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불균형 말이에요. 최고의 삶은 세상에 정의가 더 많이 작동되도록 기여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적 자원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는 그곳, 그래서 힘겹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그 시간에서 삶은 가치를 갖게 돼요. 이것은 죽음에 대한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질문함으로써 우리는 ‘잘 사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충만함은 뭔가 내 삶에 가치 있는 일이 들어올 때 이뤄집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br/><br/>안= 마지막 질문입니다. 각자도생하는 시절에 혹시 사랑이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사랑마저도 포기합니다. 관계 맺는 것이 두렵죠.<br/><br/>케이건= 내게는 두 가지 질문으로 들려요. 하나는 ‘세상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의 감정’이오. 만약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쓴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행위라고 말한 거라면 이때 사랑은 어떤 확장된 감각으로 사용되죠. 그렇다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느낌으로의 사랑을 이야기한 거라면 저는 좀 달라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돕는다는 행위니까요. 칸트는 ‘사람을 돕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해야 할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아도 기부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러면 됩니다. 칸트학파들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존중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완전한 존재로 실재한다는 그 사실을 존중해야 하죠. 해치지 않아야 하고 삶에 필요한 자원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칸트철학의 언어는 인식입니다. 도덕적으로 헤아리는 거죠. 이는 사랑이 만들어내는 감성적인 톤은 아닙니다.<br/><br/>안= 불안이 깊어 사랑에 빠지지 못하는 시대라면, 더 많은 타인과도 연결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br/><br/>케이건= 매우 일반적인 감각에서의 사랑을 의미한다… 그도 좋아요. 사랑에 빠지는 데 위험부담은 있지만, 매우 중요하죠. 사랑은 삶을 불러줍니다.<br/><br/>안= 그 말 좋은데요. 삶을 부른다. 활짝 살아나게 하는 느낌입니다.<br/><br/>케이건= 인생 수업에서 일주일 동안은 사랑을 이야기하며 보냅니다. 왜 사랑은 가치가 있을까? 엄청난 가슴앓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사랑이 잘 진행되어도 그래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갑자기 진땀을 흘리며 말하죠. ‘이건 열병보다 더해!’라고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사랑은 왜 가치를 갖는가? 제게는 헤겔의 답이 떠올라요. 지나치게 단순화한 감이 있지만 칸트는 개체로서의 인간을 세상으로 이해하기를 시도했고, 헤겔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 속에 있는 사람을 봐야 한다고요. 그래서 헤겔의 한 면은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저는 그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할 때도 역시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누군가 멋진 사람이 내가 멋지다는 것을 알아봐주는 겁니다. 내 가치를 다른 이가 인정해주는 일은 삶에 있어 참으로 중요하죠. 그럼으로써 내 인생이 가치로워지니까요. 그러면, 왜 알아주지 않는 사랑은 고통스러울까요? 당신은 그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는 당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같은 방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인생에서 사랑이 빠져나가는 일이 왜 파괴적인가 하면 바로 가치를 인지하는 우리의 감각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br/><br/>안= 아프건 달콤하건 사랑이 머물 때는 구르는 낙엽 하나에도 온통 흔들리죠. 상대에 대한 가치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연결도 끈끈해지고요.<br/><br/>케이건=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 돌보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가치를 알아보고 인정하지 못해 많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존중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보살피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한다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우리와 사랑에 빠진다면요. 그 사람은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도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서로가 가치 있는 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비록 그 사랑이 지속되지 않을지라도, 가슴앓이 시간일지라도 위험을 안고 달려가볼 만한 곳이에요. 사랑의 짐은 질 만한 가치가 있답니다.<br/><br/>안= 나의 삶이 가치 있는 곳을 향할 때,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 역시 가치를 일구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br/><br/>시리즈를 마치며<br/><br/>지난해 ‘문명, 그 길을 묻다-세계 지성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세상의 망을 보이며, 성장의 정점을 지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좌표를 찍어보고자 했습니다. 그 안에서 세상의 진전을 이루는 것은 개개인의 마음이라는 상을 잡았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모여 이뤄진 세상이 오늘이라면, 그 선택이 사려 깊어질 때 내일 우리의 삶은 보다 평화를 일궈내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3월부터 ‘문명, 인간이 만드는 길’을 연재했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힘의 작동들을 살펴보며 각자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끝자락이나마 보이고 싶었습니다. 연재를 마무리하면서 세상은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동시에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의 품속에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br/><br/><br/><br/><시리즈 끝><br/><br/><br/><br/> <br/><br/>셸리 케이건은 누구 - ‘죽음 수업’으로 유명세 미국 대표 현대 철학자<br/><br/>셸리 케이건은 예일대 철학교수(사회사상·윤리학 전공)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현대 철학자 중 한 사람으로 1982년 프린스턴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피츠버그대, 일리노이대에서 강의했다.<br/><br/>그의 철학은 도덕철학과 규범윤리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철저히 현실에 기반을 두고 삶과 죽음의 문제, 행복, 도덕적 가치, 공공의 선, 인간의 본성 등에 관한 논문과 저작을 발표하면서, 공리주의로 대표되는 결과주의 윤리학과 칸트주의로 대표되는 의무론적 윤리학 사이의 논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대표 저작인 <도덕의 한계>와 <규범윤리학>은 세계 유수 대학에서 철학 교재로 채택하고 있다. <br/><br/>1995년 예일대에서 시작한 죽음 강의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개된다. 그에게는 전 세계에서 e메일이 오는데, 그중 자살한 동생을 둔 누나가 보낸 편지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한다. 제대하고 심리치료를 받던 동생이 자살했고 누나는 슬픔 속에서 보내다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케이건의 자살 관련 그래프를 보게 되었다. 동생이 남긴 노트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래프인 걸 알고, 케이건에게 감사의 e메일을 보낸 것이다. 동생이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오랜 생각 끝에 내린 선택이었음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케이건에게는 그의 관점에 대한 반대 입장의 e메일도 온다. 그는 철학적 논쟁이 이뤄지는 것은 언제나 환영할 일이라며 반긴다.<br/><br/><글·안희경 재미 저널리스트 , 사진·이석혜>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44.txt

제목: 남조류 독소 물로 혈액투석, 브라질서 수십명 사망  
날짜: 20151029  
기자: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1306433  
본문: ㆍ4대강 물 ‘농업용수 사용’ 추진 논란 <br/>ㆍ생물농축·암 유발, 가축·사람 위험에도 정부 불감증<br/><br/>정부가 가뭄 대책으로 마이크로시스틴(독성 남조류)이 들어 있는 4대강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려 하면서도 간질환을 일으키는 이 물질의 위험성엔 눈감고 있다. 해외 연구에선 생물농축으로 인해 농작물과 가축, 사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확인된 물질이다.<br/><br/>녹조가 번성해 독성 남조류 세포 수가 늘어나는 시기와 농번기가 상당 부분 겹쳐 마이크로시스틴이 사라지거나 농도가 낮아지길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나마 식수는 정수처리를 통해 독성 남조류가 배출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을 걸러낼 수 있지만 농업용수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br/><br/>국토교통부는 “<span class='quot0'>K-water가 관리하는 댐·보의 하천수·호소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면서 남조류에 의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민원이 제기된 사례는 없다</span>”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의 생물농축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뉴질랜드에서 2008년 발표된 논문(‘마이크로시스틴이 포함된 물을 농업에 이용할 경우 독보리, 토끼풀, 유채, 양상추의 마이크로시스틴 함량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는 이 물질의 위험성이 잘 드러나 있다. <br/><br/>논문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한 물을 농업에 이용할 때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마이크로시스틴이 가축과 인간의 먹이사슬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다. 논문은 “마이크로시스틴이 함유된 식물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라질에서는 이 물질이 포함된 물을 혈액 투석에 사용해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br/><br/>국토부는 ‘일본의 새만금’ 구마모토현 이사하야만에서 매년 녹조가 창궐해 마이크로시스틴의 생물농축 논란이 벌어진 것도 주목하지 않고 있다. 구마모토 보건과학대학 다카하시 도오루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지난해 펴낸 ‘이사하야만 조정지에서 유독 조류의 발생에 관한 환경요인 및 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의 환경동태’ 논문에는 저서생물과 굴 등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br/><br/><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45.txt

제목: ‘표적 항암제 써도 암 퍼지는 원인’ 세계 첫 규명  
날짜: 20151028  
기자: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1218577  
본문: ㆍ이호영 서울대 약대 교수팀<br/><br/>표적 항암제를 써도 암이 퍼지는 ‘내성’ 문제의 주요 메커니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규명됐다. 이번 연구는 차세대 암 치료제로 주목받는 표적 항암제의 걸림돌 중 하나인 내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br/><br/><br/>이호영 서울대 약대 교수(사진)팀은 종양과 종양 주변에 모인 정상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이 표적 항암제의 암 전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 특유의 신호 전달 과정을 ‘정밀 타격’ 형식으로 차단해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약이다. 암세포와 함께 정상 세포도 ‘무차별 포격’식으로 죽이는 기존 항암제보다 구토와 탈모 등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 <br/><br/>그러나 현재 개발되는 각종 표적 항암제 중에서는 임상시험에서 암을 오히려 전이시키는 ‘내성 현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신약 개발 및 보급에 문제로 꼽혔다.<br/><br/>이 교수팀은 애초 우수한 항암 효과로 주목받았지만 암 전이 때문에 상용화가 안됐던 ‘IGF-1R 표적 항암제’란 약물을 대상으로 전이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관찰했고, 이 항암제가 표적을 공략하면서 특정 단백질이 대거 생기도록 자극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 단백질 때문에 종양과 주변 림프구 등 암이 아닌 ‘이웃 세포’들이 모여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새 혈관 생성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긴 혈관은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질 때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br/><br/>이번 연구는 과학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근호에 게재됐다.<br/><br/><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46.txt

제목: “G마크 학교급식 축산물 가공품 안전합니다”  
날짜: 20151028  
기자: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1100203  
본문: 경기도는 28일 가공육 발암물질 논란과 관련, “<span class='quot0'>도내 학교에 공급 중인 ‘도지사 인증 G마크’ 축산물 가공품은 안전하다</span>”고 밝혔다. 경기도는 “<span class='quot0'>G마크 축산물은 발색제(아질산염 등)나 전분, 색소, 보존료, L-글루탐산나트륨(MSG), 산화방지제 등이 없어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span>”면서 이같이 밝혔다.<br/><br/>앞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26일 일부 가공육 제조과정에서 고기 색을 선명하게 하고 세균번식을 막는 아질산염이 과다하게 사용되면 암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G마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공장에서 가공되고 품종·사료가 통일된 1등급 이상의 고품질 무항생제 축산물에만 부여된다.<br/><br/>도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먹기 좋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2011년 2학기부터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을 통해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은 축산물 가공품을 공급하고 있다.<br/><br/>지난해 도내 2257개 학교 가운데 1869개교에 축산물 1만2832t을 공급했고 이 가운데 가공품은 50t을 차지했다.<br/><br/><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47.txt

제목: [오늘은 이런 경향]10월28일 갑자기 핏대 세운 박 대통령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날짜: 20151028  
기자: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1100875  
본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br/>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10월28일입니다.<br/><br/><br/><br/>정부가 세금 쓰는 법을 보시죠. 황교안 총리는 세종시에 주로 머뭅니다. 세종공관엔 이미 최첨단 CCTV 70대를 설치했습니다. 삼청동 서울공관에도 CCTV 교체 예산 1억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br/> ▶ 황교안 총리 삼청동 공관 1억 들여 CCTV 교체 왜<br/><br/><br/><br/><br/><br/>42분여에 걸친 연설 동안 잔잔히 연설문을 읽어가던 박 대통령은 마지막 부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언급하면서 목소리 톤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단호한 표정에 손짓까지 섞어가며 ‘역사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정부·여당을 향해 강한 추진을 독려·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연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대국민담화’의 장이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1월 교과서 개발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정연설 안팎을 전해드립니다. <br/> ▶ 국민에 ‘역사 국정화 전쟁’ 선포한 박 대통령<br/> ▶ 황우여, 경질론 일축…“내달 교과서 개발 착수”<br/> ▶ 문재인 ‘교과서 비밀TF’ 묻자…박 대통령 “교육부가 밝힐 것”<br/> ▶ 박 대통령, 2008년엔 뉴라이트 교과서 극찬하더니…오늘은 “<span class='quot0'>친일·독재 미화, 좌시 않겠다</span>”<br/> ▶ [사설] 궤변과 비논리로 일관한 대통령 국회 연설<br/><br/><br/><br/><br/>정부는 ‘국정교과서 비밀 태스크포스(TF)’에 대해 “비밀조직이 아니다”라고 했죠. 하지만 국립국제교육원 입주부터 건물 출입방식 등에 있어 철저한 대외비로 운영해왔습니다.<br/> ▶ 조직 운영도 비밀-TF 입주 건물 관리소장 “방 20개 요청…경비원도 내보내”<br/><br/><br/><br/><br/>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 한국사 전공 교수 10명 중 8명이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26일 현재 181명의 해외 학자들이 참가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에 카터 에커트 하버드대 교수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뉴라이트’ 진영도 인정하는 원로 한국학 연구자입니다.<br/> ▶ 정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 교수들도 “집필 거부”<br/><br/><br/><br/><br/>햄이나 소시지가 암을 부른다는 세계보건기구(WHO) 경고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식품업계의 입김에 밀려 가공식품 첨가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 기구가 이제야 현실을 인정했다며 식품안전 전문가들은 환영했지만 육류가공업계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br/> ▶ 햄·소시지가 1군 발암물질이라고?…반색 혹은 반발<br/><br/><br/><br/><br/>경향신문 69주년 창간기획 ‘신허기진 군상’ 6회는 ‘병원가기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난치병에 걸리면 ‘재난적 의료비’를 감당하기엔 보호망이 너무 성긴 문제를 지적합니다.<br/> ▶ [新허기진 군상] (6) 병원 가기 두려운 사람들-건보 우산 밖 빈곤층에 의료비는 ‘재난’…몸도 삶도 무너졌다<br/> ▶ [新허기진 군상] (6) 병원 가기 두려운 사람들-돈이 곧 목숨인 현실<br/> ▶ [新허기진 군상] (6) 병원 가기 두려운 사람들-병든 서민 ‘치료의 역사’<br/><br/><br/><br/><br/>연중기획 ‘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 30회는 ‘87년체제냐 97년체제냐’입니다. <br/> ▶ [광복 70주년 특별기획-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 (30) 87년체제냐 97년체제냐<br/><br/><br/><br/><br/>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스코 사유화’ 지목에도 불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고령과 건강 이유를 들었지만,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과 대통령 친형이란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br/> ▶ 또 법정에 서는 ‘만사형통’<br/><br/><br/><br/><br/>황석영·윤정모·김남일·공지영·공선옥·김해자·방현석·송경동 등 작가들이 현대사를 관통하는 21가지 사건을 현장에서 기록한 르포집 <민중을 기록하다>(실천문학사)가 나왔습니다.<br/> ▶ 전태일서 세월호까지 ‘현대사 고발’<br/><br/><br/><br/><br/>서울 도심 늦가을 단풍길의 정취와 근대역사문화의 흔적, 다양한 문화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제17회 정동문화축제가 29~31일 중구 정동길 일대에서 열립니다. <br/> ▶ 시월의 마지막 사흘…문화로 물드는 ‘정동’<br/><br/><br/><br/><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48.txt

제목: [여적] 소시지와 외교의 공통점  
날짜: 20151027  
기자: 신동호 논설위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1018458  
본문: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육의 인체 발암성이 담배나 석면과 같은 1군에 속한다는 국제암연구소의 보고서가 충격적이다. 암연구소는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혼합물, 노출환경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기관이다. 이 연구소는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해 발암성의 정도에 따라 대상을 1군, 2A군, 2B군, 3군, 4군의 5가지로 나눈다. 인체 발암성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은 1군, 인체 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인 것은 동물실험에서 증거가 충분하냐 불충분하냐에 따라 2A·B군으로 다시 구분한다. 3·4군은 인체 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발암성이 없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다.<br/><br/>대표적인 가공육인 햄과 소시지는 인류 역사만큼 오래된 식품이다. BC 1000년경 그리스에서 연기로 익히거나 소금에 절인 고기, 즉 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 무렵 소시지도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C 9세기에 썼다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병사들이 피와 섞은 고기 반죽을 창자에 채워 큰 불 앞에서 돌리고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소시지는 원래 고기를 먹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음식이었다. 주로 내장이나 머리고기, 혀, 귀, 피 등 고기를 가공하고 남은 부산물을 재료로 사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부산물보다 살점 위주로 가공해 가장 대중적이고 먹기 편리한 식품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br/><br/>가공육이 1군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담배나 석면과 같은 정도로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한다. 암 유발에 관한 과학적 증거의 강도가 그 정도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그렇더라도 대중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암연구소의 가공육 1군 발암물질 분류에 이어 나온 미국 식품분석업체 클리어푸드의 분석이 더 충격적이다. 소시지의 위생 상태와 성분 표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소시지에서 사람 DNA까지 나올 정도로 엉망이었다고 한다. ‘소시지와 외교는 만드는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제 외교가의 금언이 있다지만 기절초풍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외교는 몰라도 소시지는 이제 만드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 같다.<br/><br/><신동호 논설위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49.txt

제목: [新허기진 군상] (6) 병원 가기 두려운 사람들-건보 우산 밖 빈곤층에 의료비는 ‘재난’…몸도 삶도 무너졌다  
날짜: 20151027  
기자: 백철·김서영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1038530  
본문: 큰 병이나 난치병에 걸리는 것은 늪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다.<br/>다행히 한국 의료진 수준은 눈부시게 발달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br/>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면 늪에서 빠져나오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역시 ‘돈’이 문제다.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만 난치병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를 감당하기엔 보호망이 너무 성기다.<br/><br/>◆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미선씨 이야기<br/><br/>“제가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서요. 이쪽으로 좀 와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미선씨(35)는 희귀성 질환인 다발성경화증 환자다. 작은 배낭을 메고, 등산용 지팡이처럼 생긴 물건을 손에 쥐고 카페에 들어선 김씨는 얼핏 보기에 여느 평범한 30대 중반 여성과 다를 바 없었다. 이리저리 벽을 짚던 김씨가 자리에 앉으며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그제야 ‘움직이기 어렵다’는 말이 실감났다.<br/><br/><br/><br/>김씨는 17년째 다발성경화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다발성경화증은 온몸의 여러 부위가 점차 굳어가는 병이다. 평소엔 큰 문제가 없지만 증상이 시작되면 극심한 통증이 엄습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 김씨는 두 팔을 양쪽으로 펼치며 “집에 병원 차트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 언제 어디가 아팠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특별히 어디가 아픈 게 아니라 수시로 온몸이 쑤셔오는 그런 병”이라고 말했다.<br/><br/>다섯 자매 중 맏이인 김씨는 고등학생이던 1997년 2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했다. 동생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였다. 화학약품과 금속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동생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일했다. 1998년 말 김씨는 갑자기 목이 뻐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출근하기 위해 옷을 챙겨입으려 했지만 손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부터 회사에 병가를 내고 병명을 알아보러 다녔다. 김씨는 다시는 일을 하지 못했다.<br/><br/>“엄마랑 여기저기 한의원을 다니며 침을 맞았는데 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며칠 사이에 몸 왼쪽에 마비가 왔어요. 유명한 병원을 가봐도 정확한 병명은 모른대요. 2000년으로 넘어와서야 다발성경화증이란 진단을 받고 퇴사했어요.”<br/><br/>회사를 나온 김씨는 동생들과 한집에 살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그러다 2005년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었다. 부양자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말에 임대아파트를 얻어 홀로 살게 됐다. 김씨가 현재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는 매달 49만원. 아파트 관리비로만 매달 15만원가량 나간다. 치료비를 부담하고 나면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br/><br/>“2000년부터 베타페론 주사를 맞았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돈은 별로 나가지 않았지만 효과가 별로였어요.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 권유로 베타페론을 끊고 5년 전부턴 감마글로불린 주사를 맞고 있어요. 전보다 확실히 재발은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매달 47만원이 꼬박꼬박 나갑니다.”<br/><br/>다발성경화증 외에도 사소한 질병들이 김씨를 괴롭힌다. 병에 걸린 이후 김씨는 툭하면 말이 어눌해지고 앞이 갑자기 잘 보이지 않는 증상에 시달렸다. 2005년부터는 왼쪽 눈이 거의 멀었고, 오른쪽 눈에도 증상이 이어졌다. 병원에선 시신경이 굳어지며 나타나는 현상이라 안경으로 바로잡을 수도 없다고 했다. 집안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체중이 늘었고,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과도 잘 만나지 않게 됐다. 우울증이 찾아왔다. 지금도 김씨는 알약을 아침에 10알, 저녁에 6알씩 먹는다.<br/><br/>급하게 눈에 증상이 와 병원 응급실을 찾은 적이 있다. 입원해서 증상이 가라앉길 기다리며 치료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병원은 1·2인실 외에는 비어있는 입원실이 없다고 했다. 감마글로불린 비용을 대기도 어려운 김씨에게 하루 20만~30만원 들어가는 1·2인실은 ‘현실의 공간’이 아니었다. 결국 김씨는 입원을 포기하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통원했다. 시각장애인 등급을 받은 이후 장애인콜택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진짜 이 사람들이 나한테까지 돈을 벌려고 했던 거구나 싶었어요. 몸이 아파 입원을 할 때는 맘 편히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어렵네요.”<br/><br/>김씨는 “<span class='quot0'>남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span>”는 말을 반복했다. 지난해부터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생활복지관을 다니며 커피 내리는 기술과 제빵 기술을 배운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자격증을 따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말고는 일할 곳이 없었다. 몸상태도 일하기에 버거웠다. 올해 초 김씨가 복지관에서 제빵 기술을 배울 때, 점점 보이지 않던 오른쪽 눈에 또 재발이 왔다.<br/><br/>인터뷰가 끝날 때쯤 김씨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만지작거리며 창 밖 거리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김씨의 눈에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비칠 뿐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span class='quot1'>20살 때는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속상해서 눈물이 났는데 그것도 참 오래전 일이네요.</span>”<br/><br/>◆ 남편 암에 집안 무너진 명주씨 이야기<br/><br/>대전에 사는 보험설계사 남명주씨(45·가명)는 6년 전 남편이 간암을 앓다 사망한 이후 인생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 그의 남편은 2009년 1월 간암 선고를 받았다. 대학병원 의사는 “<span class='quot2'>살려거든 간을 이식받아야 한다</span>”고 했다. 큰돈이 들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남편을 살릴 유일한 끈을 붙잡았다.<br/><br/>첫 수술을 하던 달에만 치료비와 입원비로 5000만원이 들었다. 두번째 수술 때는 400만원이 추가로 필요했다. 어려서부터 간이 약했던 남씨의 남편은 간암까지 보장해주는 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남씨의 직업은 보험설계사였지만 정작 남편을 위한 보험은 찾지 못했다. 남편의 수술을 앞두고 조직 검사, 혈액 검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생돈’이 나갔다. 국민건강보험은 ‘큰 병’ 앞에선 소용이 없었다. 남씨는 “건강보험은 보장되는 질병이나 횟수에 제약이 많아 별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br/><br/>닥치고 보니 ‘온갖 것이 다 돈’이었다. “수술을 하다 보면 혈액 팩으로 피를 공급하는데, 팩 하나당 비용이 들어가죠. 이식수술을 한 번 하면 그런 팩이 몇 백 개가 필요한데 다 수술비에 포함되죠. 조금이라도 수술비를 아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조카들이 헌혈증을 모아준 적도 있어요.” 남씨는 간을 이식해주겠다는 후보자 2명을 찾았다. 후보자들의 전신 암 검사, 조직 검사, 간 수치 검사 비용을 합치면 그가 남편 치료비에 쓴 돈은 1억5000만원이 넘는다.<br/><br/>남씨의 남편이 수술을 받고 입원했던 병원은 대전과 떨어진 경기도 수원에 있었다. 가장이 집을 비운 5개월 동안 남씨는 15살 딸과 11살 아들을 홀로 먹여살렸다. 주중에는 대전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주말이면 수원으로 향했다. 200만원이 채 안되던 남씨의 월급 전부가 간병인 비용으로 나갔다. “일을 해야 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진 간병인을 썼는데 기본으로 200만원을 줬어요. 식비나 교통비는 따로 계산했기 때문에 다섯 달 동안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갔죠.”<br/><br/>간병인 비용과 치료비 전부를 남씨 홀로 마련할 수는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시댁과 친정 식구들에게 손을 벌렸다. 시어머니, 시누이, 동생 등 여기저기의 도움을 끌어모으고도 부족한 부분은 남몰래 빚을 졌다. 남씨는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으면 굉장한 타격이고, 완전히 빚더미에 앉는다.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고 말했다.<br/><br/>1억원을 넘게 들여 두 차례 이식 수술을 받은 남씨의 남편은 2차 수술을 받고 오래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사람은 가고 없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빚은 남아 있다. 맞벌이를 하다 남씨 혼자 경제활동을 하자니 자연스레 가세가 기울었다. 텔레비전 수신이 끊긴 적도 있다.<br/><br/>“주변에 말은 안 했지만 아직도 빚을 다 못 갚았어요. 여자가 사회생활을 해서 월급을 받아봤자 200만원을 넘기기 어려워요. 세 가족 생활비에 두 아이 교육비만 해도 매달 200만원이 넘게 들어 마이너스예요. 중·고등학생인 자식들 사교육을 안 시킨다면 월 150만원으로도 먹고살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다 빚으로 안고 가는 거죠.”<br/><br/>정부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해 말까지 9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남씨는 이 말을 믿지 못했다. “하나도 보험이 안돼요. 전부 생돈을 내고 했어요. 직접 겪어보니 건강보험은 큰 질병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치료비, 입원비, 검사비까지 개인의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br/><br/><백철·김서영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50.txt

제목: [新허기진 군상] (6) 병원 가기 두려운 사람들-돈이 곧 목숨인 현실  
날짜: 20151027  
기자: 김서영·백철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1038894  
본문: ㆍ200만원 건보 체납자 “한꺼번에 납부 힘들어 건보 포기했어요”<br/><br/>치료비가 없어 죽어야 하는 상황만큼 야만적인 것은 없다. 그때 ‘돈이 곧 목숨’이라는 말은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건조한 사실관계를 나타낸다. 대한민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비교적 잘 자리 잡은 나라로 평가받지만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고, 가족 한 명이라도 큰 병을 앓으면 어지간한 중산층 가정도 기둥뿌리가 흔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성’ 논리를 앞세워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그치지 않는다. 서민과 중산층은 그저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br/><br/>■체납자에겐 건강보험 ‘그림의 떡’<br/><br/>서울 영등포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배모씨(53)는 건강보험료 체납자다. 10년 전 남편의 공장이 망하면서 가세가 기울어,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를 못 내고 있다. 2011년 120만원이던 체납액은 200만원을 넘긴 지 오래다. 배씨 부부의 한 달 수입은 50만원을 넘기 힘들다. 관절염이 심한 배씨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렵고, 보험료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돼 현금으로 치료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병원에 가면 20만~30만원이 한 번에 나간다. 배씨는 “<span class='quot0'>돈을 낼 땐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만 나중에 갚아야 해서 결국 치료비 100%를 내는 셈</span>”이라고 말했다. 배씨는 “그동안의 체납액을 한번에 내야 통장도 풀어주고 건강보험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은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탈퇴할 수도 없고, 탈퇴한다 해도 일단 갚을 건 갚아야 하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아픈 사람 도와주려고 건강보험 하는 건데 아프고 돈 못 내는 사람은 건강보험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br/><br/>■차별 대우 받는 에이즈 환자<br/><br/>40대 직장인 박모씨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이다. 그는 병원에 갈 때마다 일반 진료실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안내받는다. <br/><br/>박씨는 “얼마 전 스케일링을 받으러 치과에 갔는데, 진료 자체를 다른 곳에서 했다. 보통의 진료 공간과는 다른 장소였다”고 말했다. 그가 진찰대에 눕기에 앞서 의료진은 의자와 치료기기, 주변 사물 전체를 비닐로 감쌌다. 그는 “<span class='quot0'>집에 페인트칠을 할 때처럼 다 덮어놨다고 보면 된다</span>”고 말했다. 그렇게 ‘요란하게’ 준비된 스케일링은 5분 만에 끝났다.<br/><br/>박씨는 “평소에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치료를 소극적으로 하는 경험을 많이 한다”면서 “HIV는 B형 간염과 감염되는 경로가 거의 똑같다. 간염 환자들은 치료를 해주는데 유독 HIV 환자한테만 안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병원에 입원해도 의사들이 “어디가 아프냐”가 아니라 “언제부터 에이즈에 걸렸느냐. 동성연애를 한 적이 있느냐”를 먼저 물어 서러울 때도 있다. 박씨는 “‘병원에서까지 그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약을 먹지 않고 버티다 실명한 친구도 있다”면서 “그 친구는 ‘죽으면 죽었지 병원은 안 가겠다. 자다가 쓰러지더라도 절대 나를 병원에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 말했다.<br/><br/>■믿고 찾을 의사·병원 없어<br/><br/>경남 진주시에 사는 서모씨(69)는 자신의 몸을 “고물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며 간과 신장, 뇌가 안 좋다. 관절도 아프고, 백내장 수술도 했다. 그는 “혈압과 간이 가장 문제다.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간이 굳어들어 가니까 생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온몸이 아픈 서씨는 늘 다니던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뒤로 마땅히 갈 만한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료원이 사라지고 생긴 종합병원은 치료비가 비싸다. 오랜 시간 그를 지켜봤던 의사와 간호사가 뿔뿔이 흩어지고 새로 만나게 된 의사는 비싸고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하기 일쑤여서 영 믿음이 안 간다.<br/><br/>형편이 어려운 서씨는 입원을 안 하고 견디고 있다. 의료원 시절에는 얼굴을 알고 지내는 간병인들이 다른 환자를 봐주고 남는 시간에 서씨를 돌봐주기도 하고, 몸이 다 나을 때까지 의사가 재량껏 입원기간을 연장시켜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서씨는 “대학병원에서 관절염 수술을 했다. 20일 금식하고 이틀 미음을 주고는 얼른 퇴원하라고 하더라”면서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겨우 기어서 퇴원했다”고 말했다. 서씨에게 의료원은 “마음도 고치는 병원”이었다. 서씨는 “<span class='quot1'>새로운 병원의 의료진이 잘 해준다고는 해도 친구같은 사람이 있던 예전의 분위기와 다르다</span>”고 말했다. 믿음직한 병원을 찾지 못한 그는 “<span class='quot1'>그냥 오늘 밤에라도 죽는 게 아닌가 싶다</span>”고 말했다.<br/><br/><br/><br/>■의료비 불안 큰 은퇴·고령자<br/><br/>대전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51)는 ‘언제 큰 병에 걸려 가계가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산다. 그는 현재 별다른 질병을 앓고 있지 않지만 2012년 자궁근종으로 자궁을 절제한 수술이력 때문에 의료실비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이씨는 “<span class='quot2'>요즘엔 나이 들면서 병하고 같이 간다고 하더라</span>”면서 “<span class='quot2'>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 시대라는데 은퇴 후 실비보험 가입이 안될까 불안하다</span>”고 말했다.<br/><br/>그나마 직장에 다니는 지금은 소득이라도 있지만 은퇴한 뒤에 질병이 찾아오면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다. 그가 건강보험 외에 따로 가입해둔 보험은 암보험뿐이다. 이미 수술을 한 경력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진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br/><br/>이씨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이 되는 보험상품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는 중이다. 간병인보험과 노인요양보험에도 가입할 생각이다. 그가 보험을 찾는 이유는 ‘큰 병’이 걸릴 경우 건강보험만으로는 버겁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br/><br/>이씨는 “<span class='quot2'>한국이 질병에 대한 국가 보장이 큰 나라이긴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90%를 내고 내가 나머지 10%를 낸다 하더라도 질병에 따라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비급여 항목도 많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금액도 만만찮을 텐데 나중에 결국 연금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병에 걸리면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span>”고 말했다.<br/><br/><김서영·백철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51.txt

제목: [新허기진 군상] (6) 병원 가기 두려운 사람들-병든 서민 ‘치료의 역사’  
날짜: 20151027  
기자: 김서영·백철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1039685  
본문: “<span class='quot0'>남편의 병을 치료해주신다면 눈이라도 팔겠습니다.</span>” 1966년 7월23일자 경향신문에 3년째 늑막염을 앓는 남편의 치료비를 위해 눈을 팔겠다는 이종희씨(당시 35세)의 사연이 실렸다. 파지 장사를 하다 늑막염에 걸린 남편 최필준씨(43세)의 수술비 때문에 집이 저당잡히고 이씨는 머리카락을 팔아 치료비를 마련해왔다는 이야기였다.<br/><br/>치료비 몇 푼이 없어 병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도 흔했다. 1969년 11월 경향신문은 술에 취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입원비 1만원이 없어 치료를 거절당한 후 집으로 돌아와 17시간 만에 숨진 정균철씨(48세)의 사연을 전했다. <br/><br/>이 시기 아프고 가난한 이들 곁에는 국가가 아닌 ‘독지가’와 ‘이웃’이 있었다. 급우들이 돈을 모아 친구를 살리고 독지가의 후원이나 독자 성금으로 치료비 문제를 해결했다는 미담은 단골 기삿거리였다. 1971년 3월19일 경향신문은 “<span class='quot1'>‘어머니 치료비 마련 위해 눈 팔겠다’는 기사를 보고 감동한 독자들의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br/><br/><br/><br/>■‘경제발전’에 밀린 의료서비스<br/><br/>의료인프라가 크게 부족했던 1960~1970년대에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민간요법이 성행했다. 의사와 병원은 멀고 ‘돌팔이’는 가까웠다. 1971년 1월 “수은으로 각종 병을 고친다”며 편도선염을 앓는 환자에게 끓는 수은에서 나오는 김을 코로 들이마시게 해 4일 만에 수은중독으로 숨지게 한 돌팔이 의사의 얘기가 언론에 실렸다. 이듬해 2월 “신병을 고쳐준다”며 환자의 다리를 소금물에 매일 30분씩 담그게 하고, 왼손 넷째 손가락을 실로 동여매는 엉터리 치료를 한 돌팔이 의사가 적발됐다. 당시 경향신문은 “이처럼 돌팔이들이 날뛰게 되는 이유는 국민의 무지와 빈곤도 있지만 의사 수가 적다는 데도 있다”면서 “68년 말 현재 한국의 의사 수는 1만1869명. 이는 의사 한 사람에 인구 3300여명으로, 일본의 920 대 1과 미국의 690 대 1에 의하면 그 부담은 너무 크다”고 진단했다.<br/><br/>1976년 박정희 대통령이 “<span class='quot2'>저소득층이 병에 걸렸을 때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대책이 국민의 관심사</span>”라고 밝히기에 이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span class='quot2'>4차 5개년 계획이 달성되면 국민생활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span>”이라고 말한 것에서 보듯 의료보험과 의료인프라 정비는 경제성장보다 후순위로 밀려났다. 1978년이 돼도 “병원 문턱이 높다”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았다.<br/><br/><br/><br/>■늘어가는 ‘직업병’<br/><br/>1980~1990년대엔 ‘직업병’이라는 새로운 병이 생겨났다. 1988년 7월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던 문송면군(15세)이 수은중독으로 숨졌다. 앞서 금속 제련소 용광로 작업장에서 일하던 김신용씨는 중금속복합중독에 의한 신경계통 마비로 식물인간이 됐고, 그의 몸에선 국내 첫 카드뮴중독으로 숨진 고상국씨보다 15배나 많은 카드뮴이 검출됐다. 1985년엔 경남 온산 공업단지 내 어촌 주민 500여명이 진폐증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기도 했다.<br/><br/>산업재해는 경제성장에 매몰돼 사람을 챙기는 데 소홀했던 사회가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될 결과였다. 산업재해 증가는 ‘직업병 전문병원’을 탄생시켰다. 1988년 원진레이온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사망하자 사측은 직업병 의혹을 제기한 노동자 4명에게 600만원을 주며 무마하려고 했다. 그러나 결국 ‘원진 직업병 피해자 및 가족협의회’가 구성됐고 ‘원진 직업병 관리재단’이 설립됐다. 재단은 2003년 직업병 전문병원을 세워 산업재해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br/><br/><br/><br/>■전 국민 건강보험 명암<br/><br/>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절대빈곤에서 상당 부분 탈피하게 됐다. ‘학우 ○○를 살려주세요’ ‘아들을 담보로라도 아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식의 호소나 병원에서 쫓겨나는 일은 30년 전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br/><br/>1989년에는 전 국민 의료보장제가 확립됐다. 현재의 건강보험과 유사한 틀을 가진 의료보험제도가 갖춰진 것이다. 1999년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됐고, 2003년 국민의료보험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재정적으로 통합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br/><br/>이로써 ‘한국은 건강보험만큼은 잘 갖춰진 나라’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모든 의료기관에 ‘당연지정제’를 적용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어느 병원·약국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모든 의료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br/><br/><br/><br/>그러나 지역 간 의료격차는 여전히 심각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병·의원) 현황 통계를 보면, 2013년에 비해 요양기관 수는 증가했으나 전체 요양기관의 절반에 가까운 49.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서울 강남구(2761개소)는 가장 적은 경북 울릉군(10개소)에 비해 약 276배가 더 많다.<br/><br/>건강보험 미가입자 등 사각지대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빈곤층건강권팀장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제도적 피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비급여 항목(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항목)이 많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김 팀장은 “<span class='quot3'>본인이 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은 중산층에게도 부담되는 수준</span>”이라고 말했다. 해방 이후 70년이 흐르는 동안 한국은 ‘인간다운 삶’과 ‘복지’를 논할 수준의 경제규모를 마련했다. 그러나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된 사람들의 탄식은 여전히 들려오고 있다.<br/><br/> <br/>특별취재팀 <br/><br/>사회부 정제혁 기자(팀장), 사회부 구교형·박용필·선명수·백철·이혜리·김지원·김상범·배장현·김서영 기자<br/><br/><김서영·백철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52.txt

제목: 암웨이의 ‘중국웰빙공정’…우시(無錫) 지역에 암웨이식물연구센터 개관  
날짜: 20151027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0914197  
본문: 한국암웨이는 27일 “<span class='quot0'>글로벌 웰니스 전문기업 암웨이가 지난 23일 중국 우시(無錫) 지역에 총 33만 평방미터(㎡) 규모의 암웨이 식물연구센터(Amway Botanical Research Center, ABRC)와 연구농장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다</span>”고 밝혔다.<br/><br/>암웨이 측에 따르면 장수성(江蘇省) 우시 시에 위치한 암웨이 식물연구센터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 최초의 중국 약재 재배 기술 및 약재 추출물 연구 기관이다. 건강기능식품과 뷰티제품 개발을 위해 아시아 식물에 관한 다각도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물연구센터와 함께 조성된 연구농장은 암웨이 뉴트리라이트가 미국, 브라질, 멕시코에서 운영중인 대규모의 농장들과 함께 암웨이의 ‘글로벌 기준’을 준수하며 중국 전통 약재 등 연구 목적의 아시아 식물을 재배하게 된다.<br/><br/>암웨이는 아시아의 식물을 재배하고 연구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식물연구센터 부지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300개 이상의 후보 부지 중 환경, 교통, 역사 및 인문학적 배경과 토지의 잔류농약, 중금속 오염도, 물길의 근원, 공기의 질 등 각종 요소에 관해 철저한 선별검사를 거쳐 2012년도에 우시 지역을 암웨이 식물연구센터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br/><br/>우시 지역을 암웨이 식물연구센터의 부지로 선정한 이후 3년의 기간을 더 투자해 토지, 지반, 배수시스템, 물길정비 및 정화작업 등 광범위한 환경개선 작업을 수행했다. 이로써 우시 농장이 암웨이의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생태 농장으로서 최적의 작물 생장환경을 갖추도록 생태계 시스템을 정비했다.<br/><br/>암웨이 식물연구센터는 선진 과학연구 실험실, 스마트 과학연구 온실 및 생태농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의 연구원들은 중국 과학원, 푸단대학, 난징 농업 대학 등 중국 유수 대학 및 연구 기관 출신의 전문가들이다.<br/><br/>암웨이 식물연구센터에 조성된 생태 농장은 아시아 식물 원료 등 천연 원료에 관한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3000~5000여 개의 식물에 관한 데이터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트리라이트 건강연구소 및 미시건주 에이다(Ada)의 본사 연구진들과 함께 탐색·분석한 후, 우시 연구 농장에서 재배하여 인체 유익성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br/><br/>식물이 가진 에너지, 즉 식물영양소를 연구해 온 암웨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아시아의 식물원료 및 동양 전통 의학이 가진 가능성에 주목했다. 암웨이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뉴트리라이트의 창립자 칼 렌보그는 1920년대에 중국에서 신선한 채소와 현미를 먹는 농민들이 고기와 백미 위주 식단의 부유층보다 더 건강하다는 점에 주목, 계속된 연구 끝에 1934년 북미 최초의 종합 비타민·미네랄 제품을 개발했다. 이번 암웨이 식물연구센터의 개관은 81년 전 뉴트리라이트가 탄생한 아시아로 돌아와 또 다른 차원의 연구를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br/><br/>중국암웨이 연구개발 및 기술규제 관리부 지아 첸 부사장은 “<span class='quot1'>새롭게 출범한 암웨이식물연구센터에서는 중국 전통 약재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전통 작물에 암웨이 연구개발(R&D) 능력으로 대표되는 서양 현대 과학이 가진 기술력이 결합된 미래형 연구와 제품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중국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 등의 식물연구 관련 학계 및 정부 기관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span>”는 의사를 밝혔다.<br/><br/>암웨이 글로벌 본사 R&D 및 품질보증부서 캐서린 에렌버거 부사장은 “<span class='quot2'>암웨이식물연구센터는 암웨이 뉴트리라이트가 식물영양소 연구를 시작했던 80여년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아시아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80년 이상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의미가 있다</span>”고 말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53.txt

제목: 암 투병 공무원 1억원 쾌척 ‘아름다운 기부’ 감동  
날짜: 20151026  
기자: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0840239  
본문: 암 투병 중인 한 공무원이 1억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아름다운 기부’로 감동을 주고 있다.<br/><br/>사천시는 최근 시청직원인 엄경희씨(44·행정 6급)가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재단에 자신이 모아온 1억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br/><br/>엄씨는 8년 전 암이 발병한 이후 수차례 수술을 하며 힘든 투병 생활을 이어왔으나 호전되지 않아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엄 씨는 정상 업무에 차질을 빚자 결국 명예퇴직을 결심했다. 이번에 기부한 장학금 1억원은 엄씨가 차곡차곡 모아온 저금과 퇴직금이다.<br/><br/>엄씨는 “어렵고 힘든 젊은 인재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펼쳐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며 “저 역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외롭게 성장해 늘 못다한 학업의 꿈이 있었다”고 말했다. 엄씨는 시청 근무 기간 예산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실력을 발휘해 장관표창 등을 받으며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br/><br/>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인 송도근 사천시장은 “<span class='quot0'>하루 빨리 쾌차하기를 바란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해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span>”고 말했다.<br/><br/><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54.txt

제목: <헬스 게시판> 대전선병원, ‘갑상선 이야기’ 무료 시민건강강좌 등  
날짜: 20151026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0814323  
본문: 대전선병원(원장 박노경)이 오는 30일 오후 3시, 병원 대강당에서 ‘갑상선 외과 전문의들과 함께하는 갑상선 이야기’ 무료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한다.<br/><br/>대전충청 갑상선연구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이승구 선병원 국제의료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갑상선 암의 진단 및 치료(유지만 대전선병원 유방갑상선외과 과장), 갑상선 양성 질환(민준원 단국대병원 외과 교수), 갑상선 암 수술 후 관리(전기원 건양대병원 외과 교수) 등 강의를 진행한다. (042)220-8859)<br/><br/>■여의도성모병원, 시민들을 위한 갑상선 건강강좌<br/><br/>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승기배)은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부터 4층 강당에서 당뇨병 공개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최근 갑상선결절과 갑상선암 환자수의 증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갑상선 질환의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인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만련됐다. 갑상선 기능항진증과 기능저하증(내분비내과 백기현 교수), 갑상선결절 원스톱 서비스(내분비내과 윤경진 교수), 갑상선암의 수술치료(이비인후과 박영학 교수), 갑상선암의 방사능요오드치료(핵의학과 손형선 교수), 갑상선 질환과 음식(김혜진 영양팀장)이 각각 강의한다. (02)3779-1176<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55.txt

제목: ‘복지부 장관상’ 받은 김시영 교수…“호스피스 완화의료, 포기 아닌 통증 줄이고 심적 치료가 목적”  
날짜: 20151025  
기자: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0657455  
본문: 말기암 환자의 죽음은 인간다울까. 말기암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에 불과하다. 지난해 암으로 사망한 사람 7만6611명 중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입원한 환자 1만559명을 근거해 추산한 결과다. 이는 2009년 9.1%에 견주면 다소 조금씩 증가한 수치이지만 영국(95%), 미국(43%) 등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br/><br/>매년 10월 둘째 주 ‘세계 호스피스 완화의료 주간’을 맞아 지난 21일 김시영 호스피스 완화의료학장(60·경희대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사진)을 만났다. 그는 5년간 호스피스 완화의료 저변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br/><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제가 치료하고 있는 환자의 30%는 말기암 환자</span>”라면서 “<span class='quot0'>환자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소개하면 여전히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다</span>”고 했다. 그는 더 이상 항암치료도, 수술도 소용없는 말기암 환자들이 계속 항암제 치료를 받다가 부작용에 목숨을 잃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 완화·심적 치료 등 전인적인 말기암 환자 치료를 뜻하는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그는 “<span class='quot0'>지난 7월부터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호스피스 병상 확충과 일반인의 이해 확대, 관련 법안 마련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span>”고 지적했다. 현재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전국 60곳이 있으며, 총 병상은 1009개이다.<br/><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의료현장에서 말기암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연명치료가 시행되고 있는 사례도 많다</span>”고 전했다. <br/><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가장 중요한 것은 ‘웰 다잉’, 즉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마음</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져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56.txt

제목: <헬스 게시판> 울긋불긋 깊어가는 가을…각종 건강강좌 풍성  
날짜: 20151025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0627072  
본문: “<span class='quot0'>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네 /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익어가네 / 익어가는 날들은 행복하여라 / 말이 필요없는 고요한 기도 / 가을엔 너도 나도 익어서 사랑이 되네</span>” (이해인 수녀 시 - 익어가는 가을)<br/><br/>만산홍엽, 가을 산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었다. 도심의 공원과 가로수들도 노오란, 빠알강 옷으로 갈아입었다. 농촌의 들녘은 황금빛으로 출렁이고 있다. 저만치 깊어가는 가을, 의료계는 각종 건강강좌를 마련해 국민건강의 결실을 돕고 있다.<br/><br/>■이해인 수녀와 함께하는 대장암 환우 모임<br/><br/>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 23일 100여명의 환우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과 김대동 교수와 이해인 수녀가 함께하는 ‘HOPE 대장암 환우 모임’을 개최했다. 김 교수는 ‘당신에게 좋은 생활습관’ 주제로 대장암 재발방지와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는 습관에 대해 강의를 했다.<br/><br/>‘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등의 저자인 이해인 수녀는 ‘함께 기억하고 싶은 말, 실천덕목 5가지’, ‘고운말 차림표 10가지’에 대해 강의했다. 이해인 수녀는 2008년 자신이 겪은 대장암 극복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부정보다는 긍정,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했다.<br/><br/>■건국대병원, 26일 골다공증 건강강좌 개최<br/><br/>건국대병원은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대강당에서 골다공증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골다공증의 진단과 치료(내분비대사내과 송기호 교수), 골다공증 골절의 치료(정형외과 김태훈 교수) 등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있다. 이번 강좌는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1588-1533, 1800-1533<br/><br/>■제일병원, ‘유방암 유乳비무환’ 건강강좌<br/><br/>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병원장 민응기)은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모아센터 지하3층 대강당에서 ‘유방암 유乳비무환’ 공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유방 건강(외과 이해경 교수), 유방암 치료의 최신 동향(외과 고승상 교수) 강의를 비롯해 질의응답, 유방암 자가검진법 교육, 유방모형을 활용한 자가검진법 실습이 진행된다. (02)2000-7281<br/><br/>■중앙대병원, ‘조용한 도둑 골다공증’ 강좌<br/><br/>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은 29일 오후 2시부터 중앙관 4층 동교홀에서 ‘조용한 도둑, 골다공증을 잡읍시다’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골다공증과 갱년기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산부인과 박형무 교수의 단독 강좌로 진행된다.<br/><br/>‘골다공증의 치료’ 주제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골밀도의 변화와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 등에 대해 설명한다. 강좌 1시간 전부터 참석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발목으로 측정하는 초음파 골밀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02)6299-2219)<br/><br/>■서울성모병원, ‘뇌졸중의 날’ 건강강좌<br/><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병원장 승기배 교수)은 이달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뇌졸중의 날’ 공개강좌를 연다.<br/><br/>‘신속한 응급치료 119’ 주제로 신경과 구자성 교수의 인사말에 이어 뇌졸중의 이해(신경과 이광수 교수), 약물치료(신경과 이기정 교수), 수술적 치료(신경외과 신용삼 교수), 영양관리(영영팀 김영애 영양사), 재활운동(재활의학팀 신민철 선임), 복지-노인장기요양 보험, 장애인 진단 및 혜택(사회사업팀 문계숙 수석) 등으로 진행된다. (02)2258-2101<br/><br/>■고려대 안암병원,‘뇌졸중의 날’ 건강강좌 <br/><br/>고려대 안암병원(원장 김영훈)은 29일 오후 3시 안암병원 1층 식당 내 회의실에서 ‘2015 뇌졸중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뇌졸중의 치료(신경과 조경희 교수), 영양관리(김은진 영양사), 재활(재활의학과 문현임 교수) 강의를 통해 뇌졸중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 상식과 증상 및 치료, 예방 생활수칙 등에 대해 알려준다. (02)-920-5853<br/><br/>■연세암병원 간암센터, ‘간암베스트팀’ 공개강좌<br/><br/>연세암병원 간암센터(센터장 최진섭)은 11월 6일 오후 2시부터 병원 지하3층 서암강당에서‘환자와 가족을 위한 간암 공개강좌’를 갖는다. ‘간암 베스트팀’이 간암의 예방과 치료, 수술과 간이식, 방사선치료, 식이요법 등 간암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br/><br/>간암의 예방과 조기진단(소화기내과 김범경 교수), 간 절제수술 및 이식수술의 이해(간담췌외과 한대훈 교수), 간암 인터벤션 치료(영상의학과 원종윤 교수), 암지식정보센터 즐기기(방사선종양학과 금웅섭 교수), 웃음치료(정은경 웃음치료사), 방사선치료는 언제 필요할까요(방사선종양학과 성진실 교수), 건강한 식사로 암을 이기자(영양팀 오금례 영양사), 항암약물치료로 간암을 치료할 수 있나요(종양내과 최혜진 교수),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간암 이겨내기(암예방센터 박지수 교수) 등 강의가 마련돼 있다. (02)2228-4088<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57.txt

제목: 김혜자의 주름과 안면근육에 관한 연구  
날짜: 20151024  
기자: 박상미 문화평론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0617283  
본문: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수만 개의 표정, 김혜자 1편<br/><br/><br/>“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김혜자예요. 저는 이제 촬영 끝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정신은 맑지만 몸이 무겁네요…. 드라마 보시고 좋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가의 산뜻한 의도를 잘 표현해 보려고 이리저리 상상해 보며 연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마음이 몹시 분주하고 여유가 없다는 얘길 하느라고요. 말실수를 잘해서 본래 인터뷰를 겁나 하는데… 이해해주세요♡”<br/><br/>“잘 지내시지요? 제가요… 좀 아픈 중이에요. 그러니까… 앓고 있어요. 이렇게밖에 답을 못 드려 미안합니다. 저는 좀 못됐나 봐요. 그냥 어느 날 써주신 기사를 보고 날 이렇게 써주시다니, 아 행복해, 아 재밌어… 이러고 싶은가 봐요. 웃기지만… 이해는 할 수 있겠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건강히 잘 지내세요♡” <br/><br/>배우 김혜자를 만나서 대화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느낀 날, 그날부터 10개월간 주고받은 수많은 문자 중 두 통이다. 무료 문자 서비스도 아니고, 유료 MMS 메시지를 이렇게 길게 보내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거절의 메시지를 이토록 정겹고 따뜻한 문장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놀라며 그 화법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한 사람. 그의 문장에 ‘김혜자 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었다. <br/><br/><br/><br/><김혜자의 주름과 안면근육에 관한 연구> <br/><br/>10개월 동안 노트북 바탕화면에 떠 있는 폴더 이름이다. 수만 개의 표정을 짓는 배우 김혜자. 착한 엄마, 바보 같은 엄마, 가출하는 엄마, 이기적인 엄마, 유괴범 엄마, 살인자 엄마, 까칠한 엄마, 심보가 배배 꼬인 엄마, 광녀 같은 엄마. 그 다양한 엄마들이 내뱉는 대사에 찰떡같이 어울리는 표정을 ‘짓는’ 사람이다. ‘짓다’라는 동사가 집과 농사 그리고 글에는 어울리지만, 표정에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 내게, 표정을 짓는 것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라는 것을 깨닫게 한 배우 김혜자. <br/><br/>하지만 그는 모를 것이다. 인간 김혜자가 아닌 광대의 피가 지어낸 수만 명의 표정이 김혜자 속에 산다. 새로운 작품을 만나면 잠자던 수만 명의 표정이 깨어나서, 어느 순간에 그의 얼굴에 등장해야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김혜자의 호출을 기다린다. <br/><br/>배우 김혜자의 작품을 거의 다 보았지만, 영화 <마더>는 연구 텍스트이자 매학기 강의 자료로 쓰는 바람에 100번은 본 영화다. 영화 <마더>에서 아들이 죽인 소녀 아영이의 장례식장에 진한 화장을 하고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찾아간 광녀 같은 엄마는 광인의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소리친다. <br/><br/>“사실은 우리 아들이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헷갈려서는 안 돼. 내 아들은 아니야!”<br/><br/>경련을 일으키는 그의 안면근육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그의 무표정 연기 장면만 모아서 모니터를 한 적이 있다. 그 순간에도 인물의 심정은 눈밑 근육에 파르르 경련을 일으킨다. 미세한 감정의 요동에 따라 파르르, 눈동자의 움직임과 함께 움직인다. 마치 자신의 감정에 따라 안면근육을 연주하는 것 같다. 엄마의 부릅뜬 눈 속 유난히 까만 눈동자가 휙휙 돌아갈 땐 프레스티시모(극히 빠르게)로. <마더>의 마지막 장면, 자신이 저지른 살인 현장에 떨어트리고 온 침통을 아들로부터 건네받고, 울음을 꾸역꾸역 삼키며 관광버스로 향하는 엄마가 눈을 질끈 감을 때는 그라베(무겁고 느리게)로.<br/><br/><br/><br/>그에게 연기란 한 영혼에 접신한 무당처럼 빙의돼서, 육체를 빌려준 인간 김혜자는 망각하고 오로지 그 인물에 매몰되는 굿판이 아닐까. 일흔이 넘은 여배우의 주름살 고랑마다 감정의 물결이 흐른다. 피부의 탄력이 상실되고, 진피 속의 근육섬유가 퇴화되어 생긴 주름. 상실과 퇴화를 이토록 아름답게 승화해내는 주름이라면, 김혜자도 아닌 주제에 나도 서둘러 그것을 갖고 싶었다. 김혜자의 주름이 늘수록 그에게 거는 기대치가 커지는 이유다.<br/><br/>그 사이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고, 인터뷰는 포기하고 지내던 어느 날, 느닷없는 문자를 받았다. “벌써 가을이에요. 잘 지내시지요? 저는 이제 아플 겨를이 없어요. 저는 매일 연극 연습 중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연습실 오셔서 보셔도 돼요. 그 말 하려고…. 오늘도 평안하세요.” 발신인 이름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상대의 체온을 38도로 데우는 문장은 ‘김혜자 체’였다. <br/><br/><br/><br/> “<span class='quot0'>거지같이 말해도 부자같이 써주세요.</span>”<br/><br/>생각보다 더 작고 가냘픈, 화면에서보다 주름이 적고 맑은 은 피부를 가진 맨얼굴의 여배우가 하늘하늘 걸어 나오는 장면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서 잠시 멍하게 서 있었다. 극단 로뎀의 <길 떠나기 좋은 날>의 주인공 소정 역을 맡아 매일 6시간씩 연습 중인 그를 찾아갔다. 흴 소(素), 고요할 정(靜). 지금 그는 혜자가 아닌 그야말로 ‘소정’의 모습이었다. 다리를 다쳐 모든 걸 잃은 축구선수 ‘서진’이 입원했던 병원의 간호사였던 소정은 모든 걸 잃은 남자에게 격려와 사랑을 끊임없이 주는 아내이자, 가난한 나라의 얼굴 까만 청년과 결혼하겠다는 딸을 응원해 주는 엄마의 역할이다. 정작 자신은 암에 걸리자 남편에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수녀님을 따라 요양원으로 가는 고요한 여인. <br/><br/><br/><br/>실제로 뵈니까 피부가 참 하얗고 맑으세요.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서는 주름이 너무 깊고 마귀할멈 같은 모습이어서 깜짝 놀랐었는데…. 얼굴이 참 생기 있고 평온해 보여요. <br/><br/>“내가요…. 내 얼굴이 변한 걸 느껴요. 예전에 나는 쭈뼛쭈뼛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씩씩해졌어요. 내 성향이 자기연민에 잘 빠져서 서글픔, 공허함 같은 걸 많이 느끼죠. 근데 이제는 또 이런다, 또 오는구나… 그만 가렴… 그러면서 금세 극복해. 나는 참 씩씩해졌어요.” <br/><br/><br/><br/>마음에 근육이 생긴 걸까요.<br/><br/>“맞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걸 확실히 느끼면서 내가 달라졌어요. 연습하느라 힘들어도 생기가 있어요. 특히 이번 극은 하상길 연출가의 창작극이자 최초로 무대에 올리는 극이어서 연구할 게 많아요. 배우가 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연기도 금세 생기를 잃어요.”<br/><br/><br/><br/>작년에 모노드라마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고 나서 배우 김혜자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상상하지 않기로 했어요. 일흔셋 할머니 배우가 2시간 동안 혼자 10살 꼬마 아이부터 70대 할머니까지 11개의 역할을 소화해내는 모습도 놀라웠어요. ‘왜 하느님은 아픈 사람을 만드는 거야?’, ‘삶이 왜 고통스러워야 해?’, ‘왜 이렇게 인생이 불공평해?’ 제가 신께 묻고 싶은 질문들을 어린 오스카가 대신 다해줘서 속이 시원했어요. 하지만 힘든 무대를 끝냈으니 당분간 연극 좀 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br/><br/>“연극은 그 후로 그만하려고 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던지는 질문들을 다했으니까.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작품만 선택하는데, 나를 아끼는 연출자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주셔서 하게 됐어요. 이 작품은 꿈처럼 아름다워요. 그래서 너무 꿈처럼 보이지 않도록 연구할 부분이 많아요. 가난한 나라 총각과 결혼하려는 딸을 세상이 비웃지만 엄마는 격려하거든요? 어떻게 세상 말에 개의치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죠. 우리가 잊고 살지만요. 사실, 사랑만 가지고 다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강퍅해진 게 아닐까? 우리 본성은 이게 아니야…. 보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연기해야 돼요.” <br/><br/><br/><br/>극의 대사는 선생님 마음과 일치하나요.<br/><br/>“대사가 꿈처럼 곱게 써져 있어요. ‘먼 산 잔설 남아 있어도 남양 언덕 밑 햇살 따뜻해. 고양이 졸고 있는 오늘은 참 길 떠나기 좋은 날이로구나.’ 이 아름다운 시를 일상의 언어로 표현해야 돼요. 참 어렵지만, 연구를 많이 해야죠.”<br/><br/><br/><br/>서로를 애틋하게 사랑하는 부부 이야기더군요. 연기하면서 먼저 가신 남편분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라디오 방송 <김혜자와 차 한 잔을>을 18년간 함께한 박경희 작가에게 인간 김혜자에 대한 사전 인터뷰를 오래 했는데요. 그분이 선생님의 남편분을 표현하길 ‘아내를 이토록 존중하고 아껴주는 남편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아내를 딸처럼 귀하게 사랑하다 가신 분’이라고 하시더군요. <br/><br/>“대사에서 여보, 여보 하다 보면… 남편이 그리워요. 이제껏 작품 하면서, 남편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굉장히 사랑하는 부부 이야기거든, 서로 끝없이 격려해주고… 나도 이런 사람이었었나… 어머, 내가 나이 드니까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웃음)” <br/><br/><br/><br/>그리운 남편, 어떤 분이셨나요. 미안한 점도 혹시 있나요.<br/><br/>“나는 우리 남편이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함부로 했던 게 미안해요. 딱 한 번, 화를 낼 뻔했던 적은 있었어요. 식사하는데 내가 얼마나 약을 올렸으면 밥상 모서리를 들려고 하더라구요.(웃음) 내가 너무 놀라서 진짜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랬던 기억나요. 얼마나 울화통이 터졌으면…(웃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러니 나를 아빠 기준에 맞추지 말아요.’” <br/><br/><br/><br/>1998년에 투병하다 가셨지요. 너무 일찍, 59세에 혼자가 되셨어요.<br/><br/>“그 사람 병실에서 의사 붙들고 무조건 아프지 않게 도와달라고 애원했던 거는 기억나요. ‘이 사람 죽죠?’ 물으니, 그렇대. 그러면 이 사람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몰핀, 그 마약 계속 놔주시면 안 돼요? 부탁했지.”<br/><br/><br/><br/>돌아가신 후에 여주 장지에서 하관할 때, 상여꾼들이 쉬는 참마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서 울면서 돈을 쥐어주며 부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간절해서 그 자리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br/><br/>“아휴… 그것도 잊고 살았네…. 그쪽에선 망자를 관에서 꺼내서 꽁꽁 묶은 후에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위에 흙을 뿌리고 상여꾼들이 꼭 꼭 밟아가며 묻는 거예요. 아휴…. 밟지 마요. 아파요. 밟지 마요… 그랬는데 밟아야만 한대. 그래서 밟는 기분으로 하지 마요…. 안 아프게 정성껏 묻어주세요 그랬지… 장례 끝나고 집에 와서, 라디오 방송 가려고 옷장을 열었는데 남편 냄새가 나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br/><br/><br/><br/>선생님, 부부란 어떤 관계일까요.<br/><br/>“남편은 이 세상에서 부모보다도 나를 사랑한 사람이었구나…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내가 못난 부분, 괜찮은 부분까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었구나… 떠나고 나니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겠어요. 같이 살 땐 그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는 게 부부예요.”<br/><br/><br/><br/>가장 고마운 일은 뭔가요.<br/><br/>“나를 끝없이 지지해줬기에 내가 배우 노릇을 할 수 있었어요. 한 번도 트집 잡지 않았어요. 그러니 결혼하고 아이 낳고서 처녀 때 포기한 연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남편은 나를 가장 잘 파악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좋아하는 걸 해야 하는 사람,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면 무너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에게 좋아하는 걸 하고 살라고 평생 도와줬어요. 그게 사랑이야. 그 보답으로 나도 반드시 지킨 게 있어요. 연습, 공연, 녹화하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집에서, 집안일은 못했지만 집을 안 나갔어요. 나는 세상도 잘 몰라요. 아이들이 엄마 부르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br/><br/><br/><br/>다양한 엄마 연기를 많이 하셨어요. 같은 이미지의 엄마를 연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유가 있나요.<br/><br/>“맞아요. 같은 연기는 절대로 안 해요. 새롭지 않은 건 내가 우선 흥미가 없어요. 나의 새로운 면을 깨워줄 수 있는 역할을 만나면 그 작품을 해요,” <br/><br/><br/><br/>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서는 진짜 그 일을 당해본 여자처럼 연기를 잘하셨어요. 남편도 떠나고 없는 집에, 남편의 전 여자를 데려와서 함께 지내잖아요. 암에 걸려 시한부를 사는 그 여자를….<br/><br/>“아휴, 힘들지. 남편의 여자인데. 수시로 가슴이 찌르듯 아프겠지. 그런데 같은 여자로서 또 연민이 생기겠지. 남편이 사랑했던 여자니까 증오와 연민이 함께 있겠지. 그 심정이 지옥이지…. 증오만 지옥이 아니야. 근데 작가가 너무 그 심정을 잘 썼어요. 근데 나는 항상 작가가 쓴 거 이상을 표현해보려고 애를 많이 써요.”<br/><br/><br/><br/>독일에서 영화 전공 교수들과 한국영화 세미나를 할 때, <마더>의 김혜자 표정연기를 분석한 적이 있었어요. 화면비율을 2.35대 1로 선택해서 빅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는 김혜자의 표정은 소름 돋는 연기라고 입을 모았어요. 미세한 감정의 요동에 따라 파르르, 인물의 심정이 눈밑 근육에 파르르 경련을 일으킬 때….<br/><br/>“어머, 그렇게 자세히 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니 행복해요. 나는 연습 시작부터 배우가 무대에서 입을 옷을 늘 입고 다녀요. 온전히 김혜자를 버리고 그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심정일까, 이 말을 할 때 심정은 어떤 처참한 마음일까…. 내가 온전히 그 인물이 되면 표정이며 목소리며 연기하지 않아도 그냥 나와요. 대사와 대사 사이의 행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 행간에 내 표정이 들어가죠.”<br/><br/><br/><br/>특히 <마더>에서 아들이 죽인 소녀 아영이의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사실은 우리 아들이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헷갈려서는 안 돼. 내 아들은 아니야!” 소리치는 장면요. <br/><br/>“나도 내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눈이 막 돌아가면서, 눈이 뒤집혀서 그 대사를 하더라고요. ‘어머, 이게 나야? 너무너무 무서워. 이거 좀 없애줘.’ 봉준호 감독에게 부탁했죠. ‘선생님도 모르게 이 표정이 나왔죠?’ 감독이 그래. 난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감독이 너무 좋대.” <br/><br/><br/><br/>늘 따뜻하고 도덕적이어야 하는 모성이 광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내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라는 짐승의 처절한 울음을 보여준 엄마였어요. 그 심정을 눈빛과 안면근육의 미세한 떨림으로 대사의 행간을 채워 넣었어요. 한 인간의 감정에 철저하게 매몰된, 그 영혼에 접신한 무당처럼 빙의된 연기. 소름끼치는 표정은 거기서 나오는 거였어요. 주름살 고랑마다 감정의 물결이 흘러요. <br/><br/>“정말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대사의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나면 그런 연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 <br/><br/><br/><br/>봉 감독은 김혜자는 현장에서 마치 신인배우처럼 항상 불안해한다고, 감독이 오케이 사인을 내도 정말 오케이냐고 반문한다고 말했어요. <br/><br/>“저는 늘 신인이죠. 처음 맡은 역할이잖아요. 처음 사는 인생이잖아요.” <br/><br/><br/><br/><마더>에서 춤을 출 때는 정말 무당 같았어요. 엄마의 동작은 춤을 추는데 표정은 우는 얼굴이에요. 이병우 음악감독의 장조와 단조를 오가는 슬픈지 기쁜지 가늠이 안 되는 음악이 그 심정과 아주 잘 어울렸어요.<br/><br/>“맞아요. 저도 그 음악에 빠져서 춤을 췄어요. 특히 마지막 장면, 관광버스에서 여자가 허벅지에 침을 찌르고, 하늘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춤 춰. 지금도 그 장면 보면 눈물이 나. 그 여자 심정이 어땠을까…. 봉준호 감독은 5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마더>의 엄마를 각인시켰어요. 잠자는 내 안의 감정들을 일깨워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눈을 가진 천재예요.” <br/><br/><br/><br/>수만 개의 얼굴 김혜자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인간 김혜자의 뜨거운 심장이다. <br/><br/>“내가 만일 비라면 물이 없는 곳으로 갈 겁니다. 만일 내가 옷이라면 세상의 헐벗은 아이들에게 먼저 갈 겁니다. 만일 내가 음식이라면 모든 배고픈 이들에게 맨 먼저 갈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행동으로써 얻어야 한다.” 2004년, 그가 쓴 책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를 읽고 가슴으로 밑줄을 그은 문장이다. 그는 1992년부터 굶주리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거두는 따뜻한 엄마로 살고 있다. 그의 책은 30만부가 넘게 독자의 손으로 갔고, 중학교 국어교과서에도 실렸다. 10억원에 달하는 인세는 월드비전 통장으로 고스란히 입금되고, 매달 아프리카 어린이 103명에게 밥값을 3만원씩 보내고 있다. <br/><br/>“내가 안 보내면 그 아이들 굶어요. 나는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아이들에게 돈 보내는 일이 1순위예요. 2019년 것까지 미리 다 낸 상태예요. 돈이 떨어질까 봐 조마조마해서요.”<br/><br/><박상미 문화평론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58.txt

제목: [연예는 박하수다] ‘최군tv’부터 ‘마리텔’까지···‘1인미디어’의 진화  
날짜: 20151023  
기자: 디지털영상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0432509  
본문: ☞ ‘연예는 박하수다’ 팟캐스트 듣기 <br/><br/>경향신문 엔터테인먼트 담당 하경헌 기자와 개그맨 이동엽과 이태영이 전하는 대중문화 팟캐스트. 이번 주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MBC 예능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필두로 쏟아져 나오는 ‘1인미디어’의 진화, 명과 암에 대해서 풀어봅니다.<br/><br/><디지털영상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59.txt

제목: 말기 암 호스피스 이용 영국 95%…한국 13.8%  
날짜: 20151020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30021176  
본문: 지난해 암 사망자 7만6611명 중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는 1만559명(1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영국 95%, 미국 43%, 대만 3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br/><br/>실제 이용률은 낮지만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립암센터의 대국민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58.5%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현재 1018개인 호스피스 병상 수를 2020년까지 1400개로 확대하고, 11월 중으로 가정과 항암치료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체계를 제도화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60.txt

제목: 연세건우병원 배의정 원장, "발뒤꿈치통증 유발 ‘족저근막염’ ,고해상도 초음파 통해 정확한 원인 진단 "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5757060  
본문: 발뒤꿈치가 화끈거리고, 욱신거리는 통증을 유발하는 족저근막염. 우리 발바닥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족저근막이 염증으로 인해 변성되어 발생되는 질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3만명이었던 환자는 지난2014년 18만명까지 급격히 증가했다.<br/><br/>문제는 이러한 족저근막염 환자의 급증도 문제이지만 치료율 및 치료성공률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족부질환 치료의 권위자로 꼽히는 연세건우병원 배의정원장 수술팀의 족저근막염치료 환자에 관한 임상연구결과는 이제 족저근막염 치료에 다양한 개선효과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치료성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br/><br/>고해상도 초음파장비를 통해, 숨은 변성된 근막찾기<br/>배의정 원장은 “기존의 족저근막염치료에서 90%이상의 치료성공률을 보장하는 치료는 절개를 해서 변성된 근막을 찾아 치료하는 수술적 치료가 유일했다. 즉 기존 비수술적치료들의 성공률이 낮았던 이유는 변성된 근막을 정확히 찾아 그 치료효과를 전달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br/><br/>이어 “비수술적치료 성공률의 관건인 염증으로 인해 변성된 족저근막을 정확히 찾기 위해 진단의학전문의 등과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 기존의 초음파 장비보다 해상도가 더 높은 고해상도 초음파를 통해 정확히 찾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br/><br/>배의정 원장이 족저근막염 환자 진단에 활용하는 초음파검사의 특징은 고해상도라는 차별성뿐만 아니라, ARFI 영상기술을 통해 변성된 근막의 상대적 경직도에 대한 정밀평가시행과 전달파 속도를 측정해 족저근막의 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통해 변성된 근막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근막의 손상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매뉴얼화된 족저근막치료가 아닌 복합치료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빠른 회복과 재발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인다.<br/><br/>변성된 근막, 절개 없이 Micro-Needle 통해 넓혀준다<br/>이렇게 족저근막의 변성과, 상태에 대해 정확히 측정하게 되면 정확한 Targeting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 바로 경피적근막유리술로, 경피적근막유리술이란 변성된 근막에 절개 없이 Micro-needle 을 삽입하여 변성된 근막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족저근막염 환자에 경피적근막유리술을 시행 후 우수한 임상 결과가 정형외과 최고권위의 SCI 학술지인 AJSM을 비롯 AOFAS, Foot & ankle international 등에 그 치료성공률이 수술적치료와 차이 없는 90%이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br/><br/>배의정 원장은 “<span class='quot0'>기존의 비수술적치료는 변성된 근막을 종골을 기준으로 가늠하기 때문에 치료효과를 100% 전달 할 수 없었으나, 경피적근막유리술의 경우 우선 정확히 변성된 근막을 찾아 시행하여 그 부분을 타겟팅해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높을 수 밖에 없다</span>”고 말하며 “<span class='quot0'>뿐만 아니라 수술처럼 절개하지 않고 비절개로 시행하며, 시술시간도 5~7분정도로 짧기 때문에 당일진료, 시술, 퇴원이 가능한 친 환자적 수술이라고 볼 수 있다</span>”고 전했다<br/><br/>매스미디어를 통해 안내되는 암치료의 진보에 관해 큰 관심을 보인다. 반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확률이 높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생활형 질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배의정 원장은 “<span class='quot0'>생활형 질환에 대한 낮은 관심은 막상 이 질병이 나에게 닥쳤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스스로 빼앗는 것과 같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61.txt

제목: “가습기 살균제 써보겠냐 질문에 런던 본사 임원 고개 절레절레”  
날짜: 20151019  
기자: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5641939  
본문: ㆍ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첫 방한…피해자들과 면담<br/><br/>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배스컷 툰칵을 만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의 눈빛은 기대감과 절실함으로 가득했다. <br/><br/>지난 12일 방한한 툰칵 특별보고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일대 주민의 환경피해 등 유해물질로 인한 국내 피해와 법·제도, 정부 대응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br/><br/>어머니와 함께 옥시싹싹을 사용하다 어머니가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사망한 유모씨는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만 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도 폐질환, 심장질환, 가려움증을 겪고 있다는 유씨는 툰칵 특보와의 대화 중 감정이 복받쳐몸상태가 악화되자 먼저 귀가했다.<br/><br/>지난 5월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낳은 옥시래킷벤키저의 런던 본사로 항의 방문을 다녀온 맹창수씨는 “래킷벤키저 부사장 등 임원들에게 당신네 가습기 살균제를 써보겠냐고 묻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래킷벤키저사가 런던에서 만났을 때는 대화에 나설 것처럼 하다가 한국에 돌아오자 만나주지도 않아서 더 상처를 입었다”며 “다행히 유엔에서 관심을 가져주니 기운이 난다”고 말했다. <br/><br/>딸 둘과 부인이 옥시싹싹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김모씨는 “<span class='quot0'>아이들이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숨쉬는 것을 힘들어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스테로이드 약품을 먹을 수밖에 없다 보니 여자아이 얼굴에 털이 많이 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한국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가해기업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엔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달라</span>”고 부탁했다.<br/><br/>툰칵 특보는 19일부터는 옥시래킷벤키저 ·환경부 관계자 등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br/><br/>툰칵 특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 중에 조사한 결과를 사전권고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식 보고서는 2016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며, 피해자 구제와 가해기업 처벌에 대한 강력한 권고가 포함될지 주목된다.<br/><br/>이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추가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는 모두 143명으로 늘어났다. 새로 확인된 사망자 장모씨(38)는 애경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br/><br/>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폐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피해 사례도 이날 처음으로 확인됐다. <br/><br/>피해자 윤모씨는 2001년 1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3개월간 옥시래킷벤키저의 옥시싹싹 제품을 사용하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폐기능을 50% 정도 상실했다. 그는 2011년 폐암 진단을 받았으며 왼쪽 폐 절반가량을 절제한 상태다. <br/><br/>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span class='quot1'>처음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것으로부터 10여년이 지나 암이 발병한 것으로 볼 때 2011년 이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서도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 최소장은 “폐암, 심장질환, 피부질환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br/><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62.txt

제목: 2018년부터 ‘출산 의료비’ 본인 부담 없앤다  
날짜: 20151018  
기자: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5636866  
본문: ㆍ정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공개 <br/>ㆍ내년부터 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br/><br/>내년부터 수도권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높아지고, 입주자 선정 때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br/><br/>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을 마련해 19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정부는 다음달 중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이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해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3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br/><br/>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고용·주거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올려 수도권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50% 이하(2인 가구 190만원)에서 70% 이하(266만원)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단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광역자치단체가 미혼남녀의 단체 맞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20~30% 수준인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본인 부담을 2017년부터 암환자 수준인 5%로 낮추고, 2018년에는 사실상 무료화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난임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저출산 영향으로 사회 각 부문에서 예견되는 다운사이징(규모 축소)에 대비해 장교·부사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바꾸고, 한계 대학을 퇴출하는 대학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br/><br/>노령화 대책으로는 60세 이상 정년제가 안착하도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재정·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단계적으로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일치하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하고, 현재 65세인 고령자 기준을 70세 등으로 올리는 사회적 합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br/><br/><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63.txt

제목: 폐암 수술 환자 생존율 높아져  
날짜: 20151016  
기자: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5453162  
본문: ㆍ국립암센터 “66%는 5년 이상”<br/><br/>폐암 수술을 받은 환자 3명 중 2명이 5년 이상 생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br/><br/>국립암센터는 2010년에 암센터에서 수술받은 환자 374명 중 248명(66.3%)이 5년 이상 생존했다고 16일 밝혔다. 암센터가 개원한 200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수술받은 전체 폐암환자 3159명의 생존율은 1년 92.5%, 2년 84.5%, 3년 77.3%, 4년 70.9%, 5년 66.6%로 파악됐다.<br/><br/>암의 진행단계를 뜻하는 병기별 생존율로 보면, 폐암 1A기 환자의 5년 생존율은 89.2%, 2A기 68.3%, 2B기 53.6%, 3A기는 45.1%로 조사됐다. 폐암 1A기 환자의 10년 생존율은 78.5%, 1B기는 57.1%, 2A기 57.4%, 2B기 41.6%, 3A기는 34.5%로 나타났다.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항암치료 임상시험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891명 중 62명(7%)이 5년 이상 생존했다.<br/><br/>국립암센터 한지연 폐암센터장은 “<span class='quot0'>폐암은 특성상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 생존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최근 진단 방식과 치료법이 발전하면서 생존율이 높아지는 추세</span>”라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지난달부터 폐암의 양성자 치료에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확대·적용돼 치료 효과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양성자치료는 시술 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는 양성자선 특징을 이용한 치료법으로, 정상조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 부작용이 거의 없다.<br/><br/><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64.txt

제목: [세상읽기]혹시, 당신도 치매?  
날짜: 20151015  
기자: 서홍관 | 국립암센터 교수·시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5305076  
본문: “<span class='quot0'>저, 뇌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요.</span>” 다짜고짜 진료실에 들어와 뇌 사진 찍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대개 50~60대로 최근 들어 사람 이름을 자꾸 까먹어서 대화 중 당황한 경험들이 있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 한참을 찾아야 하고, 약속을 잊었다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다.<br/><br/>과거에는 암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다. 1960~70년대에는 <스잔나>, <러브스토리>, <라스트 콘서트> 등의 영화에서 말기암 환자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서 죽어가는 ‘시한부 인생’이 슬프고도 아름답게 묘사되었다. 그러나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68.1%로 높아지면서 이제 암은 흔한 질병이면서 완치 가능한 질병으로 변하고 있다.<br/><br/>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암보다 치매가 무섭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일까, 치매가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심심찮게 보인다. 아내가 치매에 걸려 요양원으로 떠나가는 <어웨이 프롬 허>라든지, 세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존경 받는 교수로서 열심히 살아가던 앨리스가 알츠하이머에 걸려 이를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도 있고, 사랑했던 기억들까지 다 잃어가는 아내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애쓰는 남편을 그린 <노트북>이라는 영화도 있다. <br/><br/>다행인지 나에게 찾아 온 사람들은 모두 치매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에게 “나도 가끔 사람 이름을 까먹어요”하고 웃음을 던지면 그분들도 같이 웃는다. 건망증은 스스로 기억력의 저하를 호소하지만 판단력은 정상이어서 일상적인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잊어버렸던 내용을 어느 순간 기억해 내기도 하고, 힌트를 들으면 이름을 떠올리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정신 집중도가 떨어져 일시적으로 건망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br/><br/>이와 달리 치매는 기억력 감퇴가 심해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물건의 이름도 금방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리고, 그동안 사용하던 세탁기나 전기밥솥의 사용이 서툴러지고, 익숙하게 하던 요리의 순서가 헷갈려 요리를 망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거스름돈과 같은 잔돈을 주고받는데 실수가 잦고, 잘 다니던 길에서 헤매고 심해지면 자기 집을 못 찾는 일도 생긴다. 성격 변화나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과거에 매우 꼼꼼하던 사람이 대충대충 일을 처리한다거나 전에는 의욕적이던 사람이 매사에 관심이 없어지기도 한다.<br/><br/>2012년 국내 치매 유병률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18%로 치매 환자수는 54만1000명으로 추정되었다. 치매는 고령일수록 많이 걸리는데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70대의 4.97%, 80대의 24.19%, 90세 이상의 37.36%가 치매에 걸려 있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치매 환자는 늘 수밖에 없다.<br/><br/>사람들의 관심사는 한 마디로 치매에 안 걸리고 싶다는 것이다. 치매를 원인별로 분류해 보면, 알츠하이머는 71.3%, 혈관성치매는 16.9%, 기타 치매는 11.8%이다.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인 알츠하이머는 초기에는 뇌의 해마에 손상이 생겨 최근 기억이 상실되고, 진행되면 대뇌피질까지도 침범하는, 원인 모르는 질병이다. 아직까지 확실한 예방법은 없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잘 안 걸린다고 알려져 있으며, 뇌기능을 많이 쓰는 활동 즉,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언어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br/><br/>두 번째로 흔한 혈관성치매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뇌조직 손상이 초래되어 나타나는 치매를 가리킨다.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이기 때문에 금연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비만을 열심히 치료해야 한다. 운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이 대목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br/><br/>마지막으로 치매를 의심할 때 조기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달리 뇌 MRI 같은 사진보다도, 의사와의 면담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br/><br/>일단 조기 진단을 하게 되면 치매를 치료하진 못하더라도 안전 문제와 같은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 조기 진단은 중요하다. 또한 치매의 진행을 막진 못해도 약물복용을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는데, 만약 2~3년 만 늦춘다 하더라도 본인과 가족에게 결코 작은 혜택이 아닐 것이다.<br/><br/><서홍관 | 국립암센터 교수·시인>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65.txt

제목: BMW 뉴 7시리즈 공식 출시, 눈길 끄는 신기술들  
날짜: 20151014  
기자: 류형열 선임기자 rh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5040927  
본문: BMW 코리아가 14일 6세대 플래그십 세단 뉴 7시리즈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br/><br/>1977년 처음 소개된 BMW 7시리즈는 매 세대마다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여온 BMW의 플래그십 모델이자 BMW 기술과 철학의 결정체다. BMW가 ‘풀 체인지(전면 변경)’된 7시리즈를 내놓은 것은 2008년 이후 7년 만이다.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열린 출시 행사에서 “<span class='quot0'>6세대 7시리즈는 혁신적인 기술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벌써 사전계약자가 1000여명에 이르는 등 반응이 좋다</span>”고 말했다.<br/><br/>BMW 이사회 멤버이기도 한 이안 로버슨 세일즈·마케팅 총괄 사장은 “<span class='quot1'>한국은 7시리즈에 있어 세계 4위 시장</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기술개발 단계부터 럭셔리 개념을 보강하는 등 한국 고객들이 원하는 사양을 많이 반영했다</span>”고 말했다.<br/><br/>BMW는 그동안 7시리즈를 내놓을 때마다 혁신적인 신기술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1977년 발표된 1세대는 전자식 속도계를 최초로 장착했고, 2세대는 전동식 윈도와 최초의 12기통 엔진, 제논 헤드라이트와 전자식 주차거리 컨트롤 등 당시로서는 최첨단 옵션을 적용했다. 3세대 조수석 탑승 인식 시스템, 앞좌석 머리 에어백 등을 거쳐 4세대는 다이내믹 드라이브와 알루미늄 섀시, iDrive와 커넥티드드라이브 등 새로운 차량 조작과 연결 콘셉트를 적용했다. 2008년 출시된 5세대 7시리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시스템을 선보였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제 고급 세단의 필수 기능으로 자리잡았다.<br/><br/>이번에는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간단한 손동작을 통해 제어하는 제스처 컨트롤, 스마트폰처럼 두 손가락으로 지도를 확대 및 축소할 수 있는 터치 패널 스크린, 차량의 키에 LCD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도어의 개폐여부와 주행가능거리, 차량의 이상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키, LED 헤드라이트의 2배에 해당하는 600m의 조사범위를 제공하는 레이저 라이트, 좁은 공간에서 주변을 보면서 리모콘으로 주차 및 출차가 가능한 리모트 컨트롤 파킹, 주행 동안 운전자의 운전 패턴과 도로 특성을 감안해 자동차가 자동으로 드라이빙 모드를 선택하는 어댑티브 모드 등을 선보였다.<br/><br/>또 사이드실과 A·B·C필러에 카본을 모두 대체 적용하는 등 카본 코어 차체 구조를 통해 연료 효율과 차체 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카본은 철에 비해 무게는 50% 가볍지만 강성은 5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본 코어로 차체 중량은 이전 모델 대비 130㎏까지 줄었다. 차량의 무게 중심이 더욱 낮아졌고, 차축 간의 무게 배분이 50:50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도 더욱 개선됐다.<br/><br/>뉴 730d xDrive와 730Ld xDrive는 3.0ℓ 직렬 6기통 트윈파워 터보 디젤 엔진을 장착했다. 최고 출력은 265마력, 최대 토크는 63.3㎏·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제로백은 뉴 730d xDrive가 5.8초, 뉴 730Ld xDrive가 5.9초다. 가솔린 모델인 뉴 750Li xDrive는 BMW 트윈파워 터보 V8 가솔린 엔진을 장착했으며, 최고 출력 450마력, 최대 토크 66.3㎏·m의 힘을 발휘한다. 제로백은 4.5초다.<br/><br/>국내 출시 모델의 경우 모든 모델에 BMW xDrive 인텔리전트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했다. 이와 함께 자동 셀프 레벨링 기능을 갖춘 프론트·리어 ‘에어 서스펜션’과 ‘다이내믹 댐퍼 컨트롤’이 기본 제공된다.<br/><br/>뉴 7시리즈의 역동적인 주행 성능은 출시 행사 후 이어진 서킷 주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뉴 7시리즈는 플래그십 세단인데도 서킷에서의 공격적인 코너링과 가속을 척척 받아내 스포츠카 못지 않은 성능을 보여줬다.<br/><br/>뉴 7시리즈는 럭셔리 감성도 대폭 강화했다.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와 메모리 기능이 있는 전동 조절식 컴포트 시트를 전 모델에 기본 제공했다. ‘스카이 라운지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는 주간에는 넓은 개방감을 제공하며, 야간에는 1만5000개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비추며 전혀 다른 실내 분위기를 연출한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총 6가지의 색상 중 원하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라이트의 밝기 역시 조정 가능하다.<br/><br/>뒷좌석 암 레스트에 위치한 BMW 터치커맨드 태블릿을 모든 차량에 기본 제공해 글라스 루프의 천장을 열고 닫는 것은 물론 마사지 시트의 강도 조절, 시트의 통풍과 열선 제어 등 차량을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검색과 애플리케이션 이용 등 태블릿의 기능도 그대로 제공한다.<br/><br/>특히 750Li xDrive 프레스티지 모델에 제공되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는 뒷좌석 공간을 비행기의 일등석에 준하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넓은 레그룸과 더불어 조수석을 9㎝까지 이동시킬 수 있어 더욱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으며, 센터콘솔에 마련된 테이블을 통해 간단한 사무업무까지 가능하다. <br/><br/>BMW의 상징인 키드니 그릴도 진화했다. 주행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개폐되는 ‘액티브 에어 스트림 키드니 그릴’이 최초로 적용되어 디자인적인 새로움과 함께 엔진의 냉각 효과도 추가로 갖추게 됐다. 이전 세대와 비교해 차체 길이는 19㎜ 증가했다. <br/><br/>BMW 코리아는 이번 뉴 7시리즈 국내 공식 출시를 맞아 뉴 7시리즈 고객만을 위한 ‘BMW 엑셀런스 클럽(BMW Excellence Club)’을 운영한다.<br/><br/>뉴 7시리즈를 구입하는 고객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기존 2년의 차량 보증 기간을 3년으로 연장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뉴 7시리즈 고객만을 위한 전용 콜센터, 서비스센터 방문 시 우선 예약 혜택, 차량 픽업 및 딜리버리 서비스, 전담 서비스 어드바이저를 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br/><br/>가격은 뉴 730d xDrive가 1억3130만원, 롱 휠베이스 버전인 뉴 730Ld xDrive 모델이 1억4160만원, 뉴 750Li xDrive 모델은 1억8990만원, 750Li xDrive 프레스티지 모델은 1억9200만원이다.이안 로버슨 세일즈·마케팅 총괄 사장은 최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 “<span class='quot1'>BMW 디젤 엔진은 개별 국가 법규를 준수하고 철저한 엔진 테스트를 이행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span>”고 말했다.<br/><br/>그는 실제 도로 주행 시 연비 차이가 발생하는 데 대해선 “<span class='quot1'>실험실 환경과 실제 도로에서는 연비 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1'>BMW는 연비를 과대 포장하는 게 아니며 단지 실험실 환경과 실제 도로 환경에서 연비 차가 발생하는 것뿐</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로버슨 사장은 “<span class='quot2'>X5나 2시리즈, 3시리즈 등에 하이브리드를 적용하는 것도 환경 규제에 한 발 앞서 대응하기 위한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2'>이산화탄소 무배출 차량, 전기차 등을 준비하는 것도 이런 이유며 최근 추세를 볼 때 이런 차량에 대한 수요가 가속화할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br/><br/><류형열 선임기자 rh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66.txt

제목: “귤 껍질의 아우랍텐 성분 신장암 억제한다”…충남대 권기량 교수팀 효능 규명  
날짜: 20151014  
기자: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5037296  
본문: 충남대는 의학전문대학원 권기량 교수 연구팀이 감귤 껍질에 풍부한 ‘아우랍텐(auraptene)’ 성분이 가진 신장암 억제 효능을 규명한 연구 논문을 내놨다고 14일 밝혔다.<br/><br/>아우랍텐은 감귤류의 껍질에 있는 휘발성의 미토콘드리아(세포 안에서 호흡과 에너지 생산에 관여하는 소기관) 저해 송분으로 알려져 있다. 권 교수팀의 연구는 이 아우랍텐이 종양대사를 조절해 신장암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음을 규명한 것이다.<br/><br/>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아우랍텐이 신장함 세포의 산소 소비율을 줄이고, 유전자 억제를 통해 신장암 세포의 이동성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신장암 세포를 주입한 동물 모델을 통해 아우랍텐이 혈관의 생성과 성숙을 억제하고 종양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권 교수는 “<span class='quot0'>기존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세포독성으로 인한 백혈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문제가 돼 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독성 없이 신장암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적 접근법을 제시한 것으로 암 예방과 치료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br/>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13일 의생명과학분야의 국제학술지 ‘암표적(Oncotarget)’ 온라인판에 실렸다.<br/><br/><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67.txt

제목: "진도경제를 살려주세요"…농협·경찰 사칭 일당 검거  
날짜: 20151012  
기자: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4610426  
본문: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 지역 농협직원이나 경찰 관계자를 사칭, 전국을 돌며 건강식품을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br/><br/>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방문판매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농협 직원을 사칭한 김모씨(47)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br/><br/>김씨 등은 지난 4월 경기 수원에서 열린 한 축제에서 “당뇨와 암에 좋다”며 ㄱ씨에게 6만원짜리 진도 울금을 40여만원에 판매하는 등 전국의 지역 축제·행사장을 돌며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3400여명을 상대로 15억원 상당의 진도 울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br/><br/>김씨 등은 홍보 동영상을 틀어놓고 사은품을 줄 것처럼 속여 관광객들을 끌어모았고,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임의 제작한 진도농협 명함을 범행에 이용했다.<br/><br/>경찰은 또 자신을 지구대·파출소장 등 경찰관으로 소개한 뒤 진도 울금을 판매한 권모씨(53)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br/><br/>권씨 등은 지난 3월 수원남부서 소속의 한 지구대장을 사칭, 관할 지역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진도 울금을 구매해달라”며 직원 ㄴ씨에게 6만원짜리 진도 울금을 40여만원에 판매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지역 음식점 직원 150여명에게 6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br/><br/>경찰관으로 사칭한 권씨 등은 음식점에 전화해 “<span class='quot0'>세월호 사고로 침체된 진도경제를 살려달라</span>”고 말한 뒤 농협 직원이나 진도 농민을 가장한 판매업자가 방문하는 식이었다.<br/><br/>권씨 등도 단순가공식품인 진도 울금이 마치 당뇨와 암 등 질병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br/><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35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농협·경찰이라는 사람들의 추천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1'>특히 세월호 참사를 내세워 진도 경제를 살려달라는 호소에 제품을 구입한 피해자도 다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br/><br/><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68.txt

제목: “벤츠·혼다·마쓰다·미쓰비시·현대 디젤차도 배출가스기준 초과”  
날짜: 20151011  
기자: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4444940  
본문: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눈속임 파문을 계기로 전 세계 주요 차 업체들의 디젤 차량도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했다는 시험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br/><br/>메르세데스-벤츠, 혼다, 마쓰다, 미쓰비시가 생산한 디젤 자동차도 폭스바겐럼 도로 주행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배출가스를 내뿜는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br/><br/>가디언은 9일(현지시간)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업체 ‘이미션스 애널리틱스’(EA)의 최근 실험 결과 이들 회사의 디젤차가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유럽연합(EU) 허용 기준치의 최고 20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NOx)을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br/><br/>질소산화물은 태아 사망률을 높이고, 암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물질이다. <br/><br/>이미션스 애널리틱스는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현행 EU 배출가스 검사(NEDC)를 통과한 디젤 차량 200대를 대상으로 도로 주행시 배출가스량이 기준과 부합하는지 조사했다. <br/><br/>조사 대상 디젤차 가운데 150대는 기존 배출가스 기준 EU5를 충족시켰고 50대는 최근 강화된 기준인 EU6를 통과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불과 5대만이 이 기준치를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br/><br/>나머지 대부분의 실험 대상 차량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br/><br/>메르세데스-벤츠 디젤차량의 평균 NOx 배출량이 1㎞당 0.406g로 EU5 기준치의 2.2배, EU6 기준치의 5배였다. <br/><br/>혼다 차량 역시 평균 1㎞당 0.484ｇ을 방출해 공식 기준치의 2.6∼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가 명시되지 않은 일부 사륜구동 모델은 기준치의 20배에 달하는 NOx를 내뿜었다. <br/><br/>마쓰다는 평균 1㎞당 0.298ｇ, 미쓰비시는 1㎞당 0.274ｇ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유럽연합 기준치의 1.5∼3.6배를 기록했다. <br/><br/>다만, 조사 대상 차량의 엔진에 폴크스바겐 차량과 같이 불법적인 ‘속임수 장치’가 장착됐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br/><br/>유럽 최대의 소비자 감시기구인 ADAC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의 ‘i20 1.1’ 역시 질소산화물이 기준치의 6배 이상 검출됐다. <br/><br/>이미션스 애널리틱스의 닉 몰든 대표는 “<span class='quot0'>이 (배출가스 기준 초과) 문제는 업계 전체에 걸쳐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유럽연합의 환경단체 ‘교통과환경’의 배출가스 전문가인 그렉 아처는 “<span class='quot1'>새로운 배출가스 분석 괄과는 폭스바겐 파문은 단지 시작에 불과함을 알려준다</span>”며 “<span class='quot1'>디젤케이트가 다른 많은 차량 모델에도 해당됨을 알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그는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풀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차량 제조업체들의 지원금을 받지 않아 편견 없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도로 주행을 새롭게 실시해 검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br/><br/>메르세데스-벤츠는 “<span class='quot2'>실제 도로주행 시 조건은 일반적으로 실험실과 다르므로 배출가스 수치는 기준과 다를 수 있다</span>”고 밝혔고 혼다 측은 “<span class='quot2'>혼다의 차량은 유럽 법제를 준수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br/><br/>마쓰다도 자사 차량이 관련법을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고 미쓰비시는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현행 NEDC 검사가 실제 도로 주행 상황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br/><br/>가디언은 독일 교통부를 인용, 유럽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디젤 차량 가운데 거의 절반이 배출가스 조작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br/><br/>독일 교통부는 이 가운데 1.6ℓ 엔진을 탑재한 360만대는 소프트웨어 조작보다 훨씬 큰 리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하드웨어 측면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br/><br/><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69.txt

제목: 주민 사랑방이 된 책방 “서울 큰 서점 안 부럽다”  
날짜: 20151009  
기자: 진주 | 글·사진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4403457  
본문: ‘홍준표 지사에게 권하는 책’을 전시하고 책을 직접 펴내면서 시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책방이 있다. 경남 진주의 진주문고다. 책방은 색깔이 있고, 책방 주인은 성깔이 있다. “지역에 서점이 없어진 후를 한번 상상해봐라. 그 모습이 맘에 안 들면 우리 서점을 살려라.” 주인은 지역주민들을 협박하면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지역주민의 자랑이 된 책방, 그 책방 사람들을 만났다.<br/><br/><br/>지역 서점의 시름이 깊다. 온라인서점에 밀려 하나둘 사라지는 동네서점. 하지만 진주문고는 출판계의 지각변동을 비켜가고 있다.“<span class='quot0'>지역 서점 살려야 한다고 주민들을 협박한 결과예요</span>” 1986년 개척서림으로 출발해 1988년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할 당시, 4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자회사 격인 출판사도 만들어 2권의 책도 냈다. 내년까지 10권의 책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부들은 아이를 맡기고 장을 보고 학생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드나드는 ‘만남의 공간’으로 진주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br/><br/><br/>‘독서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책 읽는 사람’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는 1만3300원. 2003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저이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1% 떨어진 수치다. 독서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 중·소형 서점의 시름이 깊다. 반면 온라인서점은 성황이다. 출판시장이 쪼그라드는 와중에도 국내 최대 온라인서점인 예스24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93억원)은 전년 대비 5배나 증가했다. <br/><br/>시행 1년을 앞둔 도서정가제가 온라인서점만 배불렸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빠른 배송’ ‘낮은 가격’ ‘방대한 장서량’ 등 책을 찾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몰린다. 인터넷의 발달로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서점들은 끝내 ‘사라지는 풍경’이 되고마는 걸까. <br/><br/>8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진주문고 본점을 찾았다. 진주문고는 출판계가 급격한 지각변동과 빙하기를 동시에 겪던 지난 한 해 동안 도서정가제 시행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무사히 버텼다. 이에 더해 지역서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자회사 격인 출판브랜드 ‘펄북스’를 차려 2종의 책도 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자 매대에 수학 학습서 ‘개념원리 수학1’과 학술서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등 9권의 책을 ‘경남도지사에게 권하는 책’이라는 이름으로 진열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br/><br/>진주문고 본점은 아파트, 학원. 독서실, 농협, 빵집 등으로 둘러싸인 평거동 주택가에 있었다. 유리문에는 ‘진주 가곡 사랑모임’의 행사 안내와 카페 주소가 붙어 있었다. 문을 열자 소식지 ‘진주소식’과 거북선·궁궐 등 장난감 모형이 보였다. 1층에는 어린이 서적과 중·고등학교 참고서, 요리 등 실생활 위주의 서적이 비치돼 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사람들로 북적북적했다. 직원들이 분홍색 티셔츠를 유니폼으로 입은 것 말고는 여느 서점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문학·인문사회·과학 서적이 배열된 2층은 상대적으로 한산했다. 토익책 등 대학생 이상의 영어교재는 2층에 있었다. ‘지역에 관한 책’ ‘서점에 관한 책’ 등 테마별로 배열한 서가도 있었다. 책은 권당 가격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할 뿐, 철저히 정가로 팔았다. 창립 초부터 시행한 정책이다. <br/><br/>진주문고는 ‘만남의 공간’이었다. “지역주민들을 협박한 결과예요. 주변사람들에게 정가 정책을 설명하면서 ‘지역에 서점이 없는 걸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서점을 먹여살리는 것도 문제집입니다. 하지만 서점이 있으면 학생들이 문제집 사러 와서 놀다가 책 표지라도 구경하고 갑니다. 근처 시장 보러 온 엄마들이 애들더러 책 읽고 있으라고 서점에 맡겨두는 경우도 있고요. 다행히 시민들이 이해해줬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도서정가제 영향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전부터 당연히 시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태훈 진주문고·펄북스 대표(53)가 웃으며 말했다.<br/><br/><br/><br/>진주문고는 1986년 경상대 앞에서 사회과학서점 ‘개척서림’으로 출발했다. 진주시에 온갖 규모의 서점이 60개 가까이 되던 시절이었다. 경남대 행정학과 82학번인 여 대표는 ‘대학생들이 사회과학 서적을 읽지 않으면 대화에 끼지 못했고, 시를 읽지 않으면 연애를 못했던 시절’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당시 대학가 앞은 어디나 서점들이 잔뜩 있었고, 대학생들의 생활 중심지였다. 배고프면 거기서 라면도 얻어먹고, 대신 가게도 봐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학을 졸업하면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 서점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br/><br/>‘개척서림’ 초창기에는 강만길·송건호·리영희 선생의 책이 잘 나갔다. 때때로 금서목록에 오른 책을 팔았다며 책을 압수당하거나 경찰 조사도 받았다. 서점은 1988년 약 150㎡ 규모로 확장해 대여점과 세미나 공간을 겸하는 복합문화공간 ‘책마을’로 개편했다. 당시는 1980년대 초반 학생운동을 했던 대학생들이 막 사회로 첫발을 내딛던 시기였다. 유료회원을 받아 대여를 겸했다. 사회과학 서적이 대중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험이었다. 이 기간 진주시민 약 4만명이 회원이 됐다. 인구 5명 중 1명꼴로 등록한 셈이다. 지역사회는 물론 서울에서까지 주목을 받았지만 실험은 오래가지 않았다. <br/><br/>1990년대 들어 분위기가 달라진 탓이었다. 그는 “<span class='quot0'>사람들이 굳이 사회과학 책을 찾지 않았고,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매력도 시들해진 것 같았다</span>”고 말했다. <br/><br/>여 대표는 1991년 책방을 대학가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옆으로 옮기고 이름도 ‘진주문고’로 바꿨다. 이때부터 일반 서적 외에 수험서도 팔았다. “책을 좋아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많고, 인터넷이 없던 시대니까 그래도 지식을 구하려면 서점에 가야 했어요. 책을 좋아하는 진주시민들의 ‘사랑방’이 되자는 생각으로 운영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책이 있으면 다 가져다 놓고요.” 반응이 좋았다. <br/><br/>지역의 문인들이 놀러오면서 네트워크도 이뤄졌고, 부쩍 여가에 관심 많아진 시민들을 상대로 문화유산답사 행사도 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지역주민들에게 ‘정가정책’을 설명할 수 있었던 기회도 이 무렵이었다. 지역 특유의 끈끈한 정서가 살아 있어 가능했다.<br/><br/>여 대표에게 최고의 위기는 외환위기 무렵이었다. 1년여 먼저 조짐이 보였다. 1997년 지표상 경기는 ‘호경기’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책 매출은 급감했다. 외환위기가 터지자 종로서적 등 서울의 유명한 서점과 출판사도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진주문고도 문을 닫기 직전까지 몰렸다. 서점을 시내 중심지 번화가에서 현재의 아파트 단지로 옮겼다. 건설경기 붐으로 진주에도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는 시절이었다. ‘서점을 문 닫게 할 수 없다’는 직원들의 의지가 컸다. 다행히 진주문고는 살아남았지만 여 대표는 “<span class='quot0'>구도심의 몰락은 씁쓸한 체험이었다</span>”고 말했다. “외환위기 때 워낙 힘들었기 때문일까요. 직원들도 단련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시대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진주문고 직원 규모는 현재 본·분점 합쳐 26명이다. 서점은 연중무휴 운영하지만 직원들은 주5일, 2교대로 일한다. 출판사 ‘펄북스’는 지역 안팎의 ‘외부기획위원’들의 도움으로 운영한다. <br/><br/>“도서·출판시장의 불황과 인터넷의 발달이 오히려 기회가 된 면도 있습니다. 정보화 덕분에 오히려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에서 오는 불이익이 많이 없어졌어요. 반면 서울의 출판시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책을 만드는 고급인력들이 구조조정되는 상황이어서 ‘지역으로 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도 생겼습니다. 저 자신부터 서울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고요. 한때는 저도 서울을 동경했지만, 지금은 여기서 새로운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출판사를 만든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여 대표는 “<span class='quot1'>책을 30년 동안 팔다보니 만드는 데도 관심이 생겼다</span>”며 “<span class='quot1'>인구 35만의 도시에, 지역민들의 관심사와 시각을 반영하는 출판사가 없어서야 되겠느냐</span>”고 했다. 지난 두 달간 경남 하동군에 사는 박남준 시인의 시집 <중독자>와 일본에서 도서관 운동을 하는 이소이 요시미쓰의 <동네 도서관이 세상을 바꾼다>를 차례로 출간했다. <중독자>는 4000부 넘게 찍어 불황인 출판시장을 놀라게 했다. 에세이와 번역서 등을 포함해 10권의 책 출간을 내년 목표로 삼고 기획 중이다. <br/><br/>진주문고의 문학인문팀장이자 페이스북 관리자인 정도선씨(32)도 ‘서울을 떠난’ 젊은이다. 서울의 서점에서 5년간 근무한 그는 아내의 암 투병을 계기로 세계여행을 떠났다. 여행기 <오늘이 마지막은 아닐 거야>를 출간하고, 고향 산청으로 이주하면서 진주문고와 인연을 맺었다. 정씨는 여행기에서 멕시코의 서점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에 다채로운 서점과 서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은 사람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삶에 여유가 없는데 책이 무슨 소용일까”라면서 “서점 스스로도 책 읽는 독자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주문고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점에서 추천하는 좋은 책뿐 아니라 ‘오늘 처음 팔린 책’ 등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가 반영된 판매현황도 매일 소개한다.<br/><br/>온라인서점의 강점이 ‘알고리즘’을 통해 개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책을 맞춤으로 소개해주는 것이라면, 지역서점의 강점은 공동체의 관심사를 반영한 ‘편집배열’이다. 진주문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이 출간되자 <MB의 비용>과 나란히 진열했다. 여 대표는 “직원들끼리 ‘너무 정치적 의도가 뻔한 자서전도 팔아야 되느냐’며 토론에 부쳤는데 ‘서점이 책을 안 팔 권리는 없다. 대신 독자들을 위해 ‘다양하게 소개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란히 배열했다”고 말했다. <br/><br/>무상급식 중단 풍자와 관련해 정씨는 “홍 지사의 생각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이를 알리고자 했다. 사실 대단한 것은 아닌데, 화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숨이 막혀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다. <br/><br/>주민의 여론을 읽어내고, 좋은 책을 고르는 데 계량화된 기준은 없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직관’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직관을 키우려면 끊임없이 책에 대해 생각해야 하고,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한다. 여 대표는 “아날로그의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책의 힘’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책을 통해 지역의 희망을 노래하고 싶다”고 말했다.<br/><br/><진주 | 글·사진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70.txt

제목: 한국인 위협하는 암 질환, 암 종합검진센터에서 조기진단 할 필요 있어  
날짜: 201510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4210264  
본문: 직장인 한모씨(45, 남)는 최근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피로감으로 인해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종합검진을 받기를 권했고, 그는 위와 대장 내시경을 비롯해 자신의 나이에 해당되는 검사를 받았다.<br/><br/>한씨는 "검사를 하고 나니 그 동안 야근과 잦은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며 "특히 위장의 경우 조금만 검사가 늦었어도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었는데 종합검진을 통해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br/><br/><br/>이처럼 해마다 증가하는 암 발병률, 각종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 5대 암인 위암, 폐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는 이상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br/><br/>국가에서는 암 조기발견을 위해 완치율을 높이고 이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직장인 건강검진대상자 등에게 무료검사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추가검진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젊은 층의 경우 바쁜 일정을 핑계로 이마저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br/><br/>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종합검진센터를 갖춘 거점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나 부담없이 방문해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은평연세병원은 최신식 종합건강검진센터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br/><br/>서울 은평연세병원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의가 직접 검진과정에 참여하고, 개인 건강에 맞는 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병원 측은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검진을 유도하며, 최고급 CT, MRI, 초음파 등의 정밀 의료장비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평생건강관리시스템을 운영해 검진 후 발견된 건강문제에 대해 외래진료로 신속하게 연계하고, 전문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덧붙였다.<br/><br/>은평연세병원 관계자는 "본원은종합검진을 통해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유도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종합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치료를 받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br/><br/>한편, 은평연세병원은 진단부터 수술까지 가능한 외과 수술 의료기관으로 24시 응급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71.txt

제목: 날씨 관계 없이 더위, 추위 느낀다면 ‘갑상선 질환’ 의심해야  
날짜: 201510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4203807  
본문: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에 맞게 우리 몸이 적정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이 외부 기온에 대응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때문이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여름철에는 열을 발산하고, 겨울철에는 열을 보존해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체온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면, 몸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br/><br/>특히 더위에 대한 저항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거나 남들은 시원하다고 느끼는 온도에서도 추위를 느낀다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거나,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체온조절능력이 떨어져 평소와는 달리 더위를 참기 힘들거나 추위에 약해지기 쉽다.<br/><br/><br/>은평연세병원 내분비외과 전문의 서진학 원장은 8일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을 경우 신진대사가 빨라져 체온이 높아지고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위를 참기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반대로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져 열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몸 속에 열이 줄어들고 추위를 참기 힘들어지는데 이 같은 신체변화가 느껴진다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하고 갑상선병원을 찾아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br/><br/>갑상선은 목 앞 중앙에 있고, 앞에서 보면 나비 모양으로 후두와 기관에 앞에 붙어있는 내분비기관이다. 갑상선 호르몬과 칼시토닌을 만들고 분비하는 기관으로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 중 하나이다.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은 체온 유지와 신체대사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칼시토닌은 뼈와 신장에 작용해 혈중 칼슘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br/><br/>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체내 호르몬 불균형으로 여름철 체온조절 문제 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의 경우 만성피로, 식욕부진, 체중증가, 변비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또한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는 빈맥, 두근거림, 손떨림이 나타나거나 피로감이나 불안감이 평소보다 심해지기도 한다.<br/><br/>서진학 원장은 “신체 이상이 느껴지는 경우, 갑상선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을 찾아 혈액검사를 통해 갑상선 질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진 갑상선 외과 전문의를 통해 환자 개별 증상과 상태에 따라 갑상선호르몬제 등을 통해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임신 중인 경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임신 전후에는 반드시 갑상선 질환과 관련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br/><br/>한편 은평연세병원은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갑상선 결절, 갑상선 암 등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으며, 진단부터 수술까지 원스톱으로 치료가 가능한 첨단 의료 시설 및 우수한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갑상선 암 등 외과 수술병원으로 일요일, 공휴일에도 응급실 별도 24시간 운영을 통해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72.txt

제목: 노벨화학상에 ‘DNA 복구 과정 규명’ 3명  
날짜: 20151007  
기자: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4049631  
본문: ㆍ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에 기여<br/><br/>손상된 DNA가 복구되는 과정을 규명해 암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연 과학자들이 올해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br/><br/>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 스웨덴 출신의 토마스 린달(77), 미국의 폴 모드리치(69)와 아지즈 산자르(69) 등 과학자 3명을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br/><br/>세 과학자는 유전자 연구 분야의 개척자다. 수상자들은 쉽게 변형되고 손상되는 DNA가 세포를 이용해 어떻게 복구되고 유전정보를 보존하는지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br/><br/>노벨위원회는 “<span class='quot0'>이들 과학자의 연구는 세포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밝혀냈고, 이를 새로운 암 치료 과정에 응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span>”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br/><br/><br/>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DNA는 매우 안정적인 물질로 여겨졌다. 그러나 린달은 DAN가 쉽게 손상되고 변형되며 스스로 복구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암 연구에 몰두해온 린달은 현재 스웨덴 프랜시스크릭연구소 소속이다. 그는 수상자 발표 후 “운이 좋았다”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br/><br/>산자르는 자외선에 손상된 DNA가 복구되는 과정을 밝히고, DNA 구성 성분인 뉴클리오타이드의 절제를 이용해 피부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산자르는 터키계 미국인으로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br/><br/>듀크대 교수인 모드리치는 세포가 분열될 때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유전자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그의 연구는 대장암 치료에 이용됐다. 세 사람은 상금 800만크로나(약 11억2000만원)를 나눠 갖는다. 시상식은 오는 12월10일 열린다.<br/><br/><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73.txt

제목: 서울 내발산동 주택서 일가족 시신 발견  
날짜: 20151007  
기자: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4029523  
본문: 7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일가족의 시신 3구가 발견됐다.<br/><br/>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발견된 시신은 이 집에 거주하던 남편 이모씨(58)와 부인 김모씨(49), 딸 이모양(16)이다. <br/><br/>경찰은 이날 오후 2시15분쯤 숨진 김씨의 조카 김모씨(28)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일가족의 시신을 발견했다. <br/><br/>남편의 시신은 거실에서 발견됐으며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 양손과 발목, 무릎 등이 묶인 상태였다. 부인과 딸은 각각 안방의 바닥과 침대 위에 바로 누운 채로 숨져 있었다. 시신에서 외상과 저항의 흔적은 없었다. <br/><br/>경찰에 따르면 신고자인 조카는 이날 오전 이씨로부터 6장 분량의 유서 형식의 우편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우편물을 받은 조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가족의 시신이 발견됐다. 유서엔 ‘부채가 많고 생활고에 시달려서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인 김씨가 암 환자로 치료를 받아 왔다는 내용도 있었다. <br/><br/>부인과 딸의 시신이 발견된 안방 벽엔 ‘깔끔하게 정리해 달라’는 내용의 메모가 붙어 있었다. 책상 위에선 가족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드와 임대차 관련 서류들이 발견됐다. <br/><br/>경찰은 이씨의 손목을 묶은 매듭이 느슨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이씨가 스스로 손을 결박했으며, 아내와 딸을 먼저 살해한 후 자살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손목의 매듭은) 자살하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주저하지 않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추정된다</span>”고 밝혔다. <br/><br/>아울러 경찰은 딸의 입 주위에 거품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수면제 등 약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br/><br/><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74.txt

제목: [경제와 세상]성장률이 가라앉는 이유  
날짜: 20151007  
기자: 전성인 | 홍익대 교수·경제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4039893  
본문: 한국 경제가 망해가고 있다. 이번 정부가 창조경제 운운하며 요란을 떨었지만 그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실질 경제성장률 2%대, 명목 경제성장률 3%대가 그 적나라한 민낯이다. 작년 국회에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전망한 6%대 명목 성장률은 희대의 사기극으로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br/><br/>변명거리도 별로 없다. 메르스 사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작년에는 세월호 사고가 있었다. 올해 성장률은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를 감안할 경우 올해는 원래 성장률이 더 잘 나와야 맞다. 따라서 메르스 사태를 감안해도 특별히 성장률이 가라앉을 이유는 별로 없다. 현재 성장률은 그저 우리의 숨김없는 실상일 뿐이다.<br/><br/>따라서 지금 경제정책의 최우선은 성장이다. 성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짐을 우리 후손들에게 다 떠넘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연금 부채도, 급증할 재정적자도 다 떠넘기고 우리만 잘 먹고 떠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장에 불편한 시각을 보이는 일부 진보진영은 문제의식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 성장하지 않고는 가계부채 문제도, 재정적자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그토록 원하는 복지사회의 구현도 모두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다.<br/><br/>성장이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전제를 받아들일 경우 진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게 쉽지 않다. 다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하면 성장할 수 없다”는 소극적, 부정적 진단은 쉽다.<br/><br/>첫째, 규제완화로 성장할 수 없다. 규제가 대못이고 전봇대고 암 덩어리라면서 지난 8년 동안 신나게 완화했다. <br/><br/>삼성의 입김에 휘둘렸던 참여정부까지 포함하면 13년 동안 완화했다. 그런데도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제는 이걸로 안된다는 것을 배울 때도 됐다.<br/><br/>둘째, 자본 축적만으로 성장할 수 없다. 경제개발을 시작하던 박정희 시절에는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따라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부족한 자본이었고, 자본 축적은 바로 그런 발목잡기를 해소하는 성장의 묘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다. 자본은 우리나라에 넘쳐나고 전 세계적으로도 넘쳐난다. 자본의 수익률은 바닥을 기고 있고, 약간의 수익률 전망만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심지어 시중 금리보다 1%만 더 높은 금리를 약속하면 노인정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도 다 빼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 축적을 더 하라고 투자 장려 정책을 쓰는 것은 홍수 난 곳에 물 붓는 격이다. 가뭄에 물 붓는 것은 “단비”와 같은 정책이지만 수해 난 곳에 물 붓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br/><br/>셋째, 임금을 깎아서는 성장할 수 없다. 국내 노동자 임금을 아무리 깎아도 제3세계 노동자의 임금처럼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이것은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다. 따라서 적정 임금을 주고 좋은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정책을 펴야지, 임금을 깎고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만 고용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br/><br/>넷째, 기업의 성과와 국민경제의 성과는 언제나 같은 것이 아니다. 삼성이 돈 번다고 꼭 우리나라 경제가 그 성과를 전부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롯데가 돈 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해외 공장이 있으면 그쪽 노동자들이 좋아지고,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면 그쪽 기업이 좋아지고, 외국인 주주가 많으면 그 주주들이 좋아질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이익을 보는 부분은 국내 고용이나 하청, 국내 주주, 그리고 법인세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로 구성된 노동자에게는 억압적 정책을 펴고, 우리나라 협력업체를 쥐어짜고, 법인세도 깎아주고 그 대가로 광윤사를 행복하게 하는 정책이 과연 국민경제적으로 수지타산이 맞는 정책인가.<br/><br/>그렇다면 이런 소극적, 부정적 진단 말고 성장을 위해 좀 더 적극적, 긍정적인 해법은 없는가. 아직 없는 것 같다. 다만 해법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은 어렴풋하게 짐작해볼 수 있다.<br/><br/>첫째, 노동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자본은 홍수, 노동은 가뭄이다. 따라서 정책적 지원은 노동 쪽에 넣어야 한다.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주어야 하고,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적 자본 투자를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기업에 투자를 빌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인적 자본에 투자하도록 빌어야 한다. <br/><br/>둘째, 경제질서를 정상화해야 한다. 세금 제대로 다 걷고, 부당 노동행위 적발하고, 협력업체 착취하는 것도 바로잡고,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도 통제해야 한다. 이제까지 이것은 공정 경쟁의 차원에서만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성장정책으로 재평가받아야 한다. 경제 질서가 제대로 서야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 경제의 성장에 가장 필요한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이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br/><br/><전성인 | 홍익대 교수·경제학>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75.txt

제목: 박용근 카이스트 교수팀 ‘빛의 시간을 되돌리는 거울’ 개발  
날짜: 20151007  
기자: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4004521  
본문: 빛을 그대로 반사시켜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특수 거울이 개발됐다.<br/><br/>카이스트(KAIST)는 물리학과 박용근 교수 연구팀이 빛을 반사시켜 시간이 역행하는 것 처럼 보이는 ‘시간 역행 거울’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br/><br/>일반적으로 어떤 물체를 통과해 산란된 빛은 그 형상을 알 수 없지만, 산란된 빛을 집약시켜 다시 처음의 모양으로 재현하는 것이 연구팀이 개발한 거울의 원리다.빛의 시간 역행이라 불리는 이런 현상은 물이 쏟아지는 장면을 촬영해 거꾸로 재생했을 때 물이 다시 모아지는 것 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동안 비선형 레이저 광학 지식을 이용해 이 시간 역행 거울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개발은 쉽지 않았다. <br/><br/>박 교수 연구팀은 수 많은 미세 거울로 이뤄진 파면제어기라는 장치를 활용해 특수 거울을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움직이는 미세 거울이 입사하는 빛의 모양에 맞춰 거울 표면을 변형시키고 입사된 빛이 다른 곳으로 반사되지 않고 곧 바로 빛이 들어온 경로로 되돌아 가도록해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리는 방식이다.이 거울의 원리는 광학 뿐 아니라 물리학과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빛 뿐 아니라 소리와 전자파, 라디오 등 일반적인 파동에서 모두 성립될 수 있는 개념</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빛의 집약으로 수술 시 생체조직에서 빛이 심하게 산란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무절개 암 수술 등을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6일 물리학분야 국제학술지인 ‘피지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 온라인 판에 실렸다.<br/><br/><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76.txt

제목: [여적] 개똥쑥의 효능  
날짜: 20151006  
기자: 신동호 논설위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3844156  
본문: 핵 폭발로 폐허가 된 일본 히로시마에서 가장 먼저 새싹을 틔운 식물이 쑥이라고 한다. 쑥은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해 극한 환경이 아닌 곳이면 어디서든 자란다. 다른 식물과의 경쟁에도 매우 강하다. 오랫동안 넓은 지역에 야생한 역사를 갖고 있어 변종이 많은 것이 그런 특성을 반영한다. 세계적으로 400여종, 국내에는 약 300종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생물자원 포털이나 국가 생물종 목록에 등록돼 있는 것만 보더라도 쑥, 참쑥, 산쑥, 사철쑥, 제비쑥, 뺑쑥, 개똥쑥, 더위지기 등 40~50종에 이른다.<br/><br/>쑥은 시경(詩經)이나 구약성서 등에도 등장하지만 단군신화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단군신화에서 쑥은 100일 동안 끼니를 대신하는 구황적 기능과 동물을 사람으로 변신하게 만드는 약리적 내지 주술적 기능을 갖고 있음을 암시한다. 쑥을 대문 옆이나 지붕 위에 놓아 액운을 물리치는 민간 풍습이 바로 최근까지 전해진 쑥의 주술적 기능이다. 식생활에서는 지금도 쑥밥, 쑥국, 쑥나물, 쑥국수, 쑥떡, 쑥차, 쑥술 등 식품 재료로 쓰인다. 쑥한방비누, 쑥화장수 등 생활용품의 재료로도 다양하게 활용된다.<br/><br/>약리적 기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인터넷에는 약쑥, 인진쑥, 개똥쑥, 사자발쑥, 해풍쑥 등 쑥의 약리적 효과에 대한 정보가 폭주하고 있다. 고혈압이나 심장순환기계 질환의 치료와 예방, 간 기능 보호, 백혈병성 암과 결장·간암 세포 증식 억제, 항염증 및 진통 작용, 당뇨·고혈당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거나 그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다. 살충이나 타식물 성장억제작용을 하는 쑥의 독소 성분을 유익한 방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도 활발하다.<br/><br/>그런 쑥이 마침내 과학분야 노벨상까지 내기에 이르렀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투유유 중국전통의학연구원 교수가 개발한 말라리아 특효약이 바로 개똥쑥에서 나온 성분이다. 문화대혁명 초기인 1967년께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의 지시로 연구를 시작한 투 교수팀은 1971년 개똥쑥에서 항말라리아 효과가 있는 칭하오쑤(靑蒿素·아르테미시닌)를 발견했다. 쑥의 만병통치에 가까운 약리 효과를 애용해온 한국인들은 왜 그걸 몰랐을까?<br/><br/><신동호 논설위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77.txt

제목: 수돗물에 ‘발암 유해물’ 3종…4대강사업 후 새로 검출  
날짜: 20151005  
기자: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3650181  
본문: ㆍ환경과학원, 정수장 70곳 조사<br/><br/>장기간 마실 경우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물질이 4대강사업 후 처음으로 수돗물에서 확인됐다.<br/><br/>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Ⅲ’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장기간 마시면 발암위해도가 100만명당 1명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이 3종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발암위해도는 잠재적 오염물질에 30년간 노출될 경우 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7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5·7·9월 조사한 결과 4대강사업 후 수돗물에서 처음 확인된 발암위해도 기준 초과 물질은 니트로사민류 2종과 트리할로메탄류의 하나인 브로모포름 1종이다. 수질감시항목으로 설정돼 있는 브로모포름 발암위해도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100만명당 1명인 기준치를 넘어섰다. 심 의원은 “<span class='quot0'>암을 일으킬 위험이 높은 물질들이 수돗물에서 나타난 이유는 4대강 원수가 오염됨에 따라 정수과정에서 소독부산물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들 물질을 먹는 물 수질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br/><br/><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78.txt

제목: 키가 클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날짜: 20151002  
기자: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3252062  
본문: 나이가 비슷하다면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스웨덴 스톡홀롬의 캐롤린스카 의학연구소는 최근 키와 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가디언이 1일 전했다,<br/><br/>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키가 10㎝ 더 크면 암에 걸릴 확률이 18%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11% 더 높아졌다, <br/><br/>연구팀은 특히 암의 종류에 따라 키와의 상관성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키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피부암으로 키가 10㎝ 더 높은 것을 기준으로 암 발병률이 30%나 높아졌고, 여성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20%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립선암도 키가 큰 사람에게 더 많이 발병되는 암으로 분류됐다.<br/><br/>연구팀은 키가 더 큰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이유는 세포 수 때문이라고 밝혔다. 키가 클수록 몸 안에 세포가 더 많고, 세포들이 암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높다고 연구팀은 밝혔다.<br/><br/>영국 암연구학회의 멜 그레비스 박사는 “<span class='quot0'>키가 암 발병률과 관련있다는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입증된 적이 있다</span>”고 밝혔다. 그레비스 박사는 “<span class='quot0'>유전적으로 왜소증이 있는 사람들은 암 발병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며 “<span class='quot0'>성장호르몬이 암발병에 영향을 미친다</span>”고 밝혔다. <br/><br/>연구팀은 “키와 암의 상관관계는 높은 편이지만, 키가 크다고 반드시 암에 걸린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장신보다는 흡연과 과식 등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br/><br/>이번 연구는 1938년~1991년 사이 태어난 550만명(키 1m~2m25㎝)을 대상으로 이뤄졌다.<br/><br/><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79.txt

제목: 명의예감 (22) 이은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날짜: 20151001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3118227  
본문: ■젠더클리닉 운영하는 ‘성소수자 건강 지킴이’<br/><br/>이은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41)는 여성생식기 내분비질환(다낭성난소증후군, 월경장애, 월경통, 피임 등), 폐경호르몬요법과 폐경후 골다공증, 여성 생식기 질환의 수술적·비수술적 치료, 성소수자 호르몬 치료 등 생식내분비학 분야의 떠오르는 별이다. 청소년 및 성인의 월경 이상에 대한 전문진료와 더불어 성소수자들을 위한 ‘젠더클리닉’을 운영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br/><br/>이 교수는 젠더클리닉을 통해 직접 성소수자들을 만나서 애환을 들으며, 의사들이 임상에서 해주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 종종 성소수자들이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건강강좌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통해 가족으로서의 어려운 점과 고민을 들어준다.<br/><br/><br/><br/>그동안 대한폐경학회 우수구연상, 학술상, 대한만성골반통학회 우수구연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대한환자혈액관리연구회 총무, 대한산부인과학회 편집위원, 대한폐경학회 학술위원을 맡고 있으며 대한만성골반통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피임생식내분비학회, 대한자궁내막증학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1999 중앙대 의대를 졸업했고, 삼성서울병원 전임의(펠로), 중앙대병원 전임의·전임강사, 인천성모병원 임상조교수 등을 거쳐 2011년 순천향대 서울병원 조교수로 부임했다.<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2009~2014년)에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 환자수가 각각 13%, 36% 늘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임신 시기가 늦어진 것, 즉 고령임신이 주된 원인이 되고, 기름진 음식과 과도한 스트레스도 한 몫을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가임기 여성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치료하기 보다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지만 심한 경우라면 약물이나 수술적인 요법이 필요하다</span>”고 지적했다.<br/><br/>■자궁내 질환, 주기적인 초음파 검진이 ‘첫걸음’<br/><br/>자궁근종은 자궁 내 근육에 양성 종양이 생기는 것이고, 자궁내막증은 생리 때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자궁내막조직이 자궁 안의 난관·난소 등에 붙어 증식하는 질환이다. 자궁근종은 가임기 여성의 20~30%에서, 자궁내막증은 가임기 여성의 5~10%에서 유발될 정도로 흔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주기적인 검사만이 예방과 치료의 첫 걸음이다.“월경장애가 있는 경우 갑상선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고 골다공증이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폐경이 아직 안된 가임여성의 골다공증은 갑상선 질환, 부갑상선질환, 비타민D 부족 등의 내분비학적 원인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br/><br/>산부인과 질환 및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초음파검사를 바탕으로 한다.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많이 시행하여도 해가되지 않으며 정확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초음파 검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내려놓으셔도 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부정출혈(비정상자궁출혈)환자들의 경우 외래에서 마취 없이 자궁내시경을 이용해 자궁내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훨씬 쉽고 치료방법을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이 교수에 따르면 국내 많은 여성들이 호르몬 복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경구피임약의 경우 피임 목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치료제로도 사용하게 되는데, “오래 먹으면 몸에 안 좋지 않나요?” 라는 막연한 오해를 한다는 것이다.<br/><br/>경구 피임약은 매우 안전한 약 중의 하나로, 피임 목적뿐 아니라 월경과다, 월경장애,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등 여러 가지 치료목적으로도 처방이 되고 있다. 오래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모든 약들이 부작용이 있고 금기되어야 할 환자가 있듯이 경구피임약도 일부 부작용과 금기증이 존재한다.■호르몬 요법은 ‘폐경 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br/><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폐경에 대처하는 호르몬요법 역시 ‘오래먹으면 암에 걸린다더라’ 라는 의식이 강한 것 같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경구피임약이든, 폐경호르몬이든 그 실체를 잘 알지 못한 채 주변에서 ‘카더라’ 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진 탓</span>”이라고 강조했다. 경구피임약, 폐경 호르몬 모두 그 안전과 위험성에 대해 주변의 지인이나 인터넷 정보 같은 것이 아닌, 전문의와 상담하고, ‘나에게 그 약은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br/><br/>“호르몬 요법에 쓰이는 치료제는 폐경 후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우수한 약제 중 하나이며 더불어 심혈관질환이나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부에서는 대장암의 예방효과도 있는 약제입니다. 따라서 여성호르몬을 단순히 유방암의 위험요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폐경 후 50년의 삶의 질을 한껏 높여줄 수 있는 약제라고 생각하십시오. 폐경여성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 골다공증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뼈 건강을 위한 식품 섭취와 적절한 운동을 계속하신다면 폐경 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br/><br/>그의 좌우명은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이다. 배우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평소 꾸준한 운동(등산, 수영, 필라테스)을 통해 건강관리를 한다.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며 최근 수영과 필라테스로 근력을 기르면서 근육이완 운동을 같이 시행하고 있다. <br/><br/>“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색안경 너머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역시 사회적, 때로는 의학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평범한 개인입니다. 그들의 상당수는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여 외로움과 사회적 편견, 낙인 등에 의해 받는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가 심각합니다.”<br/><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트랜스젠더의 경우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로 인해 필요한 의학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들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동일한 인격체로 대할 수 있는 사회적 포용과 노력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80.txt

제목: 노인을 위한 금융상식 5가지  
날짜: 20151001  
기자: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3039726  
본문: 금융감독원이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들이 알아둬야 할 유익한 금융정보를 정리해 내놨다. 노인을 위한 금리우대 상품이나 보험료 할인혜택, 고령자를 위한 전용 보험상품 정보 등 지금까지 몰라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자. 노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정보 5가지를 추려봤다.<br/><br/><br/><br/>1. 노후준비를 위한 무료 자문서비스를 받아보자 <br/><br/>금감원은 1:1 맞춤형 금융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저축과 투자, 부채관리 등 주제별로 또는 결혼, 자녀출산, 은퇴 등 생애 주요 시기별로 상담이 가능하다. 고령자라면 노후 자금 마련 및 운용, 은퇴 후 창업, 자산관리 등에 대한 재무상담을 받아보면 좋다.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를 찾으면 된다.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상담할 수 있다. <br/><br/><br/><br/>2. 노인을 위한 금리우대, 보험료 할인혜택을 십분 활용하자 <br/><br/>대부분 은행은 고령자에게 0.1%포인트에서 최대 2.5%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한 예·적금 상품을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적용대상은 60세~70세 이상 고령자다. 아래는 구체적인 상품과 혜택들이다. 거래조건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전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조건을 한번 더 확인하는 게 좋다. <br/><br/><br/><br/>삼성화재,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등 8개 손해보험사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특별약관을 적용해 총 납입 보험료를 5% 할인해준다. 할인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을 3시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42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운전자를 본인 1명으로 제한하거나 부부로 한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br/><br/><br/><br/>3. 의료비에 대비해 고령자 전용 보험상품을 활용하자 <br/><br/>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뜻하지 않은 의료비 지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실손보험은 대개 가입연령이 65세 안팎으로 제한돼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8월부터 삼성화재,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삼성생명 등 11개 보험사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출시했다. 입원·통원 치료비(통원은 회당 100만원 한도)를 합쳐 연간 1억원까지 보상된다. 이는 병력이 없는 건강한 고령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다. <br/><br/>만약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을 가진 고령자라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인 ‘유병자 전용보험’을 기다려보자. 지금까지 만성질환자들은 보험가입이 아예 안되거나 암·사망만 보장되는 일부 보험만 가입할 수 있었다. ‘유병자 전용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1.5~2배 비싸지만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해 질병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br/><br/><br/><br/>4.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 묻고 따져봐야<br/><br/>가입이 쉽고 보험료가 싼 보험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조건과 보장범위를 꼼꼼하게 살펴야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심사 없이 무조건, 직업이나 병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까지 저렴한 보험은 질병보장은 없고 사망·재해·상해보험금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니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일 수 있다. ‘순수보장형’은 보험료가 싼 대신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br/><br/>가입절차가 간편하다고 광고하는 광고도 가입시 병력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해버리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 가입이 쉬운 보험은 갱신할 때 갱신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br/><br/><br/><br/>5. 모은 돈을 잘 지키자 <br/><br/>돈을 잘 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 힘들게 모은 노후자금을 허망하게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혹해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더라도 불완전판매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사실상 배상받기가 어렵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날아오는 문자나 이메일은 무시하자. 선물·옵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은 순식간에 투자한 돈을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다. <br/><br/>또 정보가 부족한 노인을 노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문자메시지에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나 앨 설치 링크가 있다면 절대 클릭해서는 안된다.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입금해버렸다면 바로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에 전화해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피해를 신고한 후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 <br/><br/>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차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현금입출금기(ATM)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없고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br/><br/><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81.txt

제목: 심근경색증·뇌졸중 예방하는 9가지 수칙  
날짜: 20150930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2840252  
본문: 심근경색증·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5만803명에 이른다. 2013년 기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만5358명(인구 10만 명당 50.2명)이었고 뇌혈관질환 사망자는 2만5445명(10만 명당 50.3명)이었다. 전체 사망의 20%를 차지한다. 진료비도 연간 6조1000억원에 달해 암 진료비(4조1000억원)보다 2조원 가량 많다.<br/><br/>그런데도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 요인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흡연자는 850만명이며 성인남성 흡연율은 여전히 40%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술자리에서 남성은 소주 7잔, 여성은 5잔 이상 마시는 ‘고위험 음주자’는 440만명이며 성인의 35.8%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폭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r/><br/>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에 대한 예방·관리도 미흡하다. 고혈압 환자는 900만명,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는 430만명에 이르지만 자신에게 이런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50%를 넘는다. <br/><br/>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은 증상이 발생한 즉시 재관류(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것) 치료가 가능한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심근경색증은 증상이 나타난 후 늦어도 2시간 이내, 뇌졸중은 3시간 이내 병원에 가야하지 하지만 실제로 걸린 시간은 2012년 기준 심근경색증은 2시간20분, 뇌졸중은 3시간24분이었다.<br/><br/>질병관리본부는 ‘세계 심장의 날’(9월29일)을 맞아 심뇌혈관질환의 심각성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9대 생활 수칙’을 30일 발표했다. <br/><br/>9대 생활 수칙은 ▶담배 끊기 ▶술은 하루에 한두잔 이하로 줄이기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기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하기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하기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기 ▶정기적으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하기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하기 ▶뇌졸중·심근경색증의 이상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가기 등이다.<br/><br/>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선 9대 생활 수칙을 준수하고 심뇌혈관질환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가까운 큰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82.txt

제목: [경제Talk] "미국에선 정크푸드(?)"…스팸은 한국에서 어떻게 '명절선물'이 되었나  
날짜: 20150929  
기자: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2733872  
본문: 올 추석 선물로 무엇을 주고 받으셨나요. 혹시 ‘스팸 선물세트’를 선물하거나, 선물로 받지는 않으셨나요.<br/><br/>스팸의 국내 판매를 맡고 있는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올해 준비해 둔 것보다 주문량이 더 많아 추가 생산까지 했다고 합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추석용 스팸 선물세트 판매액이 약 800억원(지난해 67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br/><br/>그런데 한국에서는 ‘명절 선물세트’로 인기인 스팸이 본고장 미국에서는 그저 ‘저렴한 식료품’ 혹은 ‘전쟁 때를 떠올리게 하는 식품’ 정도의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br/><br/>한국에서 스팸은 어떻게 대표적인 명절 상품으로 자리잡게 되었을까요.<br/><br/><br/><br/>■부자 혹은 연줄이 든든한 사람들만 접했던 ‘미군PX 식품’ <br/><br/>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스팸을 많이 먹는 국가입니다.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 NPR에 따르면 한국의 스팸 소비량은 미국의 절반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인구 규모는 한국의 여섯배에 달하지요.<br/><br/>미국의 ‘호멜’사가 돼지의 어깨 살과 넓적다리살(햄)에 소금과 전분 등을 가미해 ‘스팸’이란 제품을 처음 만든 것은 1937년입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군인들은 신선한 고기를 먹기 어려워졌습니다. 스팸이 미군의 주요 식료품 중 하나가 된 이유입니다. 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1억5000만 파운드의 스팸이 팔려나갔다고 하네요.<br/><br/>한국에 스팸이 들어온 것은 한국전쟁 때입니다. 당시 전쟁에 참전했던 김종식씨는 2014년 1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주한미군의) PX음식으로밖에는 고기를 접할 수가 없었죠. 당시 스팸은 부자들이나 연줄이 든든한 사람들만 접할 수 있는 사치스러운 음식이었어요.”<br/><br/>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구에서 스팸의 인기는 사그라들었습니다. ‘신선한 고기’에 밀린 것이죠. 미국에서 스팸은 저렴한 식료품 정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br/><br/>스팸이 한국에서 선물세트로 팔려나가는 현상을 짚은 뉴욕타임즈 2014년 1월 기사에는 한 한국여성의 ‘고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스팸을 사다가 미국인 시동생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네요. “<span class='quot0'>(스팸은) 미국에선 노숙자들을 위한 정크푸드예요.</span>”■김치와 만난 스팸 그리고 부대찌개<br/><br/>스팸이 한국의 음식 재료로 자리잡게 된 데는 부대찌개의 영향이 컸습니다. BBC가 2013년 게재한 ‘왜 스팸은 한국에서 고급스러운 음식이 되었나’라는 기사에는 ‘의정부 부대찌개 원조’로 알려져 있는 허기숙씨 할머니(2014년 7월 작고)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미군이 남긴 음식으로 무엇이든 만들어야 했어요. 그게 칠면조 고기(turkey)일 때도 있고 스팸일 때도 있었죠. 그걸로 우리는 스튜(찌개)를 만들었고 제 요리법은 널리 퍼져나갔죠.” <br/><br/>스팸은 미국에서 건너왔을지 몰라도 부대찌개는 명실공히 ‘한국음식’입니다.<br/><br/>스팸과 햄, 고추장, 김치 등을 함께 끓여낸 ‘부대찌개’는 거꾸로 미국인들에게 한번쯤 도전해 볼 만한 음식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br/><br/>미국인 영어강사 크리스 어모로소는 유튜브에 부대찌개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멋진 아이디어로 탄생한 한국의 퓨전음식”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네요.■최근 5년간 매출↑…‘국민 명절선물’로 자리매김<br/><br/>스팸이 한국인의 사랑을 받게 된 배경엔 부대찌개 문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팸의 짭조름한 맛이 쌀밥과 김치에 묘하게 잘 어울린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스팸은 또 일반적인 고기와 달리 살짝 익히거나 굽는 등 조리법이 간단한 편이죠. 맞벌이 가정이나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스팸 문화’를 눈여겨 본 또다른 서구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바로 이 점을 한국에서 스팸이 인기있는 이유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br/><br/>스팸을 만드는 호멜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NPR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광고·홍보가 한 몫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호황과 더불어 고기 소비가 활발해질 즈음인 1980년대말, 스팸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이었던 데다가 ‘질 좋은 가공육’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됐죠. 광고가 더 활발해진 최근(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의 스팸 매출은 30%p 늘었다고 합니다.<br/><br/>게다가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올해 추석 스팸선물세트 매출은 지난해 추석 때보다 18%p 커져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br/><br/>한국전쟁 때 미군을 통해 들어온 스팸은 찌개문화·쌀밥문화와 결합했고 여기에 ‘고품질’ 이미지를 강조하는 광고전략까지 더해지면서 이젠 ‘국민 명절선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br/><br/><br/><br/><br/>■20% 넘는 지방, 다양한 첨가제 … 데쳐 먹는 게 좋아<br/><br/>스팸이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긴 하지만 지방이 많고 다양한 첨가제가 포함돼 있어 유해성 면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br/><br/>주로 돼지의 어깨 살과 넓적다리(햄)이 이용되지만 순살코기가 아니라서 많은 양의 지방을 인위적으로 압착했다고 하네요. ‘스팸 클래식’의 경우 1회 섭취량(34g)에 포함된 지방이 16g에 이릅니다. 5분의 1을 넘는 수준입니다.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건 바로 인위적으로 들어간 다량의 지방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br/><br/>게다가 스팸에는 ‘고기답게’ 선홍빛이 돌도록 해주고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아질산나트륨’(발색제), 점성을 높여주는 ‘카라기난’ 같은 첨가제가 들어있습니다. 암 유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첨가제들입니다. 스팸에 들어있는 또다른 첨가제 ‘산도조절제’에는 칼슘흡수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산염 같은 성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기름을 제거하고 뜨거운 물에 스팸을 데쳐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br/><br/><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83.txt

제목: [정리뉴스]배삼용·민해경·김여진·이효리···연예인 정치·사회 참여 역사  
날짜: 20150928  
기자: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2641986  
본문: 연예인들의 정치·사회 참여는 해방 이후부터 시작됐다. 군사·독재 정권 때는 주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데 ‘끌려다니’는 모습을 띠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자발적인 참여가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사회적 이슈를 두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연예인들이 나왔다.<br/><br/>인지도 있는 연예인들의 정치·사회 참여와 소위 ‘개념 발언’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명과 암이 있다. 사회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br/><br/><br/><br/>■ ‘연예인 궐기단’<br/><br/>“연예인 궐기단 230명은 22일 상오 100여개의 ‘플래카드’를 들고 비가 내리는 서울 거리를 행진했다. ‘예술을 통하여 혁명과업을 완수하자’고 외치는 ‘마이크’를 앞세운 이들의 대열 중에는 혁명의 결심을 다짐하는 플래카드도 끼어 있었다.”<br/><br/>경향신문은 1961년 9월22일자 ‘예술을 통해 혁명과업 완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5·16 쿠데타 넉 달 뒤에 벌어진 풍경을 이렇게 전했다.<br/><br/>고 배삼룡씨가 2005년 중앙일보에 연재한 글을 보면, 이 연예인 궐기단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배씨는 “연예인 궐기단은 전국을 돌며 5·16 지지 계몽쇼를 하는 게 목적이었다. 배우들은 그런 정치적인 이유보다 출연료를 선불로 주는 파격적인 조건에 더 끌렸다. 당시엔 어느 극장에서 쇼를 하더라도 출연료를 선불로 주진 않았다”고 했다. 궐기단은 극장이나 마을 창고, 학교 운동장에서 5·16 쿠데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선전하는 공연을 벌였다. 자발적 정치·사회 참여는 상상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군사정권이 들어선 뒤 프로파간다와 캠페인을 위한 연예인 동원은 강화됐다. 연예인들은 ‘깨끗하고 명랑한 서울’을 위해 ‘비짜루’를 들고 서울 세종로, 남대문로를 청소했다. 1962년 6월 20일자 경향신문을 보면 “이들은 청소에도 섬세한 솜씨를 보여 구석구석 깨끗이 쓸었다”는 구절이 나온다. 청결과 질서 캠페인은 ‘조국 근대화’란 명목으로 진행된 것들이었다.<br/><br/>7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캠페인과 프로파간다의 영역이 확장됐다. 경찰은 청소년 선도 캠페인에 연예인들을 불렀다. 헌혈 행사에 나간 연예인들은 ‘사랑의 헌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어깨띠를 매고 거리를 누볐다. 지금도 연예인들은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이 벌이는 각종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등장한다.■ 정치의 장으로 뛰어든 연예인들<br/><br/>주로 거리에서 정권의 선전이나 계몽의 도구로 활용되던 연예인들은 1970년대 후반 접어들며 정치의 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동양방송에서 활동한 탤런트 홍성우씨가 1978년 10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최초의 연예인 국회의원으로 기록됐다. 당시 옹기장사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며 지지자를 모아 당선된 홍씨를 두고 “<span class='quot0'>탤런트 출신의 기묘한 정계 데뷔</span>”라는 흥미성 기사들이 나오곤 했다.이후 연예인들의 정치참여 대열은 늘어났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은 탐탁지 않았다. 고 유현목 영화감독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당선 이후 ‘딴따라 대통령’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br/><br/>“요즘 저 나라 대통령이 연예인 출신이라고 해서 이 나라 몇몇 연예인들도 들떠 가지고 정치지망을 꿈꾸는 것을 들을 때에 그 치기에 몸서리쳐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 인기도가 대중으로부터 왔음은 틀림없지만 비전문적인 방법으로 그 대중을 다스리겠다는 모험은 어색하기만 하다.”(경향신문 1980년 11월13일자)<br/><br/><br/><br/>■ 민주화 이후<br/><br/>연예인들의 자발적이고 이념적인 정치·사회 참여의 기록은 87년 민주화 항쟁 때 와서야 찾을 수 있다. 아래는 1987년 6월 6일자 경향신문에 나온 단신 기사.<br/><br/>“이영후씨 등 연주인·가수 등 연예인 88명은 5일 ‘4·3조치에 대한 연예인의 견해’란 성명을 발표. 4·13 호헌조치 철회, 언론 출판 집회 예술 창작 표현의 자유 보장, 투옥된 양심수에 대한 석방과 사면 복권 등을 요구했다.”1990년대 초에는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연예인도 등장했다. “<span class='quot1'>정치행위나 노래 부르는 일이나 우리 사회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문화활동이므로 배척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요.</span>” 가수 민해경씨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1991년 4월27일 진보야당인 민중당 후원기금 마련 디너콘서트를 준비 중이었다.<br/><br/>‘예술계에도 1노 3김 바람’(1987년 11월 21일자), ‘연예 예술인 바쁘다 바빠’(1992년 10월 17일자) 같은 기사처럼 직선제 대선을 치르면서 연예인들의 정치참여는 늘었지만, 여전히 정치인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이었다. ‘얼굴마담’으로 이용된 측면이 많았다. <br/><br/><br/><br/>■ SNS를 타고…<br/><br/>2002년 대선 때 가서야 문성근·명계남·신해철씨 등이 대선 담론과 선거유세에 적극 뛰어들며 연예인 정치참여의 새로운 형태를 선보였다. 연예인들의 정치·사회 참여는 각종 이슈와 현장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했다. 2011년 배우 김여진씨는 홍익대 청소노동자, 반값 등록금,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에서 현장과 온라인을 오가며 목소리를 냈다. <br/><br/>연예인들이 스크린쿼터 같은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로 집회에 나선 적은 있지만, 사회의 이슈·현안 한복판 그것도 집회·시위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물었다. 김씨는 한진중공업 노동자 해고에 항의하며 고공 크레인 농성 중인 김진숙씨를 응원하러 갔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풀려나기도 했다. 가수 이효리씨는 SNS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 1월13일 자신의 트위터로 쌍용차의 최대주주 마힌드라앤마힌드라그룹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의 트위터에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호소하는 멘션을 보냈다. “hello~ i am hyolee , i’m a singer in korea i am thinking of you, I am doing yoga today. Please give them love of your own country, India. namaste~”(안녕하세요 나는 이효리에요. 한국의 가수입니다. 나는 오늘 요가를 하면서 당신을 생각했어요. 부디 그들에게(쌍용차 해고노동자) 당신나라 인도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나마스테~)이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쌍용에서 내년에 출시되는 신차 티볼리가 많이 팔려서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던 회사가 안정되고, 해고되었던 분들도 다시 복직되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티볼리 앞에서 비키니 입고 춤이라도 추고 싶다~”고 응원의 글을 남겼다. 이효리씨는 이전부터 유기견 보호활동 등 사회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냈다. <br/><br/>배우 김의성씨도 쌍용차 해고 노동자 2명이 평택공장 70m 굴뚝 위에서 고공농성을 할 때 이를 응원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2014년 12월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굴뚝 위에서 외로이 버티는 두 사람과 추위를 나누고 싶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힌 글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김의성씨는 지난 10일 트위터에 “<span class='quot2'>딸이 울면서 결혼 읍소해 어쩔 수 없었다</span>”는 김무성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전한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br/><br/>그는 여기에 “노동자들 읍소도 그렇게 들어 달라. 좀”이라고 했다. “<span class='quot1'>쇠파이프로 두드려 패는 불법 파업 노조에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우리나라가 2만달러 대에서 지금 10년을 고생하고 있다</span>”는 김무성 대표의 반노조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br/><br/>2008년 ‘촛불 정국’ 당시 탤런트 김민선씨와 김혜성씨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목소리를 높여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를 두고 많은 연예인들이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br/><br/>▶[정리뉴스]‘세월호·용산 참사·촛불집회’ 가수 이승환 소신 발언<br/><br/>■ ‘명과 암’<br/><br/>이런 연예인들의 직·간접적인 정치·사회 참여는 대중들의 이목을 끈다. 연예인이 가진 영향력이 정치적 행보와 결합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예인의 ‘개념 발언’이라고 해서 모두 주목받는 것은 아니다. ‘당파성’이 뚜렷한 발언은 부각되지 않는다. 각종 선거 때 여러 연예인들이 특정 정당·인물을 지지하며 유세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짝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 당파적 이미지가 부각되면 관심은 시들해진다. <br/><br/>이택광 경희대 영미문화전공 교수 “<span class='quot3'>공통적인, 인도주의적 이슈에 한하여 연예인들의 지지나 발언은 큰 방향을 일이키지만 당파적 발언은 부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3'>연예인들의 발언이 주목받는 것은 ‘정치 혐오증’의 결과</span>”라고 했다. <br/><br/>이런 면에서 연예인들의 정치·사회 참여는 정치를 왜곡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이택광 교수는 전한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4'>정치는 당파성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연예인의) 중립적 발언이 꼭 옳은 것처럼 보이면서 정치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br/>그는 “<span class='quot4'>정치인들도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보다 포퓰리즘에 근거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정하는 면도 있다</span>”고 했다.<br/><br/><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84.txt

제목: 부모·자식 간 ‘쩐의 전쟁’ 막는 비법 아시나요?  
날짜: 20150927  
기자: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2627490  
본문: 이제 막 은퇴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노후 준비는 잘 하고 있는 걸까. 이제 막 어렵게 취직한 내 자녀는 결혼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대학등록금은 어떻게 간신히 댔는데 신혼집 전세까지 구해줘야 하면 퇴직금까지 헐어야 할 텐데.’ ‘집 사랴, 아이 키우랴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은데 부모님 생활비까지 대야 하면 어쩌지.’<br/><br/>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각자 시기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이 펴낸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토대로 부모와 자녀에게 필요한 재무설계 방법을 알아보자. 부모세대의 노후준비 팁을 정리해봤다. 금감원의 가이드북은 금감원 금융교육센터(http://edu.fss.or.kr/fss/edu)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br/><br/><br/><br/>1. 자산과 부채를 점검하자 <br/><br/>50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 대부분은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집중된 경우가 많다.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몸이 아파 병원치료비가 크게 들어가게 되면 당장 목돈이 필요할 수 있다. 은퇴하고 나면 고정소득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둬야 한다. <br/><br/>고정소득이 없으니 원리금 지출이 많아서는 곤란하다. 대출금리나 연체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대부업체의 대출은 먼저 갚는 게 좋다.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있다면 마이너스 통장>신용대출>예금담보대출 순서로 갚아나가는 게 좋다. <br/><br/>은퇴 후 목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가급적 퇴직하기 전에 받는 게 유리하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로 잡힐 주택 뿐 아니라 소득증빙자료와 상환능력을 판별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감안해 대출 여부와 금리를 산정한다. 소득이 있을 때 대출을 받는 게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br/><br/><br/><br/>2. 노후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br/><br/>올해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이 노후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달 생활비는 부부기준 160만원, 개인기준 99만원이다. 적정 수준의 생활을 위해서는 부부는 225만원, 개인은 142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br/><br/>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을 이용하면 내가 가입한 국민연금 및 금융회사의 개인연금, 퇴직연금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해보고 연금개시시점부터 90세까지 지급받은 연금수령액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생활비와 현재 예상되는 연금수령액을 비교해보면 대략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다. <br/><br/><br/><br/>3. 연금 잘 받고 잘 굴리기 <br/><br/>연금은 은퇴 후 주 소득원이다.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었고 만 60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이 나온다. 퇴직 후 60세가 되기 전까지 소득이 없다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해 연금개시를 앞당길 수도 있다. 다만 연금개시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수령액이 6%씩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br/><br/>은퇴 후 소득공백에 대비해 국민연금을 당겨쓰기보다는 연금저축, 연금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연금저축은 납입액 중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한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55세 이후부터 종신연금으로 받으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br/><br/>퇴직연금을 잘 운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가 퇴사할 때 한번에 주던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회사나 본인이 운용하다가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중 자신에게 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부담을 30% 경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br/><br/>집 한 채 외에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져보자.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에 살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이다. 거주자가 오래 살아 연금수령액이 집값이 초과해도 상속자에게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만약 집값이 올라 상속인이 주택을 다시 상속받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금총액을 상환하면 주택의 상속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br/><br/><br/><br/>4. 노년의 가장 큰 걱정, 의료비 <br/><br/>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고령자의 의료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19조8000억원으로 건강보험 총진료비 54조4000억원의 36.5%를 차지했다. 전체 인구의 12%인 노인이 전체 의료비의 36%를 쓰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노년의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둘 필요가 있다. <br/><br/>일반 보장성 보험은 가입연령이 60세까지인 것이 대부분이다.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고 보장 기간도 긴 고령자 전용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실버암보험은 75세~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갱신하면 최장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는 가입연령을 75세~80세까지 늘린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됐다. 정부의 요양보험을 보완해 간병자금을 지원하는 간병보험도 있다. <br/><br/>고령자 중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간 만성질환자들은 보험가입이 아예 안되거나 암·사망만 보장되는 일부 보험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유병자 전용보험’이 출시된다. 만성질환자도 이 보험에 가입하면 질병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br/><br/><br/><br/>5. 상속·증여도 미리미리 <br/><br/>자식들에게 나눠줄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자식들이 재산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법정까지 가는 분란이 일어난다. 만약 재산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길 원한다면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눠 받아들이도록 해둬야 한다. <br/><br/>상속·증여세는 세율은 동일하다. 그러나 사후에 이뤄지는 상속은 상속받는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사망한 사람의 전체 상속재산에 세금이 부과된다. 사전에 이뤄지는 증여는 특정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과세된다. 만약 30억원을 넘는 재산은 상속하면 50%세율이 적용돼 절반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사전에 10억원씩 3명의 자녀에게 증여하면 각각 30%씩 증여세를 내면 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공제금액이 많아 세율, 공제항목을 종합적으로 보고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 <br/><br/>상속·증여세금을 줄이려면 배우자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담부증여 등을 활용하면 좋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 배우자에 대해 5억~30억까지 이뤄진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사망한 사람과 같이 살고 있던 상속인이 살던 집을 상속받는 경우 한도 5억원 내에서 주택가격의 40%를 상속 공제해주는 것이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채무도 함께 증여하는 것이다. 대출 1억원을 안고 있는 시가 2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받는 사람은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고 대출 1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br/><br/><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85.txt

제목: [책과 삶]식습관·경험은 유전자에 흔적을 남긴다  
날짜: 20150925  
기자: 한윤정 선임기자 yjha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2536387  
본문: ㆍ유전자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br/>ㆍ네사 캐리 지음·이충호 옮김 |해나무 | 480쪽 | 1만8000원<br/><br/>네덜란드 대기근은 1944년 11월 시작돼 1945년 늦봄까지 이어졌다. 심한 추위와 독일군의 봉쇄작전으로 네덜란드 국민은 1일 칼로리 섭취량의 30% 정도로 연명했다. 그런데 이 기간 중 임신 초기였던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은 성인이 된 뒤 비만율이 높았으며, 이들 자녀 세대까지도 비만은 대물림됐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임신 초기의 식량 부족이 작은 칼로리만으로도 살찌게 하는 체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후성(後成)유전학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br/><br/>후성유전학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두 개체가 표현형이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다. 즉 유전자와 환경 사이의 상호관계를 연구한다. DNA는 아주 중요한 청사진이자 출발점이지만 여기에 화학적 기(基)가 들러붙거나 특별한 단백질이 DNA의 기능이 발휘하는 걸 억제한다. 책에서는 이를 유전자가 켜지거나(On) 꺼진다(Off)고 표현한다. 저자(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는 후성유전학의 기본지식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br/><br/>수컷 흰쥐에게 고지방 먹이를 실컷 먹인 뒤 정상적인 먹이를 먹인 암컷과 짝짓기를 시키면, 그 새끼들에게 당뇨병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연료를 연소하는 방식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스웨덴의 한 조사는 할아버지가 성장기(9~12세)에 영양을 과다 섭취했을 경우 그 손자가 당뇨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모나 조부모의 특정 시기 식습관이 자식, 손자 세대의 건강을 좌우한다.<br/><br/>어린 시절 학대당한 어른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 역시 후생유전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학대를 받는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잉 분출되는데 이 패턴이 고정되면서 몸은 계속 학대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반응한다. 따라서 정상인보다 정신질환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환경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일란성 쌍둥이가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50대 이후가 되면 DNA 메틸화와 히스톤 변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데서 명백하게 드러난다.<br/><br/>유전자의 변형과정을 알면 거꾸로 유전자를 조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 후성유전학자들은 종양(암) 유전자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켜지거나 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여기에 필요한 5-아자사이티딘이나 SAHA 같은 물질을 찾아냈다. 아직은 암을 치료하기보다 제어하는 쪽에 가깝지만 암 정복의 희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저자는 “<span class='quot0'>후생유전학은 비전문가도 접근이 가능한 흥미로운 분야</span>”라며 “<span class='quot0'>염색질 변화의 비밀을 풀 수는 없지만 주변세계를 조사하고 예측하는 것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span>”고 말한다.<br/><br/><한윤정 선임기자 yjha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86.txt

제목: 70년대 독재에 저항 ‘민중 시인’ 문병란씨 별세  
날짜: 20150925  
기자: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2604784  
본문: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 채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br/><br/>분단된 남과 북을 견우와 직녀의 절절한 그리움으로 노래했던 이 시는 1981년 출간된 문병란 시인(사진)의 시선집 <땅의 연가>에 실렸다. 이 시는 가수 김원중씨가 1987년 노래 ‘직녀에게’로 만들어 부르면서 대중에게 친숙해졌다. <br/><br/>시인이자 교육자, 민주화운동가로 활동했던 문 시인이 암 투병 끝에 25일 오전 6시 향년 8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35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난 시인은 조선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1963년 다형 김현승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가로수’ 등을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했다. <br/><br/>시인은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에 맞서 저항하면서 현실의 부조리를 형상화하는 시들을 줄곧 발표했다. 1970년대 이후 <죽순밭에서> <벼들의 속삭임> 등을 발표하며 저항의식을 바탕으로 한 민중문학을 선보였다. <br/><br/>순천고와 광주일고, 전남고 등에서 교편을 잡은 뒤 한때 해직됐다가 조선대 교수로 임용돼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는 배후조종자로 지목돼 수배를 당하기도 했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와 5·18기념재단 이사를 역임했다. <br/><br/>2009년 제1회 박인환 시문학상과 요산문학상, 광주시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빈소는 조선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9일 오전 8시, 장지는 국립5·18민주묘지다. 장례는 ‘민족시인 문병란 선생 민주시민장 장례위원회’가 시민사회장으로 치른다.<br/><br/><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87.txt

제목: ‘통일’ 노래했던 은하수로 떠난 시인…'직녀에게' 문병란 시인 별세  
날짜: 20150925  
기자: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2512809  
본문: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 채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br/><br/>분단의 아픔을 절절한 그리움으로 노래한 이 시는 1981년 출간된 문병란 시인의 시선집 <땅의 연가>에 실렸다. 이를 가수 김원중이 노래 <직녀에게>로 만들어 부르면서 대중에게 친숙해 졌다. <br/><br/>남과 북을 각각 견우와 직녀의 연인 관계로 비유하며 ‘오작교가 없어도 노둣돌이 없어도/ 가슴을 딛고 건너가 다시 만나야 할 우리/…이별은 이별은 끝나야 한다’고 노래했던 시인은 결국 ‘연인의 만남’을 보지 못했다. <br/><br/>시인이자 교육자, 민주화운동가로 활동했던 문병란 시인이 암 투병끝에 25일 오전 6시 별세했다. 향년 80세. 1935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난 시인은 조선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1963년 다형 김현승 시인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가로수’ 등을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했다. 시인은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에 맞서 저항하면서 현실의 부조리를 형상화는 시들을 줄곧 발표했다. 1970년대 이후 <죽순 밭에서> <벼들의 속삭임> 등을 발표하며 저항의식을 바탕으로 한 민중문학을 선보였다. <br/><br/>순천고와 광주일고, 전남고 등에서 교편을 잡은 뒤 한때 해직됐다가 조선대 교수로 임용돼 후학을 양성했다. 5·18주민주화운동 배후조종자로 지목돼 수배를 당하기도 했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와 5·18 기념재단 이사를 역임했다. <br/><br/>2009년 제1회 박인환 시문학상과 요산문학상, 전남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빈소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이며 발인은 29일 오전 8시다. 장례는 ‘민족시인 문병란 선생 민주시민장 장례위원회’가 시민사회장으로 치른다. <br/><br/>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추모 성명을 내고 “고단한 현대사의 한복판에서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노래하셨던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오월의 아픔을 통일로 승화시켜 민족문학의 새 지평을 열었던 고인의 시를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애도했다.<br/><br/><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88.txt

제목: <건강의 날> 세계 림프종 인식 개선의 날을 아시나요  
날짜: 20150924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2410536  
본문: 국내에서 연간 새로 진단받은 암환자 100명중 2명은 림프종 환자다. 호지킨 림프종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나뉘는데, 림프종 중 95%를 차지하는 비호지킨 림프종은 암 발생 순위 9위(갑상선암 제외)를 차지한다.<br/><br/>림프종은 백혈병과 같이 혈액암의 일종으로, 온 몸에 퍼져있는 혈관 내 림프조직의 세포들이 악성세포로 변하여 생긴다. 혈관에 발생하는 암이기 때문에 혈관이 지나는 곳이라면 우리 몸 어디라도 생길 수 있고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골수, 간, 뇌, 뼈 등의 장기로까지 퍼지기도 한다.매년 9월 15일은 ‘세계 림프종 인식 개선의 날’(World Lymphoma Awareness Day)이다. 이 날은 전세계 44개국 63개의 림프종 환자 단체가 모인 국제 림프종 환자연합(Lymphoma Coalition)이 2004년 처음으로 림프종과 치료에 대한 대중들의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했다.<br/><br/>2010년 미국 의회가 림프종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9월 한 달을 ‘혈액암 인식의 달’(Blood Cancer Awareness Month)로 지정한 이후 국제 림프종 환자연합과 림프종 연구재단(Lymphoma Research Foundation)은 매년 9월 한달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주제는 ‘림프종은 무시할 수 없는 암입니다’이다.<br/><br/>■특별한 증상 없어 발견 늦고 재발도 잦아<br/><br/>림프종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진단이 늦은 편이다. 대부분의 림프종 환자들은 림프조직이 많이 몰려있는 목이나 쇄골 등 신체 부위가 부어 올랐을 때 병원을 방문해 진단 받는 경우가 많다. 그 밖의 증상으로는 6개월 내 10% 이상의 이유 없는 체중감소나 야간 발한, 고열 등이 나타난다.림프종은 혈액암 중 가장 발생 비율이 높으며 세포의 계열이나 특징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어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종류와 진단 병기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적 방법이나 방사선 치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대다수의 경우 복합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한다.<br/><br/>비호지킨림프종의 경우 1차 치료 이후 1년이 지나고 나서 재발한 경우에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치료는 수술이전에 전신 방사선치료나 고용량 화학요법을 받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환자는 기운이 빠지고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자극에 민감해지는 등 다양한 치료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br/><br/>고용량 화학요법이나 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건강한 세포나 골수 손상의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방사선이나 화학요법치료의 경우 부작용도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컸다.■경구제 등장, 부작용 줄고 통원치료 가능<br/><br/>최근에는 비호지킨 림프종 중 특정 아형인 ‘외투세포림프종’을 치료하는 경구제제(임브루비카)가 개발되어 환자들이 집에서 지내면서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 등 복합치료보다 부작용도 줄었다. 외투세포림프종은 60대 이상의 고령에서 주로 발병하는데, 그동안 기존 치료에 실패하거나 재발할 경우 기대여명이 1~2년에 불과했다.<br/><br/>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조석구 교수는 “<span class='quot0'>림프종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잘 알고 있는 백혈병의 친척쯤 되는 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국내에서도 50대 이상에서 발병이 많으며 목, 겨드랑이, 팔꿈치 귀 뒤 등이 2주 이상 통증 없이 부어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길 권한다</span>”고 조언했다.<br/><br/>조 교수는 “<span class='quot0'>림프종은 완치가 가능한 병이지만, 발견이 늦고 재발도 잦아 치료가 어렵지만 최근 치료제의 발전으로 환자들이 부작용이나 내성에 대한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분야</span>”라고 설명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89.txt

제목: ‘세월호’ 여파…10대 사망 1위 ‘운수사고’로  
날짜: 20150923  
기자: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2122315  
본문: ㆍ작년 단원고생 250명 포함 291명…‘자살’ 제쳐<br/><br/>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1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에서 ‘운수사고’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살률은 감소했으나 20~30대 남성만 자살이 증가했다.<br/><br/>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1만3836명으로 1년 전보다 591명(4.1%) 줄었다. 하루 37.9명꼴이다.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은 27.3명으로 전년보다 1.3명(4.5%) 감소했다.<br/><br/>지난해엔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유독 20·30대 남성의 자살만 증가세를 보였다. 20대 남자의 자살률은 21.8명으로 1년 전보다 4.2% 늘었고, 30대 남자는 36.6명으로 0.5% 증가했다. 취업난, 전세난 등 녹록지 않은 현실이 젊은이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늘린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br/><br/>2013년까지 10대의 사망원인 1위도 자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운수사고로 바뀌었다. 세월호 참사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희생됐고 이 중 단원고 학생은 250명이었다. 통계상 지난해 운수사고로 인한 10대 사망자는 291명이다.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은 여전히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었다. 이들 요인이 지난해 전체 사망 원인의 47.6%를 차지했다.<br/><br/><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90.txt

제목: “시험관서 정자 성숙”  
날짜: 20150921  
기자: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1818034  
본문: ㆍ프랑스 연구팀 첫 성공…불임 남성엔 기쁜 소식<br/><br/>프랑스 연구팀이 시험관에서 인간의 성숙한 정자를 만드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영국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20일 보도했다.<br/><br/>프랑스 신생 생명공학 기업 칼리스템 연구실장인 필립 뒤랑 박사는 불임 남성의 고환에서 채취한 미성숙 세포를 세포 배양기에 넣어 자연 정자와 똑같은 성숙한 정자로 키워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br/><br/>뒤랑 박사는 “<span class='quot0'>같은 방법으로 쥐, 원숭이, 인간의 정자를 시험관에서 만들어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시험관에서 만든 쥐의 정자를 난자와 수정시켜 건강한 새끼를 낳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사람의 시험관 배양 정자를 사용해 실험을 시작하겠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시험관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암 치료로 생식능력을 잃은 남자도 앞으로 2~4년이면 자기 자녀를 갖는 게 가능해질 것</span>”이라고 주장했다.<br/><br/>뒤랑 박사는 최근 과학전문지에 논문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영국 셰필드대학 앨런 페이시 남성학 교수는 “<span class='quot1'>비슷한 시도가 지난 20년 동안 계속 행해졌다</span>”며 “<span class='quot1'>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동료 과학자들이 심사한 과학전문지에 발표되기 전에는 믿기 힘들다</span>”고 말했다.<br/><br/><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91.txt

제목: “암 투병에도 연구 멈추지 않은 과학자를 추모합니다”…3월 작고 도윤경 교수  
날짜: 20150921  
기자: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1806882  
본문: ㆍ김태일 교수 추모문, 국제 저널에 실려 전 세계로 퍼져<br/><br/>“<span class='quot0'>전공분야는 물론이고 다른 학문의 영역에서도 빛나는 고(故) 도윤경 교수의 업적에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span>”<br/><br/>면역학 연구에 매진하다 43세를 일기로 지난 3월 운명한 도윤경 교수(유니스트 생명과학부)를 추모하는 글이 국제학술지에 실렸다.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대)는 21일 치의학계 국제저널인 ‘JPIS(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가 지난달 28일 도 교수 추모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br/><br/>추모문은 JPIS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김태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부원장이 썼다. 김 부원장은 “도 교수는 건강이 악화하는 중에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연구자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연구에 혼신의 힘을 쏟은 고인의 자세를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귀감으로 소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병 중인 도 교수가 숨지기 전까지 밝은 미소로 내게 했던 말이 지금도 감동적”이라며 “도 교수는 ‘사람들이 나더러 쉬어야 한다고 계속 말하지만, 나에게는 연구하고 동료들과 교류하는 것이 바로 쉬는 것이다’라고 했다”고 회상했다. 추모문은 미국국립보건원과 미국국립의학도서관이 운영하는 ‘펍메드(PubMed)’를 비롯한 과학계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다. <br/><br/> 지난 3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도윤경 유니스트 교수(왼쪽)와 남편 류성호 순천향대 교수. <br/> 유니스트 제공<br/><br/>앞서 도 교수는 2011년 그의 스승이었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랠프 스타인먼(Ralph M Steinman·미국 록펠러대) 교수를 추모하는 글을 JPIS에 기고했다. 이번 도 교수 추모문이 게재되면서 스승과 제자를 기리는 추모문이 모두 JPIS에 실린 셈이다.<br/><br/>유니스트는 도 교수가 면역 반응에 있어 중요한 세포의 분화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흑사병, 에이즈, B형 간염 등 난치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 교수는 포스텍 생명과학부 학사, 서울대 분자생물학 석사, 미국 버지니아 의대 면역학 박사, 랠프 스타인먼 박사 연구실 연구원 등을 거쳐 2009년 유니스트 조교수로 부임했다. <br/><br/>그는 유니스트에서 면역학 연구를 하다 5년 넘게 투병해온 난소암으로 지난 3월28일 사망했다. 도 교수가 남편인 류성호 순천향대 교수와 함께 쓴 마지막 논문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인 지난 7월 저명 학술지인 ‘셀 리포츠(Cell Reports)’에 실려 안타까움을 더했다.<br/><br/><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92.txt

제목: 질병 예방, 위·대장내시경 등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첫걸음  
날짜: 2015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1652382  
본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여자 85.1세, 남자 78.5세다. 의학이 발달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게 되면서 평균수명은 꾸준히 연장되고 있다. 하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 건강수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OECD 29개국의 ‘건강 노화 지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인 25위를 기록했다.<br/><br/>그렇다면 건강하게 늙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과 낙천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필수다.<br/><br/>건강검진은 다른 말로 ‘휴먼도크(Human dock)’라고도 하는데, 이는 긴 항해를 마친 선박이 입항하면 전체적인 기계점검을 받는 것처럼 사람의 건강도 일정한 기간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종합건강검진은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가능케 해 건강한 삶을 지켜줄 뿐 아니라 수명 연장을 위한 필수코스로 인식되고 있다.<br/><br/><br/>건강검진지정병원 송도 플러스병원 전누리 원장은 21일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고혈압과 심장병, 당뇨병, 간질환, 암 등은 병이 진행돼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자각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도 많아 이러한 질병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br/><br/>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사원복지 차원에서 정기적인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종합건강검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종합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정 시기를 정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하면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치료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치료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인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br/><br/>종합건강검진은 내시경, 초음파, 혈액 및 소변, 기본검사, 방사선 단층 촬영 등 기본항목에 연령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암 검사, 심폐질환 검사, 척추질환, 뇌혈관 질환 등 다양한 검사를 추가적을 실시할 수 있다. 기본적인 검사 항목만으로도 대부분의 주요 질병 검사가 가능하지만 기타 질환 관련 증상을 보이거나 의사의 권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br/><br/>전누리 원장은 “<span class='quot0'>기본검사만으로도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갑상선 암을 비롯해 위암, 위염, 식도 관련질병, 폐와 횡격막 관련 질환, 동맥경화증, 당뇨 등 주요 질병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 외에도 각종 위험인자를 미리 발견해 질병은 미리 예방하는데도 효과적</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건강검진지정병원을 이용하면 질병 발견 확률을 높일 수 있고, 더욱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span>”고 전했다.<br/><br/>송도 플러스병원은 건강검진지정병원으로, 최첨단 올림푸스 기기를 통해 건강검진에 필수적인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진행하고 있다. 진단, 치료 내시경 5,000회 이상의 풍부한 임상겸험을 갖춘 강남세브란스 병원 출신의 검진센터 전누리 원장을 비롯해 전문의료진이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93.txt

제목: 미국 FDA승인. 고주파온열암치료기 BSD-2000 도입 국내치료센터 개원  
날짜: 201509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1553868  
본문: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美 FDA 허가를 받은 고주파온열암치료기 BSD-2000 (Deep Hyperthermia System)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염창환병원에 도입되어 국내치료를 시작하게 된다<br/>암 치료 전문 염창환병원(www.ychclinic.com)은 국내 최초 고용량 비타민 C치료를 시작, 고압산소치료와 더불어 림프부종 검사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염창환 병원은 이번 Deep Hyperthermia System BSD-2000 도입 전, 중국의 북경에 위치한 China Health bureau Affiliated Hospital (중국건강보건병원)과 Beijing Traditional Medicine Hospital (북경 전통의학병원)을 방문하여 BSD-2000의 연간 1,000건이 넘는 치료사례와 안정성 검증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 8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Cancer Treatment Center of America (CTCA) 의 Oncology Dr. curt Heese를 통하여 Deep Hyperthermia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사례와 프로토콜을 연수 받았다.<br/>국내치료를 시작하는 염창환 원장은 “<span class='quot0'>암과 싸우는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Deep Hyperthermia BSD-2000을 도입한 만큼, 많은 환자들의 악성 종양 치료에 많은 도움되기를 소망한다</span>” 고 밝혔다.<br/><br/><br/><br/>BSD-2000은 75~120MHz의 고주파 (RF) 에너지를 이용하여 종양을 치료하는 장비로서 미국에서는 2011년 11월 FDA 승인을 받고, 국내에는 2015년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다.<br/>치료 시 환자의 신체를 둘러싼 Sigma eye 를 통해 8개의 Antennae와 Power를 이용하여 RF Energy의 주파수, 위성 진폭을 조정할 수 있고, 종양부위를 설정할 수 있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Plan을 세울 수 있다. 또한, Deep Hyperthermia란 표현처럼 신체 내부, 깊은 부위의 고형암에 온열을 전달한다. 표피에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심부에 직접 깊숙히 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종양부위에 효과적으로 열을 집중시켜 혈액암을 제외한 위암, 간암 등 다양한 부위의 암치료에 적용이 가능하고, 특히 췌장암, 간암, 대장암, 방광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에 효과적이다.<br/><br/>고주파온열치료란?<br/>온열치료는 40-44도로 상승된 체온에 노출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다.<br/>고열(높은온도)은 정상세포를 제외한 저산소증과 낮은 PH상태의 종양세포를 선별하며 손상시키기 때문에 정상세포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면서 암세포를 죽이거나 손상을 줄 수 있다. 이는 악성종양세포의 세포회복 메커니즘을 복제하고, 단백질 열쇼크 및 단백질 변성과 세포고사를 유도하며, 악성종양내의 혈관 재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항암화학요법과 병행하는 온열치료는 종양부위에 혈류량을 증가시켜 약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며, 약물의 효과를 향상시킨다.<br/><br/>BSD-2000 장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아이비랩 (www.ivylab.net)에 문의할 수 있다.<br/>(TEL. 032-518-6386)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94.txt

제목: 이화용 충북 중원대교수 “윈트신호로 암 줄기세포 없애”  
날짜: 20150920  
기자: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1449929  
본문: 암의 재발 및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암 줄기세포를 타겟으로 한 새로운 항암치료방법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br/><br/>충북 괴산의 중원대는 이화용 산학 협력 중점교수(사진)가 윈트(Wnt) 신호를 조절하면 암의 전이 및 재발이 억제된다는 결과를 찾아냈다고 20일 밝혔다.<br/><br/>윈트신호전달기전은 우리 몸에서 암을 일으키거나 성장시키는 중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윈트’라는 단백질을 중심으로한 세포간 신호전달체계인 윈트신호전달기전은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윈트기전이 비정상적으로 활발해 지면 암 또는 암줄기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암줄기세포는 항암제나 방사선에 내성을 갖고 있어 항암 및 방사선 치료 후에도 암의 전이 및 재발에 관여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가 새로운 항암제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br/>이 연구 결과는 과학학술지인 네이처(Nature)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 7월호에 게재됐다.<br/><br/><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95.txt

제목: 고혈압·당뇨 환자도 이젠 보험 가입됩니다  
날짜: 20150917  
기자: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1125643  
본문: ㆍ금감원 ‘유병자 전용보험’ 도입 <br/>ㆍ10대 질병 걸려도 보험 들 수 있어 <br/>ㆍ가입 연령도 60세→75세로 확대<br/><br/>앞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만성질환자들은 지금까지 보험 가입이 아예 안되거나 암·사망만 보장되는 일부 보험에나 가입할 수 있었다. 만성질환자들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출시되는 ‘유병자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질병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는 일반 보험보다 1.5~2배가량 높다.<br/><br/>금융감독원은 17일 만성질환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고혈압 환자는 550만명, 당뇨병 환자는 240만명, 간질환 환자는 140만명 등 주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1180만명에 이른다.<br/><br/>그간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 전에 최근 5년 안에 10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치료·입원·수술·투약한 적이 있으면 아예 가입을 받지 않았다. 발병 위험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일부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암이나 사망만 보장하는 정도였다.<br/><br/>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유병자 전용보험은 과거 5년 안에 10대 질병 중 암을 제외한 다른 만성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입원·수술한 적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10대 질환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에이즈다.<br/><br/><br/>질병에 관계없이 통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약만 복용하고 있는 경우는 아예 보험 가입 제한이 없어진다. <br/><br/>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도 60세에서 75세로 올라가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유병자 전용보험이라 해도 2년 안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br/><br/>예를 들어 4년 전에 당뇨로 입원했다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년 전 간경화로 수술받은 사람, 고혈압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사람 등은 과거엔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br/><br/>금감원은 이달 안에 각 보험사에 유병자 질병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이 통계를 토대로 이르면 올해 안에 만성질환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전용 보험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은 이미 가입 문턱이 낮아진 전용보험을 출시했다.<br/><br/><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96.txt

제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학 동문 “반도체 백혈병 문제 빨리 해결해야”  
날짜: 20150916  
기자: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0651379  
본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7·사진)과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함께 한 폴 조뱅 프랑스 디드로대 동아시아학과 교수가 15일 이 부회장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br/><br/>조뱅 교수는 공개 편지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br/><br/>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5월 14일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및 삼성 직업병 가족 대책위원회(가대위)와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br/><br/>이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가 설립돼 보상과 안전대책 등을 논의해왔지만 지난 3일 반올림과 가대위와 최종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갑작스레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갈등이 불거져나왔다. 고 황민웅씨의 부인인 가대위 소속 정애정씨는 지난 9일부터 삼성전자의 보상위원회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br/><br/>아래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공유정옥 활동가가 조뱅 교수의 글 전문을 번역한 내용이다.<br/><br/><br/><br/>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br/><br/><br/><br/>폴 조뱅 (케이오 대학교 시절 동기이자 현재 프랑스 파리 디드로 대학교 동아시아학 조교수)<br/><br/><br/><br/>재용씨에게 (\*)<br/><br/><br/><br/>우리가 (일본) 케이오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의 MBA 프로그램에서 함께 공부한 지 이십 년이 지나긴 했지만, 저는 아직도 재용씨가 일본어 사전을 찾아가며 매번 주의 깊게 수업 준비를 하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교실에서 토론을 할 때면 재용씨는 명료하고 직설적이면서도 솔직하고 반짝이는 의견을 내곤 했지요. 그리고 재용씨는 친절하기도 하고 공정하면서도 다가서기 쉬운 사람이었어요.<br/><br/><br/><br/>한번은 도서관에서 재용씨랑 수다를 떨다가 제가 장학금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재용씨도 신청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적 있었죠. 재용씨가 장학금이 필요없다는 얘기를 웃음으로 얼버무린 기억이 나요. 나중에 다른 동급생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를 비웃으면서 “재용이가 삼성 이건희 회장 아들이고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하더군요. 뭐, 사실, 그만큼 제가 무심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만큼 재용씨가 자신을 요란하게 내세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재용씨는 “누군가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강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전 재용씨가 삼성전자에서 눈부신 경력을 쌓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재용씨의 동급생이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케이오 대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친 교수님들이나 우리의 “M16” 동기들 역시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br/><br/><br/><br/>그렇지만 재용씨에 대해 자랑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재용씨의 회사에서 너무도 젊은 나이에 백혈병이나 다른 병에 걸린 직원들이나 병으로 죽어간 이들의 유족들에게 재용씨네 회사가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언론을 통해 보면 가슴이 아파요. 재용씨도 그런 회사의 태도를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br/><br/><br/><br/>케이오 대학교 시절, 경영 전략 수업 시간에 모리나가사에서 비소로 오염된 우유 때문에 생긴 사건을 토론한 적이 있었지요. 기억하세요? 후루가와 교수님은 우리에게 독성물질로 망가진 어린이들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마침 우리 동급생 중에 모리나가 직원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윤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보라고 하자 부끄러워했죠. 그 모습에 우리는 웃지 않을 수 없었어요.<br/><br/><br/><br/>그 수업은 제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나중에 치소 화학 회사와 미나마타 병이라는 또다른 극적인 산업 질병을 저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다뤘거든요. 삼성전자 전직 노동자들과의 논쟁이 어떻게 되어왔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영어로 읽을 수 있었던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지금 재용씨네 회사는 모리나가나 치소 화학이 경험했던 것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br/><br/><br/><br/>저는 대만에서 RCA라는 전자 회사와 그 모기업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프랑스의 테크니컬러(톰슨 전자)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지켜보아왔어요. 여러 종류의 암, 유산, 기타 질병에 걸린 529명의 전직 노동자들이 소송을 한 것이지요. 이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삼성보다 더 복잡해요. 그런데도 지난 4월 타이페이 지방법원은 이분들의 건강 문제가 직장에서 노출된 유기용제와 기타 독성물질 때문이라고 인정했어요. 이 소송은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940명이 넘는 원고들이 더 추가되었어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은 변호사 비용이나 보상금으로 엄청난 비용이 드는 대형 소송이지요.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회사의 브랜드에 무척 나쁜 인상을 남긴다는 점에서 더욱 안 좋구요. 저는 지금 삼성의 행동이 삼성의 세계적인 명성을 변색시키고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br/><br/><br/><br/>올해 초 삼성전자는 협상을 받아들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에 대해 최근 삼성이 보이는 모습에는 정당성이 부족해 보여요. 재용씨가 2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반올림과의 사회적 대화를 가능한 빨리 재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지하고 투명하게 대화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지만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들과 삼성전자 사이의 분쟁은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어요. 만일 집단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된다면 회사 브랜드에 더욱 큰 손상이 생길 거예요.<br/><br/><br/><br/>이런 문제는 “경영 전략”에서도 꼭 고려해야 한다는 거 재용씨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재용씨가 오래 전 모리나가 사건을 두고 교실에서 토론하던 때, 후루가와 교수님이 정당하고 윤리적인 대처에 어떤 걸 생각해보라고 권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재용씨가 이 교섭에 대해 얼마나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시절 그토록 공정하고 총명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으니, 재용씨가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고 윤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힘쓰기를 바랍니다.<br/><br/><br/><br/>이 일들을 겪으신 그분들과 재용씨를 위해 기도할께요.<br/><br/><br/><br/>폴 조뱅 드림<br/><br/><br/><br/>(\*) 우리가 못 만난지 오래 되어 이렇게 불러도 될 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케이오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시절에 영어로 말할 때는 서로 이름을 불렀고, 일본어로 말할 때는 성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재용씨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찾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csr.partner@samsung.com으로 메일을 보냈고, 재용씨가 읽을 가능성을 높이려고 이렇게 편지를 공개합니다. 재용씨가 불편해하지 않으면 좋겠네요.<br/><br/><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97.txt

제목: [과학 오디세이]뉴스와 과학의 공통점  
날짜: 20150914  
기자: 이상욱 | 한양대 교수·과학철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0303652  
본문: 전형적인 저녁 뉴스를 떠올려 보자. 가끔씩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 나온 가족을 인터뷰하는 훈훈한 꼭지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화재, 교통사고, 범죄, 뇌물수수 등 음울한 사건뿐이다. 이런 뉴스를 매일 보노라면 당연히 요즘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걱정될 수 있다. 하지만 범죄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늘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그토록 자주 일어난다면 더 이상 ‘뉴스’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뉴스 보도의 속성상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사실은 보도되지 않는다. 그래서 뉴스는 현재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오직 정부가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을 알려준다.<br/><br/>과학연구도 뉴스의 이런 특징을 보여준다. 동료 과학자로부터 훌륭한 연구라는 평가를 받고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내기 위해서는 기존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기에 현재 시점에서 누군가가 독립적으로 DNA가 이중나선 구조를 가졌다는 사실을 밝혀낸다고 해도 이 결과를 논문으로 출판할 수는 없다. 왓슨과 크릭이 이미 1953년에 발표했기 때문이다.<br/><br/>과학연구의 이런 특징은 분명 생산적이다.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재해석보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의 축적에 집중하기에 다른 분야보다 학문적 진보를 성취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전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동일한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에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과작용이 밝혀질 가능성도 높다.<br/><br/>하지만 이런 과학연구의 관행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가져온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인과작용이 발견된 때는, 다른 가능성도 있지만 그 인과작용의 크기가 이미 알려진 여러 인과작용에 비해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을 이해하지 않고 새롭게 출판되는 과학연구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그 연구가 밝혀낸 인과작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과작용을 무시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암 유전자’가 새롭게 발견됐다면 그 암에 끼치는 유전자의 영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암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인들이 기존 연구를 통해 모두 밝혀진 배경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이 ‘암 유전자’에 대한 보도를 듣고 그 유전자가 있으면 거의 확실히 암에 걸린다고 믿는다면 큰 오해를 하는 것이다.<br/><br/>이런 오류는 자연과학보다 사회과학에서 보다 심각할 수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신선한 빵 냄새를 맡을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하다. 이런 연구 결과는 믿기 힘들 정도로 신기하고 충격적이다. 하지만 이 효과는 여러 실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검증되었기에 분명 실재한다. 그런데 일부 학자는 이런 연구 결과를 거론하면서 마침내 인간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말 그럴까?<br/><br/>다음 주장을 고려해 보자. “<span class='quot0'>과거에 친절한 대접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친절할 가능성이 더 높다.</span>” 이 주장은 거의 확실히 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을 검증하려는 시도는 논문감이 되지 못한다. 너무나 평범하고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빵 냄새만으로도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특이하고 신선해서 언론에도 소개될 가능성이 높다. 호소력 있는 과학연구가 뉴스로서로 가치가 높은 경우는 이처럼 연구 결과가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이다.<br/><br/>하지만 이런 연구가 사회적 통념이 ‘거짓’임을 보여줄까? 그보다는 사회적 통념이 ‘온전한 참’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즉,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능력은 적절한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지만, 그 일이 쉽지도 않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인지편향의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카너먼의 지적이 떠오른다. 인간이 아플 수 있는 수많은 상황에 대한 엄청난 양의 의학연구가 있다는 사실이 인간 대부분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건강하지 않음을 보여주지 않듯이, 우리의 인지과정이 항상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이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나름의 근거를 갖고 행동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br/><br/>과학연구는 항상 새로운 인과작용을 찾기에 정작 중요하고 주도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눈을 감을 위험이 있다. 이런 위험은 사회과학 연구가 인문학적 통찰에서 벗어나 더욱더 자연과학을 닮아갈 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인간 본성에 대한 ‘획기적인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떠드는 몇몇 과학자들의 선지자적 메시지를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br/><br/><이상욱 | 한양대 교수·과학철학>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98.txt

제목: [김규항의 혁명은 안단테로]삼성스러움, 동정이냐 연대냐  
날짜: 20150914  
기자: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0305625  
본문: 9월3일 삼성전자는 갑작스레 ‘보상위원회 발족’을 발표했다. 참으로 삼성스러웠다. 일이 시작된 건 2007년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같은 공장에 백혈병 환자가 여럿임에 주목하면서부터다. 삼성은 산재가 아닌 개인적 질병이라고 강변하며 유족들을 돈으로 회유하려 했다. 2008년 반올림(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br/><br/>대중의 관심이 조금씩 늘어가던 2013년 1월 삼성전자는 반올림과 교섭에 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압적인 태도와 사실 왜곡, 피해자 회유 시도 등은 달라진 게 없었다. 2014년 3월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되면서 삼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급등하자 삼성의 태도가 돌변했다. 5월14일 삼성전자 권오현 사장은 백혈병 피해자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보상을 약속했다. <br/><br/>8월 문제 해결을 위한 외부 조정위원회 구성이 제안되었다. 2015년 1월 조정위원회는 교섭의 세 주체(삼성전자, 반올림, 가족대책위)에게서 주장과 근거를 제출받고 공개적으로 설명하게 했다. 7월23일 조정위원회는 ‘보상’ ‘사과’ ‘재발방지책’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를 담은 110여쪽짜리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삼성이 1000억원을 출연하되 삼성으로부터 독립된 사회적기구를 만들어 문제 해결을 해나갈 것을 제안했다.<br/><br/>그런데 9월3일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하고 ‘보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삼성은 보상위원회가 조정위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좀 더 실효성있는 방안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 직접 교섭보다 외부 조정위원회가 유리할 거라 판단했던 삼성이 조정위원회가 예상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경향을 보이자 아예 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모든 문제를 다시 제 통제 범위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건 저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br/><br/><br/><br/>삼성은 조정위원회 권고안에 제시된 금액인 1000억원의 사내 기금을 만들어 보상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보상위원회로 가면 1000억원의 지출 내역은 누구도 알 수 없게 된다. 삼성은 2011년 직업병 논란이 일자 ‘퇴직자 암 발병자 지원제도’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시행한 바 있지만 누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br/><br/>또한 보상 재원은 1000억원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만 200명이 넘고, 본격 보상이 시작되면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이다. 삼성은 조정위원회 권고안의 보상 대상과 보상 액수가 과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희귀질환 피해자와 ‘생식독성’(2세의 선천적 질환, 유산 등) 피해자들은 아예 제외하고 있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br/><br/>재발방지책도 문제다. 조정위원회 권고안은 공익법인이 재발방지책도 총괄하도록 했지만 보상위원회로 가면 재발방지책은 삼성이 알아서 하게 된다. 말이 되는가. 삼성이 알아서 재발방지책을 만들고 실천할 기업이라면 애초부터 이 문제는 시작되지 않았거나 진즉 해결되고도 남았을 것이다.<br/><br/>지난 8년 동안 삼성의 태도는 시계추처럼 오갔다. 여론의 관심이 적으면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하다 여론이 나빠지면 사과를 하는 등 고개 숙이는 비굴한 태도를 보였다. 그렇게 눈치를 살피다가 여론이 어지간해지면 그들이 장악한 언론의 호위를 받으며 원래 태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파렴치한 태도든, 비굴한 태도든 다 삼성스러운 태도이며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삼성스러움의 요체는 ‘이윤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경영 철학이기 때문이다.<br/><br/>필요한 건, 삼성을 압박하여 삼성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내는 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여론,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만일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되 특별한 불행에 처한 사람들의 일이라 여겨 동정하는 데 머문다면 어려울 것이다. 동정심은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약속>을 보며 눈물 흘리는 순간엔 치솟다가 고단한 일상에 파묻히다 보면 어느새 사그라드는 게 동정심이다. 우리는 동정심을 넘어서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와 내 삶의 관련성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br/><br/>물론 모든 직장과 노동현장에 백혈병 위협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직장과 노동현장엔 산재 위험이 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낸다면 내 노동 안전도 그만큼 진전을 이루지만, 이 문제가 이대로 삼성의 손아귀로 넘어간다면 내 노동 안전은 2007년 이전 수준으로 퇴행하게 된다. 미래에 내 아이의 노동 안전은 또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동정이 아니라 연대다. 나와 무관한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게 아니라 내 노동과 내 삶이, 내 아이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기에 연대해야 한다. 자본과 그들의 언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고하게 연대하고 있다.<br/><br/><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599.txt

제목: 교황 뉴욕행사 무료 입장권, 최고 296만원 암거래  
날짜: 20150913  
기자: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0034421  
본문: ㆍ시, 단속 나서…방문 도시 방값도 2~3배 올라<br/><br/>오는 22일 시작되는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교황을 직접 보려는 미국인들 사이에 암표가 성행하고 있다. 무료로 배포된 암표의 가격은 최고 2500달러(약 296만원)에 달한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경계해온 교황에게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br/><br/>뉴욕시는 교황이 25일 매디슨스퀘어가든 대중미사를 위해 통과하는 센트럴파크에 서서 볼 수 있는 자리의 입장권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추첨해 8만장 배부했다. 입장권은 1인당 두 장씩, 모두 4만명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하지만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수요가 생기자 크레이그 리스트, e베이 등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장당 200~400달러에 거래되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br/><br/>뉴욕시 당국이 11일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뒤, 크레이그 리스트 등에서 관련 매물들은 자취를 감췄다. 뉴욕은 교황의 센트럴파크 행진이 예정돼 있어 추첨을 통해 일반인에게 표를 나눠준 유일한 곳이다. 대중미사의 표는 각 교구가 신자들을 상대로 배부했기 때문에 매물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br/><br/>다만 27일 필라델피아에서 열기로 예정된 가톨릭교 행사인 세계가정회의 폐막식에 들어갈 수 있는 표 두 장을 5000달러에 팔겠다는 광고가 크레이그 리스트에 올라왔다가 지워졌다. 현재 크레이그 리스트 등에는 교황을 보기 위해 타 도시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망 좋은 또는 접근성 좋은 방을 빌려준다는 광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워싱턴 시내의 일부 방들은 1박에 평소보다 2~3배 비싼 700~8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br/><br/>교황을 보고 싶어 하는 미국인들의 요구가 폭발하자 워싱턴 대교구는 교황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표 없이도 시민들이 교황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일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교황은 23일 정상회담 후 존 F 케네디 대통령 장례식이 치러진 세인트매튜 성당으로 이동하기 전 워싱턴 시내 내셔널몰 주변에서 카퍼레이드를 펼칠 예정이다.<br/><br/><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00.txt

제목: 두 번의 사선 넘은 ‘50대 새터민’ 염금순씨의 졸업 작품전  
날짜: 20150913  
기자: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20014328  
본문: ㆍ“사진과 영상이 ‘남북 소통의 다리’ 됐으면”<br/><br/>“<span class='quot0'>남과 북에 ‘소통의 다리’를 놓고 싶습니다.</span>”<br/><br/>새터민 염금순씨(55)는 두 번의 ‘사선(死線)’을 넘어 2004년 대전에 정착했다. 2000년 첫 번째 탈북 시도가 중국 공안에 발각돼 실패한 뒤 천신만고 끝에 얻은 자유였다. 하지만 그토록 꿈꾸던 남한에서의 삶에도 시련은 비켜가지 않았다. 2008년 대장암 진단을 받은 염씨는 다시 한번 사선을 넘어야 했다. 수술과 항암치료 등 1년 가까운 투병생활 속에서 염씨가 얻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었다.<br/><br/><br/><br/>암을 이겨낸 그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 지난해 배재대 사진영상디자인학과에 편입한 염씨는 졸업을 앞두고 지난 11일부터 대전예술가의집에서 졸업작품전을 열고 있다. 자식뻘인 졸업 동기들과 함께 여는 전시회에 그가 출품한 작품은 ‘무엇이 다를까요’라는 제목의 사진 4장이다. 새터민 출신의 아이가 친구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통해 ‘남과 북은 하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br/><br/>염씨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새로 얻은 인생을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며 보내기 위해 찾은 것이 사진과 영상 공부였다”면서 “남과 북을 가로막은 철책선보다 더 큰 장벽은 소통의 장애이고, 한 장의 사진과 영상이 그 벽을 허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했다.<br/><br/>염씨는 졸업 후 배재대 한류문화산업대학원에 진학해 다큐멘터리를 공부할 생각이다. 자신이 남과 북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 때문이다. <br/><br/>염씨는 13일 “늦은 나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것이 남북통일의 작은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남과 북이 모두 공감하고 서로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 세상에 내보이고 싶다”고 말했다.<br/><br/><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01.txt

제목: “다른 장기 투쟁 노동자들, 우리 보며 희망가지시길…”  
날짜: 20150911  
기자: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5827320  
본문: ㆍ최장기 농성 2822일 만에 복직…유명자 전 재능교육 노조지부장<br/><br/>2822일간의 최장기 농성이 노동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빨간펜 선생님’으로 불렸던 유명자씨(47·사진)와 박경선씨(50)는 재능교육 해고 노동자였다. 유씨와 박씨는 11일 오전 사측과 복직합의서를 체결했다.<br/><br/>이날 오후 만난 유씨와 박씨는 농성장을 정리할 시간조차 없어 보였다. 두 사람은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 이들의 복직 결정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온 동료와 학생들의 축하 인사도 받았다.<br/><br/>2007년 가을 재능교육은 노조와의 단체협약 과정에서 임금을 대폭 삭감했다. 재능교육 노조는 그해 12월21일 단협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첫날 천막을 칠 때만 해도 농성이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회사는 노조원 12명을 순차적으로 해고했다. 학습지 교사가 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를 들었다.<br/><br/>농성 투쟁 2000일을 앞둔 2013년 오수영·여민희 두 조합원이 재능교육 본사 건너편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그사이 해고자 1명은 암으로 사망하고 우여곡절 끝에 11명 중 9명이 복직에 합의했다. 유씨와 박씨는 ‘단체협약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복직을 거부했다.<br/><br/>두 사람은 지난해 1월부터 서울광장 인근 농성장을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으로 옮겨 농성을 이어갔다. 농성장은 8차선 대로변에 있었다. 겨울엔 살을 에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여름엔 찜질방보다 더웠다. <br/><br/>박씨는 “<span class='quot0'>우리가 요구한 단체협약 개선내용을 최근 회사가 상당 부분 이행해 이번에 복직에 합의하게 됐다</span>”고 말했다. 유씨는 “오랜 천막 생활로 몸이 망가져 당분간은 집에서 요양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일을 시작할 것”이라며 “다른 장기 투쟁하시는 분들도 우리를 보고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br/><br/><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02.txt

제목: [책과 삶]27년 살아온 남편이 연쇄살인마였다  
날짜: 20150911  
기자: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5809843  
본문: ㆍ별도 없는 한밤에 <br/>ㆍ스티븐 킹 지음·장성주 옮김 |황금가지 | 604쪽 | 1만5000원<br/><br/>27년간 행복한 삶을 함께해 온 남편이 치밀한 연쇄살인마임을 알았다면, 평생 부러워했던 잘난 친구에게 내 불행을 밀어버릴 기회가 생겼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샤이닝> <쇼생크 탈출>의 작가 스티븐 킹(68)이 30년 만에 선보이는 세 번째 중편소설집 <별도 없는 한밤에>에 그 뒷이야기가 담겨 있다. <br/><br/>책 속 4편의 소설들은 작가 자신이 밝혔듯 독하고 불편한 이야기들이지만, 펼친 자리에서 다 읽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긴장감과 재미는 보증한다. 중편소설이라지만 작품당 200페이지가 넘기도 하니 경장편 몇 권으로 나올 이야기들이 한 책에 든 셈이다.<br/><br/>소설들은 살인과 강간 같은 범죄, 그리고 응징을 공통적으로 다룬다. 연약하면서도 강한 인간이 갑작스러운 불행에 닥쳤을 때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변해 가는지를 세밀하게 전한다. ‘빅 드라이버’에서 작가 테스는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다 차 바퀴가 고장나고, 지나던 트럭 기사의 도움을 받지만 그 손길은 위기로 이어진다. 죽음의 문턱에 갔다 돌아온 여주인공의 심리 상태, 복수하기까지 계속되는 번복과 갈등이 생생하게 묘사된다. 예상을 뛰어넘는 사건의 전모가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충격적이다. ‘행복한 결혼생활’은 다정다감했던 남편이 연쇄살인마임을 우연히 알게 된 여성의 두려움과 갈등을 그리고 있다. 부인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공정한 거래’는 악마와의 거래가 모티브다. 암에 걸려 시한부 생을 선고받은 주인공이 악마인지 모를 남자와의 우연한 거래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내내 시기했던 불알친구를 제물로 바치는 대신 인생을 연장한다. ‘1922’는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꼬드겨 아내를 살해할 계획을 짜지만, 아내가 죽은 이후 원했던 돈도 갖지 못하고 결국 모두가 광기 속에서 파멸해 가는 과정을 담았다.<br/><br/>작가는 닫는 글에서 “<span class='quot0'> ‘이야기 중심의 소설 쓰기’가 본질적으로 수명을 다했다고 보는 자들을 도저히 참고 봐줄 수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야기 만들기는 우리가 삶을, 그리고 종종 우리 주변에 보이는 끔찍한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span>”이라고 밝혔다. 또 “독자들로 하여금 책을 읽는 동안 생각하게 하는 것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 이야기가 훌륭하고 인물들이 생생하면, 다 읽고 나서(때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책을 덮은 후에 비로소 생각이 느낌을 대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br/><br/><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03.txt

제목: [경향이 찍은 오늘]9월11일 2822일 만의 승리 그리고 희망  
날짜: 20150911  
기자: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5800709  
본문: 경향신문 사진기자들이 ‘오늘’ 한국의 사건사고·이슈 현장을 포착한 보도사진 [경향이 찍은 오늘] 9월11일입니다.<br/><br/>■문재인 재신임 강행<br/><br/><br/><br/>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1일 최고위원 대다수의 반대에도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신임 투표는 13~15일 사흘 동안 실시해 16일 중앙위원회 직후 발표하게 됩니다. 전 당원 ARS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각각 실시해 어느 한쪽에서라도 불신임을 받으면 결과에 승복하도록 했습니다. 비노 진영에서는 반대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일방독주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네요. 문재인 대표의 승부수가 힘 있는 야당으로 가는 ‘묘수’가 될까요, 아니면 당이 쪼개지는 ‘자충수’가 될까요. 결과가 궁금해집니다.<br/><br/>■2년 연속 국감 출석<br/><br/><br/><br/>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1일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는 카카오톡 불법 감청 논란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는데요. 올해는 ‘카카오택시’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택시를 비롯해 퍼스널모빌리티, 드론 등 진화하는 첨단 교통수단과 환경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하네요.<br/><br/>■재능교육, 2822일만의 원직 복직<br/><br/><br/><br/>마지막 재능교육 해고노동자 2명이 원직에 복직하게 됐습니다. 재능교육 노동조합은 2008년 회사가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임금을 대폭 삭감하자 단협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습니다. 당시 사측은 학습지 교사가 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들어 노조 활동을 한 12명의 교사를 해고했습니다. 1명이 암으로 사망해 11명이 투쟁을 이어갔고, 2013년 8월 202일간의 고공 농성 끝에 9명은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해고노동자 유명자, 박경선씨는 ‘당초 요구사항은 단체협약의 원상회복’이었다며 복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9일 재능교육과 원직 복직 등을 잠정 합의하고 11일 투쟁승리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2822일만입니다. 유명자씨는 “너무 오래 싸웠는지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다른 장기 투쟁하시는 분들도 우리를 보고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셨으면 한다”고 말했네요.<br/><br/>■다리 밑 미술대회<br/><br/><br/><br/>청계천 다리 밑에서 그림대회가 열렸습니다. 평소 직장인들과 관광객들이 산책하던 곳에 학생들이 붓을 들고 있으니 이색적이네요. ‘나라사랑 미술대회’라고 하니 학생들이 생각하는 나라사랑이란 어떠한 이미지일지도 궁금합니다.<br/><br/>■가을에 손짓하는 수크령<br/><br/><br/><br/>강아지풀과 비슷하게 생긴 ‘수크령’ 들어보셨나요. 사실 주변에서 본 듯도 한 풀인데 이름은 몰랐네요. 벼가 한창 여물어 갈 때, 농촌 들녘에서 많이 핀다고 합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예리한 낫으로 강하게 내리쳐야 벨 수 있을 정도로 ‘힘센 풀’이라네요. 재미난 이름의 유래는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br/><br/><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04.txt

제목: [건강 단신]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암 교육 ‘성 루까센터’ 열어 外  
날짜: 201509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5606197  
본문: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준식)이 암 전문 교육기관인 성 루까 교육센터를 열었다. 전이암·재발암 등 중증 암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박11일간 이론 교육과 실기 훈련을 한다. 수료 후 가정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게 구성했다. 암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비는 240만원이다. (032)290-3487<br/><br/>■대한비만학회 ‘살빼기 캠프’ 내달 2일까지 초등생 모집<br/><br/>대한비만학회(이사장 유순집)는 10월11일 올림픽공원과 한국체대에서 열리는 ‘즐겁고 신나는 건강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비만 예방을 위해 초등생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실내외 활동이 진행된다. 다음달 2일까지 학회 홈페이지(www.kosso.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메일(kosso@kosso.or.kr)이나 팩스(02-364-0883)로 보내면 된다. 선착순 50가족, 참가비는 가족당 1만원이다. (02)364-0886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05.txt

제목: “이화의료원 마곡병원, 3인실 기본에 중환자 1인실”  
날짜: 20150910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5605409  
본문: ㆍ김승철 원장, ‘병실 혁신’ 주도 <br/>ㆍ“IT융합 스마트 병원 만들 것”<br/><br/>이화의료원이 ‘병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3인실을 기준병실(건강보험 적용 기준)로 하고, 중환자실은 모두 1인실로 운영하는 스마트병원을 건립 중이다. 현행 국내 기준병실인 6인실은 복잡하고 감염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인실 이상은 차액 부담이 상당하다.<br/><br/>김승철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58·사진)은 최근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화의료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마곡병원’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br/><br/><br/>2018년 하반기 서울 강서구 마곡지역에 개원할 예정인 마곡병원은 지하 5층, 지상 10층, 1036병상 규모이다. 새 병원의 기준병실인 3인실의 병상당 면적은 10.29㎡로 의료법상 기준인 6.5㎡의 1.5배 이상이다.<br/><br/>김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새 병원 기준병실을 3인실로 하고, 중환자실을 1인실로 운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누군가는 먼저 해야 할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 우려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병원으로 설계를 강화했다</span>”고 말했다.<br/><br/>마곡병원은 당초 70% 이상의 기준병실을 1인실로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현행 수가체계와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도입 등 의료환경을 고려해 3인실로 설계를 변경했다. 김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각종 연구에서 3인실 운영이 환자 서비스와 감염 예방, 국내외 경쟁력을 갖추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pan>”고 밝혔다.<br/><br/>마곡병원은 이대목동병원과의 역할 분담을 위해 암, 심뇌혈관질환, 장기이식 등 중증질환 치료를 특화해 육성할 계획이다. 국제진료센터 운영, 외국인 환자를 위한 프리미엄 건강증진센터 개설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최신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해 유비쿼터스 의료, 스마트 진료가 가능한 복합IT병원으로 건립된다.<br/><br/>김 의료원장은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 부인암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이대목동병원장, 초대 이대여성암병원장, 이대 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장, 이화융합의학연구원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06.txt

제목: 증류액·마취약 섞어 ‘만병통치약’ 속여 투약한 60대 구속  
날짜: 20150910  
기자: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5441422  
본문: 증류액과 마취약 등을 섞어 만든 제조약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말기암 환자 등에게 사용한 무자격 의료인이 경찰에 붙잡혔다.<br/><br/>서울 은평경찰서는 10일 청계산 입구에 ‘보이차OO’라는 찻집을 차려 자체 제조약과 침, 주사기 등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사기)로 조모씨(60)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자연건강협회 회장인 조씨는 3대에 걸쳐 침술 등 의료 행위를 한 집안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하면서 전국 사찰과 회사를 돌아다니며 환자 440여 명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로 약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br/>조씨는 자신이 개발한 일명 ‘산삼 침’, ‘인삼 침’의 효능이 뛰어나다고 홍보하며 산삼 또는 인삼 증류액에 마취약의 일종인 리도카인을 혼합해 만든 제조약을 환자들에게 사용했다. 특히 그는 치료 불가능한 말기 암환자들에게 완치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주사기에 이 제조약을 넣은 후 아픈 부위에 직접 주사했다. <br/><br/>조씨는 이런 식으로 췌장암 3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박모씨(60·사망)에게 접근해 자신의 침술과 제조약을 투여하면 “<span class='quot0'>100일 안에 완치해 걸을 수 있다</span>”고 속이고 지난 3월부터 8월10일까지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환자의 집은 물론 입원 치료 중인 대학병원 입원실까지 방문해 환자의 경동맥 혈관에 직접 이 제조약을 주사했다. 조씨는 이 ‘치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요구해 그중 5000만원을 받아챙겼지만, 박씨는 8월28일 숨졌다. <br/><br/>유방암 말기 환자인 이모씨(40·여) 역시 유방 부위에 직접 주사기로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조씨로부터 치료를 받고 2000만원을 건넸으나 효과가 없자 현재 한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r/><br/>조씨는 허리·관절 등에 침 치료를 받으려는 일반 환자들에게도 리도카인 마취약을 발라 침을 놓았다. 침을 맞은 부분이 국소 마취돼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되는 점을 노려 침술 효험으로 포장한 것이다. <br/><br/>경찰은 “<span class='quot1'>말기 암 등 치료에 궁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에게 자체 개발한 약과 침술로 완치시킬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고가의 치료비와 약값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자연요법 등을 이용한 완치법으로 접근할 때는 일단 사기 행위가 아닌가 의심하고 전문 의료인과 상의해야 한다</span>”고 당부했다.<br/><br/><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07.txt

제목: “내시경 아닌 잠혈”…대장암 검진 바뀐다  
날짜: 20150909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5334812  
본문: ㆍ국립암센터 권고안…위암은 ‘조영검사 선택’ 빼고 2년마다 ‘내시경’<br/><br/>대장암 검진을 시작하는 시기가 50세에서 45세로 앞당겨진다.<br/><br/>국립암센터는 9일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에 포함된 5대암(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암)의 검진 권고안을 개정하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폐암과 발생률이 가장 높은 갑상샘암에 대한 권고안을 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br/><br/>의료인을 위한 임상진료 지침인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일반인에게 적용할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의 개정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br/><br/><br/>위암 권고안은 40~74세 무증상 성인에게 위내시경으로 2년마다 검진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종전에는 위내시경이나 위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했다.<br/><br/>대장암 검진은 45~80세 무증상 성인에게 1년이나 2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하도록 했다. 현재 1차 검진 방법으로 사용되는 대장내시경은 출혈이나 천공 등 위험이 비교적 높아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장암 검진의 시작 연령은 현행보다 5세 앞당긴 45세로 설정했다.<br/><br/>간암은 40세 이상의 B·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게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간경화증 환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진단 시점부터 검진하도록 했다.<br/><br/>유방암은 40~69세 무증상 여성에게 유방촬영술로 2년마다 검진하도록 개정됐다. 종전엔 검진 방법으로 임상 유방진찰도 권장했으나 개정안은 임상 진찰이나 초음파검사의 검진 효과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br/><br/>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의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 세포도말검사나 액상세포도말검사를 이용해 3년마다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검진 주기는 2년이지만 3년으로 해도 검진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br/><br/>폐암은 30갑년(하루 1갑씩 3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5~74세 고위험군에게 저선량 흉부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했다. 금연 후 15년이 지난 과거 흡연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는다. 과잉검진 논란이 일었던 갑상샘암에 대해서는 무증상 성인에게 초음파검사를 권하거나 반대할 만한 의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일상적 검진을 권고하지 않았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08.txt

제목: 타이거JK·윤미래, 네팔 대지진 피해 돕기 기부  
날짜: 20150908  
기자: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5107453  
본문: ㆍ구호기관 옥스팜에 5000만원<br/><br/>국제구호개발기관 옥스팜은 가수 타이거JK와 윤미래 부부(사진)가 옥스팜코리아를 통해 올해 4월 발생한 네팔 대지진 피해지역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br/><br/>타이거JK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아버지 서병후씨(음악평론가)를 언급하면서 “<span class='quot0'>아버지가 암 투병 중에 네팔 히말라야에 무척 가고 싶어 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번 봄에 네팔 대지진 소식을 듣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네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후원을 결심했다</span>”고 말했다.<br/><br/><br/>이들의 기부금은 대지진 피해지역에 깨끗한 식수와 위생 장비를 공급하고 임시 화장실과 피난처를 설치하는 데 쓰이게 된다. <br/><br/>옥스팜은 아직도 네팔에는 임시거처에서 긴급 식량으로 삶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수천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br/><br/><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09.txt

제목: “20년 만에 ‘한국형 암각화’ 경북 군위서 발견”  
날짜: 20150908  
기자: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4910881  
본문: 경북 군위에서 한국형암각화로 일컫는 ‘검파형(칼손잡이형) 암각화’가 발견됐다.<br/><br/>울산대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이하 반구대연구소)는 8일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강변의 바위에서 검파형 암각화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반구대연구소는 한국형암각화는 1995년 이후 20년 만에 발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암각화는 가로 2m30㎝, 세로 1m70㎝, 높이 28㎝ 크기의 둥근 바위 상단부에 새겨졌다. 바위면에서는 검파형암각화로 알려진 석검 손잡이 형태의 그림 13점이 확인됐다. 반구대연구소 전호태 교수는 “<span class='quot0'>암각화의 양식은 동일한 유형의 암각화 중 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는 청동기 후기에 제작된 것</span>”이라고 말했다.반구대연구소는 이 암각화를 ‘수서리 암각화’로 명명했다. 연구소는 이 암각화의 발견으로 경북 포항~경주~영천~전북 남원 등지로 이어지는 한국형암각화의 기존 전파경로와 별개로 군위를 경유하는 새 루트가 있다는 점도 알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br/><br/>검파형암각화를 연구해온 반구대연구소 이하우 교수는 “<span class='quot1'>검파형암각화는 천둥과 번개의 상징물로 선사인들이 칼의 손잡이를 새긴 것인데, 농경사회에서 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하늘에서 비를 부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span>”고 말했다.<br/><br/>반구대연구소는 또 수서리암각화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여 약 1.5㎞ 떨어진 성대산 기슭 8부 능선에서 윷판형암각화 14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윷판형암각화는 하늘의 북두칠성을 도안화한 것으로 일종의 천체모형의 하나이며, 농경을 위한 천문관측과 농사풍년의 점을 치는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연구소측은 설명했다.<br/><br/>윷판형암각화는 초기 철기시대에 제작된 한반도 고유의 암각화 유형 중 하나이다.<br/><br/><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10.txt

제목: [B급 질문을 하다]‘앤트맨’ 다음 히어로는 누군가요?  
날짜: 20150907  
기자: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4806532  
본문: ㆍ‘큰 힘에는 큰 무책임’ 엉뚱한 영웅 ‘데드풀’ 출격<br/><br/>지난 3일 개봉한 영화 <앤트맨>의 주인공인 ‘앤트맨’은 헐크나 캡틴 아메리카처럼 울끈불끈 근육맨도 아니고, 스파이더맨처럼 미녀를 구출하는 정의의 사도도 아니다. 1.27㎝의 아주 작은 몸에 허술하고 겁도 많다. 관객들은 엉뚱하고 귀여운 새 히어로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지난 3일 개봉한 <앤트맨>은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넘기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br/><br/>앞으로 나올 히어로 영화 중에 앤트맨처럼 전형적인 히어로들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히어로는 누가 있을까.<br/><br/>내년 2월 개봉 예정인 영화 <데드풀>의 주인공인 ‘데드풀’을 제일 처음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데드풀은 마블 만화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엉뚱한 캐릭터로 꼽힌다. 온몸에 암이 퍼져 죽을 운명에 처했던 웨이드 윌슨은 잔혹한 실험을 거쳐 신체를 스스로 재생하는 초능력인 ‘힐링팩터’를 가진 데드풀로 거듭난다. 암은 여전히 온몸에 퍼져 있지만 재생 능력 때문에 죽지 않는다. 데드풀은 실험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기존 히어로들과 다른 성격이 된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조롱기 섞인 농담을 던진다. 기존의 히어로들을 조롱하기도 한다. 폭스사에서 내놓은 영화 예고편에 ‘큰 힘에는 큰 무책임이 따른다’는 글귀가 데드풀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스파이더맨의 대사인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를 뒤튼 것이다.<br/><br/><br/><br/>내년 개봉 예정인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의 ‘닥터 스트레인지’는 ‘마법사’ 히어로다. 만화에서 다른 캐릭터들에게 ‘신’으로 칭해질 정도로 엄청난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신들의 힘을 가져와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 영화에서는 인기 영국 드라마인 <셜록>의 주인공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닥터 스트레인지를 맡아 화제다.<br/><br/>2018년에 나올 영화 <캡틴 마블>의 주인공 ‘캡틴 마블’은 강력한 힘을 가진 여성 히어로다. <어벤져스>의 ‘블랙 위도우’ 같은 여성 히어로는 있었지만 영화의 간판이 되는 여성은 처음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br/><br/><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11.txt

제목: 홍혜걸의 의학채널 비온뒤 앱 출시···동영상 의학 백과사전 서비스  
날짜: 2015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4248968  
본문: 홍혜걸 의학박사, 의학정보 채널 비온뒤 ‘의학백과사전’ 출시<br/><br/><br/>홍혜걸 의학박사가 의학정보채널 비온뒤 앱을 출시했다. 비온뒤는 비온뒤 땅이 굳어지고 무지개가 뜨듯 치유와 건강을 상징한다는 뜻이다. 비온뒤 앱은 세계 최초 동영상 의학 백과사전으로 다양한 의학정보를 담고 있다.<br/><br/>홍혜걸의 비온뒤 백과사전 코너에는 다양한 자료가 총 25가지 주제로 분류돼 있다. 주제는 암, 치과, 미용성형, 심혈관 질환, 뼈와 관절질환, 임신과 육아, 정신의학과, 남성과 여성 질환 등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으며 모든 정보는 전문 의사들이 직접 전하는 동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모든 콘텐츠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돼 있으며 공익 목적으로 제작됐다.<br/><br/>홍혜걸의 비온뒤 앱 하나로 궁금한 의학정보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접할 수 있다. 병원에 찾아가야지만 볼 수 있었던 각 분야 전문의를 비온뒤 앱 동영상을 통해서 쉽게 만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의학정보까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br/><br/>홍혜걸의 비온뒤 앱은 의학 백과사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의학 토크쇼를 통한 건강관리방법, 올바른 육아 방법, 부부 관계, 힐링 푸드 등을 동영상으로 쉽게 알려주고 있다. 또한,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요가 동작과 운동시간이 부족한 직장인과 수험생을 위한 1분 스트레칭 영상도 제공하고 있다.<br/><br/>비온뒤에서는 건강 관련 질문 중 매달 베스트 질문을 뽑아 소정의 선물을 보내주고 있으며 베스트 질문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영상으로 직접 답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참여자들로부터 반응이 뜨겁다.<br/><br/>이처럼 다양한 건강 콘텐츠는 비온뒤(www.aftertherain.kr)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은 앱 다운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다. 안드로이드와 IOS 둘 다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12.txt

제목: 충북지역 의사들 한정호 교수 구하기 서명운동 전개  
날짜: 20150903  
기자: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4058686  
본문: 충북지역 의사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42·사진)를 구명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br/><br/>충북·청주시의사회는 지난 1일부터 한정호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회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한 교수는 2006년부터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들을 비판해왔다. 이 공로로 지난 4월 대한의사회협회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br/><br/>하지만 한 교수는 이로 인해 수많은 소송에 휘말렸다. 특히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해 만든 암 치료제 넥시아를 두고 제대로 된 검증사례가 없다며 지적했다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발됐다. 법원 판결은 다음달 예정돼 있다.<br/><br/>이번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한 교수는 국공립 대학병원 교수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br/><br/>이에 충북·청주시의사회 한 교수를 구명하기 위해 나섰다. 이들이 개설한 서명운동 홈페이지(http://nexia.cjdr.com/)에는 3일만에 430여명이 서명을 했다. 한 교수를 응원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br/><br/>충북·청주시의사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한 교수는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비판하고 또 사람들이 올바른 의학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번에도 한방 항암치료제인 넥시아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가 명예훼손과 모욕죄 고발로 재판을 받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이 관계자는 이어 “<span class='quot1'>한 교수의 표현 중 일부 과격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자신의 이익이나 특정 개인을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앞장서는 한 교수 후원하고 응원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게 됐다</span>”고 말했다.<br/><br/>한 교수는 2013년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4년에는 호주로 향하던 국제선 여객기에서 발생한 심장마비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소생시켜 복지부장관 표창과 자랑스러운 충북인상을 받기도 했다.<br/><br/><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13.txt

제목: [세상읽기]우리나라 비만 진단 기준은 적정한가  
날짜: 20150903  
기자: 서홍관 | 국립암센터 교수·시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4101297  
본문: 루벤스의 ‘삼미신’ 그림을 보면 누구나 여신들의 비만한 모습에 놀란다. 당시 기준으로는 마른 여성보다는 포동포동한 여성이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미의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물이 짝짓기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새끼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암컷은 수컷이 힘이 세어 자녀를 위해 먹을 것을 책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수컷은 암컷이 새끼를 많이 낳아줄 만큼 건강할 것을 기대한다. 물론 인간의 미의 기준을 동물의 짝짓기로 모두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미의 기준이 건강에 대한 개념과 떼려야 뗄 수가 없다는 점만은 명확하다.<br/><br/>인류는 수백만년간 영양결핍의 시대를 살아왔고, 기근의 시대를 벗어난 건 불과 수십년 전의 일이다. 따라서 영양결핍의 시대에는 살이 포동포동한 여성이 건강했고, 아름답게 느껴졌다.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과영양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비만은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돼버렸고, 심지어는 게으른 인간으로 매도되기까지 한다. 그리고 날씬한 남성이나 여성이 건강하고 매력적인 인물로 간주된다. <br/><br/>비만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18세 이상 성인의 39%는 과체중이고, 13%는 비만이었으며 이를 인구로 계산하면 과체중은 19억명, 비만은 6억명에 이른다고 한다. 비만은 당뇨병, 심장질환, 뇌졸중, 유방암과 대장암을 비롯한 몇 종류의 암, 관절염의 원인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비만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br/><br/>문제는 비만의 진단 기준이다. 비만은 불필요한 지방 축적 때문에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암(유방암과 대장암)을 일으키는 질병인데, 비만의 진단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만 정도에 따라 이런 질병에 얼마나 잘 걸리는지, 또 비만에 따라 사망률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 <br/><br/>비만이 생기면 당뇨 발생 위험이 늘어나는데, 간이나 근육, 내장에 축적된 지방의 양이 가장 예민한 예측인자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내 지방량은 측정이 어렵고 객관화가 어려워 현재는 허리둘레를 많이 사용한다. 대한비만학회는 배꼽을 기준으로 허리둘레를 재어 남성은 85㎝ 이상, 여성은 80㎝ 이상일 경우 복부비만이라고 기준을 정했다. 그러나 허리둘레는 키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키를 고려한 체질량지수(BMI)가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단 기준이다. <br/><br/>1993년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의 진단 기준을 정할 때 체질량지수 25 이상은 과체중, 30 이상은 비만으로 정했다. 당시 사용한 통계자료는 서구인들의 자료를 사용한 것이었다. 2000년에 아시아 인종은 체질량지수가 낮아도 당뇨를 비롯한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는 근거자료를 토대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비만전문가들이 논의한 결과 아시아 인종은 비만 진단 기준을 대폭 낮춰 체질량지수 23 이상을 과체중, 25 이상을 비만으로 정했다. 논란이 많은 이 진단 기준을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의 비만 환자는 엄청나게 증가했다.<br/><br/>아시아·태평양 비만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미심장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114만명의 인구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 국민들을 조사한 결과 체질량지수가 22.6 이상~27.5 미만일 때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그동안 적용했던 체질량지수 25 이상을 비만으로 규정하고 치료하는 것은 과잉진료를 양산하는 셈이다.<br/><br/>미국은 전 세계에서 비만 정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비만 기준을 체질량지수 30 이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성인 남자 35.5%, 여자 33.4%가 비만이라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비만 기준을 25 이상으로 사용하면 성인 남자의 38.7%, 성인 여자의 28.1%가 비만으로 나와, 남성 비만율은 미국보다 높게 된다. 현재 비만 기준은 재검토돼야 한다. 체질량지수 25 이상을 비만으로 규정할 경우 건강한 국민들 일부가 비만 환자가 되어 불필요한 진료, 불필요한 걱정, 불필요한 자기 비하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br/><br/><서홍관 | 국립암센터 교수·시인>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14.txt

제목: 광우병 단백질이 암 죽이는 면역세포 활성화시킨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첫 규명  
날짜: 201509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4012931  
본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와 그 일련의 파동으로 잘 알려진 질환이 광우병이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의 병적 프리온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존재하는 정상 세포성 프리온 단백질이 나쁘게 변형되면서 뇌에 병변을 일으켜 죽게 된다.<br/><br/>그 동안 이 정상적인 세포성 프리온 단백질의 생체 내 역할에 대해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면역체계의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했다.<br/><br/>그런데 이 정상적인 세포성 프리온 단백질이 암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천성 면역세포인 자연살해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규명되어 이목을 끈다. 해당 연구내용은 해외 학술지인 BBRC(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2015년 8월호에 실렸다.<br/><br/>우리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암세포들을 정리하는 일차 면역세포가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s)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살해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을 치료하는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 연구는 재조합기술을 이용해서 세포성 프리온 단백질을 만들었고 면역 자극실험을 통해 이 재조합 프리온 단백질이 인간 자연살해 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다.<br/><br/>세포성 프리온 단백질은 자연살해세포의 인터페론감마, 종양괴사인자알파같은 싸이토카인을 분비를 촉진함과 동시에 자연살해세포의 증식을 증가시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br/><br/>개업의로는 처음으로 KAIST 의과학대학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이 같은 연구성과를 만들어 낸 성연재 원장은 종아리 퇴축술 및 다리성형전문 병원으로 잘 알려진 하피스 의원의 대표 원장이다.<br/><br/>성연재 원장은 “<span class='quot0'>근육세포에도 많이 발현되어 있는 정상 프리온 단백질이 암과 각종 바이러스를 처치하는 자연살해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운 내용이다</span>”라면서 “<span class='quot0'>자연살해세포의 어느 수용체와 반응해서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span>”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15.txt

제목: 이동장수샘물·해태 철원 생수서 우라늄 성분 국제기준 초과 검출  
날짜: 20150902  
기자: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3858867  
본문: ㆍ한정애 의원 국감 자료<br/><br/>국내 시판 중인 2개 생수 제품에서 국제기준을 초과한 우라늄 성분이 검출됐다.<br/><br/>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판 중인 53개 생수 제품의 우라늄 성분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국제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br/><br/>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은 우라늄 함유량이 ℓ당 30㎍(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br/>경기지역 ‘이동장수샘물’에서는 국제기준의 5.4배에 이르는 162.1㎍/L의 우라늄이 검출됐고, 해태음료 철원공장 제품에서는 39.26㎍/L의 우라늄 성분이 나왔다. 우라늄은 자연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로 장기간 인체에 유입될 경우 암을 유발하거나 조산이나 기형아 출산 등을 초래할 수 있다.<br/><br/>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규칙’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우라늄 성분을 생수 수질기준 검사 항목에 포함시켰다. 함유량 기준은 WHO·미국과 같다. <br/><br/>한 의원은 “<span class='quot0'>환경부는 2014년까지 한 번도 우라늄 성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 함유 생수가 시중에 유통돼왔다</span>”며 “<span class='quot0'>니켈·바륨 등 다른 미규제 유해물질도 국제기준을 준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br/><br/><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16.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30분 안에 진료 시작”  
날짜: 20150902  
기자: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3907591  
본문: ㆍ보호자는 1명만 머물게…메르스 대책에 1000억 투입<br/><br/>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2차 유행기지가 됐던 삼성서울병원이 응급실 진료를 30분 안에 마치고, 보호자는 1명만 응급실에 머물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br/><br/>삼성서울병원은 1000억원을 투입해 응급실 환경과 환자 안전시설을 개선·확충하고 메르스 백신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br/><br/>응급실이 붐비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자들이 30분 내에 최초 진료를 받고 6시간 내에 입·퇴원하는 진료 프로세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종전까지 이 병원 응급실 환자가 입·퇴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9.3시간이었다. 응급 환자를 레지던트가 아닌 전문의가 진료하도록 하고, 응급실 보호자 등록관리제를 실시해 보호자를 1명으로 제한한다.<br/><br/>응급실은 내년 3월까지 현재의 1.6배 규모로 확충해 감염·외상·소아·암환자 등 6개 전문 진료 영역별로 구역이 나뉘게 된다.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응급환자를 위한 음압격리실 11개를 설치해 일반 환자와 감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한다.<br/><br/>정식 음압격리병상이 없는 삼성서울병원은 전실을 갖춘 음압격리병실을 최소 10개 확보할 계획이다. 후속 대책에는 유엔이 설립한 국제백신연구소에 메르스 백신 개발자금 410억원을 5년간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백신 개발기관을 선정·관리하는 일은 국제백신연구소에 위임한다. <br/><br/>송재훈 원장은 “<span class='quot0'>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span>”고 말했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17.txt

제목: 국제성모병원, 암 전문 교육기관 ‘성 루까’ 교육센터 개소  
날짜: 20150902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3825728  
본문: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준식)이 1일 암 전문 교육기관인 성 루까 교육센터를 개소했다. 전이암·재발암 등 중증 암환자를 위한 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br/><br/>김준식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암 치료의 핵심인 식(食), 신(身), 심(心) 3대 요소를 근간으로 9박 11일간 전문적인 교육과 실기 훈련을 하게 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암 치료의 핵심인 가족애 고양을 위해 가족 동반 교육도 실시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br/><br/><br/><br/>이를 위해 원내 1000㎡에 달하는 대단위 식물공장에서 나오는 식재료로 채소를 공급하고, 각 분야별 전문 의료인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 특강과 상담을 한다. 식이요법(이종두 전이재발암병원장), 면역(김혜정 통합의학과 교수), 자율신경조절과 명상(선우윤영 통합의학과 교수) 3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교육을 진행한다.<br/><br/>이종두 교수가 최근 국제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저탄수화물 식이와 식물유래 생리활성물의 병용 섭취가 암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를 나타냈다. 동물실험 결과다.<br/><br/>이 교수가 개발한 항암 식단은 ‘암 세포의 성장에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탄수화물, 특히 포도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평균 식사 중 60%를 차지하는 탄수화물 섭취를 20% 이내로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지방으로 보충하는 것’이다. 총 섭취 열량은 유지하는 탄수화물 섭취 제한 식이, 그리고 강황이나 녹차 등에서 추출한 다양한 식물유래 생리화합물을 먹는 것이 좋다.<br/><br/>이 센터는 교육 수료 후에도 가정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암 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 비용은 240만원이다. (032)290-3487<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18.txt

제목: “후쿠시마원전사고 수습 작업 중 방사능 피폭으로 발암"...50대 남자,도쿄전력 등 상대 소송  
날짜: 20150902  
기자: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3712327  
본문: “<span class='quot0'>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 수습 작업 중에 방사능에 피폭돼 암에 걸렸다.</span>”<br/><br/>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과 함께 발생한 후쿠시마원전 사고의 현장에서 사고 수습 작업에 참가한 일본의 남성(57)이 도쿄전력 등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방사능에 피폭, 암에 걸렸다면서 도쿄(東京)전력과 하청업체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6472만엔(약 6억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삿뽀로(札幌)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도쿄신문이 2일 보도했다.<br/><br/>후쿠시마원전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런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br/><br/>이 남성은 2011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후쿠시마제1원전에서 중장비를 무선으로 원격조정, 폐기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형 폐기물을 손으로 운반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 중에는 시간당 방사선량이 100mSv(밀리시버트)를 넘는 폐기물도 있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br/><br/>이 남성은 2012년 6월 위암이 발생한데 이어 약 1년 후에는 방광암, 결장암 등이 발생했다면서 당시 납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하반신의 장기 등은 보호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고선량의 방사능에 피폭돼 결국 암이 발병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br/><br/>이 남성은 또 작업 당시 현장에서 개인별로 방사능 측정기(선량계)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기록상으로 나와있는 자신의 4개월 간 누적 피폭량(56.41mSv)에 비해 훨씬 많은 방사능에 피폭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r/><br/>도쿄전력 등 피소된 업체 측은 “소송에서 제기되는 주장에 진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br/><br/><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19.txt

제목: ‘아내를 모자로…’ 미국 작가 올리버 색스 사망  
날짜: 201508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31100000073  
본문: 시한부 선고를 받고 암 투병을 하면서도 삶을 찬미하는 글들로 세계의 독자들을 감동시킨 미국의 저명한 의학자 겸 저술가 올리버 색스(사진)가 30일 생을 마감했다. <br/><br/>뉴욕타임스는 30일(현지시간) 색스가 뉴욕의 자택에서 82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색스는 지난 2월 이 신문의 기고에서 안구의 종양(흑색종)이 간으로 전이돼 시한부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당시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주었던 내 인생에 감사한다”, “생각하는 동물로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엄청난 특혜와 모험이었다”고 말했다.<br/><br/>색스는 1933년 런던에서 태어나 옥스퍼드대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이주, 신경과 전문의의 길을 걸었으며 컬럼비아대와 뉴욕대 의대 교수를 지냈다. 의사로 일하면서 왕성한 저술 활동을 펼쳐 베스트셀러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자폐증을 앓는 천재들의 이야기인 <화성의 인류학자>, 영화로도 만들어진 <사랑의 기적> 등의 저작을 남겼다. 투렛증후군, 아스퍼거증후군 같은 뇌신경계 질환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넓히는 데에도 기여했다. 600권이 넘는 일기장을 남긴 그는 수준급의 피아노 연주자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span class='quot0'>색스는 인간의 뇌와 몸과 마음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보여준 훌륭한 의사이자 작가였다</span>”고 추모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20.txt

제목: ‘아내를 모자로…’ 미국 작가 올리버 색스 사망  
날짜: 20150830  
기자: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2951522  
본문: 시한부 선고를 받고 암 투병을 하면서도 삶을 찬미하는 글들로 세계의 독자들을 감동시킨 미국의 저명한 의학자 겸 저술가 올리버 색스(사진)가 30일 생을 마감했다.<br/><br/>뉴욕타임스는 30일(현지시간) 색스가 뉴욕의 자택에서 82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색스는 지난 2월 이 신문의 기고에서 안구의 종양(흑색종)이 간으로 전이돼 시한부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당시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주었던 내 인생에 감사한다”, “생각하는 동물로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엄청난 특혜와 모험이었다”고 말했다.<br/><br/>색스는 1933년 런던에서 태어나 옥스퍼드대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이주, 신경과 전문의의 길을 걸었으며 컬럼비아대와 뉴욕대 의대 교수를 지냈다. 의사로 일하면서 왕성한 저술 활동을 펼쳐 베스트셀러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자폐증을 앓는 천재들의 이야기인 <화성의 인류학자>, 영화로도 만들어진 <사랑의 기적> 등의 저작을 남겼다. 투렛증후군, 아스퍼거증후군 같은 뇌신경계 질환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넓히는 데에도 기여했다. 600권이 넘는 일기장을 남긴 그는 수준급의 피아노 연주자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span class='quot0'>색스는 인간의 뇌와 몸과 마음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보여준 훌륭한 의사이자 작가였다</span>”고 추모했다.<br/><br/><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21.txt

제목: ‘도시농업 한자리에…’ 대구서 도시농업박람회 열려  
날짜: 20150830  
기자: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2858223  
본문: 대구에서 도시농업의 현주소를 한자리에서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br/><br/>대구시는 내달 3일부터 나흘간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제3회 대구도시농업박람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br/><br/>‘행복한 도시, 우리는 도시농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도시민의 여가생활 확대와 소통 공간 마련, 친환경 도시 조성,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br/><br/>도시농업이 생소한 참관객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리는 ‘도시농업 홍보관 파고라’를 비롯해 도시에서 재배한 다양한 작물들을 보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도시농업 힐링관’,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옥상텃밭’등이 선보인다. 또 현대인의 대표적인 질병인 암, 당뇨, 고혈압 등의 예방에 좋은 작물을 조성한 ‘무병장수 도시농업텃밭’ 등 다양한 볼거리도 즐길 수 있다.<br/><br/>행사장에는 다양한 포토존도 눈길을 끈다. 무와 고추를 재미있게 조형물로 표현한 ‘채소 포토존’, 대형 토우인형들이 꾸민 ‘도시농업 포토존’이 들어서 있다. 또 키우기 재미있고 습도조절 기능까지 있는 신기한 공중식물(에어플랜트)을 이용,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중식물 도시농업관’ 등도 마련됐다.<br/><br/>행사기간 학술행사도 곁들여진다. 해외도시농업 학술대회를 비롯해 대구지역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농가 구축세미나, 도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이해를 돕는 도시농업 시민교육 그리고 도시농업 선진국인 일본의 유명 연사가 강사로 참여하는 도시농업 글로벌 토크쇼 등의 세미나가 개최된다.<br/><br/>최운백 시 창조경제본부장은 “<span class='quot0'>이번 박람회를 도시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와 힐링으로 맛볼수 있도록 행복 발전소로 꾸미겠다</span>”고 밝혔다.<br/><br/><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22.txt

제목: [김준기의 사회예술 비평](27) 비물질 예술  
날짜: 20150829  
기자: 김준기 미술평론가·지리산프로젝트 예술감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2820128  
본문: ㆍ물질형식 초월한 예술소통<br/><br/>예술의 존재양식은 ‘지속가능한 물질형식’이다. 특히 시각예술에 관한 전통적 관념은 확고부동한 정의로 이 점을 강조한다. 음악이나 연극과 같은 시간예술에 비해 시각예술은 특정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물질형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에 균열이 가고 있다. 공연장, 전시장과 같이 시간예술과 공간예술을 나누던 고유의 예술 장을 넘어서 생활세계로 확장하는 예술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넘나들며 새로운 예술을 실험하고 있다. 천경우는 신체 접촉의 체험이나 비가시적인 에너지 네트워크 프로젝트로 탈물질 예술소통을 시도한다. 박찬국은 도심 속 옥상농부 실험으로 생태공간의 확장과 공동체적인 소통을 시도하며 청년의제를 다룬다. 이들은 물질형식의 생산을 최종 목표로 삼지 않고, 탈물질의 사회적 퍼포먼스로 사회적 예술의 지평을 확장한다. 사회체제의 변동은 예술체제의 변동과 맞물려 돌아가는 중요한 모멘텀이다. 정보화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예술의 생산과 소통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재화 가운데는 물질형식을 가진 물질재와 0과 1의 조합으로 이뤄진 디지털 체제의 정보재가 있는데, 이는 물질예술과 정보예술과 같이 예술 개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물질재에 적용되는 노동가치론이 정보재에서는 어떻게 발현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정보재 논쟁에서 나타났듯이, 물질형식의 예술에 대한 가치와 정보형식의 예술에 대한 가치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양아치는 디지털과 인터넷 시대의 정보양식이 현대사회를 조직하고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작업으로 물질형식 너머의 예술소통을 시도한다.<br/><br/>》박찬국 ‘동대문옥상낙원’ - 청년실업 문제로 사회적 퍼포먼스<br/><br/>동대문 인근의 신발도매상가 옥상에는 도시농부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옥상에서 지렁이와 벌을 키우며 옥상낙원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옥상 양봉은 벌꿀의 원재료를 제공하는 밀원식물들을 늘여감으로써, 도심 속 생태공간을 확장하는 바이오아트다. <br/><br/><br/><br/>서울 종로구 창신동 신발도매상가 B동 옥상에 사는 중진 공공미술가 박찬국과 청년예술가 김현승, 신진기획자 이지연 등 ‘청년허브 608’ 멤버들은 빈틈없이 가득 차 있을 것만 같은 도시공간에서 옥상이라는 여백을 발견해내고 그 공간을 매개로 옥상낙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옥상농부들의 최종목표는 농사 자체가 아니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br/><br/>동대문옥상낙원은 동대문의 산업과 문화를 매개로 새로운 문화와 산업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br/><br/>이들은 물질형식으로서의 예술작품 결과에 주목하기보다는 삶의 과정으로서의 예술적 소통에 집중한다. 그것은 버려진 물건들을 가져다 생활과 농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파티와 캠핑, 청계천과 동대문의 봉재산업 관련 노동의제를 발굴하며, 나아가 청년실업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이르기까지 이들의 실험은 비물질의 예술이다.<br/><br/>옥상농부 활동을 하고 있는 박찬국의 사유와 실천은 한국의 현장미술과 공공미술이 사회예술로 진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br/><br/>그는 1980년대 말의 현장미술그룹 ‘활화산’ 멤버로 활동했으며, 1990년대부터 공공미술의 바람을 일으킨 ‘M조형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2000년대 이후, 새로운 공공미술 캠페인을 벌이고 ‘밀머리미술학교’ ‘논아트 밭아트’를 비롯해 수많은 예술프로젝트 예술감독을 맡으며 공공미술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br/><br/>현장미술과 공공미술을 행동주의 예술과 공동체 예술로 이어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예술의 씨앗을 키워냈다. 물론 그의 도전과 실험은 진행형이다. 청년실업 문제라는 사회적 의제를 안고 옥상에 선 그는 빡빡한 도시에 구멍을 내는 탈물질 지향의 사회예술가다.<br/><br/>》천경우의 ‘Versus’ - 신체 접촉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체험<br/><br/>천경우는 사진가다. 그의 출발은 시간을 포착해 2차원 평면에 재현하는 공간예술로서 사진예술이다. 하지만 그는 사진이라는 물질형식을 넘어선 실험으로 비물질 미술을 병행하고 있다. 그는 순간 포착이라는 사진술의 문법을 연성화한다. 셔터를 열었다가 닫는 시간을 늘려 놓고는 셔터가 닫히기 전까지 피사체와 소통하는 상호작용과 교감의 사진을 연출한다. 카메라 조리개를 좁게 열어 빛이 조금씩 들어오게 만들고, 대신 오랫동안 열어놓는 방식으로 피사체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흔들린’ 사진이다. 따라서 그의 사진은 재현의 논리를 넘어서는 상호작용의 예술로 공간예술과 시간성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br/><br/><br/><br/>‘시간을 늘어뜨리는’ 사진은 공공미술 퍼포먼스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서울, 뉴욕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익명의 시민들을 모아 ‘처음 본 사람과 포옹을 한 채 15분간 앉아있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 작업 ‘Versus’는 광장 한가운데에 바나나 모양의 길다란 벤치 두 개를 놓고 그 벤치에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어깨를 맞대고 15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다. 익명의 낯선 사람들이 만나 사람 인(人)자 모양으로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참가자들은 낯선 타인의 체온과 체취, 맥박과 숨소리 등 인간 존재를 물질적으로 체험한다. 반면 천경우 예술은 물질형식을 넘어서는 비물질의 소통을 만들어낸다.<br/><br/>에너지 의제를 다룬 그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또한 물질형식 너머를 지향한다. 그는 도시의 일상을 구축하는 에너지 시스템에 주목하고, 그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에너지 회사의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독일 브레멘의 에너지 공급회사 직원 수천명에게 자기 자신이나 시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개인적 말들을 받아서 그것을 지하의 파이프라인에 붙여주었다. 땅에 파묻힌 물질형식의 텍스트들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텍스트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 그의 예술이다. 이렇듯 천경우 예술에서 나타나는 물질형식 너머의 상호작용, 교감, 기억 등의 문제는 예술이 사회적 소통기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br/><br/>》양아치의 ‘전자정부’ - 네트워커로 사회적 예술의 장 넓혀가<br/><br/>예술이라는 물질형식이 어떻게 비물질적·탈물질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정보화에 따른 변화는 빼놓을 수 없는 검토사항이다. 물질형식과 정보형식의 차이를 예술의 가치로 재구성하는 것은 예술의 비물질화 논의를 주도하는 핵심이다. 후기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정보는 물질형식을 뛰어넘는 재화로 가치를 창출한다. 마치 전산망 속의 금융산업처럼, 비물질적 형태로 존재하는 예술이 새로운 소통기제를 형성하고 있다. 양아치는 정보화 사회의 물리적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예술가다. 그의 ‘전자정부’에서 우리는 디지털 정보화 사회를 맞이한 ‘정보재로서의 예술’의 단면을 볼 수 있다.<br/><br/><br/><br/>양아치의 ‘전자정부’(2003)는 중앙감시체제의 감옥인 파놉티콘과 같은 정부의 전자감시 혹은 정보감시에 주목했다.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폐쇄회로(CC)TV 몰래카메라, 전자지문, 도청과 감청 등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정보화 체제는 동시에 감시체제로 작동한다. 정보학자들의 우려대로 일상의 모든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재구성되는 현대사회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이뤄진 감옥이다. 양아치는 이 메커니즘을 비판하는 역감시 시스템을 제안했다. 때에 따라 해킹을 도입하기도 한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존재방식에 대해 질문하고 새로운 해답을 찾아간다. 그는 디지털과 인터넷이 매개하는 정보화 사회의 희망에 동조하기보다는 절망 섞인 우려를 드러냈다.<br/><br/>이후에도 그는 CCTV가 감시하고 있는 사회의 면면을 다룬 연작들을 발표했다. 또 남한과 북한 사이의 가상국가 ‘미들 코리아(Middle Corea)’를 세우기도 했다. 그것은 그림, 조각 같은 물질형식뿐만 아니라 디지털과 인터넷과 같은 정보형식으로도 존재하는 개념적인 예술이다. 그는 뉴미디어 아트의 실험을 매체결정론적 관점에서 다루지 않았다. 정보화 사회의 명과 암을 끌어들인 그의 작업들은 예술이 탈물질화 과정을 거치면서 비물질적 소통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는 예술의 장과 그 너머 사회의 장에서 다양한 주체들을 매개하는 네트워커 역할로 사회적 예술의 장을 넓히고 있다.<br/><br/><김준기 미술평론가·지리산프로젝트 예술감독>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23.txt

제목: [김준기의 사회예술 비평](27) 비물질 예술  
날짜: 2015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29100000091  
본문: 예술의 존재양식은 ‘지속가능한 물질형식’이다. 특히 시각예술에 관한 전통적 관념은 확고부동한 정의로 이 점을 강조한다. 음악이나 연극과 같은 시간예술에 비해 시각예술은 특정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물질형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에 균열이 가고 있다. 공연장, 전시장과 같이 시간예술과 공간예술을 나누던 고유의 예술 장을 넘어서 생활세계로 확장하는 예술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넘나들며 새로운 예술을 실험하고 있다. 천경우는 신체 접촉의 체험이나 비가시적인 에너지 네트워크 프로젝트로 탈물질 예술소통을 시도한다. 박찬국은 도심 속 옥상농부 실험으로 생태공간의 확장과 공동체적인 소통을 시도하며 청년의제를 다룬다. 이들은 물질형식의 생산을 최종 목표로 삼지 않고, 탈물질의 사회적 퍼포먼스로 사회적 예술의 지평을 확장한다. 사회체제의 변동은 예술체제의 변동과 맞물려 돌아가는 중요한 모멘텀이다. 정보화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예술의 생산과 소통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재화 가운데는 물질형식을 가진 물질재와 0과 1의 조합으로 이뤄진 디지털 체제의 정보재가 있는데, 이는 물질예술과 정보예술과 같이 예술 개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물질재에 적용되는 노동가치론이 정보재에서는 어떻게 발현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정보재 논쟁에서 나타났듯이, 물질형식의 예술에 대한 가치와 정보형식의 예술에 대한 가치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양아치는 디지털과 인터넷 시대의 정보양식이 현대사회를 조직하고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작업으로 물질형식 너머의 예술소통을 시도한다.<br/><br/>》박찬국 ‘동대문옥상낙원’<font color="gray"> - 청년실업 문제로 사회적 퍼포먼스</font><br/><br/>동대문 인근의 신발도매상가 옥상에는 도시농부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옥상에서 지렁이와 벌을 키우며 옥상낙원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옥상 양봉은 벌꿀의 원재료를 제공하는 밀원식물들을 늘여감으로써, 도심 속 생태공간을 확장하는 바이오아트다. <br/><br/><br/><br/>서울 종로구 창신동 신발도매상가 B동 옥상에 사는 중진 공공미술가 박찬국과 청년예술가 김현승, 신진기획자 이지연 등 ‘청년허브 608’ 멤버들은 빈틈없이 가득 차 있을 것만 같은 도시공간에서 옥상이라는 여백을 발견해내고 그 공간을 매개로 옥상낙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옥상농부들의 최종목표는 농사 자체가 아니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br/><br/>동대문옥상낙원은 동대문의 산업과 문화를 매개로 새로운 문화와 산업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br/><br/>이들은 물질형식으로서의 예술작품 결과에 주목하기보다는 삶의 과정으로서의 예술적 소통에 집중한다. 그것은 버려진 물건들을 가져다 생활과 농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파티와 캠핑, 청계천과 동대문의 봉재산업 관련 노동의제를 발굴하며, 나아가 청년실업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이르기까지 이들의 실험은 비물질의 예술이다.<br/><br/>옥상농부 활동을 하고 있는 박찬국의 사유와 실천은 한국의 현장미술과 공공미술이 사회예술로 진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br/><br/>그는 1980년대 말의 현장미술그룹 ‘활화산’ 멤버로 활동했으며, 1990년대부터 공공미술의 바람을 일으킨 ‘M조형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2000년대 이후, 새로운 공공미술 캠페인을 벌이고 ‘밀머리미술학교’ ‘논아트 밭아트’를 비롯해 수많은 예술프로젝트 예술감독을 맡으며 공공미술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br/><br/>현장미술과 공공미술을 행동주의 예술과 공동체 예술로 이어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예술의 씨앗을 키워냈다. 물론 그의 도전과 실험은 진행형이다. 청년실업 문제라는 사회적 의제를 안고 옥상에 선 그는 빡빡한 도시에 구멍을 내는 탈물질 지향의 사회예술가다.<br/><br/>》천경우의 ‘Versus’ <font color="gray">- 신체 접촉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체험</font><br/><br/>천경우는 사진가다. 그의 출발은 시간을 포착해 2차원 평면에 재현하는 공간예술로서 사진예술이다. 하지만 그는 사진이라는 물질형식을 넘어선 실험으로 비물질 미술을 병행하고 있다. 그는 순간 포착이라는 사진술의 문법을 연성화한다. 셔터를 열었다가 닫는 시간을 늘려 놓고는 셔터가 닫히기 전까지 피사체와 소통하는 상호작용과 교감의 사진을 연출한다. 카메라 조리개를 좁게 열어 빛이 조금씩 들어오게 만들고, 대신 오랫동안 열어놓는 방식으로 피사체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흔들린’ 사진이다. 따라서 그의 사진은 재현의 논리를 넘어서는 상호작용의 예술로 공간예술과 시간성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br/><br/><br/><br/>‘시간을 늘어뜨리는’ 사진은 공공미술 퍼포먼스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서울, 뉴욕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익명의 시민들을 모아 ‘처음 본 사람과 포옹을 한 채 15분간 앉아있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 작업 ‘Versus’는 광장 한가운데에 바나나 모양의 길다란 벤치 두 개를 놓고 그 벤치에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어깨를 맞대고 15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다. 익명의 낯선 사람들이 만나 사람 인(人)자 모양으로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참가자들은 낯선 타인의 체온과 체취, 맥박과 숨소리 등 인간 존재를 물질적으로 체험한다. 반면 천경우 예술은 물질형식을 넘어서는 비물질의 소통을 만들어낸다.<br/><br/>에너지 의제를 다룬 그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또한 물질형식 너머를 지향한다. 그는 도시의 일상을 구축하는 에너지 시스템에 주목하고, 그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에너지 회사의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독일 브레멘의 에너지 공급회사 직원 수천명에게 자기 자신이나 시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개인적 말들을 받아서 그것을 지하의 파이프라인에 붙여주었다. 땅에 파묻힌 물질형식의 텍스트들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텍스트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 그의 예술이다. 이렇듯 천경우 예술에서 나타나는 물질형식 너머의 상호작용, 교감, 기억 등의 문제는 예술이 사회적 소통기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br/><br/>》양아치의 ‘전자정부’ <font color="gray">- 네트워커로 사회적 예술의 장 넓혀가</font><br/><br/>예술이라는 물질형식이 어떻게 비물질적·탈물질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정보화에 따른 변화는 빼놓을 수 없는 검토사항이다. 물질형식과 정보형식의 차이를 예술의 가치로 재구성하는 것은 예술의 비물질화 논의를 주도하는 핵심이다. 후기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정보는 물질형식을 뛰어넘는 재화로 가치를 창출한다. 마치 전산망 속의 금융산업처럼, 비물질적 형태로 존재하는 예술이 새로운 소통기제를 형성하고 있다. 양아치는 정보화 사회의 물리적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예술가다. 그의 ‘전자정부’에서 우리는 디지털 정보화 사회를 맞이한 ‘정보재로서의 예술’의 단면을 볼 수 있다.<br/><br/><br/><br/>양아치의 ‘전자정부’(2003)는 중앙감시체제의 감옥인 파놉티콘과 같은 정부의 전자감시 혹은 정보감시에 주목했다.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폐쇄회로(CC)TV 몰래카메라, 전자지문, 도청과 감청 등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정보화 체제는 동시에 감시체제로 작동한다. 정보학자들의 우려대로 일상의 모든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재구성되는 현대사회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이뤄진 감옥이다. 양아치는 이 메커니즘을 비판하는 역감시 시스템을 제안했다. 때에 따라 해킹을 도입하기도 한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존재방식에 대해 질문하고 새로운 해답을 찾아간다. 그는 디지털과 인터넷이 매개하는 정보화 사회의 희망에 동조하기보다는 절망 섞인 우려를 드러냈다.<br/><br/>이후에도 그는 CCTV가 감시하고 있는 사회의 면면을 다룬 연작들을 발표했다. 또 남한과 북한 사이의 가상국가 ‘미들 코리아(Middle Corea)’를 세우기도 했다. 그것은 그림, 조각 같은 물질형식뿐만 아니라 디지털과 인터넷과 같은 정보형식으로도 존재하는 개념적인 예술이다. 그는 뉴미디어 아트의 실험을 매체결정론적 관점에서 다루지 않았다. 정보화 사회의 명과 암을 끌어들인 그의 작업들은 예술이 탈물질화 과정을 거치면서 비물질적 소통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는 예술의 장과 그 너머 사회의 장에서 다양한 주체들을 매개하는 네트워커 역할로 사회적 예술의 장을 넓히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24.txt

제목: 9·11 때 탈출 ‘먼지 여인’ 우울증 시달리다 위암 사망  
날짜: 20150828  
기자: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2520563  
본문: ㆍ당시 28세 마시 보더스<br/><br/>2001년 9월1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근처에 있던 사진기자 스탠 혼다는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br/><br/>“<span class='quot0'>기차가 지나가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들렸고 건물 사이에는 거대한 먼지 구름이 생겼다.</span>”<br/><br/>그때 그는 온몸에 회색 먼지를 뒤집어쓴 여성을 목격하고는 순간적으로 사진을 찍었다.<br/><br/><br/>마시 보더스라는 당시 28세 흑인 여성이었다. 사진은 AFP통신을 통해 전 세계에 퍼졌다. 테러를 대표하는 사진 중 하나가 됐고 보더스는 ‘먼지 여인(dust lady·사진)’으로 불렸다.<br/><br/>그로부터 14년이 흘렀다. 그는 지난 25일 4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직접적 사인은 위암이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span class='quot1'>그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술도 많이 마셨다</span>”며 “<span class='quot1'>사고 후 1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span>”고 전했다. 그는 2011년 데일리메일을 통해 “<span class='quot1'>오사마 빈 라벤이 테러를 또 저지를까봐 비행기만 보면 공포에 떨었다</span>”며 “<span class='quot1'>모든 걸 포기하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알아보지 못했고 나 자신을 쓰레기통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다</span>”고 덧붙였다. 체중이 한때 80파운드(약 36㎏)까지 떨어진 그는 2014년 8월 위암선고를 받고 1년 만에 삶을 마감했다. 딸 노엘은 “<span class='quot2'>엄마는 먼지 여인인 동시에 내 영웅</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위대한 전쟁을 치른 엄마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뉴욕포스트는 “<span class='quot3'>평소 혈압, 당수치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가 암에 걸리자 무척 괴로워했다</span>”며 “<span class='quot3'>테러와의 연관성은 증명되지 않았지만 테러 당시 소방서에서 근무한 전직 요원 3명도 지난해 9월 사망했는데 모두 암이었다</span>”고 전했다.<br/><br/><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25.txt

제목: 9·11 때 탈출 ‘먼지 여인’ 우울증 시달리다 위암 사망  
날짜: 201508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28100000148  
본문: 2001년 9월1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근처에 있던 사진기자 스탠 혼다는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br/><br/>“<span class='quot0'>기차가 지나가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들렸고 건물 사이에는 거대한 먼지 구름이 생겼다.</span>”<br/><br/>그때 그는 온몸에 회색 먼지를 뒤집어쓴 여성을 목격하고는 순간적으로 사진을 찍었다.<br/><br/><br/>마시 보더스라는 당시 28세 흑인 여성이었다. 사진은 AFP통신을 통해 전 세계에 퍼졌다. 테러를 대표하는 사진 중 하나가 됐고 보더스는 ‘먼지 여인(dust lady·사진)’으로 불렸다.<br/><br/>그로부터 14년이 흘렀다. 그는 지난 25일 4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직접적 사인은 위암이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span class='quot1'>그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술도 많이 마셨다</span>”며 “<span class='quot1'>사고 후 1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span>”고 전했다. 그는 2011년 데일리메일을 통해 “<span class='quot1'>오사마 빈 라벤이 테러를 또 저지를까봐 비행기만 보면 공포에 떨었다</span>”며 “<span class='quot1'>모든 걸 포기하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알아보지 못했고 나 자신을 쓰레기통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다</span>”고 덧붙였다. 체중이 한때 80파운드(약 36㎏)까지 떨어진 그는 2014년 8월 위암선고를 받고 1년 만에 삶을 마감했다. 딸 노엘은 “<span class='quot2'>엄마는 먼지 여인인 동시에 내 영웅</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위대한 전쟁을 치른 엄마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뉴욕포스트는 “<span class='quot3'>평소 혈압, 당수치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가 암에 걸리자 무척 괴로워했다</span>”며 “<span class='quot3'>테러와의 연관성은 증명되지 않았지만 테러 당시 소방서에서 근무한 전직 요원 3명도 지난해 9월 사망했는데 모두 암이었다</span>”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26.txt

제목: '레드서클' 심뇌혈관질환, 허리통증과 뇌질환 등 주제 건강강좌 풍성  
날짜: 20150826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2045333  
본문: ■‘허리통증과 뇌질환’ 심포지엄<br/><br/>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회장 장일태 나누리병원 이사장)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이 이달 30일 오전 8시부터 가톨릭대 성의회관(서울성모병원 내) 1층 마리아홀에서 열린다. 허리통증과 뇌질환 등에 대한 토론과 척추 통증의 비수술치료에 대한 강연, 세포치료제의 최신 연구내용이 소개된다. (02)2279-5396<br/><br/>■‘암 음식으로 정복’ 건강강좌<br/><br/>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병원 3층 마리아홀에서 ‘암, 음식으로 정복한다’ 주제로 제1회 시민 암 예방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이 주관한다. (032)290-3487<br/><br/><br/><br/>■세종병원 심뇌혈관질환 건강강좌<br/><br/>보건복지부 지정 심장전문 세종병원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와 공동으로 9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부천시 소사구청 소향관에서에는 ‘심뇌혈관질환, 피하자 이기자’ 주제의 국민건강 무료 공개강좌(사진)를 개최한다. 질병관리본부 ‘레드서클 캠페인’ 일환으로 열린다. 전문의들의 강연과 건강상담, 심장초음파·뇌혈류초음파 검사 등을 무료로 해준다. 참석자들모두에게 구급세트와 행운권 추첨으로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032)340-1803■강남세브란스병원, 대장암 건강강좌 <br/><br/>강남세브란스병원은 9월 3일 오후 2시부터, 병원 3층 대강당에서 대장암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대장암센터 주관으로 대장암의 내시경 치료, 수술 및 방사선 치료, 항암고열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과 수술 후 식사 관리에 대해 강연한다. (02)2019-1224<br/><br/>■‘천식·대장암 치료’ 건강강좌<br/><br/>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은 9월 1일, 오후 1시부터 병원 중앙관 4층 강의실에서 ‘천식 바로알기’ 건강강좌(02-6299-1365)를 개최한다. 3일 오후 3시부터는 병원 중앙관 4층 동교홀에서 ‘대장암 건강강좌’를 개최한다.(02)6299-2219<br/><br/>■위·대장센터 5주년 건강강좌<br/><br/>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위암·대장암협진센터(센터장 김광호)는 9월 2일 김옥길홀에서 개소 5주년 기념 건강강좌 및 김장훈 콘서트를 개최한다. 건강강좌가 끝난 후 이화여대 의과대학 댄스동아리와 가수 김장훈 씨의 축하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02)2650-5887<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27.txt

제목: 탈핵울산공동행동 “원전 관련 울산지역 환경영향과 시민 건강 역학조사 실시하라”  
날짜: 20150826  
기자: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2010852  
본문: 울산의 반핵단체가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인근 울산의 방사성물질 오염 및 울산시민의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br/><br/>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6일 “월성원전의 방사성 물질의 오염확산과 관련해 울산지역의 환경영향 평가는 물론 시민의 건강 역학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br/><br/>이 단체는 그 근거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원전감시기구)가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경주시내 시민의 체내에 삼중수소가 대거 검출됐다는 조사결과를 내세웠다. 원전감시기구는 지난 20일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시 양남면 주민 61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모두 체내 삼중수소가 축적됐다고 밝혔다. 또 인근 경주시 양북면 주민 71명 중 68명, 감포읍 주민 114명 중 91명이 체내에 삼중수소가 축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월성원전으로부터 20㎞ 이상 떨어져 있는 경주 도심 주민들도 조사대상 125명 중 23명(18%)이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br/><br/>월성원전 1∼4호기는 물을 감속재와 냉각재로 사용하는 경수로 원전과 달리 물 성분 중에서 중수소와 삼중수소로만 이뤄진 ‘무거운 물’을 추출해 감속재와 냉각재로 이용하는 중수로 원전이다. 삼중수소는 각종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br/><br/>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경주의 조사결과는 월성원전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울산시민 또한 방사성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원전과 가장 가까운 울산 북구는 물론 동구와 원전으로부터 30㎞ 이내의 거리에 있는 남구지역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br/><br/><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28.txt

제목: <헬스게시판> 신경외과병원협의회 심포지엄, 주요 대학병원 건강강좌 등 풍성  
날짜: 20150826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1908289  
본문: ■30일 ‘허리통증과 뇌질환’ 주제로<br/><br/>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회장 장일태 나누리병원 이사장)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이 이달 30일 오전 8시부터 가톨릭대 성의회관(서울성모병원 내) 1층 마리아홀에서 열린다. 허리통증과 뇌질환 등에 대한 토론과 척추 통증의 비수술치료에 대한 강연, 세포치료제의 최신 연구내용이 소개된다.<br/><br/>신경외과 개원의의 고뇌(명지성모병원 허춘웅), 에스포항병원의 뇌혈관 센터 노하우(에스포항병원 김문철), 척추전문병원의 현재와 미래(월스기념병원 박춘근), 인천백병원의 말초신경질환 등 치료 노하우(인천백병원 백승호), 병원의 세계 어떻게 언론에 조명되나(SBS 조동찬 기자), 법조인의 시각으로 본 보건의료정책의 이해(신현호 변호사), 보건의료정책의 이해(보건복지부 이동욱 실장), 저수가 환경에서 수가보존방법 및 비급여 치료(인제의대 홍기혁 교수) 등이 발표된다. (02)2279-5396<br/><br/>■국제성모병원 암 예방 건강강좌<br/><br/>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병원 3층 마리아홀에서 ‘암, 음식으로 정복한다’ 주제로 제1회 시민 암 예방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가톨릭전이재발암병원이 주관하는 이번 강좌는 효과적인 암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이종두 전이재발암병원장), 면역력을 기르는 영양(김혜정 가정의학과 교수), 자율신경조절과 명상수련(선우윤영 한방내과 교수), 암 환자의 스트레스 관리(김동구 연세의대 약리학 교수) 등 강연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032)290-3487<br/><br/>■인천성모병원, 9월 중 건강강좌<br/><br/>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원장 이학노 몬시뇰)이 건강나눔 캠페인 일환으로 9월 한 달간 지역주민들을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인천성모병원 9월 건강강좌는 고혈압, 척추질환, 보행장애와 운동장애 등을 주제로 부평구보건소, 청천보건지소, 숭의보건지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된다. 청천보건지소에서는 여성암 예방관리(자궁경부암), 여성무릎관절관리, 여성우울증 관리 등 여성을 위한 맞춤 건강강좌가 진행된다. (032)280-6244<br/><br/>■중앙대병원, 천식 바로알기 건강강좌<br/><br/>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은 9월 1일, 오후 1시부터 병원 중앙관 4층 강의실에서 ‘천식 바로알기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천식이란 무엇인가, 천식의 관리와 치료, 천식의 흡입기 치료 등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와 전문 약사가 강의를 맡는다. (02)6299-1365)<br/><br/>■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 건강강좌<br/><br/>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위암·대장암협진센터(센터장 김광호)는 9월 2일 김옥길홀에서 개소 5주년 기념 건강강좌 및 김장훈 콘서트를 개최한다. 정성애 위·대장센터 교수의 사회로 위암 복강경 수술(이주호 외과 교수), 대장암 왜 증가하는가(문창모 소화기내과 교수), 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한 전략(김성은 소화기내과 교수) 등 강연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건강강좌가 끝난 후 이화여대 의과대학 댄스동아리와 가수 김장훈 씨의 축하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02)2650-5887<br/><br/>■강남세브란스병원 다한증 건강강좌 <br/><br/>강남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는 9월 2일 오후 6시 30분, 병원 3층 대강당에서 다한증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흉부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이 연자로 나서 다한증의 증상과 약물 요법, 미세침 고주파 시술, 신경 차단술, 수술 등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 강연한다. (02)2019-2470<br/><br/>■중앙대병원 대장암 치료 건강강좌<br/><br/>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은 9월 3일, 오후 3시부터 병원 중앙관 4층 동교홀에서 ‘대장암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대장암은 올바른 식습관과 더불어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가 중요하다. 대한장연구학회 대장암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건강강좌는 대장암의 증상·식이조절·예방(소화기내과 김정욱 교수), 대장암의 진단 및 치료(소화기내과 최창환 교수) 등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02)6299-2219<br/><br/>■고려대 안암병원, ‘심방세동의 날’ 개최<br/><br/>고려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는 9월 11일 오후 2시 고려대 의대 신의학관 2층 유광사홀에서 ‘심방세동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왜 나에게 심방세동이 생겼을까, 증상이 없는데도 치료를 해야 되나, 약물만으로 치료할 수는 없을까, 새로운 항응고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시술 후 왜 재발할까, 시술 전후 유의사항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법은 등 강연이 이어진다. 참석자들이 직접 전문 의료진과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02)920-5445<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29.txt

제목: [출장발명가 노승권의 ‘알면 힘이 되는 생물학’]암 치료에 도움되는 ‘오메가3 지방산’  
날짜: 201508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26100000055  
본문: 오메가3 지방산은 필수지방산의 하나입니다. 일부 지방산은 비타민처럼 우리 몸이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이런 지방산에는 오메가3 지방산 외에도 리놀레산과 감마 리놀렌산이 있는데 이들을 필수지방산이라고 합니다.<br/><br/>필수지방산은 콜레스테롤처럼 호르몬과 세포막의 주요 성분입니다. 지방산의 구조는 보통 한쪽은 카르복실산으로 다른 쪽은 메칠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카르복실산을 알파, 그리고 메칠기를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로 알파는 첫 번째를, 오메가는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탄소 이중결합이 뒤에서 세 번째 탄소에 있으면 오메가3라고 하고 여섯 번째 탄소에 있으면 오메가6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은 탄소 이중결합의 위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으로는 알파 리놀렌산과 DHA, EPA 등이 유명하며 반면 오메가6 지방으로는 리놀레산과 감마 리놀렌산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br/><br/>오메가3 지방산은 그동안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춰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 축적을 막고 우울증과 근심을 완화시키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br/><br/>그런데 최근 항암치료를 할 때 오메가3 지방산을 함께 섭취하면 치료 반응과 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주인공은 영국 라이체스터 대학 병원의 연구진으로서 진행성 췌장암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입니다.<br/><br/>환자들은 항암제 제미타빈을 1주일에 1000㎎씩 투여받으며 3주 동안 오메가3가 풍부한 현탁액을 시험 기간 중 최대 100g 섭취했습니다. 마지막 한 주는 오메가3를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를 여섯 번 반복했습니다.<br/><br/>그 결과 약에 대한 반응과 암 안정화 속도, 간에 전이된 부피 등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가 오메가3 지방산을 암 화학요법과 병행해 실시한 첫 사례이지만 연구진은 임상 3상을 실시해야 할 만큼 고무적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br/><br/>오메가3 지방산이 암 치료제의 효과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암 치료에서 중요한 영향 요소인 환자의 삶의 질까지 개선한다니 놀라운 소식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은 서로 균형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섭취는 오메가6 지방산 섭취량의 20~30%가 적정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만 섭취하면 면역력을 너무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할 때는 리놀레산과 감마 리놀렌산 등 오메가6 지방산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30.txt

제목: ‘판사의 과로’ 법과 양심에 영향 없을까  
날짜: 201508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25100000030  
본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방한 사흘째이던 지난 8월 5일. 대법원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강연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상고법원에 대한 지지를 받아낼 심산이었고, 판사들의 질문 내용과 순서까지 선정했다. 상고법원 방안은 대법원이 과다한 업무 때문에 이정표가 되는 판결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상고심을 나눠 하는 법원을 만들자는 것이다. 여든두 살의 긴즈버그는 꼿꼿한 자세로 감탄을 자아냈다.<br/><br/>인권에 관한 획기적 판결 꿈도 못 꿔<br/>이날 같은 시각 서울남부지법 이모 판사가 영등포구 집에서 숨을 내쉬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쓰러졌다. 남편이 119구급대를 불러 근처 이대목동병원에 옮겼지만 이 판사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숨을 거뒀다. 검찰은 병원의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과로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결론 냈다. 서른일곱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아이가 순식간에 엄마를 잃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판사실에는 블라우스와 법복, 도장자국이 가득한 인주, 메모를 위한 뾰족한 연필과 지우개, ‘눈에 좋은 비타민’ 한 통이 남았다.<br/><br/>대법원에서 오후 5시에 시작된 강연에는 판사들이, 특히 여성 판사들이 많이 몰렸다. 유대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이중의 장벽을 뛰어넘은 세계적인 법조인에 대한 선망이었다. “<span class='quot0'>공부할 때는 육아를 통해 머리를 식힐 수 있었고, 육아가 힘들면 공부를 통해 휴식했다</span>”는 등의 얘기로 그의 지난날을 설명했다. 로스쿨 교수와 변호사로서 경력을 시작한 긴즈버그였고, 육아에 대한 미국 사회의 분위기도 달랐다. 그 자리를 지킨 한국 판사들에게 쉽게 와 닿지 않는 설명이었다. 그때 판사들의 카카오톡이 진동했다. ‘서울남부지법 이○○ 판사 과로로 사망.’ 판사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대강당 밖으로 나가는 이도 있었다.<br/><br/>긴즈버그는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동성애 결혼 합헌 결정은 하급심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span class='quot0'>연방대법원 이전에 동성애자에 대한 주거·고용차별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국민 인식이 바뀌었다.</span>” 판사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가장 빠른 시간에 기계처럼 처리하면서, 사건의 진척도를 보여주는 통계표를 안고 사는데, 무슨 인권을 생각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쓰나. 대법원 판례 따라가기도 벅찬 게 우리다.”<br/><br/>이날 이후 서울남부지법 판사들은 집단적인 우울상태에 빠져 있다.<br/><br/>“(이 판사가 숨지기 이틀 전) 오전에 남편이 법원에 전화해서 병가를 냈다. 사실 그때 알았어야 했다. 판사가 갑자기 병가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가족이 전화를 할 때는 이미 심상치 않았던 것이다.” 같은 법원 동료 판사의 설명이다.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돌려보자. 이번에는 연수원 동기인 다른 판사의 말이다. “친한 친구이고 같은 법원에 있는데도 두 달에 한 번 같이 밥 먹기가 힘들었다. 7월 초에 겨우 만났는데 유난히 몸이 안 좋다고 했다. 법원이 재판을 쉬는 7월 말~8월 초 휴정기에 검진을 받아봐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끝까지 기록을 붙잡고 있다가 실려서야 병원에 갔고, 돌아오지 못했다.<br/><br/>“판사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다는 말이 어디 나오겠느냐? 직장에 다니든 장사를 하든 모두가 고단하고 힘들다. 한국 사회가 비정상이다. 괜히 ‘그래도 너희들은 판사잖냐. 일하기 싫으면 개업해서 돈 벌어라. 시켜만 주면 판사 할 사람 많다.’ 이런 소리나 들을 거다.” 판사들은 아무 말 못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br/><br/>전국 판사 1인당 사건 연간 579건<br/>판사들의 업무강도를 밖에서는 알기 힘들다. 비교대상도 없어 수치로 표현하기도 어렵다.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자의 설명이다. “재판이 보기에는 험하지도 않고, 줄곧 사무실에만 있으니 건강하리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상황을 보자면 이렇다. 전국의 판사 2800여명 가운데 40대 이하 젊은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 그런데도 여기저기에서 사고가 난다. 얼마 전에도 지방에서 부장판사가 과로로 숨졌고, 또 다른 부장판사는 뇌출혈로 투병 중이다. 연구관 가운데 입원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지금도 암 같은 병을 얻어 모금을 하는 법원이 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경력에 장애가 될까봐 말 안하고 참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전국 판사의 1인당 한 해 사건 처리건수는 2013년 기준으로 579건이다.<br/><br/>판사들의 살인적인 업무량은 재판의 부실화와 시각의 보수화로 이어진다.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와 달리 다수결로 선출하지 않는다. 이유는 다수가 대변하지 않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건 처리에 급급해서는 소수 보호에 대한 철학을 갖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가지고 있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불만을 가진 당사자들은 2심과 3심으로 상소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된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업무량에 시달리는 판사는 노동사건에서 보수적으로 바뀐다.” 서울남부지법 판사들의 설명이다. 결국 판사들의 과로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데 인색한 편이다.<br/><br/>판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산더미 같은 업무들을 묵묵히 처리하고 있을까. 이들이라고 통조림 같은 판결문을 찍어내려고 청춘을 바쳐 법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판사들은 어려서부터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다. 그러니 공부도 잘하고 했던 것이다. 남들과 비교해 조금이라도 뒤떨어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배석판사 시절에는 아무리 선고 건수가 많아도 판결문을 미처 못 썼다는 소리를 못한다. 부장에게 선고 연기를 하자고 말하면 무능한 사람이 된다고 믿는다. 단독판사가 되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통계를 보면서 남들과 비슷하게 가려고 한다. 해오던 속도가 있는데 이제 와서 늦출 수도 없다.”<br/><br/>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해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현직판사의 이야기다. “대학입시 준비, 사법시험 공부, 사법연수원 시험을 거쳐 왔다. 돌이켜보면 지금 판사 시절이 가장 힘들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등학교 3학년 때보다 강도가 높다. 지금 법원의 재판은 머리가 아주 좋고, 체력이 충분히 강하고, 일처리가 성실한 사람을 기준으로 가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모자라면 바로 뒤처지는 구조다.” 법원에 다양한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간다고 해도 버티기 힘든 이유다. “쳇바퀴 돌 듯 사건을 처리한다.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심지어 이런 시스템에서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기 어렵다. (남들이 뭐라고들 하는지 알지만) 변호사 개업도 어렵게 됐지 않느냐. 그냥 우리 나름의 소명으로 사는 것이다.”<br/><br/>박봉을 떼어 에누리 없이 세금을 치르는 시민으로서 이런 피로에 찌든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이다. 현재 하급심 재판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이미 판사들 사이에서는 오래 전부터 나온 것이다. 얼마 전 법원 내부게시판에서 한 판사는 “판사가 사망하거나 건강문제를 가질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다. 사건 나름의 진지한 고민을 담기보다는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무적 처리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늘 겪고, 해마다 나아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썼다. 이번 취재에 응한 많은 판사들은 “판사수를 늘리는 데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아마 전국 대부분의 판사들이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br/>　<br/>“<span class='quot0'>진지한 고민보다는 사무적 처리로</span>”<br/>숨진 이 판사의 단짝 동료인 여성 판사의 이야기다.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판사는 나만의 양심과 노력으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판단하는 일이다. 그것이 주어진 소명이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짐이거나 스트레스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모두 일에 치여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다. 법관은, 재판은 죽을 정도로 과하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가 판사로서 행복하다고 했다. 도대체 뭐가 행복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잘 모르겠다. 그렇게 ○판사를 보내고 만 것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판사들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다.”<br/><br/>대법원은 대법관들의 업무가 과중해 시급히 상고법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일선의 판사들은 해마다 병을 얻어 법원을 떠나거나 숨을 거두고 있다. 숨진 이 판사는 기록을 가지고 퇴근하기 위해 배낭을 메고 다녔다. 더 이상은 그 무거운 기록들을 어깨에 올려놓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법관으로서의 소명도 끝이 났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31.txt

제목: 단명 원인 흡연율, 한국남성 OECD 중 3번째, 여성은?  
날짜: 20150824  
기자: 비즈앤라이프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1112526  
본문: 여성 대비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인 이유는 주로 흡연율 탓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성은 OECD 34개국 중 3번째로 흡연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가장 낮았다. 2013년생 남자 아이는 78세 남짓 살 것으로 기대된 데 비해 여자 아이는 85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br/><br/>OECD ‘건강 통계 2015’(Health Data 2015)를 24일 보면 34개 회원국들의 평균 기대수명(2013년 기준)은 여자(83.1년)가 남자(77.8년)보다 높았다. 34개 회원국 가운데 남성의 기대수명이 여성보다 높은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br/><br/>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산다는 건 잘 알려진 얘기다. 그러면 주된 원인은 뭘까. 특히 남성의 수명을 단축하는 원인으로는 여성보다 높은 흡연율이 꼽힌다.<br/><br/>한국 남성 흡연율은 36.2%로 OECD 34개국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반면 한국 여자의 흡연율은 4.3%로 34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br/><br/>한국 남녀의 흡연율 차이 역시 기대수명에 고스란히 반영된 모습이다.<br/><br/>2013년 태어난 한국 남자 아이의 기대수명(78.6년)의 순위는 16위로 중간 정도였다.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85.1년)이 5위로 상위권을 기록한 것과는 대비된다. <br/><br/>한국 남자의 기대수명은 여성보다 6.6년 낮았다. 남성의 건강관리 등으로 한국 남녀의 기대수명 격차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OECD 회원국 평균(5.3년)보다는 여전히 높다. <br/><br/>한국 여성과 남성의 기대수명 격차는 OECD 34개국 가운데 5번째로 컸는데 극과 극인 남녀의 흡연율 차이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br/><br/><br/><br/>OECD 회원국 가운데 흡연 남성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기대수명도 대체로 낮았다.<br/><br/>15세 이상 남성 흡연율(2013년 또는 최근 기준)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한 터키(37.3%)와 에스토니아(36.2%)의 기대수명 순위는 각각 28위(73.7년), 31위(72.8년)로 최하위권이었다. 흡연율 5위와 7위에 오른 칠레(76.2년·26위), 헝가리(72.2년·32위) 남성들도 다른 나라 남자들과 비교해 오래 살지 못했다. <br/><br/>스코틀랜드의 MRC·CSO 사회공중보건학연구소는 유럽 30개국을 상대로 연구한 결과, 여성과 남성의 수명 격차의 40~60%가 흡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br/><br/>담배를 피우면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도도 커지는데 남자의 경우 후두암(6.5배), 폐암(4.6배), 심장병(1.7배), 뇌졸중(1.6배), 췌장암·전립선암(각 1.5배), 간암(1.4) 등의 순으로 위험도가 높아진다. <br/><br/>2013년 기준 암에 따른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폐암(34.0명), 간암(22.6명), 위암(18.2명), 대장암(16.4명) 순으로 높았다. <br/><br/>다만, 흡연 이외에도 남성이 더 적게 사는 요인들은 있다.<br/><br/>미국 컬럼비아대 마리안 J. 레가토 교수는 ‘왜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죽는가’라는 책을 통해 남자가 여자보다 오래 살지 못하는 신체·사회적인 원인을 설명했다. 어릴 때부터 ‘남자다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점과 호르몬 체계상 심장질환 등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되는 점도 남성의 기대수명을 줄이는 요인이다.<br/><br/>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해 사망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32.txt

제목: 화물복지재단, 화물가족 위해 ‘긍정적 선별 복지’ 확대  
날짜: 2015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1114847  
본문: 갑작스럽게 닥치는 사고나 질병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곤 한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활동 중단 및 높은 치료비 등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생계마저 위협받으며 가족 전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br/><br/><br/>국내 유일의 화물운전자 복지 전문조직인 공익법인 화물복지재단(이사장 신한춘)은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사족을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생계지원사업 ▲유자녀 지원사업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문화누리사업 등 화물운전자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br/><br/>화물복지재단은 화물운송과 관련된 업무로 사망한 운전자 유가족을 지원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생계지원사업’을 통해 2015년 4월까지 총 263명에게 16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교통사고, 화물 상하차작업 등으로 사망한 운전자의 유가족에게는 500만원, 교통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유가족에게는 심의를 거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br/><br/>올해부터는 생계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유자녀 지원사업도 신규로 진행하고 있다. 생계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유가족 중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br/><br/>2015년부터는 높은 치료비와 생계중단으로 화물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혈관, 희귀성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도 시작됐다. 화물복지재단은 올해 전문의료기관에서 4대 중증질환자로 판정 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20명을 선발해 각각 5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지급 심사 중)이다. 열악한 근무환경을 말해주듯 신청자가 많아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더욱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화물복지재단은 설명했다.<br/><br/>화물가족의 기본적인 문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문화누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총 800명을 선발해 다양한 문화활동에 사용이 가능한 기프트카드(25만원 상당)를 제공한다.<br/><br/>화물복지재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우리 재단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되,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복지사업 구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사업을 통해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화물가족을 지원하는 ‘긍정적 선별 복지 전략’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것</span>”이라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33.txt

제목: [200자 뉴스]문희상 부인 참고인 소환外  
날짜: 2015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24100000139  
본문: 문희상 부인 참고인 소환<br/>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전 대표의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문 의원의 부인 ㄱ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22일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7월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측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 의원은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을 미국 회사인 브리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시에 컨설턴트로 취업시킨 뒤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원)의 급여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br/><br/>서남대 설립자, 수감 중 맞아<br/>수백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재판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6)가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 크게 다쳤다. 광주교도소는 이씨가 지난 19일 밤 교도소 안 치료병실에서 동료 재소자 ㄱ씨(47)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뇌출혈과 턱뼈·갈비뼈 골절, 간 손상에 따른 복막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말다툼 끝에 이씨를 몇 차례 때렸으며, 둔기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ㄱ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br/><br/>성인 암 양성자 치료도 건보<br/>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식도암·췌장암에 대한 양성자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양성자 치료는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최신 의료기술이지만, 그간 소아의 뇌종양과 두경부암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1800만~3100만원에서 1000만~15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9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초음파는 환자 부담이 최대 21만원에서 1만4000~4만40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34.txt

제목: 단명 원인 흡연율, 한국남성 OECD 중 3번째, 여성은?  
날짜: 2015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2410018332441  
본문: 여성 대비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인 이유는 주로 흡연율 탓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성은 OECD 34개국 중 3번째로 흡연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가장 낮았다. 2013년생 남자 아이는 78세 남짓 살 것으로 기대된 데 비해 여자 아이는 85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br/><br/>OECD ‘건강 통계 2015’(Health Data 2015)를 24일 보면 34개 회원국들의 평균 기대수명(2013년 기준)은 여자(83.1년)가 남자(77.8년)보다 높았다. 34개 회원국 가운데 남성의 기대수명이 여성보다 높은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br/><br/>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산다는 건 잘 알려진 얘기다. 그러면 주된 원인은 뭘까. 특히 남성의 수명을 단축하는 원인으로는 여성보다 높은 흡연율이 꼽힌다.<br/><br/>한국 남성 흡연율은 36.2%로 OECD 34개국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반면 한국 여자의 흡연율은 4.3%로 34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br/><br/>한국 남녀의 흡연율 차이 역시 기대수명에 고스란히 반영된 모습이다.<br/><br/>2013년 태어난 한국 남자 아이의 기대수명(78.6년)의 순위는 16위로 중간 정도였다.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85.1년)이 5위로 상위권을 기록한 것과는 대비된다. <br/><br/>한국 남자의 기대수명은 여성보다 6.6년 낮았다. 남성의 건강관리 등으로 한국 남녀의 기대수명 격차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OECD 회원국 평균(5.3년)보다는 여전히 높다. <br/><br/>한국 여성과 남성의 기대수명 격차는 OECD 34개국 가운데 5번째로 컸는데 극과 극인 남녀의 흡연율 차이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br/><br/><br/><br/>OECD 회원국 가운데 흡연 남성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기대수명도 대체로 낮았다.<br/><br/>15세 이상 남성 흡연율(2013년 또는 최근 기준)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한 터키(37.3%)와 에스토니아(36.2%)의 기대수명 순위는 각각 28위(73.7년), 31위(72.8년)로 최하위권이었다. 흡연율 5위와 7위에 오른 칠레(76.2년·26위), 헝가리(72.2년·32위) 남성들도 다른 나라 남자들과 비교해 오래 살지 못했다. <br/><br/>스코틀랜드의 MRC·CSO 사회공중보건학연구소는 유럽 30개국을 상대로 연구한 결과, 여성과 남성의 수명 격차의 40~60%가 흡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br/><br/>담배를 피우면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도도 커지는데 남자의 경우 후두암(6.5배), 폐암(4.6배), 심장병(1.7배), 뇌졸중(1.6배), 췌장암·전립선암(각 1.5배), 간암(1.4) 등의 순으로 위험도가 높아진다. <br/><br/>2013년 기준 암에 따른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폐암(34.0명), 간암(22.6명), 위암(18.2명), 대장암(16.4명) 순으로 높았다. <br/><br/>다만, 흡연 이외에도 남성이 더 적게 사는 요인들은 있다.<br/><br/>미국 컬럼비아대 마리안 J. 레가토 교수는 ‘왜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죽는가’라는 책을 통해 남자가 여자보다 오래 살지 못하는 신체·사회적인 원인을 설명했다. 어릴 때부터 ‘남자다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점과 호르몬 체계상 심장질환 등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되는 점도 남성의 기대수명을 줄이는 요인이다.<br/><br/>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해 사망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35.txt

제목: 화물복지재단, 화물가족 위해 ‘긍정적 선별 복지’ 확대  
날짜: 2015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2410018332450  
본문: 갑작스럽게 닥치는 사고나 질병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곤 한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활동 중단 및 높은 치료비 등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생계마저 위협받으며 가족 전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br/><br/><br/>국내 유일의 화물운전자 복지 전문조직인 공익법인 화물복지재단(이사장 신한춘)은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사족을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생계지원사업 ▲유자녀 지원사업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문화누리사업 등 화물운전자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br/><br/>화물복지재단은 화물운송과 관련된 업무로 사망한 운전자 유가족을 지원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생계지원사업’을 통해 2015년 4월까지 총 263명에게 16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교통사고, 화물 상하차작업 등으로 사망한 운전자의 유가족에게는 500만원, 교통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유가족에게는 심의를 거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br/><br/>올해부터는 생계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유자녀 지원사업도 신규로 진행하고 있다. 생계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유가족 중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br/><br/>2015년부터는 높은 치료비와 생계중단으로 화물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혈관, 희귀성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도 시작됐다. 화물복지재단은 올해 전문의료기관에서 4대 중증질환자로 판정 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20명을 선발해 각각 5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지급 심사 중)이다. 열악한 근무환경을 말해주듯 신청자가 많아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더욱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화물복지재단은 설명했다.<br/><br/>화물가족의 기본적인 문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문화누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총 800명을 선발해 다양한 문화활동에 사용이 가능한 기프트카드(25만원 상당)를 제공한다.<br/><br/>화물복지재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우리 재단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되,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복지사업 구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사업을 통해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화물가족을 지원하는 ‘긍정적 선별 복지 전략’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것</span>”이라고 전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36.txt

제목: [200자 뉴스]문희상 부인 참고인 소환外  
날짜: 201508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1026687  
본문: 문희상 부인 참고인 소환<br/>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전 대표의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문 의원의 부인 ㄱ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22일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7월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측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 의원은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을 미국 회사인 브리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시에 컨설턴트로 취업시킨 뒤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원)의 급여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br/><br/>서남대 설립자, 수감 중 맞아<br/>수백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재판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6)가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 크게 다쳤다. 광주교도소는 이씨가 지난 19일 밤 교도소 안 치료병실에서 동료 재소자 ㄱ씨(47)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뇌출혈과 턱뼈·갈비뼈 골절, 간 손상에 따른 복막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말다툼 끝에 이씨를 몇 차례 때렸으며, 둔기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ㄱ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br/><br/>성인 암 양성자 치료도 건보<br/>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식도암·췌장암에 대한 양성자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양성자 치료는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최신 의료기술이지만, 그간 소아의 뇌종양과 두경부암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1800만~3100만원에서 1000만~15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9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초음파는 환자 부담이 최대 21만원에서 1만4000~4만40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37.txt

제목: [200자 뉴스]문희상 부인 참고인 소환外  
날짜: 201508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2310018327050  
본문: <b>문희상 부인 참고인 소환</b><br/>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전 대표의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문 의원의 부인 ㄱ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22일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7월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측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 의원은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을 미국 회사인 브리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시에 컨설턴트로 취업시킨 뒤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원)의 급여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br/><br/><b>서남대 설립자, 수감 중 맞아</b><br/>수백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재판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6)가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 크게 다쳤다. 광주교도소는 이씨가 지난 19일 밤 교도소 안 치료병실에서 동료 재소자 ㄱ씨(47)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뇌출혈과 턱뼈·갈비뼈 골절, 간 손상에 따른 복막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말다툼 끝에 이씨를 몇 차례 때렸으며, 둔기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ㄱ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br/><br/><b>성인 암 양성자 치료도 건보</b><br/>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식도암·췌장암에 대한 양성자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양성자 치료는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최신 의료기술이지만, 그간 소아의 뇌종양과 두경부암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1800만~3100만원에서 1000만~15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9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초음파는 환자 부담이 최대 21만원에서 1만4000~4만40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38.txt

제목: [의술 인술]재발·전이암, 조금씩 커지는 ‘희망’  
날짜: 20150821  
기자: 채의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21100000054  
본문: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년)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68.1%로, 2006~2010년(65%)에 비해 3.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조기 진단율 향상 및 치료법의 개선, 새로운 치료제 개발 등에 힘입어 암 치료 환경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br/>암 환자와 치료 후 생존자를 포함한 ‘암 경험자’도 120만명을 넘어섰다. 이제 암 환자의 치료 목표를 ‘생존 기간 연장’에 두고 적극 치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암은 더 이상 극복하지 못하는 난제가 아닌, 치료 가능한 질환일 뿐이라는 인식이 정착됐다. ‘암=죽는 병’으로 인식되던 예전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다.<br/>폐경 전 세대의 환자 비율이 높은 국내 유방암의 경우 다른 암종에 비해 최저 수준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방암의 특성상 여전히 재발과 전이가 빈번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체 유방암 환자 재발률은 30%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재발 이후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발병 이후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br/>이전에 수술 혹은 방사선 요법을 받거나 여러 치료제를 사용한 뒤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행되는 환자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치료제가 많지 않다. 특히 오랜 투병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부작용이 큰 치료제를 사용하면 체력적으로 버텨내기 힘들다고 생각해 치료를 무조건 거부하는 환자들도 있다.<br/>물론 과거에는 가시적인 치료반응률에 기반해 강력한 세포독성 항암제를 많이 사용하면서 그에 따른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환자의 특성, 상태, 위험인자, 생활환경 등의 요인을 고려하고 생존기간 연장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치료 목표를 두고 있다.<br/>최근에 출시된 종양특이 표적치료제나 최신 항암제들이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OS·Overall Survival) 연장을 입증하면서, 암 치료 시작부터 사망하는 순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전체 생존기간이라는 평가 변수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전체 생존기간 연장은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시기를 말하는 ‘무진행 생존기간’(PFS·Progressive Free Survival)과 함께 국제 허가기관에서 항암제 효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다.<br/>의료진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삶의 질을 최대로 유지하면서 생존기간 연장이 입증된 새로운 약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유방암의 조기 진단율과 5년 생존율이 갈수록 높아진 것처럼, 재발·전이성 유방암의 치료 예후도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항암치료로 생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고, 사회적 인식 또한 이에 맞게 변하는 등 치료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의료진과 환자가 치료 목표를 증상의 완화나 관리는 물론 생존기간 연장처럼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39.txt

제목: 설사와 변비 반복, 혹시 대장암 전조증상 아닐까? … EBS ‘명의’  
날짜: 20150821  
기자: 이혜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21100000005  
본문: 한국 사람 3명 중 1명이 걸린다는 암. 여러 암 중에서도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암이 있다. 대장암이다. 한 해 발병자 수가 3만명, 사망자 수가 8000명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암이다.<br/>21일 EBS <명의>에서는 ‘다시 보는 5대 암-대장암’ 편을 방송한다. 대장암 증가율 못지않게 대장암 완치율도 매년 높아진다. 정교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 수술, 최소한의 절개로 빠른 회복을 돕는 복강경 수술까지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이 계속해서 개발된다. 방송에서는 지난 8년간의 기록을 살피며 대장암 원인과 치료 방법, 완치 과정을 살펴본다.<br/>37세의 김종도씨는 하루 한 번 보던 변을 두세 번씩 보게 되자 이상을 느꼈다. 단순히 잦은 술자리 때문이라며 가볍게 넘기지 않고 병원을 찾아간 것이 그의 목숨을 살렸다. 진단 결과 김씨는 대장암 1기였다. <br/>이렇듯 암은 큰 고통이나 두드러지는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채로 찾아온다. 배변주기의 변화, 설사와 변비의 반복, 잔변감 등은 대장암의 전조증상일 수 있다. 방송은 오후 9시50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40.txt

제목: ‘비만 유전자’ 억제법 찾았다  
날짜: 20150821  
기자: 김유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21100000124  
본문: 비만을 부르는 유전자를 억제하는 방법이 발견돼 비만 치료의 새 길이 열렸다고 AF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최근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유전적으로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일명 비만의 ‘마스터 스위치’를 조작하면 비만을 완화할 수 있다.<br/>미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 의대 공동 연구진은 ‘유전자 교정’(DNA editing) 기술을 활용해 이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07년 처음 발견된 ‘FTO’라고 불리는 이 유전자가 지방 세포의 생성과 체내 에너지 분해 기능에 영향을 미쳐 비만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쉽게 비만이 오고, 마치 스위치를 끄듯 유전자를 억제하면 비만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연구진이 인체 세포 실험에서 이 유전자의 활성화를 막자 지방세포의 분해가 활발해졌다. 또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 유전자의 활동을 억제했더니 쥐의 신진대사량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br/>AP통신은 이 연구를 계기로 식이요법이나 운동 외에도 유전자의 원리를 활용한 치료약 개발 등 새로운 비만 치료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br/>전 세계의 비만 인구는 약 5억명에 달한다. 비만은 각종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 암 등의 발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의 주저자인 마놀리스 켈리스 MIT 교수는 “<span class='quot0'>그동안 비만은 주로 식사량과 운동량 사이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유전자가 개인의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41.txt

제목: [무병장수 유전자 열쇠 풀어라]20년 뒤에 앓게 될 질병 ‘미리 경고’한다  
날짜: 2015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21100000055  
본문: ▲ 가족력보다 객관적 예측 가능<br/>위험도 알려 생활습관 등 교정<br/>고혈압·당뇨 등 발병 늦출 수도<br/><br/>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생존하기 위해 진화했고, 진화의 중심엔 유전자(DNA)가 있다. 인간 유전체(게놈·Genome)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는 단 네 종류의 염기로 이루어진 약 30억개의 DNA 사슬이다. 무작위로 배열된 것처럼 보이는 4가지 종류 염기들의 작용에 의해 생명체가 발생하고 기능한다. 여기에 모든 생명의 신비와 비밀이 숨어 있다.<br/><br/>사람은 개인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성격, 키, 피부색, 체중, 지능지수(IQ)…. 이런 것들은 선천적인 것(유전적 소양, 체질)과 후천적인 것이 혼합된 결과이다. 누구나 열심히 복근 운동을 해서 ‘식스팩’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뽐낼 수 있다. 또 성장기에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으면 키가 좀 더 자란다. <br/><br/>하지만 식스팩은 누구나 노력하면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 먹는다고 모두 190㎝의 신장을 갖지는 못한다. 왜 그럴까.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집안의 내력, 개인차, 체질, 유전적 특성과 차이 등 때문이다.<br/><br/><br/>혈압이나 혈당이 높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꼭 묻는 것이 있다. 집안에 혈압 관련 질병이나 당뇨를 갖고 있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다. 이 질문은 가족력을 통해 환자의 유전적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br/><br/>“<span class='quot0'>부모님 중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다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span>” 의사는 이렇게 주의를 준다.<br/><br/>그렇다면 단순한 가족력만이 아닌 좀 더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무언가는 없을까. 앞으로는 여러 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해 질병 위험도 예측이 종합적으로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br/><br/>“<span class='quot0'>현재 30세인 홍길동씨는 지금은 당뇨 증상이 없지만 50세가 되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가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에 비해 1.5배입니다.</span>” 이게 무슨 말인가. 50세가 된 홍씨에게 당뇨병이 실제 발생한다면 이는 1.5배인 당뇨의 유전적 위험성이 실제 작용하고, 거기에다 당뇨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나이(노화 현상), 좋지 않은 식습관, 비만 등 때문이라는 얘기다.<br/><br/>그럼 홍씨가 50세에도 당뇨 증상이 없다면 검사 결과가 틀린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는 당뇨에 대한 유전적 위험도가 같은 나이의 사람들에 비해 1.5배나 됐고 나이가 들어 생리적인 환경(노화)은 나빠졌지만, 지난 20년간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비만 조절) 등을 통해 당뇨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br/><br/>유전적 체질에 변함이 없고 나이가 들며 생리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지만(노화), 신체의 조건이나 식생활습관, 질환 발생 위험에 대한 대처 여부에 따라 당뇨병의 위험도는 달라질 수 있다. 생활습관병 또는 만성대사질환이라고 일컬어지는 고혈압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천식, 비만, 류마티스 관절염, 조울증, 알코올중독, 일부 암 등 많은 질병에서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시대다. 예측이 가능하다면 미리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 <br/><br/><도움말 신형두 서강대 생명과학과 교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42.txt

제목: ‘비만 유전자’ 억제법 찾았다  
날짜: 20150820  
기자: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0417476  
본문: ㆍ미 연구진 “<span class='quot0'>인체 실험서 지방세포 분해 활발</span>”<br/><br/>비만을 부르는 유전자를 억제하는 방법이 발견돼 비만 치료의 새 길이 열렸다고 AF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최근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유전적으로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일명 비만의 ‘마스터 스위치’를 조작하면 비만을 완화할 수 있다.<br/><br/>미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 의대 공동 연구진은 ‘유전자 교정’(DNA editing) 기술을 활용해 이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07년 처음 발견된 ‘FTO’라고 불리는 이 유전자가 지방 세포의 생성과 체내 에너지 분해 기능에 영향을 미쳐 비만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쉽게 비만이 오고, 마치 스위치를 끄듯 유전자를 억제하면 비만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연구진이 인체 세포 실험에서 이 유전자의 활성화를 막자 지방세포의 분해가 활발해졌다. 또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 유전자의 활동을 억제했더니 쥐의 신진대사량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br/><br/>AP통신은 이 연구를 계기로 식이요법이나 운동 외에도 유전자의 원리를 활용한 치료약 개발 등 새로운 비만 치료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br/><br/>전 세계의 비만 인구는 약 5억명에 달한다. 비만은 각종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 암 등의 발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의 주저자인 마놀리스 켈리스 MIT 교수는 “<span class='quot1'>그동안 비만은 주로 식사량과 운동량 사이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유전자가 개인의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span>”고 밝혔다.<br/><br/><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43.txt

제목: 설사와 변비 반복, 혹시 대장암 전조증상 아닐까? … EBS ‘명의’  
날짜: 20150820  
기자: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0319377  
본문: 한국 사람 3명 중 1명이 걸린다는 암. 여러 암 중에서도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암이 있다. 대장암이다. 한 해 발병자 수가 3만명, 사망자 수가 8000명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암이다.<br/><br/>21일 EBS <명의>에서는 ‘다시 보는 5대 암-대장암’ 편을 방송한다. 대장암 증가율 못지않게 대장암 완치율도 매년 높아진다. 정교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 수술, 최소한의 절개로 빠른 회복을 돕는 복강경 수술까지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이 계속해서 개발된다. 방송에서는 지난 8년간의 기록을 살피며 대장암 원인과 치료 방법, 완치 과정을 살펴본다.<br/><br/>37세의 김종도씨는 하루 한 번 보던 변을 두세 번씩 보게 되자 이상을 느꼈다. 단순히 잦은 술자리 때문이라며 가볍게 넘기지 않고 병원을 찾아간 것이 그의 목숨을 살렸다. 진단 결과 김씨는 대장암 1기였다. <br/><br/>이렇듯 암은 큰 고통이나 두드러지는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채로 찾아온다. 배변주기의 변화, 설사와 변비의 반복, 잔변감 등은 대장암의 전조증상일 수 있다. 방송은 오후 9시50분.<br/><br/><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44.txt

제목: 이맹희 회장, 부친 곁 아닌 여주에 안장  
날짜: 20150820  
기자: 비즈앤라이프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0239278  
본문: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CJ그룹 명예회장)이 20일 영결식을 마치고 84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비운의 아들’ 이 전 회장은 결국 경기 여주 장지에 안장돼 죽어서도 경기 용인의 부친 곁에 묻히지는 않았다.<br/><br/>이 전 회장의 영결식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 직계가족과 여동생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조카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삼성가 일가 친척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br/><br/><br/><br/>오전 7시 발인식 이후 서울대병원 빈소에서 이 전 회장의 시신을 싣고 출발한 운구차는 부친인 이병철 선대회장 등과 함께 살던 서울 장충동 집 앞에 잠시 머물렀다가 오전 8시쯤 CJ인재원 앞에 도착했다. <br/><br/>고인의 손자인 이호준씨(이재환 대표 아들)가 위패를, 손녀 사위인 정종환씨(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딸 이경후씨 남편)가 영정을 들고 영결식장으로 들어갔다. <br/><br/>김동건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영결식은 개식사와 묵념, 추모영상, 추도사, 조사, 헌화, 폐식사의 순서로 50분 정도 진행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형인 김창성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추도사를, 장례위원장을 맡은 이채욱 CJ그룹 대표이사가 조사를 읽었다.<br/><br/>김 전 회장은 추도사에서 “<span class='quot0'>마지막 인사조차 할 기회 없이 이렇게 허망하게 고인을 보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참담하기 그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고인의 열정과 꿈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봐 온 나로서는 늘 안타까운 마음이었다</span>”고 밝혔다. <br/><br/>그는 고인에 대해 “<span class='quot0'>세간의 오해와 달리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온 마음 약한 아버지였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병철 창업주와)생전에 화해하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산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다</span>”고 추도했다.<br/><br/><br/><br/>이 전 회장은 1966년 삼성 계열사 한국비료의 사카린 2259포대 밀수 사건 때문에 선대 이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자 1968년 삼성 경영의 전면에 나섰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사카린 밀수 사건을 청와대에 ‘투서’했다는 의심을 받아 부자관계가 틀어져 삼성 내 지위를 모두 잃고 야인으로 떠돌았다.<br/><br/>그 뒤 8남매 가운데 일곱째이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5)이 삼성 후계자로 올랐다. 은둔 생활을 이어오던 이 전 회장은 암 투병 와중에 2012년 2월 동생 이 회장을 상대로 부친이 남긴 차명재산 중 7000억원대 재산을 돌려달라는 상속 소송을 냈고 형제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금이 갔다.<br/><br/>이 전 회장은 1, 2심에서 참패한 뒤 상고를 포기했고,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의 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며 양측의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회장과의 직접적인 화해는 물건너 갔다. 이 회장마저 지난해 5월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져 의사표현도 못하는 처지로 알려졌다.<br/><br/>이날 영결식이 끝난 뒤 운구차는 오전 11시쯤 경기도 여주 해슬리 골프장 인근 장지에 도착했다.<br/><br/>이 전 회장은 삼성가의 장남이지만 끝내 아버지 곁을 지키지는 못한 것이다. 이 선대회장의 묘지는 경기도 용인의 삼성에버랜드 안에 있다. 삼성에서 분리된 CJ, 한솔, 신세계 등은 이 선대회장 기일에 오전, 오후로 나눠 회사 차원에서 선영을 참배한다. 호암의 가족 제사는 장손인 이재현 회장이 속한 CJ 인재원에서 치러왔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45.txt

제목: 유전자로 비만 치료 길 열렸다  
날짜: 20150820  
기자: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0109560  
본문: 비만을 부르는 유전자를 억제하는 방법이 발견돼 비만 치료에 새 길이 열렸다고 19일 AFP통신이 보도했다.<br/><br/>최근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유전적으로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일명 비만의 ‘마스터스위치’를 조작함으로써 비만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br/><br/>미 매서추세츠 공과대학(MIT)과 하버드 의대 공동 연구진은 유전자 교정(DNA editing) 기술인 ‘CRISPR/Cas9’을 활용해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하는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쉽게 비만이 오는 반면, 마치 스위치를 끄듯이 유전자를 억제하면 비만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해보니 유전자를 억제할 경우 쥐의 신진대사량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밝혔다. <br/><br/>전 세계 비만 인구는 약 5억명에 달한다. 비만은 각종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 암 등의 발병을 증가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논문의 주저자인 마놀리스 켈리스 MIT 교수는 “<span class='quot0'>그동안 비만은 주로 식사량과 운동량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유전자가 개인의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span>”며 이번 연구의 의미를 평가했다.<br/><br/><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46.txt

제목: 원스톱 진료시스템, 국가건강검진 지정병원 연신내 ‘은평연세병원’  
날짜: 2015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10106339  
본문: 대학병원급 최신 장비 보유, 지역의료 발전에 앞장서<br/><br/>40대 직장인 정모씨는 몇 달 전 직장동료와 고교동창의 잇따른 암 선고소식을 접하고서 충격과 불안에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년 전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부친을 떠올리며 더욱 그러했다. 다행히 정씨의 지인들은 건강검진 시 조기 발견으로 수술한 경우라 벌써 회복단계라고 한다. 정씨는 건강할 때 미리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동료 말에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예약했다.<br/><br/>건강검진은 현재의 여건에서 건강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라 볼 수 있는 사례다. 증상이 생기고 나서야 검진을 받으면 진단 시기를 놓친 경우일 수 있으며 평소의 건강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검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br/><br/><br/><br/><br/>또한 건강검진과 더불어 검진 후 발견된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한 각 분과별 전문 의료진의 신속한 외래진료와 지속적 관리가 연계되면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br/><br/>과거에는 조기에 발견되는 암의 비중이 낮았지만, 최근에 조기 검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기발견 비중이 높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50대에서 대장암 등의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후부터는 중증 질환의 유병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조기진단을 위한 선별적 정밀검사가 꼭 필요하다.<br/><br/>은평연세병원은 20일 "진단부터 수술까지 원스톱으로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4개의 수술실을 갖춰 환자들의 대기 시간을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2006년 8월 외과(갑상선, 유방)전문 특화병원으로 개원해 대형 병원의 규모로 성장해온 은평연세병원은 종합검진센터와 응급실, 내시경실, 무균수술실, 80개 병상의 입원실 등을 갖추고 있다.<br/><br/>은평연세병원은 또 하이엔드급 첨단 내시경 EPK-i7000, MRI기기인 Achieva 3.0T TX, CT촬영기인 Ingenuity CT 등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최신 장비도 보유해 지역의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서진학 병원장(내분비외과 전문의)은 “<span class='quot1'>풍부한 경험을 가진 각 분야별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검진하고,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앞으로 연신내 은평구 지역의 거점병원이자 지역주민들의 건강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한편 서진학 병원장은 갑상선암 수술 1300여차례 시행 등 갑상선암 치료 분야의 권위 있는 명의다. 국가 건강검진 지정병원인 은평연세병원은 건강검진 수검율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확장이전을 해 대학병원급 장비 보유와 응급의료센터(응급실)를 운영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47.txt

제목: 설사와 변비 반복, 혹시 대장암 전조증상 아닐까? … EBS ‘명의’  
날짜: 2015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2010018304347  
본문: 한국 사람 3명 중 1명이 걸린다는 암. 여러 암 중에서도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암이 있다. 대장암이다. 한 해 발병자 수가 3만명, 사망자 수가 8000명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암이다.<br/><br/>21일 EBS <명의>에서는 ‘다시 보는 5대 암-대장암’ 편을 방송한다. 대장암 증가율 못지않게 대장암 완치율도 매년 높아진다. 정교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 수술, 최소한의 절개로 빠른 회복을 돕는 복강경 수술까지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이 계속해서 개발된다. 방송에서는 지난 8년간의 기록을 살피며 대장암 원인과 치료 방법, 완치 과정을 살펴본다.<br/><br/>37세의 김종도씨는 하루 한 번 보던 변을 두세 번씩 보게 되자 이상을 느꼈다. 단순히 잦은 술자리 때문이라며 가볍게 넘기지 않고 병원을 찾아간 것이 그의 목숨을 살렸다. 진단 결과 김씨는 대장암 1기였다. <br/><br/>이렇듯 암은 큰 고통이나 두드러지는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 채로 찾아온다. 배변주기의 변화, 설사와 변비의 반복, 잔변감 등은 대장암의 전조증상일 수 있다. 방송은 오후 9시50분.<br/><br/><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48.txt

제목: 원스톱 진료시스템, 국가건강검진 지정병원 연신내 ‘은평연세병원’  
날짜: 2015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2010018297642  
본문: <strong>대학병원급 최신 장비 보유, 지역의료 발전에 앞장서</strong><br/><br/>40대 직장인 정모씨는 몇 달 전 직장동료와 고교동창의 잇따른 암 선고소식을 접하고서 충격과 불안에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년 전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부친을 떠올리며 더욱 그러했다. 다행히 정씨의 지인들은 건강검진 시 조기 발견으로 수술한 경우라 벌써 회복단계라고 한다. 정씨는 건강할 때 미리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동료 말에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예약했다.<br/><br/>건강검진은 현재의 여건에서 건강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라 볼 수 있는 사례다. 증상이 생기고 나서야 검진을 받으면 진단 시기를 놓친 경우일 수 있으며 평소의 건강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검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br/><br/><br/><br/><br/>또한 건강검진과 더불어 검진 후 발견된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한 각 분과별 전문 의료진의 신속한 외래진료와 지속적 관리가 연계되면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br/><br/>과거에는 조기에 발견되는 암의 비중이 낮았지만, 최근에 조기 검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기발견 비중이 높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50대에서 대장암 등의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후부터는 중증 질환의 유병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조기진단을 위한 선별적 정밀검사가 꼭 필요하다.<br/><br/>은평연세병원은 20일 "진단부터 수술까지 원스톱으로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4개의 수술실을 갖춰 환자들의 대기 시간을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2006년 8월 외과(갑상선, 유방)전문 특화병원으로 개원해 대형 병원의 규모로 성장해온 은평연세병원은 종합검진센터와 응급실, 내시경실, 무균수술실, 80개 병상의 입원실 등을 갖추고 있다.<br/><br/>은평연세병원은 또 하이엔드급 첨단 내시경 EPK-i7000, MRI기기인 Achieva 3.0T TX, CT촬영기인 Ingenuity CT 등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최신 장비도 보유해 지역의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서진학 병원장(내분비외과 전문의)은 “<span class='quot1'>풍부한 경험을 가진 각 분야별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검진하고,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앞으로 연신내 은평구 지역의 거점병원이자 지역주민들의 건강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한편 서진학 병원장은 갑상선암 수술 1300여차례 시행 등 갑상선암 치료 분야의 권위 있는 명의다. 국가 건강검진 지정병원인 은평연세병원은 건강검진 수검율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확장이전을 해 대학병원급 장비 보유와 응급의료센터(응급실)를 운영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49.txt

제목: 유전자로 비만 치료 길 열렸다  
날짜: 2015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2010018297897  
본문: 비만을 부르는 유전자를 억제하는 방법이 발견돼 비만 치료에 새 길이 열렸다고 19일 AFP통신이 보도했다.<br/><br/>최근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유전적으로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일명 비만의 ‘마스터스위치’를 조작함으로써 비만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br/><br/>미 매서추세츠 공과대학(MIT)과 하버드 의대 공동 연구진은 유전자 교정(DNA editing) 기술인 ‘CRISPR/Cas9’을 활용해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하는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쉽게 비만이 오는 반면, 마치 스위치를 끄듯이 유전자를 억제하면 비만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해보니 유전자를 억제할 경우 쥐의 신진대사량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밝혔다. <br/><br/>전 세계 비만 인구는 약 5억명에 달한다. 비만은 각종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 암 등의 발병을 증가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논문의 주저자인 마놀리스 켈리스 MIT 교수는 “<span class='quot0'>그동안 비만은 주로 식사량과 운동량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유전자가 개인의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span>”며 이번 연구의 의미를 평가했다.<br/><br/><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50.txt

제목: ‘비만 유전자’ 억제법 찾았다  
날짜: 2015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2010018305817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미 연구진 “<span class='quot0'>인체 실험서 지방세포 분해 활발</span>”</strong><!-- SUB\_TITLE\_END--><br/><br/>비만을 부르는 유전자를 억제하는 방법이 발견돼 비만 치료의 새 길이 열렸다고 AF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최근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유전적으로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일명 비만의 ‘마스터 스위치’를 조작하면 비만을 완화할 수 있다.<br/><br/>미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 의대 공동 연구진은 ‘유전자 교정’(DNA editing) 기술을 활용해 이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07년 처음 발견된 ‘FTO’라고 불리는 이 유전자가 지방 세포의 생성과 체내 에너지 분해 기능에 영향을 미쳐 비만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쉽게 비만이 오고, 마치 스위치를 끄듯 유전자를 억제하면 비만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연구진이 인체 세포 실험에서 이 유전자의 활성화를 막자 지방세포의 분해가 활발해졌다. 또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 유전자의 활동을 억제했더니 쥐의 신진대사량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br/><br/>AP통신은 이 연구를 계기로 식이요법이나 운동 외에도 유전자의 원리를 활용한 치료약 개발 등 새로운 비만 치료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br/><br/>전 세계의 비만 인구는 약 5억명에 달한다. 비만은 각종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 암 등의 발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의 주저자인 마놀리스 켈리스 MIT 교수는 “<span class='quot1'>그동안 비만은 주로 식사량과 운동량 사이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유전자가 개인의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span>”고 밝혔다.<br/><br/><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51.txt

제목: 이맹희 회장, 부친 곁 아닌 여주에 안장  
날짜: 2015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2010018302424  
본문: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CJ그룹 명예회장)이 20일 영결식을 마치고 84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비운의 아들’ 이 전 회장은 결국 경기 여주 장지에 안장돼 죽어서도 경기 용인의 부친 곁에 묻히지는 않았다.<br/><br/>이 전 회장의 영결식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 직계가족과 여동생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조카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삼성가 일가 친척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br/><br/><br/><br/>오전 7시 발인식 이후 서울대병원 빈소에서 이 전 회장의 시신을 싣고 출발한 운구차는 부친인 이병철 선대회장 등과 함께 살던 서울 장충동 집 앞에 잠시 머물렀다가 오전 8시쯤 CJ인재원 앞에 도착했다. <br/><br/>고인의 손자인 이호준씨(이재환 대표 아들)가 위패를, 손녀 사위인 정종환씨(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딸 이경후씨 남편)가 영정을 들고 영결식장으로 들어갔다. <br/><br/>김동건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영결식은 개식사와 묵념, 추모영상, 추도사, 조사, 헌화, 폐식사의 순서로 50분 정도 진행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형인 김창성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추도사를, 장례위원장을 맡은 이채욱 CJ그룹 대표이사가 조사를 읽었다.<br/><br/>김 전 회장은 추도사에서 “<span class='quot0'>마지막 인사조차 할 기회 없이 이렇게 허망하게 고인을 보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참담하기 그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고인의 열정과 꿈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봐 온 나로서는 늘 안타까운 마음이었다</span>”고 밝혔다. <br/><br/>그는 고인에 대해 “<span class='quot0'>세간의 오해와 달리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온 마음 약한 아버지였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병철 창업주와)생전에 화해하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산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다</span>”고 추도했다.<br/><br/><br/><br/>이 전 회장은 1966년 삼성 계열사 한국비료의 사카린 2259포대 밀수 사건 때문에 선대 이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자 1968년 삼성 경영의 전면에 나섰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사카린 밀수 사건을 청와대에 ‘투서’했다는 의심을 받아 부자관계가 틀어져 삼성 내 지위를 모두 잃고 야인으로 떠돌았다.<br/><br/>그 뒤 8남매 가운데 일곱째이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5)이 삼성 후계자로 올랐다. 은둔 생활을 이어오던 이 전 회장은 암 투병 와중에 2012년 2월 동생 이 회장을 상대로 부친이 남긴 차명재산 중 7000억원대 재산을 돌려달라는 상속 소송을 냈고 형제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금이 갔다.<br/><br/>이 전 회장은 1, 2심에서 참패한 뒤 상고를 포기했고,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의 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며 양측의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회장과의 직접적인 화해는 물건너 갔다. 이 회장마저 지난해 5월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져 의사표현도 못하는 처지로 알려졌다.<br/><br/>이날 영결식이 끝난 뒤 운구차는 오전 11시쯤 경기도 여주 해슬리 골프장 인근 장지에 도착했다.<br/><br/>이 전 회장은 삼성가의 장남이지만 끝내 아버지 곁을 지키지는 못한 것이다. 이 선대회장의 묘지는 경기도 용인의 삼성에버랜드 안에 있다. 삼성에서 분리된 CJ, 한솔, 신세계 등은 이 선대회장 기일에 오전, 오후로 나눠 회사 차원에서 선영을 참배한다. 호암의 가족 제사는 장손인 이재현 회장이 속한 CJ 인재원에서 치러왔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52.txt

제목: “지구를 존경하는 사찰음식… ‘비움’ 배우러 또 왔죠”  
날짜: 201508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19100000095  
본문: “사찰음식은 지구를 존경하는 음식입니다. 요리사이자 수행자로서 깨달음에 가까워진다고 느낍니다.”<br/><br/>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 중 한 명인 에릭 리퍼트(50)가 사찰음식을 배우기 위해 4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했다. 프랑스 태생인 리퍼트는 17세에 파리의 400년 전통 레스토랑 ‘라 투르 장’을 시작으로 프랑스 요리계의 살아있는 전설 조엘 로부숑의 레스토랑 ‘Jamin’에서 경력을 쌓았다. 1994년부터는 미국 뉴욕의 레스토랑 ‘르 베르나르댕’에 합류했다. 미국에서 ‘요리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제임스 비어스 상’을 받았고, 이후 세계 최고의 셰프라는 수식어를 얻었다.<br/><br/><br/>그가 사찰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불교 수행을 시작하면서다. 1990년대 후반부터 관련 책들을 접하기 시작했고, 2003년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을 처음 들은 이후 법문을 청해 들었다. <br/><br/>“불자가 된다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생 동안 나아지는 것이니까요.”<br/><br/>3년 전에 사찰음식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처음 온 그는 “그때 체험이 계시 같았다”고 말한다. “사찰음식은 동물을 죽이지 않아서 고통이 없는 음식이고, 건강에 좋은 지속가능한 음식이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사찰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기에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는 생선 요리로 유명한 셰프이지만 그동안 “불자니까 물고기를 죽이는 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느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br/><br/>지난 2월 그가 진행하는 <아벡 에릭(Avec Eric)>이라는 PBS-TV 프로그램에 사찰음식이 3회에 걸쳐 소개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가 세계 곳곳의 음식과 사람을 직접 만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이다. 전남 백양사 천진암 정관 스님이 출연해 사찰음식의 진수를 소개했다. 그는 “올해는 즐기고 배우러 왔다”며 백양사, 경남 통도사, 서울 진관사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그는 세 사찰의 차이에 대해 백양사는 ‘어머니 같은 원초적 전통’, 진관사는 ‘세련된 전통’, 통도사는 ‘창조성’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음식이 맛있었지만 특히 백양사에서는 방아잎 장떡, 진관사에서는 메밀국수, 통도사에서는 복숭아 김치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1, 2, 3등을 매기기 힘들다. 사찰 세계는 경쟁이 없다”며 웃었다. <br/><br/>리퍼트는 사찰음식의 매력에 대해 “<span class='quot0'>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면서 집착과 중독을 만들어내지 않기는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0'>세 사찰 모두의 공통점은 영혼이 충만했다는 것</span>”이라고 밝혔다. 선(禪)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는 시간이었다. “<span class='quot1'>사찰음식은 스님이나 재가불자 모두에게 수행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데 특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재료를 준비하든, 요리를 하든 현재에 집중하도록 한다</span>”고 말했다.<br/><br/>미국으로 돌아가서는 이번 체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메밀 국수와 살짝 구운 참치를 결합한 에피타이저, 흑임자 리조토 등의 메뉴를 개발할 예정이다. “사찰음식은 비움과 나눔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음식은 탐욕과 로비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비만자가 늘어나고 당뇨와 암이 많아지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흐름을 바꾸고 싶어요. 지구에 올바른 것이 나에게도 올바른 것을 가져온다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삶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53.txt

제목: “지구를 존경하는 사찰음식… ‘비움’ 배우러 또 왔죠”  
날짜: 20150818  
기자: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05624209  
본문: ㆍ미국 유명 셰프 에릭 리퍼트 ‘백양·진관·통도사 체험’ 마쳐 <br/>ㆍ“세 사찰엔 방아잎 장떡·메밀국수·복숭아 김치 맛이 일품”<br/><br/>“사찰음식은 지구를 존경하는 음식입니다. 요리사이자 수행자로서 깨달음에 가까워진다고 느낍니다.”<br/><br/>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 중 한 명인 에릭 리퍼트(50)가 사찰음식을 배우기 위해 4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했다. 프랑스 태생인 리퍼트는 17세에 파리의 400년 전통 레스토랑 ‘라 투르 장’을 시작으로 프랑스 요리계의 살아있는 전설 조엘 로부숑의 레스토랑 ‘Jamin’에서 경력을 쌓았다. 1994년부터는 미국 뉴욕의 레스토랑 ‘르 베르나르댕’에 합류했다. 미국에서 ‘요리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제임스 비어스 상’을 받았고, 이후 세계 최고의 셰프라는 수식어를 얻었다.<br/><br/><br/>그가 사찰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불교 수행을 시작하면서다. 1990년대 후반부터 관련 책들을 접하기 시작했고, 2003년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을 처음 들은 이후 법문을 청해 들었다. <br/><br/>“불자가 된다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생 동안 나아지는 것이니까요.”<br/><br/>3년 전에 사찰음식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처음 온 그는 “그때 체험이 계시 같았다”고 말한다. “사찰음식은 동물을 죽이지 않아서 고통이 없는 음식이고, 건강에 좋은 지속가능한 음식이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사찰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기에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는 생선 요리로 유명한 셰프이지만 그동안 “불자니까 물고기를 죽이는 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느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br/><br/>지난 2월 그가 진행하는 <아벡 에릭(Avec Eric)>이라는 PBS-TV 프로그램에 사찰음식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가 세계 곳곳의 음식과 사람을 직접 만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이다. 전남 백양사 천진암 정관 스님이 출연해 사찰음식의 진수를 소개했다. 그는 “올해는 즐기고 배우러 왔다”며 백양사, 경남 통도사, 서울 진관사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그는 세 사찰의 차이에 대해 백양사는 ‘어머니 같은 원초적 전통’, 진관사는 ‘세련된 전통’, 통도사는 ‘창조성’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음식이 맛있었지만 특히 백양사에서는 방아잎 장떡, 진관사에서는 메밀국수, 통도사에서는 복숭아 김치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1, 2, 3등을 매기기 힘들다. 사찰 세계는 경쟁이 없다”며 웃었다. <br/><br/>리퍼트는 사찰음식의 매력에 대해 “<span class='quot0'>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면서 집착과 중독을 만들어내지 않기는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0'>세 사찰 모두의 공통점은 영혼이 충만했다는 것</span>”이라고 밝혔다. 선(禪)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는 시간이었다. “<span class='quot1'>사찰음식은 스님이나 재가불자 모두에게 수행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데 특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재료를 준비하든, 요리를 하든 현재에 집중하도록 한다</span>”고 말했다.<br/><br/>미국으로 돌아가서는 이번 체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메밀 국수와 살짝 구운 참치를 결합한 에피타이저, 흑임자 리조토 등의 메뉴를 개발할 예정이다. “사찰음식은 비움과 나눔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음식은 탐욕과 로비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비만자가 늘어나고 당뇨와 암이 많아지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흐름을 바꾸고 싶어요. 지구에 올바른 것이 나에게도 올바른 것을 가져온다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삶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br/><br/><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54.txt

제목: 대장암 발병과 재발 억제하려면 카페인 얼마를 마셔야하나  
날짜: 20150818  
기자: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05413640  
본문: 커피가 대장암 환자의 재발과 사망 위험을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미국 대나-파버 암연구소(Dana-Farber Cancer Institute) 위장관 암센터 연구팀이 진행성(3기) 대장암 환자 950명을 대상으로 130여 가지 식품과 음료의 섭취량을 조사하고 평균 7년을 지켜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AFP통신과 헬스데이 뉴스가 17일 보도했다.<br/><br/>3기 대장암이란 암이 최초 발생 위치에서 가까운 림프절에서 발견되었지만 신체의 다른 조직으로는 전이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경우 치료 후 재발 위험은 약 33%로 알려져 있다. 이번 실험에 참가한 환자는 모두 3가 대장암을 앓으면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다.<br/><br/>치료 전후에 카페인 커피를 하루 4잔 이상 마신 환자는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재발 위험이 4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을 이끈 찰스 훅스 박사가 말했다. 또 대장암이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위험도 33%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AFP통신은 “<span class='quot0'>커피 4잔에 함유된 카페인은 460㎎</span>”이라고 전했다.<br/><br/>커피를 하루 2~3잔 마시는 환자도 4잔 이상 마시는 환자보다는 못하지만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환자들에 비해서는 재발률이 낮았다. 그러나 하루 1잔 이하는 이러한 효과가 거의 없었다.<br/><br/>훅스 박사는 “<span class='quot1'>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이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1'>카페인은 대장암의 진행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span>”고 말했다. 훅스 박사는 “<span class='quot1'>대장암환자인데 이미 커피를 마시고 있다면 계속 마시고 만일 커피를 마실까 생각하고 있다면 의사와 의논하라</span>”고 권고했다.<br/><br/>한편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캔커피에는 90㎎, 믹스커피에는 70㎎ 정도 카페인이 합류돼 있다. 국내 커피전문점 한잔의 평균 함량은 120㎎ 선이다.<br/><br/><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55.txt

제목: 방콕 여행중인 홍석천 “갑자기 큰 폭발음 들렸다”  
날짜: 20150818  
기자: 디지털뉴스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05350087  
본문: 태국을 여행중인 방송인 홍석천이 17일 방콕에서 발생한 폭탄 폭발 상황을 목격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식을 전했다.<br/><br/>홍석천은 이날 밤 12시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난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고 무슨 일이 생긴 걸 알았다”고 밝혔다. <br/><br/>그는 이어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 옆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단다. 폭탄이 터진 걸로 알려지고 있다. 한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없이 희생되지 않길 빈다”고 적었다. 홍석천은 지난 16일 방콕에 도착했으나 다행히 폭발 사고현장에는 없어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r/><br/>폭발은 17일 오후 6시30분(현지시간) 방콕 시내 칫롬의 에라완 사원 앞에 있는 라즈프라송 교차로에서 일어났다. 에라완 사원은 힌두 사원으로 아시아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 주변의 라차프라송 교차로에는 고층 건물과 쇼핑센터가 밀집해 있다.<br/><br/>이 사고로 중국과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 2명을 포함해 최소한 16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했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56.txt

제목: “지구를 존경하는 사찰음식… ‘비움’ 배우러 또 왔죠”  
날짜: 2015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1810018278567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미국 유명 셰프 에릭 리퍼트 ‘백양·진관·통도사 체험’ 마쳐</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span class='quot0'>세 사찰엔 방아잎 장떡·메밀국수·복숭아 김치 맛이 일품</span>”</strong><!-- SUB\_TITLE\_END--><br/><br/>“사찰음식은 지구를 존경하는 음식입니다. 요리사이자 수행자로서 깨달음에 가까워진다고 느낍니다.”<br/><br/>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 중 한 명인 에릭 리퍼트(50)가 사찰음식을 배우기 위해 4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했다. 프랑스 태생인 리퍼트는 17세에 파리의 400년 전통 레스토랑 ‘라 투르 장’을 시작으로 프랑스 요리계의 살아있는 전설 조엘 로부숑의 레스토랑 ‘Jamin’에서 경력을 쌓았다. 1994년부터는 미국 뉴욕의 레스토랑 ‘르 베르나르댕’에 합류했다. 미국에서 ‘요리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제임스 비어스 상’을 받았고, 이후 세계 최고의 셰프라는 수식어를 얻었다.<br/><br/><br/>그가 사찰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불교 수행을 시작하면서다. 1990년대 후반부터 관련 책들을 접하기 시작했고, 2003년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을 처음 들은 이후 법문을 청해 들었다. <br/><br/>“불자가 된다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생 동안 나아지는 것이니까요.”<br/><br/>3년 전에 사찰음식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처음 온 그는 “그때 체험이 계시 같았다”고 말한다. “사찰음식은 동물을 죽이지 않아서 고통이 없는 음식이고, 건강에 좋은 지속가능한 음식이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사찰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기에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는 생선 요리로 유명한 셰프이지만 그동안 “불자니까 물고기를 죽이는 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느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br/><br/>지난 2월 그가 진행하는 <아벡 에릭(Avec Eric)>이라는 PBS-TV 프로그램에 사찰음식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가 세계 곳곳의 음식과 사람을 직접 만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이다. 전남 백양사 천진암 정관 스님이 출연해 사찰음식의 진수를 소개했다. 그는 “올해는 즐기고 배우러 왔다”며 백양사, 경남 통도사, 서울 진관사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그는 세 사찰의 차이에 대해 백양사는 ‘어머니 같은 원초적 전통’, 진관사는 ‘세련된 전통’, 통도사는 ‘창조성’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음식이 맛있었지만 특히 백양사에서는 방아잎 장떡, 진관사에서는 메밀국수, 통도사에서는 복숭아 김치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1, 2, 3등을 매기기 힘들다. 사찰 세계는 경쟁이 없다”며 웃었다. <br/><br/>리퍼트는 사찰음식의 매력에 대해 “<span class='quot1'>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면서 집착과 중독을 만들어내지 않기는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1'>세 사찰 모두의 공통점은 영혼이 충만했다는 것</span>”이라고 밝혔다. 선(禪)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는 시간이었다. “<span class='quot2'>사찰음식은 스님이나 재가불자 모두에게 수행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데 특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재료를 준비하든, 요리를 하든 현재에 집중하도록 한다</span>”고 말했다.<br/><br/>미국으로 돌아가서는 이번 체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메밀 국수와 살짝 구운 참치를 결합한 에피타이저, 흑임자 리조토 등의 메뉴를 개발할 예정이다. “사찰음식은 비움과 나눔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음식은 탐욕과 로비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비만자가 늘어나고 당뇨와 암이 많아지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흐름을 바꾸고 싶어요. 지구에 올바른 것이 나에게도 올바른 것을 가져온다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삶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br/><br/><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57.txt

제목: 방콕 여행중인 홍석천 “갑자기 큰 폭발음 들렸다”  
날짜: 2015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1810018268307  
본문: 태국을 여행중인 방송인 홍석천이 17일 방콕에서 발생한 폭탄 폭발 상황을 목격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식을 전했다.<br/><br/>홍석천은 이날 밤 12시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난 천둥소리인 줄 알았다.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고 무슨 일이 생긴 걸 알았다”고 밝혔다. <br/><br/>그는 이어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 옆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단다. 폭탄이 터진 걸로 알려지고 있다. 한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없이 희생되지 않길 빈다”고 적었다. <br/><br/><br/><br/><br/><br/>홍석천은 지난 16일 방콕에 도착했으나 다행히 폭발 사고현장에는 없어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r/><br/>폭발은 17일 오후 6시30분(현지시간) 방콕 시내 칫롬의 에라완 사원 앞에 있는 라즈프라송 교차로에서 일어났다. 에라완 사원은 힌두 사원으로 아시아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 주변의 라차프라송 교차로에는 고층 건물과 쇼핑센터가 밀집해 있다.<br/><br/>이 사고로 중국과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 2명을 포함해 최소한 16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했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58.txt

제목: 건강한 영국 할머니, 왜 스스로 죽음 택했나  
날짜: 2015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18100000015  
본문: 그는 죽기 전 언론을 통해 죽음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평생 나이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항상 ‘난 늙지 않겠다. 늙는 것은 재미없다’고 생각해 왔다. (늙는다는 것은) 암울하고 슬프다.”<br/><br/>이달 초 스위스에서는 70대 건강한 영국 할머니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주인공은 간호사 출신인 75세 질 패러우다. 패러우는 지난 2일 바젤에 있는 라이프서클이라는 안락사 병원에서 자기 요구대로 주사요법을 받고 삶을 스스로 마감했다.<br/><br/>스위스는 안락사가 법으로 허용된 나라다.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안락사를 받는 경우는 적지 않았지만 패러우처럼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도 않은,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 죽음을 택한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그의 병환은 보통 수준의 약물치료, 간헐적인 허리 통증, 약간의 이명 정도가 전부였다. 마음만 먹으면 상당 기간 더 살 수 있는 그는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일까.<br/><br/>호스피스 완화 의료전문 간호사 출신<br/>패러우는 한마디로 늙은 게 싫었다. 그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전문 간호사 출신이다. 오랫동안 병든 채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을 돌보면서 관련된 책도 두 권을 써냈다. 노인들을 돌보는 방법과 함께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치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일시적인 처방으로 연명하는 노인들의 처참한 모습, 갑작스런 발작을 겪은 뒤 안쓰러운 상태로 10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 괴로웠다. 그는 죽기 전 언론을 통해 죽음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br/><br/>“평생 나이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항상 ‘난 늙지 않겠다. 늙는 것은 재미없다’고 생각해 왔다. (늙는다는 것은) 암울하고 슬프다. 끔찍하다. 나는 이제 막 언덕 꼭대기에 올랐다. 앞으로 내려가기만 할 뿐 더는 좋아지지 않는다. 보행기로 앞길을 막는 늙은이가 되고 싶지 않다. 70살까지 난 매우 건강하다고 느꼈고, 원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여전히 바쁘고 쓸모가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대상포진을 심하게 앓고 난 후에 모든 게 바뀌었다. 비록 지금 건강해도 내 삶이 다했고 죽을 준비가 돼 있다.”<br/><br/>2년 전 신문 기고를 통해서는 병든 노인 문제를 현실적으로 지적했다.<br/><br/>“노인들이 사회에 짐이 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나도 병든 노인들을 돌보다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다. 병든 노인들은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신체도 무기력해 자신조차 돌보지 못하며, 심지어 찾아오는 방문객도 없다. 나는 너무 늦기 전에 이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처방전을 써주고 싶었다. 자신도 모르게 대소변이 나오고, 욕설을 서슴지 않고, 주는 밥을 먹고 방 안만 돌아다니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br/><br/>그는 비슷한 시기에 쓴 ‘내 마지막 말’이라는 글에서도 비슷한 심정을 토로했다.<br/><br/>“매일매일 나는 인생을 즐겁게 살고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마지막 무대에 이르는 자연적인 노화를 따르고 싶지 않다. 내 자녀들의 도움에 의존한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걸 상상하면 너무 괴롭다.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비이성적인 발상이다. 미래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미리 행동에 옮기려고 한다.”<br/><br/>그는 스위스로 가기 전에 아들과 딸에게 자기 결심을 알렸다. 자녀들은 고민 끝에 엄마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딸은 “이성적으로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 존 사우스홀(70)도 처음에는 거부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아내의 뜻을 존중해 함께 죽음을 준비했다.<br/><br/>WP “안락사에 대한 토론에 불 지폈다”<br/>장례식 준비까지 마친 패러우는 남편과 스위스로 갔다. 죽기 전날 라인강변에서 마지막 만찬을 즐겼다. 남편은 “아내는 몇 년 동안 이를 준비했다”며 “분위기를 너무 감정적이거나 무겁게 만들어 마지막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 모든 게 고요했고 즐거웠다”고 말했다. 런던타임스에 따르면 패러우는 죽기 바로 직전 의사와 농담을 주고 받을 정도로 심리적으로도 평온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의 안락사를 도운 마이클 어윈 박사는 “사람들은 패러우가 좋지 않게 늙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게 잘못됐다고 말할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면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그는 이성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그는 선수를 치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br/><br/>안락사가 금지된 영국에서는 최근 패러우처럼 안락사와 안락사 지원이 허용된 스위스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08∼2012년 스위스에서 안락사한 611명 중 5분의 1은 영국인이다. 남편 존은 “만일 아내가 미래에 자신을 불구자로 만드는 발작을 겪을 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전 의료지침서를 영국에서 쓸 수 있었다면 아내는 발작에 대한 공포에 떨지 않고 조금 더 오래 우리 곁에 머물렀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span class='quot0'>페러우의 죽음은 영국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안락사에 대한 토론에 불을 지폈다</span>”고 전했다.<br/><br/>영국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스위스 검찰과 안락사 관련 단체들은 패러우의 선택을 옹호하고 나섰다. 에리카 프레지크 라이프서클 회장은 “<span class='quot1'>남편과 자녀를 위해서만 살아온 그녀는 몇 년 전 대상포진을 심하게 앓았고, 청력과 거동에도 문제가 있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그녀는 자신이 원한 것보다 더 오래 살면서 고생했다</span>”고 말했다. 비슷한 성격의 재단인 엑시트 제네바 역시 “패러우의 결정과 라이프서클의 안락사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바젤 검찰청의 피터 질 검사는 “<span class='quot2'>사심 없이 타인의 안락사를 돕는 것은 스위스 법률상 처벌할 수 없다</span>”고 확인했다.<br/><br/>외국인도 안락사 받을 수 있는 나라, 스위스<br/><br/>안락사는 그리스어로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뜻이다. 불치의 병 등으로 치료 또는 생명 유지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생물을 직·간접적 방법으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다. 약물을 사용하는 적극적인 안락사가 있고, 연명치료만 중단하는 소극적인 안락사가 있다. 동의 여부에 따라서는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로 나뉜다.<br/><br/>스위스는 1942년 이래로 안락사가 법적으로 보장됐다. 환자가 처방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전제다. 자국 국민이 아니어도 안락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자살여행’과 같은 게 생기는 이유다.<br/><br/>뉴헬스가이드(newhealthguide.org)에 따르면 벨기에는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을 2002년 9월에 만들었다. 의사 2명이 개입해야 하며, 환자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울 땐 심리학자도 포함돼야 한다. 약물과 주사요법이 모두 가능하다.<br/><br/>콜롬비아 대법원은 2010년 말기 불치병 환자로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의 생명을 끊는 데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에이즈, 신장·간 기능 마비, 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상황 등을 허용범위로 규정했다. 루게릭,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은 제외된다.<br/><br/>인도는 수동적인 안락사만 합법화됐다.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에 처한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식이다. 아일랜드도 능동적인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아이리시타임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57%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합법화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멕시코도 수동적인 안락사만 허용돼 있다. 말기에 의식이 없는 환자 또는 그의 가까운 인척이 치료를 거부하면 된다.<br/><br/>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와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 모두 합법화됐다. 법률은 2002년 통과됐지만 법원은 1980년대부터 이 같은 관행을 허용했다. 의사도 죽음을 원하는 환자를 살려야 할 의무가 없다. 네덜란드 법원은 20년 넘게 안락사를 시행한 의사를 기소한 적이 없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59.txt

제목: 대장암 발병과 재발 억제하려면 카페인 얼마를 마셔야하나  
날짜: 2015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1810018270692  
본문: 커피가 대장암 환자의 재발과 사망 위험을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미국 대나-파버 암연구소(Dana-Farber Cancer Institute) 위장관 암센터 연구팀이 진행성(3기) 대장암 환자 950명을 대상으로 130여 가지 식품과 음료의 섭취량을 조사하고 평균 7년을 지켜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AFP통신과 헬스데이 뉴스가 17일 보도했다.<br/><br/>3기 대장암이란 암이 최초 발생 위치에서 가까운 림프절에서 발견되었지만 신체의 다른 조직으로는 전이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경우 치료 후 재발 위험은 약 33%로 알려져 있다. 이번 실험에 참가한 환자는 모두 3가 대장암을 앓으면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다.<br/><br/>치료 전후에 카페인 커피를 하루 4잔 이상 마신 환자는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재발 위험이 4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을 이끈 찰스 훅스 박사가 말했다. 또 대장암이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위험도 33%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AFP통신은 “<span class='quot0'>커피 4잔에 함유된 카페인은 460㎎</span>”이라고 전했다.<br/><br/>커피를 하루 2~3잔 마시는 환자도 4잔 이상 마시는 환자보다는 못하지만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환자들에 비해서는 재발률이 낮았다. 그러나 하루 1잔 이하는 이러한 효과가 거의 없었다.<br/><br/>훅스 박사는 “<span class='quot1'>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이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1'>카페인은 대장암의 진행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span>”고 말했다. 훅스 박사는 “<span class='quot1'>대장암환자인데 이미 커피를 마시고 있다면 계속 마시고 만일 커피를 마실까 생각하고 있다면 의사와 의논하라</span>”고 권고했다.<br/><br/>한편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캔커피에는 90㎎, 믹스커피에는 70㎎ 정도 카페인이 합류돼 있다. 국내 커피전문점 한잔의 평균 함량은 120㎎ 선이다.<br/><br/><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60.txt

제목: [광복 70년 특별기Ⅰ이민가고 싶은 20대]“한국이 싫어서” 행복 찾아 삼만리  
날짜: 2015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18100000029  
본문: “제가 한국을 떠나려는 이유는 한국의 각박함이 싫어서입니다. 2년 가까이 회사생활을 해봤지만 남는 것은 돈밖에 없었습니다. 건강도, 사람도, 꿈도, 희망도 잃었습니다. 내 시간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모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가진 고민일 겁니다. 이런 고민이 당장에 캐나다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사는 게 크게 다르지는 않으니까요.”<br/><br/>10년 후에도 달라질 것같지 않은 현실<br/>갓 서른의 남성이 캐나다 이민을 고민하며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이다. 교사자격증이 있지만, 이민을 고려하게 되면서 기술을 배웠다. 지게차 운전 자격증, 대형면허, 이름도 생소한 재활용구리 감별 자격증까지 땄다. 과거에는 성공의 기회를 찾아 새로운 땅으로 떠나려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국이 싫어서’ 이민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 익숙한 삶을 버리고 낯선 땅에서의 새출발은 당연히 힘들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은하연씨(가명·34)는 얼마 전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았다. 은씨는 소위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라는 데서 6년을 일했다. 이민을 결심하게 된 것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IMF 사태 때 집안형편이 기울어지면서 독하게 학창시절을 보낸 편이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갔고, 대학시절 내내 과외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했다.<br/><br/>다행히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도 입사했다.” 그렇게 10년을 기를 쓰고 살았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이런 삶이 10년 후에도 달라질 것같지 않았다. 더 암울했던 것은 자신의 아이들도 자신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 왔지만, 내 아이들에게도 극심한 경쟁구조밖에 물려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처럼 피터지게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늘 일에 찌들어 사는 피곤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자 더는 한국에서 답이 안 나오더라.” 캐나다에서 은씨의 경제적 형편은 한국에서보다 못하다. 그렇지만 은씨에게는 한국에서의 미래보다 캐나다에서의 미래가 더 희망적이다. 사소한 것까지 경쟁하면서 살아남아야 하는 한국 사회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캐나다에서 사는 게 낫다는 것이다. “한국은 경쟁이 너무 심하다. 차도, 집도, 옷도, 아이들 교육도 서로서로 너무 신경쓰고 살아야 한다. 누가 뭘 입든, 어떤 차를 타든 여기서는 한국처럼 신경쓰지 않는다.”<br/><br/>20대 62.8% “한국서 다시 태어나기 싫다”<br/>소설 <한국이 싫어서>는 은씨처럼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려는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다뤘다. 대학 졸업 후 중소 종합금융회사에서 2년을 일한 주인공 계나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톱니바퀴’였다고 말한다. “내가 어떤 조직의 부속품이 되어서 그 톱니바퀴가 되었다 해도 이 톱니바퀴가 어디에 끼여 있고, 이 원이 어떻게 굴러가고, 이 큰 수레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그런 걸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난 내가 무슨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회사는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고, 온통 혼란스러웠다고나 할까.” 계나는 호주 이민을 준비하며 회사를 그만둔다. 얼마 후 경제위기로 상황이 어려워진 회사는 직원들에게 부도난 회사채와 어음을 팔게 했다. 이게 문제가 되면서 직원들의 자살이 이어졌다. 계나는 톱니바퀴인 채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는 것이 한국 사회의 삶이라고 말한다.<br/><br/>“<span class='quot0'>내가 한국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런 거대한 톱니바퀴에 저항할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거야, 아마.</span>” 열심히 살아도 중산층의 끝자락도 붙잡지 못하는 부모님의 삶, 폐지를 줍다가 뺑소니차에 치여 돌아가신 할머니의 미래는 전 세대의 불행이 아니라 고스란히 계나의 미래다. “어떤 동네, 어떤 사람들은 옛날 그대로야. 나아지는 게 없어. 내가 그냥 여기 가만히 있는다고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 아무 데도 없어.” 그러나 교수 아버지에 방송사 기자라는 그럴 듯한 조건을 갖추고 안정돼 보이는 남자친구의 삶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저 같은 톱니바퀴일 뿐이다. “<span class='quot0'>얘 이렇게 일하다가 암 걸리는 건 아닌가 싶고, 내가 이 모습을 10년이고 20년이고 보다가, 그냥 얘는 매일 이렇게 열몇 시간씩 일하는 애다,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하나 싶고….</span>” 김경미 정치발전소 기획실장은 <한국이 싫어서>와 ‘헬조선’ 현상이 닮았다고 말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사원들 대부분이 ‘헬조선’을 각자 다 자신의 이야기 같다고 느꼈던 것 같다. 요즘 20대 친구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산다. 하루에도 수십 번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고, 어김없이 야근이 떨어지는 나날들 속에, 스스로를 노예라고 부르면서도 헬조선을 탈출하고 싶어서 비명을 지르는 게 느껴진다.”<br/><br/>지난 2월 마크로밀엠브레인이 발표한 이민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다시 태어나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7.9%가 ‘요즘 같아서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20대는 62.8%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복수응답 허용). 76.7%가 ‘삶의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62.9%가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61.7%가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어서’였다. 반면 ‘새로운 나라에서도 살아보고 싶은 호기심’은 15.2%에 불과했다.<br/><br/>그렇다면, 한국을 떠나는 젊은층의 수가 실제로도 증가했을까. 외교통상부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이주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해외이주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1976년 이민자 수가 4만6000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2년부터 급감해 2014년에는 730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아 이주하는 방식이 늘고 있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확실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민컨설팅 업체는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도 이민을 상담하는 사례들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중·장년층이 주로 많이 문의를 했다면, 요즘에는 20대와 30대 초반의 젊은 세대의 이민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이민 컨설팅 업체인 머피콘텐츠 이응수 대표는 “최근 들어 이민을 가려는 젊은 세대의 수요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캐나다나 미국은 비자를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라 이민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수요가 크게 는 것은 맞다. 예컨대 이민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이 올해 같은 경우 2분 안에 마감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국제이주공사 관계자는 “지금의 젊은 세대는 어려서부터 여행이나 어학연수 등의 경험으로 외국에서 사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적다. 한국에서 취업도 어렵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민을 문의하는 젊은 세대가 많아졌다. 과거에는 투자이민 같은 중·장년층의 상담이 많았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의 취업이민 상담도 상당히 많아졌다”고 말했다.<br/><br/>“<span class='quot0'>막연하게 생각하고 오면 실망하기도</span>”<br/><한국이 싫어서>는 우여곡절 끝에 주인공 계나가 행복을 희망하는 것으로 끝난다. 현실도 그럴까. 소설과 현실은 결말에서 갈라진다. 안재성씨(가명·35)는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다가 받지 못하고 돌아왔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2년에 걸쳐 호주에서 식당 아르바이트부터 여러 일을 했지만, 결국 영주권을 받는 데 실패했다. “한국은 학벌로 결정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다른 기회를 찾기 위해 갔다. 대학 서열이 크게 밀리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의욕도 없었고, 졸업하고 나서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상황이 비슷한 친구와 호주 이민을 계획하면서 워킹홀리데이를 시작했는데, 막상 가니 단순노동만 하게 되고 제대로 커리어를 쌓을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젊은층들은 이민을 고민하는 준비단계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노출된다.<br/><br/>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는 최근 호주 워킹홀리데이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했다. 응답자 100명 중 58명이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계약위반, 부당해고, 폭언폭행, 성희롱 등 부당노동행위를 경험했다. 해외 이민을 고민하다 워킹홀리데이를 하게 된 김지석씨(가명·31)도 노동착취로 꿈을 접어야 했다. “해외취업을 하려다가 워킹홀리데이를 하게 됐다.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말 그대로 일을 하면서 여행을 즐기거나 휴식을 보내기 위한 제도다.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정규직 일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워킹홀리데이 기간을 보내고 난 후, 워킹비자를 내주겠다는 말로 젊은이들을 현혹시키며 일을 시키고 있다. 나도 거기에 넘어갔는데, 결국 1년 동안 일만 하다가 돈도 제대로 못받고 한국에 돌아와야 했다.”<br/><br/>현실에서는 이민 또한 양극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주노동을 다룬 책 <서비스이코노미> (이진경·소명출판)는 이주노동의 양극화를 지적한다. “성공적인 이주자들은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얻은 자신의 다양한 문화적 지식을 자본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끝없는 이동이 소모적이고 피곤한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 같은 다중적 이주의 어려움은 일종의 초국가적 유랑에 가까워지며, 여기서의 이주노동이란 벌거벗은 생존을 의미하게 된다.” 미국, 호주 등에서 자국민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자리를 이민자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소위 닭공장에서 닭털을 뽑고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등 현지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노동력만 착취당하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응수 대표는 “<span class='quot1'>막연하게 생각하고 캐나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조건에 맞지 않아서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span>”고 말했다. 해외이민 또한 영어 등 외국어가 어느 정도 되고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성공할 기반이 갖춰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모의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20대가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란 쉽지가 않다.<br/><br/>20대 삶의 불안요소 1순위는 ‘생계’<br/>20대는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세대다. 지난 5월 매시스컨설팅은 ‘한국인의 고통과 불안’을 주제로 여론조사를 했다. 20대는 삶의 불안 요소 1순위로 ‘생계’를 꼽았다. 2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층이 1순위로 ‘건강 및 노후’를 꼽은 것과 비교된다. 마크로밀엠브레인이 발표한 이민 관련 여론조사에서 ‘어차피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나라에서 고생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20대의 18.8%만이 동의했다. 연령대별 가장 낮게 나온 수치다. 20대의 상당수가 ‘어차피 먹고살기 힘들다’는 냉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미우나 고우나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좋다’는 데 동의한 응답은 14%로 가장 낮게 나왔다. ‘국가’와 ‘민족’이 더 이상 상상의 공동체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br/><br/><한국이 싫어서> 첫머리에서 주인공 계나는 한국을 떠나 호주로 향하며 그 이유를 ‘한국이 싫어서’라고 말한다. “왜 한국을 떠났느냐.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이 싫어서’지. 세 마디로 줄이면 ‘여기서는 못살겠어서’.” 그러나 소설의 마지막에 계나는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 “<span class='quot0'>이제 내가 호주로 가는 건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야.</span>”<br/><br/>올해로 광복 70년을 맞은 한국 사회는 20대에게 ‘새로운 의미’를 보여줄 수 있을까. 민족·국가가 별로 구심점이 되지 못하는 20대에게 한국 사회가 희망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 ‘한국이 싫어서’는 소설의 제목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보편 정서가 될지도 모른다.<br/><br/>한국사회가 젊은층에게 강요하는 ‘자아성형’<br/><br/>“난 정말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야. 무슨 멸종돼야 할 동물 같아. 추위도 너무 잘 타고, 뭘 치열하게 목숨 걸고 하지도 못하고, 물려받은 것도 개뿔 없고. 그런 주제에 까다롭기는 더럽게 까다로워요.” <한국이 싫어서>의 주인공 계나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든 종이라고 스스로를 평한다. 물려받은 게 없으면 치열함이라도 있어야 살아남는다. 치열함이 없다면, 주어진 조건에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한국 사회가 청년들에게 주문한 것은 자기계발과 긍정이다. “<span class='quot0'>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센 힘이 끝까지 매달려 있는 힘(김미경)</span>”이라며 치열함을 다그치든지, “<span class='quot0'>자신의 힘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상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소리내어 말해보라(<시크릿>, 론다 번)</span>”며 긍정을 강조하는 식이다. 치열하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계나는 한국 사회에서 ‘멸종돼야 할 동물’이 된 셈이다.<br/><br/>한국 사회에서 자기계발 담론은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인문학 바람과 함께 온 ‘강신주 열풍’도 이 연장선상에 있었다. 강신주씨는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자아’를 강조했다. 박권일 칼럼니스트는 이를 약한 자아에 관념적 보형물을 집어넣는다고 해 ‘자아성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에는 ‘감정’과 ‘심리학’의 전성시대가 이어졌다.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윌리엄 데이비스는 이를 ‘행복산업’이라고 비판했다. 사적인 감정을 상업화하면서 사회가 만들어낸 불행도 개인의 문제로 전환시킨다는 점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이 느끼는 상당수의 불행은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다.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구성원끼리 심리적·감정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관계를 맺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행복산업은 ‘심리화’를 강화한다. 정신과 의사 하지현은 책 <그렇다면 정상입니다>에서 심리화의 위험성에 대해 말한다. “웬만해서는 정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런데 자꾸 불안해지는 이유는 사회가 나를 자꾸 이상한 사람처럼 느끼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심리화 경향이 강해지면 사소한 것을 꼬투리잡아 자신을 비정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br/><br/>지금의 불행이 ‘나의 문제’냐 ‘사회의 문제냐’라고 물었을 때 ‘나의 문제’라고 대답해야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그나마 가능해 보인다. 오늘날 자기계발과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해법을 찾는 이유가 그것이다. 소설 주인공 계나가 남다른 점이 있다면 ’자기계발’과 ‘자아성형’ ‘심리주의’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나는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 <추위를 타는 펭귄>을 떠올리며 자아를 바꾸기보다 삶의 조건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한다. “일단 난 매일매일 웃으면서 살고 싶어. 남편이랑 나랑 둘이 합쳐서 한국 돈으로 1년에 3000만원 벌어도 돼. 그리고 나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 물건 팔면서, 아니 손님 대하면서 얼마든지 고개 숙일 수 있지.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내 자존심이랄까 존엄성이랄까 그런 것까지 팔고 싶지는 않아.”<br/><br/>역대 주요 자기계발 및 관련 인문 서적<br/>-2015년 미움받을 용기(기시미 이치로)<br/>-2014년 다상담(강신주)<br/>-2013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혜민스님)<br/>-2012년 언니의 독설(김미경)<br/>-2011년 아프니까 청춘이다(김난도)<br/>-2010년 리딩으로 리드하라(이지성)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61.txt

제목: 당뇨 치료제 부작용 줄일 인슐린 대체물질 개발  
날짜: 20150817  
기자: 이종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17100000071  
본문: 국내외 연구진의 공동연구로 당뇨 치료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인슐린 대체 물질이 개발됐다. 한국연구재단은 16일 류성호 포스텍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와 함께 암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인슐린 사용 부작용은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핵산물질(압타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br/>압타머는 단백질과 결합해 상호작용을 억제하며 강하게 결합하는 특징을 가진 물질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인슐린 수용체에 강력하게 결합하는 압타머들을 발굴, 이 중에서 인슐린과 비슷하게 수용체를 활성화해 혈당을 낮추면서도 세포 증식은 촉진하지 않는 물질인 ‘IR-A48’을 찾아냈다. 현재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에 사용되는 인슐린은 세포증식을 과도하게 촉진해 암 발병이나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IR-A48은 인슐린과 달리 각종 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인슐린성장인자(IGF-1)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 특정 아미노산(티로신)을 활성화시켜 혈당 저하 기능은 유지하되 세포를 증식시키는 부작용은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r/>류 교수는 “<span class='quot0'>본격적인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7~8년이 걸릴 것</span>”이라고 말했다. 연구의 결과는 핵산 분야 국제학술지 ‘핵산연구(Nucleic Acids Research)’의 지난 5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62.txt

제목: 당뇨 치료제 부작용 줄일 인슐린 대체물질 개발  
날짜: 20150816  
기자: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04941001  
본문: ㆍ류성호 포스텍 교수 연구팀<br/><br/>국내외 연구진의 공동연구로 당뇨 치료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인슐린 대체 물질이 개발됐다. 한국연구재단은 16일 류성호 포스텍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와 함께 암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인슐린 사용 부작용은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핵산물질(압타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br/><br/>압타머는 단백질과 결합해 상호작용을 억제하며 강하게 결합하는 특징을 가진 물질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인슐린 수용체에 강력하게 결합하는 압타머들을 발굴, 이 중에서 인슐린과 비슷하게 수용체를 활성화해 혈당을 낮추면서도 세포 증식은 촉진하지 않는 물질인 ‘IR-A48’을 찾아냈다. 현재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에 사용되는 인슐린은 세포증식을 과도하게 촉진해 암 발병이나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IR-A48은 인슐린과 달리 각종 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인슐린성장인자(IGF-1)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 특정 아미노산(티로신)을 활성화시켜 혈당 저하 기능은 유지하되 세포를 증식시키는 부작용은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류 교수는 “<span class='quot0'>본격적인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7~8년이 걸릴 것</span>”이라고 말했다. 연구의 결과는 핵산 분야 국제학술지 ‘핵산연구(Nucleic Acids Research)’의 지난 5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br/><br/><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63.txt

제목: 당뇨 치료제 부작용 줄일 인슐린 대체물질 개발  
날짜: 2015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1610018244285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류성호 포스텍 교수 연구팀</strong><!-- SUB\_TITLE\_END--><br/><br/>국내외 연구진의 공동연구로 당뇨 치료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인슐린 대체 물질이 개발됐다. 한국연구재단은 16일 류성호 포스텍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와 함께 암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인슐린 사용 부작용은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핵산물질(압타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br/><br/>압타머는 단백질과 결합해 상호작용을 억제하며 강하게 결합하는 특징을 가진 물질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인슐린 수용체에 강력하게 결합하는 압타머들을 발굴, 이 중에서 인슐린과 비슷하게 수용체를 활성화해 혈당을 낮추면서도 세포 증식은 촉진하지 않는 물질인 ‘IR-A48’을 찾아냈다. 현재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에 사용되는 인슐린은 세포증식을 과도하게 촉진해 암 발병이나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IR-A48은 인슐린과 달리 각종 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인슐린성장인자(IGF-1)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 특정 아미노산(티로신)을 활성화시켜 혈당 저하 기능은 유지하되 세포를 증식시키는 부작용은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류 교수는 “<span class='quot0'>본격적인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7~8년이 걸릴 것</span>”이라고 말했다. 연구의 결과는 핵산 분야 국제학술지 ‘핵산연구(Nucleic Acids Research)’의 지난 5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br/><br/><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64.txt

제목: 어느 여성판사 죽음에 관한 보고서  
날짜: 20150815  
기자: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04745679  
본문: ‘판사의 과로’ 법과 양심에 영향 없을까,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재판의 부실화 우려<br/><br/><br/>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방한 사흘째이던 지난 8월 5일. 대법원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강연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상고법원에 대한 지지를 받아낼 심산이었고, 판사들의 질문 내용과 순서까지 선정했다. 상고법원 방안은 대법원이 과다한 업무 때문에 이정표가 되는 판결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상고심을 나눠 하는 법원을 만들자는 것이다. 여든두 살의 긴즈버그는 꼿꼿한 자세로 감탄을 자아냈다. <br/><br/><br/><br/>인권에 관한 획기적 판결 꿈도 못 꿔<br/><br/>이날 같은 시각 서울남부지법 이모 판사가 영등포구 집에서 숨을 내쉬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쓰러졌다. 남편이 119구급대를 불러 근처 이대목동병원에 옮겼지만 이 판사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숨을 거뒀다. 검찰은 병원의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과로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결론 냈다. 서른일곱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아이가 순식간에 엄마를 잃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판사실에는 블라우스와 법복, 도장자국이 가득한 인주, 메모를 위한 뾰족한 연필과 지우개, ‘눈에 좋은 비타민’ 한 통이 남았다. <br/><br/>대법원에서 오후 5시에 시작된 강연에는 판사들이, 특히 여성 판사들이 많이 몰렸다. 유대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이중의 장벽을 뛰어넘은 세계적인 법조인에 대한 선망이었다. “<span class='quot0'>공부할 때는 육아를 통해 머리를 식힐 수 있었고, 육아가 힘들면 공부를 통해 휴식했다</span>”는 등의 얘기로 그의 지난날을 설명했다. 로스쿨 교수와 변호사로서 경력을 시작한 긴즈버그였고, 육아에 대한 미국 사회의 분위기도 달랐다. 그 자리를 지킨 한국 판사들에게 쉽게 와 닿지 않는 설명이었다. 그때 판사들의 카카오톡이 진동했다. ‘서울남부지법 이○○ 판사 과로로 사망.’ 판사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대강당 밖으로 나가는 이도 있었다. <br/><br/>긴즈버그는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동성애 결혼 합헌 결정은 하급심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span class='quot0'>연방대법원 이전에 동성애자에 대한 주거·고용차별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국민 인식이 바뀌었다.</span>” 판사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가장 빠른 시간에 기계처럼 처리하면서, 사건의 진척도를 보여주는 통계표를 안고 사는데, 무슨 인권을 생각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쓰나. 대법원 판례 따라가기도 벅찬 게 우리다.”<br/><br/>이날 이후 서울남부지법 판사들은 집단적인 우울상태에 빠져 있다. <br/><br/>“(이 판사가 숨지기 이틀 전) 오전에 남편이 법원에 전화해서 병가를 냈다. 사실 그때 알았어야 했다. 판사가 갑자기 병가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가족이 전화를 할 때는 이미 심상치 않았던 것이다.” 같은 법원 동료 판사의 설명이다.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돌려보자. 이번에는 연수원 동기인 다른 판사의 말이다. “친한 친구이고 같은 법원에 있는데도 두 달에 한 번 같이 밥 먹기가 힘들었다. 7월 초에 겨우 만났는데 유난히 몸이 안 좋다고 했다. 법원이 재판을 쉬는 7월 말~8월 초 휴정기에 검진을 받아봐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끝까지 기록을 붙잡고 있다가 실려서야 병원에 갔고, 돌아오지 못했다. <br/><br/>“판사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다는 말이 어디 나오겠느냐? 직장에 다니든 장사를 하든 모두가 고단하고 힘들다. 한국 사회가 비정상이다. 괜히 ‘그래도 너희들은 판사잖냐. 일하기 싫으면 개업해서 돈 벌어라. 시켜만 주면 판사 할 사람 많다.’ 이런 소리나 들을 거다.” 판사들은 아무 말 못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br/><br/><br/><br/>전국 판사 1인당 사건 연간 579건 <br/><br/>판사들의 업무강도를 밖에서는 알기 힘들다. 비교대상도 없어 수치로 표현하기도 어렵다.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자의 설명이다. “재판이 보기에는 험하지도 않고, 줄곧 사무실에만 있으니 건강하리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상황을 보자면 이렇다. 전국의 판사 2800여명 가운데 40대 이하 젊은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 그런데도 여기저기에서 사고가 난다. 얼마 전에도 지방에서 부장판사가 과로로 숨졌고, 또 다른 부장판사는 뇌출혈로 투병 중이다. 연구관 가운데 입원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지금도 암 같은 병을 얻어 모금을 하는 법원이 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경력에 장애가 될까봐 말 안하고 참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전국 판사의 1인당 한 해 사건 처리건수는 2013년 기준으로 579건이다. <br/><br/>판사들의 살인적인 업무량은 재판의 부실화와 시각의 보수화로 이어진다.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와 달리 다수결로 선출하지 않는다. 이유는 다수가 대변하지 않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건 처리에 급급해서는 소수 보호에 대한 철학을 갖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가지고 있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불만을 가진 당사자들은 2심과 3심으로 상소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된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업무량에 시달리는 판사는 노동사건에서 보수적으로 바뀐다.” 서울남부지법 판사들의 설명이다. 결국 판사들의 과로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데 인색한 편이다. <br/><br/>판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산더미 같은 업무들을 묵묵히 처리하고 있을까. 이들이라고 통조림 같은 판결문을 찍어내려고 청춘을 바쳐 법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판사들은 어려서부터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다. 그러니 공부도 잘하고 했던 것이다. 남들과 비교해 조금이라도 뒤떨어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배석판사 시절에는 아무리 선고 건수가 많아도 판결문을 미처 못 썼다는 소리를 못한다. 부장에게 선고 연기를 하자고 말하면 무능한 사람이 된다고 믿는다. 단독판사가 되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통계를 보면서 남들과 비슷하게 가려고 한다. 해오던 속도가 있는데 이제 와서 늦출 수도 없다.” <br/><br/>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해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현직판사의 이야기다. “대학입시 준비, 사법시험 공부, 사법연수원 시험을 거쳐 왔다. 돌이켜보면 지금 판사 시절이 가장 힘들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등학교 3학년 때보다 강도가 높다. 지금 법원의 재판은 머리가 아주 좋고, 체력이 충분히 강하고, 일처리가 성실한 사람을 기준으로 가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모자라면 바로 뒤처지는 구조다.” 법원에 다양한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간다고 해도 버티기 힘든 이유다. “쳇바퀴 돌 듯 사건을 처리한다.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심지어 이런 시스템에서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기 어렵다. (남들이 뭐라고들 하는지 알지만) 변호사 개업도 어렵게 됐지 않느냐. 그냥 우리 나름의 소명으로 사는 것이다.” <br/><br/>박봉을 떼어 에누리 없이 세금을 치르는 시민으로서 이런 피로에 찌든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이다. 현재 하급심 재판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이미 판사들 사이에서는 오래 전부터 나온 것이다. 얼마 전 법원 내부게시판에서 한 판사는 “판사가 사망하거나 건강문제를 가질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다. 사건 나름의 진지한 고민을 담기보다는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무적 처리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늘 겪고, 해마다 나아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썼다. 이번 취재에 응한 많은 판사들은 “판사수를 늘리는 데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아마 전국 대부분의 판사들이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br/><br/><br/><br/>“<span class='quot0'>진지한 고민보다는 사무적 처리로</span>”<br/><br/>숨진 이 판사의 단짝 동료인 여성 판사의 이야기다.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판사는 나만의 양심과 노력으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판단하는 일이다. 그것이 주어진 소명이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짐이거나 스트레스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모두 일에 치여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다. 법관은, 재판은 죽을 정도로 과하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가 판사로서 행복하다고 했다. 도대체 뭐가 행복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 판사를 보내고 만 것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판사들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다.” <br/><br/>대법원은 대법관들의 업무가 과중해 시급히 상고법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일선의 판사들은 해마다 병을 얻어 법원을 떠나거나 숨을 거두고 있다. 숨진 이 판사는 기록을 가지고 퇴근하기 위해 배낭을 메고 다녔다. 더 이상은 그 무거운 기록들을 어깨에 올려놓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법관으로서의 소명도 끝이 났다.<br/><br/><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65.txt

제목: 어느 여성판사 죽음에 관한 보고서  
날짜: 201508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1510018244131  
본문: <div style='color:#2c75ff; font-family:gulim;font-weight:bold;'>‘판사의 과로’ 법과 양심에 영향 없을까,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재판의 부실화 우려<br/></div><br/><br/>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방한 사흘째이던 지난 8월 5일. 대법원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강연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상고법원에 대한 지지를 받아낼 심산이었고, 판사들의 질문 내용과 순서까지 선정했다. 상고법원 방안은 대법원이 과다한 업무 때문에 이정표가 되는 판결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상고심을 나눠 하는 법원을 만들자는 것이다. 여든두 살의 긴즈버그는 꼿꼿한 자세로 감탄을 자아냈다. <br/><br/><br/><br/><strong>인권에 관한 획기적 판결 꿈도 못 꿔<br/><br/></strong>이날 같은 시각 서울남부지법 이모 판사가 영등포구 집에서 숨을 내쉬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쓰러졌다. 남편이 119구급대를 불러 근처 이대목동병원에 옮겼지만 이 판사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숨을 거뒀다. 검찰은 병원의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과로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결론 냈다. 서른일곱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아이가 순식간에 엄마를 잃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판사실에는 블라우스와 법복, 도장자국이 가득한 인주, 메모를 위한 뾰족한 연필과 지우개, ‘눈에 좋은 비타민’ 한 통이 남았다. <br/><br/>대법원에서 오후 5시에 시작된 강연에는 판사들이, 특히 여성 판사들이 많이 몰렸다. 유대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이중의 장벽을 뛰어넘은 세계적인 법조인에 대한 선망이었다. “<span class='quot0'>공부할 때는 육아를 통해 머리를 식힐 수 있었고, 육아가 힘들면 공부를 통해 휴식했다</span>”는 등의 얘기로 그의 지난날을 설명했다. 로스쿨 교수와 변호사로서 경력을 시작한 긴즈버그였고, 육아에 대한 미국 사회의 분위기도 달랐다. 그 자리를 지킨 한국 판사들에게 쉽게 와 닿지 않는 설명이었다. 그때 판사들의 카카오톡이 진동했다. ‘서울남부지법 이○○ 판사 과로로 사망.’ 판사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대강당 밖으로 나가는 이도 있었다. <br/><br/>긴즈버그는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동성애 결혼 합헌 결정은 하급심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span class='quot0'>연방대법원 이전에 동성애자에 대한 주거·고용차별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국민 인식이 바뀌었다.</span>” 판사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가장 빠른 시간에 기계처럼 처리하면서, 사건의 진척도를 보여주는 통계표를 안고 사는데, 무슨 인권을 생각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쓰나. 대법원 판례 따라가기도 벅찬 게 우리다.”<br/><br/>이날 이후 서울남부지법 판사들은 집단적인 우울상태에 빠져 있다. <br/><br/>“(이 판사가 숨지기 이틀 전) 오전에 남편이 법원에 전화해서 병가를 냈다. 사실 그때 알았어야 했다. 판사가 갑자기 병가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가족이 전화를 할 때는 이미 심상치 않았던 것이다.” 같은 법원 동료 판사의 설명이다.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돌려보자. 이번에는 연수원 동기인 다른 판사의 말이다. “친한 친구이고 같은 법원에 있는데도 두 달에 한 번 같이 밥 먹기가 힘들었다. 7월 초에 겨우 만났는데 유난히 몸이 안 좋다고 했다. 법원이 재판을 쉬는 7월 말~8월 초 휴정기에 검진을 받아봐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끝까지 기록을 붙잡고 있다가 실려서야 병원에 갔고, 돌아오지 못했다. <br/><br/>“판사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다는 말이 어디 나오겠느냐? 직장에 다니든 장사를 하든 모두가 고단하고 힘들다. 한국 사회가 비정상이다. 괜히 ‘그래도 너희들은 판사잖냐. 일하기 싫으면 개업해서 돈 벌어라. 시켜만 주면 판사 할 사람 많다.’ 이런 소리나 들을 거다.” 판사들은 아무 말 못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br/><br/><br/><br/><strong>전국 판사 1인당 사건 연간 579건 <br/><br/></strong>판사들의 업무강도를 밖에서는 알기 힘들다. 비교대상도 없어 수치로 표현하기도 어렵다.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자의 설명이다. “재판이 보기에는 험하지도 않고, 줄곧 사무실에만 있으니 건강하리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상황을 보자면 이렇다. 전국의 판사 2800여명 가운데 40대 이하 젊은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 그런데도 여기저기에서 사고가 난다. 얼마 전에도 지방에서 부장판사가 과로로 숨졌고, 또 다른 부장판사는 뇌출혈로 투병 중이다. 연구관 가운데 입원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지금도 암 같은 병을 얻어 모금을 하는 법원이 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경력에 장애가 될까봐 말 안하고 참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전국 판사의 1인당 한 해 사건 처리건수는 2013년 기준으로 579건이다. <br/><br/>판사들의 살인적인 업무량은 재판의 부실화와 시각의 보수화로 이어진다.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와 달리 다수결로 선출하지 않는다. 이유는 다수가 대변하지 않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건 처리에 급급해서는 소수 보호에 대한 철학을 갖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가지고 있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불만을 가진 당사자들은 2심과 3심으로 상소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된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업무량에 시달리는 판사는 노동사건에서 보수적으로 바뀐다.” 서울남부지법 판사들의 설명이다. 결국 판사들의 과로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데 인색한 편이다. <br/><br/>판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산더미 같은 업무들을 묵묵히 처리하고 있을까. 이들이라고 통조림 같은 판결문을 찍어내려고 청춘을 바쳐 법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판사들은 어려서부터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다. 그러니 공부도 잘하고 했던 것이다. 남들과 비교해 조금이라도 뒤떨어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배석판사 시절에는 아무리 선고 건수가 많아도 판결문을 미처 못 썼다는 소리를 못한다. 부장에게 선고 연기를 하자고 말하면 무능한 사람이 된다고 믿는다. 단독판사가 되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통계를 보면서 남들과 비슷하게 가려고 한다. 해오던 속도가 있는데 이제 와서 늦출 수도 없다.” <br/><br/>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해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현직판사의 이야기다. “대학입시 준비, 사법시험 공부, 사법연수원 시험을 거쳐 왔다. 돌이켜보면 지금 판사 시절이 가장 힘들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등학교 3학년 때보다 강도가 높다. 지금 법원의 재판은 머리가 아주 좋고, 체력이 충분히 강하고, 일처리가 성실한 사람을 기준으로 가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모자라면 바로 뒤처지는 구조다.” 법원에 다양한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간다고 해도 버티기 힘든 이유다. “쳇바퀴 돌 듯 사건을 처리한다.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심지어 이런 시스템에서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기 어렵다. (남들이 뭐라고들 하는지 알지만) 변호사 개업도 어렵게 됐지 않느냐. 그냥 우리 나름의 소명으로 사는 것이다.” <br/><br/>박봉을 떼어 에누리 없이 세금을 치르는 시민으로서 이런 피로에 찌든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이다. 현재 하급심 재판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이미 판사들 사이에서는 오래 전부터 나온 것이다. 얼마 전 법원 내부게시판에서 한 판사는 “판사가 사망하거나 건강문제를 가질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다. 사건 나름의 진지한 고민을 담기보다는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무적 처리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늘 겪고, 해마다 나아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썼다. 이번 취재에 응한 많은 판사들은 “판사수를 늘리는 데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아마 전국 대부분의 판사들이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br/><br/><br/><br/><strong>“진지한 고민보다는 사무적 처리로”<br/><br/></strong>숨진 이 판사의 단짝 동료인 여성 판사의 이야기다.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판사는 나만의 양심과 노력으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판단하는 일이다. 그것이 주어진 소명이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짐이거나 스트레스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모두 일에 치여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다. 법관은, 재판은 죽을 정도로 과하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가 판사로서 행복하다고 했다. 도대체 뭐가 행복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 판사를 보내고 만 것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판사들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다.” <br/><br/>대법원은 대법관들의 업무가 과중해 시급히 상고법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일선의 판사들은 해마다 병을 얻어 법원을 떠나거나 숨을 거두고 있다. 숨진 이 판사는 기록을 가지고 퇴근하기 위해 배낭을 메고 다녔다. 더 이상은 그 무거운 기록들을 어깨에 올려놓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법관으로서의 소명도 끝이 났다.<br/><br/><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66.txt

제목: [건강 단신]기능의학으로 난치병 해독… 이재철 원장 ‘내 몸의 슈퍼닥터…’  
날짜: 2015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14100000043  
본문: 증상 치료가 아닌 병의 원인에 주목하는 의학분야를 ‘기능의학’이라고 한다. 대한기능의학회 이재철 홍보부회장(반에이치의원 대표원장)이 환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능의학’을 쉽게 풀어 쓴 <내 몸의 슈퍼닥터를 만나자>(메디파크)를 펴냈다. 기능의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몸의 ‘내적 치유력’이다. 대부분의 질병은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오염, 잘못된 생활습관, 독소, 염증 등 몸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 이 책은 대사증후군, 자가면역질환, 암 등 난치병을 기능의학으로 대처하는 법을 알려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67.txt

제목: [새 책]기능의학과 내적치유력 통해 난치병 해결방안 제시  
날짜: 20150812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03944672  
본문: 증상 치료가 아닌 병의 원인에 주목하는 의학분야를 ‘기능의학’이라고 한다. 대한기능의학회 이재철 홍보부회장(반에이치의원 대표원장)이 환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능의학’을 쉽게 풀어 쓴 <내 몸의 슈퍼닥터를 만나자>(메디파크)를 펴냈다.<br/><br/>기능의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몸의 ‘내적 치유력’이다. 대부분의 질병은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오염, 잘못된 생활습관, 독소, 염증 등 몸의 불균형 상태 때문에 발생한다.<br/><br/><br/><br/>이 책은 대사증후군, 자가면역질환, 암 등 난치병을 기능의학으로 대처하는 법을 알려준다. 무병장수를 위해 뇌해독, 림프해독, 장해독, 폐해독, 간해독, 혈액해독, 혈관해독 등 몸의 해독을 강조하고 있다.<br/><br/>당뇨 고혈압 등 만성병에다 아직도 정확한 원인조차 모르는 자가면역질환 등 고질병이 현대인의 삶을 갉아먹는 데도 의학은 상당부분에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증상 치료 만으로는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 기능의학의 입장이다. <br/><br/>일반인들에 아직은 낯선 용어인 기능의학은 증상 치료가 아닌, 환자와 질병의 원인에 눈을 돌리는 발상 전환을 주문한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자는 얘기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68.txt

제목: [새 책]기능의학과 내적치유력 통해 난치병 해결방안 제시  
날짜: 201508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1210018219315  
본문: 증상 치료가 아닌 병의 원인에 주목하는 의학분야를 ‘기능의학’이라고 한다. 대한기능의학회 이재철 홍보부회장(반에이치의원 대표원장)이 환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능의학’을 쉽게 풀어 쓴 <내 몸의 슈퍼닥터를 만나자>(메디파크)를 펴냈다.<br/><br/>기능의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몸의 ‘내적 치유력’이다. 대부분의 질병은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오염, 잘못된 생활습관, 독소, 염증 등 몸의 불균형 상태 때문에 발생한다.<br/><br/><br/><br/>이 책은 대사증후군, 자가면역질환, 암 등 난치병을 기능의학으로 대처하는 법을 알려준다. 무병장수를 위해 뇌해독, 림프해독, 장해독, 폐해독, 간해독, 혈액해독, 혈관해독 등 몸의 해독을 강조하고 있다.<br/><br/>당뇨 고혈압 등 만성병에다 아직도 정확한 원인조차 모르는 자가면역질환 등 고질병이 현대인의 삶을 갉아먹는 데도 의학은 상당부분에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증상 치료 만으로는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 기능의학의 입장이다. <br/><br/>일반인들에 아직은 낯선 용어인 기능의학은 증상 치료가 아닌, 환자와 질병의 원인에 눈을 돌리는 발상 전환을 주문한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자는 얘기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69.txt

제목: ‘중국군 부패 몸통’ 구쥔산 사형유예 2년  
날짜: 20150811  
기자: 오관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11100000158  
본문: 중국 군부 사상 최악의 비리 군인으로 꼽히는 구쥔산(谷俊山) 전 중국 인민해방군 총후근부(總後勤部·군수업무 담당) 부부장(중장·사진)에게 사형유예 2년이 선고됐다.<br/><br/>중국 군사법원은 1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구쥔산에게 횡령, 뇌물수수, 공금유용, 뇌물제공,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군사법원은 그의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개인 재산을 몰수하는 한편 중장 계급도 박탈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br/>사형유예 2년은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제도다. 부패 혐의로 낙마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의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도 2012년 영국인 사업가를 독살한 혐의로 사형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br/>2012년 1월 부패 혐의로 낙마해 조사를 받아온 구쥔산은 지난해 3월 군 검찰에 의해 정식으로 기소됐다. 부패 혐의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던 중 암으로 숨진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다. 중화권 매체들은 그가 부정부패로 축적한 재산이 300억위안(약 5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br/>구쥔산은 2001년 중국군의 군수·보급·후생 등을 담당하는 총후근부에 들어와 승승장구했다. 군의 인프라 건설과 토지 관리 권한을 이용해 큰돈을 챙겼다. 그의 고향 집에서 순금 마오쩌둥(毛澤東) 동상과 고급 마오타이(茅台)주 1만여병 등이 발견되면서 중국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70.txt

제목: ‘중국군 부패 몸통’ 구쥔산 사형유예 2년  
날짜: 20150810  
기자: 베이징 | 오관철 특파원 ok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03431840  
본문: ㆍ군사법원 선고… 정치권리 종신 박탈·개인 재산 몰수도<br/><br/>중국 군부 사상 최악의 비리 군인으로 꼽히는 구쥔산(谷俊山) 전 중국 인민해방군 총후근부(總後勤部·군수업무 담당) 부부장(중장·사진)에게 사형유예 2년이 선고됐다.<br/><br/><br/>중국 군사법원은 1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구쥔산에게 횡령, 뇌물수수, 공금유용, 뇌물제공,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군사법원은 그의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개인 재산을 몰수하는 한편 중장 계급도 박탈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br/><br/>사형유예 2년은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제도다. 부패 혐의로 낙마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의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도 2012년 영국인 사업가를 독살한 혐의로 사형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br/><br/>2012년 1월 부패 혐의로 낙마해 조사를 받아온 구쥔산은 지난해 3월 군 검찰에 의해 정식으로 기소됐다. 부패 혐의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던 중 암으로 숨진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다. 중화권 매체들은 그가 부정부패로 축적한 재산이 300억위안(약 5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br/><br/>구쥔산은 2001년 중국군의 군수·보급·후생 등을 담당하는 총후근부에 들어와 승승장구했다. 군의 인프라 건설과 토지 관리 권한을 이용해 큰돈을 챙겼다. 그의 고향 집에서 순금 마오쩌둥(毛澤東) 동상과 고급 마오타이(茅台)주 1만여병 등이 발견되면서 중국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br/><br/><베이징 | 오관철 특파원 ok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71.txt

제목: [뉴스 깊이보기]콜라는 비만과 상관 없다? 미국의 '수상한 과학자들'  
날짜: 20150810  
기자: 구정은 기자 ttalgi21@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03157961  
본문: 설탕이 잔뜩 들어간 탄산음료는 비만과 관련 없다? 최근 미국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얘기들이 널리 유통됐다. 학술지에는 “비만을 막으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며 설탕·탄산음료·정크푸드 등 식생활 문제를 뺀 연구논문들이 실렸고, ‘비영리기구’에 소속돼 있다는 일군의 과학자들이 나서서 비만의 해법으로 운동을 강조하는 발언들을 내놨다.<br/><br/>그런데 이 과학자들 뒤에 코카콜라의 자금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뉴욕타임스는 9일 “<span class='quot0'>비만에 대한 ‘과학적 해법’이라며 줄줄이 나왔던 연구들 뒤에 코카콜라의 연구비 지원이 있었다</span>”고 보도했다. 코카콜라가 과학자들을 동원, 학술지들에 논문을 싣거나 학회에서 발표하게 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유통시키게 지원했다는 것이다.<br/><br/> ■돈 받고 ‘콜라 무죄’ 주장한 과학자들<br/>과학자들이 주장한 ‘해법’은 새로울 것이 없다. “<span class='quot1'>칼로리 걱정을 덜 하고 운동을 더 하면 비만 걱정은 없다</span>”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콜라에 잔뜩 들어있는 설탕 과다섭취 문제는 쏙 빠졌다. 이런 ‘연구’를 내놓은 과학자들은 대개 ‘글로벌에너지균형네트워크’라는 이름의 신생 비영리기구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다. 이 기구의 부회장인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교수 스티븐 블레어는 “<span class='quot2'>미디어와 과학저널들은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문제라며 패스트푸드와 청량음료 탓만 하는데 그런 식음료가 비만이 주범이라는 증거는 없다</span>”고 주장했다. <br/><br/><br/><br/>그런데 이 ‘네트워크’에 관여한 과학자들이 소속된 대학 2곳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코카콜라 측의 연구비 지원 사실을 실토했다. 블레어는 웨스트버지니아보건대학의 그레고리 핸드라는 과학자와 함께 지난해 1년 동안에만 150만달러(약 17억5000만원)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2008년 이후로 코카콜라로부터 400만달러를 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코카콜라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span class='quot3'>우리는 신체활동과 영양에 관한 전문가들과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span>”는 성명만 내놨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br/><br/>대기업에게 연구비를 받고 그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분야에서 기업에 유리한 연구결과를 내놓는 ‘수상한 과학’이 꼬리를 잡힌 건 처음이 아니다. 올 연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총회를 앞두고 미국에선 이른바 ‘기후변화 음모론’이 고개를 들었다. 기후변화는 △지구의 자연적인 순환에 따른 현상일 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기후변화가 그리 심각하지도 않은데 △환경론자들이 현실을 왜곡·과장하는 바람에 경제적 피해가 커진다는 주장이다. 일군의 과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내세우면 그걸 바탕으로 몇몇 정치인들은 환경 규제를 없애기 위한 입법활동에 들어간다.<br/><br/>지난 3월, 기후변화 음모론을 펼쳐온 한 미국 정치인의 배후가 들통나 거센 논란이 일었다. 짐 인호페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회의론자 중 한 명인데, 그가 영국 석유회사 BP로부터 선거자금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인호페가 단골로 인용한 과학자는 하버드-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 센터의 윌리 순 박사였다. 순은 “지구온난화는 인간이 아니라 태양 에너지 활동의 변동성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인호페는 순 박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구온난화는 사기극이란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br/><br/>인호페는 물론이고, 순 역시 기업들 돈을 받아왔다. 지난 2월 그린피스는 순이 지난 14년 동안 화석연료업계로부터 120만달러(약 13억3000만원) 이상의 돈을 받고 연구를 해왔다고 폭로했다. 기업-과학자-정치인으로 이어지는 ‘반 환경 커넥션’이 드러난 것이다.<br/><br/> ■불리한 연구논문 ‘철회’ 압력도<br/>‘담배가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다’, ‘유전자조작(GM) 식품이 유해하다는 증거는 없다’, ‘인간이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다’는 식의 수상한 과학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담배회사 편에 서서 암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던 몇몇 과학자들이 순식간에 기후변화로 갈아타 석유회사들 편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 캘리포니아대학의 나오미 오레스케스 교수는 <의혹을 팝니다>라는 저서에서 프레드 싱어 등 유명 과학자들이 기업의 용병이 된 사례를 파헤쳤다. <br/><br/>싱어 같은 과학자들은 원래 로켓·핵물리 전공자들인데 갑자기 건강 문제로 전공을 바꿨다. 담배회사들이 암에 걸린 흡연자들로부터 줄줄이 거액의 소송을 당하던 시기에, 이들은 담배와 암이 관련없다고 주장하며 담배회사들 편을 들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무리였고, 담배회사들은 잇달아 패소했다. <br/><br/>그러자 같은 과학자들이 그 다음에는 기후변화로 무대를 옮겨 지구온난화를 부인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는 명백한 현실이 아닌 논란의 대상이라는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다. <br/><br/>불리한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논문이 철회되게 압력을 가하는 것도 기업들이 과학을 왜곡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오레스케스의 책에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한 과학자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압력 실태가 생생히 묘사돼 있다. <br/><br/>대표적인 사례는 멕시코의 GM 옥수수 ‘변이’에 대한 것이었다. 2001년 멕시코 환경부는 GM 옥수수를 재배하지 않은 오아하카 지역에서 GM 옥수수의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다. GM 유전자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연으로 전파됐음을 보여준 첫 사례였다. 멕시코의 식물학자 이그자치오 차펠라는 연구결과를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그런데 이듬해 네이처는 이 논문을 철회하면서, 차펠라의 논문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 2편을 나란히 실었다.<br/><br/>차펠라를 앞장서서 비판했던 ‘과학자들’은 메리 머피라는 인물과 앤두라 스메태섹이라는 인물이었다. 영국의 GM 반대 운동가들은 이들이 실존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생명공학회사 몬샌토와 계약한 한 컴퓨터장비회사에서 차펠라를 비난하는 메일들이 발송됐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네이처에 차펠라 비판 논문을 실은 과학자들은 1990년대 말 스위스 생명공학회사 노바티스와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의 파트너십을 추진했던 인물들이었다.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네이처마저 기업의 요구에 굴복, 논문을 철회시키고 반박글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다.<br/><br/><br/><br/>▶[지구의 밥상] 나우루의 한 끼엔 햄·과자·콜라뿐… 병들어 가는 사람들 <br/><br/>▶[관련글] ‘온난화 불신론’ 드러난 배후... 기후변화회의 앞두고 판치는 ‘기업의 용병’<br/><br/><구정은 기자 ttalgi21@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72.txt

제목: [뉴스 깊이보기]콜라는 비만과 상관 없다? 미국의 '수상한 과학자들'  
날짜: 201508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1010018189472  
본문: 설탕이 잔뜩 들어간 탄산음료는 비만과 관련 없다? 최근 미국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얘기들이 널리 유통됐다. 학술지에는 “비만을 막으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며 설탕·탄산음료·정크푸드 등 식생활 문제를 뺀 연구논문들이 실렸고, ‘비영리기구’에 소속돼 있다는 일군의 과학자들이 나서서 비만의 해법으로 운동을 강조하는 발언들을 내놨다.<br/><br/>그런데 이 과학자들 뒤에 코카콜라의 자금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뉴욕타임스는 9일 “<span class='quot0'>비만에 대한 ‘과학적 해법’이라며 줄줄이 나왔던 연구들 뒤에 코카콜라의 연구비 지원이 있었다</span>”고 보도했다. 코카콜라가 과학자들을 동원, 학술지들에 논문을 싣거나 학회에서 발표하게 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유통시키게 지원했다는 것이다.<br/><br/><div style='color:#2c75ff; font-family:gulim;font-weight:bold;'>■돈 받고 ‘콜라 무죄’ 주장한 과학자들<br/></div>과학자들이 주장한 ‘해법’은 새로울 것이 없다. “<span class='quot1'>칼로리 걱정을 덜 하고 운동을 더 하면 비만 걱정은 없다</span>”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콜라에 잔뜩 들어있는 설탕 과다섭취 문제는 쏙 빠졌다. 이런 ‘연구’를 내놓은 과학자들은 대개 ‘글로벌에너지균형네트워크’라는 이름의 신생 비영리기구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다. 이 기구의 부회장인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교수 스티븐 블레어는 “<span class='quot2'>미디어와 과학저널들은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문제라며 패스트푸드와 청량음료 탓만 하는데 그런 식음료가 비만이 주범이라는 증거는 없다</span>”고 주장했다. <br/><br/><br/><br/>그런데 이 ‘네트워크’에 관여한 과학자들이 소속된 대학 2곳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코카콜라 측의 연구비 지원 사실을 실토했다. 블레어는 웨스트버지니아보건대학의 그레고리 핸드라는 과학자와 함께 지난해 1년 동안에만 150만달러(약 17억5000만원)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2008년 이후로 코카콜라로부터 400만달러를 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코카콜라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span class='quot3'>우리는 신체활동과 영양에 관한 전문가들과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span>”는 성명만 내놨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br/><br/>대기업에게 연구비를 받고 그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분야에서 기업에 유리한 연구결과를 내놓는 ‘수상한 과학’이 꼬리를 잡힌 건 처음이 아니다. 올 연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총회를 앞두고 미국에선 이른바 ‘기후변화 음모론’이 고개를 들었다. 기후변화는 △지구의 자연적인 순환에 따른 현상일 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기후변화가 그리 심각하지도 않은데 △환경론자들이 현실을 왜곡·과장하는 바람에 경제적 피해가 커진다는 주장이다. 일군의 과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내세우면 그걸 바탕으로 몇몇 정치인들은 환경 규제를 없애기 위한 입법활동에 들어간다.<br/><br/>지난 3월, 기후변화 음모론을 펼쳐온 한 미국 정치인의 배후가 들통나 거센 논란이 일었다. 짐 인호페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회의론자 중 한 명인데, 그가 영국 석유회사 BP로부터 선거자금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인호페가 단골로 인용한 과학자는 하버드-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 센터의 윌리 순 박사였다. 순은 “지구온난화는 인간이 아니라 태양 에너지 활동의 변동성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인호페는 순 박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구온난화는 사기극이란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br/><br/>인호페는 물론이고, 순 역시 기업들 돈을 받아왔다. 지난 2월 그린피스는 순이 지난 14년 동안 화석연료업계로부터 120만달러(약 13억3000만원) 이상의 돈을 받고 연구를 해왔다고 폭로했다. 기업-과학자-정치인으로 이어지는 ‘반 환경 커넥션’이 드러난 것이다.<br/><br/><div style='color:#2c75ff; font-family:gulim;font-weight:bold;'>■불리한 연구논문 ‘철회’ 압력도<br/></div>‘담배가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다’, ‘유전자조작(GM) 식품이 유해하다는 증거는 없다’, ‘인간이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다’는 식의 수상한 과학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담배회사 편에 서서 암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던 몇몇 과학자들이 순식간에 기후변화로 갈아타 석유회사들 편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 캘리포니아대학의 나오미 오레스케스 교수는 <의혹을 팝니다>라는 저서에서 프레드 싱어 등 유명 과학자들이 기업의 용병이 된 사례를 파헤쳤다. <br/><br/>싱어 같은 과학자들은 원래 로켓·핵물리 전공자들인데 갑자기 건강 문제로 전공을 바꿨다. 담배회사들이 암에 걸린 흡연자들로부터 줄줄이 거액의 소송을 당하던 시기에, 이들은 담배와 암이 관련없다고 주장하며 담배회사들 편을 들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무리였고, 담배회사들은 잇달아 패소했다. <br/><br/>그러자 같은 과학자들이 그 다음에는 기후변화로 무대를 옮겨 지구온난화를 부인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는 명백한 현실이 아닌 논란의 대상이라는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다. <br/><br/>불리한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논문이 철회되게 압력을 가하는 것도 기업들이 과학을 왜곡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오레스케스의 책에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한 과학자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압력 실태가 생생히 묘사돼 있다. <br/><br/>대표적인 사례는 멕시코의 GM 옥수수 ‘변이’에 대한 것이었다. 2001년 멕시코 환경부는 GM 옥수수를 재배하지 않은 오아하카 지역에서 GM 옥수수의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다. GM 유전자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연으로 전파됐음을 보여준 첫 사례였다. 멕시코의 식물학자 이그자치오 차펠라는 연구결과를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그런데 이듬해 네이처는 이 논문을 철회하면서, 차펠라의 논문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 2편을 나란히 실었다.<br/><br/>차펠라를 앞장서서 비판했던 ‘과학자들’은 메리 머피라는 인물과 앤두라 스메태섹이라는 인물이었다. 영국의 GM 반대 운동가들은 이들이 실존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생명공학회사 몬샌토와 계약한 한 컴퓨터장비회사에서 차펠라를 비난하는 메일들이 발송됐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네이처에 차펠라 비판 논문을 실은 과학자들은 1990년대 말 스위스 생명공학회사 노바티스와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의 파트너십을 추진했던 인물들이었다.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네이처마저 기업의 요구에 굴복, 논문을 철회시키고 반박글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다.<br/><br/><br/><br/>▶<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508022308355" target=\_blank>[지구의 밥상] 나우루의 한 끼엔 햄·과자·콜라뿐… 병들어 가는 사람들</a> <br/><br/>▶<a href="http://sogun77.khan.kr/454" target=\_blank>[관련글] ‘온난화 불신론’ 드러난 배후... 기후변화회의 앞두고 판치는 ‘기업의 용병’</a><br/><br/><구정은 기자 ttalgi21@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73.txt

제목: ‘중국군 부패 몸통’ 구쥔산 사형유예 2년  
날짜: 201508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1010018196653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군사법원 선고… 정치권리 종신 박탈·개인 재산 몰수도</strong><!-- SUB\_TITLE\_END--><br/><br/>중국 군부 사상 최악의 비리 군인으로 꼽히는 구쥔산(谷俊山) 전 중국 인민해방군 총후근부(總後勤部·군수업무 담당) 부부장(중장·사진)에게 사형유예 2년이 선고됐다.<br/><br/><br/>중국 군사법원은 1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구쥔산에게 횡령, 뇌물수수, 공금유용, 뇌물제공,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군사법원은 그의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개인 재산을 몰수하는 한편 중장 계급도 박탈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br/><br/>사형유예 2년은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제도다. 부패 혐의로 낙마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의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도 2012년 영국인 사업가를 독살한 혐의로 사형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br/><br/>2012년 1월 부패 혐의로 낙마해 조사를 받아온 구쥔산은 지난해 3월 군 검찰에 의해 정식으로 기소됐다. 부패 혐의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던 중 암으로 숨진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다. 중화권 매체들은 그가 부정부패로 축적한 재산이 300억위안(약 5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br/><br/>구쥔산은 2001년 중국군의 군수·보급·후생 등을 담당하는 총후근부에 들어와 승승장구했다. 군의 인프라 건설과 토지 관리 권한을 이용해 큰돈을 챙겼다. 그의 고향 집에서 순금 마오쩌둥(毛澤東) 동상과 고급 마오타이(茅台)주 1만여병 등이 발견되면서 중국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br/><br/><베이징 | 오관철 특파원 ok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74.txt

제목: 명인 이매방 별세… ‘천상의 춤꾼으로’  
날짜: 20150808  
기자: 김여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8100000037  
본문: ‘전통춤의 거목’ 이매방 명인이 7일 오전 9시쯤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8세. <br/>“<span class='quot0'>다시 태어나도 ‘춤추는 사람, 지금처럼 남자 무용가’로 태어나겠다.</span>” 우봉 이매방 명인은 전남 목포 출생으로 목포권번의 춤을 잇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97호 살풀이춤 예능보유자다. ‘구한말 이래 변질하지 않은 춤 원형’으로 꼽히며 전통춤을 지켜왔다. 호남춤을 무대에 걸맞게 양식화한 ‘호남춤의 명인’으로도 불린다.<br/>명인은 아흔을 바라보면서도 지난해까지 계속 무대에 섰다. 올해 하반기에도 공연이 예정돼 있었다. 고인은 생전에 한국춤의 매력을 “기와지붕이나 한복의 선처럼 곡선의 아름다움이 돋보이고 뭔가 찌르르하고, 요염하고, 이상야릇한 기운”이라고 표현했다.<br/>명인은 7세 때 목포 권번장의 권유로 권번학교에 들어가 춤을 배운 이후 춤 외길 인생을 살았다. 이대조, 이창조 선생에게 승무와 북놀이, 검무 등 춤의 기본기를 익히고 5년간 중국에 살면서 무용가 매난방에게 칼춤과 등불춤을 배웠다. 열다섯 살 때 우연히 판소리 명창 임방울의 공연에서 승무를 추면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br/>승무와 살풀이춤을 비롯해 입춤, 검무, 장검무, 장구춤, 사풍정감, 초립동, 승천무, 대감놀이, 기원무, 보렴무, 고무, 소고춤, 사랑가, 화랑도, 한량무, 신선무, 춘향전까지 19종의 춤을 췄다. 삼고무·오고무 등 북춤 고무, 검무, 기원무 등을 직접 창작했고 제자 200여명을 길러냈다.<br/>고인은 무대에 오를 때면 손수 만든 옷을 입었다. 제자들에게도 의상을 지어 입혔다. “<span class='quot0'>바느질로 인간문화재 하라면 쓰겄는디!</span>”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하루 세 갑 줄담배를 피우고, 술도 밤새 마셔야 직성이 풀리던 그였지만 70대에 암으로 위 대부분을 절제하고서는 술과 담배를 끊었다.<br/>유족으로는 부인 김명자씨와 딸 현주, 사위 이석열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10일 오전. (02)3410-3151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75.txt

제목: 명인 이매방 별세… ‘천상의 춤꾼으로’  
날짜: 20150807  
기자: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02546825  
본문: ㆍ승무·살풀이춤 예능보유자<br/><br/>‘전통춤의 거목’ 이매방 명인이 7일 오전 9시쯤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8세. <br/><br/><br/>“<span class='quot0'>다시 태어나도 ‘춤추는 사람, 지금처럼 남자 무용가’로 태어나겠다.</span>” 우봉 이매방 명인은 전남 목포 출생으로 목포권번의 춤을 잇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97호 살풀이춤 예능보유자다. ‘구한말 이래 변질하지 않은 춤 원형’으로 꼽히며 전통춤을 지켜왔다. 호남춤을 무대에 걸맞게 양식화한 ‘호남춤의 명인’으로도 불린다.<br/><br/>명인은 아흔을 바라보면서도 지난해까지 계속 무대에 섰다. 올해 하반기에도 공연이 예정돼 있었다. 고인은 생전에 한국춤의 매력을 “기와지붕이나 한복의 선처럼 곡선의 아름다움이 돋보이고 뭔가 찌르르하고, 요염하고, 이상야릇한 기운”이라고 표현했다.<br/><br/>명인은 7세 때 목포 권번장의 권유로 권번학교에 들어가 춤을 배운 이후 춤 외길 인생을 살았다. 이대조, 이창조 선생에게 승무와 북놀이, 검무 등 춤의 기본기를 익히고 5년간 중국에 살면서 무용가 매난방에게 칼춤과 등불춤을 배웠다. 열다섯 살 때 우연히 판소리 명창 임방울의 공연에서 승무를 추면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br/><br/><br/>승무와 살풀이춤을 비롯해 입춤, 검무, 장검무, 장구춤, 사풍정감, 초립동, 승천무, 대감놀이, 기원무, 보렴무, 고무, 소고춤, 사랑가, 화랑도, 한량무, 신선무, 춘향전까지 19종의 춤을 췄다. 삼고무·오고무 등 북춤 고무, 검무, 기원무 등을 직접 창작했고 제자 200여명을 길러냈다.<br/><br/>고인은 무대에 오를 때면 손수 만든 옷을 입었다. 제자들에게도 의상을 지어 입혔다. “<span class='quot0'>바느질로 인간문화재 하라면 쓰겄는디!</span>”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하루 세 갑 줄담배를 피우고, 술도 밤새 마셔야 직성이 풀리던 그였지만 70대에 암으로 위 대부분을 절제하고서는 술과 담배를 끊었다.<br/><br/>유족으로는 부인 김명자씨와 딸 현주, 사위 이석열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10일 오전. (02)3410-3151<br/><br/><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76.txt

제목: “암, 스트레스가 준 문명병… 극단적 성격 고치면 치유”  
날짜: 20150807  
기자: 김지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7100000087  
본문: “암은 몸보다도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문명병입니다. 치료를 위해선 환자의 고통과 어떻게 ‘소통’을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br/>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김정탁 교수(사진) 연구팀은 지난달 31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폐막한 세계커뮤니케이션학회(WCA) 콘퍼런스에서 ‘암과 동아시아 전통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br/><br/>WCA는 효과적인 소통 등을 목표로 활동하는 다국적 비영리 학술단체로, 2년마다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김 교수는 유불선의 사유, 그 중에서도 장자(莊子)의 성심(成心)과 허심(虛心), 유대(有待)와 무대(無待)의 관점에서 암의 발생원인과 치료방법을 찾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커뮤니케이션이 ‘사람이 환경과 교류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면, 암환자도 암세포라는 ‘상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br/>김 교수팀은 암을 성공적으로 완치했거나 호전되고 있는 상태의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 중 절반가량인 10명은 암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 “극단적인 성격을 버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을 꼽았다. 이들은 암에 대해서도 무조건 없애버려야 할 ‘악(惡)’이 아닌 ‘공생하는 관계’라고 인식하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br/>논문 인터뷰에 등장하는 ㄱ씨(43·대장암 2기)는 “내 경우 암 발생 이유의 60~70%는 그릇된 성격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 신체의 다른 곳에서 암 재발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한다”며 “암도 하나의 변종세포이지만 자신의 몸 일부임을 인정하고 동고동락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br/>이들은 타인의 시선, 평가 등을 신경쓰기보다는 본인의 행복, 건강에 초점을 맞췄고, 암을 극복한 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ㄴ씨(58·자궁암 3기)는 “(그간) 아들과 남편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아왔다”며 “암 수술을 하고 나서 힘든 몸을 이끌고 남미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을 다니면서 ‘나를 위해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야겠다’는 쪽으로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말했다.<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호전된 환자들 중 다수가) 과거엔 ‘나’와 ‘암’을 분리해 ‘나쁜 암’을 몸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식으로 인식했지만, 그런 인식을 지울수록 암 치료에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span>”며 “<span class='quot0'>기의와 기표가 만날 때 다양한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노자의 이론처럼 암 치료에 있어서도 ‘암=죽음’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날 때 치유가 가능할 수 있다</span>”고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77.txt

제목: [건강]웃음이 보약… 자존감 높이는 웃음요법, 한 번 참여로도 효과  
날짜: 201508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7100000053  
본문: ‘일노일로 일소일소(一怒一老 一笑一少)’라는 격언이 있다. 한 번 화내면 한 살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살 젊어진다는 얘기다.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1000가지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라고 갈파했다. 염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도 “<span class='quot0'>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span>”고 역설했다. 웃음이 곧 건강과 행복의 원천임을 말해주는 대목들이다.<br/>이러한 웃음의 효과를 질병 치료에 접목한 것이 ‘웃음요법’이다. 인간의 내면적인 자가 치유능력과 자생능력을 키우도록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불안과 긴장, 우울, 스트레스, 외로움 등을 감소시킨다.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통증, 순환기계, 호흡기계, 면역계, 스트레스 반응, 혈당수치 등 다방면에 유익한 효과가 입증됐다.<br/><br/>웃음의 다양한 효과가 알려지면서 웃음요법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상자가 능동적으로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화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웃음요법을 시행한다. <br/>매주 수요일 ‘신나는 웃음교실’을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연구팀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에게 웃음요법을 시행하고 심리적 효과를 측정한 결과, 우울·분노 등 부정적 기분상태가 88% 줄었다. <br/>연구팀이 진행한 웃음요법은 3일간 매일 60분 진행됐으며, 약 10분 동안 웃음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교육한 뒤 40분 동안 다양한 신체활동과 함께 크게 소리를 내어 15초 이상 웃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10분간은 서로 느낀 감정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주어 웃음요법 효과의 극대화를 꾀했다<표 참조>.<br/>40대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웃음요법,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웃음요법 연구결과에서는 단 1회의 웃음요법 프로그램 참여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났다. 이 같은 웃음요법은 암환자 등 만성 질환자들과 더불어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럿이 함께하면 금상첨화다. 혼자서 해보는 것도 좋은 효과를 준다. 폭염과 열대야에 지친 심신을 추스르는 데 적용해봄직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78.txt

제목: 명인 이매방 별세… ‘천상의 춤꾼으로’  
날짜: 201508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710018164453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승무·살풀이춤 예능보유자</strong><!-- SUB\_TITLE\_END--><br/><br/>‘전통춤의 거목’ 이매방 명인이 7일 오전 9시쯤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8세. <br/><br/><br/>“<span class='quot0'>다시 태어나도 ‘춤추는 사람, 지금처럼 남자 무용가’로 태어나겠다.</span>” 우봉 이매방 명인은 전남 목포 출생으로 목포권번의 춤을 잇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97호 살풀이춤 예능보유자다. ‘구한말 이래 변질하지 않은 춤 원형’으로 꼽히며 전통춤을 지켜왔다. 호남춤을 무대에 걸맞게 양식화한 ‘호남춤의 명인’으로도 불린다.<br/><br/>명인은 아흔을 바라보면서도 지난해까지 계속 무대에 섰다. 올해 하반기에도 공연이 예정돼 있었다. 고인은 생전에 한국춤의 매력을 “기와지붕이나 한복의 선처럼 곡선의 아름다움이 돋보이고 뭔가 찌르르하고, 요염하고, 이상야릇한 기운”이라고 표현했다.<br/><br/>명인은 7세 때 목포 권번장의 권유로 권번학교에 들어가 춤을 배운 이후 춤 외길 인생을 살았다. 이대조, 이창조 선생에게 승무와 북놀이, 검무 등 춤의 기본기를 익히고 5년간 중국에 살면서 무용가 매난방에게 칼춤과 등불춤을 배웠다. 열다섯 살 때 우연히 판소리 명창 임방울의 공연에서 승무를 추면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br/><br/><br/>승무와 살풀이춤을 비롯해 입춤, 검무, 장검무, 장구춤, 사풍정감, 초립동, 승천무, 대감놀이, 기원무, 보렴무, 고무, 소고춤, 사랑가, 화랑도, 한량무, 신선무, 춘향전까지 19종의 춤을 췄다. 삼고무·오고무 등 북춤 고무, 검무, 기원무 등을 직접 창작했고 제자 200여명을 길러냈다.<br/><br/>고인은 무대에 오를 때면 손수 만든 옷을 입었다. 제자들에게도 의상을 지어 입혔다. “<span class='quot0'>바느질로 인간문화재 하라면 쓰겄는디!</span>”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하루 세 갑 줄담배를 피우고, 술도 밤새 마셔야 직성이 풀리던 그였지만 70대에 암으로 위 대부분을 절제하고서는 술과 담배를 끊었다.<br/><br/>유족으로는 부인 김명자씨와 딸 현주, 사위 이석열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10일 오전. (02)3410-3151<br/><br/><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79.txt

제목: “암, 스트레스가 준 문명병… 극단적 성격 고치면 치유”  
날짜: 20150806  
기자: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02441739  
본문: ㆍ암 완치·호전 환자 19명 대상 ‘극복 계기’ 인터뷰 <br/>ㆍ김정탁 교수 연구팀, WCA서 최우수논문상 수상<br/><br/>“암은 몸보다도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문명병입니다. 치료를 위해선 환자의 고통과 어떻게 ‘소통’을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br/><br/>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김정탁 교수(사진) 연구팀은 지난달 31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폐막한 세계커뮤니케이션학회(WCA) 콘퍼런스에서 ‘암과 동아시아 전통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br/><br/><br/>WCA는 효과적인 소통 등을 목표로 활동하는 다국적 비영리 학술단체로, 2년마다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김 교수는 유불선의 사유, 그 중에서도 장자(莊子)의 성심(成心)과 허심(虛心), 유대(有待)와 무대(無待)의 관점에서 암의 발생원인과 치료방법을 찾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커뮤니케이션이 ‘사람이 환경과 교류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면, 암환자도 암세포라는 ‘상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br/><br/>김 교수팀은 암을 성공적으로 완치했거나 호전되고 있는 상태의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 중 절반가량인 10명은 암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 “극단적인 성격을 버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을 꼽았다. 이들은 암에 대해서도 무조건 없애버려야 할 ‘악(惡)’이 아닌 ‘공생하는 관계’라고 인식하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br/><br/>논문 인터뷰에 등장하는 ㄱ씨(43·대장암 2기)는 “내 경우 암 발생 이유의 60~70%는 그릇된 성격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 신체의 다른 곳에서 암 재발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한다”며 “암도 하나의 변종세포이지만 자신의 몸 일부임을 인정하고 동고동락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br/><br/>이들은 타인의 시선, 평가 등을 신경쓰기보다는 본인의 행복, 건강에 초점을 맞췄고, 암을 극복한 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ㄴ씨(58·자궁암 3기)는 “(그간) 아들과 남편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아왔다”며 “암 수술을 하고 나서 힘든 몸을 이끌고 남미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을 다니면서 ‘나를 위해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야겠다’는 쪽으로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말했다.<br/><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호전된 환자들 중 다수가) 과거엔 ‘나’와 ‘암’을 분리해 ‘나쁜 암’을 몸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식으로 인식했지만, 그런 인식을 지울수록 암 치료에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span>”며 “<span class='quot0'>기의와 기표가 만날 때 다양한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노자의 이론처럼 암 치료에 있어서도 ‘암=죽음’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날 때 치유가 가능할 수 있다</span>”고 했다.<br/><br/><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80.txt

제목: “극단적인 성격 고쳐서 암도 치유했어요”...성대 김정탁 교수 논문  
날짜: 20150806  
기자: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02252566  
본문: ‘극단적인 성격’을 고치는 것이 암 치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됐다.<br/><br/>6일 성균관대학교 측은 지난달 31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폐막한 세계커뮤니케이션학회(WCA·World Communication Association) 컨퍼런스에서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김정탁 교수 연구팀의 논문 “<span class='quot0'>암과 동아시아 전통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span>”이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WCA는 효과적인 소통의 개념을 보전 등을 목표로 활동하는 다국적 비영리 학술단체로, 2년마다 국제 컨벤션을 개최한다. <br/><br/>암 치료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대해 연구한 해당 논문에서는 암을 성공적으로 완치했거나 호전되고 있는 상태의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br/><br/>이들 중 절반 가량인 10명은 암을 성공적으로 극복해갈 수 있게 된 중요한 계기로 “극단적인 성격을 버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을 꼽았다. <br/><br/>이들은 암에 대해서도 무조건 없애버려야 할 ‘악(惡)’이 아닌 공생하는 관계라고 인식하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br/><br/>논문 인터뷰에 등장하는 ㄱ씨(48,신장암 2기)는 “모든 사물이 정확히 제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편한데 세 식구가 치약이나 손톱깎기 등을 쓰고 제자리에 놓지 않아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었다”며 “(하지만) 스스로를 위해, 암을 극복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br/><br/>ㄴ씨(43,대장암 2기)는 “내 경우 암 발생 이유의 60~70%는 그릇된 성격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 신체의 다른 곳에서 암 재발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한다”며 “암도 하나의 변종세포이지만 자신의 몸 일부임을 인정하고 함께 동고동락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br/><br/>이들은 타인의 시선, 평가 등을 신경쓰기보다는 본인의 행복, 건강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히려 암 극복 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진술하기도 했다.<br/><br/>병에 걸리기 전 평소 남의 판단에 대해 강박적으로 신경을 쓰며 살아온 ㄷ씨(51,폐암 2기)는 암이 오히려 인생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암 수술 후 주변사람들의 시비에 대해 신경을 끄고 내 건강만 생각하고 내 소리에 귀 기울이다보니 단순하게 마음을 비우고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br/><br/>ㄹ씨(58,자궁암 3기)는 “(그간) 아들과 남편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아왔다”며 “암 수술을 하고 나서 힘든 몸을 이끌고 남미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다니면서 ‘나를 위해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야겠다’는 쪽으로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말했다.<br/><br/>김 교수는 논문에서 “<span class='quot1'>(호전된 환자들 중 다수가) 과거엔 ‘나’와 ‘암’을 분리해 ‘나쁜 암’을 몸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식으로 인식했지만, 그런 인식을 지울 수록 암 치료에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span>”며 “<span class='quot1'>기의와 기표가 만날 때 다양한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노자의 이론처럼 암 치료에 있어서도 ‘암=죽음’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날 때 치유가 가능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81.txt

제목: “극단적인 성격 고쳐서 암도 치유했어요”...성대 김정탁 교수 논문  
날짜: 201508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610018158502  
본문: ‘극단적인 성격’을 고치는 것이 암 치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됐다.<br/><br/>6일 성균관대학교 측은 지난달 31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폐막한 세계커뮤니케이션학회(WCA·World Communication Association) 컨퍼런스에서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김정탁 교수 연구팀의 논문 “<span class='quot0'>암과 동아시아 전통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span>”이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br/><br/><br/><br/><br/><br/>WCA는 효과적인 소통의 개념을 보전 등을 목표로 활동하는 다국적 비영리 학술단체로, 2년마다 국제 컨벤션을 개최한다. <br/><br/>암 치료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대해 연구한 해당 논문에서는 암을 성공적으로 완치했거나 호전되고 있는 상태의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br/><br/>이들 중 절반 가량인 10명은 암을 성공적으로 극복해갈 수 있게 된 중요한 계기로 “극단적인 성격을 버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을 꼽았다. <br/><br/>이들은 암에 대해서도 무조건 없애버려야 할 ‘악(惡)’이 아닌 공생하는 관계라고 인식하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br/><br/>논문 인터뷰에 등장하는 ㄱ씨(48,신장암 2기)는 “모든 사물이 정확히 제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편한데 세 식구가 치약이나 손톱깎기 등을 쓰고 제자리에 놓지 않아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었다”며 “(하지만) 스스로를 위해, 암을 극복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br/><br/>ㄴ씨(43,대장암 2기)는 “내 경우 암 발생 이유의 60~70%는 그릇된 성격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 신체의 다른 곳에서 암 재발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한다”며 “암도 하나의 변종세포이지만 자신의 몸 일부임을 인정하고 함께 동고동락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br/><br/>이들은 타인의 시선, 평가 등을 신경쓰기보다는 본인의 행복, 건강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히려 암 극복 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진술하기도 했다.<br/><br/>병에 걸리기 전 평소 남의 판단에 대해 강박적으로 신경을 쓰며 살아온 ㄷ씨(51,폐암 2기)는 암이 오히려 인생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암 수술 후 주변사람들의 시비에 대해 신경을 끄고 내 건강만 생각하고 내 소리에 귀 기울이다보니 단순하게 마음을 비우고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br/><br/>ㄹ씨(58,자궁암 3기)는 “(그간) 아들과 남편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아왔다”며 “암 수술을 하고 나서 힘든 몸을 이끌고 남미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다니면서 ‘나를 위해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야겠다’는 쪽으로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말했다.<br/><br/>김 교수는 논문에서 “<span class='quot1'>(호전된 환자들 중 다수가) 과거엔 ‘나’와 ‘암’을 분리해 ‘나쁜 암’을 몸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식으로 인식했지만, 그런 인식을 지울 수록 암 치료에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span>”며 “<span class='quot1'>기의와 기표가 만날 때 다양한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노자의 이론처럼 암 치료에 있어서도 ‘암=죽음’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날 때 치유가 가능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82.txt

제목: “암, 스트레스가 준 문명병… 극단적 성격 고치면 치유”  
날짜: 201508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610018164306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암 완치·호전 환자 19명 대상 ‘극복 계기’ 인터뷰</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김정탁 교수 연구팀, WCA서 최우수논문상 수상</strong><!-- SUB\_TITLE\_END--><br/><br/>“암은 몸보다도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문명병입니다. 치료를 위해선 환자의 고통과 어떻게 ‘소통’을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br/><br/>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김정탁 교수(사진) 연구팀은 지난달 31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폐막한 세계커뮤니케이션학회(WCA) 콘퍼런스에서 ‘암과 동아시아 전통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br/><br/><br/>WCA는 효과적인 소통 등을 목표로 활동하는 다국적 비영리 학술단체로, 2년마다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김 교수는 유불선의 사유, 그 중에서도 장자(莊子)의 성심(成心)과 허심(虛心), 유대(有待)와 무대(無待)의 관점에서 암의 발생원인과 치료방법을 찾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커뮤니케이션이 ‘사람이 환경과 교류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면, 암환자도 암세포라는 ‘상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br/><br/>김 교수팀은 암을 성공적으로 완치했거나 호전되고 있는 상태의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 중 절반가량인 10명은 암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 “극단적인 성격을 버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을 꼽았다. 이들은 암에 대해서도 무조건 없애버려야 할 ‘악(惡)’이 아닌 ‘공생하는 관계’라고 인식하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br/><br/>논문 인터뷰에 등장하는 ㄱ씨(43·대장암 2기)는 “내 경우 암 발생 이유의 60~70%는 그릇된 성격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 신체의 다른 곳에서 암 재발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한다”며 “암도 하나의 변종세포이지만 자신의 몸 일부임을 인정하고 동고동락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br/><br/>이들은 타인의 시선, 평가 등을 신경쓰기보다는 본인의 행복, 건강에 초점을 맞췄고, 암을 극복한 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ㄴ씨(58·자궁암 3기)는 “(그간) 아들과 남편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아왔다”며 “암 수술을 하고 나서 힘든 몸을 이끌고 남미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을 다니면서 ‘나를 위해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야겠다’는 쪽으로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말했다.<br/><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호전된 환자들 중 다수가) 과거엔 ‘나’와 ‘암’을 분리해 ‘나쁜 암’을 몸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식으로 인식했지만, 그런 인식을 지울수록 암 치료에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span>”며 “<span class='quot0'>기의와 기표가 만날 때 다양한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노자의 이론처럼 암 치료에 있어서도 ‘암=죽음’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날 때 치유가 가능할 수 있다</span>”고 했다.<br/><br/><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83.txt

제목: 위암 수술 정현석, 시즌 첫 1군 엔트리 등록  
날짜: 201508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6100000033  
본문: “<span class='quot0'>지금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짜내서 운동해야죠.</span>”<br/><br/>시련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졌다. 지난해 말 위암 수술을 받은 한화 정현석(31)이 올 시즌 처음으로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br/><br/>한화는 5일 인천 SK전을 앞두고 정현석을 비롯해 허도환, 김회성을 올리면서 1군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정현석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br/><br/>정현석은 작년 12월 선수단 정기 검진에서 위암이 발견돼 수술대에 올랐다. 위의 3분의 2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 항암치료 없이 요양을 통해 건강을 회복, 약 8개월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 섰다. <br/><br/>정현석은 살이 이전보다 많이 빠졌으나 표정은 밝았다. 목소리도 씩씩했다. 그는 “내가 속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1군 복귀가)늦었다. 4월에는 재활군, 5월에는 육성군에 합류해 6월부터는 팀에 합류하고 싶었다”고 웃으면서 “다들 좋아졌다고 한다. 잠도 푹 자고, 좋은 것만 먹으니 더 오래 살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내가 아는 분들이나 모르는 분들 모두가 도와주셨다. 구단도 내가 조급해하지 않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재차 표현했다. <br/><br/>정현석은 수술 뒤 1월 중순부터는 아내와 함께 제주도와 강원도에서 치료에 전념하면서 조금씩 몸상태를 끌어올렸다. 이후 조금씩 개인 훈련을 시작해 4월3일 팀에 합류해 재활 단계를 밟았다. 5월 중순부터는 육성군에서 훈련했고, 이후 퓨처스리그에서 20경기를 뛰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47타수11안타(타율 0.234) 1홈런 7타점 6득점을 기록했다. 1군 등록에 하루 앞선 4일 LG전에서는 4타수3안타(2루타 2개) 1타점 1득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br/><br/>정현석은 “수술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걷는 것뿐이라 무기력감이 찾아왔다”며 힘들었던 투병 시간을 떠올리면서 “막상 이런 상황이 돼보니 그동안 내 곁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더욱 애틋해졌다. 와이프, 가족, 한화 이글스, 동료들, 팬들 모두에 소중함을 새삼 느꼈다”고 고백했다. 이어 자신과 같이 암 치료라는 힘든 시간을 겪는 이를 향해 “나를 통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희망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지금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짜내서 운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84.txt

제목: “매운 음식 자주 먹으면 조기사망 위험 낮아져”  
날짜: 20150805  
기자: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01805112  
본문: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매운 음식을 일주일에 3회 이상 먹으면 조기 사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br/>중국의학원과 하버드대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국제연구팀은 30∼79세 중국인 48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해 영국의학저널(BMJ)에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br/><br/>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1∼2번 매운 음식을 먹는 사람은 1번 미만으로 먹는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10% 낮았다. 3∼7번 먹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14% 낮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음주를 하는 사람은 매운 음식이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br/><br/>또 마른 고추보다는 신선한 고추가 암이나 심장질환, 당뇨병 사망 위험이 더 낮았다. 연구진은 “<span class='quot0'>신선한 고추에 캡사이신, 비타민C 등 생리활성물질이 더 풍부하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결과를 매운 음식 섭취 권고로 연결하기는 이르다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통계상의 경향을 파악한 것에 지나지 않아 매운 음식과 수명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혀내려면 좀 더 연구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니타 포루치 박사는 “<span class='quot1'>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매운 음식 자체인지 아니면 매운 음식을 먹는 사람의 다른 특성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1'>매운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망률을 직접 낮추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지표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span>”고 설명했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85.txt

제목: 국내 바이오기업 아벨리노랩, 다보스포럼 미래기술선도기업 "도약"  
날짜: 20150805  
기자: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01744254  
본문: 아벨리노랩(대표 이진)이 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해 2016년도 ‘미래기술 선도기업’(테크놀러지 파이오니어)으로 선정됐다. 이 회사는 5일 낮 1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an class='quot0'>안과질환 유전자진단 전문 바이오기업으로 이 분야에서 국내 처음으로 영예를 안았다</span>”고 밝혔다.<br/><br/>다보스포럼(Davos Forum)으로 잘 알려진 WEF는 전 세계의 저명 기업인과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등이 모여 발족한 독립재단이다. 80여명의 전문 심사위원이 해마다 기술 선도기업을 선정, 발표한다. WEF는 5일 오후 1시, 제네바 본부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br/><br/><br/><br/>2008년 설립된 아벨리노랩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각막이상증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선도기업으로 관심을 모아왔다. 각막이상과 관련된 5가지 선천성 안과 유전질환을 동시에 진단하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각막이상 단일분야에 대해 전 세계적인 서비스를 한다.<br/><br/>각막이상증은 한번 진행되면 완치가 어렵고 심하면 실명에 이른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700~1000명 당 1명꼴로 발병하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각막에 상처나 충격이 가해지면 각막에 하얀 좁쌀같은 것이 다발적으로 생겨나 각막의 시야를 가리게 된다. 심하면 실명에 이른다. 따라서 각막을 깍아내는 라식수술 등 시력교정술을 받을 때 관련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은 평소 각막의 자외선 손상이나 충격, 상처 등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br/><br/>아벨리노랩 측은 “세브란스병원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8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중맹검 임상시험에서 이 진단기술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10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병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잘못 진단하거나, 병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찾아내지 못하는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는 뜻이다.아벨리노랩은 현재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에도 법인을 설립, 9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미국 실리콘벨리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CLIA(미국실험실표준인증)를 획득했다. 50개 나라와 서비스 공급계약을 맺었다.<br/><br/>이진 회장은 “<span class='quot1'>아벨리노랩은 49만여 건의 검사를 수행, 이 중에서 490여 건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찾아내 수많은 사람들을 실명으로부터 구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망막색소변성증, 녹내장, 황반변성 등 안과 유전질환은 물론 안암(눈에 발생하는 암)에 대한 연구도 중점 수행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br/>그동안 다보스포럼 ‘테크놀러지 파이오니어’로 선정되어 비약적인 성장을 한 기업은 드롭박스(2012), 트위터(2010), 길리어드 사이언스(2004), 구글(2002) 등이 손꼽힌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86.txt

제목: “매운 음식 자주 먹으면 조기사망 위험 낮아져”  
날짜: 2015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510018149917  
본문: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매운 음식을 일주일에 3회 이상 먹으면 조기 사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br/>중국의학원과 하버드대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국제연구팀은 30∼79세 중국인 48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해 영국의학저널(BMJ)에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br/><br/>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1∼2번 매운 음식을 먹는 사람은 1번 미만으로 먹는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10% 낮았다. 3∼7번 먹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14% 낮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음주를 하는 사람은 매운 음식이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br/><br/>또 마른 고추보다는 신선한 고추가 암이나 심장질환, 당뇨병 사망 위험이 더 낮았다. 연구진은 “<span class='quot0'>신선한 고추에 캡사이신, 비타민C 등 생리활성물질이 더 풍부하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br/><br/><br/><br/>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결과를 매운 음식 섭취 권고로 연결하기는 이르다며 “<span class='quot1'>이번 연구는 통계상의 경향을 파악한 것에 지나지 않아 매운 음식과 수명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혀내려면 좀 더 연구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니타 포루치 박사는 “<span class='quot2'>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매운 음식 자체인지 아니면 매운 음식을 먹는 사람의 다른 특성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2'>매운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망률을 직접 낮추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지표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span>”고 설명했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87.txt

제목: 국내 바이오기업 아벨리노랩, 다보스포럼 미래기술선도기업 "도약"  
날짜: 2015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510018148896  
본문: 아벨리노랩(대표 이진)이 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해 2016년도 ‘미래기술 선도기업’(테크놀러지 파이오니어)으로 선정됐다. 이 회사는 5일 낮 1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an class='quot0'>안과질환 유전자진단 전문 바이오기업으로 이 분야에서 국내 처음으로 영예를 안았다</span>”고 밝혔다.<br/><br/>다보스포럼(Davos Forum)으로 잘 알려진 WEF는 전 세계의 저명 기업인과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등이 모여 발족한 독립재단이다. 80여명의 전문 심사위원이 해마다 기술 선도기업을 선정, 발표한다. WEF는 5일 오후 1시, 제네바 본부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br/><br/><br/><br/>2008년 설립된 아벨리노랩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각막이상증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선도기업으로 관심을 모아왔다. 각막이상과 관련된 5가지 선천성 안과 유전질환을 동시에 진단하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각막이상 단일분야에 대해 전 세계적인 서비스를 한다.<br/><br/>각막이상증은 한번 진행되면 완치가 어렵고 심하면 실명에 이른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700~1000명 당 1명꼴로 발병하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각막에 상처나 충격이 가해지면 각막에 하얀 좁쌀같은 것이 다발적으로 생겨나 각막의 시야를 가리게 된다. 심하면 실명에 이른다. 따라서 각막을 깍아내는 라식수술 등 시력교정술을 받을 때 관련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은 평소 각막의 자외선 손상이나 충격, 상처 등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br/><br/>아벨리노랩 측은 “세브란스병원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8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중맹검 임상시험에서 이 진단기술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10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병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잘못 진단하거나, 병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찾아내지 못하는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는 뜻이다.<br/><br/><br/><br/><br/><br/>아벨리노랩은 현재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에도 법인을 설립, 9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미국 실리콘벨리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CLIA(미국실험실표준인증)를 획득했다. 50개 나라와 서비스 공급계약을 맺었다.<br/><br/>이진 회장은 “<span class='quot1'>아벨리노랩은 49만여 건의 검사를 수행, 이 중에서 490여 건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찾아내 수많은 사람들을 실명으로부터 구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망막색소변성증, 녹내장, 황반변성 등 안과 유전질환은 물론 안암(눈에 발생하는 암)에 대한 연구도 중점 수행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br/>그동안 다보스포럼 ‘테크놀러지 파이오니어’로 선정되어 비약적인 성장을 한 기업은 드롭박스(2012), 트위터(2010), 길리어드 사이언스(2004), 구글(2002) 등이 손꼽힌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88.txt

제목: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 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19) 청년문화 논쟁  
날짜: 20150805  
기자: 김호기,박태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5100000127  
본문: ▲ 최인호·이장희·양희은 등<br/>1970년대판 ‘아이돌’ 등장<br/>청년들 통기타·청바지 열풍<br/>▲ “청년들 만나서 밤 새워 보라”<br/>최인호, 상향식 청년문화 선언<br/>한완상, 분단·유교 영향 아래<br/>‘대항문화’로서 성립에 회의<br/>▲ 강압적 유신체제와 맞물려<br/>삶에서의 의미 부여 못하고<br/>생활양식으로서 문화에 그쳐<br/>광복 70년 동안 진행된 문화 논쟁 중 가장 큰 논란을 빚은 것은 1970년대 초반 ‘청년문화 논쟁’이었다. 학술 영역에선 이보다 더 중요하고 생산적인 논쟁도 많았지만, 대중적 관심에서 청년문화 논쟁만큼 파장이 컸던 논쟁도 드물다. 논쟁의 출발점을 제공한 것은 1974년 3월29일자 동아일보 기획기사인 ‘오늘날의 젊은 우상들’이었다. 이 기사는 당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았던 최인호, 이장희, 양희은, 김민기, 서봉수, 이상룡 등 6명을 젊은 우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대표자 격인 소설가 최인호는 1945년생이니 당시 스물아홉 살이었고, 코미디언 이상룡은 1944년생이니 서른 살이었다. 20대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돌로 급부상했고, 이들의 활동과 문화를 놓고 일대 논쟁이 벌어졌다.<br/>어떤 논쟁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와 메시지다. 동아일보 기사는 곧바로 대학 안과 대학 밖의 서로 다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대학 밖에선 청년문화를 다각도로 다룬 기사들이 쏟아졌다. 6명의 대중적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기에 신문과 방송은 청년문화에 대한 호의적인 보도들을 연달아 내놓았다. 하지만 대학 안에서는 청년문화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이뤄졌다. “<span class='quot0'>딴따라가 우리의 영웅이 될 순 없다</span>”는 주장이었다. 당시 대학 진학률이 20%대였음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문제의식이었다.<br/><br/>■ 청년문화에 대한 옹호와 비판<br/>청년문화는 흔히 ‘통·블·생’ 문화로 불렸다. 통기타, 블루진(청바지), 생맥주가 청년문화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주조된 말이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필자의 기억을 돌아봐도, 통기타와 청바지 열풍은 정말 대단했다. 영화로 만들어진 최인호의 소설 <별들의 고향>도 큰 화제를 모았다. 이런 청년문화 논쟁에서 주목할 네 텍스트는 최인호, 한완상, 서울대 ‘대학신문’, 김병익의 글이다.<br/>최인호의 ‘청년문화 선언’(한국일보 1974년 4월24일자)은 청년문화 논쟁의 주인공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글이다. 이 글에서 최인호는 문화가 선택된 개념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이며, 청년문화는 침묵의 다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문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전·권위·위선·남녀차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 사회 청년문화가 태동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기성세대에게 “<span class='quot0'>그들을 욕하기 전에 한번 가서 밤을 새워 보라</span>”고 충고했다.<br/>당시 청년문화를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한 이는 한완상(전 서울대 교수, 사회학)이었다. 한완상은 논쟁이 일어나기 전인 1973년 <현대사회와 청년문제>라는 저작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경향신문 1974년 5월22일자에 ‘청년문화는 창조적이라야’라는 글을 기고했다. 1974년 ‘신동아’ 6월호에 발표된 그의 ‘현대 청년문화의 제문제’는 청년문화의 현실과 한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글이었다. <br/>한완상에 따르면, 청년문화는 대항문화(counter-culture)의 창조적 의식을 보여주는 문화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문화의 존재 가능성을 회의했다. 분단을 포함한 특수한 정치 상황, 젊은 세대를 존중하지 않는 유교문화, 타율성을 내면화하는 교육제도 등의 영향으로 인해 행동적 대항문화로서의 청년문화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팝송·청바지·고고춤·생맥주·통기타 등으로 대표되는 표피적 청년문화이지, 기성문화에 맞서 이를 극복하는 창조적 대항 정신의 청년문화는 부재한다고 그는 주장했다.<br/>청년문화에 대한 가장 치열한 비판은 대학으로부터 나왔다. 서울대 학생들의 신문인 ‘대학신문’은 ‘지금은 진정한 목소리가 들려야 할 때다’(1974년 6월3일자)라는 글을 통해 청년문화를 통렬히 비판했다. <br/>‘대학신문’은 청년문화를 한낱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는 퇴폐 문화, ‘빠다에 버무린 깍두기’와도 같은 현상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대학신문’은 암울한 현실을 주목해 청년들에게 진취적인 태도와 투철한 민족주의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br/>이렇듯 청년문화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3월 말에 시작된 논쟁은 봄을 뜨겁게 달군 다음 여름이 되어 이내 식어버렸다. 논쟁에 불을 지폈던 문학평론가 김병익(당시 동아일보 기자)은 ‘신문평론’(1974년 11월)에 발표한 ‘청년문화와 매스컴’에서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청년문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부재, 분명한 관찰과 뚜렷한 확신없는 언론의 기사 남발, 그리고 제한된 언론 자유의 현실이 논쟁을 결국 맥빠지게 했다고 그는 지적했다.<br/><br/>■ 청년문화의 명암<br/>논쟁의 진행 과정을 돌아볼 때 김병익의 평가는 온당했다. 청년문화는 그 실체가 존재했지만, 새로운 의식과 가치관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나는 두 가지 생각을 덧붙이고 싶다. <br/>첫째는 청년문화의 등장 배경이다. 1970년대 초반에 우리 사회는 상반된 경향을 보여줬다. 정치적으로는 군사독재인 유신체제가 등장한 반면, 경제적으로는 1960년대 산업화의 결과 성장의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br/>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절대적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과, 68혁명의 학생운동(1968) 및 우드스톡 페스티벌(1969) 등과 같은 서구 문화로부터의 영향은 청년문화를 낳게 한 경제·사회·문화의 배경적 조건을 이뤘다.<br/>우리 현대사에서 청년문화와 유사했던 현상은 1990년대 초반 ‘신세대 문화’다. 신세대 문화는 1980년대 후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결합된 ‘한국적 포드주의’의 성립이 가져온 문화적 현상이었다. 이렇듯 경제성장은 문화 변동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이 점에서 1970년대 청년문화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는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br/>둘째는 문화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문화사회학적 시각에서 문화는 두 형태로 존재한다.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와 의미 체계로서의 문화가 그것이다. 1970년대 초반 청년문화는 ‘통·블·생’에서 볼 수 있듯 분명한 자기의 생활양식을 갖는 하위문화(subculture)였다. 당시 10대 중반이었던 필자의 경험을 돌아봐도 형님들로부터 통기타를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청바지를 입고 다녔던 게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br/>하지만 삶에 의미를 제공하는 가치 부여라는 문화의 또 다른 관점에서 청년문화는 숱한 ‘제스처들’로만 존재했지 핵심을 이룰 만한 내용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젊음이 젊음다워지는 것은 청바지를 입고 통기타를 치며 생맥주를 마시는 데 있다기보다는 기성 문법과 관행에 맞서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제시하는 데 있다. 형식의 파괴를 넘어선 내용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당시 청년문화는 적잖이 빈곤했던 것으로 보인다.<br/>1974년 1월에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비상군법회의 설치를 규정한 제2호가 선포됐다. 그 해 4월에는 7명의 대학생에게 사형을 선고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이 일어났다. 한편에서의 유신체제 강화와 다른 한편에서의 청년문화 논쟁은 새삼 역사란 무엇이고, 문화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br/>▲ 서정적 민중가요로 1970~80년대 청년문화 이끈 김민기와 정태춘<br/><br/>1970년대 초반 청년문화를 이끌었던 가수들로는 조영남, 송창식, 윤형주, 양희은, 그리고 김민기를 꼽을 수 있다. 이들 가운데 1970~1980년대 학생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이는 김민기였다. 그가 만든 ‘아침 이슬’ ‘친구’ ‘상록수’ 등은 학생운동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도 많이 불렸다. ‘상록수’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불려 많은 이들을 뭉클하게 했다.<br/>김민기의 노래들은 민중가요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지만, 19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노동가요와 민중가요들과 비교할 때 훨씬 부드럽고 서정적이다. 학생운동에서 1970년대 긴급조치 세대와 1980년대 386세대가 달랐듯이, 김민기 노래와 민중가요 사이에도 그 내용과 분위기에서 차이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김민기의 ‘봉우리’는 삶에 대한 심원한 통찰을, ‘철망 앞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을 감동적으로 전달한다.<br/>김민기와 함께 운동권과 일반 시민 모두에게 사랑을 받은 가수는 1978년 데뷔한 정태춘이었다. 데뷔곡 ‘시인의 마을’은 청년문화로부터의 영향이 느껴지지만, 그는 도시를 배경으로 한 청년문화와는 달리 ‘장서방네 노을’처럼 시골을 배경으로 하는 서정적인 노래들을 발표해 큰 공감을 얻었다. ‘92년 장마, 종로에서’와 같은 곡에선 민주화 시대의 우리 사회 현실을 생생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노래하기도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89.txt

제목: [홍인표의 왈왈왈]베일에 쌓인 중국 정치행사 ‘베이다이허 회의’  
날짜: 20150804  
기자: 홍인표 전 경향신문 중국전문기자·국제에디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195427170  
본문: 중국의 유명한 여름 정치행사인 베이다이허 회의가 3일 개막했다. 오는 16일까지 13일 동안 보하이만 바닷가에 있는 베이다이허에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 전원과 장쩌민, 후진타오를 비롯한 전직 지도부가 총출동했다고 한다.<br/><br/><br/><br/> 베이다이허 회의는 해마다 7월말이나 8월초 열린다. 보통은 2주일이다. 언제 열리는지, 무엇을 논의하는지, 누가 참석하는 지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들 전현직 지도부는 무슨 의제를 두고 논의를 할까. <br/><br/><br/><br/> ☞ ‘홍인표의 왈왈왈’ 팟캐스트 듣기 <br/><br/>공산당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하는 전언에 의존해서 나름 추측을 하는 수 밖에 없다. 하나는 경제 정책 운영과 개혁 문제일 것이다. 지금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중국 경제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만큼 어떻게 개혁과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br/><br/><br/><br/> 군부 제도 개혁도 중요한 의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얼마 전에 군부 지도자였던 궈보슝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상장)이 당적을 박탈당하고 사법기관에 넘어갔다. 궈보슝 상장은 후진타오 주석 시절 낙마한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중앙군사위를 좌지우지했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뇌물을 받고 승진을 시켜준 비리를 저질렀다고 사법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미 쉬차이허우 전 부주석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바 있다. 이대로 가면 중국이 언제든 일본이나 영토 분쟁에서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잘못하면 종이 호랑이라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다. 2백30만명 인민해방군을 강군으로 만들기 위한 해법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br/><br/><br/><br/> 반부패 운동의 정례화도 주요 관심사의 하나이다. 반부패 투쟁은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엄청난 성과를 냈다. 저우융캉 전 중앙정법위 서기,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그리고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링지화 전 중앙판공청 주임 이른바 신 4인방을 전원 사법처리를 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저우융캉 전 서기, 보시라이 전 서기, 쉬차이허우 전 부주석은 장쩌민 전 주석의 측근이다. 궈보숭 전 부주석도 장쩌민 전 주석의 발탁한 군부 인맥이다. 링지화 전 주임은 후진타오 전 주석의 최측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이 살려면 부정부패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반부패 운동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인사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2017년 열리는 제19차 공산당 대표대회를 앞두고 주요 요직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아직 2년이 남았지만 워낙 중요한 자리가 많다보니 일찌감치 정지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br/><br/><br/><br/> 반면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베이다이허 회의를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보다는 휴가 본연의 모습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런 인식에는 원로정치 쇠락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차오스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비롯해 원로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난 데 이어 장쩌민 전 주석도 건강이 예전만 못하고, 후진타오 전 주석은 아예 국정에 간섭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진핑 주석은 베이다이허 회의를 통해 국사를 결정하는 보다는 다양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무대로 활용하고 싶어한다고 볼 수 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1954년부터 줄곧 이어져온 공산당의 중요한 전통이지만 시진핑 주석은 이것을 새롭게 변형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시간은 중국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br/><br/><홍인표 전 경향신문 중국전문기자·국제에디터>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90.txt

제목: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 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18) 청년문화 논쟁  
날짜: 20150804  
기자: 김호기 | 연세대 교수·사회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201300157  
본문: ㆍ‘통·블·생’ 청년문화, 저항정신 잃고 한때 ‘생활문화’에 그쳐<br/><br/>▲ 최인호·이장희·양희은 등<br/>1970년대판 ‘아이돌’ 등장<br/>청년들 통기타·청바지 열풍<br/><br/>▲ “청년들 만나서 밤 새워 보라”<br/>최인호, 상향식 청년문화 선언<br/>한완상, 분단·유교 영향 아래<br/>‘대항문화’로서 성립에 회의<br/><br/>▲ 강압적 유신체제와 맞물려<br/>삶에서의 의미 부여 못하고<br/>생활양식으로서 문화에 그쳐<br/><br/>광복 70년 동안 진행된 문화 논쟁 중 가장 큰 논란을 빚은 것은 1970년대 초반 ‘청년문화 논쟁’이었다. 학술 영역에선 이보다 더 중요하고 생산적인 논쟁도 많았지만, 대중적 관심에서 청년문화 논쟁만큼 파장이 컸던 논쟁도 드물다. 논쟁의 출발점을 제공한 것은 1974년 3월29일자 동아일보 기획기사인 ‘오늘날의 젊은 우상들’이었다. 이 기사는 당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았던 최인호, 이장희, 양희은, 김민기, 서봉수, 이상룡 등 6명을 젊은 우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대표자 격인 소설가 최인호는 1945년생이니 당시 스물아홉 살이었고, 코미디언 이상룡은 1944년생이니 서른 살이었다. 20대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돌로 급부상했고, 이들의 활동과 문화를 놓고 일대 논쟁이 벌어졌다.<br/><br/>어떤 논쟁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와 메시지다. 동아일보 기사는 곧바로 대학 안과 대학 밖의 서로 다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대학 밖에선 청년문화를 다각도로 다룬 기사들이 쏟아졌다. 6명의 대중적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기에 신문과 방송은 청년문화에 대한 호의적인 보도들을 연달아 내놓았다. 하지만 대학 안에서는 청년문화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이뤄졌다. “<span class='quot0'>딴따라가 우리의 영웅이 될 순 없다</span>”는 주장이었다. 당시 대학 진학률이 20%대였음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문제의식이었다.<br/><br/><br/>■ 청년문화에 대한 옹호와 비판<br/><br/>청년문화는 흔히 ‘통·블·생’ 문화로 불렸다. 통기타, 블루진(청바지), 생맥주가 청년문화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주조된 말이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필자의 기억을 돌아봐도, 통기타와 청바지 열풍은 정말 대단했다. 영화로 만들어진 최인호의 소설 <별들의 고향>도 큰 화제를 모았다. 이런 청년문화 논쟁에서 주목할 네 텍스트는 최인호, 한완상, 서울대 ‘대학신문’, 김병익의 글이다.<br/><br/>최인호의 ‘청년문화 선언’(한국일보 1974년 4월24일자)은 청년문화 논쟁의 주인공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글이다. 이 글에서 최인호는 문화가 선택된 개념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이며, 청년문화는 침묵의 다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문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전·권위·위선·남녀차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 사회 청년문화가 태동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기성세대에게 “<span class='quot0'>그들을 욕하기 전에 한번 가서 밤을 새워 보라</span>”고 충고했다.<br/><br/>당시 청년문화를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한 이는 한완상(전 서울대 교수, 사회학)이었다. 한완상은 논쟁이 일어나기 전인 1973년 <현대사회와 청년문제>라는 저작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경향신문 1974년 5월22일자에 ‘청년문화는 창조적이라야’라는 글을 기고했다. 1974년 ‘신동아’ 6월호에 발표된 그의 ‘현대 청년문화의 제문제’는 청년문화의 현실과 한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글이었다. <br/><br/>한완상에 따르면, 청년문화는 대항문화(counter-culture)의 창조적 의식을 보여주는 문화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문화의 존재 가능성을 회의했다. 분단을 포함한 특수한 정치 상황, 젊은 세대를 존중하지 않는 유교문화, 타율성을 내면화하는 교육제도 등의 영향으로 인해 행동적 대항문화로서의 청년문화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팝송·청바지·고고춤·생맥주·통기타 등으로 대표되는 표피적 청년문화이지, 기성문화에 맞서 이를 극복하는 창조적 대항 정신의 청년문화는 부재한다고 그는 주장했다.<br/><br/>청년문화에 대한 가장 치열한 비판은 대학으로부터 나왔다. 서울대 학생들의 신문인 ‘대학신문’은 ‘지금은 진정한 목소리가 들려야 할 때다’(1974년 6월3일자)라는 글을 통해 청년문화를 통렬히 비판했다. <br/><br/>‘대학신문’은 청년문화를 한낱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는 퇴폐 문화, ‘빠다에 버무린 깍두기’와도 같은 현상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대학신문’은 암울한 현실을 주목해 청년들에게 진취적인 태도와 투철한 민족주의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br/><br/>이렇듯 청년문화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3월 말에 시작된 논쟁은 봄을 뜨겁게 달군 다음 여름이 되어 이내 식어버렸다. 논쟁에 불을 지폈던 문학평론가 김병익(당시 동아일보 기자)은 ‘신문평론’(1974년 11월)에 발표한 ‘청년문화와 매스컴’에서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청년문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부재, 분명한 관찰과 뚜렷한 확신없는 언론의 기사 남발, 그리고 제한된 언론 자유의 현실이 논쟁을 결국 맥빠지게 했다고 그는 지적했다.<br/><br/><br/>■ 청년문화의 명암<br/><br/>논쟁의 진행 과정을 돌아볼 때 김병익의 평가는 온당했다. 청년문화는 그 실체가 존재했지만, 새로운 의식과 가치관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나는 두 가지 생각을 덧붙이고 싶다. <br/><br/>첫째는 청년문화의 등장 배경이다. 1970년대 초반에 우리 사회는 상반된 경향을 보여줬다. 정치적으로는 군사독재인 유신체제가 등장한 반면, 경제적으로는 1960년대 산업화의 결과 성장의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br/><br/>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절대적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과, 68혁명의 학생운동(1968) 및 우드스톡 페스티벌(1969) 등과 같은 서구 문화로부터의 영향은 청년문화를 낳게 한 경제·사회·문화의 배경적 조건을 이뤘다.<br/><br/>우리 현대사에서 청년문화와 유사했던 현상은 1990년대 초반 ‘신세대 문화’다. 신세대 문화는 1980년대 후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결합된 ‘한국적 포드주의’의 성립이 가져온 문화적 현상이었다. 이렇듯 경제성장은 문화 변동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이 점에서 1970년대 청년문화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는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br/><br/>둘째는 문화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문화사회학적 시각에서 문화는 두 형태로 존재한다.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와 의미 체계로서의 문화가 그것이다. 1970년대 초반 청년문화는 ‘통·블·생’에서 볼 수 있듯 분명한 자기의 생활양식을 갖는 하위문화(subculture)였다. 당시 10대 중반이었던 필자의 경험을 돌아봐도 형님들로부터 통기타를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청바지를 입고 다녔던 게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br/><br/>하지만 삶에 의미를 제공하는 가치 부여라는 문화의 또 다른 관점에서 청년문화는 숱한 ‘제스처들’로만 존재했지 핵심을 이룰 만한 내용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젊음이 젊음다워지는 것은 청바지를 입고 통기타를 치며 생맥주를 마시는 데 있다기보다는 기성 문법과 관행에 맞서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제시하는 데 있다. 형식의 파괴를 넘어선 내용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당시 청년문화는 적잖이 빈곤했던 것으로 보인다.<br/><br/>1974년 1월에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비상군법회의 설치를 규정한 제2호가 선포됐다. 그 해 4월에는 7명의 대학생에게 사형을 선고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이 일어났다. 한편에서의 유신체제 강화와 다른 한편에서의 청년문화 논쟁은 새삼 역사란 무엇이고, 문화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br/><br/> ▲ 서정적 민중가요로 1970~80년대 청년문화 이끈 김민기와 정태춘<br/><br/><br/>1970년대 초반 청년문화를 이끌었던 가수들로는 조영남, 송창식, 윤형주, 양희은, 그리고 김민기를 꼽을 수 있다. 이들 가운데 1970~1980년대 학생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이는 김민기였다. 그가 만든 ‘아침 이슬’ ‘친구’ ‘상록수’ 등은 학생운동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도 많이 불렸다. ‘상록수’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불려 많은 이들을 뭉클하게 했다.<br/><br/>김민기의 노래들은 민중가요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지만, 19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노동가요와 민중가요들과 비교할 때 훨씬 부드럽고 서정적이다. 학생운동에서 1970년대 긴급조치 세대와 1980년대 386세대가 달랐듯이, 김민기 노래와 민중가요 사이에도 그 내용과 분위기에서 차이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김민기의 ‘봉우리’는 삶에 대한 심원한 통찰을, ‘철망 앞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을 감동적으로 전달한다.<br/><br/>김민기와 함께 운동권과 일반 시민 모두에게 사랑을 받은 가수는 1978년 데뷔한 정태춘이었다. 데뷔곡 ‘시인의 마을’은 청년문화로부터의 영향이 느껴지지만, 그는 도시를 배경으로 한 청년문화와는 달리 ‘장서방네 노을’처럼 시골을 배경으로 하는 서정적인 노래들을 발표해 큰 공감을 얻었다. ‘92년 장마, 종로에서’와 같은 곡에선 민주화 시대의 우리 사회 현실을 생생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노래하기도 했다.<br/><br/><김호기 | 연세대 교수·사회학>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91.txt

제목: 해방 이후 한국인들의 몸에 나타난 변화는?  
날짜: 20150804  
기자: 허남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4100000051  
본문: 4~7일 KBS1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변해왔나>는 광복 70년을 맞아 해방 이후 한국인들의 몸과 건강 변화상을 조명한다. 평균수명은 1965년 54.9세에서 2013년 81.9세로 늘었고, 평균신장·체중은 2000년대 들어 1953년보다 각각 7㎝, 8㎏가량 늘었다. 영양공급이 좋아진 결과다. 하지만 여전히 암과 신종 감염병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br/>1부 주제는 ‘체형’이다. 한국인 체형이 서구형으로 변한다는데, 실제 신체 비율에 변화가 나타난 것인지 확인해 본다. 2부는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다룬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975년 이후 출생 여성들이 그전 세대에 비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부는 ‘전염병’편이다. 보건환경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30%는 결핵 보균자라고 한다. 4부 ‘정신건강’에서는 고려대 의학팀과 함께 성인남녀 2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를 공개한다. 응답자의 44.6%가 심한 우울증상을 겪는다고 답했다. 방송은 매일 오후 10시.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92.txt

제목: 서울 남성 10㎝ 여성 4㎝ 커졌다  
날짜: 20150804  
기자: 안광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4100000139  
본문: 서울시민 평균키가 50년 새 남자는 10.2㎝, 여자는 4.4㎝ 각각 커졌다. 3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광복 70년, 서울은 어떻게 변했을까. 보건·의료편’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1965년 서울 남성(17세 기준)의 평균키는 163.7㎝, 몸무게는 54.3㎏이었다. 2013년에 173.9㎝로 10.2㎝가 커졌다. 몸무게는 69.6㎏으로 15.3㎏이 늘었다. 여성 역시 같은 기간 평균키는 156.9㎝에서 161.3㎝로 4.4㎝, 몸무게는 51㎏에서 56.7㎏으로 5.7㎏ 증가했다.<br/><br/>주요 사망원인도 60여년 새 확연히 달라졌다. 1947년 주요 사망원인으로는 폐렴(12.6%)과 유아병(1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각종 암(31%)과 뇌혈관질환(8.7%), 심장질환(7.9%) 순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1942년에는 남자가 42.8세, 여자가 47.1세였으나 2013년에는 각각 78.5세, 85세로 크게 늘었다.<br/>서울의 출생아 수는 1947년 인구 1000명당 37.3명에서 2013년 8.4명으로 약 4분의 1로 줄었다. 1947년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83.4명으로 출생아 12명 중 1명꼴로 1세 이전에 사망했지만,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영아 1000명당 3명이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장소는 1947년에는 99.3%가 집이었으나, 2013년에는 98.8%가 병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93.txt

제목: [홍인표의 왈왈왈]베일에 쌓인 중국 정치행사 ‘베이다이허 회의’  
날짜: 201508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410018132733  
본문: 중국의 유명한 여름 정치행사인 베이다이허 회의가 3일 개막했다. 오는 16일까지 13일 동안 보하이만 바닷가에 있는 베이다이허에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 전원과 장쩌민, 후진타오를 비롯한 전직 지도부가 총출동했다고 한다.<br/><br/><br/><br/> 베이다이허 회의는 해마다 7월말이나 8월초 열린다. 보통은 2주일이다. 언제 열리는지, 무엇을 논의하는지, 누가 참석하는 지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들 전현직 지도부는 무슨 의제를 두고 논의를 할까. <br/><br/><br/><br/><!--videotbl\_start\_1--><table border=0 cellspacing=2 cellpadding=2 align=CENTER><tr><td><!--videosrc\_start\_1--><object id="oplayer21756205" name="playerMain21756205"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data="http://www.podbbang.com/player/aHR0cDovL2NoLnBvZGJiYW5nLmNvbS94bWwvY2gvODI5Mw==/aHR0cDovL2ZpbGUuc3Nlbmhvc3RpbmcuY29tL2RhdGExL2toYW4zNzAxL0hPTkc0MS5tcDM=" width="368" height="147"><param name="movie" value="http://www.podbbang.com/player/aHR0cDovL2NoLnBvZGJiYW5nLmNvbS94bWwvY2gvODI5Mw==/aHR0cDovL2ZpbGUuc3Nlbmhvc3RpbmcuY29tL2RhdGExL2toYW4zNzAxL0hPTkc0MS5tcDM="></object><!--videosrc\_end\_1--></td></tr></table><!--videotbl\_end\_1--><center><!--outlink\_start\_1--> <a href=http://m.podbbang.com/ch/8293 target=new> <font color=#3399FF size=4> <b>☞ ‘홍인표의 왈왈왈’ 팟캐스트 듣기</b></font> </a> <!--outlink\_end\_1--></center><br/><br/>공산당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하는 전언에 의존해서 나름 추측을 하는 수 밖에 없다. 하나는 경제 정책 운영과 개혁 문제일 것이다. 지금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중국 경제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만큼 어떻게 개혁과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br/><br/><br/><br/> 군부 제도 개혁도 중요한 의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얼마 전에 군부 지도자였던 궈보슝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상장)이 당적을 박탈당하고 사법기관에 넘어갔다. 궈보슝 상장은 후진타오 주석 시절 낙마한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중앙군사위를 좌지우지했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뇌물을 받고 승진을 시켜준 비리를 저질렀다고 사법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미 쉬차이허우 전 부주석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바 있다. 이대로 가면 중국이 언제든 일본이나 영토 분쟁에서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잘못하면 종이 호랑이라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다. 2백30만명 인민해방군을 강군으로 만들기 위한 해법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br/><br/><br/><br/> 반부패 운동의 정례화도 주요 관심사의 하나이다. 반부패 투쟁은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엄청난 성과를 냈다. 저우융캉 전 중앙정법위 서기,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그리고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링지화 전 중앙판공청 주임 이른바 신 4인방을 전원 사법처리를 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저우융캉 전 서기, 보시라이 전 서기, 쉬차이허우 전 부주석은 장쩌민 전 주석의 측근이다. 궈보숭 전 부주석도 장쩌민 전 주석의 발탁한 군부 인맥이다. 링지화 전 주임은 후진타오 전 주석의 최측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이 살려면 부정부패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반부패 운동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인사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2017년 열리는 제19차 공산당 대표대회를 앞두고 주요 요직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아직 2년이 남았지만 워낙 중요한 자리가 많다보니 일찌감치 정지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br/><br/><br/><br/> 반면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베이다이허 회의를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보다는 휴가 본연의 모습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런 인식에는 원로정치 쇠락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차오스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비롯해 원로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난 데 이어 장쩌민 전 주석도 건강이 예전만 못하고, 후진타오 전 주석은 아예 국정에 간섭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진핑 주석은 베이다이허 회의를 통해 국사를 결정하는 보다는 다양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무대로 활용하고 싶어한다고 볼 수 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1954년부터 줄곧 이어져온 공산당의 중요한 전통이지만 시진핑 주석은 이것을 새롭게 변형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시간은 중국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br/><br/><홍인표 전 경향신문 중국전문기자·국제에디터>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94.txt

제목: 서울 남성 10㎝ 여성 4㎝ 커졌다  
날짜: 20150803  
기자: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195132610  
본문: ㆍ‘광복 70년, 어떻게 변했을까’<br/><br/>서울시민 평균키가 50년 새 남자는 10.2㎝, 여자는 4.4㎝ 각각 커졌다. 3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광복 70년, 서울은 어떻게 변했을까. 보건·의료편’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1965년 서울 남성(17세 기준)의 평균키는 163.7㎝, 몸무게는 54.3㎏이었다. 2013년에 173.9㎝로 10.2㎝가 커졌다. 몸무게는 69.6㎏으로 15.3㎏이 늘었다. 여성 역시 같은 기간 평균키는 156.9㎝에서 161.3㎝로 4.4㎝, 몸무게는 51㎏에서 56.7㎏으로 5.7㎏ 증가했다.<br/><br/><br/>주요 사망원인도 60여년 새 확연히 달라졌다. 1947년 주요 사망원인으로는 폐렴(12.6%)과 유아병(1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각종 암(31%)과 뇌혈관질환(8.7%), 심장질환(7.9%) 순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1942년에는 남자가 42.8세, 여자가 47.1세였으나 2013년에는 각각 78.5세, 85세로 크게 늘었다.<br/><br/>서울의 출생아 수는 1947년 인구 1000명당 37.3명에서 2013년 8.4명으로 약 4분의 1로 줄었다. 1947년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83.4명으로 출생아 12명 중 1명꼴로 1세 이전에 사망했지만,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영아 1000명당 3명이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장소는 1947년에는 99.3%가 집이었으나, 2013년에는 98.8%가 병원인 것으로 조사됐다.<br/><br/><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95.txt

제목: 광복 후 서울 남성 평균 키 10㎝, 여성은 4㎝ 컸다  
날짜: 20150803  
기자: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195047175  
본문: 광복 후 서울 시민들의 평균 수명은 35년 이상 길어졌다. 키는 지난 50년간 남성이 10㎝, 여성은 4㎝ 이상 커졌다.<br/><br/>3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광복 70년, 서울은 어떻게 변했을까? 보건·의료’편 인포그래픽스을 보면 1942년 남성의 기대수명은 42.8세, 여성가 47.1세에 불과했으나 2013년 78.5세와 85세로 크게 늘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생활 환경도 나아진 덕이다. 영아 사망률은 대폭 줄어 같은 시기 1000명당 83.4명에서 3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1947년에는 신생아 12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을 만큼 사망률이 높았다.<br/><br/>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신체조건도 좋아졌다. 1965년 서울 남성(17세 기준)의 평균키는 163.7㎝, 몸무게는 54.3㎏ 수준이었다. 약 50년이 지난 2013년에는 키는 평균 173.9㎝로 10.2㎝가 커졌고 몸무게는 69.6㎏로 15.3㎏나 늘었다. 여성도 같은 기간 키는 156.9㎝에서 161.3㎝로 4.4㎝가 커지고 몸무게는 51㎏에서 56.7㎏으로 5.7㎏ 증가했다.<br/><br/>사망원인도 광복 직후와 현재는 큰 차이를 보였다. 1947년에는 폐렴(12.6%)과 유아병(12%)이 가장 많았지만, 2013년 최대 원인은 각종 암(31%)이다. 암으로 사장한 경우는 1983년과 비교하면 16%포인트나 늘었다. 특히 20여년 전 사망원인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자살은 2013년 뇌혈관질환(8.7%)과 심장질환(7.9%)을 이어 4위(6.1%)에 올랐다.<br/><br/><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96.txt

제목: 해방 이후 한국인들의 몸에 나타난 변화는?  
날짜: 20150803  
기자: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195036926  
본문: ㆍKBS1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br/><br/>4~7일 KBS1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변해왔나>는 광복 70년을 맞아 해방 이후 한국인들의 몸과 건강 변화상을 조명한다. 평균수명은 1965년 54.9세에서 2013년 81.9세로 늘었고, 평균신장·체중은 2000년대 들어 1953년보다 각각 7㎝, 8㎏가량 늘었다. 영양공급이 좋아진 결과다. 하지만 여전히 암과 신종 감염병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br/><br/>1부 주제는 ‘체형’이다. 한국인 체형이 서구형으로 변한다는데, 실제 신체 비율에 변화가 나타난 것인지 확인해 본다. 2부는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다룬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975년 이후 출생 여성들이 그전 세대에 비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부는 ‘전염병’편이다. 보건환경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30%는 결핵 보균자라고 한다. 4부 ‘정신건강’에서는 고려대 의학팀과 함께 성인남녀 2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를 공개한다. 응답자의 44.6%가 심한 우울증상을 겪는다고 답했다. 방송은 매일 오후 10시.<br/><br/><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97.txt

제목: 해방 이후 한국인들의 몸에 나타난 변화는?  
날짜: 2015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310018124115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KBS1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strong><!-- SUB\_TITLE\_END--><br/><br/>4~7일 KBS1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변해왔나>는 광복 70년을 맞아 해방 이후 한국인들의 몸과 건강 변화상을 조명한다. 평균수명은 1965년 54.9세에서 2013년 81.9세로 늘었고, 평균신장·체중은 2000년대 들어 1953년보다 각각 7㎝, 8㎏가량 늘었다. 영양공급이 좋아진 결과다. 하지만 여전히 암과 신종 감염병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br/><br/>1부 주제는 ‘체형’이다. 한국인 체형이 서구형으로 변한다는데, 실제 신체 비율에 변화가 나타난 것인지 확인해 본다. 2부는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다룬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975년 이후 출생 여성들이 그전 세대에 비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부는 ‘전염병’편이다. 보건환경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30%는 결핵 보균자라고 한다. 4부 ‘정신건강’에서는 고려대 의학팀과 함께 성인남녀 2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를 공개한다. 응답자의 44.6%가 심한 우울증상을 겪는다고 답했다. 방송은 매일 오후 10시.<br/><br/><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98.txt

제목: 암을 넘어선 삶·인간적인 의학 표방… 예술 체육 등 다학제 협진 프로그램  
날짜: 20150803  
기자: 김경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3100000048  
본문: 경희대학교와 경희의료원이 추진하는 ‘경희 후마니타스 암병원’이 오는 2017년 완공된다. 후마니타스 암병원은 국내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개념의 병원이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의학이 결합된 암병원이다.<br/>이 병원이 지향하는 목표는 ‘암을 넘어선 삶’이다. 암치료와 함께 인간 삶의 치유를 동시에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간적인 의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인간적인 의학’이란 경희대가 보유한 학술적 역량을 치료와 결합해 환자의 몸과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환자의 건강 회복과 사회적 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환자보호자와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광의적 치료개념이 포함된다.<br/>후마니타스 암병원은 이를 위해 다양한 병행치료 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 병원은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음악대학, 체육대학 등의 탁월한 학술 역량을 결합한 시스템과 최신 분자 프로파일링 기술을 통합해 환자의 개인적 조건에 따라 정밀 진단·예후·치료를 실시하고 한의학적 통합치료를 병행한다는 계획 아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br/>후마니타스 암병원은 크게 치유프로그램과 진료프로그램으로 나뉜다. ‘후마니타스’를 바탕으로 한 치유프로그램은 △상담(직업 및 인생상담) △관광(박물관 및 힐링투어길) △자가관리(건강마사지, 암환우 네트워크) △뷰티클래스(이미지 강화) △마음치유(기공, 명상, 웃음치료, 치유동물) △예술치료(표현심리치료, 음악치료, 힐링댄스, 영화치료) △영양관리 및 교육(쿠킹클래스, 식이요법) 등으로 구성된다. 진료프로그램은 △재활 및 운동치료(코어운동) △수술치료(로봇수술) △방사선치료(토모테라피) △항암치료(표적치료) △진단 △한방치료(근거중심협진) △암환자 교육 △정신종양학(정신건강관리) 등이 서로 연계된다.<br/>이와 더불어 정밀의학을 위한 ‘정밀 암 치료센터’와 ‘정밀 종양학 연구센터’를 설립, 개인별 맞춤진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최소 침습적 첨단수술과 과학적 분석에 기반을 둔 수술기법을 적용, 유전적 소인 확인을 위한 정밀 진단 및 치료법을 병행한다. 환자 가족과 일반인 대상으로 체계적인 암 예방 프로그램도 제공하기 위해 ‘TCC센터’를 설립한다. <br/>후마니타스 암병원은 다학제 협진 진료를 통해 보다 차별화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원스톱 진료 프로세스를 구축해 치료 전 모든 과정을 7일 이내에 처리하기 위해 당일 진료, 당일 검사를 원칙으로 하는 최단 진료 및 검사 체계인 ‘신속처리(Fast track)’ 방식을 운영해 환자의 편의를 돕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699.txt

제목: 광복 후 서울 남성 평균 키 10㎝, 여성은 4㎝ 컸다  
날짜: 2015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310018124535  
본문: 광복 후 서울 시민들의 평균 수명은 35년 이상 길어졌다. 키는 지난 50년간 남성이 10㎝, 여성은 4㎝ 이상 커졌다.<br/><br/>3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광복 70년, 서울은 어떻게 변했을까? 보건·의료’편 인포그래픽스을 보면 1942년 남성의 기대수명은 42.8세, 여성가 47.1세에 불과했으나 2013년 78.5세와 85세로 크게 늘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생활 환경도 나아진 덕이다. 영아 사망률은 대폭 줄어 같은 시기 1000명당 83.4명에서 3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1947년에는 신생아 12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을 만큼 사망률이 높았다.<br/><br/>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신체조건도 좋아졌다. 1965년 서울 남성(17세 기준)의 평균키는 163.7㎝, 몸무게는 54.3㎏ 수준이었다. 약 50년이 지난 2013년에는 키는 평균 173.9㎝로 10.2㎝가 커졌고 몸무게는 69.6㎏로 15.3㎏나 늘었다. 여성도 같은 기간 키는 156.9㎝에서 161.3㎝로 4.4㎝가 커지고 몸무게는 51㎏에서 56.7㎏으로 5.7㎏ 증가했다.<br/><br/>사망원인도 광복 직후와 현재는 큰 차이를 보였다. 1947년에는 폐렴(12.6%)과 유아병(12%)이 가장 많았지만, 2013년 최대 원인은 각종 암(31%)이다. 암으로 사장한 경우는 1983년과 비교하면 16%포인트나 늘었다. 특히 20여년 전 사망원인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자살은 2013년 뇌혈관질환(8.7%)과 심장질환(7.9%)을 이어 4위(6.1%)에 올랐다.<br/><br/><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00.txt

제목: [배철현의 심연]새끼 거북이의 임시 치아  
날짜: 20150803  
기자: 배철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3100000062  
본문: 알에서 갓 깨어난 새끼 거북이는 다른 모든 생명들이 그러하듯 신비하기만 하다. 수십 개의 조그만 생명체가 모래 속에서 꿈틀거리며 위대한 생명을 시작한다. 태어난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은 새끼 거북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처럼, 저 멀리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태양빛에 반사된 빛의 파장을 따라 바다를 향해 단호하고도 후회 없이 힘차게 나아간다. 새끼 거북이의 인생 여정은 어미 거북이에서부터 출발한다.<br/>어미 거북이가 바다를 횡단해 자신의 고향 해안까지 헤엄쳐오는 여정은 매 순간 죽음과의 사투다. 호시탐탐 상어와 고래가 노리고 있고, 인간이라는 동물이 막강한 무기로 언제든 자신들을 포획해 죽일 수 있다. 어미 거북이는 바다의 파고가 제일 높은 날, 여름 중 가장 뜨거운 날, 거칠고 높은 파도를 가르며 2300㎞를 헤엄쳐 자신이 태어난 땅 해변에 도착한다. 5~6주 전에 임신한 알을 낳을 셈인 것이다. 이는 거북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므로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도착해 바닷물이 닿지 않도록 해안으로부터 수십m 떨어진 후미진 모래사장에 둥지를 틀기 시작한다.<br/>어미 거북이는 자신의 몸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30㎝ 정도 모래를 판 다음, 그 안에 들어가 머리만 모래사장 위로 삐죽 내놓고는 사방을 둘러본다. 칠흑같이 어둡고 고요한 해변이지만 모래사장 밑에서는 바쁜 발길질이 시작된다. 뒷지느러미로 더 깊은 구덩이를 파는 것이다. 비로소 거북이 알이 안주할 공간이 마련되면 어미 거북이는 그곳에 50~200개의 알을 낳는다. 알을 낳은 뒤 어미 거북이는 곧바로 모래로 둥지를 덮어놓는다. 맹금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점액이 마르지 않도록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세 시간여 동안 이 모든 일을 마친 어미 거북이는 다시 바다로 간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뒤 후회 없이 다시 바다로 가는 것이다.<br/>2개월 정도 지나면 모래 속에 낳아놓은 알들이 깨지기 시작한다. 신비롭게도 새끼 거북이는 알 속에서도 자기 생존을 위한 무기를 만든다. 그 무기는 ‘카벙클(carbuncle)’이라는 임시치아(臨時齒牙)다. 새끼들은 카벙클로 알의 내벽을 깨기 시작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이 자신의 자유를 억제한다면 스스로 자신만의 카벙클을 만들어야 한다. 이 벽을 깨지 못하면 새끼 거북이는 자신을 억누르고 규정하고 정의하는 환경이 세상의 전부로 알고 살다 빛 한번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을 것이다.<br/>새끼 거북이가 알을 깨고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진정한 시작은 이제부터다. 알을 깨느라 카벙클이 부러져 피가 난 새끼 거북이를 맞이하는 것은 아빠 거북이도 엄마 거북이도 아니다. 어미 거북이가 알을 낳기 위해 덮어놓고 간 30㎝가 넘는 두께의 모래다. 어미 거북이가 얼마나 단단하게 다져놓았는지 이 모래성은 웬만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새끼 거북이들이 이 모래를 뚫고 나오기까지는 3일에서 7일 정도가 걸린다. 새끼 거북이의 몸무게는 알을 깨고 나올 때에 비해 30% 정도 줄어든다.<br/>새끼 거북이들은 섣불리 모래 표면으로 올라오지 않는다. 모래 위에서는 바다 갈매기, 독수리, 그리고 사람이라는 괴물들이 이들의 연약한 목숨을 한순간에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새끼 거북이들은 숨죽이고 때를 기다린다. 한밤중이 되면 새끼 거북이들은 운명의 질주를 시작한다. 한순간에 쏟아져 나온 새끼들은 ‘자석 컴퍼스’라는 본능적인 감지 장치에 따라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향해 일제히 움직인다. 이 과정은 바다에 도착하기 전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순간이다. 그럼에도 새끼 거북이들은 바다라는 생명을 만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바다를 향해 질주한다.<br/>저 높이에는 이러한 새끼 거북이의 행진을 응시하는 갈매기와 독수리가 있다. 아직도 촉촉한 새끼 거북이는 이들의 점심으로 제격이다. 갈매기와 독수리들이 쏜살처럼 하강한다. 신기하게도 그들의 돌진을 감지한 새끼 거북이들은 재빨리 자신들의 사지를 딱딱한 껍데기 안으로 집어넣는다. 갈매기와 독수리가 백사장에서 발견한 것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껍데기뿐이다. 새끼 거북이들은 본능적으로 생존력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이러한 자발적이며 순간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살아남지 못한다. 우여곡절 끝에 도달한 바다는 새끼 거북이에게 천국인 동시에 지옥이다.<br/>새끼 거북이는 바다에 입수한 뒤 48시간 동안 미친 듯이 수영을 한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바다의 가장 밑바닥 심연(深淵)이다. 이곳에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큰 물고기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새끼 거북이의 인생을 시작한다. 바다거북의 첫 1년간 바다 생활을 관찰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시간은 ‘실종의 기간’이다. 이 1년을 홀로 살아남아야지 비로소 ‘거북이’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 후 그들은 대개 떠다니는 미역에 몸을 실어 영양을 보충한다. 그리고 20년 정도가 지나면 짝짓기를 하고, 암 거북이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다. 새끼 거북이가 어른 거북이가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확률은 0.1%다. 천 마리 중 한 마리만 생존하고 대부분은 이 기나긴 과정에서 죽는다. <br/>나는 경계에 서 있다. 내가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굳어진 세계관을 깨야 한다. 그 편하고 단단하고 나를 길러준 알이 이제는 나를 감금하여 죽게 만드는 무덤도 되기 때문이다. 나를 감싼 세상이 알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내 입안에서는 임시치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며 수많은 모래 중에 하나라는 절실한 깨달음이 나의 임시치아다. 연약하지만 이 치아로 편견, 상식, 전통, 흉내, 부러움이라는 알을 깨기 시작해야겠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01.txt

제목: 서울 남성 10㎝ 여성 4㎝ 커졌다  
날짜: 2015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310018125356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광복 70년, 어떻게 변했을까’</strong><!-- SUB\_TITLE\_END--><br/><br/>서울시민 평균키가 50년 새 남자는 10.2㎝, 여자는 4.4㎝ 각각 커졌다. 3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광복 70년, 서울은 어떻게 변했을까. 보건·의료편’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1965년 서울 남성(17세 기준)의 평균키는 163.7㎝, 몸무게는 54.3㎏이었다. 2013년에 173.9㎝로 10.2㎝가 커졌다. 몸무게는 69.6㎏으로 15.3㎏이 늘었다. 여성 역시 같은 기간 평균키는 156.9㎝에서 161.3㎝로 4.4㎝, 몸무게는 51㎏에서 56.7㎏으로 5.7㎏ 증가했다.<br/><br/><br/>주요 사망원인도 60여년 새 확연히 달라졌다. 1947년 주요 사망원인으로는 폐렴(12.6%)과 유아병(1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각종 암(31%)과 뇌혈관질환(8.7%), 심장질환(7.9%) 순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1942년에는 남자가 42.8세, 여자가 47.1세였으나 2013년에는 각각 78.5세, 85세로 크게 늘었다.<br/><br/>서울의 출생아 수는 1947년 인구 1000명당 37.3명에서 2013년 8.4명으로 약 4분의 1로 줄었다. 1947년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83.4명으로 출생아 12명 중 1명꼴로 1세 이전에 사망했지만,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영아 1000명당 3명이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장소는 1947년에는 99.3%가 집이었으나, 2013년에는 98.8%가 병원인 것으로 조사됐다.<br/><br/><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02.txt

제목: 암을 넘어선 삶·인간적인 의학 표방… 예술 체육 등 다학제 협진 프로그램  
날짜: 20150802  
기자: 김경은 편집위원 jjj@kyunghyang.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194628628  
본문: ㆍ2017년 개원하는 ‘후마니타스 암병원’<br/><br/>경희대학교와 경희의료원이 추진하는 ‘경희 후마니타스 암병원’이 오는 2017년 완공된다. 후마니타스 암병원은 국내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개념의 병원이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의학이 결합된 암병원이다.<br/><br/>이 병원이 지향하는 목표는 ‘암을 넘어선 삶’이다. 암치료와 함께 인간 삶의 치유를 동시에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간적인 의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인간적인 의학’이란 경희대가 보유한 학술적 역량을 치료와 결합해 환자의 몸과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뜻이다. 물론 거기에는 환자의 건강 회복과 사회적 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환자보호자와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광의적 치료개념이 포함된다.<br/><br/>후마니타스 암병원은 이를 위해 다양한 병행치료 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 병원은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음악대학, 체육대학 등의 탁월한 학술 역량을 결합한 시스템과 최신 분자 프로파일링 기술을 통합해 환자의 개인적 조건에 따라 정밀 진단·예후·치료를 실시하고 한의학적 통합치료를 병행한다는 계획 아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br/><br/>후마니타스 암병원은 크게 치유프로그램과 진료프로그램으로 나뉜다. ‘후마니타스’를 바탕으로 한 치유프로그램은 △상담(직업 및 인생상담) △관광(박물관 및 힐링투어길) △자가관리(건강마사지, 암환우 네트워크) △뷰티클래스(이미지 강화) △마음치유(기공, 명상, 웃음치료, 치유동물) △예술치료(표현심리치료, 음악치료, 힐링댄스, 영화치료) △영양관리 및 교육(쿠킹클래스, 식이요법) 등으로 구성된다. 진료프로그램은 △재활 및 운동치료(코어운동) △수술치료(로봇수술) △방사선치료(토모테라피) △항암치료(표적치료) △진단 △한방치료(근거중심협진) △암환자 교육 △정신종양학(정신건강관리) 등이 서로 연계된다.<br/><br/>이와 더불어 정밀의학을 위한 ‘정밀 암 치료센터’와 ‘정밀 종양학 연구센터’를 설립, 개인별 맞춤진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최소 침습적 첨단수술과 과학적 분석에 기반을 둔 수술기법을 적용, 유전적 소인 확인을 위한 정밀 진단 및 치료법을 병행한다. 환자 가족과 일반인 대상으로 체계적인 암 예방 프로그램도 제공하기 위해 ‘TCC센터’를 설립한다. <br/><br/>후마니타스 암병원은 다학제 협진 진료를 통해 보다 차별화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원스톱 진료 프로세스를 구축해 치료 전 모든 과정을 7일 이내에 처리하기 위해 당일 진료, 당일 검사를 원칙으로 하는 최단 진료 및 검사 체계인 ‘신속처리(Fast track)’ 방식을 운영해 환자의 편의를 돕는다.<br/><br/><김경은 편집위원 jjj@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03.txt

제목: [배철현의 심연]새끼 거북이의 임시 치아  
날짜: 20150802  
기자: 배철현 |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60107194638808  
본문: 알에서 갓 깨어난 새끼 거북이는 다른 모든 생명들이 그러하듯 신비하기만 하다. 수십 개의 조그만 생명체가 모래 속에서 꿈틀거리며 위대한 생명을 시작한다. 태어난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은 새끼 거북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처럼, 저 멀리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태양빛에 반사된 빛의 파장을 따라 바다를 향해 단호하고도 후회 없이 힘차게 나아간다. 새끼 거북이의 인생 여정은 어미 거북이에서부터 출발한다.<br/><br/>어미 거북이가 바다를 횡단해 자신의 고향 해안까지 헤엄쳐오는 여정은 매 순간 죽음과의 사투다. 호시탐탐 상어와 고래가 노리고 있고, 인간이라는 동물이 막강한 무기로 언제든 자신들을 포획해 죽일 수 있다. 어미 거북이는 바다의 파고가 제일 높은 날, 여름 중 가장 뜨거운 날, 거칠고 높은 파도를 가르며 2300㎞를 헤엄쳐 자신이 태어난 땅 해변에 도착한다. 5~6주 전에 임신한 알을 낳을 셈인 것이다. 이는 거북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므로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도착해 바닷물이 닿지 않도록 해안으로부터 수십m 떨어진 후미진 모래사장에 둥지를 틀기 시작한다.<br/><br/>어미 거북이는 자신의 몸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30㎝ 정도 모래를 판 다음, 그 안에 들어가 머리만 모래사장 위로 삐죽 내놓고는 사방을 둘러본다. 칠흑같이 어둡고 고요한 해변이지만 모래사장 밑에서는 바쁜 발길질이 시작된다. 뒷지느러미로 더 깊은 구덩이를 파는 것이다. 비로소 거북이 알이 안주할 공간이 마련되면 어미 거북이는 그곳에 50~200개의 알을 낳는다. 알을 낳은 뒤 어미 거북이는 곧바로 모래로 둥지를 덮어놓는다. 맹금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점액이 마르지 않도록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세 시간여 동안 이 모든 일을 마친 어미 거북이는 다시 바다로 간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뒤 후회 없이 다시 바다로 가는 것이다.<br/><br/>2개월 정도 지나면 모래 속에 낳아놓은 알들이 깨지기 시작한다. 신비롭게도 새끼 거북이는 알 속에서도 자기 생존을 위한 무기를 만든다. 그 무기는 ‘카벙클(carbuncle)’이라는 임시치아(臨時齒牙)다. 새끼들은 카벙클로 알의 내벽을 깨기 시작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이 자신의 자유를 억제한다면 스스로 자신만의 카벙클을 만들어야 한다. 이 벽을 깨지 못하면 새끼 거북이는 자신을 억누르고 규정하고 정의하는 환경이 세상의 전부로 알고 살다 빛 한번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을 것이다.<br/><br/>새끼 거북이가 알을 깨고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진정한 시작은 이제부터다. 알을 깨느라 카벙클이 부러져 피가 난 새끼 거북이를 맞이하는 것은 아빠 거북이도 엄마 거북이도 아니다. 어미 거북이가 알을 낳기 위해 덮어놓고 간 30㎝가 넘는 두께의 모래다. 어미 거북이가 얼마나 단단하게 다져놓았는지 이 모래성은 웬만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새끼 거북이들이 이 모래를 뚫고 나오기까지는 3일에서 7일 정도가 걸린다. 새끼 거북이의 몸무게는 알을 깨고 나올 때에 비해 30% 정도 줄어든다.<br/><br/>새끼 거북이들은 섣불리 모래 표면으로 올라오지 않는다. 모래 위에서는 바다 갈매기, 독수리, 그리고 사람이라는 괴물들이 이들의 연약한 목숨을 한순간에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새끼 거북이들은 숨죽이고 때를 기다린다. 한밤중이 되면 새끼 거북이들은 운명의 질주를 시작한다. 한순간에 쏟아져 나온 새끼들은 ‘자석 컴퍼스’라는 본능적인 감지 장치에 따라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향해 일제히 움직인다. 이 과정은 바다에 도착하기 전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순간이다. 그럼에도 새끼 거북이들은 바다라는 생명을 만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바다를 향해 질주한다.<br/><br/>저 높이에는 이러한 새끼 거북이의 행진을 응시하는 갈매기와 독수리가 있다. 아직도 촉촉한 새끼 거북이는 이들의 점심으로 제격이다. 갈매기와 독수리들이 쏜살처럼 하강한다. 신기하게도 그들의 돌진을 감지한 새끼 거북이들은 재빨리 자신들의 사지를 딱딱한 껍데기 안으로 집어넣는다. 갈매기와 독수리가 백사장에서 발견한 것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껍데기뿐이다. 새끼 거북이들은 본능적으로 생존력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이러한 자발적이며 순간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살아남지 못한다. 우여곡절 끝에 도달한 바다는 새끼 거북이에게 천국인 동시에 지옥이다.<br/><br/>새끼 거북이는 바다에 입수한 뒤 48시간 동안 미친 듯이 수영을 한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바다의 가장 밑바닥 심연(深淵)이다. 이곳에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큰 물고기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새끼 거북이의 인생을 시작한다. 바다거북의 첫 1년간 바다 생활을 관찰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시간은 ‘실종의 기간’이다. 이 1년을 홀로 살아남아야지 비로소 ‘거북이’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 후 그들은 대개 떠다니는 미역에 몸을 실어 영양을 보충한다. 그리고 20년 정도가 지나면 짝짓기를 하고, 암 거북이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다. 새끼 거북이가 어른 거북이가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확률은 0.1%다. 천 마리 중 한 마리만 생존하고 대부분은 이 기나긴 과정에서 죽는다. <br/><br/>나는 경계에 서 있다. 내가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굳어진 세계관을 깨야 한다. 그 편하고 단단하고 나를 길러준 알이 이제는 나를 감금하여 죽게 만드는 무덤도 되기 때문이다. 나를 감싼 세상이 알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내 입안에서는 임시치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며 수많은 모래 중에 하나라는 절실한 깨달음이 나의 임시치아다. 연약하지만 이 치아로 편견, 상식, 전통, 흉내, 부러움이라는 알을 깨기 시작해야겠다.<br/><br/><배철현 |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04.txt

제목: 암을 넘어선 삶·인간적인 의학 표방… 예술 체육 등 다학제 협진 프로그램  
날짜: 201508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210018113033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2017년 개원하는 ‘후마니타스 암병원’</strong><!-- SUB\_TITLE\_END--><br/><br/>경희대학교와 경희의료원이 추진하는 ‘경희 후마니타스 암병원’이 오는 2017년 완공된다. 후마니타스 암병원은 국내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개념의 병원이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의학이 결합된 암병원이다.<br/><br/>이 병원이 지향하는 목표는 ‘암을 넘어선 삶’이다. 암치료와 함께 인간 삶의 치유를 동시에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간적인 의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인간적인 의학’이란 경희대가 보유한 학술적 역량을 치료와 결합해 환자의 몸과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뜻이다. 물론 거기에는 환자의 건강 회복과 사회적 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환자보호자와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광의적 치료개념이 포함된다.<br/><br/>후마니타스 암병원은 이를 위해 다양한 병행치료 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 병원은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음악대학, 체육대학 등의 탁월한 학술 역량을 결합한 시스템과 최신 분자 프로파일링 기술을 통합해 환자의 개인적 조건에 따라 정밀 진단·예후·치료를 실시하고 한의학적 통합치료를 병행한다는 계획 아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br/><br/>후마니타스 암병원은 크게 치유프로그램과 진료프로그램으로 나뉜다. ‘후마니타스’를 바탕으로 한 치유프로그램은 △상담(직업 및 인생상담) △관광(박물관 및 힐링투어길) △자가관리(건강마사지, 암환우 네트워크) △뷰티클래스(이미지 강화) △마음치유(기공, 명상, 웃음치료, 치유동물) △예술치료(표현심리치료, 음악치료, 힐링댄스, 영화치료) △영양관리 및 교육(쿠킹클래스, 식이요법) 등으로 구성된다. 진료프로그램은 △재활 및 운동치료(코어운동) △수술치료(로봇수술) △방사선치료(토모테라피) △항암치료(표적치료) △진단 △한방치료(근거중심협진) △암환자 교육 △정신종양학(정신건강관리) 등이 서로 연계된다.<br/><br/>이와 더불어 정밀의학을 위한 ‘정밀 암 치료센터’와 ‘정밀 종양학 연구센터’를 설립, 개인별 맞춤진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최소 침습적 첨단수술과 과학적 분석에 기반을 둔 수술기법을 적용, 유전적 소인 확인을 위한 정밀 진단 및 치료법을 병행한다. 환자 가족과 일반인 대상으로 체계적인 암 예방 프로그램도 제공하기 위해 ‘TCC센터’를 설립한다. <br/><br/>후마니타스 암병원은 다학제 협진 진료를 통해 보다 차별화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원스톱 진료 프로세스를 구축해 치료 전 모든 과정을 7일 이내에 처리하기 위해 당일 진료, 당일 검사를 원칙으로 하는 최단 진료 및 검사 체계인 ‘신속처리(Fast track)’ 방식을 운영해 환자의 편의를 돕는다.<br/><br/><김경은 편집위원 jjj@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05.txt

제목: [배철현의 심연]새끼 거북이의 임시 치아  
날짜: 201508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210018113046  
본문: 알에서 갓 깨어난 새끼 거북이는 다른 모든 생명들이 그러하듯 신비하기만 하다. 수십 개의 조그만 생명체가 모래 속에서 꿈틀거리며 위대한 생명을 시작한다. 태어난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은 새끼 거북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처럼, 저 멀리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태양빛에 반사된 빛의 파장을 따라 바다를 향해 단호하고도 후회 없이 힘차게 나아간다. 새끼 거북이의 인생 여정은 어미 거북이에서부터 출발한다.<br/><br/>어미 거북이가 바다를 횡단해 자신의 고향 해안까지 헤엄쳐오는 여정은 매 순간 죽음과의 사투다. 호시탐탐 상어와 고래가 노리고 있고, 인간이라는 동물이 막강한 무기로 언제든 자신들을 포획해 죽일 수 있다. 어미 거북이는 바다의 파고가 제일 높은 날, 여름 중 가장 뜨거운 날, 거칠고 높은 파도를 가르며 2300㎞를 헤엄쳐 자신이 태어난 땅 해변에 도착한다. 5~6주 전에 임신한 알을 낳을 셈인 것이다. 이는 거북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므로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도착해 바닷물이 닿지 않도록 해안으로부터 수십m 떨어진 후미진 모래사장에 둥지를 틀기 시작한다.<br/><br/>어미 거북이는 자신의 몸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30㎝ 정도 모래를 판 다음, 그 안에 들어가 머리만 모래사장 위로 삐죽 내놓고는 사방을 둘러본다. 칠흑같이 어둡고 고요한 해변이지만 모래사장 밑에서는 바쁜 발길질이 시작된다. 뒷지느러미로 더 깊은 구덩이를 파는 것이다. 비로소 거북이 알이 안주할 공간이 마련되면 어미 거북이는 그곳에 50~200개의 알을 낳는다. 알을 낳은 뒤 어미 거북이는 곧바로 모래로 둥지를 덮어놓는다. 맹금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점액이 마르지 않도록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세 시간여 동안 이 모든 일을 마친 어미 거북이는 다시 바다로 간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뒤 후회 없이 다시 바다로 가는 것이다.<br/><br/>2개월 정도 지나면 모래 속에 낳아놓은 알들이 깨지기 시작한다. 신비롭게도 새끼 거북이는 알 속에서도 자기 생존을 위한 무기를 만든다. 그 무기는 ‘카벙클(carbuncle)’이라는 임시치아(臨時齒牙)다. 새끼들은 카벙클로 알의 내벽을 깨기 시작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이 자신의 자유를 억제한다면 스스로 자신만의 카벙클을 만들어야 한다. 이 벽을 깨지 못하면 새끼 거북이는 자신을 억누르고 규정하고 정의하는 환경이 세상의 전부로 알고 살다 빛 한번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을 것이다.<br/><br/>새끼 거북이가 알을 깨고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진정한 시작은 이제부터다. 알을 깨느라 카벙클이 부러져 피가 난 새끼 거북이를 맞이하는 것은 아빠 거북이도 엄마 거북이도 아니다. 어미 거북이가 알을 낳기 위해 덮어놓고 간 30㎝가 넘는 두께의 모래다. 어미 거북이가 얼마나 단단하게 다져놓았는지 이 모래성은 웬만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새끼 거북이들이 이 모래를 뚫고 나오기까지는 3일에서 7일 정도가 걸린다. 새끼 거북이의 몸무게는 알을 깨고 나올 때에 비해 30% 정도 줄어든다.<br/><br/>새끼 거북이들은 섣불리 모래 표면으로 올라오지 않는다. 모래 위에서는 바다 갈매기, 독수리, 그리고 사람이라는 괴물들이 이들의 연약한 목숨을 한순간에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새끼 거북이들은 숨죽이고 때를 기다린다. 한밤중이 되면 새끼 거북이들은 운명의 질주를 시작한다. 한순간에 쏟아져 나온 새끼들은 ‘자석 컴퍼스’라는 본능적인 감지 장치에 따라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향해 일제히 움직인다. 이 과정은 바다에 도착하기 전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순간이다. 그럼에도 새끼 거북이들은 바다라는 생명을 만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바다를 향해 질주한다.<br/><br/>저 높이에는 이러한 새끼 거북이의 행진을 응시하는 갈매기와 독수리가 있다. 아직도 촉촉한 새끼 거북이는 이들의 점심으로 제격이다. 갈매기와 독수리들이 쏜살처럼 하강한다. 신기하게도 그들의 돌진을 감지한 새끼 거북이들은 재빨리 자신들의 사지를 딱딱한 껍데기 안으로 집어넣는다. 갈매기와 독수리가 백사장에서 발견한 것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껍데기뿐이다. 새끼 거북이들은 본능적으로 생존력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이러한 자발적이며 순간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살아남지 못한다. 우여곡절 끝에 도달한 바다는 새끼 거북이에게 천국인 동시에 지옥이다.<br/><br/>새끼 거북이는 바다에 입수한 뒤 48시간 동안 미친 듯이 수영을 한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바다의 가장 밑바닥 심연(深淵)이다. 이곳에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큰 물고기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새끼 거북이의 인생을 시작한다. 바다거북의 첫 1년간 바다 생활을 관찰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시간은 ‘실종의 기간’이다. 이 1년을 홀로 살아남아야지 비로소 ‘거북이’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 후 그들은 대개 떠다니는 미역에 몸을 실어 영양을 보충한다. 그리고 20년 정도가 지나면 짝짓기를 하고, 암 거북이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다. 새끼 거북이가 어른 거북이가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확률은 0.1%다. 천 마리 중 한 마리만 생존하고 대부분은 이 기나긴 과정에서 죽는다. <br/><br/>나는 경계에 서 있다. 내가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굳어진 세계관을 깨야 한다. 그 편하고 단단하고 나를 길러준 알이 이제는 나를 감금하여 죽게 만드는 무덤도 되기 때문이다. 나를 감싼 세상이 알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내 입안에서는 임시치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며 수많은 모래 중에 하나라는 절실한 깨달음이 나의 임시치아다. 연약하지만 이 치아로 편견, 상식, 전통, 흉내, 부러움이라는 알을 깨기 시작해야겠다.<br/><br/><배철현 |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06.txt

제목: [건강기능식품 불편한 진실]비타민 효과 ‘갑론을박’… 칼슘제 되레 ‘혈관에 독’  
날짜: 201508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1100000166  
본문: ■ 비타민C·E·베타카로틴 보충제<br/>감기·암·노화예방… 먹으나마나<br/>노벨 화학상과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 물리화학자 라이너스 폴링(1901~1994)은 비타민C 예찬론자였다. 비타민C가 감기를 예방하고 심장병이나 암에 좋은 것은 물론 노화방지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명의 말기암 환자에게 1만㎎의 비타민C를 10일간 주사하고 이후부턴 알약 형태로 복용케 했다. 그 결과 20~30년 전 말기암 진단을 받은 1000명의 환자에 비해 비타민C를 투여한 이들의 생존율이 4.2배나 높았다고 ‘미국 국립과학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에드워드 크리어건 박사팀과 찰스 모어텔 박사팀이 ‘뉴잉글랜드 의학저널(NEJM)’에 1979년과 1985년 발표한 임상시험 결과는 전혀 달랐다. 이들은 각각 123명, 100명의 진행성 암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하루에 비타민C를 알약 형태로 1만㎎ 복용시키고, 다른 그룹은 위약(플라시보)을 먹게 했다. 그 결과 양쪽의 생존율에 차이가 없었다. <br/>의학계는 두 연구 결과의 현격한 차이를 폴링의 임상시험 비교 대상이 동시간대 암환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현재의 암환자들은 20~30년 전 환자에 비해 훨씬 좋아진 항생제와 영양주사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두 그룹의 생존기간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알약 형태와 주사라는 투여 방법의 차이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임상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 비타민C의 감기 예방 효과도 ‘없음’으로 나타났다. 2012년 11월 ‘코크란 라이브러리’에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29편의 임상시험 연구를 메타분석한 것으로 평소 200㎎ 이상의 비타민C 복용군과 위약 사용군 사이에 감기 발생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br/>미국 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는 암이나 심혈관질환 예방 목적으로 비타민 보충제를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데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권고하지 않는다. 특히 베타카로틴 보충제·비타민E는 사용해선 안된다고 강력 권고한다. 미국암협회도 항암치료 중엔 보충제를 피할 것을 권하고 있다.<br/><br/>■ 글루코사민<br/>관절염 통증엔…차라리 소염진통제<br/>연골 구성 성분인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이 연골 손실 및 관절기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메타분석에 잘 드러나 있다. <br/>연구원은 글루코사민 제제의 골관절염 치료 효과를 다룬 기존 임상시험 연구 20편을 메타분석한 결과 ‘치료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콘드로이틴 성분 또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 성분의 제품도 ‘효과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br/>이보다 앞선 2000년 ‘미국의학협회지(JAMA)’에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효능에 관한 메타분석 내용이 실렸다. 15편의 임상시험 연구를 종합한 결과였는데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모두 골관절염의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긴 했다. 하지만 질적 수준이 높은 연구들만 합쳐 분석한 결과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r/>임상시험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원인은 또 있었다. 15편 중 13편의 임상시험 연구가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제조사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았고, 일부 논문의 작성자는 제조사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다. <br/>2006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게재된 미국인 관절염 환자 1583명의 글루코사민 효과 임상시험 결과도 흥미롭다.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위약군(313명)의 60.1%, 글루코사민군(317명)의 64.0%, 콘드로이틴군(318명)의 65.4%,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을 모두 복용한 그룹(317명)의 66.6%, 소염진통제를 섭취한 그룹(318명)의 70.1%가 통증이 완화됐다고 답했다. <br/><br/>■ 오메가3 지방산<br/>등푸른 생선으로 섭취하는 게 좋아<br/>오메가3는 고등어·연어·참치·청어·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 호두·올리브유·콩류·아마씨 등에 많이 들어 있다. 2004년 ‘미국심장학저널’은 14편의 코호트 연구와 5편의 환자-대조군 연구를 종합해 메타분석한 결과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전혀 먹지 않거나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관상동맥질환의 빈도가 14% 정도 낮았다’는 논문을 게재했다.<br/>오메가3 보충제는 어떨까. 2012년 5월 ‘미국의학협회지 내과(JAMA Internal Medicine)’에 명승권 국제암대학원대 교수의 메타분석 결과가 실렸다. 명 교수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오메가3 보충제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들을 종합 분석했다. 임상시험 대상은 심혈관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로 모두 2만485명에 달했다. 분석 결과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보충제를 먹어도 돌연심장사, 울혈성 심부전,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발생이나 사망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분석에 활용된 논문 14편의 임상시험엔 오메가3와 위약이 사용됐고,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들이 오메가3 보충제인지, 위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한 시험이었다. <br/>그렇다면 심혈관질환이 없는 건강한 일반인이 오메가3를 복용하면 예방효과가 있을까. <br/>현재로선 있다, 없다를 논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된 임상시험 연구결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br/>■ 칼슘보충제와 비타민 D<br/>골절예방 도움, 심혈관질환 더 위험<br/>칼슘을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지 않지만, 보충제 형태로 복용하면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수년 전부터 유수한 논문들이 잇따라 발표됐다. 2010년 ‘영국 의학저널’에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의 심근경색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1.27배였다는 메타분석 결과가 실렸다. 앞선 연구에선 1000명이 5년간 칼슘 보충제를 복용할 경우 26명이 골절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심근경색 14명, 뇌졸중 10명, 사망자 13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br/>2013년 ‘미국의학협회지 내과’에 실린 대규모 관찰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 여러 주에서 50~71세인 38만여명의 남녀를 평균 12년간 관찰했다. 그 결과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남자 그룹의 심혈관질환 발병률이 복용하지 않은 그룹의 1.2배였다. 보충제가 아닌 음식을 통한 칼슘 섭취는 남녀 모두에게서 심혈관질환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r/>같은 해 ‘영국 의학저널’엔 6만여명의 스웨덴 여성을 대상으로 19년간 관찰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보충제로 칼슘을 섭취할 때 사망률이 2.6배 높은 것으로 나왔다. <br/>비타민D 보충제는 효능이 있을까. 2014년 1월 의학학술지 ‘랜싯’에 23편(총 4082명)의 기존 임상시험 연구를 리뷰한 내용이 실렸다. 6편만 비타민D 복용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렸다. 15편은 효과가 없다고 했고, 2편은 오히려 해로운 것이라고 했다. <br/>미국 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는 2013년 2월 ‘골절을 예방할 목적으로 칼슘 보충제나 비타민D를 복용하는 것은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권고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07.txt

제목: [건강기능식품 불편한 진실]“도움 된다” “필요 없다” 의사들도 온도차  
날짜: 201508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1100000167  
본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국내 의학자들 사이에서도 다른 견해는 공존한다. 강제헌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음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최선이지만 특정 영양소가 결핍됐다면 부족 부분은 건강기능식품으로라도 채워주는 게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견해</span>”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span class='quot1'>그러나 결핍을 보충한다는 개념과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span>”라며 “<span class='quot1'>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령 비타민C가 감기나 메르스 예방, 암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span>”고 말했다. <br/>이덕철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과거 비타민제 등에 가졌던 기대가 연구결과로 뒷받침되지 않아 실망으로 바뀐 것은 사실</span>”이라고 말했다. <br/>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메타분석은 특정질환에 특정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효과 있다, 없다를 밝히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비타민제는 먹어선 안된다고 말하는 건 확대해석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효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br/>백현욱 분당제생병원 임상영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영·유아나 건강한 젊은이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2'>체내 모든 기능이 떨어진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조적으로 의사의 처방하에 적절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span>”고 말했다.<br/>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span class='quot3'>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선 워낙 다양한 소견이 공존해 현재로선 의협의 명확한 입장이 없다</span>”고 밝혔다. 다만 신 대변인은 “<span class='quot3'>그동안 나온 임상시험들을 종합해 분석하는 메타분석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전까지 사실로 믿던 내용이 진리가 아니었음을 알게 됐고, 최신 의학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span>”고 덧붙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08.txt

제목: 앞치마를 두른 레슬링 챔피언 이왕표  
날짜: 201508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1100000080  
본문: 호탕하게 링을 누비던 이왕표가 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은 큰 충격이었다. 다행히 그는 다시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고, 자신의 경험이 담긴 항암 요리책까지 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프로레슬링의 인기를 되찾고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서는 제2의 인생 계획도 세우고 있다.<br/><br/>지난 5월, 40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감한 이왕표(61)는 아직도 김일체육관의 문하생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를 잊지 못한다. ‘박치기왕’ 김일 선생의 경기를 보면서 레슬러의 꿈을 키우던 1975년 어느 날, 김일체육관에서 문하생 1기를 뽑는다는 광고를 보고 단숨에 달려갔다. 그러나 그는 체중이 기준에 못 미쳐 자격 미달이었다. 하지만 고 김일 선생은 열의에 가득 찬 이왕표의 눈빛을 보고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시작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자신이 운동을 꽤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선배들과 겨룬 스파링에서 살려달라며 바닥을 두드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br/><br/>“열심히 준비해서 데뷔를 했는데도 무려 20연패를 했어요. 매번 경기를 마치면 고개를 숙이고 링에서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어서 매일 밤 명동 거리를 방황하기도 했어요. 김일 선생님께서 저를 잡아다놓고 많이 혼내셨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운동에 전념하다 보니 한 번 두 번 승수가 쌓이더라고요. 그렇게 챔피언 자리에 오르고 김일 선생님의 후계자가 됐죠.”<br/><br/>‘나는 표범’. 선수 시절 그의 별명이었다. 짙은 콧수염에 날카로운 눈빛, 표범이 그려진 태권도복을 입고 등장해 시원한 돌려차기와 드롭킥(제자리에서 뛴 상태로 몸을 비틀어 양발을 이용해 힘차게 밀어 차는 기술)으로 상대를 쓰러뜨렸다. 하지만 기자가 만난 이왕표는 예전과 달리 수척한 모습이었다. 담도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120kg에 달하던 그의 몸무게는 80kg대로 떨어졌다. 키가 190cm인 것을 감안하면 날씬하다 못해 수척할 지경. 하지만 묵직한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스승인 김일 선생이 15년 전 은퇴식을 치른 장충체육관에서 똑같이 현역 생활을 마감한 그는 우수에 찬 눈으로 뜨거운 소회를 전했다.<br/><br/>“40년 세월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눈물이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은퇴식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콧등이 시큰해지더라고요. 침체된 레슬링을 전성기 때처럼 부활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마음 놓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선배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가장 아쉬운 건 은퇴 경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관전만 했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가 가장 아쉽죠.”<br/><br/>그가 앓고 있는 담도암은 간에서 만들어진 답즙이 십이지장까지 가는 경로인 담도에서 암세포들이 형성되는 병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암에 속한다. 2013년 암 판정을 받은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오로지 의사들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했다. 다시 링 위에 서야겠다는 생각은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세 번의 수술을 받은 뒤 부축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다.<br/><br/>“식사를 하려는데 젓가락을 못 들겠는 거예요. ‘죽을 때가 왔나 보다’라고 느꼈죠. 손톱을 깎을 수도 없었어요. 천하장사가 손톱깎이 쓸 힘도 없다니 정말 슬펐죠. 그때 저도 울고 집사람도 울었어요. 몸이 이렇다 보니 항상 최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죠. 절망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요.”<br/><br/>다시 일어서다<br/>세 번의 수술 과정을 거치다 보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생존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항암치료를 받는 것보단 식이요법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암과 싸운 지도 2년. 다행히 병이 많이 호전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아내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물 한 잔을 마시며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한다. 과거에는 당연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무척이나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기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행복하다고 말한다.<br/><br/>“식이요법을 하면서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게 힘들긴 했어요.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많으니 고통스러웠죠. 예전엔 고기를 구워 먹는 걸 좋아했는데,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삶거나 쪄 먹어야 했어요. 그렇게 몸에 좋은 음식이나 조리법을 찾다 보니 내 몸에 필요한 것과 궁합이 잘 맞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br/><br/>식단을 철저하게 바꿀 수 있었던 데는 아내의 도움이 컸다. 재일교포인 부인 최숙자씨는 10년 전 그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최씨의 어머니가 이어준 인연이었다. 이왕표가 봉사 단체 ‘로타리클럽’ 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 최씨의 어머니도 열심히 활동하던 회원이었다. 어머니와 행사장에 자주 동행한 최씨는 매번 이왕표와 마주쳤고, 이내 둘은 부부가 됐다. 인터뷰 중 만난 부인은 매우 상냥하고 조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나올 때면 쑥스러운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암에 걸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아내 덕분에 이왕표는 골프를 하러 다닐 정도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br/><br/>“아내한테 정말 고맙죠. 매일 삼시 세끼 손수 차려주고 수술할 때마다 동의서에 사인해야 했는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제 몸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암은 1~2년 안에 완쾌되는 게 아니라서 길게 봐야 한대요. 한 5년은 봐야 한다던데 전 아직 2년 차예요. 3년이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기간 동안에도 컨디션과 음식을 조절하고 해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br/><br/>철저한 식이 조절로 병세를 호전시킨 그는 「앞치마 두른 세계 챔피언」(프레이온)이라는 항암 요리책도 냈다. 2년 동안 항암 요리를 분석해온 경험을 다른 암 환자들과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책 속에는 아내와 직접 요리해 먹었던 채소초밥, 삼색 채소구이, 연근 물김치 등 38가지 레시피가 담겨 있다.<br/><br/>“어렸을 때부터 체육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방일이 낯설지 않아요. 요리를 잘해야 선배들에게 칭찬도 받고 하루를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웃음). 전문적인 기술은 없어도 저 혼자 한 끼 해결하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결혼한 뒤엔 아내가 워낙 잘 챙겨줘서 호강하고 지내다가, 암에 걸리고 나서부턴 아내와 함께 좋은 식재료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연구하게 됐어요.”<br/><br/>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메뉴가 있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어떤 요리를 추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말이다. 자신이 즐겨 먹는 식재료 중 유익한 성분이 풍부한 것을 찾고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단다. 이 순간만큼은 그가 항암 요리 전문가처럼 보였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이니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br/><br/>“식이요법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상당 기간 오래 지속해야 해요. 저 같은 경우 해조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역, 다시마 등을 활용한 요리를 즐겨 먹었어요. 이미 잘 알려진 항암 식품은 버섯, 배추, 브로콜리, 호박, 청국장, 생선 등 우리가 늘 접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중에서 평소에 좋아하던 식재료를 튀기거나 굽는 대신 생으로 먹거나 삶고, 끓이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됩니다.”<br/><br/>또 다른 시작<br/>‘내가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그는 줄곧 이런 생각을 해왔다. 마음이 급해졌다. 그래서 유서도 써놓고 사후에 안치될 납골당 자리도 마련해놨다.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의 삶을 생각할 여유도 생겼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프로레슬링을 다시 인기 스포츠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다.<br/><br/>“원래 체육관을 운영했는데 아프기 시작하면서 문을 닫았어요. 이제 다시 체육관 열 준비를 하려고요. 종합격투기와 레슬링을 병행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실력을 두루 갖춘 선수들을 선발할 예정이에요. 지금까진 레슬링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책임지지 못하면 그들은 바로 미아가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다리라고만 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요즘엔 레슬링 경기를 1년에 몇 번 안 하는 ‘특집’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꾸준하게 경기를 열고 싶어요. 여태까지 수많은 세월을 ‘이왕표’라는 이름으로 이끌어왔지만 이제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야죠.”<br/><br/>이제 선수가 아닌 후원자로서 프로레슬링의 발전을 위해 힘쓸 거라는 그는 학교폭력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소년들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자는 의미로 ‘울타리 클럽’을 만들었다. 주요 활동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이 녹아 있는 강연을 하는 것. 요리책의 수익금 역시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쓸 예정이라고 한다.<br/><br/>“과거 레슬링 선수들이 유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했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왕표’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줄곧 제가 받은 사랑을 아이들한테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죠. 신뢰가 가니까요. 어떻게 보면 레슬링 선수들이 학교폭력 문제에서는 ‘의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에선 최고인 사람들이 폭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일러준다면 아이들이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 학교폭력은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손을 내민다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br/><br/>지금까지 그가 말한 계획은 전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은 없냐고 묻자,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한참을 고민한 뒤에도 질문이 너무 어려운 것 아니냐며 머쓱한 웃음을 지었다.<br/><br/>“우리 나이에는 다들 은퇴를 하는데 저는 지금부터 뭔가를 새로 하고 싶어요. 청춘을 레슬링에 바쳤으니 조금 색다른 걸 해보고 싶죠. 기회가 되면 사업을 해볼 생각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쓰면 좋지 않을까요?(웃음). 또 제가 과거에는 근육질의 사나이였는데 지금은 일반인들하고 비슷해졌어요. 사라진 근육을 되찾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건강을 지켜야겠죠.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식단 조절도 철저히 하면서 차츰차츰 운동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br/><br/>링 위를 누비던 이왕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줬다. 선수 생활을 마친 뒤에도 암을 극복하며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그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는 이제 링 위가 아닌 더 넓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중이다.<br/><br/>“요즘엔 레슬링 경기를 1년에 몇 번 안 하는 ‘특집’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꾸준하게 경기를 열고 싶어요. 여태까지 수많은 세월을 ‘이왕표’라는 이름으로 이끌어왔지만 이제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야죠.”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09.txt

제목: 대한민국 여성의 삶, 나아지고 있나요?  
날짜: 201508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801100000061  
본문: Issue<br/>이 시대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통계청에서는 1997년 이후 매년 양성평등 주간마다 여성의 모습을 부문별로 조명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작성해 발표해왔다. 특히 올해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시간 활용 및 의식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2015년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현주소를 공개한다.<br/><br/>1 워킹 맘은 전업주부보다 고단해<br/>가사 노동<br/>우리나라 여성은 잠자고 식사하는 등 필수적인 활동에 남성보다 5분 더 시간을 사용하는 반면, 일, 가사노동, 학습 등 의무 활동에는 남성보다 14분 더 사용하고 있었다. 또 여가 활동에서도 남성보다 18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은 40대가, 전업주부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1시간 49분 더 가사노동에 시간을 쓰고 있었다. 맞벌이 여성은 전업주부에 비해 더 고단했다. 의무 활동(일, 가사 노동, 학습)은 전업주부보다 2시간 이상 많이 쓰면서도 주말이면 주중에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평일보다 가사노동 시간이 길었다.<br/>배우자와 따로 사는 여성의 경우 일은 51분 더 하고 가사노동은 54분 덜 하고 있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은 아이 돌보기 등 가사노동에 3시간 5분 더 시간을 사용하지만, 여가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br/>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여성은 이 부문에 대해 여전히 불만족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및 고학력자, 유배우자 층에서 가사 분담에 대한 불만족 의견이 높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가정관리 시간은 2시간 27분으로 남성(31분)에 비해<br/>5배가량이나 많았다.<br/><br/>가정관리 시간<br/>여 2시간 27분<br/>남 31분<br/><br/>2 결혼, 육아, 임신, 출산으로 인해 경력 단절 생겨<br/>일·가정 양립<br/>지난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맡겨진 아이는 214만9,000명,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는 101만2,000명으로, 교육기관에 맡겨진 아이의 경우 2013년보다 4,000명 증가했다. 또 7만3,412명의 여성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선택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3,421명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br/>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10가구 중 4가구이며, 이중 40대의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4월 기준, 기혼 여성 중 20.7%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경력 단절이 생겼는데, 이는 전년 대비 2만2,000명(1.1%) 증가한 수치다. 일을 그만둔 사유는 결혼(41.6%), 육아(31.7%), 임신·출산(22.1%) 순이다. 지난해 출산율은 1.21명으로 2013년 대비 0.02명 증가했으며, 여아 100명당 남아 수(출생성비)는 105.3명으로 남아가 약간 많았다.<br/><br/>출산율<br/>1.21명 (전년 1,187명)<br/>출생성비<br/>105.3명 (여아 100명당 남아 수)<br/><br/>3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 더 잘 받아<br/>건강<br/>지난해 기혼 여성은 미혼 여성보다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식사 하기’, ‘적정 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 등 개인의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보다 적극적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20, 30대보다 모두 높았으며 특히 ‘아침 식사’와 ‘정기 건강검진’에서 크게 앞섰다.<br/>지난해 20세 이상 여성의 3.3%가 담배를 피웠는데, 미혼 여성(5.5%)이 기혼 여성(2.0%)보다 흡연율이 높았다. 스트레스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66.8%가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가정생활에서는 남성(12.5%)보다 높은 51.4%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여성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다. 그다음으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 순으로 나타났다.<br/><br/>흡연율 3.3%<br/><br/>4 여성의 경제활동은 M자 패턴 보여<br/>경제활동<br/>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49.5%로, 남성 71.4%에 비해 21.9% 낮았다. 그러나 2013년보다 0.7% 상승한 수치다. 연령대별 고용률은 25~29세가 6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00년과 비교해 4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출산과 육아 시기인 30대에 감소하다가 40대에 다시 증가하는 M자 패턴을 보인 것이 눈에 띈다.<br/>한편 여성 취업자는 77.4%가 ‘고졸 이상’이었고, 취업자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75.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여성 상용근로자 비중은 42.1%로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51.4%)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임시근로자 비중은 여성(27.4%)이 남성(14.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br/>지난해 임금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률은 62.2%로, 건강보험에 64.4%, 고용보험에 61.9%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낮은 수치다.<br/><br/><br/>대학 진학률<br/>女74.6% > 男67.6%<br/><br/>고용률<br/>49.5%< 71.4%<br/><br/>여성 취업자교육 정도<br/>대졸 이상 39.3%<br/>고졸 38.1%<br/>초졸 이하 12.6%<br/>중졸 10%<br/><br/>5 여성 정치인, 여전히 비중 낮지만 꾸준히 증가해<br/>사회적 지위<br/>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교육 부문에서 확연히 높아졌다. 지난해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74.6%로, 이는 남성(67.6%)보다 7.0%나 높은 수치다. 초등학교 교사는 4명 중 3명이 여성이고 여성 교장과 교감의 비율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초등학교 여성 교감의 경우 2000년보다 5배 이상 늘어났으며 현재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br/>1980년 13.6%에 불과했던 여성 의사 비율은 지난해 전체의 24.4%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여성 한의사의 비율도 1980년 2.4%에서 2014년 19.5%로 증가했다. 여성 약사 비율은 64.3%로, 1980년 이후 절반 이상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br/>정치 부문에서는 아직도 여성의 위치가 낮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5.7%, 제6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22.9%를 차지했다. 이는 1991년 제1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0.9%,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br/><br/>6 초혼 연령 늦어지고, 30·40대 출산율 증가해<br/>인구<br/>올해 여성 인구(2,531만5,000명)가 남성 인구(2,530만3,000명)를 약간 앞질렀다. 따라서 올해 여자 100명당 남자 수는 100.0명으로, 1990년 101.3명에서 감소했다. 여성 인구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2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16.5%), 50대(16.0%) 순으로 나타나 점차 고령화돼가는 현상을 보였다. 여성이 세대주인 가구는 28.4%로, 1990년 15.7%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여성 세대주의 증가는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두드러졌다.<br/>지난해 초혼 연령은 29.8세로, 1990년 이후 결혼이 계속 늦어지는 추세다. 2000년 26.5세보다 무려 3.3세 늦어졌다. 재혼 연령은 4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은 2011년까지 4년 이하 신혼부부의 비중이 가장 컸지만, 지난해에는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28.7%)의 이혼율이 신혼부부(23.5%)를 앞질렀다.<br/>최고 출산율 연령은 2006년 이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했다. 연령대별로는 30~34세가 113.8명(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으로 출산율이 가장 높았다. 만혼의 영향으로 20대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10.txt

제목: [의술 인술]흑색종 치료에 청신호 ‘면역항암제’  
날짜: 2015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31100000050  
본문: 얼마 전 내원한 50대 여성은 몇 해 전 발바닥에 난 검푸른 점을 발견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등산과 하프마라톤으로 야외 활동량이 많아져 생긴 잡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반점의 크기가 계속 커져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흑색종(피부암 일종)이 사타구니와 복부 림프절까지 퍼진 상태였다.<br/><br/>피부암은 호주, 미국 등 자외선 노출이 많은 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도 지난 5년간 악성 흑색종을 포함한 피부암 발병이 약 44% 늘어났다.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은 피부 속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의 악성화로 인해 발생하는 종양으로, 멜라닌 세포가 있는 부위라면 어디에서나 발병할 수 있다. 피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피부암 중 악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이를 동반한 진행성 흑색종 환자는 1년 내 사망할 확률이 75%에 이를 만큼 매우 공격적인 암 중 하나이다.<br/><br/>서양과 달리 한국을 포함한 동양인은 자외선 노출과는 무관한 발바닥, 항문, 비강, 질 등에도 흑색종이 흔히 발생한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비교적 쉬운 편이다. 하지만 가려움이나 통증과 같은 자각 증세가 없고 기미, 점 등과 같이 단순한 피부 색소 질환으로 여겨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br/><br/>치료법으로는 종양 덩어리를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 면역치료, 항암화학요법, 표적항암제 등이 있다. 흑색종은 뒤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의 환자들은 근치적 수술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진행성 흑색종에 사용되는 항암화학요법은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구토, 탈모, 백혈구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br/><br/>인터페론과 인터루킨-2와 같은 기존의 면역치료는 부작용이 심하고, 소수의 환자에게만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대상 환자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특정 유전자 변이에 의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항암제는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흑색종 환자에게만 항암효능을 나타내며, 궁극적으로는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결국 치료에 실패하게 된다. 최근 이러한 부작용을 낮춘 새로운 면역항암제에 대한 의료진 및 환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r/><br/>흑색종 치료에 청신호를 켠 면역항암제의 등장은 치료제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흑색종 환자들에게 희소식이다. 이 치료제는 암세포에 의해 무력화된 T-세포면역체계를 회복시켜 암세포를 잘 인식하도록 해 암을 이길 수 있게 만든다.<br/><br/>면역항암제는 약물내성(종양에 대해 항암효과를 더 이상 보이지 못하는 상태) 문제가 적어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며, 병의 진행을 막는 등 치료효과 또한 우수하다. 차세대 면역항암제로 꼽히는 이필리무맙, 니볼루맙과 같은 면역항암제는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낮추고, 암의 근본적 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br/><br/>암 치료는 마라톤과 흡사하다. <br/><br/>효과가 우수하고 안전하게 흑색종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면역항암제가 개발돼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환자들이 결승선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완주하기를 응원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11.txt

제목: [건강기능식품 불편한 진실]비타민 효과 ‘갑론을박’… 칼슘제 되레 ‘혈관에 독’  
날짜: 2015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3110018104236  
본문: <b>■ 비타민C·E·베타카로틴 보충제<br/>감기·암·노화예방… 먹으나마나</b><br/><br/>노벨 화학상과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 물리화학자 라이너스 폴링(1901~1994)은 비타민C 예찬론자였다. 비타민C가 감기를 예방하고 심장병이나 암에 좋은 것은 물론 노화방지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명의 말기암 환자에게 1만㎎의 비타민C를 10일간 주사하고 이후부턴 알약 형태로 복용케 했다. 그 결과 20~30년 전 말기암 진단을 받은 1000명의 환자에 비해 비타민C를 투여한 이들의 생존율이 4.2배나 높았다고 ‘미국 국립과학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에드워드 크리어건 박사팀과 찰스 모어텔 박사팀이 ‘뉴잉글랜드 의학저널(NEJM)’에 1979년과 1985년 발표한 임상시험 결과는 전혀 달랐다. 이들은 각각 123명, 100명의 진행성 암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하루에 비타민C를 알약 형태로 1만㎎ 복용시키고, 다른 그룹은 위약(플라시보)을 먹게 했다. 그 결과 양쪽의 생존율에 차이가 없었다. <br/><br/>의학계는 두 연구 결과의 현격한 차이를 폴링의 임상시험 비교 대상이 동시간대 암환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현재의 암환자들은 20~30년 전 환자에 비해 훨씬 좋아진 항생제와 영양주사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두 그룹의 생존기간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알약 형태와 주사라는 투여 방법의 차이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임상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 비타민C의 감기 예방 효과도 ‘없음’으로 나타났다. 2012년 11월 ‘코크란 라이브러리’에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29편의 임상시험 연구를 메타분석한 것으로 평소 200㎎ 이상의 비타민C 복용군과 위약 사용군 사이에 감기 발생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br/><br/>미국 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는 암이나 심혈관질환 예방 목적으로 비타민 보충제를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데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권고하지 않는다. 특히 베타카로틴 보충제·비타민E는 사용해선 안된다고 강력 권고한다. 미국암협회도 항암치료 중엔 보충제를 피할 것을 권하고 있다.<br/><br/><br/><b>■ 글루코사민<br/>관절염 통증엔…차라리 소염진통제</b><br/><br/>연골 구성 성분인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이 연골 손실 및 관절기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메타분석에 잘 드러나 있다. <br/><br/>연구원은 글루코사민 제제의 골관절염 치료 효과를 다룬 기존 임상시험 연구 20편을 메타분석한 결과 ‘치료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콘드로이틴 성분 또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 성분의 제품도 ‘효과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br/><br/>이보다 앞선 2000년 ‘미국의학협회지(JAMA)’에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효능에 관한 메타분석 내용이 실렸다. 15편의 임상시험 연구를 종합한 결과였는데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모두 골관절염의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긴 했다. 하지만 질적 수준이 높은 연구들만 합쳐 분석한 결과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r/><br/>임상시험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원인은 또 있었다. 15편 중 13편의 임상시험 연구가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제조사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았고, 일부 논문의 작성자는 제조사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다. <br/><br/>2006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게재된 미국인 관절염 환자 1583명의 글루코사민 효과 임상시험 결과도 흥미롭다.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위약군(313명)의 60.1%, 글루코사민군(317명)의 64.0%, 콘드로이틴군(318명)의 65.4%,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을 모두 복용한 그룹(317명)의 66.6%, 소염진통제를 섭취한 그룹(318명)의 70.1%가 통증이 완화됐다고 답했다. <br/><br/><b>■ 오메가3 지방산<br/>등푸른 생선으로 섭취하는 게 좋아</b><br/><br/>오메가3는 고등어·연어·참치·청어·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 호두·올리브유·콩류·아마씨 등에 많이 들어 있다. 2004년 ‘미국심장학저널’은 14편의 코호트 연구와 5편의 환자-대조군 연구를 종합해 메타분석한 결과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전혀 먹지 않거나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관상동맥질환의 빈도가 14% 정도 낮았다’는 논문을 게재했다.<br/><br/>오메가3 보충제는 어떨까. 2012년 5월 ‘미국의학협회지 내과(JAMA Internal Medicine)’에 명승권 국제암대학원대 교수의 메타분석 결과가 실렸다. 명 교수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오메가3 보충제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들을 종합 분석했다. 임상시험 대상은 심혈관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로 모두 2만485명에 달했다. 분석 결과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보충제를 먹어도 돌연심장사, 울혈성 심부전,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발생이나 사망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분석에 활용된 논문 14편의 임상시험엔 오메가3와 위약이 사용됐고,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들이 오메가3 보충제인지, 위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한 시험이었다. <br/><br/>그렇다면 심혈관질환이 없는 건강한 일반인이 오메가3를 복용하면 예방효과가 있을까. <br/><br/>현재로선 있다, 없다를 논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된 임상시험 연구결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br/><br/><b>■ 칼슘보충제와 비타민 D<br/>골절예방 도움, 심혈관질환 더 위험</b><br/><br/>칼슘을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지 않지만, 보충제 형태로 복용하면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수년 전부터 유수한 논문들이 잇따라 발표됐다. 2010년 ‘영국 의학저널’에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의 심근경색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1.27배였다는 메타분석 결과가 실렸다. 앞선 연구에선 1000명이 5년간 칼슘 보충제를 복용할 경우 26명이 골절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심근경색 14명, 뇌졸중 10명, 사망자 13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br/><br/>2013년 ‘미국의학협회지 내과’에 실린 대규모 관찰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 여러 주에서 50~71세인 38만여명의 남녀를 평균 12년간 관찰했다. 그 결과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남자 그룹의 심혈관질환 발병률이 복용하지 않은 그룹의 1.2배였다. 보충제가 아닌 음식을 통한 칼슘 섭취는 남녀 모두에게서 심혈관질환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같은 해 ‘영국 의학저널’엔 6만여명의 스웨덴 여성을 대상으로 19년간 관찰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보충제로 칼슘을 섭취할 때 사망률이 2.6배 높은 것으로 나왔다. <br/><br/>비타민D 보충제는 효능이 있을까. 2014년 1월 의학학술지 ‘랜싯’에 23편(총 4082명)의 기존 임상시험 연구를 리뷰한 내용이 실렸다. 6편만 비타민D 복용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렸다. 15편은 효과가 없다고 했고, 2편은 오히려 해로운 것이라고 했다. <br/><br/>미국 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는 2013년 2월 ‘골절을 예방할 목적으로 칼슘 보충제나 비타민D를 복용하는 것은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권고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br/><br/><글 박주연 기자 jypark@kyunghyang.com·사진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12.txt

제목: [건강기능식품 불편한 진실]“도움 된다” “필요 없다” 의사들도 온도차  
날짜: 2015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3110018104237  
본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국내 의학자들 사이에서도 다른 견해는 공존한다. 강제헌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음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최선이지만 특정 영양소가 결핍됐다면 부족 부분은 건강기능식품으로라도 채워주는 게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견해</span>”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span class='quot1'>그러나 결핍을 보충한다는 개념과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span>”라며 “<span class='quot1'>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령 비타민C가 감기나 메르스 예방, 암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span>”고 말했다.<br/><br/>이덕철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과거 비타민제 등에 가졌던 기대가 연구결과로 뒷받침되지 않아 실망으로 바뀐 것은 사실</span>”이라고 말했다. <br/><br/>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메타분석은 특정질환에 특정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효과 있다, 없다를 밝히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비타민제는 먹어선 안된다고 말하는 건 확대해석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효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br/><br/>백현욱 분당제생병원 임상영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영·유아나 건강한 젊은이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2'>체내 모든 기능이 떨어진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조적으로 의사의 처방하에 적절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span>”고 말했다.<br/><br/>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span class='quot3'>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선 워낙 다양한 소견이 공존해 현재로선 의협의 명확한 입장이 없다</span>”고 밝혔다. 다만 신 대변인은 “<span class='quot3'>그동안 나온 임상시험들을 종합해 분석하는 메타분석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전까지 사실로 믿던 내용이 진리가 아니었음을 알게 됐고, 최신 의학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span>”고 덧붙였다.<br/><br/><박주연 기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13.txt

제목: 전남 장흥서 일본·독일·중국·인도 ‘통합의술’ 일주일간 선봬  
날짜: 201507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3010018088144  
본문: 일본·독일·중국·인도의 ‘치료비방’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br/><br/>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남 장흥군 장흥읍 탐진강변 등에서 열리는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 박람회’에서다. <br/><br/>이 행사는 전남도가 올해로 6번째 연다.<br/><br/>비록 외진 곳에서 열지만, 전남 지역에서 가장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장흥과 ‘의학’이 만나 더욱 주목받는 행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br/><br/>‘8가지 외국 통합의학’ 소개는 올해 박람회 중 가장 이색적인 행사다.<br/><br/>독일의 통합 암치료, 일본의 컬러테라피·배꼽 호흡테라피, 인도 종종요법·명상·요가체험, 중의학 상담, 세계미술치료 체험 등이 바로 그것이다. <br/><br/>독일의 통합 암치료는 독일의 ‘생물학적 암치료 재단’이 갖고 있는 통합 암치료 방법을 바탕으로 한 암환자 치료와 재활, 사후관리방법을 소개한다. <br/><br/>일본의 컬러테라피는 색깔이 인간의 면역체계 미치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주거환경의 색, 옷색깔 등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의학이다. 배꼽 호흡테라피는 배꼽과 배 주름 등을 손으로 만져 각종 병을 예방, 진단, 치유하는 효과를 낸다.<br/><br/>인도의 동종요법은 어린이에게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알레르기 질환를 완화하고, 면역력과 영양, 성장을 강화하는 각종 치유방법을 담고 있다. 중국의 전통중의학이 선보이는 건강돌봄, 심리상담, 식사요법, 약물 상담 등도 경험할 수 있다. <br/><br/>강현승 순천제일대 교수(대체의학)는 “<span class='quot0'>각국의 치유비방이 소개되면서 현대인들의 질병을 바로잡는 지혜를 얻도록 해주는 행사가 될 것</span>”이라고 평가했다. <br/><br/>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span class='quot1'>올해 박람회는 내년 가을 33일간 선진 의료 40여개국이 참여하는 국제박람회 예비 행사로 마련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장흥의 가장 큰 축제인 ‘물 축제’와 함께 열리게 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14.txt

제목: [단독]부산대병원 마약류 불법 유통 미스터리…경찰, 전·현직 의사 3명 입건  
날짜: 201507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3010018082767  
본문: 경찰이 부산대병원의 한 중견 의사가 후배들의 도움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몰래 빼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br/><br/>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013년 11월 마약성 진통제 ‘타진’ 40정을 처방전 없이 수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전 부산대병원 의사 송모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씨의 부탁을 받고 간호사들로부터 타진을 구해 전달한 혐의로 이 병원 전공의(레지던트) ㄱ씨(34)와 ㄴ씨(29·여)도 수사를 받고 있다.<br/><br/>경찰과 병원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ㄱ씨와 ㄴ씨는 2013년 11월 한번에 10정씩 4차례에 걸쳐 타진 40정을 송씨에게 전달했다. 타진은 옥시코돈 성분의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 완화에 특효가 있어 말기암 환자에게 처방된다.<br/><br/>경찰은 이들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 명의로 처방받은 진통제 잔여분을 폐기하지 않고 병실에 보관하다가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br/><br/>이같은 사실은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병원 본원에서 근무하던 송씨가 지난 3월 경남 양산에 있는 분원으로 전근을 간 직후 투서 등을 통해 외부로 드러났다.<br/><br/>지난 6월 부산대병원 임직원들에게 송씨를 비난하는 투서성 e메일이 유포됐다. “<span class='quot0'>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span>”는 글로 시작하는 e메일은 송씨가 전공의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가져오게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br/><br/>앞서 작년 11월 송씨의 교수 재임용을 앞두고 열린 본원 인사위원회에서도 불법적인 ‘약 배달’ 문제를 지적하는 투서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병원은 직원들 사이에서 송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 1일 그를 면직 처리했다.<br/><br/>경찰 조사에서 송씨와 ㄱ·ㄴ씨 모두 타진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는 이 약이 어디에 사용됐느냐가 아리송하다는 것이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span class='quot1'>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드렸다</span>”면서 자신이 이 약품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그러나 경찰은 송씨가 약물을 직접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사는 “<span class='quot2'>타진이 하지정맥류 처방에 흔히 쓰이는지 의문</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2'>옥시코돈 성분은 중독성이 강해 본인이 오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pan>”고 말했다.<br/><br/>일례로 미국의 유명 메디컬 드라마 <하우스>에 의사로 등장하는 주인공 그레고리 하우스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극중에서 마약성 진통제 중독자로 등장한다.<br/><br/>병원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3'>마약은 반알만 없어져도 보건당국에 알려질 경우 병원 전체의 책임으로 비화할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3'>개인 일탈로 치부할 게 아니라 왜 이토록 오랫동안 쉬쉬하면서 문제를 키웠는지 밝혀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15.txt

제목: 관타나모가 수상하다. 젊은 암환자가 늘고 있다  
날짜: 201507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2910018074676  
본문: 쿠바 관타나모에 있는 미국 해군기지에서 민간인과 군인 최소 7명이 암에 걸려 철수를 요구하는 항의서가 제출됐다. 이미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3명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미국 해군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br/><br/>로이터, 가디언 등 외신들은 28일 “관타나모 해군기지내 법무팀 민간·군 인력이 집단으로 암에 걸렸다며 철수를 요청하는 항의서가 제출돼 미 해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br/><br/>암 진단을 받은 이들은 조만간 시설에서 방출된 뒤 발암물질과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애미헤럴드는 “9명이 뇌, 결장, 림프 등에서 암이 발견됐다”며 “이들 중 3명은 35세에서 52세 사이인데 이미 최근 13개월 안에 모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br/><br/>지난 10년 동안 관타나모 기지 내 법원시설에서 일한 검사와 변호사, 법원 관계자는 약 200명에 달한다. 항의서는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 중 적잖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게 특이하다”고 주목했다.<br/><br/>항의서에 따르면 이들은 폐쇄된 활주로 인근에 있는 항공유 처리실 등에서 일했다. 오래된 건물 등에서 근무하면서 석면 등 독극물에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관타나모 기지에서 수년째 일하고 있는 군사변호사 마이클 슈워츠는 “<span class='quot0'>우리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수년 동안 말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span>”고 가디언에 말했다.<br/><br/>관타나모 해군기지 켈리 워펠 대변인은 “<span class='quot1'>국방부는 관타나모 기지의 발암물질 우려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보건 당국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가디언은 의사들의 말을 인용해 “<span class='quot2'>추가적으로 세밀한 정보가 없다면 기지에서 암의 발생률이 어떤지,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내기 힘들다</span>”며 “<span class='quot2'>똑같은 암이 아니라 다른 타입의 암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span>”고 전했다.<br/><br/><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16.txt

제목: B급 질문을 하다 : 영화 ‘암살’ 속 실존 인물은?  
날짜: 20150728  
기자: 이혜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28100000117  
본문: 영화 <암살>은 친일파의 암살를 시도하는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는 신흥무관학교,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실존했던 기관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등장 인물 중 당시 실존했던 인물들이 있을까.<br/><br/>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꾸리는 백범 김구와 약산 김원봉은 실존했던 대표적인 독립투사들이다. 김원봉은 1919년 무장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을 조직하고 6년 동안 단장을 맡았다. 김구는 1931년 일제의 요인들을 암살하기 위한 독립운동 조직인 한인애국단을 조직했다. 김구와 김원봉은 사상적인 노선이 달랐지만 두 사람은 공동으로 동포에게 보내는 공개통신문을 발표하는 등 연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br/>영화에서 김구와 김원봉이 함께 지휘하는 암살작전의 타깃은 친일파 사업가 강인국과 조선군 사령관 가와구치다. 두 친일파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최동훈 감독은 “<span class='quot0'>특정인을 모델로 삼은 것은 아니고, 당시 친일을 하던 인물들의 특성이 고루 녹아 있는 인물로 그리려했다</span>”고 말했다.<br/>암살단인 안옥윤(전지현), 속사포(조진웅), 황덕삼(최덕문) 역시 가상의 인물이다. 하지만 최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데 영감을 받았던 인물은 있다. 이봉창 의사다. 이봉창 의사는 1932년 일본 도쿄에서 일왕에게 수류탄을 투척해 암살 시도를 했다. 최 감독은 “<span class='quot0'>거사 시행 전 이봉창 의사가 태극기를 뒤에 두고 손에는 폭탄을 든 채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며 당시 독립운동을 하던 이들에게 강한 감정을 느꼈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17.txt

제목: 고 백남준 부인 구보타 시게코 여사 별세  
날짜: 201507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27100000046  
본문: 비디오 아트 창시자로 평가받는 고 백남준의 부인이자 전위예술가인 구보타 시게코가 미국 뉴욕의 한 병원에서 23일 저녁(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78세.<br/>백남준아트센터는 “<span class='quot0'>생전 백남준 선생과 작품활동을 함께한 작가 등으로부터 구보타 여사의 사망 연락을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투병을 하던 중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들었다</span>”고 26일 밝혔다.<br/><br/>구보타는 백남준의 반려자이자 그 자신 역시 유명한 비디오 아티스트였다. 구보타는 1963년 도쿄 쇼게츠 회관에서 백남준을 처음 만났다. 플럭서스그룹의 일원으로 독일에서 주목받는 아티스트였던 백남준은 이날 머리카락으로 그림 그리기 등 특유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아티스트로서 정체기에 빠져 있던 구보타는 이 공연을 계기로 심기일전했다. 뉴욕으로 건너간 구보타는 역시 뉴욕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백남준과 재회했고, 둘은 1977년 결혼했다. 당시 구보타는 자궁 질환으로 비싼 수술비가 필요했다. 보험이 있던 백남준이 자신과 결혼해 부인 자격으로 수술을 받으라며 청혼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br/>백남준의 그늘에 가려 있긴 했지만, 구보타 역시 한 시대를 풍미한 작가였다. 백남준의 작품이 개념적이고 철학적이었다면, 조각을 전공한 구보타의 작품은 조금 더 조형적이었다. 마르셀 뒤샹의 작품을 비디오 아트로 재해석한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는 구보타의 대표작이다. 백남준과 마찬가지로 구보타 역시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다리 사이에 붓을 꽂고 붉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버자이너 페인팅>이 그 사례다.<br/>1996년 백남준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구보타는 작품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채 남편이 세상을 뜨기까지 10년간 간호에만 집중했다. 한국을 수차례 방문하기도 한 구보타는 생전에 “<span class='quot1'>남편과 함께한 시간 자체가 예술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span>”고 말했다.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백남준 작품 저작권의 법적 대리인은 백남준의 장조카인 재미교포 켄 백 하쿠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18.txt

제목: 김미화·서혜경·베르베르가 말하는 긍정의 에너지  
날짜: 201507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2710018048361  
본문: 정신과 전문의 김진세 박사는 2009년 ‘레이디경향’에 인터뷰 연재를 시작했다. 행복을 연구하는 해피올로지스트(Happiologist)의 인터뷰 주제는 ‘행복’이었다. 그는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행복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만났다. 강주은·권오중·김미화·김여진·박경철·서혜경·엄홍길·윤영미·이소은·이외수·임오경·정보석·최정원과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만남을 <행복을 인터뷰하다>(샘터)에 담아냈다.<br/><br/>이들처럼 성공해야, 인정받아야 행복할까? 김 박사는 인터뷰이들 중엔 고난 없이 행복을 이룬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이름 석 자만 보면 나와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삶은 우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결핍을 겪고, 상처를 받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인터뷰이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지혜를 갖고 있다고 김 박사는 전한다. <br/><br/>피아니스트 서혜경은 뚱뚱한 체형을 콤플렉스로 여겼다. 제주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시멘트 바닥에 나동그라진 적이 있다. 서혜경은 경험을 전하면서 “어디 하나 부러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쿠션이 좋아서 그런지 괜찮더라고요(웃음). 그 순간 뚱뚱함에 가졌던 제 콤플렉스가 날아갔다”고 했다. 암을 겪을 때도 긍정 에너지를 발산했다. “뚱뚱했기 때문에 항암치료를 여덟 번이나 하면서도 버텨 낼 수 있었어요. 일생 뚱뚱한 게 고민이었는데, 그땐 참 고마웠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 냈죠.”<br/><br/><br/><br/>개그맨 김미화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내일 좋은 일이 또 생기면 좋은 거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스스로 얘기하다 보니 그게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br/><br/>소설가 베르베르는 글 쓰는 일을 두고 “좋은 책을 써야겠다든가, 평론가로부터 좋은 평을 들어야겠다든가, 빨리 써야겠다 해서가 아니라, 그냥 글이 좋아서 쓰는 거예요. … 지금 이 순간 글을 써서 좋은 거죠”라고 했다. <br/><br/>소설가 이외수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한다. “<span class='quot0'>가슴 안에 만물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자꾸만 줄어들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꾸만 늘어 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span>”<br/><br/><br/><br/><br/><br/>‘행복’은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며 자신만 챙겨 이룰 수 없다. 김 박사는 “<span class='quot1'>그들은 자신 안의 강점을 성장시키고, 결핍을 채우되 과하게 넘치지 않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행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가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19.txt

제목: [B급 질문을 하다]영화 ‘암살’ 속 실존 인물은?  
날짜: 201507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2710018052366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암살단 꾸리는 약산 김원봉, 의열단 조직한 독립투사</strong><!-- SUB\_TITLE\_END--><br/><br/>영화 <암살>은 친일파의 암살를 시도하는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는 신흥무관학교,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실존했던 기관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등장 인물 중 당시 실존했던 인물들이 있을까.<br/><br/><br/>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꾸리는 백범 김구와 약산 김원봉은 실존했던 대표적인 독립투사들이다. 김원봉은 1919년 무장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을 조직하고 6년 동안 단장을 맡았다. 김구는 1931년 일제의 요인들을 암살하기 위한 독립운동 조직인 한인애국단을 조직했다. 김구와 김원봉은 사상적인 노선이 달랐지만 두 사람은 공동으로 동포에게 보내는 공개통신문을 발표하는 등 연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br/><br/>영화에서 김구와 김원봉이 함께 지휘하는 암살작전의 타깃은 친일파 사업가 강인국과 조선군 사령관 가와구치다. 두 친일파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최동훈 감독은 “<span class='quot0'>특정인을 모델로 삼은 것은 아니고, 당시 친일을 하던 인물들의 특성이 고루 녹아 있는 인물로 그리려했다</span>”고 말했다.<br/><br/>암살단인 안옥윤(전지현), 속사포(조진웅), 황덕삼(최덕문) 역시 가상의 인물이다. 하지만 최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데 영감을 받았던 인물은 있다. 이봉창 의사다. 이봉창 의사는 1932년 일본 도쿄에서 일왕에게 수류탄을 투척해 암살 시도를 했다. 최 감독은 “<span class='quot0'>거사 시행 전 이봉창 의사가 태극기를 뒤에 두고 손에는 폭탄을 든 채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며 당시 독립운동을 하던 이들에게 강한 감정을 느꼈다</span>”고 말했다.<br/><br/><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20.txt

제목: 고 백남준 부인 구보타 시게코 여사 별세  
날짜: 201507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2610018037906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평생 예술적 동반자… 남편 곁으로 떠나다</strong><!-- SUB\_TITLE\_END--><br/><br/>비디오 아트 창시자로 평가받는 고 백남준의 부인이자 전위예술가인 구보타 시게코가 미국 뉴욕의 한 병원에서 23일 저녁(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78세.<br/><br/>백남준아트센터는 “<span class='quot0'>생전 백남준 선생과 작품활동을 함께한 작가 등으로부터 구보타 여사의 사망 연락을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투병을 하던 중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들었다</span>”고 26일 밝혔다.<br/><br/><br/>구보타는 백남준의 반려자이자 그 자신 역시 유명한 비디오 아티스트였다. 구보타는 1963년 도쿄 쇼게츠 회관에서 백남준을 처음 만났다. 플럭서스그룹의 일원으로 독일에서 주목받는 아티스트였던 백남준은 이날 머리카락으로 그림 그리기 등 특유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아티스트로서 정체기에 빠져 있던 구보타는 이 공연을 계기로 심기일전했다. 뉴욕으로 건너간 구보타는 역시 뉴욕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백남준과 재회했고, 둘은 1977년 결혼했다. 당시 구보타는 자궁 질환으로 비싼 수술비가 필요했다. 보험이 있던 백남준이 자신과 결혼해 부인 자격으로 수술을 받으라며 청혼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br/><br/>백남준의 그늘에 가려 있긴 했지만, 구보타 역시 한 시대를 풍미한 작가였다. 백남준의 작품이 개념적이고 철학적이었다면, 조각을 전공한 구보타의 작품은 조금 더 조형적이었다. 마르셀 뒤샹의 작품을 비디오 아트로 재해석한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는 구보타의 대표작이다. 백남준과 마찬가지로 구보타 역시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다리 사이에 붓을 꽂고 붉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버자이너 페인팅>이 그 사례다.<br/><br/>1996년 백남준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구보타는 작품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채 남편이 세상을 뜨기까지 10년간 간호에만 집중했다. 한국을 수차례 방문하기도 한 구보타는 생전에 “<span class='quot1'>남편과 함께한 시간 자체가 예술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span>”고 말했다.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백남준 작품 저작권의 법적 대리인은 백남준의 장조카인 재미교포 켄 백 하쿠타다.<br/><br/><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21.txt

제목: 신약 또 신약… 제약업계 ‘신르네상스’  
날짜: 20150724  
기자: 정유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24100000127  
본문: 의학계에 ‘봄’이 돌아왔다. 알츠하이머, 심장질환, C형 간염 등 현대인을 오랫동안 괴롭혀 온 질병 치료에 돌파구가 되어 줄 신약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던 글로벌 제약업계에 ‘신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3일 전했다. 이날 고령화시대의 가장 큰 적인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제약사 엘리릴리가 신약 ‘솔라네주맙’을 알츠하이머 경증 환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끝에 기억력 감퇴 속도를 34% 늦추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알츠하이머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기만 했을 뿐, 기억력 감퇴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약은 없었다.<br/>솔라네주맙 외에도 최근 의학계는 심장질환, 암, C형 간염 등을 위한 신약 개발에 잇따라 성공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1일 중증 부작용 없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평균 60% 낮춰주는 미국 생명공학업체 암젠의 신약 ‘레파타’를 승인했다. 현재 유럽에서 콜레스테롤 등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병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는 매년 약 1060억달러 규모에 달한다.<br/>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도 곧 유럽 당국으로부터 세계 첫 말라리아 백신인 ‘모스퀴릭스’를 승인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방효과가 매우 뛰어나진 않지만 최초의 백신이란 점에서 말라리아 퇴치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마다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60만명을 넘는다. 유럽 최대 제약사 노바티스의 조 지메네즈 회장은 “<span class='quot0'>새로운 기술에 힘입어 과거엔 범접할 수 없었던 질병을 목표로 삼을 수 있게 됐다</span>”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으로 신약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가격이 높게 책정될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은 솔라네주맙의 운명도 내년 말에 나올 확대 임상시험 결과에 달려 있다며 그간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연구도 모두 이 단계에서 실패해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긴 바 있다고 경고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22.txt

제목: 대장암 발병 촉진하는 단백질 세계 최초 규명  
날짜: 201507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23100000084  
본문: 국내 연구진이 대장암 발병을 촉진하는 단백질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이 단백질을 억제해 효과적으로 대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다.<br/>미래창조과학부는 부산대 분자생물학과 민도식 교수(50)가 주도한 연구진이 대장암 발병을 촉진하는 단백질을 규명하고, 그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을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br/>암은 한국인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장암은 최근 발생률과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br/>대부분 대장암은 ‘APC’라는 암 억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세포증식을 촉진시키는 ‘윈트 신호전달계’가 활성화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연구진은 ‘PLD1’ 단백질이 윈트 신호전달을 조절해 대장암 세포 증식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br/>PLD1이 생성되지 않게 유전자를 조작한 쥐와 대장암을 발생하게 한 쥐를 교배했을 때 대장암 발병률이 10배 이상 억제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23.txt

제목: 신약 또 신약… 제약업계 ‘신르네상스’  
날짜: 201507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2310018018443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알츠하이머’ 기억력 감퇴 속도 34%까지 늦추는 약 첫 개발</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심장질환·C형 간염 등 신약 잇따라 성공… 제약업계 ‘화색’</strong><!-- SUB\_TITLE\_END--><br/><br/>의학계에 ‘봄’이 돌아왔다. 알츠하이머, 심장질환, C형 간염 등 현대인을 오랫동안 괴롭혀 온 질병 치료에 돌파구가 되어 줄 신약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던 글로벌 제약업계에 ‘신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3일 전했다. 이날 고령화시대의 가장 큰 적인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제약사 엘리릴리가 신약 ‘솔라네주맙’을 알츠하이머 경증 환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끝에 기억력 감퇴 속도를 34% 늦추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알츠하이머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기만 했을 뿐, 기억력 감퇴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약은 없었다.<br/><br/>솔라네주맙 외에도 최근 의학계는 심장질환, 암, C형 간염 등을 위한 신약 개발에 잇따라 성공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1일 중증 부작용 없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평균 60% 낮춰주는 미국 생명공학업체 암젠의 신약 ‘레파타’를 승인했다. 현재 유럽에서 콜레스테롤 등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병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는 매년 약 1060억달러 규모에 달한다.<br/><br/>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도 곧 유럽 당국으로부터 세계 첫 말라리아 백신인 ‘모스퀴릭스’를 승인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방효과가 매우 뛰어나진 않지만 최초의 백신이란 점에서 말라리아 퇴치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마다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60만명을 넘는다. 유럽 최대 제약사 노바티스의 조 지메네즈 회장은 “<span class='quot0'>새로운 기술에 힘입어 과거엔 범접할 수 없었던 질병을 목표로 삼을 수 있게 됐다</span>”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으로 신약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가격이 높게 책정될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은 솔라네주맙의 운명도 내년 말에 나올 확대 임상시험 결과에 달려 있다며 그간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연구도 모두 이 단계에서 실패해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긴 바 있다고 경고했다.<br/><br/><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24.txt

제목: 3D 프린팅으로 만든 ‘맞춤형 골반뼈’로 교체 성공해  
날짜: 201507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2310018008298  
본문: 국내 의료진이 3D 프린팅 기술로 ‘맞춤형 골반뼈(천추)’를 만들어 10대 여학생의 골반뼈를 교체하는 데 성공했다. 골반뼈에 생긴 암으로 걸을 수조차 없던 이 여학생은 수술 후 1주일 만에 다시 걸을 정도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br/><br/>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신동아 교수팀은 3D 프린팅 기술로 환자 맞춤형 골반뼈를 만들어 교체하는 수술에 국내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br/><br/>의료진에 따르면 강모양(16)은 지난해 7월 체육활동을 하다가 허리 통증을 느낀 이후 그대로 지내오다 11월 조직검사에서 골반뼈에 악성종양인 골육종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당시 강양은 이미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진 상태였다.<br/><br/>골육종은 우리 몸의 뼈에 발생하는 악성종양 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다. 주로 10대 후반에 많이 생기는데, 통증과 관절운동 장애, 부종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br/><br/>의료진은 우선 항암치료를 통해 종양의 크기를 줄인 뒤 골반뼈 교체수술을 하기로 했다. 문제는 골반뼈를 통째로 바꿀 경우 골반뼈에 있는 신경을 모두 잘라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럴 경우 강양은 하반신 마비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대소변을 가리는 것조차 포기해야 했다.<br/><br/>이에 의료진은 골반뼈의 반쪽에 해당하는 왼쪽 1, 2, 3번 신경만 자르기로 하고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반쪽 골반뼈 제작에 들어갔다. <br/><br/>새로 제작되는 맞춤형 골반뼈의 관건은 앉았을 때 상체의 무게(성인기준 약 30~40㎏)를 충분히 지탱하고 수술하지 않는 오른쪽 골반뼈와 무게가 거의 비슷해 좌우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점이었다.<br/><br/>수차례의 작업 끝에 만들어진 골반뼈는 지난 3월 23일 강양에게 이식됐다. 수술 소요시간은 6시간 정도로 8~9시간이 걸렸던 기존의 골반뼈 절제술보다 훨씬 짧았다. 기존 수술법은 환자의 골반뼈 대체물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수술 중간에 다시 재단해서 맞춰야 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늘어나는 게 단점이었다. <br/><br/>하지만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골반뼈는 이런 추가적인 작업이 없어져 시간도 단축됐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이다.<br/><br/>강양은 특히 기존 수술법으로는 최소 한 달이 지나야 보행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수술 후 1주일 후부터 걷기 시작했다. 이처럼 빠른 회복세 덕분에 강양은 수술 후 3주차부터 항암제 치료도 할 수 있었다.<br/><br/>신동아 교수는 “<span class='quot0'>환자의 척추모양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맞춤정장’ 같은 골반뼈를 만들어 수술하니 환자의 회복도 빠르고 척추가 가지고 있던 안정성도 그대로 유지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강양은 현재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로, 향후 정기검사를 통해 악성종양이 발생했던 부위의 재발이나 다른 곳으로의 전이 여부를 확인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25.txt

제목: 대장암 발병 촉진하는 단백질 세계 최초 규명  
날짜: 201507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2210018003054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부산대 민도식 교수 연구진</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암유발 기능 억제 약물도 발견</strong><!-- SUB\_TITLE\_END--><br/><br/>국내 연구진이 대장암 발병을 촉진하는 단백질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이 단백질을 억제해 효과적으로 대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다.<br/><br/>미래창조과학부는 부산대 분자생물학과 민도식 교수(50)가 주도한 연구진이 대장암 발병을 촉진하는 단백질을 규명하고, 그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을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br/><br/>암은 한국인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장암은 최근 발생률과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br/><br/>대부분 대장암은 ‘APC’라는 암 억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세포증식을 촉진시키는 ‘윈트 신호전달계’가 활성화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연구진은 ‘PLD1’ 단백질이 윈트 신호전달을 조절해 대장암 세포 증식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br/><br/>PLD1이 생성되지 않게 유전자를 조작한 쥐와 대장암을 발생하게 한 쥐를 교배했을 때 대장암 발병률이 10배 이상 억제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br/><br/><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26.txt

제목: [세상읽기]식품회사는 담배회사만큼 해롭다  
날짜: 20150722  
기자: 서홍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22100000054  
본문: 1989년 KT&G 사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강의를 하고 이 내용을 인쇄해서 전국 담배소매점에 뿌렸다.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선진국을 보면 흡연율은 떨어지는데 폐암은 증가하니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흡연과 폐암의 관계만큼 의학계에서 명확한 게 없을 정도인데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여기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흡연율이 증가하면 약 25년 후에 폐암의 증가로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1965년까지 흡연율이 증가하다가 금연운동이 시작되면서 흡연율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거의 흡연율 증가 때문에 1990년까지 폐암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담배회사의 책임자가 그런 상식도 없이 강의했다면 무식의 소치이고, 알고도 그런 강의를 했다면 돈 벌기 위해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행각이 아닐까?<br/>그런데 식품회사도 담배회사와 마찬가지로 나쁜 회사이며 그 정체를 폭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담배회사는 매년 전 세계에서 600만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대가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데, 식품회사도 결국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것이다.<br/>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한 설탕과 지방성분과 소금에 대한 선호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식품회사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달고, 기름지고, 짜게 만든다. 그런데 그 결과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가 일어나 국민건강을 해친다.<br/>담배회사는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대주면서 담배의 해로움을 감추기 위한 거짓된 연구를 지시했다. 담배회사의 변호사들은 논문을 왜곡하기 위해서 공기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장소까지도 지시했는데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서 담배연기 농도가 낮은 곳들이었다. 그런 곳에서 니코틴 농도를 측정하니 간접흡연의 영향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br/>그런데 식품회사도 이에 못지않게 연구를 왜곡해 왔다. 미국의 영양학자인 루드비히가 음료의 건강에 대한 수백 개의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식품회사가 후원한 경우, 그들이 만든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비율이 몇 배나 높았다. 루드비히는 식품회사가 후원한 논문은 과학이 아니라 광고에 불과하다고 말한다.<br/>담배회사는 첨가물을 담배에 넣는데 니코틴 흡수가 잘 되어 중독되도록 하거나,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할 때 담배연기를 독하게 느끼지 않도록 향기를 추가한다. 한마디로 담배회사가 첨가물을 넣는 이유는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담배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이다. <br/>식품회사도 마찬가지다. 식품에서 가공과정은 식품회사의 이익을 만드는 과정이다. 옥수수와 콩과 과일을 패스트푸드와 스낵, 음료로 만드는 경우 가공을 하면 할수록 건강에 해로운 당분이 높아지고, 비만을 유발하는 칼로리도 높아지고, 가격도 올라가지만, 건강에 좋은 섬유질과 필요한 영양분은 줄어든다. 더구나 식품산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아이들과 학교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br/>비만율 세계 1위인 미국에서는 이미 식품회사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2005년부터 미국음료협회에서는 초등학교 자판기에서 콜라를 비롯한 당분 함량이 높은 음료를 없애고 대신 우유나 오렌지주스와 같은 음료로 대체하기 시작했다.<br/>담배회사와의 싸움에서 배운 전략을 식품회사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도가 높은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자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미 캘리포니아 버클리시는 올 초부터 당도가 높은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br/>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 1위인 암, 2위인 뇌혈관질환, 3위인 심혈관질환은 모두 잘못된 식사와 관련이 있다. 식품회사와 음료회사를 감시, 규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27.txt

제목: [세상읽기]식품회사는 담배회사만큼 해로운가?  
날짜: 201507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2110017988691  
본문: 1989년 KT&G 사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강의를 하고 이 내용을 인쇄해서 전국 담배소매점에 뿌렸다.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선진국을 보면 흡연율은 떨어지는데 폐암은 증가하니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흡연과 폐암의 관계만큼 의학계에서 명확한 게 없을 정도인데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여기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흡연율이 증가하면 약 25년 후에 폐암의 증가로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1965년까지 흡연율이 증가하다가 금연운동이 시작되면서 흡연율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거의 흡연율 증가 때문에 1990년까지 폐암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담배회사의 책임자가 그런 상식도 없이 강의했다면 무식의 소치이고, 알고도 그런 강의를 했다면 돈 벌기 위해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행각이 아닐까?<br/><br/>그런데 식품회사도 담배회사와 마찬가지로 나쁜 회사이며 그 정체를 폭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담배회사는 매년 전 세계에서 600만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대가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데, 식품회사도 결국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것이다.<br/><br/>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한 설탕과 지방성분과 소금에 대한 선호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식품회사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달고, 기름지고, 짜게 만든다. 그런데 그 결과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가 일어나 국민건강을 해친다.<br/><br/>담배회사는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대주면서 담배의 해로움을 감추기 위한 거짓된 연구를 지시했다. 담배회사의 변호사들은 논문을 왜곡하기 위해서 공기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장소까지도 지시했는데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서 담배연기 농도가 낮은 곳들이었다. 그런 곳에서 니코틴 농도를 측정하니 간접흡연의 영향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br/><br/>그런데 식품회사도 이에 못지않게 연구를 왜곡해 왔다. 미국의 영양학자인 루드비히가 음료의 건강에 대한 수백 개의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식품회사가 후원한 경우, 그들이 만든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비율이 몇 배나 높았다. 루드비히는 식품회사가 후원한 논문은 과학이 아니라 광고에 불과하다고 말한다.<br/><br/>담배회사는 첨가물을 담배에 넣는데 니코틴 흡수가 잘 되어 중독되도록 하거나,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할 때 담배연기를 독하게 느끼지 않도록 향기를 추가한다. 한마디로 담배회사가 첨가물을 넣는 이유는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담배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이다. <br/><br/>식품회사도 마찬가지다. 식품에서 가공과정은 식품회사의 이익을 만드는 과정이다. 옥수수와 콩과 과일을 패스트푸드와 스낵, 음료로 만드는 경우 가공을 하면 할수록 건강에 해로운 당분이 높아지고, 비만을 유발하는 칼로리도 높아지고, 가격도 올라가지만, 건강에 좋은 섬유질과 필요한 영양분은 줄어든다. 더구나 식품산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아이들과 학교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br/><br/>비만율 세계 1위인 미국에서는 이미 식품회사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2005년부터 미국음료협회에서는 초등학교 자판기에서 콜라를 비롯한 당분 함량이 높은 음료를 없애고 대신 우유나 오렌지주스와 같은 음료로 대체하기 시작했다.<br/><br/>담배회사와의 싸움에서 배운 전략을 식품회사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도가 높은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자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미 캘리포니아 버클리시는 올 초부터 당도가 높은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br/><br/>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 1위인 암, 2위인 뇌혈관질환, 3위인 심혈관질환은 모두 잘못된 식사와 관련이 있다. 식품회사와 음료회사를 감시, 규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다.<br/><br/><서홍관 | 국립암센터 교수·시인>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28.txt

제목: 후진타오 전 주석 비서실장 링지화 쌍개처분...사법처리 본격화  
날짜: 201507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2110017976354  
본문: 중국 공산당이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令計劃·59·사진) 전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에게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내렸다. 그에 대한 당 차원의 부패 조사가 마무리되고 사법기관으로 이송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법처리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br/><br/>신화통신은 20일 열린 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작성한 ‘링지화의 심각한 당 기율위 위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링지화에게는 쌍개 처분이 내려짐과 동시에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법에 의해 처리키로 했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br/><br/>링지화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익을 취했으며 본인도 가족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 당과 국가의 핵심 기밀을 대량으로 취득했으며 청렴 자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또 부인과 함께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링지화의 부인인 구리핑(谷麗萍)은 공익재단을 표방한 중국청년창업국제계획(YBC)을 조직, 남편의 위세를 등에 업고 이권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br/><br/>링지화의 혐의에는 다수의 여성과 간통을 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링지화는 국영 CCTV 시사뉴스부 부주임을 지낸 펑줘(馮卓)와 연인사이로 알려져 왔다. 펑줘는 1998년 CCTV에 입사해 2008년 부주임으로 승진하는 등 성공가도를 달렸으며 그의 성공에 링지화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통신은 “<span class='quot0'>링지화의 행위는 당의 기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당의 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끼치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쳤다</span>”고 밝혔다.<br/><br/>링지화는 지난해 12월 22일 엄중한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당시 그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링지화는 이미 부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과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 당국의 조사를 받아 암으로 숨진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함께 시진핑(習近平) 체제에 도전한 ‘신4인방’으로 불려왔다.<br/><br/>앞서 홍콩 언론들은 지난 19일 링지화의 부모가 지난 3월 잇따라 숨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20일 모친(95)이 병으로 숨졌고 9일 뒤 부친(105)도 숨졌다는 것이다. 링지화는 한 때 상무위원 진입도 예상됐으나 2012년 3월 아들이 호화 승용차에 여성을 태우다 가다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정치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링지화 본인 뿐 아니라 부인, 동생, 매형 등 일가족들이 줄줄이 부패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아 왔다.<br/><br/><베이징|오관철 특파원 ok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29.txt

제목: 에세이집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 펴낸 조훈현  
날짜: 201507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20100000016  
본문: 조훈현. 그는 ‘바둑황제’로 불린다. 한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존호(尊號)다.<br/><br/>그는 서른 남짓에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1989년 제1회 잉창치배에서 우승한 것. ‘바둑 변방’으로 취급받던 한국이 바둑 종주국 중국과 현대바둑을 개척한 일본을 발 아래에 둔 쾌거였다. 그 덕에 김포공항에서 서울 종로까지 카퍼레이드도 했다.<br/><br/>한국바둑을 세계 최강으로 이끌어온 그는 바둑계의 살아 있는 전설이요 신화다. 국내 전(全) 타이틀 석권 3차례(1980·1982·1983)를 포함해 국내 대회 149회 우승과 세계 대회 11회 우승 등 모두 160회에 이르는 우승 기록은 현대바둑 최고의 승부사로 통하는 ‘돌부처’ 이창호(143회 우승)도 넘보기 힘든 기록이다. 사실 바둑팬들 사이에서는 ‘제자’ 이창호의 인기가 높을지 모르지만 모든 기록에서는 ‘스승’ 조훈현이 월등히 앞선다.<br/><br/>이렇듯 바둑에 관한 한 최고의 전사로 불리는 그가 최근 한 권의 책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섰다. 오랜 세월 세계 1인자로 군림하던 그였기에 그의 이름으로 나온 책들은 많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책들은 대개 바둑 강좌물 같은 것이었다. 좀 색다르게 나온 <조훈현과의 대화>도 절반은 바둑돌, 절반은 바둑동네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br/><br/>하지만 이번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에는 아예 바둑돌이 없다. 바둑 외에는 좀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직접 복기한 이야기다. ‘바둑황제’에서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조훈현을 만나 그의 인생을 복기해 봤다.<br/><br/>-에세이집 발간을 축하한다. ‘국수’의 인생 이야기라서 그런지 반응도 좋다. 그런데 책을 쓰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br/><br/>△지난해 병원에서 암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앞이 캄캄했다. 최종 확진을 기다리는 2주 동안 참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갔다. 그중 하나가 ‘이제 나의 이야기를 남겨야겠다’는 것이었다.<br/><br/>-책에 가장 담고 싶던 것은….<br/><br/>△바둑은 ‘선택의 순간’이 연이어지는 승부다. 아울러 상대와 함께하되 나만의 수를 찾아야 강해진다. 세상 사람들에게 반상에서 체득한 승부 호흡법,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다.<br/><br/>-‘고수의 생각법’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조 국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인가.<br/><br/>△내 삶은 두 분 스승에 의해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바둑의 기술’을 가르쳐 주신 후지사와 선생님과 ‘사람의 그릇’을 가르쳐 주신 세고에 선생님이시다. 그분들에게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 두 분에게서 받은 사랑을 나도 나눠 주고 싶다.<br/><br/>-‘조 국수’ 인생의 큰 이정표가 된 ‘이창호’를 내제자로 받아들인 것도 그 때문인가.<br/><br/>△그런 영향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창호를 만난 것은 운명이요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두 스승을 만났듯이…. 다만 세고에 선생님께서 바둑 실력보다 품격과 인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르셨는데, 나 또한 이창호를 그렇게 가르쳤다.<br/><br/>-‘스승’으로 바라보는 ‘제자’ 이창호는 어떤 기사인가.<br/><br/>△이창호는 ‘둔재형 천재’다. 그의 천재성이 일반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창호는 아마추어들도 하는 복기를 못 한다. 자기가 둔 수순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반집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모르는 0.7이나 0.8집 자리를 찾아내고, 기어이 그곳에서 한 집을 만들어 낸다.<br/><br/>-‘조 국수’의 1인자 자리가 ‘제자’에 의해 무너졌다. 사실 그때의 심정은 어땠나.<br/><br/>△이창호와 같은 식탁에 앉아 내 아내가 차려준 아침밥을 나눠 먹고, 아내가 운전하는 자가용을 함께 타고 나와 피 터지게 대국한 후 한 사람은 승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패자가 돼 같이 집으로 돌아간 날이 부지기수다. 물론 내가 진 날이 더 많았다. 그런 날마다 아프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지만 지더라도, 또 타이틀을 빼앗기더라도 제자에게 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누가 뭐라 해도 이창호는 내 제자니까, 내 이름은 남는 것 아닌가.<br/><br/>-두 ‘남자’와 동선을 같이한 사모님도 참 불편했겠다.<br/><br/>△그렇다. 그 무렵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아내일지 모른다. 이창호가 워낙 말이 없는 데다 자신이 이긴 날에는 무슨 죄인처럼 고개까지 푹 숙이고 있으니, 그런 모습을 보는 아내의 마음도 많이 무거웠을 터이다. 하지만 이창호가 누구에게도 욕을 먹지 않는 어른으로 크고, 세계를 대표하는 기사가 된 것을 보면서 위안을 삼았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내 생각이다.(웃음)<br/><br/>-‘조 국수’는 예전에 ‘바투 게임’에 출전하고, 최근 게임 광고에도 나오는 등 ‘바둑 국수’로서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나름의 철학이 있나.<br/><br/>△아마 두 스승님이 그런 모습을 보셨다면 호통을 치셨을지 모른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다. 바둑의 도와 예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어울림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바둑이 최근 처음으로 소년체전에서 정식종목으로 승부를 겨루고, 내년부터 전국체전에도 정식종목으로 출전하게 된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나 역시 바둑을 대중화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할 요량이다. 그게 지금까지 ‘조훈현’이 받아온 사랑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다.<br/><br/>-‘바둑황제’ ‘전신’ ‘화염방사기’ ‘제비’ 등 참 많은 수식어가 따라 붙는데, 그중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br/><br/>△나를 상징하는 말들이고 나름대로 의미들도 있어 모두 마음에 든다. 하지만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국수’다. 프로기사라면 누구나 듣고 싶은 소리일 것이다. 그런데 별명 중 ‘제비’에는 좀 재미난 일화가 있다. 바둑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행마가 빨라서’ 생긴 별명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원래는 취미로 하는 등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산을 타는 모습이 마치 ‘산제비’처럼 날렵하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 반상에서는 ‘산’이 빠진 채 ‘제비’로만 불렸다.<br/><br/>-많은 팬들이 ‘바둑 고수’가 되고 싶어한다. 그들에게 한마디 조언한다면.<br/><br/>△일단 공부가 필요하다. 특히 정석을 익혀야 한다. 나도 어린 시절 ‘정석 책’을 읽고서 머리가 시원해지는 환희를 느꼈다. 하지만 정석을 익힌 뒤에는 여러 정석을 종합해서 응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상대도 정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석대로만 두면 상대를 이길 수 없다. 정석을 익히되 정석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만의 기풍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고수의 생각법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30.txt

제목: 미국암학회 “오래 앉아있는 여성, 암 발병위험 높아”  
날짜: 201507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1810017954856  
본문: 여성이 앉아서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유방암, 난소암, 골수암 등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br/>미국암학회 연구진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14만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이 장시간 앉아서 여가를 보내면 암 발병률이 10% 높아진다고 발표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이 최근 보도했다.<br/><br/>연구진은 “<span class='quot0'>전체 신체활동, 체질량 등 다른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여성이 오랜 시간 앉아서 여가활동을 하는 것이 전체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골수암, 유방암, 난소암의 경우 위험이 더 커졌다</span>”고 설명했다.<br/><br/><br/><br/><br/><br/>연구진은 여성과 달리 남성은 앉아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과 암 발병 위험 사이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br/><br/>미국 메모리얼케어센터병원의 호마윤 사나티 종양학자는 그 이유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야후 헬스와의 인터뷰에서 주로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생활 습관은 여분의 지방세포를 발달시켜 더 많은 에스트로겐을 생성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에스트로겐이 유방과 난소의 세포 성장과 활동을 촉진해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br/><br/><디지털뉴스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31.txt

제목: [책과 삶]시한부 삶 선고받은 할머니, 그 즉시 녹색 재규어를 샀다  
날짜: 201507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18100000007  
본문: ▲ 사는 게 뭐라고…사노 요코 지음·이지수 옮김 | 마음산책 | 256쪽 | 1만2000원<br/>할머니는 시한부 삶이란 선고를 받자마자 짙은 녹색의 재규어를 샀다. 배달된 재규어에 올라타고 ‘아, 나는 이런 남자를 평생 찾아다녔지만 이젠 늦었구나’ 한다. 재규어가 안 어울린다는 친구 말에는 ‘어째서냐. 내가 빈농의 자식이라서 그런가. 억울하면 너도 사면 되잖아. 빨리 죽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br/><사는 게 뭐라고>는 일흔에 다가가는 독거 할머니의 솔직한 독백이다. <100만번 산 고양이>의 일본 동화작가 사노 요코가 65세부터 70세가 될 때까지, 2010년 암으로 세상을 뜨기 2년 전까지 쓴 일기 같은 기록을 엮었다. 그는 한때 시인 다니카와 순타로와 부부였지만 이혼했다.<br/>사노의 나날은 비관과 독설투성이지만, 책을 읽다 보면 신기하게도 통쾌하고 즐거워진다. “<span class='quot0'>‘활기차게 살아야 한다’는 둥 사람을 초조하게 만드는 책</span>”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만사에 초연하고 선량한 어르신과는 거리가 먼 ‘나쁜 할머니’는 거짓 긍정도 위악도 부리지 않는다. 고집쟁이, 주정뱅이, 성깔 더러운 장애인 등 까탈스러운 사노의 곁에 남아준 친구들도 마찬가지다.<br/>사노는 가난했던 젊은 시절 자신의 옷차림을 모욕했던 여자를 68세가 돼서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를 퍼부어 죽이고 싶어한다. 그랬다가 정말로 그 여자가 암에 걸리자 “당황하던 와중에 나도 암에 걸렸다. 자승자박이었다”고 되뇐다. 일본에 대한 증오를 지닌 한국인 친구를 오래 배려해줬지만 더 견디지 못하고 절연한다. “나도 서른여섯해 동안 당신의 압제를 견뎠다고. 이제 끝이다. 평생 원망하시지, 분이 풀릴 때까지 원망하시지.” <br/>사노는 남에게 실컷 못되게 굴고서는 금방 풀이 죽어서 자기혐오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다. “아, 이러다가 친구가 모조리 떨어져 나갈 것 같다. 이제 싫어하는 사람 이름을 대라고 하면 모두들 나를 가리키며 ‘아아, 그 사람’ 하고 비웃을 것 같다.” “나는 나와 가장 먼저 절교하고 싶다. 아아, 이런 게 정신병이다.” <br/>그는 유방암에 걸리고도 담배를 계속 피운다. “제아무리 애연가라도 암에 걸리면 담배를 끊는다지. 흥, 목숨이 그렇게 아까운가.” 죽음이 정말 무섭지 않으냐는 말에는 “오히려 기뻐. 생각해봐. 죽으면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고. 돈을 안 벌어도 되는 거야. 돈 걱정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행운인걸”이라고 응수한다. 남은 날이 2년이라는 선고에 십수년간 앓던 우울증이 거의 사라질 정도다. “<span class='quot0'>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건 자유의 획득이나 다름없다.</span>”<br/>고독과 노화에 대한 생각은 끊이지 않는다. 심해지는 건망증을 마주할 때마다 치매를 앓다 죽은 어머니를 떠올리며 겁내고, 섣달그믐에 비디오를 5~6개 빌리려다가도 남의 눈에 불쌍한 할머니로 비칠 게 싫어 포기한다. 좁은 길을 걸을 땐 자신이 여기서 죽어서 쓰러지면 사람들은 자기 시체를 넘어 다녀야겠지, 상상한다.<br/>몇십 년 동안 ‘아 싫다, 가능하면 무엇이든 일은 안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마감 직전에야 일을 했고, ‘욘사마’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DVD 사느라 재산을 탕진하지만 그 덕에 불쾌한 항암치료를 견뎌 냈고, 전후 시대 어려서 영양실조로 죽은 오빠와 남동생을 잊지 못하는 할머니. 그의 시원스러운 이야기는 생생한 삶 자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32.txt

제목: 영화 ‘밀양 아리랑’ 박배일 감독 인터뷰 “10년 투쟁 할머니들의 힘, 농성장이 아니라 밭에서 나왔다”  
날짜: 20150718  
기자: 이혜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18100000019  
본문: 경남 밀양의 산골 마을에 살던 할매, 할배들은 나라님 말이라면 껌벅 죽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은 그저 옳겠지’하는 마음에 열심히 농사만 지었다. 아기 볼처럼 반짝이는 감을 따고, 토실한 알감자를 캔 후에 부드러운 산 능선을 쳐다보며 커피 한 잔 마시면 하루가 빨리 갔다. <br/>2005년, 마을에 ‘전봇대’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알고 보니 전봇대가 아니라 765㎸(킬로볼트)라는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이었다. 고압의 송전탑이 암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런 송전탑이 구불구불한 산 능선을 따라 69개나 들어선다고 했다. “<span class='quot0'>누가 우리 마을에 내 허락도 없이 철탑을 짓는다 하는기가?</span>” 하지만 마을사람들이 반대해도, 땅 주인이 반대해도 나라에서 맘대로 송전탑을 지을 수 있는 법(전원개발촉진법)이 있다고 했다. 할매, 할배들이 호미를 내려놓고 마을회관으로 모였다. 그렇게 시작된 싸움은 10년 동안 이어졌다.<br/>청년감독 박배일(34)은 지난하고도 격렬했던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의 일부를 카메라에 담았다. 15일 개봉한 영화 <밀양 아리랑>에는 투쟁이 가장 격렬하게 치닫던 시기인 2012년부터 3년 동안 밀양의 시간이 고스란히 기록됐다. 개봉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그를 만났다. “<span class='quot0'>처음엔 밀양 투쟁을 영화로 만들 줄 모르고 그저 카메라를 가지고 밀양에 들어갔다</span>”고 했다.<br/><br/>-처음 밀양에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br/>“전작인 <나비와 바다>를 마치고 ‘탈핵’을 주제로 한 3부작 다큐멘터리 영화를 기획 중이었다. 그러던 중 밀양에서 주민 이치우씨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분신해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제서야 밀양 투쟁에 대해 인지하게 됐고,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더 알아보니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 원전 3·4호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보내기 위해 건설되는 것이었다. ‘탈핵’ 3부작 중 1부에 송전탑 반대 투쟁을 하는 할머니들 이야기를 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카메라를 들고 밀양에 갔다.”<br/>-3년 동안 거의 살다시피 밀양에 머물렀다. 그동안 <밀양전> <밀양 아리랑> 등 밀양을 소재로 한 영화를 두 편이나 찍었다. 투쟁 현장에 계속 함께한 이유는 무엇인가.<br/>“내가 2012년 2월에 들어갔는데 그해 5월부터 주민들과 경찰의 대치가 심해졌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와해되고 남은 주민들이 단합해 투쟁하는 것을 보게 됐다. 영화에 나온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찰들과 충돌하고 또 충돌하는 일상이 반복됐다. 보기만 해도 지치는데 어르신들은 지치지 않고 싸움을 계속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다음 계획을 세웠다. (송전탑 건설 저지에 사실상 실패하게 된) ‘행정대집행’ 날 이후에도 며칠 있다가 바로 고사를 지내며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대체 그 힘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밀양 주민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들 속에서 ‘사람의 힘’을 찾아내 영화를 통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br/>-나이 70~80세의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 벌써 10년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현장에서 보며 찾은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br/>“일단 함께 모여서 땅을 밟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진 힘인 거 같다. 같이 농사짓고 밥 먹는 ‘공동체’가 있었기에 끝까지 버텼던 거 같다. 거기에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원래 밀양 할머니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나라님이 하는 일을 왜 막아’하는 분들이다. 이 나라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오셨다. 그런데 송전탑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서 할머니들의 굳건한 믿음이 깨졌다. ‘나한테 한마디 이야기도 안 하고 내 동의도 없이 내 산에서 나무를 깎을 수 있단 말이가?’ 모르고 살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정의롭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그대로 살 수는 없으셨던 거 같다. 이 나이에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끝까지 하고 계신 거다.”<br/>그동안 밀양을 다룬 수많은 뉴스 영상들은 몸싸움과 비명이 오고 가는 현장들을 주로 담았다. 주민들이 점거장 천막에 줄을 연결해 목에다 감고,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싸우는 일촉즉발의 충돌 현장들이 화면을 채웠다. 하지만 <밀양 아리랑>은 투쟁 현장들보다는 산골 마을의 소소한 일상과 주민들의 속마음이 담긴 인터뷰로 영화의 문을 연다. 영화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꼭두새벽 송전탑 건설 부지에 올라 감자를 나눠 먹는 할머니들의 수다로 시작한다. 마을 주민인 영자씨는 비닐하우스에서 잘 여문 고추를 수확하며 “내년에 또 만나자”고 말하며 웃고, 은숙씨는 “<span class='quot1'>살려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사지으려고 살고 있다</span>”고 말한다.<br/><br/>-경찰과 주민들이 강하게 충돌하는 장면을 영화에서 많이 덜어내려 한 것 같다. 지난해 6월 2500여명의 경찰과 공무원이 100여명의 주민을 강제로 몰아낸 ‘행정대집행’ 날도 음성만으로 처리했다.<br/>“의도한 것이다.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느낀 밀양은 ‘싸움의 현장’이 아닌 ‘밀양 아리랑’이 있는 곳이었다. 싸움의 힘은 농성장이 아니라 밭에서, 밥상에서 나왔다. 할머니들이 밭에서 고추를 따고, 함께 밥 먹고 노래 부르며 웃고 즐기는 가운데 싸움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나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밀양을 언론에 노출된 싸움 장면으로만 기억했다.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싸움 자체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곳이 전쟁터로 변한 것에 대한 아픔이었다. 행정대집행 날의 음성을 할머니들이 모여 평화롭게 밥 먹는 영상 위에 입힌 것도 그런 의도에서였다. <br/>또한 이 영화의 1차 관객은 할머니들인데, 행정대집행 날 같은 영상을 영화에 넣어서 할머니들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싫었다. 이 영화는 할머니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만든 건데 그건 상처에 소금 붓는 거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br/>-그렇게 보면 수많은 언론 보도로 밀양 주민들이 상처를 입었을 것 같다. 투쟁을 위해 판 구덩이를 통합진보당 당원이 파줬다며 투쟁을 정치적으로 그리려 한 보도도 있었다.<br/>“그 기사는 당시 한 통신사 기자가 썼다. 나중에 물어보니 직접 현장에 오지도 않고 어떤 주민한테 들었다고만 하더라. 당시에 (송전탑 건설 부지인 농성장에서) 할머니들이 구덩이를 파서 들어간 채 목에 줄을 묶고 있자고 했다. 연대하러 왔던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구덩이 파는 걸 지켜보다가 도와줬다. 그런데 그걸 ‘통진당이 구덩이 파줬다’고 통신사가 쓰고 보수언론이 받아썼다. 할머니들은 계속 싸움을 하시면서 이명박 정부 이후로 공중파나 보수언론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엔 상처를 입었지만 이젠 기대도 안 하는 거 같다.(웃음)”<br/>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은 2006년 밀양시 청도·부북·상동 등 5개면의 주민들이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며 시작됐다. 경찰과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농성장은 헐렸고, 지난해 9월 결국 69개의 송전탑이 건설됐다. 한전은 현재 신고리 1·2호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밀양 송전탑을 이용해 시험 송전 중이다.<br/>표면상으로는 송전탑 건설이 끝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지만 200여가구, 100여명의 밀양 주민들은 여전히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월 밀양 주민 16명이 송전탑 건설 지역인 충남 당진, 원전 단지인 고리·월성 등을 방문해 송전탑 반대 운동을 펼쳤다. 밀양에 들어선 송전탑 밑에 농성장을 다시 세우고, 지난 4월부터 매일 오전 밀양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br/>-많은 사람들이 밀양 사태가 마무리됐다고 알고 있다. 송전탑 건설이 끝났는데 무엇을 위해 투쟁을 계속하는 것인가.<br/>“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피해에 대한 사과와 대화를 통한 해결 등을 요구하는 것도 있으나, 가장 큰 목표는 ‘탈핵, 탈송전탑’에 두고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체계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 에너지 체계는 너무 비민주적이다. 송전탑이 건강에도 안 좋고 소음 등의 피해가 있는데 정작 전기를 적게 쓰는 지역에 송전탑이 세워진다.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 근처에 발전소를 세우는 등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기업이 전기를 많이 쓰는 경우에 자가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전기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기대서 오로지 핵발전소를 많이 건설해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다. 밀양뿐 아니라 765㎸ 송전탑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건 신고리 3·4호기뿐 아니라 8호기까지 계속해 증설하려는 계획에서다. 결국 탈원전을 하지 않으면 밀양 같은 사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에 문제를 느껴 투쟁을 계속하는 것이다.”<br/>-투쟁이 계속되지 않으면 결국 밀양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br/>“그렇다. 저는 만약에 밀양이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고리 1호기가 폐쇄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탈핵 이슈가 밀양 투쟁을 통해 모였다. 굉장히 견고하던 에너지 이익 집단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들은 10년을 싸워왔고 여전히 싸우고 있다. 탈핵, 탈송전탑은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밀양이 싸우고 있다. 우리는 지금 밀양에 빚지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33.txt

제목: 3040여성 유방암 너무 몰라  
날짜: 20150717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17100000060  
본문: ▲ 자가 검진법 정확히 아는 경우<br/>여성 100명 중 2~3명에 그쳐<br/>매달 암 예방 노력 14% 머물러<br/>▲ 유방암 발생자 연간 1만6천여명<br/>대장암·위암·자궁경부암 제쳐<br/>‘젊은 여성, 중년 여성 가릴 것 없이 유방암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너무 형편없어요.’<br/>한국유방암학회는 유방암 조기 진단을 위해 30세 이후에는 매달 유방 자가진단,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검진, 40세 이후에는 1~2년 간격으로 임상 진찰과 유방 촬영을 권장한다.<br/>하지만 유방암학회가 최근 30~40대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방암 인식 실태조사’ 결과, 유방암 자가검진법을 정확히 아는 경우는 100명 중 2~3명에 불과했고, 10명 중 8~9명이 자가검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br/>4명 중 1명(23.5%)은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암을 꼽았지만 유방암의 위험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br/><br/>우선 ‘여성에게 발병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절반가량(46.0%)이 위암을 꼽았다. 유방암이라는 응답은 5.2%에 그쳤다. 하지만 유방암 발생률은 그동안 연평균 5.9%씩(1999~2012년) 증가했다. 이는 갑상선(샘)암을 제외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다. 위암은 여성에서 소폭 감소 중이다.<br/>또 ‘여성에게 생기는 암 중 가장 흔한 암’은 자궁경부암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지만(48.7%) 실제로는 유방암 발생자 수가 연간 1만6521명(2012년 기준)으로 가장 많다(갑상선암 제외). 대장암(1만1543명), 위암(1만8명)이 뒤를 이었다. 자궁경부암은 유방암의 약 20%인 3548명에 그쳤다.<br/>유방암학회 김성원 홍보이사(대림성모병원 유방센터장)는 “<span class='quot0'>유방암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암</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치료율은 높지만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발병 위험이 커진 만큼 평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유방암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만큼 예방을 위한 노력 역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으로 만져 멍울 등을 확인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56.3%에 달했으나 매달 1회 자가진단을 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꼴(13.5%)에 불과했다. 유방 자가검진 인지율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2.8%), ‘전혀 모른다’(9.6%) 등 낮은 수준이었다.<br/>유방암학회 한세환 이사장(아주대병원 유방센터장)은 “<span class='quot1'>유방암은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5년 생존율이 90%가 넘는 등 조기에만 발견하면 경과가 아주 좋은 암</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학회에서 권고하는 연령별 검진 단계에 따라 정기검진과 자가검진을 지속해야 한다</span>”고 당부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34.txt

제목: [책과 삶]시한부 삶 선고받은 할머니, 그 즉시 녹색 재규어를 샀다  
날짜: 2015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1710017952412  
본문: <b>▲ 사는 게 뭐라고…사노 요코 지음·이지수 옮김 | 마음산책 | 256쪽 | 1만2000원</b><br/><br/>할머니는 시한부 삶이란 선고를 받자마자 짙은 녹색의 재규어를 샀다. 배달된 재규어에 올라타고 ‘아, 나는 이런 남자를 평생 찾아다녔지만 이젠 늦었구나’ 한다. 재규어가 안 어울린다는 친구 말에는 ‘어째서냐. 내가 빈농의 자식이라서 그런가. 억울하면 너도 사면 되잖아. 빨리 죽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br/><br/><사는 게 뭐라고>는 일흔에 다가가는 독거 할머니의 솔직한 독백이다. <100만번 산 고양이>의 일본 동화작가 사노 요코가 65세부터 70세가 될 때까지, 2010년 암으로 세상을 뜨기 2년 전까지 쓴 일기 같은 기록을 엮었다. 그는 한때 시인 다니카와 순타로와 부부였지만 이혼했다.<br/><br/>사노의 나날은 비관과 독설투성이지만, 책을 읽다 보면 신기하게도 통쾌하고 즐거워진다. “<span class='quot0'>‘활기차게 살아야 한다’는 둥 사람을 초조하게 만드는 책</span>”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만사에 초연하고 선량한 어르신과는 거리가 먼 ‘나쁜 할머니’는 거짓 긍정도 위악도 부리지 않는다. 고집쟁이, 주정뱅이, 성깔 더러운 장애인 등 까탈스러운 사노의 곁에 남아준 친구들도 마찬가지다.<br/><br/>사노는 가난했던 젊은 시절 자신의 옷차림을 모욕했던 여자를 68세가 돼서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를 퍼부어 죽이고 싶어한다. 그랬다가 정말로 그 여자가 암에 걸리자 “당황하던 와중에 나도 암에 걸렸다. 자승자박이었다”고 되뇐다. 일본에 대한 증오를 지닌 한국인 친구를 오래 배려해줬지만 더 견디지 못하고 절연한다. “나도 서른여섯해 동안 당신의 압제를 견뎠다고. 이제 끝이다. 평생 원망하시지, 분이 풀릴 때까지 원망하시지.” <br/><br/>사노는 남에게 실컷 못되게 굴고서는 금방 풀이 죽어서 자기혐오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다. “아, 이러다가 친구가 모조리 떨어져 나갈 것 같다. 이제 싫어하는 사람 이름을 대라고 하면 모두들 나를 가리키며 ‘아아, 그 사람’ 하고 비웃을 것 같다.” “나는 나와 가장 먼저 절교하고 싶다. 아아, 이런 게 정신병이다.” <br/><br/>그는 유방암에 걸리고도 담배를 계속 피운다. “제아무리 애연가라도 암에 걸리면 담배를 끊는다지. 흥, 목숨이 그렇게 아까운가.” 죽음이 정말 무섭지 않으냐는 말에는 “오히려 기뻐. 생각해봐. 죽으면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고. 돈을 안 벌어도 되는 거야. 돈 걱정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행운인걸”이라고 응수한다. 남은 날이 2년이라는 선고에 십수년간 앓던 우울증이 거의 사라질 정도다. “<span class='quot0'>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건 자유의 획득이나 다름없다.</span>”<br/><br/>고독과 노화에 대한 생각은 끊이지 않는다. 심해지는 건망증을 마주할 때마다 치매를 앓다 죽은 어머니를 떠올리며 겁내고, 섣달그믐에 비디오를 5~6개 빌리려다가도 남의 눈에 불쌍한 할머니로 비칠 게 싫어 포기한다. 좁은 길을 걸을 땐 자신이 여기서 죽어서 쓰러지면 사람들은 자기 시체를 넘어 다녀야겠지, 상상한다.<br/><br/>몇십 년 동안 ‘아 싫다, 가능하면 무엇이든 일은 안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마감 직전에야 일을 했고, ‘욘사마’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DVD 사느라 재산을 탕진하지만 그 덕에 불쾌한 항암치료를 견뎌 냈고, 전후 시대 어려서 영양실조로 죽은 오빠와 남동생을 잊지 못하는 할머니. 그의 시원스러운 이야기는 생생한 삶 자체다.<br/><br/><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35.txt

제목: 이천, 11개 농촌마을 지하수에 치명적 유해성분  
날짜: 20150717  
기자: 최인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17100000118  
본문: 경기 이천시 농촌지역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염병에 걸린 가축들을 살처분한 뒤 관리가 안돼 지하수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br/>이천시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 마을 55곳에 대한 지하수 수질 정기검사에서 11곳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인에게 암이 유발될 수 있는 질산성 질소를 비롯한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질산성 질소는 아이들에게는 산소 전달을 방해해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을 발병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br/>문제가 된 마을은 대규모 축사가 집중된 곳이다. 100~200명이 거주하는 소규모 농촌 마을로, 상수도가 제대로 보급이 안돼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br/>율면 석산3리 지하수는 식수 사용이 부적합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했다. 지난해 9월 수질검사에서 질산성 질소가 2.2㎎/ℓ에서 12월 9.6㎎/ℓ로 급증했고, 올 3월에는 법정 기준치(10㎎/ℓ)를 5.4㎎/ℓ를 초과한 15.4㎎/ℓ가 검출됐다. 모가면 원두2리는 지난해 12월 3.9㎎/ℓ가 검출된 질산성 질소가 올해는 14.6㎎/ℓ로 악화됐다. 설성면 장천2리는 지난해 10㎎/ℓ에서 올해는 16.1㎎/ℓ로 오염됐다. 마장면 작촌리는 망간이 기준치(0.05㎎/ℓ)보다 3배 정도 많은 0.143㎎/ℓ가 검출됐다.<br/>이천시는 이들 마을에 상수관로를 연결한 뒤 식수를 공급하는 등 서둘러 대책에 나섰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br/>감사원은 앞서 지난달 24일 공개한 ‘가축 매몰지 주변 오염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대규모 축사가 여럿 있는 이천시 등에 대해 “<span class='quot0'>정부가 구제역 등 전염병에 걸린 가축들을 살처분한 뒤 그 사체를 묻은 지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주변에 침출수 등으로 오염된 지하수와 토양이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36.txt

제목: 영화 ‘밀양 아리랑’ 박배일 감독 인터뷰 “10년 투쟁 할머니들의 힘, 농성장이 아니라 밭에서 나왔다”  
날짜: 2015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1710017952424  
본문: 경남 밀양의 산골 마을에 살던 할매, 할배들은 나라님 말이라면 껌벅 죽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은 그저 옳겠지’하는 마음에 열심히 농사만 지었다. 아기 볼처럼 반짝이는 감을 따고, 토실한 알감자를 캔 후에 부드러운 산 능선을 쳐다보며 커피 한 잔 마시면 하루가 빨리 갔다.<br/><br/>2005년, 마을에 ‘전봇대’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알고 보니 전봇대가 아니라 765㎸(킬로볼트)라는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이었다. 고압의 송전탑이 암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런 송전탑이 구불구불한 산 능선을 따라 69개나 들어선다고 했다. “<span class='quot0'>누가 우리 마을에 내 허락도 없이 철탑을 짓는다 하는기가?</span>” 하지만 마을사람들이 반대해도, 땅 주인이 반대해도 나라에서 맘대로 송전탑을 지을 수 있는 법(전원개발촉진법)이 있다고 했다. 할매, 할배들이 호미를 내려놓고 마을회관으로 모였다. 그렇게 시작된 싸움은 10년 동안 이어졌다.<br/><br/>청년감독 박배일(34)은 지난하고도 격렬했던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의 일부를 카메라에 담았다. 15일 개봉한 영화 <밀양 아리랑>에는 투쟁이 가장 격렬하게 치닫던 시기인 2012년부터 3년 동안 밀양의 시간이 고스란히 기록됐다. 개봉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그를 만났다. “<span class='quot0'>처음엔 밀양 투쟁을 영화로 만들 줄 모르고 그저 카메라를 가지고 밀양에 들어갔다</span>”고 했다.<br/><br/><br/>-처음 밀양에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br/><br/>“전작인 <나비와 바다>를 마치고 ‘탈핵’을 주제로 한 3부작 다큐멘터리 영화를 기획 중이었다. 그러던 중 밀양에서 주민 이치우씨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분신해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제서야 밀양 투쟁에 대해 인지하게 됐고,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더 알아보니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 원전 3·4호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보내기 위해 건설되는 것이었다. ‘탈핵’ 3부작 중 1부에 송전탑 반대 투쟁을 하는 할머니들 이야기를 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카메라를 들고 밀양에 갔다.”<br/><br/>-3년 동안 거의 살다시피 밀양에 머물렀다. 그동안 <밀양전> <밀양 아리랑> 등 밀양을 소재로 한 영화를 두 편이나 찍었다. 투쟁 현장에 계속 함께한 이유는 무엇인가.<br/><br/>“내가 2012년 2월에 들어갔는데 그해 5월부터 주민들과 경찰의 대치가 심해졌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와해되고 남은 주민들이 단합해 투쟁하는 것을 보게 됐다. 영화에 나온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찰들과 충돌하고 또 충돌하는 일상이 반복됐다. 보기만 해도 지치는데 어르신들은 지치지 않고 싸움을 계속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다음 계획을 세웠다. (송전탑 건설 저지에 사실상 실패하게 된) ‘행정대집행’ 날 이후에도 며칠 있다가 바로 고사를 지내며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대체 그 힘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밀양 주민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들 속에서 ‘사람의 힘’을 찾아내 영화를 통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br/><br/>-나이 70~80세의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 벌써 10년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현장에서 보며 찾은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br/><br/>“일단 함께 모여서 땅을 밟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진 힘인 거 같다. 같이 농사짓고 밥 먹는 ‘공동체’가 있었기에 끝까지 버텼던 거 같다. 거기에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원래 밀양 할머니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나라님이 하는 일을 왜 막아’하는 분들이다. 이 나라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오셨다. 그런데 송전탑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서 할머니들의 굳건한 믿음이 깨졌다. ‘나한테 한마디 이야기도 안 하고 내 동의도 없이 내 산에서 나무를 깎을 수 있단 말이가?’ 모르고 살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정의롭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그대로 살 수는 없으셨던 거 같다. 이 나이에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끝까지 하고 계신 거다.”<br/><br/>그동안 밀양을 다룬 수많은 뉴스 영상들은 몸싸움과 비명이 오고 가는 현장들을 주로 담았다. 주민들이 점거장 천막에 줄을 연결해 목에다 감고,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싸우는 일촉즉발의 충돌 현장들이 화면을 채웠다. 하지만 <밀양 아리랑>은 투쟁 현장들보다는 산골 마을의 소소한 일상과 주민들의 속마음이 담긴 인터뷰로 영화의 문을 연다. 영화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꼭두새벽 송전탑 건설 부지에 올라 감자를 나눠 먹는 할머니들의 수다로 시작한다. 마을 주민인 영자씨는 비닐하우스에서 잘 여문 고추를 수확하며 “내년에 또 만나자”고 말하며 웃고, 은숙씨는 “<span class='quot1'>살려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사지으려고 살고 있다</span>”고 말한다.<br/><br/><br/>-경찰과 주민들이 강하게 충돌하는 장면을 영화에서 많이 덜어내려 한 것 같다. 지난해 6월 2500여명의 경찰과 공무원이 100여명의 주민을 강제로 몰아낸 ‘행정대집행’ 날도 음성만으로 처리했다.<br/><br/>“의도한 것이다.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느낀 밀양은 ‘싸움의 현장’이 아닌 ‘밀양 아리랑’이 있는 곳이었다. 싸움의 힘은 농성장이 아니라 밭에서, 밥상에서 나왔다. 할머니들이 밭에서 고추를 따고, 함께 밥 먹고 노래 부르며 웃고 즐기는 가운데 싸움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나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밀양을 언론에 노출된 싸움 장면으로만 기억했다.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싸움 자체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곳이 전쟁터로 변한 것에 대한 아픔이었다. 행정대집행 날의 음성을 할머니들이 모여 평화롭게 밥 먹는 영상 위에 입힌 것도 그런 의도에서였다. <br/><br/>또한 이 영화의 1차 관객은 할머니들인데, 행정대집행 날 같은 영상을 영화에 넣어서 할머니들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싫었다. 이 영화는 할머니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만든 건데 그건 상처에 소금 붓는 거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br/><br/>-그렇게 보면 수많은 언론 보도로 밀양 주민들이 상처를 입었을 것 같다. 투쟁을 위해 판 구덩이를 통합진보당 당원이 파줬다며 투쟁을 정치적으로 그리려 한 보도도 있었다.<br/><br/>“그 기사는 당시 한 통신사 기자가 썼다. 나중에 물어보니 직접 현장에 오지도 않고 어떤 주민한테 들었다고만 하더라. 당시에 (송전탑 건설 부지인 농성장에서) 할머니들이 구덩이를 파서 들어간 채 목에 줄을 묶고 있자고 했다. 연대하러 왔던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구덩이 파는 걸 지켜보다가 도와줬다. 그런데 그걸 ‘통진당이 구덩이 파줬다’고 통신사가 쓰고 보수언론이 받아썼다. 할머니들은 계속 싸움을 하시면서 이명박 정부 이후로 공중파나 보수언론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엔 상처를 입었지만 이젠 기대도 안 하는 거 같다.(웃음)”<br/><br/>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은 2006년 밀양시 청도·부북·상동 등 5개면의 주민들이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며 시작됐다. 경찰과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농성장은 헐렸고, 지난해 9월 결국 69개의 송전탑이 건설됐다. 한전은 현재 신고리 1·2호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밀양 송전탑을 이용해 시험 송전 중이다.<br/><br/>표면상으로는 송전탑 건설이 끝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지만 200여가구, 100여명의 밀양 주민들은 여전히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월 밀양 주민 16명이 송전탑 건설 지역인 충남 당진, 원전 단지인 고리·월성 등을 방문해 송전탑 반대 운동을 펼쳤다. 밀양에 들어선 송전탑 밑에 농성장을 다시 세우고, 지난 4월부터 매일 오전 밀양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br/><br/>-많은 사람들이 밀양 사태가 마무리됐다고 알고 있다. 송전탑 건설이 끝났는데 무엇을 위해 투쟁을 계속하는 것인가.<br/><br/>“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피해에 대한 사과와 대화를 통한 해결 등을 요구하는 것도 있으나, 가장 큰 목표는 ‘탈핵, 탈송전탑’에 두고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체계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 에너지 체계는 너무 비민주적이다. 송전탑이 건강에도 안 좋고 소음 등의 피해가 있는데 정작 전기를 적게 쓰는 지역에 송전탑이 세워진다.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 근처에 발전소를 세우는 등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기업이 전기를 많이 쓰는 경우에 자가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전기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기대서 오로지 핵발전소를 많이 건설해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다. 밀양뿐 아니라 765㎸ 송전탑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건 신고리 3·4호기뿐 아니라 8호기까지 계속해 증설하려는 계획에서다. 결국 탈원전을 하지 않으면 밀양 같은 사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에 문제를 느껴 투쟁을 계속하는 것이다.”<br/><br/>-투쟁이 계속되지 않으면 결국 밀양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br/><br/>“그렇다. 저는 만약에 밀양이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고리 1호기가 폐쇄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탈핵 이슈가 밀양 투쟁을 통해 모였다. 굉장히 견고하던 에너지 이익 집단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들은 10년을 싸워왔고 여전히 싸우고 있다. 탈핵, 탈송전탑은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밀양이 싸우고 있다. 우리는 지금 밀양에 빚지고 있다.”<br/><br/><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37.txt

제목: 이천, 11개 농촌마을 지하수에 치명적 유해성분  
날짜: 201507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1610017941108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암·청색증 유발 ‘질소’ 다량 검출에도 식수로 사용</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구제역 가축 살처분 이후 관리 부실로 오염 가능성</strong><!-- SUB\_TITLE\_END--><br/><br/>경기 이천시 농촌지역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염병에 걸린 가축들을 살처분한 뒤 관리가 안돼 지하수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br/><br/>이천시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 마을 55곳에 대한 지하수 수질 정기검사에서 11곳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인에게 암이 유발될 수 있는 질산성 질소를 비롯한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질산성 질소는 아이들에게는 산소 전달을 방해해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을 발병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br/><br/>문제가 된 마을은 대규모 축사가 집중된 곳이다. 100~200명이 거주하는 소규모 농촌 마을로, 상수도가 제대로 보급이 안돼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br/><br/>율면 석산3리 지하수는 식수 사용이 부적합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했다. 지난해 9월 수질검사에서 질산성 질소가 2.2㎎/ℓ에서 12월 9.6㎎/ℓ로 급증했고, 올 3월에는 법정 기준치(10㎎/ℓ)를 5.4㎎/ℓ를 초과한 15.4㎎/ℓ가 검출됐다. 모가면 원두2리는 지난해 12월 3.9㎎/ℓ가 검출된 질산성 질소가 올해는 14.6㎎/ℓ로 악화됐다. 설성면 장천2리는 지난해 10㎎/ℓ에서 올해는 16.1㎎/ℓ로 오염됐다. 마장면 작촌리는 망간이 기준치(0.05㎎/ℓ)보다 3배 정도 많은 0.143㎎/ℓ가 검출됐다.<br/><br/>이천시는 이들 마을에 상수관로를 연결한 뒤 식수를 공급하는 등 서둘러 대책에 나섰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br/><br/>감사원은 앞서 지난달 24일 공개한 ‘가축 매몰지 주변 오염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대규모 축사가 여럿 있는 이천시 등에 대해 “<span class='quot0'>정부가 구제역 등 전염병에 걸린 가축들을 살처분한 뒤 그 사체를 묻은 지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주변에 침출수 등으로 오염된 지하수와 토양이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span>”고 밝혔다.<br/><br/><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38.txt

제목: 노경은 ‘저중심 피칭’으로 돌파구  
날짜: 201507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16100000039  
본문: 던지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br/><br/>특별히 아픈 곳도 없는 데다 구속 자체도 그다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운드에서 위압감이 뚝 떨어졌다. 결과 역시 1~2년 전과 너무 달랐다.<br/><br/>두산 우완투수 노경은(31). 노경은은 지난 3일 2군으로 내려갔다. 두산 김태형 감독은 “<span class='quot0'>노경은에게 ‘처음부터 다시 만들자’고 했다</span>”고 전했다.<br/><br/>노경은은 2군구장인 이천 베어스파크에서 훈련하고 있다. <br/><br/>그러나 1군에서 노경은의 모습을 간간이 볼 수 있다. ‘노경은 살리기’라는 목표점을 두고 한용덕 1군 투수코치와 이상훈 2군 투수코치의 소통이 끊임없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한 코치는 이 코치가 보내는 ‘노경은 피칭 영상’을 보며 ‘변화 과정’을 살피고 있다.<br/><br/>한 코치는 “이상훈 코치가 노경은이 던지는 모습을 잘 담아 보내주고 있다”며 이른바 ‘저중심 피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했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듯 보인다고 했다.<br/><br/>한 코치는 “뭐랄까, 조금 붕 떠 있는 채로 던지는 느낌이었는데, 중심을 가라앉혀 놓고 던지는 느낌이 들고 있다”고 했다. <br/><br/>노경은은 전보다 상체 의존도를 줄이고 하체 쪽으로 중심을 내려놓고 피칭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심의 변화는 당장 눈에 보이는 구속 차이보다는 종속의 차이를 가져온다. 타자가 체감하는 ‘볼끝’의 강화로 나타난다.<br/><br/>노경은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22승을 거뒀지만 2013년 3승(15패)에 그치며 급작스럽게 무너졌다. <br/><br/>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했지만, 딱히 해법이 나오지는 않았다. ‘멘털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br/><br/>어느 쪽이든 노경은은 피칭 메커니즘에 일면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 이에 투수 스태프가 적극적으로 처방 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br/><br/>정신적인 부분이 근원적인 이유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소문난 효자인 노경은은 어머니의 암 투병 과정을 상당 기간 지켜봤고, 최근에는 모친상의 아픔을 겪었다. 마음의 전부를 마운드로 가져오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 설상가상, 지난겨울 미국 애리조나 캠프에서는 턱 관절 미세골절로 시즌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기도 어려워다.<br/><br/>노경은은 스스로 달라지는 길로 접어들었다. 14일에는 2군에 다시 내려간 뒤 처음으로 실전 마운드에 올랐다. SK전에서 1이닝 동안 3타자를 상대하며 무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39.txt

제목: ‘암세포 자살 유도단백질 기능’ 비밀 풀었다  
날짜: 20150714  
기자: 송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14100000128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를 자살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세포사멸 유도단백질의 기능을 밝혀냈다.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br/>한국연구재단은 연세대 의대 윤호근 교수가 주도한 연구팀이 암세포 사멸유도 단백질인 ‘PDCD5’의 기능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PDCD5는 암세포의 사멸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 단백질이지만, 정확한 기전은 밝혀진 바 없다. 또 다른 단백질인 ‘p53’는 세포사멸을 유도해 암을 없애는 대표적인 단백질이다. 연구진이 7년간 암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단백질과 유전자 발현 변화를 측정·분석한 결과 PDCD5가 p53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PDCD5가 p53 활성화를 방해하는 히스톤탈아세틸화 효소(HDAC3)를 억제하는 사실도 확인했다.<br/>연구진은 위암 환자들에게 PDCD5가 적게 나타날 경우 생존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PDCD5를 통해 p53를 활성화하면 위암 세포에서 종양이 자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br/>윤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항암제 저항성이 있는 암세포들이 사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HDAC3을 표적화해 막는 전략이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새로운 항암제 저항성 극복을 위한 치료법과 치료제 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span>”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6월16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40.txt

제목: ‘암세포 자살 유도단백질 기능’ 비밀 풀었다  
날짜: 201507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1310017895043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연세대 윤호근 교수 연구팀</strong><!-- SUB\_TITLE\_END--><br/><br/>국내 연구진이 암세포를 자살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세포사멸 유도단백질의 기능을 밝혀냈다.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br/><br/>한국연구재단은 연세대 의대 윤호근 교수가 주도한 연구팀이 암세포 사멸유도 단백질인 ‘PDCD5’의 기능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PDCD5는 암세포의 사멸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 단백질이지만, 정확한 기전은 밝혀진 바 없다. 또 다른 단백질인 ‘p53’는 세포사멸을 유도해 암을 없애는 대표적인 단백질이다. 연구진이 7년간 암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단백질과 유전자 발현 변화를 측정·분석한 결과 PDCD5가 p53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PDCD5가 p53 활성화를 방해하는 히스톤탈아세틸화 효소(HDAC3)를 억제하는 사실도 확인했다.<br/><br/>연구진은 위암 환자들에게 PDCD5가 적게 나타날 경우 생존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PDCD5를 통해 p53를 활성화하면 위암 세포에서 종양이 자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br/><br/>윤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항암제 저항성이 있는 암세포들이 사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HDAC3을 표적화해 막는 전략이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새로운 항암제 저항성 극복을 위한 치료법과 치료제 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span>”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6월16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br/><br/><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41.txt

제목: [건강]“호스피스 건보 적용… 말기암 환자에 더 많은 혜택”  
날짜: 20150710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10100000027  
본문: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활동보조(간병) 비용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정 호스피스 같은 새로운 서비스도 추진되고 있다.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고 병원들의 호스피스 병동 운영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br/>대구파티마병원 박진미 원장(수녀·사진)은 최근 기자와 만나 “<span class='quot0'>호스피스 의료에 정부 지원이 늘어난 데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동안의 적자를 일부 보전할 수 있는 만큼 환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700병상 규모의 대구파티마병원은 호스피스 의료체계에 많은 투자를 해온 곳이다. 의료진과 영양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원목실, 자원봉사자 등이 한몸이 되어 말기암 환자들을 돕고 있다. 박 원장은 ‘간호사 출신 수녀님’으로 지역사회에서 유명하다. 지난해 병원장이 됐다.<br/>“호스피스 병동은 현재 13병상이지만 적자가 심각합니다. 의료계가 호스피스 병동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이지요. 향후 시설과 인력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는 의료 시스템이 더 강화되기를 바랍니다.”<br/>박 원장은 “<span class='quot0'>호스피스뿐 아니라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신생아 집중치료실, 제대혈은행 등의 운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환대와 존중을 실현하는 병원’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대학병원 우선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중심·환자중심 병원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span>”고 강조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42.txt

제목: 암 환자 몰라서 못 받은 복지비, 억대 재력가엔 ‘술술’  
날짜: 201507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0810017850222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감사원 “부당 지출 4461억”</strong><!-- SUB\_TITLE\_END--><br/><br/>지역 건설사 사장인 ㄱ씨는 회사 주식 5만주(5억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이 주식을 재산에 반영하면 ㄱ씨의 소득인정액은 월 313만원으로 기초연금 자격(부부 월 139만2000원 이하)을 초과한다. 하지만 ㄱ씨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 192만원을 지급받았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다. <br/><br/>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ㄴ씨 부부는 올해 소득인정액이 월 1300만원(일반재산 13억원 보유)인데도 지난해 의료급여 24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2인 가구면 월소득이 204만원 이하여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기준의 6배에 달하는데도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br/><br/>감사원이 8일 내놓은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 지출된 복지 재정이 4461억원에 달했다. <br/><br/>감사원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면서 2만5000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조2000억원어치를 누락했다. 이로 인해 ㄱ씨를 비롯해 6200명에게 기초연금 38억원이 잘못 지급됐다. 직장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1만8000여명이었다. <br/><br/>복지부는 국가보훈처가 요청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만6000여명이 수급 자격이 없는데도 504억원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br/><br/>반면 정작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암환자들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 줄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복지부는 암환자가 신청하면 3년간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 대상 암환자 2만6000여명 중 7300여명이 이 제도를 알지 못했다. <br/><br/>감사원 설문 결과 강원 춘천시에서 암환자 의료비 미지원 대상자 총 91명 중 74명이 사업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43.txt

제목: 감사원, 5억대 주식부자도 기초연금 수령 적발  
날짜: 201507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0810017848529  
본문: 지역 건설사 사장인 ㄱ씨는 회사 주식 5만주(액면가 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주식을 재산에 반영하면 ㄱ씨의 소득인정액은 월 313만원으로 기초연금 자격(부부 월 139만2000원 이하)을 초과한다. 하지만 충북 음성군이 ㄱ씨의 주식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ㄱ씨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일까지 기초연금 192만원을 지급받았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의 노인(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돈이다.<br/><br/>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국가유공자 ㄴ씨 부부는 올해 소득인정액이 월 1300만원(일반재산 13억원 보유)인데도 지난해 의료급여 24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2인 가구면 월소득이 204만원 이하여야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ㄴ씨는 소득이 기준의 6배에 달하는데도 정부가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br/><br/>감사원이 8일 내놓은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부당 지출된 복지 재정이 4461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면서 2만5000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조2000억원 어치를 누락했다. 이로 인해 ㄱ씨를 비롯해 6200명에게 기초연금 38억원이 잘못 지급됐다. 기초생활급여 수급 대상을 벗어난 6200명에게도 기초연금 38억원이 지급돼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직장이 있는데도 기초생활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1만8000여명이었다. <br/><br/>복지부는 국가보훈처가 요청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로 인해 1만6000여명이 수급 자격이 없는데도 504억원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br/><br/>대학생 중에는 공익법인과 정부에서 이중으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국가장학금 308억원과 학자금 대출 144억원이 이중으로 지원됐는데, 환수할 방안이 없어 442억원이 반납되지 않은 상태다. 한 대학생은 지난해 2학기 등록금이 247만원인데도, 국가장학금 200만원 외에도 4개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아 총 1025만원을 지원받았다. <br/><br/>이밖에 37개 대학은 교내장학금 확충을 조건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고도 교내장학금 93억원을 확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r/><br/>반면 정작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암 환자들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 줄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복지부는 암 환자가 신청하면 3년간 급여 120만, 비급여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대상 암환자 2만6000여명 중 7300여명이 이 제도를 알지 못했다. 감사원의 설문 결과, 강원도 춘천시는 암 환자 의료비 미지원 대상자 총 91명 중 74명이 사업을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44.txt

제목: 투병 중 집필 도윤경 교수의 마지막 논문 사망 3개월 후 국제학술지 자매지에 게재  
날짜: 20150708  
기자: 백승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08100000092  
본문: 고(故) 도윤경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대·사진) 교수가 암 투병 중 저술한 마지막 논문이 세계 3대 학술지 ‘셀(Cell)’의 자매지인 ‘셀 리포츠’ 6월30일자에 게재됐다. 도 교수의 논문은 체내 면역반응 과정에서 중요한 세포의 분화과정을 밝혀 흑사병과 에이즈·B형 간염 등 난치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가 규명한 세포의 이름은 ‘폴리큘라 헬퍼 T세포’이다.<br/>하지만 도 교수는 논문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인 지난 3월28일 난소암으로 4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젊은 여성과학자가 세상을 떠나 동료 교수와 제자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br/><br/>도 교수의 남편인 류성호 순천향대 교수는 “<span class='quot0'>아내에게 유니스트는 삶의 전부였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투병) 고통을 참으면서 후학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은 단순 지식이 아니라 (과학자로서의) 자부심이었다</span>”고 회고했다. 조윤경 유니스트 생명학부장은 “<span class='quot1'>언제나 밝고 즐겁게 연구에 매진하던 도 교수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는 면역학 연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span>”고 말했다.<br/>도 교수의 제자들도 “학생들의 미래를 먼저 걱정한 진정한 스승이셨다”며 “투병 중에도 업무용 노트북으로 학생들의 연구와 논문자료를 확인하고 메일을 보내시곤 했다”고 말했다. <br/>도 교수는 인체 내에서 면역체계를 활성화하는 ‘수지상세포’의 면역활동 역할을 규명한 공로로 2011년 노벨상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랄프 슈타인만 미국 록펠러대 교수의 제자다. <br/>그는 포스텍에서 생명과학을, 서울대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해 각각 학사·석사학위를 받은 데 이어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버지니아 의대에서 면역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2009년 유니스트 교수로 부임해 면역학 관련 연구를 해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45.txt

제목: ‘굴뚝 농성’ 차광호씨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 합의로 내려와”  
날짜: 201507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0810017849963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408일 농성’ 국내 최장기록</strong><!-- SUB\_TITLE\_END--><br/><br/>“<span class='quot0'>많은 분들의 성원 덕분입니다.</span>”<br/><br/>45m 높이의 공장 굴뚝에서 408일간 농성을 벌인 경북 칠곡 스타케미칼 노동자 차광호씨(46)가 8일 오후 굴뚝에서 내려왔다. 차씨는 최근 해고자 11명의 복직이 사측과 합의됨에 따라 이날 농성을 풀었다. 국내 최장 농성을 이어간 차씨는 이날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가 준비한 대형 크레인에 의존해 지상으로 내려왔다. <br/><br/><br/>땅을 밟은 차씨는 기다리던 노모를 끌어안은 채 눈시울을 붉혔다. 오랫동안 농성을 한 탓인지 초췌한 표정이었다.<br/><br/>앞서 그는 굴뚝에서 확성기로 “지난해 농성 한 달 만에 장모님이 말기암 판정을 받았고 지난 3월에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다. 일부 노동자들이 희망이 없다며 농성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자본과 싸워 이기기 위해 버텼다”며 장기농성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곧바로 건강검진을 위해 119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br/><br/>차씨의 408일 농성은 국내 최장기록이다. 지금까지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309일 농성이 최장이었다. 해고노동자인 차씨는 지난해 5월27일부터 스타케미칼 굴뚝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폴리에스테르 원사 제조업체인 스타케미칼은 2010년 옛 한국합섬(주)을 인수한 뒤 공장을 가동하다 지난해 1월 폐업을 결정하고 희망퇴직 신청(228명)을 받았다. 하지만 차씨 등 28명은 이를 거부하다 해고당했으며 차씨를 비롯한 11명은 복직투쟁을 벌여왔다.<br/><br/>이날 차씨의 농성 해제는 애초 예상(오후 2시)보다 5시간을 넘긴 오후 7시쯤 이뤄졌다. 그의 신병을 둘러싸고 노조와 경찰 의견이 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건강검진이 끝나는 대로 차씨에 대해 사법처리를 밟기로 해 노조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차씨는 업무방해, 현주건조물 침입죄로 지난해 5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금속노조원 등 700여명이 스타케미칼을 찾아 구호 등을 외치면서 차씨를 격려하기도 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8개 중대 경력을 정문 주변에 배치했다.<br/><br/><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46.txt

제목: 투병 중 집필 도윤경 교수의 마지막 논문 사망 3개월 후 국제학술지 자매지에 게재  
날짜: 2015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0710017838330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동료 교수·제자들 추모 이어져</strong><!-- SUB\_TITLE\_END--><br/><br/>고(故) 도윤경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대·사진) 교수가 암 투병 중 저술한 마지막 논문이 세계 3대 학술지 ‘셀(Cell)’의 자매지인 ‘셀 리포츠’ 6월30일자에 게재됐다. 도 교수의 논문은 체내 면역반응 과정에서 중요한 세포의 분화과정을 밝혀 흑사병과 에이즈·B형 간염 등 난치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가 규명한 세포의 이름은 ‘폴리큘라 헬퍼 T세포’이다.<br/><br/>하지만 도 교수는 논문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인 지난 3월28일 난소암으로 4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젊은 여성과학자가 세상을 떠나 동료 교수와 제자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br/><br/><br/>도 교수의 남편인 류성호 순천향대 교수는 “<span class='quot0'>아내에게 유니스트는 삶의 전부였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투병) 고통을 참으면서 후학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은 단순 지식이 아니라 (과학자로서의) 자부심이었다</span>”고 회고했다. 조윤경 유니스트 생명학부장은 “<span class='quot1'>언제나 밝고 즐겁게 연구에 매진하던 도 교수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는 면역학 연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span>”고 말했다.<br/><br/>도 교수의 제자들도 “학생들의 미래를 먼저 걱정한 진정한 스승이셨다”며 “투병 중에도 업무용 노트북으로 학생들의 연구와 논문자료를 확인하고 메일을 보내시곤 했다”고 말했다. <br/><br/>도 교수는 인체 내에서 면역체계를 활성화하는 ‘수지상세포’의 면역활동 역할을 규명한 공로로 2011년 노벨상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랄프 슈타인만 미국 록펠러대 교수의 제자다. <br/><br/>그는 포스텍에서 생명과학을, 서울대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해 각각 학사·석사학위를 받은 데 이어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버지니아 의대에서 면역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2009년 유니스트 교수로 부임해 면역학 관련 연구를 해왔다.<br/><br/><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47.txt

제목: [세상읽기]김형근 선생의 경우  
날짜: 20150707  
기자: 오창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07100000096  
본문: 김형근. 1978년에 대학에 들어갔다. 시대가 좋지 않았다. 세 번의 제적과 복교 끝에 11년 만에야 겨우 졸업했다. 여러 번 체포됐고, 고문과 수감의 고통도 겪었다. 호구지책으로 책방을 열었다. 최초의 직업이었지만, 경찰은 그냥 두지 않았다. 수시로 책방을 뒤지고, 책을 집어 갔다. 불온서적을 판다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3년 넘는 재판 끝에 전부 무죄를 받았지만, 경찰은 압수해간 3000여권의 책을 돌려주지 않았다. 태워버렸다고만 했다. 더러운 시절이었다. 배상을 받는 게 당연했지만, 그저 더는 괴롭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였지만, 보상 신청도 하지 않았다. 광주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는데 부끄러웠단다.<br/>김형근 선생. 사범대학에 입학한 지 21년 만에 늦깎이 교사가 됐다. 작은 시골 중학교에 발령받았다. 농촌지역은 가난했고, 학생들은 방치됐다. 겨우 돈 몇 푼에 몸을 파는 여학생도 있었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지만, 김 선생은 그럴수록 열심이었다. 도서관 담당을 자청했다. 학생들을 도서관에 잡아두고 늦은 밤까지 공부를 시켰다. 단지 교과공부만 하지 않고, 함께 놀기도 하고 상담도 했다. 학원 강사 경험을 살려 글쓰기 교육도 했다. 학생들은 빠르게 변해갔다. 학생들이 변하니, 학부모와 지역이 함께 변하기 시작했다. 학부모들은 도서관에 나와 학생지도를 거들었고, 자체적으로 산악회를 만들어 활동했다. 학생들은 교육부장관상, 경찰청장상을 휩쓸었다. 오랜 고초를 겪었지만, 모처럼 기쁨과 보람이 함께하는 살 만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 짧았다. 그동안 일곱 번이나 체포됐고, 숱한 고문도 겪었지만, 진짜 시련은 따로 있었다.<br/>2007년 12월, 대선 직전이었다. 조선일보가 갑자기 김형근 선생을 찍었다.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시키고, 교사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e메일을 보냈다는 거다. 다 이긴 선거판인데도 그들은 집요했다. 전교조를 겨냥한 색깔론 공세를 위해 1년6개월 전 행사까지 끄집어냈다. 허위 왜곡보도였지만, 수사기관은 조선일보의 요구에 충실했다. <br/>조선일보가 보도한 지 두 달 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교사를 덜컥 구속한 거다. 그렇지만, 원심과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 잘못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집권 한나라당은 무죄 선고에 대해 종북 판사, 좌익 판사 운운하는 막말을 쏟아냈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과거 범민련에 가입한 적이 있으니 이적성이 있다고 대법원이 구체적인 사실 판단에 개입했다. 2013년 가장 나쁜 판결 중의 하나였다. 김 선생의 운명은 이렇게 뒤틀어졌다.<br/>빨치산 운운하는 모략이 먹혀들지 않자, 국가정보원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며 별건으로 구속했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물을 옮겨 놓은 것에 불과했지만, 이적성을 가진 사람이니 북한에 이롭다는 거다.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속셈이었다. 국정원은 김 선생을 엮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e메일 감청 등을 통해 손바닥 들여다보듯 샅샅이 훑었다. 몇 년 동안의 인터넷 활동을 모두 모아 짜깁기하며 혐의를 덧씌운 거다. 국가보안법은 이럴 때 신통한 무기가 된다. 대학에 입학한 1978년부터 지금까지 꼬박 37년 동안 김 선생은 국가폭력의 희생양이었고, 공안세력의 먹잇감이었다. 그의 삶은 깨졌고, 피폐해졌다. 국가의 공권력은 정당성을 잃는 순간, 그저 몹쓸 폭력이 된다. <br/>국가폭력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김형근 선생은 지금 말기 암으로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의료진조차 더 이상의 진료가 무의미하다며 손을 놓아버렸다. 의사는 그에게 다만 몇 개월의 시간이 남았을 뿐이라고 했다. 김형근 선생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48.txt

제목: 담소유외과 여유증수술팀, 여유증 환자 2% 갑상선 암 진단 임상연구 발표  
날짜: 2015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0610017820197  
본문: 국내 최초로 IBCS, GBCC와 같은 세계적 권위의 유방학회 및 심포지엄에서 여유증 주제자로 선정되어 다양한 임상연구사례를 발표해 온 담소유외과 여유증 수술팀(대표원장 이성렬, 황성배 원장, 최병서 원장)이 지난 3일 여성형유방증환자(이하 여유증)의 수술전 초음파에서 갑상선암 진단에 대한 임상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br/><br/>담소유외과 수술팀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담소유외과에서 시행한 여유증수술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후천적 임상연구를 진행한 결과, 수술 전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 암이 진단된 경우가 20명으로 여유증 환자 중 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br/><br/>갑상선 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진행속도가 느리고 완치율과 생존율이 높아 착한 암이라고 불리지만, 여유증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대부분 20~30대 연령임을 감안하면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으면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br/><br/>여유증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사춘기나 노년에 발생하는 생리적 여유증도 있으나 이외에도 여유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nbsp;<br/><br/>첫째로 남성이나 여성호르몬 계통의 이상이나 전립선 치료제, 발모제, 항암제 등과 같은 약물복용, 그리고 대사계통의 신부전, 간부전이나 내분비계통의 갑상선 항진증, 비만과 같은 병적 원인의 여성형유방이다.<br/><br/>때문에 여유증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을 하면 담당의사는 위와 같은 다양한 원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미용치료의 목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다른 질병의 조기진단 치료시기를 놓쳐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유방외과전문의와 진단 시스템을 갖춘 병원에 내원하여 원인의 여부를 진단 받고 나서 결과에 따라 안전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br/><br/>실제로 여유증 수술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다양한 진료과에서 여유증수술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 전문적인 종합진단과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곳은 드물다.<br/><br/>여유증, 우리가 쉽게 봉긋해진 가슴을 제거하는 미용 목적의 수술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외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진단에 따른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다. 만약 갑상선 암 환자임을 진단하지 못한 체 수술에 임했다면, 환자에게 어떠한 합병증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환자는 그 합병증을 평생 갖고 살거나, 목숨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담소유외과 측은 전했다.<br/>&nbsp;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49.txt

제목: 186번째 환자는 삼성병원서 암 통원치료… 감염 경로 모호  
날짜: 20150706  
기자: 최희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06100000130  
본문: 4~5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확진돼 확진자가 모두 186명으로 늘었다.<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 의사(25·여) 1명과 이 병원 암병동에서 치료받던 환자(50·여)가 185·186번째 환자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확진받은 의사는 지난달 11~29일 중환자실에서 메르스 확진자를 치료했고, 지난 2일 의료진 전수 유전자 검사 과정에서 감염 사실이 발견됐다. 발열·기침 증상은 없었다. 정부는 환자 진료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br/>132번째 환자(55·남)의 부인인 186번째 환자는 감염 경로가 모호한 상황이다. 186번째 환자는 지난달 26일까지 자가격리됐다가 29일 삼성서울병원 암병동에 내원해 4시간 정도 항암 치료를 받았다. 이달 2일 밤 발열 증상이 시작돼 다음날 보건소에 신고하고 격리됐다. 정은경 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은 “132번째 환자가 격리되기 전인 지난달 12일까지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남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암병동 통원치료센터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br/>현재 격리자는 982명으로, 격리자 규모가 처음 1000명 이하로 내려왔다. 정부는 집중관리 중이던 건국대병원은 6일 0시 격리를 해제했고, 강동성심병원과 강릉의료원 등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7~10일 격리 해제할 예정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50.txt

제목: 186번째 환자는 삼성병원서 암 통원치료… 감염 경로 모호  
날짜: 201507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0510017813117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주말 2명 확진… 모두 186명</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격리자 처음 1000명 이하로</strong><!-- SUB\_TITLE\_END--><br/><br/>4~5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확진돼 확진자가 모두 186명으로 늘었다.<br/><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 의사(25·여) 1명과 이 병원 암병동에서 치료받던 환자(50·여)가 185·186번째 환자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확진받은 의사는 지난달 11~29일 중환자실에서 메르스 확진자를 치료했고, 지난 2일 의료진 전수 유전자 검사 과정에서 감염 사실이 발견됐다. 발열·기침 증상은 없었다. 정부는 환자 진료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br/><br/>132번째 환자(55·남)의 부인인 186번째 환자는 감염 경로가 모호한 상황이다. 186번째 환자는 지난달 26일까지 자가격리됐다가 29일 삼성서울병원 암병동에 내원해 4시간 정도 항암 치료를 받았다. 이달 2일 밤 발열 증상이 시작돼 다음날 보건소에 신고하고 격리됐다. 정은경 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은 “132번째 환자가 격리되기 전인 지난달 12일까지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남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암병동 통원치료센터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br/><br/>현재 격리자는 982명으로, 격리자 규모가 처음 1000명 이하로 내려왔다. 정부는 집중관리 중이던 건국대병원은 6일 0시 격리를 해제했고, 강동성심병원과 강릉의료원 등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7~10일 격리 해제할 예정이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51.txt

제목: 생명보험계약자 사망 원인···자살이 10년 새 10위권 밖에서 4위로  
날짜: 201507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0210017784951  
본문: 생명보험의 질병·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건수를 통해 사망원인으로 10년 사이 남녀 모두 10위권 밖에 머물렀던 자살이 4위로 가파르게 뛰어올랐다.<br/><br/>보험개발원은 2003∼2012년 10년간의 생명보험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암 사망 비중이 지속적으로 큰 가운데 자살 사망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2일 발표했다.<br/><br/>생명보험의 질병·재해사망 계약건수 10만 건당 사망보험금 지급 건수를 보면, 남성의 경우 자살(교수,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로 인한 사망이 2003년 3.0건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11위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6.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4위까지 올라갔다.<br/><br/>여성은 더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03년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10만 계약건당 0.8건으로 26위였으나, 2012년에는 3.5건으로 남성과 같은 4위가 됐다. 자살 외에 남성은 췌장암(16→8위), 폐렴(56→10위) 사망이 10년 사이에 급격히 늘었다. 여성은 폐암(4→1위), 췌장암(12→7위) 사망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br/><br/>남녀 모두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역시 암이었다. 남성의 사망 원인 1∼3위는 간암, 폐암, 위암이었고 여성은 상위 3개가 각각 폐암, 유방암, 위암이었다. <br/><br/>10년간 사망 건수는 남녀 모두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남성의 사망 건수가 16.5％ 줄어 여성(7.8％)보다 감소세가 컸다. <br/><br/>연령별로는 고령층에서의 사망 감소세가 뚜렷했다. 남녀 모두 10∼30대의 사망 건수는 10년간 20∼30％ 감소한 데 비해 60대 이상은 감소율이 50∼60％에 이르렀다.<br/><br/>고령층의 사망은 줄어들었지만, 입원이나 수술은 늘어났다. 10년간 입원건수는 남성이 22.8％, 여성이 58.3％ 늘어났다. 특히 여성 50대와 60대의 입원 건수는 각각 82.8％, 74.9％ 급증했다. 수술 건수도 남녀 모두 고연령일수록 수술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r/><br/>암진단 보험금 지급건수로 살펴본 10년간의 암 발생은 남성이 149.4％, 여성이 161.2％ 증가했다. 남녀 모두 20∼40대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 30대의 암 발생이 110.3％, 여성 30대의 암 발생이 136.2％ 늘어 연령대별 증가폭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br/><br/>종류별로는 남성의 경우 갑상선암(6→2위), 결장암(5→4위), 전립선암(16→7위) 증가폭이 컸다. 여성은 갑상선암(2→1위), 결장암(7→4위), 폐암(9→5위)이 많이 늘었다. 특히 갑상선암은 남성 998.7％, 여성 599.1％ 늘어 10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했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52.txt

제목: 배우 이세은의 Summer Dream  
날짜: 2015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01100000014  
본문: 바쁜 나날이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자신의 이름을 건 바자회를 꾸리기도 했다. 또 결혼도 했다. 한숨 돌려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여름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제 고즈넉한 해변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책 한 권 읽는 여유를 즐기는 휴가다운 휴가를 떠나도 될 때다.<br/><br/>베이지 메시 톱 29만8천원·화이트 시스루 스커트 가격미정, 앤디앤뎁. 진주 뱅글 5만5천원·가죽 뱅글 13만5천원, 스톤헨지. 화이트 플랫폼 슈즈 4만9천원, 할리샵. 귀고리·반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br/><br/>스트라이프 티셔츠 12만8천원, 세인트제임스. 펜던트 귀고리 10만원대, 티아도라. 화이트 쇼츠·<br/>반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br/><br/>푸르른 청춘을 돌아보다<br/>이세은(35)은 대학교 기말고사 출제를 막 끝내 꽤 홀가분해 보였다. 대중의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꿈을 부지런히 실현시키고 있던 터였다. 그동안 대학원을 다니며 연기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특강을 진행했던 이세은이 지난 학기부터는 가톨릭대학교와 동서울대학교에 출강을 하고 있다. 교수님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직 쑥스럽다. 천둥벌거숭이 아이들의 당돌함에 때로는 당황하는 초보 선생님이다.<br/><br/>“저는 아직 젊고 대선배님들에 비하면 내공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스무 살 남짓한 아이들의 에너지와 끼를 대하기가 좀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연기를 가르치되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몰아세우지 않고 되도록 칭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스승의 날에 학생들에게 롤링페이퍼 선물을 받을 만큼 저를 친근하게 대하는 편이에요.”<br/>기말고사가 끝나고 다가올 교수 평가가 두렵긴 하지만 그동안 학생들과 소통했던 시간이 많았던 만큼 최악은 아닐 거라 기대한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신인 시절 현장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들려준다.<br/><br/>“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만큼 학생들에게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애써요. 촬영 작업을 할 때 현장에서 쓰는 용어라든가 시스템,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웃음).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실습하다가 실수하면 막 웃어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하죠. ‘현장에서는 아무도 웃지 않는다. 그저 살벌할 뿐이다.’ 녹록지 않은 현실에 대응하려면 학교를 다니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라고 조언해요.”<br/><br/>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반대로 과거 자신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기도 한다. 무척이나 가고 싶었던 영화학과였기에 마치 나만의 무대가 완성된 것만 같았다. 연기 활동과 학교생활을 병행해야 했지만 수업도, 작업도 그저 즐거웠다.<br/>“비교적 이른 시기인 1학년 2학기에 탤런트 공채시험에 합격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학창 시절을 많이 누리지 못했지만 수업시간에는 눈을 반짝이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의욕이 넘치는 아이들을 보면 제 모습이 생각나서 기특해요. 가장 행복한 날들일 거예요.”<br/><br/>올바른 지도자가 되기란 멀고도 험하지만 또 보람되고 매력 있는 일이다. 내 앞에 앉은 아이들의 무한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아직은 미생일 뿐이다. 그러나 기회와 여건이 주어진다면 지도자로서 완생의 길로 나아갈 작정이다.<br/><br/>아버지가 물려준 재능<br/>이세은의 아버지인 고 이진섭씨는 MBC 기자 출신으로 조선일보 기획위원, 국회 공보관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던 데는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 지금도 그녀는 각종 전문지에 에세이를 기고할 정도로 글솜씨가 좋다. 집 안에는 늘 원고지들과 책들이 쌓여 있었으니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br/><br/>“기자로 일하시던 아버지는 워낙 글재주가 좋은 분으로 유명하셨대요. 주변 분들이 천재라고 인정할 만큼이요. 가끔 책 정리를 하다 보면 아버지의 글들이 책장 이곳저곳에서 나오곤 하는데 정말 좋은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 안 구석구석 아버지의 글을 찾아본 적도 있어요.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글과는 친숙한 편이죠. 잡지에 연재도 꾸준히 해왔으니까요.”<br/><br/>그녀는 이미 출판사와 출간을 계약하기도 했다. 학창 시절에는 영화제에서 시나리오 상도 받았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언젠가 이세은이 시나리오를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알음알음 글솜씨가 소문이 나 있다. 아버지는 그녀의 곁을 떠났지만 빛나는 유산을 남긴 셈이다.<br/><br/>“아버지에 비할 바는 못 되죠. 그저 에세이를 읽고 쓰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전문 작가라기보다 또 하나의 취미에 가까워요. 감수성이 워낙 풍부하기도 하고 또 제 직업이 특수한 경험이나 장소를 접할 경우가 많으니 글 소재는 많은 편인 거죠. 직업적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실력이에요. 감성에 젖어 글을 쓰다 보면 문장이 너무 길고 중의적인 표현도 많아요(웃음).”<br/><br/>글쓰기와 연기는 비슷한 점이 많다. 감성이 풍부해야 하고 또 순간적으로 자기감정에 몰입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글쓰기는 언제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어나갈 것이다. 곧 ‘이세은 저’라는 문구가 콱 박힌 책을 서점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감성 에세이든 여행 에세이든 혹은 육아 에세이든 말이다.<br/><br/>모든 것은 가족의 힘<br/>세월이 지날수록 가족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진다. 바쁜 와중에도 잠시 틈이 나면 가족과 함께 보낸다. 그녀에게 최우선은 항상 가족이다.<br/><br/>“어릴 때야 밖으로 나가려고만 했는데 집을 많이 떠나 있는 직업을 갖다 보니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또렷해졌어요. 맛있는 걸 먹어도 ‘가족과 다시 와서 먹어야겠다’ 생각하고요.”<br/><br/>막내딸인 그녀는 부모님에게 늘 존중받으며 자랐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모범생에 공부 잘하는 오빠를 둘이나 둔 탓에 비교가 되거나 공부를 강요받았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지만 그렇지 않았다.<br/>“부모로서 자식에게 강요하시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간섭이나 구속도 없으셨어요. 자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커서야 알았어요. 늘 믿어주셨고, 그것은 제게 책임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올바르고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가족이 주는 믿음 덕분이었어요.”<br/>얼마 전 이세은은 저소득 암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자선 바자회를 열었다. 기업의 후원도 없었고 공동 주최도 없었다. 그저 그녀 혼자서 기획하고 참여자들을 모았다. 수익금 전액은 서울대병원 암 병동에 기부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바자회를 열 계획이다.<br/><br/>“저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잖아요. 아름다운 가게 홍보대사 일도 하고 있던 차에 자선 바자회를 1년에 한두 번은 해야지 하고 시작한 일인데, 행어를 배달하는 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준비물을 조달할 정도로 모든 것을 준비하려다 보니 무척 힘들었죠(웃음).”<br/><br/>그녀의 유명세에 유명 브랜드들이 속속 참여하기도 했지만 일반 주부들도 스스럼없이 동참할 수 있는 바자회였다. 그녀는 친구인 ‘구 작가’라고 불리는 구경선 일러스트레이터의 엽서를 직접 판매했다.<br/><br/>“저는 그곳에서 의외의 재능을 발견했어요. 제가 판매를 꽤 잘하더라고요. 끝나고 스태프들에게 박수도 받았어요(웃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드려요. 판매하고 모금도 했지만 좋은 뜻으로 모인 분들이 많다 보니 인간적으로 친해지더라고요.”<br/><br/>앞으로 진행할 바자회 수익금도 암 병동에 지속적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소아암 기부는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성인 암 환자들을 향한 손길은 적은 편이다. 그들도 질병과 경제적 사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br/><br/>“암을 앓고 계시는 성인들 중에서도 자신이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 생계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턱없이 부족하고 적은 액수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쓰였으면 좋겠어요.”<br/><br/>이세은의 바자회 이름은 ‘로사 플리마켓’으로 어머니의 세례명을 그대로 차용했다.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하겠다’라는 그녀의 가볍지 않은 다짐을 엿볼 수 있다.<br/><br/>행복으로 조급함을 조각내다<br/>지난 3월 이세은은 2년 사귄 ‘금융맨’과 결혼했다. 여배우의 결혼은 연기 커리어에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제2의 출발선에 선 것과 다름없다. 자칫 수많은 상황에 부딪혀 주저앉을 수도 있고 또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br/>“맞아요. 결혼도 그렇고 30대 여배우는 고민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어린 아이돌 가수들도 연기 분야로 진출해서 여배우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죠.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싶어요. 나이 때문에 작은 역할을 맡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돋보인다면 다시 주인공 자리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자리에 있든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겠지요.”<br/><br/>김희애, 김성령, 차화연 등 연륜이 더해져 더욱 빛나는 여배우들은 많다. 이세은이 휴식을 갖거나 다른 활동에 몰두하더라도 조급하지 않은 이유다. 배우가 초조하면 대중도 감정을 느끼고 불편해한다. 스스로 먼저 여유를 찾는 것, 이세은이 터득한 연기 생활백서 제1장이다.<br/><br/>“저는 사극에 많이 출연하다 보니 이미 어린 시절에 만삭 연기나 백발의 노인 역할을 소화해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광고시장에서 밀린다든지, 찾지 않는다든지 하지는 않았거든요. 실력만 갖추고 있다면 나이가 많든 기혼이든 상관 있나요?”<br/><br/>그녀는 배우라는 직업과 어울리지 않고 스스로를 내세우는 게 서툴렀다. 멋진 가족도 밝히기 꺼렸고, 누구든 부러워할 달달한 신혼생활도 감춘다. 좋은 뜻으로 하는 바자회도 그 흔한 보도자료 한 장 배포하지 않았다.<br/><br/>“요즘은 자신을 어필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상을 받아도 자랑할 줄 몰랐어요.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늘 겸손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제가 잘하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이에요.”<br/><br/>오늘 아침에는 고소한 참기름이 들어간 김초밥 하나를 먹었다. 글을 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소소한 행복이 하루를 채워나간다. 일상의 행복은 30대 여배우의 초조함도 조각조각 흩어버린다.<br/><br/>화이트 페도라 7만원대, 화이트샌즈. 말발굽 모티브 반지 32만5천원·물결 모양 반지 24만8천원·<br/>다이아몬드 반지 69만원, 스톤헨지. 골드 컬러 니하이 글래디에이터 샌들 13만8천원, ALDO. 네이비 라이닝 포인트 아이보리 컬러 톱·네이비 쇼츠 스타일리스트 소장품.<br/><br/>블루 원피스 26만6천원, GOENJO. 귀고리 8만8천원, 스톤헨지. 가죽 뱅글 3만원대, 케이트앤켈리. 블루 뱅글 2만원대, 아즈나브르. 베이지 클러치백 25만9천원, 조이그라이슨. 블랙 라이닝 포인트 화이트 샌들 4만2천원, 모노바비. 스트라이프 패턴 헤어밴드 스타일리스트 소장품.<br/><br/>세일러 스타일 네이비 원피스 96만8천원, 앤디앤뎁. 귀고리 가격미정, 케이트앤켈리. 레터링 장식 포인트 화이트 펌프스 34만8천원, 수콤마보니. 반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br/><br/>블루 슬리브리스 블라우스 27만8천원·화이트 재킷 1백23만8천원·화이트 슬릿 롱스커트 69만8천원, 샌프란시스코엄브렐라 by 차보경. 이어커프 7만8천원·귀고리 8만8천원, 스톤헨지. 화이트 스트랩 샌들 7만9천8백원, 까밀라 by 바바라. 반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br/><br/>이세은의 Happy Holidays<br/>기자였던 아버지, 책을 좋아하는 어머니와 오빠들 덕에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다는 이세은. 올여름도 책과 함께 보내고 있는 그녀가 독자들에게 힐링이 되는 글과 책을 추천했다. 직접 쓴 에세이와 휴가지에서 읽기 좋은 책 추천사.<br/><br/>Summer Essay<br/>세 개의 책갈피<br/>촬영이 한창일 때는 따로 시간을 내서 책을 읽기가 힘들고 이동 중에도 기절한 듯 잠들기 바빠 자투리 시간에 조금씩 읽곤 한다. 그래서인지 집에서 욕조에 몸을 담그고 단 5분이라도 책을 볼 땐 내 자신이 그렇게 호사스럽게 느껴질 수가 없다. 나는 부끄럽게도 다독(多讀)하는 편은 아니지만, 대신에 한 번 읽기 시작하면 집중해서 읽는 속도가 빠른 편이다. 때문에 장편을 읽을 땐 힘에 부치지만 부담 없는 책은 몇 시간 내에 다 읽는다. 아버지께 “그 책 다 읽었어요. 이런 내용이던데…” 하고 말씀드리자 “벌써 다 읽었다고? 굉장히 빠르구나. 아직 나는 다 못 읽었다. 뒤에는 무슨 내용인데?” 하고 물으신다. 책 내용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이 내게는 조금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br/><br/>며칠 뒤 「아흔 개의 봄」을 펴들었다. 몇 페이지 넘기다 책갈피를 꽂고 책을 넘겨보는 순간, 나는 또 한 번 씩~ 웃었다. 차례로 어머니, 아버지의 책갈피가 꽂혀 있었던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는 책갈피로, 아버지는 보시던 페이지를 접어두시고, 나는 책표지 겉장을 빼서 보던 페이지에 끼워뒀다. 책 한 권에 우리 세 사람의 책갈피가 고스란히 꽂혀 있었던 것이다.<br/><br/>어쩌면 특별할 것도 없는 상황. 그 짧은 찰나에 나는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br/>생각해보니 어렸을 적부터 그랬던 것 같다.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신 아버지 덕분에 우리 집에는<br/><br/>늘 아침마다 온갖 종류의 신문들이 도착했다. 언젠가부터 부모님과 이 신문 저 신문 돌려보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늘 원고지로 넘쳐났다. 원고지 뒤편에 그림을 그렸던 기억, 원고지를 이용해 「약초 캐는 자매들」이라는 동화책을 만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 여러 편의 전래동화가 뒤섞여 있고 그림도 유치하지만, 나는 그걸 친척집마다 가지고 다니며 자랑했었다. 재미있는 책을 사거나 선물을 받으면 오빠 둘과 부모님까지 돌려 읽곤 했다. 그리고 각자 자신만의 읽은 표시를 해두었다. 나는 매번 어리석게도 표지 겉장을 끼우곤 해서 다른 누군가 읽은 후에는 겉장이 빠져 있는 채로 돌아와서 몇 번이고 기억을 더듬으며 읽었던 적이 꽤 많았다. 수년째 영화 주간지를 구독하면서 온 가족이 책이 닳도록 돌려봤고, 오빠가 사온 시리즈물을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결국 마지막 권은 선물로 드리는 상황이 되곤 했다. 특히 부모님은 재미있게 읽은 책, 내가 인터뷰한 기사나 책이 나오면 거실 한편의 테이블에 올려두신다. 언제고 지나다니며 가족이든 손님이든 심심할 때 읽어보라는 부모님만의 배려이다.<br/><br/>독서량을 보면 부끄럽게도 가족 중 내가 꼴등이다. 하지만 이렇게 세 개의 책갈피를 꽂으며 부모님과 함께 읽어나간, 정(情)이 듬뿍 든 책들은 오늘도 집 안 곳곳에 행복한 시간으로 쌓이고 있다.<br/><br/>이세은<br/><br/>※ 위 글은 이세은이 과거 「월간 에세이」에 연재했던 글 중 일부를 작가의 동의를 얻어 발췌한 것입니다.<br/><br/>Book Vacance<br/>휴가지에서 읽기 좋은 책 5<br/><br/>1 개밥바라기별 황석영 저 / 문학동네<br/>몇 년 전 영화 ‘그해 여름’ 촬영 때 함께 출연하던 배우 유해진 선배에게 선물받은 책이다. 작가가 사춘기부터 스물한 살 무렵까지의 길고 긴 방황에 대해 이야기한, 작가의 자전적 성장소설. 5개월 가까이 포털 사이트에 연재되는 동안 숱한 화제를 낳으며 뜨거운 호응을 얻은 작품인데,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노련한 작가가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점에서 여운이 길게 남았다. 실제 작가는 당시 거의 매일 연재 블로그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들과 부대끼고 놀며 문학과 예술에 대해, 또 세상사에 대해 치열한 토론과 정담을 나눴다. 가볍게 보기보다는 몰입해서 보기 좋은 책.<br/><br/>2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엘리자베스 길버트 저 / 솟을북<br/>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에서의 삼색 여정을 거쳐 마침내 ‘자기 몸에 완벽하게 편안한 인생’을 찾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끈 책으로 3년 전쯤 처음 접했는데, 읽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고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이 든다. 저자의 이혼 이야기를 담은 서두 부분은 무척 섬세해 읽는 속도가 나지 않았고, 여행지를 표현한 부분은 어찌나 아름다운지 특히 인도의 신비로움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요즘 다시 읽고 있는데, 다 읽는 게 아까워 뒷부분을 조금 남기고는 천천히 읽는 중이다.<br/><br/>3 행복의 기원 서은국 저 / 21세기북스<br/>지난해 KBS-1TV의 북 토크쇼 ‘TV 책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에 강연자로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책을 주제로 행복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자는 다윈의 진화론을 바탕으로 “행복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고 말한다. 즉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 인간”이라고 말하는, 행복의 진실에 대한 역설이자 반기다. 이렇게 설명하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주 쉽게 읽히고 읽고 나면 마음이 산뜻해지는 책이다. 이번 여름휴가 때는 이 책을 통해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br/><br/>4 가족 앞모습&가족 뒷모습 최인호 저 / 샘터<br/>작가가 1975년부터 월간 「샘터」에 연재하기 시작해 국내 최장수 연재소설로 기록된 글을 연재 400회를 맞아 출간한 책이다. 작가와 그 가족 그리고 주변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작가의 일기와 같은 이야기로, 읽고 있노라면 가족에 대한 따뜻함과 사랑이 샘솟는다. 5년 전쯤 아버지의 추천으로 처음 읽었는데, 단숨에 작가를 좋아하게 됐다. 오래 연재한 소설을 모은 책인 만큼 청년기를 거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다시 그 아이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작가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br/><br/>5 스님의 주례사 법륜 저 / 휴<br/>법륜 스님의 남녀 마음 이야기를 모은 책. 남녀 간의 사랑과 연애, 성공적인 결혼생활이란 주제를 통해 세상에 공것이란 티끌만큼도 없다는 인과의 법칙과 수레바퀴가 소를 따르듯 모든 인연에는 과보가 따른다는 것, 그러하기에 스스로의 마음밭을 잘 다스려 자신만의 생을 피워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남녀가 서로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법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필요한 내용이라 평소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여행 중 꼭 이 책을 통해 힐링하길 바란다.<br/><br/>“요즘은 자신을 어필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상을 받아도 자랑할 줄 몰랐어요.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늘 겸손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제가 잘하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이에요.”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53.txt

제목: 간암 투병 소설가 복거일, ‘역사 속의 나그네’ 26년 만에 완간  
날짜: 2015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0110017776534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암 진단 뒤, 독자와의 약속만 생각했다”</strong><!-- SUB\_TITLE\_END--><br/><br/>간암 투병 중인 복거일씨(69·사진)가 소설 <역사 속의 나그네>(문학과지성사)를 26년 만에 완간했다. 2070년대 인물 이언오가 백악기 탐험을 떠났다가 16세기 조선 사회에 좌초한 뒤 미래의 과학 지식으로 조선을 바꿔가는 이야기다. 1991년에 3권까지 출간한 데 이어 이번에 세 권을 추가해 6권으로 펴냈다.<br/><br/>1일 기자들과 만난 복씨는 2012년 간암 진단을 받았던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역사 속의 나그네>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br/><br/><br/>“연재를 중단한 25년 동안 왜 안 쓰느냐, 당신 사기꾼이냐며 별 전화를 다 받았어요. 약속 못 지키고 독자를 잃은 아픔이 훨씬 깊었다는 걸 깨달았죠. <역사 속의 나그네> 끝내야지, 병원에 안 갈란다 했습니다. 사람이 곧 죽는다면 정신 집중이 잘된다더니 세 권 쓰는데 1년이 채 안 걸렸어요.”<br/><br/>주인공 이언오는 500년 시차가 불러 온 지식의 간격을 이용해 조선을 근대적 사회로 이끌어 간다. 의학적, 기술적 지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저수지 사업을 벌이며, 반란군을 이끌어 관청을 치기도 했다. 4권부터는 본격적으로 군사를 조직해 노예제를 없애고, 반상은 물론 남녀 평등을 내세우며 이상사회를 실현한다. 현대 지식으로 중세를 발전시키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지식을 얻는 것’을 업이자 꿈으로 여기고,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복씨의 면모가 드러난다. 또 ‘인류 역사상 가장 혹독했던 우리 전통사회의 노예제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은 근본 요인’이라고 보는 복씨의 생각도 작품에 풀어놓았다.<br/><br/>소설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주축은 해방된 노예들이다. 복씨는 “자유주의자로서 내 이상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갖는 것”이라며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종사하면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작품을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br/><br/><br/>복씨는 또 <역사 속의 나그네>를 ‘지적 무협소설’로, 무협소설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오락소설을 찾는 독자들을 위한 소설로 설명했다. 이 시대 문학의 역할은 무엇보다 여흥이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기도 했다.<br/><br/>“1980년대까지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언로가 안 트이니까, 문학이 정치와 역사를 대신했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정치까지도 여흥으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문학이 변신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힘듭니다. 어깨에 힘 들어간 신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엔터테이너예요. 문학이 감당할 수 없는 걸 짊어지려 하면 문학에도, 작품에도 좋지 않아요. 문학성이라는 게 더해지면 축복이지만 그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묘하게 찾아오는 것이고요.”<br/><br/><나이 들어가는 아내를 위한 자장가> 등 시집 2권을 냈던 복씨는 시집 출간도 준비하고 있다. “시집 2권 더 낼 만큼 써놨습니다. 하나는 생전에 내고 하나는 죽은 뒤에 내려고요, 죽을 사(死)자랑 잘 맞지 않나요(웃음).”<br/><br/><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54.txt

제목: 메르스 발생 한 달, 논란과 이슈 점검  
날짜: 2015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01100000088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지 6월 20일로 한 달이 됐다. 이름도 낯선 이 바이러스가 가져온 파장은 대한민국의 일상생활을 바꿔놓을 만큼 컸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혼란과 논란 속의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다.<br/><br/>메르스 진행 상황<br/>6월 20일 저녁을 기준으로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166명, 사망자 25명, 기관 격리자 769명, 자가 격리자는 5,161명이다. 공기 간 전염이 아니라 사람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기 때문에 방제는 어렵지는 않다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바이러스는 급속히 퍼져나갔고, 국가적 위기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안일한 초기 대응과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대형 병원의 무기력한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평가다.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에 대한 불신은 거둬지지 않고 있다.<br/><br/>메르스 사태 주요 일지<br/>4월 18일∼5월 3일 국내 첫 확진자 1번(68), 바레인에서 체류하며 농작물 재배. 바레인 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br/><br/>5월 11일 1번 환자 입국 7일 만에 38℃ 이상 고열과 기침 증상 첫 발현.<br/><br/>5월 15∼17일 1번 환자 평택성모병원 입원. 당시 2인실에 3번(76) 환자와 함께 입원.<br/><br/>5월 20일 국립보건연구원,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국내 최초 확진,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 1번 환자의 부인(63) 두 번째 확진.<br/>\* 보건 당국에서 중동 지역에 다녀온 68세 남성 A씨가 중동호흡기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첫 확인됐다고 밝힘.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br/><br/>5월 21일 1번 환자와 같은 병실 쓴 환자 세 번째 확진.<br/>\* 정부에서 “2m 이내에서 1시간 이상 대화해야 전염될 수 있다”라며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발표.<br/><br/>5월 26일 3번 환자의 딸 네 번째 확진. 3번 환자의 아들 중국 출장 강행. 1번 환자 진료한 서울365열린의원 의사 다섯 번째 확진.<br/><br/>5월 29일 중국 출장 간 3번 환자의 아들과 1번 환자 다녀간 아산서울의원 의료진을 비롯해 총 6명 추가 감염돼 확진자 총 13명.<br/><br/>5월 31일 확진자 총 18명.<br/>\*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메르스 전파력 판단 미흡했다’ 사과.<br/><br/>6월 1일 메르스 첫 사망자 발생. 확진자 7명 늘어 총 25명.<br/>\*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메르스 첫 언급.<br/><br/>6월 2일 확진자 5명 늘어 총 30명. 3차 감염자 2명 첫 발생. 전국 153개 초·중·고·대학교 휴업 결정.<br/><br/>6월 3일 격리자 1,000명 돌파. 비격리 3차 감염자 첫 사망.<br/>\* 메르스 발생 13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메르스 관련 회의 소집.<br/><br/>6월 4일 삼성서울병원 의사 포함해 확진자 총 36명.<br/>\* 박원순 시장이 심야 기자회견 열어 중앙정부가 메르스 관련 정보를 지방정부와 공유하지 않는다고 비판, 중앙정부는 “박 시장이 불안감을 키운다”라고 응대하며 공방.<br/><br/>6월 5일 공군 원사 메르스 감염.<br/>\* 보건 당국에서 평택성모병원 이름 공개, 방문자 전수조사 결정.<br/><br/>6월 6일 국내 환자 중 첫 퇴원 사례 발생.<br/>\* 국민안전처에서 긴급재난 문자메시지 발송.<br/><br/>6월 7일 10대 메르스 감염자 첫 발생.<br/>\* 정부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병원명 일반 공개.<br/><br/>6월 10일 메르스 의심 임신부 최종 확진 판정.<br/>\*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 일정 연기.<br/><br/>6월 13일 4차 감염자 첫 발생.<br/>\* WHO 메르스 합동조사단에서 “사태 초기 투명한 정보 공개 못해 실패’, ‘지역사회 산발적 발생 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br/><br/>6월 14일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 결정.<br/><br/>6월 18일 삼성서울병원 전 직원 메르스 검사.<br/><br/>6월 20일 확진자 166명, 사망자 25명, 기관 격리자 769명, 자가 격리자 5,161명<br/><br/>메르스 제대로 알기<br/>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는 지난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후 중동에서 집중 발병된 것으로 알려진 호흡기증후군이다. 명확한 감염원과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동 지역 낙타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사람 간 밀접 접촉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다고 보고됐다. 짧게는 이틀, 길게는 2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며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을 주로 보인다. 이외에도 두통, 오한, 콧물, 근육통뿐만 아니라 식욕 부진,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br/><br/>\* 밀접 접촉 확진 혹은 의심 환자를 돌본 사람(의료인, 가족 포함), 환자 및 의심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동일한 장소에 머문 사람(방문, 동거 등)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다고 보고됐다.<br/><br/>진단은 어떻게 하나?<br/>메르스는 다음 3가지 경우에 의심 환자로 진단할 수 있다.<br/>첫째,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혹은 급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 지역을 방문한 사람. 혹은 중동 지역을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br/>둘째,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 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경우.<br/>셋째,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에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br/>\* 중동 지역 아라비아반도 및 그 인근 국가(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br/><br/>증상과 예방<br/>메르스 진단은 증상이 나타난 후 3일 이내에 가래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진하며, 현재까지 메르스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증상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중증의 경우 인공호흡기나 인공 혈액 투석 등을 받아야 한다.<br/><br/>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에 예방이 최우선이다. 외출 후, 사람과 악수를 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등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본인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br/><br/>65세 이상과 어린이, 임신부, 암 투병자 등 면역 저하자나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중동 지역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및 호흡곤란 등 호흡기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속히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br/><br/>메르스, 그 이후 현상들<br/>마스크 등 위생용품 품귀 현상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며 많은 약국과 마트에서 개인위생을 위한 손소독제, 마스크 등이 품귀 현상을 보였다. 특히 공기 매개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착용하는 보호 장비인 N95 마스크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 여간해선 구하기 힘든 귀한 물건이 됐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바셀린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시중에 마스크가 귀해지면서 최근 인터넷에는 각종 마스크 재활용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마스크를 소독하면 다시 쓸 수 있다는 주장인데,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br/><br/>금리 인하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75%에서 1.50%로 내렸다. 지난 3월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조정한 후 3개월 만이다. 메르스로 인한 경제의 타격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경기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6월 첫 주 백화점 매출액은 메르스 발생 전(5월 1~2주)보다 25% 급감했고,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했다. 대형 마트 매출액도 지난해 대비 7.2% 줄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게 된 것. 가계 부채 급증에 따르는 우려보다 메르스 긴급 처방을 우선시했다. 금리가 인하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가계 부채 위험과 전세난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br/><br/>관광업계 비상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메르스 사태에 관광과 유통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이다. 6월 들어 한국 방문을 취소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12만 명을 넘어섰다. 중국의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단오절이 20일부터 시작됐지만, 평소 같으면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볐을 관광지가 모두 한산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체류시 메르스에 걸리면 이를 보상하겠다는 ‘메르스 대응 및 관광업계 지원 방안’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관광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 강조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근시안적인 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br/><br/>메르스 마케팅 메르스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곳곳에서 메르스 마케팅을 내놓고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맛과 영양을 강화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헬스 마케팅’을 벌이고, 식당들은 면역력 강화에 좋은 재료와 음식을 메뉴로 내놓고 있다. 메르스로 학교가 집단 휴교에 들어가며 일부 학원들은 아이들이 집에서 자습할 수 있는 가정학습 자료를 제공하거나 주말에 보강수업을 하고 있다. 야외 활동에 나서는 가족들이 줄자 놀이공원에서도 할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에버랜드는 미취학 아동과 함께한 가족에게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절반 가까이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br/><br/>대통령 지지율 20%대로 하락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16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 지지율은 29%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8%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였다.<br/><br/>앞으로의 전망<br/>메르스 발생 한 달째, 보건 당국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메르스가 진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가된 환자 수가 며칠 사이 한 자릿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메르스 확산세가 진정됐다고 낙관하기는 힘들다.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아직 3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방호복을 입고도 감염된 의료진이 잇따라 나온 상태라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진정이냐 확산이냐의 여부는 아직 잠복기가 남아 있어 집중 관리 중인 병원 4곳에서의 환자 발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며 통제를 벗어난 메르스 사태가 언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전문가들조차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br/><br/>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메르스 예방을 위한 개인 수칙을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br/>1 손을 20초 이상 비눗물에 자주 씻을 것. 특히 외출 후, 그리고 악수 후 꼭 손을 씻을 것.<br/>2 손으로 코를 문지르지 말 것.<br/>3 개방된 공간에서는 마스크 불필요.<br/>4 지하철과 버스 등 이동 공간에서 마스크 불필요. 그러나 염려된다면 착용하되 가능하면 일회용을 사용하고 버릴 때는 귀에 거는 끈만 잡아 뗄 것.<br/>5 병문안 등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삼갈 것. 병원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br/><br/>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br/>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br/>삼성서울병원이 공개한 중환자실 모습.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55.txt

제목: 200만~300만원대  
날짜: 2015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01100000081  
본문: .<br/>글 서미정·노도현 기자 사진 제공 노정연, 하와이 관광청<br/><br/>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꿈같은 휴식, 하와이<br/>“여름 하면 해변이죠! 이뿐만 아니라 열대우림, 화산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하와이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13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와이는 지리적으로는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북태평양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어요. 그중 하와이 주 인구의 75%가량이 살고, 주도인 호놀룰루가 위치한 섬이죠. 와이키키 해변에서 마시는 마이타이 한 잔, 생각만 해도 달콤하답니다.” -김나혜(하와이 관광청 홍보 담당자)<br/><br/>와이키키 해변 누구나 인정하는 하와이 최고의 해변. 파도가 약하고 경사도 완만해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하다. 하얏트, 힐튼, 메리어트 등 특급 호텔이 해변을 따라 이어지고 산책로가 깔끔하게 정비돼 있다. 칼라카우아 거리에는 명품 브랜드 매장과 대형 쇼핑몰, 레스토랑이 즐비하다.<br/>호놀룰루 동물원 어린 자녀와 함께라면 특히 이곳을 추천한다. 하와이에만 서식하는 네네(Nene, 기러기의 일종)를 비롯해 사자, 호랑이, 기린, 하마 등 총 380여 종, 1,700여 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 영화 ‘쥬라기 월드’ 촬영지이기도 하다.<br/>다이아몬드 헤드 섬을 처음 발견한 쿡 선장이 햇빛에 반짝이는 분화구 정상의 암석을 다이아몬드로 착각해 ‘다이아몬드 헤드’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자동차로 가서 와이키키 시내와 해변 등 전망만 보고 돌아와도 되지만, 용암 동굴을 통과하면서 정상까지 걸어 오르는 것도 좋다.<br/>문의 하와이 관광청 한국사무소(02-777-0033, www.gohawaii.kr)<br/><br/>삶의 쉼표를 찍다, 30대 직장 여성의<br/>남프랑스 여행기<br/><br/>암스테르담 경유 → 니스 → 그라스 → 칸 → 아를 → 엑상프로방스 → 마르세유<br/><br/>관광 명소를 돌며 쉴 새 없이 셔터를 누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여행을 온 건지, 사진을 찍으러 온 건지.’ 바지런하게 발품을 팔며 머릿속을 채우는 여행도 있지만 발길 닿는 대로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비우는 여행도 있다. 방송작가 정고은씨는 지난해 다녀온 남프랑스 여행을 ‘삶의 쉼표’라고 표현했다.<br/>“남프랑스는 한국 사람들에겐 좀 낯설 거예요. 프랑스 여행이라고 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파리를 연상하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번잡한 관광지 대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렌터카를 빌려서 7박 8일 동안 남프랑스 일대를 돌아보는 코스를 택하게 됐어요.”<br/>반 고흐가 사랑한 도시 아를, 폴 세잔이 사랑했던 프로방스,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마르세유까지. 적도에 가까운 태양은 풍광의 채도를 한껏 높였고, 여유로운 사람들 곁에 머물며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 샹젤리제 거리에서 신상 샤넬 백을 사는 기쁨 대신 여유로운 그들의 일상을 공유하기를 택한 건, 지금 생각해도 잘한 일이다.<br/>“여행 일정을 타이트하게 짜지 않았어요. 칸을 둘러볼 때였나? 어쩌다 들른 작은 마을이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지나가다 본 바다도 잊을 수가 없고요. 수면 위에 햇살이 반짝반짝 비치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예뻤어요. 해안도로도 달리고 끝없이 펼쳐진 평야도 달리고. 교통 체증 없는 도로가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웃음).”<br/>렌터카 가격대는 5일에 300~400유로 정도. 우리 돈으로 40만~50만원이다. 만일을 대비해 보험은 풀커버리지를 선택하는 걸 추천한다. 당일 예약보다는 한국에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저렴하고 안전하다.<br/>“해외에서 운전하는 게 좀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렌터카 보험을 가장 좋은 걸로(웃음)! 차가 있으니까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기 쉬웠어요. 남프랑스 지방은 주차시설도 잘돼 있어서 렌터카를 이용하면 여자분들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을 거예요.”<br/>오후 6시가 넘으면 상점이 문을 닫기 때문에 끼니를 제때 먹어야 한다는 게 그녀가 전한 중요한 여행 팁. 프랑스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다. 별다른 드레싱 없이 각종 채소와 해산물로 만든 니스식 샐러드나 달팽이 요리, 라타투이는 강력 추천하는 메뉴들이다.<br/>“지중해 옆에 있는 도시들이라 각종 해산물을 활용한 요리가 많았어요. 홍합 요리도 맛있었고 파스타도 훌륭했어요. 바게트나 크루아상도 환상적이었죠. 먹는 것, 쉬는 것, 보는 것 삼박자가 잘 맞아서 더 행복하게 다녀왔어요. 지금도 그때 사진을 보면서 빙긋이 웃곤 한답니다.”<br/>한비야는 여행의 본질을 “인터넷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자기 여행이 아니라 남의 여행을 체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여행의 본질은 내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다녀온 그녀의 여행이 특별한 이유는 여행의 본질을 정확히 짚었기 때문이 아닐까.<br/><br/>Tip 추천! 아이가 더 좋아하는 리조트<br/>아울라니 디즈니 리조트&스파 오아후 코올리나 지역에 위치한 이곳은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유명하다. 핵심은 단연 워터파크. 풀장과 수상 놀이구역이 아름다운 주변 경관과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아이들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키즈 클럽에서 독특한 디즈니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br/>문의 resorts.disney.go.com/aulani-hawaii-resort<br/><br/>힐튼 하와이안 빌리지 하와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빌리지’ 개념의 리조트. 스토리텔링, 공예, 훌라, 하와이 단어 배우기 등 다양한 키즈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호놀룰루 동물원, 비숍 박물관 등 외부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문의 www.hiltonhawaiianvillage.com<br/><br/>카할라 호텔&리조트 유명 인사들이 자주 찾는 최고급 호텔로, 고급 주택가인 카할라 지구에 취치한다. 중앙 수족관에는 대서양 병코돌고래들이 살고 있다.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조련사의 지도 아래 돌고래들과 함께 수영을 즐길 수 있다. 케이키 클럽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하와이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의 kr.kahalaresort.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56.txt

제목: [단독]‘윤후 엄마’ 김민지씨와의 솔직 담백한 인터뷰  
날짜: 2015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701100000022  
본문: 전 국민의 사랑 속에 방영됐던 MBC-TV ‘일밤-아빠! 어디 가?’가 끝난 지 6개월, 열 살 초등학생이 된 윤후는 여전한 대중의 관심 속에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일상을 지내고 있다. 윤후 엄마 김민지씨(37)도 마찬가지다. 가수 윤민수의 아내로 그리고 특별한 아이 윤후의 엄마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녀가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레이디경향」과의 만남에서 그녀는 그동안 쌓아뒀던 이야기를 나누며 배꼽을 잡기도 했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br/><br/><br/>“<span class='quot0'>윤후 엄마 인터뷰 좀 해봐.</span>” ‘아빠! 어디 가?’가 방송되던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였다. 매주 일요일마다 시청자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사랑스러운 아이의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 친구들도, 동생도, 남자 후배도 궁금해했다. 유명인의 가족들이 대중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그리 새삼스러울 일은 아니지만, TV 속 그녀는 유독 카메라와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았다. 카메라를 피해 도망 다니기 일쑤에 어쩌다 얼굴이라도 나올라치면 긴 생머리를 연신 얼굴 위로 늘어뜨렸다. 그래서 더욱 반가웠다. 눈앞에서 편안하게 웃고 있는 그녀가.<br/><br/>“제가 무대 공포증 같은 게 있어요. 어렸을 때 플루트를 연주했는데 평소에는 잘하다가 무대에만 올라가면 눈앞이 깜깜해져서 결국 음악을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촬영 카메라를 보니 그때처럼 심장이 뛰더라고요. 제가 얼굴을 보이기 싫어서 숨었던 게 아니라 심장이 너무 뛰어서 그랬던 거예요.”<br/><br/>그래도 2년 동안 2주에 한 번꼴로 집에서 카메라를 만났다. 살림하는 사람으로서 이른 새벽 눈도 뜨기 전에 촬영 카메라를 맞이하는 일이 윤후나 남편과는 또 다르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전혀. 가족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꾸밀 것도, 불편한 것도 없었단다. 이제 어느 정도 카메라에 적응이 됐다 싶었는데 방송이 끝났다며 웃는 그녀다. 방송에서 보지 못한 사이 윤후는 쑥쑥 자라 어느새 키가 130cm를 훌쩍 넘었고 요즘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 있다. 남편은 틈만 나면 윤후와 놀러 갈 궁리를 한단다. 결혼 10년 차,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점점 닮아가는 남편과 아들을 지켜보며 그녀는 요즘 더없이 행복하다.<br/><br/>방송이 끝나고 윤후는 어떻게 지내요? 이제 TV에 나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윤후는 자기가 방송에 나왔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자기를 알아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본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방송을 보여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끝나고 나서 한 번 보여줬는데 크게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어? 이때랑 이때랑 잘라서 붙여놨네?” 이 정도의 반응이에요. 오히려 윤후 아빠가 더 아쉬워해요(웃음).<br/><br/>아이랑 놀러 가고 싶어서요? 네. 2주에 한 번씩 놀러 다니던 게 버릇이 돼서 이제 틈만 나면 애를 찾아요. 그때처럼 자주 여행을 가지는 못하지만 전보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게 가장 달라진 점이에요. ‘아빠! 어디 가?’ 멤버들과도 자주 만나 어울리고요.<br/><br/>맨 처음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어땠어요? 엄마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윤후가 일곱 살 때였는데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span class='quot1'>윤후랑 ‘일밤’에 나갈 수도 있어</span>”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땐 잘됐다 싶었어요. 그 전까지는 부자가 잠 한 번 같이 자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기회에 두 사람이 친해지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었죠. 이벤트성으로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2년 동안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br/><br/>두 사람이 방송에서 워낙 친구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원래부터 돈독한 부자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직업 특성상 생활 패턴이 윤후와 정반대였거든요. 밤에 음악 작업 마치고 아침에 잘 때쯤 아이는 학교에 가고, 아이가 학교 다녀오면 민수씨는 일하러 나가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만나는 시간이 한 달에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아이가 집에 와서 아빠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그랬겠어요. 윤후가 여섯 살 때였나. 남편이 밤늦게 들어와 거실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애가 그걸 보고 달려와서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span class='quot0'>엄마 일어나, 이상한 사람이 또 왔어</span>”라면서요(웃음).<br/><br/>상상이 되네요. ‘아빠! 어디 가?’를 하면서 많이 달라진 거군요. 남편이 요즘 그래요. 자기가 윤후 예뻐하기 시작한 게 3년 됐다고요. 그 전까지는 일하느라, 가족 돌보느라 책임감에 눌려 아이 예쁜 걸 모르고 살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해요.<br/><br/>윤후가 엄마와 애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간혹 방송에서 보면 엄마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엄마 껌딱지예요(웃음). 모유 수유를 5년이나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가 싶어요.<br/><br/>다섯 살 때까지 모유 수유를 했다는 건 좀 놀라운데요. 주변에서 왜 아무도 안 말렸을까 싶어요(웃음). 그때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스물일곱에 결혼을 했는데, 또래 친구들 중에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컴맹이라 인터넷도 못하고 친정 식구들도 미국에 있었거든요. 물어볼 사람이 없었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키우다 보니 일반적인 육아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어요.<br/><br/>자연주의 육아로 자란 아이네요. 윤후는(웃음).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아이가 네 살 때까지 남편 소속사에서 구해준 경기도 과천의 숙소에서 살았거든요. 외진 곳이라 주변에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남편이 일하러 나가면 윤후랑 단둘이 복닥거리며 둘만의 세계를 만들며 지냈어요. 한 몸같이, 떨어져본 적이 없어요. 유아기를 그렇게 보냈던 게 엄마에 대한 애착을 크게 형성한 게 아닌가 싶어요.<br/><br/>짜장면으로 대신한 결혼 피로연<br/>스물여섯 겨울, 가수 윤민수를 처음 만난 그녀는 이듬해 봄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 스물다섯의 남편은 뭐가 그리 급했는지 이른 아침부터 그녀의 손을 잡아끌고 동사무소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단다. 그렇게 젊은 두 사람은 부부가 됐고, 가난했지만 부족한 것을 모르고 살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수했다고 말하는 그녀는 여전히 순수하고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다.<br/><br/>결혼 이야기가 궁금해요. 윤민수씨와 처음 만나고 초스피드로 결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에서 학교를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잠시 한국에 들어와 친구 생일 파티에 갔다가 거기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때가 11월이었는데 12월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고 결국 돌아가지 못했죠(웃음).<br/><br/>한 달 일정이 무기한으로 연기가 됐군요. 그 이후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난 다음에야 짐 가지러 갔어요. 연애 기간은 정확히 5개월이에요. 만난 지 5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했거든요.<br/><br/>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건데,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당시에 친정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 중이셨는데 남편이 간호를 지극정성으로 했어요. 아버지 임종 때도 남편이 마지막을 지켰고요. 그때 친오빠가 사정상 미국에서 귀국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오빠 대신 상주 역할을 했어요. 후배 가수들 불러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3일 동안 상주 역할 하며 손님 맞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자밖에 없는 집에 남자친구가 와서 아들 노릇을 했으니 이미 사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친정 식구들에게 인정을 받았죠.<br/><br/>그대로 결혼으로 직행했군요. 남편은 한 번 마음을 먹으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하겠다고 워낙 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오죽했으면 친정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같이 좀 살아보는 게 어떠냐고 하실 정도였어요(웃음). 처음엔 반대하시던 엄마도 두 손을 드셨죠.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저를 데리고 남편 사는 동네 동사무소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9시 땡 하고 동사무소 문이 열림과 동시에 도장 찍고 혼인신고를 했어요.<br/><br/>결혼식도 안 올리고요? 식을 올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가 ‘바이브’ 2집 때였는데 남편이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여러모로 상황이 안좋았거든요. 혼인신고 하고 나와서 짜장면 먹으면서 우리끼리 식을 올렸죠(웃음). 2005년 4월에 혼인신고 하고 살림 합쳐서 살다가 아이가 생기고 2006년 6월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윤후가 속도위반으로 태어났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식전 위반이지 속도위반은 아니에요(웃음).<br/><br/>혼인신고 도장 찍고 나와 짜장면이라니, 평범하지 않네요. 연애 시절 제일 많이 먹었던 음식이 떡볶이랑 짜장면이었거든요. 나름 저희에겐 의미가 있었어요(웃음). 둘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라 결혼 뒤에도 형편이 넉넉지는 않았어요. 회사에서 월세로 내준 숙소에 신혼집을 꾸리고 윤후가 다섯 살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죠. 아이가 제대로 된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한 것도 여섯 살 때부터예요. 그 와중에 남편이 군대도 다녀왔고요<br/>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겠어요. 윤후가 다섯 살 때까지는 많이 어려웠어요. 마트에서 우유 하나 살 때도 고민하고 그랬어요(웃음). 그런데 그때는 둘 다 어려서 그랬는지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좋은 유모차, 좋은 장난감 그런 것도 몰랐고, 주변에 비교할 사람도 없었고요. 여유롭진 않았지만 세 가족이 부대끼며 오손도손 살았죠. 그렇게 지내다 남편이 ‘포맨’이라는 그룹을 만들면서 조금씩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숙소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둘 살림도 장만하고요. 지금 아이를 보고 있으면 그래도 이제 좀 살 만하구나 싶어요.<br/><br/>혹시 윤후를 키우며 힘들었던 점은 없었어요? 어렸을 때 윤후는 굉장히 산만한 아이었어요. 힘들었다기보다 어디 가서 튀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친구들 무리에 잘 섞여 마음을 놓았죠. 얼마 전에 윤후 성격검사를 했는데 굉장히 내성적인 성향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경쟁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요. 이렇게 내성적인 아이를 방송에 2년 동안 노출시켰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압박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다행히 윤후는 방송 전 모습과 거의 변함이 없어요. 학교에 들어가고 저에게 좀 덜 속는 것 빼고는요(웃음).<br/><br/>윤후는 그 나이대 아이들에 비해 생각이 깊고 배려가 많은 아이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배려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배려 있잖아요. 그런 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궁금했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절이에요. 예의범절, 인사, 웃는 얼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선 엄하게 하는 편인데, 가끔은 친정엄마께서 저보고 너무 아이를 잡는다고 하실 정도예요. 예절 교육 시키느라 공부에는 너무 신경을 못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웃음).<br/><br/>특히 여자친구들을 대할 때 윤후는 유독 다정하고 매너가 넘쳐요. 놀라울 정도로요. 제가 워낙 마르고 약해 보이다 보니 윤후가 어렸을 때부터 친정 식구들에게 “<span class='quot1'>엄마는 몸이 약하니까 후가 엄마를 잘 도와줘야 해</span>”, “<span class='quot1'>엄마는 여자니까 후가 지켜줘야 하는 거야</span>”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편이 천생 보수적인 한국 남자거든요. 제가 대신 남자가 지켜야 할 매너에 대해 자주 얘기해주는 편이에요.<br/><br/>가족의 삶을 변화시킨 아이 윤후<br/>이야기를 나누며 윤후의 사랑스러움이 그녀에게서 온 것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솔직하고 유쾌했으며 깐깐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span class='quot0'>결혼 전까지 전형적인 개인주의자였다</span>”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만큼. 윤후는 그녀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을 변화시킨 아이였다.<br/><br/>아이 교육 면에서는 어때요?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오히려 저보다는 남편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는 최대한 시키지 말자는 주의인데 남편은 어렸을 때 본인이 해보고 싶었던 것이나 못해봤던 걸 해주고 싶어 해요. 남편이 “윤후 뭐 시켜야 할 때 되지 않았어?”이러면 저는 “때가 되면 하겠지”이런 패턴이에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도 아이 아빠가 결정을 했고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획을 다 세워놓았어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아이가 재밌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요.<br/><br/>만약 윤후가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이 방송에 자주 나오기 전까지 연예인이 왜 좋은지 몰랐어요. 오랜 시간 고생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겉은 화려하지만 그다지 좋은 직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윤후가 방송을 통해 알려지며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을 받는 걸 경험하고 나서 연예인에 대한 생각이 많이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치열한 환경 안에 아이를 놓고 싶지는 않다는 게 엄마 마음이에요. 무엇보다 연예인으로서 재능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감정이 풍부하고 표현을 잘하는 아이이긴 하지만 연예인로서의 재능과는 다른 것 같아요. 아직은 천천히 지켜보고 있어요.<br/><br/>‘아빠! 어디 가?’가 방송되는 동안 윤후의 인기가 정말 뜨거웠어요. 이러한 상황이 가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남편이 밑바닥부터 자수성가한 스타일이라 연예계에서 인기의 허무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들뜨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았죠. 사람이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면 구설에 오르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방송을 하는 동안 최대한 조심조심,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윤후가 사람들에게 예쁨 받는 걸 당연시하고 잘난 척하게 될까 봐 그게 항상 염려됐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이는 큰 감정의 변화 없이 그 시기를 넘어온 것 같아요.<br/><br/>여전히 윤후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SNS를 통해 윤후의 근황이 전해질 때마다 반응이 뜨거워요. 저보다 윤후 걱정을 더 많이 해주세요.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죠. 저는 무척 행복한 입장이에요. 사실 처음 SNS를 시작할 때 많이 조심스러웠어요. 유명인의 가족이 무언가를 하면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숨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윤후를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그렇게나마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윤후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인터뷰를 못 했을 거예요. 지금은 많이 편해졌어요.<br/><br/>윤후는 엄마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윤후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특별한 아이예요. 양쪽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였거든요.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고, 저 역시 아이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많아요. 윤후가 태어나며 친정엄마와도 돈독해졌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유학 생활을 해서 엄마와 떨어져 지냈는데 윤후를 통해 가족이 더 가까워졌죠.<br/><br/>얼마 전 6월이 결혼 10주년이었는데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전형적인 개인주의자였어요. 주는 만큼 받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남편을 만나며 달라졌어요. 그 사람의 눈을 통해 본 세상도 아름답더라고요. 길가에 돌멩이 하나도 예쁘다고 멈춰 서는 사람이에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졌고 감정적으로도 성숙하게 된 것 같아요.<br/><br/>10주년인데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나요? 이벤트보다, 얼마 전에 집을 샀어요. 10년 동안 일곱 번이나 이사를 다닌 끝에 드디어! 여자에게 자기 집이 생겼다는 건 정말 뿌듯한 일이잖아요. 그동안 이사 다니며 고생했던 게 싹 사라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도 10년 동안 세 식구가 함께 고생해 여기까지 왔구나 싶어서 뿌듯한 마음이에요. 전에 제가 가방 팔아서 남편 옷도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걸 다 기억하더라고요. 요즘엔 남편이 그동안 해주고 싶었는데 못해줬던 것들을 많이 해주려고 해요. 표현도 많이 하고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br/><br/>결혼 후 가정과 육아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이제 윤후도 어느 정도 컸으니 무언가 본인의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것 같기도 해요.<br/><br/>사회생활에 대한 호기심은 항상 있어요. 직장 생활 하며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진 친구들이 언제나 부러웠거든요. 올 초에 기회가 생겨 지인과 쇼핑몰을 운영해보기도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br/><br/>3개월 만에 접었어요. ‘아직은 아이와 함께 있자’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아이가 자라는 걸 지켜보며 앞으로 저의 성장에 대해서도 생각해야봐야 할 것 같아요.<br/><br/>윤후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예요? 건강하길. 욕심이 있다면 아빠와 잘 지냈으면. 그리고 언젠가 생길 여자친구의 좋은 남자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br/><br/>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윤후를 사랑해주시고 지켜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윤후가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br/><br/>혹시 어딜 가나 ‘윤후 엄마’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섭섭하거나 하진 않나요? 남편이 10년 동안 가수로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윤후 아빠가 됐잖아요. 제가 윤후를 어떻게 이겨요. 저랑 남편 둘 다 합쳐도 윤후를 못 이겨요(웃음).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57.txt

제목: 췌장암, 피검사로 조기 발견 가능  
날짜: 20150626  
기자: 장은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26100000148  
본문: 이 연구가 좀 더 빨리 진행됐다면 스티브 잡스의 운명도 달라졌을까.<br/>초기 발견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췌장암을 간단한 혈액테스트만으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외신은 24일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라구 칼루리 박사 연구팀이 혈액 소포체(小胞體·모든 진핵세포에서 발견되는 세포소기관의 하나) 분석을 통해 췌장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이날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됐다.<br/>연구팀은 췌장암 환자 250명, 유방암 환자 32명에게서 채취한 혈액 샘플을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들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연구팀은 췌장암 세포에서 나오는 엑소좀(혈류를 타고 도는 소포체)이 ‘글리피칸-1’이라는 이름의 단백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혈액테스트를 통해 단백질 수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췌장암을 진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칼루리 박사는 “<span class='quot0'>췌장암은 통증이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암이 3~4기까지 진행된 후에야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손을 쓸 수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제 혈액테스트를 통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췌장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br/>미국 암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4만4000여명이 췌장암 진단을 받지만 생존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의 전 최고경영자 스티브 잡스도 2004년 췌장암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는 듯했으나 2011년 세상을 떠났다. 연구팀은 혈액테스트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췌장암과 다른 암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을 분류하는 과정 등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58.txt

제목: [건강 단신]흑색종 치료에 쓰는 면역항암제 外  
날짜: 201506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26100000057  
본문: ■ 흑색종 치료에 쓰는 면역항암제<br/>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은 면역항암제 ‘옵디보’와 ‘여보이’를 출시했다. 면역항암제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세포를 사멸하는 최신 약물이다. 옵디보는 기존 약제 투여 후에도 흑색종이 계속 진행돼 수술을 할 수 없거나, 다른 장기로 암이 퍼지는 (전이성) 흑색종 치료용으로 승인됐다. 여보이는 흑색종 1차 치료제로 쓰인다.<br/><br/>■ 아연·셀레늄 넣은 ‘원기소’ 출시<br/>코스맥스바이오가 서울약품과 공동으로 원기소(건강기능식품)를 이마트에 출시했다. 아연과 셀레늄을 첨가해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절반이 식물성 단백질로 생체 흡수율이 높다. <br/><br/>■ 햇볕 화상·기저귀 발진 치료 연고<br/>동국제약은 일광 화상, 기저귀 발진, 유두 균열 치료에 도움을 주는 덱스놀 연고(일반의약품)를 내놨다. 피부조직 재생 기능을 촉진시켜 주는 프로비타민B5 성분이 피부에 빠르게 흡수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59.txt

제목: [건강]‘인삼다당체 추출물’ 식약처에서 면역기능 인정  
날짜: 20150626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26100000059  
본문: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원의 창업 1호 기업인 헬스바이오메드는 24일 “<span class='quot0'>인삼다당체 추출물(진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면역기능)로 인정을 받았다</span>”고 밝혔다.<br/>회사 측에 따르면 진산은 사포닌을 최대한 제거한 복합다당체를 유효성분으로 한다. 사포닌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존 인삼 및 홍삼과는 차별화된다. <br/>자연세포살해세포(NK세포)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이물질들의 식균작용을 담당하는 면역세포(대식세포)의 활성능을 증가시켜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br/>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경수 교수팀이 정상인 7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결과, 인삼다당체 추출물 섭취 후 8주 및 14주 동안 NK세포 활성능이 각각 35.2%, 40.2%, 대식세포의 활성능도 각각 25.2%, 39.4% 상승했다. 이 연구내용은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br/>남서울대 임상병리학과 분자진단연구소 정석률 교수팀이 29일간 실시한 ‘마우스 경구투여에 의한 인삼다당체 추출물의 면역조절효과’에서도 NK세포는 13%, 대식세포는 대조군보다 2~3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희 대표는 “<span class='quot1'>고령화, 암 등 난치성 질환, 메르스·슈퍼박테리아의 위협 등으로 인해 면역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60.txt

제목: 조기진단 및 치료까지 논스톱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은평연세병원’ 호평  
날짜: 201506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2610017711720  
본문: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들의 '조기 발견'은 신속한 치료를 유도하고,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완치율을 높이는 골든키다. 질병 증상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병마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많은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정기검진’, ‘조기검진’이다.<br/><br/>실제로 유방암, 대장암, 위암 등은 빨리 발견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생존율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난소암의 경우는 초기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힘든 질병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각별히 요구된다. 이는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도 적용되는 ‘질병 극복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br/><br/><div style="text-align: center"></div><br/>이와 관련해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위치한 은평연세병원이 조기진단 및 내시경적 치료 전문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6년 문을 연 은평연세병원은 31개 병상으로 시작, 2007년과 2013년 각각 검진센터와 내시경실 10층 확장 이전을 통해 규모적 성장을 이뤘고, 2010~2012년에는 건강검진 수검률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높은 의료 서비스 수준을 확인 받았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건복지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며 실력을 인정받아 온 것.<br/><br/>갑상선과 유방 분야의 외과 전문 특화 병원으로도 이름을 알렸던 은평연세병원은 대형병원으로 편중되는 현상에 따른 의료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밀착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금은 국내외 의료수요 창출에 힘쓰고 있고, 기존 갑상선암, 유방암 뿐만 아니라 위암, 대장암 등 암 병원으로 거듭나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br/>은평연세병원은 대형병원으로서 수준급 시설을 갖추고 있어 환자들의 편의를 극대화시킨다. 무균수술실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24시간 응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대장항문질환 및 내과 진료 및 시술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질병이 발생했을 때 대학병원 등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검진부터 치료까지 논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환자들은 병원 이동 지연에 다른 증상악화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다.<br/><br/>지난해 1월 은평연세병원은 신축공사를 단행했고, 올해 4월에는 확장이전을 통해 정형외과 진료를 확대했다. 척추, 관절, 통증, 외상 등을 치료하고 관련 수술도 병행하고 있는 것. 대표 은평구 정형외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는 게 병원 관계자의 설명이다.<br/><br/>은평연세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최근 발생한 의료 사태를 보면서 병원 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지역 사회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원은 판단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위해 은평연세병원은 끊임없는 자기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질병 극복의 영원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br/>&nbsp;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61.txt

제목: ‘월 60시간 이상 알바’ 직장 국민연금 가입  
날짜: 201506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26100000125  
본문: 내년부터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시간제) 노동자는 한 달 근무시간이 총 60시간을 넘기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반으로 줄어든다. 다음달부터는 실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br/>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간제 근로자의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은 1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한다.<br/>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실업 크레디트는 실직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가가 1년간 보험료의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에 실업 크레디트를 신청하고 보험료를 내면 구직급여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br/>국무회의에서는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을 다음달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컨대 말기 암환자가 23일 입원 후 임종하면 총진료비 681만8000여원 중 43만7000여원만 부담하면 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62.txt

제목: ‘한 달 60시간 이상 알바’ 직장 국민연금 가입  
날짜: 20150626  
기자: 최희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26100000120  
본문: 내년부터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시간제) 노동자는 한 달 근무시간이 총 60시간을 넘기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반으로 줄어든다. 다음달부터는 실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br/>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간제 근로자의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은 1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한다.<br/>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실업 크레디트는 실직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가가 1년간 보험료의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에 실업 크레디트를 신청하고 보험료를 내면 구직급여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br/>국무회의에서는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을 다음달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컨대 말기 암환자가 23일 입원 후 임종하면 총진료비 681만8000여원 중 43만7000여원만 부담하면 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63.txt

제목: [건강]혈장, 메르스 잡을까  
날짜: 20150626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26100000056  
본문: ▲ 바이러스 이겨낸 항체 투입<br/>검증된 치료법 아니지만<br/>일부 감염환자에 효과<br/>지난 23일 서울대병원 혈액원. 30대 초반의 직장인 ㄱ씨의 몸에서 320㏄의 혈액이 채취됐다. 혈액 주머니에 가득 찬 혈액을 원심분리기로 돌리자 위에는 노란 액체, 아래에는 붉은 액체로 혈액이 나뉘어졌다. 위는 혈장이고 밑은 적혈구와 혈소판 등이다.<br/>지난 12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완치자의 혈액에서 추출한 혈장을 주입하는 항체치료가 중증 입원환자 2명에게 시행됐다. 이 중 한 명은 서울대병원 격리병동 환자로, 혈장치료 후 증세가 호전돼 효과를 보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br/>혈액 구성성분의 하나인 혈장은 암 환자나 폐렴 등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알부민 등 혈장제제를 만드는 주요 원료이다. 의학적으로 중증 환자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헌혈한 혈액을 원심분리기로 돌려 추출하기도 하지만 혈액을 체외로 순환시켜 기계장치로 혈장만 추출한 뒤 다른 혈액성분은 다시 몸속에 넣어주는 방법도 흔히 쓰인다. <br/>혈장을 이용한 항체치료는 아직 검증된 치료법은 아니지만 과거 에볼라 출혈열(에볼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등이 확산될 때 일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의 혈장에 항체가 형성되고, 이 항체가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br/>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한규섭 교수·김형석 전임의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현옥 교수의 도움말로 혈장 및 혈장제제 등에 대해 알아본다.<br/><br/>―혈장은 ABO 혈액형이나 Rh 혈액형과 상관없이 타인에게 사용이 가능한가.<br/>“A형 환자에게 B형 적혈구가 수혈되거나 O형 환자에게 AB형 적혈구가 수혈되는 경우처럼 부적합한 적혈구가 수혈되면, 용혈성수혈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혈액형이 맞지 않는 혈장이 수혈된다고 해도 적혈구에 대한 항체가 체내에서 희석되기 때문에 면역반응의 강도가 적혈구 수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대부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분리된 혈장에는 적혈구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Rh 음성인 사람에게도 Rh 양성 헌혈자의 혈장을 안전하게 수혈할 수 있다. 혈장 수혈 시에도 ABO 적합 혈액을 선택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급이 부족하거나 응급상황에서는 ABO 부적합 혈장이나 혈소판의 수혈도 고려된다.”<br/>―혈장으로 만드는 주요 제제들은 무엇이 있나.<br/>“헌혈 후 혈장 성분을 분리해 수혈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로는 신선동결혈장 또는 동결침전제제가 있다. 또 혈장 중에 미량 존재하는 성분을 추출해 농축시킨 형태의 혈장분획제제를 제조하는 데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혈장분획제제로는 응고인자농축액, 면역글로불린, 섬유소원, 알부민 등이 있다. 혈장으로부터 만들어진 혈장분획제제는 혈액형과 전혀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br/><br/>―혈장(혈장제제)으로 치료(관리)하는 주요 질환은.<br/>“혈우병, 간질환, 패혈증 등에 쓰인다. 파종성혈관내응고(전신성혈관내응고)나 중증 간질환처럼 응고인자의 전반적인 결핍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선동결혈장이 사용된다. 단일 응고인자의 결핍이 있으며 (응고인자) 해당 성분으로 상품화된 제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선동결혈장 대신 단일 응고인자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 메르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혈장치료는 혈장 수혈의 주된 목적인 응고인자의 보충이 아니라, 감염 후 회복기 환자의 혈장 안에 존재하는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주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반적인 혈장 수혈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br/>―혈장제제 중 많이 쓰이는 알부민의 효능은.<br/>“혈장에서 분리한 알부민제제는 순환혈액량 감소와 저단백혈증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되며, 혈장교환술 같은 시술 시행 시 보충용액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단백질이 소변으로 많이 소실돼 저단백혈증이 생길 수 있다. 정상인의 경우 단백질은 다시 체내로 흡수된다.”<br/>―혈장제제를 통한 감염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br/>“과거 혈우병과 같이 혈장을 원료로 제조한 분획제제를 투여받아 에이즈가 전파돼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헌혈 혈액에 대한 검사를 충분히 진행한 후 공급하므로 혈장 수혈을 통한 감염성 질환 전파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국내에서는 B형 간염, C형 간염, HIV 바이러스(에이즈 원인)에 대해 분자유전학적 방법으로 추가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수혈로 인한 이들 바이러스의 감염이 보고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검사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아직 잠복기에 있는 바이러스를 100% 검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혈장분획제제 중 일부(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는 제조 과정에서 바이러스 불활화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혈용 혈장보다 더 안전하다.”<br/><br/>―헌혈이 줄어 의료현장에 혈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br/>“헌혈 감소로 혈액제제 공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 혈액원 등 유관기관에서 혈액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혈액 사용을 줄인다. 최근 수년간 수혈용 혈장제제 부족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다. 명절 연휴나 방학 때처럼 헌혈자원이 줄어서 혈장(1년)이나 적혈구(35일)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혈소판(5일)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수혈용 혈장은 부족하지 않지만 분획제제 생산용 혈장은 아직 모자라는 실정이어서 일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국민들이 헌혈에 더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br/>―혈액 부족으로 수입한 혈장은 어느 정도인가.<br/>“신선동결혈장 및 동결침전제제 같은 수혈용 혈액제제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채혈한 혈액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혈장분획제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혈장은 일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20.1%를 수입했으며, 식약처 등이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뒤 전량 미국에서 들여온다. 중국에서 혈장을 수입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br/>― 혈장과 혈청의 차이는.<br/>“혈장(plasma)은 혈액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세포 구성물을 제외한 액체 성분을 말한다. 혈장에서 섬유소원을 비롯해 응고인자 등을 더 제외한 성분이 혈청(serum)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64.txt

제목: 췌장암, 피검사로 조기 발견 가능  
날짜: 201506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2510017709773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미 연구팀, 네이처에 발표</strong><!-- SUB\_TITLE\_END--><br/><br/>이 연구가 좀 더 빨리 진행됐다면 스티브 잡스의 운명도 달라졌을까.<br/><br/>초기 발견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췌장암을 간단한 혈액테스트만으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외신은 24일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라구 칼루리 박사 연구팀이 혈액 소포체(小胞體·모든 진핵세포에서 발견되는 세포소기관의 하나) 분석을 통해 췌장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이날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됐다.<br/><br/>연구팀은 췌장암 환자 250명, 유방암 환자 32명에게서 채취한 혈액 샘플을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들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연구팀은 췌장암 세포에서 나오는 엑소좀(혈류를 타고 도는 소포체)이 ‘글리피칸-1’이라는 이름의 단백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혈액테스트를 통해 단백질 수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췌장암을 진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칼루리 박사는 “<span class='quot0'>췌장암은 통증이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암이 3~4기까지 진행된 후에야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손을 쓸 수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제 혈액테스트를 통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췌장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br/><br/>미국 암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4만4000여명이 췌장암 진단을 받지만 생존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의 전 최고경영자 스티브 잡스도 2004년 췌장암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는 듯했으나 2011년 세상을 떠났다. 연구팀은 혈액테스트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췌장암과 다른 암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을 분류하는 과정 등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br/><br/><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65.txt

제목: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절반으로 준다  
날짜: 201506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2510017706813  
본문: 앞으로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다음 달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br/><br/>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br/><br/>개정안에 따르면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br/><br/>앞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이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돼 개별 가입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br/><br/>18세 미만 근로자는 앞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제외될 수 있다. <br/><br/>이 규정은 7월 29일부터 적용된다. ‘실업 크레딧’ 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 제도는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br/><br/>이를테면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천원 중에서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실직자 자신은 한 달에 1만6천원만 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br/><br/>실업크레딧 제도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어 본격적 시행시기는 유동적이다. 복지부는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시스템 개선 등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br/><br/>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이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br/><br/>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 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 치과 임플란트도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br/><br/>7월 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제공기관의 병동에 23일 입원하고서 임종하면, 총 진료비 681만8000여원중 43만7000여원만 부담하면 된다. <br/><br/>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보건·복지·고용·주거·문화 등 특정 사회보장 분야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재정적, 행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br/><br/>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되면 사회보장 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되며 인력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 서비스 제공 기관 구축에 대해 지원도 받을 수 있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66.txt

제목: ‘월 60시간 이상 알바’ 직장 국민연금 가입  
날짜: 201506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2510017709693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보험료 부담 절반으로… 실직자엔 1년간 최대 75% 지원</strong><!-- SUB\_TITLE\_END--><br/><br/>내년부터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시간제) 노동자는 한 달 근무시간이 총 60시간을 넘기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반으로 줄어든다. 다음달부터는 실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br/><br/>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간제 근로자의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은 1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한다.<br/><br/>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실업 크레디트는 실직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가가 1년간 보험료의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에 실업 크레디트를 신청하고 보험료를 내면 구직급여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br/><br/>국무회의에서는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을 다음달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컨대 말기 암환자가 23일 입원 후 임종하면 총진료비 681만8000여원 중 43만7000여원만 부담하면 된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67.txt

제목: ‘한 달 60시간 이상 알바’ 직장 국민연금 가입  
날짜: 201506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2510017709691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보험료 부담 절반으로… 실직자엔 1년간 최대 75% 지원</strong><!-- SUB\_TITLE\_END--><br/><br/>내년부터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시간제) 노동자는 한 달 근무시간이 총 60시간을 넘기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반으로 줄어든다. 다음달부터는 실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br/><br/>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간제 근로자의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은 1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한다.<br/><br/>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실업 크레디트는 실직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가가 1년간 보험료의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에 실업 크레디트를 신청하고 보험료를 내면 구직급여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br/><br/>국무회의에서는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을 다음달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컨대 말기 암환자가 23일 입원 후 임종하면 총진료비 681만8000여원 중 43만7000여원만 부담하면 된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68.txt

제목: 10대 환자 완치…격리해제 1만명 육박  
날짜: 20150623  
기자: 조형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23100000136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됐던 16세 고교생이 완치됐고, 잠복기를 넘긴 격리 해제자가 늘면서 1만명에 육박했다.<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2일 “<span class='quot0'>7명의 메르스 확진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해 이날까지 총퇴원자가 50명이 됐다</span>”고 밝혔다. 유일한 10대였던 67번째 환자는 뇌종양 수술을 위해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왔다가 슈퍼전파자인 14번째 환자(35)와 접촉해 감염된 후 줄곧 1인실에 격리 입원해왔다. 이 환자는 메르스는 완치됐으나 뇌종양 치료를 위해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br/>이날 퇴원한 22번째 환자(39)는 지난 18일 퇴원한 26번째 환자(43)의 부인이어서 ‘첫 부부 퇴원자’로 기록됐다. 이 부부는 지난달 15~17일 평택성모병원에서 최초 환자(68)와 같은 병동에 머무른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br/>사망자도 2명 늘어 27명이 되면서 치사율은 처음 15%대를 넘었다. 최고령 확진자로 대청병원에서 치료받던 128번째 환자(87)는 이날 새벽에,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101번째 환자(84)는 21일 새벽에 사망했다. 두 사람은 암과 뇌졸중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br/>자가·시설격리를 마치고 격리 해제된 인원은 곧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br/>대책본부는 지난 21일까지 격리 해제된 사람이 9331명이라고 발표했다. 반대로 17일 6729명으로 정점을 찍은 격리 대상자는 나흘 연속 떨어져 이날 3822명이 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69.txt

제목: [한동원의 에브리컬처]기타 수리를 위한 미국의 내쉬빌 여행  
날짜: 2015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23100000011  
본문: 물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기타 수리를 위한 내쉬빌 여행 같은 건 바보스러운 짓임에 틀림없다. 그 비용과 시간이라면 더 좋은 기타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사회경제적으로 바보스럽기 짝이 없는 이 여행을 떠날 것이다.<br/><br/>사람들이야 어찌되든 ‘불필요한 경계금물’이니 ‘사회경제적 파장’이니 하는 암구어 웅얼거리며 복지부동 무사안일 자기계발에 여념 없던 각종 A, B, C, D들에 의해 또다시 갈 데까지 가버린 이번 메르스 사태가 우리의 일상에 입힌 갖가지 크고 작은 타격이야 새삼 말해 무엇하겠는가마는, 직장에 나간 동안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찮은 맞벌이 부부들의 분투 또한 상당히 눈물겹다. 나는 그나마 출퇴근이 따로 없는 직업의 소유자인지라 어느 정도의 응급대응은 가능했는데, 다른 맞벌이 부부 여러분들은 대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들. 이 지면을 빌려 위로 및 응원 말씀 드린다. 부디 힘내시길.<br/><br/>‘우리 집 난로 밑에 보물이 있었다’<br/>아무튼 덕분에, 라고 해야 할지, 요즘 두 살짜리 딸 녀석에게 부쩍 더 많이 그림책을 읽어주게 되었는데, 가만 보니 그 책들 중에는 딸보다는 내가 좋아서 사들인 책들도 꽤 있었다(비율로 보면 대략 30% 정도). 이 일 이전에는 그 책들의 존재조차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책들 대부분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딸로부터 차갑게 버림받았기 때문인데, 반대로 딸이 좋아하는 책들 중에 나로선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책들 또한 꽤 된다. 하지만 이 책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도저히 프로의 솜씨라고 보긴 어려운 조악한 그림체부터 “이게 뭐야!”라는 신음 절로 나오는 허탈한 결말까지, 도무지 왜 그런 책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달라고 하는 건지 물어봐봐야 “다시, 다시, 다시”라는 거역할 수 없는 요청만이 되돌아올 뿐인 그 신비의 책들….<br/><br/>하지만 용케도 나와 딸의 마음에 모두 드는 데 성공한 책들도 있는데(비율로 보면 대략 2~3% 정도), 그 중에는 유리 슐레비츠라는 작가의 1978년 작인 <보물(The Treasure)>도 있다.<br/><br/>그 내용은 이렇다. 입에 풀칠도 제대로 못 하는 가난한 시골 노인이 어느 날 꿈에서 ‘왕궁 앞 다리 밑을 파면 보물이 있다’는 계시를 받는다. 하여 그는 산 넘고 물 건너는 오랜 여행 끝에 왕궁에 도착해 다리 밑을 파 보았지만, 보물은 없었다. 그때 그 남자를 줄곧 지켜보던 왕궁 경비대장이 다가와 “내 꿈엔 자네 집 난로 밑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말이 들리던데? 하하하”라며 놀린다.<br/><br/>이 말을 들은 노인은 또다시 고된 여행길 끝에 집으로 돌아와 난로 아래를 파 보았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정말로 보물이 있었다. 하여 그 남자는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다소 허무한 구석이 없지 않은 이 책의 내용인데, 짐작컨대 필시 이러한 허무함이 딸 녀석의 기묘한 취향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해보는 가운데, 아무튼 그 동화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다.<br/><br/>‘때론 가까이에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멀리 여행해야 할 때가 있다.’<br/><br/>뭐, 이는 물론 동화책 특유의 도식적인 교훈 요약으로 보이긴 한다만, 요즘처럼 이 문장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때도 없다. 물론 메르스 사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최근 개인적으로 당한 불의의 사고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불의의 사고’라 함은 애지중지하던 기타(깁슨사의 ES-335라는 모델)의 목이 부러져버린 사고인데, 그 경위는 이렇다.<br/><br/>얼마 전 새로 이사를 하면서 아내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작업실’이라고 명명된 방에 내 ‘보물’들을 전부 몰아넣게 되었다. 이사 전까지는 집안 이곳저곳에 적당히 분산수용해 오고 있었는데, 공익을 외면한 나의 행태를 예의주시하던 아내가 이사와 동시에 칼을 뽑아든 것이다.<br/><br/>그런데 여기에서 ‘보물’이라고 칭한 물건들이란 4대의 기타(및 앰프들 및 페달들)와 자전거(및 자전거 트레이너 및 딸이 태어나면서 새로 사들인 유아용 트레일러), 각종 화구들(및 판넬들 및 캔버스와 오일들) 등등인데, 이들 ‘장비’들에겐 다들 부피가 만만찮을 뿐더러 상당히 ‘섬세하고도 까다로운’ 물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br/><br/>‘국내에선 수리 불가’ 암담한 현실<br/>아시다시피 인간이든 물건이든 섬세하고도 까다로운 것들이 한 공간에서 탈 없이 공존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이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리틀야구장 정도의 면적쯤은 돼야 그럭저럭 상호충돌 없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위 물건들은 불행히도 주인을 잘못 만난 탓에, 꽤나 협소한 공간에서 부대껴야 하는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리하여 결국 비극은 벌어지고 만다.<br/><br/>이사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키우는 고양이들마저 모두 잠든 한밤중이었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도대체 왜 그랬던 거야!) 뭔가를 꺼내러(그 물건이 뭐였는지는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 이 지뢰밭으로 진입한다. 그리고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기타 스탠드를 실로 신묘한 각도와 강도로 건드린다. 그렇게 넘어져버린 기타는 하필이면 그 건너편에서 싸늘한 금속광을 발하고 있던 자전거 트레이너의 철제 디스크에, 하필이면 가장 약하다는 목 부분을 정통으로 부딪히게 되는, 그야말로 <밀리언 달러 베이비>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된다.<br/><br/>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다. 어둠을 찢던 그 경쾌하고도 단호한 나무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그 뒤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금속 조각 같은 것이 나뒹굴던 소리를….<br/><br/>설상가상인 것은 이 기타가 오랜 친구로부터 선물받은, 결코 함부로 폐기처분할 수 없는 기타라는 점이었다. 따라서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원래 상태 그대로 수리를 하는 것뿐.<br/><br/>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국내에선 수리불가’라는 암담한 현실에 부딪힌 나는 결국 이 기타의 제조사인 미국 깁슨사에 문의를 하기에 이르는데, ‘한국의 고객들은 미국 테네시주 내쉬빌에 있는 수리센터로 직접 기타를 들고 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뭐라고!). 여기에 덤으로, 위로의 차원에서 ‘매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망가진 기타를 들고 내쉬빌로 여행 온다. 그 중에는 기타의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싼 수리비를 기꺼이 감수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얘기도 함께 왔다(대체 이걸 위로라고 하는 거야!).<br/><br/>아무튼 그런 사연으로 결국 나의 가엾은 밀리언달러 베이비 기타는 현재 내쉬빌로의 부활여행을 떠날 그날만을 기다리며, 고이 케이스 속에 잠들어 있다.<br/><br/>물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기타 수리를 위한 내쉬빌 여행 같은 건 바보스러운 짓임에 틀림없다. 그 비용과 시간이라면 더 좋은 기타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내쉬빌보다 훨씬 좋은 곳을 여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br/><br/>하지만 나는 사회경제적으로 바보스럽기 짝이 없는 이 여행을 떠날 것이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기필코. 덜렁 필름 한 장을 찾기 위해 그린란드-아이슬란드-아프가니스탄을 거쳐 히말라야까지 두루 섭렵하는 초장거리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의 월터 미티처럼.<br/><br/>그리고 되찾을 것이다. ‘우리 집 난로 밑’ 보물을. 일상을.<br/><br/><한동원 문화평론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70.txt

제목: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등단 60년 신경림 “남은 삶도 시만 쓰고 싶어”  
날짜: 2015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23100000020  
본문: 시인과 만남은 세 번째였다. 열일곱 살 때 동국대에서 열린 백일장에서 시인을 처음 만났다. 무궁화호 밤 열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나는 백일장이 열리는 오전 내내 잠이 쏟아져서 원고지 위에 엎드려 잠을 잤던 것 같다. 키 작은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와서 ‘일어나서 글을 써야지’ 하고 깨워 주었는데, 나중에 시상식장에서 보니 그분이 신경림 시인이었다. 다행히 상도 하나 받아서 상금 30만원을 덤으로 얹혀 왔는데, ‘먼 데서 온 사람이 상금을 받아서 참 좋다. 여비는 충분하겠구나’ 하시며 반달 같은 작은 눈으로 웃으시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난다. ‘열심히 글을 써서 5년 안에 시인이 될게요’ 했던 약속은 그 후로 까맣게 잊고 살아왔다.<br/><br/>두 번째 만남은 봉화 귀내마을 전우익 할아버지댁 사랑방에서였다. 외가 어른인 전우익 할아버지 집에 머물던 1999년 겨울, ‘내가 가장 아끼는 벗 신경림’이 오는 날이라고 들떠 있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16년 만에 정릉 댁에서 다시 만난 신경림 시인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여전히 반달 같은 작은 눈으로 웃으며 활짝 반겨주셨다. 나는 시인 신경림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인은 전우익 선생과의 추억에 젖어들어, 화제를 다시 시인 신경림으로 돌려놓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으나, 오래 머물고 싶은 따뜻한 시간이었다.<br/><br/>1936년 충청북도 충주군 노은면 연하리에서 4남 2녀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본명은 응식(應植). 한학을 한 할아버지의 형제들은 한글 전용과 농촌계몽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화주의자였다. 아버지는 농협 서기로 일하면서도 광산사업 투자에도 적극적이었다. 외가는 독립운동에 비밀자금을 지원하던 만석꾼이었다. 독립운동을 한 대가로 징역을 살다 나온 젊은 지식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살길을 찾을 때까지 거두어 주던 집안이었다. 어머니는 학교를 다닌 적은 없으나, 그 청년들에게 공부를 배워서 책을 많이 읽은 교양 있는 분이셨다.<br/><br/>1943년, 노은국민학교에 입학했다. 4학년 때 시 ‘목계장터’에 등장하는 ‘목계’에 처음 가게 된다. 소년은 목계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남겨놓고 싶었다. 목계 풍경을 쓴 일기를 본 담임선생님이 ‘시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다. 소년 신경림의 글재주를 처음 알아봐 준 분이었다. 어린 시절 고향 남한강의 풍경과 목계장터의 사람들은 훗날 신경림 시의 거름이 되었다.<br/><br/>“우리 집안엔 책 읽는 사람이 많았어. 이광수·김동인의 소설과 시집도 꽤 있었고. 당숙들이 모두 신식공부를 했으니 책을 마음껏 빌려다 읽었지. 아버지도 시골에선 돈벌이를 좀 하던 분이셔서 읍내 나가면 늘 책을 사다 주셨어. 책 읽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게 시를 쓰는 토양이 되었지. 가설극장에서 연극도 많이 보았어. 가마니 창고를 빌려서 주로 영화 상영, 연극 공연을 하던 곳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곳이었어. 몇백 명이 들어가서 공연을 보는데 무대 한편이 무너져서 사고가 난 기억도 나. 그래도 자주 가서 연극을 열심히 보았어.”<br/><br/>‘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조금 자라서는 칸델라불 밑에서 놀았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점꾼들과/ 셈이 늦는다고 몰려와 생떼를 쓰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돋움새겼다/ 소년 시절은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겟방의 휘황한 불빛을 보면서/ 나는 세상이 넓다고 알았다, 그리고// 나는 대처로 나왔다(중략)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내 망막에는 마침내/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br/><br/>“내가 아마 6~7세쯤이었을 거야. 어머니는 항상 덤덤했어. 희로애락을 나타내지 않는 분이셨지. 할머니는 나에게 생을 건 사람이었어. 내가 서울에 공부하러 올 때는 따라와서 밥을 해주셨던 분이야. 두 분의 실루엣은 지금도 선명해. 램프불은 등잔불에 램프를 씌워놓은 것인데, 부잣집 아니면 없었는데 우리 동네엔 많았어. 우리 동네가 광산도 있고, 금전꾼들도 많이 왕래하던 곳이라 넉넉했던 것 같아. 중학교 때는 칸델라불을 썼어. 그건 광산에서 쓰는 불인데, 가스로 켜는 불이지. 새파란 불빛이 몇백 미터까지 밝혀주는 밝은 불이야. 우리 마을엔 전기도 나 초등학교 때 들어왔어. 이 얘길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읍내로 중학교를 갔는데, 거긴 전기가 거의 안 들어오더라구. 우리 아버지가 새 문물 들어오면 무조건 사야 하는 분이셨어. 호기심이 많은 분이어서 라디오, 전축 같은 물건이 집에 다 있었어. 그런 소재가 이 시에 다 등장하니, 나를 아주 부잣집 아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진 않아.”<br/><br/>1948년, 충주사범병설중학교에 입학했다. 중학교 시절 이광수, 김동인, 이기영, 김내성, 현덕 등 문학인의 책을 닳도록 읽었다. 중학교 3학년 때 6·25 전쟁이 터졌다. 나라도 풍비박산이 났지만, 그의 집안도 좌익과 우익 사이에서 풍비박산이 났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광산은 폐쇄되고, 당숙은 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었다. 충주고등학교에 들어갔으나 공부는 안 하고 남한강가를 거닐며 책만 읽었다. 도스토옙스키와 투르게네프의 소설을 읽고 백석, 임화, 이용악, 오장환, 정지용의 시를 읽었다. 이용악과 백석의 좋은 시는 외우고 다녔다.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을 읽고 백석 같은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교지에 <이형기론>을 발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55년 신경림은 동국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한다. <공산당 선언> 등 좌익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1956년 <문학예술>에 시 ‘갈대’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함께 책을 읽던 친구가 진보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충격을 받고, 문단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스물셋부터 10여년 동안 광부·장사꾼·학원강사 등을 하면서 떠돌았다. 충주에서 영어강사 노릇을 할 때엔 영어로 된 <공산당 선언>의 문장을 가르치기도 했고, 술자리에서 정권을 비난하는 말을 했다가 붙잡혀 가서 한 달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br/><br/>“내가 좋아하는 시인들의 시집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읽고 외웠어. 가택수색을 당할 때 시집을 다 빼앗겼어. 판금된 시집이니 다시 구할 수도 없고. 암기하고 있는 시들을 외우면서 허탈함을 달랬지. 등단한 후에도 시는 안 썼어. 전쟁 직후라 상이군인도 많고, 시골 젊은이들은 할 일이 없으니 전부 서울에 올라와 있었어. 모든 게 허망해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어. 신명이 나야 시가 되는데 신명이 안 나더라구. 10여년간 건달 생활을 했지.”<br/><br/>그럼 언제부터 시를 다시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br/>“서른 즈음, 결혼할 무렵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시 쓰는 일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br/><br/>장남이 시 쓰는 걸 사업가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시 쓰는 청년에게 시집을 온 새색시는 어떤 분이었을까요.<br/>“시 쓰는 남자인 걸 모르고 시집 왔지(웃음). 조그맣지만 똑똑하다는 평판은 받았으니까. 아내도 착하고 무덤덤한 사람이어서 결혼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쓸 수 있었지. 아버지는 내가 시를 쓰고 살겠다니까 크게 실망하셨지. 시인이 되면 굶어죽는다는데 어떡하냐고(웃음). 그래도 강요는 안 하셨어.”<br/><br/>집안의 몰락과 문단에 대한 실망이 겹쳐 낙향하지 않았더라면, 농민들의 애환과 가난한 이웃들의 아픔을 노래하는 시들이 태어나지 못했겠지요. 독자 입장에서는 건달 생활을 하며 길 위에서 보낸 10년이 참 고마운 기간이에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궁핍해진 농민들의 애환이 드러난 시들을 쓸 수 있으셨구요. 다시 서울로 와서 1971년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농무’, ‘서울로 가는 길’ 등을 발표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으셨어요.<br/>“김관식 시인이라고 서정주 시인의 동서인데, 반골기질로 유명하지. 어느 날 시내에서 술에 취한 김관식 시인을 만났는데, ‘신경림이 안 쓰면 나도 안 쓴다’며 시를 쓰라고 떼를 쓰더군. 무허가촌 산동네인 서울 홍은동 자기집 문간방을 내주어서 아내와 올라왔지. 쌀이며 김치, 연탄까지 다 대주며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시를 쓰게 해 줬어. 그 친구 덕분에 다시 시를 쓸 수 있었어. 서른여섯에 요절하는 바람에 갚지도 못했지.”<br/><br/><농무>는 떠돌면서 만난 민초들, 삶의 주변부로 밀려난 광부, 노동자, 빈민, 농민, 건달, 아편쟁이들이 주인공이다. 1973년에 시집 <농무>가 출간되자, 빼어난 사실주의적인 작품들은 문단에 충격을 던졌고, 한국 현대문학사에 민중시의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를 받았다.<br/><br/>개인적으로 많은 아픔을 겪는 동안 첫 시집이 나왔다구요.<br/>“70년에 안양으로 이사를 하고, 할머니와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살았지. 그 해에 아내가 암으로 죽고, 71년에 6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치매를 앓던 할머니도 돌아가셨어. 100여 가구가 단지를 이룬 마을이었는데, 우리가 사는 7년 동안 마을에서 우리 집만 장례를 세 번이나 치렀지. 그 집에 사연이 있었던 걸까? 사람들이 흉가라고 부르더군. 77년에 그 집 떠났어.”<br/><br/>그 시절은 어떻게 견디셨어요.<br/>“사람 삶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셨지. 초등학생 3남매를 우리 어머니가 다 키우셨어. 2001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지. 그런데 효도를 못했어. 늘 어머니를 괴롭혔지.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내가 안 들어가면 저녁을 안 잡숫고 계셔. 밤 12시가 되어도 내가 들어가면 함께 식사를 하셨어. 나는 효도하려고 모임에 가도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안 먹고 집에 가서 어머니랑 된장에 밥 먹었지. 그게 효도인 줄 알고 말이야. 그런데 지나고 보니 어머니를 괴롭힌 거였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야 깨달았어.”<br/><br/>1980년 7월, 선생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되어 고은, 송기원 선생과 함께 서대문구치소에 갇혔다가 두 달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자유실천 문인협의회’, ‘민주화청년운동연합’, ‘민족민주통일운동연합’ 등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활동하고, 1984년에는 ‘민요연구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민요 채집운동을 하는 데 힘을 쏟았다.<br/><br/>신경림 시인의 시는 길 위에서 쓴 시라고 말해도 될 만큼 유랑에서 얻은 소재들이 많은데요. 광산노동자, 부랑노동자, 도시빈민이 많이 등장해요, 역마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전우익 선생과도 여행을 많이 다니셨구요. 신경림 시인께 드린다고 서울 오실 땐 늘 냄새 나는 간고등어를 싸들고 오셨지요.<br/>“전 선생이 서울 오면 우리 집에서 함께 잤지. 어머니가 ‘넌 웬 노인 친구가 다 있냐?’ 그러셨지(웃음). 간고등어를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나중에 처치곤란이었지. 그걸 어디 글에 썼더니 담부턴 안 가져왔어. 냉장고엔 고등어가 넘쳐나는데, 나 혼자 먹으려니 다 먹을 수가 있나(웃음). 우린 좋은 친구들이 많았어. 권정생, 이오덕과도 친했지만 우리 둘이 제일 친했지. 판화가 이철수가 옛날식 소주를 잘 담가, 그 독한 소주 먹으러 자주 갔지. 전우익 선생과 안동·영주 여행을 많이 했어. 산속의 약초 같은 사람이지. 참 그리운 시절이야. 사랑채에서 군불에 된장 끓여주면 정말 맛있었는데…. 전 선생과 소백산 올라갔을 때가 벌써 20년 전이네. 장비도 없이 한겨울에 둘이 올라갔어. 눈을 잔뜩 맞고, 미처 하산하지 못한 서른 명 정도가 작은 산장 안에서 선 채로 밤을 샜던 기억이 나. 친했던 벗들이 이젠 다 가고 없어…. 요즘은 채현국이랑 종종 만나서 옛날 얘기를 해. 그 친구는 아직 힘이 펄펄 나. 요즘 인기도 아주 많고(웃음).”<br/><br/>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신경림 시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목계장터’, ‘갈대’, ‘가난한 사랑 노래’는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아는 시이자 언어영역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선생님 시로 출제된 학교 시험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으세요.<br/>“있지. 어려워서 나도 못 풀겠더라고. 답도 틀렸어. 시만큼은 시험문제를 달리 내면 어떨까? 가령, 이 시를 읽고서 무엇을 느꼈나, 틀린 거 하나 찾기. 어때? 그게 좋겠어. 시는 한 가지로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읽는 거잖아. 진짜 아닌 거 하나만 찾기. 폭넓게 가르치면 어떨까? 그런데 교사들이 안 된대. 차별성도 없고 문제로서 제구실을 못한다고 하더군.”<br/><br/>손주들이 학교에서 할아버지 시로 시험볼 때 기분이 어떨까요.<br/>“외손주가 그래. 할아버지 시가 문제로 나오면 제일 어렵다고(웃음).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라고 해도 친구들이 안 믿는대(웃음).”<br/><br/>지난 4월에는 신경림 시인과 일본의 거장 시인 다니카와 ?타로가 대시집(對詩集) <모두 별이 되어 내 몸에 들어왔다>를 내고 시낭송 콘서트를 열었다. 양국 출판사가 공동 기획한 시집이 두 나라에서 동시에 나왔다. 두 사람이 주고받으며 짓는 시를 일본에서는 ‘대시(對詩)’라고 한다. 두 거장은 2012년 일본 쿠온출판사에서 번역 출간한 신경림 시집 <낙타> 출간기념회에서 처음 만났다. ?타로 시인이 쓴 <낙타> 서평에서 한국 시인 신경림을 높게 평가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다. 한·일 양국의 출판사가 공동 기획한 이 시집은 정치적 대립의 이면에 공존하는 따뜻한 문학적 연대감을 담고 있다. ?타로 선생이 시를 먼저 보내오면 신경림 시인이 대답하는 기분으로 답시를 썼다. 그렇게 13편을 주고받는 데 6개월이 걸렸다. 요시카와 나기의 번역 또한 큰 몫을 했다.<br/><br/>남쪽 바다에서 들려오는 비통한 소식/ 몇백 명 아이들이 깊은 물 속/ 배에 갇혀 나오지 못 한다는/ 온 나라가 눈물과 분노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도 나는/ 고작 떨어져 깔린 꽃잎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신경림)<br/><br/>숨 쉴 식(息)자는 스스로 자(自)와 마음심(心)자/ 일본어 이키(숨)는 이키루(살다)와 같은 음/ 소리내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숨이 막히는 괴로움을/ 상상력으로조차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괴로움/ 시 쓸 여지도 없다(다나카와 ?타로)<br/><br/>밤새껏 물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눈을 뜨니 솜이불이 가시덤불처럼 따갑다/ 아랑곳없이 아침햇살이 눈부신 앞뜰에는/ 목련이 지고 작약이 피고/ 이렇게 봄은 가고 있는데(신경림)<br/><br/>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담은 선생님의 시와 ?타로 선생이 보내온 답시를 읽으며 마음이 먹먹했어요. 두 시인이 각자의 유년을 추억하는 에세이도 흥미로웠어요. 일본 식민지하에서 태어난 조선 소년 신경림과 2차대전의 폭풍 속에서 유년기를 보낸 소년 다나카와 ?타로의 이야기 말이에요. 광복 70주년에 두 나라의 어른이 이런 작업을 함께 하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 같아요.<br/>“문학, 특히 시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건 의미 있는 일이지. 앞으로도 양국의 문학인들이 이런 작업을 이어나가면 좋겠어.”<br/><br/>올해 등단 60년째예요. 다시 태어나도 시인이 되실 거지요.<br/>“벌써 60년이야? 그러네. 글쎄, 태어나봐야 알겠지만, 내가 할 만한 일이 시 말고 또 있을까? 내 삶은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만하면 사람답게 살았다는 생각을 해. 하고 싶은 말 다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했어. 여행도 많이 하고, 글도 실컷 썼지. 남은 삶도 좋은 시를 기회 있는 대로 많이 쓰고 싶어. 오로지 시만 쓰고 싶어.”<br/><br/>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세상사 물으면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체/ 손 저어 대답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누군가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 길동무 되어서-신경림 ‘낙타’<br/><br/>지난밤, 꿈을 꾸었다. 낙타 두 마리 길동무 되어 느리게 걸어오는 꿈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가엾은 사람은 ‘바로 너’라고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며 얼굴 마주하고 웃는 신경림 선생과 전우익 선생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br/><br/><박상미 문화평론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71.txt

제목: [표지이야기]한국형 의료시스템, 아픈 만큼 성숙해질까  
날짜: 2015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23100000037  
본문: 미증유의 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병원 내 감염을 넘어 지역사회 감염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다. 6월 중순에 이르러 증가세가 주춤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 하순부터는 잦아들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일까. 메르스 사태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낼 것인가.<br/><br/>메르스 사태는 중동 여행을 다녀온 1번 환자가 5월 20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6월 12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확진자 120명 중 34명이 그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서 전염되었다. 평택성모병원 확진자 중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밝혀진 이는 53번 환자다. 그는 5월 26일부터 28일 동안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2차 확산 거점은 삼성서울병원이었다. 14번 환자는 5월 13일에서 19일까지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최초 메르스 감염자인 1번 환자에게 감염되었다. 20일 퇴원했지만 다음날 다시 고열 증세를 보여 재입원했고, 25일부터는 경기도 병원들을 전전했다. 5월 27일 서울을 찾은 14번 환자는 호흡곤란으로 구급차를 탔고,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메르스 감염검사를 받고 격리조치가 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5월 30일이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의 14번 환자(35·남)는 슈퍼 전파자다.<br/><br/>확진자 중 그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6월 12일 파악된 사람은 총 63명이다. 대부분의 환자는 병원 내 감염자다(119번 즉, 평택경찰서 경사(남·35)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평택성모병원에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입원했던 52번 확진자(여·54)가 다시 찾은 평택박애병원에서 5월 31일 체류하는 과정에서 전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근본적인 의문은 이것이다.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왜 이들은 메르스에 감염되었을까.<br/><br/>한국의 독특한 간병문화가 원인?<br/>이론적으로 바이러스 전염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난다. 흔히 다음의 예시로 ‘기하급수적’이라는 것은 설명된다. A라는 바이러스가 1분당 둘로 자기증식이 이뤄진다고 가정하자. 밀봉된 병 안에 A 바이러스 한 개체를 넣고 증식 속도를 관찰했다. 예를 들어 오후 1시 정각에 병 안에 바이러스가 가득 찼다면, 바이러스가 병의 절반을 차지한 시간은 언제일까. 수학 관련 대중강연에서 흔히 제시되는 퀴즈다. 답은? 12시59분, 즉 1분 전이다. 우려대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났다면 팬데믹(대유행)은 피할 수 없다. 지난 6월 10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의 메르스 확산 경로’에 대한 보도를 내놓았다. 기사는 “한국은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거의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나라 중 하나”라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한국이 ‘2012년 메르스가 처음 사우디에서 발견된 이래 가장 심각한 발병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뉴욕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br/><br/>“한국인은 흔히 대형병원 의사가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고 여기고, 이 때문에 대형병원은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 더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인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기도 한다. 응급실은 환자와 환자 가족, 간병인으로 가득 차 있고, 환자 가족은 종종 병실에 머물며 환자의 땀을 닦아주고, 요강을 비우며, 시트를 갈아주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감염에 노출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독특한 대형병원 선호와 간병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일견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한 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거꾸로 다른 나라는? 대형병원에 최고의 전문의가 있지 않다는 말일까. 독특한 간병문화를 거론하는 것은 결국 의료현장에서 위생상태나 관념이 (후진국마냥) 떨어진다는 말일까.<br/><br/>아닌 게 아니라 그런 비난이 있었다. 앞서 거론한 1번, 14번 등 슈퍼 전파자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 자신이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왔다는 것을 숨겼다(1번)든가, 메르스가 창궐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14번)는 것과 같은 비난이다. 사실에 기초한 비난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 그들이 병원을 전전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진단한 의사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 환자)도 응급실에서 진단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그는 14번 환자를 진단하지 않았고 옆 병상의 환자를 돌봤을 뿐이다). 감염 초기 14번 환자는 병원에서 병원으로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전염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아직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다.<br/><br/>훨씬 전부터 붕괴되었던 의료공급 시스템<br/>“확진자들은 메르스 감염 피해자다. 피해자들을 때리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핵심은 한국의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말이다. 우 위원장도 의사다.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걸까.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었다. 평택에는 모두 6개 병원이 있다. 그 중 공공병원은 하나도 없다. 다 민간이다. 바로 옆 안성에도 없다. ‘안평맘’이라고 안성·평택에 거주하는 엄마들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분들이 믿을 만한 공공병원 추천을 요청했다. 안성·평택뿐 아니라 화성에도 없고, 그 동네에는 하나도 없으니 말을 꺼내기도 면구스러웠다.” 역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지만, 1차 확산지가 된 평택성모병원의 대응도 잘못된 것은 맞다. 확진자가 나온 후 병동 전체를 격리해야 하는데 병실만 격리했고, 8층에 있던 환자들을 7층으로 내려보내는 식으로 대응했다. 7층 병실에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다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메르스가 확산됐다. “<span class='quot0'>만약 그 동네에 공공병원이 하나라도 있었다면….</span>” 우 위원장의 가정이다. “처음에 역학조사관이 한 명이라도 들어갔다면 결과는 지금과 천지차이였을 거다. 민간병원만 있으니 거기(평택성모병원)가 허브가 되어버린 것이다.”<br/><br/>14번 환자는 병원을 전전하다 병세가 악화되자 삼성서울병원으로 구급차를 타고 갔다. 우 위원장은 “<span class='quot1'>한국에서 응급실은 응급환자를 받는 곳이라기보다 3차병원 대학병원 입원의 통로가 되어버린 지 오래</span>”라고 덧붙였다. “14번도 평택성모병원에서 지정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알아서 간 것이다. 경증환자에서부터 암환자까지 하루에 몇백 명이 드나드는데 응급실에 환자 혼자 오는 것이 아니다. 응급실이 사실상 ‘입원실’이 되어 문병 오는 사람까지 드나든다. 응급실 병상 수 이상의 사람들이 항상 모여든다. 병상뿐 아니라 움직이는 카트 위에도 다 누워 있고 거기에다 매트리스를 깔거나 이불을 깔고 누워 있는 ‘도떼기시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대형병원 응급실이 사실상 ‘대학병원 입원 통로’가 되어 있다는 것은 기존 환자의 진단 이송절차인 1차(의원급), 2차(중소병원급), 3차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스템에 구멍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재호 가톨릭의대 교수는 환자가 알아서 병원을 찾아 옮겨다니는 것을 두고 ‘환자의 의료 쇼핑’이라는 말을 썼다.<br/><br/>“원래는 비영리이지만 의료서비스가 상품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병원이 경영되려면 환자 진료를 가급적 많이 하고 검사도 많이 해야 한다.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경우 초진환자라면 30분 이상 할애해 이야기를 청취해야 한다. 계산해 보라. 물리적 시간 자체가 그럴 경우 하루에 40명 이상 진료할 수 없다. 그대로 했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한 환자당 10분 진료시간이 고작이다. 이번 메르스 최초환자의 경우도 상담시간이 적으니 여행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열 나면 감기인 모양,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처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의료진 탓으로 돌릴 수 없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환자 입장에서는 차도가 없으니, 기왕이면 더 잘 고칠 것 같은 전문가를 찾아 전전하는 것이고.” 의료 쇼핑이 성공하지 않을 경우 종착지는 앞서 뉴욕타임스가 언급한 것처럼 대형병원이다.<br/><br/>“<span class='quot0'>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가장 많은 전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span>” 이주호 보건의료산업노조 전략기획단장의 말이다. 이미 한국의 의료시스템 붕괴는 대형병원에서 끝나지 않았다. 대형병원 중에서도 더 상위의, 서울에 소재한 ‘빅5’에 대한 선호로 나타났다. ‘빅5’ 리스트는 포털 검색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이다. 이들 병원이 이른바 ‘빅5’를 형성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다. 각각 현대와 삼성이라는 재벌과 관련이 있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대학병원이나 지방의 대형병원들의 규모와 돈벌이 경쟁의 롤모델이 되었지만 게임이 되지 않았다. 계속되는 이 단장의 말. “오죽하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 암환자가 있는데, 자기 소원이 삼성병원의 모 유명 의사에게 가서 진찰이라도 받아보면 좋겠다는 것이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 중 전남대가 암진료 1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쪽 분들이 풀이하는 이유가 재미있다. 광주에 KTX가 늦게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지역에 머물러 진료나 투자를 하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KTX를 도입한 명분이 지역 균형발전이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거꾸로 서울로 몰리는 현실이 그대로 의료체계에도 반영되어 있다.” 한국에서 감염내과 인력과 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역설적으로 14번 환자를 매개로 메르스가 전국으로 퍼지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한 ‘비밀’, 그 내적 메커니즘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br/><br/>대형병원, 그것도 빅5에 몰리는 현상은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노조가 펴낸 책 <대한민국 의료혁명>에 실린 표를 보면 공공병원은 해방 전 75.1%에 달했다. 민간병원과 역전이 일어난 것은 1966년. 다시 1977년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되고, 특히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후 부족한 병상을 민간 규제완화로 해소하면서부터다. 1990년대 초·중반 무렵부터 시작한 ‘빅5-대형병원’의 의료시장 독식 현상은 개인병원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졌다. 환자들이 쏠리면서 대형병원의 진료환경도 악화되었다. 보건단체나 노조 등이 주장하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악화, 만성적 부족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병원 전체 매출액에서 인건비 지출이 50%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병원 입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두 가지다. 과잉진료·검사를 하거나 인건비를 줄이거나다. OECD 대비 간호사 인력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현실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다.” 앞의 뉴욕타임스 기사로 돌아가 보자. 환자의 가족이 사실상 간호사의 역할을 대체해 ‘간병’하는 것은 한국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인가 아니면 후진적인 비위생적 문화인가.<br/><br/>‘각자도생’하라는 뒷북 긴급재난 메시지<br/>이재호 교수는 “<span class='quot2'>일차의료, 예를 들어 주치의 제도가 있었더라면 메르스가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확산되었을지 의문</span>”이라고 덧붙였다. 환자 개인의 사적 정보는 배제된 현재의 ‘1분 진료’가 아닌 평상시 지역에서 환자의 병력을 관리하는 일차의료(primary care)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다면 환자가 대형병원에 스스로 가기 전에 걸러졌을 것이라는 지적이다.<br/><br/>현재의 의료시스템 개혁은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지난 대선에서 야권은 ‘무상의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런 의료시스템과 제도개혁이 병행되지 않는 한 무상의료는 현재의 대형병원-빅5 선호로 갈 수밖에 없는 의료영리화와 결합해 더 악무한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br/><br/>메르스 사태는 어떻게 정리될까. 이주호 단장은 “<span class='quot3'>아직은 메르스를 잡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잠복해 있지만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의 교훈을 전염병 전문병원 설립으로 퉁치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span>”고 주장했다. 다시 처음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간다면, 이번 메르스 사태로부터 대한민국은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br/><br/>지난 토요일, 집에서 쉬고 있던 기자의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국민안전처가 발송한 ‘긴급재난문자’였다. 내용은 “메르스 예방수칙 1. 자주 손씻기, 2. 기침, 재치기 시 입과 코 가리기…” 등이었다. 6월 6일은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지 16일 후다. 뒷북이다. 국민들은 폐쇄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정보 리스트를 교환하고 있었다. 이튿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이 진작에 공개하라고 했었다며 병원 리스트를 공개했다. ‘뒷북 지적’과 관련,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은 6월 11일 국회에 출석해 “<span class='quot4'>그 내용을 모르는 국민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실천이 안 돼 그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span>”이라고 해명했다.<br/><br/>일차의료연구회의 전 회장이었던 이재호 교수는 이번 메르스 사태뿐 아니라 지난 2009년과 2010년 신종플루 사태 때도 ‘전 국민 주치의 제도가 있었더라면 대유행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썼다. 문건을 검토하다보니 인상적인 대목이 있다.<br/><br/>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의 신종플루 정보 페이지와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신종플루 안내’ 페이지다. 한국의 안내 페이지 국민행동요령은 ‘외출 후나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와 같은 개인이 취할 행동에 맞춰져 있다. 예방접종 안내, 보건소 등 거점약국 현황, 홍보물 등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지만, 신종플루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는 찾기 어렵다. 반면 NHS의 페이지는 긴급연락처와 함께 초기 화면에서 신종플루와 관련한 최신 전문정보에서 각 언어별 정보 리플렛까지 한 번 클릭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인플루엔자 안내’ 페이지는 현재 찾아볼 수 없다.<br/><br/>사라진 2009년 신종플루 정보<br/>“공공성의 핵심은 신뢰다. 투명성 제고가 신뢰의 바탕이다. 재난 과정에서 국가가 신뢰를 얻으려면 투명성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예를 들어 미국 카트리나 재난의 경우 발단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정말 디테일하게 성역 없이 조사를 해 공개해 놓았다. 상원과 하원에서는 수백 번의 청문회를 거쳤고, 그 과정도 모두 공개되어 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카트리나가 지나간 한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데, 왜 수거가 안 되었고, 자원봉사자 동원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그것을 기초로 시스템을 고치는 것에 적용하는 것까지 다 세세하게 기술해 놓았다. 지금도 그때 제작된 방대한 분량의 카트리나 백서는 인터넷에 다 공개돼 있다. 카트리나 사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해 자세히 볼 수 있다. 거기에 비해 지난해 우리가 겪은 세월호는 어떤가.<br/><br/>‘급회전하다가 배가 넘어졌다’는 식의 사고의 직접적 원인만 나와 있다. 그것을 야기한 시스템 문제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고….” 구혜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의 말이다. 그는 올해 출간된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 재난과 공공성의 사회학>의 필자로 참여했다. 앞서 언급한 신종플루 사이트만 안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신종플루 백서’도 발간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의 ‘검색’을 통해서 그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다. 지금 만들어진 메르스 포털은 과연 언제까지 남아 있을까.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난해 세월호와 똑같다는 것이다. 국가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필수 구조장비도 다 민간에 맡기고, 그게 세월호 때 벌어진 일이다. 도대체 누가 지휘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의료분야,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 적용하면 그대로 되풀이되는 일이다.” 우석균 위원장의 말이다.<br/><br/>이번 메르스 사태를 접하며 인간이 부른 환경 변화가 인수공통전염병 확산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의 대량생산 소비풍조를 벗어나지 않는 한 ‘위험사회’는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맞는 말이다. 더 치명적 독성과 전염성을 지닌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종은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다. 문명사적 비판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대한민국에서 메르스 창궐은 한국의 왜곡된 의료전달 시스템과 제도가 만들어낸 한국형 국가 의료재난이다. 공공의료의 복원, 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가 그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그러길 바랄 뿐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72.txt

제목: 10대 환자 완치…격리해제 1만명 육박  
날짜: 2015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2210017674724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치사율 처음으로 15%대 넘어</strong><!-- SUB\_TITLE\_END--><br/><br/>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됐던 16세 고교생이 완치됐고, 잠복기를 넘긴 격리 해제자가 늘면서 1만명에 육박했다.<br/><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2일 “<span class='quot0'>7명의 메르스 확진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해 이날까지 총퇴원자가 50명이 됐다</span>”고 밝혔다. 유일한 10대였던 67번째 환자는 뇌종양 수술을 위해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왔다가 슈퍼전파자인 14번째 환자(35)와 접촉해 감염된 후 줄곧 1인실에 격리 입원해왔다. 이 환자는 메르스는 완치됐으나 뇌종양 치료를 위해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br/><br/>이날 퇴원한 22번째 환자(39)는 지난 18일 퇴원한 26번째 환자(43)의 부인이어서 ‘첫 부부 퇴원자’로 기록됐다. 이 부부는 지난달 15~17일 평택성모병원에서 최초 환자(68)와 같은 병동에 머무른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br/><br/>사망자도 2명 늘어 27명이 되면서 치사율은 처음 15%대를 넘었다. 최고령 확진자로 대청병원에서 치료받던 128번째 환자(87)는 이날 새벽에,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101번째 환자(84)는 21일 새벽에 사망했다. 두 사람은 암과 뇌졸중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br/><br/>자가·시설격리를 마치고 격리 해제된 인원은 곧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br/><br/>대책본부는 지난 21일까지 격리 해제된 사람이 9331명이라고 발표했다. 반대로 17일 6729명으로 정점을 찍은 격리 대상자는 나흘 연속 떨어져 이날 3822명이 됐다.<br/><br/><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73.txt

제목: [세상읽기]다인실  
날짜: 20150622  
기자: 서홍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22100000053  
본문: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확산이 멈추지 않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우리나라를 찾았다.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은 메르스가 한국에서 빠르게 확산된 이유로 한국 의료진이 메르스에 익숙하지 않아 메르스를 의심하지 못한 것이 초기 대응에 실패한 이유라고 꼽았는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말이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병원의 다인실과 보호자들이 많은 병원 환경, 병원 쇼핑 등을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br/>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9일 상급 종합병원의 4인실 이상 다인실 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는 개정안을 오는 7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는 메르스가 의료기관 내 감염을 통해 전파되는 현 상황을 감안했을 때 국내 다인실을 줄여야 하는데 복지부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br/>다인실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병실료를 받게 되는데 병실료는 숙박비와 입원에 따르는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br/>우리나라는 현재 4인실 이상에 대해서는 병실료를 보험에서 지원해 주지만, 3인 이하의 병실에 대한 병실 차액은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br/>문제는 다인실이 항상 부족해서 다인실에 입원하고자 해도 입원이 되지 않아서 암 환자가 입원 허가를 받은 뒤, 입원을 해야 진단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기약도 없이 병실이 비기를 기다려야 한다. 결국 다급한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인실이나 2인실에 입원해서 초호화 호텔의 객실료에 해당하는 상급병실 차액을 물면서 입원을 한다.<br/>그럼 환자가 몰리는 서울, 경기 지역의 대형 병원들에서는 왜 1인실이나 2인실은 남아도는데 다인실은 항상 부족한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 의료기관의 입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병실료가 원가의 70~80%에 불과한 저수가라서 보험에 적용되는 다인실은 많을수록 손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에서 보험과 상관없이 비보험으로 병실 차액을 받을 수 있는 1인실과 2인실을 늘려야만 병원의 적자를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급에서 1인실을 사용하려면 하룻밤에 40만원 이상을 개인 호주머니에서 내야 한다. 여유가 있는 국민이라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도 똑같은 액수의 병실료 차액을 보험 지원없이 내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인실 의무병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셈이고, 이런 방향은 틀렸다고 할 수 없다.<br/>물론 모든 국민이 1인실이나 2인실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쾌적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그만큼 간호인력의 비율도 높여야 하고, 1인당 의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의료비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은 싫어하면서 의료환경 개선을 원하는 모순이 따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다인실은 저렴한 의료비를 만드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br/>그리고 다인실에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도암에 걸렸다고 해보자. 그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왜 이런 희한한 병에 걸렸는지 화도 나고, 우울해지기도 할 것이다. <br/>그러나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 보면 자기와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은 방을 쓰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절박했던 사정을 털어놓게 된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섞여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기만 그런 큰 불운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위안을 받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의지하면서 긴 투병의 길을 외롭지 않게 갈 수 있다.<br/>그렇다면, 메르스 같은 전염성 질환의 병원 내 감염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십년에 한번 정도 오는 전염성 질환을 위해 모든 병상을 1인실이나 2인실로 바꾸자는 발상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다.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를 계산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다시 돌아볼 때, 우리가 했어야 하는 다른 부분만 개선했더라도 지금처럼 엉망은 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74.txt

제목: NYT “무례하고 고압적인 상사, 회사에 악영향”  
날짜: 2015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2210017671699  
본문: 고압적이고 무례한 직장 상사는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깎아버리는 암적 요소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br/>미국 조지타운대학 경영전문대학원의 크리스틴 포라스 교수는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선데이 리뷰’섹션에 기고한 ‘일터에서 선할 필요는 없다’(No Time to Be Nice at Work)라는 기고문에서 미국에서 직장내 상사의 막말 등 고압적이고 무례한 행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br/><br/>포라스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17개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내 개인들의 언행과 무례함을 연구한 결과, 1998년에는 25% 정도가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정도 무례한 행위를 접했다고 밝혔으나 2011년에는 50% 이상으로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br/><br/><br/><br/><br/><br/>직장상사들의 대표적인 무례함 또는 고압적 태도로는 사람들의 말을 자르거나 개인들의 결함이나 특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놀리는 행위, 조직내 위계질서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행위, 조직원들의 업적을 가로채는 행위 등이 꼽혔다. 이런 경우 부하 직원들은 협업과 아이디어 공유를 중단하고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다.<br/><br/>의료인 4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71%가 막말과 폭언, 고압적인 행동이 의료사고로 연결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27%는 상사들의 고압적이고 무례한 행동이 환자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고압적인 무례함은 생산성도 떨어뜨렸다. 퍼즐 맞추기와 아이디어 내기 등에서 폭언과 무시를 당한 시험군은 폭언을 듣지 않은 대조군보다 30% 이상 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br/><br/>그럼에도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자각 증상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도 부하일 때 그런 대우를 당한 터라 상사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말을 하는 사람은 유능하다’는 믿음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br/><br/>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25%가량은 공손한 사람들은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또 답변자 40% 정도는 스스로 일터에서 정중하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함부로 다룰 것이라고 믿었다. <br/><br/>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경영전문대학원 모건 맥콜 교수는 “<span class='quot0'>무례해서 성공한게 아니라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경영 실패에서 가장 흔히 드러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부하 직원들을 못살게 구는 막말 등 무례한 행동</span>”이라고 말했다.<br/><br/>크리스틴 포라스 교수는 “<span class='quot1'>무례의 엄청난 비용을 감안할 때, 그것은 무시해서는 안된다</span>”고 조언했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75.txt

제목: 메르스 환자 삼성서울 의사 1명 포함 3명 늘어 169명  
날짜: 2015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2110017656699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환자 수가 총 169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환진자 중에는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건국대병원 방사선사가 포함됐다.<br/><br/>2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먼저 확진을 받은 7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br/><br/>167번 환자(53)는 76번 환자와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함께 머물렀고, 168번 환자(36)는 6일 건국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 환자의 X레이 촬영을 한 방사선사다.<br/><br/>두 환자는 지난 7일 7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에 격리 중이던 상황에서 증상이 확인됐다. 169번 환자(34)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의사로,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135번 환자를 담당하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br/><br/>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메르스 확진자 진료 도중에 의료진이 감염된 것은 이 병원 방사선사와 간호사에 이어 세 번째다. 사망자도 1명 추가로 발생했다.<br/><br/>대책본부는 기존 확진자 가운데 112번 환자(63)가 전날 오후 6시쯤 사망했다고 밝혔다.<br/><br/>전주에 거주하는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아내의 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0일부터 오한, 발열 등 증상을 보여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br/><br/>평소 심근허혈증과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기능상실, 간접 사인은 메르스 감염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파악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br/><br/>이로써 전체 메르스 사망자는 25명으로 늘었다.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14.8%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사망자의 연령별로는 60대가 9명(36.0%)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32.0%), 50대 4명(16.0%), 80대 3명(12.0%), 40대 1명(4.0%) 순이며, 25명 가운데 23명(92.0%)이 만성질환자와 고연령층 등 메르스 고위험군이다.<br/><br/>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7명 추가돼 모두 43명으로 늘어났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11번(79·여), 29번(77·여), 43번(24·여), 107번(64·여), 134번(68·여), 139번(64·여), 142번(31) 환자가 지난 19∼20일 사이 퇴원했다.<br/><br/>이들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의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두 차례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완치 판정을 받았다. <br/><br/>현재까지 퇴원자 가운데에는 40대가 14명(32.6%), 50대·60대가 각각 8명(18.6%), 70대 5명(11.6%), 20대·30대가 각각 4명(9.3%)이다. <br/><br/>국내 메르스 확진자 169명 가운데 퇴원자 43명과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101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상태가 불안정하다.<br/><br/>한편 메르스 격리 해제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의 수도 전날보다 크게 줄었다. 이날 6시 현재 격리자는 모두 4035명으로, 전날보다 1162명(22.4%) 줄었다. 자가격리자가 1149명, 병원격리자는 13명 각각 감소했다.<br/><br/>어제 하루 1361명이 새로 격리에서 해제돼 지금까지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총 8812명으로 늘어났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76.txt

제목: [세상읽기]다인실  
날짜: 2015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2110017660946  
본문: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확산이 멈추지 않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우리나라를 찾았다.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은 메르스가 한국에서 빠르게 확산된 이유로 한국 의료진이 메르스에 익숙하지 않아 메르스를 의심하지 못한 것이 초기 대응에 실패한 이유라고 꼽았는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말이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병원의 다인실과 보호자들이 많은 병원 환경, 병원 쇼핑 등을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꼽았다.<br/><br/>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9일 상급 종합병원의 4인실 이상 다인실 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는 개정안을 오는 7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는 메르스가 의료기관 내 감염을 통해 전파되는 현 상황을 감안했을 때 국내 다인실을 줄여야 하는데 복지부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br/><br/>다인실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병실료를 받게 되는데 병실료는 숙박비와 입원에 따르는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br/><br/>우리나라는 현재 4인실 이상에 대해서는 병실료를 보험에서 지원해 주지만, 3인 이하의 병실에 대한 병실 차액은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br/><br/>문제는 다인실이 항상 부족해서 다인실에 입원하고자 해도 입원이 되지 않아서 암 환자가 입원 허가를 받은 뒤, 입원을 해야 진단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기약도 없이 병실이 비기를 기다려야 한다. 결국 다급한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인실이나 2인실에 입원해서 초호화 호텔의 객실료에 해당하는 상급병실 차액을 물면서 입원을 한다.<br/><br/>그럼 환자가 몰리는 서울, 경기 지역의 대형 병원들에서는 왜 1인실이나 2인실은 남아도는데 다인실은 항상 부족한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 의료기관의 입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병실료가 원가의 70~80%에 불과한 저수가라서 보험에 적용되는 다인실은 많을수록 손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에서 보험과 상관없이 비보험으로 병실 차액을 받을 수 있는 1인실과 2인실을 늘려야만 병원의 적자를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급에서 1인실을 사용하려면 하룻밤에 40만원 이상을 개인 호주머니에서 내야 한다. 여유가 있는 국민이라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도 똑같은 액수의 병실료 차액을 보험 지원없이 내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인실 의무병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셈이고, 이런 방향은 틀렸다고 할 수 없다.<br/><br/>물론 모든 국민이 1인실이나 2인실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쾌적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그만큼 간호인력의 비율도 높여야 하고, 1인당 의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의료비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은 싫어하면서 의료환경 개선을 원하는 모순이 따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다인실은 저렴한 의료비를 만드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br/><br/>그리고 다인실에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도암에 걸렸다고 해보자. 그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왜 이런 희한한 병에 걸렸는지 화도 나고, 우울해지기도 할 것이다. <br/><br/>그러나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 보면 자기와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은 방을 쓰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절박했던 사정을 털어놓게 된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섞여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기만 그런 큰 불운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위안을 받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의지하면서 긴 투병의 길을 외롭지 않게 갈 수 있다.<br/><br/>그렇다면, 메르스 같은 전염성 질환의 병원 내 감염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십년에 한번 정도 오는 전염성 질환을 위해 모든 병상을 1인실이나 2인실로 바꾸자는 발상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다.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를 계산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다시 돌아볼 때, 우리가 했어야 하는 다른 부분만 개선했더라도 지금처럼 엉망은 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br/><br/><서홍관|국립암센터 교수·시인>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77.txt

제목: 메르스 감염자 3명 중 1명 ‘기저질환’ 없었다  
날짜: 20150620  
기자: 조형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20100000067  
본문: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3명 중 1명은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br/>대한감염학회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98명을 분석한 결과 36명(36.7%)이 특별한 병력 없이 메르스에 감염됐다고 19일 밝혔다. 환자 98명의 평균 나이는 53.6세이며 남성이 62.2%를 차지했다. 기저질환이 있는 62명 중 고혈압 환자가 21명(21.4%)으로 가장 많았다. 당뇨병 18명(18.4%), 고형암 13명(13.3%·혈액암을 뺀 모든 암), 심장질환 10명(10.2%)이 뒤를 이었다. 확진환자가 겪은 메르스 증상(복수응답)으로는 발열이 85명(86.7%)으로 가장 많았고, 기침 37명(37.8%), 근육통 27명(27.8%), 가래 23명(23.5%), 호흡곤란 18명(18.4%) 순으로 나왔다. <br/><br/>만성폐질환을 앓던 환자는 98명 중 7명(7.1%)이었고, 최초 진단 당시 절반 가까운 46명(47.9%)이 가슴 X레이 촬영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발병 3일째 흉부 상태가 나빠진 환자가 28명, 7일째 악화된 환자도 12명 생겼다. 가장 많은 합병증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간 손상으로 각각 8명의 환자에게서 발생했다.<br/>19일 현재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격리를 경험한 사람은 1만1465명(자가·시설 격리 5930명, 격리해제자 5535명)이다. 확진환자 166명 중 93명이 비격리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78.txt

제목: 메르스 감염자 3명 중 1명 ‘기저질환’ 없었다  
날짜: 2015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910017653139  
본문: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3명 중 1명은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br/><br/>대한감염학회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98명을 분석한 결과 36명(36.7%)이 특별한 병력 없이 메르스에 감염됐다고 19일 밝혔다. 환자 98명의 평균 나이는 53.6세이며 남성이 62.2%를 차지했다. 기저질환이 있는 62명 중 고혈압 환자가 21명(21.4%)으로 가장 많았다. 당뇨병 18명(18.4%), 고형암 13명(13.3%·혈액암을 뺀 모든 암), 심장질환 10명(10.2%)이 뒤를 이었다. 확진환자가 겪은 메르스 증상(복수응답)으로는 발열이 85명(86.7%)으로 가장 많았고, 기침 37명(37.8%), 근육통 27명(27.8%), 가래 23명(23.5%), 호흡곤란 18명(18.4%) 순으로 나왔다. <br/><br/><br/>만성폐질환을 앓던 환자는 98명 중 7명(7.1%)이었고, 최초 진단 당시 절반 가까운 46명(47.9%)이 가슴 X레이 촬영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발병 3일째 흉부 상태가 나빠진 환자가 28명, 7일째 악화된 환자도 12명 생겼다. 가장 많은 합병증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간 손상으로 각각 8명의 환자에게서 발생했다.<br/><br/>19일 현재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격리를 경험한 사람은 1만1465명(자가·시설 격리 5930명, 격리해제자 5535명)이다. 확진환자 166명 중 93명이 비격리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r/><br/><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79.txt

제목: [시론]메르스에 내던져진 사람들  
날짜: 20150618  
기자: 우석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8100000059  
본문: 137번째 환자, 그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병실까지 환자를 이송한 55세의 노동자였다. 이 노동자는 6월2일부터 열과 근육통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그는 일을 했고 또 해야 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이른바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 즉 간접고용 노동자였기 때문이다.<br/>그는 애초 삼성병원의 관리 명단에도 없었고 또 정부의 관리대상에도 없었다. 그가 관리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은 ‘공중방역상의 허점’이다. 이 때문에 삼성서울병원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 부분 폐쇄되었다. 그러나 그가 관리대상이었어야 했고, 격리대상이었어야 한다는 사실 이전에, 그는 그의 가족의 한 사람이었고,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었고, 병원의 노동자였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걱정해주고 보호해주지 않았다.<br/>열이 나고 몸이 아팠으면 메르스가 아니었더라도 그는 쉬어야 했다. 그러나 9일 동안 그는 아픈데도 일을 했고 그가 쓰러질 때까지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잊혀진 존재였다.<br/>삼성서울병원의 비정규직은 서울시 발표로는 2944명이라고 한다. 삼성서울병원이 이제라도 ‘전 직원 8440명을 대상으로 증상 조사를 하고 하루 두 차례씩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나는 전 직원의 35%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이 더 놀랍다. <br/> 다른 병원도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보건의료노조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소속 병원 노동자들 중 21.5%가 비정규직이었고 이중 3분의 2인 13.5%가 137번째 환자와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였다. 간접고용, 즉 137번째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직원이 아니었다. 메르스 환자가 되어서야 그는 삼성서울병원 직원이 되었다.<br/>신종플루 유행 때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백신 접종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정규직이 되어야 환자도 안전하다는 노동조합의 외침은 외면되었다. 그리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역상의 허점’이 되었다. 잊혀진 사람들이 이제 자신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br/>중국동포 간병인 메르스 환자. 동탄성심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이 환자는 ‘9일 격리되기까지 10여일간 서울시내 여러 곳을 활보’했다고 비난받았다. 또 하나의 ‘방역상의 허점’이란다. 그러나 이 중국동포에게 격리조치는 무슨 의미였을까. 그에게 주어지는 돈은 1인 가족이면 40만9000원이다. 그나마 ‘체류 외국인’에게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16일부터였다.<br/>64세에 간병 일을 해야 했던 중국동포에게 격리조치는 무슨 의미였나. 지금도 생계비지원은 한 달에 40만9000원이다. 불법 체류인의 가족은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이 굶어야 할까 아니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격리조치를 무시할까의 선택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 이들의 ‘시민의식’을 탓할 것인가. 이주노동자들은 시민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시민의식을 요구하려면 먼저 시민권을 주어야 한다.<br/>다른 격리자들도 우리에게는 몇 천 명이라는 숫자로만 다가온다. 또 제대로 격리되고 있는지만 관심사다. 그러나 과연 집에서 2미터 이상 떨어져서 화장실도 따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될까. 독거노인들이 자가격리되면 밥이라도 제때 드실 수 있을까. 자가격리할 형편이 안된다면 정부는 이들에게 적절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시설격리자들이 머무는 곳에 청소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온다. 적절한 방호조치 없이 누가 청소를 하러 들어가겠는가.<br/>지금 나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있거나 다니던 환자들도 걱정이다. 메르스 환자들만 입원해 있는 것이 아니다. 초대형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는 다른 중환자들도 많고 암 수술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지금 다른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137번째 환자가 병동들을 돌아다녔는데 다른 병원들이 삼성병원 환자를 받으려 할까. 또 삼성서울병원의 많은 의료진이 격리되어 있다. 남은 의료진들은 수십명의 메르스 환자도 치료해야 하고 다른 환자들도 봐야 한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그리고 이 환자들을 간병해야 하는 가족들은 어떤 심정일까.<br/>연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이른바 ‘빅 5’ 대형병원들. 이들은 몸집 불리기 전쟁인 ‘의료군비경쟁’을 통해 지금의 초대형 병원들이 되었다. 지금 이 병원들의 하나인 삼성병원이 메르스에 당하다 보니 이 병원은 너무 덩치가 커 격리를 할 수도 없다. 이런 초대형 사립병원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애초에 정부가 ‘병상허가제’를 통해 병원 병상을 통제했다면 어땠을까. <br/>또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임시로 공공병원의 의료진들을 파견한다면 어떨까. 하지만 지금 한국의 병원 중 6%밖에 안되는 공공병원들은 다른 메르스 환자를 받느라고 이미 능력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초대형 병원 하나가 메르스에 무너지니 한국의 공중방역 체계 전체가 무너졌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환자들이 있다.<br/>잊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평등하게 보호받지 못하면 우리도 안전하지 못하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바이러스가 한국의 허약한 공공의료체계,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80.txt

제목: [시론]메르스에 내던져진 사람들  
날짜: 2015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710017628440  
본문: 137번째 환자, 그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병실까지 환자를 이송한 55세의 노동자였다. 이 노동자는 6월2일부터 열과 근육통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그는 일을 했고 또 해야 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이른바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 즉 간접고용 노동자였기 때문이다.<br/><br/>그는 애초 삼성병원의 관리 명단에도 없었고 또 정부의 관리대상에도 없었다. 그가 관리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은 ‘공중방역상의 허점’이다. 이 때문에 삼성서울병원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 부분 폐쇄되었다. 그러나 그가 관리대상이었어야 했고, 격리대상이었어야 한다는 사실 이전에, 그는 그의 가족의 한 사람이었고,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었고, 병원의 노동자였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걱정해주고 보호해주지 않았다.<br/><br/>열이 나고 몸이 아팠으면 메르스가 아니었더라도 그는 쉬어야 했다. 그러나 9일 동안 그는 아픈데도 일을 했고 그가 쓰러질 때까지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잊혀진 존재였다.<br/><br/>삼성서울병원의 비정규직은 서울시 발표로는 2944명이라고 한다. 삼성서울병원이 이제라도 ‘전 직원 8440명을 대상으로 증상 조사를 하고 하루 두 차례씩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나는 전 직원의 35%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이 더 놀랍다. <br/><br/> 다른 병원도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보건의료노조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소속 병원 노동자들 중 21.5%가 비정규직이었고 이중 3분의 2인 13.5%가 137번째 환자와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였다. 간접고용, 즉 137번째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직원이 아니었다. 메르스 환자가 되어서야 그는 삼성서울병원 직원이 되었다.<br/><br/>신종플루 유행 때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백신 접종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정규직이 되어야 환자도 안전하다는 노동조합의 외침은 외면되었다. 그리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역상의 허점’이 되었다. 잊혀진 사람들이 이제 자신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br/><br/>중국동포 간병인 메르스 환자. 동탄성심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이 환자는 ‘9일 격리되기까지 10여일간 서울시내 여러 곳을 활보’했다고 비난받았다. 또 하나의 ‘방역상의 허점’이란다. 그러나 이 중국동포에게 격리조치는 무슨 의미였을까. 그에게 주어지는 돈은 1인 가족이면 40만9000원이다. 그나마 ‘체류 외국인’에게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16일부터였다.<br/><br/>64세에 간병 일을 해야 했던 중국동포에게 격리조치는 무슨 의미였나. 지금도 생계비지원은 한 달에 40만9000원이다. 불법 체류인의 가족은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이 굶어야 할까 아니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격리조치를 무시할까의 선택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 이들의 ‘시민의식’을 탓할 것인가. 이주노동자들은 시민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시민의식을 요구하려면 먼저 시민권을 주어야 한다.<br/><br/>다른 격리자들도 우리에게는 몇 천 명이라는 숫자로만 다가온다. 또 제대로 격리되고 있는지만 관심사다. 그러나 과연 집에서 2미터 이상 떨어져서 화장실도 따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될까. 독거노인들이 자가격리되면 밥이라도 제때 드실 수 있을까. 자가격리할 형편이 안된다면 정부는 이들에게 적절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시설격리자들이 머무는 곳에 청소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온다. 적절한 방호조치 없이 누가 청소를 하러 들어가겠는가.<br/><br/>지금 나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있거나 다니던 환자들도 걱정이다. 메르스 환자들만 입원해 있는 것이 아니다. 초대형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는 다른 중환자들도 많고 암 수술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지금 다른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137번째 환자가 병동들을 돌아다녔는데 다른 병원들이 삼성병원 환자를 받으려 할까. 또 삼성서울병원의 많은 의료진이 격리되어 있다. 남은 의료진들은 수십명의 메르스 환자도 치료해야 하고 다른 환자들도 봐야 한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그리고 이 환자들을 간병해야 하는 가족들은 어떤 심정일까.<br/><br/>연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이른바 ‘빅 5’ 대형병원들. 이들은 몸집 불리기 전쟁인 ‘의료군비경쟁’을 통해 지금의 초대형 병원들이 되었다. 지금 이 병원들의 하나인 삼성병원이 메르스에 당하다 보니 이 병원은 너무 덩치가 커 격리를 할 수도 없다. 이런 초대형 사립병원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애초에 정부가 ‘병상허가제’를 통해 병원 병상을 통제했다면 어땠을까. <br/><br/>또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임시로 공공병원의 의료진들을 파견한다면 어떨까. 하지만 지금 한국의 병원 중 6%밖에 안되는 공공병원들은 다른 메르스 환자를 받느라고 이미 능력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초대형 병원 하나가 메르스에 무너지니 한국의 공중방역 체계 전체가 무너졌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환자들이 있다.<br/><br/>잊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평등하게 보호받지 못하면 우리도 안전하지 못하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바이러스가 한국의 허약한 공공의료체계,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br/><br/><우석균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사>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81.txt

제목: 40대 첫 사망 등 3명 늘어  
날짜: 20150617  
기자: 김지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7100000144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중 3명이 추가로 사망해 치사율이 12.3%로 상승했다. 지금까지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br/><br/>보건복지부는 16일 “<span class='quot0'>대전 대청병원에서 감염된 38번째 환자(49·남)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98번째(58·남), 123번째(65·남) 환자가 15~16일 숨져 사망자가 19명으로 늘어났다</span>”고 밝혔다. 확진자 154명 중 19명이 사망해 치사율은 12.3%를 기록했다. 전날 10.7%에 이어 두 자릿수를 유지한 것이다.<br/>사망자 19명 중 만성 호흡기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등을 앓아온 기저질환자는 15명(79%)으로 나타났다. 15일 숨진 38번째 환자도 알코올성 간경화와 당뇨를 앓아왔다. 반면 51·81·98·123번째 환자는 기저질환이 없거나 보건당국이 확인 중이다.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123번째 환자는 고혈압이 있었고, 81·98번째 환자의 기저질환은 의료진과 함께 계속 찾고 있다”며 “51번째 환자는 70세 이상 고령이어서 전반적인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38번째 환자는 첫 40대 사망자로 기록됐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70대가 7명으로 가장 많고, 모두 50대 이상이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82.txt

제목: 환자들 연쇄이동 ‘엑소더스’… “발병·경유 병원 감추면 안돼”  
날짜: 20150617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7100000146  
본문: 부분 폐쇄 조치에 들어간 삼성서울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환자들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일반 외래·응급실 업무가 중단되면서 연쇄적으로 병원을 옮기는 ‘엑소더스’가 점화된 것이다. 둑이 터지듯 하루 이틀 만에 그 숫자가 급증하진 않았으나, 치료 병원을 바꾸는 환자가 나오고 문의는 빗발치는 ‘정중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br/>서울 강남의 대형 ㄱ병원에는 16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니던 폐암환자 1명이 내원했다. 병원에선 몸이 좋지 않아 찾은 이 환자를 격리진료소에서 진료하다 항암주사와 방사선 치료가 필요해 다시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시켰다. <br/><br/>서울 강북의 ㄴ병원에는 삼성서울병원 외래 재진 환자가 지난 15일 내원해 치료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일단 보건소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ㄷ병원에서도 삼성서울병원 격리 대상자가 진료를 예약했다가 병원 시스템 검색에서 발견돼 보건소로 1차 인계됐다. 이 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일단 보건소에 의뢰했다가 환자 상황을 보면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br/>삼성서울병원은 내원자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 부분 폐쇄 조치 첫날인 15일 외래 예약 4500건 중 633건만 진료했고, 16일 오전에도 357건만 외래 환자가 방문했다. 평소 하루 8500~1만명에 달한 외래 진료는 7%대 수준으로 급감하고, 오전에 주로 이뤄지는 외래는 이틀째 감소폭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평소 200건 수준이던 수술도 15일 8건, 16일 6건으로 줄었다. 암환자·응급환자가 아니면 수술 일정도 잡히지 않는 양상이다. 16일 현재 이 병원의 입원환자는 766명으로 전날(799명)보다 33명 감소했다. 메르스 사태 전 92%에 달했던 병상 이용률은 40%대로 떨어졌다. 환자들의 ‘삼성병원 밖 이동’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br/>다른 병원들도 비상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대형병원들은 메르스 의심환자는 외부 임시진료소, 호흡기질환자는 병원 밖 안심클리닉을 거치도록 비상진료 시스템을 짰다. ㄹ병원은 아예 병원 입구에 ‘유행 병원에 간 적 있는 사람,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발열이 있는 사람은 외래로 가지 마시고 선별진료소로 먼저 가십시오’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다른 병원들도 삼성병원 환자를 막지는 않겠지만, 입원·치료 내력은 꼼꼼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br/>의료계에선 메르스 의심환자들이 진료받은 병원이나 병력을 속여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ㄹ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메르스 발병·경유 병원 의료진의 연결이나 환자의 솔직한 얘기가 없다면 환자를 파악하기가 어렵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자신의 증상을 메르스로 의심하고 병원에 먼저 전화를 걸어 선별진료소에서 대처할 수 있게 한 여러 명의 확진자들이야말로 칭찬받아야 할 영웅들</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83.txt

제목: [건강설계]기가 충만해야 면역력 왕성  
날짜: 2015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6100000013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무더운 날씨에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메르스든 독감이든 인체의 방어력인 면역력이 충분하다면 감염을 방지하고 질병을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br/><br/>면역세포의 특징은 자기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 이외의 다른 것은 모두 이물질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음식이나 공기, 피부, 점막 접촉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물질을 제거하여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면역체계)을 한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면역계가 알아서 바이러스를 없애준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성이 약해진 경우,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힘겨워질 수밖에 없다. 몸이 극도로 쇠약한 환자나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등은 별것 아닌 감기라도 폐렴으로 진행되기 쉬우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br/><br/>암도 마찬가지다. 건강한 면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몸이라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킬 때 면역세포가 이를 바로 알아차리고 악성세포를 없애버리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면역계에 이상이 생기면 암세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싸울 힘을 잃게 되고, 결국 암세포는 암 덩어리로 발전하게 된다. 한마디로 면역계는 생명을 지키는 최정예의 군대이며, 이 군대가 힘을 쓰지 못하면 건강을 잃는 것이다.<br/><br/>한방에서는 우리 몸을 방어하는 기능을 위기(衛氣), 즉 ‘지키는 기운, 막는 기운’이라고 한다. 특히 간은 많은 면역기능을 수행하며 인체의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 신장은 골수기능과 연관성이 많으며 여러 면역세포의 어미세포(母細胞)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면역 관련 장기이다.<br/><br/>면역기능의 중요한 요소는 첫째 ‘기의 충만함’이고, 둘째는 이런 에너지가 발휘될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원(영양물질)이다. 한방에서는 면역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보약을 쓴다. 우리 몸의 기를 보강하여 인체의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면역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오장육부에 질병이 없어야 하며, 균형을 이룬 영양공급과 적절한 휴식이 최고의 방법이다.<br/><br/><변희승 여의도한의원 원장>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84.txt

제목: 서울보라매·원자력병원, 의심환자 나오자 응급실 ‘신속 폐쇄’  
날짜: 20150616  
기자: 김향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6100000185  
본문: 서울시보라매병원과 원자력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와 의심환자가 각각 응급실을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자 신속하게 응급실을 임시 폐쇄했다. <br/>15일 보라매병원은 “<span class='quot0'>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55·137번째 환자)이 지난 5일 아들 보호자로서 응급실을 찾아 1시간30분가량 체류한 사실을 14일 확인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보건소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응급실을 잠정 폐쇄했다</span>”고 밝혔다. 이 환자는 5월27일부터 29일까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이송요원으로 근무했고 66번째·67번째·72번째 확진환자의 이송을 도왔다. <br/>보라매병원은 메르스 확진자를 맡는 ‘메르스 집중치료기관’으로서 음압격리 병상 5개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 측은 응급실 시설 소독 등을 마치고 16일 오전 9시에 문을 열 예정이다. <br/>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137번째 환자가 보라매병원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기침을 하지 않아 바이러스 전파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본다</span>”고 설명했다.<br/>서울 노원구의 암 전문 병원인 원자력병원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지난 14일 확인되자 이날 오후부터 응급실을 임시 폐쇄했다. 병원 측은 15일 오후 해당 환자가 1·2차 모두 메르스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16일 오전 8시부터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br/>해당 환자는 문진표에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알렸다. 병원 측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 환자를 비상용 음압시설에 격리하고, 접촉 의료진도 자가격리 조치했다. <br/>원자력병원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지시는 없었다”며 “<span class='quot2'>해당 환자가 메르스 확진자는 아니었지만 면역력이 약한 암환자가 많은 병원 특성상 예방 차원에서 잠정 폐쇄를 결정했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85.txt

제목: 메르스, 젊고 건강해도 안심 못한다  
날짜: 2015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6100000060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게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나 젊은 중증 환자도 발생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br/>1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망자 16명 가운데 14명(87.5%)은 만성호흡기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지만 나머지 2명은 별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돼 사망했다.<br/>이 가운데 전날 사망한 81번 환자(61)는 삼성서울병원에 친척 병문안을 갔다 감염돼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격리 치료를 받다가 호흡 곤란과 폐렴이 악화돼 숨졌다. 이 환자는 평소 간 기능이 안 좋았던 것 외에는 특별한 지병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br/>지난 12일 사망한 51번 환자(72·여)도 고령이라는 점 외에는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다.<br/>반면 완치돼 퇴원한 환자 14명 가운데에는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도 2명 포함돼 있어 기저질환이 반드시 증상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br/>그런가 하면 비교적 젊고 건강한 상태에서 감염됐으나 상태가 심해진 경우도 있다.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38), 평택 경찰인 119번 환자(35)는 모두 30대로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으나 현재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r/>한편 대한감염학회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공기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br/>두 학회는 보도자료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하면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양식은 침방울(비말) 감염”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병원 내에서는 기도삽관, 기관지 내시경 등의 시술 중 형성되는 에어로졸에 의해 공기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두 학회는 덧붙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86.txt

제목: 40대 첫 사망 등 3명 늘어  
날짜: 2015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610017614747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모두 19명… 치사율 12.3%로</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기저질환 없는 사망자는 4명</strong><!-- SUB\_TITLE\_END--><br/><br/>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중 3명이 추가로 사망해 치사율이 12.3%로 상승했다. 지금까지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br/><br/><br/>보건복지부는 16일 “<span class='quot0'>대전 대청병원에서 감염된 38번째 환자(49·남)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98번째(58·남), 123번째(65·남) 환자가 15~16일 숨져 사망자가 19명으로 늘어났다</span>”고 밝혔다. 확진자 154명 중 19명이 사망해 치사율은 12.3%를 기록했다. 전날 10.7%에 이어 두 자릿수를 유지한 것이다.<br/><br/>사망자 19명 중 만성 호흡기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등을 앓아온 기저질환자는 15명(79%)으로 나타났다. 15일 숨진 38번째 환자도 알코올성 간경화와 당뇨를 앓아왔다. 반면 51·81·98·123번째 환자는 기저질환이 없거나 보건당국이 확인 중이다.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123번째 환자는 고혈압이 있었고, 81·98번째 환자의 기저질환은 의료진과 함께 계속 찾고 있다”며 “51번째 환자는 70세 이상 고령이어서 전반적인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38번째 환자는 첫 40대 사망자로 기록됐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70대가 7명으로 가장 많고, 모두 50대 이상이었다.<br/><br/><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87.txt

제목: [메르스 확진자 150명 분석]확진자 32% 30~40대… 사망자 전원 50~80대  
날짜: 20150616  
기자: 최병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6100000184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3명 중 1명은 30~40대이고, 사망자는 60~70대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차 감염이 늘면서 젊은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도 감염자에게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br/><br/>1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자료를 보면 국내 메르스 확진자 150명 중 30~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48명(32%)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50대 31명, 60대 29명, 40대 28명, 70대 25명, 30대 20명 순이다. 80대는 9명, 20대는 7명이고 10대로는 고교생 1명이 나왔다.<br/>14~15일 발표된 확진자 10명 중 7명도 30~40대였다. 메르스 확산 초기에 비해 젊은층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br/>정은경 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은 “확진자는 고령이 많고 젊은층은 의료진이 많다”며 “의료진 연령은 30~40대에 몰려 있고, 간병하다 감염된 가족분들도 좀 더 젊은 연령층”이라고 설명했다.<br/>3·4차 감염자가 늘면서 확진자 감염 유형도 환자 가족·방문객(54명)과 의사·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관련 종사자(26명)가 병원을 내원한 환자(70명)보다 많다. 메르스 감염 의심자인 7세 아동은 어린 나이 탓에 객담(가래)을 잘 뱉지 못해 발병 확인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확진자 성별은 남성이 91명(61%), 여성이 59명(39%)이다.<br/>사망자 16명은 주로 60~70대에 몰려 있고 40대 이하는 없다. 28·81번째 환자가 14일 사망해 15일 현재 메르스 환자 치사율은 10.7%로 상승했다. 사망자 성별은 남성 11명(69%), 여성 5명(31%)이다.<br/>사망자 16명 중 만성 호흡기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등을 앓던 기저질환자는 14명이었다.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 51·81번째 환자의 연령은 각각 72세, 62세로 상대적으로 고령이었다. 정 반장은 “메르스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br/>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 120명 중 103명은 안정적이지만 17명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째 환자, 평택 경찰인 119번째 환자는 모두 30대로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지만 현재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br/>14일 퇴원한 41번째 환자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째 환자와 접촉한 3차 감염자다. 3차 감염자가 퇴원한 것은 처음이다. <br/>그동안 퇴원자는 주로 평택성모병원에서 최초 환자로부터 감염된 이들이었다. 퇴원자 연령은 20대 2명, 40대 6명, 50대 2명, 60대 2명, 70대 2명이었다. 20대 2명은 평택성모병원 간호사(7·34번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88.txt

제목: [기고]삼성의 은폐와 ‘메르스 참극’  
날짜: 20150616  
기자: 손미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6100000101  
본문: 의료 최전선에서 일하는 직업군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메르스 바이러스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집단이 바로 이들인데, 병원 측은 이들에 대한 격리는 고사하고 노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br/>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은 3명의 직원들(35번째, 137번째, 138번째)은 5월27~29일 사이에 응급실에서 14번째 환자에게 노출됐는데도 병원 측의 자체 격리대상 명단에서 빠졌다. 이들은 병원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젊은 의사들이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병원이송요원으로, 삼성 경영진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삼성 자본의 은폐문화 희생양이다.<br/>삼성서울병원은 이 외에도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여러 번 진실을 은폐했다. 예를 들면, 14번째 환자가 첫 메르스 환자에게 노출됐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 점, 14번째 환자가 5월31일 메르스 양성 확진을 받았는데도 6월7일까지 은폐한 점, 이 병원의 의사인 35번째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점,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이 6월7일 14번째 환자와 관련된 893명을 격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메르스 노출자를 다 발표하지도 않았고 노출자들에 대한 신속한 격리조치와 병원의 폐쇄 등을 하지도 않은 점으로 볼 때, 삼성 자본이 얼마나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br/>특히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72명의 메르스 환자 중에서 병원의 관리명단에 없던 확진자가 34명에 이른다. 이 사실만으로도 삼성서울병원의 진실 은폐가 메르스 환자들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삼성 자본의 이윤 추구가 삼성서울병원으로 하여금 메르스 유행의 진원지가 되게 만들었다면, 삼성 자본의 은폐문화는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다. <br/>그동안 삼성 자본의 은폐 사례는 이번 메르스 사태 말고도 여러 번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 백혈병’이다. 삼성 자본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암에 걸린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이전 자료를 은폐했다. 그들이 은폐하는 방식은 문제가 되었던 옛 공정을 다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공정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면 조사를 나온 정부기관이나 역학조사기관들이 물질 하나 나오지 않는 신설된 공정에서 작업환경 측정을 하니 위험물질이 없다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br/>삼성전자는 또 노동자들의 질병과 사망 자료를 철저히 숨기는 한편, 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고 협박과 회유를 했다. 이번 메르스 환자 발생을 숨긴 것도 삼성 자본의 은폐 방식의 하나였던 것이다.<br/>이러한 삼성 은폐문화의 본질은 바로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목적 달성에 있다. 이윤 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재벌기업의 거대 독점자본이 인간의 생명을 담보해야 할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러한 모순이 폭발된 것이 바로 삼성 메르스 사건인 것이다.<br/>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은 민영 의료기관이 오직 자신들의 사적 이윤 추구만을 위해 돌진할 뿐, 공중보건에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자본가 계급은 이번에도 메르스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br/>삼성 경영진은 자신들의 소유로 여기는 삼성서울병원이 사실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생산해내는 4000여명의 노동자들의 것이며, 사회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사회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br/>온 국민이 힘을 모아 사적 이윤 추구에 눈이 어두워 병원의 사회적 역할을 가로막는 독점자본을 병원의 경영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89.txt

제목: “미 카지노서 번 6000억으로 승마학교 세워 자리 줄게” 전 국가대표·승마장 대표 등친 전직 탤런트 지명수배  
날짜: 20150616  
기자: 박용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6100000152  
본문: 세계적인 승마학교를 세워주겠다며 승마 전 국가대표와 업계 관계자를 등친 전직 탤런트가 경찰에 수배됐다.<br/>경기 안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씨(54)를 지명수배했다고 15일 밝혔다. <br/>이씨는 승마학교를 세워주겠다며 전 승마 국가대표 ㄱ씨 등 3명에게 돈을 빌리고 말을 준비하게 하는 등 4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모 공중파 방송국의 공채 탤런트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br/>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말 안성시 ㄴ승마장에서 ㄱ씨 등 피해자 3명에게 “미국에서 카지노로 번 돈으로 국내에 승마학교를 세우고 싶다. 건립 후엔 원장, 재정관리 등을 맡게 해 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ㄴ승마장 대표와 4~5차례에 걸쳐 인수 협의를 진행했으며, 승마장 관계자들에게는 인허가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준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br/>승마장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씨는 주변 식당에서도 ‘큰손’으로 행세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인심 좋은 척 사람들을 모아 400만~500만원씩 접대한 뒤 외상으로 달아놓는 경우가 있었다</span>”고 말했다.<br/>이씨는 ㄱ씨로부터 ‘변호사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원가량을 빌리기도 했다. <br/>이씨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내 돈이 약 6000억원”이라며 “이들 중 일부를 사기당했는데 최근 소송에서 이겨 다시 받게 됐다. 변호사와 실무자들에게 사례를 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br/>이후 이씨는 승마장 인수 계약을 차일피일 미뤘고, 올해 초 “<span class='quot1'>암에 걸려 말을 타기가 힘들다</span>”며 승마장 출입을 중단했다. 피해자들이 확인한 결과 그가 입원했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휴대전화는 딸의 명의로 돼 있었다. 피해자들은 지난 3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r/>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서울 성북구에 있는 이씨의 가족들도 그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했다</span>”며 “<span class='quot2'>현재 이씨의 다른 행적들을 조사 중</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90.txt

제목: 환자들 연쇄이동 ‘엑소더스’… “발병·경유 병원 감추면 안돼”  
날짜: 2015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610017614749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삼성서울 이틀째 외래·수술 급감… 병상 이용률 40%로</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다른 병원들 일단 ‘선택진료소 유도’ 등 대책 마련 나서</strong><!-- SUB\_TITLE\_END--><br/><br/>부분 폐쇄 조치에 들어간 삼성서울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환자들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일반 외래·응급실 업무가 중단되면서 연쇄적으로 병원을 옮기는 ‘엑소더스’가 점화된 것이다. 둑이 터지듯 하루 이틀 만에 그 숫자가 급증하진 않았으나, 치료 병원을 바꾸는 환자가 나오고 문의는 빗발치는 ‘정중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br/><br/>서울 강남의 대형 ㄱ병원에는 16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니던 폐암환자 1명이 내원했다. 병원에선 몸이 좋지 않아 찾은 이 환자를 격리진료소에서 진료하다 항암주사와 방사선 치료가 필요해 다시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시켰다. <br/><br/><br/>서울 강북의 ㄴ병원에는 삼성서울병원 외래 재진 환자가 지난 15일 내원해 치료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일단 보건소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ㄷ병원에서도 삼성서울병원 격리 대상자가 진료를 예약했다가 병원 시스템 검색에서 발견돼 보건소로 1차 인계됐다. 이 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일단 보건소에 의뢰했다가 환자 상황을 보면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br/><br/>삼성서울병원은 내원자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 부분 폐쇄 조치 첫날인 15일 외래 예약 4500건 중 633건만 진료했고, 16일 오전에도 357건만 외래 환자가 방문했다. 평소 하루 8500~1만명에 달한 외래 진료는 7%대 수준으로 급감하고, 오전에 주로 이뤄지는 외래는 이틀째 감소폭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평소 200건 수준이던 수술도 15일 8건, 16일 6건으로 줄었다. 암환자·응급환자가 아니면 수술 일정도 잡히지 않는 양상이다. 16일 현재 이 병원의 입원환자는 766명으로 전날(799명)보다 33명 감소했다. 메르스 사태 전 92%에 달했던 병상 이용률은 40%대로 떨어졌다. 환자들의 ‘삼성병원 밖 이동’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br/><br/>다른 병원들도 비상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대형병원들은 메르스 의심환자는 외부 임시진료소, 호흡기질환자는 병원 밖 안심클리닉을 거치도록 비상진료 시스템을 짰다. ㄹ병원은 아예 병원 입구에 ‘유행 병원에 간 적 있는 사람,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발열이 있는 사람은 외래로 가지 마시고 선별진료소로 먼저 가십시오’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다른 병원들도 삼성병원 환자를 막지는 않겠지만, 입원·치료 내력은 꼼꼼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br/><br/>의료계에선 메르스 의심환자들이 진료받은 병원이나 병력을 속여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ㄹ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메르스 발병·경유 병원 의료진의 연결이나 환자의 솔직한 얘기가 없다면 환자를 파악하기가 어렵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자신의 증상을 메르스로 의심하고 병원에 먼저 전화를 걸어 선별진료소에서 대처할 수 있게 한 여러 명의 확진자들이야말로 칭찬받아야 할 영웅들</span>”이라고 말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91.txt

제목: 삼성병원 거쳐 왔다고 ‘낙인’… 다른 병원서 입원 거부하기도  
날짜: 20150616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6100000187  
본문: 5월 초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며 삼성서울병원에서 림프암 항암치료를 받은 ㄱ씨(61)는 지난 6일 일주일간의 수소문 끝에 겨우 입원할 2차 병원을 구했다. 당시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병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ㄱ씨가 삼성서울병원을 들렀다는 얘기만 듣고도 다니던 2차 병원이 그의 입원을 꺼린 것이다. ㄱ씨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 있는 본관과 떨어져 있는 암병동 1인실에 입원해 메르스에 노출됐을 확률은 희박했다. 그러나 그는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갖고 갈 때마다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ㄱ씨의 딸은 “메르스와 관련된 루머만으로도 2차 병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었는데 지금은 삼성병원 출신이란 딱지가 붙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br/>지난달 29일 담즙 분비 장애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ㄴ씨(79)도 메르스 의심 증세로 인해 원래 있던 요양병원에서 쫓겨난 상태다. 요양병원에서 고열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이 발생하자 ㄴ씨는 2주 만인 지난 12일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 2차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요양병원은 “<span class='quot0'>다음주부터 환자를 못 받게 됐다</span>”며 ㄴ씨를 다시 받아주지 않았다. 다른 병원들을 수소문해봤지만 하나같이 그가 삼성서울병원에 들렀고, 메르스 검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손을 내저었다. ㄴ씨의 며느리(52)는 “수십곳의 요양병원에 연락하고 직접 찾아갔지만 메르스 의심환자였다는 얘기만으로 어느 곳에서도 어머님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현재 갈 곳이 없어 삼성서울병원 일반병동에 머무르고 있는데 요양병원의 거의 두 배 이상 수준인 병원비 부담도 크고 간병인도 언제 그만둔다고 할지 몰라 다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돈도 부족하고 갈 곳도 없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br/><br/>■ 증세 없어도 낙인·유랑의 고통<br/>‘메르스 유랑’을 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메르스 증세가 없어도 감염자가 거쳐갔거나 메르스 발생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낙인찍혀’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하루 외래환자만 평균 7500~8000명, 15일 현재 입원환자 수만 799명에 달하는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 조치가 시작되면서 의료계 혼란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건국대 응급실을 찾아 150번째 메르스 환자(44)를 감염시킨 76번째 환자(75·사망)와 같이 새 병원에서 치료받기 쉽도록 삼성서울병원을 들른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늘면, 정부의 방역·관리망만 무너지는 악순환도 이어질 수 있다.<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5일 수도권 20개 대형 의료기관장들과 협의한 후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용 환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오는 24일 부분 폐쇄 시점까지 입원환자 치료를 전담하되, 원하는 사람은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항암주사·방사선·혈액투석 등이 필요한 특별 외래환자도 24일까지 삼성병원에서 치료키로 했다. 일반 외래환자는 다른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고 삼성병원 측이 필요한 환자 의료정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span class='quot1'>메르스 격리 해제자 등 환자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span>”고 밝혔다.<br/>■ 삼성발 의료계 혼란 시작<br/>삼성서울병원에서 촉발된 의료기관들의 혼선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15~24일 삼성서울병원이 예상한 외래(예약)환자 6만~6만4000여명 중 초진환자 4000여명은 내원할 수 없고, 급한 사람은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외래 재진환자는 전국 250개 협력병원을 통해 진료를 안내하고, 처방전과 주요 검사결과도 보내줄 방침이다. 병원 측은 현재 8개(200여명 수용)인 격리병동을 19개(450여명)로 늘리기로 해 중증환자 406명(암 247, 심혈관 40, 장기이식 17, 중환자실 102명)이 머무는 공간을 제외한 시설 상당수가 격리병동으로 전환될 예정이다.<br/>삼성서울병원이 입원환자들의 잔류·전원 여부를 확인한 15일 옮긴 사람은 거의 없지만 다른 병원에 문의하는 환자는 늘고 있다. 서울시내 다른 대형병원들은 사태 장기화 시 항암·투석 환자들이나 장기 입원환자들이 전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빅5’ 대형병원(서울대·연세대세브란스·서울아산·서울성모)들은 내부 예약·대기자도 많아 특별한 여유가 생기거나 응급상황이 아니면 삼성병원 전원자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병원에서 왔다고 막지는 않지만, 치료·입원 이력 등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분위기다. <br/>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현재 총 1959개 병상 중 830곳만 차 있고 외래환자 수도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환자들이 많지만 다른 병원에서 ‘삼성병원 출신’이라고 하면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거점병원 등을 마련해 메르스 사태로 파생될 수 있는 2차 피해를 사전에 책임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92.txt

제목: 전시회 클릭!  
날짜: 2015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510017600187  
본문: ■강성원 유작전 ‘평강하고 성스러운 정원으로 가는 길목’<br/><br/>고 강성원 작가의 유작전이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환기가 잘 안되는 작업실에서 3000개가 넘는 실리콘을 사용하며 개인전을 준비해오던 강 작가는 지난해 11월 암 진단을 받은 뒤 5개월 만인 지난 4월 마지막 자화상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br/><br/>이번 전시는 예술의전당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의 정성으로 열리게 됐다.<br/><br/>독일에서 10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1990년대에 귀국한 그는 신표현주의의 대표 주자로 각광받았으나, 작품이 풍기는 어둡고 거칠고 강한 분위기 때문에 상업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깨진 옹기 무덤, 잘린 동물의 머리나 내장 찌꺼기, 흐물거리는 인간의 뇌, 파괴된 피아노 건반 등 부정적이고 기이한 형상들 속에서 그는 원죄의식과 종교적 감성을 드러내면서 평강하고 성스러운 정원으로 이 세상이 거듭나기를 열망했다. 평소 “미술의 최종적인 목표는 선을 이루는 것이다. 내 그림은 영혼 구원에 봉사되어지는 도구이다”라는 지론을 가졌던 그는 사망 선고를 받은 뒤 “처음엔 조금 놀라고 했어도, 그것이 축복인 줄 후에 알았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유작전에는 연도별, 테마별 작품이 전시된다. 문의 010-5612-0097(전희선). <br/><br/><br/><br/><　한윤정 기자 yjha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93.txt

제목: [강유정의 영화로 세상읽기]자기 단속 사회의 역습  
날짜: 20150615  
기자: 강유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5100000061  
본문: ▲ “스크린 속 상상의 배경이던<br/>통제와 치유 가능한 질병,<br/>무능한 정부의 비밀주의 속<br/>현실의 위협과 공포로”<br/>누군가가 콜레라가 마을들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우르비노 박사는 한시도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말했다.<br/>“아주 특별한 종류의 콜레라임에 틀림없군. 시체들의 목덜미에 하나같이 확인 사살한 총구멍이 나 있으니 말이야.”(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콜레라 시대의 사랑> 중에서)<br/>수전 손택의 <은유로서의 질병>은 질병이 사회적 코드가 된 사태를 보여준다. 가령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은 성적 문란을 암시한다. 결핵이 파리한, 근대적 지식인의 병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말이다. <br/>그러고 보면, 결핵은 <라 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 <물랑루즈>의 샤틴이 걸렸던 병이다.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여성이 걸린, 낭만적인 질병 그게 바로 결핵인 것이다. 한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암은 대개 ‘암’이라는 이름을 숨기고 있다. 뇌종양, 백혈병이 영화 속 암으로 사랑받는 이유이다. 그 아픔이 직접적으로 연상되는 대장암이나 피부암 등은 영화적 은유로 선택되지 않는다. 항암 치료의 고통은 구토와 비니(환자용 모자)로 암시될 뿐 진짜 통증은 스크린 너머로 지워진다. 영화 속의 ‘암’은 단지 사랑하는 연인들의 영원한 사랑을 훼방 놓는 장애물일 뿐이다. <br/>질병이 은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이 질병에 익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낯선 것은 사회적 은유가 될 수 없다. 유통되는 은유란 자동화된 반응과 관습적 연상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콜레라’나 ‘페스트’와 같은 전염병은 은유의 언어가 되지 못한다. 적어도 우리에게 이 전염병은 아주 오래전에 제어된 아니 극복된, 전근대적 전염병이기 때문이다.<br/><콜레라 시대의 사랑>의 우르비노 박사에게 콜레라는 관찰 대상이다. 그에게 콜레라는 단순히 강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하층민에게서나 발생하는 질병이다. <br/>그래서 그는 망원경 너머에서 그 공포를 바라볼 뿐이다. <콜레라 시대의 사랑>은 1900년대 남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br/>서머싯 몸의 소설 <인생의 베일>의 주요한 소재도 바로 콜레라인데 1920년대 홍콩과 메이탄푸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br/>두 작품은 모두 영화화되었는데, 여기서 콜레라는 전쟁 서사의 ‘전쟁’처럼 치명적 전제라기보다 주제의 매개로 등장한다. 사랑의 영원성과 뒤늦은 후회를 이어주는 은유적 배경으로 유행병(epidemic)이 등장하는 셈이다. <br/>유행성 질병이 창궐하던 시대에도 사랑은 있고, 삶은 이어졌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마르케스가 작품을 쓰던 시절과 콜레라 시대는 시간적 거리가 있었고, 서머싯 몸은 남부 프랑스에서 30여년 전의 중국 여행을 떠올리며 머나먼 메이탄푸의 콜레라를 그려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질병에 대한 은유와 서술은 시간적 혹은 공간적 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br/><br/>2013년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 <감기>나 2012년 <연가시>에 등장했던 전염병은 그런 의미에서 현실이라기보다는 있음직한 판타지에 가까웠다. 영화 속의 접촉성 전염병이나 수인성 전염병은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전염병에 대한 청정국가로 여겨졌을 때, 가능했던 상상이다. <월드 워 Z>에서 좀비 바이러스의 근원지로 평택이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관객들이 거리낌 없이 영화를 즐겼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br/>2013년만 하더라도, 전염병을 좀비와 같은 완전한 허구의 대상과 동일시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겐 거리감과 여유가 있었다. 즐겨도 좋을 위험,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고,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듯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도 상상 속에선 즐거운 위험이었던 셈이다.<br/>은유와 서술로서의 질병, 상상의 놀이로서의 질병. 여기에는 안전한 사회적, 위생적 보호망에 대한 기대가 녹아 있다. <br/>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기대가 완전히 배반된 현실에 놓여 있다. 배반의 현실 속에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영화 속에서 보았던 그 치욕스러운 개연성들이다. 자신의 입지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 부재하는 컨트롤타워, 무능한 행정부와 같은 영화 속 위기 상황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br/>이 체험 가운데서 안전한 상상의 놀이였던 영화적 풍경은 묵시록적 예언으로 전도된다. 상상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위험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모한 비밀주의와 무능한 통제라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된다.<br/><전염병의 문화사>를 쓴 아노 카렌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새로운 전염병의 도래를 경고해왔다. 어느새 사람들은 미생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주의만이 생명을 위협한다고 자만했다. 음주, 흡연, 안전벨트 미착용이 콜레라나 페스트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다. <br/>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에 스스로의 무절제가 가장 위험하다며 자신을 단속해왔다. 웰빙과 웰다잉, 건강한 노후와 다이어트를 위해 체지방과 싸우고 유기농 식품을 찾는 동안 어쩌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질병의 진화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br/>호환 마마보다 음란비디오가 더 무섭다고 교육받았던 지가 엊그제지만, 지금 우리는 메르스라는 질병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 병원 내 감염인지, 4차 감염이 끝인지, 이번주가 고비인지, 그 고비가 다음주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공포는 일상이 되어간다. <br/>정부는 다시 한번 자기 단속을 강조한다. 하지만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의 자기 단속은 최소한의 예방일 뿐이다.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우리에게 당분간 상상으로서의 위험은 없을 듯하다. 어서 시간적, 공간적 거리 너머 은유로서의 질병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94.txt

제목: [부고]김정길 5·18 행불자가족협의회장  
날짜: 2015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510017600845  
본문: 김정길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가족협의회장이 암 투병을 해오다 15일 별세했다. 향년 70세.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중·고교를 나온 고인은 1989년부터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가족협의회 총무를 맡아 활동했다.<br/><br/>김 회장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적용 대상 및 심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힘썼다. 지난해 12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5·18 피해자 611명을 구제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된 데에도 그의 노력이 있었다. <br/><br/>5·18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살인 누명을 쓴 이정근씨 사건의 진실 규명 등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장정례씨와 명희·세영씨 등 2녀가 있다. 빈소는 동수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7일 오전 6시30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95.txt

제목: 서울보라매·원자력병원, 의심환자 나오자 응급실 ‘신속 폐쇄’  
날짜: 2015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510017601266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span class='quot2'>예방 차원</span>”… ‘음성 판정’ 나온 보라매, 16일부터 정상 운영</strong><!-- SUB\_TITLE\_END--><br/><br/>서울시보라매병원과 원자력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와 의심환자가 각각 응급실을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자 신속하게 응급실을 임시 폐쇄했다. <br/><br/>15일 보라매병원은 “<span class='quot0'>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55·137번째 환자)이 지난 5일 아들 보호자로서 응급실을 찾아 1시간30분가량 체류한 사실을 14일 확인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보건소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응급실을 잠정 폐쇄했다</span>”고 밝혔다. 이 환자는 5월27일부터 29일까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이송요원으로 근무했고 66번째·67번째·72번째 확진환자의 이송을 도왔다. <br/><br/><br/>보라매병원은 메르스 확진자를 맡는 ‘메르스 집중치료기관’으로서 음압격리 병상 5개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 측은 응급실 시설 소독 등을 마치고 16일 오전 9시에 문을 열 예정이다. <br/><br/>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137번째 환자가 보라매병원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기침을 하지 않아 바이러스 전파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본다</span>”고 설명했다.<br/><br/>서울 노원구의 암 전문 병원인 원자력병원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지난 14일 확인되자 이날 오후부터 응급실을 임시 폐쇄했다. 병원 측은 15일 오후 해당 환자가 1·2차 모두 메르스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16일 오전 8시부터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br/><br/>해당 환자는 문진표에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알렸다. 병원 측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 환자를 비상용 음압시설에 격리하고, 접촉 의료진도 자가격리 조치했다. <br/><br/>원자력병원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지시는 없었다”며 “해당 환자가 메르스 확진자는 아니었지만 면역력이 약한 암환자가 많은 병원 특성상 <span class='quot2'>예방 차원</span>에서 잠정 폐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br/><br/><김향미·배장현 기자 sokh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96.txt

제목: [메르스 확진자 150명 분석]확진자 32% 30~40대… 사망자 전원 50~80대  
날짜: 2015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510017601265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가족·방문객과 의료진 감염, 내원한 환자 수보다 많아져</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성별은 남자 61% 여자 39%… 평택 경찰 등 17명 상태 불안</strong><!-- SUB\_TITLE\_END--><br/><br/>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3명 중 1명은 30~40대이고, 사망자는 60~70대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차 감염이 늘면서 젊은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도 감염자에게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br/><br/><br/><br/>1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자료를 보면 국내 메르스 확진자 150명 중 30~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48명(32%)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50대 31명, 60대 29명, 40대 28명, 70대 25명, 30대 20명 순이다. 80대는 9명, 20대는 7명이고 10대로는 고교생 1명이 나왔다.<br/><br/>14~15일 발표된 확진자 10명 중 7명도 30~40대였다. 메르스 확산 초기에 비해 젊은층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br/><br/>정은경 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은 “확진자는 고령이 많고 젊은층은 의료진이 많다”며 “의료진 연령은 30~40대에 몰려 있고, 간병하다 감염된 가족분들도 좀 더 젊은 연령층”이라고 설명했다.<br/><br/>3·4차 감염자가 늘면서 확진자 감염 유형도 환자 가족·방문객(54명)과 의사·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관련 종사자(26명)가 병원을 내원한 환자(70명)보다 많다. 메르스 감염 의심자인 7세 아동은 어린 나이 탓에 객담(가래)을 잘 뱉지 못해 발병 확인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확진자 성별은 남성이 91명(61%), 여성이 59명(39%)이다.<br/><br/>사망자 16명은 주로 60~70대에 몰려 있고 40대 이하는 없다. 28·81번째 환자가 14일 사망해 15일 현재 메르스 환자 치사율은 10.7%로 상승했다. 사망자 성별은 남성 11명(69%), 여성 5명(31%)이다.<br/><br/>사망자 16명 중 만성 호흡기질환, 암, 심뇌혈관질환 등을 앓던 기저질환자는 14명이었다.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 51·81번째 환자의 연령은 각각 72세, 62세로 상대적으로 고령이었다. 정 반장은 “메르스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br/><br/>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 120명 중 103명은 안정적이지만 17명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째 환자, 평택 경찰인 119번째 환자는 모두 30대로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지만 현재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14일 퇴원한 41번째 환자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째 환자와 접촉한 3차 감염자다. <br/><br/>그동안 퇴원자는 주로 평택성모병원에서 최초 환자로부터 감염된 이들이었다. 퇴원자 연령은 20대 2명, 40대 6명, 50대 2명, 60대 2명, 70대 2명이었다. 20대 2명은 평택성모병원 간호사(7·34번째)다.<br/><br/><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97.txt

제목: [기고]삼성의 은폐와 ‘메르스 참극’  
날짜: 2015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510017600496  
본문: 의료 최전선에서 일하는 직업군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메르스 바이러스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집단이 바로 이들인데, 병원 측은 이들에 대한 격리는 고사하고 노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br/><br/>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은 3명의 직원들(35번째, 137번째, 138번째)은 5월27~29일 사이에 응급실에서 14번째 환자에게 노출됐는데도 병원 측의 자체 격리대상 명단에서 빠졌다. 이들은 병원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젊은 의사들이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병원이송요원으로, 삼성 경영진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삼성 자본의 은폐문화 희생양이다.<br/><br/>삼성서울병원은 이 외에도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여러 번 진실을 은폐했다. 예를 들면, 14번째 환자가 첫 메르스 환자에게 노출됐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 점, 14번째 환자가 5월31일 메르스 양성 확진을 받았는데도 6월7일까지 은폐한 점, 이 병원의 의사인 35번째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점,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이 6월7일 14번째 환자와 관련된 893명을 격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메르스 노출자를 다 발표하지도 않았고 노출자들에 대한 신속한 격리조치와 병원의 폐쇄 등을 하지도 않은 점으로 볼 때, 삼성 자본이 얼마나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br/><br/>특히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72명의 메르스 환자 중에서 병원의 관리명단에 없던 확진자가 34명에 이른다. 이 사실만으로도 삼성서울병원의 진실 은폐가 메르스 환자들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삼성 자본의 이윤 추구가 삼성서울병원으로 하여금 메르스 유행의 진원지가 되게 만들었다면, 삼성 자본의 은폐문화는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다. <br/><br/>그동안 삼성 자본의 은폐 사례는 이번 메르스 사태 말고도 여러 번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 백혈병’이다. 삼성 자본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암에 걸린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이전 자료를 은폐했다. 그들이 은폐하는 방식은 문제가 되었던 옛 공정을 다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공정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면 조사를 나온 정부기관이나 역학조사기관들이 물질 하나 나오지 않는 신설된 공정에서 작업환경 측정을 하니 위험물질이 없다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br/><br/>삼성전자는 또 노동자들의 질병과 사망 자료를 철저히 숨기는 한편, 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고 협박과 회유를 했다. 이번 메르스 환자 발생을 숨긴 것도 삼성 자본의 은폐 방식의 하나였던 것이다.<br/><br/>이러한 삼성 은폐문화의 본질은 바로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목적 달성에 있다. 이윤 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재벌기업의 거대 독점자본이 인간의 생명을 담보해야 할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러한 모순이 폭발된 것이 바로 삼성 메르스 사건인 것이다.<br/><br/>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은 민영 의료기관이 오직 자신들의 사적 이윤 추구만을 위해 돌진할 뿐, 공중보건에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자본가 계급은 이번에도 메르스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br/><br/>삼성 경영진은 자신들의 소유로 여기는 삼성서울병원이 사실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생산해내는 4000여명의 노동자들의 것이며, 사회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사회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br/><br/>온 국민이 힘을 모아 사적 이윤 추구에 눈이 어두워 병원의 사회적 역할을 가로막는 독점자본을 병원의 경영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한다.<br/><br/><손미아 |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98.txt

제목: 삼성병원 거쳐 왔다고 ‘낙인’… 다른 병원서 입원 거부하기도  
날짜: 2015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510017601268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메르스 음성 판정에도 병원들 퇴짜, 갈 곳 없어 발 동동</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정부 “<span class='quot1'>의료법 위반</span>”… 삼성병원, 협력병원 안내 등 대책</strong><!-- SUB\_TITLE\_END--><br/><br/>5월 초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며 삼성서울병원에서 림프암 항암치료를 받은 ㄱ씨(61)는 지난 6일 일주일간의 수소문 끝에 겨우 입원할 2차 병원을 구했다. 당시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병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ㄱ씨가 삼성서울병원을 들렀다는 얘기만 듣고도 다니던 2차 병원이 그의 입원을 꺼린 것이다. ㄱ씨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 있는 본관과 떨어져 있는 암병동 1인실에 입원해 메르스에 노출됐을 확률은 희박했다. 그러나 그는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갖고 갈 때마다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ㄱ씨의 딸은 “메르스와 관련된 루머만으로도 2차 병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었는데 지금은 삼성병원 출신이란 딱지가 붙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br/><br/>지난달 29일 담즙 분비 장애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ㄴ씨(79)도 메르스 의심 증세로 인해 원래 있던 요양병원에서 쫓겨난 상태다. 요양병원에서 고열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이 발생하자 ㄴ씨는 2주 만인 지난 12일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 2차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요양병원은 “<span class='quot0'>다음주부터 환자를 못 받게 됐다</span>”며 ㄴ씨를 다시 받아주지 않았다. 다른 병원들을 수소문해봤지만 하나같이 그가 삼성서울병원에 들렀고, 메르스 검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손을 내저었다. ㄴ씨의 며느리(52)는 “수십곳의 요양병원에 연락하고 직접 찾아갔지만 메르스 의심환자였다는 얘기만으로 어느 곳에서도 어머님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현재 갈 곳이 없어 삼성서울병원 일반병동에 머무르고 있는데 요양병원의 거의 두 배 이상 수준인 병원비 부담도 크고 간병인도 언제 그만둔다고 할지 몰라 다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돈도 부족하고 갈 곳도 없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br/><br/><br/><b>■ 증세 없어도 낙인·유랑의 고통</b><br/><br/>‘메르스 유랑’을 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메르스 증세가 없어도 감염자가 거쳐갔거나 메르스 발생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낙인찍혀’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하루 외래환자만 평균 7500~8000명, 15일 현재 입원환자 수만 799명에 달하는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 조치가 시작되면서 의료계 혼란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건국대 응급실을 찾아 150번째 메르스 환자(44)를 감염시킨 76번째 환자(75·사망)와 같이 새 병원에서 치료받기 쉽도록 삼성서울병원을 들른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늘면, 정부의 방역·관리망만 무너지는 악순환도 이어질 수 있다.<br/><br/>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5일 수도권 20개 대형 의료기관장들과 협의한 후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용 환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오는 24일 부분 폐쇄 시점까지 입원환자 치료를 전담하되, 원하는 사람은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항암주사·방사선·혈액투석 등이 필요한 특별 외래환자도 24일까지 삼성병원에서 치료키로 했다. 일반 외래환자는 다른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고 삼성병원 측이 필요한 환자 의료정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메르스 격리 해제자 등 환자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span class='quot1'>의료법 위반</span>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br/><br/><b>■ 삼성발 의료계 혼란 시작</b><br/><br/>삼성서울병원에서 촉발된 의료기관들의 혼선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15~24일 삼성서울병원이 예상한 외래(예약)환자 6만~6만4000여명 중 초진환자 4000여명은 내원할 수 없고, 급한 사람은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외래 재진환자는 전국 250개 협력병원을 통해 진료를 안내하고, 처방전과 주요 검사결과도 보내줄 방침이다. 병원 측은 현재 8개(200여명 수용)인 격리병동을 19개(450여명)로 늘리기로 해 중증환자 406명(암 247, 심혈관 40, 장기이식 17, 중환자실 102명)이 머무는 공간을 제외한 시설 상당수가 격리병동으로 전환될 예정이다.<br/><br/>삼성서울병원이 입원환자들의 잔류·전원 여부를 확인한 15일 옮긴 사람은 거의 없지만 다른 병원에 문의하는 환자는 늘고 있다. 서울시내 다른 대형병원들은 사태 장기화 시 항암·투석 환자들이나 장기 입원환자들이 전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빅5’ 대형병원(서울대·연세대세브란스·서울아산·서울성모)들은 내부 예약·대기자도 많아 특별한 여유가 생기거나 응급상황이 아니면 삼성병원 전원자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병원에서 왔다고 막지는 않지만, 치료·입원 이력 등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분위기다. <br/><br/>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현재 총 1959개 병상 중 830곳만 차 있고 외래환자 수도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환자들이 많지만 다른 병원에서 ‘삼성병원 출신’이라고 하면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거점병원 등을 마련해 메르스 사태로 파생될 수 있는 2차 피해를 사전에 책임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br/><박효순·김지원·조형국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799.txt

제목: [강유정의 영화로 세상읽기]자기 단속 사회의 역습  
날짜: 201506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410017586538  
본문: <b>▲ “스크린 속 상상의 배경이던<br/>통제와 치유 가능한 질병,<br/>무능한 정부의 비밀주의 속<br/>현실의 위협과 공포로”</b><br/><br/>누군가가 콜레라가 마을들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우르비노 박사는 한시도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말했다.<br/><br/>“아주 특별한 종류의 콜레라임에 틀림없군. 시체들의 목덜미에 하나같이 확인 사살한 총구멍이 나 있으니 말이야.”(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콜레라 시대의 사랑> 중에서)<br/><br/>수전 손택의 <은유로서의 질병>은 질병이 사회적 코드가 된 사태를 보여준다. 가령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은 성적 문란을 암시한다. 결핵이 파리한, 근대적 지식인의 병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말이다. <br/><br/>그러고 보면, 결핵은 <라 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 <물랑루즈>의 샤틴이 걸렸던 병이다.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여성이 걸린, 낭만적인 질병 그게 바로 결핵인 것이다. 한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암은 대개 ‘암’이라는 이름을 숨기고 있다. 뇌종양, 백혈병이 영화 속 암으로 사랑받는 이유이다. 그 아픔이 직접적으로 연상되는 대장암이나 피부암 등은 영화적 은유로 선택되지 않는다. 항암 치료의 고통은 구토와 비니(환자용 모자)로 암시될 뿐 진짜 통증은 스크린 너머로 지워진다. 영화 속의 ‘암’은 단지 사랑하는 연인들의 영원한 사랑을 훼방 놓는 장애물일 뿐이다. <br/><br/>질병이 은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이 질병에 익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낯선 것은 사회적 은유가 될 수 없다. 유통되는 은유란 자동화된 반응과 관습적 연상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콜레라’나 ‘페스트’와 같은 전염병은 은유의 언어가 되지 못한다. 적어도 우리에게 이 전염병은 아주 오래전에 제어된 아니 극복된, 전근대적 전염병이기 때문이다.<br/><br/><콜레라 시대의 사랑>의 우르비노 박사에게 콜레라는 관찰 대상이다. 그에게 콜레라는 단순히 강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하층민에게서나 발생하는 질병이다. <br/><br/>그래서 그는 망원경 너머에서 그 공포를 바라볼 뿐이다. <콜레라 시대의 사랑>은 1900년대 남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br/><br/>서머싯 몸의 소설 <인생의 베일>의 주요한 소재도 바로 콜레라인데 1920년대 홍콩과 메이탄푸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br/><br/>두 작품은 모두 영화화되었는데, 여기서 콜레라는 전쟁 서사의 ‘전쟁’처럼 치명적 전제라기보다 주제의 매개로 등장한다. 사랑의 영원성과 뒤늦은 후회를 이어주는 은유적 배경으로 유행병(epidemic)이 등장하는 셈이다. <br/><br/>유행성 질병이 창궐하던 시대에도 사랑은 있고, 삶은 이어졌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마르케스가 작품을 쓰던 시절과 콜레라 시대는 시간적 거리가 있었고, 서머싯 몸은 남부 프랑스에서 30여년 전의 중국 여행을 떠올리며 머나먼 메이탄푸의 콜레라를 그려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질병에 대한 은유와 서술은 시간적 혹은 공간적 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br/><br/><br><center><br/><iframe width="42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rnAFWfZs5HE"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center><br/><br/>2013년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 <감기>나 2012년 <연가시>에 등장했던 전염병은 그런 의미에서 현실이라기보다는 있음직한 판타지에 가까웠다. 영화 속의 접촉성 전염병이나 수인성 전염병은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전염병에 대한 청정국가로 여겨졌을 때, 가능했던 상상이다. <월드 워 Z>에서 좀비 바이러스의 근원지로 평택이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관객들이 거리낌 없이 영화를 즐겼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br/><br/>2013년만 하더라도, 전염병을 좀비와 같은 완전한 허구의 대상과 동일시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겐 거리감과 여유가 있었다. 즐겨도 좋을 위험,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고,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듯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도 상상 속에선 즐거운 위험이었던 셈이다.<br/><br/>은유와 서술로서의 질병, 상상의 놀이로서의 질병. 여기에는 안전한 사회적, 위생적 보호망에 대한 기대가 녹아 있다. <br/><br/>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기대가 완전히 배반된 현실에 놓여 있다. 배반의 현실 속에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영화 속에서 보았던 그 치욕스러운 개연성들이다. 자신의 입지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 부재하는 컨트롤타워, 무능한 행정부와 같은 영화 속 위기 상황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br/><br/>이 체험 가운데서 안전한 상상의 놀이였던 영화적 풍경은 묵시록적 예언으로 전도된다. 상상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위험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모한 비밀주의와 무능한 통제라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된다.<br/><br/><전염병의 문화사>를 쓴 아노 카렌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새로운 전염병의 도래를 경고해왔다. 어느새 사람들은 미생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주의만이 생명을 위협한다고 자만했다. 음주, 흡연, 안전벨트 미착용이 콜레라나 페스트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다. <br/><br/>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에 스스로의 무절제가 가장 위험하다며 자신을 단속해왔다. 웰빙과 웰다잉, 건강한 노후와 다이어트를 위해 체지방과 싸우고 유기농 식품을 찾는 동안 어쩌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질병의 진화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br/><br/>호환 마마보다 음란비디오가 더 무섭다고 교육받았던 지가 엊그제지만, 지금 우리는 메르스라는 질병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 병원 내 감염인지, 4차 감염이 끝인지, 이번주가 고비인지, 그 고비가 다음주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공포는 일상이 되어간다. <br/><br/>정부는 다시 한번 자기 단속을 강조한다. 하지만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의 자기 단속은 최소한의 예방일 뿐이다.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우리에게 당분간 상상으로서의 위험은 없을 듯하다. 어서 시간적, 공간적 거리 너머 은유로서의 질병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br/><br/><강유정 | 영화평론가·강남대 교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00.txt

제목: 영화 <감기>처럼…항체 형성된 완치자 혈액으로 메르스 치료 가능할까  
날짜: 201506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410017583519  
본문: 신종 인플루엔자(독감) 발병으로 인한 판데믹(국가 재난) 상황을 다룬 영화 <감기>에 보면, ‘완치된 아이의 혈액’을 탈취하려는 난투극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그 혈청을 주입하면 자신도 항체를 가질 수 있다는 감염자들의 생각에서 비롯된 일이다. 영화에서는 이 완치된 아이의 혈액을 통해 백신개발이 이뤄진다.<br/><br/>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중증 환자 2명에게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의 혈액을 투여하는 치료 방식이 국내에서도 시도됐다.<br/><br/>14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에 완치자 2명의 혈장(혈액의 적혈구·백혈구·혈소판 등을 제외한 액체성분)을 채취해 환자 2명에게 각각 투여했다. 혈장을 투여받은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38)와 평택경찰서 경사인 119번 환자(35)로 알려졌다.<br/><br/><br/><br/>두 환자 모두 30대로 건강한 상태에서 감염됐으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나와 생기는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그냥 놔두면 패혈증과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른다.<br/><br/>혈액을 원심 분리하면 백혈구와 적혈구 같은 세포는 아래쪽에, 액체 성분인 혈장은 위쪽으로 분리된다. 감염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에게 생긴 항체는 이 혈장 속에 포함돼 있다. 일반적인 혈장제제도 암이나 폐렴 등 감염질환으로 인한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br/><br/>인체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원인 병원체에 대항해서 항체를 만들어낸다. 그 항체가 담긴 혈장을 추출해 다른 환자에게 주입하면 동일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공격해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메르스와 같이 아직 뚜렷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신종 감염병 치료를 위해 종종 시도되는 고전적인 치료법이다.<br/><br/>과거 1995년 콩고에서 에볼라로 245명이 사망했을 당시 생존자의 혈장을 주입해 8명 중 7명이 살아난 기록이 있고, 지난해 미국에서도 에볼라 환자에게 생존자의 혈청을 투여하는 치료를 시행했다. 여러 방법으로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중증 환자에서 혈장 치료가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하는 것이다.<br/><br/>대책본부는 앞으로 완치자가 계속 나오면 이들의 동의를 구해 메르스 중증 환자 치료에 완치자의 혈장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01.txt

제목: 한독생의학학회 "셀레늄 고농축 의약품, 메르스 환자 치료에 도움 가능성"  
날짜: 201506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410017586348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 및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셀레늄 고농축 의약품이 메르스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역 당국이 완치자의 혈액에서 추출한 혈장으로 항체치료를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치료를 모색하는 가운데 관심이 모아진다.<br/><br/>한독생의학학회 조영열 학술이사(산부인과 전문의)는 14일 “<span class='quot0'>셀레늄의 항바이러스 작용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규명됐고 숙주(바이러스에 감염된 대상)의 셀레늄 상태가 바이러스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들이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를 토대로 메르스에도 셀레늄을 적용해 볼 만하다</span>”고 밝혔다. 그는 “<span class='quot0'>셀레늄 제제는 영양공급으로 보충될 수 없는 셀레늄 결핍질환에서 셀레늄 보급하는 의약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패혈증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고 국내에도 10년 전부터 이미 허가를 받고 들어와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br/><br/>원자번호 34인 셀레늄(Se)은 인체에 없어서는 안되는 미량 원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78년 셀레늄을 필수 영양소로 규정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더불어 바이러스 억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조 이사와 관련 업체에 따르면 셀레늄 제제는 2014년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에볼라 출혈열’ 사태 때에도 주민과 의료진 감염 환자들에게 사용되었다. 당시 전 세계 교수들이 패혈증과 에볼라 바이러스의 병리학적 유사성을 주장하며, 독일 및 유럽에서 패혈증 환자 치료제로 사용되는 무기 셀레늄인 소디움 셀레나이트(아셀렌산나트륨)를 에볼라 환자에 투여해볼 것을 권장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br/><br/>급성 바이러스 감염에는 다른 셀레늄 화합물보다 생체 이용률이 뛰어나고 작용이 빠른 소디움 셀레나이트를 정맥으로 투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에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한다.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나와 생기는 치명적 부작용, 즉 패혈증과 출혈열 둘 다에서 병태생리를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스톰(폭풍)’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br/><br/><br/><br/><br/><br/>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메르스 대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몸에서 염증반응이 일어나는 패혈증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패혈증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약이 개발되면 메르스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8~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과학기자대회에서도 이같은 언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br/><br/>조 이사는 “<span class='quot1'>지난해 5월에 독일 종합병원의 집중치료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곳에서는 패혈증 환자의 항생제 치료에 보조적으로 고용량의 셀레늄(소디움 셀레나이트)을 함께 투여하고 있었다</span>”고 전했다. 그는 “<span class='quot1'>물론 이때 투여되는 것은 의약품 형태의 셀레늄 제제이며, 유럽에서는 이미 셀레늄이 집중치료 환자에 대한 치료적 옵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span>”고 덧붙였다.<br/><br/>한독생의학학회(회장 김원길·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독일생의학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인체의 자연치유 기전(메커니즘)을 지원해 주고 있는 국내 의약인들의 학술·정보 교류 단체다. 지난 2010년 창립됐다. 과학적으로 규명된 학술 정보와 의약품 등을 통해 암, 중증 감염병, 만성 중금속 오염 등의 예방 및 환자 치료를 돕고 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02.txt

제목: [책과 삶]원시사회에서 신의 영역까지 시공을 초월한 뇌물  
날짜: 20150613  
기자: 권재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3100000023  
본문: ▲ 뇌물의 역사…임용한·김인호·노혜경 지음 | 이야기가 있는 집 | 400쪽 | 1만6800원<br/>누가 좀 잘나간다 싶으면 “너 뇌물 먹였지?”라는 농담을 스스럼없이 할 정도로 ‘뇌물’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최근에는 ‘성완종 리스트’가 온 나라를 강타했다. 급행료, 불법 수수료, 사례비 등 범죄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애매한 일상의 소소한 뇌물도 수없이 많다. ‘촌지’나 ‘떡고물’ 또한 살면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이다.<br/><뇌물의 역사>는 인간 사회에 침투해 있는 뇌물을 잘 다스려야 하는 암세포와 같은 존재로 규정한다. 인간의 욕망이 동물의 삶과 다른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동시에 뇌물이라는 암을 키웠다고 본다. 저자들은 인류와 함께 존재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뇌물의 역사를 동서양을 아우르며 샅샅이 훑고 있다.<br/>책은 중국 하나라를 멸망시킨 은나라의 탕왕이 즉위 후 7년간 흉년이 계속되자 벽에 걸어놓고 했다는 6가지 반성에서 시작한다.<br/>정치가 문란하지 않은가, 백성들의 경제가 어렵지 않은가, 궁전이 사치스럽지 않은가, 여자의 청탁 등 불공정한 정치가 횡행하지 않는가, 뇌물이 성행하지 않는가, 어진 사람을 배척하고 있지 않은가. 6가지 반성은 모두 뇌물과 관련돼 있다는 게 저자들의 분석이다.<br/>조선시대 왕들도 국정이 어렵거나 가뭄이 들어 기우제를 지낼 때면 탕왕의 반성문을 활용해 뭘 잘못했는지 되돌아봤다.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성군이 되느냐, 난세의 폭군 또는 무능한 군주가 되느냐 여부가 전적으로 ‘뇌물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얘기다.<br/>이집트 쿠푸왕의 피라미드, 진시황의 만리장성과 병마용, 페리클레스의 파르테논과 제우스 신전, 루이 14세의 바스티유, 표트르 대제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겨울 궁전, 샤자한의 타지마할과 붉은 성, 서태후의 원명원과 이화원,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등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제왕’들은 대부분 기념비적 건축물을 남겼다. 이들은 대부분 다음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파멸했다. 무리한 거대 공사는 필연적으로 뇌물 거래를 수반했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재정 파탄과 민심 이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br/><br/>뇌물이 판을 친다는 건 국가의 ‘착취’가 민중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도 있다. 세금과 부역 부담으로 민초들이 신음하는 상황에서 뇌물에 맛을 들인 지방 관리들이 적극적인 수탈에 나서는 단계에까지 이르면 결국 분노가 폭발한다. 구체제의 악질적인 관행에 저항해 터진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들이 관리나 양반보다 향리를 먼저 공격한 걸 봐도 알 수 있다.<br/>저자들이 보는 가장 보편적인 뇌물의 속성은 이렇다. “예로부터 상인은 권력과 유착하고, 그 다음에는 돈으로 권력을 지배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권력가가 되려 했다. 근세 이탈리아의 대상인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를 지배하다 마침내 국왕이 됐고 교황 레오 10세까지 배출한 게 대표적 사례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부터 재벌 총수나 거부들이 대권에 도전하고 있다.”(34~35쪽)<br/>권력에 도전할 정도로 덩치를 키운 소수 거부들 말고 대부분 상인들은 권력과 맞서기보다 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을 택한다. 이 과정에서 뇌물이 등장한다. 상인의 무기는 돈이고, 권력은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형태는 다양해도 혈관을 따라 피가 돌듯 늘 돈이 오갔다.<br/>인사청탁도 경계 1순위다. 인사에 뇌물 문화가 만연하면 그 집단은 필연적으로 무능하고 탐욕적인 인물로 채워진다. 조직 전체의 경쟁력이 순식간에 하락하게 마련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배경이다.<br/>얼마나 고질적이었으면 조선의 유명 정치인들이 비난받고 쫓겨날 때 거의 예외 없이 뇌물죄를 덮어썼을까. ‘덮어썼다’는 표현에 독자들이 반감을 가질지도 모른다. 저자는 왕을 비롯해 모든 정치인이 당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가 모호한 뇌물이나 뇌물성 선물을 받았다고 본다.<br/>책은 “정치인들 사이에 끈끈한 이해와 동지의식이 있으면 적당히 뇌물이 오고 갔는데, 정쟁이 격화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뇌물은 가장 좋은 공격 수단이 됐다”고 말한다. 심지어 뇌물은 백인들이 인디언 사회를 멸망시킬 때도 등장했고, 헌금이나 보시와 같은 기부도 논란은 있지만 신을 향한 뇌물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br/>뇌물이 꼭 아래에서 위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의 인기를 끌기 위해 강자가 약자에게 뇌물을 주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가 로마 전체를 자신의 놀이터로 만든 네로다. 그는 로마를 세계에서 가장 즐거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향연을 베풀고 연못에 인공 섬을 만들어 띄웠다. 네로에 이어 황제가 된 베스파시나누스 플라비우스는 로마 역사상 최초의 평민 출신 황제로, 건축가들을 동원해 호수 위에 아치로 벽을 받치고 외벽을 대리석 조각으로 장식한 거대한 원형극장(콜로세움)을 세웠다. 여기서 사람과 동물의 대결뿐 아니라 사자, 코뿔소, 황소, 코끼리, 표범, 곰 등 야수들 간의 온갖 기상천외한 대결이 펼쳐졌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br/>뇌물이 성행할수록 사회는 병들어간다. 명나라가 망한 이유도 뇌물과 부정부패 때문이었다. <br/>“실력과 능력이 그대로 인정되고 반영되는 사회일수록 부패가 싹트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 반대로 편법을 효율로 착각하는 사회의 미래는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386쪽)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03.txt

제목: 메르스 확산, 한국형 의료재난  
날짜: 201506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310017581901  
본문: <div style='color:#2c75ff; font-family:gulim;font-weight:bold;'>미증유의 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병원 내 감염을 넘어 지역사회 감염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다. 6월 중순에 이르러 증가세가 주춤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 하순부터는 잦아들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일까. 메르스 사태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낼 것인가.<br/></div><br/><br/>메르스 사태는 중동 여행을 다녀온 1번 환자가 5월 20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6월 12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확진자 120명 중 34명이 그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서 전염되었다. 평택성모병원 확진자 중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밝혀진 이는 53번 환자다. 그는 5월 26일부터 28일 동안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2차 확산 거점은 삼성서울병원이었다. 14번 환자는 5월 13일에서 19일까지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최초 메르스 감염자인 1번 환자에게 감염되었다. 20일 퇴원했지만 다음날 다시 고열 증세를 보여 재입원했고, 25일부터는 경기도 병원들을 전전했다. 5월 27일 서울을 찾은 14번 환자는 호흡곤란으로 구급차를 탔고,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메르스 감염검사를 받고 격리조치가 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5월 30일이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의 14번 환자(35·남)는 슈퍼 전파자다. <br/><br/>확진자 중 그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6월 12일 파악된 사람은 총 63명이다. 대부분의 환자는 병원 내 감염자다(119번 즉, 평택경찰서 경사(남·35)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평택성모병원에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입원했던 52번 확진자(여·54)가 다시 찾은 평택박애병원에서 5월 31일 체류하는 과정에서 전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근본적인 의문은 이것이다.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왜 이들은 메르스에 감염되었을까. <br/><br/><br/><br/><strong>한국의 독특한 간병문화가 원인? <br/><br/></strong>이론적으로 바이러스 전염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난다. 흔히 다음의 예시로 ‘기하급수적’이라는 것은 설명된다. A라는 바이러스가 1분당 둘로 자기증식이 이뤄진다고 가정하자. 밀봉된 병 안에 A 바이러스 한 개체를 넣고 증식 속도를 관찰했다. 예를 들어 오후 1시 정각에 병 안에 바이러스가 가득 찼다면, 바이러스가 병의 절반을 차지한 시간은 언제일까. 수학 관련 대중강연에서 흔히 제시되는 퀴즈다. 답은? 12시59분, 즉 1분 전이다. 우려대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났다면 팬데믹(대유행)은 피할 수 없다. 지난 6월 10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의 메르스 확산 경로’에 대한 보도를 내놓았다. 기사는 “한국은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거의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나라 중 하나”라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한국이 ‘2012년 메르스가 처음 사우디에서 발견된 이래 가장 심각한 발병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뉴욕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br/><br/>“한국인은 흔히 대형병원 의사가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고 여기고, 이 때문에 대형병원은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 더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인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기도 한다. 응급실은 환자와 환자 가족, 간병인으로 가득 차 있고, 환자 가족은 종종 병실에 머물며 환자의 땀을 닦아주고, 요강을 비우며, 시트를 갈아주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감염에 노출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독특한 대형병원 선호와 간병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일견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한 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거꾸로 다른 나라는? 대형병원에 최고의 전문의가 있지 않다는 말일까. 독특한 간병문화를 거론하는 것은 결국 의료현장에서 위생상태나 관념이 (후진국마냥) 떨어진다는 말일까. <br/><br/>아닌 게 아니라 그런 비난이 있었다. 앞서 거론한 1번, 14번 등 슈퍼 전파자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 자신이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왔다는 것을 숨겼다(1번)든가, 메르스가 창궐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14번)는 것과 같은 비난이다. 사실에 기초한 비난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 그들이 병원을 전전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진단한 의사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 환자)도 응급실에서 진단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그는 14번 환자를 진단하지 않았고 옆 병상의 환자를 돌봤을 뿐이다). 감염 초기 14번 환자는 병원에서 병원으로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전염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아직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다. <br/><br/><br/><br/><strong>훨씬 전부터 붕괴되었던 의료공급 시스템 <br/><br/></strong>“확진자들은 메르스 감염 피해자다. 피해자들을 때리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핵심은 한국의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말이다. 우 위원장도 의사다.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걸까.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었다. 평택에는 모두 6개 병원이 있다. 그 중 공공병원은 하나도 없다. 다 민간이다. 바로 옆 안성에도 없다. ‘안평맘’이라고 안성·평택에 거주하는 엄마들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분들이 믿을 만한 공공병원 추천을 요청했다. 안성·평택뿐 아니라 화성에도 없고, 그 동네에는 하나도 없으니 말을 꺼내기도 면구스러웠다.” 역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지만, 1차 확산지가 된 평택성모병원의 대응도 잘못된 것은 맞다. 확진자가 나온 후 병동 전체를 격리해야 하는데 병실만 격리했고, 8층에 있던 환자들을 7층으로 내려보내는 식으로 대응했다. 7층 병실에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다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메르스가 확산됐다. “<span class='quot0'>만약 그 동네에 공공병원이 하나라도 있었다면….</span>” 우 위원장의 가정이다. “처음에 역학조사관이 한 명이라도 들어갔다면 결과는 지금과 천지차이였을 거다. 민간병원만 있으니 거기(평택성모병원)가 허브가 되어버린 것이다.” <br/><br/> 14번 환자는 병원을 전전하다 병세가 악화되자 삼성서울병원으로 구급차를 타고 갔다. 우 위원장은 “<span class='quot1'>한국에서 응급실은 응급환자를 받는 곳이라기보다 3차병원 대학병원 입원의 통로가 되어버린 지 오래</span>”라고 덧붙였다. “14번도 평택성모병원에서 지정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알아서 간 것이다. 경증환자에서부터 암환자까지 하루에 몇백 명이 드나드는데 응급실에 환자 혼자 오는 것이 아니다. 응급실이 사실상 ‘입원실’이 되어 문병 오는 사람까지 드나든다. 응급실 병상 수 이상의 사람들이 항상 모여든다. 병상뿐 아니라 움직이는 카트 위에도 다 누워 있고 거기에다 매트리스를 깔거나 이불을 깔고 누워 있는 ‘도떼기시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대형병원 응급실이 사실상 ‘대학병원 입원 통로’가 되어 있다는 것은 기존 환자의 진단 이송절차인 1차(의원급), 2차(중소병원급), 3차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스템에 구멍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재호 가톨릭의대 교수는 환자가 알아서 병원을 찾아 옮겨다니는 것을 두고 ‘환자의 의료 쇼핑’이라는 말을 썼다. “원래는 비영리이지만 의료서비스가 상품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병원이 경영되려면 환자 진료를 가급적 많이 하고 검사도 많이 해야 한다.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경우 초진환자라면 30분 이상 할애해 이야기를 청취해야 한다. 계산해 보라. 물리적 시간 자체가 그럴 경우 하루에 40명 이상 진료할 수 없다. 그대로 했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한 환자당 10분 진료시간이 고작이다. 이번 메르스 최초환자의 경우도 상담시간이 적으니 여행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열 나면 감기인 모양,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처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의료진 탓으로 돌릴 수 없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환자 입장에서는 차도가 없으니, 기왕이면 더 잘 고칠 것 같은 전문가를 찾아 전전하는 것이고.” 의료 쇼핑이 성공하지 않을 경우 종착지는 앞서 뉴욕타임스가 언급한 것처럼 대형병원이다. <br/><br/>“<span class='quot0'>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가장 많은 전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span>” 이주호 보건의료산업노조 전략기획단장의 말이다. 이미 한국의 의료시스템 붕괴는 대형병원에서 끝나지 않았다. 대형병원 중에서도 더 상위의, 서울에 소재한 ‘빅5’에 대한 선호로 나타났다. ‘빅5’ 리스트는 포털 검색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이다. 이들 병원이 이른바 ‘빅5’를 형성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다. 각각 현대와 삼성이라는 재벌과 관련이 있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대학병원이나 지방의 대형병원들의 규모와 돈벌이 경쟁의 롤모델이 되었지만 게임이 되지 않았다. 계속되는 이 단장의 말. “오죽하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 암환자가 있는데, 자기 소원이 삼성병원의 모 유명 의사에게 가서 진찰이라도 받아보면 좋겠다는 것이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 중 전남대가 암진료 1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쪽 분들이 풀이하는 이유가 재미있다. 광주에 KTX가 늦게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지역에 머물러 진료나 투자를 하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KTX를 도입한 명분이 지역 균형발전이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거꾸로 서울로 몰리는 현실이 그대로 의료체계에도 반영되어 있다.” 한국에서 감염내과 인력과 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역설적으로 14번 환자를 매개로 메르스가 전국으로 퍼지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한 ‘비밀’, 그 내적 메커니즘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br/><br/>대형병원, 그것도 빅5에 몰리는 현상은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노조가 펴낸 책 <대한민국 의료혁명>에 실린 표를 보면 공공병원은 해방 전 75.1%에 달했다. 민간병원과 역전이 일어난 것은 1966년. 다시 1977년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되고, 특히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후 부족한 병상을 민간 규제완화로 해소하면서부터다. 1990년대 초·중반 무렵부터 시작한 ‘빅5-대형병원’의 의료시장 독식 현상은 개인병원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졌다. 환자들이 쏠리면서 대형병원의 진료환경도 악화되었다. 보건단체나 노조 등이 주장하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악화, 만성적 부족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병원 전체 매출액에서 인건비 지출이 50%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병원 입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두 가지다. 과잉진료·검사를 하거나 인건비를 줄이거나다. OECD 대비 간호사 인력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현실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다.” 앞의 뉴욕타임스 기사로 돌아가 보자. 환자의 가족이 사실상 간호사의 역할을 대체해 ‘간병’하는 것은 한국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인가 아니면 후진적인 비위생적 문화인가. <br/><br/><br/><br/><strong>‘각자도생’하라는 뒷북 긴급재난 메시지 <br/><br/></strong>이재호 교수는 “<span class='quot2'>일차의료, 예를 들어 주치의 제도가 있었더라면 메르스가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확산되었을지 의문</span>”이라고 덧붙였다. 환자 개인의 사적 정보는 배제된 현재의 ‘1분 진료’가 아닌 평상시 지역에서 환자의 병력을 관리하는 일차의료(primary care)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다면 환자가 대형병원에 스스로 가기 전에 걸러졌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br/><br/>현재의 의료시스템 개혁은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지난 대선에서 야권은 ‘무상의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런 의료시스템과 제도개혁이 병행되지 않는 한 무상의료는 현재의 대형병원-빅5 선호로 갈 수밖에 없는 의료영리화와 결합해 더 악무한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br/><br/>메르스 사태는 어떻게 정리될까. 이주호 단장은 “<span class='quot3'>아직은 메르스를 잡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잠복해 있지만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의 교훈을 전염병 전문병원 설립으로 퉁치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span>”고 주장했다. 다시 처음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간다면, 이번 메르스 사태로부터 대한민국은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 <br/><br/>지난 토요일, 집에서 쉬고 있던 기자의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국민안전처가 발송한 ‘긴급재난문자’였다. 내용은 “메르스 예방수칙 1. 자주 손씻기, 2. 기침, 재치기 시 입과 코 가리기…” 등이었다. 6월 6일은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지 16일 후다. 뒷북이다. 국민들은 폐쇄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정보 리스트를 교환하고 있었다. 이튿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이 진작에 공개하라고 했었다며 병원 리스트를 공개했다. ‘뒷북 지적’과 관련,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은 6월 11일 국회에 출석해 “<span class='quot4'>그 내용을 모르는 국민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실천이 안 돼 그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span>”이라고 해명했다. <br/><br/>일차의료연구회의 전 회장이었던 이재호 교수는 이번 메르스 사태뿐 아니라 지난 2009년과 2010년 신종플루 사태 때도 ‘전 국민 주치의 제도가 있었더라면 대유행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썼다. 문건을 검토하다보니 인상적인 대목이 있다. <br/><br/>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의 신종플루 정보 페이지와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신종플루 안내’ 페이지다. 한국의 안내 페이지 국민행동요령은 ‘외출 후나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와 같은 개인이 취할 행동에 맞춰져 있다. 예방접종 안내, 보건소 등 거점약국 현황, 홍보물 등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지만, 신종플루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는 찾기 어렵다. 반면 NHS의 페이지는 긴급연락처와 함께 초기 화면에서 신종플루와 관련한 최신 전문정보에서 각 언어별 정보 리플렛까지 한 번 클릭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인플루엔자 안내’ 페이지는 현재 찾아볼 수 없다. <br/><br/><br/><br/><strong>사라진 2009년 신종플루 정보 <br/><br/></strong>“공공성의 핵심은 신뢰다. 투명성 제고가 신뢰의 바탕이다. 재난 과정에서 국가가 신뢰를 얻으려면 투명성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예를 들어 미국 카트리나 재난의 경우 발단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정말 디테일하게 성역 없이 조사를 해 공개해 놓았다. 상원과 하원에서는 수백 번의 청문회를 거쳤고, 그 과정도 모두 공개되어 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카트리나가 지나간 한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데, 왜 수거가 안 되었고, 자원봉사자 동원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그것을 기초로 시스템을 고치는 것에 적용하는 것까지 다 세세하게 기술해 놓았다. 지금도 그때 제작된 방대한 분량의 카트리나 백서는 인터넷에 다 공개돼 있다. 카트리나 사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해 자세히 볼 수 있다. 거기에 비해 지난해 우리가 겪은 세월호는 어떤가. ‘급회전하다가 배가 넘어졌다’는 식의 사고의 직접적 원인만 나와 있다. 그것을 야기한 시스템 문제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고….” 구혜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의 말이다. 그는 올해 출간된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 재난과 공공성의 사회학>의 필자로 참여했다. 앞서 언급한 신종플루 사이트만 안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신종플루 백서’도 발간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의 ‘검색’을 통해서 그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다. 지금 만들어진 메르스 포털은 과연 언제까지 남아 있을까.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난해 세월호와 똑같다는 것이다. 국가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필수 구조장비도 다 민간에 맡기고, 그게 세월호 때 벌어진 일이다. 도대체 누가 지휘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의료분야,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 적용하면 그대로 되풀이되는 일이다.” 우석균 위원장의 말이다. <br/><br/>이번 메르스 사태를 접하며 인간이 부른 환경 변화가 인수공통전염병 확산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의 대량생산 소비풍조를 벗어나지 않는 한 ‘위험사회’는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맞는 말이다. 더 치명적 독성과 전염성을 지닌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종은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다. 문명사적 비판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대한민국에서 메르스 창궐은 한국의 왜곡된 의료전달 시스템과 제도가 만들어낸 한국형 국가 의료재난이다. 공공의료의 복원, 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가 그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그러길 바랄 뿐이다.<br/><br/><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04.txt

제목: [건강 단신]‘암 예방·극복’ 체험 수기 모집  
날짜: 201506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2100000043  
본문: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지역암센터(소장 김석모)가 오는 9월30일까지 암 관련 수기를 공모한다. <br/>암 환자와 가족 등 암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있는 이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암 조기발견 경험담, 극복사례, 간병 이야기 등을 A4용지 2장 이내에 수필이나 시로 써서 제출하면 된다. <br/>신청서는 전남지역암센터 홈페이지(http://www.cnucancercenter.com)에서 내려받는다. e메일(cnujrcc7709@naver.com)이나 우편(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번지 전남지역암센터 2층 운영지원실)으로 접수한다. 선정작에는 5만~30만원의 상금을 준다. (061)379-7709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05.txt

제목: [건강]메르스 차단에 주민번호 활용하려니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려 공개 ‘난감’  
날짜: 20150612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2100000048  
본문: ‘메르스 차단이냐, 개인정보 보호냐.’<br/>주요 개인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다. 암 역학 및 임상 연구와 질병 통계를 내는 데 위력을 발휘하는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퇴치에 활용하면 어떨까.<br/>10일 서울시내 ㄱ대학병원. 이곳은 아직 환자가 나오거나 경유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응급실과 외래 두 곳에서 적외선 열감지 카메라로 출입 환자와 보호자들을 체크하고, 일일이 메르스 관련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병원의 보다 큰 고민은 현재 100명이 넘는 환자와 3000명이 넘는 격리자들이 병원을 다녀간 적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br/>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초기에 환자와 격리자 정보를 일부만이라도 공유했다면 병원 자체 대책이나 국가적인 방역체계 가동에 크게 기여했을 것</span>”이라며 아쉬워했다.<br/>수도권 주요 대형병원 중 지난달 20일부터 현재까지 보건당국으로부터 환자나 격리자에 대한 정보를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병원 어느 곳에도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병원 관계자들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유하는 것이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br/>예를 들어 주민번호 앞 6자리만 공유해도 충분하다. 현행 병원 전산시스템으로 위험 기간 내에 병원에 다녀갔는지,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거의 99%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br/>하지만 이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직결돼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스카이법률사무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의약품 전문변호사)는 “<span class='quot1'>주민번호 앞자리만으로는 변별력이 거의 없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기존 정보와 조합하면 충분히 주소나 휴대폰 번호를 알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개인 동의를 받지 않는 한 6자리만의 공개도 어려운 문제</span>”라고 밝혔다.<br/>그렇다면 공개 말고 전국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김 변호사는 “<span class='quot1'>공개가 아닌 의료기관 통보는 문제의 소지가 크게 줄어든다</span>”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하게 각각의 병의원에 개별적으로 통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br/>서울대 의대 유근영 교수(예방의학)는 “<span class='quot2'>암 코호트(특정 집단) 연구에 적용되어 위력을 발휘하는 주민번호를 감염병 관리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환자 정보 공유를 통한 경유 여부 ‘매스 스크린(집단 검색)’이 필요하다는 얘기다.<br/>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중증 환자가 몰리는 대학병원만이라도 확진자 및 격리자의 주민번호 정보를 공유한다면 병원 차원의 안전도 챙기고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06.txt

제목: [건강]믿을 건 내 몸의 면역력, 잘 먹고 잘 자는 ‘기본’ 지켜야  
날짜: 20150612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2100000049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은 현재 예방 백신이나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게 특징이다. 추가 감염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다. 또 인체의 방어시스템인 면역력을 높여 바이러스나 세균·곰팡이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야 한다. 한방 전문의들은 “<span class='quot0'>현재와 같은 전파기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매우 위험하다</span>”고 말한다.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여섯 가지를 알아본다.<br/><br/>첫째, 저체온증이 있는 사람은 유전자의 오작동이 많고 감염병이나 암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장의 온도가 1도만 낮아져도 백혈구 면역기능이 떨어져 장내 세균 증식으로 유익한 균들이 힘을 쓰지 못한다. 장 속에 대량의 유해 세균이 번식하면 몸의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지고, 반대로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6배 올라간다.<br/>둘째, 냉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90% 이상은 여성들인데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냉증에서 벗어나려면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육은 휴식 상태에서도 약간 긴장을 유지하면서 열을 생산한다. 폐경이 되면 자연히 근육량은 줄어들고 체지방량이 늘어난다. 중년 이후의 여성들, 특히 뼈대가 가늘고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여성들은 폐경기 이전에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려야 한다.<br/>셋째, 인체는 잠자는 시간에 피로물질이 쌓인 조직의 노폐물을 정화한다. 수면량이 부족하면 자율신경계에 혼란을 초래해서 면역기능이 약해지고 결국 몸에 이상이 나타난다. 간 기능은 잠을 자는 동안에 제일 많이 회복되는데 잠이 부족하면 간이 피로해져 면역력 저하를 일으킨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연구소에서는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남성은 일반인보다 사망할 확률이 4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br/><br/>넷째, 미세먼지 속에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 같은 수많은 대기오염 물질이 포함돼 있다. 인체의 폐포까지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 원인이 되며, 인체의 면역 기능을 악화시킨다. 환경 공해가 심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이나 공단지역 주민들은 오염된 공기로 인해 호흡기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br/>다섯째, 에너지의 흡수, 저장은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영양가는 부족하고 칼로리만 높은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거나 끼니를 거르면 인체에 에너지 부족 현상이 생겨 면역력이 떨어진다. 과음은 간을 피로하게 만들어서 면역력 저하를 유발한다.<br/>여섯째, 자율신경의 불안정을 유발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약화시키거나 이상 반응을 일으킨다. 게임이나 심각한 고민, 분노, 밤샘 공부 및 작업 등은 뇌의 에너지 소모량을 크게 늘려 인체 다른 기관의 에너지 부족에 의한 면역력 저하를 초래한다.<br/><도움말 한의사 김달래·변희승 원장>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07.txt

제목: ‘여성 비하 발언’ 노벨상 수상자, 명예교수직 사임  
날짜: 201506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2100000087  
본문: “<span class='quot0'>여자들은 실험실에서 문제만 일으킨다</span>”는 발언으로 비난을 받은 영국 노벨상 수상자 팀 헌트(72·사진)가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생명과학과 명예교수직에서 물러났다.<br/><br/>대학 측은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헌트 교수가 여성 과학자 관련 발언 이후 사임했다”고 밝혔다. UCL은 성명에서 “우리 대학은 잉글랜드에서 처음으로 여학생들을 남학생과 똑같은 조건으로 입학시킨 곳이며, 이렇게 결말이 난 것도 양성평등을 위해 공헌하고자 하는 우리 대학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노벨상 수상자라 하더라도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헌트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과학기자대회에서 여성 과학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자기가 남성우월주의자라며 “<span class='quot1'>내가 여자들 때문에 겪은 문제를 얘기해주겠다</span>”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여자가 실험실에 있으면 세 가지 문제가 생긴다. 내가 그들과 사랑에 빠지거나, 그들이 나와 사랑에 빠지거나, 내 비판에 그들이 울음을 터뜨리거나 한다”고 말했다.<br/>한 참석자가 이 발언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영국 과학계 전체로 비판이 확산됐다. 임란 칸 영국과학협회 회장은 “<span class='quot2'>성차별은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농담이었든 아니든 헌트의 발언은 전혀 재미있지 않다</span>”고 말했다. 헌트는 암 발생 원인을 규명해 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고 2006년에는 기사 작위를 받은 저명한 의학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08.txt

제목: [책과 삶]원시사회에서 신의 영역까지 시공을 초월한 뇌물  
날짜: 201506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210017579734  
본문: <b>▲ 뇌물의 역사…임용한·김인호·노혜경 지음 | 이야기가 있는 집 | 400쪽 | 1만6800원</b><br/><br/>누가 좀 잘나간다 싶으면 “너 뇌물 먹였지?”라는 농담을 스스럼없이 할 정도로 ‘뇌물’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최근에는 ‘성완종 리스트’가 온 나라를 강타했다. 급행료, 불법 수수료, 사례비 등 범죄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애매한 일상의 소소한 뇌물도 수없이 많다. ‘촌지’나 ‘떡고물’ 또한 살면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이다.<br/><br/><뇌물의 역사>는 인간 사회에 침투해 있는 뇌물을 잘 다스려야 하는 암세포와 같은 존재로 규정한다. 인간의 욕망이 동물의 삶과 다른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동시에 뇌물이라는 암을 키웠다고 본다. 저자들은 인류와 함께 존재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뇌물의 역사를 동서양을 아우르며 샅샅이 훑고 있다.<br/><br/>책은 중국 하나라를 멸망시킨 은나라의 탕왕이 즉위 후 7년간 흉년이 계속되자 벽에 걸어놓고 했다는 6가지 반성에서 시작한다.<br/><br/>정치가 문란하지 않은가, 백성들의 경제가 어렵지 않은가, 궁전이 사치스럽지 않은가, 여자의 청탁 등 불공정한 정치가 횡행하지 않는가, 뇌물이 성행하지 않는가, 어진 사람을 배척하고 있지 않은가. 6가지 반성은 모두 뇌물과 관련돼 있다는 게 저자들의 분석이다.<br/><br/>조선시대 왕들도 국정이 어렵거나 가뭄이 들어 기우제를 지낼 때면 탕왕의 반성문을 활용해 뭘 잘못했는지 되돌아봤다.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성군이 되느냐, 난세의 폭군 또는 무능한 군주가 되느냐 여부가 전적으로 ‘뇌물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얘기다.<br/><br/>이집트 쿠푸왕의 피라미드, 진시황의 만리장성과 병마용, 페리클레스의 파르테논과 제우스 신전, 루이 14세의 바스티유, 표트르 대제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겨울 궁전, 샤자한의 타지마할과 붉은 성, 서태후의 원명원과 이화원,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등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제왕’들은 대부분 기념비적 건축물을 남겼다. 이들은 대부분 다음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파멸했다. 무리한 거대 공사는 필연적으로 뇌물 거래를 수반했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재정 파탄과 민심 이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br/><br/><br/>뇌물이 판을 친다는 건 국가의 ‘착취’가 민중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도 있다. 세금과 부역 부담으로 민초들이 신음하는 상황에서 뇌물에 맛을 들인 지방 관리들이 적극적인 수탈에 나서는 단계에까지 이르면 결국 분노가 폭발한다. 구체제의 악질적인 관행에 저항해 터진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들이 관리나 양반보다 향리를 먼저 공격한 걸 봐도 알 수 있다.<br/><br/>저자들이 보는 가장 보편적인 뇌물의 속성은 이렇다. “예로부터 상인은 권력과 유착하고, 그 다음에는 돈으로 권력을 지배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권력가가 되려 했다. 근세 이탈리아의 대상인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를 지배하다 마침내 국왕이 됐고 교황 레오 10세까지 배출한 게 대표적 사례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부터 재벌 총수나 거부들이 대권에 도전하고 있다.”(34~35쪽)<br/><br/>권력에 도전할 정도로 덩치를 키운 소수 거부들 말고 대부분 상인들은 권력과 맞서기보다 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을 택한다. 이 과정에서 뇌물이 등장한다. 상인의 무기는 돈이고, 권력은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형태는 다양해도 혈관을 따라 피가 돌듯 늘 돈이 오갔다.<br/><br/>인사청탁도 경계 1순위다. 인사에 뇌물 문화가 만연하면 그 집단은 필연적으로 무능하고 탐욕적인 인물로 채워진다. 조직 전체의 경쟁력이 순식간에 하락하게 마련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배경이다.<br/><br/>얼마나 고질적이었으면 조선의 유명 정치인들이 비난받고 쫓겨날 때 거의 예외 없이 뇌물죄를 덮어썼을까. ‘덮어썼다’는 표현에 독자들이 반감을 가질지도 모른다. 저자는 왕을 비롯해 모든 정치인이 당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가 모호한 뇌물이나 뇌물성 선물을 받았다고 본다.<br/><br/>책은 “정치인들 사이에 끈끈한 이해와 동지의식이 있으면 적당히 뇌물이 오고 갔는데, 정쟁이 격화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뇌물은 가장 좋은 공격 수단이 됐다”고 말한다. 심지어 뇌물은 백인들이 인디언 사회를 멸망시킬 때도 등장했고, 헌금이나 보시와 같은 기부도 논란은 있지만 신을 향한 뇌물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br/><br/>뇌물이 꼭 아래에서 위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의 인기를 끌기 위해 강자가 약자에게 뇌물을 주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가 로마 전체를 자신의 놀이터로 만든 네로다. 그는 로마를 세계에서 가장 즐거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향연을 베풀고 연못에 인공 섬을 만들어 띄웠다. 네로에 이어 황제가 된 베스파시나누스 플라비우스는 로마 역사상 최초의 평민 출신 황제로, 건축가들을 동원해 호수 위에 아치로 벽을 받치고 외벽을 대리석 조각으로 장식한 거대한 원형극장(콜로세움)을 세웠다. 여기서 사람과 동물의 대결뿐 아니라 사자, 코뿔소, 황소, 코끼리, 표범, 곰 등 야수들 간의 온갖 기상천외한 대결이 펼쳐졌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br/><br/>뇌물이 성행할수록 사회는 병들어간다. 명나라가 망한 이유도 뇌물과 부정부패 때문이었다. <br/><br/>“실력과 능력이 그대로 인정되고 반영되는 사회일수록 부패가 싹트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 반대로 편법을 효율로 착각하는 사회의 미래는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386쪽)<br/><br/><권재현 기자 jaynews@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09.txt

제목: 중 ‘뇌물수수’ 저우융캉 무기징역 선고  
날짜: 20150612  
기자: 오관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2100000138  
본문: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저우융캉(周永康·73) 전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에게 11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톈진(天津)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저우융캉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개인 재산 몰수 결정을 함께 내렸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br/><br/>법원은 기소된 그의 3대 혐의 중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적용했다. 직권남용죄와 국가기밀 고의누설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적용한 뒤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저우융캉은 법정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br/>당초 지난 4월 초 기소된 저우융캉에게는 최고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일가가 부패에 연루된 데다 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가면서 부패 규모가 천문학적 규모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내 원로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사형까지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br/>1949년 신중국이 성립한 후 상무위원이 부패 혐의로 기소돼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공산당 내부 불문율을 깨뜨린 것으로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반부패 전쟁에 큰 성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br/>인민일보는 이날 “<span class='quot0'>어느 누구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지 않다</span>”고 논평했다. 그의 재판은 지난달 22일 비공개리에 열렸다. 신화통신은 이에 대해 국가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br/>저우융캉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시절 사법과 공안을 장악, 권력 분점체제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 링지화(令計劃) 전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과 함께 시진핑 체제의 출범을 막으려 한 ‘신4인방’으로 알려져 있다. 쉬차이허우는 암으로 숨졌고 저우융캉과 보시라이는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제 링지화만 남게 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10.txt

제목: ‘여성 비하 발언’ 노벨상 수상자, 명예교수직 사임  
날짜: 2015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110017568961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영국 기사 작위 받은 팀 헌트</strong><!-- SUB\_TITLE\_END--><br/><br/>“<span class='quot0'>여자들은 실험실에서 문제만 일으킨다</span>”는 발언으로 비난을 받은 영국 노벨상 수상자 팀 헌트(72·사진)가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생명과학과 명예교수직에서 물러났다.<br/><br/><br/>대학 측은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헌트 교수가 여성 과학자 관련 발언 이후 사임했다”고 밝혔다. UCL은 성명에서 “우리 대학은 잉글랜드에서 처음으로 여학생들을 남학생과 똑같은 조건으로 입학시킨 곳이며, 이렇게 결말이 난 것도 양성평등을 위해 공헌하고자 하는 우리 대학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노벨상 수상자라 하더라도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헌트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과학기자대회에서 여성 과학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자기가 남성우월주의자라며 “<span class='quot1'>내가 여자들 때문에 겪은 문제를 얘기해주겠다</span>”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여자가 실험실에 있으면 세 가지 문제가 생긴다. 내가 그들과 사랑에 빠지거나, 그들이 나와 사랑에 빠지거나, 내 비판에 그들이 울음을 터뜨리거나 한다”고 말했다.<br/><br/>한 참석자가 이 발언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영국 과학계 전체로 비판이 확산됐다. 임란 칸 영국과학협회 회장은 “<span class='quot2'>성차별은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농담이었든 아니든 헌트의 발언은 전혀 재미있지 않다</span>”고 말했다. 헌트는 암 발생 원인을 규명해 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고 2006년에는 기사 작위를 받은 저명한 의학자다.<br/><br/><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11.txt

제목: 프랑스에서 불거진 '죽을 권리' 논쟁  
날짜: 2015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110017569609  
본문: 생존의 가능성 없는 가혹한 고통 뿐일 지라도 인간은 끝까지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 존엄하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일까. ‘죽을 권리’를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br/><br/>7년 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프랑스인 뱅상 랑베르(39)가 이 오래된 논란에 다시 한번 기름을 부었다고 BBC방송이 10일 보도했다.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랑베르의 상태에 호전의 기미가 없다”는 의사와 부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에게 정맥주사를 중단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랑베르는 정맥주사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곧 죽음에 이르게 된다. 랑베르는 사고 전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차례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br/><br/>하지만 이날 랑베르의 퇴원 후 모습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죽을 권리’에 대한 찬반논란이 불거졌다. 영상 속에서 그는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에 눈을 뜨고, 가족을 알아보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죽음을 앞둔 식물인간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의 모습에 안락사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랑베르의 부모 역시 그의 안락사를 반대하고 있다. <br/><br/>랑베르의 사연은 현재 프랑스 상원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안락사 법안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프랑스에선 지난 3월 불치병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수면 중 숨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은 산소호흡기와 수분 공급 중단도 허용한다. 11일 현재 48만번 넘게 재생된 랑베르의 동영상엔 약 500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논란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br/><br/>‘죽을 권리’를 둘러싼 논쟁은 뉴질랜드와 캐나다 등 서구권 국가 뿐 아니라 베트남 등 아시아 문화권에까지 점차 확산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뉴질랜드에선 뇌종양 선고를 받은 후 마지막 순간까지 ‘죽을 권리’를 위해 싸웠던 레크레시아 실즈(42)의 사연이 불씨가 됐다. 뇌종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실즈는 법원에 죽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안락사는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통지를 받았고, 판결문이 나온 바로 다음날인 지난 5일 숨을 거뒀다. 고통에서 벗어나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마지막 기회를 잃은 그의 이야기는 뉴질랜드 내에서 조력자살(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 스스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과 안락사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번졌다. <br/><br/>베트남 정부도 지난 4월 안락사 허용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베트남은 2005년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응웬 후이 꾸엉 보건부 법무과장은 “<span class='quot0'>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에게 죽을 권리는 ‘탈출구’가 될 것</span>”이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br/><br/>현재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오리건주 등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 2월 캐나다 대법원이 조력자살을 인정한다고 발표하는 등 “살고자 하는 권리”만큼 “삶을 끝내고자 하는 권리” 역시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금씩 확대되는 추세다.<br/><br/><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12.txt

제목: 성형으로 예뻐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렛미인’ 시즌5, 끊임없는 논란 속 tvN으로 확대 방송  
날짜: 20150611  
기자: 허남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1100000079  
본문: ‘논란을 넘어 감동으로.’ 지난주 시즌5 방영을 시작한 스토리온 (<렛미인>)의 캐치프레이즈다. <렛미인>은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 출연자의 사연을 소개하고, 피부과·내과·성형외과·치과 등 다양한 분야 의사들로 구성된 ‘렛미인 닥터스’의 지원을 받아 출연자의 외모를 변화시키는 ‘메이크오버쇼’다.<br/>메이크오버쇼는 줄곧 외모지상주의와 성형 열풍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렛미인>은 세를 넓히고 있다. 이전 시즌까지는 CJ E&M 계열 채널인 스토리온에서 방송됐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tvN에서도 공동 방영된다. 한국여성민우회·서울YWCA 등 단체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CJ E&M 사옥 앞에서 ‘1시간짜리 성형광고 TV 성형 프로그램, 그만’이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달 말부터 온라인을 통해 ‘<렛미인> 등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중단’ 서명도 진행 중이다.<br/><br/>이들이 <렛미인> 등 메이크오버쇼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일관된 ‘신데렐라’ 서사구조 때문이다. 출연자들이 성형으로 외모를 개선해 그 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식의 ‘성형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외모를 향한 끝없는 모욕과 상처’, ‘고통과 암흑 속에 갇힌 삶’, ‘<렛미인>을 통해 얻은 제2의 인생’ 등으로 이어지는 방송 자막은 이를 잘 드러낸다. 김재현 서울YWCA 여성참여팀 부장은 “<span class='quot0'>메이크오버쇼는 기본적으로 성형수술을 통해 예뻐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조장한다</span>”고 말했다.<br/>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 1월 시장조사전문기업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메이크오버쇼에 대해 설문한 결과, ‘자칫 성형을 조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5.7%에 달했다. 반면 ‘외모 콤플렉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공해준다’고 한 응답자는 35.6%에 그쳤다. 응답자의 78.2%는 ‘메이크오버쇼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를 보여준다’는 데 동의했고, 77.6%는 ‘성형을 부추기거나 성형을 쉽게 생각하게 만든다’고 응답했다.<br/>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외모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제당하거나 취업시장에서 불리해지는 한국 같은 외모 중시 사회에서는, 성형을 통해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나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1'>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몸을 교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몸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는 건 과도한 미디어·광고의 부추김에 따른 특이한 현상</span>”이라고 분석했다.<br/>또 한국여성민우회는 수술 병원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수술 장면·성형 전후 비교 장면을 연출한다는 점을 들어 <렛미인>을 ‘1시간짜리 의료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출연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 보여주거나 왜곡된 카메라 앵글로 강조하는 연출도 문제로 꼽힌다. 성형 이전 외모를 ‘역대급 충격’ ‘총체적 난국’ 등으로 묘사하는 자막도 마찬가지다.<br/><렛미인>을 둘러싼 논란은 제작진 역시 의식하고 있다. 지난 4일 <렛미인> 시즌5 제작발표회에서 연출 박현우 PD는 “<span class='quot2'><렛미인>은 무조건 외모를 바꿔주는 성형 프로그램이 아니다</span>”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2'>신체적으로 기능을 못하거나 암수술로 가슴 한쪽이 없는 경우처럼 성형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성형을 하나의 도구로써 지원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운동·교육과 함께 피부과·치과·정신과 치료를 하는데 성형만 부각돼 보이는 것 같다</span>”고 설명했다.<br/><렛미인> 시즌1부터 방송을 함께한 양재진 진병원 원장은 “<span class='quot3'>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고 자존감을 찾는 평균 외모를 찾는 걸 도와주는 프로그램</span>”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 병원 홍보 논란에 대해 박 PD는 “<span class='quot2'>시즌4까지는 규제가 없었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블로그와 병원 홈페이지에서의 광고 기준을 마련해 병원에 배포했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13.txt

제목: 보성·전주 환자 ‘음성 → 양성’ 판정 오락가락  
날짜: 20150611  
기자: 박용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1100000143  
본문: 전남지역 첫 메르스 확진 환자인 ㄱ씨(64)는 메르스 유전자 한 부위만 확인하는 지난 8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0일 2차 검사 결과 최종 ‘양성’ 확진 환자로 판정됐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확진용 시약을 활용한 2차 검사에서 보성에 사는 ㄱ씨가 양성이 나와 지자체에 이양된 확진 권한에 따라 최종 확진 판정했다. ㄱ씨는 지난달 27일 폐렴 증상으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 5시간 동안 머물며 14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정부의 확진 환자 명단에는 빠져 있다.<br/>전북 전주에서도 1·2차 음성 판정을 받고 능동감시자로 전환됐던 ㄴ씨(63)가 이날 최종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순창, 김제에 이어 전주에서도 메르스 양성 반응자가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2차 음성 판정을 받은 의심환자가 재검사를 거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ㄴ씨는 음성 판정 이후 능동감시자였고, 지난 7일부터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리돼 외부로부터 재감염될 가능성은 없다. <br/>전북도 메르스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지난달 31일 1차 검사와 지난 1일 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ㄴ씨가 9일 밤 근육통과 기침, 설사 증세가 심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ㄴ씨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아내의 암치료를 위해 내원했다. 1일 실시된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접촉자 92명도 격리가 해제된 상태여서 추가 감염자가 우려되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14.txt

제목: 중 ‘뇌물수수’ 저우융캉 무기징역 선고  
날짜: 2015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110017569201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상무위원 부패 처벌 첫 사례</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저우융캉 “항소 않겠다”</strong><!-- SUB\_TITLE\_END--><br/><br/>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저우융캉(周永康·73) 전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에게 11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톈진(天津)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저우융캉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개인 재산 몰수 결정을 함께 내렸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br/><br/><br/>법원은 기소된 그의 3대 혐의 중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적용했다. 직권남용죄와 국가기밀 고의누설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적용한 뒤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저우융캉은 법정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br/><br/>당초 지난 4월 초 기소된 저우융캉에게는 최고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일가가 부패에 연루된 데다 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가면서 부패 규모가 천문학적 규모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내 원로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사형까지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br/><br/>1949년 신중국이 성립한 후 상무위원이 부패 혐의로 기소돼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공산당 내부 불문율을 깨뜨린 것으로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반부패 전쟁에 큰 성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br/><br/>인민일보는 이날 “<span class='quot0'>어느 누구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지 않다</span>”고 논평했다. 그의 재판은 지난달 22일 비공개리에 열렸다. 신화통신은 이에 대해 국가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br/><br/>저우융캉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시절 사법과 공안을 장악, 권력 분점체제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 링지화(令計劃) 전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과 함께 시진핑 체제의 출범을 막으려 한 ‘신4인방’으로 알려져 있다. 쉬차이허우는 암으로 숨졌고 저우융캉과 보시라이는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제 링지화만 남게 됐다.<br/><br/><베이징 | 오관철 특파원 ok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15.txt

제목: 발열·기침·가래·근육통·호흡곤란 순으로 많아  
날짜: 20150610  
기자: 김지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0100000150  
본문: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10명 중 9명은 발열이 일어나고, 기침·가래·근육통 순으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해열까지는 평균 7일이 걸렸고, 환자들이 평소 앓던 질병은 고혈압과 당뇨, 암, 만성폐질환 등이 많았다.<br/>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9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2015년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메르스의 임상 양상’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 메르스 치료 환자 중 자료 수집이 가능한 58명의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br/><br/>환자 52명(89.6%)은 발열 증세가, 20명(34.4%)은 기침 증세가 나타났다. 객담(가래)과 근육통 증상을 보인 환자도 각각 22.4%(13명)였으며 호흡곤란(18.9%), 두통(13.9%), 설사(10.3%) 등의 증상도 보였다.<br/>특이한 점은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은 환자도 1명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초기에는 중증이 다수를 차지하다 환자가 늘면서 경증 내지 일부 무증상 사례도 나타났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추이를 좀 더 봐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환자들이 감염 전부터 앓던 기저질환 중에는 고혈압이 17.2%(10명)로 가장 많았다. 당뇨병 13.7%(8명), 암 12.0%(7명), 만성폐질환 10.3%(6명), 만성간질환 8.6%(5명), 심장질환 8.6%(5명)이 뒤를 이었다.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36.2%(21명)였다. <br/>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사우디는 환자 가운데 만성신부전 환자가 상당수 있었고 이들 환자가 더 중증으로 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만성신장질환 환자가 현재까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이것이 사우디보다 치사율이 낮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는 16.6%였으며, 12%는 인공호흡기를 썼다. 입원 환자의 54%는 7일째에 해열이 이뤄졌다. 메르스 바이러스 억제를 위해 사용된 약제는 인터페론(44.2%), 리바비린(48.0%), 로피나비르(25.0%) 등이었다. 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0'>현재 메르스 치료제가 없다보니 이런 약제를 단독으로 쓰거나 병합해 쓰고 있다</span>”고 말했다. 2차 세균성 폐렴을 억제하기 위해 절반 이상(55.7%)이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16.txt

제목: 전주서도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전북 3번째 감염  
날짜: 201506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010017543473  
본문: 전북 전주에서 메르스 1, 2차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던 ㄱ씨(63)가 10일 최종 양성 확진판정을 받았다. 순창, 김제에 이어 전주에서도 메르스 양성반응자가 나온 것이다.<br/><br/>전북도 메르스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지난달 31일 1차 검사와 1일 2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던 ㄱ씨가 9일 밤 근육통과 기침, 설사 증세가 심해 역학조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br/><br/>ㄱ씨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아내의 암치료를 위해 내원했고, 31일 오한과 발열증세가 심해지자 전주예수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ㄱ씨는 당시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14번 환자와 접촉해 격리대상자임을 통보받고 보건소에 신고했다. 자가격리된 ㄱ씨는 이날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1일 실시된 2차 검사에도 음성판정을 받아 접촉자 92명도 격리가 해제된 상태였다.<br/><br/>전북도 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예수병원 방문시 ㄱ씨와 접촉했던 92명에 대해 전원 자가격리조치를 다시 취하고 ㄱ씨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br/><br/><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17.txt

제목: 보성·전주 환자 ‘음성 → 양성’ 판정 오락가락  
날짜: 201506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010017552433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전주선 1·2차 음성 후 접촉</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92명도 격리해제… 추가감염 우려</strong><!-- SUB\_TITLE\_END--><br/><br/>전남지역 첫 메르스 확진 환자인 ㄱ씨(64)는 메르스 유전자 한 부위만 확인하는 지난 8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0일 2차 검사 결과 최종 ‘양성’ 확진 환자로 판정됐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확진용 시약을 활용한 2차 검사에서 보성에 사는 ㄱ씨가 양성이 나와 지자체에 이양된 확진 권한에 따라 최종 확진 판정했다. ㄱ씨는 지난달 27일 폐렴 증상으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 5시간 동안 머물며 14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정부의 확진 환자 명단에는 빠져 있다.<br/><br/>전북 전주에서도 1·2차 음성 판정을 받고 능동감시자로 전환됐던 ㄴ씨(63)가 이날 최종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순창, 김제에 이어 전주에서도 메르스 양성 반응자가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2차 음성 판정을 받은 의심환자가 재검사를 거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ㄴ씨는 음성 판정 이후 능동감시자였고, 지난 7일부터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리돼 외부로부터 재감염될 가능성은 없다. <br/><br/>전북도 메르스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지난달 31일 1차 검사와 지난 1일 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ㄴ씨가 9일 밤 근육통과 기침, 설사 증세가 심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ㄴ씨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아내의 암치료를 위해 내원했다. 1일 실시된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접촉자 92명도 격리가 해제된 상태여서 추가 감염자가 우려되고 있다.<br/><br/><박용근·배명재 기자 yk21@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18.txt

제목: 성형으로 예뻐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렛미인’ 시즌5, 끊임없는 논란 속 tvN으로 확대 방송  
날짜: 201506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1010017551559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총체적 난국→역대급 변화’ 내세워… 자극적 자막에 왜곡된 앵글 여전</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시민단체 “외모지상주의·성형 조장” 제작진 “출연자 자존감 찾게 도와줘”</strong><!-- SUB\_TITLE\_END--><br/><br/>‘논란을 넘어 감동으로.’ 지난주 시즌5 방영을 시작한 스토리온 <Let美人>(<렛미인>)의 캐치프레이즈다. <렛미인>은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 출연자의 사연을 소개하고, 피부과·내과·성형외과·치과 등 다양한 분야 의사들로 구성된 ‘렛미인 닥터스’의 지원을 받아 출연자의 외모를 변화시키는 ‘메이크오버쇼’다.<br/><br/>메이크오버쇼는 줄곧 외모지상주의와 성형 열풍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렛미인>은 세를 넓히고 있다. 이전 시즌까지는 CJ E&amp;M 계열 채널인 스토리온에서 방송됐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tvN에서도 공동 방영된다. 한국여성민우회·서울YWCA 등 단체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CJ E&amp;M 사옥 앞에서 ‘1시간짜리 성형광고 TV 성형 프로그램, 그만’이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달 말부터 온라인을 통해 ‘<렛미인> 등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중단’ 서명도 진행 중이다.<br/><br/><br/>이들이 <렛미인> 등 메이크오버쇼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일관된 ‘신데렐라’ 서사구조 때문이다. 출연자들이 성형으로 외모를 개선해 그 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식의 ‘성형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외모를 향한 끝없는 모욕과 상처’, ‘고통과 암흑 속에 갇힌 삶’, ‘<렛미인>을 통해 얻은 제2의 인생’ 등으로 이어지는 방송 자막은 이를 잘 드러낸다. 김재현 서울YWCA 여성참여팀 부장은 “<span class='quot0'>메이크오버쇼는 기본적으로 성형수술을 통해 예뻐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조장한다</span>”고 말했다.<br/><br/>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 1월 시장조사전문기업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메이크오버쇼에 대해 설문한 결과, ‘자칫 성형을 조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5.7%에 달했다. 반면 ‘외모 콤플렉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공해준다’고 한 응답자는 35.6%에 그쳤다. 응답자의 78.2%는 ‘메이크오버쇼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를 보여준다’는 데 동의했고, 77.6%는 ‘성형을 부추기거나 성형을 쉽게 생각하게 만든다’고 응답했다.<br/><br/>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외모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제당하거나 취업시장에서 불리해지는 한국 같은 외모 중시 사회에서는, 성형을 통해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나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1'>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몸을 교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몸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는 건 과도한 미디어·광고의 부추김에 따른 특이한 현상</span>”이라고 분석했다.<br/><br/>또 한국여성민우회는 수술 병원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수술 장면·성형 전후 비교 장면을 연출한다는 점을 들어 <렛미인>을 ‘1시간짜리 의료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출연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 보여주거나 왜곡된 카메라 앵글로 강조하는 연출도 문제로 꼽힌다. 성형 이전 외모를 ‘역대급 충격’ ‘총체적 난국’ 등으로 묘사하는 자막도 마찬가지다.<br/><br/><렛미인>을 둘러싼 논란은 제작진 역시 의식하고 있다. 지난 4일 <렛미인> 시즌5 제작발표회에서 연출 박현우 PD는 “<span class='quot2'><렛미인>은 무조건 외모를 바꿔주는 성형 프로그램이 아니다</span>”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2'>신체적으로 기능을 못하거나 암수술로 가슴 한쪽이 없는 경우처럼 성형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성형을 하나의 도구로써 지원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운동·교육과 함께 피부과·치과·정신과 치료를 하는데 성형만 부각돼 보이는 것 같다</span>”고 설명했다.<br/><br/><렛미인> 시즌1부터 방송을 함께한 양재진 진병원 원장은 “<span class='quot3'>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고 자존감을 찾는 평균 외모를 찾는 걸 도와주는 프로그램</span>”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 병원 홍보 논란에 대해 박 PD는 “<span class='quot2'>시즌4까지는 규제가 없었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블로그와 병원 홈페이지에서의 광고 기준을 마련해 병원에 배포했다</span>”고 밝혔다.<br/><br/><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19.txt

제목: 이어령 전 장관, 먼저 세상 떠난 딸 추모 ‘굿나잇 키스’ 펴내  
날짜: 20150609  
기자: 권재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09100000126  
본문: “<span class='quot0'>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딸을 잃은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세상 모든 이에게 바친다.</span>”<br/><br/>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81·사진)이 2012년 먼저 세상을 떠난 딸 이민아 목사를 추모하는 글을 모은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열림원)를 펴냈다. 책은 딸의 출생과 성장 과정, 첫사랑과의 결혼, 실패의 아픔, 투병 이후 영혼의 눈을 뜨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단편 에세이들과 시편 등으로 엮었다. <br/>고인은 ‘한국의 지성’이라 불려온 이 전 장관과 강인숙 건국대 명예교수의 1녀2남 중 맏딸로 태어났다.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지만 야권 정치인과의 첫 결혼에 실패했고, 실명 위기와 첫아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 아픔마저 겪었다. 종교에 귀의해 목사의 길을 걸었지만, 암 판정을 받았고 끝내 이겨내지 못했다. <br/>이 전 장관의 글들은 개인 차원을 넘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애틋함과 사랑, 절절함을 보여준다. 어린 시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는 고인의 생전 인터뷰는 고스란히 이 전 장관의 아픔으로 남았다. 30초의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펜을 내려놓고,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펴 가슴에 안아보겠다는 이 전 장관은 이제는 세상에 없는 딸에게 “<span class='quot1'>너는 나를 아버지로 만든 내 인생 최고의 스승이었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20.txt

제목: 메르스 환자 58명 증상 분석해보니… 발열·기침·가래·근육통·호흡곤란 순으로 많아  
날짜: 2015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0910017512923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대한감염학회 분석</strong><!-- SUB\_TITLE\_END--><br/><br/>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10명 중 9명은 발열이 일어나고, 기침·가래·근육통 순으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해열까지는 평균 7일이 걸렸고, 환자들이 평소 앓던 질병은 고혈압과 당뇨, 암, 만성폐질환 등이 많았다.<br/><br/>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9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2015년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메르스의 임상 양상’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 메르스 치료 환자 중 자료 수집이 가능한 58명의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br/><br/><br/>환자 52명(89.6%)은 발열 증세가, 20명(34.4%)은 기침 증세가 나타났다. 객담(가래)과 근육통 증상을 보인 환자도 각각 22.4%(13명)였으며 호흡곤란(18.9%), 두통(13.9%), 설사(10.3%) 등의 증상도 보였다.<br/><br/>특이한 점은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은 환자도 1명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초기에는 중증이 다수를 차지하다 환자가 늘면서 경증 내지 일부 무증상 사례도 나타났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추이를 좀 더 봐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환자들이 감염 전부터 앓던 기저질환 중에는 고혈압이 17.2%(10명)로 가장 많았다. 당뇨병 13.7%(8명), 암 12.0%(7명), 만성폐질환 10.3%(6명), 만성간질환 8.6%(5명), 심장질환 8.6%(5명)이 뒤를 이었다.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36.2%(21명)였다. <br/><br/>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사우디는 환자 가운데 만성신부전 환자가 상당수 있었고 이들 환자가 더 중증으로 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만성신장질환 환자가 현재까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이것이 사우디보다 치사율이 낮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는 16.6%였으며, 12%는 인공호흡기를 썼다. 입원 환자의 54%는 7일째에 해열이 이뤄졌다. 메르스 바이러스 억제를 위해 사용된 약제는 인터페론(44.2%), 리바비린(48.0%), 로피나비르(25.0%) 등이었다. 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0'>현재 메르스 치료제가 없다보니 이런 약제를 단독으로 쓰거나 병합해 쓰고 있다</span>”고 말했다. 2차 세균성 폐렴을 억제하기 위해 절반 이상(55.7%)이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br/><br/><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21.txt

제목: [여적]수맥(水脈)  
날짜: 20150609  
기자: 김석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09100000073  
본문: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현충원)의 박정희 전 대통령, 육영수 여사 묘소는 풍수전문가들의 입길에 자주 오르내린다. 풍수지리 대가로 알려진 지창룡씨와 손석우씨가 묘터를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에서 수맥(水脈)이 발견돼 수맥차단 공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모의 묘를 이장하기도 했다.<br/>수맥 전문가들은 땅속을 흐르는 수맥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수맥이 지나가는 곳에서 생활하면 피로, 뇌졸중, 암 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수맥파는 비행기에서도 측정될 만큼 강력하다고도 한다. 수맥을 측정할 때는 수맥봉(L자 모양의 금속봉), 추, 나뭇가지 등을 쓴다. 동판과 은박지가 수맥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은 수맥차단 돌침대, 베개, 동파이프, 장판 등이 시중에 나와 있다. 아파트 건설에 수맥차단 공법을 적용하기도 한다.<br/>동양 풍수에서도 음택(묘)에 물이 고이면 흉하다고 하지만 정작 수맥탐사는 서양에서 시작됐다. 성경에 물을 찾고, 사람을 살린 ‘하느님의 지팡이(Rod of God)’를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Y자 모양의 나뭇가지로 물을 찾았다는 기록도 있다. 영국에서 수맥에 정통했던 다우저의 이름을 따 수맥탐사를 다우징(Dowsing)으로 부른다. 바티칸 베드로 성당 복원에도 수맥 전문가가 동원됐다.<br/>한국의 수맥탐사는 1836년 프랑스 외방선교회 신부가 들여왔다. 프랑스 출신 메르메 신부와 부르드 신부는 1900~1930년대 금광 개발에 도움을 줬다. 이들에게 직접 배운 신인식 신부의 수맥탐사법은 임응승 신부에게 전해졌다. 평생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온천수와 지하수를 찾아내는 등 국내 수맥탐사의 1인자 임 신부가 그제 93세로 선종했다고 한다. 그는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20여 군데의 수맥을 찾아 한센병 환자들이 생수를 자급하도록 도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span class='quot0'>탐사 행위가 남을 돕는 행위로써 가옥의 검사나 물을 탐색할 때 하느님의 뜻과 보호를 받게 된다</span>”는 가톨릭 교령에 따라 유익한 일에만 수맥을 짚어온 임 신부를 생각하면 수맥 차단용이라며 ‘달마도’를 팔아먹는 등의 사이비 수맥 전문가들이 가소롭기만 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22.txt

제목: ‘천연의 치료제’ 면역력 올리려면… 온욕·1시간 햇볕 쬐며 운동하면 효과적  
날짜: 20150609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09100000189  
본문: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등으로 인한 감염병을 이겨내는 가장 핵심적 요소는 외부인자(항원)에 대한 인체의 방어시스템인 면역력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 유행기에 면역력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체의 내부환경이 항원을 못 들어오게 막고, 설사 침입하더라도 항체를 만들어 대항함으로써 발병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몸에 생긴 면역력은 감염병뿐 아니라 암이나 알레르기 등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천연의 치료제’인 셈이다.<br/><br/>8일 양·한방 전문의들에 따르면 면역기능을 높이려면 우선 고른 영양 섭취가 필수적이다. 영양 불량에 의한 생체 방어기능의 저하는 감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또다시 감염으로 인해 저영양 상태가 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특히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식물영양소 등 네 가지가 부족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특정 음식에 기대기보다는 골고루 먹어야 한다.<br/>하루 1시간 정도 햇볕을 쬐며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면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다. 면역에 필요한 비타민D를 합성하고 깊은 호흡과 긴장·이완을 통해 면역세포의 활성과 더불어 혈액·림프액의 순환을 촉진한다.<br/>계속되는 스트레스와 과로는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심호흡과 함께 명상을 하면 긴장과 스트레스가 잘 풀린다. 충분한 휴식과 숙면으로 피로가 쌓이지 않게 해야 한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깊은 잠을 자면 면역력을 강화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된다.<br/>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같이 떨어진다.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시고 온욕을 하면 좋다. 따뜻한 음료는 콧속의 건조를 방지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보온에 주의하고, 특히 산행이나 야외 운동 시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br/>면역시스템은 크게 자연면역과 획득면역이 있다. 자연면역은 항원의 침입을 차단하는 기능으로 피부, 점액조직, 위산, 혈액, 림프액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획득면역은 처음 침입한 항원을 기억해 이 항원이 다시 침입할 때 알아서 반응하는 것이다. B임파구나 T임파구의 활동, 인공면역(백신 접종) 등이 획득면역에 속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23.txt

제목: [TV하이라이트]2015년 6월 10일  
날짜: 2015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0910017512833  
본문: <b>잠든 건우에 속마음을 꺼낸 정주</b><br/>맨도롱 또�f(MBC 오후 10시) = 9화. 건우는 정주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안도한다. 건우는 정주에게 아픈 것과 상관없이 레스토랑을 계속 운영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마냥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정주는 짐을 싸기 시작한다. 그리고 떠나기 전, 정주는 잠이 든 건우의 등을 보며 맘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한다. 또한 사장 정근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에 대해 해녀 해실에게 용서를 구한다. <br/><br/><b>할머니의 일터는 철길로 2시간</b><br/>한국 기행(EBS 오후 9시30분) = 매일 아침 9시40분 분천역으로 향하는 조봉순 할머니를 만나본다. 태백 황지시장으로 향하는 할머니는 왕복 4시간이나 걸리지만 평생 일터이기에 분천으로 이사를 온 뒤에도 매일 간다.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채소 장사를 시작해 자식들을 키웠고, 이제는 습관처럼 장사를 하러 간다고 이야기한다. 또 할머니는 이젠 기차 좌석, 오는 시간, 간이역까지 줄줄 꿴다고 말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24.txt

제목: 이어령 전 장관, 먼저 세상 떠난 딸 추모 ‘굿나잇 키스’ 펴내  
날짜: 201506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0810017503354  
본문: “<span class='quot0'>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딸을 잃은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세상 모든 이에게 바친다.</span>”<br/><br/><br/>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81·사진)이 2012년 먼저 세상을 떠난 딸 이민아 목사를 추모하는 글을 모은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열림원)를 펴냈다. 책은 딸의 출생과 성장 과정, 첫사랑과의 결혼, 실패의 아픔, 투병 이후 영혼의 눈을 뜨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단편 에세이들과 시편 등으로 엮었다. <br/><br/>고인은 ‘한국의 지성’이라 불려온 이 전 장관과 강인숙 건국대 명예교수의 1녀2남 중 맏딸로 태어났다.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지만 야권 정치인과의 첫 결혼에 실패했고, 실명 위기와 첫아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 아픔마저 겪었다. 종교에 귀의해 목사의 길을 걸었지만, 암 판정을 받았고 끝내 이겨내지 못했다. <br/><br/>이 전 장관의 글들은 개인 차원을 넘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애틋함과 사랑, 절절함을 보여준다. 어린 시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는 고인의 생전 인터뷰는 고스란히 이 전 장관의 아픔으로 남았다. 30초의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펜을 내려놓고,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펴 가슴에 안아보겠다는 이 전 장관은 이제는 세상에 없는 딸에게 “<span class='quot1'>너는 나를 아버지로 만든 내 인생 최고의 스승이었다</span>”고 말했다.<br/><br/><권재현 기자 jaynews@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25.txt

제목: [여적]수맥(水脈)  
날짜: 201506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0810017503324  
본문: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현충원)의 박정희 전 대통령, 육영수 여사 묘소는 풍수전문가들의 입길에 자주 오르내린다. 풍수지리 대가로 알려진 지창룡씨와 손석우씨가 묘터를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에서 수맥(水脈)이 발견돼 수맥차단 공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모의 묘를 이장하기도 했다.<br/><br/>수맥 전문가들은 땅속을 흐르는 수맥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수맥이 지나가는 곳에서 생활하면 피로, 뇌졸중, 암 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수맥파는 비행기에서도 측정될 만큼 강력하다고도 한다. 수맥을 측정할 때는 수맥봉(L자 모양의 금속봉), 추, 나뭇가지 등을 쓴다. 동판과 은박지가 수맥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은 수맥차단 돌침대, 베개, 동파이프, 장판 등이 시중에 나와 있다. 아파트 건설에 수맥차단 공법을 적용하기도 한다.<br/><br/>동양 풍수에서도 음택(묘)에 물이 고이면 흉하다고 하지만 정작 수맥탐사는 서양에서 시작됐다. 성경에 물을 찾고, 사람을 살린 ‘하느님의 지팡이(Rod of God)’를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Y자 모양의 나뭇가지로 물을 찾았다는 기록도 있다. 영국에서 수맥에 정통했던 다우저의 이름을 따 수맥탐사를 다우징(Dowsing)으로 부른다. 바티칸 베드로 성당 복원에도 수맥 전문가가 동원됐다.<br/><br/>한국의 수맥탐사는 1836년 프랑스 외방선교회 신부가 들여왔다. 프랑스 출신 메르메 신부와 부르드 신부는 1900~1930년대 금광 개발에 도움을 줬다. 이들에게 직접 배운 신인식 신부의 수맥탐사법은 임응승 신부에게 전해졌다. 평생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온천수와 지하수를 찾아내는 등 국내 수맥탐사의 1인자 임 신부가 그제 93세로 선종했다고 한다. 그는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20여 군데의 수맥을 찾아 한센병 환자들이 생수를 자급하도록 도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span class='quot0'>탐사 행위가 남을 돕는 행위로써 가옥의 검사나 물을 탐색할 때 하느님의 뜻과 보호를 받게 된다</span>”는 가톨릭 교령에 따라 유익한 일에만 수맥을 짚어온 임 신부를 생각하면 수맥 차단용이라며 ‘달마도’를 팔아먹는 등의 사이비 수맥 전문가들이 가소롭기만 하다.<br/><br/><김석종 논설위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26.txt

제목: ‘천연의 치료제’ 면역력 올리려면… 온욕·1시간 햇볕 쬐며 운동하면 효과적  
날짜: 201506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0810017503501  
본문: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등으로 인한 감염병을 이겨내는 가장 핵심적 요소는 외부인자(항원)에 대한 인체의 방어시스템인 면역력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 유행기에 면역력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체의 내부환경이 항원을 못 들어오게 막고, 설사 침입하더라도 항체를 만들어 대항함으로써 발병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몸에 생긴 면역력은 감염병뿐 아니라 암이나 알레르기 등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천연의 치료제’인 셈이다.<br/><br/><br/><br/><CENTER><iframe width="540" height="405" src="http://www.youtube.com/embed/2lorwOnyr9w"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CENTER><br/><br/>8일 양·한방 전문의들에 따르면 면역기능을 높이려면 우선 고른 영양 섭취가 필수적이다. 영양 불량에 의한 생체 방어기능의 저하는 감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또다시 감염으로 인해 저영양 상태가 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특히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식물영양소 등 네 가지가 부족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특정 음식에 기대기보다는 골고루 먹어야 한다.<br/><br/>하루 1시간 정도 햇볕을 쬐며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면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다. 면역에 필요한 비타민D를 합성하고 깊은 호흡과 긴장·이완을 통해 면역세포의 활성과 더불어 혈액·림프액의 순환을 촉진한다.<br/><br/>계속되는 스트레스와 과로는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심호흡과 함께 명상을 하면 긴장과 스트레스가 잘 풀린다. 충분한 휴식과 숙면으로 피로가 쌓이지 않게 해야 한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깊은 잠을 자면 면역력을 강화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된다.<br/><br/>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같이 떨어진다.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시고 온욕을 하면 좋다. 따뜻한 음료는 콧속의 건조를 방지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보온에 주의하고, 특히 산행이나 야외 운동 시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br/><br/>면역시스템은 크게 자연면역과 획득면역이 있다. 자연면역은 항원의 침입을 차단하는 기능으로 피부, 점액조직, 위산, 혈액, 림프액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획득면역은 처음 침입한 항원을 기억해 이 항원이 다시 침입할 때 알아서 반응하는 것이다. B임파구나 T임파구의 활동, 인공면역(백신 접종) 등이 획득면역에 속한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27.txt

제목: [건강]암 치료 후 5년 이상 생존자, 재흡연율 15%  
날짜: 201506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05100000048  
본문: 암을 치료한 뒤에도 상당수가 흡연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연세암병원(병원장 노성훈) 암예방센터가 위암, 대장암 진단을 받고 5년 이상 생존한 62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암 진단 전 흡연자 298명 중 44명(14.8%)이 담배를 끊지 못했거나 한동안 끊었다가 다시 피우고 있었다.<br/>계속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73.9%는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금연한 사람의 음주 비율(46.6%)보다 훨씬 높았다. 연령별로 20~50대 암 생존자의 금연 비율은 82.3%에 그쳐 60대 이상 암 생존자(90.2%)보다 낮았다. 흡연 중인 암 생존자는 59.1%만 따로 운동을 한다고 답해 금연한 암 생존자의 운동 비율(74.8%)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다.<br/>담배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은 물론 위암, 식도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신장암, 대장암, 백혈병 등 여러 암의 원인으로 꼽힌다. <br/>특히 암 생존자가 담배를 피우면 암 재발률이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3.5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br/>노성훈 연세암병원 원장은 “<span class='quot0'>최근 조기 암이 늘면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없이 수술로 완치한 환자들 중 암을 가볍게 생각하고 흡연이나 음주를 지속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span>”고 지적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28.txt

제목: 미국, 세계 최초 두개골 및 두피 이식 수술 성공  
날짜: 201506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0510017483230  
본문: 미국 의료진이 세계 최초로 두개골·두피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br/><br/>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있는 최고 권위의 암 전문병원인 MD 앤더슨 암 센터와 휴스턴 감리교 병원 의료진은 암 치료 중 머리를 크게 다친 환자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두개골 일부와 두피를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4일 발표했다.<br/><br/>의료진은 지난달 22일 휴스턴 감리교 병원에서 기증받은 두피 조직과 모발을 남성 짐 보이슨(55)에게 이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네덜란드 의료진이 3차원 프린트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플라스틱 두개골을 여성에게 이식한 적이 있으나, 사람에게서 두개골과 두피를 기증받아 이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br/>수술을 마친 뒤 이날 퇴원한 보이슨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의료진이 두피 조직과 모발 색깔 등이 내게 잘 어울리도록 수술을 잘해 깜짝 놀랐다”면서 “아마 21살 시절보다 더 많은 머리털을 기르게 될 것 같다”며 만족했다.<br/><br/>보이슨은 두개골·두피 이식 수술과 동시에 신체 기능을 정상적으로 돕도록 신장·췌장도 한꺼번에 이식받았다. 의사 12명과 지원스태프 40명 등이 15시간 동안 수술을 했다. 가로와 세로 각각 25㎝ 규격의 이식 두개골과 폭이 38㎝인 두피를 이식한 데 이어 신장과 췌장도 옮겨졌다.<br/><br/>AP통신은 “<span class='quot0'>불가능으로 여겨진 여러 이식수술이 지난 10년간 현실로 이뤄졌다</span>”며 “<span class='quot0'>2005년 프랑스에서 안면이식 수술 24건, 손 이식 수술 70건 등이 성공적이었다</span>”고 소개했다.<br/><br/><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29.txt

제목: [건강]8일 세계과학기자대회 개막… 암·메르스 등 집중 조명  
날짜: 201506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05100000042  
본문: 한국과학기자협회와 세계과학기자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2015 세계과학기자대회’가 8~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br/>총 40개 학술 프로그램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메르스. 에볼라, 심장병, 암 등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과 이를 바라보는 과학저널리즘을 집중 조명한다. 개막일인 8일 오전 10시부터 2001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팀 헌트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와 1992년 퓰리처상 수상자 데보라 블럼 위스콘신대 교수가 전문가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 중·고생은 단체로 참가할 수도 있다. 공식 홈페이지(www.wcsj2015.or.kr)에서 사전 등록해야 한다. 과학언론에 입문하기 희망하는 예비 언론인과 프리랜서들에게 세계적인 언론사 편집인들과 대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편집자와의 만남’ 세션도 마련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30.txt

제목: [미스터M의 사랑받는 요리] 맛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가지요리’  
날짜: 201506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05100000006  
본문: 흔히 ‘가지 요리’라고 하면 가지나물을 떠올린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조리법으로 만들어 먹는 가장 친근한 식자재 중 하나다. 이탈리아에서는 가지 라자니아 요리가 유명하다.<br/><br/>오늘은 일본의 된장인 ‘하얀 미소’를 이용해 만드는 가지 요리를 소개한다. 아주 간단하지만 맛이 있어 밥반찬으로도 밥 한 공기를 뚝딱 없앨 수 있는 요리다.<br/><br/>준비할 식자재는 가지 2개, 백 미소(된장) 1.5 큰술, 식초 1큰술, 설탕 1큰술, 생강 30g. 올리브유 2큰술 등이다.<br/><br/>먼저 소스를 만들어 둔다. 생강을 강판에 곱게 간다. 깊이가 조금 있는 사기 그릇에 간 생강을 넣고 준비한 식초와 하얀 미소를 넣고 잘 섞으면 소스가 완성된다. <br/><br/>가지는 깨끗이 씻어서 두께가 있게 길게 반으로 자른다. 약불의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1큰술을 두르고 천천히 굽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가지를 뒤집어서 올리브유 1큰술을 더 두르고 반대쪽을 마저 천천히 익힌다. <br/><br/>가지가 속까지 다 익었을 때 접시에 담고 소스를 천천히 가지의 자른 면에 바른다. 하얀 미소는 무척 짜기 때문에 아주 얇게 바르면 밥 없이 그냥 먹어도 되고, 밥반찬으로 먹을 때에는 소스를 조금 많이 발라서 간이 세게 한다.<br/><br/>올리브 오일에 구운 맛이 싫은 사람은 끓는 물에 어느 정도 삶은 뒤에 물기를 빼고 기름을 두르지 않은 프라이팬의 중불에 겉만 색깔을 낸 뒤 소스를 바르면 굽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br/><br/>또 하얀 미소 대신에 복분자 간장에 물을 조금 희석해 식초·설탕과 곱게 간 생강을 넣고 잘 섞어서 바르면 생강 간장 가지 구이가 된다. <br/><br/>우리나라에서는 생강을 양념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음식의 핵심 맛은 생강에서 나온다.<br/><br/>무엇보다 가지는 효능이 탁월한 식재료다. 보라색 색소는 안토시안계의 나스닌과 히아신이 주 성분인데, 나스신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주며 동맥경화 등 순환기 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br/><br/>또 심장혈관계 환자들에게 좋은 음식으로 동맥경화증, 고혈압, 관상동맥경화증, 괴혈병 환자들이 먹으면 보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얼마 전에는 암에 걸린 한 유명 의사가 가지 요리를 열심히 먹어 암 수술 후 건강을 되찾았다고 소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br/><br/>가지는 자체의 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양념과 요리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이렇게 몸에도 좋다고 하니 여름철 보양 식자재로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31.txt

제목: 캐나다 13조원 담배소송, 흡연자 승소  
날짜: 20150603  
기자: 장은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03100000131  
본문: 17년간의 끈질긴 기다림 끝에 흡연 피해자들이 웃었다.<br/>캐나다 CBC뉴스는 “<span class='quot0'>퀘벡주 법원이 지난 1일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150억 캐나다달러(약 13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span>”고 2일 보도했다.<br/>소송 대상이 된 회사는 임페리얼 타바코와 로스만 벤슨 앤드 헤지스(RBH), JTI-맥도널드 등 3곳이다. <br/>원고 수만 100만명에 이른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질병을 얻은 환자들과 담배에 중독돼 끊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낸 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소송은 1998년 제기됐지만 재판절차는 2012년에야 시작됐다. 재판에 나온 증인만 67명, 검토된 증거자료는 4만3000건에 달했다.<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pan class='quot1'>담배회사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담배의 유해성을 직접 알리지 않고 이익 추구만을 택했다</span>”고 밝혔다. 1976년 1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흡연을 시작한 환자에게 10만 캐나다달러(약 8903만원), 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환자에게는 9만 캐나다달러(약 8013만원)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r/>흡연 피해자들은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2012년 폐암으로 남편을 잃은 68세 여성은 남편의 사진을 안고 “그 사람도 행복해할 것”이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br/>담배 회사들은 즉각 항소했다. 이들은 “1950년대부터 캐나다 시민들은 흡연이 유해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1963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96%가 흡연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답했다”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32.txt

제목: ‘암 극복’ 미국 92세 할머니, 마라톤 최고령 완주  
날짜: 20150602  
기자: 김서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02100000132  
본문: 암을 이겨낸 90대 여성이 최고령 마라톤 완주 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달 31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로큰롤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해리엇 톰슨(92)이 풀코스를 7시간24분36초에 완주해 최고령 완주 기록을 한 여성이 됐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br/><br/>피아니스트 출신인 톰슨은 76세의 늦은 나이에 달리기를 시작했다. 백혈병과 림프종 환자를 위한 모금 마라톤에 참가해보지 않겠느냐는 친구의 권유가 그를 마라톤으로 이끌었다. 구강암을 앓기도 했던 그는 “암으로 주변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모금 행사에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br/>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1월 67년간 함께했던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냈다. 설상가상으로 한쪽 다리에 포도상구균 감염증을 앓는 바람에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톰슨은 “<span class='quot0'>남편을 돌보고 다리를 치료하느라 힘든 한 해였다</span>”고 말했다. 방사선치료를 받은 그의 한쪽 다리는 아직도 성치 못하다.<br/>결승선을 통과한 톰슨은 “<span class='quot0'>오늘 끝까지 달렸다는 사실이 놀랍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span class='quot0'>달리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내가 환자들을 돕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나를 돕고 있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그가 마라톤 코스를 달리며 모은 금액은 10만달러(약 1억1100만원)에 이른다. 역대 남성 최고령 마라톤 완주 기록은 2011년 인도계 영국인 파우자 싱(당시 100세)이 가지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33.txt

제목: 동아시아의 모순에 유쾌한 풍자와 익살… 한·중·일의 50대 세 작가 가상도시 ‘시징의 세계’전  
날짜: 20150602  
기자: 한윤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02100000124  
본문: ‘시징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br/>40대에 들어선 한·중·일 세 나라의 남성 작가들이 유쾌하고도 진지한 장난처럼 시작한 프로젝트 그룹 ‘시징(西京)맨’의 활동이 햇수로 10년째를 맞는다. 한국의 김홍석(51), 중국의 첸샤오시옹(53), 일본의 오자와 쓰요시(50)가 2006년 결성한 시징맨은 시징이란 가상도시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퍼포먼스, 비디오, 설치 작업으로 선보이면서 동아시아 현실에 비판과 풍자, 대안 제시를 해왔다.<br/>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고 있는 ‘시징의 세계’전은 이들이 그동안 해온 작업을 한 공간에 모아놓은 전시다. 시징맨이 건설한 도시 시징의 이야기가 ‘시징을 아시나요?’ ‘시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시징이군요’ ‘시징을 사랑해요’ 등 4개 주제로 펼쳐진다.<br/><br/>도입부인 ‘시징을 아시나요?’는 세 작가가 영종도, 하이난섬, 오키나와에서 시징이란 도시를 아는지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인터뷰 영상이다. 어떤 사람은 시징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능청스럽게 연기하고, 어떤 사람은 낯선 표정을 짓기도 한다. 작가들은 섬 주민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나무총, 사탕 상자, 타월 트로피, 아령 모양 악기 등 시징의 유물을 제작했다.<br/>‘시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시징 출입국사무소와 시징 올림픽으로 구성돼 있다. 국경을 넘을 때 요구되는 여권이란 공식 문서가 생물학적·법적 상태만을 드러낼 뿐 개인의 특수성을 지워 버린다는 데 착안한 작가들은 각자 개성적인 춤과 노래를 선보이면서 출입국사무소를 통과하도록 만들었다. 한편 패권적 국가 이데올로기의 경연장으로 변질된 올림픽에 대한 풍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제작한 뒤 지난해 동계올림픽이 추가됐다. 퍼포먼스 영상 속에서 작가들은 사격, 마라톤, 축구, 역도, 수영, 투포환 등 올림픽 종목을 자신들이 정한 경기 규칙에 따라 행한다. 마라톤은 오래 자기로, 다이빙은 양동이에 머리 넣기로 대체된 시징 올림픽의 원칙은 단순함과 친밀함, 겸손이다. 시징기와 시징 올림픽기, 메달, 선수복 등 소품도 함께 전시됐다.<br/><br/><br/>‘이것이 시징이군요’는 시징맨이 서울(2007), 리버풀(2008), 나고야(2010) 등에서 전시를 열 때마다 해당 도시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서쪽으로 떠나는 여행’이란 주제로 공연을 만들도록 한 기록이다.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를 차용한 이 기획은 각 도시가 상상하는 미지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각자의 현실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또 유사한 주제를 가진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패러디한 ‘시징의 마법사’에는 세 작가가 등장한다. 사자,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분장을 한 세 사람은 계속 옷을 바꿔 입으면서 계몽적인 도로시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기를 꿈꾼다.<br/>마지막 주제인 ‘시징을 사랑해요’는 가르치기보다 서로 배우는 ‘시징 학교’, 환대권장법·적대감규제법·고독허가법·평등권장법·사고개발법 등 5개 헌법을 수호하는 ‘시징 대통령의 일상생활’로 이뤄져 있다. 계속 증식하는 이 주제 속에서 작가들은 시징이란 국가의 체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상상한다.<br/>시징맨은 출신 지역명을 따 ‘광둥도쿄’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첸샤오시옹과 오자와가 2006년 도쿄 모리미술관 전시를 계기로 김홍석을 만나면서 의기투합해 만들었다. “<span class='quot0'>동경, 북경, 남경은 남아 있는데 서경은 사라졌으니 그룹 이름을 서경으로 하자, 서경(한국어)·시징(중국어)·사이쿄(일본어) 가운데 시징이 가장 발음하기 편하니 시징으로 하자고 즉석에서 정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심각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알고 있지만, 정치 현실에 둔감한 생활인으로서 감성에서 나온 새로운 공간을 상상하기로 했다</span>”고 김홍석은 회고했다. “각자 활동하면서 일 년에 평균 두 번쯤 시징맨의 이름으로 공동작업을 해왔다. 가족처럼 가까워졌고 잘 통했고 유쾌한 경험이었다”고 오자와는 말했다. 그런데 개막식에는 첸샤오시옹이 암 투병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다. 김홍석은 “<span class='quot1'>쓰요시와 함께 여름에 문병할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원래 5개 주제로 시징맨 활동을 마감할 계획이었는데, 좀 더 서둘러서 쉬운 작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span>”고 안타까워했다. 8월2일까지. (02)3701-9500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34.txt

제목: 캐나다 13조원 담배소송, 흡연자 승소  
날짜: 2015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0210017465590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17년간 재판, 원고 수만 100만명… 담배회사 3곳 항소</strong><!-- SUB\_TITLE\_END--><br/><br/>17년간의 끈질긴 기다림 끝에 흡연 피해자들이 웃었다.<br/><br/>캐나다 CBC뉴스는 “<span class='quot0'>퀘벡주 법원이 지난 1일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150억 캐나다달러(약 13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span>”고 2일 보도했다.<br/><br/>소송 대상이 된 회사는 임페리얼 타바코와 로스만 벤슨 앤드 헤지스(RBH), JTI-맥도널드 등 3곳이다. <br/><br/>원고 수만 100만명에 이른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질병을 얻은 환자들과 담배에 중독돼 끊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낸 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소송은 1998년 제기됐지만 재판절차는 2012년에야 시작됐다. 재판에 나온 증인만 67명, 검토된 증거자료는 4만3000건에 달했다.<br/><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pan class='quot1'>담배회사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담배의 유해성을 직접 알리지 않고 이익 추구만을 택했다</span>”고 밝혔다. 1976년 1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흡연을 시작한 환자에게 10만 캐나다달러(약 8903만원), 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환자에게는 9만 캐나다달러(약 8013만원)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r/><br/>흡연 피해자들은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2012년 폐암으로 남편을 잃은 68세 여성은 남편의 사진을 안고 “그 사람도 행복해할 것”이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br/><br/>담배 회사들은 즉각 항소했다. 이들은 “1950년대부터 캐나다 시민들은 흡연이 유해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1963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96%가 흡연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답했다”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br/><br/><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35.txt

제목: 동아시아의 모순에 유쾌한 풍자와 익살… 한·중·일의 50대 세 작가 가상도시 ‘시징의 세계’전  
날짜: 2015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0110017456736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개인성 지워버린 여권을 비판하며 춤·노래 해야 ‘출입국 사무소’ 통과</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이념의 경연장된 올림픽에 맞서서 ‘시징 올림픽’ 마라톤은 오래 자기</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계몽적인 도로시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기를 꿈꾸는 ‘시징의 마법사’</strong><!-- SUB\_TITLE\_END--><br/><br/>‘시징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br/><br/>40대에 들어선 한·중·일 세 나라의 남성 작가들이 유쾌하고도 진지한 장난처럼 시작한 프로젝트 그룹 ‘시징(西京)맨’의 활동이 햇수로 10년째를 맞는다. 한국의 김홍석(51), 중국의 첸샤오시옹(53), 일본의 오자와 쓰요시(50)가 2006년 결성한 시징맨은 시징이란 가상도시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퍼포먼스, 비디오, 설치 작업으로 선보이면서 동아시아 현실에 비판과 풍자, 대안 제시를 해왔다.<br/><br/>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고 있는 ‘시징의 세계’전은 이들이 그동안 해온 작업을 한 공간에 모아놓은 전시다. 시징맨이 건설한 도시 시징의 이야기가 ‘시징을 아시나요?’ ‘시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시징이군요’ ‘시징을 사랑해요’ 등 4개 주제로 펼쳐진다.<br/><br/><br/>도입부인 ‘시징을 아시나요?’는 세 작가가 영종도, 하이난섬, 오키나와에서 시징이란 도시를 아는지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인터뷰 영상이다. 어떤 사람은 시징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능청스럽게 연기하고, 어떤 사람은 낯선 표정을 짓기도 한다. 작가들은 섬 주민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나무총, 사탕 상자, 타월 트로피, 아령 모양 악기 등 시징의 유물을 제작했다.<br/><br/>‘시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시징 출입국사무소와 시징 올림픽으로 구성돼 있다. 국경을 넘을 때 요구되는 여권이란 공식 문서가 생물학적·법적 상태만을 드러낼 뿐 개인의 특수성을 지워 버린다는 데 착안한 작가들은 각자 개성적인 춤과 노래를 선보이면서 출입국사무소를 통과하도록 만들었다. 한편 패권적 국가 이데올로기의 경연장으로 변질된 올림픽에 대한 풍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제작한 뒤 지난해 동계올림픽이 추가됐다. 퍼포먼스 영상 속에서 작가들은 사격, 마라톤, 축구, 역도, 수영, 투포환 등 올림픽 종목을 자신들이 정한 경기 규칙에 따라 행한다. 마라톤은 오래 자기로, 다이빙은 양동이에 머리 넣기로 대체된 시징 올림픽의 원칙은 단순함과 친밀함, 겸손이다. 시징기와 시징 올림픽기, 메달, 선수복 등 소품도 함께 전시됐다.<br/><br/><br/><br/><br/>‘이것이 시징이군요’는 시징맨이 서울(2007), 리버풀(2008), 나고야(2010) 등에서 전시를 열 때마다 해당 도시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서쪽으로 떠나는 여행’이란 주제로 공연을 만들도록 한 기록이다.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를 차용한 이 기획은 각 도시가 상상하는 미지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각자의 현실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또 유사한 주제를 가진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패러디한 ‘시징의 마법사’에는 세 작가가 등장한다. 사자,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분장을 한 세 사람은 계속 옷을 바꿔 입으면서 계몽적인 도로시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기를 꿈꾼다.<br/><br/>마지막 주제인 ‘시징을 사랑해요’는 가르치기보다 서로 배우는 ‘시징 학교’, 환대권장법·적대감규제법·고독허가법·평등권장법·사고개발법 등 5개 헌법을 수호하는 ‘시징 대통령의 일상생활’로 이뤄져 있다. 계속 증식하는 이 주제 속에서 작가들은 시징이란 국가의 체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상상한다.<br/><br/>시징맨은 출신 지역명을 따 ‘광둥도쿄’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첸샤오시옹과 오자와가 2006년 도쿄 모리미술관 전시를 계기로 김홍석을 만나면서 의기투합해 만들었다. “<span class='quot0'>동경, 북경, 남경은 남아 있는데 서경은 사라졌으니 그룹 이름을 서경으로 하자, 서경(한국어)·시징(중국어)·사이쿄(일본어) 가운데 시징이 가장 발음하기 편하니 시징으로 하자고 즉석에서 정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심각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알고 있지만, 정치 현실에 둔감한 생활인으로서 감성에서 나온 새로운 공간을 상상하기로 했다</span>”고 김홍석은 회고했다. “각자 활동하면서 일 년에 평균 두 번쯤 시징맨의 이름으로 공동작업을 해왔다. 가족처럼 가까워졌고 잘 통했고 유쾌한 경험이었다”고 오자와는 말했다. 그런데 개막식에는 첸샤오시옹이 암 투병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다. 김홍석은 “<span class='quot1'>쓰요시와 함께 여름에 문병할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원래 5개 주제로 시징맨 활동을 마감할 계획이었는데, 좀 더 서둘러서 쉬운 작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span>”고 안타까워했다. 8월2일까지. (02)3701-9500<br/><br/><한윤정 선임기자 yjha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36.txt

제목: ‘암 극복’ 미국 92세 할머니, 마라톤 최고령 완주  
날짜: 2015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60110017456766  
본문: 암을 이겨낸 90대 여성이 최고령 마라톤 완주 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달 31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로큰롤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해리엇 톰슨(92)이 풀코스를 7시간24분36초에 완주해 최고령 완주 기록을 한 여성이 됐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br/><br/><br/>피아니스트 출신인 톰슨은 76세의 늦은 나이에 달리기를 시작했다. 백혈병과 림프종 환자를 위한 모금 마라톤에 참가해보지 않겠느냐는 친구의 권유가 그를 마라톤으로 이끌었다. 구강암을 앓기도 했던 그는 “암으로 주변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모금 행사에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br/><br/>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1월 67년간 함께했던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냈다. 설상가상으로 한쪽 다리에 포도상구균 감염증을 앓는 바람에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톰슨은 “<span class='quot0'>남편을 돌보고 다리를 치료하느라 힘든 한 해였다</span>”고 말했다. 방사선치료를 받은 그의 한쪽 다리는 아직도 성치 못하다.<br/><br/>결승선을 통과한 톰슨은 “<span class='quot0'>오늘 끝까지 달렸다는 사실이 놀랍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span class='quot0'>달리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내가 환자들을 돕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나를 돕고 있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그가 마라톤 코스를 달리며 모은 금액은 10만달러(약 1억1100만원)에 이른다. 역대 남성 최고령 마라톤 완주 기록은 2011년 인도계 영국인 파우자 싱(당시 100세)이 가지고 있다.<br/><br/><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37.txt

제목: 6월 8일 세계과학기자대회 개막…노벨상 석학과 스타 전문기자 대거 집결  
날짜: 201505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910017429823  
본문: ■메르스. 에볼라, 암, 심장병 등 건강과학 저널리즘 조명<br/><br/>한국과학기자협회와 세계과학기자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2015 세계과학기자대회’가 6월 8~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대회 기간 중 동시세션으로 운영되는 총 40개 학술 프로그램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과학언론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br/><br/>기조강연자로 2001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팀 헌트경(캠브리지대 명예교수), 2012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야마나카 신야(교토대 교수), BBC 라디오 건강 프로그램 진행자 코니 세인트루이스(런던 시티대 교수), 1992년 퓰리처상 수상자 데보라 블럼(위스콘신대 교수), 2014 퓰리처상 수상자 댄 페이긴(뉴욕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br/><br/><br/><br/>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대해 서울대 김진수 교수(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가 강연을 하며, 메르스와 에볼라 바이러스 등의 사례 통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세션에서는 ‘아시아의 바이러스 사낭꾼’이란 주제로 데니스 노마일(사이언스지 특파원)이 발표를 한다. 국립암센터 김열 교수(암관리사업부장)가 암환자에 대한 통합 치료 개념 및 관리 방안(신개념의 암 환자 지지의료)을 소개하며, 윌스트리트저널 론 윈슬로(과학담당 부국장)이 ‘암과 심혈관계 및 간질환 등의 비전염성 질환과 싸우는 아시아’에 대해 발표한다. ‘이슈 속으로: 에볼라 보도의 교훈’ 세션을 통해 위기 보도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례 및 통찰 공유의 시간을 갖는다.<br/><br/>개막일인 8일에 팀 헌트경과 데보라 블럼이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중강연을 한다. 대회 일정 및 발표내용, 참석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www.wcsj2015.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br/><br/>과학언론에 입문하기 희망하는 예비 언론인과 프리랜서들에게 세계적인 언론사 편집인들과의 대면 기회를 제공하는 ‘편집자와의 만남’ 세션도 마련된다. 자신의 기사 기획 방향을 이메일(editors@wcsj2015.or.kr)을 통해 6월 5일까지 영문 1문단 분량으로 접수하면 된다.<br/><br/>이번 대회의 조직위원장인 심재억 한국과학기자협회장은 “<span class='quot0'>세계적인 의과학 연구자 및 언론인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 보건 의료 커뮤니케이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span>”며 “<span class='quot0'>세계 최대 규모의 의과학 언론 행사의 전통과 명성에 걸맞게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38.txt

제목: 20·30대 여성 흡연율 증가… 담배, 여자 몸엔 더 쓰다  
날짜: 20150529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9100000073  
본문: 5월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다.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국내에서도 20·30대 여성 흡연율이 높아져 큰 문제</span>”라고 지적한다.<br/>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여성이 남성보다 크다. 담배의 독성물질은 대부분 지용성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지방이 10% 정도 많은 여성의 몸에서 잘 녹고, 오래 축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는 “<span class='quot1'>여성은 남성보다 폐가 작고 노폐물을 분해시키는 자정력이 약해 같은 양의 담배를 피워도 더 해롭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폐포의 변성이 빨라 남성 흡연자보다 폐암으로 사망할 위험 또한 2~3배 높다</span>”고 말했다.<br/><br/>일단 흡연을 시작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담배 끊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니코틴 대사에 관여하는 특정 효소의 활성도가 남성보다 커서 니코틴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여성의 특성상 생리 전에 나타나는 세로토닌의 변화로 기분이 우울해지고 충동성이 강해져 흡연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br/>흡연 여성은 비흡연 여성에 비해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각종 여성암의 발생 위험이 크다. 담배를 하루 1갑, 최소 10년 이상 피운 여성은 담배를 피우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약 60%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흡연이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인 인유두종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5년 이상 담배를 피운 여성은 자궁경부암 발병 위험이 무려 36배나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br/>임신부가 흡연을 할 경우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흡연 중인 산모에게 태어난 아이는 성장 후에도 암, 행동장애, 선천성 심장병, 청력 손실, 생식 능력과 폐 기능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다. <br/>스웨덴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 하루 1~9개비의 담배를 피운 여성은 유아 돌연사로 자녀를 잃을 확률이 비흡연 여성에 비해 2배나 높고, 하루 1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3배나 높다고 한다.<br/>담배를 끊는 방법에는 서서히 흡연량을 줄이는 감연법과 한 번에 끊는 단연법이 있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갑자기 담배를 끊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금단증상과 두려움 때문에 감연법을 선택하곤 한다. 실제로 금연 성공률은 담배를 한 번에 끊는 단연법이 높다.<br/>흡연도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흡연 욕구가 생길 때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습관 하나를 만드는 것이 좋다. 초조, 불안, 손떨림 등 금단증상이 나타날 때는 운동, 명상, 찬물 마시기, 심호흡, 산책하기 등이 도움이 된다.<br/>금연을 할 때도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금연하는 자신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금연으로 생긴 돈을 가지고 싶은 물건을 구매하거나 특별한 취미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br/>금연 치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므로 병·의원을 통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좋다.<br/>천 교수는 “<span class='quot2'>하루 1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웠거나 니코틴 의존도가 심한 경우, 과거 여러 번 금연에 실패한 경우 금연클리닉을 방문해 전문 의료진의 검사와 상담을 받아보라</span>”고 말했다. 흡연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만성질환이므로 적극적인 금연 상담과 적절한 약물치료를 동반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39.txt

제목: ML 클리블랜드 선수들의 단체 삭발이 ‘훈훈한’ 이유는  
날짜: 20150529  
기자: 윤은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9100000093  
본문: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이 28일 전한 바에 따르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선수들은 최근 단체로 삭발했다. 보통 삭발은 팀 분위기가 좋지 않거나 부진에 빠졌을 때 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사연이 조금 다르다.<br/><br/>클리블랜드에서 가장 먼저 머리를 민 것은 내야수 마이크 아빌레스(34)였다. 아빌레스는 지난 7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 도중 네 살 난 어린 딸 아드리아나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br/>백혈병도 암의 한 종류여서 아드리아나는 자연스레 항암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 항암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다. 아빌레스는 어린 딸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이 먼저 삭발을 해서 딸에게 보여줬다.<br/>MLB닷컴은 아드리아나가 아빠의 삭발한 모습을 보고 웃었다고 전했다. 한편 아빌레스의 사정을 알게 된 클리블랜드의 동료들은 아빌레스와 그의 딸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단체로 삭발을 했다.<br/>선수들만 삭발에 동참한 것이 아니다. 클리블랜드의 투수코치인 미키 캘러웨이도 최근 삭발해 아빌레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줬다. 캘러웨이는 “나도 딸 두 명을 둔 아빠다. 아빌레스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br/>아빌레스는 “딸이 ‘아빠 머리가 멋있다’고 하길래 ‘아빠 친구들도 다 나처럼 깎았다’고 얘기해줬다”며 “(딸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왜 삭발을 했는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40.txt

제목: 단체삭발도 마다하지 않는 동료애  
날짜: 201505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9100000049  
본문: 메이저리그에서 동료를 위해 팀원들이 단체 삭발을 한 이야기가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br/><br/>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이 28일 전한 바에 따르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선수들은 최근 단체로 삭발을 감행했다. 보통 삭발을 하는 경우는 팀 분위기가 좋지 않거나 부진에 빠졌을 경우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사연이 조금 달랐다.<br/><br/>클리블랜드에서 가장 먼저 머리를 민 것은 내야수 마이크 아빌레스(34)였다. 아빌레스는 지난 7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 도중 4살난 어린 딸 아드리아나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br/><br/>백혈병도 암의 한 종류이다보니 아드리아나는 자연스레 항암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 항암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다. 아빌레스는 어린 딸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이 먼저 삭발을 해 딸에게 보여줬다.<br/><br/>MLB닷컴이 전한 바에 따르면 아드리아나는 아빠의 삭발한 모습을 보고 웃었다고 했다. 한편 아빌레스의 사정을 알게 된 클리블랜드의 동료들은 아빌레스와 그의 딸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단체로 삭발했다.<br/><br/>선수들만 삭발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다. 클리블랜드의 투수코치인 미키 캘러웨이 또한 최근 삭발을 해 아빌레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줬다. 캘러웨이는 “나도 딸 두 명을 둔 아빠다. 아빌레스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br/><br/>아빌레스는 “딸이 ‘아빠 머리가 멋있다’고 하기에 ‘아빠 친구들도 다 나처럼 깎았다’고 애기해줬다”며 “(딸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왜 삭발을 했는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41.txt

제목: ML 클리블랜드 선수들의 단체 삭발이 ‘훈훈한’ 이유는  
날짜: 201505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810017423899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내야수 마이크 아빌레스 백혈병 걸린 딸 위해 머리 깎자 동료·코치 모두 ‘응원의 삭발’</strong><!-- SUB\_TITLE\_END--><br/><br/>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이 28일 전한 바에 따르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선수들은 최근 단체로 삭발했다. 보통 삭발은 팀 분위기가 좋지 않거나 부진에 빠졌을 때 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사연이 조금 다르다.<br/><br/><br/>클리블랜드에서 가장 먼저 머리를 민 것은 내야수 마이크 아빌레스(34)였다. 아빌레스는 지난 7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 도중 네 살 난 어린 딸 아드리아나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br/><br/>백혈병도 암의 한 종류여서 아드리아나는 자연스레 항암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 항암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다. 아빌레스는 어린 딸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이 먼저 삭발을 해서 딸에게 보여줬다.<br/><br/>MLB닷컴은 아드리아나가 아빠의 삭발한 모습을 보고 웃었다고 전했다. 한편 아빌레스의 사정을 알게 된 클리블랜드의 동료들은 아빌레스와 그의 딸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단체로 삭발을 했다.<br/><br/>선수들만 삭발에 동참한 것이 아니다. 클리블랜드의 투수코치인 미키 캘러웨이도 최근 삭발해 아빌레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줬다. 캘러웨이는 “나도 딸 두 명을 둔 아빠다. 아빌레스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br/><br/>아빌레스는 “딸이 ‘아빠 머리가 멋있다’고 하길래 ‘아빠 친구들도 다 나처럼 깎았다’고 얘기해줬다”며 “(딸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왜 삭발을 했는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br/><br/><윤은용 기자 plaimston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42.txt

제목: 충북도, 낡은 체육시설 10곳 수리한다  
날짜: 201505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810017421270  
본문: 충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2015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도내 10개시설이 선정돼 14억원을 지원받는다고 28일 밝혔다.<br/><br/>도는 14억원 이외에 지방비 29억원을 추가해 낡은 체육시설을 개선하고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br/><br/>보수 대상은 청주김수녕양궁장, 청주유도회관, 충주 수안보인공암벽장, 제천체육관, 제천 청풍명월국제하키장, 증평 종합스포츠센터, 괴산 사호정시설·문화체육센터, 음성 종합운동장 등 모두 9곳이다. 충주 목행동 파크골프장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다.<br/><br/>도는 파크골프장을 제외한 9곳을 오는 2017년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충주 목행동 파크골프장은 같은해 열리는 2017년 장애인전국체전의 경기장으로 활용한다.<br/><br/>충북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앞으로도 낡고, 위험요소가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43.txt

제목: “암에 특효” 노인 속여 건강기능식품 판매한 일당 무더기 적발  
날짜: 201505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610017373342  
본문: 제주에서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br/><br/>제주서부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수법으로 판매한 방문판매업장 4곳을 단속해 ㄱ씨(39) 등 6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br/><br/>ㄱ씨 등 6명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제주시에 방문판매업장 4곳을 차려놓고 버섯류, 칼슘,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 노인 94명에게 5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삼아 사전에 노래와 춤 등으로 환심을 산후에 건강기능식품을 시중가보다 4~5배 비싸게 판매했다.<br/><br/>제주서부경찰서는 “<span class='quot0'>방문판매사업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는 홍보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가족들과 상의하거나 원산지, 판매처, 원가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구매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떴다방‘과 유사한 사례를 봤을 때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span>”고 밝혔다.<br/><br/><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44.txt

제목: “먼저 죽으면 못 살아”…아내 시한부 판정에 70대 자살  
날짜: 201505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610017373412  
본문: 암을 앓던 아내를 수 년간 간병해 왔던 70대 노인이 아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br/><br/>2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0시10분쯤 광주 동구 한 주택에서 ㄱ씨(77)가 쓰러져 있는 것을 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숨을 거뒀다. <br/><br/>ㄱ씨 주변에서는 술병과 제초제 병이 발견됐다. ㄱ씨는 지난 23일 저녁 말기 암 판정을 받고 대학병원에 입원중이던 아내(74)를 살펴본 의사가 “더 이상은 어렵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말하자 병원을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br/><br/>ㄱ씨의 유족들은 경찰에서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암에 걸린 이후 간병을 해 왔으며 두분이 마음을 의지하며 살아오셨다”면서 “평소 ‘너희 엄나가 죽으면 나는 못산다’고 입버릇 처럼 말해오셨다”고 진술했다. <br/><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아내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해들은 ㄱ씨가 상심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br/><br/><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45.txt

제목: ‘지적장애’ 처남댁 성폭행 시매부 징역 4년  
날짜: 201505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410017367304  
본문: 아내가 암 판정을 받게 되자 지적 장애가 있는 처남댁을 상습적으로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시매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br/><br/>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br/><br/>재판부는 “<span class='quot0'>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피해자가 사실상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며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마땅하다</span>”고 판단했다.<br/><br/>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10년 넘게 부양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br/><br/>ㄱ씨는 2009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처남댁 ㄴ씨(42)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br/><br/>ㄱ씨는 또 2013년 9월 장애인이자 ㄴ씨의 남편인 처남 ㄷ씨(52)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ㄱ씨는 2009년 5월쯤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자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처남댁인 ㄴ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r/><br/><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46.txt

제목: [찬반 엇갈리는 공공정자은행]임신 늦거나 미루는 여성들, 난자 동결 보관… 훗날 해동해 사용  
날짜: 20150523  
기자: 박주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3100000078  
본문: 전문가들은 공공정자은행이 설립되면 난자은행도 이슈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자와 달리 난자는 동결이 쉽지 않았으나 최근엔 기술 발달로 동결한 난자와 동결하지 않은 난자의 임신이 동일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2012년 미국생식의학회에서는 난자 동결을 정식치료법으로 인정했다.<br/><br/>난자은행은 제3자 공여보다 자신의 난자를 동결보관했다가 훗날 임신하고 싶을 때 해동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기능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만혼 증가로 좀 더 젊을 때 건강한 난자를 보관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와 맞물려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정자와 달리 난자는 여성의 나이에 크게 영향을 받아 35세 이후 급격히 수가 줄고 질이 떨어진다. 40세가 넘으면 자연임신 가능성은 5%에 불과하다. 나이가 들수록 염색체 이상이 늘고 유산 위험성도 높아진다. 지난해 미국 애플과 페이스북은 경력을 쌓기 위해 임신을 미루는 여직원들에게 자신의 난자를 동결보관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br/>국내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난자은행이 속속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의욕을 보이는 곳은 차병원이다. 이동률 차의과대학 여성의학연구소 교수는 “<span class='quot0'>차병원은 그동안 암환자나 난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동결보관해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올해부턴 직업적 성취 등 여러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여성들을 위한 소셜뱅크(Social Bank) 개념의 난자은행을 강화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span class='quot0'>현재 이 같은 성격의 난자은행을 준비하는 병원은 우리 외에도 많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 가임력보존클리닉 교수도 “<span class='quot1'>서울대병원은 암환자가 훗날 임신을 원할 때 찾아쓸 수 있도록 난소조직이나 난자를 동결보관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일반 병원에선 미래를 대비해 난자를 동결보관하는 젊은 여성들을 겨냥한 난자은행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span>”고 전망했다. 난자 동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난자를 얻기 위해 약 2주간의 과배란 유도와 난자 채취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체외수정 때 이뤄지는 과정과 유사하다. 비용은 병원과 과배란 약제에 따라 50만~200만원 수준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47.txt

제목: [‘심리톡톡’ 시즌2 - 사랑에 관하여]“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사랑하세요, 상대방의 결핍까지 끌어안고”  
날짜: 201505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3100000018  
본문: 인생은 유한하고,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작가 임경선씨는 사랑에 대해 취해야 할 단 한 가지 태도가 있다면 ‘관대함’이라고 말한다. 우리 인생에 사랑만 한 ‘사치’는 없기에, 내일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결핍까지 끌어안아야 하고, 때로 이별의 순간에도 상대의 마음까지 이해해야 한다. 관대함은 사랑의 시작이자 끝이다. 나 자신이 우선 단단해져야 이런 관대한 태도를 지닐 수 있다.<br/>임씨는 ‘사랑의 태도’를 주제로 삼아 경향신문 연중기획 ‘심리톡톡 시즌2-사랑에 관하여’ 5월 강연을 진행했다. 일과 사랑,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에 관한 다양한 글쓰기를 보여준 작가는 지난 11년 동안 신문·라디오를 통해 수많은 이들의 인생 상담을 받았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열린 강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전문은 경향신문 홈페이지의 심리톡톡 코너(all.khan.co.kr)에서 볼 수 있다.<br/><br/>■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함정<br/>강연에서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br/>“사랑하면 상처받을까봐 두렵다. 나 좋다는 사람은 싫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그렇다고 연애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자니 그렇고, 눈 낮추고 주변을 둘러봐도 멀쩡한 사람은 다 기혼이다. 대체 괜찮은 남자들은 왜 없나.”<br/>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당신은 스스로를 사랑하느냐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러면 또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쨌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나보다 더 이해하고 사랑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br/>사랑에 있어서 자발성, 능동성이 발휘되지 않으면 그 대신 자존심이나 자의식이 작용합니다. 자기는 껍데기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심 누군가가 껍데기를 깨고 들어와 주길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를 상대에게 투영하거나 내가 채우지 못한 결핍을 대신 채워줄 상대를 기다립니다. 조금 불안한 기미가 보이면 내가 버림받을 거라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서 먼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br/>자존감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직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를 알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잘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일상 속의 성실함이 자존감을 만듭니다. 이런 자존감이 왜 중요하느냐면 나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는 상대의 불완전함을 이해할 포용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br/><br/>■ 사랑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해<br/>사랑은 잘나고 강하고 멋진 사람을 어떻게 내 사람으로 만들까 하는 연애 기술을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의 약한 점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을까, 저 사람 때문이라면 기꺼이 상처를 입어도 좋다, 그런 ‘기꺼이 항복하게 만드는’ 감정이 절로 일 때 ‘사랑’이 시작됩니다.<br/>차인 것을 “사랑에 실패했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데 이별의 형태로 끝났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밀당’(밀고 당기기)도 하지 마세요. 마케팅에 비유하자면 제품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와 살아가는 기간이 제일 길지요.<br/>우리는 주변의 이런 소리에 시달립니다. “너무 잘해주지 마. 너를 만만하고 당연하게 생각할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워야 해?”라고 반문합니다. 상대를 더 많이 좋아한다 해도 관계의 약자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두려워하고 피해 의식을 가지지 않았으면 해요. 너에 대한 나의 감정을 네가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너’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하고 단단한 사람들은 사랑할 때 상대 앞에서 자신 있게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약한 사람들은 내가 먼저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는 가혹한 사람들입니다.<br/>사랑에서 취해야 할 단 하나의 태도가 있다면 나 자신에게는 ‘진실함’, 상대한테는 ‘관대함’입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사랑에 관대해지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런 극치감은 일생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는 무조건 누려야 합니다.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호사스러운 사치일지도 모릅니다.<br/>■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br/>사랑에 있어서 ‘관대한’ 태도가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그 사랑이 끝날 때, 이별할 때입니다. 이별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이별을 입에 올렸다고 해서 나쁜 것도, 가해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별을 거부한 사람이 피해자도 아닙니다. 둘 다 감정에 솔직한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지만 그 누구의 잘못도 없습니다. 상대가 원한다면 그를 놔줘야 합니다. 계속 칼을 갈면서 상처를 자양분 삼는 사람들은 이미 그 연애와 관계없이 상처에 의존하면서 나는 피해자라는 상황에 안주하는 겁니다. 어떤 시점이 지나면 그 어두컴컴한 방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정말 고통스럽지만 나의 아픈 마음을 보듬는 만큼 상대가 나한테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br/>제가 왜 계속 가장 중요한 사랑의 태도가 ‘관대함’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인생의 유한성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몸이 아팠던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일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기회가 되면 연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둘째는 인간이 정말 불완전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나의 결핍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만큼 상대방의 결핍과 불완전함도 인정하는 것이지요.<br/>이별을 통해 성장한다는 말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를 이해하는 만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별의 고통을 겪어도 시간이 되면 우뚝 일어서서 나대로 인생을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성장인 것 같아요. 아울러 사랑 그 자체가 내 인생에 온 것을 소중히 여기는 순수한 마음, 그 사람들에 대한 좋은 마음, 또 이 사랑이 끝나도 새로운 사랑이 내게 도래할 거라는 당연한 믿음, 그런 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바로 그 순간이 슬픔에 아름다움이 깃드는 순간일 겁니다. 상대에게 바라거나 기대기보다 내가 유연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 먼저 사랑에 대해 기꺼이 관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계산하고, 비교하고, 못 견뎌하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그 정도로 약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본래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본능을 믿어주세요.<br/><br/>강연 뒤 질의응답 시간에 마지막 질문자는 이렇게 물었다. “3년 전 말기 암 선고를 받았지만 감사하게도 치료가 잘 끝났고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건 여전히 주저하게 돼요.”<br/>임경선 작가는 답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두 부류라고 했어요. 하나는 나만 당할 순 없다는 억울함에 남에게 더 가혹해지고 상처를 내는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타인의 아픔에 대해 훨씬 더 공감할 수 있게 된 사람들. 우리는 후자여야만 하고, 아마도 후자일 것 같아요. 아까 인생의 유한함 때문에 제가 선택한 사랑의 태도가 관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아프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더 다르게 다가와요. 오히려 더 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나는 이미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걸 겪고 소화해냈기 때문에 너의 아픔을 이해해줄 수 있어, 그리고 너를 결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너그러운 마음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건 고통을 담보로 얻은 선물이에요. 질문자를 앞으로 만나실 분은 행운아라고 봅니다.”<br/>▲ 사랑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br/>잘 반하고 장점을 잘 찾고 결핍도 사랑하고<br/>예전에 <라디오천국>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DJ 유희열씨와 격하게 공감한 것이 있습니다. 음악이 돌아가는 동안 우리끼리 한 얘긴데요. 이성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본인들 자체가 이성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자라면 남자를 참 좋아하고, 남자라면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투명하게 티내는 사람들. 보통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밝힌다, 헤프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저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기쁨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가만 보면 사랑에 잘 빠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br/>첫째,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잘 반합니다. 좋아하는 감정 자체를 즐기고 좋아하고, 사랑을 주면서 행복해합니다. 선물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지요. 물론 무언가를 줬을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주면서도 본전 생각을 안 합니다. 좋아하는 감정 자체에 충분히 만족하는 겁니다.<br/>둘째,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안에서 자기만이 발견하는 장점을 찾아내고 그걸 소중하고 애틋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이런 멋진 부분은 나밖에 모른다’는 거지요. 주변에서는 ‘그 사람이 뭐가 좋으냐’고 그러지만, 본인에게는 유일무이한 사랑인 겁니다.<br/>셋째,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결핍도 사랑합니다. 보통 장점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쉽습니다. 만난 지 3개월쯤 되면 그 사람의 단점이 드러나고, 나와 안 맞는 부분이 보이면서 그때 감정이 많이 흔들리지요. 내가 생각했던 그 남자, 그 여자가 아닌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하나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사랑이 깊어지면 어느덧 그 사람의 결핍을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고 포용하게 되는 거지요. ‘이 사람의 이런 못난 모습은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의 이런 점이 정상인가요,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라는 상담 e메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상·비정상이 어디 있을까요. 슬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경지까지 가면 그 사람의 결핍을 내가 채워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상대방의 결핍이 나를 공격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그 남자든 여자든 멀리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체의 결핍이면 내가 같이 품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48.txt

제목: [찬반 엇갈리는 공공정자은행]정자가 없다… 정자은행 기증자 줄어 ‘불법’으로 눈 돌려  
날짜: 20150523  
기자: 박주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3100000081  
본문: ▲ 생명윤리법 시행 후 규제 강화로 이용 제한<br/>정자은행도 10여곳 불과<br/>▲ 혈족관계 혼란 우려 형제 간 공여도 안돼<br/>기증자 기준·보상 등 관련법 정비 시급<br/>경남 창원시에 사는 ㄱ씨(39)와 ㄴ씨(36)는 결혼 7년차 부부다. 신혼생활을 즐기기 위해 1년간 피임한 후 아이를 가지려 했으나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br/>처음엔 아내 쪽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불임 원인은 남편에게 있었다. 정액 검사 결과 ‘비폐쇄성 무정자증’이었던 것이다. 의사는 “<span class='quot0'>이제 아이를 가지려면 입양이나 정자은행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br/>‘자식 없이 우리끼리 잘 살자’는 다짐도 잠시,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나 친구들과의 만남이 불편해졌고 부부관계도 시들해지는 느낌이었다. 부부는 “<span class='quot1'>한쪽 유전자라도 받은 아이를 낳자</span>”고 합의하고 정자은행을 운영하는 부산대학병원을 찾아갔다. ㄱ씨는 “아내의 피는 받은 것이니까 생판 모르는 아이보다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자은행에 그들을 위한 정자는 없었다. 의사는 정자를 기증할 사람을 직접 데려 오거나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ㄴ씨는 “남편이나 저나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이라 공여해줄 사람이 마땅치 않다”며 “혹시 나타날지 모를 기증자를 위해 병원에 대기순번이라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br/><br/>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ㄷ씨(32)는 8년 전인 1997년 고환암 판정을 받고 한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다. 병원에선 치료 후 정자 생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나중을 위해 정자를 동결보존할 것을 제안했다. 2013년 결혼한 ㄷ씨는 지난해 7년간 동결보관해 둔 정자를 해동해 아내의 난자와 체외수정을 시도해 단 한 번 만에 임신에 성공했다.<br/>정자은행은 정자를 채취한 후 동결보존액과 혼합하여 작은 용기에 넣어 마이너스 196도의 액체질소 탱크 속에 보관하는 시설이다. 냉동 정자는 필요한 양만 녹여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에 사용된다. 현재 국내 대다수 대학병원과 불임전문치료병원에서 정자 동결보존과 해동시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난임부부의 배우자 간 체외수정이나 ㄷ씨의 경우처럼 항암요법 시행 전 정자보관 등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br/>정자은행은 원래 고환에 정자는 물론 원형정세포(정자가 되기 직전의 생식세포)가 없어 임신할 수 없는 난임부부들에게 다른 사람의 냉동정자를 제공하기도 했다. 1997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정자은행을 개설한 부산대병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차병원 등 주요 병원에는 공여받은 정자들이 꽤 있었다. 주로 정자 제공자는 의과대 인턴이나 레지던트, 그리고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었으며 거의 반강제적이었다. 정자 제공자에게는 돈이나 상품권 등을 지불했다.<br/><br/>정자 공여자를 찾기 어려워진 것은 2005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시행과 함께 규제가 강화되면서부터다.<br/>황우석 박사의 허위조작 논문 발표 후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생명윤리법은 돈을 받고 정자나 난자를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2절 제23조 3항에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27조는 난자 기증자 보호를 적시하고 있는데, 난자 기증 횟수는 물론 난자 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 반면 정자 기증자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다만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난임치료병원) 표준운영 안내 지침에 타인의 임신을 목적으로 정자를 기증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게다가 정자 공여자는 기증 6개월 후 의무적으로 성병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자를 통한 성병감염 빈도가 0.6~1.0%에 이르기 때문이다.<br/>그러다 보니 비배우자 간 정자 공여는 거의 중단된 실정이다. 현재 다른 사람(비배우자)의 정자를 받아 동결한 후 인공·체외수정으로 임신을 돕는 정자은행은 부산대병원과 세화병원 등 10여곳에 불과하다.<br/>서주태 단국대 제일병원 교수는 “<span class='quot2'>난자·정자 매매가 차단되면서 기증자를 찾기 어려워졌고, 병원 입장에서도 수익이 전혀 안되는 사업인 데다 대놓고 홍보할 수도 없다 보니 정자은행에 공여용 정자가 없는 상황이 됐다</span>”고 말했다. 공공정자은행 추진위원장인 박남철 부산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3'>형제나 친척의 정자로 임신을 하게 되면 가족·혈연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환자가 친·인척 공여자를 데리고 오면 다른 사람의 정자를 우선 제공하고, 공여자의 정자는 냉동시켰다가 3자에게 제공해왔다</span>”고 밝혔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3'>요즘은 이런 릴레이 기증마저도 쉽지 않다</span>”고 했다. 김수웅 서울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4'>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면 난임부부를 위한 정자 공여도 늘어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공여 원칙도 병원마다 들쭉날쭉이다. 혈족관계 혼란을 우려해 정자은행에선 형제의 정자로 시술을 해주지 않는다. 반면 “난자 공여의 경우엔 자매가 가장 많다”고 이원돈 서울마리아병원 원장이 귀띔했다.<br/>정자은행에 공여용 정자가 없다 보니 일부 난임부부들이 눈길을 돌리는 곳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 거래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난자·정자 등 불법 매매·알선이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글을 1678건 발견해 포털에 삭제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 ‘대리부 지원합니다’ ‘대리부, 대리모 지원’ 등의 제목과 함께 자신의 신상 기록을 담은 글들이 인터넷에는 수시로 올라온다. 이들 중 적잖은 남성이 돈도 벌고 성적 욕구도 풀기 위해 대리부로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력을 위조하는 경우도 많다.<br/>공공정자은행추진위는 비배우자 간 검증된 양질의 정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증자에 대한 현실적 보상방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로 거점 정자은행을 지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암치료 전이나 장기 출장 때 정자를 동결보관한 후 필요할 때 배우자 간 인공수정을 할 수 있도록 거점병원에서 안내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럴 경우 연간 5000명 이상의 출산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3'>대학병원과 불임치료 병원에선 이미 시설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정자은행을 위해 정부가 특별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span>”며 “<span class='quot3'>다만 관련법을 정비해 정자 제공자에 대한 기준과 보상 등을 명시하면 안전한 정자로 난임부부의 고통을 줄일 수 있고, 불법 정자·난자 매매 등 사회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 인공수정<br/>배란기에 남편의 정액을 받아 다양한 과정의 정자 처리 과정을 거친 후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다.<br/>▲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br/>여성의 성숙된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인위적으로 채취하여 몸 밖에서 수정시켜 2~3일 동안 배양한 후 여성의 자궁내막에 이식하는 방법이다.<br/>▲ 무정자증<br/>고환에서 정자는 생성되지만 정자가 배출되는 관이 막힌 폐쇄성 무정자증과 아예 고환에서 정자를 생성하지 못하는 비폐쇄성 무정자증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관을 뚫어주는 수술을 하거나 고환에서 직접 정자를 채취, 체외수정하면 임신할 수 있지만 후자는 불가능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49.txt

제목: [찬반 엇갈리는 공공정자은행]나를 판다고요? 나도 생명인데…  
날짜: 20150523  
기자: 박주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3100000079  
본문: “공공정자은행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암환자나 비배우자 간 정자 공여를 통한 인공수정 시 해당 정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자·정자라는 생식세포도 엄연한 생명이라는 점에서 이를 돈으로 사고파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이인영 한국생명윤리학회장·홍익대 법대 교수)<br/>공공정자은행 설립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인영 회장처럼 전체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br/><br/>반대하는 학자들은 주로 윤리적, 법적 문제를 거론한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span class='quot0'>돈벌이 수단으로 정자를 제공하려는 이들의 정자를 사용하면 안되며, 그에 앞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생명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인간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그저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필요한 윤리적인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이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강요함으로써 타인의 정자·난자를 이용해서라도 자식을 가지려는 분위기를 조장한다</span>”고 비판했다. <br/>구인회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는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 자체에 부정적이다. 그는 “<span class='quot0'>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태어나는 아이의 행복권 침해, 가족관계 혼란, 대리모 문제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span>”고 주장했다. 형제·자매 등 친족이 기증자가 되면 근친상간과 유사해 가족관계 질서와 조화를 해칠 수 있고, 한 남자의 정자로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부부가 이혼할 경우 아이의 친권은 누구에게 있느냐와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를 찾을 경우 상속권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구 교수의 지적이다. <br/>실제로 2011년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기증 정자로 출산한 여성이 일곱살 된 아들에게 아버지가 같은 형제를 찾아주고 싶어 인터넷을 검색하다 같은 남자로부터 정자를 받아 태어난 아이가 무려 150명에 이르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2013년 한국을 비롯, 전 세계에서 상영된 미국 코미디영화 <딜리버리맨>(Delivery Man)은 정자 기증으로 벌어진 상황을 모티프로 만들어졌다. 20년 전 정자은행에 익명으로 600여 차례에 걸쳐 정자를 제공했다가 졸지에 533명의 아버지가 된 남자가 이 중 142명으로부터 친자확인소송을 당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작품이다. <br/>기증 정자로 태어난 아이와 관련된 소송은 실제로 여러 차례 국내외에서 제기됐다. 국내에선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 소송이 화제가 되었다. 정자은행에서 제공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자식을 낳은 여성들이 전남편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 판결이 엇갈렸다. 2000년엔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아들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844조 1항 규정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002년엔 “원·피고가 장차 태어날 아이에 대해 서로 친자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친생자관계는 자연적 혈연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 의사와는 무관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기증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다. <br/>2008년 캐나다에선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이들이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기록의 공개 및 파기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입양아와 마찬가지로 생식세포 기증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알 권리를 요구한 것이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들의 권리를 인정했다. 2014년 일본에선 자신이 제3자 정자 제공에 의해 인공수정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토 히데아키(40)라는 의사가 부모의 난임치료를 담당한 게이오대학병원에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한 일도 있었다. <br/><br/>공공정자은행 설립이 무분별한 인공·체외수정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명희 연구부장은 “<span class='quot1'>인공수정·체외수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많아지면서 자연임신이 가능한 경우에도 쉽게 시술을 선택하는 이들이 증가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쉽게 타인의 정자를 얻을 수 있는 정자은행의 활성화는 공공이든 아니든 이 같은 인공·체외수정을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병원의 이익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span>”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200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해왔다. 2006년 시작 당시 464억원이던 지원금은 2013년엔 총 757억원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소득 150% 미만 난임부부이며 체외수정 1회당 180만원 범위 내 4회, 인공수정 1회당 50만원 범위 내 3회 지원하고 있다. <br/>찬성 입장도 있다.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pan class='quot2'>공공정자은행의 설립은 음성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정자 공급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span class='quot2'>인체유래물, 특히 생식세포인 정자 제공에 대한 실비보상 주장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법’ 등에서 보듯이 현실적이고 제한적인 보상규정 선례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span>”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span class='quot2'>다만, 정자은행 운영자의 사적이익 추구는 철저히 규제돼야 한다</span>”고 덧붙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50.txt

제목: [건강]엄마, 녹차 하루 5컵 마시면 골다공증에 좋대요  
날짜: 201505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2100000053  
본문: ▲ 새 효능 연구결과 대거 발표<br/>내 몸 살리는 5대 식품영양소<br/>과일·채소 힘 알면 건강한 노년<br/>과일이나 채소가 해충, 미생물, 비바람, 자외선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면역 방어물질을 식물영양소(파이토 뉴트리언트)라고 한다. 2500여 가지에 이르는 식물영양소는 심혈관질환과 암,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감염병 예방에 중요한 영양소로 꼽힌다.<br/>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5 한·중 식물영양소 국제 심포지엄’에서 식물영양소의 새로운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가 대거 발표됐다.<br/>중국영양학회와 한국식품과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암웨이·중국암웨이, 뉴트리라이트 건강연구소가 후원한 이 심포지엄의 주제는 ‘과일·채소와 식물영양소-건강한 노화의 주요 영향 요소’였다.<br/>미국 터프츠대 엘리자베스 존슨 박사는 “<span class='quot0'>노인기의 루테인 공급은 인지능력을 높인다</span>”고 밝혔다. <br/>존슨 박사가 건강한 여성(60~80세)을 대상으로 4개월간 루테인 단독공급(1일 12㎎), DHA 단독공급(1일 800㎎), 루테인(1일 12㎎)과 DHA(1일 800㎎) 동시 공급 세 가지 군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모두에서 언어유창도가 공급 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br/>하지만 위약대조군에서는 어떠한 차이점도 보이지 않았다. 루테인과 DHA를 동시 공급한 경우 학습과 단기 기억력이 공급 전보다 좋아졌다.<br/><br/>루테인은 대표적으로 눈 건강에 좋은 식물영양소다. 존슨 박사는 “<span class='quot1'>일반적인 성인의 하루 루테인 섭취가 평균 2㎎ 미만</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생애 후반기의 인지기능 및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을 하루 8㎎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br/>중국 제3군의대 미만티엔 교수는 다양한 식물영양소가 만성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작용하는 분자적 기전을 설명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케르세틴, 캡사이신, 레스베라트롤 등이 인체의 신호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쳐 만성질환과 대사증후군의 조절 기능을 한다</span>”고 밝혔다.<br/>미국 텍사스테크대 건강과학센터 레슬리 션 박사는 골밀도가 낮은 171명의 중년 여성(평균 57.5세)을 대상으로 한 6개월간의 실험 결과를 소개했다. 녹차의 폴리페놀(Polyphenol) 성분을 하루 500㎎(녹차 4~6컵) 섭취하면 인체의 항산화 기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골밀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br/>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성미경 교수는 “<span class='quot2'>로즈메리 잎에서 추출한 카르노식산을 식이에 보충해 대장암과 유방암 동물 모델에게 섭취시킨 결과 각 암 발생률 및 암 조직의 크기가 줄었다</span>”며 “<span class='quot2'>이는 카르노식산의 체지방 축적 억제 효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span>”고 분석했다.<br/>연세대 생명공학과 황재관 교수는 “<span class='quot3'>생강과 식물의 일종인 자바강황에서 유래된 천연 기능성 성분 잔소리졸이 항균·항염증 효과를 통해 구강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span>”고 밝혔다.<br/>국내 및 해외 연구에 따르면 식물영양소는 인체 내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스스로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체내에서 항노화, 항염증, 균형 잡힌 세포 성장, 항산화 능력 보강, 해독작용 및 면역반응을 돕는 역할도 한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하얀색, 보라색(검은색 계열 포함) 다섯 가지 색깔마다 대표 식물영양소와 이에 따른 주요 효능이 다르다(그래픽 참조).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51.txt

제목: [세상읽기]술이 발암물질이라고?  
날짜: 20150522  
기자: 서홍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2100000071  
본문: 담배가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술이 발암물질이냐고 물으면 설마하는 표정을 짓는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술은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술(알코올)과 그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1급이라는 것은 인체에서 발암이 확인됐다는 것을 말한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술도 많이 마실수록 암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술을 하루에 50g 이상 마실 경우 암 발생의 위험이 2~3배 더 늘어난다. 더구나 담배를 같이 피면 그 위험은 가중된다.<br/>우리 사회에는 포도주를 비롯해 술은 약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이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단히 오해가 많고 과장된 정보이다. 담배는 한 개비라도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정 흡연이라는 개념이 없고 무조건 담배를 끊도록 권한다. 그런데 술은 한 모금도 안 하는 사람에 비해 약간의 음주를 하는 사람의 건강이 더 좋기 때문에 약간의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개념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음주도 그 ‘약간’을 넘으면 마실수록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나타난다. <br/>그럼 어느 정도 술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문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적정 음주량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는 것에 비해 엄청나게 적다는 것이다. 국립암센터에서는 암예방 수칙 열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술은 하루 두 잔 이내로 마시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소주는 소주잔으로, 맥주는 맥주잔으로, 포도주는 포도주잔으로 두 잔 이내를 마시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를 초과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음주가 더 위험하다는 근거에 입각해 세계암연구기금에서는 남성은 하루 두 잔, 여성은 하루 한 잔 이하를 권하고 있으니 여성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br/>또 다른 주제는 술에 따라 어떤 종류의 술은 건강에 더 유익하거나 최소한 덜 해로운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마시는 술은 맥주, 소주, 막걸리, 양주, 포도주 등 종류가 다양하고, 술의 종류에 따라 알코올 함량이 다를 뿐만 아니라 술에 들어 있는 성분 역시 다르다. <br/>한때 포도주 시음회가 만들어지고, 마치 포도주에 대해 모르면 교양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다. 붉은 포도주의 경우 탄닌을 비롯한 항산화물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졌지만, 발암물질인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를 섞어 마신다면 건강에 이로울 리 없다. 최근 막걸리 붐이 일고, 막걸리에서 항암물질이 발견됐다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막걸리가 건강에 좋은 술로 비치고 있지만 이것 역시 많이 마시면 득보다 실이 크다.<br/>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술은 여러 급성 및 만성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담배와 더불어 인류 건강에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다. 또 음주운전이나 음주와 관련된 폭력 행위, 알코올중독이나 알코올 의존성 등의 정신·사회적 문제는 헤아리기 어렵다. 더구나 임신부의 음주는 저체중아 및 태아의 선천성 기형이나 신경학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br/>1970~1980년대에는 대학생이 되면 으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이 통과의례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대학생이라도 자기 자녀가 담배 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다. <br/>필자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신입생 환영회에서는 술을 한 사발씩 마시는 것이 관례였고, 그게 자랑스러운 전통처럼 여겨졌다. 가끔 신입생 환영회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이 보도되곤 했는데, 이제 그런 몹쓸 전통은 사라질 때가 됐다.<br/>담배 인심이라는 말이 지금은 사라졌듯이 이제 술인심이라는 말도 사라질 때가 됐다. 아무리 좋은 술친구라 하더라도 마주 앉아 두 잔의 술을 마셨다면, 술을 더 권하는 것은 발암물질을 권하는 것과 같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에 좋은 것을 찾아나서기보다는 건강에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절주는 금연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음주는 하루 두 잔 이내로 해야 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52.txt

제목: [찬반 엇갈리는 공공정자은행]임신 늦거나 미루는 여성들, 난자 동결 보관… 훗날 해동해 사용  
날짜: 201505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210017365641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난자은행’도 이슈화 예상</strong><!-- SUB\_TITLE\_END--><br/><br/>전문가들은 공공정자은행이 설립되면 난자은행도 이슈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자와 달리 난자는 동결이 쉽지 않았으나 최근엔 기술 발달로 동결한 난자와 동결하지 않은 난자의 임신이 동일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2012년 미국생식의학회에서는 난자 동결을 정식치료법으로 인정했다.<br/><br/><br/>난자은행은 제3자 공여보다 자신의 난자를 동결보관했다가 훗날 임신하고 싶을 때 해동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기능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만혼 증가로 좀 더 젊을 때 건강한 난자를 보관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와 맞물려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정자와 달리 난자는 여성의 나이에 크게 영향을 받아 35세 이후 급격히 수가 줄고 질이 떨어진다. 40세가 넘으면 자연임신 가능성은 5%에 불과하다. 나이가 들수록 염색체 이상이 늘고 유산 위험성도 높아진다. 지난해 미국 애플과 페이스북은 경력을 쌓기 위해 임신을 미루는 여직원들에게 자신의 난자를 동결보관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br/><br/>국내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난자은행이 속속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의욕을 보이는 곳은 차병원이다. 이동률 차의과대학 여성의학연구소 교수는 “<span class='quot0'>차병원은 그동안 암환자나 난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동결보관해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올해부턴 직업적 성취 등 여러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여성들을 위한 소셜뱅크(Social Bank) 개념의 난자은행을 강화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span class='quot0'>현재 이 같은 성격의 난자은행을 준비하는 병원은 우리 외에도 많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 가임력보존클리닉 교수도 “<span class='quot1'>서울대병원은 암환자가 훗날 임신을 원할 때 찾아쓸 수 있도록 난소조직이나 난자를 동결보관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일반 병원에선 미래를 대비해 난자를 동결보관하는 젊은 여성들을 겨냥한 난자은행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span>”고 전망했다. 난자 동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난자를 얻기 위해 약 2주간의 과배란 유도와 난자 채취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체외수정 때 이뤄지는 과정과 유사하다. 비용은 병원과 과배란 약제에 따라 50만~200만원 수준이다.<br/><br/><박주연 기자 jypar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53.txt

제목: [‘심리톡톡’ 시즌2 - 사랑에 관하여]“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사랑하세요, 상대방의 결핍까지 끌어안고”  
날짜: 201505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210017365475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5) 작가 임경선의 ‘사랑의 태도’</strong><!-- SUB\_TITLE\_END--><br/><br/>인생은 유한하고,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작가 임경선씨는 사랑에 대해 취해야 할 단 한 가지 태도가 있다면 ‘관대함’이라고 말한다. 우리 인생에 사랑만 한 ‘사치’는 없기에, 내일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결핍까지 끌어안아야 하고, 때로 이별의 순간에도 상대의 마음까지 이해해야 한다. 관대함은 사랑의 시작이자 끝이다. 나 자신이 우선 단단해져야 이런 관대한 태도를 지닐 수 있다.<br/><br/>임씨는 ‘사랑의 태도’를 주제로 삼아 경향신문 연중기획 ‘심리톡톡 시즌2-사랑에 관하여’ 5월 강연을 진행했다. 일과 사랑,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에 관한 다양한 글쓰기를 보여준 작가는 지난 11년 동안 신문·라디오를 통해 수많은 이들의 인생 상담을 받았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열린 강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전문은 경향신문 홈페이지의 심리톡톡 코너(all.khan.co.kr)에서 볼 수 있다.<br/><br/><br/><b>■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함정</b><br/><br/>강연에서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br/><br/>“사랑하면 상처받을까봐 두렵다. 나 좋다는 사람은 싫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그렇다고 연애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자니 그렇고, 눈 낮추고 주변을 둘러봐도 멀쩡한 사람은 다 기혼이다. 대체 괜찮은 남자들은 왜 없나.”<br/><br/>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당신은 스스로를 사랑하느냐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러면 또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쨌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나보다 더 이해하고 사랑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br/><br/>사랑에 있어서 자발성, 능동성이 발휘되지 않으면 그 대신 자존심이나 자의식이 작용합니다. 자기는 껍데기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심 누군가가 껍데기를 깨고 들어와 주길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를 상대에게 투영하거나 내가 채우지 못한 결핍을 대신 채워줄 상대를 기다립니다. 조금 불안한 기미가 보이면 내가 버림받을 거라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서 먼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br/><br/>자존감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직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를 알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잘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일상 속의 성실함이 자존감을 만듭니다. 이런 자존감이 왜 중요하느냐면 나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는 상대의 불완전함을 이해할 포용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br/><br/><br/><b>■ 사랑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해</b><br/><br/>사랑은 잘나고 강하고 멋진 사람을 어떻게 내 사람으로 만들까 하는 연애 기술을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의 약한 점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을까, 저 사람 때문이라면 기꺼이 상처를 입어도 좋다, 그런 ‘기꺼이 항복하게 만드는’ 감정이 절로 일 때 ‘사랑’이 시작됩니다.<br/><br/>차인 것을 “사랑에 실패했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데 이별의 형태로 끝났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밀당’(밀고 당기기)도 하지 마세요. 마케팅에 비유하자면 제품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와 살아가는 기간이 제일 길지요.<br/><br/>우리는 주변의 이런 소리에 시달립니다. “너무 잘해주지 마. 너를 만만하고 당연하게 생각할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워야 해?”라고 반문합니다. 상대를 더 많이 좋아한다 해도 관계의 약자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두려워하고 피해 의식을 가지지 않았으면 해요. 너에 대한 나의 감정을 네가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너’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하고 단단한 사람들은 사랑할 때 상대 앞에서 자신 있게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약한 사람들은 내가 먼저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는 가혹한 사람들입니다.<br/><br/>사랑에서 취해야 할 단 하나의 태도가 있다면 나 자신에게는 ‘진실함’, 상대한테는 ‘관대함’입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사랑에 관대해지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런 극치감은 일생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는 무조건 누려야 합니다.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호사스러운 사치일지도 모릅니다.<br/><br/><b>■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b><br/><br/>사랑에 있어서 ‘관대한’ 태도가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그 사랑이 끝날 때, 이별할 때입니다. 이별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이별을 입에 올렸다고 해서 나쁜 것도, 가해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별을 거부한 사람이 피해자도 아닙니다. 둘 다 감정에 솔직한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지만 그 누구의 잘못도 없습니다. 상대가 원한다면 그를 놔줘야 합니다. 계속 칼을 갈면서 상처를 자양분 삼는 사람들은 이미 그 연애와 관계없이 상처에 의존하면서 나는 피해자라는 상황에 안주하는 겁니다. 어떤 시점이 지나면 그 어두컴컴한 방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정말 고통스럽지만 나의 아픈 마음을 보듬는 만큼 상대가 나한테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br/><br/>제가 왜 계속 가장 중요한 사랑의 태도가 ‘관대함’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인생의 유한성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몸이 아팠던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일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기회가 되면 연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둘째는 인간이 정말 불완전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나의 결핍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만큼 상대방의 결핍과 불완전함도 인정하는 것이지요.<br/><br/>이별을 통해 성장한다는 말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를 이해하는 만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별의 고통을 겪어도 시간이 되면 우뚝 일어서서 나대로 인생을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성장인 것 같아요. 아울러 사랑 그 자체가 내 인생에 온 것을 소중히 여기는 순수한 마음, 그 사람들에 대한 좋은 마음, 또 이 사랑이 끝나도 새로운 사랑이 내게 도래할 거라는 당연한 믿음, 그런 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바로 그 순간이 슬픔에 아름다움이 깃드는 순간일 겁니다. 상대에게 바라거나 기대기보다 내가 유연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 먼저 사랑에 대해 기꺼이 관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계산하고, 비교하고, 못 견뎌하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그 정도로 약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본래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본능을 믿어주세요.<br/><br/><br/>강연 뒤 질의응답 시간에 마지막 질문자는 이렇게 물었다. “3년 전 말기 암 선고를 받았지만 감사하게도 치료가 잘 끝났고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건 여전히 주저하게 돼요.”<br/><br/>임경선 작가는 답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두 부류라고 했어요. 하나는 나만 당할 순 없다는 억울함에 남에게 더 가혹해지고 상처를 내는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타인의 아픔에 대해 훨씬 더 공감할 수 있게 된 사람들. 우리는 후자여야만 하고, 아마도 후자일 것 같아요. 아까 인생의 유한함 때문에 제가 선택한 사랑의 태도가 관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아프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더 다르게 다가와요. 오히려 더 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나는 이미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걸 겪고 소화해냈기 때문에 너의 아픔을 이해해줄 수 있어, 그리고 너를 결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너그러운 마음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건 고통을 담보로 얻은 선물이에요. 질문자를 앞으로 만나실 분은 행운아라고 봅니다.”<br/><br/><div style="border: solid 1px #DDD;background-color: #F5F5F5;padding: 10px 15px 15px 15px;font-size: 13px;line-height: 22px;\_height: 1%;margin-bottom: 20px;"><b>▲ 사랑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br/>잘 반하고 장점을 잘 찾고 결핍도 사랑하고</b><br/><br/>예전에 <라디오천국>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DJ 유희열씨와 격하게 공감한 것이 있습니다. 음악이 돌아가는 동안 우리끼리 한 얘긴데요. 이성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본인들 자체가 이성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자라면 남자를 참 좋아하고, 남자라면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투명하게 티내는 사람들. 보통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밝힌다, 헤프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저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기쁨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가만 보면 사랑에 잘 빠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br/><br/>첫째,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잘 반합니다. 좋아하는 감정 자체를 즐기고 좋아하고, 사랑을 주면서 행복해합니다. 선물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지요. 물론 무언가를 줬을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주면서도 본전 생각을 안 합니다. 좋아하는 감정 자체에 충분히 만족하는 겁니다.<br/><br/>둘째,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안에서 자기만이 발견하는 장점을 찾아내고 그걸 소중하고 애틋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이런 멋진 부분은 나밖에 모른다’는 거지요. 주변에서는 ‘그 사람이 뭐가 좋으냐’고 그러지만, 본인에게는 유일무이한 사랑인 겁니다.<br/><br/>셋째,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결핍도 사랑합니다. 보통 장점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쉽습니다. 만난 지 3개월쯤 되면 그 사람의 단점이 드러나고, 나와 안 맞는 부분이 보이면서 그때 감정이 많이 흔들리지요. 내가 생각했던 그 남자, 그 여자가 아닌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하나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사랑이 깊어지면 어느덧 그 사람의 결핍을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고 포용하게 되는 거지요. ‘이 사람의 이런 못난 모습은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의 이런 점이 정상인가요,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라는 상담 e메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상·비정상이 어디 있을까요. 슬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경지까지 가면 그 사람의 결핍을 내가 채워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상대방의 결핍이 나를 공격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그 남자든 여자든 멀리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체의 결핍이면 내가 같이 품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br/><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div><br/><br/><황경상·송윤경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54.txt

제목: [찬반 엇갈리는 공공정자은행]정자가 없다… 정자은행 기증자 줄어 ‘불법’으로 눈 돌려  
날짜: 201505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210017365652  
본문: <b>▲ 생명윤리법 시행 후 규제 강화로 이용 제한<br/>정자은행도 10여곳 불과</b><br/><br/><b>▲ 혈족관계 혼란 우려 형제 간 공여도 안돼<br/>기증자 기준·보상 등 관련법 정비 시급</b><br/><br/>경남 창원시에 사는 ㄱ씨(39)와 ㄴ씨(36)는 결혼 7년차 부부다. 신혼생활을 즐기기 위해 1년간 피임한 후 아이를 가지려 했으나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br/><br/>처음엔 아내 쪽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불임 원인은 남편에게 있었다. 정액 검사 결과 ‘비폐쇄성 무정자증’이었던 것이다. 의사는 “<span class='quot0'>이제 아이를 가지려면 입양이나 정자은행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br/><br/>‘자식 없이 우리끼리 잘 살자’는 다짐도 잠시,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나 친구들과의 만남이 불편해졌고 부부관계도 시들해지는 느낌이었다. 부부는 “<span class='quot1'>한쪽 유전자라도 받은 아이를 낳자</span>”고 합의하고 정자은행을 운영하는 부산대학병원을 찾아갔다. ㄱ씨는 “아내의 피는 받은 것이니까 생판 모르는 아이보다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자은행에 그들을 위한 정자는 없었다. 의사는 정자를 기증할 사람을 직접 데려 오거나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ㄴ씨는 “남편이나 저나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이라 공여해줄 사람이 마땅치 않다”며 “혹시 나타날지 모를 기증자를 위해 병원에 대기순번이라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br/><br/><br/><br/>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ㄷ씨(32)는 8년 전인 1997년 고환암 판정을 받고 한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다. 병원에선 치료 후 정자 생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나중을 위해 정자를 동결보존할 것을 제안했다. 2013년 결혼한 ㄷ씨는 지난해 7년간 동결보관해 둔 정자를 해동해 아내의 난자와 체외수정을 시도해 단 한 번 만에 임신에 성공했다.<br/><br/>정자은행은 정자를 채취한 후 동결보존액과 혼합하여 작은 용기에 넣어 마이너스 196도의 액체질소 탱크 속에 보관하는 시설이다. 냉동 정자는 필요한 양만 녹여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에 사용된다. 현재 국내 대다수 대학병원과 불임전문치료병원에서 정자 동결보존과 해동시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난임부부의 배우자 간 체외수정이나 ㄷ씨의 경우처럼 항암요법 시행 전 정자보관 등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br/><br/>정자은행은 원래 고환에 정자는 물론 원형정세포(정자가 되기 직전의 생식세포)가 없어 임신할 수 없는 난임부부들에게 다른 사람의 냉동정자를 제공하기도 했다. 1997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정자은행을 개설한 부산대병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차병원 등 주요 병원에는 공여받은 정자들이 꽤 있었다. 주로 정자 제공자는 의과대 인턴이나 레지던트, 그리고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었으며 거의 반강제적이었다. 정자 제공자에게는 돈이나 상품권 등을 지불했다.<br/><br/><br/>정자 공여자를 찾기 어려워진 것은 2005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시행과 함께 규제가 강화되면서부터다.<br/><br/>황우석 박사의 허위조작 논문 발표 후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생명윤리법은 돈을 받고 정자나 난자를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2절 제23조 3항에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27조는 난자 기증자 보호를 적시하고 있는데, 난자 기증 횟수는 물론 난자 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 반면 정자 기증자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다만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난임치료병원) 표준운영 안내 지침에 타인의 임신을 목적으로 정자를 기증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게다가 정자 공여자는 기증 6개월 후 의무적으로 성병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자를 통한 성병감염 빈도가 0.6~1.0%에 이르기 때문이다.<br/><br/>그러다 보니 비배우자 간 정자 공여는 거의 중단된 실정이다. 현재 다른 사람(비배우자)의 정자를 받아 동결한 후 인공·체외수정으로 임신을 돕는 정자은행은 부산대병원과 세화병원 등 10여곳에 불과하다.<br/><br/>서주태 단국대 제일병원 교수는 “<span class='quot2'>난자·정자 매매가 차단되면서 기증자를 찾기 어려워졌고, 병원 입장에서도 수익이 전혀 안되는 사업인 데다 대놓고 홍보할 수도 없다 보니 정자은행에 공여용 정자가 없는 상황이 됐다</span>”고 말했다. 공공정자은행 추진위원장인 박남철 부산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3'>형제나 친척의 정자로 임신을 하게 되면 가족·혈연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환자가 친·인척 공여자를 데리고 오면 다른 사람의 정자를 우선 제공하고, 공여자의 정자는 냉동시켰다가 3자에게 제공해왔다</span>”고 밝혔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3'>요즘은 이런 릴레이 기증마저도 쉽지 않다</span>”고 했다. 김수웅 서울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4'>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면 난임부부를 위한 정자 공여도 늘어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공여 원칙도 병원마다 들쭉날쭉이다. 혈족관계 혼란을 우려해 정자은행에선 형제의 정자로 시술을 해주지 않는다. 반면 “난자 공여의 경우엔 자매가 가장 많다”고 이원돈 서울마리아병원 원장이 귀띔했다.<br/><br/>정자은행에 공여용 정자가 없다 보니 일부 난임부부들이 눈길을 돌리는 곳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 거래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난자·정자 등 불법 매매·알선이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글을 1678건 발견해 포털에 삭제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 ‘대리부 지원합니다’ ‘대리부, 대리모 지원’ 등의 제목과 함께 자신의 신상 기록을 담은 글들이 인터넷에는 수시로 올라온다. 이들 중 적잖은 남성이 돈도 벌고 성적 욕구도 풀기 위해 대리부로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력을 위조하는 경우도 많다.<br/><br/>공공정자은행추진위는 비배우자 간 검증된 양질의 정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증자에 대한 현실적 보상방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로 거점 정자은행을 지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암치료 전이나 장기 출장 때 정자를 동결보관한 후 필요할 때 배우자 간 인공수정을 할 수 있도록 거점병원에서 안내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럴 경우 연간 5000명 이상의 출산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3'>대학병원과 불임치료 병원에선 이미 시설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정자은행을 위해 정부가 특별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span>”며 “<span class='quot3'>다만 관련법을 정비해 정자 제공자에 대한 기준과 보상 등을 명시하면 안전한 정자로 난임부부의 고통을 줄일 수 있고, 불법 정자·난자 매매 등 사회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div style="border: solid 1px #DDD;background-color: #F5F5F5;padding: 10px 15px 15px 15px;font-size: 13px;line-height: 22px;\_height: 1%;margin-bottom: 20px;"><b>▲ 인공수정</b><br/><br/>배란기에 남편의 정액을 받아 다양한 과정의 정자 처리 과정을 거친 후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다.<br/><br/><b>▲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b><br/><br/>여성의 성숙된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인위적으로 채취하여 몸 밖에서 수정시켜 2~3일 동안 배양한 후 여성의 자궁내막에 이식하는 방법이다.<br/><br/><b>▲ 무정자증</b><br/><br/>고환에서 정자는 생성되지만 정자가 배출되는 관이 막힌 폐쇄성 무정자증과 아예 고환에서 정자를 생성하지 못하는 비폐쇄성 무정자증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관을 뚫어주는 수술을 하거나 고환에서 직접 정자를 채취, 체외수정하면 임신할 수 있지만 후자는 불가능하다.</div><br/><br/><박주연 기자 jypar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55.txt

제목: [찬반 엇갈리는 공공정자은행]나를 판다고요? 나도 생명인데…  
날짜: 201505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210017365646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반대 - 돈벌이 이용·인공수정 무분별 확산… 인위적 생명 만들기 근본적 고민을</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찬성 - 무정자증·암환자 등의 인공수정 때 안전 관리·공급 투명성 위해 필요</strong><!-- SUB\_TITLE\_END--><br/><br/>“공공정자은행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암환자나 비배우자 간 정자 공여를 통한 인공수정 시 해당 정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자·정자라는 생식세포도 엄연한 생명이라는 점에서 이를 돈으로 사고파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이인영 한국생명윤리학회장·홍익대 법대 교수)<br/><br/>공공정자은행 설립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인영 회장처럼 전체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br/><br/><br/>반대하는 학자들은 주로 윤리적, 법적 문제를 거론한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span class='quot0'>돈벌이 수단으로 정자를 제공하려는 이들의 정자를 사용하면 안되며, 그에 앞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생명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인간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그저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필요한 윤리적인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이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강요함으로써 타인의 정자·난자를 이용해서라도 자식을 가지려는 분위기를 조장한다</span>”고 비판했다. <br/><br/>구인회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는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 자체에 부정적이다. 그는 “<span class='quot0'>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태어나는 아이의 행복권 침해, 가족관계 혼란, 대리모 문제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span>”고 주장했다. 형제·자매 등 친족이 기증자가 되면 근친상간과 유사해 가족관계 질서와 조화를 해칠 수 있고, 한 남자의 정자로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부부가 이혼할 경우 아이의 친권은 누구에게 있느냐와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를 찾을 경우 상속권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구 교수의 지적이다. <br/><br/>실제로 2011년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기증 정자로 출산한 여성이 일곱살 된 아들에게 아버지가 같은 형제를 찾아주고 싶어 인터넷을 검색하다 같은 남자로부터 정자를 받아 태어난 아이가 무려 150명에 이르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2013년 한국을 비롯, 전 세계에서 상영된 미국 코미디영화 <딜리버리맨>(Delivery Man)은 정자 기증으로 벌어진 상황을 모티프로 만들어졌다. 20년 전 정자은행에 익명으로 600여 차례에 걸쳐 정자를 제공했다가 졸지에 533명의 아버지가 된 남자가 이 중 142명으로부터 친자확인소송을 당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작품이다. <br/><br/>기증 정자로 태어난 아이와 관련된 소송은 실제로 여러 차례 국내외에서 제기됐다. 국내에선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 소송이 화제가 되었다. 정자은행에서 제공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자식을 낳은 여성들이 전남편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 판결이 엇갈렸다. 2000년엔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아들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844조 1항 규정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002년엔 “원·피고가 장차 태어날 아이에 대해 서로 친자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친생자관계는 자연적 혈연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 의사와는 무관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기증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다. <br/><br/>2008년 캐나다에선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이들이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기록의 공개 및 파기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입양아와 마찬가지로 생식세포 기증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알 권리를 요구한 것이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들의 권리를 인정했다. 2014년 일본에선 자신이 제3자 정자 제공에 의해 인공수정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토 히데아키(40)라는 의사가 부모의 난임치료를 담당한 게이오대학병원에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한 일도 있었다. <br/><br/><br/>공공정자은행 설립이 무분별한 인공·체외수정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명희 연구부장은 “<span class='quot1'>인공수정·체외수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많아지면서 자연임신이 가능한 경우에도 쉽게 시술을 선택하는 이들이 증가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쉽게 타인의 정자를 얻을 수 있는 정자은행의 활성화는 공공이든 아니든 이 같은 인공·체외수정을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병원의 이익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span>”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200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해왔다. 2006년 시작 당시 464억원이던 지원금은 2013년엔 총 757억원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소득 150% 미만 난임부부이며 체외수정 1회당 180만원 범위 내 4회, 인공수정 1회당 50만원 범위 내 3회 지원하고 있다. <br/><br/>찬성 입장도 있다.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pan class='quot2'>공공정자은행의 설립은 음성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정자 공급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span class='quot2'>인체유래물, 특히 생식세포인 정자 제공에 대한 실비보상 주장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법’ 등에서 보듯이 현실적이고 제한적인 보상규정 선례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span>”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span class='quot2'>다만, 정자은행 운영자의 사적이익 추구는 철저히 규제돼야 한다</span>”고 덧붙였다.<br/><br/><박주연 기자 jypark@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56.txt

제목: [황교안 총리 지명]진보당 해산 ‘미스터 보안법’… DJ정부 검찰 인사 ‘환란’ 비하  
날짜: 20150522  
기자: 홍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2100000162  
본문: ▲ “강정구 사건으로 눈밖<br/>인사 불이익 당해” 주장<br/>▲ MB·박근혜 정부서 ‘날개’<br/>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주도<br/>▲ 경기고 동기인 노회찬<br/>‘삼성X파일’ 때 기소도<br/><br/>황교안 국무총리 지명자(58·사법연수원 13기)는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보수적 색채가 짙을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다잡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인물로 통한다.<br/>국가보안법 해설서와 집회·시위법 해설서 등을 집필한 황 지명자는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대검찰청 공안3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거쳤다. 2005년 공안수사의 요직인 서울지검 2차장검사를 맡아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자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을 지시했고,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br/>황 지명자는 그러나 이듬해와 2007년 잇따라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했다. 그는 2011년 교회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공안부 검사들에 의해 대우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구속까지 된 분이어서,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았다”면서 “그분이 볼 때 제가 사건 하나를 잘못 처리했다”고 해석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를 가리켜 “이런 분이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이 전부 좌천됐다”면서 “나는 사법연수원 교수여서 직접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 하나님께 환란으로부터 도피를 감사드렸다”고도 했다.<br/>황 지명자는 그러나 보수정권 들어 ‘날개’를 달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늦깎이로 검사장에 승진했다. 2011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태평양에 몸담았다가 2년 뒤인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 화려하게 공직에 복귀했다. 법무법인 시절 16개월 만에 16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점이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지만 무사 통과했다.<br/>장관 취임 후 곧바로 박근혜 정부의 ‘1등공신’ 반열에 올라섰다. 그는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사건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하자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 감찰팀을 동원해 감찰에 착수하면서 결과적으로 ‘채동욱 찍어내기’의 결정타 역할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국정원 댓글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 구속했다.<br/>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부 대리인으로 진두지휘한 것도 그였다. 그는 통합진보당을 ‘암적 존재’라고 불렀다.<br/>올해 들어서는 박 대통령이 내세운 ‘비리 척결’의 선봉장 역할을 맡았다. 지난달 여권 실세 8인의 금품수수 의혹인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2차례 사면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span class='quot0'>다소 이례적 사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는 것으로 안다</span>”며 “<span class='quot0'>(사면 과정에서) 수사 단초가 발견된다면 살펴봐야 한다</span>”고 했다. 야당을 겨냥한 수사 지휘로 받아들여지면서 ‘물타기’란 야권 반발을 샀다. 이후엔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언급한 건 아니다”라며 물러서기도 했다.<br/>삼성, 노회찬 전 의원과의 인연도 눈길을 끈다. 서울지검 2차장 시절 국가정보원 도청에서 비롯된 ‘삼성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아 이건희 삼성 회장은 서면조사만 하고 불기소 처분한 반면 해당 내용을 폭로한 노회찬 당시 의원은 기소했다. 황 지명자와 노 전 의원은 경기고 동창생이다. 이 사건으로 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 전 의원이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 검찰에 잡혀와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옆방에 근무하던 황 지명자가 찾아와 잠시 수갑을 풀어주면서 담배를 건넸다는 일화도 있다.<br/>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장로이며, 취미로는 테니스를 즐긴다.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 업무가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마인드컨트롤이 잘 됐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57.txt

제목: [세상읽기]술이 발암물질이라고?  
날짜: 201505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110017355213  
본문: 담배가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술이 발암물질이냐고 물으면 설마하는 표정을 짓는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술은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술(알코올)과 그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1급이라는 것은 인체에서 발암이 확인됐다는 것을 말한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술도 많이 마실수록 암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술을 하루에 50g 이상 마실 경우 암 발생의 위험이 2~3배 더 늘어난다. 더구나 담배를 같이 피면 그 위험은 가중된다.<br/><br/>우리 사회에는 포도주를 비롯해 술은 약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이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단히 오해가 많고 과장된 정보이다. 담배는 한 개비라도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정 흡연이라는 개념이 없고 무조건 담배를 끊도록 권한다. 그런데 술은 한 모금도 안 하는 사람에 비해 약간의 음주를 하는 사람의 건강이 더 좋기 때문에 약간의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개념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음주도 그 ‘약간’을 넘으면 마실수록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나타난다. <br/><br/>그럼 어느 정도 술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문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적정 음주량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는 것에 비해 엄청나게 적다는 것이다. 국립암센터에서는 암예방 수칙 열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술은 하루 두 잔 이내로 마시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소주는 소주잔으로, 맥주는 맥주잔으로, 포도주는 포도주잔으로 두 잔 이내를 마시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를 초과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음주가 더 위험하다는 근거에 입각해 세계암연구기금에서는 남성은 하루 두 잔, 여성은 하루 한 잔 이하를 권하고 있으니 여성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br/><br/>또 다른 주제는 술에 따라 어떤 종류의 술은 건강에 더 유익하거나 최소한 덜 해로운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마시는 술은 맥주, 소주, 막걸리, 양주, 포도주 등 종류가 다양하고, 술의 종류에 따라 알코올 함량이 다를 뿐만 아니라 술에 들어 있는 성분 역시 다르다. <br/><br/>한때 포도주 시음회가 만들어지고, 마치 포도주에 대해 모르면 교양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다. 붉은 포도주의 경우 탄닌을 비롯한 항산화물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졌지만, 발암물질인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를 섞어 마신다면 건강에 이로울 리 없다. 최근 막걸리 붐이 일고, 막걸리에서 항암물질이 발견됐다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막걸리가 건강에 좋은 술로 비치고 있지만 이것 역시 많이 마시면 득보다 실이 크다.<br/><br/>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술은 여러 급성 및 만성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담배와 더불어 인류 건강에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다. 또 음주운전이나 음주와 관련된 폭력 행위, 알코올중독이나 알코올 의존성 등의 정신·사회적 문제는 헤아리기 어렵다. 더구나 임신부의 음주는 저체중아 및 태아의 선천성 기형이나 신경학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br/><br/>1970~1980년대에는 대학생이 되면 으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이 통과의례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대학생이라도 자기 자녀가 담배 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다. <br/><br/>필자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신입생 환영회에서는 술을 한 사발씩 마시는 것이 관례였고, 그게 자랑스러운 전통처럼 여겨졌다. 가끔 신입생 환영회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이 보도되곤 했는데, 이제 그런 몹쓸 전통은 사라질 때가 됐다.<br/><br/>담배 인심이라는 말이 지금은 사라졌듯이 이제 술인심이라는 말도 사라질 때가 됐다. 아무리 좋은 술친구라 하더라도 마주 앉아 두 잔의 술을 마셨다면, 술을 더 권하는 것은 발암물질을 권하는 것과 같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에 좋은 것을 찾아나서기보다는 건강에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절주는 금연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음주는 하루 두 잔 이내로 해야 한다.<br/><br/><서홍관 | 국립암센터 교수·시인>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58.txt

제목: “연명치료 집착보다 죽음의 질 높이는 돌봄의료 늘려야”  
날짜: 20150521  
기자: 정유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1100000091  
본문: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71)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치료가 어려운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연명치료에 집착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총체적인 돌봄(Holistic care) 의료행위를 말한다.<br/>호스피스 완화의료 국민본부 공동대표를 맡은 김 전 장관은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중환자실에서 홀로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외롭고 공포스러운 일은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가족의 품에서 편하게 눈을 감는 고귀한 죽음도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웰빙(well-being)’ 못지않게 ‘웰다잉(well-dying)’도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br/>지난 3월 출범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국민본부에는 국회의원과 각계 인사 80여명을 비롯해 1만49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웰다잉’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크다는 방증이다. 공동대표는 김 전 장관과 성낙인 서울대 총장, 전윤철 전 부총리, 유중근 전 한국적십자사 총재, 윤평중 한신대 교수가 맡고 있다. <br/><br/>- 어떤 삶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필요한 이유는. <br/>“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영적으로도 위로해주는 전인적인 돌봄의료이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부끄러운 일이다. 평균 기대수명이 82세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생활고를 겪으며 오랫동안 질환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임종을 맞곤 한다. 마지막 순간만큼이라도 선택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웰빙은 웰다잉으로 마무리돼야 한다.”<br/>- 연명치료의 부정적 측면은.<br/>“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죽음을 앞둔 10명 중 3명이 인공호흡기, 인공영양공급,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등에 임종을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한 달 전 연명치료에 쓴 평균 의료비는 284만6000원에 이른다. 사망 3년 전에 비하면 6.8배나 많은 수준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는데 죽음의 질은 낮기만 하다. 존엄스러운 죽음이 아니다.”<br/>- 외국의 실태는 어떤가.<br/>“미국의 경우 45%가 사망 직전 호스피스 병동을 거친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 등을 하지 않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고통완화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마지막 돌봄(End of Life Care)’을 국가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br/>-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은 어떤가.<br/>“자식들은 부모가 말기 환자 판정을 받더라도 마지막까지 연명치료를 해야만 효를 다한다고 생각한다. 의사는 고가의 의약품과 값비싼 첨단 의료기술을 어떻게든 써보려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9%는 의식불명이거나 가망이 없을 때 치료를 받는 것에 반대했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무의미한 연명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이다.”<br/>- 호스피스 의무화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br/>“말기 암환자에게만 국한되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망에 임박한 환자로 대상을 넓히자는 게 주요 골자다. 뇌졸중, 치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파킨슨병 등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전의료 계획도 마련해놓고 있다. 임종이 임박하면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데 의료진이 개입해 죽음의 질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사망이 예상되면 수개월 전이라도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사 2명이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br/>- 예산이 많이 들지 않나.<br/>“미국만 해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종 한 달 전 의료비가 46%가량 준다. 대만은 호스피스 서비스 도입으로 의료비 64%를 절감했다.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은 암환자가 일반 암환자에 비해 진료비를 2.5배 적게 썼다. 항암치료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호스피스 서비스로 대체하면 된다. 국민들은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은 튼실해진다.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br/>- 앞으로 계획은.<br/>“연명치료를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죽음에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다.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려면 말기 질환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동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내집 안방 같은 병동이 필요하다. 호스피스 전문인력도 배치해야 한다. 올해 안에 호스피스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 종합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59.txt

제목: [녹색세상]남의 살 무한리필, 이제 그만  
날짜: 20150521  
기자: 황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1100000076  
본문: “독일의 한 육류 소시지 업체가 비건(vegan, 완전채식) 소시지를 몇 년 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판매를 시작했을 때 업체는, 5년 안에 비건 소시지가 기존의 육류 소시지와 판매량이 비슷해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비건 소시지는 단 1년 만에 육류 소시지의 판매량을 넘어섰습니다.” <br/>도서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를 통해 제도적으로 강요된 육식의 메커니즘을 분석한 사회심리학자 멜라니 조이 박사의 말이다. 한국을 찾아 강연 중인 조이 박사는 최근 유럽과 북미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비거니즘(Veganism, 완전채식) 열풍의 현황을 생생하게 전해주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수치. 2010년 독일에서 새로 출간된 비건 요리책은 3권이었는데 2011년에는 12권, 2012년에는 23권, 2013년에는 48권, 2014년에는 77권이 나왔다. 북미도 마찬가지다. 10년 전 미국에서 “저는 비건이에요”라고 말하면 괴물쯤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지금은 “와, 멋지군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젊어 보이는군요”라고 답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베를린영화제 개막식에서 1000명 넘는 게스트들에게 제공된 식사가 비건식이어서 놀랐는데, 그것이 내게는 특별한 체험이었어도 그들에게는 일상이었던 것이다. 육식의 본고장이었던 나라들의 식탁에서, 아니 음식에 관한 의식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br/>대한민국은 어떨까. 닭고기로 소비되는 육계가 1년에 7억마리 이상 도축된다. 돼지고기 생산량은 지난 40년간 10배 이상 증가했다. 급식도 고기, 회식도 고기, 아침엔 햄 샌드위치, 점심엔 돈가스, 저녁엔 삼겹살. TV만 틀면 ‘먹방’, 지하철에도 육류 광고. 그런데 전통적으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던 한국인들이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게 된 것은 사실 오래되지 않았다. 최근 20~30년 사이 급격히 육류 소비가 늘었다. 한국인이 갑자기 고기를 많이 먹게 된 배경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br/>가축을 대규모 밀집 사육하는 이른바 ‘공장식 축산’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대규모화’와 ‘계열화’를 추진함으로써 공장식 축산을 지원했다. 농림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량 사육 농가에 자동화 설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했다. 대량으로 키워야만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소규모로 가축을 키우던 농가들은 대규모 사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육을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다. 이로 인해 농장은 공장이 되고, 농가는 기업화되었으며 가축은 ‘식용동물’로 전락했다. 육류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와 비례해서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 암 발생도 급증했다. 대규모 밀집사육과 밀폐된 축사는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거의 매해 발생하게 됐고, 그때마다 살처분을 한다.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무려 1조8418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국민의 혈세로 지출됐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매몰지 주변의 상수도를 정비하는 데 투입된 예산도 6411억원에 달한다. 가혹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들은 각종 질병에 걸린다. <br/>치맥과 삼겹살을 주문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보자. 육류를 향한 끝없는 이 욕망이 과연 애초에 우리의 것이었는지, 어쩌면 우리는 육식을 강요하는 시스템에 포획되어 있는 건 아닌지. 당장 모두가 채식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공장식 축산과 과도한 육식만은 시급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녹색당,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 ‘공장 대신 농장을’ 캠페인을 전개하며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가장 심각한 동물학대로 손꼽혀 유럽연합 28개국에서 법으로 금지된 암퇘지 스톨(감금틀)과 산란계 배터리케이지부터 없애자는 서명이다. ‘남의 살’ 무한리필, 이쯤에서 멈추자. 육식주의 매트릭스에서 이제 그만 뛰쳐나오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60.txt

제목: 인간이 만든 ‘자연’ 그림같다… 노르웨이 남서부 ‘아르누보의 도시’ 올레순  
날짜: 20150521  
기자: 구정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1100000067  
본문: 노르웨이 남서부 올레순(Alesund)은 대서양에 면한 항구와 섬들로 이뤄진 인구 4만5000명의 작은 도시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원래 부르던 이름은 ‘카우팡’, 시장이라는 뜻이었다. 바닷가 시장 마을이 1838년 시로 격상되면서 지금의 이름이 붙었다.<br/>올레순은 ‘아르누보(신예술)의 도시’로 통한다. 1905년 큰 화재가 일어나 목조주택 850여채가 불에 탄 뒤 당시 유행하던 아르누보 스타일로 도시가 재건축됐기 때문이다. 악슬라(어깨)라는 이름의 산 전망대에 올라가면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희고 노랗고 파란 집들이 모자이크돼 만들어내는 풍경은 왜 이곳이 아르누보의 도시라 불리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현지 신문 다그블라뎃이 2007년 ‘노르웨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꼽았던 곳이기도 하다.<br/><br/>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유럽에서 유행하던 아르누보 양식은 장식적이고 화려한 스타일을 특징으로 하지만, 올레순의 아르누보는 조금 다르다. 옹기종기 예쁜 집들이 모인 유럽의 여느 도시들에 비하면 소박한 편. 건물 외벽에 뱀, 밧줄, 투박한 얼굴 모양 부조들이 새겨져 있다. 가이드 벤테(67)는 “바이킹 문양을 곁들여 올레순만의 아르누보 스타일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하처럼 도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바닷가를 따라 늘어선 호텔들과 언덕 위의 집들은 깔끔하고 아름답지만 관광객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는 허세나 화려함은 없다.<br/>시내 중심가의 아르누보 센터는 1907년 지어진 건물이다. 약국으로 쓰이다가 2001년 박물관으로 변신했다. 약국 시절의 고풍스러운 가구와 일본에서 가져왔다는 벽지, 두 차례 세계대전 사이의 전간기 문화와 2차 대전 후 재건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볼 수 있다.<br/>올레순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아틀란테하브스파르켄(대서양 수족관)이다. 바닷물을 가둬 물개와 물범을 키우고, 바위 지형을 건물 안으로 끌어들인 친환경 수족관으로 유명하다. 앞발로 박수를 치며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물개들 뒤편으로 수평선이 이어져 있다. 건물 안과 밖에 여러 가지 체험 시설들이 있다. 수조에 손을 넣어 불가사리를 커다란 가리비 위에 올렸다. 가리비가 포식동물인 불가사리를 피해 허둥지둥 도망을 친다.<br/>언덕 위로 걸어올라가니 작은 영화관이 나온다. 멀티플렉스 상영관들만 남은 한국에선 이미 오래전 사라진 소극장. 기둥에 붙은 <어벤져스>와 <매드맥스> 포스터만 아니라면 이곳이 극장인 줄 아무도 모를 것 같았다. 오후 5시가 넘으면 거리는 텅 빈다. 저녁 늦게까지 문을 여는 몇 안되는 레스토랑 중 한 곳에 들어가 바칼라우를 먹었다. 바칼라우는 스페인에서 대구를 가리키는 말인데, 노르웨이에서는 소금에 절여 말린 대구를 지칭한다.<br/>함께 간 벤테에게 “이렇게 일찍부터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 불편하지 않으냐”고 물었다. 올레순 관광당국에서 일하는 벤테는 “안 그래도 그것이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집권 우파 연정 중 가장 보수적인 진영에서 평일 영업시간 연장, 일요일 영업 등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내놨으나 결국 무산됐단다. 벤테는 “나도 소비자로서 가게들이 일요일에 문을 열면 편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나는 노동자이기도 하다”며 삶의 질 순위 1위인 노르웨이 시민다운 답변을 내놨다.<br/>고요한 항구에 서 있는 빨간 등대가 눈에 띈다. 지어진 지 150년이 넘은 이 등대는 객실 1개짜리 호텔이다. 이웃한 바닷가에 위치한 브로순뎃 호텔에서 운영하는 특별 객실인 셈이다. 1층엔 침실, 2층엔 욕실이 있는데 1박에 550달러가 넘는다. 오슬로 오페라하우스를 디자인한 유명 건축회사 스뇌헤타가 실내 설계를 맡았고, 주로 신혼여행객들이 찾는다고 한다.<br/><올레순 | 구정은 기자 ttalgi21@kyunghyang.com><br/>▲ 오슬로에 온 고흐, 뭉크와 함께 만나다<br/>9월까지 특별전… 여행자에겐 행운<br/><br/>노르웨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에두바르 뭉크다. 오슬로의 뭉크갤러리에서 ‘반 고흐+뭉크’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특별전시회를 볼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았다. 설명이 필요 없는 예술가들, 그러나 그리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두 사람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였다.<br/>고흐와 뭉크라니, 얼핏 두 사람의 작품 스타일을 생각할 때 어울리지 않는 결합이다. 1853년 태어나 1890년 세상을 뜬 고흐는 네덜란드 태생이고, 1863년부터 1944년까지 살았던 뭉크는 노르웨이 남동쪽 오달스브룩에서 태어났다. 19~20세기 북유럽의 대표적인 화가인 두 사람의 접점은 프랑스 파리다. 파리에서 두 사람은 유럽 대륙의 화풍과 사조들을 받아들였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냈다. 고흐는 1890년 생레미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았다. 뭉크는 고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1년 전 파리에 도착했다.<br/>암스테르담 반고흐미술관과 오슬로 뭉크갤러리의 합작으로 이뤄진 전시회는 두 걸출한 화가가 남긴 작품들을 교차해 보여준다. 병 든 아이, 절규, 낫을 든 밀밭의 농부,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 75점의 유화와 25점의 스케치들에는 예술가들의 내면의 고통이 담겨 있다. 점묘파 화가 쇠라와 고흐, 뭉크의 작품들이 한 벽에 걸리니 미묘한 붓질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온다. 관객들을 쏘아보는 듯한 고흐의 자화상이 강렬한 화가의 자의식을 드러내보이는 반면, 뭉크의 자화상은 관객의 어깨를 넘어 어딘가로 시선을 던지고 있다. ‘절규’의 가장 유명한 버전은 오슬로국립건축디자인박물관 소장품인지라 볼 수 없었지만 스케치에 좀 더 가까운 또 다른 ‘절규’가 있어 아쉬움을 달랬다. ‘모성’이 가진 모든 생명력을 제거해버린 듯 창백한 ‘마돈나’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는 9월6일까지다. 한진관광은 오슬로 직항 대한항공 전세기를 6월20·27일, 7월4·11일(총 4회, 매주 토요일) 운항하며 카타르항공도 오슬로에 취항하고 있다.<br/><오슬로 | 구정은 기자 ttalgi21@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61.txt

제목: 인간이 만든 ‘자연’ 그림같다… 노르웨이 남서부 ‘아르누보의 도시’ 올레순  
날짜: 20150521  
기자: 구정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1100000093  
본문: 노르웨이 남서부 올레순(Alesund)은 대서양에 면한 항구와 섬들로 이뤄진 인구 4만5000명의 작은 도시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원래 부르던 이름은 ‘카우팡’, 시장이라는 뜻이었다. 바닷가 시장 마을이 1838년 시로 격상되면서 지금의 이름이 붙었다.<br/>올레순은 ‘아르누보(신예술)의 도시’로 통한다. 1905년 큰 화재가 일어나 목조주택 850여채가 불에 탄 뒤 당시 유행하던 아르누보 스타일로 도시가 재건축됐기 때문이다. 악슬라(어깨)라는 이름의 산 전망대에 올라가면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희고 노랗고 파란 집들이 모자이크돼 만들어내는 풍경은 왜 이곳이 아르누보의 도시라 불리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현지 신문 다그블라뎃이 2007년 ‘노르웨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꼽았던 곳이기도 하다.<br/><br/>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유럽에서 유행하던 아르누보 양식은 장식적이고 화려한 스타일을 특징으로 하지만, 올레순의 아르누보는 조금 다르다. 옹기종기 예쁜 집들이 모인 유럽의 여느 도시들에 비하면 소박한 편. 건물 외벽에 뱀, 밧줄, 투박한 얼굴 모양 부조들이 새겨져 있다. 가이드 벤테(67)는 “바이킹 문양을 곁들여 올레순만의 아르누보 스타일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하처럼 도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바닷가를 따라 늘어선 호텔들과 언덕 위의 집들은 깔끔하고 아름답지만 관광객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는 허세나 화려함은 없다.<br/>시내 중심가의 아르누보 센터는 1907년 지어진 건물이다. 약국으로 쓰이다가 2001년 박물관으로 변신했다. 약국 시절의 고풍스러운 가구와 일본에서 가져왔다는 벽지, 두 차례 세계대전 사이의 전간기 문화와 2차 대전 후 재건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볼 수 있다.<br/><br/>올레순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아틀란테하브스파르켄(대서양 수족관)이다. 바닷물을 가둬 물개와 물범을 키우고, 바위 지형을 건물 안으로 끌어들인 친환경 수족관으로 유명하다. 앞발로 박수를 치며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물개들 뒤편으로 수평선이 이어져 있다. 건물 안과 밖에 여러 가지 체험 시설들이 있다. 수조에 손을 넣어 불가사리를 커다란 가리비 위에 올렸다. 가리비가 포식동물인 불가사리를 피해 허둥지둥 도망을 친다.<br/>언덕 위로 걸어올라가니 작은 영화관이 나온다. 멀티플렉스 상영관들만 남은 한국에선 이미 오래전 사라진 소극장. 기둥에 붙은 <어벤져스>와 <매드맥스> 포스터만 아니라면 이곳이 극장인 줄 아무도 모를 것 같았다. 오후 5시가 넘으면 거리는 텅 빈다. 저녁 늦게까지 문을 여는 몇 안되는 레스토랑 중 한 곳에 들어가 바칼라우를 먹었다. 바칼라우는 스페인에서 대구를 가리키는 말인데, 노르웨이에서는 소금에 절여 말린 대구를 지칭한다.<br/>함께 간 벤테에게 “이렇게 일찍부터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 불편하지 않으냐”고 물었다. 올레순 관광당국에서 일하는 벤테는 “안 그래도 그것이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집권 우파 연정 중 가장 보수적인 진영에서 평일 영업시간 연장, 일요일 영업 등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내놨으나 결국 무산됐단다. 벤테는 “나도 소비자로서 가게들이 일요일에 문을 열면 편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나는 노동자이기도 하다”며 삶의 질 순위 1위인 노르웨이 시민다운 답변을 내놨다.<br/>고요한 항구에 서 있는 빨간 등대가 눈에 띈다. 지어진 지 150년이 넘은 이 등대는 객실 1개짜리 호텔이다. 이웃한 바닷가에 위치한 브로순뎃 호텔에서 운영하는 특별 객실인 셈이다. 1층엔 침실, 2층엔 욕실이 있는데 1박에 550달러가 넘는다. 오슬로 오페라하우스를 디자인한 유명 건축회사 스뇌헤타가 실내 설계를 맡았고, 주로 신혼여행객들이 찾는다고 한다.<br/><올레순 | 구정은 기자 ttalgi21@kyunghyang.com><br/>▲ 오슬로에 온 고흐, 뭉크와 함께 만나다<br/>9월까지 특별전… 여행자에겐 행운<br/><br/>노르웨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에두바르 뭉크다. 오슬로의 뭉크갤러리에서 ‘반 고흐+뭉크’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특별전시회를 볼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았다. 설명이 필요 없는 예술가들, 그러나 그리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두 사람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였다.<br/>고흐와 뭉크라니, 얼핏 두 사람의 작품 스타일을 생각할 때 어울리지 않는 결합이다. 1853년 태어나 1890년 세상을 뜬 고흐는 네덜란드 태생이고, 1863년부터 1944년까지 살았던 뭉크는 노르웨이 남동쪽 오달스브룩에서 태어났다. 19~20세기 북유럽의 대표적인 화가인 두 사람의 접점은 프랑스 파리다. 파리에서 두 사람은 유럽 대륙의 화풍과 사조들을 받아들였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냈다. 고흐는 1890년 생레미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았다. 뭉크는 고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1년 전 파리에 도착했다.<br/>암스테르담 반고흐미술관과 오슬로 뭉크갤러리의 합작으로 이뤄진 전시회는 두 걸출한 화가가 남긴 작품들을 교차해 보여준다. 병 든 아이, 절규, 낫을 든 밀밭의 농부,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 75점의 유화와 25점의 스케치들에는 예술가들의 내면의 고통이 담겨 있다. 점묘파 화가 쇠라와 고흐, 뭉크의 작품들이 한 벽에 걸리니 미묘한 붓질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온다. 관객들을 쏘아보는 듯한 고흐의 자화상이 강렬한 화가의 자의식을 드러내보이는 반면, 뭉크의 자화상은 관객의 어깨를 넘어 어딘가로 시선을 던지고 있다. ‘절규’의 가장 유명한 버전은 오슬로국립건축디자인박물관 소장품인지라 볼 수 없었지만 스케치에 좀 더 가까운 또 다른 ‘절규’가 있어 아쉬움을 달랬다. ‘모성’이 가진 모든 생명력을 제거해버린 듯 창백한 ‘마돈나’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는 9월6일까지다. 한진관광은 오슬로 직항 대한항공 전세기를 6월20·27일, 7월4·11일(총 4회, 매주 토요일) 운항하며 카타르항공도 오슬로에 취항하고 있다.<br/><오슬로 | 구정은 기자 ttalgi21@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62.txt

제목: [‘심리톡톡’ 시즌2 - 사랑에 관하여](5) 임경선 "사랑을 대할 때 취해야 할 단 하나의 태도"  
날짜: 201505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110017353986  
본문: 인생은 유한하고, 인간은 불완전하다.<br/><br/>작가 임경선씨는 그래서 사랑에 대해 취해야 할 단 한 가지 태도가 있다면 ‘관대함’이라고 말한다. 우리 인생에 사랑만한 ‘사치’는 없기에, 내일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결핍까지 끌어안아야 하고, 때로 이별의 순간에도 멀어지고 싶은 상대의 마음까지 이해해야 한다. 관대함은 사랑의 시작이자 끝이다. 나 자신이 우선 단단해져야 이런 관대한 태도를 지닐 수 있다.<br/><br/>경향신문 연중기획 ‘심리톡톡 시즌2-사랑에 관하여’ 5월 강연은 작가 임경선씨가 ‘사랑의 태도’를 주제로 진행했다. 일과 사랑,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에 관한 다양한 글쓰기를 보여준 작가는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지난 11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상담을 받아 오기도 했다. 최근 내놓은 <태도에 관하여>(한겨레출판)라는 에세이가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를 다뤘다면 이날 강연은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9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열린 강연 내용을 소개한다.<br/><br/><br/><br/><br/><br/>■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함정<br/><br/>강연에서 꼭 받는 질문, 아니 하소연이 있는데요. “사랑하면 상처받을까봐 두렵다. 나 좋다는 사람은 싫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그렇다고 연애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자니 그렇고, 눈 낮추고 주변을 둘러봐도 멀쩡한 사람은 다 기혼이다. 대체 괜찮은 남자들은 왜 없냐? 어디 가서 찾아야 하냐!”<br/><br/>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를 막 내세요. (웃음) 저는 거꾸로 여쭙고 싶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가 나를 사랑해주길 바라기 전에 당신은 스스로를 사랑하냐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면 또 고개를 갸우뚱, 우물쭈물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쨌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나보다 더 이해하고 사랑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명제를 너무 미화하는 건 아닐까요.<br/><br/>가령, 요즘 나오는 감성에세이들을 보면 “너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야” “넌 사실은 좋은 점을 많이 가진 매력적인 사람이야”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해줘”하고 위로하잖아요. 분명 인생 어느 시점에선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됐을 테죠.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는 말은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때, 잠시 나를 위로하는 용도로 쓴다면 모를까, 언제부턴가 이 말이 아무 것도 안 하려는 스스로에 대한 변명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나야, 어쩔래?” “<span class='quot0'>난 이런저런 상처가 있어서 지금 이럴 수 밖에 없는 거야</span>” 라면서 지금 나의 지질한 점, 못난 점을 합리화하는 데 쓰고 있진 않은지요.<br/><br/>이렇게 사랑에 있어서 자발성, 능동성이 발휘되지 않으면 대신 자존심이나 자의식이 작용합니다. 저는 자존심 내세우는 건 모든 사랑하는 관계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존심 내세우는 관계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대체로 이런 불필요한 모습들을 보이는데요.<br/><br/>첫 번째, 자기는 껍데기에서 한걸음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심 누군가가 껍데기를 깨고 들어와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막상 깨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왜 하필 너야 라며 화내죠.(웃음)<br/><br/>두 번째, 자신의 문제를 상대에게 투영하거나 내가 채우지 못한 결핍을 대신 채워줄 상대를 기다립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싫어하는 점을 상대에게서 발견하면 못 견디고 고치라고 강요하기도 하죠.<br/><br/>세 번째, 상처받기 전에 먼저 상처를 줍니다. 조금 불안한 기미가 보이면 그 무엇보다도 내가 버림받을 거라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내가 차이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면 관계가 기승전결이 없어집니다. 제대로 시작하고 제대로 끝나본 적도 없이 그저 연애의 단맛만 맛보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늘 관계에 깊숙이 발을 넣기보다 항상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br/><br/>‘있는 그대로의 나’가 매력적일 때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고 싶어지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죠.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자’ 같은 자기암시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좀 거창하게 취급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닌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br/><br/>있는 그대로 나를 직시하고 주제파악을 한다는 건데 주제파악이라고 해서 자기비하가 아니라, 나의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직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잘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죠. 타고난 것이나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일상 속의 꾸준한 성실함이 자존감을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br/><br/>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기본적인 삶의 태도죠. 저는 이런 성실한 자존감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나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는 상대의 결핍이나 불완전함을 이해할 포용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br/><br/><br/><br/><br/><br/>■ 사랑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해<br/><br/>사랑은 완제품처럼 보이는 잘나고 강하고 멋진 사람을 어떻게 내 사람으로 만들까 연애기술을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의 약한 점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을까, 저 사람 때문이라면 기꺼이 상처를 입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기꺼이 항복하게 만드는’ 감정이 절로 일 때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은 이기거나 성공하기는커녕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작할 때부터 기꺼이 내가 먼저 ‘져 주는’ 일입니다. 흔히 ‘사랑에 실패했다’는 표현을 쓰는 데요, 차였다는 것을 실패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차라리 이도저도 아닌 미적지근하게 걸쳐놓는 것이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데, 이별의 형태로 끝났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뭐든지 끝까지 깊숙이 가봐야 그 끝에서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돌아온다고 생각해요.<br/><br/>‘밀당’(밀고당기기)도 하지 마세요. 마케팅에 비유하자면 제품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비유가 좀 뭣하지만 제품이 좋으면 알아서 팔리게 돼 있어요. 프로모션이나 광고, 유통망이 중요한 게 아녜요. 마케팅 안 해도 유통망이 제한이 있어도 제품이 좋으면 소비자가 알아서 찾아가서 제발 팔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니 상대를 어떤 ‘기술’로 사로잡으려고 잔머리를 쓸 시간에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단독자로 살아갑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와 살아가는 기간이 제일 길죠. 기왕이면 매력적인 ‘나’와 살아가고 싶습니다.<br/><br/>예전에 <라디오천국>이라는 라디오프로그램에서 DJ 유희열씨와 격하게 공감한 것이 있습니다. 음악이 돌아가는 동안 우리끼리 한 얘긴데요. 솔직히 다 필요 없고, 이성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본인들 자체가 이성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자라면 남자를 참 좋아하고, 남자라면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투명하게 티내는 사람들. 보통 이성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밝힌다, 헤프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저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기쁨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가만 보면 사랑에 잘 빠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br/><br/>첫째로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잘 반합니다. 좋아하는 감정 자체를 즐기고 좋아하고, 사랑을 주면서 행복해 합니다. 선물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준다는 것은 줬을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들어있죠. 하지만 주면서도 본전 생각을 안 합니다. 좋아하는 감정 자체에 충분히 만족하는 거죠.<br/><br/>둘째로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안에서 자기만이 발견하는 장점을 찾아내고 그걸 소중하고 애틋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이런 멋진 부분은 나밖에 모른다’는 거죠. 주변에서는 ‘그 사람이 뭐가 좋냐’ 그러지만, 본인에게는 유일무이한 사랑인 겁니다.<br/><br/>세 번째,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결핍도 사랑합니다. 보통 장점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쉽습니다. 만난 지 3개월쯤 되면 그 사람의 단점이 드러나고, 나와 안 맞는 부분이 보이면서 그때 많이들 흔들흔들하죠. 내가 생각했던 그 남자, 그 여자가 아닌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하나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사랑이 깊어지면 어느덧 그 사람의 결핍을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고 포용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이런 못난 모습은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의 이런 점 정상인가요,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라는 상담 메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상, 비정상이 어디 있을까요. 슬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경지까지 가면 그 사람의 결핍을 내가 채워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상대방의 결핍이 나를 공격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그 남자든, 여자든 멀리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체의 결핍이면 내가 같이 품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br/><br/><br/>■ 사랑, 우리 시대의 가장 호사스런 사치<br/><br/>그런데 또 우리는 주변의 이런 소리에 시달립니다. “너무 잘해주지 마. 너를 만만하고 당연하게 생각할거야.”<br/><br/>주변 사람들은 자존심을 지키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워야 해?”라고 반문합니다. 상대를 더 많이 좋아한다고 해도 관계의 약자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두려워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연민에 빠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해요. 너에 대한 나의 감정을 네가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너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경우도 누굴 좋아하면 다 표현하는 편이었어요. 내가 더 좋아하면 남자들이 먼저 떠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또 어느 순간 뒷걸음질 치지 않는 남자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의 제 남편이라는 게 함정이지만.(웃음)<br/><br/>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얼마 전 짝사랑하는 남자애가 생겼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도 짝사랑을 해 본 적 있냐고 물어요. 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어땠어?” 그래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행복한 기분이 더 커서 괜찮았어.”라고 했더니 그 작은 입술로 깊은 한숨을 푸욱 쉬면서 “응. 나도 알아…” 그러는 거에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네가 바보짓하는 것도,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도, 좋아하는 마음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연애할 때는 아끼지 말고 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br/><br/>강하고 단단한 사람들은 사랑할 때 상대 앞에서 자신 있게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상처받지 않으려고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거나 내가 상처입기 전에 도망치거나 내가 먼저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는 가혹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우선 내가 인정하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정말이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사랑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해 줍니다.<br/><br/>사랑에서 취해야 할 단 하나의 태도가 있다면 나 자신에게는 ‘진실함’, 상대한테는 ‘관대함’입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사랑에 관대해지자, 살아있을 때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처럼 근사한 일은 없으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라고 생각해요. 물질적 성취나 이런 것들도 행복을 줄 순 있겠지만, 사랑할 때 느끼는 것과는 다르죠. 사랑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마음을 확인했을 때, 첫 키스를 나눴을 때, 사랑을 나눌 때 등 그런 극치감은 일생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는 무조건 누려야 합니다. 세상사 중에 그만큼의 기쁨을 날로 먹는 순간이 별로 없어요. 너무 이상적이라고요? 사랑에 이상을 품지 않으면 세상살이 중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이상을 품을 수 있을까요.<br/><br/>물질적인 것이 주는 기쁨이 있다면, 그 위에 지적인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본능적인 감각적인, 심장이 주는 기쁨이 있다고 봐요.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호사스런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경제도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사랑 하나만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없이 감정 하나만으로 보듬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누릴 수 있는 사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br/><br/><br/><br/><br/><br/>■ 우리가 가장 관대해야 할 때는?<br/><br/>그렇다면 사랑에 있어서 ‘관대한’ 태도가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br/><br/>첫째는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할 때죠.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나의 존재를 알려줘야 합니다. 말로만 고백하지 않고 그 외의 모든 방법으로 호감을 표현해도 됩니다. <br/><br/>둘째,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변화시키고 싶을 때죠. 그런데 사람은 웬만해서 잘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한다면, 어쩌면 영향받아서 조금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역으로 억지로 너를 위해서 맞춰줄게,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하겠죠. 변화시키려고 굳이 애쓰지 말자, 혹은 변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이해해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br/><br/>셋째, 두 사람의 체온이 다른 것을 못 견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열정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다르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담백하고 어떤 사람은 격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이만큼의 정열로 왜 안 맞춰 주냐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원래 체온이 다른 거라고 이해했으면 해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최대한으로 체온을 끌어올린 거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결혼 생활에 있어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일러스트레이터 안자이 미즈마루의 딸 결혼식에 가서 이런 축사를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좋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별로 좋지 않을 때 나는 늘 뭔가 다른 생각을 떠올리려 합니다. 그렇지만 결혼은 좋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아요. 안 좋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문제를 자꾸 키우기보다 연애 외의 내 생활, 내 인생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게 없다면 나는 연애상대에게 내 인생을 의탁한 게 됩니다.<br/><br/>넷째, 그 사람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속하고 싶을 때가 있죠. 연락 강박이라든지, 기념일 챙기기 등 연애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너무 치우치지 말았으면 해요. 최대한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고 두 사람 사이에 통풍이 되게끔 해주었으면 합니다.<br/><br/>하지만 우리가 가장 관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이 끝날 때, 바로 이별할 때입니다.<br/><br/>이별은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타 들어가고,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에 구멍이 뚫리고, 시시때때로 시큰시큰 아리고 먹먹합니다. 관계가 완전한 마침표를 찍기까지는 이래저래 부침을 겪습니다. 떠난 사람이 의도치 않은 희망고문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뭐해?’처럼 과거의 여느 일상을 연상시키는 다정한 말투, 뜬금없는 ‘잘 지내?’ 같은 안부문자, 괜히 블로그에 의미심장한 댓글을 남기는가 하면 SNS에는 치고 빠지듯 관심글을 찍고 좋아요를 누릅니다. 차인 쪽의 상처는 까진 데 또 까져서 만신창이가 돼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딱 끊어주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쁩니다. 정말 자상해서, 천천히 이 관계를 정리하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찬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제대로 차지 않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br/><br/>먼저 이별을 입에 올렸다고 해서 나쁜 것도, 가해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별하기를 거부한 사람이 피해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어지려는 사람이나 붙잡으려는 사람이나 둘 다 감정에 솔직한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식기도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헤어지는 데에는, 아프지만 그 누구의 잘못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원한다면 그를 놔줘야 합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에게 차인 여자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접어야 하냐고. 정말 미치겠는데, 잠도 안 오고. 저도 알죠. 저도 일주일간 밥을 하나도 먹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접어야 한다는 것만 알지 ‘어떻게’는 매번 나도 생소했다고. 하지만 딱 한 가지 진실이 있다, 진부한 말이지만, 당장에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아도 반드시 해결해준다고.<br/><br/>계속 칼을 갈면서 상처를 자양분 삼는 사람들은, 이미 그 연애와 관계없이 상처에 의존하면서 나는 피해자라는 상황에 안주하는 겁니다. 어떤 시점이 지나면 그 어두컴컴한 방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정말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러울지언정 나의 아픈 마음을 보듬는 만큼 상대의 마음을, 상대가 나한테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는 일이니까. 어차피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사랑의 본질이니까. 그것만 인정할 수 있어도 우리는 사랑의 소멸을 정면으로 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br/><br/><br/><br/>■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br/><br/>사람마다 사랑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왜 저는 계속 가장 중요한 사랑의 태도가 ‘관대함’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인생의 유한성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몸이 아팠던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일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기회가 되면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젊음이 긴 시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br/><br/>둘째는 인간이 정말 불완전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저는 연민이 사랑의 베이스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좋아할 땐 너무나 완벽해 보이지만, 저 사람도 내 결핍이나 불완전만큼 취약하고 아픈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 것을 보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의 결핍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만큼 상대방의 결핍과 불완전함도 인정하는 거죠.<br/><br/>사랑의 이별을 통해 성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 뭘까요? 정말 성장하기는 할까요? 실제로는 씁쓸해지고 더 철벽치고 마음이 약해지고 꼬이고 후퇴하는 인간이 되는 건 아닌지. 그런데 사랑을 통해 성장한다, 성숙해진다는 말은 거창한 게 아녜요. 나를 이해하는 만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별의 상처나 고독, 고통을 겪어도 시간이 되면 우뚝 일어서서 나는 나대로 인생을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성장인 것 같아요.<br/><br/>아울러서 사랑 그 자체가 내 인생에 온 것을 소중히 여기는 순수한 마음, 그 사람들에 대한 좋은 마음, 또 이 사랑이 끝나도 새로운 사랑이 내게 도래할 거라는 당연한 믿음, 그런 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바로 그 순간이 슬픔에 아름다움이 깃드는 순간일 겁니다.<br/><br/>상대에게 바라거나 기대기보다 내가 유연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 먼저 사랑에 대해 기꺼이 관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계산하고 재게 되고, 인내심도 부족해지고, 못 견뎌하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그 정도로 약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본래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본능을 믿어주세요. <br/><br/><br/><br/><br/><br/>■ 질의응답<br/><br/><br/><br/>-소개팅에서 마음이 드는 오빠를 만났어요. 말로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 버렸는데, 다음날 만나서도 고백에 대해선 얘길 안 해요. 화가 나서 확답을 듣고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그냥 편하고 좋은 동생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를 여자로 생각해서 한 행동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선을 그었다고 생각했더니 이번에는 저한테 자기 잘 나온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br/><br/>“대개의 남자분들은 자기 좋다는 여자 굳이 안 내칩니다. 우쭐하고, 기분 좋거든요. 여자의 맘은 확실히 알았고 쉽게 안 바뀔 거고 내가 부르면 나올 거고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야속하고 분노하면서도 어느새 그가 부르면 택시 부르고 있죠. 자아분열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어쨌거나 나는 이 남자가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나가서 만나세요. 내 기쁨을 위해서 이 남자를 소비하겠다는 심정으로. 언젠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래도 보겠다는 마음으로. 혹은 지금이라도 이 남자와의 관계에 균형을 맞추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잠시 그의 주변에서 사라져있는 거죠. 그가 궁금해하고 더 내게 다가온다면 어쩌면 가능성은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마음 이미 보여줬는데 그냥 마음가는 대로 하시면 안 될까요?”<br/><br/><br/><br/>-전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제가 다 퍼줬어요. 빚도 갚아주고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감당하지 못하고, 마음이 식더라고요. 자신을 보호하면서 사랑을 해야 하는 건지, 사랑은 받을 걸 생각 않고 해야 하는 건지. 사랑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br/><br/>“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리를 하신 거네요. 무리를 하면 부하가 생기고 내가 무리한 만큼 상대에게 기대하게 되죠. 마음 나눠도 됩니다. 몸 나눠도 됩니다. 물론 피임은 완벽해야 하고요. 하지만 돈은 절대 나누는 것 아닙니다. 원래 돈이 끼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질문하신 분의 잘못이 아니라 돈이 악마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과거를 미화시킬 필요도 자학할 필요도 없이 그땐 내가 돈의 속성을 경시했다고 정리하고 흘려보내면 안 될까요? 과거의 일을 사랑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일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돈이 얽히지 않은 사랑이라면 얼마든지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br/><br/><br/><br/>-3년 전 건강진단을 하러 갔다가 말기 임 선고를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잘 치료가 끝났어요.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고 나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기 암환자였고, 다시 건강을 되찾아서 너무 감사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부분에서만은 주저하게 되고 자신감이 없는 느낌입니다. 두렵고 무섭달까요. 임경선 선생님도 아프셨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나 두려움에 대해서 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시다면?<br/><br/>“고종석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하나는 고통을 겪고 난 이후 나만 당할 순 없다는 억울함에 남에게 더 가혹해지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서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 관용과 사랑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 우리는 후자여야만 하고 아마도 후자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사랑의 관대함이라는 부분과 닿아있어요. 아까 인생의 유한함 때문에 제가 선택한 사랑의 태도가 관대함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건강할 때는 인생의 유한함,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데 아프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것들이 더 다르게 다가와요. 내가 조금 더 마음을 넓게 가져야지, 먼저 사랑해야지, 안 그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잃을 것도 없으니까 이런 맘도 있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럴 거야, 다 덤벼 그런 느낌(웃음)? 재생력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줘요. 용기가 생기면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네가 날 이해해줘야 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걸 겪고 소화해냈기 때문에 너의 아픔을 이해해줄 수 있어, 그리고 너를 결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너그러운 마음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저희가 고통을 담보로 얻은 선물이라고 봐요. 질문하신 분을 앞으로 만나실 그 분은 완전 행운아라고 봅니다. 완치하셔서 정말 잘 됐어요. 박수 한 번 쳐 주세요.”<br/><br/><황경상·송윤경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br/><br/><img src="http://img.khan.co.kr/spko/icon/btn\_sponsor.gif"> <img src="http://ads.khan.co.kr/RealMedia/ads/Creatives/OasDefault/logoupload/rs\_poscologo.jpg"> <img src="http://ads.khan.co.kr/RealMedia/ads/Creatives/OasDefault/logoupload/hanwhalife.jpg"> <img src="http://ads.khan.co.kr/RealMedia/ads/Creatives/OasDefault/logoupload/shinhan2.jpg"> <img src="http://ads.khan.co.kr/RealMedia/ads/Creatives/OasDefault/logoupload/truefriend\_.jpg"> <img src="http://ads.khan.co.kr/RealMedia/ads/Creatives/OasDefault/logoupload/keb.jpg">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63.txt

제목: [황교안 총리 지명]진보당 해산 ‘미스터 보안법’… DJ정부 검찰 인사 ‘환란’ 비하  
날짜: 201505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110017355304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황교안은 누구</strong><!-- SUB\_TITLE\_END--><br/><br/><b>▲ “강정구 사건으로 눈밖<br/>인사 불이익 당해” 주장</b><br/><br/><b>▲ MB·박근혜 정부서 ‘날개’<br/>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주도</b><br/><br/><b>▲ 경기고 동기인 노회찬<br/>‘삼성X파일’ 때 기소도</b><br/><br/><br/>황교안 국무총리 지명자(58·사법연수원 13기)는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보수적 색채가 짙을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다잡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인물로 통한다.<br/><br/>국가보안법 해설서와 집회·시위법 해설서 등을 집필한 황 지명자는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대검찰청 공안3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거쳤다. 2005년 공안수사의 요직인 서울지검 2차장검사를 맡아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자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을 지시했고,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br/><br/>황 지명자는 그러나 이듬해와 2007년 잇따라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했다. 그는 2011년 교회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공안부 검사들에 의해 대우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구속까지 된 분이어서,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았다”면서 “그분이 볼 때 제가 사건 하나를 잘못 처리했다”고 해석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를 가리켜 “이런 분이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이 전부 좌천됐다”면서 “나는 사법연수원 교수여서 직접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 하나님께 환란으로부터 도피를 감사드렸다”고도 했다.<br/><br/>황 지명자는 그러나 보수정권 들어 ‘날개’를 달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늦깎이로 검사장에 승진했다. 2011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태평양에 몸담았다가 2년 뒤인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 화려하게 공직에 복귀했다. 법무법인 시절 16개월 만에 16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점이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지만 무사 통과했다.<br/><br/>장관 취임 후 곧바로 박근혜 정부의 ‘1등공신’ 반열에 올라섰다. 그는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사건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하자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 감찰팀을 동원해 감찰에 착수하면서 결과적으로 ‘채동욱 찍어내기’의 결정타 역할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국정원 댓글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 구속했다.<br/><br/>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부 대리인으로 진두지휘한 것도 그였다. 그는 통합진보당을 ‘암적 존재’라고 불렀다.<br/><br/>올해 들어서는 박 대통령이 내세운 ‘비리 척결’의 선봉장 역할을 맡았다. 지난달 여권 실세 8인의 금품수수 의혹인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2차례 사면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span class='quot0'>다소 이례적 사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는 것으로 안다</span>”며 “<span class='quot0'>(사면 과정에서) 수사 단초가 발견된다면 살펴봐야 한다</span>”고 했다. 야당을 겨냥한 수사 지휘로 받아들여지면서 ‘물타기’란 야권 반발을 샀다. 이후엔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언급한 건 아니다”라며 물러서기도 했다.<br/><br/>삼성, 노회찬 전 의원과의 인연도 눈길을 끈다. 서울지검 2차장 시절 국가정보원 도청에서 비롯된 ‘삼성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아 이건희 삼성 회장은 서면조사만 하고 불기소 처분한 반면 해당 내용을 폭로한 노회찬 당시 의원은 기소했다. 황 지명자와 노 전 의원은 경기고 동창생이다. 이 사건으로 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 전 의원이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 검찰에 잡혀와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옆방에 근무하던 황 지명자가 찾아와 잠시 수갑을 풀어주면서 담배를 건넸다는 일화도 있다.<br/><br/>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장로이며, 취미로는 테니스를 즐긴다.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 업무가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마인드컨트롤이 잘 됐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br/><br/><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64.txt

제목: 유방암수술 뿐 아니라 유방암 극복을 격려. ‘한사랑병원 핑크리본 캠페인’  
날짜: 2015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010017339732  
본문: 보건복지부지정 외과전문병원인 안산 한사랑병원(병원장 이천환)은&nbsp;19일 유방암환우와 지역주민 50여명과 함께 유방암환우를 위한 건강강좌 핑크리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br/><br/>유방암수술과 항암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한사랑병원은 2012년 유방암환우회 ‘한너울회’를 조직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5월과 10월 다양한 주제로 건강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유방암환자의 경우 치료 후에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 골다공증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전이, 재발, 2차암 발병 등 암에 취약하기 때문에 수술 후 건강관리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br/><br/>이번 건강강좌는 유방암환자들의 부인과 검진(이원식 부인과 과장), 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 성형 및 고주파 마사지(주규화 유방/갑상선센터 과장),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이지훈 유방/갑상선센터 과장) 그리고 한사랑병원 구범환의무원장(대한암협회장)의 핑크리본 캠페인 소개 등 약 90분 동안 진행되었다. 최근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유방재건 성형이 급여항목으로 적용된 점에 대한 환자들의 문의가 많이 관련 내용을 강의 주제에 포함했다.<br/><br/><br/>안산 한사랑병원 이천환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유방암환자들의 건강강좌와 자조모임을 지원함으로써 유방암수술을 넘어 유방암극복에 도움이 되는 병원이 되고자 한다</span>”라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br/><br/>한사랑병원은 2011년 개원부터 유방, 갑상선질환의 양성, 악성종양 수술과 항암 치료 등 특화된 진료를 위하여 유방/갑상선센터를 운영해왔고 최근에는 여성질환의 다각화치료를 위하여 산부인과 전문의를 초빙하였다. 그 밖에도 대장항문, 탈장, 상부위장관, 혈관, 화상, 담낭(담석증,담낭염,담낭용종) 등 각 분야별 외과진료에 힘써 왔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15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과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다.<br/>&nbsp;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65.txt

제목: “연명치료 집착보다 죽음의 질 높이는 돌봄의료 늘려야”  
날짜: 2015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010017347729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도사로 나선 김명자 전 장관</strong><!-- SUB\_TITLE\_END--><br/><br/>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71)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치료가 어려운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연명치료에 집착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총체적인 돌봄(Holistic care) 의료행위를 말한다.<br/><br/>호스피스 완화의료 국민본부 공동대표를 맡은 김 전 장관은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중환자실에서 홀로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외롭고 공포스러운 일은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가족의 품에서 편하게 눈을 감는 고귀한 죽음도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웰빙(well-being)’ 못지않게 ‘웰다잉(well-dying)’도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br/><br/>지난 3월 출범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국민본부에는 국회의원과 각계 인사 80여명을 비롯해 1만49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웰다잉’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크다는 방증이다. 공동대표는 김 전 장관과 성낙인 서울대 총장, 전윤철 전 부총리, 유중근 전 한국적십자사 총재, 윤평중 한신대 교수가 맡고 있다. <br/><br/><br/>- 어떤 삶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필요한 이유는. <br/><br/>“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영적으로도 위로해주는 전인적인 돌봄의료이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부끄러운 일이다. 평균 기대수명이 82세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생활고를 겪으며 오랫동안 질환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임종을 맞곤 한다. 마지막 순간만큼이라도 선택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웰빙은 웰다잉으로 마무리돼야 한다.”<br/><br/>- 연명치료의 부정적 측면은.<br/><br/>“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죽음을 앞둔 10명 중 3명이 인공호흡기, 인공영양공급,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등에 임종을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한 달 전 연명치료에 쓴 평균 의료비는 284만6000원에 이른다. 사망 3년 전에 비하면 6.8배나 많은 수준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는데 죽음의 질은 낮기만 하다. 존엄스러운 죽음이 아니다.”<br/><br/>- 외국의 실태는 어떤가.<br/><br/>“미국의 경우 45%가 사망 직전 호스피스 병동을 거친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 등을 하지 않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고통완화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마지막 돌봄(End of Life Care)’을 국가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br/><br/>-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은 어떤가.<br/><br/>“자식들은 부모가 말기 환자 판정을 받더라도 마지막까지 연명치료를 해야만 효를 다한다고 생각한다. 의사는 고가의 의약품과 값비싼 첨단 의료기술을 어떻게든 써보려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9%는 의식불명이거나 가망이 없을 때 치료를 받는 것에 반대했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무의미한 연명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이다.”<br/><br/>- 호스피스 의무화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br/><br/>“말기 암환자에게만 국한되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망에 임박한 환자로 대상을 넓히자는 게 주요 골자다. 뇌졸중, 치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파킨슨병 등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전의료 계획도 마련해놓고 있다. 임종이 임박하면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데 의료진이 개입해 죽음의 질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사망이 예상되면 수개월 전이라도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사 2명이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br/><br/>- 예산이 많이 들지 않나.<br/><br/>“미국만 해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종 한 달 전 의료비가 46%가량 준다. 대만은 호스피스 서비스 도입으로 의료비 64%를 절감했다.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은 암환자가 일반 암환자에 비해 진료비를 2.5배 적게 썼다. 항암치료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호스피스 서비스로 대체하면 된다. 국민들은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은 튼실해진다.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br/><br/>- 앞으로 계획은.<br/><br/>“연명치료를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죽음에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다.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려면 말기 질환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동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내집 안방 같은 병동이 필요하다. 호스피스 전문인력도 배치해야 한다. 올해 안에 호스피스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 종합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다.”<br/><br/><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66.txt

제목: 격이 다른 한화생명 ‘교육비 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  
날짜: 2015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0100000067  
본문: 한화생명이 변액통합종신보험 분야에서 남다른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다. 20일 보험금융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부모가 사망 시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한 ‘한화생명 교육비 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을 지난달부터 판매 중이다. 이 보험은 자녀의 학업 기간인 7~22세 사이에 부모가 사망할 경우, 가입 금액의 50%를 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교육비를 매월 별도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r/><br/>특히 매월 지급되는 교육비는 초등학생(7~12세)인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2%를 주고, 중·고등학생(13~18세)은 3%, 대학생(19~22세)은 가입금액의 4%를 준다. <br/><br/>예컨대 가입 금액 1억원에 가입(기본형 기준)하면 5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자녀가 초등학생 때는 매월 200만원, 중·고등학생 때는 300만원, 대학생에는 400만원을 자녀가 22세 되는 시점까지 매달 지급한다. 반면 자녀가 22세까지 성장한 후에 부모가 사망하면, 기존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 금액의 100%인 1억원을 전액 지급한다. <br/><br/><br/>실질적인 자녀 교육비를 지급하고자 ‘최소 지급보증(4년)’ 기능 또한 지니고 있다. 이에 부모가 자녀 나이 21세에 사망하더라도, 가입 금액의 4%에 해당하는 400만원은 4년(48회)간 지급하기 때문에 교육비로 최소 1억9200만원을 보장받고, 사망보험금 5000만원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br/><br/>자녀를 위한 다양한 보장성 특약도 눈에 띈다. 일례로 어린이 주요 질병인 충수염과 탈장, 아토피피부염 등으로 입원하거나 골절 진단 또는 재해로 수술했을 때 보장되는 ‘의료보장특약’, 장염 등의 감염질환이나 편도염·천식 등으로 입원할 때 보장되는 ‘특정질병입원특약’에 치과나 안과 질환으로 통원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 보장받는 특약 등이다. <br/><br/>부모를 위한 특약도 기존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골라 넣을 수 있다. 이에 암진단은 물론 항암약물·방사선치료, LTC보장, 성인병진단, 실손의료비보장 항목 등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CI보험료납입면제’ 특약을 넣으면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 중대한 질병 진단 시에는 납입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br/><br/>한화생명 최성균 상품개발팀장은 “<span class='quot0'>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양육 비용이 3억원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다</span>”며 “<span class='quot0'>만일의 위험으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학업 중인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교육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67.txt

제목: [녹색세상]남의 살 무한리필, 이제 그만  
날짜: 2015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2010017347714  
본문: “독일의 한 육류 소시지 업체가 비건(vegan, 완전채식) 소시지를 몇 년 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판매를 시작했을 때 업체는, 5년 안에 비건 소시지가 기존의 육류 소시지와 판매량이 비슷해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비건 소시지는 단 1년 만에 육류 소시지의 판매량을 넘어섰습니다.”<br/><br/>도서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를 통해 제도적으로 강요된 육식의 메커니즘을 분석한 사회심리학자 멜라니 조이 박사의 말이다. 한국을 찾아 강연 중인 조이 박사는 최근 유럽과 북미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비거니즘(Veganism, 완전채식) 열풍의 현황을 생생하게 전해주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수치. 2010년 독일에서 새로 출간된 비건 요리책은 3권이었는데 2011년에는 12권, 2012년에는 23권, 2013년에는 48권, 2014년에는 77권이 나왔다. 북미도 마찬가지다. 10년 전 미국에서 “저는 비건이에요”라고 말하면 괴물쯤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지금은 “와, 멋지군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젊어 보이는군요”라고 답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베를린영화제 개막식에서 1000명 넘는 게스트들에게 제공된 식사가 비건식이어서 놀랐는데, 그것이 내게는 특별한 체험이었어도 그들에게는 일상이었던 것이다. 육식의 본고장이었던 나라들의 식탁에서, 아니 음식에 관한 의식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br/><br/>대한민국은 어떨까. 닭고기로 소비되는 육계가 1년에 7억마리 이상 도축된다. 돼지고기 생산량은 지난 40년간 10배 이상 증가했다. 급식도 고기, 회식도 고기, 아침엔 햄 샌드위치, 점심엔 돈가스, 저녁엔 삼겹살. TV만 틀면 ‘먹방’, 지하철에도 육류 광고. 그런데 전통적으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던 한국인들이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게 된 것은 사실 오래되지 않았다. 최근 20~30년 사이 급격히 육류 소비가 늘었다. 한국인이 갑자기 고기를 많이 먹게 된 배경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br/><br/>가축을 대규모 밀집 사육하는 이른바 ‘공장식 축산’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대규모화’와 ‘계열화’를 추진함으로써 공장식 축산을 지원했다. 농림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량 사육 농가에 자동화 설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했다. 대량으로 키워야만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소규모로 가축을 키우던 농가들은 대규모 사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육을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다. 이로 인해 농장은 공장이 되고, 농가는 기업화되었으며 가축은 ‘식용동물’로 전락했다. 육류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와 비례해서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 암 발생도 급증했다. 대규모 밀집사육과 밀폐된 축사는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거의 매해 발생하게 됐고, 그때마다 살처분을 한다.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무려 1조8418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국민의 혈세로 지출됐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매몰지 주변의 상수도를 정비하는 데 투입된 예산도 6411억원에 달한다. 가혹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들은 각종 질병에 걸린다. <br/><br/>치맥과 삼겹살을 주문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보자. 육류를 향한 끝없는 이 욕망이 과연 애초에 우리의 것이었는지, 어쩌면 우리는 육식을 강요하는 시스템에 포획되어 있는 건 아닌지. 당장 모두가 채식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공장식 축산과 과도한 육식만은 시급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녹색당,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 ‘공장 대신 농장을’ 캠페인을 전개하며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가장 심각한 동물학대로 손꼽혀 유럽연합 28개국에서 법으로 금지된 암퇘지 스톨(감금틀)과 산란계 배터리케이지부터 없애자는 서명이다. ‘남의 살’ 무한리필, 이쯤에서 멈추자. 육식주의 매트릭스에서 이제 그만 뛰쳐나오자.<br/><br/><황윤 | 다큐멘터리영화 감독>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68.txt

제목: [표지이야기]“돼지답게 사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날짜: 201505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19100000036  
본문: 먼저 밝힐 것이 있다. 기자는 남성이다. 고기, 좋아한다. 5월 7일 개봉한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보고 난 다음에도 채식을 해야겠다는 결심은 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 사회의 고기 대량 소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티븐 핑거의 주장을 지지한다. 인간의 본성은 타불라 라사(tabula rasa), ‘빈 서판’이 아니다. 육식, 정확히 말하면 잡식은 인류가 대평원에 기거하던 수렵사냥꾼 시절부터 효율적인 단백질 섭취 수단으로 각인되어 있는 본능이다. ‘고기의 맛’은 몸이 먼저 안다고 생각한다. 비록 현대 사회에서 그 본능은 ‘오작동’되어 비만과 같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황윤 감독의 신작 <잡식가족의 딜레마> 중 가장 이입된 것은 감독의 남편, 김영준씨의 ‘처지’였다. 생각하는 바는 따로 있지만, ‘설득당해 준 것’ 아닐까.<br/><br/>스포일러에 해당하겠지만 영화의 엔딩에서 농장 주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두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는 영화의 감독이자 주인공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영화 제목에서 언급한 ‘딜레마’를 상징하는 장면일 텐데.<br/><br/>“공장축산의 대척점에 서 있는 대안적인 농장을 보여주고자 했다. 돼지들이 돼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려보려 했다. 물론 그 안에서도 한계가 있다. 거세도 그렇고, 엄마 돼지들은 새끼를 낳아야 하는 것이 숙명이다. 인도적인 방식이지만, 목적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도축되어 고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돼지라는 존재의 운명이다. 처음부터 개처럼 돼지와 친구가 될 의도는 없었다. 처음으로 가까이서 지켜봤다. 돼지가 이토록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몰랐다. 출산의 고통이라든가, 새끼들이 거세를 당할 때 지푸라기 속에 새끼를 숨기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엄마로서 모성을 느꼈다. 돼지는 개보다 영리하다고 한다. 그리고 굉장히 깨끗한 동물이다. 돼지에 대해 내가 너무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br/><br/>감독의 이전 작품도 그렇지만, 동물과 비교하는 자신의 삶, 경험이 교차 편집되어 있다. 어미 돼지 십순이의 출산 장면과 아이를 낳는 장면이 직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성 차이를 넘어서는 호소력이 있을 것으로 보나.<br/><br/>“원래는 돼지의 삶을 다루겠다는 기획이었다. 공장식 축산 쪽 돼지는 돈오, 그리고 이쪽은 돈수. 불교용어로 돈오돈수(頓悟頓修)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는 영화, 정도로 기획했다. 여기서는 돼지 돈(豚)자를 써서…. 공장의 돼지와 농장의 돼지, 새끼 돼지의 삶을 추적하는 것으로 맞췄는데 탄생, 출생 과정을 찍다 보니 어미 돼지에게 몰입이 되었다. 인간과 돼지는 종이 다르지만 엄마 돼지의 사랑이 하나도 다를 게 없었다. 아무래도 남자 감독이 만들었다면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아이를 낳아 보니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겪어 봤다. 낳아 놓고 보면 또 얼마나 사랑스럽나. 또다시 임신하고 새끼를 빼앗기고 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다.”<br/><br/>공장식 축산 돼지의 삶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br/>“현실적인 한계다. ‘돈오’의 삶을 추적하려고 했는데, 아예 불가능했다. 그마나 기적처럼 섭외가 돼서 공장식 돼지는 하루 만에 찍었다. 새끼 돼지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불가능했다. 공장식 돼지는 이름을 갖는 존재가 아니다. 번호와 킬로그램 수, 집단으로 수천 수만 마리가 군집을 이뤄 살아가다 보니 제가 한 마리에 이름을 붙여 관계를 맺는다든가, 감정을 투사하는 것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현실 그대로 몰개성화된 모습이다. 그런 집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br/><br/>촬영을 하면서 채식주의로 전환했다. 그런데 감독의 채식주의 결심이 가정의 ‘평화’를 가져온 것 같지는 않다. 남편을 설득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닌가.<br/>“실패는 아니고 공감은 얻었다. 그 사람을 채식주의로 만들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태도의 변화나 생각의 전환은 분명히 있었고, 누군가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 남편은 야생동물 수의사로 구조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한 마리 한 마리 애착을 가지고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데도 질병이 돌면 한꺼번에 몰살할 수 있다. 조류독감 같은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되니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 것 같다. 본인 페이스북을 보니 우리 영화 예고편도 공유해주고 공감도 많이 하는 편이다. 자신은 반농담으로 영화에서 ‘악역’이라고 하는데 관객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br/><br/>기자도 ‘콩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다. 그런데 고기의 고유한 식감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 고기 맛은 본능적으로 각인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아들 도영이가 한동안 고기를 찾는 것도….<br/>“이제는 아이도 별로 고기를 안 찾는다. 엄마가 차려주는 것에 따라 아이의 평생 입맛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영양학적으로 부모들에게 고기를 꼭 먹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 동물성 단백질을 강조하는 영양학은 서구에서도 미국 쪽에서 시작된 것인데 거의 수십년 전에 한물간 이론이다. 사람 몸에 굳이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다. 견과류로도 충분히 커버된다. 칼슘도 우유에 많다고 하는데 성인이 되어 우유를 많이 먹을수록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 골다공증 위험을 야기한다는 연구가 있다.”<br/><br/>‘우유가 위험하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학설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 에스키모는 주로 동물성 식사를 한다. 몽골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의 고기와 유제품만 먹는 섭생 습관이 있고….<br/>“자연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 조건이나 토양에 따라 다른 식습관이 형성된 것이다. 잡식동물이라는 미명을 영화 제목에서 언급했는데, 100% 채식만 하자는 것이 아니다. 동물을 먹을 수도 있다. 문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건강도 잃고 생태계도 파괴된다. 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을까. 축산자본의 논리다. 우리나라를 보면 1970년대부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공장식 축산을 기획해서 장려해 왔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규모를 키우도록 했다. 2009년부터 실시된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하더라도 1조1971억원이다. 정책적으로 공장식 축산을 한 것과 육류소비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육류소비 그래프와 암 발생이나 심장병 발생은 똑같이 지난 40년간 급속히 증가했다.”<br/><br/>농장동물의 생육환경과 윤리적 고기 소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br/>“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세월호의 비극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AI나 구제역을 겪으면서 바이러스 유포를 막겠다고 살처분을 한다. 생명 경시의 극한을 보여주는 일 아니냐.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살아 있는 생명을 산 채로 파묻는 사회가 과연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세월호의 비극도 이윤을 위해 인간의 안전이나 생명을 소홀히 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윤과 생명존중의 역상관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곳이 공장식 축산이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촉발되면 좋겠다. 이제는 한 번쯤 탁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됐다. 선택지는 많다. 어디까지가 선택의 범위냐를 두고도 논란이 있을 것이다. 답은 각자가 스스로 선택해야 할 부분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69.txt

제목: 여성 50% 이상이 유방통증 경험···유방암 검진 권장  
날짜: 201505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1910017326799  
본문: 두 아이를 가진 맞벌이 직장인 A씨(39, 부산)는 일주일 전부터 오른쪽 가슴에 수시로 콕콕 찌르는 통증이 생겨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다. 평소 생리 전에 생기는 통증은 있었지만 이렇게 길게 쑤시고 아픈 통증은 처음이다.<br/>가슴 안쪽에 멍울 같은 것도 만져지는 것 같아 덜컥 겁이 났지만, 시간도 부족한 데다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은 아니라서 부산 유방암 검진 병원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br/><br/>A씨와 같이 최근 20~30대 젊은 층 여성들 사이에서 가슴 통증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대부분은 ‘내가 설마’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방치하기 일쑤지만, 전과 다른 유방통증이 생겼다면 반드시 유방암 검진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설명이다.<br/>&nbsp;<br/>부산 유바외과 안정용 원장은 “여성의 50~70% 정도는 유방통증을 흔하게 경험할 수 있다. 증상은 저마다 다양하지만, 유방통증이 있을 경우 유방암을 염두에 두고 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고 미연에 있을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강조했다.<br/><br/>그에 따르면 유방통증의 경우 유방암일 가능성보다는 섬유선종을 비롯한 양성 혹일 가능성이 높다. 미혼 여성의 경우 가끔씩 유방조직이 치밀해 뭉친 유방조직이 혹처럼 만져지는 경우도 있다.<br/>또 생리주기와 상관없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잘못된 음식 습관, 근육통 등으로 인해서 유방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br/><br/>그럼에도 유방통증으로 유방검진을 받다가 유방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코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유방통증이 한 쪽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나거나, 지속적이고 점점 더 심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유방통증과 유방멍울에 대해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br/><br/>유방암 검진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한유방암학회와 국립암센터의 유방암 조기검진 권고안에서는 30세 이후 매월 유방 자가검진, 35세 이후 2년 간격으로 의사 진료를 병행하고, 40세 이후에는 1~2년 간격으로 유방촬영을 추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br/><br/>안정용 원장은 “<span class='quot0'>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해야 치료효과가 좋고 완치율도 높으므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span>”라며, “<span class='quot0'>적극적인 정기검진이 유방암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span>”이라고 말했다.<br/><br/>한편, 유방암 검사는 검사 특성상 유방촬영에만 나타나는 병변과 초음파에서만 발견되는 병변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학적인 검사와 함께 영상적 진단 검사가 가능한 전문적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br/>또 만일 검사로 유방에 멍울이 발견되면 유방암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조직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최근에는 침(바늘)을 이용한 간단한 조직검사가 가능하고, 암이 아닌 경우에는 첨단 유방내시경기기인 맘모톰을 이용해 주사바늘로 정확하고 빠르게 멍울을 모두 제거할 수 있으므로 알아두면 좋다.<br/>&nbsp;<br/>&nbsp;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70.txt

제목: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검찰·법원에 사과 요구  
날짜: 201505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1810017308564  
본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주인공 강기훈씨(51·사진)가 검찰과 법원의 사과를 요구했다.<br/><br/>강기훈씨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입장을 내고 “<span class='quot0'>당시 수사 검사들과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 진실을 왜곡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span>”고 밝혔다.<br/><br/>강씨는 “<span class='quot1'>법원은 1991년, 1992년은 물론이고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1'>법원도 한 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span>”고 말했다. <br/><br/><br/><br/>그는 “저를 끝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br/><br/>강기훈씨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이 이달 14일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후 처음 나온 것이다. 현재 암 투병 중인 강씨는 대법원 선고 당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br/><br/>강기훈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71.txt

제목: [건강]‘암 이후의 건강’ 예방접종으로 지키세요  
날짜: 2015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15100000059  
본문: 전국 단위 암 발생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암 경험자는 총 123만4879명(남자 54만7837명, 여자 68만7042명)으로 나타났다.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 치료 후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합친 숫자다. 매년 20만명 이상의 환자가 생기고, 이 중 70% 가까이 생존하므로 암 경험자는 더욱 늘어난다. <br/>보건당국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인이 평균수명까지 살 때 남성의 38%, 여성의 35%는 암에 걸리게 된다. 따라서 암을 경험한 후 어떻게 건강을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평생 건강의 안전벨트인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br/><br/>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이혜진 교수(가정의학과)는 “<span class='quot0'>암을 앓고 있거나 완치된 경우라도 면역력이 저하돼 감염병에 취약해지기 쉬우므로 암 경험자는 예방접종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일부 백신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저하돼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 또 새로 개발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외 여행 등 특수상황에 맞게 예방접종을 추가해야 한다. 암 경험자의 가족이 함께 접종을 하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암 경험자에게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예방접종은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등이며 겨울철에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이 거의 필수적이다. 폐렴구균은 상대방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옮거나 본인의 균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 폐렴을 가장 흔하게 일으키며 뇌수막염, 균혈증 등 중증질환도 유발한다. 13가 백신(프리베나) 1회, 23가 백신(프로디악스, 뉴모23) 모두 접종 가능하다. 23가 백신의 경우 65세 이전에 접종하고 5년이 넘으면 1회 재접종을 해야 한다.<br/>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 면역력이 약해질 때 재활성화되어 발병한다. 작은 발진 및 수포가 신경분포를 따라 발생하며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 후유증도 심각하다. 60세 이상에게 예방접종이 권장되며 50세부터도 접종 가능하다. 그러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생백신이므로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중이거나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치료 2주 전부터 치료 3개월 후까지 암환자와 가족 모두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종을 원할 때는 향후 치료계획 등에 대해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받아야 한다.<br/>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는 한 번 예방접종으로 동시에 막을 수 있다. 파상풍은 상처를 통해 감염되며 발병 시 근육 경직 등의 증상 및 통증을 유발하고 사망률이 높다. 비인두염 및 후두기관지염을 유발하는 디프테리아는 나이가 들거나 질병을 앓고 난 뒤에 면역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백일해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주로 보이는데, 최근들어 백일해가 다시 유행해 성인에서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감염시키는 경우도 흔하며, 어린이들의 사망 위험성이 높다.<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경험자는 독감 예방접종 때도 ‘불활성화 백신’을 맞는 것이 좋고, 가족의 경우 생백신을 맞더라도 문제 없는 것으로 돼 있으나 가능한 한 불활성화 백신을 맞는 것을 더 추천한다</span>”고 말했다. 생백신을 맞은 가족 구성원은 안전을 위해 2~6주 면역이 저하된 암 경험자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대 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는 15일 오후 3시 어린이병원 1층 임상 제1강의실에서 ‘암 경험자의 예방접종’을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연다. (02)2072-0077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72.txt

제목: [건강]홍삼, 항암제 부작용 ‘급성 신부전’ 줄인다  
날짜: 2015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15100000055  
본문: 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항암제 시스플라틴은 구토, 오심, 무기력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히 신장독성을 갖고 있어 급성신부전이 유발될 수 있다. 급성신부전은 항암제 사용, 신장 혈류량 감소, 사구체신염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병한다.<br/>홍삼이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급성신부전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 13일 대전 한국인삼연구원에서 열린 고려인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충남대 수의과대학 정주영 교수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시스플라틴으로 유발된 급성신부전에 대한 홍삼의 치유 및 신장기능 보호 효과’를 발표했다.<br/>연구 결과에 따르면 홍삼 투여군에서 시스플라틴만 투여한 집단보다 체중 감소 정도가 적었다. <br/>또 신장 내 조직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세포산화물 형성과 세포단백질 유도 정도, 세뇨관 괴사 상태 등도 홍삼 투여군에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삼 투여군에서는 혈장 내 신장기능 지표와 소변량의 급격한 증가가 개선됐고, 신장 내 산화 스트레스 조절을 위한 필수 요소인 생체활성 항산화 효소 등이 증가해 급성 신장 손상에 대한 홍삼의 신장기능 보호 효과가 확인됐다.<br/>정 교수는 “<span class='quot0'>급성신부전 외 다른 종류의 신장병 치료에도 홍삼의 효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 의학학술지인 ‘플란타 메디카’에 게재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73.txt

제목: [건강]46인의 ‘여의열전’ 전자책 5종 세트 발간  
날짜: 2015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15100000061  
본문: 소아 수술의 ‘달인’ 박귀원, 항암전선 ‘협진의 여왕’ 서창옥, 소아알레르기학의 ‘선구자’ 편복양, 항암 연구의 ‘선봉장’ 라선영, 시각재활의 ‘견인차’ 문남주, 난치성 근육병의 ‘슈퍼루키’ 박영은, 소아 사시의 ‘등불’ 백혜정, 태아 수술의 ‘신의 손’ 원혜성, 이른둥이의 ‘대모’ 장윤실, 이명·난청 치료의 ‘베테랑’ 박시내, 비뇨기과 ‘여성 전문의 1호’ 윤하나, 맞춤 암치료의 ‘개척자’ 최은경, 병원 경영의 ‘새 지평’ 김용란, 소아 정신의학의 ‘체온계’ 신동원, 운동의학의 ‘선두마차’ 최은희, 로봇 재활의 ‘차세대 주자’ 김미정, 이종이식의 ‘글로벌 리더’ 안규리….<br/>진료와 교육, 연구 등 의학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여의사들을 발굴 소개한 <여의열전(女醫列傳), 한국 의료를 이끄는 46인의 여의학자들>(사진)이 다섯 권의 전자책(i-경향북스)으로 다시 발간됐다. <br/><br/>금상첨화(錦上添花), 낭중지추(囊中之錐), 우공이산(愚公移山), 점입가경(漸入佳境), 청출어람(靑出於藍) 등 5부로 나눠 의미를 부여했다.<br/>‘금상첨화’는 소아 수술, 방사선 암치료, 심장 초음파, 유방암 수술, 자궁근종 치료, 소아알레르기 치료, 부인암 수술, 고난도 태아 치료, 성형안과, 류머티즘 분야를 조명했다. ‘낭중지추’는 항암 약물치료, 시력 재활, 희소 근육병 치료, 혈액·세포 진단, 알레르기 연구, 소아 사시 수술, 만성콩팥병 및 장기이식, 치료내시경, 신생아 감염 분야를 다뤘다.<br/>‘우공이산’에는 소아 신장, 간 이식, 이석정복술, 백신 연구·개발, 눈 황반질환, 족부·족관절, ADHD, 갑상샘 병리진단, 난치성 여드름 분야가 등장한다. ‘점입가경’은 쌍태아 자연분만, 간경화 줄기세포 치료, 배뇨장애·요실금, 이명·난청, 골관절염, 로봇재활 치료, 운동이상질환 뇌수술, 심장중재시술, 통증치료 분야다. ‘청출어람’은 맞춤 암치료, 유방영상진단, 초미숙아, 면역학 및 이종이식, 병원 경영, 노화방지, 뇌종양 수술, 생활습관의학, 갑상샘암 분야를 소개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74.txt

제목: 담배회사들 “3484명 개별조사..우리회사 담배피웠는지 입증해라”  
날짜: 2015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1510017299403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핵심 증거자료인 암 진단을 받은 건강보험 수진자 3484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담배회사 측은 해당 자료만으로는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br/><br/>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공단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로 삼은 이 자료가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양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br/><br/>공단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편평세포암·소세포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 흡연력을 확인한 3484명에 대한 흡연력과 급여비 내역 등을 정리해 제출했다. 공단 측은 “<span class='quot0'>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해 공단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span>”라고 밝혔다.<br/><br/>하지만 담배회사들은 증거로 제출된 그 3484명이 피고 회사들의 담배를 실제로 피웠는지, 가족력과 생활력 등이 어떠했는지를 개별적으로 모두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담배인삼공사(KT&amp;G)측은 과거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례를 들며, “선행소송에서는 (흡연과 폐암과의)인과관계에 대해서 흡연력, 가족력, 병력, 생활습관까지 확인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br/><br/>수진자들이 실제 피고 회사들의 담배를 피웠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K) 측은 “수진자들이 우리 회사의 담배를 피웠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며 “피고 회사들의 시장점유율만을 근거로 연대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했지만, 원고의 논리대로라면 실제 가해자가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차량 급발진 사고가 난 경우엔 현대차, 라면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면 농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기이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br/><br/>공단 측 안선영 변호사는 “<span class='quot1'>수진자 본인의 가족들의 확인서와 흡연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어떤 담배회사의 어떤 종류의 담배를 폈는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span>”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span class='quot2'>흡연으로 생긴 암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배상하라</span>”며 KT&amp;G 등 담배회사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기일은 7월3일 오후2시에 열린다.<br/><br/><김한솔·고희진 기자 hansol@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75.txt

제목: “암 치료 탁월”…한의사 낀 건강식품 사기범 9명 덜미  
날짜: 201505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1310017273820  
본문: 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노인들에게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이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 7억원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의사 박모씨(74)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br/><br/>박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구시 북구 한 홍보관에서 글루코사민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온수기 등을 암 치료에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판매해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br/><br/>이들은 노인들을 속이기 위해 서울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박씨를 강사로 내세워 제품 기능과 효과를 알리기도 했다.<br/><br/>김기정 대구 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span class='quot0'>노인을 상대로 한 물품 사기판매가 점점 교묘해지고 심해지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효능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span>” 말했다.<br/><br/><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76.txt

제목: [TV 하이라이트]2015년 5월 12일  
날짜: 2015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12100000045  
본문: 철수의 가짜 피앙세가 된 영희<br/>독립영화관 ‘그녀의 연기’(KBS1 밤 12시35분) = 제주 남자 철수는 자신의 결혼을 바라는 시한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려 한다. 철수는 서울여자 영희를 고용해 가짜 피앙세 역할을 부탁한다. 철수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차 안, 영희는 그들의 연애 스토리를 그럴듯하게 늘어놓는다. 하지만 철수는 시큰둥하다. 갑자기 아버지가 의식을 잃었다는 연락을 받은 철수와 영희는 마음이 급해진다.<br/>전문가가 말하는 암과 가족력<br/>토크쇼 부모-놀라운 데이터(EBS 오전 9시40분) = 치명적인 질병인 암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법에 대해 파헤쳐본다. 전문가들은 암 예방을 위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소개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암 발생률이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 암에 걸리는 체질이 따로 있는지 등 암에 대한 속설에 대해서도 속시원히 답변해준다. 그중에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가족력에 대해 상세히 알려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77.txt

제목: 5월 13일은 ‘식물영양소의 날’…한국영양학회·한국암웨이 공동 캠페인  
날짜: 2015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1210017250447  
본문: 매년 5월 13일은 ‘식물영양소의 날’이다. 국민의 식물영양소(파이토 뉴트리언트) 섭취 부족 문제와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식생활 행동변화를 위해 2013년 한국영양학회와 한국암웨이가 ‘5색 채소 과일을 1일 3번 꼭 섭취하자(5.1.3)’는 의미를 담아 공동으로 제정한 날이다.<br/><br/>이 캠페인은 각종 연구자료를 통해 지적되고 있는 국내 식물영양소 섭취량 및 다양성 부족 문제 개선, 식물영양소 필수 섭취에 대한 필요성 인식, 그리고 식물영양소 섭취 행동 장벽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br/><br/><br/><br/>‘5.1.3 식물영양소 캠페인’의 슬로건과 엠블럼 디자인에는 식물영양소 섭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섭취 행동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건강한 오색밥상’이라는 테마를 채택했다. 엠블럼에는 ‘5색 채소 과일을 1일 3번 먹자’는 메시지와 함께, 한국인의 식생활을 상징하는 밥그릇과 수저를 표시해 캠페인에 대한 생활 속 관심을 유도하도록 고안됐다.<br/><br/>식물영양소란 과일이나 채소가 해충, 미생물, 바람, 비 자외선 등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면역 방어물질이다. 식물 고유의 색깔 속에 다양하게 들어 있다. 2500여 가지에 이르는 식물영양소는 사람에게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을 제공한다. 심혈관질환과 암,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감염병의 예방에 중요한 영양소로 꼽힌다. 보편적으로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하얀색, 보라색(검은색 계열 포함)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특정 색깔마다 대표 식물영양소와 이에 따른 주요 효능이 다르다. 색깔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컬러푸드’라고 한다.<br/><br/><br/><br/><br/><br/>국내 및 해외의 각종 연구에 따르면 식물영양소는 인체 내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스스로 방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체내에서 항노화, 항염증, 균형 잡힌 세포성장, 항산화 능력 보강, 해독작용 및 면역반응을 돕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이유로 식물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에 이어 ‘제7의 영양소’로도 불리고 있다.<br/><br/>식물영양소는 또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지켜주고, 노화와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인체의 에너지는 섭취한 음식물이 산소와 반응하는 산화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된다. 이때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유해산소(활성산소)가 발생한다. 어떤 원인에 의해 유해산소의 생성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또는 이들을 제거하는 기능이 저하될 경우 유해산소에 의한 각종 질병이 유발된다. 이 같은 유해산소의 독작용이 산화 스트레스다.<br/><br/><br/><br/><br/><br/>색깔별로 많이 들어 있는 성분의 효능을 보면, 초록은 신진대사 개선, 피로 해소, 눈 건강, 세포건강, 콜레스테롤 강하 등에 좋다. 빨강은 암, 심혈관계 질환,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흰색의 경우 혈관 건강, 심장 건강, 노화 지연, 콜레스테롤 강하 등에 좋은 효능을 발휘한다. 주황과 노랑은 눈 건강, 면역력, 성장 발달에 유익하다. 보라와 검정은 노화 지연, 심장 건강, 인지 건강 등에 이롭다.<br/><br/>하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행신 박사와 숙명여대 성미경 교수팀의 연구내용을 보면, 영양학계가 제시한 1일 에너지 권장수준 이상 섭취하는 경우는 채소가 23.4%, 과일은 28.4%였고, 과일과 채소를 동시에 충족하는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색깔별로 보면 권장량 이상 섭취 비율이 흰색 32.9%, 노란색·주황색 29.2%, 보라색·검정색 12.6%, 녹색·초록색 8.6%, 빨간색 7.4% 등으로 모든 색깔의 채소가 섭취 권장 기준에 훨씬 못미쳤다.<br/><br/><br/><br/><br/><br/>한 가지 색깔의 섭취량은 어른의 주먹 정도, 대략 한 컵 분량에 해당한다. 이것을 다섯 가지 색깔(5색)로 하루(1일)에 세번(3회) 먹는 것이 기본 지침이다. 한 끼에 최소한 1~2가지 색깔은 먹어야 한다는 얘기다. 뉴트리라이트가 성인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79.4%)이 ‘식물영양소 섭취의 이점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채소·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고 답한 경우는 16.2%에 머물렀다.<br/><br/>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각기 다른 식물영양소의 다양한 효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식물영양소가 풍부한 색이 짙은 채소 과일을 매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강조한다. 일상적인 식단으로 충분한 식물영양소를 섭취하기 어려울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건강유지를 위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78.txt

제목: [TV 하이라이트]2015년 5월 12일  
날짜: 201505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1110017246621  
본문: <b>철수의 가짜 피앙세가 된 영희</b><br/>독립영화관 ‘그녀의 연기’(KBS1 밤 12시35분) = 제주 남자 철수는 자신의 결혼을 바라는 시한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려 한다. 철수는 서울여자 영희를 고용해 가짜 피앙세 역할을 부탁한다. 철수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차 안, 영희는 그들의 연애 스토리를 그럴듯하게 늘어놓는다. 하지만 철수는 시큰둥하다. 갑자기 아버지가 의식을 잃었다는 연락을 받은 철수와 영희는 마음이 급해진다.<br/><br/><b>전문가가 말하는 암과 가족력</b><br/>토크쇼 부모-놀라운 데이터(EBS 오전 9시40분) = 치명적인 질병인 암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법에 대해 파헤쳐본다. 전문가들은 암 예방을 위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소개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암 발생률이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 암에 걸리는 체질이 따로 있는지 등 암에 대한 속설에 대해서도 속시원히 답변해준다. 그중에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가족력에 대해 상세히 알려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79.txt

제목: 카드뮴 허용기준치 99배 초과한 학교인조잔디운동장  
날짜: 201505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1110017239663  
본문: 전북녹색연합은 11일 전북지역 37개 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며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을 즉각 철거하라고 주장했다.<br/><br/>전북녹색연합은 이날 “<span class='quot0'>녹색당 조사결과 전라북도 43개 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 중에서 37개 학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5개 학교에서는 납과 카드뮴, 다환방향성탄화수소 등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span>”면서 이같이 밝혔다. <br/><br/>전북녹색연합 확인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5개 학교 중 장수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카드뮴이 4946mg/kg이 검출돼 허용기준치(50mg/kg)의 99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공고의 경우도 납이 2240mg/kg이 검출돼 허용기준치(90mg/kg)의 25배를 초과했다. 고창북고 역시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성탄화수소(PAHs)가 37mg/kg가 검출되었으며, 기준치(10mg/kg)의 3배를 초과했다.<br/><br/><br/><br/>카드뮴의 경우 입과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수된다. 대량으로 흡수 또는 섭취할 경우 단백뇨, 골연화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이타이 이타이’병으로 수백명이 희생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폐암과 신장암, 위암 등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br/><br/>장수초등학교 운동장은 현재 출입이 통제되고 있지만 철거를 하지 못한 상태며, 전주공고 등 다른 학교들은 유해한 인조잔디운동장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br/><br/>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1'>유해한 물질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5개 학교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을 철거할 것을 요구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더불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유해물질이 검출된 32개 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도 철거돼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80.txt

제목: [이건의 소방이야기35] 소방관의 아내가 알아야 할 것들  
날짜: 201505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1010017232089  
본문: 지난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면 2014년 대한민국 이혼 건수는 11만550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0.2% 증가했다. 이혼 사유는 비단 배우자의 부정뿐만이 아니라 맞벌이, 육아, 명예퇴직, 질병, 노후대책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들로써 대단히 슬픈 통계가 아닐 수 없다.<br/><br/>미국에서 소방대원은 군인이란 직업과 함께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이는 집단에 속해 있다. 일반인들의 이혼율에 비해서 무려 세 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직업군들은 오랜 시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여겨질 정도다.<br/><br/>2009년 미국의 한 소방대원 아내가 자신의 블로그에 “18년 동안 소방대원의 아내로 살면서 배운 것들(18 Years of Being a Firefighter’s Wife: Lessons I’ve Learned)” 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이 아직까지도 화제다. 소방대원인 남편을 내조하면서 자그마치 6명의 아이를 양육한 그녀는 결혼생활 18년 동안 어렵게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자신만의 글로 소박하게 풀어내 아직도 많은 공감의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다.<br/><br/>매일 위험을 찾아다니고 교대 근무를 밥 먹듯이 해야 하는 소방관이란 직업을 가진 남자와 사는 일은 어찌 보면 하루하루가 도전인 셈이다.<br/><br/>다른 사람들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믿음은 아주 오래전에 깨졌고, 결혼 전 기대했던 근사한 이벤트들도 비상이라도 걸리면 무산되는 일이 다반사다. 부부지간의 일을 어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는가마는, 행복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소방관의 아내가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br/><br/>첫 번째는 남편의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다. 소방관은 오랜 시간을 직장에서 대기해야 하고, 온갖 상황에 출동해야 하며, 밤을 지새우는 일이 빈번하다. 출동을 하다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사고와 죽음의 순간들을 오고가면서 쌓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기도 한다.<br/><br/>이런 모든 일들을 긴장한 상태에서 처리하다보면 혈압은 상승하고, 소화불량이 생긴다. 과다하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의 영향으로 만성피로와 고립감 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의사들은 경고한다.<br/><br/>또한 업무 특성상 여러 발암물질에도 쉽게 노출된다. 오늘날 화재는 플라스틱 제품이 연관된 화재가 많아서 불에 타게 되면 대개 목재보다 더 많은 연기와 열을 내뿜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연기에는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벤젠, 염산, 메탄 등 치명적인 유해인자가 많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런 물질들을 다량으로 흡입하게 되면 질식사 할 수도 있고 소량으로도 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다.<br/><br/>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환경 속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무척이나 안쓰럽고 가슴 아픈 일이다. 그래서 남편의 건강을 챙기고 용기를 북돋우어 주어야 하는 소방관의 아내의 삶 또한 소방관 못지않게 힘이 드는 것이다. <br/><br/>간혹 남편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는 그저 아침에 퇴근하는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가 어떤 말썽을 부렸는지를 쏟아 붓고는 비번 날에 해야 할 일들을 산더미처럼 늘어놓아 퇴근한 남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아마도 아내는 지난 밤 출동에서 남편이 무슨 일을 겪고, 무엇을 보았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눈치다.<br/><br/>소방관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감정을 싣지 않고 차분하게 처리해야만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 놓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내는 충분히 이해해 주어야 한다.<br/><br/>두 번째로는 남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이다. 남편이 대화를 하고 싶어 하면 피곤함을 무릅쓰고라도 충분히 들어주자. 오랜 시간의 대화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려움, 고독함 그리고 두려움이 나오기 때문이다.<br/><br/>처음에는 그저 직장에서 출동은 많았는지 아니면 조금 휴식을 취할 시간은 있었는지를 물어봐 주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 대화를 통해서 수고한 남편을 격려하고 쉬는 날 남편에 대한 기대치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br/><br/>세 번째로는 남편의 직업을 존경해 주는 것이다. 생사를 넘나드는 직업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의 직업을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되고 이 점은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교육이 된다.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해 주는 것만으로도 결혼생활은 훌륭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br/><br/>참고로 남편이 근무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너무 많은 전화나 문자는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요한 일은 사전에 서로가 지혜롭게 시간을 정해서 연락을 하는 것이 좋다.<br/><br/>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일은 비단 소방관의 아내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가족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소방관들 역시 아내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기대하기 이전에 소방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남자를 마다하지 않고 받아준 아내를 제일 먼저 지켜주어야 한다.<br/><br/>고된 업무로 바쁘고 힘들겠지만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신의 아내를 돌아보자. 아내이면서 엄마인 사람, 또 누군가의 딸이자 며느리인 사람도 소방관만큼이나 힘이 들기 때문이다.<br/><br/>예쁜 딸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성장하고, 성인이 된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 그렇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은 소방관이라는 남편의 직업 때문에 여러 가지 역경에도 부딪히게 되지만, 하루하루 건강하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남편을 지켜보면서 그를 지켜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된다<br/><br/>화재현장에서 의사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처럼, 소방관의 결혼생활에서도 아내와의 의사소통은 정말로 중요하다. 아내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남편의 노력을 합해서 행복해지고 더 많이 행복해져야 한다.<br/><br/><이 건 |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 선임소방검열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81.txt

제목: [특집]연세암병원 - ‘베스트팀’ 꾸려 다학제 진료…중증 암 정밀 치료  
날짜: 201505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08100000058  
본문: 연세암병원(병원장 노성훈)은 국내 암치료의 표준과 발전을 이끌고 있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암병원이다. 연면적 10만5783㎡(3만2000여평), 지상 15층(지하 7층)의 건물에서 497병상, 18개 수술실을 운영하고 있다. 암종별 13개 암센터와 4개 특화센터를 두고 일평균 1800여명의 외래진료와 50여건의 수술을 진행한다.<br/>암 치료의 다학제 진료 개념을 처음 도입한 연세암병원은 각 암별로 4개 진료과 이상 교수진이 한 환자의 진료와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베스트팀 진료를 통해 월평균 110명 이상의 중증 암환자를 원스톱으로 치료한다. <br/>각종 첨단장비 중에서 환자 몸속에서 암 조직만을 추적, 6곳에서 방사선을 정밀하게 쐬어 치료하는 ‘로봇틱 IMRT’ 장비를 아시아 최초로 도입했다.<br/>연세암병원은 로봇수술의 메카다. 2005년 국내 처음으로 로봇수술기를 도입했으며 현재 3개의 전용 로봇수술실을 갖추고 대부분의 고형 암 수술을 한다. 지난해 도입한 4세대 로봇수술기는 특수 형광이미지 영상을 통해 암조직과 정상조직을 구분해 더욱 정밀한 암수술이 가능하게 한다. 현재 1만건 이상의 로봇수술 실적을 갖고 있다.<br/>암예방센터에서는 유전성 유방암과 대장암 등 암 고위험군에 대한 유전자 검사와 상담, 생활습관 관리를 통한 예방적 암 치료와 습관을 교정하는 개인별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암 치료 후 5년이 지난 환자를 대상으로 재발 및 2차암 발생의 예방과 체력 증진을 위한 전문진료 프로그램도 제공한다.<br/>연세암병원은 전 세계 주요 암병원과 다국적 제약사, 의료기 제조사들의 협의체인 윈(WIN·Worldwide Innovative Network) 컨소시엄 참여 병원이다. 연간 100여건에 이르는 다국적, 다기관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된 최신 항암약물을 난치성 암환자들에게 제공해 희망을 주고 있다. <br/>특히 전이암 완치센터 개설을 위해 기존 다학제 진료 시스템인 베스트팀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고난도암 수술팀과 통증전문 관리팀을 발족했다. 이러한 명성은 지난해 4800여명의 해외 암환자 유치로 이어졌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82.txt

제목: [특집]연세암병원협진·첨단 기술로 구현한 ‘한국의료의 세계화’  
날짜: 201505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08100000059  
본문: 의료의 전문화와 첨단화, 여러 진료과가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는 한국 의료 세계화의 키워드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면서 의료관광이나 해외 환자 유치, 병원 수출을 통해 국익을 실현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br/>연세암병원은 1969년 국내 첫 암전문 진료기관으로 출발, 그동안 축적된 암치료술과 함께 첨단 시설이 더해져 국내는 물론 많은 해외 암환자들이 찾는 국제 암병원으로 발돋움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간암 치료의 메카로 떠올랐다. 다학제적 진단 및 치료와 더불어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적극 나선 덕분에 국내 평균 대비 20~30%를 웃도는 치료성적을 거두고 있다.<br/>이대목동병원은 로봇수술센터에서 단일공 첨단 수술을 시행한다. 이대여성암병원 개원 이후 쌓아온 여성암 치료 노하우는 로봇수술센터가 다양한 산부인과 종양 환자들에게 효율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실명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녹내장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양한 안과적 정밀검사와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했다. <br/>1963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전문병원으로 개원한 제일병원은 지난해 외국인 난임 환자 8250명(연인원)을 치료하며 산부인과 분야에서 의료한류 바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83.txt

제목: 호스피스, 집에서도 간호한다  
날짜: 20150508  
기자: 최희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08100000130  
본문: 올 7월부터 집에서 지내는 말기암 환자를 위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올 하반기에 일반 병동 환자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br/>보건복지부는 7일 암관리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했다.<br/>개정안은 가정형 호스피스나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의사, 1급 사회복지사, 전담 간호사를 최소 1인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 중인 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별도로 꾸려 환자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 병동의 말기암 환자나 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56개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전담 병동을 두고 입원형 호스피스 제도만 운영하고 있다.<br/>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말기암 환자 중 12.7%만이 평균 23일간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환자들이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체계를 다양화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84.txt

제목: 호스피스, 집에서도 간호한다  
날짜: 201505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0710017214845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말기암 환자에 7월부터</strong><!-- SUB\_TITLE\_END--><br/><br/>올 7월부터 집에서 지내는 말기암 환자를 위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올 하반기에 일반 병동 환자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br/><br/>보건복지부는 7일 암관리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했다.<br/><br/>개정안은 가정형 호스피스나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의사, 1급 사회복지사, 전담 간호사를 최소 1인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 중인 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별도로 꾸려 환자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 병동의 말기암 환자나 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56개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전담 병동을 두고 입원형 호스피스 제도만 운영하고 있다.<br/><br/>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말기암 환자 중 12.7%만이 평균 23일간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환자들이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체계를 다양화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85.txt

제목: 암 신약 ‘2차 치료제’로 쓸 때만 혜택… 건보 적용 기다린 환자들 “희망 고문”  
날짜: 20150507  
기자: 심진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07100000128  
본문: 이은수씨(40·가명)의 어머니는 희귀 난치병인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다.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만든 치료제 ‘잴코리’를 3년째 복용 중이다. 효능은 좋지만 가격이 문제다. 한 알에 16만원 하는 약을 하루 2차례씩 먹어야 한다. 한 달 약값만 1000만원이 나간다. 경북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이씨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다.<br/>이씨의 어머니는 약값이 얼마인지 모른다. 돈 걱정에 약을 안 먹겠다고 할까봐 이씨가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 지난 3년 동안 이씨는 약값을 대느라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렸다. 노후 자금으로 모은 2억원도 모두 날렸다. 이씨의 남편도 이런 사실을 모른다. 이씨는 ‘조만간 잴코리도 건강보험 적용이 돼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말에 희망을 걸고 하루하루 버텼다.<br/>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잴코리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을 의결했다. 이달부터 잴코리 복용 환자는 한 달에 3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이씨의 어머니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가 잴코리를 ‘2차 치료제’로 쓰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른 항암제를 쓰다가 효과를 보지 못해 잴코리를 복용한 환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씨의 어머니는 “효능이 좋고 부작용이 없다”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처음부터 잴코리를 복용했기 때문에 급여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씨는 6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면서 “<span class='quot0'>더 이상 돈을 마련할 방도도 없어 일반 항암제로 갈아타야 하는데 고령의 어머니가 잴코리 없이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다</span>”고 했다. 막막하기는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br/>2013년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4기 판정을 받은 신경덕씨(73)는 “의사가 이 약이 아니면 안된다고 해 처음부터 잴코리를 먹었다”면서 “같은 환자인데 왜 나는 안되는지 죽더라도 이유는 알고 죽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신씨는 “<span class='quot1'>지난 몇 년을 ‘희망 고문’ 속에서 살았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임상실험 같은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span>”이라고 했다.<br/>이씨와 신씨는 복지부에 몇 차례나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span class='quot1'>일단 일반 항암제를 써 본 후 잴코리를 쓰면 2차 치료제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span>”이란 말 외에 뾰족한 답을 듣지 못했다. 이씨와 신씨는 “<span class='quot1'>목숨을 담보로 실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냐</span>”고 반문했다.<br/>이씨 어머니나 신씨처럼 처음부터 잴코리를 복용해온 환자들이 언제쯤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급여화를 결정하면서 제약사도 재정 부담을 나눠갖는 ‘위험분담제도’를 적용했다. 복지부는 위험분담제도를 적용할 경우 급여 기준을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잴코리의 경우 임상자료가 아직 충분치 않아 애초에 제약사에서 2차 치료제로 한정해 급여 신청을 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이번에 혜택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86.txt

제목: 5월에는 어떤 음식이 제격일까?  
날짜: 201505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0610017167934  
본문: 5월에는 어떤 음식이 가장 잘 어울릴까. 농촌진흥청이 이런 궁금증에 대한 정답을 내놨다.<br/><br/>우리 농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달 이달의 식재료를 추천해 온 농촌진흥청은 5월의 식재료로 마늘, 오이, 돼지고기를 6일 선정, 발표했다. <br/><br/>농촌진흥청은 마늘의 경우 암과 혈관 질환 등에 효과가 좋은 설파이드 성분 함량이 풍부하다고 소개했다. 예로부터 장아찌, 초절임 등과 같이 냄새와 자극성은 줄이고 기능성은 보존하는 형태로 섭취해 왔으며 조리법으로는‘구운마늘 연근조림’ 조리법을 설명했다.<br/><br/><br/><br/><br/><br/><br/><br/>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중금속이 몸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 구입하는 부위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조리법으로는 와인을 이용해 색다른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와인오겹구이’를 소개했다.<br/><br/>오이는 95% 이상의 수분 함량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섭취하면 좋은 식재료다. 싱싱하고 새콤달콤한‘오이과일채말이’를 조리법으로 소개했다.<br/><br/>□이달의 식재료와 조리법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웹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이달의 식재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br/><br/>농촌진흥청 가공이용과 한귀정 연구관은 “농촌진흥청이 추천하는 이달의 식재료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영양학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는 것은 물론, 우리 농식품 소비 확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br/><br/><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87.txt

제목: 암 신약 ‘2차 치료제’로 쓸 때만 혜택… 건보 적용 기다린 환자들 “희망 고문”  
날짜: 201505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0610017200602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잴코리’ 약값 한 달에 1000만원… 보험 적용 땐 37만원</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처음부터 복용 땐 급여 제외… “같은 환자인데 왜” 항의</strong><!-- SUB\_TITLE\_END--><br/><br/>이은수씨(40·가명)의 어머니는 희귀 난치병인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다.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만든 치료제 ‘잴코리’를 3년째 복용 중이다. 효능은 좋지만 가격이 문제다. 한 알에 16만원 하는 약을 하루 2차례씩 먹어야 한다. 한 달 약값만 1000만원이 나간다. 경북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이씨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다.<br/><br/>이씨의 어머니는 약값이 얼마인지 모른다. 돈 걱정에 약을 안 먹겠다고 할까봐 이씨가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 지난 3년 동안 이씨는 약값을 대느라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렸다. 노후 자금으로 모은 2억원도 모두 날렸다. 이씨의 남편도 이런 사실을 모른다. 이씨는 ‘조만간 잴코리도 건강보험 적용이 돼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말에 희망을 걸고 하루하루 버텼다.<br/><br/>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잴코리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을 의결했다. 이달부터 잴코리 복용 환자는 한 달에 3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이씨의 어머니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가 잴코리를 ‘2차 치료제’로 쓰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른 항암제를 쓰다가 효과를 보지 못해 잴코리를 복용한 환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씨의 어머니는 “효능이 좋고 부작용이 없다”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처음부터 잴코리를 복용했기 때문에 급여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씨는 6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면서 “<span class='quot0'>더 이상 돈을 마련할 방도도 없어 일반 항암제로 갈아타야 하는데 고령의 어머니가 잴코리 없이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다</span>”고 했다. 막막하기는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br/><br/>2013년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4기 판정을 받은 신경덕씨(73)는 “의사가 이 약이 아니면 안된다고 해 처음부터 잴코리를 먹었다”면서 “같은 환자인데 왜 나는 안되는지 죽더라도 이유는 알고 죽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신씨는 “<span class='quot1'>지난 몇 년을 ‘희망 고문’ 속에서 살았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임상실험 같은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span>”이라고 했다.<br/><br/>이씨와 신씨는 복지부에 몇 차례나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span class='quot1'>일단 일반 항암제를 써 본 후 잴코리를 쓰면 2차 치료제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span>”이란 말 외에 뾰족한 답을 듣지 못했다. 이씨와 신씨는 “<span class='quot1'>목숨을 담보로 실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냐</span>”고 반문했다.<br/><br/>이씨 어머니나 신씨처럼 처음부터 잴코리를 복용해온 환자들이 언제쯤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급여화를 결정하면서 제약사도 재정 부담을 나눠갖는 ‘위험분담제도’를 적용했다. 복지부는 위험분담제도를 적용할 경우 급여 기준을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잴코리의 경우 임상자료가 아직 충분치 않아 애초에 제약사에서 2차 치료제로 한정해 급여 신청을 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이번에 혜택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br/><br/><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88.txt

제목: 8년 만에 장편소설 ‘단 한번의 사랑’ 펴낸 김홍신씨 “나이 들고 혼자 있으니 사랑 떠올라… 애절하게 썼죠”  
날짜: 20150505  
기자: 김여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05100000086  
본문: “아내가 살아 있을 땐 ‘사랑’이라면 느낌이 그저 그랬지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보니 사랑이란 게 참 영원한 숙제구나, 누구나 다 자기 혼을 끄집어내서 제대로 한번 사랑해보고 싶은 갈증 같은 게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오니까 혼자 있으니 애절하게 떠오르고 갈구하는 낱말이 결국 사랑이구나 싶습니다.”<br/>국내 첫 밀리언셀러 <인간시장>의 작가이자 전직 국회의원 김홍신씨(68)가 장편소설 <단 한번의 사랑>(해냄)을 내놨다. 대하소설 <김홍신의 대발해> 이후 8년 만에 내놓는 신작으로 김씨가 처음 쓴 사랑 이야기다.<br/><br/>여주인공 강시울은 미모의 40대 여배우다. 재벌가 2세 조진구와 결혼했던 그가 돌연 기자회견을 열어 이혼과 말기암 판정 사실을 밝히고 남은 생은 첫사랑 홍시진을 찾아 함께하겠다고 공표한다. 강시울은 20대 시절 시인 홍시진을 깊이 사랑했지만 조진구의 납치와 감금에 강제로 결혼했고, 홍시진은 갑자기 사라진 연인 때문에 오랜 기간 방황해 왔다. 강시울과 조진구는 둘 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조진구의 집안은 호적을 조작한 가짜 독립투사 가문이었다. 강시울의 충격적인 공표 이후 조진구는 홍시진을 죽이고, 조진구 집안의 비밀을 밝히려는 이들도 살해당하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강시울과 홍시진의 사랑은 영혼 결혼식으로 끝맺는다. 애절한 사랑 이야기는 우리 근대사의 모순과 어우러진다.<br/>“사랑을 섬세하게 묘사해야 할 부분에서 자주 막혀서 저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앞으로 다가올 사랑이 중요한데, 이 나이에 내게 사랑이 올까, 안 올거 같다, 누가 나를 사랑할까 그런 간절함이 너무 강하다 보니 (오히려) 자기표현이 안되더라고요. 너무 간절하면 막막해진다는 걸 알았어요.”<br/>김씨는 또 “제가 ‘신인간시장’을 기획해 시놉시스 3권 분량까지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못 썼다.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바로 썼다면 썼을 텐데, 그땐 제가 옳고 정직한 사람이고 가장 확신에 찬 사람으로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저만 옳은 게 아니었더라”며 “그런 것에 관한 반성, 갈등이 나타나니 탁탁 걸렸다”고 했다.<br/><단 한번의 사랑>은 130여권의 책을 펴낸 김씨가 가장 오래 붙잡고 있던 소설이다. 그는 “강연도 하고 대학에서 제자들 가르치고 하다 보니 소설 한 편에 긴 시간을 썼다”며 “지금도 정치권에서 어디 나와 달라, 맡아 달라 하는데 인연이 있으니 거절하기 쉽지 않다. ‘요즘 글 쓰는 게 있어 끝나기 전까지 힘들다’고 하면 그런 제의에서 빠져나오기 수월하다”고 말했다.<br/>“정치권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죽을 때 글쟁이로 기억되고 싶어서예요. 국회의원도 교수도 시민운동가도 했고 이런저런 보직도 맡아봤는데, 고통스럽지만 작가로서 죽는 게 가장 제 인생을 잘 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br/>그는 이달 말 <인간시장> 개정판도 출간할 예정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89.txt

제목: [김현진의 병맛통신]죽음까지 일관된 병맛! ‘몬티 파이튼’  
날짜: 201505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05100000027  
본문: 암으로 가장 먼저 죽은 멤버의 유언도 비범했다. 동료에게 “자네는 영국 텔레비전 최초로 ‘shit’라는 단어를 말한 인물이니 영국 장례식에서 최초로 ‘fuck’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 주게”라는 곤란한 유언을 남겨 동료는 장례식에서 “fuck, fuck, fuck” 하고 울면서 외쳐야 했다.<br/><br/>밝힘 위키 사이트 ‘엔하위키’에 몬티 파이튼 항목을 개설하여 작성한 많은 대인배들이 없었다면 23000% 같은 구체적 수치를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다.<br/><br/>몬티 파이튼(Monty Python)? 아직까지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름이다. 영국의 ‘개그 콘서트’ 그룹 같은 거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빠를지도 모르겠다. 뮤지컬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스팸어랏>의 원작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 하고 바로 아실지도. 영화 좀 봤다는 분이라면 몬티 파이튼은 들어본 적 없어도 테리 길리엄은 꿰고 계실 텐데, 그 테리 길리엄이 몸담았던 곳이 바로 몬티 파이튼이다.<br/><br/>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영화를 전공한 나는 동기생들과 나이도, 취향도 맞지 않아서 내내 겉돌았는데 그때 모두가 숭배했던 감독이 테리 길리엄이었다. 이 정도 좋아한다고 하면 먹어주던 시절이었다.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 싫었던 삐딱한 열여덟 살의 어느 날, <삶의 의미>(Meaning of life)를 본 나는 같은 과 학생들과 본격적으로 척지기 시작했다. 그 대단한 테리 길리엄이 몬티 파이튼의 일원이었고, 애니메이터로서의 재능을 하수구에 중국 인구 생활용수 쏟듯 하는 기세로 <삶의 의미>(1983) <몬티 파이튼의 성배>(1975) <브라이언의 삶>(1979)같은 영화에 쏟아붓곤 했다는 건 아무도 몰라줬다.<br/><br/>담당교수 김홍준 감독님이 어느 날 나를 붙잡고 심각하게 말씀하셨다. 너 그런 영화만 보다간 절대로 한국에서 영화 못한다. 결국 한 편 입봉 후 개점휴업이 됐으니 그 예언은 맞아떨어진 셈이 됐지만 몬티 파이튼에 빠져 지낸 것에는 후회가 없다. 이 영화 세 편만으로도 20대를 너끈히 살아낼 ‘병맛’ 혹은 ‘병멋’의 힘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이다.<br/><br/>사후에 유골함으로 텔레비전 쇼에 출연<br/>의외로 멤버 대부분이 ‘옥스브리지’(옥스포드+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인 이들의 가차 없는 병맛에 쓰러진 희생자는 수도 없이 많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로 유명한 작가 더글러스 애덤스도 몬티 파이튼의 각본가로 잠시 활약했고, 비틀즈의 멤버였던 조지 해리슨은 <브라이언의 삶>의 영화 제작비를 대기 위해 집까지 팔았다고 한다. 이유도 간단했다고. “내가 보고 싶으니까.” 예수가 태어나던 시각 옆집에서 태어난 아기 브라이언의 재수 없는 삶을 그린 이 영화는 마지막 즈음 십자가에 매달린 조지 해리슨을 볼 수 있는 것 말고도 영국인에게 큰 선물을 준 셈이 됐다.<br/><br/>장례식마다 빠짐없이 영국인들이 부른다는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라는 노래가 그 선물이다. <몬티 파이튼의 성배>와 <브라이언의 삶>에서 주연을 맡았던 그레이엄 채프먼은 암으로 멤버들 중 가장 먼저 죽었는데, 유언도 비범했다. 동료 마크 클리스에게 “자네는 영국 텔레비전 최초로 ‘shit’라는 단어를 말한 인물이니 영국 장례식에서 최초로 ‘fuck’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 주게”라는 곤란한 유언을 남겨 마크 클리스는 장례식에서 “fuck, fuck, fuck” 하고 울면서 외쳐야 했다. 죽음까지 일관된 이 병맛! 심지어 사후 텔레비전 쇼에 유골함으로 출연했다. 유골함이 달그락거리자 멤버들은 “오, 그레이엄이 뭔가 말하고 싶은가 봐요! 뭐? 죽은 건 x같다구?” 하며 호들갑을 떨다가 결국 유골함을 뒤엎고 그레이엄을 모으겠다며 진공청소기까지 끌고 나온다. 그의 장례식에서 위에 나온 노래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를 조문객들이 다 같이 불렀다. <브라이언의 삶>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해맑게 웃는 역으로 등장한 에릭 아이들이 만든 노래다. 2012년 런던 올림픽 폐막식에서도 그가 칠순의 몸을 이끌고 등장해 불렀으며, 포클랜드 전쟁 때 격침된 영국 군함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이들이 합창한 에피소드도 유명하다. 그러면 얼마나 희망적인 노래인지 궁금할 듯도 한데, 물론 ‘기승전병?이다. 내 영어 솜씨는 병맛 코드라 치고 혜량하시길.<br/><br/>When you’re chewing on life’s gristle, Don’t grumble, give a whistle. And this’ll help things turn out for the best.(인생이 찌꺼기를 던져줘도 투덜대지 말고 휘파람이나 불어, 그게 최선이지)<br/><br/>And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Always look on the light side of life.(그리고 늘 삶의 밝은 면을 보라구!)<br/><br/>Life’s a piece of shit, When you look at it.<br/>Life’s a laugh and death’s a joke, it’s true.(잘 보면 산다는 건 똥이지, 삶은 웃음거리, 죽음은 농담거리)<br/><br/>So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death.<br/>Just before you draw your terminal breath.(그러니 늘 죽음의 밝은 면을 보자고,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전에)<br/><br/>대충 이런 꿈도 희망도 없는 노래를 장례식이건 격침당한 군함이건 올림픽이건 할 것 없이 불러대는지 영국인들도 참 신기한 사람들이다. 심지어 찰스 왕세자의 60세 생일파티에서도 불렸는데, 왕실에 대한 예우는 극진한 편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더 신기한 일이었다. 한국인 중 최초로 케임브리지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의 유학 시절 기억에 따르면 아무리 추워도 도대체 움직이질 않던 라디에이터가 드디어 가동된 날이 있었다고 한다.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있나 했더니 바로 찰스 왕세자의 행차 때문. 그토록 아끼던 난방까지 틀어주는 걸 보니 이 나라 사람들이 왕손을 꽤나 생각하나보다 싶어 감탄했다고 라 교수는 소회했지만, 얼어붙은 케임브리지의 라디에이터를 움직인 천하의 찰스 왕세자도 몬티 파이튼 앞에서는 별 수 없었다. 다양한 예술가들이 우아한 축하공연을 펼치는 와중에 또 에릭 아이들 영감이 망측한 발레리나 의상을 입고 등장해서 노래했다. “When you’re 60 years of age. And your mum won’t leave the stage. Remember that you’re still prince of Wales.”( 네 나이도 환갑이건만 니네 엄마는 무대(왕위)를 떠나질 않는구나. 그래도 넌 여전히 ‘프린스 오브 웨일즈’잖니!)<br/><br/>병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대인배 자세를<br/>이렇게 위로인지 ‘엿’인지 알 수 없는 짓을 마구 하고 다니는 몬티 파이튼이지만, 기술이 발전해 유튜브에 몬티 파이튼 영상 녹화 자료가 업로드되자 모두 삭제시켰다. 나이가 들어 다들 좁쌀영감이 되었나? 얼핏 좀스러워 보였지만 그럴 리가. “무시무시한 기술로 여러분을 추적해 모두 고소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직접 유튜브에 고화질로 올려놓을 테니 즐겁게 보시고, 혹시 괜찮으면 우리 DVD 전집이 판매 중이니 관심 좀 가져주세요”라고 발표하고 채널을 개설했으니 그야말로 대인배임을 인증한 셈이다. 덕분에 아마존에서 몬티 파이튼 DVD 판매량이 23000%나 치솟았다고. 여기에서 ‘병맛’의 가장 중요한 코드 하나가 발견된다. 그것은 바로 ‘대인배’. 병맛을 선보이거나 즐기려거든 결코 소인배여선 안 된다. 죄다 70을 넘긴 몬티 파이튼의 멤버들처럼, 뭐든 일단 크게 웃어넘길 태세가 된 대인배의 자세를 갖춰야 병맛의 치명적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다. 그게 저작권이건, 왕세자건, 설령 자기 자신의 죽음이 되었다 할지라도.<br/><br/><김현진 칼럼니스트>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90.txt

제목: 8년 만에 장편소설 ‘단 한번의 사랑’ 펴낸 김홍신씨 “나이 들고 혼자 있으니 사랑 떠올라… 애절하게 썼죠”  
날짜: 201505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0410017166954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죽을 때 글쟁이로 남고 싶어서 정치권 러브콜 거절”</strong><!-- SUB\_TITLE\_END--><br/><br/>“아내가 살아 있을 땐 ‘사랑’이라면 느낌이 그저 그랬지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보니 사랑이란 게 참 영원한 숙제구나, 누구나 다 자기 혼을 끄집어내서 제대로 한번 사랑해보고 싶은 갈증 같은 게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오니까 혼자 있으니 애절하게 떠오르고 갈구하는 낱말이 결국 사랑이구나 싶습니다.”<br/><br/>국내 첫 밀리언셀러 <인간시장>의 작가이자 전직 국회의원 김홍신씨(68)가 장편소설 <단 한번의 사랑>(해냄)을 내놨다. 대하소설 <김홍신의 대발해> 이후 8년 만에 내놓는 신작으로 김씨가 처음 쓴 사랑 이야기다.<br/><br/><br/>여주인공 강시울은 미모의 40대 여배우다. 재벌가 2세 조진구와 결혼했던 그가 돌연 기자회견을 열어 이혼과 말기암 판정 사실을 밝히고 남은 생은 첫사랑 홍시진을 찾아 함께하겠다고 공표한다. 강시울은 20대 시절 시인 홍시진을 깊이 사랑했지만 조진구의 납치와 감금에 강제로 결혼했고, 홍시진은 갑자기 사라진 연인 때문에 오랜 기간 방황해 왔다. 강시울과 조진구는 둘 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조진구의 집안은 호적을 조작한 가짜 독립투사 가문이었다. 강시울의 충격적인 공표 이후 조진구는 홍시진을 죽이고, 조진구 집안의 비밀을 밝히려는 이들도 살해당하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강시울과 홍시진의 사랑은 영혼 결혼식으로 끝맺는다. 애절한 사랑 이야기는 우리 근대사의 모순과 어우러진다.<br/><br/>“사랑을 섬세하게 묘사해야 할 부분에서 자주 막혀서 저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앞으로 다가올 사랑이 중요한데, 이 나이에 내게 사랑이 올까, 안 올거 같다, 누가 나를 사랑할까 그런 간절함이 너무 강하다 보니 (오히려) 자기표현이 안되더라고요. 너무 간절하면 막막해진다는 걸 알았어요.”<br/><br/>김씨는 또 “제가 ‘신인간시장’을 기획해 시놉시스 3권 분량까지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못 썼다.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바로 썼다면 썼을 텐데, 그땐 제가 옳고 정직한 사람이고 가장 확신에 찬 사람으로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저만 옳은 게 아니었더라”며 “그런 것에 관한 반성, 갈등이 나타나니 탁탁 걸렸다”고 했다.<br/><br/><단 한번의 사랑>은 130여권의 책을 펴낸 김씨가 가장 오래 붙잡고 있던 소설이다. 그는 “강연도 하고 대학에서 제자들 가르치고 하다 보니 소설 한 편에 긴 시간을 썼다”며 “지금도 정치권에서 어디 나와 달라, 맡아 달라 하는데 인연이 있으니 거절하기 쉽지 않다. ‘요즘 글 쓰는 게 있어 끝나기 전까지 힘들다’고 하면 그런 제의에서 빠져나오기 수월하다”고 말했다.<br/><br/>“정치권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죽을 때 글쟁이로 기억되고 싶어서예요. 국회의원도 교수도 시민운동가도 했고 이런저런 보직도 맡아봤는데, 고통스럽지만 작가로서 죽는 게 가장 제 인생을 잘 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br/><br/>그는 이달 말 <인간시장> 개정판도 출간할 예정이다.<br/><br/><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91.txt

제목: 각종 생활용품 표면처리제 ‘치명적 질병’ 유발할 수 있어  
날짜: 201505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0210017162869  
본문: 피자나 팝콘, 샌드위치를 담는 종이 용기, 바닥에 까는 카펫, 텐트나 기능성 의류 등에 방수(수분 침투 방지)나 내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불소화합물(PFASs)이 암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br/><br/>1일(현지시간) 시사주간지 타임과 뉴욕타임스는 방수, 얼룩방지, 내구 목적 등을 위해 각종 생활용품의 표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불소화합물이 암 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br/><br/>논란이 되는 불소화합물은 대표적으로 피자에서 기름이 스며 나오더라도 피자를 담은 종이상자가 원형을 유지하게 하려고 사용된다. <br/><br/>미국 복지부에서 독극물 연구를 총괄하는 린다 비른바움과 하버드대학 공공보건대학원의 필립 그랜드진은 국제학술지 환경보건전망(EHP)에 불소화합물이 암 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span class='quot0'>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불소화합물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해야 한다</span>”고 촉구했다.<br/><br/>불소화합물 처리를 한 생활용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인체에 불소화합물이 장기간 축적돼 질병 유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br/><br/>아울러 미국 국립보건원도 전 세계 과학자 200명의 서명을 받아 불소화합물이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br/><br/>이들 과학자는 전 세계 보건 당국이 서둘러 불소화합물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br/><br/>환경단체인 EWG는 동물을 통한 실험 결과, 불소화합물이 기형·저체중 출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br/><br/>타임과 뉴욕타임스는 수분이 스며드는 것을 막거나 방수 또는 얼룩 제거 기능을 갖춘 생활용품 대부분이 논란이 되는 불소화합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br/><br/>그러면서 피자·샌드위치를 담는 상자나 포장지, 음식물이 들러붙지 않도록 만들어진 프라이팬·냄비 등 주방용품, 팝콘을 담는 종이상자, 방수 기능을 갖는 기능성 야외 의류, 텐트, 방수 또는 얼룩방지 기능을 가진 의류와 가구 및 카펫, 일부 화장품 용기 등을 예로 들었다.<br/><br/>특히 휴대전화 표면 처리제, 기능성 신발, 슬리핑백 등도 불소화합물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용품으로 꼽혔다.<br/><br/>불소화합물 관련 시장 규모는 최소 197억달러(21조16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92.txt

제목: [건강 단신]연세암병원 ‘건강코칭’ 강좌  
날짜: 2015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01100000153  
본문: 연세암병원 암예방센터와 암지식정보센터는 7일 오후 2시부터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암 환자와 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코칭 강좌를 연다. 미니 건강검진과 함께 유전성 암에 대한 정보 전달과 암 환자들이 소홀하기 쉬운 영양섭취와 암 치료 후 건강관리에 대한 특별강연이 진행된다. 사전 예약 (02)2228-4930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93.txt

제목: 난소·유방 제거술에 얽힌 7가지 진실  
날짜: 2015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01100000002  
본문: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자신의 유방을 제거한 데 이어 난소까지 제거했다. 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소·유방 절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r/><br/>2013년 유방암 예방 차원에서 유방 절제술을 받은 안젤리나 졸리. 지난 3월에는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난소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변이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어머니, 외할머니, 이모가 난소암으로 숨진 가족력이 그녀를 수술대로 이끌었다. 한 외신에 보낸 기고문에서 그녀는 “내 아이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살아 있을 수 없을 것이란 걱정을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수술 이유를 설명했다. 그녀는 난소 절제술로 폐경을 맞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지만 “이것도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든 마음을 편히 가지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예방적 차원의 난소·유방 절제술, 꼭 필요한 걸까?<br/><br/>1 유방암과 난소암을 유발하는 유전자<br/>유방암과 난소암을 유발하는 발암 유전자는 BRCA1과 BRCA2가 대표적이다. 이 유전자는 정상적으로 유방암과 난소암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방어 기능이 상실돼 암 발생률이 크게 증가한다. 부모 중 한 사람이 BRCA 유전자의 변이를 갖고 있을 때 50%의 확률로 자녀에게 전달되는데, 혈액 검사를 통해 유전자 변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전적 원인으로 인해 유방암, 난소암이 발생하는 사례는 전체 유방, 난소암의 약 5~10%에 불과하다. 하지만 BRCA1 유전자 변이를 가진 여성에게서 70세까지 유방암이 발생할 위험도는 57%, 난소암은 40%, BRCA2 유전자 변이가 있을 경우 각각 49%와 18%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br/><br/>2 어떤 경우 수술을 받아야 하나?<br/>단지 암이 무서워 예방적 절제술을 받는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에 비유할 수 있다. 유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반 여성의 경우 예방적 절제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전적으로 암 발병 위험군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예방적 절제술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난소 절제술의 경우 여성호르몬 생산이 중단돼 폐경이 초래되기 때문에 수술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한다.<br/><br/>3 암에 걸릴 확률을 얼마나 낮춰줄까?<br/>난소 절제술의 경우 유전적 성향을 갖는 난소암 고위험군에서 90% 가까이 난소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난소 절제술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50%로 낮춰주기도 한다. 유방암의 경우 암을 유발하는 유방조직이 흉벽에 널리 분포돼 있거나 겨드랑이, 복벽 상부, 피부층에도 발견되기 때문에 절제술로 유방암이 100% 예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유방암의 위험을 80, 90%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방 절제술이 난소암 발병을 낮추는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br/><br/>4 난소 절제술은 ‘여성성’을 잃게 만든다?<br/>난소는 난자를 보관하고 난포를 성숙시키며 황체를 형성한다. 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여성호르몬은 물론 테스토스테론 등의 남성호르몬을 분비한다. 특히 에스트로겐은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호르몬으로 대부분 난소에서 만들어지며 피하지방에서도 소량 생성된다. 따라서 난소 절제술을 받으면 에스트로겐을 생산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여성성이 감소한다. 또 난자의 보관 장소인 난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불임이 초래된다.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더불어 황체에 만들어지는 프로게스테론 역시 생산되지 않으므로 폐경이 유발된다. 난소 절제술은 조기 폐경을 유도하기 때문에 질 건조증, 성욕 감소, 열성홍조 등이 생기고, 심혈관질환과 골다공증 위험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난소 제거술 뒤에는 폐경 증상 조절을 위한 호르몬 대체요법 치료를 받아야 한다.<br/><br/>5 난소암 고위험군이지만 난소 절제술을 원하지 않는다면?<br/>대표적인 난소암 예방법은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다. 피임약을 복용하면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는 배란 과정을 억제하게 된다. 장기간 복용시 배란으로 난포나 난소에 상처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난소암 발병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 먹는 피임약을 5년 이상 복용할 경우 난소암 발병률이 60% 감소하고, 5개월 이상 복용시 40%의 예방 효과가 있다. 또 복용을 중단한 뒤에도 최소 15년간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6 유방 절제술 뒤 성형이 가능할까?<br/>얼마든지 원래 모양대로 성형이 가능하다. 현재 조직 확장기와 보형물을 사용하거나, 뱃살이나 등살의 자가 조직을 이용해 유방 재건술을 시행하고 있다.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흉터가 상대적으로 크게 남지만, 자연스러운 형태를 원할 때 많이 선호한다.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은 흉터가 많이 남지 않는 장점이 있다. 피부가 부족한 경우에는 조직 확장기를 이용해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한 뒤 보형물 삽입술을 시행한다.<br/><br/>7 일반 여성이 유방암, 난소암을<br/>예방하기 위해 실천할 것은?<br/>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난소암은 조기 검진 방법이 정확하지 않고 전형적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벼운 증상(하복부 통증, 잦은 배뇨증상, 소화불량 및 배변의 변화 등)도 의심하고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유방암의 경우 장기적인 음주와 흡연, 여성호르몬제 장기 복용, 비만 등이 암 발생과 관련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한다. 또 20대부터 유방 자가 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 40대 여성에게서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30대 중반부터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유방 검진을 받기를 권한다.<br/><br/>Tip 유방암 자가 진단법<br/>매월 생리가 끝나고 3, 4일 뒤 유방이 가장 부드러울 때가 자가 진단의 최적기다. 폐경이 된 여성은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해 실시한다.<br/><br/>거울 앞에 서서 유방의 전체적인 윤곽, 좌우 대칭 여부, 유두와 피부 함몰 여부를 살핀다. 양손을 머리 뒤쪽으로 올려 깍지를 껴 유방의 피부를 팽팽하게 한 뒤 피부 함몰 여부를 다시 한번 관찰한다.<br/><br/>왼손을 어깨 위로 올린 뒤 오른쪽 가운데 세 손가락의 끝을 모아 왼쪽 유방의 바깥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원형을 그리며 유두를 향해 천천히 들어오면서 만져보고 유두를 짜면서 분비물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겨드랑이에 멍울이 잡히는지도 살펴본다.<br/><br/>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검사하고 앉거나 누운 자세로 반복한다. 만약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있거나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고 비정상적인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94.txt

제목: [건강도약 2015 - 식습관을 바꾸세요](5) 건강한 식생활 5계명  
날짜: 20150501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01100000158  
본문: 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만성질환들은 대개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식생활이다.<br/>서울대 예방의학과 유근영 교수는 “<span class='quot0'>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원인에 노출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평생 동안의 생활습관과 환경에 따라 그 명암이 갈리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조기 진단과 치료 중심에서 예방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 여가활동을 통해 질병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여보자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1990년대부터 이 같은 예방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br/>암을 예로 들어보자. 치료법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조기 진단에 의해 생존율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매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난다. 환자 발생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정책이 예방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이유이다.<br/>하지만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정책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좋은 줄은 알지만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정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란 우리나라 실정상 어려운 측면이 많다.<br/>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좋은 식습관을 실천하라고 강조한다. 우선 식습관을 개선하면 만성질환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금연과 절주, 예방접종, 운동 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까지 실천한다면 금상첨화다.<br/>세계적인 암 예방의학자인 유근영 교수는 평소 식생활에서 아래의 다섯 가지를 실천하면 “<span class='quot1'>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은 물론 질병 상태를 개선하며,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1) 국물류 줄이기<br/>한국인의 밥상에는 국이나 찌개가 단골로 오른다. 국물이 없으면 밥을 못 먹겠다는 사람도 상당하다. 그러나 지나친 국물류 섭취는 건강에 이롭지 않다. 해로운 측면이 더 많다. 국물에는 나트륨과 지방, 당분은 물론 각종 화학조미료가 다량 들어 있다. 이들이 질병을 유발하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을 위해 ‘국 없는 날’까지 만들어 국물류 저감에 나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식사에서 매끼 국물 한 컵(200㎖)을 덜 마시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싱겁게 먹기 실천연구회’ 김성권 이사(서울K내과 원장)는 “<span class='quot2'>국물은 나트륨 과다 섭취의 주요 원인</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고혈압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골다공증, 위암, 비만의 위험성도 높아진다</span>”고 경고했다.<br/>(2) 합성첨가물 피하기<br/>식품의 맛을 내거나 보존하는 데 들어가는 합성감미료(화학조미료)는 예나 지금이나 위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많은 전문의와 식생활 전문가들은 이러한 화학 첨가물의 과잉 섭취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정과 외식업소에서 식품을 조리할 때 합성 감미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 시중에서 팔리는 가공식품도 문제다. 성분표를 보면 합성착향료, 아질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 카라멜 색소 등 알기 어려운 성분이 즐비하다. 방부제, 안정제, 감미료, 향료, 염료 등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는 대량 유통되는 식품을 경제적으로 만들기가 어렵다. 결국 가공식품, 특히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줄이는 것이 화학조미료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이다.<br/>(3) 채소·과일 즐겨먹기<br/>한국영양학회가 권장하는 하루 채소·과일 섭취량은 성인 남성(19~65세) 기준으로 채소 490g, 과일 300g이다. 그런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이행신 수석연구원과 숙명여대 성미경 교수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표본집단의 6.7%만이 권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왔다. 최근 열린 한·중 국제 파이토뉴트리언트 심포지엄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채소 섭취량은 252.2g이지만 약 40%는 김치를 통해 섭취한다. 염장 채소와 가당주스를 제외할 경우 채소와 과일의 섭취량은 각각 151.4g과 141.0g에 불과하다. 염장 채소나 가당주스에는 나트륨·설탕이 많이 들어 있어 영양학적으로 채소·과일 섭취방안으로 권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br/>(4) 야식·군것질 안하기<br/>야식과 군것질은 비만과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된다. 영양분이 과잉된 상태에서 잠이 들면 몸은 남는 칼로리의 상당 부분을 지방으로 바꾸어 복부에 저장한다. 4고 식품(고열량·고지방·고당분·고염분)을 야식이나 간식으로 자주 섭취하면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식사 할 때 입맛 자체를 떨어뜨려 규칙적이고 균형된 식생활을 저해한다.<br/>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 정혜경 교수는 “<span class='quot3'>야식은 밤 늦은 시간에 먹는 음식이 아니라 잠들기 3시간 전에 먹는 음식</span>”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4'>너무 배가 고파 잠을 못 이룰 정도라면 우유나 두부, 토마토, 채소 같은 담백한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는 입장이다.<br/>(5) 탄 음식 먹지 않기<br/>고기를 굽다보면 태우기 십상이다. 고기가 아까워 그냥 먹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탄 음식은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고기·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이 불에 타면 발암물질(벤조피렌)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 부분은 아깝고 귀찮더라도 반드시 잘라내야 한다.<br/>밥이나 채소도 탄 것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또 보존 상태가 불량한 음식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한 음식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온상이다. 구매한 식품은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지 말고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먹는다. 인제대 의대 강재헌 교수는 “<span class='quot5'>금연, 절주와 금주, 짜고 맵게 안 먹기, 야식·간식 안 하기, 매일 아침 먹기 등 식생활 건강의 요체를 실천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시리즈 끝>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95.txt

제목: 광주 대인시장 ‘천원 밥상’, 김선자 할머니가 떠난 그 후  
날짜: 2015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01100000096  
본문: 1,000원. 든든하게 밥 한 끼 먹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다. 광주 대인시장 ‘해 뜨는 식당’의 ‘천원 밥상’. 이 식당을 운영해오며 김선자 할머니가 받은 1,000원은 상처받을지 모르는 그들의 속내까지 생각한 깊은 배려였다. 김 할머니의 밥 한 공기는 그 이상의 따뜻한 온기로 이웃들에게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3월, 할머니는 대장암 투병 중 향년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제 할머니의 온기를 이어받은 이들이 ‘천원 밥상’을 지키고 있다.<br/><br/>더없이 따뜻한 밥 한 공기<br/>광주광역시 동구 대인시장에 자리한 김선자 할머니 식당의 정식 이름은 ‘천원 밥상’이 아닌 ‘해 뜨는 식당’이었다. 1,000원이면 밥 한 공기와 소박한 반찬으로 어려운 이들의 빈속을 채워준 김 할머니의 미담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자연스레 식당 이름은 ‘천원 밥상’이 됐다. 김 할머니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시장에서 1식 3찬과 된장국이 나오는 백반을 1,000원에 팔아왔다. 이 밥상은 주로 시장에 채소를 팔러 온 노점상 할머니나 끼니를 거르기 쉬운 독거노인들을 위해 차려졌다. 할머니는 한 달 평균 100만~200만원의 적자를 봤지만 그만두지 않았다. 자신도 어려웠던 시절, 남들에게 받은 도움을 여생을 통해 베풀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br/><br/>“내가 실패했을 때 누구한테 쌀 없다는 말을 못해서 굶어보기도 했거든요. 아,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자존심 상해서 밥 한 끼를 못 먹는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시작한 거예요.” (SBS-TV ‘궁금한 이야기 Y’ 중에서)<br/><br/>손님들에게 받는 1,000원의 온기 어린 의미도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준다. 비록 어려운 처지이지만 밥을 얻어먹는다는 자괴감을 갖지 말고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 할머니의 배려였다. 그렇게 이웃에게 행복을 전해주던 김 할머니가 지난 2012년 5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말았다. 그 탓에 할머니의 ‘천원 밥상’도 잠시 중단의 위기에 놓였다. 식당을 자주 찾던 노인이나 어려운 이들도 갈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대인시장의 상인들과 기업, 시민들이 나서기 시작했고, 가게는 다시 문을 열 수 있었다. 할머니 역시 예전의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암 수술을 받은 뒤 매일 식당에 나와 오는 이들의 손을 잡고 반가운 미소를 건넸다. 그러나 2년 뒤 김 할머니는 “식당을 계속 운영해주길 바란다”라는 유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br/><br/>할머니는 떠났지만…<br/>금요일 오후 2시. 점심시간은 조금 지난 때였지만 꽉 찬 손님들로 식당은 활기가 넘쳐흘렀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이들은 주로 식당이 문을 막 여는 오전 시간에 찾는 경우가 많았고, 점심시간이 지난 뒤에는 유명세를 찾아, 혹은 후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는 발길들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다. 이곳에서는 식사를 한 다음에 자율 계산대에 놓인 통에 알아서 식사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취재차 왔지만 김 할머니의 나눔이 담겨 있는 밥 한 공기를 꼭 먹어보고 싶었다. 깔끔하고 깊은 맛의 된장국, 김치를 포함한 3가지 나물반찬 그리고 윤기 나는 흰쌀밥. 가장 인상적인 것은 단연 차지고 맛있는 쌀밥이었다. 보통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입 안에서 겉도는 찐쌀의 느낌이 아니었다. 집에서 먹는 가정식 백반 그대로였다. 식당을 대신 맡아 운영 중인 홍정희 대인시장 상인회 회장의 대답으로 이유를 쉽게 알았다.<br/><br/>“쌀이 좋은 건 당연해요. 특히 쌀을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곳에 보내주시는 쌀은 주문하실 때 신경 써서 품질 좋은 쌀을 보내달라고 하신대요. 그러니 쌀이 좋지 않을 수 없죠.”<br/><br/>밥 한 그릇을 비울 때쯤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광주 지역 대학생 4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 단체의 남녀 대학생 둘이 쌀 한 포대를 들고 들어왔다. 벌써 두 번째 방문이라고 한다.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나눔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br/><br/>“고마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는 고가의 비용이 드는 식당의 시설 부분을 봐주시고, 겨울에는 꾸준히 난방 연료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식당을 찾는 분들이 따뜻하게 한 끼 드실 수 있었고요. 또 2013년부터 매월 빼놓지 않고 쌀을 두세 포대씩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김설희씨라고, 이름도 예쁘시죠? ‘천원 밥상’ 덕분에 그런 분들을 만나고 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에요.”<br/><br/>‘홍 회장은 일정 금액의 후원금이 들어오거나 물품을 기증받았을 때는 날짜, 기부자 이름, 받은 물품명 등 모든 사항을 기록해놓는다(기증품 전달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7-1 대인시장 천원 식당). 그녀는 2003년부터 김 할머니와 친분을 쌓았고, 할머니가 암 투명을 시작한 2012년부터 실질적으로 ‘천원 밥상’을 맡았다.<br/><br/>김선자 할머니의 뜻으로, 끝까지<br/>김선자 할머니의 마지막 길. 홍 회장이 그 자리를 지켰지만 할머니가 그리 허망하게 세상을 뜨실 줄 몰랐다고 회상했다.<br/><br/>“병상에 누워계셨어도 ‘금방 나아서 식당에 나오겠다’라고 하셨어요. 저랑 장난도 치시고 표정이 정말 밝으셨거든요. 하늘나라에 가게 되더라도 배고파서 밥 굶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하시더니, 그렇게 이틀 만에 떠나시더라고요.”<br/><br/>김 할머니는 투병 중에도 식당에 매일 출근했다. 항암치료로 입 안이 다 헐어 음식을 먹지 못할 때도 이곳의 된장국은 맛있게 드셨단다. 그렇게 조금씩 웃음을 되찾는 김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br/><br/>“할머니가 정말 아프다고 한 것이 마지막 1개월 반 정도였어요. 그리고 끝까지 걱정했던 한 가지는, 당신이 식당을 운영하며 낸 적자 때문에 생긴 남에게 갚지 못한 빚이었죠. 다행히 할머니의 자녀분들이 다 해결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떠나셨어요. 장례식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할머니의 뜻을 기리며 슬퍼했죠.”<br/><br/>홍 회장은 많은 사람들의 애도를 받으며 떠나는 김 할머니를 보면서 진정한 부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그녀는 현재 3명의 시장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br/><br/>“저를 포함해 네 분이 도와주고 계세요. 백정자, 홍순자, 박연옥씨입니다. 모두 시장에서 각자 장사를 하시며 상인회 임원도 맡고 있죠. 저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특히 식당 앞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백정자씨는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고양이가 생선을 훔쳐가는 바람에 손해가 막심해요(웃음). 대인시장 사람들은 정겹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br/><br/>앞으로 만약 후원이 좀 준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천원 밥상’을 이끌어가겠다는 약속은 비단 김 할머니와의 약속이 아닌,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br/>“현재는 ‘이 정도라면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기분 좋은 적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후원이 줄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제 마음이 있는 곳에 이웃의 마음이 함께할 것이고, 부족하다면 하늘에서 채워주는 몫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저 저에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준 김 할머니에게 감사할 따름이죠.”<br/><br/>생전에는 사람들에게 괜한 오해를 받기도 했던 김 할머니였다.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본 홍 회장은 할머니의 뜻을 이어나갈 적임자다.<br/><br/>“할머니가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몇 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아 빌딩을 샀다고 떠들기도 했고요. 할머니는 늘 ‘개의치 말자. 억울한 것은 밝혀질 테니 지금은 묻어두자’ 라고 하셨어요.”<br/><br/>홍 회장 역시 수많은 오해, 경제적 부담감 모두 견딜 수 있다고 다짐한다. 식당 문을 열기도 전에 비척비척 넘어질 듯한 걸음으로 가깝지 않았을 거리를 걸어왔을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힘이 절로 난다.<br/><br/>“식당에 오셔서 두 그릇이나 밥을 비우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가 조금 노력해서 그분들이 든든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br/><br/>김선자 할머니의 뜻을 기리는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천원 밥상’은 오늘도 변함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고 있다.<br/><br/>1·3 취재 도중에도 도움의 손길은 끊이지 않았다. 광주 대학생 연합 봉사단체 ‘착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쌀을 기증해왔다. 2 김선자 할머니는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의 사랑과 온기는 여전히 식당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 4 식사비는 100% 자율적으로 지불하는데, 투명한 요금통에 돈을 넣는 방식이다. 5 천원 밥상에는 쌀밥과 된장국, 3가지의 나물 그리고 어르신의 단백질 보충을 고려한 생선 1가지가 늘 준비돼 있다.<br/><br/>홍정희(대인시장 상인회 회장)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96.txt

제목: 대한내분비학회 국제학술대회 개막, 당뇨병, 갑상선암 등 최신 연구결과 발표  
날짜: 2015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0110017162724  
본문: 대한내분비학회(이사장 송영기)가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SICEM)가 30일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막(사진), 오는 3일까지 4일간의 학술 일정을 진행한다.<br/><br/>이번 학술대회에는 전 세계 28개국에서 1000명 이상의 내분비 관련 의료진 및 과학자 등이 참가했다. 당뇨, 갑상선, 골대사, 신경내분비, 부신, 소아내분비 등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가 소개된다.<br/><br/><br/><br/>미국 조엘 K. 에름퀴스트 교수(사우스웨스터른 메디컬센터)와 앨빈 C. 포워스 교수(밴더빌트대 의대 내과학교실), 그리고 밍자오싱 교수(존슨홉킨스대 의대 내과학교실) 등 세계적 석학들이 기조강연을 통해 ‘에너지 균형과 당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 경로에 관한 연구’, ‘췌장의 랑게스한스섬 세포 : 제1형과 제2형 당뇨에서의 역할’, “갑상선 암의 분자생물학적 발생기전 : 임상적 해석’ 등을 발표한다.<br/><br/>송영기 이사장(서울아산병원)은 “SICEM은 아시아권 내의 학술적 위상제고와 함께 해외 내분비학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증진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 학술행사”라며 “아시아권 국가와의 국제 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간의 조인트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br/><br/>이번에는 국제협력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중국, 대만을 비롯하여 동남아 5개 국가(인도네이사,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태국)의 내분비학회 회장단을 초청한 세션을 준비해 큰 관심을 모았다. 안철우 학술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는 “사전등록의 30%가 해외 참가자였고 전체 제출 논문의 약 40%가 해외초록이었다”면서 “내분비질환 분야의 국내외 권위자들을 대거 초청해 풍부한 학술발표와 토론의 장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 이사는 취재를 위해 참석한 기자들과 70여개 전시부스를 돌며 최신 치료제와 주요 장비들에 대한 현장 해설을 하기도 했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97.txt

제목: 양희은 “제 목소리가 얼마나 큰 선물이고 축복인지 감사할 따름”  
날짜: 2015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501100000017  
본문: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으로 시작하는 노래를 우리네 아버지들이 불렀고 이웃집 선배들이 불렀다. 우리는 그녀의 음악으로 청춘의 성장통을 견뎌냈고 지난한 삶을 위로받았다. 돌아보니 양희은의 음악은 결코 나이 들지 않았다. 다만 깊이 여물어왔을 뿐이다.<br/><br/>17년 만의 소극장 나들이<br/>2015년은 그녀가 데뷔한 지 45주년이 되는 해다. 청바지 차림에 통기타를 멘 수수했던 여대생은 어느덧 예순 고개를 한참이나 지났다. 동시에 이름 석 자만으로도 충분한 수식어가 되는 한국 대중음악의 히로인이 된 양희은. 스스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노래 잘하는 방송인’으로 아는 것 같아 걱정이라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수 양희은을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여전히 발매한 음반은 음원 차트 순위권을 다투고, 매년 쉬지 않고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 그녀다. 그동안 주로 대규모 콘서트홀에서 노래하던 그녀가 올해 5월에는 200석 규모의 소극장에서 ‘양희은의 아담한 콘서트’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br/><br/>“소극장 공연은 모든 가수들의 꿈일 거예요. 서로의 숨소리도 들리고 표정도 보이고, 관객들과 긴밀하잖아요. 대극장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기분이죠. 5년 전부터 회사에 소극장 공연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왔어요. 이제야 실현 가능해졌지만(웃음).”<br/><br/>1970, 80년대를 풍미했던 ‘아침 이슬’이나 ‘하얀 목련’, ‘한계령’ 등이 부모님 세대의 음악이었다면, 그 자식 세대는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나 ‘내 나이 마흔 살에는’을 들으며 청춘을 보냈다. 공연장에 오는 관객들 중 유독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오는 자녀들이 많은 것은 그녀의 음악이 세대를 관통한다는 뜻이 아닐까. 느끼는 감상은 다르지만 그들은 노래로 하나가 돼 울고 웃는다.<br/><br/>“노래 들으며 객석에서 우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럴 때면 제가 무슨 ‘엘레지의 여왕’이 된 기분이라니까요(웃음). 아마 음악이 각자의 사연을 통과하기 때문일 거예요. 실제 제 이야기를 담은 ‘아버지’라는 노래를 부를 때면 저도 매번 목이 메거든요. 듣는 누군가도 본인의 아버지가 떠오르겠죠. 게다가 저희 아버지처럼 한눈도 팔고, 사고 좀 치신 분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고요.”<br/><br/>언젠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아버지’를 듣고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있다. 서른아홉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녀 나이 마흔이 돼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는 내용의 사부곡. ‘험한 세상에 어떤 남자가 당신만큼 날 사랑해줄까’라는 노랫말에는 절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br/><br/>“이북에서 혼자 남쪽으로 내려와 갖은 고생을 하고 일가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 집의 첫아이가 저였으니, 쏟아부어주신 사랑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을까요. 유복했던 시절에 태어나 어린 날 많이 누리고 살았어요. 덕분에 나이가 들어도 명품 가방 같은 데 별 관심이 없을 정도예요. 그림이나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분이셔서 지금의 제 감성과 취향이 형성되는 데도 큰 영향을 받았죠.”<br/><br/>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후배 가수인 유희열이 ‘국보급 문화재’라고 극찬한 그녀의 목소리는 어머니의 것을 꼭 빼닮았다. 젊은 시절에는 동생 양희경과 자신, 어머니까지 셋의 목소리가 거의 비슷해 집으로 전화를 거는 사람들마다 헷갈려 할 정도였다고.<br/><br/>“목소리는 엄마 것 그대로예요. 잘 타고났다고 해야 하나. 어렸을 때는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어요. 목청 하나는 자신 있었건만, 5년 전쯤 성대 결절이 심하게 와서 목소리를 잃을 뻔했어요. 석 달 동안은 일상 대화도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그때 뼈저리게 느꼈죠. 제 목소리가 얼마나 큰 선물이고 축복인지. 그리고 음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br/><br/>그녀는 목 관리를 위해 잠들 때도, 한여름에도 스카프를 두른다. 소금물을 코로 삼켜서 입으로 뱉는 ‘소금물 양치’ 또한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45년 차 가수의 일과는 작은 탄성이 절로 나올 만큼 혹독하지만, 자신에게는 일상이 된 일들이다.<br/><br/>삶의 또 다른 즐거움, 라디오<br/>시계의 시침이 정확하게 오전 9시를 가리키고, 귀에 익은 시그널 음악이 끝나면 라디오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16년째 MBC 표준 FM ‘여성시대’의 DJ를 맡고 있는 양희은은 4명의 파트너가 바뀌는 동안에도 독야청청 라디오 부스를 지켜온 안방마님이다. 누군가는 출근길에, 누군가는 남편 출근 준비와 아이 등교로 전쟁 같은 아침 시간을 보내고 한숨 돌리는 그 시간에 각자의 모습대로 그녀를 만난다.<br/><br/>“라디오는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중 하나예요. 또 다른 인생의 즐거움이고요. 첫 라디오는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사주신 소니 트랜지스터 라디오였어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팝송을 들으며 음악에 눈을 떴죠. 라디오가 좋아서 한때 프로듀서를 꿈꾼 적도 있어요. 당시 신방과 시험을 쳤다가 낙방하는 바람에 그 꿈은 접어뒀죠(웃음).”<br/><br/>1971년 5월에 데뷔한 그녀는 그해 가을부터 DJ로 처음 자신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결혼 후 미국에서 생활했던 7년,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1년 반, 암 수술을 받았던 3개월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청취자를 만났다. 무려 35년이라는 세월을 DJ로 살아온 것이다.<br/><br/>“저는 웬만하면 생방송으로 사연을 소개해요. 물론 사정상 녹음 방송을 할 때도 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DJ 생활이 완전히 몸에 배서 미국에서 살 때는 슈퍼마켓에서 장 보다가도 라디오 할 시간만 되면 화들짝 놀라곤 했어요. 방송 늦어서 어떡하냐면서(웃음).”<br/><br/>‘여성시대’에는 전국 방방곡곡 여자들의 속 깊은 사연들이 등장한다. 말 못할 비밀부터 시댁 식구, 아이 진로 걱정까지. 주부들은 큰언니 같은 그녀에게 마음을 열고 여러 넋두리를 늘어놓는다.<br/><br/>“재미있는 사연도 많지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도 있어요. 슬픈 사연을 읽다 보면 목이 메다 못해 아릴 정도로 눈물을 참아내죠. 그마저 안 될 땐 꺼이꺼이 목 놓아 운 적도 있어요. 방송국에 그런 아픈 사연을 보내는 청취자들은 정말 아무 데도 털어놓을 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죽 힘들었으면 그럴까. 어떻게 사는 게 이럴까,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br/>매 맞는 아내의 사연을 읽은 날은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 ‘내 일도 아닌 걸’ 하고 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아서 때로는 타인의 아픔이 가시가 돼 자신을 찌를 때도 있었다.<br/><br/>“처음에는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었어요. 방송 끝나면 잊어버려야 하는데, 성격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라면 어땠을까. 매를 맞느니 굶어 죽더라도 뛰쳐나왔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봐요. 그때가 한창 갱년기였는데, 저까지 같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새벽 일찍 방송국에 가서 한강 둔치를 걸으며 방송 전에 마음을 다스려요. 바람 쐬고 들어가면 좀 괜찮아지니까.”<br/><br/>그래도 ‘여성시대’ 덕분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그녀는 꽤나 자주 지금껏 자신을 키운 8할이 청취자들의 사연이라고 말했다.<br/><br/>“방송국으로 오는 수많은 사연처럼 삶은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해요. 참 각양각색이죠. 인생이란 살아볼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다가도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도 들고. 하지만 라디오 덕분에 세상을 보는 시야나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여유로워진 건 분명해요.”<br/><br/>자택이 있는 일산에서 여의도에 위치한 방송국을 가기 위해 매일 아침 6시 30분에 현관문을 나섰지만, MBC가 상암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부터는 출근 시간이 1시간 정도 여유로워졌다. 덕분에 16년 만에 남편과 오붓한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고.<br/><br/>“남편이랑 자그마치 16년 만에 아침 식사를 같이하는 요즘이에요. 예전에는 아침에 눈 떠서 ‘갔다 올게!’ 하고 뛰쳐나가기 바빴는데, 1시간의 여유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덕분에 대단히 행복하답니다(웃음).”<br/><br/>인생 후배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br/>그녀는 서른다섯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이후 가수 양희은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7년을 보냈다. 정신없이 사느라 추억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양희은의 서른 그리고 마흔은 어떤 모습이었을까.<br/><br/>“30대는 인생에서 가장 예쁠 나이잖아요. 커리어를 완성하고, 가정을 만들고, 엄마가 돼 생명을 품는 때죠. 그렇지만 제 30대는 굴곡졌어요. 서른하나에 난소암 판정을 받아 석 달 시한부 인생을 살았고, 건강을 되찾은 줄 알았던 서른아홉에 다시 한번 큰 수술을 받았죠. 마흔이 넘어 한국에 돌아와서는 적응하며 사느라 바빴고요.”<br/><br/>숱한 고비들을 넘기고 40대 중반이 훌쩍 넘어서야 그녀는 노래가 자신의 운명이란 걸 깨달았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공연을 하고 관객들을 만났다. 그 순간이 곧 행복이었고 비로소 음악이 각별하게 느껴졌다.<br/><br/>“저의 30대도 그렇고, 우리 세대의 젊은 날은 좀 어설펐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랴, 남편 챙기랴, 자식 뒷바라지하랴 등등. 지금은 예전보다 좀 더 자유로워졌기 때문일까요? 요즘 30, 40대는 예전보다 훨씬 지혜롭고 뭐든 빨리 하더라고요. 그 모습 자체로도 빛이 나요. 스스로가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인생의 행복은 무엇인지 깊이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술이 익듯 인생도 맛 좋게 익어가는 거죠.”<br/><br/>예순이 넘어서도 양희은이라는 브랜드는 견고하다. 음악을 통해 세상을 살면서 깨닫는 성찰을 이야기해왔던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 노래하는 일을 쉬지 않을 거라고 했다.<br/><br/>“계속 일해야죠. 그 노하우가 얼만데요. 45년의 노하우는 아무도 흉내 낼 수 없어요. 젊었을 때는 몸이 가벼우니까 날아다니죠.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만 못하지만 대신 연륜과 지혜가 생기죠. 이걸 왜 가만 놔둬요, 아깝게!(웃음)”<br/>친한 후배들을 만나 대화하는 시간이 요즘 그녀의 낙이다. 인생 선배로서 따끔한 충고도 애정 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개그우먼 이성미를 필두로 박미선, 송은이 같은 ‘일산 패밀리’와 친분이 두텁다. 그들과의 우정은 나이보다 젊게 사는 비결이기도 하다.<br/><br/>“후배들과 모여서 마음껏 웃고 즐겨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개그 분야의 후배들에게 더 정감이 가요. 의리 있고 예의 바르거든요. 아이들과 왁자지껄 떠들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한층 젊어지는 것 같아요. 다들 일산에 살아서 쉬는 날이면 서로의 집에 오가며 절친하게 지내고 있죠.”<br/><br/>음반 작업과 공연, 라디오까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 양희은의 건강 관리법은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 젊은 시절 큰 병을 앓고 치료하는 동안 음식에 대한 절절함을 알게 됐다.<br/><br/>“‘네가 먹는 음식이 곧 너다’라는 말이 있어요. 되도록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드세요.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때우지 말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투병 생활하는 동안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남편이 아픈 뒤로는 제가 항상 도시락을 싸줬고요. 질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건강해지는 첫 번째 비법이에요.”<br/><br/>날이 따뜻해진 최근에는 집 근처 공원을 자주 걷는다. 꽃이 만개한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고. 걸음을 내딛으며 그녀는 인생의 다음 걸음을 생각한다.<br/><br/>“음악을 언제까지 해야겠다는 거창한 장기 계획은 없어요. 다만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순간을 즐기며 매달, 매년의 계획을 세워갈 뿐이죠. 요즘은 젊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하는 일이 즐거워요. 디지털 싱글들이 모이면 지난해 발매했던 「양희은 2014」처럼 정규 앨범을 낼 생각이에요. 올 해는 공연을 통해 많은 분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싶어요.”<br/><br/>살다 보면 봉우리도 있고 계곡도 있다. 앞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양희은이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음악 하는 사람의 아픔은 노래의 울림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가수가 겪은 아픔은 거름이 되고 노래는 그 위에 찬란한 꽃을 피워낸다. 대학 시절부터 양희은의 음악을 플레이 리스트에서 빼놓은 적 없던 기자는 인터뷰 말미, 앞으로도 계속 노래해달라는 말을 전했다. 그녀가 고개를 경쾌하게 끄덕이고는 씽긋 웃어 보였다. 오래도록, 고맙도록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98.txt

제목: 북한산 마취제를 ‘만병통치약’으로 판 일당 검거  
날짜: 201504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3010017150694  
본문: 북한산 마취제를 다량 밀반입한 몽골인과 종교인, 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무면허 의료업자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br/><br/>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ㅇ씨(34·여) 등 몽골인 5명과 교회 목사 박모씨(57), 무면허 의료업자 우모씨(76) 등 15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br/><br/>ㅇ씨 등 몽골인 5명과 박씨 등 내국인 7명은 지난 1월5일부터 4월17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북한산 마취제 ‘금당-2호’ 6000여개를 밀반입해 우씨 등에게 팔아 6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r/><br/>몽골인 가운데는 ㅇ씨의 어머니와 남동생, 치과의사, 건축사 등이 포함됐다. 내국인 7명은 선교 활동 등을 위해 몽골에 자주 드나드는 목사 2명, 선교사 3명, 관광가이드, 무직자 등이다.<br/><br/>‘금당-2호’는 수술할 때 쓰는 국소 마취제인 ‘프로카인’이 주성분으로 이를 함부로 사용하면 쇼크, 중추신경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br/><br/>무면허 의료업자 우씨 등 3명은 암환자 등 250여 명에게 “금당-2호가 개성인삼 추출액과 백금으로 만든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개당 1만원에 투약하고 다른 무허가 주사제를 투약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br/><br/>우씨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벤츠 등 고급 승용차 2대를 굴리고 수시로 해외 골프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br/><br/><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899.txt

제목: 갑상선암 명의가 말하는 “갑상선암” 조기진단 중요성  
날짜: 201504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2810017112645  
본문: 매년 3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암예방의 날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8~2012년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 2.5명이 암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또한 남녀 전체 주요 암의 연평균 증가율 순위는 갑상선암이 22.6%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전립선암 12.7%, 유방암 5.8%, 대장암 5.2%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이 통계에 따르면 갑상선암은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반면, 5년 상대생존율이 100.1%로 가장 높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받으면 완치율이 크게 올라간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평소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갑상선 암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br/><br/>28일 은평연세병원 갑상선전문센터에 따르면 갑상선암진단은 초음파촬영이나 세침흡입 세포검사, 총 조직검사 등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치료법은 외과적 수술이 가장 확실하지만 갑상선 주변에 동맥과 정맥, 신경 등 중요 조직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정밀한 수술이 필수적이다.<br/><br/>서진학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갑상선암은 대부분 증상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목에 가래가 낀 듯한 이물감이 들거나 극심한 피로, 전신근육통이 나타나기도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갑상선암은 진행 속도가 느리고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착한암’으로 불리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뼈나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밝혔다.<br/><br/>서진학 원장은&nbsp;이어 “<span class='quot1'>최신 수술기법인 최소침습 갑상선암 수술은 흉터에 대한 부담이 없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르지만 외과 전문의에게도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므로, 수술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의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br/>은평연세병원은 종합병원 수준의 최첨단 의료장비와 의료진을 갖추고 있어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갑상선암 진단과 치료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갑상선전문센터를 산하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질환중심에서 환자중심의 평생주치의 개념을 도입하고, 종합검진센터를 통해 지역 거점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00.txt

제목: [TV 하이라이트]2015년 4월 28일  
날짜: 201504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2710017109307  
본문: <b>강균성의 등장에 심형탁 ‘두근’<br/>◆ 썸남썸녀</b>(SBS 오후 11시15분) = 채정안, 서인영, 이수경, 심형탁, 강균성 등 솔로 남녀 스타 10명이 동고동락하며 진정한 사랑 찾기에 나선다. 시끌벅적한 첫 만남에서 강균성이 등장하자 심형탁은 연신 팬이라며 호감을 드러낸다. 또한 서인영은 도라에몽 책가방을 든 심형탁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에 심형탁은 서인영에게 전원일기 느낌이 나는 옛날 아이돌 같다고 응수한다.<br/><br/><b>귀농 부부의 주왕산 산중일기<br/>◆ 한국기행</b>(EBS 오후 9시30분) = 주왕산 자락에 살게 된 사람들의 산중일기를 전한다. 이원식씨는 17년 전 암 수술 후 건강을 되찾기 위해 아내 신미숙씨와 함께 주왕산으로 귀농했다. 미숙씨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선인장과 식물인 천년초를 심었다. 미숙씨는 천년초를 일교차가 큰 주왕산에서 동해 해풍의 도움을 받아 키워낸다. 부부는 3년이 지나야 딸 수 있다는 붉은 천년초를 뜯어 삼계탕을 끓인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01.txt

제목: [건강도약 2015 - 식습관을 바꾸세요](4)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자  
날짜: 20150424  
기자: 박효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24100000101  
본문: ▲ 지난해 국내 가공식품 43조1980억원어치 판매… 인스턴트 식품 생산 늘어<br/>당뇨 등 생활습관병부터 암·골다공증까지 위험<br/>성장기 아동·청소년들 잦은 섭취 주의해야<br/>ㄱ마트의 식품 판매 코너. 이곳에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각종 인스턴트 식품이 넘쳐난다. 30여개 품목의 라면·쫄면류와 만두 113가지, 냉동간식 202가지, 튀김류 113가지, 냉장간식 162가지, 햄·김밥재료·어묵 196가지, 냉장면류 135가지….<br/>우리 국민의 식생활이 얼마나 많은 인스턴트 식품에 노출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현장이다. 굳이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닭튀김)를 인스턴트 식품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인스턴트 식품의 홍수 속에서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br/>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3년 국내에서 판매된 가공식품은 총 43조1980억원어치에 달한다. 2006년 26조934억원보다 크게 늘어났다. 빵·떡류 2조114억원, 면류 2조4779억원, 조미식품 2조5764억원, 음료수 2조60억원 등 인스턴트 식품이 상당수를 차지한다.<br/><br/>인스턴트는 보통 조리가 쉽고 저장이나 보존도 간단하며, 수송·휴대가 편리한 식품을 뜻한다. 일명 즉석식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석면류나 통조림, 레토르트(멸균밀봉)·냉동·건조식품이 대표적이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공식품 모두가 인스턴트 식품은 아니다. 예를 들어 라면은 인스턴트 식품이지만 국수는 일반 가공식품으로 분류한다.<br/>인스턴트 식품은 편리함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ㄱ마트의 즉석 비빔생쫄면 4인분은 6900원이다. 3분짜장(200g) 값은 990원에 불과하다. 한 끼 식사를 1000~2000원 정도에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br/>하지만 인스턴트 식품은 과잉 섭취할 경우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다. 탄수화물(당류 포함)과 지방(포화지방 포함)의 함량이 높은 데다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br/>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고열량 고탄수화물(당류 포함) 식품과 고지방 인스턴트 식품은 균형 잡힌 식생활 습관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어릴 때부터 인스턴트 식품에 입맛이 길들여지면 평생 인스턴트 식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br/>식약처는 고열량·저영양 인스턴트 식품을 학교 매점이나 식당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오후 5~7시에는 TV 광고를 하지 못한다. 또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에서도 판매가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인스턴트 식품이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인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br/>식약처 식생활안전과 구용의 연구관은 “학령기 아동은 인스턴트 식품을 구별해 선택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적극적인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br/>고열량·저영양 제품의 분류 기준은 뭔가. 간식용 식품의 경우 1회 제공량(한 번 먹기에 적당한 양) 기준으로 칼로리 250㎉ 이상(단백질 2g 미만), 포화지방 4g 이상(단백질 2g 미만), 당류 17g 이상(단백질 2g 미만)인 식품이 해당된다.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돼도 규제 대상이다. 당류 27g에 단백질 0g인 한 콜라 제품이 대표적이다.<br/>식사대용 식품은 1회 제공량당 칼로리가 500㎉ 초과(단백질 9g 미만 혹은 나트륨 600㎎ 초과할 경우), 포화지방 4g 초과(단백질 9g 미만)에 각각 해당하는 식품이다. 열량 515㎉에 나트륨 1750㎎, 단백질 8g인 한 컵라면은 두루두루 여기에 해당된다.또 카페인이 기준치(㎖당 0.15㎎ 이상)보다 많은 어린이 기호식품도 역시 같은 범주로 규제한다. 식약처가 만든 스마트폰 앱 ‘New-고열량·저영양 알림e’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알 수 있다.<br/>서울백병원 강재헌 교수(가정의학과)는 “<span class='quot1'>인스턴트 식품은 고지방, 고열량, 고염분이 주된 특징</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당뇨병, 고혈압, 복부비만, 각종 암, 심혈관·뇌혈관 질환, 아토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span>”고 밝혔다.<br/>고지방·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비만과 고지혈은 물론 당뇨병, 심혈관·뇌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높은 염분은 고혈압과 심혈관·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암과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영양결핍과 대장암, 심혈관질환 등의 위험을 높인다.<br/>인스턴트 식품을 보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면을 끓인 뒤 기름이 뜬 물을 버리면 열량을 줄일 수 있다. 소시지 같은 것도 삶아 먹으면 지방과 나트륨이 많이 빠진다. 즉석면은 국물을 남기는 것이 현명하다. 통조림이나 레토르트·냉동·건조식품을 고를 때는 식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열량, 지방·나트륨 함량이 적고 유통기간과 트랜스지방, 식품첨가물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br/>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서구화된 음식은 대부분 지방·설탕이 많이 들어 있어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병을 유발할 뿐 아니라 질환을 치료하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면서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고 5대 영양소가 고루 포함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02.txt

제목: 작년 갑상샘암 수술 24% 줄었다  
날짜: 20150424  
기자: 최희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24100000155  
본문: 지난해 갑상샘암으로 수술받은 환자 수가 2013년보다 24% 급감했다. 지난해 의료계에서 촉발된 갑상샘암 과잉 진단·수술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span class='quot0'>갑상샘암 수술 환자가 2008년 2만4985명에서 2012년 4만4783명까지 80% 늘어오다가, 2013년 4만3157명으로 3.6% 줄며 증가세가 꺾였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지난해엔 전년보다 24.2% 감소한 3만2711명이 수술을 받았다</span>”고 밝혔다. 지난해 진단받은 사람은 30만2014명으로 2013년보다 7.5% 증가했지만 수술 환자는 되레 감소한 것이다.<br/>수술 환자가 급감한 것은 지난해 일부 의사들이 ‘갑상샘암 발생이 늘어난 것은 과잉 검진 탓’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갑상샘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고 진행이 느린 ‘거북이암’이라는 점도 수술 환자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소의영 대한갑상선학회장은 “<span class='quot1'>지난해 논란이 벌어진 영향으로 암 확진을 받고도 수술을 미루는 환자들이 많아졌다</span>”며 “<span class='quot1'>크기가 0.5㎝ 이하인 미세유두암은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다면 관찰하며 경과를 지켜볼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소 회장은 “<span class='quot1'>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로, 수술 범위가 커지고 방사성요오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미국·유럽에선 갑상샘암으로 진단되면 수술을 하도록 권고한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03.txt

제목: 식이요법으로 암극복했다던 호주 블로거 거짓말 시인  
날짜: 201504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2310017063136  
본문: 10대 때 걸린 뇌종양을 병원 치료 없이 극복했다는 이야기로 화제를 모았던 호주의 한 유명블로거가 자신의 거짓을 시인했다.<br/><br/>호주 주간지 ‘주간여성(Womnen’s Weekly)‘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암극복기로 화제를 모았다 잠적한 벨 깁슨(26)의 독점 인터뷰를 공개했다. <br/><br/>잡지는 “벨 깁슨이 인터뷰에서 자신이 사람들을 속인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잡지는 “깁슨은 자신이 병에 걸린 사실이 없다고 시인했다”며 “그녀는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br/><br/>벨 깁슨은 암극복기로 유명세를 탔다. 17살 때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은 그녀는 간암과 자궁암까지 걸리면서 병원에서 시한부 4개월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br/><br/>그녀의 투병기가 관심을 모은 것은 고통스러운 항암치료를 받지 않고 식단 조절로 암을 이겨냈다는 것이었다.<br/><br/>깁슨은 ‘홀 펜트리(The Whole Pantry)’라는 자신의 블로거에 식이요법과 식단을 공개했고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br/><br/>스타가 된 깁슨은 자신의 식단정보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고 펭귄북스를 통해 책 출판계약까지 맺었다.<br/><br/>승승장구하던 깁슨의 사기 행각은 시민단체에 꼬리를 밟혔다. <br/><br/>깁슨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며 30만달러를 모금했지만 실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r/><br/>깁슨의 주변에서도 그녀가 암에 걸린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의혹이 일자 병원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지만 깁슨은 답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br/><br/>애플은 깁슨의 어플을 삭제했고, 출판사도 출판계약을 취소했다.<br/><br/><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04.txt

제목: 작년 갑상샘암 수술 24% 줄었다  
날짜: 201504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2310017073941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과잉검진 논란 영향인 듯</strong><!-- SUB\_TITLE\_END--><br/><br/>지난해 갑상샘암으로 수술받은 환자 수가 2013년보다 24% 급감했다. 지난해 의료계에서 촉발된 갑상샘암 과잉 진단·수술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span class='quot0'>갑상샘암 수술 환자가 2008년 2만4985명에서 2012년 4만4783명까지 80% 늘어오다가, 2013년 4만3157명으로 3.6% 줄며 증가세가 꺾였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지난해엔 전년보다 24.2% 감소한 3만2711명이 수술을 받았다</span>”고 밝혔다. 지난해 진단받은 사람은 30만2014명으로 2013년보다 7.5% 증가했지만 수술 환자는 되레 감소한 것이다.<br/><br/>수술 환자가 급감한 것은 지난해 일부 의사들이 ‘갑상샘암 발생이 늘어난 것은 과잉 검진 탓’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갑상샘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고 진행이 느린 ‘거북이암’이라는 점도 수술 환자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소의영 대한갑상선학회장은 “<span class='quot1'>지난해 논란이 벌어진 영향으로 암 확진을 받고도 수술을 미루는 환자들이 많아졌다</span>”며 “<span class='quot1'>크기가 0.5㎝ 이하인 미세유두암은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다면 관찰하며 경과를 지켜볼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소 회장은 “<span class='quot1'>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로, 수술 범위가 커지고 방사성요오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미국·유럽에선 갑상샘암으로 진단되면 수술을 하도록 권고한다</span>”고 말했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05.txt

제목: 발톱무좀 레이저치료, 안전 위해 풍부한 임상 경험 중요  
날짜: 201504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2210017052622  
본문: 지난 1월 핀포인트 풋 레이저를 이용한 발톱무좀 치료가 신의료기술로 등재되면서 현재 많은 곳에서 이를 도입하여 발톱무좀 치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레이저치료의 도입은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이러한 발톱무좀 레이저 치료에 있어 오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br/><br/>이에 대해 국내에서&nbsp;2012년 처음으로 핀포인트 레이저치료기기 도입 및&nbsp;2013년과 2015년 2회에&nbsp;걸쳐 대한 피부과 학회에서 발톱무좀 핀포인트 레이저 치료에 대한 임상연구를 발표하는 등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광명 미소가인피부과의 고정훈 원장은 22일 발톱무좀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설명했다.<br/><br/><strong>레이저치료 신경 및 혈관 손상 조심해야</strong><br/>고정훈 원장에 따르면 발톱무좀 레이저치료란 발에 번식한 발톱 무좀균을 레이저 조사를 통해 치료하는 것으로, 임상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 우리가 암이라도 간암, 폐암, 대장암 등의 수술과 치료 방법이 다르다.<br/><br/>발톱무좀 역시 마찬가지인데, 무좀의 발생 위치에 따라 원위부, 근위부 조갑진균증, 백색표재성 조갑진균증, 완전파괴형 조갑진균증까지 4가지로 나뉜다. 이에 따라 증상도 각기 다르므로 치료방법 역시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임상 경험이 풍부하지 않을 경우 발톱무좀 종류에 적당한 레이저 조사를 하지 못하여 치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br/><br/>다음으로 레이저치료란 고열을 통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때문에 레이저 조사 시 주변 피부조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야 한다. 발은 피부 레이저 치료 중에서도 고난도의 술기를 필요로 하는 부위로, 발톱 밑에는 신경과 혈관이 있으므로 레이저치료 임상 경험이 부족할 경우 레이저를 잘못 조사하여 신경과 혈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술하는 의사의 임상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br/><br/><strong>약물이 좋아요 레이저가 좋아요?</strong><br/>최근 많은 곳에서 레이저를 통한 발톱무좀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 때문에 환자분들도 약물치료인가？ 레이저인가? 이러한 질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의 질문과 같다고 볼 수 있다.<br/><br/>고정훈 원장에 따르면 레이저 치료가 약물에 비해 완치율이 높다고 볼 수 없다. 그것보다는 과거 약물치료만 진행했던 때에는 간 기능 이상, 임산부, 탈모제 혹은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제나 신경정신과 약물 등을 복용하는 경우는 약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커 치료제한이 있었으나, 레이저의 경우 이러한 제한 없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완치율이 아닌 치료율이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br/><br/>레이저 치료는 이러한 치료율의 증가나 기존 약물치료 시 매일 약을 복용해야 했던 불편감을 감소시켜 보다 치료의 편리성을 높인 장점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레이저 치료를 선호할 필요는 없다.<br/><br/>또한 레이저와 약물치료를 병합하여 치료 시 병변에 따라 더 빠른 차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이 무조건 안 좋고 레이저가 좋다’라는 흑백논리는 불필요하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환자에 맞는 치료가 최선이다.<br/>&nbsp;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06.txt

제목: 아스피린 오래 복용하면 소화기관암 위험 줄어  
날짜: 2015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2010017023034  
본문: 아스피린을 오래 복용하면 소화기관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미국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 영양학과의 차오인 박사는 아스피린의 장기복용이 식도암, 대장암 등 소화기관암 위험을 20%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18일 보도했다. <br/><br/>차오 박사는 1980년 여성 간호사 8만 26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간호사 건강연구(NHS)와 1986년 남성 전문의료인 4만76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문의료인 건강연구(HPS)의 32년간 조사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아스피린을 325㎎씩 매주 2회 복용하는 사람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장암 위험이 25%, 식도암 위험은 14% 각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16년 이상 오래 복용한 사람이 가장 효과가 컸고 복용량이 많을수록 효과도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의 차이는 없었다. <br/><br/>그러나 아스피린이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등 다른 암 발병 위험을 낮춰주는 효과는 없었다. <br/><br/>미국암학회(ACS) 약물역학실장인 에릭 제이컵스 박사는 아스피린의 암 예방 효과가 부작용 위험보다 크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아 암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 복용을 권장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아스피린은 흔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장 출혈과 위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07.txt

제목: 미국 가톨릭계 보수 대변자 프랜시스 조지 추기경 선종  
날짜: 2015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20100000080  
본문: 미국 가톨릭계 보수파의 대변자로 잘 알려진 프랜시스 조지 추기경이 긴 암 투병 끝에 78세를 일기로 선종했다. 조지 추기경은 199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7년간 미국 시카고 대교구를 이끌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을 지냈다. 로마 가톨릭 정통주의를 추구한 조지 추기경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피임정책과 동성결혼 합법화 등에 강경 발언으로 맞섰다. 시카고 북서부에서 태어나 26세 때인 1963년 사제 서품을 받은 조지 추기경은 2005년 교황 베네딕토 16세 선출, 2013년 교황 프란치스코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에 참석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08.txt

제목: 전국 원전 주변 갑상선 암 발병자 545명 공동 소송  
날짜: 2015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2010017020529  
본문: 전국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서 갑상선 암에 걸린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공동소송에 545명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br/><br/>‘핵없는 세상 고창군민행동’은 지난 2월 중순까지 진행된 영광 원자력발전소 갑상선암 고창지역 공동소송인단 1차 모집에 갑상선 암에 걸린 46명의 주민이 참여한데 이어 23일부터 2차 모집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br/><br/>전국적으로는 영광·고창지역과 부산 고리, 울주 신고리, 경주 월성, 울진 등 5개 지역에서 545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하고 있다고 고창군민행동은 설명했다.<br/><br/>원전지역의 갑상선암 환자들의 공동소송은 지난 2012년 부산 고리원전 인근에 살던 이 모씨 가족들이 암발병 원인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지목힌 뒤,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하면서 본격화됐다. <br/><br/>이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10월 ‘다른 암과 달리 갑상선암의 경우 핵발전소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최근 학계의 의견이다. 한수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니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만약 상관관계가 없다면 그 입증책임은 한수원에서 하라’고 덧붙였다. <br/><br/>한수원은 ‘갑상선암과 원전 방사능은 무관하다’며 항소했다. 이씨 가족도 ‘한수원의 책임이 너무 낮게 인정됐다’며 항소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다.<br/><br/>갑상선암과 원자력 발전소와의 연관관계가 일부 인정되면서 국내 4개 원전, 5개 지역에서 이 문제는 공동관심사로 급부상했다. 판결 한달 뒤 전국에서 226명의 갑상선 암 발병자들이 공동소송인단에 참여해 지난해 말부터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올들어서는 숫자가 두배 이상 늘어났다.<br/><br/>반핵 단체가 제시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한 사람 당 1500만원이다. 갑상선암 환자들의 배우자에게 200만원, 부모·자녀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도 청구해 소송금액은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br/><br/>핵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운종호 운영위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소송은 원전 근처에 살면서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들이 한수원에 책임을 묻는데 있지만 과연 방사선 피해로 얼마나 많은 암 발병자들이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a href="http://sewol.khan.co.kr/memorial/" target="\_blank"><strong>☞ [세월호 1년] 진실 인양을 위한 '노란풍선'을 달아주세요</strong></a><br/><br/><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09.txt

제목: 미국 가톨릭계 보수 대변자 프랜시스 조지 추기경 선종  
날짜: 201504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1910017008297  
본문: 미국 가톨릭계 보수파의 대변자로 잘 알려진 프랜시스 조지 추기경이 긴 암 투병 끝에 78세를 일기로 선종했다. 조지 추기경은 199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7년간 미국 시카고 대교구를 이끌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을 지냈다. 로마 가톨릭 정통주의를 추구한 조지 추기경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피임정책과 동성결혼 합법화 등에 강경 발언으로 맞섰다. 시카고 북서부에서 태어나 26세 때인 1963년 사제 서품을 받은 조지 추기경은 2005년 교황 베네딕토 16세 선출, 2013년 교황 프란치스코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에 참석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10.txt

제목: [건강도약 2015 - 식습관을 바꾸세요](3) 지방도 먹기 나름  
날짜: 2015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17100000069  
본문: ▲ 동물성지방 - 각종 암 유발·동맥경화 위험<br/>▲ 불포화지방 - 심장질환·당뇨 완화<br/><br/>서울의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6명이 8일 회식 자리를 가졌다. 술 안주는 돼지고기. 삼겹살 10인분(2000g)을 구워 먹었다. 삼겹살 100g은 대략 330㎉에 해당한다. 삼겹살의 주 성분인 지방 1g이 9㎉여서 칼로리가 매우 높다. 굽는 과정에 기름기가 빠지는 것을 감안해 섭취한 지방 성분을 70%로 줄여 계산한다 해도 이날 1인당 770㎉의 열량(330×20×0.7÷6)을 삼겹살을 통해서만 섭취했다. 술까지 감안하면(알코올 1g은 7㎉) 엄청난 열량이다.<br/><br/>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2010년 제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총지방 에너지 적정비율은 15~25%(포화지방은 총열량의 6%)다. 일본은 20~30%, 미국과 캐나다는 20~35%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직장인들의 회식은 고지방 식이의 전형적인 행태 중 하나다. 1일 평균 칼로리(2000㎉ 내외)의 38.5%나 되니 말이다.<br/><br/><br/>한국인의 지방 섭취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양소별 에너지 섭취율은 1969년의 경우 탄수화물 80.3%, 지방 7.2%, 단백질 12.5%였다. 하지만 2013년에는 탄수화물 64.1%, 지방 21.2%, 단백질 14.7%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3배로 늘었다. 학계가 제시한 영양섭취 평균을 본다면 아직은 고지방식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는 상당수 국민이 고지방 식이를 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지표다.<br/><br/>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권오란 교수는 “<span class='quot0'>전반적으로 20대 남녀의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남성은 총지방 에너지 섭취비율이 적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도가 2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pan>”고 말했다.<br/><br/>을지병원 가정의학과 권길영 교수는 “<span class='quot1'>국내외 연구를 보면 동물성 지방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유방암, 자궁내막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세포암 등 암 발병 위험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며 “<span class='quot1'>우울증, 골다공증, 당뇨병, 역류성 식도염, 인지기능·후각능력 저하 등 여러 만성 질환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span>”고 말했다.<br/><br/><br/>문제는 동물성 지방이다. 과하게 섭취하면 복부(내장) 비만과 더불어 각종 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게 쌓이면 동맥경화가 유발된다. 반대로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심장 질환의 빈도를 낮추고 당뇨병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지방의 종류 표 참조).<br/><br/>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김영학 교수는 “<span class='quot2'>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심장과 뇌혈관 질환, 암 등 여러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span>”고 경고했다. 그는 “<span class='quot2'>혈청 콜레스테롤 농도를 10% 낮추면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률 20%, 심근경색의 발생률 17%, 관상동맥경화증과 관련된 사고 비율을 23%가량 낮출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같은 병원 영양팀 강신숙 차장은 “<span class='quot3'>건강을 유지하려면 평소 고지방 식품 섭취를 피하고 불포화지방이 든 식품을 선택하거나 가공식품의 영양 성분 표시를 확인하라</span>”고 조언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11.txt

제목: 결혼 전 건강검진, 유방암검사도 반드시  
날짜: 2015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1710017000006  
본문: 결혼 전 건강검진은 이제 예비신부에게 필수코스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한 모유수유를 위해서라면 유방암 검사도 놓쳐서는 안 된다. 임신 중에는 생리적 변화로 인해 정상 유방 내에서 종양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유방암 진단이 늦어짐에 따라 진행성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br/>&#160;<br/>강남유외과 유방센터 조윤선 원장은 17일 “<span class='quot0'>결혼 후에 바로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혼 전 유방암 검사를 통해 건강한 가슴으로 임신과 수유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span>”고 밝혔다.<br/>&#160;<br/>유방암은 40대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20~30대 젊은 연령층에서의 발병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조기에 발견하면 95% 이상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암이므로 30대부터는 정기적으로 유방 전문의에 의한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br/>&#160;<br/>이밖에도 유방암 검진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양성종양을 발견해 낼 수도 있다. 양성종양의 크기가 작고 상태가 양호하다면 굳이 절제해낼 필요가 없고,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통해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된다. 하지만 빠르게 자라고 형태가 좋지 못한 경우에는 양성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br/>&#160;<br/>그렇다면, 유방의 양성종양절제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br/>&#160;<br/>대부분의 여성들은 양성종양을 절제해야한다고 하면 수술을 떠올리는데,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라면 누구나 가슴의 큰 흉터가 남는 절제수술을 원치 않을 것이다.<br/>&#160;<br/>다행히 진공보조유방종양절제기(맘모톰, 벡스코어 등)를 이용한 시술이라면 흉터나 가슴 함몰 걱정 없이 간단하게 유방종양을 제거할 수 있다. 맘모톰은 초음파로 보면서 다소 굵은 바늘을 유방 병변이 있는 위치에 삽입하여 병변을 제거하는 장비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시술이 끝나고 부분마취로 진행되어 몸에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br/>&#160;<br/>조윤선 원장은 “<span class='quot1'>양성종양 절제를 위해 수술을 하면 가슴에 긴 절개흉터가 남지만, 맘모톰은 시술관 바늘이 들어가는 구멍 크기인 수 밀리미터 정도의 흉터만 남기 때문에 미용적 장점이 크다</span>”며 “<span class='quot1'>십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 백만 건 이상의 시술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방법</span>”이라고 전했다.<br/>&#160;<br/>아울러 조윤선 원장은 “<span class='quot1'>맘모톰은 간단하게 양성종양을 절제할 수 있는 장비지만,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장비 운용능력이 중요하다</span>”고 덧붙이며, “<span class='quot1'>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조언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12.txt

제목: [김달래의 체질과 식보약보]체온 올려주는 옻순, 찬 몸·냉증에 보약  
날짜: 20150417  
기자: 김달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17100000071  
본문: 예전부터 사슴은 봄에 옻순(사진)이 나오면 그 맛을 잊지 못해 옻순을 뜯어먹으러 나타나곤 했다고 한다. 옻순은 두릅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두릅보다 더 부드럽고 맛이 좋다. 동물들이 옻순을 좋아하는 이유다.<br/>옻순은 보통 4월 중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4월 마지막 주나 5월 첫째주가 되면 먹기에 딱 좋다. 옻나무는 개옻과 참옻으로 구분된다. 개옻은 나무 크기가 작고 옻 알레르기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있다.<br/>옻나무와 옻순 속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우루시올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 있다. 약재로 쓸 때는 우루시올을 제거한다. 옻나무의 수많은 함유 성분 중 푸스틴, 피세틴, 설푸레틴, 부테인 등 플라보노이드계 화합물이 들어 있는 고농도의 옻 추출액은 면역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꾸준히 복용하면 항암효능을 볼 수 있다. <br/><br/>옻에 열을 오랫동안 가하면 우루시올의 알코올기가 산화되면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옻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다. 옻닭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열을 가해 옻을 오르게 하는 성분인 우루시올의 알코올기를 휘발시키고, 동물성 단백질과 중화시킴으로써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약하게 하기 때문이다. <br/>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약 30%가 옻나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약 10%의 사람들은 옻순을 먹어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br/>옻이나 옻순은 체온을 올려서 피로감을 없애주고 오래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예전부터 손발이나 아랫배가 찬 사람, 생리통·생리불순으로 고생하거나 불임증인 경우, 면역기능이 약한 암환자들에게 사용해왔다. 위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br/>하지만 옻에 예민한 체질의 사람들은 옻이나 옻순을 만지거나 증기를 쐬면 20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옻 알레르기가 나타나게 된다. 처음에 피부가 약한 부위에서 시작돼 손가락이나 사타구니가 가렵고 붓거나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옻순을 따다가 제대로 씻지 않고 화장실을 다녀오면 남성들은 음경이 붓는 경우도 있다. 옻나무를 삶거나 태울 때 증기나 연기를 쐬어도 옻이 오른다. 옻그릇이나 수저를 사용해도 옻이 오른다는 사람도 있다.<br/>옻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 옻을 조금씩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탈감작요법은 옻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옻 알레르기는 아무리 오랫동안 옻을 취급해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br/>그만큼 옻은 조심해야 하는 약재이고 음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으로 옻순을 먹기보다는 옻닭이나 부침개, 튀김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보다 맛있고 질감도 좋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13.txt

제목: [문명, 인간이 만드는 길 - ‘마음’ 전문가들과의 대화](3) 이해인 수녀  
날짜: 20150417  
기자: 안희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17100000150  
본문: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원, 이해인 수녀가 사는 곳이다. 17년 만에 다시 찾았다.이제는 도시 개발로 빌딩 사이 해송과 동백에 둘러싸여 섬처럼 남겨졌지만, 평화와 수도의 기운은 여전했다. 해인 수녀의 거처는 동산 아래 해가 깊숙이 들어오는 민들레 방이다. 서가에는 논어와 시경, 장자, 수타니파타, 소네트 등이 빼곡히 꽂혀 있다. 특히 네 종이나 되는 논어는 귀퉁이마다 해져 수선한 테이프가 겹겹이고, 양장본 서문당 논어엔 윤기가 흐를 정도로 손때가 묻어 있다.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라고 한다.<br/>선반과 바닥에는 택배 사무실 마냥 박스와 보따리가 쌓여 있었다. 독자와 지인에게서 온 선물이지만, 곧 다시 누구에게론가 흩어질 꾸러미들. 수녀원에 당도한 그 시각에도 다음 날 가르멜 봉쇄수도원 후원 모임에 나눠줄 묵은 달력으로 만든 고운 봉투며 엽서를 챙기고 있었다. 해인 수녀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나누기 좋은 선물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 엄마수녀, 이모수녀라 부른다.<br/>해인 수녀는 2008년 암에 걸렸지만 지금껏 잘 버텨내고 있다. 재발 없이 5년이 지났을 무렵, 안도하는 주위 분위기와 달리 해인 수녀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법원 공증을 마쳤다. 모든 저작권을 공동체에 일임하고 장례 역시 수도원에서 간소하게 치러질 것이라 한다. 이제야말로 떠나도 된다며 개운하게 웃었다. 몸 낮추며 살아온 50년의 수도생활이다. 공감과 배려를 성품으로 담으려고 애써온 그 시간 속에서 깨우친, 아픈 시대를 함께 견디는 지혜를 얻고자 그를 만났다. 수녀원 동백잎은 여느 곳보다 짙은 초록으로 반질거렸다.<br/><br/>▲ ‘꿈에 나타나셨다’ 혹은 ‘답을 주셨다’<br/>그런 모습들 가슴 아파<br/>캄캄하고 암흑 같은 인생 그것이 오히려 더 정답<br/>한결같은 걸음이 중요<br/>▲ 그 아이들을… 우리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br/>부모들 생각하면 많이 아파<br/>닫힌 마음 열려면 힘들고 과민 반응도 견뎌내야 해<br/>그렇지만 내가 먼저 손잡아야<br/>안희경(이하 안)= ‘우리 안에는 순한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20년 넘게 해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더욱 거칠고 각박해져 가는데요.<br/>이해인(이하 이)= 모든 인간 안에는 진실한 것과 선한 것, 참된 것에 대한 동경이 있다고 봐요. 내가 성선설 쪽이거든요. 윤동주의 서시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그리워하면서도 참 인간이 다면적이구나 느끼게 되는데, 훌륭하다는 사람 안에도 비굴함이 있고, 아주 악명 높은 이 안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것이 숨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가끔 구상 선생님 생각이 나요.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할 사람들까지 다 품어주고, 주례해 달라면 주례도 해주고 그러셨죠. 환속한 사제한테 당신이 자꾸 주례 서주니까 추기경님이 벌레 씹은 얼굴로 보더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아,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하니, 답이 명답이었어요. ‘사람들이 우정을 틀 때 장점부터 트지만, 나는 단점부터 튼다. 좋은 점만 보고 누군들 친구를 못하겠느냐. 손가락질받는 이라 해도 친구가 있어야 사니, 그 역할을 내가 하겠다’ 그래요. 우정에 대한 지론이죠. 나도 그걸 본받아서 상처 많은 이들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그이들 마음을 열려면 공도 많이 들고 과민 반응도 받아야 하고 힘들죠. 지성적으로 멋있는 사람 만나면 나도 점잖고 좋아요. 하지만, 해야죠. 내가 먼저 해야죠.<br/>안= 나이 들수록 종교를 찾는 친구들이 늘어요. 부름을 받았다며 열성을 보이고, 많은 기성세대들이 종교 따라 투표도 하고 광장에 나와 싸우기도 합니다.<br/>이= 선교에 열을 올리고 그러는데, 난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못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번 교황님은 ‘개종을 강요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 제일 당황스러운 질문이 사람들이 나 보고 예수님 언제 영접했느냐는 건데 그러면, ‘영접요?’ 난 그러거든요. 생경하게 들리니까. 영성생활에서 드라마틱한 어떤 것을 꿈꾸는 거, 위험하다고 느끼거든요. 꾸준히 평범해야 하는데 드라마틱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아닐 때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 수도생활도 그래요. 수녀원에서 우리는 우스갯말로 너무 열심히 하는 걸 두려워한다고 해요.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때는 불에 타죽을 것처럼 그러다가 조금만 감미로운 기운이 떨어지면, 못 견디는 거야. 차라리 그 기운을 좀 아껴서 꾸준하게 한결같이 가는 걸음 그게 참 중요한 건데. 캄캄하고 암흑 같은 인생길이 오히려 더 정답입니다. ‘꿈에 나타나셨다’ ‘답을 주셨다’ 그러는 모습들… 많은 경우 난 거기서 아픔 같은 걸 느껴요. <br/>안= 자기가 약해서 매달리려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합리화일까요?<br/>이= 도움받고 싶은 거죠. 자기 위로 내지는.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판단 보류의 영성, 내가 종교학에서 배운 이론인데, 이게 실생활에 무척 도움이 되어요. ‘인간에 대해서 판단은 보류하고 사랑은 빨리하라.’ 보류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그러잖아요.<br/>안= 익숙한 말로 설명하면 뭘까요?<br/>이=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겠죠. 제가 얻은 결론은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 잘나면 얼마나 더 잘났겠어요. ‘참 너도 노력하는데 뜻대로 안되지?’ 이렇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제 결론이에요.<br/>안= 하느님을 만났다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말하는 신념을 이해해 보면, 혹시 큰 대상에 의지하면서 순해진 자신을 불러낸다는 그런 겸손의 뜻도 있지 않나 싶어요.<br/>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달빛처럼 스며드는 꽉찬 빛의 느낌, 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에 박혀 나타나는 그런 하느님 말고, 내 존재 안에 달빛처럼 스며들어서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친척처럼 열린 이것을 나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보고 싶어요. 나도 이기적이고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다 내 식구같이 뭐라도 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진 거, 또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고통스럽지만 원망하지 않고 이 아픔을 통해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씩씩하게 견뎌내는 이 힘, 이것을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고 싶지. 성모님이 나타나서 안아주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꿈을 꿀 수는 있겠죠. 나도 반 투안 주교님이 나타나서 성경책을 주는 꿈을 꾸긴 했어요. 그러나 그런 건 지나간 부분이고 거기에 취하면 안되는 거죠.<br/>안= 수도의 길이 차근차근 익어가는 깨우침이라는 건가요?<br/>이= 일상의 그 길,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깨우침도 대나무처럼 매듭이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안 풀려서 또 그렇게 있다가 또 다시 맺고, 그런 거 아닐까. 거룩함에 대한 개념도 지혜롭게 해야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귤과 사과가 있어요.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 하는 것도 아름답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굶주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안 먹고 극기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랑이라고 하면, 이 극기한 사람이 먹은 사람을 ‘너는 탐욕스럽다’고 막 비난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게 판단보류죠. 근데 우리는 안 먹은 사람이 먹은 사람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그럴 때 우리끼리 ‘저 사람 상투스야, 상투스’(‘거룩하시다’로 시작되는 성가곡)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해서가 아니라 입만 열면 거룩한 소리로 남한테 부담을 준다, 이 소리거든. 그래서 ‘천사표’ ‘거룩하다’고 말 듣는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함정이 있으니까. 맛있게 먹고 남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고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더 겸손할 수가 있어요.<br/>안= 매일 SNS를 뒤덮는 이야기가 비판과 , 또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잘난 척 말라는 비판인데, 사람의 심사가 살랑살랑합니다.<br/>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지식 습득은 그만하고 인간을 해석해서 배려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야겠죠. 이런 시대에 부모 노릇하기 얼마나 힘들까요? 엄마 노릇 하기도 힘들고, 아내 노릇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같은 사람이 성경에 있는 말만 가지고 가정생활 하는 사람한테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면 그것도 겸손하지 못한 거지. 강연을 마치고 사인을 해 줄 때도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사인하는 걸 세속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난, 그 걸음을 해서 온 마음들을 지나칠 수가 없어는 거예요. 그 30초, 1분 안에 별걸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발달장애인데 수녀님 한 마디만, 우리 아들이 알코올 중독인데 수녀님 한 마디만, 다 그래요.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 마음들을 알게 된 다음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꽃 그리고 스티커 붙여주고 하는데, 꽃 그리다가 또 높은 음자리표 그리면 ‘어머 수녀님, 제가 성가대하는 줄 어떻게 아셨어요?’ 해요. <br/>거기다 ‘내가 알긴 어떻게 알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초를 치면 안되지. 그럼 또 ‘아, 수도생활 사십 몇 년 하다 보면 필(feel)이 다 옵니다’ 그러지(웃음).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교감하는 거지. 그들 중의 한 사람으로 내가 있고 싶고. 내 글을 사랑해주니까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잘 나서가 아니잖아요? 겸손이 기본 덕인 거 같아요. 특히 수도 생활은. 자기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겸손.<br/>안= 약점을 자랑한다고요?<br/>이= 사도 바오로가 ‘내가 자랑할 것은 약점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살면 살수록 알겠더라니까요. 아! 약점을 자랑하는 용기가 있으면 살겠구나. 언제나 망신당할 각오가 있는 사람들은 살아요.<br/>안= 약점을 드러내도 안전할까요?<br/>이= 그렇게 봐주는 사회가 되어야죠 마침내. 근데 우리 정치인들도 약점을 자랑할 용기가 부족해요. 남을 탓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게 안되나봐요. 우리나라 현 정부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러고, 저기 일본 총리도 그러고. 인간이 참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다고 할까. 오히려 어리석은 용기가 필요한데 말이에요. 김수환 추기경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탓했는지 아세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말로만 하고 같이 살아보질 못해서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면서도. 또, 그분도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랬어요? 기자가 ‘이렇게 사제단 신부 중에 한 분이 강력하게 비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더니 ‘그럴만한 요소가 있으니까 나도 비난을 받는 거다’ 하셨죠. 저분은 항상 어리석음과 약점을 드러내놓고 사시는구나. 참 닮고 싶다 느껴지더라고. 굉장히 크고 덕을 이룬 분일수록 언어가 달라요.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한다고 할까? 젠체하거나 경건을 따지지 않고 자연스럽죠. 교황님도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고 하신 말, 얼마나 인간적으로 밀려와요. 근데 문제는 교황님이 다녀가고 그 감탄이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교우들은 교우들대로 회심이 일어나고 대중은 대중대로…. 참, 그러니까 교황님이 여러 번 다녀가셔도 현재의 리더들이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걸 또 배우는 거죠.<br/><br/>안= 세월호, 아직도 많이 아프시죠? 최근 수녀님 에세이에서 제일 먼저 침몰 소식을 전하고도 구조되지 못했던 최덕하군 어머니의 문자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중에, 자기 생명도 나눠줄 수 있다면 필요한 이들에게 주고 바람이 되어 아들 곁으로 날아가고 싶다는 어머니의 고백이 서늘하게 마음에 박혔는데요. 정작 수녀님이 보낸 메시지나 위로의 마음은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 의아했습니다.<br/>이= 여러 신문사에서 청을 받았죠. 글을 써달라고. 못쓰겠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진 청탁 오면 다 썼어요. 미국에서 한인 학생 총기 난사 사건이 났을 때도, KAL기 폭파 때에도, 또 중국 민항기가 떨어져서 사람 몇 백명 죽었을 때는 그 사이트까지 가서 글을 남겼어요. 그때가 2002년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월드컵에 빠져있을 때. 해마다 여름이면 깨꽃이 핀다잖아요. 그때 승객들이 중국에서 깨를 봉지봉지 사가지고 와서 깨가 다 풀어져 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랬는데, 세월호는 아무리 쓰려고 해도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 어떡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겨울에 책을 내면서는 뭐라도 마음 한 조각 넣고 싶은데, 그때까지 시도 안되고 산문도 안 나오고. 그러다 덕하 어머니가 보내오는 메시지가 있어 그 내용을 넣었던 거죠. 세월호 사고 나고 부산이랑 시청에 가서 국화꽃을 바치고는 했는데, 막상 현장에는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팽목항에도 우리 수녀님들이 대신 가고. 아이들을 가장 많이 잃은 안산 와동 성당에는 우리집 수녀님 세 분이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덕하 엄마는 그 인연으로 여기 다녀간 거고요. 그 부모들 마음을 생각하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우리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 아이들을… 우리가.<br/>안= 어른이 되면 슬퍼도 맘 놓고 슬퍼하기가 어려워요. 남은 헤아리지 못하는 슬픔이고, 게다가 지금 유가족들은 왜 아직까지 그러느냐는 사회적 비난에도 시달립니다. 아픔에서 빠져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br/>이=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고, 함께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말로도 사실 위로가 안되거든요. 내가 쓴 시 중에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것도 겸손이 필요하다’ 그런 글이 있어요. ‘슬픈 사람들에게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마음의 말을 은은한 빛깔로 만들어 눈으로 전하고 /가끔은 손잡아 주고 들키지 않게 꾸준히 기도해 주어요. /슬픈 사람들이 슬픔의 집 속에만 숨어있길 좋아해도 너무 나무라지 말아요. /훈계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그가 잠시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대책 없이 울면 같이 울어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위로에도 인내와 겸손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함께 배워가기로 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 같아요.<br/>안= 다들 고달프고 불안하니까 어딘가에 탓을 만들고 각박해지는 거 같아요.<br/>이= 강의하면서 눈을 마주치면 이 시대의 한국 남성들, 아빠들도 참 고달프구나, 내 마음이 짠해져요. 내가 말로라도 ‘힘들 때가 많으시죠’ 그러면 막 울려고 해. ‘그래서 김현승 시인이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그 말 들으니 위로가 된다고 하고. 마음 안에 다들 보이지 않는 슬픔과 공허함이 있는 거죠. 10대에 읽었던 시인데, 칼 붓세라는 사람이 썼어요. ‘산 너머 저쪽 더욱 멀리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나는 그를 찾아 남 따라 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되돌아왔네.’ 그래요. 멀리 있는 게 아닌 걸 우리도 알죠. 근데, 알면서도 계속 멀리 따라가요. 또 언젠가 한 번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이런 게 인간의 어리석음인가 보다 생각하면, 그래도 이 어리석음 때문에 오늘을 살지, 맨날 죽음을 생각하면 허전해서 어떻게 살겠나 싶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정말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기에 답이 있겠죠.<br/><br/>안=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조언이 있다면요.<br/>이= 차가운 이성의 부름을 가져다 나 스스로 조절해야지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거 같아요. 내 문제를 남들이 들어주기는 해도, 결국 그 남이 나는 아니거든요. 내가 나의 수련장이 되는 수밖에. 나도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수도 생활 50년을 했으면서 이것밖에 안되나 싶고. 내가 이상적으로 그려보는 그런 덕스러운 모습을 왜 정작 나는 못 가지고 있나.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죠. 그런데 이런 나에게 간혹 독자들이 ‘수녀님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 내가 길을 안 바꾸고 여기서 버티길 잘했구나’ 환희심이 차올라요. 제가 불교에서 좋아하는 단어가 환희심인데, 기쁨보다는 더 스며드는 마음 같다고나 할까. 햇볕이 들어와서 방을 덥혀주듯이. 그렇게 마음 얻어가며 사는 거죠.<br/>안= 햇볕이 방을 덥혀주듯 배려의 온도가 높아지는 시절이 되면 좋겠어요.<br/>이= 춥고 아플 때 햇빛 한 줄기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광안리 바다에서 해가 올라오는 거예요. 눈을 못 뜰 정도로 눈부셨어요. 그때, 해 아래 사는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햇볕과 함께 있는 거구나. 네, 달과 해를 통해서 우주 만물의 신비와 나 자신의 적응과 모든 인간의 지구 상의 연결을 느낍니다.<br/>해인 수녀의 여닫이장에는 147권의 노트가 있다. 그날그날의 메모가 적힌 일기장이다. 아무거나 꺼내 펼쳐 봐도 된다고 하길래 ‘보여주려고 쓰셨어요?’ 물으니 껄껄 웃으신다. 나이가 드니 이젠 다 아무렇지도 않다며.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70년을 맞았다. 이해인 수녀와 같은 나이다. 털어야 할 앙금도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용기로 풀고 햇볕 한 줄기 따뜻한 마음 모으면 어떨는지.<br/>2014년 4월19일, 세월호가 침몰한 지 나흘째 되던 날, 해인 수녀의 일기장에는 ‘몸속의 슬픔, 몸속의 겨울’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슬픔도 얼어붙어 토해지지 않는 아픔이었나 보다. 지금도 아스팔트 냉골에 무릎을 찧고 등을 누이는 유가족들에게 해인 수녀의 마음이 닿기를 바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14.txt

제목: 활성산소 항산화로 건강 지켜… 메이준생활건강 ‘유스라이프팩’ 출시!  
날짜: 2015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1710017000447  
본문: 활성산소란 환경오염과 자외선, 혈액순환장애,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과잉 된 산소가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산소다. 현대인의 질병 중 약 90%가 이 활성산소와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다.<br/><br/>활성산소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은 암, 동맥경화, 당뇨병, 뇌졸증, 심근경색증, 파킨슨 병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관리가 필요하다.<br/><br/>항산화란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의 총칭으로 질병에 관여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의 산화와 노화를 막는 핵심 물질로서 코엔자임Q10, 셀레늄, 비타민E, 비타민C, 카로틴 등의 성분이 있다.<br/><br/>대표적인 항산화 핵심 물질인 코엔자임Q10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성분이지만 인체가 노화될수록 체내 코엔자임Q10의 수치가 감소해 별도의 섭취가 필요한 영양소다.<br/><br/>더불어 코엔자임Q10과 함께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꼽히는 셀레늄은 체내의 여러 가지 작용에 필요한 미량 무기질이다.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세포막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신체 조직의 노화를 막아준다.<br/><br/>이에 메이준생활건강은 17일&nbsp;건강의 적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프리미엄 항산화관리 건강식품 ‘메이준뉴트리 유스라이프팩’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메이준뉴트리 유스라이프팩은 코엔자임Q10, 셀레늄, 비타민E등 항산화 기능에 뛰어난 성분과 비타민D를 한번에 섭취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의 항산화관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항산화관리 건강식품인 메이준뉴트리 유스라이프팩은 메이준생활건강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하다.<br/><br/><a href="http://sewol.khan.co.kr/memorial/" target="\_blank"><strong>☞ [세월호 1년] 진실 인양을 위한 '노란풍선'을 달아주세요</strong></a>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15.txt

제목: [건강]“폐경기 주요 증상 완화 호르몬제가 가장 효과”  
날짜: 2015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17100000073  
본문: 대한폐경학회가 최근 새로운 폐경 호르몬요법 치료 지침을 내놨다. <br/>학회는 “호르몬 치료는 안면홍조, 발한 등 폐경으로 인한 혈관운동증상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호르몬제인 티볼론 제제의 경우 혈관운동증상 및 비뇨생식기 위축 등 폐경 후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분장애, 수면장애, 집중장애, 피로감 등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br/>호르몬 치료가 폐경 및 폐경기 이후 여성의 건강을 좌우하는 주요 영향인자로 떠올랐다. 호르몬 치료는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게 학계의 공식 의견이다.<br/><br/>지난해 말 생리가 끊긴 가정주부 ㄱ씨(51). 두세 달 전쯤부터 얼굴이 후끈거리고 울적한 기분이 들어 얼마 전 산부인과를 찾았다. 의사는 진료와 검사를 통해 “<span class='quot0'>폐경 후 여성에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에스트로겐 결핍증상</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가급적 빨리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라</span>”고 권했다. 하지만 ㄱ씨는 “호르몬 치료는 암을 유발하거나 부작용이 크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어온 터라 고민에 빠졌다.<br/>월경이 중단되는 현상인 폐경은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유발되는 안면홍조, 야간 발한, 수면장애, 피로감, 우울증, 불안감 등 다양한 신체·정신적 증상을 동반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심장병, 골다공증 등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여성은 평균 49.7세에 폐경을 맞는 것으로 나와 있다. 평균수명이 83.8세인 점을 감안하면 30년 넘게 폐경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야 한다.<br/>건국대병원 산부인과 이지영 교수는 “<span class='quot1'>폐경을 일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증상까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된다</span>”며 “<span class='quot1'>폐경증후군은 여성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span>”고 지적했다.<br/>ㄱ씨처럼 폐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보 부족은 여성들이 폐경 후 에스트로겐 결핍증상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br/>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를 보면 약 97%의 여성이 폐경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br/>폐경학회에 따르면 35세 이상의 여성 중 폐경 교육을 받은 비율은 86%에 그쳤다. 80%가 폐경기 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나 54%는 누구와도 이에 대해 상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1'>그동안 호르몬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으로 적절히 사용되지 못했던 게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폐경 증상은 무조건 참고 견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 적극 치료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이어 “호르몬 치료 역시 중요한 치료방안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16.txt

제목: SK하이닉스, 직업병 막는 상담센터 연다  
날짜: 2015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1710017003507  
본문: 반도체 사업장에서 백혈병 산업재해 논란이 일었던 SK하이닉스가 전·현직 직원들의 직업병 의심 사례를 수집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건강지킴이 상담센터’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SK하이닉스가 지난해 10월부터 외부 전문가와 노사 대표로 구성된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운영한 뒤 나온 조치다.<br/><br/>상담센터는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전·현직 구성원 및 사내 상주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사례 접수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관리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한다.<br/><br/>위원회는 연구 차원에서 백혈병 등 암 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재생불량성 빈혈, 자녀 선천성 기형까지 사례를 폭넓게 접수할 예정이다. 다만 치료 지원은 이중 일반적으로 직업 관련 질환으로 알려진 것부터 우선 진행한다. 지원보상 대상 질환은 향후 연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br/><br/>현직 임직원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상시접수를 시작했다. 퇴직자는 20일부터 접수를 개시한다. 건강영향 연구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사례 접수는 6월 말에 종료되지만 이후에도 관련 질환은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는 사내 상담센터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한양대학교 건강검진센터 등 3곳에서 받는다.<br/><br/>SK하이닉스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질환 사례를 모두 접수한 뒤 연구 결과와 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및 보상 기준과 방안을 수립할 예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보상기준이 마련되면 추후 지원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정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17.txt

제목: [문명, 인간이 만드는 길 - ‘마음’ 전문가들과의 대화](3) 이해인 수녀  
날짜: 201504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1610016993494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종교생활은 꾸준히 평범해야… 드라마틱한 것 꿈꾸면 나락</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세월호’처럼 상처 받고 슬픈 이들에겐 ‘겸손’으로 위로해야</strong><!-- SUB\_TITLE\_END--><br/><br/>부산 성베네딕도 수녀원, 이해인 수녀가 사는 곳이다. 17년 만에 다시 찾았다.이제는 도시 개발로 빌딩 사이 해송과 동백에 둘러싸여 섬처럼 남겨졌지만, 평화와 수도의 기운은 여전했다. 해인 수녀의 거처는 동산 아래 해가 깊숙이 들어오는 민들레 방이다. 서가에는 논어와 시경, 장자, 수타니파타, 소네트 등이 빼곡히 꽂혀 있다. 특히 네 종이나 되는 논어는 귀퉁이마다 해져 수선한 테이프가 겹겹이고, 양장본 서문당 논어엔 윤기가 흐를 정도로 손때가 묻어 있다.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라고 한다.<br/><br/>선반과 바닥에는 택배 사무실 마냥 박스와 보따리가 쌓여 있었다. 독자와 지인에게서 온 선물이지만, 곧 다시 누구에게론가 흩어질 꾸러미들. 수녀원에 당도한 그 시각에도 다음 날 가르멜 봉쇄수도원 후원 모임에 나눠줄 묵은 달력으로 만든 고운 봉투며 엽서를 챙기고 있었다. 해인 수녀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나누기 좋은 선물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 엄마수녀, 이모수녀라 부른다.<br/><br/>해인 수녀는 2008년 암에 걸렸지만 지금껏 잘 버텨내고 있다. 재발 없이 5년이 지났을 무렵, 안도하는 주위 분위기와 달리 해인 수녀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법원 공증을 마쳤다. 모든 저작권을 공동체에 일임하고 장례 역시 수도원에서 간소하게 치러질 것이라 한다. 이제야말로 떠나도 된다며 개운하게 웃었다. 몸 낮추며 살아온 50년의 수도생활이다. 공감과 배려를 성품으로 담으려고 애써온 그 시간 속에서 깨우친, 아픈 시대를 함께 견디는 지혜를 얻고자 그를 만났다. 수녀원 동백잎은 여느 곳보다 짙은 초록으로 반질거렸다.<br/><br/><br/><b>▲ ‘꿈에 나타나셨다’ 혹은 ‘답을 주셨다’<br/>그런 모습들 가슴 아파<br/>캄캄하고 암흑 같은 인생 그것이 오히려 더 정답<br/>한결같은 걸음이 중요</b><br/><br/><b>▲ 그 아이들을… 우리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br/>부모들 생각하면 많이 아파<br/>닫힌 마음 열려면 힘들고 과민 반응도 견뎌내야 해<br/>그렇지만 내가 먼저 손잡아야</b><br/><br/>안희경(이하 안)= ‘우리 안에는 순한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20년 넘게 해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더욱 거칠고 각박해져 가는데요.<br/><br/>이해인(이하 이)= 모든 인간 안에는 진실한 것과 선한 것, 참된 것에 대한 동경이 있다고 봐요. 내가 성선설 쪽이거든요. 윤동주의 서시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그리워하면서도 참 인간이 다면적이구나 느끼게 되는데, 훌륭하다는 사람 안에도 비굴함이 있고, 아주 악명 높은 이 안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것이 숨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가끔 구상 선생님 생각이 나요.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할 사람들까지 다 품어주고, 주례해 달라면 주례도 해주고 그러셨죠. 환속한 사제한테 당신이 자꾸 주례 서주니까 추기경님이 벌레 씹은 얼굴로 보더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아,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하니, 답이 명답이었어요. ‘사람들이 우정을 틀 때 장점부터 트지만, 나는 단점부터 튼다. 좋은 점만 보고 누군들 친구를 못하겠느냐. 손가락질받는 이라 해도 친구가 있어야 사니, 그 역할을 내가 하겠다’ 그래요. 우정에 대한 지론이죠. 나도 그걸 본받아서 상처 많은 이들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그이들 마음을 열려면 공도 많이 들고 과민 반응도 받아야 하고 힘들죠. 지성적으로 멋있는 사람 만나면 나도 점잖고 좋아요. 하지만, 해야죠. 내가 먼저 해야죠.<br/><br/>안= 나이 들수록 종교를 찾는 친구들이 늘어요. 부름을 받았다며 열성을 보이고, 많은 기성세대들이 종교 따라 투표도 하고 광장에 나와 싸우기도 합니다.<br/><br/>이= 선교에 열을 올리고 그러는데, 난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못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번 교황님은 ‘개종을 강요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 제일 당황스러운 질문이 사람들이 나 보고 예수님 언제 영접했느냐는 건데 그러면, ‘영접요?’ 난 그러거든요. 생경하게 들리니까. 영성생활에서 드라마틱한 어떤 것을 꿈꾸는 거, 위험하다고 느끼거든요. 꾸준히 평범해야 하는데 드라마틱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아닐 때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 수도생활도 그래요. 수녀원에서 우리는 우스갯말로 너무 열심히 하는 걸 두려워한다고 해요.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때는 불에 타죽을 것처럼 그러다가 조금만 감미로운 기운이 떨어지면, 못 견디는 거야. 차라리 그 기운을 좀 아껴서 꾸준하게 한결같이 가는 걸음 그게 참 중요한 건데. 캄캄하고 암흑 같은 인생길이 오히려 더 정답입니다. ‘꿈에 나타나셨다’ ‘답을 주셨다’ 그러는 모습들… 많은 경우 난 거기서 아픔 같은 걸 느껴요. <br/><br/>안= 자기가 약해서 매달리려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합리화일까요?<br/><br/>이= 도움받고 싶은 거죠. 자기 위로 내지는.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판단 보류의 영성, 내가 종교학에서 배운 이론인데, 이게 실생활에 무척 도움이 되어요. ‘인간에 대해서 판단은 보류하고 사랑은 빨리하라.’ 보류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그러잖아요.<br/><br/>안= 익숙한 말로 설명하면 뭘까요?<br/><br/>이=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겠죠. 제가 얻은 결론은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 잘나면 얼마나 더 잘났겠어요. ‘참 너도 노력하는데 뜻대로 안되지?’ 이렇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제 결론이에요.<br/><br/>안= 하느님을 만났다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말하는 신념을 이해해 보면, 혹시 큰 대상에 의지하면서 순해진 자신을 불러낸다는 그런 겸손의 뜻도 있지 않나 싶어요.<br/><br/>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달빛처럼 스며드는 꽉찬 빛의 느낌, 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에 박혀 나타나는 그런 하느님 말고, 내 존재 안에 달빛처럼 스며들어서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친척처럼 열린 이것을 나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보고 싶어요. 나도 이기적이고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다 내 식구같이 뭐라도 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진 거, 또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고통스럽지만 원망하지 않고 이 아픔을 통해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씩씩하게 견뎌내는 이 힘, 이것을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고 싶지. 성모님이 나타나서 안아주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꿈을 꿀 수는 있겠죠. 나도 반 투안 주교님이 나타나서 성경책을 주는 꿈을 꾸긴 했어요. 그러나 그런 건 지나간 부분이고 거기에 취하면 안되는 거죠.<br/><br/>안= 수도의 길이 차근차근 익어가는 깨우침이라는 건가요?<br/><br/>이= 일상의 그 길,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깨우침도 대나무처럼 매듭이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안 풀려서 또 그렇게 있다가 또 다시 맺고, 그런 거 아닐까. 거룩함에 대한 개념도 지혜롭게 해야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귤과 사과가 있어요.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 하는 것도 아름답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굶주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안 먹고 극기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랑이라고 하면, 이 극기한 사람이 먹은 사람을 ‘너는 탐욕스럽다’고 막 비난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게 판단보류죠. 근데 우리는 안 먹은 사람이 먹은 사람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그럴 때 우리끼리 ‘저 사람 상투스야, 상투스’(‘거룩하시다’로 시작되는 성가곡)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해서가 아니라 입만 열면 거룩한 소리로 남한테 부담을 준다, 이 소리거든. 그래서 ‘천사표’ ‘거룩하다’고 말 듣는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함정이 있으니까. 맛있게 먹고 남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고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더 겸손할 수가 있어요.<br/><br/><br/>안= 매일 SNS를 뒤덮는 이야기가 비판과 , 또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잘난 척 말라는 비판인데, 사람의 심사가 살랑살랑합니다.<br/><br/>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지식 습득은 그만하고 인간을 해석해서 배려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야겠죠. 이런 시대에 부모 노릇하기 얼마나 힘들까요? 엄마 노릇 하기도 힘들고, 아내 노릇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같은 사람이 성경에 있는 말만 가지고 가정생활 하는 사람한테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면 그것도 겸손하지 못한 거지. 강연을 마치고 사인을 해 줄 때도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사인하는 걸 세속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난, 그 걸음을 해서 온 마음들을 지나칠 수가 없어는 거예요. 그 30초, 1분 안에 별걸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발달장애인데 수녀님 한 마디만, 우리 아들이 알코올 중독인데 수녀님 한 마디만, 다 그래요.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 마음들을 알게 된 다음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꽃 그리고 스티커 붙여주고 하는데, 꽃 그리다가 또 높은 음자리표 그리면 ‘어머 수녀님, 제가 성가대하는 줄 어떻게 아셨어요?’ 해요. <br/><br/>거기다 ‘내가 알긴 어떻게 알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초를 치면 안되지. 그럼 또 ‘아, 수도생활 사십 몇 년 하다 보면 필(feel)이 다 옵니다’ 그러지(웃음).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교감하는 거지. 그들 중의 한 사람으로 내가 있고 싶고. 내 글을 사랑해주니까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잘 나서가 아니잖아요? 겸손이 기본 덕인 거 같아요. 특히 수도 생활은. 자기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겸손.<br/><br/>안= 약점을 자랑한다고요?<br/><br/>이= 사도 바오로가 ‘내가 자랑할 것은 약점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살면 살수록 알겠더라니까요. 아! 약점을 자랑하는 용기가 있으면 살겠구나. 언제나 망신당할 각오가 있는 사람들은 살아요.<br/><br/>안= 약점을 드러내도 안전할까요?<br/><br/>이= 그렇게 봐주는 사회가 되어야죠 마침내. 근데 우리 정치인들도 약점을 자랑할 용기가 부족해요. 남을 탓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게 안되나봐요. 우리나라 현 정부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러고, 저기 일본 총리도 그러고. 인간이 참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다고 할까. 오히려 어리석은 용기가 필요한데 말이에요. 김수환 추기경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탓했는지 아세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말로만 하고 같이 살아보질 못해서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면서도. 또, 그분도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랬어요? 기자가 ‘이렇게 사제단 신부 중에 한 분이 강력하게 비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더니 ‘그럴만한 요소가 있으니까 나도 비난을 받는 거다’ 하셨죠. 저분은 항상 어리석음과 약점을 드러내놓고 사시는구나. 참 닮고 싶다 느껴지더라고. 굉장히 크고 덕을 이룬 분일수록 언어가 달라요.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한다고 할까? 젠체하거나 경건을 따지지 않고 자연스럽죠. 교황님도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고 하신 말, 얼마나 인간적으로 밀려와요. 근데 문제는 교황님이 다녀가고 그 감탄이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교우들은 교우들대로 회심이 일어나고 대중은 대중대로…. 참, 그러니까 교황님이 여러 번 다녀가셔도 현재의 리더들이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걸 또 배우는 거죠.<br/><br/>안= 세월호, 아직도 많이 아프시죠? 최근 수녀님 에세이에서 제일 먼저 침몰 소식을 전하고도 구조되지 못했던 최덕하군 어머니의 문자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중에, 자기 생명도 나눠줄 수 있다면 필요한 이들에게 주고 바람이 되어 아들 곁으로 날아가고 싶다는 어머니의 고백이 서늘하게 마음에 박혔는데요. 정작 수녀님이 보낸 메시지나 위로의 마음은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 의아했습니다.<br/><br/>이= 여러 신문사에서 청을 받았죠. 글을 써달라고. 못쓰겠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진 청탁 오면 다 썼어요. 미국에서 한인 학생 총기 난사 사건이 났을 때도, KAL기 폭파 때에도, 또 중국 민항기가 떨어져서 사람 몇 백명 죽었을 때는 그 사이트까지 가서 글을 남겼어요. 그때가 2002년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월드컵에 빠져있을 때. 해마다 여름이면 깨꽃이 핀다잖아요. 그때 승객들이 중국에서 깨를 봉지봉지 사가지고 와서 깨가 다 풀어져 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랬는데, 세월호는 아무리 쓰려고 해도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 어떡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겨울에 책을 내면서는 뭐라도 마음 한 조각 넣고 싶은데, 그때까지 시도 안되고 산문도 안 나오고. 그러다 덕하 어머니가 보내오는 메시지가 있어 그 내용을 넣었던 거죠. 세월호 사고 나고 부산이랑 시청에 가서 국화꽃을 바치고는 했는데, 막상 현장에는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팽목항에도 우리 수녀님들이 대신 가고. 아이들을 가장 많이 잃은 안산 와동 성당에는 우리집 수녀님 세 분이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덕하 엄마는 그 인연으로 여기 다녀간 거고요. 그 부모들 마음을 생각하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우리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 아이들을… 우리가.<br/><br/>안= 어른이 되면 슬퍼도 맘 놓고 슬퍼하기가 어려워요. 남은 헤아리지 못하는 슬픔이고, 게다가 지금 유가족들은 왜 아직까지 그러느냐는 사회적 비난에도 시달립니다. 아픔에서 빠져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br/><br/>이=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고, 함께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말로도 사실 위로가 안되거든요. 내가 쓴 시 중에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것도 겸손이 필요하다’ 그런 글이 있어요. ‘슬픈 사람들에게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마음의 말을 은은한 빛깔로 만들어 눈으로 전하고 /가끔은 손잡아 주고 들키지 않게 꾸준히 기도해 주어요. /슬픈 사람들이 슬픔의 집 속에만 숨어있길 좋아해도 너무 나무라지 말아요. /훈계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그가 잠시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대책 없이 울면 같이 울어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위로에도 인내와 겸손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함께 배워가기로 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 같아요.<br/><br/>안= 다들 고달프고 불안하니까 어딘가에 탓을 만들고 각박해지는 거 같아요.<br/><br/>이= 강의하면서 눈을 마주치면 이 시대의 한국 남성들, 아빠들도 참 고달프구나, 내 마음이 짠해져요. 내가 말로라도 ‘힘들 때가 많으시죠’ 그러면 막 울려고 해. ‘그래서 김현승 시인이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그 말 들으니 위로가 된다고 하고. 마음 안에 다들 보이지 않는 슬픔과 공허함이 있는 거죠. 10대에 읽었던 시인데, 칼 붓세라는 사람이 썼어요. ‘산 너머 저쪽 더욱 멀리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나는 그를 찾아 남 따라 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되돌아왔네.’ 그래요. 멀리 있는 게 아닌 걸 우리도 알죠. 근데, 알면서도 계속 멀리 따라가요. 또 언젠가 한 번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이런 게 인간의 어리석음인가 보다 생각하면, 그래도 이 어리석음 때문에 오늘을 살지, 맨날 죽음을 생각하면 허전해서 어떻게 살겠나 싶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정말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기에 답이 있겠죠.<br/><br/><br/>안=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조언이 있다면요.<br/><br/>이= 차가운 이성의 부름을 가져다 나 스스로 조절해야지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거 같아요. 내 문제를 남들이 들어주기는 해도, 결국 그 남이 나는 아니거든요. 내가 나의 수련장이 되는 수밖에. 나도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수도 생활 50년을 했으면서 이것밖에 안되나 싶고. 내가 이상적으로 그려보는 그런 덕스러운 모습을 왜 정작 나는 못 가지고 있나.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죠. 그런데 이런 나에게 간혹 독자들이 ‘수녀님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 내가 길을 안 바꾸고 여기서 버티길 잘했구나’ 환희심이 차올라요. 제가 불교에서 좋아하는 단어가 환희심인데, 기쁨보다는 더 스며드는 마음 같다고나 할까. 햇볕이 들어와서 방을 덥혀주듯이. 그렇게 마음 얻어가며 사는 거죠.<br/><br/>안= 햇볕이 방을 덥혀주듯 배려의 온도가 높아지는 시절이 되면 좋겠어요.<br/><br/>이= 춥고 아플 때 햇빛 한 줄기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광안리 바다에서 해가 올라오는 거예요. 눈을 못 뜰 정도로 눈부셨어요. 그때, 해 아래 사는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햇볕과 함께 있는 거구나. 네, 달과 해를 통해서 우주 만물의 신비와 나 자신의 적응과 모든 인간의 지구 상의 연결을 느낍니다.<br/><br/>해인 수녀의 여닫이장에는 147권의 노트가 있다. 그날그날의 메모가 적힌 일기장이다. 아무거나 꺼내 펼쳐 봐도 된다고 하길래 ‘보여주려고 쓰셨어요?’ 물으니 껄껄 웃으신다. 나이가 드니 이젠 다 아무렇지도 않다며.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70년을 맞았다. 이해인 수녀와 같은 나이다. 털어야 할 앙금도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용기로 풀고 햇볕 한 줄기 따뜻한 마음 모으면 어떨는지.<br/><br/>2014년 4월19일, 세월호가 침몰한 지 나흘째 되던 날, 해인 수녀의 일기장에는 ‘몸속의 슬픔, 몸속의 겨울’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슬픔도 얼어붙어 토해지지 않는 아픔이었나 보다. 지금도 아스팔트 냉골에 무릎을 찧고 등을 누이는 유가족들에게 해인 수녀의 마음이 닿기를 바란다.<br/><br/><글 안희경 재미 저널리스트·사진 정연순 작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18.txt

제목: 세월호 의인 박지영씨 모교서 추모제  
날짜: 201504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1510016972235  
본문: 세월호 참사 1주년을 하루 앞둔 15일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승객 탈출을 돕다가 숨진 승무원 박지영씨(당시 22세)를 기리는 추모제가 그의 모교에서 열렸다.<br/><br/>이날 오전 경기 화성시 수원과학대학교 ‘박지영 홀’에서 진행된 추모제에는 검은색 옷을 입고 근조 리본을 단 학생과 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br/><br/>추모제는 박지영 홀 입구에 설치된 박씨의 얼굴을 새긴 부조 동판에 헌화,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 추모사, 박지영 봉사장학금 수여, 희생과 봉사정신에 대한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br/><br/><br/><br/>김응권 수원과학대 학생복지처장은 추모사에서 “<span class='quot0'>일년 전 박지영 학우는 차디찬 바닷물이 모든 것을 삼킬 듯 덮쳐 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승객들을 구조하다 우리 곁을 떠났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리는 그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주변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박씨의 살신성인을 기리기 위해 이번 학기에 신설된 박지영 봉사장학금은 박씨의 학과 후배인 산업경영학과 학생 2명이 받았다.<br/><br/>수원과학대는 학기마다 봉사와 희생정신이 투철한 학생 2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매년 박씨를 추모하는 백일장을 개최하기로 했다.<br/><br/>추모제에 참석한 김민주 총학생회장(22)은 “<span class='quot1'>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몸소 보여주고 떠난 선배가 자랑스럽다</span>”며 “<span class='quot1'>우리 후배들도 선배의 정신을 잊지 않고 이어받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박씨가 졸업한 시흥고등학교도 16일 오후 교내에 조성한 지영동산(학교 숲)에서 추모식과 함께 추모비 제막식을 열 예정이다.<br/><br/>1ｍ 남짓한 높이의 추모비는 동문회, 학생회,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교직원회 등이 함께 세운 것으로 앞면에는 ‘6회 동문 의사자 박지영을 기리며’라는 비문이, 뒷면에 1학년 홍지윤 학생이 쓴 ‘4월의 그날’이라는 제목의 시가 새겨져 있다.<br/><br/>‘피기도 전에 져버린 꽃/ 그대가 희생한 한 인생은/ 이미 그 존재만으로도/ 향기가 되어 남았습니다…’로 시작되는 추모시는 시흥고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열어 대상으로 선정한 작품이다.<br/><br/>시흥고는 백일장 입상작 10여편을 모아 추모 시화전도 함께 연다.<br/><br/>강호경 시흥고 교장은 “<span class='quot2'>우리에게 큰 슬픔을 주었던 세월호 사고에서 학생들의 목숨을 구하고 의롭게 명을 달리한 고인을 기리고자 시흥시가 학교 숲을 조성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 기념 조형물을 제작하게 됐다</span>”고 말했다.<br/><br/>박씨는 2011년 수원과학대에 입학했지만 이듬해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와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휴학계를 냈다. 이후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에 입사해 세월호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던 중 참사 당시 승객들의 대피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다.<br/><br/><a href="http://sewol.khan.co.kr/memorial/" target="\_blank"><strong>☞ [세월호 1년] 진실 인양을 위한 '노란풍선'을 달아주세요</strong></a><br/><br/><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19.txt

제목: 옌볜 조선족 출신 박연옥씨, 미국 암학회 ‘젊은 과학자상’  
날짜: 2015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14100000119  
본문: 옌볜 조선족 출신의 서울대 박연옥 연구원(32·사진)이 미국암학회가 주는‘젊은 과학자상’을 받는다. 서울대 약대 종양미세환경연구센터는 박사 과정 중인 박 연구원이 18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미국암학회 연례 학술대회2015’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한다고 13일 밝혔다. 박 연구원은 논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유도된 인산화를 통한 위암세포의 미토파지 촉진>을 통해 위암이 생기는 과정에서 암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새 신호 전달 양식을 관찰했다. <br/><br/>조선족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옌볜대 약대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5년 전 서울대로 유학온 그는 “앞으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주요 메커니즘을 밝히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20.txt

제목: [박점규의 노동여지도]관광 제주 노동자들 미소 속의 뒤안길  
날짜: 2015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14100000025  
본문: [박점규의 노동여지도]<br/>2009년부터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지금은 호텔업계 최대 호황기다. 호텔마다 빈 객실이 없다. 신축 공사로 객실이 해마다 1만개씩 늘어날 정도다. 떠나간 관광객이 돌아와도 도급으로 떠난 직원을 돌아오게 하지 않는 호텔, 관광 한국이다.<br/><br/>제주공항에 착륙한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차례를 기다린다. 자그마한 창밖으로 공항의 풍경을 본다.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고, 수신호에 따라 대기하던 비행기가 공항 건물 가까이 주차한다. 카고 차량 주위로 형광 띠를 두른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보인다. 활주로 가운데 멈춰선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내린다. 기다리던 버스가 태워 공항 건물로 향한다. 공항 활주로가 혼잡스럽다.<br/><br/>중국 관광객 급증으로 제주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이 7만명 안팎이다. 시설규모가 5배가 넘는 인천공항 이용객의 75%에 이른다. 국내 공항 중에서 제일 붐빈다. 한참 만에 비행기 문이 열린다. 승객들을 무사히 수송한 조종사와 승무원의 임무는 끝났지만 보이지 않는 노동은 계속된다. 비행기에서 화물을 운송해 컨베이어에 옮겨 싣는다. 수신호로 비행기를 이동시킨다. 비행기를 정비하고 기름을 넣는다. 비행기 내부를 청소한다. 보이지 않는 이들의 노고가 없다면 비행기는 하늘을 날 수 없다.<br/><br/>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오한정 조직국장은 제주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기내 물품 정리와 청소를 하는 노동자들을 만났다. 10년 넘게 일한 노동자의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2014년 4월 20명 중 13명이 모여 제주공항 아시아나객실분회를 결성하고 하청업체인 비에스제주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호봉제를 도입해 월급이 평균 20만원가량 올랐다.<br/><br/>조종사, 스튜어디스, 사무직은 아시아나항공 직원이다. 이들은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노조 조합원이다. 비행기 수신호, 급유, 정비, 화물운송 노동자는 아시아나에어포트라는 계열사 직원이다. 기내 청소 노동자는 하청업체인 비에스제주 소속이다. 모두 아시아나항공사를 위해 일하지만 처지는 천지 차이다.<br/><br/>전국 14개 공항 노동자 65%가 비정규직<br/>공항 청사를 둘러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제주공항을 포함해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직원은 1753명,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3225명이다. 공항을 운영하는 노동자의 65%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 85%를 넘는 인천공항보다는 적지만, 제조업에서 간접고용 비율이 가장 심각한 조선소 수준이다. 공항 사장은 용산 철거민을 살인 진압해 6명을 숨지게 한 이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 그는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더욱 더 매진”하겠단다. 그에게 ‘더불어 행복한 사회’의 구성원에는 철거민이 없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있을까?<br/>제주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일하는 정경숙씨(42)는 제주 토박이다. 한동리 바닷가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2004년 부루벨코리아에 입사했다. 루이비통, 크리스챤디올, 펜디 등 25개 명품 브랜드를 수입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회사다. 1960년에 한국지사가 만들어졌다. 제주에는 5개 면세점 200여명이 일한다.<br/><br/>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 관광객이 몰려들자 매출이 급증했다. 쇼핑을 위해 제주를 찾는 단체 관광객들을 상대로 매일매일 전쟁을 치러야 했다. 조기 출근과 연장 영업이 계속됐다. 그러나 면세점 판매원들의 처지는 말이 아니었다. 부루벨코리아 어느 브랜드는 2010년 기본급이 63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9년 엔고 현상으로 매출이 두 배로 뛰었지만 회사는 임금을 동결했다. 서울에 있는 직원들이 모였고, 전국의 점장들과 연락을 취했다. 거사일은 10월 4일, 천사일이었다. 지역에 노동조합 설립을 알렸다. 제주에서만 100여명이 노조 가입원서를 썼다. 전국 매장 1000여명의 직원 중에서 700여명이 함께했다.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에 가입했고,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 진정서를 냈다. 약 6억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성실하게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회사가 노무 자문을 의뢰했던 곳은 노조 파괴로 악명 높았던 창조컨설팅이었다. 2011년 5월 11일 제주시청을 시작으로 명품 판매노동자들이 분노의 행진을 시작했다. 7월 20일, 마침내 노사 간에 협상이 타결됐고, 임금이 대폭 올랐다.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면세점의 지각변동을 가져왔어요. 직원을 데리고 가려면 월급을 더 줘야 하니까 면세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좋아진 거죠.”<br/><br/>노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경숙씨와 신라면세점을 돌아본다. 아침시간에도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빈다. “노조 만들어지고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신입사원 들어오면 꼭 노조에 가입하라고 하죠. 노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조합원이 되고 싶어요.” 명품 가방 로에베(LOEWE) 이정은 매니저의 ‘아부’에 경숙씨가 한바탕 웃음을 터뜨린다. 그녀는 일어를 전공했지만 지금은 중국어를 모르면 일을 못한다. “요즘 감정노동이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노조 가입하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이런 게 노조의 힘이죠.” 정은씨의 할아버지는 제주 4·3 항쟁에서 돌아가셨다.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4월 3일 4·3 공원묘지에 갈 예정이다.<br/><br/>정경숙 사무국장이 3층 화장품 코너 크리스챤디올에 들러 황영인 조합원에게 상품권을 건넨다. 노조가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행사로 연 ‘신생아 모자 뜨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처음 해보는 뜨개질이라 5일이나 걸렸단다. “노조가 없는 곳과 차이가 많이 나죠. 직원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br/><br/>명품 가방 가격이 200만~300만원, 지갑도 100만원이 넘는다. 샤넬 시계 가격은 7100만원이 붙어 있다. 몽블랑 볼펜이 176만원이다. 지도교수에게 바치는 뇌물성 선물로 이용된단다. 한 달 일해서 번 돈보다 비싼 볼펜을 파는 노동자들이 오늘도 떼로 몰려드는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환한 웃음을 지으며 감정노동을 한다.<br/><br/>청년 상대로 희망고문하는 특급호텔들<br/>제주 시내 특1급 호텔인 더호텔 커피숍. 예약마케팅을 담당하는 이창주씨(44)는 호텔리어 부부다. 아내는 중문의 롯데호텔에서 일한다. 시내에는 칼, 그랜드, 오리엔탈, 라마다프라자호텔이 특1급이다. 중문관광단지에는 신라, 롯데, 하얏트가 있다. 칼호텔과 더호텔은 민주노총, 그랜드와 하얏트는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있다.<br/><br/>호텔 입구에 긴장한 모습의 앳된 호텔리어가 보인다. 인턴 사원이다. 15년 전 창주씨도 대학을 졸업하고 이 호텔에서 손님 가방을 들어주는 일부터 시작했다. 당시에는 영어와 일본어가 기본이었다. 지금은 외국인 투숙객 중 80%가 중국인이다. 중국어 공부에 머리를 싸맨다. 인턴 1년, 계약직 1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단다. “한 호텔에서는 인턴 기간 2년이 되기 전에 시험을 치러 잘라내고, 다시 인턴을 뽑는 일을 반복해요. 대기업이 청년들을 상대로 희망고문을 하는 거죠.”<br/><br/>호텔에는 예약과 영업을 담당하는 객실부, 식음료, 조리팀, 시설부, 룸메이드 업무가 있다. 2005년이었다. 관광객들이 줄어들자 호텔 업무를 도급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노조가 없는 호텔부터 무너졌다. 룸메이드, 시설, 청소업무를 하청업체로 넘겼다. 일부 호텔에서는 식음료 업장도 도급을 줬다. 관광객이 줄었다는 이유로 어제 정규직이 하던 일을 오늘 비정규직이 하게 했다. 2005년 더호텔(당시 크라운프라자호텔) 노동자들은 53일 동안 파업을 벌였지만 도급화를 막아내지 못했다. 노조는 깨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회복됐다. 현재 호텔에서 일하는 130명의 노동자 중에서 객실부, 식음료, 조리팀에서 일하는 80여명은 직영, 나머지는 하청이다. 지금은 시설부문을 재직영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br/><br/>2009년부터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지금은 호텔업계 최대 호황기다. 호텔마다 빈 객실이 없다. 신축공사로 객실이 해마다 1만개씩 늘어날 정도다. 떠나간 관광객이 돌아와도 도급으로 떠난 직원을 돌아오게 하지 않는 호텔, 관광 한국이다.<br/><br/>“저희 호텔 신입사원 연봉이 3000만원 정도예요. 노동조합에서 ‘하후상박’ 원칙으로 교섭을 하니까 경력이 짧은 직원들은 신라나 롯데보다 처우가 낫죠.” 조만간 지분 매각으로 경영진이 바뀐다. 고용보장은 합의되어 있다. 새 경영진이 도급으로 넘긴 일자리를 직영으로 되돌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까? 인사총무팀으로 노사 교섭에서 회사 측 교섭위원으로도 일했던 이창주 노조분회장은 직원들을 위하는 길이 곧 회사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는다.<br/><br/>직원 120명에서 35명으로 준 식물원<br/>공항 리무진 버스가 평화도로를 달려 중문관광단지 여미지식물원으로 향한다. 아침에 만난 김동도 전 민주노총 제주본부장(53)의 미소가 떠오른다. 그는 1989년 12월 1일 학교를 졸업하고 스물일곱에 첫 직장으로 여미지식물원에 입사했다. 1995년 삼풍산업 자회사 계우개발이 한국관광공사에서 3만4000평 부지를 사들여 1989년 10월 12일 개장한 식물원이었다. 1994년에는 관람객 140만명을 돌파해 제주 최대의 관광지로 성장했다. 1995년 6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자, 삼풍그룹은 보상 차원에서 자회사인 여미지식물원을 서울시에 기부했다. 그와 동료들은 노조를 만들고 서울시를 상대로 100일 동안 전면파업과 상경투쟁을 벌여 비정규직을 포함해 114명 전원 고용을 승계 받았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2005년 4월 부국개발에 여미지식물원을 팔았다. 김동도 전 본부장은 2008년 1월 정리해고, 2011년 1월과 2012년 8월 징계해고를 당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그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013년 6월 위암이 발병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항암치료를 받았다.<br/><br/>암 투병도 극적이었다. 감기 한 번 앓지 않을 만큼 건강한 몸이었다. 단지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한라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커다란 암 덩어리가 발견됐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11개월 동안 항암치료만 받았다. 동지들이 치료비를 모아줬다.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을 옮겼다. 의사는 암을 완전히 제거할 확률이 10%라고 했지만 ‘생명 연장’만 할 수는 없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지금까지 경과는 좋다. “<span class='quot0'>제가 민간보험은 하나도 없는데 사람보험을 많이 들었는지 좋은 분들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span>” 그는 몸이 완쾌되면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노조 조직률도 10%.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처럼 노동조합을 지키는 일이 어려운 나라다. 10%의 가능성을 믿고 수술대 위에 오른 그처럼 살맛 나는 일터를 위한 노동자들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br/><br/>여미지식물원 노조 사무실, 5명의 여성 조합원들의 모였다. 30분 휴식시간이다. 맏언니 김문희씨(47)는 1990년 6월 10일 식물원에 들어왔다. 식물원 야외 잔디광장에서 전국노래자랑이 열렸었다. 식물 안내를 하던 그녀는 부국개발이 인수하면서 식물 판매, 주차장, 매표소로 이리저리 팔려 다니다 지금은 잡초를 뽑는다. 1997년에 입사한 막내 강혜숙씨도 마찬가지다. 식물원 직원이 120명에서 35명으로 줄어든 사이 120만명이던 관광객은 40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span class='quot0'>회사가 미워해서 뽑으려 하면 할수록 뽑히지 않는 게 검질이에요.</span>” 강영이 조합원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인다. 검질은 잡초의 제주도 말이다. “하루 일을 하고, 아침 점심 저녁에 선전전을 하고, 집에 가면 아이들 챙겨 먹이고, 힘들죠. 서로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하지만 해고됐다가 싸워서 복직한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회사를 바꾸겠어요? 분회장 믿고 정년까지 가보자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br/><br/>조합원들이 짧은 수다를 뒤로 하고 일터로 나간다. 식물원을 한 바퀴 돌아본다. 지역에만 분포하는 토종 식물들이 즐비한 여미지. 제주도는 아름다운 식물원 인수를 거부했고 돈밖에 모르는 회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기에 바쁘다. 온실식물원 입구,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조합원들이 벽면에 달라붙어 이끼를 없앤다. 웨딩드레스를 차려입은 신랑 신부들 사이로 보이지 않는 노동이 식물원을 가꾼다.<br/><br/>하루 일과를 마치고 식물원 정문 앞에 선다. 관광객들이 ‘8년째 임금동결, 직원은 120명에서 35명뿐’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오한정 국장이 외친다. “<span class='quot0'>제주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찾아갈 때마다 관광지를 가꾸고 꾸미는 노동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span>” 4·3 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강정마을로 향한다. 비바람이 불어온다. 야자수가 심하게 흔들린다. 기업의 이윤이라는 바람 앞에 작은 꽃과 나무들의 뿌리가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21.txt

제목: [비상식의 사회]새마을운동 덕에 농촌이 잘살게 되었다?  
날짜: 2015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14100000026  
본문: [비상식의 사회]<br/>“아이로니컬하게도 새마을운동 또한 농민들의 큰 짐이 됐다. 저곡가로 농촌은 몰락해 갔고 환경 개선 등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 10년간 농가 부채는 21배나 늘었다”<br/><br/>불당골이라는 시골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새벽에 누군가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잠이 깼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부역을 나오라고 소리쳤다. 부역이 뭐냐는 말에 아주머니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알고 보니, 부역이라는 것이 추석을 앞두고 마을 길가의 풀을 베는 공동작업이었다. 그 뒤로도 부역은 몇 차례 더 있었고, 사정이 있어 빠지는 바람에 벌금으로 5만원을 내기도 했다.<br/><br/>마을 일을 공동으로 하는 두레야 오래된 미풍양속이라고 배웠지만, 막상 세금을 꼬박꼬박 받아먹는 관청은 뒤로 물러나 있고, 삯은커녕 벌금만 있는 ‘부역’에 새벽부터 불려나가는 게 마뜩잖았다. 문제는 그런 불만을 가진 이들이 별반 없다는 것이다. 말 많으면 공산당, 불평하면 빨갱이라는 소리나 듣기 십상인 촌에서 별쭝맞게 따지고 나설 입장도 못 되었다.<br/><br/>아버지 박정희 이어 제2 새마을운동<br/>부역에 나가면서 알게 된 일이 아직도 ‘새마을 지도자’가 생존해 있으며, 그런 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었다. 왕년에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고, 새마을운동에 삽 들고 나선 사람들에게는, 임은 갔어도 새마을운동은 살아남아 있었다.<br/><br/>그 새마을운동이 아버지 박정희에 이어 영애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러 제2의 대약진을 맞이할 태세라 한다. 그 좋은 운동을 이 나라에서만 지니고 있기 안타까워 미얀마나 라오스, 멀리 아프리카의 르완다까지 전파하기에 힘쓴다 하니 가히 세계적인 공업이며,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해 인류사에 길이 남길 위업이 아닐 수 없겠다.<br/><br/>얼마 전에는 세네갈에서 주민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본받아 보급하기로 했단다. 다른 건 밀어두고, 주민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한 새마을운동이라는 대목에서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br/><br/>1971년 근면·자조·협동의 거룩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3만3267개 마을의 주민들에게 정부가 시멘트 335부대씩을 지원하여 시작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 과연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것일까.<br/><br/>아는 시인이 강원도 산골짝에서도 한참 들어간 곳에 집을 지었다. 사방을 둘러봐도 첩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다는 농가의 지붕도 슬레이트로 덮여 있었다. 차도 들어서지 못하는 그 후미진 농가가 어떻게 지붕 개량사업에 참여했을까. 장날마다 산을 몇 개나 넘어 슬레이트를 지게로 져 날랐다고 한다. 새마을운동은 두메의 초가삼간도 예외가 아니었다. 면사무소 벽마다 통계표를 매달아놓고, 새벽부터 면 서기들이 자전거를 몰고 달려와 이장을 들볶는 통에 6·25 때도 전쟁이 났는지를 몰랐다는 두메산골의 삶도 온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br/><br/>“새마을운동은 농민들의 자발성과 능동성, 자조 정신이 무엇보다 강조되었지만, 그러한 표방과는 달리 국가의 정책은 효율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강압적으로 시행된 측면이 있다. 농민들은 잘살기 위해 참여했지만, 그들의 잘사는 내용과 방향을 결정해 준 것은 국가로, 농민이 운동의 자율적 주체라고 보기 힘든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br/>내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실려 있는 말이다.<br/><br/>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굴욕적인 한일협정의 지원금으로 구로 등지에 공단을 지어 농촌의 젊은이들을 헐값 노동력으로 끌어낸 일이다.<br/><br/>지금의 농촌 공동화는 그로부터 배태된 셈이다. 도시 발전을 위해 곡가를 붙들어 매 농촌 살림이 어려워지자,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그러자 똥 싼 놈이 눈 부라린다는 격으로, 농촌이 가난한 건 겨울에 나이롱뽕만 치고 게으른 탓이라고 버럭 화를 낸 게 누굴까. 마을마다 확성기 하나 매달아주고, 새벽부터 자신이 작곡한 ‘새벽종이 울렸네’란 노래로 단잠을 깨워 품삯도 안 주는 부역으로 촌사람들의 허리를 휘게 한 것이 누구일까.<br/><br/>빚까지 내서 할 만한 운동이었는가<br/>이 ‘가난한 농민의 자식’이 농민을 위해 한 일이라곤, 모내기 때 ‘대한뉘우스’ 카메라 앞에서 발목 걷고 논에 들어가 모를 몇 포기 심고선 촌로와 막걸리를 마시고, 저녁이면 안가에서 여대생 끼고 시바스리갈을 마신 것이요, 이 가난한 농민의 자식이 농촌의 발전을 위해 기껏 했다는 게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꾼 것이 고작이다.<br/><br/>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보릿고개를 면하고 잘살게 된 것이 새마을운동 덕이라는 말이 사실일까. 긴말 말고 통계를 들여다보자. 정길환의 <우리들의 현대 침묵사>란 책에 따르면 “수출을 위해선 저임금 정책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저곡가 정책이 강행됐던 시절. 저곡가로 농촌은 몰락해 갔고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중화학 우선 정책은 결국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놓았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새마을운동 또한 농민들의 큰 짐이 됐다. 환경 개선 등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 10년간 농가 부채는 21배나 늘었다.”<br/><br/>고향 집 앞에는 개울이 있었다. 봄이면 복사꽃이 떠내려오고, 여름밤이면 반딧불이가 날아다니고, 멱을 감던 개울이었다. 부지깽이까지 일손을 거든다는 농번기에도 질통을 짊어지고 품삯도 없는 일에 동원된 새마을운동 덕에 개울은 시멘트 도랑이 되었다. 깔끔해 보였는진 몰라도 시멘트 도랑은 장마만 걷히면 이내 말라붙었다. 빨랫돌 밑에 엎드려 있던 구구리도, 은화처럼 비늘을 번쩍이던 피라미도, 여름밤에 아련히 날아다니던 반딧불이도 사라지고, 지금은 오물만 질금거리는 하수구가 되어 버렸다.<br/><br/>유일하고, 가시적인 성과라 일컬어지는 초가 지붕개량은 급조한 대체물인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지면서, 이제는 걷어내려고 해도 골칫덩이가 되었다. 시멘트로 바른 개울은 걷어내어 생태하천으로 만드느라 턱없는 돈이 들어가고, 곧게 포장한 도로는 산촌마을 만드느라 벗겨내어 구부리기 바쁘다.<br/><br/>새마을운동이 아니면 지금의 농촌이 있었겠느냐는 물음에 되묻는다. 그것은 새마을운동 덕도 아니오,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능력보다 범국민, 범국가라는 말에 억눌려 끌려나오고, 불평 한 마디 찍소리도 못한 민초들의 삯도 없는 땀과 눈물의 결과일 뿐이다.<br/><br/>대표적인 농촌 현실을 다룬 이문구의 소설을 되읽어 본다.<br/><br/>“그건 워디까장이나 긔네 사정여, 그 새마을운동이 한참일 적에 내가 땅을 얼마나 뺏겼는지는 한동네서 살었던 자네가 더 잘알껴…. 마을 안길 넓힌다구 한 구텡이 비여갔지, 공동 축사 맹근다구 한 모서리 도려갔지, 마을회관 앞마당 닦으면서 멀쩡한 밭 오려갔지, 고샅길 포장헐 때 자가웃씩이나 먹어들었지…… 마을 꽃동산 가꾸기 헐 때 그랬지, 사에치 표석이라나 지랄이라나 해 박으면서 그랬지, 올림픽 때 호돌이상인지 얼룩괭이상인지 세울 때 세멘 공구리 비벼서 논 한 배미 절딴내 놨지…. 그때는 심으루 누르던 무단시대라 찍 소리두 못 허구 당해버렸지만 이제는 어림두 없으니, 암.”<br/><br/><br/>근면·자조·협동을 모토로 진행된 ‘새마을운동’. 제2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후진국·개발도상국에 모델을 수출할 만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성공모델일까. 사진은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진행한 ‘아프리카 우간다와 탄자니아 새마을운동시범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모습. | 경향신문 자료사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22.txt

제목: 한국찾은 존스홉킨스병원 외과의사  
날짜: 2015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1310016945589  
본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갖춘 미국 존스홉킨스대학병원의 외과 교수가 복강경 수술을 배우러 한국을 찾았다. 존스홉킨스대학병원의 교수가 자비를 들여 국내 병원에 연수를 온 것은 처음이다.<br/><br/>분당서울대병원은 13일 존스홉킨스병원의 외과 진 헤 교수(41·오른쪽)가 한호성 외과 교수(암·뇌신경 진료 부원장·55·왼쪽 사진)에게 복강경 수술기법을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복강경 수술은 배를 열지 않고 4~5개의 구멍을 낸 뒤 수술기구를 넣고 모니터를 보며 암 조직을 제거하는 기법으로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른 게 장점이다.<br/><br/>중국계인 진 교수는 1996년 베이징의과학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미국 텍사스주립대 사우스웨스턴 메디컬센터에 있다가 2008년부터 존스홉킨스병원 외과에서 일하고 있다. 공식 직함은 외과 종양학 조교수로 오는 6월 부교수 승진을 앞두고 있다.<br/><br/>그가 한국을 찾은 것은 2012년 존스홉킨스대학병원에서 열린 한호성 교수의 초청강연이 인연이 됐다. 진 교수는 “<span class='quot0'>당시 존스홉킨스병원에서 (한 교수의) 복강경 수술에 대한 강의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한 교수는 학계에서 간·담도·췌장분야 복강경 수술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어 배울 점이 많다</span>”고 말했다. 그는 또 “<span class='quot0'>분당서울대병원의 의료시스템은 어느 병원보다 현대적이고 특히 최소한의 흉터로 수술을 진행하는 기술이 뛰어나다</span>”고 전했다.<br/><br/>한 교수는 세계 최초로 복강경을 이용한 간 절제술의 기준을 확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 교수의 수술법은 2009년 외과분야 최고권위 학술지인 ‘외과연보(Annals of Surgery)’에 실리면서 주목받았다. 진 교수는 지난달 5일부터 연수를 시작해 다음 달 15일까지 한 교수에게 지도를 받는다.<br/><br/><br/><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23.txt

제목: 냄새로 암 진단하는 개…전립선암 진단 정확도 98%  
날짜: 2015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1310016937750  
본문: 개가 남성 전립선암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확성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영국 가디언은 11일 이탈리아 밀라노 소재 후마니타스 임상연구센터 비뇨기과 연구팀은 독일 암컷 셰퍼드의 후각을 이용해 전립선암을 평균 98%의 정확도로 진단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보도했다.<br/><br/>연구팀은 두 마리의 셰퍼드견에 전립선암 환자 360명, 정상인 540명 등 900명의 소변샘플 냄새를 맡게 해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을 가려내도록 했다. 그 결과 한 마리는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을 거의 한 번에 98.7%, 또 한 마리는 97.6% 정확하게 구분해 냈다.<br/><br/>전립선암은 영국 남성들에게서 가장 흔한 암으로 매년 약 4만명 이상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는다.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에는 특이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이 함유돼 있어서 공기속으로 증발하면서 냄새를 방출하는데 예민한 후각을 지닌 개는 이를 구분해 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br/><br/>개는 1000분의 1로 희석된 냄새도 맡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해 개의 후각을 이용해 유방암을 가려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br/><br/>이에 대해 영국 버킹엄셔의 자선단체 ‘의학탐지견’(Medical Detection Dogs)의 클레어 게스트 박사는 “<span class='quot0'>훈련된 개가 후각으로 암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span>”라며 “<span class='quot0'>현재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검사들이 한심할 수준으로 불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들이 이런 성공률로 전립선암을 가려내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span>”고 말했다.<br/><br/>게스트 박사는 “<span class='quot0'>개는 지속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는 대안적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만약 개가 기계였다면 앞다퉈 이용했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br/>현재 전립선암 검사로는 혈액속의 전립선특이항원(PSA) 수치를 측정하는 PSA검사가 사용되고 있지만 정확도가 낮아 신뢰할만한 검사가 못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정확한 진단은 전립선 조직을 떼어내 분석하는 조직생검으로 가능하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비뇨기학회 학술지 ‘비뇨기학 저널’(Jouranl of Ur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br/><br/><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24.txt

제목: 옌볜 조선족 출신 박연옥씨, 미국 암학회 ‘젊은 과학자상’  
날짜: 2015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1310016945591  
본문: 옌볜 조선족 출신의 서울대 박연옥 연구원(32·사진)이 미국암학회가 주는‘젊은 과학자상’을 받는다. 서울대 약대 종양미세환경연구센터는 박사 과정 중인 박 연구원이 18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미국암학회 연례 학술대회2015’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한다고 13일 밝혔다. 박 연구원은 논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유도된 인산화를 통한 위암세포의 미토파지 촉진>을 통해 위암이 생기는 과정에서 암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새 신호 전달 양식을 관찰했다.<br/><br/>조선족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옌볜대 약대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5년 전 서울대로 유학온 그는 “앞으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주요 메커니즘을 밝히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25.txt

제목: [강유정의 영화로 세상읽기]불평등과 침묵  
날짜: 20150413  
기자: 강유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13100000055  
본문: ▲ “노인 집단 내의 빈부격차<br/>노인 빈곤율보다 더 심각<br/>‘국제시장’ ‘장수상회’ 등 <br/>우아한 노화·죽음만 다뤄”<br/>노화와 죽음, 인간이 가장 꺼리는 주제 중 하나일 것이다. 노화와 죽음은 하나의 어원에서 파생한 단어처럼 여겨진다. 사람들이 늙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 뒤에 바로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노화의 증상은 우리의 신체가 마모되고 있으며 언젠가 그 기능을 중지하리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준다. ‘늙는다’는 자각이 불쾌하고 우울한 이유이다.<br/>한국 영화계에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4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국제시장>, 노부부의 절절한 사랑을 보여준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이어 4월 극장가에도 나란히 두 작품이 걸렸다. <장수상회>와 <화장>이 바로 그 작품이다. 공교롭게도, 장년층이 주인공이 되다 보니 노화, 병, 죽음이 부주제를 형성한다. <br/>주의 깊게 볼 것은 영화 속에 그려진 노년, 노화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적인 노년과 닮아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8.6%로 OECD 회원국 평균(12.4%)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OECD가 세상의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 범주 안에서 우리나라 노인은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br/>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만한 이야기들이 있다. 가령 플로리다의 팜비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백만장자’라는 별명으로도 부족한 부자들이다. 이 배타적인 부촌의 실질 거주민들은 평균 80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그럼에도 팜비치 주변에는 공동묘지도 없고, 장례식장이나 병원도 없다. 부유한 노인들의 마음속엔 죽음이나 질병이 없는 것이다. <br/>사회학자 바우만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건강불평등’이라고 지칭한다. 부유한 사람들은 심장수술과 같은 심각한 수술 이후 생존율이 높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율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낮다. 부와 가난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br/>한국 노인빈곤율이 최고라는 통계에서 빠진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노인이라는 추상적 집단의 빈곤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노인이라는 집단 안에서의 빈부격차일 테다. 부유한 노인과 가난한 노인, 어쩌면 지표는 이 심각한 문제를 괄호에 넣은 채 노인의 일자리 증대라는 교과서적 대답만 도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br/><br/>영화 <장수상회>와 <화장>에서 빠져 있는 것도 바로 ‘돈’이다. 두 작품 모두 노년과 병,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장수상회>에 등장하는 두 노인은 모두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자신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자기 이름의 가게를 가지고 있을 만큼 제법 단단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장수상회> 속 노인 김성칠은 지역 재개발 이권의 핵심으로 대접받는다. 그의 인감 하나가 지역 경제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 말이다.<br/><화장>의 주인공이 겪는 심리적 갈등은 수컷, 남성의 존재론적 고민으로 구체화된다. 10억원짜리 집과 별장, 굴지의 화장품 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오상무에게 아내의 병과 죽음은 오로지 존재론적인 고통일 뿐이다. 암이 재발하고, 4년간 투병생활을 했지만 그를 괴롭히는 것은 아내, 여자의 손길이 멀어진 옷차림과 남성으로서의 쇠잔함이다. 장례식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위의 말에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건네주고는 그는 다시 자신만의 갈등의 세계로 침잠한다. 적어도 그에게 병과 죽음은 ‘돈’과 무관한 철학적 사건인 셈이다.<br/>물론 모든 영화가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룰 필요는 없다. 각각의 영화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죽음과 노년, 가족의 문제는 다 그럴듯한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모든 영화가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한국 영화만 보자면 한국 노인들에게는 병이나 죽음과 같은 존재론적, 본질적 고민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br/>그런 점에서 <국제시장>의 덕수나 <장수상회>의 성칠은 노인들이 꿈꾸는 판타지에 가까워 보인다. 자신의 집과 가게가 있어 떳떳하게 자식들 앞에 나설 수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게 얼마인데, 라며 당당하게 소리도 지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마음에서 우러난 진심의 효도를 바친다. 아내도, 자식도 모두 다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니 비록 늙고, 병들었다고 해도 보람 있는 노년이라고 할 수 있다.<br/>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에서 노년의 삶이 이처럼 우아할까? 늙고 병드는 물리적 변형만이 노인들을 괴롭히는 현실적 문제일까? 영화 속에 그려진 것처럼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희생에 공감하고 존경을 바칠 수 있을까? 아니, 왜 꼭 그렇게만 그려져야 하는 것일까? 언제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침묵에 가려져 있곤 하다. 소설가 토마스 만은 그의 소설 <마의 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span class='quot0'>시대가 공허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좀 더 솔직한 인간은 그로 인해 모종의 마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span>” 그러고 보니, 세상엔 온통 침묵뿐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26.txt

제목: 명의예감(19) 김성훈 국립암센터 장기이식실 실장  
날짜: 2015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1310016943151  
본문: ■간이식 미세수술 및 간암 절제술의 베테랑<br/><br/>김성훈 국립암센터 장기이식실 실장(47·간암센터 외과 전문의)은 생체공여자 간이식의 미세수술을 포함한 간이식 모든 분야의 수술기법을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이다. 간이식 및 간암의 외과적 치료를 담당한다.<br/><br/>주요 진료 분야는 생체공여자 간이식 및 간질환 환자에서 간 절제이며, 주된 연구 분야인 간이식·절제 수술기법의 개발 및 수술 결과의 향상, 혈액형 불일치 간이식, 간이식의 적응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br/><br/><br/><br/>지금까지 50여 편의 국제학술지(SCI급) 논문을 썼다. 세계 최고령 생체공여자 간이식, 60세 이상의 생체공여자에 의한 생체공여자 간이식의 결과, 생체공여자 상복부 중앙절개술, 생체공여자 간절제 범위 확대의 적응증 제시 및 안전성 입증, 비장 절제와 국소 약물요법 없는 혈액형 불일치 생체공여자 간이식 등이 손꼽을 만하다.<br/><br/>그동안 500례 이상의 간이식, 500례 이상의 생체공여자 간 절제, 800례 이상의 간암수술 등을 했으며 생체공여자 우간절제의 수술시간 단축(최단시간 104분), 생체공여자 간이식 수술시간 단축 등 높은 임상 성적을 보유하고 있다.<br/><br/>1996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김 실장은 서울대병원에서 레지던트와 펠로(전임의)를 거쳐 2002년에 국립암센터 간암센터 전임의가 됐다. 그해 미국 피츠버그대 메디컬센터 연수를 다녀왔고, 2003년부터 간암센터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존스 홉킨스 의학대학원 해외연수(2008~2009)도 했다. 간담췌암연구과 선임연구원(2007.7~2015.2)을 지냈으며 2010년부터 장기이식실 실장, 금년 3월부터 간담췌암연구과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다.<br/><br/>■달리기와 동물실험 반복하며 건강과 ‘술기’ 다져<br/><br/>각각 초·중·고에 다니는 세 아이의 아버지인 김 실장은 ‘부여받은 귀중한 삶을 겸허와 근면의 자세로 열심히 살자’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는다. 그는 “나쁜 줄 알아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에 해가 되는 생활 행태를 피하자”며 “건강이 우선이다. 건강 후 다른 일을 생각하자”고 강조했다. 건강 비결은 달리기다. 지금도 거의 매일 10㎞이상 뛰고 있다고 한다.<br/><br/><br/><br/><br/><br/>“서울대 외과전공의 시절 뛰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와서 버스를 탔더니 기사분이 동호대교에서 많이 보았다며 알아보더군요. 국립암센터에 와서는 일과 전, 주로 새벽에 2시간씩 뛰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달리면 달릴수록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고 왠지 모를 희열을 느낍니다. 가족이나 주변에서, 심지어 저 자신도 중독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였죠. 10년 전 쯤에 빈혈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뒤부터는 일도 바쁘고 해서 한 번에 1시간 정도만 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br/><br/>김 실장은 “<span class='quot0'>의사도 사람이라 야속한 환자를 만나 기분도 나쁘고 싫은 마음이 생긴 적이 있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하지만 최소한 수술방에서 만큼은 환자를 내 부모, 형제, 자식이라 생각하고 수술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그는 수술의사의 조건이자 덕목인 최고의 술기(수술 기술)와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면서, 사람 간이식이 없는 날은 쥐 간이식을 하여 미세수술 기술 연마를 하고 있다.<br/><br/>■간암 예방, 간염 바이러스 치료와 조기 검진 중요<br/><br/>김 실장에 따르면 간암의 중요한 원인은 B형과 C형 간염바이러스의 감염이다. 최근의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74.2%가 B형 간염바이러스(HBV) 표면항원 양성, 8.6%가 C형 간염바이러스(HCV) 항체 양성이었다. 6.9%가 장기간 과음 경력자이다. 간경변증(속칭 간경화) 환자의 경우 1~7%에서 간암이 발생한다.<br/><br/><br/><br/><br/><br/>간암은 간경변증이 심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잘 생기고, 남자 환자가 많다. 주요 증상은 상복부에 통증이 있거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 복부 팽만감,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감, 소화불량 등이다. 하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병변의 증상이 늦게야 나타난다.<br/><br/>환자의 간 기능과 전신 상태로 보아 치료에 들어갈 만하다고 판단되면 병변의 수술(간절제술), 간이식, 고주파 열치료, 혹은 에탄올 주입술 등을 통해 암의 완치를 꾀한다. 간암이 많이 진행된 단계라서 이러한 치료법들을 적용할 수 없다면 경동맥 화학색전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등을 시행하게 된다.<br/><br/>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잘 알려진 위험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성 간질환이나 간경변증은 간암의 위험을 높이므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이 필요하다. 만 30세 이상의 남성과 만 40세 이상의 여성 중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이나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가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이 있는 사람은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검사와 혈청의 알파태아단백 측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br/>■간을 사랑하는 10가지 수칙<br/><br/>1. 간에 관심을 갖고, 올바로 알고, 필요할 때에는 간의 상태를 확인한다<br/><br/>2. 규칙적인 생활로 과로를 피하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으로 피로를 푼다<br/><br/>3. 간에 해를 끼치는 술은 주량 이하로만 마시고, 습관적으로 마시지 않는다<br/><br/>4. 잘 모르는 약을 함부로 먹지 말고 필요할 때만 효능을 확인하고 복용한다<br/><br/>5. 채소나 과일 등 신선한 식품들로 균형 있는 식단을 짜서 즐겁게 먹는다<br/><br/>6.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 불건전한 성생활, 과음과 과식, 과로를 멀리한다<br/><br/>7. 간질환에 걸린 후에야 관리에 나서지 말고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에 힘쓴다<br/><br/>8. 간에 이상이 있다고 의심되면 전문의 진료를 받아 올바로 알고 대처한다<br/><br/>9. 나도는 온갖 정보들에 현혹되지 말고 전문가에게 검증된 질환관리를 받는다<br/><br/>10. 간질환이 생겼더라도 긍정적인 사고로 치유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갖는다<br/><br/><a href="http://sewol.khan.co.kr/memorial/" target="\_blank"><strong>☞ [세월호 1년] 진실 인양을 위한 '노란풍선'을 달아주세요</strong></a><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27.txt

제목: [강유정의 영화로 세상읽기]불평등과 침묵  
날짜: 2015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1210016930612  
본문: <b>▲ “노인 집단 내의 빈부격차<br/>노인 빈곤율보다 더 심각<br/>‘국제시장’ ‘장수상회’ 등 <br/>우아한 노화·죽음만 다뤄”</b><br/><br/>노화와 죽음, 인간이 가장 꺼리는 주제 중 하나일 것이다. 노화와 죽음은 하나의 어원에서 파생한 단어처럼 여겨진다. 사람들이 늙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 뒤에 바로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노화의 증상은 우리의 신체가 마모되고 있으며 언젠가 그 기능을 중지하리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준다. ‘늙는다’는 자각이 불쾌하고 우울한 이유이다.<br/><br/>한국 영화계에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4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국제시장>, 노부부의 절절한 사랑을 보여준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이어 4월 극장가에도 나란히 두 작품이 걸렸다. <장수상회>와 <화장>이 바로 그 작품이다. 공교롭게도, 장년층이 주인공이 되다 보니 노화, 병, 죽음이 부주제를 형성한다. <br/><br/>주의 깊게 볼 것은 영화 속에 그려진 노년, 노화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적인 노년과 닮아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8.6%로 OECD 회원국 평균(12.4%)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OECD가 세상의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 범주 안에서 우리나라 노인은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br/><br/>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만한 이야기들이 있다. 가령 플로리다의 팜비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백만장자’라는 별명으로도 부족한 부자들이다. 이 배타적인 부촌의 실질 거주민들은 평균 80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그럼에도 팜비치 주변에는 공동묘지도 없고, 장례식장이나 병원도 없다. 부유한 노인들의 마음속엔 죽음이나 질병이 없는 것이다. <br/><br/>사회학자 바우만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건강불평등’이라고 지칭한다. 부유한 사람들은 심장수술과 같은 심각한 수술 이후 생존율이 높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율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낮다. 부와 가난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br/><br/>한국 노인빈곤율이 최고라는 통계에서 빠진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노인이라는 추상적 집단의 빈곤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노인이라는 집단 안에서의 빈부격차일 테다. 부유한 노인과 가난한 노인, 어쩌면 지표는 이 심각한 문제를 괄호에 넣은 채 노인의 일자리 증대라는 교과서적 대답만 도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br/><br/><br/>영화 <장수상회>와 <화장>에서 빠져 있는 것도 바로 ‘돈’이다. 두 작품 모두 노년과 병,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장수상회>에 등장하는 두 노인은 모두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자신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자기 이름의 가게를 가지고 있을 만큼 제법 단단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장수상회> 속 노인 김성칠은 지역 재개발 이권의 핵심으로 대접받는다. 그의 인감 하나가 지역 경제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 말이다.<br/><br/><화장>의 주인공이 겪는 심리적 갈등은 수컷, 남성의 존재론적 고민으로 구체화된다. 10억원짜리 집과 별장, 굴지의 화장품 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오상무에게 아내의 병과 죽음은 오로지 존재론적인 고통일 뿐이다. 암이 재발하고, 4년간 투병생활을 했지만 그를 괴롭히는 것은 아내, 여자의 손길이 멀어진 옷차림과 남성으로서의 쇠잔함이다. 장례식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위의 말에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건네주고는 그는 다시 자신만의 갈등의 세계로 침잠한다. 적어도 그에게 병과 죽음은 ‘돈’과 무관한 철학적 사건인 셈이다.<br/><br/>물론 모든 영화가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룰 필요는 없다. 각각의 영화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죽음과 노년, 가족의 문제는 다 그럴듯한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모든 영화가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한국 영화만 보자면 한국 노인들에게는 병이나 죽음과 같은 존재론적, 본질적 고민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br/><br/>그런 점에서 <국제시장>의 덕수나 <장수상회>의 성칠은 노인들이 꿈꾸는 판타지에 가까워 보인다. 자신의 집과 가게가 있어 떳떳하게 자식들 앞에 나설 수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게 얼마인데, 라며 당당하게 소리도 지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마음에서 우러난 진심의 효도를 바친다. 아내도, 자식도 모두 다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니 비록 늙고, 병들었다고 해도 보람 있는 노년이라고 할 수 있다.<br/><br/>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에서 노년의 삶이 이처럼 우아할까? 늙고 병드는 물리적 변형만이 노인들을 괴롭히는 현실적 문제일까? 영화 속에 그려진 것처럼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희생에 공감하고 존경을 바칠 수 있을까? 아니, 왜 꼭 그렇게만 그려져야 하는 것일까? 언제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침묵에 가려져 있곤 하다. 소설가 토마스 만은 그의 소설 <마의 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span class='quot0'>시대가 공허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좀 더 솔직한 인간은 그로 인해 모종의 마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span>” 그러고 보니, 세상엔 온통 침묵뿐이다.<br/><br/><강유정 | 영화평론가·강남대 교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28.txt

제목: [책과 삶]저녁이 있는 삶,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날짜: 2015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11100000029  
본문: ▲ 여유롭게 살 권리…강수돌 지음 | 다시봄 | 336쪽 | 1만6000원<br/>제목부터 눈길을 잡아끈다. 부제는 ‘일에 지쳐 삶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전하는 오래된 미래’다. 일중독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건 누구에게나 간절한 소망일 터. 누군들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지 않겠으며, 주위 사람들과 경쟁하기보다 서로 도우며 함께 즐기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지 않겠는가. 문제가 뭔지도 알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도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다. 그만큼 실천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가지겠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달린다. 일중독, 소비중독에 빠진 우리의 자화상이요, 맘 편히 잠들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br/><여유롭게 살 권리>는 욕심 내려 놓기를 강조한다. 우리가 휴일도 반납해가며 일에 몰두하는 건 정말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아무리 벌어도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끝없는 욕망의 포로가 된 결과 뒤처지지 않으려고 필요도 없는 걸 사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은 불안함으로 지금 이 순간도 일에 치여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과 권력이 의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업은 이렇게 돈을 벌고, 권력은 너무 바빠 공동체의 운명 등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고분고분한’ 대중을 양산하려고 한다. <br/>이 책을 덮을 때쯤이면 “나부터 출발해 더불어 말하기 시작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며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다른 삶이 만들어진다. 대안은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지은이의 말이 가슴을 때린다. 그런데 “나는 변하기 시작했는데 주위에서 아무도 안 따라주면 어떡하지”라는 질문이 이내 고개를 든다.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소수 개인의 저항은 실패로 끝나고 결국 이 사회가 지금까지 문제투성이 상태로 흘러왔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원점이다. <br/>이번에는 뭔가 바꿔봐야겠다고 한 결심이 ‘현실’을 핑계로 흐지부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궁금증은 풀어야 했다. 몇 가지 질문을 정리해 저자인 강수돌 고려대 교수(경영학)에게 e메일을 보냈다. 강 교수는 현재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안식년을 보내고 있다. 그가 보내온 답변을 토대로 질의응답을 재구성했다.<br/><br/>- 2장을 보면 가족에게 중요한 일이 있거나 친구들 모임에 가야 할 때 일을 핑계로 가지 않으면 일중독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의 문구가 나온다. 정말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나 오늘 처리하지 못하면 회사 내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즉 외부 환경의 불가피성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모임에 못 가는 걸 일중독이라 규정하긴 어렵지 않을까.<br/>“일중독의 핵심은 외적 강제가 내면화돼 내적 강박으로 변한 것이다. 외부에 일이 쌓여 있건 없건, 회사의 압박이 있건 없건 그것이 자기 내면의 강박으로 변해 더 이상 자신이 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일이 자기를 조정하는 국면으로 접어들면 일중독 상황이라 봐야 한다. 하루 이틀 정도야 (외적 압박이나 상황 때문에) 친구나 가족 모임에 불참할 수 있겠지만(여기까지는 아직 일중독이라 판단하긴 이르다) 1주, 2주 넘어 한 달, 두 달씩 만성화돼 습관처럼 되면 확실히 일중독에 빠진 것이다.”<br/>- (일이 남아 있더라도) 일중독을 극복하려면 업무시간과 여가시간을 확실히 구분하고, 쉴 때는 확실히 일손을 놓고 일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도 책에 나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이 쌓여 있으면 주말을 즐기거나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게 어렵다고들 한다.<br/>“회사 일이 쌓여 있으면 쉬어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이것도 만성화, 습관화, 일상화하면 문제다. 그래서 개인적 해결책 이전에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모든 사회가 1주일에 40시간 이하로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도록 촉진하고 회사도 ‘칼퇴근’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당장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 노동조합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해선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문제를 사회 공공성 차원에서 해결하는 전 사회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 사회 구성원이 ‘저녁이 있는 삶’ ‘오후가 있는 삶’을 간절히 원하고 조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노력 없이 행하는 개인적 노력, 예컨대 요가나 명상, 술, 오락 등은 별 효과가 없거나 일시적 효과에 그친다.”<br/>- 일중독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전 사회적 토론과 논의를 가정, 학교, 직장, 노조, 시민사회단체, 국회 등 사회 전반에서 매우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문제는 조그만 조직 내에서도 한 개인이 저항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저항하더라도 과실을 동료가 가져가거나 순응하는 동료가 출세하는 걸 보면 심리적으로 동요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국가와 자본이 회유와 협박으로 조직 구성원들을 분열시키는 상황에서 개인 간 소통, 연대나 협동, 단결이 가능할까.<br/>“개인이 국가와 자본에 일거에 저항하기란 정말 어렵다. 별 소용이 없거나 오히려 피해만 입는 것도 맞다. 그러나 바로 이런 현실조차도 동료들과 열린 대화로 나눠야 한다. 일례로 ‘정말 심신이 피곤하다’ ‘그러나 저항해봤자 별 소용도 없다’ ‘저 친구 좀 봐라’ ‘말없이 죽기 살기로 일하니 출세도 하네’ ‘그런데 과연 저 친구가 진짜 행복할까’ ‘저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진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의 하소연 비슷한 것이라도 ‘솔직하게’ 나누는 게 필요하다. 그 자체가 새로운 조직문화,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 결국 나부터 일중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한다. 본인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멈추어 생각해보라는 얘기다. 그날은 (군말 없이) 회사로 가더라도 다음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회사 상사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노조 등 동료들과 분위기를 새로 만들 수도 있다. 나부터 아이를 다르게 키우려 시도하고, 나부터 마을 변화에 참여해야 지배층의 경쟁 강요를 무디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일의 성과나 고임금, 승진 따위에 중독되면 과로로 쓰러지거나 목숨을 잃을 위험이 높아진다. 일중독은 ‘치명적인’ 질병이다. 개인, 회사, 사회 모두에 ‘암’과 같은 존재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일중독은 감기처럼 병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고치면 회복된다.”<br/>- 8장에서는 아예 ‘노동을 거부하는’ 것도 일중독을 극복하는 실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자본이 원하는 대로 앞만 보고 달려 남을 누르고 최고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라는 건데 그렇다면 정치·자본 권력의 핵심 자리는 누구의 몫인가. 개인들은 그저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머물러야 하는가. <br/>“권력의 정점에는 시장질서에 순응하는 세력들이 포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위로부터의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책에서 말한 대로 자신의 내면과 접촉하면서 심신이 피곤한 상황 그 자체를 회피, 억압, 외면하지 말고 솔직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걸 동료, 친구, 노조, 모임, 단체 등과 공유하면서 분위기나 제도를 바꾸어나가면 된다. 위로부터의 변화는 저녁 내지 오후가 있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을 선거에서 대거 뽑는 걸 말한다. ‘과거’에 사로잡힌 세력들이 출마를 엄두도 못 내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교육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여유롭게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 국내에서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에피소드들을 많이 알려야 한다. 파이(부)를 많이 생산한다고 잘사는 게 아니라 적게 생산해도 골고루 나누며 삶을 즐기는 것이 진짜 잘사는 것임을 온 사회가 학습해나가도록 말이다.”<br/>- 모두가 가난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난 속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표현도 나온다. 지금과 같은 양극화 사회에서 모두가 가난해지는 게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부를 독점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br/>“비교나 경쟁에서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한다. 특히 저 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절대로 행복해지기 어렵다. 중요한 건 과연 자신의 인간적 욕구(필요)가 제대로 충족되고 있는가를 묻는 일이다. 인간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고 있다면 개인적 노력도 해야지만 경우에 따라선 사회적 노력(건의, 제안, 토론, 대화, 연대, 항의, 투쟁 등)도 적극 해야 한다. 인간적 욕구란 의식주 같은 기본 생활에다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 서로 돕고 사는 것, 맑은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사는 것, 하고 싶은 공부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 마음이나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것 등이다. 돈만 무한히 좇다가 심신이 망가지고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또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망가지는데 나 홀로 행복하다면 무슨 소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br/>지금처럼 무한경쟁 시스템이 굳어진 사회에서 개인이 ‘불이익’이나 ‘낙오’를 각오하고 선로에서 이탈해 자기만의 삶을 추구한다는 건 분명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팍팍하고 숨 막히는 현대사회가 끔찍하긴 하지만 ‘내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노라’ 선언하기 어렵다는 점은 강 교수도 인정한다. 그렇다고 이대로 갈 것인가. 이대로 가면 승자도 과로로 죽어가고, 패자도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모두가 불행해진다.<br/>강 교수는 “<span class='quot0'>나 홀로 뒤처지면 어쩌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살고 싶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려는 개인의 결단과 노력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런 ‘자유로운 개인들의 즐거운 연대’가 이뤄진다면 부자에 대한 선망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돼 온 사회가 더 건강하게 변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29.txt

제목: [책과 삶]저녁이 있는 삶,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날짜: 2015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1010016924059  
본문: <b>▲ 여유롭게 살 권리…강수돌 지음 | 다시봄 | 336쪽 | 1만6000원</b><br/><br/>제목부터 눈길을 잡아끈다. 부제는 ‘일에 지쳐 삶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전하는 오래된 미래’다. 일중독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건 누구에게나 간절한 소망일 터. 누군들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지 않겠으며, 주위 사람들과 경쟁하기보다 서로 도우며 함께 즐기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지 않겠는가. 문제가 뭔지도 알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도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다. 그만큼 실천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가지겠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달린다. 일중독, 소비중독에 빠진 우리의 자화상이요, 맘 편히 잠들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br/><br/><여유롭게 살 권리>는 욕심 내려 놓기를 강조한다. 우리가 휴일도 반납해가며 일에 몰두하는 건 정말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아무리 벌어도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끝없는 욕망의 포로가 된 결과 뒤처지지 않으려고 필요도 없는 걸 사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은 불안함으로 지금 이 순간도 일에 치여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과 권력이 의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업은 이렇게 돈을 벌고, 권력은 너무 바빠 공동체의 운명 등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고분고분한’ 대중을 양산하려고 한다. <br/><br/>이 책을 덮을 때쯤이면 “나부터 출발해 더불어 말하기 시작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며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다른 삶이 만들어진다. 대안은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지은이의 말이 가슴을 때린다. 그런데 “나는 변하기 시작했는데 주위에서 아무도 안 따라주면 어떡하지”라는 질문이 이내 고개를 든다.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소수 개인의 저항은 실패로 끝나고 결국 이 사회가 지금까지 문제투성이 상태로 흘러왔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원점이다. <br/><br/>이번에는 뭔가 바꿔봐야겠다고 한 결심이 ‘현실’을 핑계로 흐지부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궁금증은 풀어야 했다. 몇 가지 질문을 정리해 저자인 강수돌 고려대 교수(경영학)에게 e메일을 보냈다. 강 교수는 현재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안식년을 보내고 있다. 그가 보내온 답변을 토대로 질의응답을 재구성했다.<br/><br/><br/>- 2장을 보면 가족에게 중요한 일이 있거나 친구들 모임에 가야 할 때 일을 핑계로 가지 않으면 일중독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의 문구가 나온다. 정말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나 오늘 처리하지 못하면 회사 내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즉 외부 환경의 불가피성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모임에 못 가는 걸 일중독이라 규정하긴 어렵지 않을까.<br/><br/>“일중독의 핵심은 외적 강제가 내면화돼 내적 강박으로 변한 것이다. 외부에 일이 쌓여 있건 없건, 회사의 압박이 있건 없건 그것이 자기 내면의 강박으로 변해 더 이상 자신이 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일이 자기를 조정하는 국면으로 접어들면 일중독 상황이라 봐야 한다. 하루 이틀 정도야 (외적 압박이나 상황 때문에) 친구나 가족 모임에 불참할 수 있겠지만(여기까지는 아직 일중독이라 판단하긴 이르다) 1주, 2주 넘어 한 달, 두 달씩 만성화돼 습관처럼 되면 확실히 일중독에 빠진 것이다.”<br/><br/>- (일이 남아 있더라도) 일중독을 극복하려면 업무시간과 여가시간을 확실히 구분하고, 쉴 때는 확실히 일손을 놓고 일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도 책에 나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이 쌓여 있으면 주말을 즐기거나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게 어렵다고들 한다.<br/><br/>“회사 일이 쌓여 있으면 쉬어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이것도 만성화, 습관화, 일상화하면 문제다. 그래서 개인적 해결책 이전에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모든 사회가 1주일에 40시간 이하로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도록 촉진하고 회사도 ‘칼퇴근’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당장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 노동조합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해선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문제를 사회 공공성 차원에서 해결하는 전 사회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 사회 구성원이 ‘저녁이 있는 삶’ ‘오후가 있는 삶’을 간절히 원하고 조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노력 없이 행하는 개인적 노력, 예컨대 요가나 명상, 술, 오락 등은 별 효과가 없거나 일시적 효과에 그친다.”<br/><br/>- 일중독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전 사회적 토론과 논의를 가정, 학교, 직장, 노조, 시민사회단체, 국회 등 사회 전반에서 매우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문제는 조그만 조직 내에서도 한 개인이 저항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저항하더라도 과실을 동료가 가져가거나 순응하는 동료가 출세하는 걸 보면 심리적으로 동요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국가와 자본이 회유와 협박으로 조직 구성원들을 분열시키는 상황에서 개인 간 소통, 연대나 협동, 단결이 가능할까.<br/><br/>“개인이 국가와 자본에 일거에 저항하기란 정말 어렵다. 별 소용이 없거나 오히려 피해만 입는 것도 맞다. 그러나 바로 이런 현실조차도 동료들과 열린 대화로 나눠야 한다. 일례로 ‘정말 심신이 피곤하다’ ‘그러나 저항해봤자 별 소용도 없다’ ‘저 친구 좀 봐라’ ‘말없이 죽기 살기로 일하니 출세도 하네’ ‘그런데 과연 저 친구가 진짜 행복할까’ ‘저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진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의 하소연 비슷한 것이라도 ‘솔직하게’ 나누는 게 필요하다. 그 자체가 새로운 조직문화,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 결국 나부터 일중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한다. 본인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멈추어 생각해보라는 얘기다. 그날은 (군말 없이) 회사로 가더라도 다음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회사 상사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노조 등 동료들과 분위기를 새로 만들 수도 있다. 나부터 아이를 다르게 키우려 시도하고, 나부터 마을 변화에 참여해야 지배층의 경쟁 강요를 무디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일의 성과나 고임금, 승진 따위에 중독되면 과로로 쓰러지거나 목숨을 잃을 위험이 높아진다. 일중독은 ‘치명적인’ 질병이다. 개인, 회사, 사회 모두에 ‘암’과 같은 존재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일중독은 감기처럼 병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고치면 회복된다.”<br/><br/>- 8장에서는 아예 ‘노동을 거부하는’ 것도 일중독을 극복하는 실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자본이 원하는 대로 앞만 보고 달려 남을 누르고 최고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라는 건데 그렇다면 정치·자본 권력의 핵심 자리는 누구의 몫인가. 개인들은 그저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머물러야 하는가. <br/><br/>“권력의 정점에는 시장질서에 순응하는 세력들이 포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위로부터의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책에서 말한 대로 자신의 내면과 접촉하면서 심신이 피곤한 상황 그 자체를 회피, 억압, 외면하지 말고 솔직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걸 동료, 친구, 노조, 모임, 단체 등과 공유하면서 분위기나 제도를 바꾸어나가면 된다. 위로부터의 변화는 저녁 내지 오후가 있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을 선거에서 대거 뽑는 걸 말한다. ‘과거’에 사로잡힌 세력들이 출마를 엄두도 못 내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교육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여유롭게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 국내에서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에피소드들을 많이 알려야 한다. 파이(부)를 많이 생산한다고 잘사는 게 아니라 적게 생산해도 골고루 나누며 삶을 즐기는 것이 진짜 잘사는 것임을 온 사회가 학습해나가도록 말이다.”<br/><br/>- 모두가 가난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난 속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표현도 나온다. 지금과 같은 양극화 사회에서 모두가 가난해지는 게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부를 독점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br/><br/>“비교나 경쟁에서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한다. 특히 저 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절대로 행복해지기 어렵다. 중요한 건 과연 자신의 인간적 욕구(필요)가 제대로 충족되고 있는가를 묻는 일이다. 인간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고 있다면 개인적 노력도 해야지만 경우에 따라선 사회적 노력(건의, 제안, 토론, 대화, 연대, 항의, 투쟁 등)도 적극 해야 한다. 인간적 욕구란 의식주 같은 기본 생활에다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 서로 돕고 사는 것, 맑은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사는 것, 하고 싶은 공부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 마음이나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것 등이다. 돈만 무한히 좇다가 심신이 망가지고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또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망가지는데 나 홀로 행복하다면 무슨 소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br/><br/>지금처럼 무한경쟁 시스템이 굳어진 사회에서 개인이 ‘불이익’이나 ‘낙오’를 각오하고 선로에서 이탈해 자기만의 삶을 추구한다는 건 분명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팍팍하고 숨 막히는 현대사회가 끔찍하긴 하지만 ‘내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노라’ 선언하기 어렵다는 점은 강 교수도 인정한다. 그렇다고 이대로 갈 것인가. 이대로 가면 승자도 과로로 죽어가고, 패자도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모두가 불행해진다.<br/><br/>강 교수는 “<span class='quot0'>나 홀로 뒤처지면 어쩌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살고 싶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려는 개인의 결단과 노력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런 ‘자유로운 개인들의 즐거운 연대’가 이뤄진다면 부자에 대한 선망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돼 온 사회가 더 건강하게 변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한다.<br/><br/><권재현 기자 jaynews@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30.txt

제목: 순천대 박광욱 교수, 세계적 인명사전에 잇달아 등재  
날짜: 201504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0910016907900  
본문: 국립 순천대학교는 학내 동물자원과학과 박광욱 교수(사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적 인명사전 ‘마르퀴즈후즈후인더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의 2015년 판에 등재됐다고 9일 밝혔다.<br/><br/>마르퀴즈후즈후인더월드(www.marquiswhoswho.com)’는 미국 인명정보기관(ABI)과 영국케임브리지국제인명센터(IBC)와 더불어 세계 3대 인명사전 발행기관으로 꼽히고 있다.<br/><br/>1899년부터 세계 215개국에서 매년 과학, 의학,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선정해 업적과 이력을 소개하고 있다.<br/><br/>박광욱 교수는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형질 전환돼지 생산’과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이종이식)할 때 발생하는 초급성 거부반응에 관여하는 ‘유전자(a-Gal)’ 제거에 성공해‘사이언스(Science)’지에 소개됐다.<br/><br/>이어 2013년에도 이종이식과 관련된 CMAH 유전자 제거에 성공하며 네이처(Nature) 자매지에 게재되기도 했다.<br/><br/>지난해 미주리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활동하며 면역결핍(SCID) 돼지를 개발해 미국국립과학회보인 PNAS에 게재됐으며, 2002년에는 (주)엠젠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녹색형광을 발하는 형광이를 비롯해 GM-CSF 돼지, FASL 돼지 등 다양한 형질 전환돼지를 개발했다.<br/><br/>박광욱 교수는 현재 당뇨병 치료와 이종이식에 대한 연구와 신경질환, 암 등의 ‘질환모델 돼지’를 개발 중에 있다. <br/><br/>‘질환모델동물’이란 사람의 병, 즉 인간 특유 질환의 병증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 실험동물을 말한다.<br/><br/><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31.txt

제목: ‘금연·절주·걷기운동’ 성인 10명 중 3명  
날짜: 20150408  
기자: 최희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08100000116  
본문: 성인 10명 중 3명만이 건강을 위해 금연·절주·걷기운동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10월 전국 254개 시·군·구 2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7일 이같이 발표했다. <br/>남자의 현재흡연율은 2008년 49.2%에서 지난해 45.3%로 줄었다. 그러나 고위험음주율은 18.7%로 2008년(18.4%)과 큰 변화가 없었다. 고위험음주는 한 번에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것을 말한다. <br/>주 5일간 하루 30분 이상 걷는 걷기 실천율도 2008년 50.6%에서 지난해 37.5%까지 줄었다. 걷기 실천율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금연·저위험음주·걷기를 모두 실천한 사람은 29.6%에 불과했다. 2008년 35.2%에서 뚝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실천율은 30대가 23.8%로 가장 낮고 40대(25%)가 뒤를 이었다. <br/>서울(39.2%)·대전(34.5%)·인천(33.6%)의 실천율이 높았고, 제주(21.3%)·경남(21.5%)·경북(22.2%)은 낮았다.<br/>흡연자들은 절주·걷기 실천율이 더 낮고 건강·안전 의식도 약했다. 흡연자의 고위험음주율은 27.3%로 비흡연자(14.4%)보다 높고 걷기 실천율(40.8%)은 비흡연자(43%)보다 낮았다. 안전벨트 착용률도 흡연자(77.4%)가 비흡연자(84%)에 못 미쳤고, 암 검진율은 비흡연자(51.5%)가 흡연자(46.1%)를 5.4%포인트 웃돌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32.txt

제목: ‘담배 위해성’ 밝힐 첫 정부 연구소 생긴다  
날짜: 201504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0810016889047  
본문: 담배의 성분을 분석하고 실험을 통해 담배 연기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연구소가 정부에 의해 세워진다. 담배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담배에 대해 실험·분석을 실시해 비공개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었지만 정부가 직접 담배 위해성을 평가한 적은 없었다.<br/><br/>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8월 ‘국가 흡연폐해연구소’를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설치해 금연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br/><br/>연구소는 우선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의 성분과 첨가물, 배출물(연기)에 대해 분석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각 담배에 니코틴, 타르, 암모니아, 흡습성물질 등의 성분이 얼마만큼 함유돼 있으며 멘솔, 당류 등 중독성을 강화하는 첨가물질은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 담배의 연기에 어떤 성분이 검출되는지 분석한다.<br/><br/>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담배의 기본 성분 외에도 담배에 첨가된 물질들도 실험 대상</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실험과 분석을 통해 첨가물들이 얼마나 중독성을 강화하는지, 중독성 때문에 끊지 못하게 하는 물질이 있다면 어떤 물질인지 찾아낼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br/>아울러 연구소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알아내기 위해 각 담배의 연기가 사람의 몸과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한다. <br/><br/>혈액, 소변, 모발 등 인체 시료에 담배연기를 노출해 어느 정도 위해성이 발생하는지 측정하고 먼지 같은 환경 시료를 활용해 담배연기로 의한 환경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도 검사한다. <br/><br/>실험동물과 동물 세포를 활용해 담배 연기가 암, 심혈관질환, 감염성 질환, 성장발달장애, 중독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실험할 계획이다. <br/><br/>연구소에서 나온 실험 결과는 정부가 담뱃값 인상이나 금연구역 확대, 금연치료 지원 등 금연정책을 수행하는 데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실험 결과에 따라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등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r/><br/>질병관리본부는 “<span class='quot1'>그동안의 정부 조사는 흡연자의 피해를 살펴보는 역학조사에만 머물렀다</span>”며 “<span class='quot1'>흡연이 해롭다고 알려져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인 정보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span>”이라고 밝혔다. <br/><br/>정부의 연구소 설립은 국제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협약에 따라 한국은 담배의 성분을 규제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 인프라는 부족했었다. <br/><br/>미국의 경우 국가기관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담배의 성분을 분석하고 흡연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실험과 분석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br/><br/>복지부는 국가 흡연폐해연구소를 통해 CDC의 담배 연구소와 협력하는 한편 WHO의 담배 연구소 네트워크에도 참여해 연구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br/><br/><비즈앤라이프팀>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33.txt

제목: ‘금연·절주·걷기운동’ 성인 10명 중 3명  
날짜: 201504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0710016885173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흡연자가 실천율 더 낮아</strong><!-- SUB\_TITLE\_END--><br/><br/>성인 10명 중 3명만이 건강을 위해 금연·절주·걷기운동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10월 전국 254개 시·군·구 2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7일 이같이 발표했다. <br/><br/>남자의 현재흡연율은 2008년 49.2%에서 지난해 45.3%로 줄었다. 그러나 고위험음주율은 18.7%로 2008년(18.4%)과 큰 변화가 없었다. 고위험음주는 한 번에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것을 말한다. <br/><br/>주 5일간 하루 30분 이상 걷는 걷기 실천율도 2008년 50.6%에서 지난해 37.5%까지 줄었다. 걷기 실천율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금연·저위험음주·걷기를 모두 실천한 사람은 29.6%에 불과했다. 2008년 35.2%에서 뚝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실천율은 30대가 23.8%로 가장 낮고 40대(25%)가 뒤를 이었다. <br/><br/>서울(39.2%)·대전(34.5%)·인천(33.6%)의 실천율이 높았고, 제주(21.3%)·경남(21.5%)·경북(22.2%)은 낮았다.<br/><br/>흡연자들은 절주·걷기 실천율이 더 낮고 건강·안전 의식도 약했다. 흡연자의 고위험음주율은 27.3%로 비흡연자(14.4%)보다 높고 걷기 실천율(40.8%)은 비흡연자(43%)보다 낮았다. 안전벨트 착용률도 흡연자(77.4%)가 비흡연자(84%)에 못 미쳤고, 암 검진율은 비흡연자(51.5%)가 흡연자(46.1%)를 5.4%포인트 웃돌았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34.txt

제목: 한전병원-도봉구보건소 4월 한달간 ‘암 바로알고 대처하기’ 건강대학 개최  
날짜: 201504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0610016866054  
본문: ■이달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br/><br/>한전병원(병원장 김대환)은 6일 “<span class='quot0'>암 예방부터 치료까지 건강한 삶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8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도봉구보건소 7층 대강당에서 ‘암 건강대학’을 개최한다</span>”고 밝혔다.<br/><br/><br/><br/>한전병원과 도봉구보건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건강대학은 ‘암 바로알고 대처하기’ 주제로 8일 갑상선암(내분비내과 김은실 과장)·폐암(호흡기내과 고영민 과장), 15일 난소암/자궁경부암(산부인과 김순규 과장)·위/대장암(소화기내과 김지연 과장), 22일 유방암(외과 우고운 과장)·간암/췌장암(소화기내과 박장원 과장), 29일 비뇨기계암(비뇨기과 김정훈 과장)·암환자의 식생활(의료행정지원파트 곽보아 영양사) 순으로 강연이 진행된다.<br/><br/>4주 과정을 모두 이수한 수강생들은 신장초음파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참석 인원은 선착순 70명이며, 한전병원 진료협력센터(02-901-3468), 도봉구보건소(02-2091-4523)로 문의하면 된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35.txt

제목: [과학 오디세이]GMO용 농약이 더 무섭다  
날짜: 20150406  
기자: 김훈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06100000048  
본문: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안전성을 두고 과학계에서 다시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 이번에는 GMO 자체가 아니라 GMO를 재배할 때 함께 살포하는 농약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다. 지난달 21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한 의학 학술지를 통해 글리포세이트가 높은 수준의 발암성 물질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 경작지에서 널리 사용돼온 제초제이다. 특히 GMO를 재배할 때 주로 살포되고 있으며, 바로 GMO 때문에 그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제초제이기도 하다. 과연 GMO가 무엇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오랜 의구심이 새삼 생기게 한다.<br/>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알려진 GMO가 재배돼왔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GMO는 두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제초제에 견디는 기능과 살충 기능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제초제저항성 GMO의 양이 단연 압도적이다. 예를 들어 2014년 전 세계에서 경작되는 GMO 가운데 제초제저항성 GMO는 57%, 제초제저항성과 살충성을 동시에 갖춘 GMO는 28%에 달한다. <br/>대표적인 GMO인 콩과 옥수수가 제초제에 견딘다는 말은 제초제 성분을 분해할 수 있는 유전자를 미생물에서 얻어 콩과 옥수수에 삽입했음을 의미한다. 한동안 개발사 측은 과거에 비해 동일하거나 적은 양의 제초제를 살포해도 콩과 옥수수는 살아남기 때문에 결국 수확량이 증가해 농업 생산자에게 큰 이익이 주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다만 제초제는 GMO 개발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몬산토의 글리포세이트는 상품명이 라운드업(Roundup)인데, 자사의 GMO는 이 제초제에 견디도록 준비된 제품이라는 의미에서 라운드업-레디(Roundup ready)라고 부른다. 다른 개발사의 제초제에는 ‘약발’이 듣지 않는다. 농업 생산자로서는 GMO와 제초제를 한 회사로부터 함께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br/>그런데 GMO 재배가 늘어나면서 제초제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09년 미국 유기농센터의 찰스 벤브룩 박사는 미국에서 GMO의 상업적 재배가 시작된 1996년부터 13년간 제초제 사용량이 3억8260만파운드(1파운드는 약 0.45㎏)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원인은 기존의 제초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잡초 때문이었다. 미국 GMO 재배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초제가 바로 글리포세이트이다. 2013년 5월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는 당시까지 세계 18개국에서 총 24종의 글리포세이트 내성 잡초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br/>이런 상황이기에 최근 국제암연구소의 발표는 지난 20여년간 GMO를 섭취해온 세계인에게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글리포세이트의 위험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구소는 특정 물질의 암 발생 정도를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글리포세이트는 두 번째 수준인 2A등급으로 분류됐다. 암을 확실히 일으키는 1등급 물질, 발암 가능성이 있는 2B등급 물질의 중간 지점이다. 연구소는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실험동물의 경우 충분히 확보됐지만, 인간에 대한 자료는 아직 제한적이어서 2A등급을 매겼다고 밝혔다. <br/>즉각 개발사 측의 반박이 제기됐다. 연구 방법상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글리포세이트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는 공공의 영역과 산업계 등의 주도로 진행돼왔는데, 이번 발표는 산업계의 연구 결과를 의도적으로 빠트리고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과학계 일각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권위를 가진 연구소가 이 같은 민감한 사안을 그리 허술한 과정을 거쳐 발표할 리가 없다. <br/>당장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세계 28개 GMO 재배국의 농업 생산자와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유전자가 변형된 콩과 옥수수는 멀쩡하다지만, 발암성 제초제의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해온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암연구소의 발표로 글리포세이트 사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곧바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환경청(EPA)은 이번 발표를 참고해 글리포세이트의 안전성을 다시 공식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br/>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이 착잡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36.txt

제목: [주현영의 와일드 와일드 북] ‘개’ 힘들어도… 있을때 잘하자!  
날짜: 201504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06100000025  
본문: 산길을 올라가고 있다. 날은 상쾌하고 제법 땀도 난다. 방금 비가 그쳐서인지 햇살은 더 반짝이는 듯하다. 얼굴에 부딪히는 기분 좋은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린다. 숨을 크게 내쉬었다. 가슴이 탁 트인다. 다시 더 크게 공기를 마시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산 저편에 커다랗고 선명한 쌍무지개가 보였다. 그렇게 커다랗고 선명한 무지개는 처음이다. 그 무지개의 빛이 내 손목에 찬 시계에 반사된다. 시계를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귀청이 떨어져나가도록 알람이 울린다. 띠디디딕 띠디디딕~ 아! 꿈이다.<br/>그때 누군가 내 등을 두드린다. 휙 돌아봤다. 허연 털뭉치가 보이더니 차츰 정신이 들고 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꼬몽이의 얼굴로 바뀐다. 우리 집 강아지다. 내 침대를 온통 점령하고 자는 우리 집 개들은 알람이 울리면 먼저 일어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나를 깨운다. 그날도 앞발로 나의 등을 두드려 깨우고 있었다. ‘귀여운 것들!’ 이렇게 행복하고 활기찬 아침이 언제까지나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려면 이 녀석들이 앞으로 20년은 더 내 곁에 있어 주어야 할 텐데….’<br/>그나저나 쌍무지개 꿈이라…. 아무래도 올해 대박이 나려나 보다. 이 좋은 꿈을 기억해 두려고 수첩을 꺼내서 크게 썼다. ‘쌍무지개 꿈’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 해맑은 기대와는 달리 나는 그날부터 악전고투를 했다. 집을 나서 차 문을 열다가 이마를 박아 별이 번쩍였고 얼마 후에는 물건을 잃어버렸다. 그뿐 아니다. 비행기표 예약 날짜를 잘못 기재해 놓는 바람에 공항에서 할인도 안 되는 비싼 표를 다시 사서 여행을 떠나야 했다. 그야말로 실수와 손재수의 연속이었다. 대체 언제쯤 쌍무지개 꿈이 효과를 보는 걸까? 꿈을 꾼 날짜를 확인하려고 수첩을 뒤졌다. “오~ 마이 갓!” 내가 수첩을 보며 내뱉은 말이다. “쌍 무지 개꿈” 이런 환장할 띄어쓰기라니!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잊지 않으려고 급히 쓴 탓일 것이다. 어찌됐건 ‘개꿈’도, ‘무지 개꿈’도 모자라 ‘쌍’이라는 육두문자까지 턱하니 장착된 꿈! ‘이러니 재수 옴 붙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혼자 마구 웃었다. <br/>나는 개를 참 좋아한다. 개가 등장하는 소설이나 영화는 모조리 찾아본다. 최근에는 대만과 일본의 합작 영화 <일분만 더>가 개봉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본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일분만 더>는, 마치 우리 이웃의 이야기처럼 진솔하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다. 예전에 이 책을 읽는 동안 내 강아지 몽이를 하늘나라로 보내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그때도 책을 읽다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난다. 나중에는 겉표지만 봐도 슬픔이 울컥 치밀어 올라오는 바람에 기어이 그 책을 제자 손에 쥐여 내보내 버렸다.<br/>영화 개봉 소식으로 책을 다시 읽어보고 싶어서 새로 주문을 했다. 택배로 도착한 포장을 열자 책이 나오는데, 제목만 봐도 여전히 가슴이 덜컹한다. 잘나가는 패션 잡지 에디터인 가미야 아이. 7년 전, 아이는 카피라이터 고스케를 만나서 연인이 됐고, 애완견에 대한 기획기사 건으로 애완견센터를 방문했다가 생후 4개월의 골든 레트리버 ‘리라’를 맡아 기르게 된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던 어느 날 고스케와 헤어지게 된다. 이제 강아지 리라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점점 자신만을 기다리는 리라가 버거워진 주인공.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강아지 리라가 없어져 버리기를, 심지어 병들어 버리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처럼 리라는 암에 걸리고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br/>여기까지 읽고는 도저히 책장을 더 넘길 용기가 나지 않는다. 회사에서 리라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뛰어가는 주인공 아이의 모습이 등장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br/>소설 <일분만 더>는 놓아버린 후에야 알게 되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소설은 나에게 사랑에 대한 특별한 깨달음을 주었다. 집착과 사랑의 구분점 같은 것 말이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랑한다면 슬픔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는 상처를 남겨주지도 않는다. 그것은 모두 집착의 몫일 뿐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강아지들의 숨소리가 못 견디게 사랑스럽다. 이 아름다운 생명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한 나는 여전히 행복하다. 내가 비록 ‘무지 개꿈’을 ‘쌍’으로 꾼다 해도 말이다. 강아지들에게 나지막하게 말을 걸어본다. “얘들아, 내 곁에서 행복하게 살다 가렴. 슬픔은 내가 다 감당해줄게. 그렇게 이 사랑을 책임져 줄게.”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37.txt

제목: 안산 한사랑병원, 단일통로 복강경수술 2000례 달성 기념행사 개최  
날짜: 201504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0610016869555  
본문: 안산 한사랑병원(병원장 이천환)은 4월 6일 단일통로 복강경수술 2000례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br/>단일통로 복강경수술이란 배꼽을 통하여 복강경 장비를 삽입하여 치료하는 수술방법을 말한다. 복강경수술은 절개 수술법에 비하여 상처가 작고 통증이 적으며 회복이 빠른 수술방법이다. 그 중에서 단일통로 복강경수술은 수술 후 흉터가 거의 남지 않아 구멍을 3~4개를 뚫는 기존의 복강경 수술방식보다 더 진일보한 고난이도의 수술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외과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수술법이며 충수절제, 담낭절제, 탈장수술 등에 적용되고 있다.<br/>안산 한사랑병원은 지난 2011년 4월 개원 이래 충수절제술(일명 맹장수술)을 비롯하여 담낭절제술과 탈장수술 등 주요 외과수술 분야에서 단일통로 복강경수술을 적용해 왔으며 약 4년에 걸쳐 2000례를 달성하였다.<br/><br/><br/>사진 : 단일통로 복강경수술 2000례 성과보고를 하고 있는 한사랑병원 김준영 진료부장(외과전문의)<br/><br/>이날 ‘단일통로 복강경수술 2000례 달성 성과보고’를 맡은 안산 한사랑병원 김준영 진료부장(외과전문의)은 “세계 최초의 복강경위암수술은 1992년 일본의 도쿄대가 아닌 지방의 100병상 미만인 오이타 의대 키타노 교수부터 시작되었으며, 대장항문분야의 사관학교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세인트막병원 역시 40병상 미만의 규모입니다. 환자치료에 중요한 첨단의술 개발은 병원의 규모보다 의료진의 경험과 수준이 중요합니다. 한사랑병원은 최신수술법인 단일통로 복강경수술을 대한민국의 일류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에서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br/><br/>안산 한사랑병원은 유방·갑상선 /상부위장관 /대장항문 /간·담낭·췌장 /하지정맥류 /화상/ 치료내시경 을 담당하는 분야별 전문 의료진이 있으며 지난 2013년 6월에 단일통로 복강경수술 1200례를 달성했고, 2014년 8월 보건복지부지정 ‘인증의료기관’ 자격획득에 이어 2015년 1월 1일 부로 보건복지부지정 외과전문병원에 선정된바 있다.<br/>&#160;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38.txt

제목: [과학 오디세이]GMO용 농약이 더 무섭다  
날짜: 201504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0510016857980  
본문: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안전성을 두고 과학계에서 다시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 이번에는 GMO 자체가 아니라 GMO를 재배할 때 함께 살포하는 농약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다. 지난달 21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한 의학 학술지를 통해 글리포세이트가 높은 수준의 발암성 물질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 경작지에서 널리 사용돼온 제초제이다. 특히 GMO를 재배할 때 주로 살포되고 있으며, 바로 GMO 때문에 그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제초제이기도 하다. 과연 GMO가 무엇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오랜 의구심이 새삼 생기게 한다.<br/><br/>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알려진 GMO가 재배돼왔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GMO는 두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제초제에 견디는 기능과 살충 기능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제초제저항성 GMO의 양이 단연 압도적이다. 예를 들어 2014년 전 세계에서 경작되는 GMO 가운데 제초제저항성 GMO는 57%, 제초제저항성과 살충성을 동시에 갖춘 GMO는 28%에 달한다. <br/><br/>대표적인 GMO인 콩과 옥수수가 제초제에 견딘다는 말은 제초제 성분을 분해할 수 있는 유전자를 미생물에서 얻어 콩과 옥수수에 삽입했음을 의미한다. 한동안 개발사 측은 과거에 비해 동일하거나 적은 양의 제초제를 살포해도 콩과 옥수수는 살아남기 때문에 결국 수확량이 증가해 농업 생산자에게 큰 이익이 주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다만 제초제는 GMO 개발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몬산토의 글리포세이트는 상품명이 라운드업(Roundup)인데, 자사의 GMO는 이 제초제에 견디도록 준비된 제품이라는 의미에서 라운드업-레디(Roundup ready)라고 부른다. 다른 개발사의 제초제에는 ‘약발’이 듣지 않는다. 농업 생산자로서는 GMO와 제초제를 한 회사로부터 함께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br/><br/>그런데 GMO 재배가 늘어나면서 제초제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09년 미국 유기농센터의 찰스 벤브룩 박사는 미국에서 GMO의 상업적 재배가 시작된 1996년부터 13년간 제초제 사용량이 3억8260만파운드(1파운드는 약 0.45㎏)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원인은 기존의 제초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잡초 때문이었다. 미국 GMO 재배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초제가 바로 글리포세이트이다. 2013년 5월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는 당시까지 세계 18개국에서 총 24종의 글리포세이트 내성 잡초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br/><br/>이런 상황이기에 최근 국제암연구소의 발표는 지난 20여년간 GMO를 섭취해온 세계인에게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글리포세이트의 위험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구소는 특정 물질의 암 발생 정도를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글리포세이트는 두 번째 수준인 2A등급으로 분류됐다. 암을 확실히 일으키는 1등급 물질, 발암 가능성이 있는 2B등급 물질의 중간 지점이다. 연구소는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실험동물의 경우 충분히 확보됐지만, 인간에 대한 자료는 아직 제한적이어서 2A등급을 매겼다고 밝혔다. <br/><br/>즉각 개발사 측의 반박이 제기됐다. 연구 방법상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글리포세이트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는 공공의 영역과 산업계 등의 주도로 진행돼왔는데, 이번 발표는 산업계의 연구 결과를 의도적으로 빠트리고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과학계 일각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권위를 가진 연구소가 이 같은 민감한 사안을 그리 허술한 과정을 거쳐 발표할 리가 없다. <br/><br/>당장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세계 28개 GMO 재배국의 농업 생산자와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유전자가 변형된 콩과 옥수수는 멀쩡하다지만, 발암성 제초제의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해온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암연구소의 발표로 글리포세이트 사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곧바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환경청(EPA)은 이번 발표를 참고해 글리포세이트의 안전성을 다시 공식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br/><br/>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이 착잡하다.<br/><br/><김훈기 |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39.txt

제목: 몸 안의 칩… 유용한 미래 기술일까, 섬뜩한 감시 도구일까  
날짜: 20150404  
기자: 남지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04100000038  
본문: ▲ 손만 대면 문이 열리고<br/>물건 산 뒤 걸어나오기만 해도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br/>치매 환자도 추적할 수 있는,<br/>상상 속의 일들이 어느새 현실로 다가와<br/>▲ 가석방 죄수 감시용·에이즈 환자 모니터링용 등<br/>생체칩 활용 방안 오래전부터 거센 논란<br/>편리함 넘어 ‘더 큰 목적’ 인권침해 우려 높아져<br/>스웨덴 스톡홀름의 첨단기술 산업단지 ‘에피센터’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펠리시오 데 코스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갈 때 사원증을 찍는 대신 출입문에 설치된 단말기에 손을 댄다. 사원용 복사기를 사용할 때도 복사기에 손을 살짝 갖다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그의 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쌀알만 한 크기의 RFID(단거리 무선 주파수 식별) 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무실 문을 열거나 복사기를 사용할 때뿐이지만 앞으로는 사내 카페에서 마이크로칩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국 BBC가 지난달 전한 풍경이다.<br/><br/>■ 손만 갖다대면 문이 열린다<br/>이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 중 아직 칩을 이식받은 사람은 소수지만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칩은 주사기를 이용해 간단히 넣을 수 있으며 수술로 제거하기 전까지는 빠지지 않는다. 에피센터를 취재하기 위해 방문했던 BBC 기술담당 기자 로리 셀런존스는 직접 손에 칩을 이식받는 실험을 했다.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마사지하고 소독한 뒤 큰 주사바늘을 찔러넣고 단번에 칩을 밀어넣는다. 그는 칩을 이식할 때 매우 아프기는 했지만 보통 주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고 전했다. 주사 맞은 상처만 아물면 칩을 이식했다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br/>가축 위치 추적에나 쓰던 마이크로칩을 인간의 몸속에 이식하는 일은 2000년대 들어 크게 늘었다. 미국의 ‘베리칩’이 가장 유명하다. 어플라이드 디지털솔루션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베리칩은 ‘확인용 칩(verification chip)’의 약자다. 16자리의 고유번호를 내장하고 있는 RFID 방식이다.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2004년 인체에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지만 2010년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양한 회사들이 개발한 체내 칩이 사용되고 있다.<br/>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으며 널리 쓰이는 분야는 신분 확인과 보안이다. 베리칩은 2010년 단종되기 전까지 발전소 등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시설 근무자들에게 널리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br/>일례로 오하이오의 한 영상감시시스템 회사는 2007년 감시 비디오테이프가 보관된 방의 보안 유지를 위해 생체칩 인식 시스템을 설치했고, 직원 2명이 팔 안에 생체칩을 이식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한 나이트클럽은 VIP 손님을 식별하기 위해 생체칩을 이용하기도 했다.<br/><br/>최근 떠오르고 있는 전자결제를 응용해 더 편리한 결제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산 뒤 그냥 걸어나오기만 해도 자동으로 계산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결합할 수도 있다. 네덜란드에서 비트코인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마틴 위즈마이어는 지난해 말 양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칩을 이식하는 시술을 받았다. 비트코인은 해킹을 막기 위해 데이터를 온라인과 연결되지 않는 공간에 저장하는데, 체내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br/>비상시에도 유용하다. 칩 안에 의료정보를 저장해두면 응급상황에서 빠르게 질병 기록을 파악할 수 있다. 베리칩은 단종되기 전까지 비상시 의료정보를 검색하는 데 이용됐고 2006년 기준으로 미국의 80개 병원이 베리칩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었다. GPS 장치를 내장한 칩을 어린아이나 분쟁지역에 들어간 기자·자원봉사자에게 삽입하면 납치당했을 때 위치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 <br/>1970년대부터 ‘생체칩 시대’를 일찌감치 예측한 SF작가 래리 니븐은 “<span class='quot0'>생체칩을 이식받을지는 개인의 선택이어야 하지만 생체칩은 범죄와의 싸움을 훨씬 쉽게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초창기 멤버였고 지금은 인기 작가로 활동 중인 라메즈 나암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생체칩을 이식해 실종을 막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생체칩 사용 범위는 매우 넓다. 사실상 RFID 방식을 사용하는 모든 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출석체크를 할 수도 있고 컴퓨터의 잠금을 해제할 수도 있으며 버스를 탈 때 버스카드 대신 손을 대기만 해도 된다. 심지어 “당신이 도넛 가게에 들어가기만 해도, 가게 점원은 구매기록을 분석해 설탕 시럽을 입힌 도넛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폭스뉴스는 보도했다.<br/><br/>■ <킹스맨> 밸런타인의 계획, 현실이 될까<br/>영화 <킹스맨>에서 야망에 가득 찬 세계적 정보기술(IT) 재벌 밸런타인은 전 세계 지도자들의 몸속에 삽입한 칩을 조종해 파국을 불러온다.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한 생체칩이 어떻게 ‘위험물질’이 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누군가가 내 몸속의 칩을 이용해 나의 안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킹스맨>이 그리는 디스토피아는 아직 먼 미래의 일로 보인다.<br/>하지만 생체칩은 이미 ‘매우 유용한 감시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8년부터 가석방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이들의 몸에 생체칩을 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에게나 쓰던 생체칩으로 인간의 위치를 추적하겠다는 거냐”며 거센 논란이 일었고 아직까지 이 방안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도 전자발찌 대신 생체칩을 이용해 아동성범죄자 등의 행적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br/>반대론자들은 생체칩 감시가 인권침해인 데다 범죄를 막지도 못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몸에서 뗄 수 없는 생체칩을 이용해 시민들의 행적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br/>이미 생체칩으로 이동을 감시하자는 아이디어는 범죄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서는 2007년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에이즈 환자에게 생체칩을 의무적으로 이식한다는 조항이 담긴 법안이 주의회에 올라왔다. 격렬한 반대 끝에 이 조항은 이듬해 12월 통과된 최종 법안에서 삭제됐지만,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체칩을 심어 인간을 감시한다는 발상은 전 세계를 섬뜩하게 했다.<br/>RFID 방식의 생체칩이 해킹 위험에 취약하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한다. 민감한 개인정보와 계좌정보, 건강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r/>생체칩 이식이 암과 같은 신체 이상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있다. 생체칩을 둘러싼 근거없는 루머와 음모론도 횡행한다. 한때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시민 모두에게 강제로 베리칩을 심으려 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돌기도 했다.<br/>스웨덴 에피센터에서는 생체칩 이식이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언젠가 대기업이 효율을 위해 모든 직원들에게 생체칩 이식을 의무화하는 날이 오지 말란 법도 없다. 이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만약 생체칩이 기록하는 개인의 행적이 한 곳으로 모이면 소설 <1984>와 같은 감시사회가 도래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br/>에피센터의 칩 프로그램 담당자 한네스 소요블라드는 BBC에 칩을 이식하는 것에 단순히 생활에서 편리를 추구하는 것을 뛰어넘는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span class='quot1'>우리는 대기업과 정부가 이 기술을 활용하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세금징수 칩’이나 ‘구글 칩’, ‘페이스북 칩’을 몸속에 넣어야 하는 때가 오기 전까지 이 기술을 이해하고 싶어요.</span>”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40.txt

제목: [건강도약 2015 - 식습관을 바꾸세요](2) 당류 섭취 더 낮춰야  
날짜: 201504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03100000061  
본문: ▲ 당 늘면 - 단기간 내 혈당 급상승, 췌장 부담으로 당뇨 우려<br/>살펴라 - 당류 섭취 하루 50g 이내로… 가공식품 당류 함량 표시 확인을<br/>지켜라 - 식사 순서는 채소 → 고기·생선 → 탄수화물 음식<br/>과당, 포도당, 설탕, 액상과당 등 당류(당분·단순당)의 지나친 섭취는 당뇨병이나 비만·고지혈증·비알코올성 지방간 등을 초래한다. 또 충치와 잇몸병의 원인이 되며, 심혈관 질환과 일부 암의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중 첨가당의 하루 섭취량을 전체 열량의 1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는 자연식품에 함유된 천연당을 제외한 수치다.<br/>한국인 성인의 경우 2000㎉를 기준으로 대략 50g을 기준치로 잡는다. 하지만 하루 동안 이런 권고안 수준의 당류를 섭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콜라·사이다 등 탄산음료 한 잔(200㎎ 기준)을 마시면 25g 이상의 첨가당을 섭취한다. 또 팥빙수 한 그릇(보통 크기)은 당류 함유량이 60~80g이나 된다. 도넛(150g 기준) 1개의 경우 당류 30~40g짜리가 수두룩하다. 아이스크림은 100g당 15~30g 수준이다. 과자나 파이류도 낱개 1개당(혹은 1회 제공량) 당분 15~20g짜리가 많다. 천연 과즙음료에도 20g 안팎의 당분이 들어가 있다.<br/>더욱이 국민들의 식생활은 밥이나 면류 등 탄수화물(단순당과 녹말·셀룰로스 등 복합당을 포함해 당분 전체를 뜻함)이 많은 식사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1997~2013년) 자료를 보면 에너지 섭취량의 3분의 2가량이 탄수화물(당질)이다. 탄수화물은 대부분 당분으로 전환되는 영양소이다. 게다가 소아 청소년기부터 당류 함량이 높은 인스턴트(즉석 식품)나 가공식품의 의존 빈도가 점점 높아져 국민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br/><br/>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일일 당분(첨가당+천연당) 섭취량은 2008년 56.0g에서 2012년 65.3g으로 높아졌다. 가공식품을 통한 것이 61%로, 이는 대부분 첨가당이다. 음료류(34.3%)나 빵·과자·떡류(15.0%)가 주된 첨가당 공급원이었다. 10∼20대의 경우 섭취량의 90% 이상이 첨가당이다. 한국인의 23%가 50g 이상의 첨가당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br/>당류 섭취량이 늘어나면 몸에 포도당이 축적되고, 단기간 내에 급격히 혈당이 높아진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 부담이 생기고,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져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가능성이 생긴다.<br/>전문가들은 가공식품을 고를 때 당류 함유량을 꼭 살펴보라고 강조한다. 현재 탄수화물이나 지방, 나트륨 등은 1일 권고량 비율(%)을 표시해 놓았지만 당류의 경우 함량만 표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안인 50g으로 각자 계산하는 수밖에 없다. 기준치 내에서도 첨가당을 줄이고 과일이나 우유, 꿀 등에 포함된 천연당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br/>인제대 서울백병원 강재헌 교수(가정의학과)는 “<span class='quot0'>당류뿐 아니라 당지수가 높은 식품의 과량 섭취 또한 췌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위험 요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특히 근육이나 간에 당을 보내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소모되지 못하고 남는 당은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복부나 피하 지방세포에 더해진다</span>”고 설명했다. 당류 섭취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당지수(GI)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다. 당지수는 당질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혈당 수치를 높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GI가 70 이상이면 당지수가 높고, 55 이하이면 낮은 수준이다. 56~69는 중간이다. <br/>대한당뇨병학회는 “<span class='quot1'>식사 계획을 세울 때 총 당질 섭취량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당지수와 당부하지수를 고려해야 한다</span>”고 밝혔다. 당부하지수는 1회 섭취량의 당질을 기준으로 혈당반응을 비교한 값이다. 식품마다 1회 분량에 함유된 당질의 함량이 다르므로 실생활에 적용할 때는 당지수가 아닌 당부하지수를 비교해야 한다.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흰빵보다는 통밀빵을, 찹쌀보다는 멥쌀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br/>하지만 당지수가 낮은 식품(가공식품·조리식품 포함) 중에는 지방함량이 높아 건강에 좋지 않은 것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다른 음식과 섞어 먹는다. 밥, 빵, 떡, 국수 같은 탄수화물은 살코기(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생선 같은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소화 속도와 당지수를 낮출 수 있다.<br/>음식 섭취 순서도 중요하다. 대개 탄수화물 음식을 먼저 먹고 반찬을 먹는데,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기 쉽다. 채소를 먼저 먹은 뒤 고기나 생선처럼 단백질 음식을 먹고, 맨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음식을 먹도록 한다.<br/>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당류 섭취 권고안을 현재의 절반인 25g으로 하자는 제안을 각국에 내놓는 등 당류기준 강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41.txt

제목: 몸 안의 칩… 유용한 미래 기술일까, 섬뜩한 감시 도구일까  
날짜: 201504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0310016849337  
본문: <b>▲ 손만 대면 문이 열리고<br/>물건 산 뒤 걸어나오기만 해도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br/>치매 환자도 추적할 수 있는,<br/>상상 속의 일들이 어느새 현실로 다가와</b><br/><br/><b><b>▲ 가석방 죄수 감시용·에이즈 환자 모니터링용 등<br/>생체칩 활용 방안 오래전부터 거센 논란<br/>편리함 넘어 ‘더 큰 목적’ 인권침해 우려 높아져</b></b><br/><br/>스웨덴 스톡홀름의 첨단기술 산업단지 ‘에피센터’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펠리시오 데 코스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갈 때 사원증을 찍는 대신 출입문에 설치된 단말기에 손을 댄다. 사원용 복사기를 사용할 때도 복사기에 손을 살짝 갖다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그의 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쌀알만 한 크기의 RFID(단거리 무선 주파수 식별) 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무실 문을 열거나 복사기를 사용할 때뿐이지만 앞으로는 사내 카페에서 마이크로칩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국 BBC가 지난달 전한 풍경이다.<br/><br/><br/><b>■ 손만 갖다대면 문이 열린다</b><br/><br/>이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 중 아직 칩을 이식받은 사람은 소수지만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칩은 주사기를 이용해 간단히 넣을 수 있으며 수술로 제거하기 전까지는 빠지지 않는다. 에피센터를 취재하기 위해 방문했던 BBC 기술담당 기자 로리 셀런존스는 직접 손에 칩을 이식받는 실험을 했다.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마사지하고 소독한 뒤 큰 주사바늘을 찔러넣고 단번에 칩을 밀어넣는다. 그는 칩을 이식할 때 매우 아프기는 했지만 보통 주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고 전했다. 주사 맞은 상처만 아물면 칩을 이식했다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br/><br/>가축 위치 추적에나 쓰던 마이크로칩을 인간의 몸속에 이식하는 일은 2000년대 들어 크게 늘었다. 미국의 ‘베리칩’이 가장 유명하다. 어플라이드 디지털솔루션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베리칩은 ‘확인용 칩(verification chip)’의 약자다. 16자리의 고유번호를 내장하고 있는 RFID 방식이다.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2004년 인체에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지만 2010년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양한 회사들이 개발한 체내 칩이 사용되고 있다.<br/><br/>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으며 널리 쓰이는 분야는 신분 확인과 보안이다. 베리칩은 2010년 단종되기 전까지 발전소 등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시설 근무자들에게 널리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br/><br/>일례로 오하이오의 한 영상감시시스템 회사는 2007년 감시 비디오테이프가 보관된 방의 보안 유지를 위해 생체칩 인식 시스템을 설치했고, 직원 2명이 팔 안에 생체칩을 이식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한 나이트클럽은 VIP 손님을 식별하기 위해 생체칩을 이용하기도 했다.<br/><br/><br/>최근 떠오르고 있는 전자결제를 응용해 더 편리한 결제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산 뒤 그냥 걸어나오기만 해도 자동으로 계산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결합할 수도 있다. 네덜란드에서 비트코인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마틴 위즈마이어는 지난해 말 양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칩을 이식하는 시술을 받았다. 비트코인은 해킹을 막기 위해 데이터를 온라인과 연결되지 않는 공간에 저장하는데, 체내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br/><br/>비상시에도 유용하다. 칩 안에 의료정보를 저장해두면 응급상황에서 빠르게 질병 기록을 파악할 수 있다. 베리칩은 단종되기 전까지 비상시 의료정보를 검색하는 데 이용됐고 2006년 기준으로 미국의 80개 병원이 베리칩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었다. GPS 장치를 내장한 칩을 어린아이나 분쟁지역에 들어간 기자·자원봉사자에게 삽입하면 납치당했을 때 위치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 <br/><br/>1970년대부터 ‘생체칩 시대’를 일찌감치 예측한 SF작가 래리 니븐은 “<span class='quot0'>생체칩을 이식받을지는 개인의 선택이어야 하지만 생체칩은 범죄와의 싸움을 훨씬 쉽게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초창기 멤버였고 지금은 인기 작가로 활동 중인 라메즈 나암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생체칩을 이식해 실종을 막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생체칩 사용 범위는 매우 넓다. 사실상 RFID 방식을 사용하는 모든 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출석체크를 할 수도 있고 컴퓨터의 잠금을 해제할 수도 있으며 버스를 탈 때 버스카드 대신 손을 대기만 해도 된다. 심지어 “당신이 도넛 가게에 들어가기만 해도, 가게 점원은 구매기록을 분석해 설탕 시럽을 입힌 도넛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폭스뉴스는 보도했다.<br/><br/><br/><b>■ <킹스맨> 밸런타인의 계획, 현실이 될까</b><br/><br/>영화 <킹스맨>에서 야망에 가득 찬 세계적 정보기술(IT) 재벌 밸런타인은 전 세계 지도자들의 몸속에 삽입한 칩을 조종해 파국을 불러온다.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한 생체칩이 어떻게 ‘위험물질’이 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누군가가 내 몸속의 칩을 이용해 나의 안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킹스맨>이 그리는 디스토피아는 아직 먼 미래의 일로 보인다.<br/><br/>하지만 생체칩은 이미 ‘매우 유용한 감시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8년부터 가석방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이들의 몸에 생체칩을 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에게나 쓰던 생체칩으로 인간의 위치를 추적하겠다는 거냐”며 거센 논란이 일었고 아직까지 이 방안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도 전자발찌 대신 생체칩을 이용해 아동성범죄자 등의 행적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br/><br/>반대론자들은 생체칩 감시가 인권침해인 데다 범죄를 막지도 못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몸에서 뗄 수 없는 생체칩을 이용해 시민들의 행적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br/><br/>이미 생체칩으로 이동을 감시하자는 아이디어는 범죄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서는 2007년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에이즈 환자에게 생체칩을 의무적으로 이식한다는 조항이 담긴 법안이 주의회에 올라왔다. 격렬한 반대 끝에 이 조항은 이듬해 12월 통과된 최종 법안에서 삭제됐지만,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체칩을 심어 인간을 감시한다는 발상은 전 세계를 섬뜩하게 했다.<br/><br/>RFID 방식의 생체칩이 해킹 위험에 취약하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한다. 민감한 개인정보와 계좌정보, 건강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r/><br/>생체칩 이식이 암과 같은 신체 이상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있다. 생체칩을 둘러싼 근거없는 루머와 음모론도 횡행한다. 한때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시민 모두에게 강제로 베리칩을 심으려 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돌기도 했다.<br/><br/>스웨덴 에피센터에서는 생체칩 이식이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언젠가 대기업이 효율을 위해 모든 직원들에게 생체칩 이식을 의무화하는 날이 오지 말란 법도 없다. 이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만약 생체칩이 기록하는 개인의 행적이 한 곳으로 모이면 소설 <1984>와 같은 감시사회가 도래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br/><br/>에피센터의 칩 프로그램 담당자 한네스 소요블라드는 BBC에 칩을 이식하는 것에 단순히 생활에서 편리를 추구하는 것을 뛰어넘는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span class='quot1'>우리는 대기업과 정부가 이 기술을 활용하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세금징수 칩’이나 ‘구글 칩’, ‘페이스북 칩’을 몸속에 넣어야 하는 때가 오기 전까지 이 기술을 이해하고 싶어요.</span>”<br/><br/><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42.txt

제목: 천진우 특훈교수 등 5명 ‘호암상’ 수상  
날짜: 20150402  
기자: 이호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02100000089  
본문: 호암재단은 천진우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53) 등 5명을 제25회 호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br/>천 교수는 과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학상에는 김창진 미국 UCLA 교수(57)가 선정됐고, 김성훈 서울대 교수(57)가 의학상, 현대미술작가 김수자씨(58)가 예술상, 간호사 백영심씨(53)가 사회봉사상을 받는다. <br/>천 교수는 나노과학의 대가로 세계적 수준의 나노물질 개발을 위한 화학적 설계 기술을 확립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br/>김창진 교수는 전기 습윤기술 창시자로, 전위차를 이용해 액체의 습윤성과 표면 장력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 기존보다 쉽고 빠르게 미세유체 제어를 가능하게 했다.<br/>김성훈 교수는 항암 단백질 전문가로 생체 단백질 합성효소가 세포의 증식·분화·사멸에 관여하고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김수자 작가는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보따리’, ‘바늘여인’ 시리즈를 통해 독창적 예술세계를 구축했다. ‘말라위의 나이팅게일’로 불리는 백영심씨는 1994년부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br/>수상자들은 6월1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상장과 순금 50돈짜리 메달, 상금 3억원을 각각 받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43.txt

제목: [출장발명가 노승권의 알면 힘이 되는 생물학] 안젤리나 졸리는 왜 난소를 절제했을까  
날짜: 201504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01100000126  
본문: 미국의 유명 여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최근 암 예방 차원에서 난소와 나팔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졸리는 2013년 2월에 양쪽 유방을 절제한 바 있습니다.<br/>외모를 가꿔야 하는 영화배우가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양쪽 유방에 이어 난소와 나팔관 절제수술을 받았다니 의외입니다. 졸리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게 만든 이유는 BRCA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합니다.<br/>BRCA유전자는 무엇이고 BRCA유전자 돌연변이는 어떻게 암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납니다. 햇빛에 있는 자외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는 유전자 변이 유발 물질이 많습니다. 우리 몸의 자체 실수에 의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유전자 변이가 많은데도 암 발생이 드문 이유는 우리 몸에 유전자 변이를 수정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br/>BRCA는 Breast Cancer(유방암)의 약자입니다. BRCA유전자는 위에 설명한 유전자 변이 수정 시스템(DNA Repair Process)에 관여하는 단백질 유전자입니다. 따라서 BRCA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다는 이야기는 유전자 변이를 제대로 수정할 수 없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과 같습니다.<br/>BRCA유전자 돌연변이는 많지는 않지만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고위험 BRCA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으면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 가능성이 정상인에 비해 5~10배 높습니다. BRCA유전자는 BRCA1과 BRCA2 두 개가 있는데, BRCA1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더 위험합니다.<br/>고위험 BRCA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고 해서 모두 유방암에 걸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위험 BRCA1유전자 돌연변이 보유자는 70세 이전에 50~65%가 유방암에, 35~46%는 난소암에 걸립니다. 고위험 BRCA2 유전자 돌연변이의 경우는 70세 이전에 40~57%가 유방암으로, 13~23%는 난소암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암이 한 번 발생하면 10년 이내에 새로운 암에 걸릴 확률이 40%나 됩니다.<br/>졸리의 경우에는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87%, 난소암 확률은 50%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졸리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이모 등 가족의 상당수가 유방암과 난소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암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고 합니다.<br/>전체 유방암 환자의 5~10%가 BRCA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BRCA유전자는 우성이기 때문에 부모 중 한 명만 돌연변이가 있어도 아들과 딸 공히 유전될 확률이 50%입니다. 남성도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으면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높습니다.<br/>BRCA유전자 돌연변이는 유방암과 난소암뿐만 아니라 대장암·전립선암 등의 발병 확률도 올립니다.<br/>졸리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대 생명공학 기술이 그녀의 선택을 도왔음은 분명합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44.txt

제목: 평범한 가면을 쓴 치명적인 암 구강암 경보  
날짜: 201504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01100000008  
본문: 암은 우리 몸 어디서든 생길 수 있다. 입 안에도 마찬가지다. 아직 대중에게 낯선 구강암은 평범한 증상 탓에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5년 생존율 역시 다른 암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큰코다칠 수 있다. 구강암의 정체를 살펴봤다.<br/><br/>구강암이란?<br/>구강암은 말 그대로 입 안에 발생하는 암이다. 잇몸을 비롯해 치아를 둘러싼 뼈인 치조골, 혀, 입천장, 침샘 등이 포함되며 발병하면 씹고, 삼키고, 말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숨 쉬는 기능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폐암과 간암, 대장암과 같이 보이지 않는 장기에 발생하는 다른 암과 달리 얼굴 부분에서 발생돼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얼굴의 심한 외형 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자신감 상실로 인한 심리적 장애 등이 초래될 수 있다. 주로 흡연과 음주를 많이 동반하는 남자들에게서 발병률이 높은 편인데, 최근 발병 추이가 상승하고 있다. 구강암에 대한 관심이 차츰 높아지며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br/><br/>구강암의 종류<br/>구강암은 생기는 곳에 따라 설암, 치주암, 구강저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혀, 잇몸, 혀 밑바닥, 볼 점막 순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혀에 하얀색 병소가 나타나는 설암은 혀에 장시간 외상성 자극이 가해져 생기는 경우가 많다. 암이 잇몸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흔히 알고 있는 치주염과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1, 2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갑자기 치아가 심하게 흔들린다거나 발치 후에 회복이 더디다면 암을 의심할 수 있다. 혀 밑바닥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궤양으로 발생되거나 볼 점막에 생긴 하얀색 병변이 궤양으로 발전돼 암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공통적으로 입 안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궤양 형태로 발견되는데, 대부분 증상이 평범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발견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br/><br/>의심해볼 만한 증상들<br/>구강암은 입 안에서 불량 보철물이나 이물질, 틀니 등과 자주 닿을 수 있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궤양이나 병소가 있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염증이나 궤양과는 다르게 2, 3주 이상 상처가 낫지 않고 지속될 경우 암을 의심해보자. 갑작스럽게 치아가 흔들리는 것도 이상 증상이다. 보통 치아 발치 후 2주 정도가 지나면 상처가 아물며 잇몸이 메워지는데, 회복이 되지 않고 궤양이 심해진다면 구강암을 의심해볼 수 있다. 입 안에 혹이 느껴지는 경우 암이라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입 안에 지워지지 않는 백색 반점이 나타나거나 붉은 반점이 계속될 때도 전문가를 찾아 조직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 스스로 입 안을 구석구석 확인해 구강암을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부분 구강암이 진단되는 경우는 가까운 치과 의원에서 구강 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때다. 따라서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구강 검진이 구강암을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br/><br/>발병 원인과 예방<br/>아직 구강암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장기간의 흡연과 음주가 주요 원인이라는 데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흔히 ‘야매’라 불리는 곳에서 만든 불량 보철물이나 잘 맞지 않는 틀니도 주요 원인이다. 입 안에 반복적인 자극이 가해지며 구강 점막 부위에 발생한 상처가 구강암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된다면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며 1년에 1회씩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자극적이거나 뜨겁고 찬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는 습관도 구강암을 발병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다른 암들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유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다.<br/><br/>모든 암이 그렇듯 구강암 역시 예방이 쉽지 않다. 금연과 음주 조절은 기본이며,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발병률을 낮추는 방법이다. 맵거나 뜨거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지나친 육류 섭취보다는 채소, 과일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식습관이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습관화하고 만약, 입병이라고 불리는 궤양이나 염증성 병터가 장기간 지속될 때는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br/><br/>치료와 완치율<br/>조직검사를 통해 구강암이 확진되면 CT, MRI, PET-CT 등의 촬영으로 병터의 위치와 전이 여부 등을 판단한 뒤, 기본적으로 외과적 절제를 통해 해당 병터와 주변 경계를 제거한다. 목의 림프절을 통해 다른 장기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보일 때는 목의 림프절을 제거한다. 구강암의 제거는 얼굴의 모양이나 기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거된 부위는 몸의 다양한 부위에서 피부와 뼈, 혈관을 동시에 이식해 치료가 이뤄진다. 경우에 따라서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를 적용해 치료하기도 한다.<br/><br/>조기에 발견됐을 경우 완치율이 상당히 높지만 대개 구강암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완치율이 높지 않으며, 5년생존율 역시 다른 암의 절반 정도로 낮은 편이다. 병터의 위치에 따라 생존율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혀에 발생한 암은 잇몸에 발생한 암보다 생존율이 낮은 편이다.<br/><br/>구강 건강 Q&A<br/>Q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입병부터 납니다. 특히 혓바늘이 자주 돋는데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자주 발생하는 혓바늘이 구강암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혀에 발생한 초기 구강암을 환자가 혓바늘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합니다. 소독 가글액이나 구내 연고를 바르는 게 효과적이며, 평소 안정적인 몸 상태를 유지하도록 컨디션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br/><br/>Q 지인이 3개월 전 구강저암 수술을 받았는데 혀와 잇몸으로 전이가 돼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구강암은 전이가 빠른 편인가요?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구강암의 발생 부위에 따라 전이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강이라는 환경이 여러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잇몸에서 발생한 암이 턱뼈로 전이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목의 임파선이나 폐, 뇌로 전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턱보다는 아래턱에서, 앞니보다는 어금니 부위에서, 혀의 전방부보다는 후방부에서, 혀의 윗부분보다는 아랫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 전이가 잘 일어나는 편입니다. 조기 확진이 적은 구강암은 전이가 일어난 뒤에 확진하는 경우가 많아 전이가 잘 일어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암입니다.<br/><br/>Q 늘 구강 궤양을 안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볼 부분이나 입술 안쪽에 구멍이 뻥뻥 뚫리거나 입 안이 자주 헐어요. 그때마다 연고제를 바르며 버티는데 구강 궤양은 완치가 어려운 건가요? 반복적인 구강 궤양이 발생하는 데는 구강 내에 원인이 될 만한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치과에서 원인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구강 내 원인 요소가 특별히 없다면 과로나 스트레스를 포함한 전신적인 면역 체계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고만으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구강 위생 관리에 신경 쓰고 면역을 떨어뜨리는 원인 즉, 과로와 스트레스 및 그 외의 전신적인 원인에 대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br/><br/>Q 입은 몸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질병 경보기’라고도 하는데,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입 속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평소 구강 위생 관리를 잘하는데도 타인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구취가 난다거나, 입 안 여러 곳에서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궤양이 발견될 경우, 치과 치료 후에 치료 부위의 회복이 더디다면 건강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잇몸이 들뜨는 느낌이 자주 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입 안이 자주 마르는 구강건조증이 나타날 때도 건강 상태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45.txt

제목: “투병의 고통 되뇔까 고민했지만 결국 넘어서 나를 새롭게 ‘화장’”  
날짜: 20150401  
기자: 이혜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01100000172  
본문: 김훈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화장>에서 죽어가는 ‘아내’는 마치 시들어가는 하얀 이파리 같다. 몸에는 거죽만 남은 것 같고 안색은 밀가루처럼 하얗다. 고통스러운 항암치료를 받으며 생을 이어가려 애써보지만 죽음은 하루하루 아내의 곁으로 다가온다. 자존심이 세고 강인했던 아내는 자신의 자리가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한다. 동시에 자신을 극진히 보살피고 있는 남편이 혹시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괴로워한다.<br/><화장>의 아내 역은 배우 김호정(47·사진)이 맡았다. 7년 만의 영화 복귀작이다.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김호정을 만났다.<br/>“시나리오를 받은 다음에야 ‘아내’가 뇌종양 환자라는 걸 알았어요. 읽지도 않고 안 하겠다고 했지요.”<br/><br/>처음엔 거장 임권택 감독의 작품이라는 데 흥분했다. 그렇지만 이내 고통스러운 투병생활의 기억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병마와 싸우며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의 복귀에 대한 설렘이 컸지만 투병생활의 고통을 되뇌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환자를 연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난 기억을 떠올려야 하니까요.”<br/>출연 요청을 거절한 뒤, 원래 예정했던 연출 공부를 위해 외국으로 나갔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데 한국에서 다시 한번 간곡한 요청이 왔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그제서야 시나리오를 읽었다. 내친김에 원작 소설도 봤다.<br/>“작품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다 읽고 난 후에도 계속 마음에 남아 있더라고요. 계속 갈등했죠. 나를 넘어설 것인지 회피할 것인지. 며칠간 고민 끝에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는 게 낫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br/>마음을 먹고 난 이후에는 단 한번도 흔들리거나 힘든 적이 없었다. 말기 암 환자처럼 보이기 위해 한 달 동안 극소량만 먹으며 단식했다. 김호정은 “<span class='quot0'>단식을 하면서도 배역에 집중이 잘됐고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span>”고 말했다. 수위 높은 노출로 화제가 됐던 ‘욕실 신’을 찍을 때도 덤덤했다. ‘욕실 신’은 병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내를 남편이 씻기는 장면이다. 김호정은 “<span class='quot0'>욕실 신은 죽어가는 아내를 돌봐야만 하는 남편의 현실을 지극히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span>”이라고 말했다.<br/><br/>영화 <나비>로 스위스 로카르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는 등 연기파 배우로 주목받았지만 그의 고통스러운 방황은 길었다. 배우가 되는 걸 반대했던 아버지의 죽음은 특히 그를 힘들게 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자신을 몰아쳐가며 연극을 했던 그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서 삶의 목표까지 사라지게 만들었다. 공허해진 심신 위로 병마가 덮쳤고 지루한 투병생활이 이어졌다. <화장> 시나리오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연기를 접고 연출을 공부하며 본격적으로 제2의 삶을 살려던 참이었다.<br/><화장> 출연과 함께 그는 현재 SBS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에도 등장한다. 오는 9월에는 연극무대에 서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br/>“새로 시작하는 신인 같은 마음이에요. 결국 모든 것은 제 마음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것이 최근 몇 년의 시간을 통해 얻은 결론이지요. <화장>은 저에게 배우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젠 어떤 연기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46.txt

제목: .  
날짜: 201504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01100000062  
본문: Movie<br/>장수상회<br/>재개발을 앞둔 동네 ‘장수마트’를 중심으로 70세 노인이 한 여인을 만나며 벌어지는 특별한 러브 스토리를 담아낸 영화다. 항상 까칠하기만 했던 연애 초보 성칠이 다정한 꽃집 여인 금님을 만난 뒤 로맨티스트로 변해가는 모습이 관전 포인트. 장수마트 사장 장수를 비롯해 황혼의 연애를 위해 연애 노하우를 전수하는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영화의 재미를 더한다. ‘꽃보다 할배’ 시리즈에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진정한 신사 박근형과 도회적이면서도 소녀 같은 윤여정의 만남이 색다르게 다가온다.<br/>박근형·윤여정 주연, 4월 9일 개봉.<br/><br/>한 번 더 해피엔딩<br/>한때 잘나가던 시나리오 작가로 할리우드에서의 재기만이 성공의 지표라고 여겼던 키스. 생활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골 대학 강사가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참된 행복의 가치를 알아간다. 그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자 두 아이를 둔 싱글 맘 홀리와의 러브라인도 주목해볼 만하다.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을 비롯해 이번 작품까지 네 차례 호흡을 맞춘 마크 로렌스 감독과 휴 그랜트의 콤비플레이가 흥행에 한몫할 듯.<br/>휴 그랜트·마리사 토메이 주연, 4월 8일 개봉.<br/><br/>분노의 질주: 더 세븐<br/>액션 시리즈 ‘분노의 질주’가 일곱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다. 주인공 도미닉과 멤버들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 괴물처럼 변한 특수부대 암살단 출신 이안에 맞선다. ‘트랜스포터’의 제이슨 스타뎀이 이안 역으로 합류해 더욱 강력해진 액션을 보여준다. 이번 시리즈는 핵심 멤버 중 하나인 브라이언을 연기한 폴 워커의 유작으로 7인의 오리지널 멤버를 모두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다. 아부다비, 콜로라도, 토론토, 도쿄 등 동서양을 넘나드는 전 세계 로케이션 촬영으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br/>빈 디젤·폴 워커 주연, 4월 2일 개봉.<br/><br/>화장<br/>암에 걸린 아내가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다른 여자를 깊이 사랑하게 된 남자의 번민을 그렸다. 2004년 제28회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김훈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안성기가 화장품 대기업 중역인 오상무 역을 맡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서글픔과 끓어오르는 갈망에 휩싸인 한 남자의 복잡한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해낸다. 오상무의 열정을 일깨우는 여인 추은주 역은 김규리가 맡았고 임권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베니스·베를린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16개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br/>안성기·김규리 주연, 4월 9일 개봉.<br/><br/>약장수<br/>외로운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각종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을 파는 홍보관. 아픈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직원으로 취직한 일범의 눈물겨운 생존기를 다룬다. 약장수라는 특이한 직업을 가진 남자의 처절한 인생을 통해 관객들에게 가족과 효(孝)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진다. 김인권은 지금까지 선보였던 코믹한 모습을 벗고 곧은 삶을 살았지만 약장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으로 변신했다. 돈 앞에서는 절대악으로 변하는 홍보관 점장 역할로 박철민이 가세했다.<br/>김인권·박철민 주연, 4월 23일 개봉.<br/><br/>엘리노어 릭비:<br/>그 남자 그 여자<br/>이른 봄 메마른 감성을 채우기에 제격인 멜로영화가 찾아왔다. 이별 통보만 한 채 갑자기 떠나버린 릭비를 찾아다니며 홀로 사랑을 지켜나가는 코너. 두 남녀의 서로 다른 기억이 빚어내는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시작된다. 코너 역의 제임스 맥어보이가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남자의 모습을 애절하게 그려낸다. 2014년 아카데미 골든 글로브 각본상을 수상한 영화 ‘그녀’의 제작진이 참여해 더욱 기대를<br/>모으고 있다.<br/>제임스 맥어보이·제시카 차스테인 주연, 4월 9일 개봉.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47.txt

제목: 천진우 특훈교수 등 5명 ‘호암상’ 수상  
날짜: 201504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0110016822483  
본문: 호암재단은 천진우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53) 등 5명을 제25회 호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br/><br/>천 교수는 과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학상에는 김창진 미국 UCLA 교수(57)가 선정됐고, 김성훈 서울대 교수(57)가 의학상, 현대미술작가 김수자씨(58)가 예술상, 간호사 백영심씨(53)가 사회봉사상을 받는다. <br/><br/>천 교수는 나노과학의 대가로 세계적 수준의 나노물질 개발을 위한 화학적 설계 기술을 확립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br/><br/>김창진 교수는 전기 습윤기술 창시자로, 전위차를 이용해 액체의 습윤성과 표면 장력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 기존보다 쉽고 빠르게 미세유체 제어를 가능하게 했다.<br/><br/>김성훈 교수는 항암 단백질 전문가로 생체 단백질 합성효소가 세포의 증식·분화·사멸에 관여하고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김수자 작가는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보따리’, ‘바늘여인’ 시리즈를 통해 독창적 예술세계를 구축했다. ‘말라위의 나이팅게일’로 불리는 백영심씨는 1994년부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br/><br/>수상자들은 6월1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상장과 순금 50돈짜리 메달, 상금 3억원을 각각 받는다.<br/><br/><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48.txt

제목: .  
날짜: 201504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01100000087  
본문: Special Feature<br/>33세. 「레이디경향」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나이(33.1세, 통계청)이기도 합니다. 한 개인에게 33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나이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거나 성공하거나 혹은 좌절을 견뎌내고 현재의 ‘나’를 완성한 인물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때 그 시절,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시간을 돌아봤습니다.<br/><br/>33 이야기<br/>33이란 우리 민족에게 혹은 다양한 종교 안에서도 특별한 숫자다.<br/>먼저 우리의 천지인 사상으로 볼 때 3은 동쪽의 기운으로 ‘새로 시작한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독립 운동가들은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을 구성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불교에서는 33개의 하늘(부처)이 있다는 뜻으로 ‘33천’이라 한다. 매년 1월 1일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서 총 33회 종을 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다. 성경에서도 33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예수가 죽은 나이는 33세이며 요셉이 성모마리아와 결혼한 나이도 33세다. 예수가 기적을 행한 횟수도 33회다. 우연히도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나오는 횟수 역시 33회다. 이슬람교에서조차 천국에서는 33세부터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모든 측면에서 33세란 어리지도, 그렇다고 늙지도 않은, 인간 삶의 정점인 시기로 여기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br/><br/>33세 강수진, 좌절하다<br/>세계 5대 발레단인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이자 현 국립발레단장 강수진(47). 10년이 넘는 무명 생활을 견디고 세계 무용계의 프리마돈나로 승승장구하던 1999년의 어느 날, 33세의 그녀는 발레리나로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병을 진단받았다. 병명은 정강이뼈 스트레스성 골절. 정강이뼈나 그 주위 근육에 반복적으로 고강도의 자극을 가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발목을 움직일 때마다 뼈를 깎아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처음엔 무용수로서 의례적으로 겪어는 부상 정도로 생각했지만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다. 의사는 당장 연습을 그만두고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발레를 못하게 될 거라고 했다.<br/>“1년간 쉬면서 상태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완전히 나을 거라는 확신도 없이 무대를 떠나야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홀로 유학을 떠나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올라온 이곳을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무용수들이 모이는 발레단에서 1년을 쉰다는 건 차라리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죠.”<br/>발레는 연습을 하루 쉬면 본인이 알고, 이틀을 쉬면 가르쳐준 선생님이 알고, 사흘을 쉬면 관객들이 아는 법이라고 배워왔던 그녀다. 무작정 쉬라는 말은 자신의 삶 전부를 포기하라는 뜻이었다.<br/>“사실 오래전부터 다리 상태가 심상치 않았지만 발레단에 다리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릴 수는 없었어요. 어느 감독이 아픈 발레리나에게 배역을 맡기겠어요. 그러다 보니 걷기조차 힘들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거죠. 참고 참으면 몸이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제가 어리석었어요.”<br/>자신의 책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에서 그녀는 당시의 두려움을 회상했다. 1년 뒤에 다시 무대에 오르면 지금 자신을 사랑해주는 관객들이 여전히 자신을 반길지,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었다.<br/>“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제 몸을 편하게 내버려둔 적이 없었더라고요. 너무 혹사했으니까,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준 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좀 쉬게 해줘야겠다고 결정했어요.”<br/>단 한 번도 발레리나 이외에 다른 직업을 상상해본 적이 없었던 그녀이기에, 발레를 ‘내려놓는 일’은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절망이었고 아픔이었다. 하지만 누구라도 삶의 어떤 지점에서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오게 마련. 강수진의 인생에서는 33세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br/>“1년 동안 철저하게 재활 훈련에 몰두했어요. 복귀할 그날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죠. 저를 위해 명상하는 시간도 자주 가졌고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데 의의를 뒀어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다 보니 삶의 긴장감은 예전 어느 때보다 더 팽팽했었죠.”<br/>다른 발레리나들이 은퇴를 고민하는 33세. 발레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좌절의 순간은 강수진에게 춤을 향한 간절함을 깨닫게 해줬다. 때로는 삶의 바닥을 치는 일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숨 고르기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br/><br/>“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제 몸을 편하게 내버려둔 적이 없었더라고요. 너무 혹사했으니까,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준 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좀 쉬게 해줘야겠다고 결정했어요.”<br/><br/>33세 박지성, 전설이 되다<br/>우리나라 최초의 프리미어 리거 박지성(34)이 선수 생활을 마감한 33세. 누군가는 사회 초년생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나이지만, 그는 한국 축구에 한 획을 그은 레전드로 우리의 머릿속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명예롭게 경기장을 떠났다.<br/>“축구를 잘했던 사람,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선수. 이런 수식어는 제게 조금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많은 팬들이 제가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믿음을 느꼈고, 저라는 사람을 추억해준다면 그걸로 만족해요.”<br/>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축구부 유니폼을 입었던 꼬마는 23년 동안을 쉬지 않고 달렸다. 총 3회의 월드컵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했으며,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8년간 주전 자리를 지켰다. 최근 은퇴와 함께 발간한 자서전 「박지성 마이 스토리」를 비롯해 3권의 책을 낸 저자이기도 하다.<br/>“어릴 적 꿈은 국가대표가 돼서 월드컵에 나가는 거였어요. 지금은 그때 바라던 것 이상의 결과를 얻었고, 축구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해봤어요. 과분한 사랑과 관심도 받았고요.”<br/>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그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K리그와 중동 구단에서 몇 차례 백지수표 제안을 받은 적도 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보다 꿈이었다.<br/>“돈을 벌기 위해 축구를 했다면 눈 딱 감고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축구를 시작한 이래로 돈 때문에 이적을 결정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무언가를 하진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제 판단 기준이 됐던 것은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선택인가’였죠.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선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 길을 택했어요.”<br/>은퇴 결정에 후회는 없다. 그렇지만 경기장이나 라커룸에서 느끼는 긴장감과 중압감, 팀의 명운을 걸고 싸우는 승부의 세계에서 느끼는 희열. 현역 선수이기에 느꼈던 그런 복잡한 감정들과 작별하는 일은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든다.<br/>“은퇴를 결심하고 나니 출전했던 경기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치더군요. 골 넣는 순간 발에 닿는 감촉, 수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경기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환호하던 순간까지. 아마 많이 그리울 거예요.”<br/>결혼 뒤 영국에 신접살림을 차린 박지성은 앞으로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공부하며 축구 경영과 행정 전반을 배울 계획이다. 선수로서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바탕으로 축구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 그가 꿈꾸는 제2의 인생이다.<br/>“당장 다음 계획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엇을 하든 한국 축구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되고 싶어요.”<br/>축구 선수 박지성이란 이름이 알려진 뒤부터 그는 끝없는 경쟁과 결과에 대한 혹독한 평가가 뒤따르는 무대에 서 있었다. 33세, 이제 그는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계획이다. ‘캡틴 박’이 아닌 오롯이 인간 박지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br/><br/>“은퇴를 결심하고 나니 출전했던 경기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치더군요. 골 넣는 순간 발에 닿는 감촉, 수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경기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환호하던 순간까지. 아마 많이 그리울 거예요.”<br/><br/>33세 변종곤, 고국을 등지다<br/>1981년 변종곤(67) 화백은 33세에 고국을 떠났다. 유학이 아니었다. 그저 떠날 수밖에 없었다. 당시는 예술인에게 온전히 표현의 자유를 주지 못했던 시대였다. 그는 사실주의 기법으로 버려진 미군 공항을 그려 제1회 동아일보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지만, 곧 정치적 이념을 의심받고 반미 인사로 낙인찍혔다. 더 이상 한국에서는 붓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br/>“물질적으로 풍족했던 것도 아니고, 아는 이 하나 없고, 영어도 모르고 한마디로 아무런 준비 없이 쫓기듯 떠나야 했어요. 그래도 무엇이든 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이곳이 천국이다 싶었죠. 배고픔만 참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었으니까요.”<br/>‘배고픔만 참으면’ 그만큼 절실했던 것이 작품에 대한 열망이었다. 일평생 그가 작품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은 이맘때 딱 3개월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물감 하나를 살 수 없었던 그는 할렘가에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했다. 인간이 쓰다 버린 것들, 마치 자기 자신의 모습이 투영돼 보였기 때문이다.<br/>“벌이를 위해 시작한 일이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다듬는 작업이었어요. 그렇게 작품 활동을 이어갔지요. 생선 가게 벽에 제 작품인 ‘할렘가 풍경’이 걸린 것을 본 한 신사가 제 그림을 엄청나게 팔아줬어요. 더 이상 부업을 할 필요 없이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죠.”<br/>작가로서 그의 명성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그의 사실주의와 결합한 뒷골목에 버려진 낡은 오브제들은 진지하고 또 위트가 넘쳤다. 그가 작품으로 담아낸 팝과 클래식의 유쾌한 조화는 미국과 유럽 미술 애호가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렇게 그는 거장이 돼 한국에 돌아왔다. 국내에서도 변종곤의 ‘바이올린’ 작품은 부잣집 자제들의 혼수품으로 불티나게 팔리기도 했지만 그는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런 규정화된 유명세가 싫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새로운 시도,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33세의 청년 그대로다. 표현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자신의 33세를 그는 어떻게 기억할까?<br/>“큰 권력과의 싸움이었죠. 그리고 예술과의 싸움이기도 했어요. 치열했죠. 할렘가 뒷골목에서 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이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변종곤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시련이었어요.”<br/>변종곤의 33세, 그때 한국은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금지까지 개인의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는 감시의 시대였다. 그가 그린 ‘버려진 미군 공항’도 반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br/>“당시 미군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았어요. 우리 논밭에 비행장을 닦아놓고 거기에 자기 아이들을 낳은 채로 도망가버린 거죠. 천사 같은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쓰레기와 흙을 파먹었어요. 한국도, 미국도 책임지지 않는 그 아이들을 보는 게 너무 싫었고 화가 났죠.”<br/>변종곤은 타고난 ‘반골’인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그의 작품에는 사회의 다양한 부조리가 담겨 있다. 그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리려면 400년은 더 붓을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33세, 사회인이 됐지만 아직은 타성에 젖은 사회에 동화되거나 타협되지 않는 나이. 보이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한다. 아직은 분노하고 행동해도 될 나이다.<br/><br/>“큰 권력과의 싸움이었죠. 그리고 예술과의 싸움이기도 했어요. 치열했죠. 할렘가 뒷골목에서 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이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변종곤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시련이었어요.”<br/><br/>33세 서진규, 이혼을 하다<br/>가발공장 직공에서 미국 하버드대 박사로 거듭난 인생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희망’을 설파하고 있는 작가 서진규(67). 그녀의 33세는 인생이 크게 바뀌는 해였다. 23세의 나이에 미국 가정의 식모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단신으로 한국을 떠났다. 그러나 현지에서 만난 남편은 폭력을 자주 휘둘렀고, 그녀는 그걸 피해 미 육군에 자원입대했다. 그리고 그녀는 33세에 결혼생활을 정리했다.<br/>“인생의 전환점이었지요. 지긋지긋했던 결혼생활을 끝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 과정이 1년이 걸렸지만 정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결혼생활을 이어간다면 언젠간 제가 그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저도 모르게 혼자 남편을 몰래 죽일 방법을 궁리하고 있더라고요.”<br/>이혼녀는 누구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손가락질을 받던 시대였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이혼녀가 되지 않는다면 살인자가 될 것 같다는 공포 때문이었다.<br/>“‘운명은 정해져 있다, 아니다 개척해가는 것이다’라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은 내 필요에 의해 써먹는 것 같아요. 승승장구하는 상황이라면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도무지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개척해나가는 것’이라고 마음을 다잡는 거니까요.”<br/>거친 운명에 맞섰던 33세. 이혼을 한 뒤 독일에서 군 생활을 하며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또 진급을 위해 학교도 다녔다.<br/>“제가 생각해도 전 참 지독했어요. 미군은 소령이 되려면 대학을 졸업해야 했어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공부를 했죠. 아이들은 자는 모습만 봐야 했고 주말도 없었죠. 힘들었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겠느냐 물어본다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 힘든 걸 왜 또 해요(웃음).”<br/>더구나 여자 나이 서른이 넘으면, 공부를 포함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공부는 때가 있다’라며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니 말이다. 그녀는 지속적인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하버드대 박사과정까지 마칠 수 있었다.<br/>“아무리 젊어도 까먹을 사람들은 다 까먹어요. 젊다고 암기력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웃음). 체력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머리 쓰는 건 나이 핑계를 댈 수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얼마나 절실한가. 목표 의식이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br/>서진규의 33세는 자기 인생에 결정권을 찾은 나이였다. 그녀는 그 무엇을 시작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은 나이라고 말한다.<br/>“지금 자기 인생의 주인인가를 고민해보고 만약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면, 즉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저를 보세요. 목표 의식은 곧 인생을 바꾸는 원동력입니다.”<br/>덧붙여 아이에게 소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버리라 강조한다. 강한 엄마 밑에서 강한 아이가 큰다. 33세의 삶, 나는 진정한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볼 때이다.<br/><br/>“지금 자기 인생의 주인인가를 고민해보고 만약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면, 즉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저를 보세요. 목표 의식은 곧 인생을 바꾸는 원동력입니다.”<br/><br/>33세 서혜경, 첫아이를 낳다<br/>피아니스트 서혜경(55)은 33세에 첫아이를 낳았다. 결혼 적령기가 늦춰진 요즘에야 그리 많지 않은 나이지만, 20년 전만 해도 꽤나 늦은 출산이었다. 그렇게 얻은 탄생의 기쁨. 신기하고 벅찬 감정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생생하다.<br/>“다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해서 서른이 될 때까지 연애 한 번 못해봤어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욕심과 삶에 대한 회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죠. 하루 10시간씩 연습하는 강행군에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요. 커리어는 점점 화려해졌지만 정작 제 자신은 초라해 보였어요. 당시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무렵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결과적으로는, 바람대로 됐죠(웃음).”<br/>그녀는 엄마인 동시에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는 피아니스트다.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약속된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것이 연주가의 의무이자 운명이기에, 출산과 육아가 힘에 부칠 때도 많았다.<br/>“만삭의 몸으로도 무대에 섰어요. 9개월쯤 되면 앉아 있는 게 정말 힘들어요. 게다가 그 배로 구부정하게 앉아 피아노를 쳐야 했으니(웃음), 지금 돌아보면 그걸 어떻게 해냈나 싶어요. 출산 직후에는 산후 조리할 여유도 없었어요.”<br/>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된다는 것은 여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연약한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품에 한없이 여린 생명체를 품고,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아이 덕분에 배우게 된 소중한 깨달음이다.<br/>“모성애라는 건 사람이 가진 가장 고결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없었다면 이 감정을 모르고 살았겠죠. 가족의 존재가 주는 편안함 덕분에 제 음악도 더욱 풍요롭고 안정됐어요.<br/>모든 게 행복했던 그 때 그녀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8회의 항암치료와 절제 수술, 33회의 방사선 치료를 이겨내며 삶의 고비를 넘었다.<br/>“암이라는 절망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아이들과 피아노였어요. 당시에는 죽기 전에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엄마의 사랑의 음악을 남기겠다고 ‘밤과 꿈’이라는 음반을 준비하기도 했었죠.”<br/>33세에 낳은 딸은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됐다. 아주 작은 꼬마였는데, 언제 그렇게 자랐는지. 아이들이 클 때마다 나이를 실감한다.<br/>“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딸이 뉴욕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요. 저도 서울에서의 일들을 정리하고 딸과 함께 지내며 공연 준비와 앨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젠 훌쩍 커서 제법 어른 같은 아이와 같이 다닐 때면,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곁에 있는 기분이에요(웃음). 함께 있으면 얼마나 즐겁고 든든한지 몰라요!”<br/>서른 셋의 서혜경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 기쁨과 희망이 꿈틀댔지만, 엄마라는 단어에서 풍겨오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던 시간이다.<br/><br/>“모성애라는 건 사람이 가진 가장 고결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없었다면 이 감정을 모르고 살았겠죠. 가족의 존재가 주는 편안함 덕분에 제 음악도 더욱 풍요롭고 안정됐어요.<br/><br/>33세 한비야, 사표를 던지다<br/>국제구호 전문가 한비야(57)는 33세에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오랜 꿈이었던 세계 일주를 훌쩍 떠났다. 승진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지만 미련은 없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생각이 그녀의 온 마음을 지배했다.<br/>“어린 시절 꿈이었고, 떠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어요. 직장은 꿈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었으니 승진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돈도 마련이 됐고 체력이 있으니 떠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인생 길게 보자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았어요.”<br/>33세, 생각이 많아지는 나이다. ‘이 길이 맞는 걸까’ 고민도 하지만 ‘너무 늦었다’라고 체념하기도 한다. 그녀는 그런 젊은이들의 망설임이 안타깝다.<br/>“100세 시대예요. 아니 우리는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서른셋이 너무 늦었다? 인생의 1/3도 살지 않았는지 몰라요. 축구로 치자면 전반전이에요. 혹여 실패하더라도 당신 인생이 70년이나 남아 있잖아요.”<br/>한비야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고 사는 것 같다고 말한다. 최근 그녀는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모은 「1그램의 용기」라는 책을 발간했다. 한여름의 뜨거운 열정으로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내용이 아니다. 대신 옆자리에 앉은 언니 혹은 누나가 조근조근 하는 아침 햇살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br/>“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한 사람에게 억지로 주는 용기가 아니에요. 할까 말까? 중요한 시기에 망설이는 누군가를 위해 작은 힘을 주고 싶었어요. 저라고 왜 망설이거나 후회했던 순간이 없었겠어요. 단언컨대 그런 고비마다 늘 누군가의 목소리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br/>고민하는 건 어찌 보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내 삶에 대해 고민한다는 건 이미 99의 용기가 내재돼 있다는 뜻이다.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이유다. 하루를 이틀처럼 쓰는 한비야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br/>“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만큼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저는 일기장하고 잘 놀아요. 때로는 시류에 휩쓸려 어떤 게 내 생각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루에 10분, 일기를 쓰며 나와 대면하면 내 생각의 뿌리를 단단하게 할 수 있어요.”<br/>요즘 사람들은 ‘사색’ 대신 ‘검색’을 한다. 일기를 쓰는 대신 페이스북에서 남의 생각을 엿보며 ‘좋아요’를 누른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결정한 삶만이 진정 몰두할 수 있다.<br/>“일상 속에서 자신의 생각의 뿌리를 내리는 것, 33세에 가장 시급한 일인지도 몰라요. 매일 10분, 그 시간이 처음에는 되게 길어요. 참고 시도해보세요. 점점 그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지고 또 길어질 거예요.”<br/>한비야는 6년간의 오지 여행을 계기로 구호활동에 눈을 떴고, 15년째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을 시작할 때도<br/>왜 고민이 없었을까. 홍보회사에 그럴듯한 직함을 얻을 기회도 있었고 또 번듯한 여행사를 차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남들은 쉽게 가지 않는 길을 택했다. 33세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br/>단지 1g의 용기는 그녀를 이끌어주는 묵직한 힘이었다.<br/><br/>“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한 사람에게 억지로 주는 용기가 아니에요. 할까 말까? 중요한 시기에 망설이는 누군가를 위해 작은 힘을 주고 싶었어요. 저라고 왜 망설이거나 후회했던 순간이 없었겠어요. 단언컨대 그런 고비마다 늘 누군가의 목소리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49.txt

제목: ‘음표로 행복을 만드는 여자’ 뮤지컬 음악감독 장소영  
날짜: 201504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401100000080  
본문: 뮤지컬 음악감독인 장소영은 한 곡의 노래로도 인물의 일생을 표현하고, 찰나의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펼쳐 보인다. 덕분에 건조했던 대사는 음표를 타고 관객의 마음에 부드럽게 전해진다. 음악으로 극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녀를 만났다.<br/><br/>10년간 꿈꿔온 뮤지컬의 세계<br/>암막이 걷히고 공연이 시작되면, 무대 조금 아래 오케스트라 피트에 있는 장소영(43) 음악감독의 손이 바삐 움직인다. 그녀는 뮤지컬 음악감독으로서 악단 지휘는 물론 공연장에서 배우들이 언제 노래를 시작해야 할지 사인을 주며 작품 전체의 흐름을 조절한다. 뮤지컬 한 편을 만들기 위해 연출, 무대, 조명 등 여러 명의 감독들이 힘을 모으지만, 매번의 무대에 함께하며 배우와 관객을 만나는 사람은 음악감독뿐이다.<br/><br/>“제가 있는 자리는 무대에 속해 있으면서도 객석과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관객들을 등지고 지휘를 하지만 객석의 박수 소리, 탄성,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죠. 사람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서로 교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매력적인 일이에요.”<br/><br/>2004년 뮤지컬 ‘하드락카페’로 데뷔한 장 감독은 12년간 시대와 국적,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에 참여했다. ‘금발이 너무해’부터 ‘그날들’, ‘라카지’, ‘보이첵’까지 걸출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고 한국뮤지컬대상, 더뮤지컬어워즈에서 총 세 번의 작곡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br/><br/>“이제 겨우 12년 차예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훌륭한 작품과 동료, 배우들을 만난 덕분이예요. 뮤지컬은 협동 작업이기 때문에 혼자 잘났다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br/><br/>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한 장 감독은 창작 뮤지컬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곡을 쓰고 편곡한다. 대학 졸업 후 KBS-1TV ‘열린음악회’의 오케스트라 음악을 편곡했고, 드라마나 영화 배경음악 작업을 하며 음악 만드는 일에 잔뼈가 굵은 그녀다.<br/><br/>“프리랜서로 오랫동안 방송 음악을 했지만, 제 꿈은 뮤지컬 음악을 하는 거였어요. 대학 시절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보고 결심했거든요. ‘내 길은 뮤지컬이다’라고(웃음). 예전부터 음악으로 스토리텔링하는 걸 좋아했어요. 스토리가 있는 장르에 어울릴 만한 음악을 만드는 게 재미있었고요. 게다가 남경주, 최정원 같은 배우가 무대에서 제 노래를 불러주니 또 얼마나 근사해요.”<br/>장 감독의 음악은 절묘하다. 때로는 센스 있고 위트 있게, 또 어떤 때는 처절하고 웅장하게 캐릭터가 돋보이게 하는 선율을 만든다. 비결은 이야기에 흠뻑 심취하는 것.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극에 어울리는 선율이 떠오른다.<br/><br/>“곡을 쓰면서 주인공으로 분하기도 하고, ‘동네 아낙1’의 감정을 상상하고 느껴보기도 해요. 성격과 개성이 뚜렷한 여러 사람이 돼보는 건 참 좋은 경험이에요. 물론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여러 인물을 접하면서 삶에 대한 이해도 한층 깊어지는 것 같아요.”<br/><br/>춤 되고, 노래 되고, 끼로 중무장한 뮤지컬 배우들과의 작업 또한 뮤지컬 음악감독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동안 인상 깊었던 연기자는 누구였을까.<br/>“‘그날들’의 유준상씨는 모든 제작진이 한 번쯤 작업해보고 싶어 하는 배우죠. 실력도 그렇고 에너지가 대단한 분이에요. 요즘 함께 연습하고 있는 뮤지컬 ‘팬텀’의 류정한씨나 박효신씨도 칭찬하고 싶어요. 바쁜 스케줄에도 언제나 성의 있는 태도로 최선을 다해요.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니 뮤지컬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br/><br/>남경주는 혼자서도 무대를 꽉 채울 만큼 존재감 있는 배우이고, 장 감독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나문희는 연기에 자신의 삶이 그대로 묻어나 존경스럽다. 세월이 갈수록 무대에 대한 태도가 더욱 깊어지고 진해지는 선후배들을 볼 때마다 그녀도 느끼는 바가 많다.<br/><br/>“이제는 회식 자리에 가면 후배들이 다들 일어나서 인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조만간 모임 나가는 것도 타박 받을 정도로 까마득한 대선배가 될까 봐 겁나요(웃음).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게 나이 들고 싶어요.”<br/><br/>서른이 넘어서야 피어난 꽃<br/>여덟 살 때 피아노를 시작한 그녀는 선화예술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 작곡과를 졸업했다. 겉으로만 봤을 땐 전형적인 엘리트 음악인의 삶이다. 그리고 이 훌륭한 스펙은 우리가 장소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다.<br/><br/>“옆집 살던 분들이 이민을 떠나며 저희 집에 피아노를 주고 갔어요. 신기한 마음에 몇 번 두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음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학원에 보내셨죠. 그런데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님도 저보고 신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웃음).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서 천재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얼떨결에 피아노를 치게 됐어요. 그래서인지 입시 끝날 때까지 재미를 못 붙였죠.”<br/><br/>피아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실기 시험을 치르다 건반을 잘못 눌렀고 실수를 만회하려고 슬쩍 변주해서 곡을 마쳤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나니 그때 처음으로 음악 하는 일이 재미있게 느껴졌다. 오선지 음표만 따라 살아오던 모범생은 처음으로, 마음 가는 대로 원 없이 음악을 즐겨봤다. 더불어 자신은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데 소질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br/><br/>“고3 때 전공을 바꾸면서 입시를 걱정했는데, 즐기면서 하다 보니 남들보다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대학 입학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로 공연이나 드라마에 들어가는 자투리 음악을 제작하기도 했죠. 그런데 음악으로 밥벌이하는 일은 쉽지 않더라고요. 졸업할 때가 됐는데 작곡으로 입사 시험을 보는 데가 없잖아요(웃음). 그렇다고 음악을 포기하고 싶진 않고. 프리랜서로 음악을 만들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br/><br/>그렇게 자그마치 14년이 흘렀다.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일하며 음악 작업을 했지만, 소속감 없는 생활에 초조하고 불안할 때도 많았다. 막연히 서른이 넘으면 괜찮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30대 중반이 되도록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다. 음악계를 떠나서 조용히 살림이나 해야겠다는 나약한 생각이 발목을 잡곤 했다.<br/><br/>“세상에 제 이름 석 자 알리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무명 시절이 자그마치 14년이었으니까, 저 정말 오래 참은 거 맞죠? 게다가 남들이 만들어달라는 대로만 작업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갈망은 점점 커져갔어요.”<br/><br/>우공이 산을 옮긴 일화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격언은 이 상황에 쓰라고 생긴 말임이 틀림없다. 오랜 무명 생활을 겪던 그녀에게 뮤지컬의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일이 생겼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뮤지컬 음악감독이 갑자기 사라졌으니 잠깐 음악감독을 맡아줄 수 있냐는 제안이었다. 그 작품이 장 감독의 데뷔작 ‘하드락카페’다. 뮤지컬 관계자들은 모든 곡을 직접 작곡해 무대를 만든 이 열의 넘치는 음악감독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br/><br/>“어린 나이에 잘됐으면 오래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제 젊은 시절에는 담금질의 과정이 필요했었나 봐요. 마흔이 넘어 돌아보니 일찍 유명해진다고 삶이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준비 안 된 기회가 독약이 된 사례들도 많잖아요.”<br/><br/>30대에는 뮤지컬 음악감독으로 입신양명하는 게 꿈이었지만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었다. 좋아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데 대해 그저 감사하게 생각한다. 당장 이름을 알리고 스타가 되는 건, 긴 인생에서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br/><br/>음악으로 세상에 색채를 선물하다<br/>장 감독은 올해 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 뮤지컬학과 전임교수로 임용됐다. 그동안 여러 대학에서 강의 제안을 받았어도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고사했지만, 이제는 뮤지컬계 선배로서 후배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기로 했다.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그녀. 덕분에 열다섯 살 딸아이에게 백점짜리 엄마는 못 된다.<br/><br/>“그래도 제가 자부하는 것 한 가지! 딸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생이라고 속여서 데려갈 정도로 공연은 정말 원 없이 보여줬어요. 아이가 여섯 살 때쯤이었나? 친척들끼리 교외로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동생들 모아서 뮤지컬 공연하는 걸 흉내 낼 정도였죠. 어른들 앉는 자리에 A석, S석, R석까지 구분해놓은 걸 보고 배꼽잡고 웃었어요(웃음).”<br/><br/>한 번쯤 뮤지컬 무대의 짜릿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어린이 뮤지컬 오디션을 보게 한 적도 있다.<br/><br/>“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오즈의 마법사’라는 뮤지컬 공연을 했어요. 역할은 ‘변호사3’, 대사는 딱 두 마디(웃음). 그 장면을 위해 두 달을 연습하고, 한 달 동안 무대에 올라갔어요. 공연 마지막 날 그 꼬마들이 단체 사진을 찍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대의 ‘맛’을 느낀거죠. 정말 열심히 한 무언가를 끝냈을 때 벅차오르는 그 감정,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보면 좋겠어요. 그 맛이 저희가 뮤지컬을 놓지 못하는 이유거든요(웃음).”<br/><br/>프로무대도 마찬가지다. 공연 시작 15분 전. 모든 스태프가 모여 파이팅을 외친다. 공연 직전의 긴장감과 짜릿함, 손을 맞잡은 동료에게서 느껴지는 뭉클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스치는 순간이다.<br/><br/>“그때는 동료 의식으로 똘똘 뭉쳐요. 상하 관계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죠. 목표는 오직 공연을 잘 끝내는 것. 그거 하나니까요. 뮤지컬에는 그런 끈끈함이 있어요. 함께 고생한 서로에게 느끼는 고마움 같은 것들.”<br/><br/>매일 박수갈채를 받고 동화 같은 세상을 눈앞에서 볼 수 있으니 뮤지컬 음악감독은 참 행복한 직업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장 감독은 자신의 일에 200% 만족한다.<br/><br/>“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이렇게 매일 박수를 받고, 수고했다는 말을 들을까. 공연장에서 실수를 하거나 돌발 상황이 생겨서 심장이 오그라들 때도 있지만, 관객들 박수 소리에 속상한 감정은 다 잊혀져요. 공연하는 사람들에게 관객들의 박수갈채는 만병통치약, 호랑이 연고 같은 거니까(웃음). 그리고 요즘은 소통이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눈을 맞춰가며 아날로그적으로 대화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br/><br/>장 감독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음악으로 세상에 색채를 불어넣는 것’. 뮤지컬 음악, 광고 음악, 최근에는 놀이동산 퍼레이드 음악도 만들었다. 선율이 필요한 어느 곳이든 흔쾌히 도움을 주고 싶다.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게 그녀의 바람이다.<br/><br/>“음악은 어딘가에 영혼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삭막하던 공간도 포근한 음악이 돌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앞으로도 음악으로 그런 예쁜 감정들을 나누고 싶어요.”<br/><br/>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겐 특유의 에너지가 느껴지곤 한다.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신념을 따라 걸어온 길은 고스란히 그녀의 자부심이 됐다. 장 감독이 맡은 뮤지컬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선율이 담긴 건, 음악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세월이 녹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br/><br/>“음악은 어딘가에 영혼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삭막하던 공간도 포근한 음악이 돌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앞으로도 음악으로 그런 예쁜 감정들을 나누고 싶어요.”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50.txt

제목: 기존 치료법 내성 관여하는 암 유전자 발견… 난치성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 새 길 열어  
날짜: 201503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31100000124  
본문: 국내 연구진이 난치성 유방암인 ‘삼중음성 유방암’의 치료 가능성을 열었다.<br/><br/>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한양대 의과대학 공구 교수(51·사진)가 주도한 연구팀이 삼중음성 유방암의 발생 및 항여성호르몬 치료 내성에 관여하는 새로운 암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br/><br/>삼중음성 유방암은 기존 유방암 표적 치료에 내성을 갖는 난치성 유방암의 일종이다. 전체 유방암의 15~20%를 차지한다. 항호르몬 요법 등 기존 치료법에 내성을 나타내고 암 재발 및 전이가 빈번해 치료 후 결과가 좋지 않다. 이 암이 발생하는 정확한 기전도 알려지지 않아 치료법 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br/><br/>연구팀은 유방암 발생 중 ‘멜18(MEL-18)’ 유전자 소실이 여성호르몬 수용체를 감소시켜 삼중음성 유방암과 치료제에 대한 내성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동물실험에서 삼중음성 유방암에 MEL-18 유전자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항호르몬 약제인 ‘타목시펜’의 항암효과가 기존 대비 56% 상승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MEL-18 유전자를 통한 치료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br/><br/>공 교수는 “<span class='quot0'>삼중음성 유방암 및 항호르몬 치료 내성에 대한 진단 및 표적 치료에 MEL-18 유전자가 표적 유전자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51.txt

제목: ‘횡문근육종’과 힘겨운 사투 벌이는 4살 아이…KBS1 ‘생명최전선’  
날짜: 201503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31100000046  
본문: 31일 KBS1 <생명최전선>에선 소아암을 앓아 수술을 앞둔 4살 채린이의 힘겨운 한 주를 다룬다. 채린이는 2살 때 근육에 생기는 암의 한 종류인 ‘횡문근육종’이 발견돼 1년 전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종양이 재발하면서 수술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독한 항암 치료를 받는 채린이는 머리카락이 없고 혈색도 나쁘다. 그래도 여느 아이들처럼 명랑하게 지낸다. 채린이를 보며 눈물짓는 어머니를 채린이가 위로할 정도다. 채린이의 2차 수술은 중앙대 소아외과 박귀원 교수가 맡는다. 박 교수는 이런 고난도 수술을 3만건가량 해본 이 분야 권위자다. 하지만 종양이 신장까지 전이된 상태라 소아비뇨기과 응급수술도 필요해지는 등 채린이의 치료엔 난관이 이어진다.<br/><br/>제작진은 지난 1년6개월간 방송됐던 <생명최전선> 현장도 되짚어본다. 지난해 2월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4월 세월호 참사에 이어 지난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까지 전국 병원 33곳을 찾아간 기록을 돌아본다. 그간 드러난 한국의 응급 및 재난,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남은 과제를 제시한다. 방송은 오후 11시40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52.txt

제목: ‘화장’ 아내역 김호정 “투병의 고통 되뇔까 고민했지만 결국 넘어서 나를 새롭게 ‘화장’”  
날짜: 201503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3110016806338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아버지의 죽음·투병생활 딛고 ‘화장’으로 스크린 복귀한 김호정</strong><!-- SUB\_TITLE\_END--><br/><br/>김훈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화장>에서 죽어가는 ‘아내’는 마치 시들어가는 하얀 이파리 같다. 몸에는 거죽만 남은 것 같고 안색은 밀가루처럼 하얗다. 고통스러운 항암치료를 받으며 생을 이어가려 애써보지만 죽음은 하루하루 아내의 곁으로 다가온다. 자존심이 세고 강인했던 아내는 자신의 자리가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한다. 동시에 자신을 극진히 보살피고 있는 남편이 혹시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괴로워한다.<br/><br/><화장>의 아내 역은 배우 김호정(47·사진)이 맡았다. 7년 만의 영화 복귀작이다.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김호정을 만났다.<br/><br/>“시나리오를 받은 다음에야 ‘아내’가 뇌종양 환자라는 걸 알았어요. 읽지도 않고 안 하겠다고 했지요.”<br/><br/><br/>처음엔 거장 임권택 감독의 작품이라는 데 흥분했다. 그렇지만 이내 고통스러운 투병생활의 기억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병마와 싸우며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의 복귀에 대한 설렘이 컸지만 투병생활의 고통을 되뇌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환자를 연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난 기억을 떠올려야 하니까요.”<br/><br/>출연 요청을 거절한 뒤, 원래 예정했던 연출 공부를 위해 외국으로 나갔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데 한국에서 다시 한번 간곡한 요청이 왔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그제서야 시나리오를 읽었다. 내친김에 원작 소설도 봤다.<br/><br/>“작품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다 읽고 난 후에도 계속 마음에 남아 있더라고요. 계속 갈등했죠. 나를 넘어설 것인지 회피할 것인지. 며칠간 고민 끝에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는 게 낫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br/><br/>마음을 먹고 난 이후에는 단 한번도 흔들리거나 힘든 적이 없었다. 말기 암 환자처럼 보이기 위해 한 달 동안 극소량만 먹으며 단식했다. 김호정은 “<span class='quot0'>단식을 하면서도 배역에 집중이 잘됐고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span>”고 말했다. 수위 높은 노출로 화제가 됐던 ‘욕실 신’을 찍을 때도 덤덤했다. ‘욕실 신’은 병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내를 남편이 씻기는 장면이다. 김호정은 “<span class='quot0'>욕실 신은 죽어가는 아내를 돌봐야만 하는 남편의 현실을 지극히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span>”이라고 말했다.<br/><br/><br/>영화 <나비>로 스위스 로카르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는 등 연기파 배우로 주목받았지만 그의 고통스러운 방황은 길었다. 배우가 되는 걸 반대했던 아버지의 죽음은 특히 그를 힘들게 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자신을 몰아쳐가며 연극을 했던 그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서 삶의 목표까지 사라지게 만들었다. 공허해진 심신 위로 병마가 덮쳤고 지루한 투병생활이 이어졌다. <화장> 시나리오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연기를 접고 연출을 공부하며 본격적으로 제2의 삶을 살려던 참이었다.<br/><br/><화장> 출연과 함께 그는 현재 SBS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에도 등장한다. 오는 9월에는 연극무대에 서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br/><br/>“새로 시작하는 신인 같은 마음이에요. 결국 모든 것은 제 마음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것이 최근 몇 년의 시간을 통해 얻은 결론이지요. <화장>은 저에게 배우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젠 어떤 연기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br/><br/><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53.txt

제목: ‘횡문근육종’과 힘겨운 사투 벌이는 4살 아이…KBS1 ‘생명최전선’  
날짜: 2015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3010016787684  
본문: 31일 KBS1 <생명최전선>에선 소아암을 앓아 수술을 앞둔 4살 채린이의 힘겨운 한 주를 다룬다. 채린이는 2살 때 근육에 생기는 암의 한 종류인 ‘횡문근육종’이 발견돼 1년 전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종양이 재발하면서 수술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독한 항암 치료를 받는 채린이는 머리카락이 없고 혈색도 나쁘다. 그래도 여느 아이들처럼 명랑하게 지낸다. 채린이를 보며 눈물짓는 어머니를 채린이가 위로할 정도다. 채린이의 2차 수술은 중앙대 소아외과 박귀원 교수가 맡는다. 박 교수는 이런 고난도 수술을 3만건가량 해본 이 분야 권위자다. 하지만 종양이 신장까지 전이된 상태라 소아비뇨기과 응급수술도 필요해지는 등 채린이의 치료엔 난관이 이어진다.<br/><br/>제작진은 지난 1년6개월간 방송됐던 <생명최전선> 현장도 되짚어본다. 지난해 2월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4월 세월호 참사에 이어 지난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까지 전국 병원 33곳을 찾아간 기록을 돌아본다. 그간 드러난 한국의 응급 및 재난,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남은 과제를 제시한다. 방송은 오후 11시40분.<br/><br/><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54.txt

제목: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꽃피는 계절 풍성한 이벤트  
날짜: 2015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3010016781735  
본문: 전남 여수지역 관광명소 가운데 하나인 ‘한화 아쿠아플라넷’이 꽃피는 계절인 4월 한달동안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br/><br/>한화 아쿠아플라넷은 여수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영취산 진달래 축제’가 열리는 다음달 3~5일까지 패키지(BIG3, BIG2-A, BIG2-B)권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 30% 할인을 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br/><br/>아쿠아플라넷 여수 홈페이지(www.aquaplanet.co.kr/yeosu)에서 할인쿠폰을 출력하거나 모바일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매표소 직원에게 보여주면 동반 3인까지 30% 할인이 가능하다.<br/><br/>이와함께 공휴일이 없어 슬픈 직장인을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해 아쿠아플라넷 여수를 방문하면 동반 1인까지 50% 할인해주는 ‘특별 연차할인’ 이벤트를 4월 한달 동안 진행한다. <br/><br/>할인은 패키지(BIG3, BIG2-A, BIG2-B)권을 구입하는 경우 적용되며, 연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전재결재 및 종이결재 등)는 모바일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스크린 샷으로 제시하면 모두 적용된다. <br/><br/>식목일을 기념해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인기 열대어를 무료로 분양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br/><br/>암·수가 쌍을 이루면 평생을 함께 산다는 ‘엔젤피쉬’, 알을 입에 머금어 부화시키는 ‘시클리드’, 한 쌍으로 백만 마리까지 번식이 가능해 ‘백만어’라고 불리는 ‘구피’를 무료로 분양한다.<br/><br/>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열대어를 키울 수 있는 예쁜 어항을 준비한 후 사진으로 찍어 아쿠아플라넷 페이스북(www.facebook.com/HANWHAQUAPLANET)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을 달면 응모가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모두 10명에 분양하며 당첨자는 다음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br/><br/><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55.txt

제목: [의술 인술]‘HPV 백신’ 필수접종에 포함돼야  
날짜: 2015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7100000083  
본문: 2000년대 중반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의 등장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암 완치가 의료계의 주된 화두로 등장했을 때의 일이다. 해외에서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 바이러스인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br/><br/>학계와 언론은 ‘굿바이, 자궁경부암!’을 외치며 암 예방백신의 등장에 환호했다. 암 치료에 앞서 암 발생을 예방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전 세계가 고무된 분위기였다. 진료실을 방문하는 환자들도 “조금만 더 빨리 이런 백신이 나왔으면 좋았겠다”고 말할 정도였다.<br/><br/>자궁경부암 환자의 99.7%에서 발견되는 HPV는 자궁경부암을 비롯해 생식기사마귀 같은 성 매개 질환의 원인이지만 정작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안타깝지만 이런 이유로 일반인들에게는 ‘HPV 백신’이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잘못 알려져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br/><br/>이 백신이 자궁경부암 백신이 아닌 HPV 백신으로 불려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째, 이들 백신에는 항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가짜 바이러스가 타입별로 각각 들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접종 가능한 백신은 두 종류지만 예방할 수 있는 질환 수가 다르다. 예를 들면 ‘HPV 4가’ 백신은 자궁경부암 및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 생식기사마귀까지 예방할 수 있고 ‘HPV 2가’ 백신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접종하는 스케줄도 두 제품이 다르다. 따라서 접종한 환자들의 혼란을 막고 정확하게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국가백신프로그램(NIP)으로 진행하는 모든 나라에서는 자궁경부암 백신이 아닌 HPV 백신으로 구분해서 부른다.<br/><br/>HPV 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쉽지 않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남성들은 흔히 본인과는 상관없는 바이러스라는 생각에 HPV 예방과 치료에 소홀하기 쉽지만 남성도 HPV에 감염될 수 있다. 국내 연구결과를 보면 성생활을 하는 성인 남성 18~28세 중 약 10% 이상이 HPV에 감염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br/><br/>남성이 HPV에 감염된 경우 성관계 상대방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고, 생식기사마귀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br/><br/>생식기사마귀는 정부가 발병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법정 지정 감염병이자 HPV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 매개 질환이다. 개방적인 성문화로 남녀 모두 환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어 예방과 관리가 시급한 감염병이다.<br/><br/>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HPV 백신을 등록해 무료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은 HPV 4가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포함시켜 남녀 학생 모두를 위한 HPV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른 시기에 HPV를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등록한 호주와 덴마크의 경우 프로그램 도입 전에 비해 자궁경부 질환과 생식기사마귀 발병률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br/><br/>국가필수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을 환자의 비용부담 없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학 연구의 발전에 힘입어 HPV 감염을 막아 손쉽게 암 생성을 억제하고 성 매개 질환의 고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최근 HPV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적극 고려하자는 논의와 행보에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56.txt

제목: 고교생 16명 어학연수 귀국길 참변… 비탄에 빠진 할테른 마을  
날짜: 2015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6100000137  
본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던 저먼윙스 4U 9525편 항공기가 프랑스 남부에 추락한 24일, 어둠이 짙어지자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소도시 할테른 암 제에 있는 요제프 쾨니히 김나지움 앞에는 손에 꽃과 양초를 든 학생들이 하나둘 모였다. 흐느낌이 계속 터져나왔다.<br/><br/>사고기에 타고 있던 독일인 67명 가운데는 이 학교 10학년(고1)생 16명과 인솔교사 2명이 포함돼 있었다. 스페인으로 1주일간 어학교환 프로그램을 떠났다가 이날 친구와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아이들은 지금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친구 두 명을 잃은 10학년생 크리스토퍼 슈베크만은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모두가 울고만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학부모들은 공항에서 아이를 기다리거나 학교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사고 소식을 들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사고 소식을 믿지 못하고 아이에게 계속 전화를 걸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br/><br/><br/>고작 15~16세에 불과한 아이들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비보에 할테른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할테른은 인구가 3만8000여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도시로 주민들 대부분이 사고기에 탔던 아이들이나 그 가족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심지어 한 여학생은 여권을 숙소에 두고 와서 사고기를 놓칠 뻔했지만, 이 여학생이 머물던 집의 주인 가족이 공항까지 데려다줘 일행과 함께 사고 여객기를 탔다가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슬픔을 더했다. <br/><br/>보도 클림펠 할테른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사건이 벌어졌다. 오늘은 우리 도시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라고 말했다. 실비아 뢰르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장관은 “<span class='quot0'>스페인에서 아이들은 생애 가장 멋진 시간을 보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슬픈 일</span>”이라고 말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공공기관에는 조기가 내걸렸다.<br/><br/>요제프 쾨니히 김나지움은 이날 사고 소식을 접한 뒤 정규수업을 모두 취소하고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몇몇 아이들은 저녁이 되자 다시 학교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날 밤 학교 앞에는 학생과 시민 100여명이 모여 촛불을 밝히고 슬픔을 나눴다. 학교는 사고 다음날인 25일에도 정규수업을 하지 않고 사고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머물렀던 스페인 바르셀로나 근처의 작은 농촌마을 이나스르 델바예스도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 마을에는 사고기에 탄 아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했던 가정도 있고, 이들과 친구가 된 스페인 학생들도 많았다. 사고 당일 저녁 마을 교회에서 열린 추모미사에는 수백명이 참석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57.txt

제목: ‘불곰사업 168억’ 등 이규태 비자금 ‘판도라 상자’ 열린다  
날짜: 2015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6100000131  
본문: 검찰이 500억원대 방위사업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66)의 비자금 조성 내막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재미교포 윤모씨(68)를 조만간 미국 현지에서 조사한다. 한국계 미국인인 윤씨는 이 회장이 홍콩·일본 등지에서 만든 해외 차명계좌의 개설자로, 한·러 무기도입 사업인 ‘불곰사업’ 당시 사라진 무기중개 수수료 168억원의 행방 등을 아는 인물이다. 윤씨는 최근 주변에 “<span class='quot0'>지금까지 이 회장이 만든 프레임에 이용당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span>”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br/><br/>윤씨의 지인 ㄱ씨는 25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span class='quot1'>미국에 있는 윤씨는 이 회장이 사업을 하는 데 명의만 빌려준 ‘정비공’에 불과하다</span>”고 말했다. 불곰사업은 정부가 1991년 옛 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원리금 일부를 러시아산 무기로 상환받은 사업이다. 이 회장은 2009년에도 불곰사업 비리에 연루돼 횡령·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br/><br/>불곰사업은 무기 에이전트를 끼지 않고 ‘국가 대 국가’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로 돼 있었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이 회장의 개입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회장은 러시아 무기수출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휴대용 대전차유도미사일(METIS-M), 공기부양정(MURENA) 등 미화 약 3억1000만달러(약 3400억원) 상당의 무기도입을 중개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 수수료를 챙겼다.<br/><br/>이 회장이 불곰사업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마치 윤씨와 동업계약을 맺은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돈의 규모를 축소했다는 게 윤씨 주장이다. 당시 검찰에 제출된 동업약정서에는 윤씨가 투자금 1000만달러를 이 회장에게 제공하고, ‘성공보수’에 해당하는 수익금의 3분의 2는 윤씨가, 나머지는 이 회장이 갖기로 한 것처럼 적혀 있다. 또 수익금 전달 창구로 윤씨가 가지고 있는 국내외 법인 계좌들이 거명돼 있다.<br/><br/>윤씨 측에 따르면 본래 이 회장이 챙긴 중개료와 착수금은 2387만달러(약 252억원)인데 이 같은 수법으로 3분의 1인 795만8000달러(약 84억원)만 자신에게 귀속된 것처럼 속였다. 이 회장이 횡령·탈세 규모를 줄이기 위해 사법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윤씨가 더 큰 이익을 누린 것처럼 계약서를 날조했다는 것이다.<br/><br/>이 회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이수동씨의 조카사위인 윤씨를 ‘DJ 정부’ 때 국내로 불러들여 자신이 운영하는 일광공영 임원 직함을 주고 각종 군 이권사업에 개입시켰다고 한다. <br/><br/>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윤씨에게 국내에 입국해 조사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최근 암수술 등으로 윤씨의 건강이 악화돼 미국 현지 영사관에서 조사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58.txt

제목: 30·40대도 고독사 늘고 있다  
날짜: 2015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5100000114  
본문: 지난 23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에서 ㄱ씨(48)가 사망한 지 3일 만에 발견됐다. 그는 이혼한 뒤 자녀와 떨어져 홀로 살았다.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술로 시름을 달래던 그의 사인은 알코올성 질환이었다. 발견 당시 그의 옆에는 빈 술병이 많았다.<br/><br/>ㄴ씨(49)는 지난 21일 경기 광명시 철산동 다가구주택에서 사망한 지 1주일 만에 발견됐다. ㄴ씨는 부인과 사별한 뒤 줄곧 혼자 살았다. 프레스기계 다루는 일을 했지만 암이 악화돼 그만뒀다. 사망한 ㄴ씨의 집에는 평소 즐기던 낚시 용품과 암 치료를 위해 산과 들에서 직접 채취한 버섯, 약초 부스러기가 남아 있었다.<br/><br/>혼자 생활하다 쓸쓸히 숨지는 무연고 사망자 수가 청장년층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9세 이하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보다 60% 급증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고독사가 노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이다.<br/><br/><br/>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시·도별, 연령대별, 성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고독사한 사람은 2013년보다 14.8% 늘어난 1008명으로 집계됐다. 처음 1000명을 돌파한 것이다. 2011년 682명이었던 고독사는 2012년 719명, 2013년 878명으로 해마다 증가세가 커지고 있다.<br/><br/>연령대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301명(29.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80명(27.8%), 60~64세 151명(15%), 40대 132명(13.1%), 39세 이하 55명(5.5%) 순이었다. 이 중에서 49세 이하 사망자는 2013년 117명에서 지난해 187명으로 늘어 증가폭(59.8%)이 가장 컸다. 이 기간 40대 무연고 사망자는 90명에서 132명으로, 39세 이하는 27명에서 55명으로 급증했다.<br/><br/>무연고 사망자는 농어촌보다 도시지역, 그 중에서도 노숙인이 많은 역·터미널·항구 근처나 주거환경이 낙후된 구도심 등에서 많이 발견됐다. 서울이 29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97명, 인천 85명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764명으로 여성(155명)보다 4.9배 많았고 나머지 89명은 성별을 알 수 없는 변사자였다.<br/><br/>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청장년층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한 데 대해 “<span class='quot0'>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취업이 되지 않으면 빈곤 상태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정부가 청장년의 사회복귀를 도우려면 지속적인 일자리, 자활을 유도하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심리치유 등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59.txt

제목: ‘팀워크 중시·유쾌함·인간미 가득…’ 미국서 스티브 잡스 새 전기 나온다  
날짜: 2015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5100000085  
본문: 매킨토시와 아이폰으로 세상을 바꾼 스티브 잡스(1955~2011)는 ‘어떤 사람’이었을까.<br/><br/>디지털 혁명가이자 고집불통의 괴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잡스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린 새 전기가 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출간된다. <br/><br/><스티브 잡스 되기 : 무모한 벼락스타에서 선견지명을 갖춘 리더로>(사진)라는 제목의 새 책은 잡스를 25년 동안 곁에서 취재한 전 포천지 편집장 브렌트 쉘렌더 등이 썼다.<br/><br/><br/>쉘렌더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그의 지인과 가족, 동료들을 취재하면서 잡스가 얼마나 유쾌하고 유머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는지 알고 놀랐다</span>”고 밝혔다. 새 책은 잡스를 ‘비틀스’에 비유했다. 협업으로 전설을 이뤄낸 비틀스처럼 잡스도 누군가의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부각시키는 팀워크를 중요시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저자인 릭 테트제리도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잡스는 가족과 지인 등 그와 친밀했던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따뜻한 사람이었다</span>”고 밝혔다.<br/><br/>책에는 애플 최고경영자인 팀 쿡이 2009년 췌장암을 앓고 있던 잡스에게 간이식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쿡은 잡스의 희귀혈액형과 일치해 간이식이 가능했지만, 잡스가 그의 건강을 염려해 “소리를 지르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애니메이션 기업 픽사의 대표이기도 했던 잡스가 2006년 디즈니와의 합병을 앞두고 당시 디즈니 최고책임자에게 암 재발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점도 공개됐다. <br/><br/>잡스가 2011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직후 발간된 첫번째 전기 <스티브 잡스>는 그를 신경질적이고 폐쇄적인 사람으로 그려 논란이 됐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60.txt

제목: 고교생 16명 어학연수 귀국길 참변… 비탄에 빠진 할테른 마을  
날짜: 2015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510016737937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독일 소도시 동급생 항공기 추락 희생… “너무나 비극적”</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공항 마중왔던 부모·주민들 충격… 해당 학교 수업 취소</strong><!-- SUB\_TITLE\_END--><br/><br/>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던 저먼윙스 4U 9525편 항공기가 프랑스 남부에 추락한 24일, 어둠이 짙어지자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소도시 할테른 암 제에 있는 요제프 쾨니히 김나지움 앞에는 손에 꽃과 양초를 든 학생들이 하나둘 모였다. 흐느낌이 계속 터져나왔다.<br/><br/>사고기에 타고 있던 독일인 67명 가운데는 이 학교 10학년(고1)생 16명과 인솔교사 2명이 포함돼 있었다. 스페인으로 1주일간 어학교환 프로그램을 떠났다가 이날 친구와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아이들은 지금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친구 두 명을 잃은 10학년생 크리스토퍼 슈베크만은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모두가 울고만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학부모들은 공항에서 아이를 기다리거나 학교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사고 소식을 들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사고 소식을 믿지 못하고 아이에게 계속 전화를 걸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br/><br/><br/>고작 15~16세에 불과한 아이들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비보에 할테른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할테른은 인구가 3만8000여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도시로 주민들 대부분이 사고기에 탔던 아이들이나 그 가족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심지어 한 여학생은 여권을 숙소에 두고 와서 사고기를 놓칠 뻔했지만, 이 여학생이 머물던 집의 주인 가족이 공항까지 데려다줘 일행과 함께 사고 여객기를 탔다가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슬픔을 더했다. <br/><br/>보도 클림펠 할테른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사건이 벌어졌다. 오늘은 우리 도시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라고 말했다. 실비아 뢰르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장관은 “<span class='quot0'>스페인에서 아이들은 생애 가장 멋진 시간을 보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슬픈 일</span>”이라고 말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공공기관에는 조기가 내걸렸다.<br/><br/>요제프 쾨니히 김나지움은 이날 사고 소식을 접한 뒤 정규수업을 모두 취소하고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몇몇 아이들은 저녁이 되자 다시 학교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날 밤 학교 앞에는 학생과 시민 100여명이 모여 촛불을 밝히고 슬픔을 나눴다. 학교는 사고 다음날인 25일에도 정규수업을 하지 않고 사고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머물렀던 스페인 바르셀로나 근처의 작은 농촌마을 이나스르 델바예스도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 마을에는 사고기에 탄 아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했던 가정도 있고, 이들과 친구가 된 스페인 학생들도 많았다. 사고 당일 저녁 마을 교회에서 열린 추모미사에는 수백명이 참석했다.<br/><br/><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61.txt

제목: 박근혜 정부의 참사 대처법‘폐쇄하거나 혹은 해체하거나’  
날짜: 2015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5100000162  
본문: 정부와 새누리당이 24일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미등록 캠핑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br/><br/>박근혜 정부 들어 안전사고가 터질 때마다 반복해온, 문제 대상 및 기관의 ‘폐쇄·해체’라는 징벌적 조치를 또다시 꺼내든 것이다. <br/><br/>정부·여당이 안전시스템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미뤄둔 채 당장의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포퓰리즘적·편의주의적 처방부터 하고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br/><br/>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국 캠핑장에 대한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미등록 캠핑시설이면서 산지·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적법절차를 이행토록 하거나, 타 업종 전환 또는 폐쇄 조치키로 했다. 또 캠핑장 안전관리 기준을 의무규정으로 법제화하고, 민간 캠핑장에도 안전·시설 등급을 매겨 인증하는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br/><br/>하지만 미등록 캠핑장이 등록 캠핑장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대책 없이 폐쇄부터 결정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뒷북·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전국 1800여개 캠핑장 가운데 100여곳만 등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 중이다.<br/><br/>사고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폐쇄나 해체 같은 극단적 처방부터 꺼내는 정부·여당의 대응에 대해 여론을 의식한 미봉책이자, 무책임한 관료적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br/><br/>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어린이집 전수조사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의 해체를 발표했다.<br/><br/>당장 눈에 띄는 대책들만 내놓다보면 정부의 시스템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은 뒤로 밀리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경찰청은 40여일간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조사 결과, 이미 언론에 알려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2명을 구속하는 데 그쳐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br/><br/>앞서 ‘암덩어리 규제’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삼아온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9월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 내 사설 캠핑장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span class='quot0'>캠핑장 실태조사나 무허가 시설 규제, 장비 안전 점검, 안전체계 구축 없이 무작정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사설 캠핑장을 늘리겠다는 것</span>”(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br/><br/>소순창 건국대 교수(행정학)는 “<span class='quot1'>호수 물이 좀 오염됐다고 해서 물을 다 빼버리면 물고기나 자연환경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여론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접근은 임기응변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span>”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62.txt

제목: 30·40대도 고독사 늘고 있다  
날짜: 2015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410016730213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이혼한 건설 일용직 사망 3일 만에 발견… 술병 가득</strong><br/><strong style='color: #6b6b6b;'>ㆍ작년 49세 이하 60% 증가… “사회가 자활 등 도와야”</strong><!-- SUB\_TITLE\_END--><br/><br/>지난 23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에서 ㄱ씨(48)가 사망한 지 3일 만에 발견됐다. 그는 이혼한 뒤 자녀와 떨어져 홀로 살았다.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술로 시름을 달래던 그의 사인은 알코올성 질환이었다. 발견 당시 그의 옆에는 빈 술병이 많았다.<br/><br/>ㄴ씨(49)는 지난 21일 경기 광명시 철산동 다가구주택에서 사망한 지 1주일 만에 발견됐다. ㄴ씨는 부인과 사별한 뒤 줄곧 혼자 살았다. 프레스기계 다루는 일을 했지만 암이 악화돼 그만뒀다. 사망한 ㄴ씨의 집에는 평소 즐기던 낚시 용품과 암 치료를 위해 산과 들에서 직접 채취한 버섯, 약초 부스러기가 남아 있었다.<br/><br/>혼자 생활하다 쓸쓸히 숨지는 무연고 사망자 수가 청장년층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9세 이하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보다 60% 급증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고독사가 노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이다.<br/><br/><br/>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시·도별, 연령대별, 성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고독사한 사람은 2013년보다 14.8% 늘어난 1008명으로 집계됐다. 처음 1000명을 돌파한 것이다. 2011년 682명이었던 고독사는 2012년 719명, 2013년 878명으로 해마다 증가세가 커지고 있다.<br/><br/>연령대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301명(29.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80명(27.8%), 60~64세 151명(15%), 40대 132명(13.1%), 39세 이하 55명(5.5%) 순이었다. 이 중에서 49세 이하 사망자는 2013년 117명에서 지난해 187명으로 늘어 증가폭(59.8%)이 가장 컸다. 이 기간 40대 무연고 사망자는 90명에서 132명으로, 39세 이하는 27명에서 55명으로 급증했다.<br/><br/>무연고 사망자는 농어촌보다 도시지역, 그 중에서도 노숙인이 많은 역·터미널·항구 근처나 주거환경이 낙후된 구도심 등에서 많이 발견됐다. 서울이 29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97명, 인천 85명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764명으로 여성(155명)보다 4.9배 많았고 나머지 89명은 성별을 알 수 없는 변사자였다.<br/><br/>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청장년층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한 데 대해 “<span class='quot0'>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취업이 되지 않으면 빈곤 상태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정부가 청장년의 사회복귀를 도우려면 지속적인 일자리, 자활을 유도하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심리치유 등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최희진·김지원·김상범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63.txt

제목: 스티브 잡스 새 전기 나온다  
날짜: 2015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410016720355  
본문: 매킨토시와 아이폰으로 세상을 바꾼 스티브 잡스(1955~2011)는 ‘어떤 사람’이었을까.<br/><br/>디지털 혁명가이자 고집불통의 괴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잡스의 인간적인 모습을 새 전기가 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출간된다. <스티브 잡스 되기 : 무모한 벼락스타에서 선견지명을 갖춘 리더로>(사진)라는 제목의 새 책은 잡스를 25년동안 곁에서 취재한 전 포춘지 편집장 브렌트 쉘렌더 등이 썼다. <br/><br/>쉘렌더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그의 지인과 가족, 동료들을 취재하면서 잡스가 얼마나 유쾌하고 유머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는지 알고 놀랐다</span>”고 밝혔다. 새 책은 잡스를 ‘비틀즈’에 비유했다. 협업으로 전설을 이뤄낸 비틀즈처럼 잡스도 누군가의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부각시키는 팀워크를 중요시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저자인 릭 테트제리도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잡스는 가족과 지인 등 그와 친밀했던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따뜻한 사람이었다</span>”고 밝혔다. <br/><br/>책에는 애플 최고경영자인 팀 쿡이 2009년 췌장암을 앓고 있던 잡스에게 간이식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쿡은 잡스의 희귀혈액형과 일치해 간이식이 가능했지만, 잡스가 그의 건강을 염려해 “소리를 지르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애니메이션 기업 픽사의 대표이기도 했던 잡스가 2006년 디즈니와의 합병을 앞두고 당시 디즈니 최고책임자에게 암 재발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점도 공개됐다. “<span class='quot2'>늘 갈망하라, 늘 우직하게(Stay hungry, Stay foolish!)</span>”라는 명언을 남긴 2005년 스탠포드대 졸업식 연설 때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연설을 하지 못할뻔한 일화도 소개됐다.<br/><br/>잡스가 2011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직후 발간된 첫번째 전기 <스티브 잡스>는 그를 신경질적이고 폐쇄적인 사람으로 그려 논란이 됐다. 팀 쿡과 애플 디자이너 조너선 아이브 등 그의 지인들은 “<span class='quot3'>과거의 전기는 잡스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span>”며 “이번 전기가 진짜”라고 밝혔다.<br/><br/><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64.txt

제목: 유방멍울 90%는 암 아냐‥유바외과 정확한 진단 필요  
날짜: 2015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310016705116  
본문: 매년 국내 유방암 발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학회에 따르면 연간 유방암 환자 발생률은 1996년 3081명에서 2010년에 1만6398명으로 늘어나 15년 사이에 약 4배 증가했다. 조발생률 역시 1996년 16.7명에서 2010년 67.2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br/>&nbsp;<br/>특히 폐경 후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폐경 이후 여성의 경우 늦은 첫 출산과 수유경험 없음, 이른 초경 및 늦은 폐경, 비만, 음주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br/>&nbsp;<br/>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대 여성들 중에는 스스로 유방암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이나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유방암의 대표적인 증상인 유방 멍울이 잡히면 지레 겁부터 먹고 대학병원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기도 한다.<br/>&nbsp;<br/>하지만 유방멍울이 모두 암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두려움을 갖지 말고 가까운 유방전문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br/>&nbsp;<br/>부산유바외과 안정용 원장은 23일 “<span class='quot0'>부산 유방암 환자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유방 멍울이 잡히는 문제로 고민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유방 멍울의 90%는 유방암이 아닌 양성종양이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암인지 아닌지를 확정 받고 암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nbsp;<br/>안정용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nbsp;유방에 멍울이 만져지는 질환으로는 유방암 외에도 섬유선종, 유선증, 유관유두종, 물혹 또는 낭종과 같은 양성 종양이 흔하다. 이는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등의 유방암 검진을 통해 멍울이 하나인지, 주위에 다른 멍울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양성·악성 확진을 위하여 세포조직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br/>&nbsp;<br/>특히 일단 양성으로 확진 된 멍울은 원칙적으로 수술로서 제거하는 것이 좋은 치료법이다. 일반적으로 멍울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계속 더 자라게 되거나 암으로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으므로 미리 제거를 해야 한다.<br/>&nbsp;<br/>맘모톰은 유방에 거의 흉터를 남기지 않고 멍울을 간단하게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흉터에 대한 염려를 대폭 줄이면서 간단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미혼여성 혹은 미용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도 흉터에 대한 염려를 대폭 줄이면서 부담 없이 멍울제거 수술을 받을 수 있다.<br/>&nbsp;<br/>안정용 원장은 “여성이라면 주기적으로 생리 이후 날짜를 정해 유방암 자가진단을 통해 멍울이 없는지 확인하고 매년 유방초음파 검사, 촬영검사로 보다 정확한 유방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nbsp;"자가진단 시 멍울이 만져진다 하더라도 양성 멍울일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미리 겁을 먹기 보다는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검진과 치료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좋다”고 덧붙였다.<br/>&nbsp;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65.txt

제목: [이정엽의 닥터북]올리버 색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날짜: 2015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3100000026  
본문: 세계적 뇌신경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올리버 색스(뉴욕대 신경과 교수)가 얼마 전 뉴욕 타임스에 말기 암으로 죽음을 앞둔 심경을 담은 글을 발표했다. ‘나의 삶’이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br/><br/>“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지각이 있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 한평생을 살았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한 특혜이자 모험이었다고 느껴집니다.”<br/><br/>평생을 과학자이자 지식인으로서 본분을 다했던 색스 교수는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인간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br/><br/><br/><br/>그는 의사로서도 훌륭했다. 환자에 대한 깊은 사랑과 통찰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경과 질환들을 흥미롭고도 다양한 임상사례를 활용해 책으로 썼다.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을 배경으로 한 그의 저술들은 사회·문화·예술 등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주고 있다.<br/><br/>어쩌면 그의 마지막 문장일 될지도 모를 ‘나의 삶’을 읽은 것을 계기로 나는 그가 30여 년 전 발표한 대표작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다시 꺼내 정독했다. 다시 봐도 제목을 참 잘 지었다. 책장에 꽂혀 있어도 늘 다시 읽고 싶게 만들었던 범상치 않은 제목이다. 책 속에 등장하는 24편의 이야기는 그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라고는 잘 느껴지지 않게 만든다. 그의 책에서는 언제나 인간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먼저 느껴진다.<br/><br/>제목에도 쓰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이야기는 정신과의사인 내가 봐도 흥미롭다. 뇌의 특정 부위의 문제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각인식불능증’인 어느 음악교사의 이야기다. 책을 읽다보면 이렇게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병마와 싸우며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으려 노력하는 환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한다. 그는 단순히 ‘환자’라는 대상을 ‘다루는’ 기술자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치유의 의지에 공감하는 ‘진정한 의사’로서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로 인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는 분명 과학책임에도 가슴 찡한 감동까지 준다.<br/><br/>‘1.4킬로그램의 우주’라는 말이 있다. 인간의 뇌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오늘날 뇌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열정은 대단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의 뇌 과학 책이 쏟아져 나온다. 사실 뇌 과학은 그 복잡성 때문에 대중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다. 의사와 과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프로작’이라는 약물의 등장으로 우울증을 마치 감기처럼 다스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뇌는 미지의 영역에 가깝다. 그래서 신비로운 인간의 뇌에 관한 연구는 과학계에서 남은 마지막 블루오션이라고도 한다.<br/><br/>이처럼 뇌 과학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열정은 대단하다. 지금도 수많은 최신의 연구 성과들이 연일 쏟아져 나온다. 이러한 속도로 뇌 과학 분야의 발전이 가속화된다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에 등장하는 여러 희귀 정신질환들도 곧 정복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br/><br/><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나는 이 책에서 보았던 문장 하나를 다시 떠올렸다. <br/><br/>“다리나 눈을 잃으면 사람은 자신이 다리나 눈을 잃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잃으면 그는 더 이상 거기 없으므로 그것을 알 수가 없다.” <br/><br/>사람의 정신을 치료해야 하는 의사라서인지, 이 문장이 무척 의미심장하게 가슴에 새겨졌다.<br/><br/>“<span class='quot0'>스스로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 환자들에게 의사인 나는 과연 어떤 존재여야 하겠는가.</span>”<br/><br/>이렇게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올리버 색스는 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지구 반대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생면부지의 후배에게 ‘좋은 의사’의 길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다. 사람에게는 육신으로서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감동시킨 고귀한 정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br/><br/>“이것은 삶의 끝이 아니다.” 올리버 색스가 ‘나의 삶’에 적은 문장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66.txt

제목: 유해 휘발성 유기물 검출하는 초소형 센서 개발 성공  
날짜: 2015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310016709140  
본문: 국내 연구진이 포름알데히드 같은 휘발성 유기물을 감지할수 있는 초소형 센서를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바이오 마이크로 시스템 연구단 김상경 박사(45·사진)가 주도한 공동 연구팀이 바이러스와 단백질 조각을 이용해 환경유해물질을 정확히 구분해내는 센서 개발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br/><br/>생활 환경이나 산업현장에서 발견되는 휘발성 유기물은 알러지, 천식, 암과 같은 심각한 만성질환을 일으킨다. 그간 이런 유기물은 고가의 분석 장비를 통해서만 감지와 측정이 가능했다. 연구진은 유전자 조절을 통해 휘발성 유기물에만 잘 반응하는 단백질을 추출해 초소형 센서를 만들었다. 이 센서로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벤젠을 현재 기술로는 검출이 불가능한 1000만분의 1 수준까지 감지해내는데 성공했다. 단백질 배양으로 제조가 가능해 값싸게 대량 제조가 가능하고, 다양한 온도와 습도 환경에서도 작동이 안정적이어서 제품화하는데도 유리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결과는 17일 ‘사이언티픽 리포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br/><br/><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67.txt

제목: ‘대장암 씨앗’ 선종성 용종 5년 새 2배  
날짜: 2015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3100000115  
본문: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종성 용종’ 환자가 5년 사이 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선종성 용종 진료환자가 2008년 6만8000여명에서 2013년 13만명으로 1.9배 늘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남성 환자는 4만3000명에서 8만3000명, 여성은 2만5000명에서 4만7000명으로 1.9배씩 증가했다. 2013년 기준 10만명당 환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850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607명, 50대 590명 순이다.<br/><br/>선종성 용종은 ‘대장암의 씨앗’으로 불리는 용종으로, 10% 정도가 서서히 대장암으로 진행된다. 선종 발생 후 암이 돼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5~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종성 용종 환자가 늘어난 이유로는 대장 내시경 검사의 증가, 식생활의 서구화, 고령층 인구 증가 등이 꼽힌다.<br/><br/>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조용석 교수(소화기내과)는 “<span class='quot0'>선종의 95%는 뚜렷한 유전적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span>”고 말했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지방 섭취나 과음·과체중·흡연은 선종 발생을 증가시키는 반면 식이섬유·칼슘·엽산·비타민D의 섭취는 선종의 유병률을 줄인다</span>”며 “<span class='quot0'>용종 발생이 증가하는 40대 이후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고 발견된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68.txt

제목: ‘대장암 씨앗’ 선종성 용종 5년 새 2배  
날짜: 201503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210016696617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2013년 13만명… 60대 최다</strong><!-- SUB\_TITLE\_END--><br/><br/>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종성 용종’ 환자가 5년 사이 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선종성 용종 진료환자가 2008년 6만8000여명에서 2013년 13만명으로 1.9배 늘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남성 환자는 4만3000명에서 8만3000명, 여성은 2만5000명에서 4만7000명으로 1.9배씩 증가했다. 2013년 기준 10만명당 환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850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607명, 50대 590명 순이다.<br/><br/>선종성 용종은 ‘대장암의 씨앗’으로 불리는 용종으로, 10% 정도가 서서히 대장암으로 진행된다. 선종 발생 후 암이 돼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5~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종성 용종 환자가 늘어난 이유로는 대장 내시경 검사의 증가, 식생활의 서구화, 고령층 인구 증가 등이 꼽힌다.<br/><br/>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조용석 교수(소화기내과)는 “<span class='quot0'>선종의 95%는 뚜렷한 유전적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span>”고 말했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지방 섭취나 과음·과체중·흡연은 선종 발생을 증가시키는 반면 식이섬유·칼슘·엽산·비타민D의 섭취는 선종의 유병률을 줄인다</span>”며 “<span class='quot0'>용종 발생이 증가하는 40대 이후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고 발견된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69.txt

제목: “잇몸이 망가지면 치아가 웁니다” 3월 24일은 잇몸의 날  
날짜: 201503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210016696677  
본문: ■ 대한치주과학회 주관 및 동국제약 후원<br/><br/>매년 3월 24일은 ‘잇몸의 날’이다. 이 날은 잇몸의 중요성과 잇몸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대한치주과학회(www.kperio.org)가 주관하고 동국제약이 후원하는 국민 치주건강 홍보 캠페인이다.<br/><br/>2009년 3월 24일 제 1회 ‘잇몸의 날’을 시작으로 올해 7회를 맞았다. 잇몸의 날을 즈음해 기념식, 대한치주과학회 연구 결과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잇몸건강 무료검진 등의 활동이 전개된다. 잇몸의 날인 3월 24일은 ‘삼(3)개월마다 잇(2)몸을 사(4)랑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br/><br/><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치주질환(치주염, 치은염 및 등)으로 치과를 찾은 국민이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치주병(치주질환)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조골이 부실해지거나 치조골, 치주인대, 치은(잇몸) 등 치아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흔히 잇몸병, 풍치라고도 부른다.<br/><br/>이러한 치주질환은 그 질환 자체로서의 문제뿐 아니라 전신건강을 위협하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국내외 학계에서는 치주질환이 전신질환의 원인이 되거나 악화시키는 등 관련이 깊다고 지적한다. 즉 치주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잇몸 속의 혈관으로 침투하여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심혈관계 질환, 폐질환 들을 일으킨다. 또 췌장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특히 치주병이 있는 환자는 당뇨병에 잘 걸리며,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도 치주병이 악화될 수 있다.<br/><br/>■ 소중한 치아를 상실케 하는 주범인 치주병<br/><br/>치주조직은 치은, 치주인대, 치조골로 이루어져 있다. 치은은 잇몸을 뜻하며,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연조직으로 치아를 보호한다. 치주인대는 치아와 잇몸을 강한 결합력으로 부착시켜주는 조직으로 음식을 씹을 때 생기는 압력을 완충시켜 준다. 치조골은 치아의 뿌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잇몸뼈를 말한다.<br/><br/>치주병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조직인 잇몸과 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자각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는 편이어서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치아를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이다. 치주병은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뉜다. 치은염은 염증이 치은(잇몸)에만 국한된 형태이며 가벼운 질환으로 회복이 빠르다. 통증이 별로 없어 소홀히 여기기 쉬우나 방치하면 치주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치주염은 치은에 생긴 염증이 치주인대나 치조골(잇몸뼈)까지 퍼진 상태다.<br/><br/>치주병의 증상은 보통 잇몸이 붉게 변하고, 잇몸이 붓는 등 음식 섭취 후 부분적 통증 및 압박감이다. 또한 이가 시리거나 이물감, 잇몸출혈, 구취를 경험할 수 있고 심한 경우 고름이 나오거나 이가 흔들리기도 한다. 이처럼 치주병은 잇몸 겉(치은)과 속(치조골, 치주인대)에서 모두 발생하므로 눈에 보이는 잇몸 겉 증상에만 관심을 보여서는 안되며 잇몸(치은), 치주인대, 치조골 등 ‘잇몸병 3요소’에 대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br/><br/><br/><br/><br/><br/>■ 잇몸 겉과 속 모두를 철저히 관리 잘해야<br/><br/>치주병의 원인은 플라크(plaque)라 불리는 치태다. 치태란 주로 치아 표면에 붙은 세균덩어리의 얇은 막으로 약에 의하여 제거가 되지 않고 칫솔질을 통한 기계적 방법에 의해서 제거된다. 치태를 제때 제거하지 못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 침 속의 칼슘, 인 같은 원소가 부착하여 돌처럼 단단한 치석이 돼 잇몸을 계속 공격한다. 이러한 치태와 치석의 원인균이 혈액을 통해 체내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의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br/><br/>따라서 치주병의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은 꾸준하고도 올바른 칫솔질이다. 그러나 대한치주과학회가 실시한 ‘국민 치주병 인식도 조사’에서 10명 중 5명이 정확한 칫솔질 방법을 알지 못하고, 치간칫솔이나 치실 등 구강위생 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올바른 방법의 칫솔질 및 증상이 없더라도 자세한 잇몸 상태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검진도 권유된다. 이와 함께 치간칫솔, 치실, 구강청결용액(잇몸질환 전용)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심하지 않은 잇몸염증은 치태, 음식물 찌꺼기와 치석 등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으로도 치료가 되며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br/><br/>■ 구강건강지수(PQ), 꼼꼼하게 체크하세요<br/><br/>대한치주과학회는 실제 잇몸병(치주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많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적극적으로 치료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간단한 자가체크를 통해 치주건강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잇몸건강지수, 즉 PQ(Perio-Quotient)를 개발해 발표했다. PQ는 12가지 문항의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스스로의 잇몸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br/><br/><br/><br/><br/><br/><잇몸건강지수(PQ) 테스트 체크리스트><br/><br/>1. 이를 닦을 때 잇몸에서 피가 나온다 10점<br/><br/>2. 이 사이에 음식물이 자주 낀다 6점<br/><br/>3. 치아에 치석이 있는 것 같다 10점<br/><br/>4. 나쁜 입냄새가 난다 8점<br/><br/>5. 잇몸에 통증을 가끔 느낀다 8점<br/><br/>6. 이가 시린 적이 있다 7점<br/><br/>7. 이가 조금씩 흔들리는 곳이 있다 10점<br/><br/>8. 잇몸이 자주 붓는다 10점<br/><br/>9. 부모님 중에 틀니 하신 분이 있다 8점<br/><br/>10. 피곤하면 이가 들뜬다 8점<br/><br/>11. 당뇨병으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한 적이 있다 10점<br/><br/>12.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 5점<br/><br/># PQ 테스트 결과 : 치주병의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형적인 증상의 경우 높은 배점을 부여했고, 간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낮은 영향을 줄 경우에 낮은 배점을 부여했다.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한 상태, 높을수록 심각한 상태를 나타낸다. 각 점수 구간별로 건강한 편(0~25), 적극적 관리 필요(26~50), 적극적 치료 필요(51~75), 중증의 치주병(76~100)으로 구분해 본인의 잇몸건강 상태를 점검하게 한다. 잇몸의 날 캠페인 후원사인 동국제약 인사돌 홈페이지(www.insado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목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대처 방안을 알려준다.<br/><br/><br/><br/><br/><br/>■ 잇몸의 날, 치주과학회-동국제약 재능 기부<br/><br/>대한치주과학회는 2012년부터 성분도 복지관에서 구강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검진 결과를 토대로 스케일링을 통한 재능기부 사업을 해오고 있다. 장애인들의 치주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 촉구 및 학회 재능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5명의 치주과학회 회원과 30여명의 치위생과 학생들이 치과진료를 받기 힘든 성분도복지관의 장애인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스케일링과 칫솔질 교육을 진행했다. 이들을 돌보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한 구강건강 교육도 함께 진행해 장애인들이 더 꼼꼼하게 본인의 잇몸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 2014년엔 한양여대에서 대한치주과학회와 함께하는 재능기부활동,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에 동국제약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올해 제7회 잇몸의 날에도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br/><br/>■ 잇몸병은 당뇨병·심장병·뇌졸중 등 유발<br/><br/>대사성 질환은 잇몸병과 관계가 크다. 생체 내 물질대사 장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통틀어 대사성 질환이라고 한다.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이 대표적이다.<br/><br/>① 비만 : 비만여성이 일반여성에 비해 잇몸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2014년 잇몸의 날(3월 24일)에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승일 교수는 치주과 병원 내원 환자 중 260명을 검사해 남성보다 여성이 잇몸병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흡연과 당뇨의 효과를 배제할 경우, 복부비만인 여성일수록 중증 잇몸병의 위험도가 2.7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② 당뇨병 : 잇몸병은 당뇨병의 6번째 합병증이라 불릴 만큼 당뇨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잇몸병이 있는 환자는 치주조직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률이 2배 높게 나타난다. 또 음식을 조절해야 하는 당뇨환자가 잇몸병으로 섬유질이 풍부한 현미나 야채, 견과류 등을 제대로 씹지 못하면 식이요법에 실패하기 쉬워 혈당조절도 힘들어진다. 혈당조절에 실패하면 다른 당뇨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입 속의 세균이 혈관을 타고 몸 속에 침투해 더 넓은 부위를 감염시킬 수도 있으므로 당뇨환자들은 치주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r/><br/>잇몸병과 당뇨병은 상호 관련되어 있어 당뇨 환자의 잇몸병 발병률도 높다. 당뇨병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잇몸병에 이환될 확률이 3배나 높다. 특히 당뇨합병증을 가진 환자의 경우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잇몸병의 발생빈도가 5배나 높고 심지어 치조골(잇몸뼈) 소실이 11배나 많다. 이는 쌍방에서 분비되는 면역관계 물질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br/><br/>당뇨병과 잇몸병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증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질환이고, 둘째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당뇨병은 혈당관리가 필요하고, 잇몸병은 세균막을 관리해야 한다. 셋째는 상태가 심각해지기 전에는 자각증상이 없어 무서움을 알지 못한다.<br/><br/>③고지혈증 : 잇몸병은 고지혈증과 고혈압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 및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원인인 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과 같은 심·뇌혈관계 질환도 잇몸병과 연관성이 깊다. 세균에 의해 잇몸이 장기간 만성적인 감염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백혈구를 통해 세균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 기능을 수행한다. 만성적인 잇몸병이 있는 경우 구강뿐만 아니라 혈액 내에도 백혈구 수가 증가하게 되어 혈관폐색을 일으킨다. 이는 심혈관계질환과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 요소다.<br/><br/>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동맥경화증은 동맥 혈관이 부분적으로 두터워져 혈관이 좁아지는 질환이다. 잇몸병 원인균에 의해 혈관벽이 손상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해 단핵구라는 세포가 혈관에 침투하여 혈관에 염증반응을 증가시키고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하여 혈관을 두텁게 만든다. 이때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동맥경화증을 유발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다. 즉 잇몸병은 혈액을 끈끈하게 하고 혈전을 만들며, 혈관을 두텁게 하여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 <br/><br/>잇몸병은 이 같은 질환 외에도 임신과 출산, 암, 폐질환, 치매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잇몸병은 다른 질환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때론 잇몸병과 전신질환이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따라서 잇몸병의 예방과 치료는 단순히 구강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신 질환을 예방 및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70.txt

제목: [새 책]어린아이 한국인 外  
날짜: 2015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1100000025  
본문: ▲ 어린아이 한국인-글씨에서 찾은 한국인의 DNA…구본진 | 김영사<br/><br/>옛 글씨를 분석해 한국 민족의 시작, 실체, 의식, 문화 원형의 규명을 시도한다. ‘신들린 무당의 춤’이란 표현이 적절할 만큼 자유분방한 글씨체를 통해 유추된 고대 한민족의 DNA는 ‘네오타니’.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이다. 저자는 이 천진난만함이 유교의 영향으로 경직화됐다고 본다. 1만8000원<br/><br/><br/>▲ 하버드 중국사 송-유교 원칙의 시대…디터 쿤 | 너머북스<br/><br/>중국 변혁을 이끌어낸 원동력은 유교라는 시각에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문명이었던 송 왕조를 분석했다. 송의 황제와 사대부, 지식인부터 수레꾼 등 서민들 이야기까지 문학, 시, 그림 등 다양한 사료를 통해 송대의 삶을 재현해냈다. 유교가 중국의 발전을 방해한 족쇄였다는 근대의 일부 견해에 반대한다. 육정임 옮김. 3만원 <br/><br/><br/>▲ 소셜미디어 시대의 출판 마케팅…김류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br/><br/>책 안 읽는 독자를 끌어당기기 위한 출판계의 고민에서 기획된 책이다. 출판사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요즈음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실제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등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한국 출판계의 현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출판계의 트렌드를 집약하고, 개별 출판사들의 생생한 실제 사례들도 다양하게 실었다. 1만3500원<br/><br/><br/>▲ 젠더 무법자…케이트 본스타인 | 바다출판사<br/><br/>트랜스젠더인 저자가 자신이 실생활에서 겪은 이야기를 이론과 결합해 전달한다. 결론은 명쾌하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해달라는 주장은 남성 우위의 젠더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뿐이므로 남자 아니면 여자로 구축된 이분법을 해체하는 투쟁만이 진정 완전한 평등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조은혜 옮김. 1만5800원<br/><br/><br/>▲ 식민사학과 한국 근대사…하지연 | 지식산업사<br/><br/>식민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4명의 일본 지식인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의 생생한 사실이 펼쳐진다. 한국과 일본의 바람직한 관계를 방해하는 일본 우파들의 역사 인식을 파헤쳐 근현대사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를 지적한다. 현직 역사 교사인 저자는 “<span class='quot0'>우리 자신, 일본인들에게 남아 있는 잘못된 역사 인식의 뿌리를 찾아내고 싶었다</span>”고 말한다. 1만8000원<br/><br/><br/>▲ 암을 고치는 미국 의사들…수제인 소머스 | 북스타<br/><br/>암 치료의 이면을 알려주고 예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책이다. 저자는 우리 주변에 암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 주요 치료법인 화학적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외에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체요법을 택하거나 통합 의학을 추구하는 의사들의 사례가 소개된다. 조한경 옮김. 1만9000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71.txt

제목: [TV 하이라이트]2015년 3월 21·22일  
날짜: 2015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1100000015  
본문: ■ 자신의 얼굴 대신 딸의 생명을 선택<br/><br/>희망풍경(EBS 토 오전 6시) = 17년 전 종삼씨와 미화씨는 친구에서 연인, 그리고 부부가 됐다. 결혼 1년 만에 찾아온 임신 소식으로 이들은 행복했다. 그런데 미화씨의 목이 급격히 부풀어 올라 병원을 찾았고 청천벽력처럼 구강암 판정을 받았다. 미화씨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수술 대신 품고 있었던 딸의 생명을 택했다. 미화씨는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자마자 바로 암 수술을 받았지만 치아, 잇몸, 코뼈까지 들어내 얼굴이 변해버리고 만다. 얼굴이 험하게 바뀌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미화씨를 사랑한다. 이제 미화씨는 사회복지사란 꿈을 이루려 한다.<br/><br/>■ ‘가축복지’ 외치며 소 키우는 부부<br/><br/>체인지업 도시탈출(KBS2 일 오전 8시10분) = 전라도 장흥의 특별한 귀촌 부부 조영현·이은경씨 이야기를 공개한다. 건초무역업을 했던 부부는 스위스에서 소를 키울 때 사료 대신 건초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후 부부는 축산인들에게 가축복지를 실현하며 소를 키워야 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몸소 실천해 보고자 귀촌을 결심했다. 현재 부부는 소에게 사람이 먹어도 되는 물을 주고, 건초만 먹이고, 정부 기준보다 2배 이상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심지어 부부는 소에게 요들송을 들려주고 스위스 전통악기인 알프혼을 불어준다.<br/><br/>■ 처음 선보이는 ‘모란봉 홈쇼핑’<br/><br/>웃음을 찾는 사람들(SBS 일 오후 8시45분) = 다양한 웃음 코드가 살아있는 코미디쇼가 펼쳐진다. ‘LTE-A 뉴스’에서 강성범은 더 강력해진 멘트로 속시원한 시사풍자 개그를 선보인다. 앵커로 나오는 임준혁은 뛰어난 성대모사로 웃음을 선사한다. ‘신국제시장’은 구수하고 정감 있는 부산 가족의 모습을 개그로 풀어낸다. 아버지 역을 맡은 정철욱은 심각한 상황에서도 흡사 오토바이 소리와 같은 사투리를 구사한다. 북한식 홈쇼핑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란봉 홈쇼핑’에서 쇼호스트 강성범과 북한 여성 앵커를 맡은 정승우는 놀라운 개그 콤비를 자랑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72.txt

제목: [책과 삶]수메르부터 아동매춘까지… 노예제도의 끈질긴 진화  
날짜: 2015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1100000027  
본문: ▲ 노예의 역사…크리스티앙 들라캉파뉴 지음·하정희 옮김 |예지 | 390쪽 | 2만3000원<br/><br/>저자인 크리스티앙 들라캉파뉴(1949~2007)는 프랑스의 철학자다. 파리고등사범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자크 데리다, 루이 알튀세, 미셸 푸코 등에 비하면 이름이 덜 알려진 편이다. 그는 역사적 맥락을 중시한 철학자, 지배와 탄압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걸 연구의 본령으로 삼은 철학자로 불린다. <br/><br/>국내에는 그의 저서 <인종차별의 역사>가 2년 전 번역돼 나왔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종차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울러 그것이 과학의 외피를 두른 채 집단학살의 비극으로 어떻게 달려갔는지를 살피는 책이다. 인종차별이 사라지기는커녕 다시금 창궐하는 현실 때문에 그 책을 썼노라고 저자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br/><br/><노예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5년 전에 썼다. 들라캉파뉴는 서문에서 “‘오래전’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과거가 아직도 우리의 현실을 짓누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노예제도는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다.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로, 제도는 폐지됐지만 실상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다.<br/><br/>책이 다루고 있는 시대는 방대하다. 노예제도의 발원지였던 고대 수메르부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예 거래가 이뤄졌던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 노예제도의 철폐가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1960년대 미국의 민권운동, 아동병사·아동매춘과 노동착취 공장(sweat shop) 등 현대판 노예의 실상까지 두루 살핀다.<br/><br/>저자는 노예제도의 역사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한다. 첫 시기인 고대와 중세는 ‘단절되기보다는 연속성을 띠었던 시기’였다. 두 번째 시기는 15세기에서 19세기 말까지다. 노예를 실은 배가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대대적인 인간 무역이 주조를 이뤘던 시기’다. <br/><br/>이 두 번째 시기에 몇 번의 전환점이 있었다. 첫 전환점은 1453년 투르크인의 발칸 침략과 콘스탄티노플 점령이었다. 이로 인해 유럽인이 노예를 얻기 위해 흑해의 북쪽과 동쪽으로 가던 길이 막혔고, 노예 상인들이 눈을 돌린 곳은 지중해 연안과 ‘검은 아프리카’였다. 두 번째 전환점은 포르투갈인과 에스파냐인들이 아프리카에 이어 아메리카를 찾아낸 것이었다. 이때부터 흑인들은 배에 실려 강제로 아메리카 땅을 밟았다. 세 번째 전환점은 산업자본주의와 대농장 체제의 등장이다. 노예 노동에 대한 수요는 폭발했고 아프리카 인구는 그만큼 줄었다. 노예 상인들은 유괴와 약탈을 수월하게 할 요량으로 아프리카 부족들이 끊임없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 여기서 비롯한 전쟁 상황은 “오늘까지도 광활한 아프리카 중서부 지역에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br/><br/>책에서 기술하는 마지막 시기는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다. 저자는 “<span class='quot0'>노예제도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대단히 상이한 관행을 보여준다</span>”며 “<span class='quot0'>특정한 조건에서 나타나 끈질기게 살아남는 제도</span>”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이 책은 1450년쯤 이탈리아 피렌체의 가정에서 일했던 노예, 1750년쯤 미국 루이지애나의 목화농장에서 일했던 노예, 그리고 오늘날 동남아시아에서 매춘 조직에 팔리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의 공통점을 더듬는다. <br/><br/>저자는 “<span class='quot0'>인간의 당연한 권리를 부정하는 노예제도는 살인과 동의어</span>”라며 “<span class='quot0'>노예가 종교적으로 승인된 지역과 문화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규탄돼야 한다</span>”고 강조한다. 이번에 나온 한국어 번역판은 ‘노예의 역사’라는 당당한 제목 앞에 ‘현대판 노예노동을 끝내기 위한’이라는 사족을 붙여 아쉬움을 남긴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73.txt

제목: [건강]100세 시대… ‘몸속의 암초’ 피하라  
날짜: 2015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0100000052  
본문: ‘암 예방 10계명’을 아시나요?<br/><br/>중앙암등록본부의 최신 암 통계(2014년 12월 발표)를 보면 2012년 한 해 22만4205명의 암 환자가 새로 발생했다. 전국 단위 암 발생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암 경험자는 123만4879명(남자 54만7837명, 여자 68만7042명)으로 나타났다.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 치료 후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합친 숫자다.<br/><br/>조기발견 등에 따라 암 치료율은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 2008~2012년 암 발생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68.1%다. 최초 암 진단 이후 3명 중 2명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암 발생 자체가 늘고 있어 암 사망자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없다. 암 사망자는 연간 7만명 이상으로 사망원인 중 부동의 1위다.<br/><br/><br/>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수명(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3%다. 남자(77세)는 5명 중 2명(37.5%), 여자(84세)는 3명 중 1명(34.9%)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암 유병자들의 재발 위험성은 더 크다. 암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주요 정책과제로 떠오른 이유이다. 전문가들은 암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제정한 ‘국민 암예방 수칙’을 적극 실천하라고 강조한다.<br/><br/>담배 연기에는 4000여종의 유해물질과 6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암과 만성 질환을 유발한다. 음주는 구강암, 인두 및 후두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 및 대장암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br/><br/>음식은 싱겁게 먹어야 한다. 위암은 짠 음식 섭취가 매우 중요한 위험 요인이다. 과일·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각종 소화기계 암의 발생률이 떨어진다. 육류와 육가공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대장암에 걸리기 쉽다.<br/><br/>규칙적인 운동은 모든 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 비만은 유방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한다. 예방접종은 감염증뿐 아니라 암도 막아준다. 정기적인 암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br/><br/>매년 3월21일은 ‘암예방의 날’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세터는 하루 전인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8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을 연다.<br/><br/>‘암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으로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착안해 암이 3분의 1씩 줄어드는 것(3-2-1)을 상징하는 3월21일로 정했다.<br/><br/>당시 유시민 장관과 국립암센터 유근영 원장(서울대 예방의학)이 암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유 교수는 “<span class='quot0'>암의 조기검진이나 적극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암 발생 자체를 줄이려는 개인적 노력과 사회국가적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span class='quot1'>암 예방 수칙 및 실천 가이드라인 마련과 효율적인 활용 전략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암 예방에 대한 정보 콘텐츠 마련 및 암예방 교육 홍보, 특수 집단을 위한 암예방 프로그램 개발, 각종 암 예방사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74.txt

제목: [‘건강도약 2015’ 인터뷰](10) 이동현 이대 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  
날짜: 2015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0100000056  
본문: “방광암 수술과 방광복원술은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 정확한 수술과 수술시간 단축으로 출혈이나 합병증 노출을 줄이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수술 결과에 따라 향후 치료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연이 필수입니다.”<br/><br/>이는 방광암 치료 및 방광재건술 분야의 베테랑인 이동현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50)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방광암 치료의 핵심이다.<br/><br/>그는 “35세 이상에서 혈뇨가 나오면 방광 내시경을 해보는 것이 국제 가이드라인”이라며 조기진단에 더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br/><br/>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암등록 통계를 보면 방광암은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정도 발병률이 높다. 연간 환자 수는 1999년 2180명에서 2012년 3485명으로 늘었다. 재발률이 높은 데다 늦게 발견하면 수술 후 방광을 재건해야 하는 등 삶의 질 측면에서 수술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암이다. 다음은 일문일답.<br/><br/><br/>▲ 흡연·머리염색약이 주된 위험인자<br/>조기진단 함께 적절한 치료 받아야<br/>재발 막게 채소·과일·물 많이 섭취<br/><br/>- 방광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남성에서 특히 환자가 많은 이유도 궁금합니다.<br/><br/>“연령대나 흡연, 머리염색약, 각종 화학약품 노출, 진통제 및 항암제, 감염 및 방광 결석, 방사선 치료 등이 주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은 방광암의 가장 중요한 단일 위험인자로 꼽힙니다. 흡연자가 방광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의 2~7배에 달합니다. 남자의 경우 방광암의 50~65%가, 여자의 경우 20~30%가 흡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소년기에는 간접흡연으로도 방광암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죠. 국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금연을 하면 위험성이 1~4년 내에 40%가량, 25년 후에는 60%가량 줄어듭니다. 남성에서 더 많은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남성호르몬이나 흡연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br/><br/>- 머리 염색이 인기입니다. 염색약이 방광암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나요.<br/><br/>“염색약 성분 중 착색에 관여하는 아닐린계 염료는 방광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발암물질입니다. 15년 이상 매월 염색약을 사용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방광암에 걸릴 위험이 2~3배 높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매일 염색약을 취급한 여성 미용사들은 그렇지 않은 일반 여성에 비해 방광암에 걸릴 확률이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요.”<br/><br/>- 방광암은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br/><br/>“흔한 증상은 혈뇨입니다. 그러나 혈뇨가 나온다고 반드시 방광암에 걸린 것은 아닙니다. 방광암의 다른 증상으로는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이나 배뇨 시의 통증, 소변이 급하거나 너무 급해서 소변을 지리는 급박성 요실금도 있어요. 통상적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방광염·전립선염의 경우나 요배양 검사 시 균은 자라지 않는데 방광 자극 증상이 계속되면 방광암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br/><br/>- 방광암의 치료는 어떻게 이뤄지나요.<br/><br/>“보통 6~7명은 표재성, 2~3명은 침윤성으로 발견됩니다. 표재성은 내시경 수술로 긁어내면 되고, 침윤성은 방광을 들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표재성은 수술을 해도 재발이 잦은 게 문제입니다. 최고 70%까지 재발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재발하면서 침윤성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재발의 경우 최고 40%까지 침윤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방광 안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재발을 억제합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량을 늘리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동물성 지방, 특히 포화지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br/><br/>- 방광암 치료율(생존율)을 더 높이기 위한 요체는 뭡니까.<br/><br/>“조기진단과 함께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죠. 통상 1~4기로 암의 병기를 분류하지만 임상에서는 20가지 이상으로 병기를 판단해 그에 맞는 치료를 합니다. 여기에서 필수적인 것이 병리학자들의 정확한 암세포 진단이죠. 방광암 세포는 여러 유형이 있고, 유형에 따라 또다시 세분화됩니다. 비뇨병리팀의 기초공사(진단)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병리진단이 정확한 경우 불필요한 다른 검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br/><br/>- 방광암 치료에는 어떤 최신 수술법이 사용되나요.<br/><br/>“비뇨기암 중 신장·전립선암은 내시경이나 로봇내시경 수술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지만 방광암의 경우 로봇내시경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인공방광을 만들려면 장을 잘라서 써야 하는데 이때는 개복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배꼽 아래쪽에 세로로 13~15㎝를 절개하면 수술하고 인공방광을 만드는 데 큰 지장이 없고 나중에 흉터도 크게 남지 않습니다. 인공방광을 복원하면 과거처럼 소변주머니를 찰 필요가 없어요.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을 통해서도 일부 방광복원술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도 복잡해요. 결국 방광을 제대로 복원하려면 개복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표재성은 내시경으로 방광을 보존하면서 비교적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br/><br/>- 같은 비뇨기암에 속하는 신장암도 최근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br/><br/>“남녀 모두에서 10여년 전보다 200% 이상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12년 발병자 숫자가 4152명이나 됩니다. 이는 건강검진의 보편화에 따른 겁니다. 방광암과 마찬가지로 남자에서 2배 이상으로 발병률이 높아요. 신장암은 초음파나 CT를 통해 작은 것도 발견이 잘 되죠. 흔히 발생하는 연령은 50대입니다. 남자 환자가 여자보다 많은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따라서 50대 이후, 특히 고위험군은 40대부터 비뇨기과를 찾아 복부 초음파를 한번 찍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니까요.”<br/><br/>- 신장암이나 방광암 수술 후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합니까.<br/><br/>“신장암이든 방광암이든 전반적인 암 검진을 더 철저히 하고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수술 후 5년이 지나서도 좀 더 자주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암의 재발 및 다른 암 발생 확률이 정상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br/><br/>▲ 주요 약력: 연세대 의대 졸업,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과장 및 주임교수(현), 대한비뇨기암학회 이사(현), 대한전립선학회 이사(현), 아시아태평양전립선학회 우수논문상<br/><br/>※ 암 명의들의 ‘킬암’ 연속 인터뷰는 이번으로 마감하고 ‘건강도약 2015’ 제2탄 ‘식습관을 바꿉시다’ 편이 이어집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75.txt

제목: ‘소리 없는 저격수’…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법…EBS ‘명의’  
날짜: 2015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0100000001  
본문: 20일 EBS <명의>는 생명을 위협하는 뇌혈관 질환을 다룬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은 암 다음으로 많은 사망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명 중 1명이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 한국에선 매년 10만명의 환자가 새로 생겨난다.<br/><br/>뇌혈관 질환은 ‘소리 없는 저격수’라고 불릴 만큼 위급 상황이 오기 전까진 그 증상을 알아차리기 힘들다.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두통, 구토 등 증상이 보이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경우 즉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뇌혈관 질환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뇌경색의 경우 3~4시간 이내 약물을 투여하면 치유가 가능하지만, 이 시간을 놓치면 약물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br/><br/>뇌혈관 질환은 중년층에서 많이 발견되지만, 20대부터 꾸준히 진행되는 병이다. 전문가는 혈관의 99%가 막혀 있어도 환자 스스로는 그 증상을 알아차리기 힘들다고 한다.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과 뇌혈관 질환 대책을 살펴본다. 방송은 오후 9시50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76.txt

제목: [TV 하이라이트]2015년 3월 21·22일  
날짜: 2015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010016688395  
본문: <b>■ 자신의 얼굴 대신 딸의 생명을 선택</b><br/><br/>희망풍경(EBS 토 오전 6시) = 17년 전 종삼씨와 미화씨는 친구에서 연인, 그리고 부부가 됐다. 결혼 1년 만에 찾아온 임신 소식으로 이들은 행복했다. 그런데 미화씨의 목이 급격히 부풀어 올라 병원을 찾았고 청천벽력처럼 구강암 판정을 받았다. 미화씨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수술 대신 품고 있었던 딸의 생명을 택했다. 미화씨는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자마자 바로 암 수술을 받았지만 치아, 잇몸, 코뼈까지 들어내 얼굴이 변해버리고 만다. 얼굴이 험하게 바뀌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미화씨를 사랑한다. 이제 미화씨는 사회복지사란 꿈을 이루려 한다.<br/><br/><b>■ ‘가축복지’ 외치며 소 키우는 부부</b><br/><br/>체인지업 도시탈출(KBS2 일 오전 8시10분) = 전라도 장흥의 특별한 귀촌 부부 조영현·이은경씨 이야기를 공개한다. 건초무역업을 했던 부부는 스위스에서 소를 키울 때 사료 대신 건초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후 부부는 축산인들에게 가축복지를 실현하며 소를 키워야 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몸소 실천해 보고자 귀촌을 결심했다. 현재 부부는 소에게 사람이 먹어도 되는 물을 주고, 건초만 먹이고, 정부 기준보다 2배 이상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심지어 부부는 소에게 요들송을 들려주고 스위스 전통악기인 알프혼을 불어준다.<br/><br/><b>■ 처음 선보이는 ‘모란봉 홈쇼핑’</b><br/><br/>웃음을 찾는 사람들(SBS 일 오후 8시45분) = 다양한 웃음 코드가 살아있는 코미디쇼가 펼쳐진다. ‘LTE-A 뉴스’에서 강성범은 더 강력해진 멘트로 속시원한 시사풍자 개그를 선보인다. 앵커로 나오는 임준혁은 뛰어난 성대모사로 웃음을 선사한다. ‘신국제시장’은 구수하고 정감 있는 부산 가족의 모습을 개그로 풀어낸다. 아버지 역을 맡은 정철욱은 심각한 상황에서도 흡사 오토바이 소리와 같은 사투리를 구사한다. 북한식 홈쇼핑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란봉 홈쇼핑’에서 쇼호스트 강성범과 북한 여성 앵커를 맡은 정승우는 놀라운 개그 콤비를 자랑한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77.txt

제목: [건강]국립암센터발전기금 ‘금연 운동 검진 캠페인’ 자전거 국토순례  
날짜: 2015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0100000054  
본문: 국립암센터발전기금(이사장 이강현, 후원회장 유인촌) 암퇴치백만인클럽은 오는 4월24, 25일 ‘암퇴치백만인클럽과 함께하는 금연 운동 검진 캠페인’을 개최한다. 1박2일 일정으로 담양댐부터 영산강 하굿둑까지 자전거 종주(약 133㎞)를 하는 이번 행사는 운동의 생활화로 암을 예방하고 건강한 환경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인촌 후원회장, 박재갑 국립암센터 초대원장, 이진수 전 원장, 이강현 원장, 유현오 제닉 대표이사 등 후원 인사들도 참가한다. 참가비는 18만원이다. 참가 신청 및 후원은 국립암센터발전기금 홈페이지(http://ncc.re.kr/fund/fund01.jsp)와 전화(031-920-0100)로 가능하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78.txt

제목: [책과 삶]수메르부터 아동매춘까지… 노예제도의 끈질긴 진화  
날짜: 2015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2010016688412  
본문: <b><b>▲ 노예의 역사…크리스티앙 들라캉파뉴 지음·하정희 옮김 |예지 | 390쪽 | 2만3000원</b></b><br/><br/>저자인 크리스티앙 들라캉파뉴(1949~2007)는 프랑스의 철학자다. 파리고등사범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자크 데리다, 루이 알튀세, 미셸 푸코 등에 비하면 이름이 덜 알려진 편이다. 그는 역사적 맥락을 중시한 철학자, 지배와 탄압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걸 연구의 본령으로 삼은 철학자로 불린다. <br/><br/>국내에는 그의 저서 <인종차별의 역사>가 2년 전 번역돼 나왔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종차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울러 그것이 과학의 외피를 두른 채 집단학살의 비극으로 어떻게 달려갔는지를 살피는 책이다. 인종차별이 사라지기는커녕 다시금 창궐하는 현실 때문에 그 책을 썼노라고 저자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br/><br/><노예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5년 전에 썼다. 들라캉파뉴는 서문에서 “‘오래전’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과거가 아직도 우리의 현실을 짓누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노예제도는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다.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로, 제도는 폐지됐지만 실상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다.<br/><br/>책이 다루고 있는 시대는 방대하다. 노예제도의 발원지였던 고대 수메르부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예 거래가 이뤄졌던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 노예제도의 철폐가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1960년대 미국의 민권운동, 아동병사·아동매춘과 노동착취 공장(sweat shop) 등 현대판 노예의 실상까지 두루 살핀다.<br/><br/>저자는 노예제도의 역사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한다. 첫 시기인 고대와 중세는 ‘단절되기보다는 연속성을 띠었던 시기’였다. 두 번째 시기는 15세기에서 19세기 말까지다. 노예를 실은 배가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대대적인 인간 무역이 주조를 이뤘던 시기’다. <br/><br/>이 두 번째 시기에 몇 번의 전환점이 있었다. 첫 전환점은 1453년 투르크인의 발칸 침략과 콘스탄티노플 점령이었다. 이로 인해 유럽인이 노예를 얻기 위해 흑해의 북쪽과 동쪽으로 가던 길이 막혔고, 노예 상인들이 눈을 돌린 곳은 지중해 연안과 ‘검은 아프리카’였다. 두 번째 전환점은 포르투갈인과 에스파냐인들이 아프리카에 이어 아메리카를 찾아낸 것이었다. 이때부터 흑인들은 배에 실려 강제로 아메리카 땅을 밟았다. 세 번째 전환점은 산업자본주의와 대농장 체제의 등장이다. 노예 노동에 대한 수요는 폭발했고 아프리카 인구는 그만큼 줄었다. 노예 상인들은 유괴와 약탈을 수월하게 할 요량으로 아프리카 부족들이 끊임없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 여기서 비롯한 전쟁 상황은 “오늘까지도 광활한 아프리카 중서부 지역에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br/><br/>책에서 기술하는 마지막 시기는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다. 저자는 “<span class='quot0'>노예제도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대단히 상이한 관행을 보여준다</span>”며 “<span class='quot0'>특정한 조건에서 나타나 끈질기게 살아남는 제도</span>”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이 책은 1450년쯤 이탈리아 피렌체의 가정에서 일했던 노예, 1750년쯤 미국 루이지애나의 목화농장에서 일했던 노예, 그리고 오늘날 동남아시아에서 매춘 조직에 팔리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의 공통점을 더듬는다. <br/><br/>저자는 “<span class='quot0'>인간의 당연한 권리를 부정하는 노예제도는 살인과 동의어</span>”라며 “<span class='quot0'>노예가 종교적으로 승인된 지역과 문화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규탄돼야 한다</span>”고 강조한다. 이번에 나온 한국어 번역판은 ‘노예의 역사’라는 당당한 제목 앞에 ‘현대판 노예노동을 끝내기 위한’이라는 사족을 붙여 아쉬움을 남긴다.<br/><br/><문학수 선임기자 sachim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79.txt

제목: ‘소리 없는 저격수’…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법…EBS ‘명의’  
날짜: 201503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1910016674394  
본문: 20일 EBS <명의>는 생명을 위협하는 뇌혈관 질환을 다룬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은 암 다음으로 많은 사망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명 중 1명이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 한국에선 매년 10만명의 환자가 새로 생겨난다.<br/><br/>뇌혈관 질환은 ‘소리 없는 저격수’라고 불릴 만큼 위급 상황이 오기 전까진 그 증상을 알아차리기 힘들다.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두통, 구토 등 증상이 보이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경우 즉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뇌혈관 질환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뇌경색의 경우 3~4시간 이내 약물을 투여하면 치유가 가능하지만, 이 시간을 놓치면 약물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br/><br/>뇌혈관 질환은 중년층에서 많이 발견되지만, 20대부터 꾸준히 진행되는 병이다. 전문가는 혈관의 99%가 막혀 있어도 환자 스스로는 그 증상을 알아차리기 힘들다고 한다.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과 뇌혈관 질환 대책을 살펴본다. 방송은 오후 9시50분.<br/><br/><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80.txt

제목: 3월 21일은 암예방의 날, '암예방 10계명' 적극 실천하세요  
날짜: 201503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1810016654772  
본문: 매년 3월 21일은 ‘암예방의 날’이다. 이날을 즈음해 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국민건강 캠페인이 벌어진다.<br/><br/>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이달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8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암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건강한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다. 지난해에 이어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암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됐다.<br/><br/><br/><br/>‘암예방의 날’의 기원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2월 4일 열린 ‘새천년을 위한 암 대항 세계정상회담’(World Summit Against Cancer for the New Millennium)을 기념하기 위해 1995년 국제암연맹(UICC)은 매년 2월 4일을 ‘세계 암의 날’(World Cancer Day)로 제정, 주요 국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암 정복 캠페인을 주도했다. (www.worldcancerday.org 참조)<br/><br/>한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06년 10월 27일 ‘암관리법’에 근거해 ‘암 예방의 날’을 제정했다. 계속 늘어나는 암 환자들의 숫자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암 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제1회는 행사는 2008년 3월 21일 열렸다. 한국의 암예방 정책은 ‘암예방의 날’을 만든 당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과 국립암센터 유근영 원장(서울대 예방의학, 아·태암예방기구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추진에 힘입은 바 크다.<br/><br/><br/><br/><br/><br/>■암 정복, 예방-조기검진-적극치료가 삼박자<br/><br/>‘암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착안한 것으로, ‘3-2-1’을 상징하는 3월 21일을 기념일로 정했다.<br/><br/>다시 설명하면, 3분의 3에서 예방으로 3분의 1을 막으면 3분의 2가 남고, 다시 조기진단으로 3분의 1을 막으면 3분의 1이 남고, 나머지 3분의 1은 적극 치료를 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3-2-1’이 나온 것이다. 각 단계별로 암이 3분의1씩 줄어든다는 의미이다.<br/><br/>금년 제8회 ‘암예방의 날’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공익적 임상 연구를 확대하며, 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암연구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암예방을 위해 평소 금주, 금연, 건강한 식습관, 주기적인 운동 등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br/><br/><br/><br/><br/><br/>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우리나라 암 관련 통계를 정리한 <2015 통계로 본 암 현황>을 20일 제8회 암예방의 날에 맞춰 발간·배포한다. 올해로 일곱 번째 발간되는 자료집에는 암 발생, 사망, 생존 등 각 기관에서 발표한 암 관련 통계가 들어있다. 또 예방, 조기검진, 진단치료, 완화의료 및 암 치료 비용 등 국내외 보고서와 논문 등 다수의 최신 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영역별로 재정리한 정보들이 수록됐다.<br/><br/>국립암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암예방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완화의료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의 실적도 요약·제시되어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암 현황과 암관리사업의 성과를 알림과 동시에 향후 우리나라 암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br/><br/>유근영 아·태암예방기구 사무총장은 “<span class='quot0'>암의 조기검진이나 적극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암 발생 자체를 줄이려는 개인적 노력과 사회국가적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span>”고 지적했다.<br/><br/><br/><br/><br/><br/>■암 생존율 높아졌지만 암 환자는 계속 증가<br/><br/>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주관하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최신 암 통계(2014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2012년 한해 22만 4205의 암 환자가 새로 발생했다. 전국 단위 암발생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암경험자는 총 123만 4879명(남자 54만7837명, 여자 68만7042명,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 치료 후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합친 숫자다.<br/><br/>암의 조기발견 등에 따라 암 치료율은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 2008~2012년 암발생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68.1%로, 최초 암 진단 이후 3명 중 2명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암의 발생 자체가 늘고 있어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없다. 연간 7만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해, 국내 사망원인 부동의 1위다.<br/><br/>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수명(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3%였으며, 남자(77세)는 5명 중 2명(37.5%), 여자(84세)는 3명 중 1명(34.9%)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암 유병자들의 재발 위험성은 더 크다. 암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주요 정책과제로 떠오른 이유이다.<br/><br/><br/><br/><br/><br/>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국내외 연구결과와 사례 검토,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의 합의를 거쳐 2006년 10월 한국인에 적합한 ‘국민 암예방 수칙’을 제정, 공표했다. 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span class='quot1'>암예방 수칙 및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과 효율적인 활용 전략을 위해 암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암예방에 대한 정보 컨텐츠 마련 및 지속적 보완, 암예방 교육 홍보 수행, 특수 집단을 위한 암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국내 각종 암예방사업 지원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81.txt

제목: 보험 적용 장기요양 노인 30%, 사망 전 한 달간 ‘연명치료’  
날짜: 2015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17100000167  
본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는 노인 10명 중 3명은 사망 한 달 전부터 연명치료를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 급여액은 사망 1년 전 65만여원에서 한 달 전 208만여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16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사망 전 급여 이용 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등급을 받고 사망한 27만1474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br/><br/><br/>조사 대상자의 27.8%인 7만5451명은 사망 전 1개월간 인공적 영양공급(15.2%)과 전산화단층촬영(CT·14.9%), 인공호흡기(9%), 중환자실(4.6%), 심폐소생술(4%), 혈액 투석(2.6%), 자기공명영상진단(MRI·2.2%), 양전자단층촬영(PET·0.2%) 등 연명치료를 받았다. 연명치료에 따른 평균 비용은 혈액 투석이 83만5505원으로 가장 높고 중환자실 입원 70만5000원, PET 44만6425원 등으로 집계됐다.<br/><br/>조사 대상자의 99.3%는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1회 이상 적용받아 평균 1425만2311원을 지원받았다. 사망 12개월 전 65만5784원을 받던 보험 급여액은 사망 1개월 전 208만9123원으로 높아졌다. 증가액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급여이며, 사망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입원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br/><br/>사망 원인은 순환기계 질환(29.8%), 암(15.3%), 선천성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14.7%), 호흡기계 질환(11.6%) 등이었다. 연구진은 “<span class='quot0'>말기 암 환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호스피스의 제도화 논의를 장기요양 노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82.txt

제목: 암 조기 진단 가능한 ‘빛’ 이용 광학현미경 개발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16100000039  
본문: 사람 장기나 피부조직 속에 있는 세포의 미세한 변화를 고해상도로 볼 수 있는 광학현미경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고려대 물리학과 최원식 교수팀은 15일 피부조직 세포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물체 영상정보를 그대로 가진 빛(단일 산란파)을 찾아내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 피부 아래 1.15㎜에 있는 세포를 1㎛(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해상도로 볼 수 있는 광학현미경(CASS)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 포토닉스’ 10일자에 게재됐다.<br/><br/>이 현미경은 피부 속 표피세포의 세포핵 변화까지 관찰할 수 있어 암 같은 질병의 조기 진단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암세포는 80% 정도가 피부나 장기 외피에서 1~3㎜ 깊이의 표피세포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CT(컴퓨터 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등은 해상도가 낮아 초기 암 진단에는 한계가 있다.<br/><br/>빛을 이용하는 광학현미경은 몸에 해롭지 않고 비용도 저렴하며 세포의 고해상도 시각화(이미징)도 가능하다. 피부조직 속을 볼 때 빛이 왜곡되기 때문에 고해상도 영상을 얻기 어려운 게 단점이지만 연구진은 이번에 왜곡되지 않은 영상정보를 가진 빛만 골라내는 기술을 개발, 문제를 해결했다. <br/><br/>최 교수는 “<span class='quot0'>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질병의 조기 진단이나 수술 시 질병 조직의 분포 범위 확인 등에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83.txt

제목: 보험 적용 장기요양 노인 30%, 사망 전 한 달간 ‘연명치료’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1610016598084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1인당 보험급여, 사망 12개월 전 65만원 → 1개월 전 209만원으로 급상승</strong><!-- SUB\_TITLE\_END--><br/><br/>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는 노인 10명 중 3명은 사망 한 달 전부터 연명치료를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 급여액은 사망 1년 전 65만여원에서 한 달 전 208만여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16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사망 전 급여 이용 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등급을 받고 사망한 27만1474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br/><br/><br/>조사 대상자의 27.8%인 7만5451명은 사망 전 1개월간 인공적 영양공급(15.2%)과 전산화단층촬영(CT·14.9%), 인공호흡기(9%), 중환자실(4.6%), 심폐소생술(4%), 혈액 투석(2.6%), 자기공명영상진단(MRI·2.2%), 양전자단층촬영(PET·0.2%) 등 연명치료를 받았다. 연명치료에 따른 평균 비용은 혈액 투석이 83만5505원으로 가장 높고 중환자실 입원 70만5000원, PET 44만6425원 등으로 집계됐다.<br/><br/>조사 대상자의 99.3%는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1회 이상 적용받아 평균 1425만2311원을 지원받았다. 사망 12개월 전 65만5784원을 받던 보험 급여액은 사망 1개월 전 208만9123원으로 높아졌다. 증가액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급여이며, 사망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입원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br/><br/>사망 원인은 순환기계 질환(29.8%), 암(15.3%), 선천성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14.7%), 호흡기계 질환(11.6%) 등이었다. 연구진은 “<span class='quot0'>말기 암 환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호스피스의 제도화 논의를 장기요양 노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84.txt

제목: 금감원 사칭 “금융계좌 노출” 노인들 울린 신종 ‘방문피싱’  
날짜: 2015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16100000077  
본문: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과 현금카드로 보이스피싱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전화를 걸어 계좌정보가 노출됐다고 속여 예금을 인출하게 한 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 중에는 노모를 모시고 어렵게 살던 암환자도 있었다.<br/><br/>서울 성동경찰서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노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안모씨(27) 등 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은행계좌 정보가 노출됐으니 빨리 돈을 찾아 맡기라’고 속여 총 6명으로부터 2억5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r/><br/>피해자 중에는 90대 노모와 단둘이 살던 암환자 전모씨(70)도 있었다. 전씨는 간병인으로 일하며 어머니를 부양할 돈과 자신의 암치료에 쓸 돈을 모으고 있었다. 안씨 일당은 전씨로부터 69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전씨에게 돈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재차 범행을 시도하다 잠복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전씨는 범행을 당한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피해자 대부분이 전씨처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었다</span>”고 말했다.<br/><br/>조사결과 안씨 등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모집책, 방문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죄를 공모했다. 피해자들이 ‘계좌정보가 노출됐다’는 말에 속아 예금을 인출하면 직접 집까지 찾아갔다. 이들은 금감원 로고가 인쇄된 신분증과 명함을 보여주고, ‘안전한 계좌에 입금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였다. 새 계좌의 카드인 양 가짜 현금카드를 건네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피해자들은 안씨 등이 금감원 직원으로 행세하자 인출한 돈을 의심 없이 건네줬다</span>”며 “<span class='quot0'>범죄 사례를 조언받기 힘든 노인들은 피싱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85.txt

제목: 암 조기 진단 가능한 ‘빛’ 이용 광학현미경 개발  
날짜: 201503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1510016580503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고려대 최원식 교수팀</strong><!-- SUB\_TITLE\_END--><br/><br/>사람 장기나 피부조직 속에 있는 세포의 미세한 변화를 고해상도로 볼 수 있는 광학현미경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고려대 물리학과 최원식 교수팀은 15일 피부조직 세포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물체 영상정보를 그대로 가진 빛(단일 산란파)을 찾아내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 피부 아래 1.15㎜에 있는 세포를 1㎛(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해상도로 볼 수 있는 광학현미경(CASS)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 포토닉스’ 10일자에 게재됐다.<br/><br/>이 현미경은 피부 속 표피세포의 세포핵 변화까지 관찰할 수 있어 암 같은 질병의 조기 진단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암세포는 80% 정도가 피부나 장기 외피에서 1~3㎜ 깊이의 표피세포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CT(컴퓨터 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등은 해상도가 낮아 초기 암 진단에는 한계가 있다.<br/><br/>빛을 이용하는 광학현미경은 몸에 해롭지 않고 비용도 저렴하며 세포의 고해상도 시각화(이미징)도 가능하다. 피부조직 속을 볼 때 빛이 왜곡되기 때문에 고해상도 영상을 얻기 어려운 게 단점이지만 연구진은 이번에 왜곡되지 않은 영상정보를 가진 빛만 골라내는 기술을 개발, 문제를 해결했다. <br/><br/>최 교수는 “<span class='quot0'>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질병의 조기 진단이나 수술 시 질병 조직의 분포 범위 확인 등에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86.txt

제목: 금감원 사칭 “금융계좌 노출” 노인들 울린 신종 ‘방문피싱’  
날짜: 201503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1510016580533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집 찾아가 “통장 옮겨라” 2억여원 가로챈 8명 구속</strong><!-- SUB\_TITLE\_END--><br/><br/>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과 현금카드로 보이스피싱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전화를 걸어 계좌정보가 노출됐다고 속여 예금을 인출하게 한 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 중에는 노모를 모시고 어렵게 살던 암환자도 있었다.<br/><br/>서울 성동경찰서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노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안모씨(27) 등 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은행계좌 정보가 노출됐으니 빨리 돈을 찾아 맡기라’고 속여 총 6명으로부터 2억5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r/><br/>피해자 중에는 90대 노모와 단둘이 살던 암환자 전모씨(70)도 있었다. 전씨는 간병인으로 일하며 어머니를 부양할 돈과 자신의 암치료에 쓸 돈을 모으고 있었다. 안씨 일당은 전씨로부터 69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전씨에게 돈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재차 범행을 시도하다 잠복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전씨는 범행을 당한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피해자 대부분이 전씨처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었다</span>”고 말했다.<br/><br/>조사결과 안씨 등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모집책, 방문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죄를 공모했다. 피해자들이 ‘계좌정보가 노출됐다’는 말에 속아 예금을 인출하면 직접 집까지 찾아갔다. 이들은 금감원 로고가 인쇄된 신분증과 명함을 보여주고, ‘안전한 계좌에 입금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였다. 새 계좌의 카드인 양 가짜 현금카드를 건네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피해자들은 안씨 등이 금감원 직원으로 행세하자 인출한 돈을 의심 없이 건네줬다</span>”며 “<span class='quot0'>범죄 사례를 조언받기 힘든 노인들은 피싱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span>”고 말했다.<br/><br/><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87.txt

제목: [‘건강도약 2015’ 인터뷰](9) 한호성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날짜: 2015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13100000053  
본문: 지난 20여년간 대부분의 암 생존율은 높아졌다. 하지만 10대 암 중 유일하게 생존율이 떨어진 게 췌장암이다. <br/><br/>지난해 말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8.8%에 불과하다. 담낭 및 기타 담도암(담낭·담도암)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5년 생존율이 50%를 못 넘는 ‘빅4 암’(췌장암 8.8%, 폐암 21.9%, 담낭·담도암 28.3%, 간 30.1%)에서 담낭·담도암이 세 번째를 차지한다. 췌장암(8위)과 담낭·담도암(9위)은 둘 다 연간 발생 환자수가 5000명 이상이다.<br/><br/>한호성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56)는 “<span class='quot0'>다른 암들의 생존율이 높아진 이유는 치료방법의 발전도 있지만 조기 발견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췌장암은 45%가 원격전이, 30%는 국소전이 상태에서 발견될 정도로 발견이 늦는 데다 일찍 발견해도 성적이 그리 높지 않아 큰 문제</span>”라고 말했다. 간담췌암 분야 수술 치료의 권위자인 한 교수는 “<span class='quot1'>그렇지만 수술이 생존기간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을 포기해서는 안된다</span>”고 강조했다. <br/><br/><br/>▲ 담낭·담도암도 수술이 효과적<br/>신경까지 제거하면 통증 완화<br/>가족력 있다면 꼭 정기 검진을<br/><br/>- 췌장암은 발견이 늦고 더구나 조기암의 경우도 예후가 그리 좋지 않은데요.<br/><br/>“췌장암은 조기라도 5년 생존율이 20%대입니다. 국소전이 땐 10%를 조금 넘고, 원격전이가 되면 1~2%에 불과해요. 암의 특성상 장기에 쉽게 침범하고 전이가 빠르기 때문이죠. 주로 간과 폐로 전이되기 때문에 아주 일부를 빼놓고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기일 경우엔 수술을 해야 합니다. 떼내는 시점에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췌장암을 수술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경우 신경절을 침범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해 환자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암과 더불어 신경까지 제거하면 통증 경감에 도움이 되고 생존기간이 늘어납니다. 즉 수술을 해야 통증이나 황달 같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수술을 할 수 있다면 수술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br/><br/>- 조기 진단, 효과적으로 할 수 없나요.<br/><br/>“현재 국가 암검진에서 집단적인 췌장암 조기 진단은 비용 및 효과 면에서 유용성이 낮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족력, 흡연, 비만, 과음, 만성췌장염 등 위험인자가 있으면 복부 초음파나 CT, 혈청 수치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해서 보다 일찍 발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CT나 초음파를 찍으면 췌장이 보여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는 이미 늦은 시기입니다. 췌장암 증상은 혈당 급상승, 소화불량, 오른쪽 상복부와 등 부위의 통증, 황달, 체중 감소 등입니다. 혈중 CEA와 CA19-9 수치를 파악하면 췌장암 스크린(선별검사)에 도움이 됩니다.”<br/><br/>-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br/><br/>“수술을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역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br/><br/>-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br/><br/>“발생 부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췌장의 두부(위쪽)를 수술하는 것으로, 췌장과 십이지장을 다 떼어냅니다. 수술 후 합병증 위험이 크지만 그래도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체부(중간)나 미부(꼬리)를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두부 쪽 암은 황달이 동반돼 증상이 거의 없어 늦게 진단되는 체부나 미부에 비해 그나마 성적이 낫습니다.”<br/><br/>- 치료율(생존율)을 더 높이는 방안은 없나요.<br/><br/>“간으로 전이됐을 때는 수술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초기에는 간의 암을 떼어내고 두부 수술을 하는 경우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도 항암치료를 해서 병기를 낮춘 뒤 수술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생존율, 삶의 질, 증상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br/><br/>- 췌장암 수술을 받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br/><br/>“수술을 하고 추가 치료를 잘 받으면 오래 생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진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치료방침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근거 없는 요법에 현혹되지 마세요. 희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 환자가 진단받는 순간부터 괴로움에 빠집니다. 가족들도 힘을 내서 환자를 성원해야죠. 환자와 가족들에게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술 후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르고, 골고루 먹고 적당한 운동을 꾸준하게 충분히 하는 것이 재발 방지와 생존율 및 삶의 질 향상에 확실히(임상 경험상) 도움이 됩니다.”<br/><br/>- 담낭·담도암 역시 치료 성적이 낮은데요.<br/><br/>“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국소 및 원격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게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담낭암은 복부 초음파나 CT를 찍어보면 잘 나타납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에 힘쓰면서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담낭용종에 대한 예방적인 절제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낭의 양성종양 크기가 1㎝ 이상이면 떼어냅니다. 담낭·담도암 역시 수술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죠. 담도암은 황달로 인해 담낭암보다 일찍 발견됩니다. 담낭암은 간으로 쉽게 전이되는 게 문제입니다. 더욱이 담낭·담도암은 췌장보다 항암제 효과가 떨어져 수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br/><br/>한 교수팀은 2004년 국내 처음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암 수술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2010년에는 복강경 담낭암 수술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한 교수팀은 이후 10년간 장기 추적한 결과 우수한 성적을 보인 복강경 수술의 유용성에 관한 논문을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br/><br/>▲ 주요 약력 : 서울대 의대 졸업, 분당서울대병원 암뇌신경 진료부원장·암센터장(현), 대한췌장외과연구회·복강경간수술연구회 회장,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회장(현), 대한종양외과학회 이사장(현), 국제외과위장관종양학회 재무이사(현)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88.txt

제목: [의술 인술]위암, 설마 혹시 말고 내시경 검사를  
날짜: 2015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13100000054  
본문: “<span class='quot0'>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오셨습니까.</span>”<br/><br/>예나 지금이나 환자가 외래진료실에 들어서면 의사가 처음 묻는 질문이다. 필자가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서울백병원 한국위암센터에서 위암 수술을 시작할 즈음인 20여년 전만 해도 이 질문에 환자들은 “음식을 먹고 토합니다” “대변이 검게 나와요”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br/><br/>대학병원 위암센터에 내원하는 환자의 상당수는 외부 병·의원에서 위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찾아온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 환자들은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건강검진 위내시경에서 위암이래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라고 대답한다.<br/><br/>이는 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위암 전문 외과의사가 외래에서 환자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다. 위암으로 인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것은 암이 진행되어 위장의 출구가 막혀버린 진행암의 증상이다. 또 대변이 검게 나온다는 것은 진행성 위암에서 출혈이 생겨 변으로 나온다는 의미다. 이 정도라면 적어도 위암 3기는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3기 정도의 위암은 근치적으로 수술을 하고 보조항암 요법을 시행한다 해도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50~60% 정도다.<br/><br/>이와 대비가 되는 경우로, 아무런 증상 없이 검진 위내시경에서 위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 암의 진행 정도가 깊지 않은 조기 위암이다. 근치적 수술을 받는다면 1기 위암은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완치 가능성이 높다.<br/><br/>1970~1980년대에 한국의 위암 환자 80%가 3~4기였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1~2기 환자가 80% 정도다. 수술 후 5년 생존율도 1990년대 초 40% 정도에서 2000년대에는 70% 가까이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이는 수술기법의 발전과 더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br/><br/>조기 위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80%이고 진행성 위암도 구토·출혈 증상이 없는 경우가 10~20% 정도를 차지한다. 증상이 없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발병 위험성이 큰 40대부터 남녀 공히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위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다.<br/><br/>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것보다 많은 나트륨(염분)을 섭취하는 오래된 식습관을 바꿔 싱겁게 먹어야 한다. 맵고 짠 음식이나 식품, 가공된 육류 등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을 피하는 1차적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나 입맛을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식습관 개선으로 위암 발병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위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2차 예방)이 최선책이다.<br/><br/>아무리 치료방법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진단 당시에 이미 위암의 진행정도가 심해 혈행성이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다면 완치는 거의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수술 전 화학요법(항암치료)으로 암의 크기를 줄여 수술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전혀 손쓸 수 없는 것은 아니다.<br/><br/>환자 중 약 2년6개월 전에 위암 진단을 받고 병원을 찾은 70대 여성이 있었다. 진단 당시 이미 복부 대동맥 림프절 전이가 있어 수술 전 화학요법으로 암의 크기를 줄인 후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절제된 표본의 병기는 1기로 나와 예후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술 후 반복적으로 항암요법을 시행했음에도 림프절과 뼈의 암 재발을 막지 못해 결국 사망했다. 이처럼 위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현재로서는 아무리 최신 치료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나중에 그 환자분이 항암치료를 하는 중 주치의에게 갈치를 선물하고 싶어 힘든 몸을 이끌고 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증상이 없어도 4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꼭 위내시경 검사를 하자!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89.txt

제목: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12곳 ‘불합격’ 판정  
날짜: 2015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13100000111  
본문: 전국 56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 의료기관 중 12곳은 시설·인력 등 법적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r/><br/>보건복지부는 56개 호스피스 병원에 대해 인력·시설·장비 등 법적 요건과 사업계획,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의료기관은 14곳,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은 12곳이라고 12일 밝혔다. 5곳 중 1곳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이 6월 말까지 요건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불이행 시 경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br/><br/><br/>12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급(대학병원) 의료기관 5곳, 종합병원급 6곳, 병원급 1곳이다. 이들은 대부분 임종실·가족실·상담실 등을 호스피스 병동 내부가 아닌 외부에 운영하거나, 비용 문제로 필수 시설을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br/><br/>호스피스 의료기관은 암관리법에 따라 전담 간호사와 상근 사회복지사 등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임종실·가족실·처치실·목욕실·산소발생기 등을 설치·운영해야 한다.<br/><br/>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14곳은 전담 간호사·전문 의사가 사회복지사·성직자와 협력해 말기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됐다.<br/><br/>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오는 7월부터 호스피스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것에 앞서 6월까지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12개 호스피스 의료기관에는 경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퇴출 절차를 밟을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90.txt

제목: 대장암 투병 NC 원종현의 팬들을 향한 약속 “저 괜찮아, 반드시 돌아갑니다”  
날짜: 201503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12100000027  
본문: NC 원종현(28)에게 이번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시리고 추웠다.<br/><br/>NC가 한창 미국 애리조나 투손에서 스프링캠프를 하고 있던 1월 어느 날, 원종현은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꼈다.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쉽게 지쳤다. 원인을 알 수 없어 한국으로 귀국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 대장암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br/><br/>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 수술을 받아도 복귀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원종현은 모든 어려움을 하나씩 넘어섰다. 그리고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br/><br/>현재 군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원종현은 10일 아버지와 함께 마산구장을 방문했다. 동료들이 보고 싶어서였다. 오랜만에 야구장을 찾은 원종현의 얼굴은 살이 빠져 약간 핼쑥했지만, 그 외에는 정규 시즌때 모습과 비교해도 다른 점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건강했다.<br/><br/>원종현은 “괜찮다. 잘 치료하고 있다. 수술 당시에는 살이 좀 빠졌는데 요즘은 잘 먹어서 다시 살이 붙었다. 너무 건강해보여 걱정”이라며 웃은 뒤 “정말 오랜만에 야구장에 왔다. 그저 빨리 돌아오고 싶은 마음 뿐이다”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마운드에 서지 못하는 마음, 중요할 때 팀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미안함이 한가득 묻어났다.<br/><br/>원종현은 2주마다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있다. 항암치료는 단 한 차례만 받았지만, 암 수술 이후 치료 또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원종현은 “솔직히 주사를 맞을 때는 조금 힘들다. 그래도 나머지는 다 괜찮다”며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br/><br/>이날 원종현은 감독실에서 김경문 NC 감독과도 인사를 나눴다. 원종현이 누구보다 안쓰러울 사람이 바로 김 감독이었다. 원종현은 “<span class='quot0'>감독님께서 ‘건강하게 치료 잘 받고, 선수들이 다 응원하고 있으니 걱정없이 치료에만 전념해달라’고 말씀하셨다</span>”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동료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다들 멀쩡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br/><br/>지금 이 순간 원종현이 가장 고맙고 미안한 사람은 다름 아닌 NC 팬들이다. 지난해 많은 성원을 보내준 팬들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각오를 다지고 준비하려고 했던 올 시즌이었지만, 그라운드에서 팬들에게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사실은 원종현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br/><br/>그래서 원종현은 하루 빨리 마운드에 다시 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원종현은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다.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반드시 그라운드로 돌아와 공을 던질 수 있도록 치료에만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찾아온 따뜻한 봄, 원종현의 마음에는 ‘복귀’라는 두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91.txt

제목: [김희수의 무속세상]문상갔다 빙의, 억울한 ‘상문살’  
날짜: 201503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12100000008  
본문: 살(殺)이 끼면 그 인생은 피곤하고 고통스럽다. 인생의 암덩어리 격인 수많은 살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살은 ‘상문살’일 듯하다. ‘인동살’ 등처럼 부모의 업보 때문에 운명적으로 타고난 살이 아닌데 상가에 문상, 즉 좋은 일을 하고 당한 살이라 그런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생각된다.<br/><br/>상문살은 죽은 영혼이 있는 곳에 방문하면 생기는 살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문상을 갈 일이 많아 그 어느 살보다 피해자가 많아 고약하다. 물론 문상을 갔다고 해서 모두 상문살이 오는 것은 아니다.<br/><br/>사고사, 객사, 타살 등 억울하게 죽은 경우 상문살이 강하게 발동한다. 망자가 억울함을 하소연하려고 문상객들에게 잘 빙의가 되기 때문이다. 한 달 전에 상담한 아가씨는 발동 경위 증세까지 상문살의 전형이었다.<br/><br/>이 아가씨는 어느 날 갑자기 두통에다 초조하고, 이유 없이 짜증도 나고, 만사가 귀찮고 사람도 싫어졌다고 한다. 병원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스트레스 등 애매한 대답뿐이어서 우리 집에 왔다고 한다.<br/><br/>“<span class='quot0'>최근에 상가에 다녀 온 적이 있지요.</span>”<br/><br/>“네.”<br/><br/>“상문살입니다.”<br/><br/>“<span class='quot0'>그런데 왜 친구가 꿈에도 나타나고 환영도 보입니까?</span>”<br/><br/>“<span class='quot0'>그 친구, 억울하게 죽었지요.</span>”<br/><br/>“<span class='quot0'>예, 그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span>”<br/><br/>창춘남녀의 억울한 죽음은 상문살이 가장 잘 발동한다. 꽃도 제대로 피워 보지 못하고 하직해 이승에 미련이 남아서 그 한을 풀기 위해 조문 온 사람에게 잘 빙의된다. 빙의된 혼을 쫓아내고 상문살도 풀었더니 거짓말처럼 나았다. 상문살은 하도 미스터리한 것이 많아 개인적으로 도깨비살이라고 부른다.(상담문의 02-577-0541 / 010-4841-9008)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92.txt

제목: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12곳 ‘불합격’ 판정  
날짜: 201503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1210016562234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복지부, 시설·인력 확보 권고</strong><!-- SUB\_TITLE\_END--><br/><br/>전국 56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 의료기관 중 12곳은 시설·인력 등 법적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r/><br/>보건복지부는 56개 호스피스 병원에 대해 인력·시설·장비 등 법적 요건과 사업계획,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의료기관은 14곳,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은 12곳이라고 12일 밝혔다. 5곳 중 1곳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이 6월 말까지 요건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불이행 시 경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br/><br/><br/>12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급(대학병원) 의료기관 5곳, 종합병원급 6곳, 병원급 1곳이다. 이들은 대부분 임종실·가족실·상담실 등을 호스피스 병동 내부가 아닌 외부에 운영하거나, 비용 문제로 필수 시설을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br/><br/>호스피스 의료기관은 암관리법에 따라 전담 간호사와 상근 사회복지사 등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임종실·가족실·처치실·목욕실·산소발생기 등을 설치·운영해야 한다.<br/><br/>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14곳은 전담 간호사·전문 의사가 사회복지사·성직자와 협력해 말기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됐다.<br/><br/>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오는 7월부터 호스피스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것에 앞서 6월까지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12개 호스피스 의료기관에는 경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퇴출 절차를 밟을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93.txt

제목: 생활습관병 ‘톡톡 15초 건강법’ 전자책 <내 몸을 부탁해> 발간  
날짜: 2015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1110016544660  
본문: 건강과 질병 사이에 크게 선천적 원인론과 후천적 병인론이 작용한다. 전자는 유전(유전자) 및 부모의 건강 상태(임신 및 출산 당시)이고 후자는 환경과 습관을 양대 축으로 한다.<br/><br/>후천적 병인론의 관점에서 국민이 흔히 겪는 질환들에 대한 생활 건강법을 다룬 전자책 <내 몸을 부탁해>(i-경향북스·사진)가 발간됐다. 생활습관병(성인병)과 근골격계 통증, 소화기병, 치아 및 피부질환 등에 대해 전문의 견해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다.<br/><br/><br/><br/>전문가들에 따르면 급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주범은 다름 아닌 황사, 미세먼지, 스모그, 오염된 물, 자외선, 폭염과 강추위, 방사능 등 환경 요인과 더불어 스트레스, 과로, 운동부족, 육류·인스턴스 식품 선호, 흡연, 야식, 수면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다.<br/><br/>최근 늘어나는 암, 당뇨병, 아토피, 심뇌혈관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위식도 및 대장항문병, 관절 및 척추병, 치주염, 정신 질환 등은 한 순간, 단 며칠, 몇 년 동안 등 단기간의 작용보다는 몇 년 이상, 몇십 년, 나아가 평생 동안의 습관과 환경에 따라 그 명암이 갈린다.<br/><br/>이 책은 또한 금연과 절주, 뱃살 줄이기, 기름지고 짠 식사 멀리하기, 제때 건강검진 받기, 약물 오·남용 안 하기 등 필수적인 사항들도 간단명료하게 요약했다.<br/><br/><br/><br/><br/><br/>필자(정책사회부 건강의료 전문기자 박효순)는 “<span class='quot0'>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모종의 거창한 계획을 자주 세우지만 매일매일의 습관이 잘못돼 있다면 그 효과가 떨어질 뿐더러 그릇된 습관으로 인해 결국 건강에 큰 마이너스(손해)가 된다</span>”고 강조한다. 그는 최근 한국의료를 이끄는 46인의 여의학자들을 인터뷰한 <여의열전(女醫列傳)>을 발간해 한국과학기자협회 ‘GSK의학기자상’을 받았다.<br/><br/>박 기자는 “<span class='quot1'>담배연기를 피하고 과음을 삼가며, 달지 않고 싱겁게 먹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쉬게 하는 것 등 몇가지 만으로도 큰 건강의 이득을 얻을 것</span>”이라고 주장했다. 2500원<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94.txt

제목: 연말정산 경정청구, 근로소득세 추가 환급  
날짜: 2015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1110016545144  
본문: 11일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br/><br/>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이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br/><br/>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경정청구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난달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년 3월10일) 다음날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br/><br/><br/><br/><br/><br/>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span class='quot0'>지난 2월 급여로 확인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전년대비 결정세액이 늘어난 직장인들은 놓친 소득(세액)공제가 없는지 확인하라</span>”고 설명했다. <br/><br/>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환자인데 장애인공제 대상인 줄 몰랐거나, 만 60세 미만이라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본인이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가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br/><br/>잘못 내서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경정청구권’은 당초 근로소득에만 보장되지 않다가 납세자연맹 입법청원운동으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5년 이내인 2020년 3월10일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br/><br/>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연말정산이 복잡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사례를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제공하고 있다. <br/><br/>납세자연맹은 “<span class='quot1'>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2009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95.txt

제목: 박종완·이명식 교수 ‘제8회 아산의학상’  
날짜: 2015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10100000126  
본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8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박종완 서울대 의대 약리학교실 교수(기초의학 부문)와 이명식 성균관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임상의학 부문)를 각각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br/><br/>젊은 의학자 부문 수상자로는 김형범 연세대 의대 교수(기초의학 부문)와 박정열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br/><br/>재단에 따르면 박종완 교수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의 세포 반응 연구를 통해 암의 성장 억제 인자를 밝힌 연구업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명식 교수는 세포의 자가포식 연구로 당뇨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br/><br/>김형범 교수는 기존 유전자 가위의 부작용을 줄인 RNA 유전자 가위 개발 성과가, 박정열 교수는 복강경 수술로 부인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치료 가이드라인을 구축한 공로가 각각 높게 평가됐다.<br/><br/>아산의학상은 기초·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국내 의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96.txt

제목: 소아아토피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도와주는 채소, 과일 섭취가 중요!  
날짜: 2015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1010016525715  
본문: 매년 어김없이 찾아 오는 불청객 황사에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은 걱정이 앞선다. 중금속에 오염된 미세먼지로 생길 수 있는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염 등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질병의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채소·과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r/>&nbsp;<br/><strong>면역력 강화에 꼭 필요한 채소·과일는?</strong><br/>&nbsp;<br/><strong>브로콜리(Broccoli)</strong><br/>브로콜리는 누구나 한번쯤은 먹어 봤을 정도로 전세계에 건강에 좋은 채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섬유질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한 녹황색채소 브로콜리는 각종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면역력 강화 채소이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켐페롤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알레르기 반응과 염증 감소에 큰 도움을 준다.<br/>&nbsp;<br/><strong>비트루트(Beetroot)</strong><br/>비트루트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채소지만 고대부터 유럽에서는 채소계의 보석이라 불릴 만큼 인체의 면역력 강화와 독을 걸러내는 정화작용이 뛰어난 붉은 색 뿌리 채소다. 겉모양이 우리나라 순무와 비슷하지만 속이 붉은 빛을 띠어 빨간 무 혹은 사탕무, 레드비트(Redbeet)라 불린다.<br/>&nbsp;<br/>비트루트의 붉은 즙은 베타인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암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작용, 혈전, 혈간, 혈액순환, 항산화작용에 도움을 준다. 유럽사람들은 비트루트를 이용해 샐러드, 구이, 주스, 스프로 만들어 먹으며, 아이들 아토피를 예방하기 위해 이유식이나 간식으로도 만들어 먹는다.<br/>&nbsp;<br/><strong>파프리카(paprika)</strong><br/>파프리카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색깔 별로 그 효능을 각각 다르다. 그 중 면역에 강화와 아토피성 피부염에 도움을 주는 파프리카는 주황색과 빨간색을 띤다. 주황과 빨간색 파프리카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들의 성장촉진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며, 아토피 피부염과 감기예방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br/>&nbsp;<br/><strong>토마토(Tomato), 딸기(strawberry), 수박(Watermelon)</strong><br/>붉은색을 띠는 토마토, 딸기, 수박은 라이코펜이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암세포 성장 억제와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히 한다.<br/>&nbsp;<br/>이외에도 당근, 시금치, 버섯, 양배추, 배, 자두, 오렌지 등도 아토피 예방을 위한 아이들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bsp;&nbsp;&nbsp;&nbsp;<br/>&nbsp;<br/>&nbsp;&nbsp;<br/>&nbsp;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97.txt

제목: 박종완·이명식 교수 ‘제8회 아산의학상’  
날짜: 201503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0910016521386  
본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8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박종완 서울대 의대 약리학교실 교수(기초의학 부문)와 이명식 성균관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임상의학 부문)를 각각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br/><br/>젊은 의학자 부문 수상자로는 김형범 연세대 의대 교수(기초의학 부문)와 박정열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br/><br/>재단에 따르면 박종완 교수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의 세포 반응 연구를 통해 암의 성장 억제 인자를 밝힌 연구업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명식 교수는 세포의 자가포식 연구로 당뇨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br/><br/>김형범 교수는 기존 유전자 가위의 부작용을 줄인 RNA 유전자 가위 개발 성과가, 박정열 교수는 복강경 수술로 부인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치료 가이드라인을 구축한 공로가 각각 높게 평가됐다.<br/><br/>아산의학상은 기초·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국내 의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다.<br/><br/><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98.txt

제목: [세계 여성의 날]대학진학률 74.6%로 남학생보다 높지만 졸업 후 취업은 절반뿐  
날짜: 201503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09100000136  
본문: ▲ 19~24세 6명 중 1명 저체중… 결혼 29.6세, 첫 아이 30.97세<br/>85.6% 강력범죄 피해율 높아… 60대 45.9% 경제적 어려움<br/><br/>한국 여성은 29.6세에 결혼해 30.97세에 첫아이를 낳고, 66.7년을 건강하게 살다가 84.6세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8일 통계청·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자료를 보면 여성 인구가 계속 늘어 지난해 총인구의 50%를 점하고, 올해부터 남성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학생의 74.6%가 대학에 가 남학생 진학률(67.4%)보다 높지만, 대학 4년간 평균 13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사회로 나오고 있다. 19~24세 여성 6명 중 1명(17.5%)은 저체중으로 조사됐고, 대학 졸업 후 2명 중 1명(51.1%)만 취업했다.<br/><br/><br/>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만혼·비혼 추세로 인해 평균 초혼연령은 29.6세까지 늦춰졌다. 첫아이 출산도 30대에 시작돼 30~34세 여성의 출산율(1000명당 113.8명)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 시기 여성들이 출산·육아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63.8%에서 30대 58.4%로 급감하는 ‘경력단절’ 경향을 보였다. <br/><br/>한국 여성은 42.4세에 첫 이혼을 하고 42.5세에 재혼했다. 40대는 이혼 위기와 함께 자녀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시기이기도 하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000원이며, 40대 여성의 76.3%가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느꼈다.<br/><br/>질병·사고로 아프지 않은 시기는 80년이 넘는 기대수명 중 66.7년에 불과했다. 여성의 사망 원인은 암이 10만명당 11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뇌혈관질환(52.8명)이 뒤를 이었고, 치매는 11.9명이 앓았다.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에서 여성이 피해자인 비율은 85.6%로 매우 높았다.<br/><br/>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45.9%는 빈곤 상태에 놓였다. 2013년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 60세 이상 여성 노인의 65.4%는 건강 문제, 55%는 경제적 어려움을 노년의 가장 고달픈 점으로 꼽았다. 빈곤·질병과 외롭게 싸우던 여성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84.6세였다. 지난해 한국에선 21만2000명의 여성이 태어나 12만600명이 생을 마쳤다.

언론사: 경향신문-1-999.txt

제목: [세계 여성의 날]대학진학률 74.6%로 남학생보다 높지만 졸업 후 취업은 절반뿐  
날짜: 201503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101.2015030810016508860  
본문: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통계로 본 한국 여성의 삶</strong><!-- SUB\_TITLE\_END--><br/><br/><b>▲ 19~24세 6명 중 1명 저체중… 결혼 29.6세, 첫 아이 30.97세<br/>85.6% 강력범죄 피해율 높아… 60대 45.9% 경제적 어려움</b><br/><br/>한국 여성은 29.6세에 결혼해 30.97세에 첫아이를 낳고, 66.7년을 건강하게 살다가 84.6세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8일 통계청·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자료를 보면 여성 인구가 계속 늘어 지난해 총인구의 50%를 점하고, 올해부터 남성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학생의 74.6%가 대학에 가 남학생 진학률(67.4%)보다 높지만, 대학 4년간 평균 13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사회로 나오고 있다. 19~24세 여성 6명 중 1명(17.5%)은 저체중으로 조사됐고, 대학 졸업 후 2명 중 1명(51.1%)만 취업했다.<br/><br/><br/>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만혼·비혼 추세로 인해 평균 초혼연령은 29.6세까지 늦춰졌다. 첫아이 출산도 30대에 시작돼 30~34세 여성의 출산율(1000명당 113.8명)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 시기 여성들이 출산·육아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63.8%에서 30대 58.4%로 급감하는 ‘경력단절’ 경향을 보였다. <br/><br/>한국 여성은 42.4세에 첫 이혼을 하고 42.5세에 재혼했다. 40대는 이혼 위기와 함께 자녀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시기이기도 하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000원이며, 40대 여성의 76.3%가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느꼈다.<br/><br/>질병·사고로 아프지 않은 시기는 80년이 넘는 기대수명 중 66.7년에 불과했다. 여성의 사망 원인은 암이 10만명당 11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뇌혈관질환(52.8명)이 뒤를 이었고, 치매는 11.9명이 앓았다.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에서 여성이 피해자인 비율은 85.6%로 매우 높았다.<br/><br/>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45.9%는 빈곤 상태에 놓였다. 2013년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 60세 이상 여성 노인의 65.4%는 건강 문제, 55%는 경제적 어려움을 노년의 가장 고달픈 점으로 꼽았다. 빈곤·질병과 외롭게 싸우던 여성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84.6세였다. 지난해 한국에선 21만2000명의 여성이 태어나 12만600명이 생을 마쳤다.<br/><br/><br/><br/><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